CR 62 (CO 34)

칼빈의 욥기 설교

제2권 · 설교 제62–118편

AI 초벌 번역판 · 신학 감수 전

존 칼빈의 설교
Ioannis Calvini Opera quae supersunt omnia, vol. 34 (Corpus Reformatorum 62), Brunsvigae 1887. CCEL 디지털본 (ccel.org/ccel/calvin/sermons) 기준, 판독이 의심스러운 곳은 1563년 제네바 초판으로 확인.

AI 초벌 번역판 · 신학 감수 전

AI로 옮긴 초벌 번역입니다. 신학 감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CO 권: 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번역문은 CC0 1.0 퍼블릭 도메인으로 공개합니다.

일러두기

- 원문은 칼빈 전집(Corpus Reformatorum) 34권에 실린 16세기 프랑스어 본문이며, CCEL 디지털본을 저본으로 삼았습니다.
- 본문 사이의 작은 표시 CO 5 는 전집 34권의 쪽수입니다. 그 표시 뒤의 내용부터 해당 쪽에 실려 있습니다.
- 설교체를 살려 합쇼체로 옮겼습니다. 설교 첫머리 본문 상자와 설교 안의 성경 인용은 칼빈이 읽은 프랑스어 본문을 옮긴 것이며, 장절 표기는 개역한글판을 따랐습니다.
- 원문에 표기된 성경 장절이 실제 구절과 맞지 않는 곳은 바로잡고 각주에 원래 표기를 밝혔습니다. 프랑스어 성경의 시편 절수는 한국어 성경 절수로 바꾸었습니다.
- 설교 끝의 기도는 원문대로 옮겼습니다. 원문이 첫머리만 적고 “등” 으로 줄인 곳은 번역도 첫 문장만 옮겼습니다.
- 전자텍스트의 판독 오류는 1563년 제네바 초판(Bibliothèque de Genève 소장, e-rara-5810)에 따라 바로잡고 각주로 밝혔습니다.
- 이 판은 번역지침 v3에 따라 원문과 쪽마다 대조해 고치고, v3.1 용어 결정을 반영한 검토 초안(2026-11-24)입니다.

차례

제62편 욥기 16장 설교 1(15:35; 16:1–9) 7
제63편 욥기 16장 설교 2(16:10–17) 24
제64편 욥기 16장 설교 3(16:17–22) 41
제65편 욥기 17장 설교 1(16:22–17:5) 57
제66편 욥기 17장 설교 2(17:6–16) 74
제67편 욥기 18장 설교 1(18:1–11) 91
제68편 욥기 18장 설교 2(18:12–21) 107
제69편 욥기 19장 설교 1(19:1–12) 124
제70편 욥기 19장 설교 2(19:7–16) 142
제71편 욥기 19장 설교 3(19:17–25) 160
제72편 욥기 19장 설교 4(19:25–29) 177
제73편 욥기 20장 설교 1(20:1–7) 195
제74편 욥기 20장 설교 2(20:7–15) 211
제75편 욥기 20장 설교 3(20:15–20) 229
제76편 욥기 20장 설교 4(20:20–25) 246
제77편 욥기 20장 설교 5(20:26–29) 262
제78편 욥기 21장 설교 1(21:1–6) 279
제79편 욥기 21장 설교 2(21:7–12) 295
제80편 욥기 21장 설교 3(21:12–15) 311
제81편 욥기 21장 설교 4(21:16–21) 329
제82편 욥기 21장 설교 5(21:22–34) 346
제83편 욥기 22장 설교 1(22:1–8) 364
제84편 욥기 22장 설교 2(22:6–11) 382
제85편 욥기 22장 설교 3(22:12–17) 398
제86편 욥기 22장 설교 4(22:15–22) 415
제87편 욥기 22장 설교 5(22:22–27) 432

제88편 욥기 23장 설교 1(22:28–23:7) 450
제89편 욥기 23장 설교 2(23:7–12) 467
제90편 욥기 23장 설교 3(23:12–17) 484
제91편 욥기 24장 설교 1(24:1–9) 501
제92편 욥기 24장 설교 2(24:10–18) 517
제93편 욥기 24장 설교 3(24:19–25) 534
제94편 욥기 25장 설교 1(25:1–6) 551
제95편 욥기 26장 설교 1(26:1–7) 568
제96편 욥기 26장 설교 2(26:8–14) 585
제97편 욥기 27장 설교 1(27:1–4) 601
제98편 욥기 27장 설교 2(27:5–8) 619
제99편 욥기 27장 설교 3(27:8–12) 637
제100편 욥기 27장 설교 4(27:13–19) 654
제101편 욥기 28장 설교 1(27:19–28:9) 671
제102편 욥기 28장 설교 2(28:10–28) 688
제103편 욥기 28장 설교 3(28:10–28) 706
제104편 욥기 29장 설교 1(29:1–7) 723
제105편 욥기 29장 설교 2(29:8–13) 740
제106편 욥기 29장 설교 3(29:13–17) 757
제107편 욥기 29장 설교 4(29:18–25) 774
제108편 욥기 30장 설교 1(30:1–10) 791
제109편 욥기 30장 설교 2(30:11–21) 808
제110편 욥기 30장 설교 3(30:21–31) 824
제111편 욥기 31장 설교 1(31:1–4) 842
제112편 욥기 31장 설교 2(31:5–8) 860
제113편 욥기 31장 설교 3(31:9–15) 877
제114편 욥기 31장 설교 4(31:16–23) 893
제115편 욥기 31장 설교 5(31:21–28) 912

제116편 욥기 31장 설교 6(31:26–32) 929
제117편 욥기 31장 설교 7(31:33–34) 947
제118편 욥기 31장 설교 8(31:35–40) 964

제62편

욥기 16장 설교 1

CO 34:1–13

AI로 옮긴 초벌 번역입니다. 신학 감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CO 권: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 욥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이런 말은 내가 여러 번 들었네. 자네들은 모두 괴로움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군. 바람 같은 말이 언제 끝나겠는가? 누구를 힘입어 자네가 대답하려는가? 나도 자네들처럼 말할 수 있네. 자네들의 처지가 내 처지라면, 나도 자네들과 말을 주고받으며 자네들을 향해 머리를 흔들 수 있을 것이네. 나도 말로 자네들을 굳세게 하고, 내 말로 고통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이네. 그러나 내가 말해도 내 고통이 줄지 않고, 내가 잠잠해도 무슨 덜함이 있겠는가? 그분이 나를 괴로움으로 짓누르시고, 내 온 무리를 황폐하게 하셨네. 그분이 나를 주름으로 말라붙게 하여 증거로 삼으셨으니, 여윔이 내게 닥쳐 내 얼굴에서 증언하네. 그분이 진노하여 나를 찢으시고 사납게 다루시며, 나를 향해 이를 가시네. 내 원수가 나를 엿보며 눈을 부릅뜨고 나를 노려보네. (욥 16:1–9)

이 설교에는 15장 마지막 절의 남은 부분도 들어 있습니다.

CO 1 엘리바스는 악인들과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고 모든 일이 그들에게 거꾸로 돌아가리라고 말한 뒤, 결론으로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들은 괴로움을 잉태하여 고통을 낳을 뿐이고, 그들의 배는 간계와 속임을 기른다는 것입니다. 이 말로 그는 악인들이 지닌 겉모습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그들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생각한 것을 모두 뒤집으셔서 그들의 기대가 헛되게 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물론 이 말씀을 엘리바스가 제시하는 이유처럼 풀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악인들과 위선자들을 괴롭히시고 저주하시는 데에는 까닭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까닭입니까? 그들은 온 세상을 향해 악을 꾸미는 일밖에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이웃을 괴롭힌 만큼 같은 분량으로 그들에게 되갚아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은 이런 말투를 자주 씁니다. 시편 7편(14절)[1]이 그렇고, 이사야 59장(4절)도 같은 말을 합니다.

CO2 그러므로 성령께서 사람들이 그 모든 계획과 생각과 감정에서 악과 죄에 빠져 있다는 것을 밝히려 하실 때, 아이를 낳으려고 잉태하는 여인의 비유를 쓰십니다. 사람들이 고통, 곧 이웃을 괴롭히고 억누르려는 해악을 잉태하면 죄악을 낳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생각했던 악을 실행에 옮깁니다. 그러나 그런 뜻은 이 구절에 맞지 않습니다. (이미 말했듯이) 엘리바스는 하나님께서 왜 악인들을 그렇게 대적하시는지 그 이유를 앞에서 충분히 밝혔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악인들이 좋은 소망을 품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기들이 계획한 일을 모두 이루리라고 생각할지라도, 결국에는 수치를 당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형통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복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마음에 어떤 소망을 키우더라도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뒤엎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곳은 여기만이 아닙니다. 이사야 26장(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산고를 겪었으나, 우리가 잉태하여 낳은 것은 바람뿐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며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죄를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들이 산고를 겪는 여인처럼 괴로웠다고 말하는 그 기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 때문에 그들을 정당하게 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람을 잉태하여 낳았다고 말합니다. 곧 자기들의 고난이 좀 덜해지기를 기다렸지

1. 원문에는 “시편 7편 15절“로 되어 있습니다. 프랑스어 성경은 시편의 표제를 1절로 세므로, 한국어 성경의 절수로 바꾸었습니다.

만 그 모든 것이 바람과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고, 오랫동안 시달린 뒤에도 고난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CO3 여기서 엘리바스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악인들은 괴로움만 잉태하고 자신에게 해로운 것만 낳으며, 그들의 배는 속임을 기른다는 것입니다. 곧 헛되고 이루어지지 않을 소망을 기르는데, 결국 그 소망에 속고 말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33장(11절)에서 당신의 말씀을 무시할 뿐 아니라 그 말씀에 마음을 굳게 한 멸시자들에게 하신 위협이기도 합니다. "보라, 너희가 겨를 잉태하고 오물을 낳는다."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너희는 내 말씀을 거슬러 고집을 부리고 있다. 너희가 저지른 악이 무엇인지, 너희가 얼마나 내 진노를 불러일으켰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아무리 스스로 비위를 맞추어도 소용없다. 너희는 그 모든 아첨으로도 너희가 잉태한 것이 겨와 짚뿐이며 모든 것이 바람에 날아가 버린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너희의 모든 아첨이 너희에게 아무 유익도 주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엘리바스의 의도가 무엇인지 요약해서 봅니다. 악인들이 한동안 편안히 지낼 수 있고, 하나님께서도 그들이 어떤 기대를 품고 살지 못할 만큼 세게 몰아붙이지는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싫어하더라도) 그들을 몰아붙이실 것입니다. 그들 속에는 그들을 갉아먹는 벌레가 있을 것이고, 그들의 양심이 끊임없이 그들을 들쑤실 것이며, 남몰래 그들을 괴롭히는 가책과 찔림이 있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들에게 너무도 강하고 지나친 괴로움을 보내셔서, 그들이 속에 길러 왔던 것을 밖으로 낳게 하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배가 잉태한 것은 속임뿐이기 때문입니다. 곧 그들이 처음에는 자기들의 악을 느끼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는 동안 그들은 스스로를 망치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저것을 자신에게 약속하겠지만, 그 모든 일에는 속임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제 욥의 대답으로 넘어갑시다. 그는 먼저 이런 말을 여러 번 들었다고 말하고, 그러므로 그들이 괴로움을 주는 위로자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성가신 말로 욥에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을 여러 번 들었다고 하면서, 그는 자기에게 흔하고 평범한 처방을 가져와서는 안 되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의 고난이 너무나 크고 극심했으므로, 다정하고 그에게 도움이 될 만한 위로를 가져왔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지나치지 않게 고난을 겪는 사람에게 인사치레로 하듯 그런 말을 늘어놓아서는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욥이 이런 말을 여러 번 들었다고 하면서 무엇을 말하려는지 압니다. 물론 누가 우리에게 전에 알던 위로를 가져오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배우고 CO4 인내하라는 권면을 받는다 해도, 그것은 우리에게서 빠져나가 버려서 우리는 거의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그 말이 우리에게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누가 전에 들었던 것을 다시 일깨워 준다면, 그것을 쓸데없는 말이라고 생각하지 맙시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전에 듣고 깨달은 것을 실천하는 일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그럴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에 깊이 감동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괴로움과 슬픔으로 몰아붙이시면, 그때 그분은 당신의 말씀에서 끌어낸 위로를 우리가 맛보게 하십니다. 실제로 욥은 늘 무언가 새로운 것을 탐하고, 같은 말을 두 번 듣는 것을 참지 못하는 까다로운 사람들 같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건 이미 들었어. 그런 말로 귀가 따가울 필요는 없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도 그들은 모든 것을 잘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되풀이해 말해 주는 것은 우리의 큰 유익과 진보를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떤 가르침이 흔하다는 이유로 그것을 무시할 만큼 짜증을 내지 않았습니다. 또 무슨 진기한 것을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이미 말했듯이) 그는 자기 고난이 너무나

엄청나서 특별한 방식으로 위로를 받아야 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흔한 병에는 가벼운 약을 씁니다. 그러나 병이 독하면 의사는 더 깊이 다루어야 합니다. 만일 의사가 모든 병에 같은 약을 쓰려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버지나 아내나 자녀를 잃어 슬퍼하거나 무슨 손해를 입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에게는 적당한 위로, 곧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위로를 가져다주면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한 가지 방식으로만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사방에서 자기를 치신다고 느낀다고 합시다. 한 가지 불행이 닥치고 나서 두 번째, 세 번째 불행이 닥치고, 그가 자기 몸과 자기 자신과 재산과 친구들에게서만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욥에게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깊은 구렁에 빠뜨리려 하시는 것 같은 영적 시험까지 당한다면, 그때는 훨씬 더 섬세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마음이 꺾인 가련한 사람을 괴롭히려 든다면, 그에게 무엇을 가져다준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차라리 입을 다물고, 사람이 하지 못하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채우시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욥이 말하려 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의 재판관이심을 나타내시려고 악인들을 벌하신다는 것과, 악인들이 아무리 무장해도 CO5 그분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들에게 아무리 많은 추종자와 무리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모두 멸하시리라는 것을 내세웁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말을 욥에게 적용하려 한다면, 그것은 욥이 악하고 그에게는 위선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수로 두게 되었다고 그에게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 적용된 말입니다. 그러므로 욥이 이렇게 말하는 데는 까닭이 있습니다. "그래, 이런 것들은 나도 알고 있네. 내게 필요하다면 지금이라도 써먹을 것이네. 그러나 지금 문제는 그것이 아니네." 욥은 자기가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그런 점을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그가 자기를 죄 없는 사람으로 여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엄격하게 따지려 하셨다면 그는 이보다 더 큰 고난을 겪어도 마땅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다루시는 것이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어서라는 것을 압니다. 이것을 알기에 욥은 자기에게 건네진 말들을 물리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말들이 엉뚱하기 때문입니다. "자네들은 괴로움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군" 하고 그는 말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에게 알맞은 처방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이웃의 슬픔과 괴로움 속에서 그들을 위로하려 할 때 아무렇게나 덤벼들지 말라는 경고를 받습니다. 많은 사람이 언제나 한 가지 노래만 부르고, 자기가 말을 건네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살피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다르게 다루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을 거슬러 고집을 부리는 사람이 있다면, 순수하게 살아온 가련한 사람에게 하듯 말해서는 안 되고 다른 말투와 언어로 말해야 합니다. 또 고난이 어떠한지에 따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무감각하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손을 깨닫고 그 아래에서 겸손해지도록 큰 소리로 그 무관심을 꾸짖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사람들을 마땅히 위로하려면 큰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욥을 위로하려던 사람들이 괴로움을 주는 자들이었다고, 그들이 욥에게 유익이 될 만한 것을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다고 하는 이 구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먼저 마음에 새겨야 할 점입니다.

이어서 욥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바람 같은 말이 언제 끝나겠는가?" 그는 아무 확고함이 없는 말, 곧 사람을 세워 줄 수 없는 말을 바람 같은 말이라고 부릅니다. 성경도 이 비유를 씁니다. 사람이 구원에 이르도록 가르침을 받는 일을 두고 그를 "세운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세웁니까? 먼저 기초를 놓고, 그 위에 집을 짓듯 쌓아 올려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굳게 서고, 율법에 굳게 서고, 고난을 꿋꿋이 견디는 인내에 굳게 서게

합니다. 그리고 그는 CO6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을 부르며 그분께 피하기로 결심합니다. 반대로 말이 그저 머리를 휘젓기만 하고, 사람이 수다를 떨고 재잘거리는데 그 사이에 구원에 적용할 좋은 가르침을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은 바람 같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권면이나 가르침에 나서려 할 때는 무엇보다도 이 확고함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곧 우리 말을 듣는 사람들이 무언가 좋은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을 따라 걷는 데 익숙해지고, 그분의 자비를 신뢰하는 데 뿌리를 내리며, 의심하거나 망설이지 않고 응답받을 줄 알고서 그분을 부르는 데 힘쓰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웃을 그런 확고함 속에서 가르치는 데 힘써서, 우리가 배운 것이 바람처럼 흘러가 버리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도 그런 가르침을 목표로 삼아서, 바람으로 배를 채우기를 원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호기심 많은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매달려 자기들의 귀를 즐겁게 해 주고 헛된 공상을 만족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이것저것을 상상해 내고, 사람들이 자기들의 비위를 맞추느라 아무 덕도 세우지 못하는 일들을 두고 논쟁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은 이 악덕에 너무나 기울어 있고, 아예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자기 욕심을 따르려 한다면, 이것저것에 관한 쓸데없는 이야기만 늘어놓다가 그 이야기가 허공에 흩어져 버릴 것이 분명합니다. 거기에는 아무 확고함도 없고 바람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믿음에, 인내에, 그리고 모든 좋고 유익한 일에 세워 주는 데 좋고 알맞은 것을 찾기를 배웁시다. 욥이 바람 같은 말을 언급하는 이 구절에 관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우리는 우리 자신도 돌아보아서, 누가 우리에게 하는 모든 말을 바람 같은 것이라며 물리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거기에 무슨 헛된 것이 있는지, 아니면 좋은 가르침이 있는지 맛보고 분별해서, 그것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누가 우리에게 좋은 가르침을 전할 때, 그것이 우리의 게으름 때문에 흘러가 버리지 않게, 바람에 날려 가 버리지 않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합시다. 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올 때, 거기에는 언제나 무언가 좋은 가르침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거기서 거의 유익을 얻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자기의 모든 감각과 정신을 거기에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에 그들은 이리저리 날아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바람처럼 지나가 버립니다. 그것은 그들 속에 좋은 확고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제대로 적용하려면, CO7 (이미 말했듯이) 우리 각자가 자기 자신을 가까이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이어서 욥은, 친구들이 자기 처지에 있다면 자기도 그들처럼 말할 수 있고, 그들과 말을 주고받으며 다투고, 그들을 향해 머리를 흔들 수 있으리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구절을 이렇게 풀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욥이 그들이 그렇게 괴로움을 당하는 것을 본다면 그들에게 똑같이 갚아 주려 하지 않고, 그들이 자기에게 하듯 그들의 슬픔을 더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고난을 누그러뜨리고 무언가 위로를 주려 하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잔인함을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이 거룩한 사람을 절망에 빠뜨리는 일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런 이유에서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서 당신의 손을 거두셨을 때 욥이 복수하려 한다면, 그리고 그가 편안해진 뒤에 비슷한 재난을 당한 가련한 사람들을 비웃으려 한다면, 그것은 합당한 일이 아닐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겪은 고난만으로도 그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동정을 베풀기를 배워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잘 살펴보면, 욥은 여기서 자기가 무엇을 하겠다고 밝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일부러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갚아 주려 한다는 뜻이 아니라, 다만 자기가 그들 같은 처지라면 자기도 비웃을 수 있으리라는 뜻입니다. 요컨대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들은 편안한 자리에서 말하고 있네. 자네들은 여기서 나를 향해 머리를 흔드네. 나를 정죄하는 데 자네들에게는 아무 대가도 들지 않네. 심지어 나를 깊은 구렁 속까지 처박는 데도 말이네. 자네들은 고난을 겪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네. 내가 자네들의 처지라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손이 자네들을 끝까지 몰아붙이시는 것을 보면서 내가 자네들의 재난을 두고 머리를 흔든다면, 자네들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 내가 '아, 잘된 일이야. 하나님께서 자네들을 징계하셔서 그분이 죄인들을 어떻게 치시는지 느끼게 하셔야 해' 하고 말한다면, 자네들에게 수치밖에 없을 때 내가 그렇게 말한다면, 자네들은 내가 비웃는 자요 잔인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겠는가? 그러니 이제 자네들 자신을 생각해 보게." 이것이 욥의 의도를 요약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욥이 여기서 복수심에 불타지 않았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누가 자기를 괴롭히면, 자기가 당한 해악을 두 배로 갚아 줄 힘을 손에 쥐고 싶어 합니다. 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스스로를 제어해야 합니다. 누가 우리를 괴롭히고 고통을 주더라도, 우리를 그렇게 부당하게 핍박한 사람들에게 덤벼들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그들을 우리에게 보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CO 8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욥의 본을 따라, 까닭 없이 우리를 괴롭히러 오는 사람들에게 우리도 그들에게 똑같이 갚아 줄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 줄 수는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자기 자신이 직접 당하기 전까지는 결코 자기 잘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해악이 자기 머리 위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면, 그때 그는 자신을 억제하고 “아니,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하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른 공평으로 이끄시려고 “네가 남에게 받고 싶은 것 말고는 네 이웃에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너희가 이웃을 상대할 때는 모든 공평과 정직으로 대하도록 조심하라. 남의 재물을 빼앗으려는 악한 탐욕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며 부자가 되기를 탐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실제로 그분은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결론으로 그분은 이 말씀을 두십니다.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자기 이익이 걸린 문제에서는 누구나 대단한 학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얼마나 잘 따집니까? “아니, 아무개가 내게 이런 모욕을 주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할 짓인가? 무슨 공평이 있는가? 이것은 비열하고 잔인한 사람이나 하는 짓이 아닌가?” 이처럼 자기 이익이 걸린 문제에서는 누구나 이치와 공평과 정직을 잘 따집니다. 욥이 친구들을 이끌어 가려는 자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들이 눈이 멀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들이 자기처럼 그런 극한 처지에 있다면, 사람들이 자기들을 더 부드럽게 대해 주기를 바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들을 이 타고난 공평으로 데려가서, 그들과 자기를 견주어 보게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자네들이 지금 내가 있는 처지에 있다면, 내가 자네들이 내게 하는 말을 자네들에게 하는 것이 옳겠는가? 자네들이 내게 하는 식으로 누가 자네들을 대한다면, 자네들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 그때 그들은 마음이 움직였어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말했듯이) 우리가 우리 자신 밖에 있는 동안에는, 곧 그 일이 우리와 상관없고 우리에게 닿지 않는 동안에는, 우리는 마구잡이로 덤벼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우리에게 닿으면, 아, 그때 우리는 자기 자신을 더 잘 살피기를 배웁니다. 이것이 욥이 말하려 한 것의 요지입

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좋은 가르침을 거둘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인용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곧 우리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만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져 있고, 우리 안에는 일반 원리들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우리의 판단이 그토록 부패하고 비뚤어져서 언제나 거꾸로 끌려가는 것입니까? 이것 말고는 다른 까닭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CO 9 좋은 규범을 주신 뒤에도 우리가 야망과 미움과 교만과 탐욕에 휘둘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비뚤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야망이 있어서, 우리 자신을 내세우려고 이웃을 업신여기게 된다면, 우리 안에 경솔함이 있어서 사안의 시비를 잘 알기도 전에 판결을 마구 내던진다면, 우리가 교만에 이끌려 우리보다 앞서가는 사람들을 끌어내리고 우리가 앞서려 한다면, 우리가 미움과 악의에 부추김을 받거나 사랑이나 편애에 눈이 멀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자신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마음을 열어 바르게 판단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자, 이것이 너 자신의 일이라면 너는 뭐라고 말하겠느냐?" 이렇게 해야 우리는 지혜롭고 분별 있고 침착하게 될 것입니다. 곧 우리가 남에게 던지는 것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볼 때입니다. 우리는 (말했듯이) 그만큼 자기 욕심과 이익에 빠져 있고, 본성이 우리를 거기에 붙잡아 두어서, 누구나 자기를 사랑합니다. 그것도 지나치게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이 악덕이 우리에게서 발견될 때 우리는 그만큼 더 변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정직과 공평을 따르라는 권면을 그토록 자주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셔서, 당신의 성령으로 이 악덕이 덕으로 바뀌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무엇 때문에 각 사람이 자기 분수를 벗어나고, 우리가 이웃을 업신여기면서

우리 자신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들은 이 말씀, 곧 우리는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지 못할 만큼 자기 자신에게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충분히 부지런히 실천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우리가 모두 같은 본성을 지녔다는 것을 생각해야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그분은 우리와 결합된 사람들과 참된 형제애로 화목해야 한다는 것도 보여 주십니다. 욥이 자기를 부당하게 고발하는 사람들에게, 그들도 남이 자기들에게 똑같이 하기를 원치 않을 것이니 그렇게 그의 인내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일깨우는 이 구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요약하면 이것이 우리가 거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잠잠하겠지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내가 말한다고 무슨 덜함을 얻겠는가?" 욥은 여기서 누가 자기에게 할 수 있는 반박을 미리 막으려 합니다. 친구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능란한 사람이니 자네 자신이나 위로하게. 우리가 그런 처지라면 자네가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니, 이제 자네 자신에게 자네의 모든 재주를 펼쳐 보게." 그러나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무나 비참한 처지에 있어서 더는 어찌할 수가 없네. 그러니 CO 10 어떤 소망을 품어야 할지 모르겠네.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이상한 방식으로 몰아붙이셔서, 내가 말하면 내 고통만 더할 뿐이고, 잠잠해도 내게는 아무 덜함이 없네. 그러니 나는 온갖 고난에 삼켜진 사람과 같네." 요약하면 욥이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말을 하든 잠잠하든 그는 어떤 식으로도 고통을 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시편 32편(3절)에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그의 고난이 그를 너무나 짓누르고 괴롭혀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무슨 처방을 찾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탄식하며 그렇게 하면 내 고통이 좀 누그러지리라 생각했을 때, 불이 더 타올랐다. 내가 입을 다물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있으려 했을 때도, 내 마음은 똑같

이 괴로웠고 갈기갈기 찢기는 것 같았다. 그때 내 고통이 나를 너무도 세게 짓눌렀으나, 그렇다고 고통이 줄어들지는 않았다." 또 다른 곳에서 그는 악인들이 득세하는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고 벙어리처럼 있기로 작정했다고 말합니다(시 39:1–3).[2]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 결심을 지킬 수 없었다. 내가 그렇게 나를 억누르려 했을 때, 결국 끓어오르는 것이 터져 나오고 말았다." 불이 세면 냄비에 뚜껑을 덮어도 거품이 어느 쪽으로든 넘쳐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꼭 기억할 만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병이나 가난을 보내실 때, 우리는 일찍이 우리만큼 혹독하게 다루어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거나 온갖 조바심으로 몰아가는 원인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거슬러 일어서게 되는 원인입니다. 또는 우리보다 앞서 산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괴롭히셨더라도 우리만큼 연약하지 않았고, 심지어 아무런 격정도 느끼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또한 우리의 괴로움을 더하는 원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것을 기억합시다. 곧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말하자면) 그분이 사랑하시고 그 구원을 귀하고 소중히 여기신 사람들을 그토록 몰아붙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그들을 그런 극한까지 몰고 가셔서, 그들이 더는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모르고, 말할 줄도 잠잠할 줄도 모르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데는 까닭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큰 덕을 갖추고 성령께서 주신 그런 굳셈을 지닌 사람이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정신을 잃을 지경에 이른 것을 볼 때, 우리는 그것을 우리 유익으로 삼읍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혹독한 시험을 보내셔서 우리가 끝에 이르러 더는 어찌할 수 없게 되더라도, 그것을 새삼스럽게 여기지 맙시다. 우리가 처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길을 보여 줍니다. 그는 그런 수렁에서 빠져나왔습니다.

2. 원문에는 "시편 39편 2절"로 되어 있습니다. 프랑스어 성경의 절수를 한국어 성경의 절수로 바꾸고, 인용된 내용에 맞추어 1–3절로 표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CO 11 더할 나위 없이 낮추신 뒤에도, 그를 도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동안 꺾여 있었더라도, 그분이 우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리라는 것을 의심하지 맙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본보기들을 눈앞에 두는 것이 좋고 또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를 지나치게 지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시험이 우리를 짓눌러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우리는 이렇게 되새길 것입니다. "그래, 우리보다 앞서 간 하나님의 종들이 여기 있다. 그들은 큰 은사를 받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탄식해야 했고 어찌할 바를 몰랐다.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으로 그들에게서 모든 교만을 벗겨 내려 하셨고, 그들이 그분 아래에서 머리를 숙여야 한다는 것을 실제 경험으로 가르치려 하셨다." 그리고 오늘 그분이 같은 방법을 써서 우리를 낮추기를 기뻐하신다면, 그 끝이 그와 같기만 하다면, 그 사이에 우리가 고난을 겪어야 할지라도 그 때문에 마음을 괴롭히지 맙시다. 모든 것이 우리의 큰 유익과 구원으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담긴 가르침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이어서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너무나 몰아붙이셔서 마치 자기를 갈기갈기 찢으려 하시는 것 같다고 덧붙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우리가 앞에서 이미 본 것을 나타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를 몸으로만 괴롭히신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크고 더 혹독한, 아니 쓰라린 시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철천지원수처럼 되셨기 때문에 그가 속으로 괴로움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는 자기 몸의 여윔이 마치 낙인과 같고 하나님의 진노의 증거와 같다고, 자기 몸이 주름지고 살이 온통 반쯤 썩은 것 같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서운 고난의 흔적을 분명히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당신의 매로 징계하시는 사람들을 다루는 보통 방식으로 다루지 않으신다는 것도 봅니다. 그의 고통은 지나칩니다. 그러니

요약하면 욥이 표현하려 한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탁월한 덕을 지닌 사람들 안에 우리를 위한 거울을 주셔서, 그들에게서 이것을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곧 그분은 당신의 성령의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만큼, 그 은사들이 빛을 발하고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그들에게 큰 고난을 보내시고 그들을 시험하시며, 요컨대 그들을 끝까지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았는데, 평범한 사람처럼이 아니라 천사처럼 인도를 받았고, 더할 나위 없이 탁월함과 완전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다루셨습니까? 아브라함이 견디고 이겨낸 싸움의 십분의 일이라도 우리가 견뎌야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CO 12 우리를 아끼십니다. 그분이 그에게 주신 것처럼 탁월한 은사를 우리에게 넉넉히 주지는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지자였을 뿐 아니라 거룩하고 택함 받은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었고, 기억하고 칭송할 만한, 아니 감탄할 만한 덕을 지녔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이리저리 끌고 다니셨습니까? 우리는 그가 하는 탄식을 봅니다. 그는 그저 멸시받고 버림받은 사람처럼 탄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자기를 고문대에 매어 두셔서, 자기가 이른 극한을 드러내 보일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가 그토록 자주 자기가 불과 물을 지나왔다고, 가장 깊은 구렁에 던져졌다고, 하나님의 모든 화살을 맞았고 그분의 모든 화살이 자기를 향해 쏘아졌다고, 하나님의 손이 자기를 무겁게 누르셨다고, 자기 뼈마저 부서져서 골수도 진액도 남지 않았다고 말하는 데는 까닭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들으면 거의 우스갯소리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생생한 그림을 그려 두셔서, 우리가 앞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큰 덕을 주시는 만큼 그들을 혹독하게 단련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 덕이 놀고 있지 않고, 때와 장소에

맞게 드러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 밖에 우리가 주목할 것은, 신자들이 일찍이 견딘 가장 큰 시험은 우리가 영적 싸움이라고 부르는 것이었다는 점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들의 양심 속으로 그들을 불러내셔서 당신의 진노를 느끼게 하시고, 그들을 몰아붙이셔서 그들이 그분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알 수 없게 하신 때입니다. 이것은 또한 일어날 수 있는 몸의 모든 고난보다 그들을 더 깊이 파멸에 빠뜨릴 만한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해 이를 가셨다는 비유를 쓰는 까닭도 여기에 있습니다. 히스기야도 같은 시험을 거쳤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사 38:13–14).[3] 그는 "하나님께서 내게 사자와 같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보다 앞서 여기 나오는 비유, 곧 말할 줄도 잠잠할 줄도 몰랐다는 비유도 썼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제비 같아서 지저귀고 중얼거릴 뿐, 내 고통을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없고 혀가 풀리지 않는다." 그러고 나서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 뼈를 꺾고 부수셨다고, 마치 사자가 자기를 발톱과 이빨 사이에 물고 있는 것 같다고 밝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잔인한 짐승인 사자에 견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잔인하다고 고발하려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진노가 자기 위에 있을 때 자기가 느낀 두려움과 자기가 겪은 무서운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련한 피조물이 이런 의심, 곧 자기가 CO 13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한 의심에 빠지고, 그분이 자기에게 당신의 선하심을 느끼게 하시려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 그는 마치 늑대의 발톱 사이에 있는 것처럼 그런 고통과 큰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진노를 느끼는 것, 특히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대적하신다고 깨닫는 것이 사람에게 하찮은 일이라고 상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아 주시고 아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그분이 그 짐을

3. 원문에는 "이사야 38장 3, 14절"로 되어 있습니다. 사자의 비유는 13절에, 제비의 비유는 14절에 있으므로 바로잡았습니다.

질 어깨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런 짐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향해 그런 엄격함을 쓰셔서 우리가 그분을 사자처럼 느끼게 하지 마시기를 기도합시다. 오히려 그분이 언제나 우리의 아버지로 나타나시고,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대로 우리를 벌하지 마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언제나 당신의 자비를 느끼게 해 주시기를 구합시다. 그리하여 그분이 이 세상의 삶에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뒤에, 그분이 그토록 값비싸게 얻어 주신 당신의 천사들의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들어 올려 주시기를 구합시다.

이제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엎드립시다.

제63편

욥기 16장 설교 2

CO 34:14–25

AI로 옮긴 초벌 번역입니다. 신학 감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CO 권: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 그들이 나를 향해 입을 벌리고, 모욕하며 내 뺨을 치고,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네. 하나님께서 나를 악한 자들의 손에 넘기시고, 악인들 앞에서 나를 두렵게 하셨네. 내가 형통하였는데 그분이 나를 꺾으시고, 내 목을 붙잡으시고, 나를 당신의 과녁으로 세우셨네. 그분의 궁수들이 사방에서 나를 에워싸고, 그분이 내 콩팥을 가르시며 조금도 아끼지 않으시고, 내 쓸개를 땅에 쏟으시네. 그분이 나를 부수고 또 부수시며, 거인처럼 내게 달려드셨네. 내가 내 살갗에 굵은 베를 꿰매어 입고, 내 영광을 티끌로 덮었네. 내 얼굴은 눈물로 흐려지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덮였네. 그러나 내 손에는 속임이 없고, 내 기도는 깨끗하네. (욥 16:10–17)

CO 14 하나님께서 죽을 인생을 대적하여 일어나셔서 마치 당신이 그의 맞상대인 것처럼 느끼게 하실 때, 그것은 사람에게 참으로 무겁고 혹독한 일입니다. 이 고난이 얼마나 큰지는 겪어 보지 않고는 아무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욥은 우리가 본 것처럼 사자의 비유를 써서, 자기가 사자에게 찢기듯 하나님께 갈기갈기 찢기고 삼켜졌다고 말합니다. 히스기야 왕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미 말했듯이) 그것은 하나님을 잔인하다고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련한 죄인들을 치실 때 그들이 겪는 고뇌를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세게 몰아붙이셔서 우리가 그분에 대한 두려움으로 놀랄 때에도, 우리보다 먼저 산 신자들

이 그 길을 지나갔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기서 건지셨다는 것을 깨달아, 그분을 부르기를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에 짓눌려 하나님을 부르지도 못하고 그분에게서 도움을 찾지도 못하게 될까 늘 염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련한 피조물이 깊은 구렁에 빠진 것 같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당신의 진노를 느끼게 하실 때에도, 그런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그분께 달려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무덤에서 끌어내시고, 당신이 내신 상처를 고치시며, 우리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는 것이 그분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욥은 또 다른 시험을 탄식합니다. 악인들이 그를 비웃으려고 입을 벌렸고, 모욕하며 그의 뺨을 쳤고, 함께 모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를 대적하여 일어서면, 그것은 우리가 겪는 고난을 새롭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우리를 비웃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우리 속을 뒤집어 놓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 믿음을 완전히 꺾고 무너뜨리려 하기 때문입니다. 욥이 여기서 특별히 악인들을 말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그렇게 고삐를 풀어 주셔서 그들이 그분의 자녀들을 핍박하고 짓밟게 하시는 것은 더욱 괴로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선한 사람들은 그런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위엄을 멸시하는 자들, 온갖 악에 빠진 자들에게 그런 방종을 허락하셔서 가련한 신자들이 그들에게 억눌리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욥이 여기서 특별히 악한 자들을 말하는 한 가지 이유입니다. 다른 이유는, 바로 그자들이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전혀 믿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를 CO 15 타락시키고, 아예 선에서 완전히 돌아서게 하려고 애쓴다는 것입니다. 모든 신자의 참된 거울이요 본보기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일어난 일에서 우리는 그것을 봅니다. 물론 다윗도 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께 일어난 일을 볼 때,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확실한 규범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욥이 여기서 하는

말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압니다. 우리가 보듯 그가 그렇게 무서운 두려움 속에 있었을 뿐 아니라, 사람들까지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서 그를 절망에 빠뜨리려 했고, 모욕하며 그의 뺨을 쳤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를 먹잇감으로 내주시고 더는 그를 돌보지 않으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요약하면 이것이 우리가 주목할 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이 우리의 고난을 비웃도록 허락하시고, 그들이 그토록 사납게 일어나서 우리가 그들에게 삼켜질 것만 같을 때에도, 우리가 너무 놀라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욥이 그런 싸움을 견뎠고, 그 결말이 복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경우를 통해, 우리가 그런 시험들을 지나간 뒤에도 그분이 여전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것을 밝혀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은혜와 선하심에 기대어 그분을 신뢰합시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기를 악인들의 손에 넘기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꼭 살펴볼 만합니다. 우리는 악인들이 무엇이든 제멋대로 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만 그들에게 고삐를 풀어 주시며 그들은 위에서 허락된 것 이상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했듯이) 이것은 꼭 기억할 만합니다. 만일 우리가 악인들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지 않고, 그들이 원하는 만큼 날뛰어도 하나님께서 손을 쓰지 않으신다는 공상에 사로잡혀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완전히 꺾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탄과 그의 모든 무리의 고삐를 쥐고 계셔서, 그들이 우리를 향해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생각하거나 꾀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그렇게 핍박을 당할 때 담대하게 그분께 달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해결책이 그분의 손과 그분의 선한 뜻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그분 앞에서 겸손해져야 합니다. 악인들이 스스로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관여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교정과 징계라는 것을 깨달아 우리 죄를 생각하고,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도록 그분 앞에서 탄식할 생각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악한 자들도 그분이 손에 쥐고 계신 매와 같아서 그분이 그것으로 CO 16 우리를 치시고 바로잡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요컨대 우리가 선지자의 말대로 돌이나 창이나 몽둥이질이 아니라 손을 바라보는 법을 제대로 실천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매우 유익한 생각이 될 것입니다. 욥이 단순히 악인들이 자기에게 덤벼들었다고 말하지 않고, 자기를 에워싸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자기를 그렇게 넘기신 분도 바로 그분이시라고 말하는 데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이어서 그는 자기가 끝까지 짓눌렸다고 덧붙입니다. 그가 여기서 쓰는 모든 표현이 이것을 향합니다. 그는 자기가 꺾였다고, 두려움에 떨었다고, 하나님께서 자기 목을 붙잡으셨다고, 자기를 갈기갈기 찢으셨다고, 사람들이 쏘는 과녁처럼 세우셨다고, 그분의 궁수들이 사방에서 자기를 에워쌌다고, 자기를 가르셨다고, 그리고 자기에게 부서짐 위에 부서짐이 닥쳤다고 말합니다. 이로써 욥은 자기가 그토록 극한의 고난에 이르러서, 자기보다 더 짓눌리고 더 비참한 피조물을 찾을 수 없을 정도였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를 몸과 재산으로, 그리고 자기 아내로까지 괴롭게 하셨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욥은 자기를 사람들이 쏘는 과녁에 견줄 만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한 가지 고난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마치 깊은 구렁까지 구덩이를 파서 그를 그 가장 깊은 곳에 던지신 것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에게 너무나 무거운 짐을 지우셔서, 사람보다 더 큰 힘이 있지 않고서는 어떤 피조물도 그것을 질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거기서 어떤 연약함을 보든지, 그가 그런 굳셈을 지녔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굳세게 하실 때도 그들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게 만드시려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서 모든 연약함을 없애시려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곧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하고, 그러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그들이 꺾일 때 일으켜 세우셔야 합니다. 욥에게 일어난 일이 이와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가 굵은 베를 입고 머리를 티끌로 덮었으며, 그것을 위선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게다가 이 모든 일이 자기 죄 때문에 닥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내 손에는 약탈한 것이 없고, 내 기도는 깨끗하다"고 말합니다. 이 말로 그는 이 고난들이 자기에게 이상하게 여겨진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렇게 다루어질 만큼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욥이 여기서 다시 떠올리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여러 번 본 바로 그 시험입니다.

이제 이것들을 하나하나 짚어 가며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봅시다. 그가 말하는 비유에는 좋은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를 과녁처럼 세우시고, 당신의 궁수들을 그에게 겨누시고, 그를 에워싸셨으며, CO 17 그들이 그를 갈기갈기 찢어서 그의 쓸개가 땅에 쏟아졌다는 것, 다시 말해 그가 심장까지 상처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욥은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통 방식으로 괴롭히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표현하려 합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조금만 고난을 겪어도 너무 심하다고, 하나님께서 정도를 지키지 않으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딱할 만큼 연약해서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끝까지 날뜁니다. 몇 마디 탄식뿐이라면 그것을 우리의 연약함 탓으로 돌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자기가 겪어야 할 흔한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거슬러 일어날 만큼 소란을 피운다면, 그것은 너무 지나친 조바심이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가 고난을 겪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러 하나님의 학교에 다닌 적이 없다는 표시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내실 징계를 견딜 만큼 더 강해지기를 배우도록,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 주는 것을 기억합시다. 곧 그토록 거룩함이 뛰어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욥도 과녁처럼 세워지는 일을 피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우리가 고난 속에서 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거슬러 마음을 굳히고 재갈을 씹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들이 완악해지고 회개로 이끌려 오지 못하는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여려야 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드리시자마자 정신을 차리고 그분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향해 칼을 빼어 상처를 입히실 때까지, 화살을 쏘시거나 벼락을 치실 때까지 기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매로 한 대 치시기만 해도, 그것이 부드러운 매라 할지라도, 우리는 잠잠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혜롭고 분별이 있다면, 그분이 한 대라도 치시기를 기다리지 않고 그분의 위협만으로도 깨달아, 그분이 손대시기 전에 돌아오려고 애쓸 것입니다. 이처럼 신자들이 하나님의 손을 느끼고 매에 둔감하지 않은 것이 좋고 유익합니다. 말이 박차에 둔하다고 해서 그 말을 높이 치겠습니까? 그것을 장점으로 여기겠습니까? 그것은 결점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칼로 치지 않으시고 그저 매의 그림자만 보여 주셔도 우리는 마음이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우리는 내가 말한 의미에서 강해야 합니다. 곧 우리가 너무 괴로운 나머지 고난이 조금도 누그러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지경이 되어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짓눌린 사람들은 도무지 돌아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CO 18 우리를 대적하신다고 여기고 그분의 선하심을 조금도 신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그분께 다가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피할 것이고, 한번 그분에게서 멀어지면 더욱더 그분에게서 물러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경 속에서 용기를 내어 하나님을 부르고, 그분께 돌아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선하고 바르고 깨끗한 마음으로 그분을 찾으면, 그분이 기꺼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리라고 믿으면서 말입니다.

내가 짚은 말이 향하는 곳이 이것입니다. 곧 우리는 고난 속에서 너무 연약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일찍 고난을 느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역경을 보내신 뒤에 그것을 갑절로 하셔서, 우리가 안팎으로 더할 나위 없이 짓눌릴 때에도, 우리가 아직 욥이 있던 자리까지는 오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읍시다. 그리고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부르고 언제나 그분께 피했다면, 우리도 그분에게서 돌아서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읍시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궁수들을 말하는 것은 아주 눈여겨볼 만한 비유입니다. 이 세상 삶의 고난이 문제가 될 때 사람들이 늘 얼마나 혼란스러워하는지 우리가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것이 우연이라거나 사람들이 한 일이라고 늘 상상합니다. 요컨대 우리는 막연하게 판단하고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생명과 죽음, 빛과 어둠, 복과 화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밝힐 뿐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더 잘 새겨지도록 친숙한 비유도 씁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욥을 향해 당신의 궁수들을 늘어세우셨다고 말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욥이 견뎌야 했던 모든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들을 하나님의 궁수라고 부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실 때는 마치 재판관이 자기 관리들을 거느리고 무력을 갖추어 범인을 잡으러 오듯이 채비를 갖추고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 삶에서 겪는 모든 역경을 이렇게 쓰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병을 앓고 다른 사람이 가난을 겪을 때 그것을 운으로 여기지 맙시다. 요컨대 이 세상의 비참이 끝이 없듯이, 하나님께서도 원하실 때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바로잡으실 끝없는 방법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세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곳간에 쌓여 있다고 말할 때 뜻하는 바가 이것입니다(신 32:34). 그는 사람들에게 닥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말한 뒤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것이 내 곳간에 있지 아니하냐?"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나에게는 CO 19 좋은 것들의 보물 창고가 있어서, 내가 사람들에게 내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기를 기뻐할 때 쓴다. 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베풀 수단을 가지고 있되, 사람의 방식으로가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방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사람들을 치기를 기뻐할 때, 그들은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한 번도 들어 보지 못한 일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우리에게 당신의 좋은 것들을 넉넉히 베푸시기를 기뻐하실 때나 그 반대일 때나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를 치기를 기뻐하실 때는 그렇게 하실 수 있고, 그것도 이상한 방식으로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읍시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고난을 벗어났습니까? 두 번째 고난이 올 것이고, 끝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 밖에 욥이 다시 자기 쓸개가 땅에 쏟아졌고 자기 콩팥이 열리고 찢겼다고 덧붙일 때, 우리가 이미 짚은 것을 기억합시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고 끝까지 몰아붙이셔서, 그분의 손이 너무 무겁고 버거워 우리가 더는 어찌할 수 없을 때에도, 그 때문에 너무 넋을 잃거나 얼빠진 사람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욥이 깨달은 것을 생각합시다. 우리가 상대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탄식해야 하고 온전한 겸손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눈과 온 얼굴이 울음으로 흐려졌다고, 심지어 자기 살갗에 굵은 베를 꿰매어 입고 머리를 티끌로 덮었다고 덧붙입니다. 무엇이 욥을 이렇게 하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자기 위에 있고, 자기에게 닥친 모든 고난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아오신 것임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욥이 이것을 확신하지

않았다면, 굵은 베를 등과 살갗에 걸치고 흙을 머리에 뿌린들 그에게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크게 탄식하고 울고 부르짖기를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으면 그들은 진실로 굵은 베를 머리에 쓰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위선자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서도 그런 회개의 표시를 보일 때는 그분에 대해 어느 정도 깨닫고는 있습니다. 물론 그 속을 들여다보면 거짓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욥이 말하는 이 의식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재판관이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확실한 표시입니다. 그런데 욥은 이것을 진실하게 했으므로, 우리는 그가 믿지 않는 자들처럼 얼빠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을 이렇게 혹독하게 다루시면, 그들은 "나에게 불운이 닥쳤구나" 하고 생각할 뿐 그 이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것을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완전히 확신했습니다.

CO 20 우리가 이 교훈을 잘 배운다면 하루치로는 큰 유익을 얻은 셈일 것입니다. 내 말은, 그것을 마땅히 실천할 수 있도록 배운다면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병과 가난과 다른 비참들, 곧 전쟁과 역병과 기근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쉽게 인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그것을 겪게 되면 우리는 넋을 잃고 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니, 이제 우리는 그분께 돌아가야 한다. 전에 우리는 고삐 풀린 말처럼 굴며 그분에게서 벗어나 떠돌려 했다. 이제 그분이 고삐를 바짝 당기시고, 당신의 매를 보여 주시고, 그것을 느끼게까지 하신다. 그러니 우리는 그분의 손 아래에서 겸손해지기를 배워야 한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이 개인적으로 고난을 당하면, 속을 끓이고 이를 갈며 하나님께 분풀이하는 것 말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물론 누가 그에게 그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다고 일깨워 주면 그는 "그렇지요" 하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억제할 만한 바른 가책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했듯이) 우리에게는 막연한 깨달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보건대,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궁수들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판관으로 나타나시려고 그것들로 채비를 갖추신다는 이 가르침을 마음에 제대로 새긴 사람은 아주 드뭅니다. 함께 닥치는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백성이나 온 나라가 전쟁을 겪어 약탈과 다른 강탈과 횡포가 벌어질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벼락처럼 쏟아지는 것을 보면서도,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냉담함을 보니, 우리는 성경의 구절들을 더욱더 잘 새기고 기억해야 한다는 경고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구절들에서 마치 거울이나 생생한 그림처럼, 사람들이 어느 쪽에서 징계를 받든 그것이 하나님의 손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 주십니다. 온 나라가 핍박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찾아오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일이 닥칠 때 우리는 욥의 본을 따라야 합니다. 곧 우리 얼굴이 눈물로 흐려질 만큼 운 뒤에, 우리 잘못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운다는 것은 이미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눈물이 그분께 귀하다는 것을 의심하지 맙시다. 다윗이 말하듯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을 모두 병에 담아 두셨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여 더는 어찌할 수 없을 때, 우리 하나님께 달려갑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 앞에서, 그것도 참된 겸손으로 운다면, 우리 눈에서 떨어지는 눈물 한 방울도 CO 21 그분 앞에서 헤아려지지 않는 것이 없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 눈물은 그분께 드리는 제물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51편(17절)[4]에서 괴로움에 조여든 마음, 꺾인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눈물이 그곳을 향하고, 우리가 온전한 겸손으로 하나님께 달려간다는 증인처럼 된다면,

4. 원문에는 "시편 51편 19절"로 되어 있습니다. 프랑스어 성경의 절수를 한국어 성경의 절수로 바꾸었습니다.

곧 그분의 손이 우리를 대적하시니 그분께 자비를 구하는 것 말고는 다른 해결책이 없음을 깨닫는다면, 아, (말했듯이) 그분은 분명히 우리 눈물을 헤아리실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악인들에게 괴롭힘을 당할 때에도, (흔히 말하듯) 마귀 하나를 둘로 만드는 대신에, 곧 악을 악으로 갚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을 드시고 지금 어지러워진 일들을 바로잡아 주시기를 구한다면, 그분이 다윗의 눈물을 병에 담으셨듯이(시 56:8)[5] 우리 눈물도 거기에 담으시리라는 것을 압시다. 그 눈물이 땅에 떨어지더라도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코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가르침을 이렇게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실 때 우리가 운다면, 우리 눈물이 누구를 탓해야 할지, 어디로 향해야 할지 모르는 가련한 정신 나간 사람들의 눈물 같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고, 그분 앞에서 탄식합시다.

이것은 욥이 굵은 베를 입고 머리를 티끌로 덮었다고 덧붙이는 말로 확증됩니다. 이것들은 회개의 표시였습니다. 가련한 죄인이 은혜를 구할 때는 혼례복을 입지 않을 것이고, 머리를 빗고 다듬고 멋을 내고 재판관 앞에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동정을 얻으려고 슬프고 숙인 얼굴로, 상복을 입은 것처럼 허름한 차림으로 나올 것입니다. 이처럼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실 때 이런 외적인 회개의 표시를 지녔습니다. 그들이 용서를 얻으려고 자기 죄를 고백할 때는 거친 털옷과 굵은 베를 입고 머리에 티끌을 뿌리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먼저 사람은 굼뜨고 냉담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자극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더 밀어붙이려고 알맞은 도움을 쓴다면 그것은 쓸데없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야 할 때 우리는 너무나 느슨하게 임해서 인사치레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하고 한숨도 몇 번 쉴 것입니다. 그러나 그

5. 원문에는 “시편 56편 9절“로 되어 있습니다. 프랑스어 성경의 절수를 한국어 성경의 절수로 바꾸었습니다.

사이에 우리 잘못이 어떠한지 생각해 봅시다. 그 수는 끝이 없고, 또 너무나 엄청나서 우리가 우리 재판관 앞에 나아갈 때는 죽음의 공포로 소스라쳐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숨을 반쯤 내쉰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이런 냉담함이 있는 것을 보면서, CO 22 우리가 당나귀처럼 스스로를 찔러 몰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읍시다. 옛 조상들에게 굵은 베와 티끌이 쓸모 있었던 것이 이것입니다. 그들이 이 의식을 쓴 것은 헛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머리에 재를 뿌리려 할 때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몸도 그분이 지으신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을 기울여야 하듯이 몸도 거기에 응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바쳐지고 그분께 경의를 드려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옛 조상들이 거친 털옷과 굵은 베를 등에 걸치고 머리에 먼지를 뿌린 것이 쓸데없는 흉내가 아니었다는 것을 압니다. 욥이 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데도 선지자 요엘은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말합니다(욜 2:13). 그는 이 외적인 표시를 물리치려는 것이 아니라, 위선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많은 흉내를 내고, 회개에 푹 절어 있는 것처럼 보일 만큼 그럴듯한 모습을 갖추면 자기 할 일을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너희 옷은 좋은 증거가 되겠지. 너희는 여기서 너희가 훌륭한 참회자라는 것을 보이려고 요란하게 나팔을 분다. 그러나 어떠냐? 너희 마음은 여전히 악에 고집스럽게 머물러 있고 모루처럼 단단하다.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했어야 했다." 그런데도 그는 굵은 베를 입고 재를 뒤집어쓰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서 울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스리는 자들과 공직을 맡은 자들이 먼저 시작하고 나머지 모든 백성이 뒤따르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옛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회개를 엄숙히 나타내야 할 때 굵은 베와 티끌을 어떻게 썼는지 압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는 그런 형식에 매이거나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회개가 마땅히 그래야 할 만큼 참되다면, 우리는 지금처럼 냉

담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든 모든 필요가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 굵은 베를 등에 걸친 사람들이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도록 스스로를 자극하려 했다면, 묻건대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런 열심과 그토록 뜨거운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잘못을 싫어하고, 마땅히 그래야 할 만큼 그것을 미워하도록 꺾여 있습니까? 아, 그렇지 않습니다. 한참 멀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무감각합니다. 그러므로 옛 조상들이 자기 죄를 깨달으며 겸손해질 필요가 있었다면, 우리는 더욱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거의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인지도, 그분의 심판이 무엇인지도, 우리 죄가 무엇인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죄는 우리에게 충분히 CO 23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추함을 깨달아 부끄러워하고 그것을 싫어하는 일은 아예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이것은 헛되이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누가 고난을 당할 때, 굵은 베를 입지 않고 머리에 티끌을 뿌리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알맞아 보이는 모든 방법으로 할 수 있는 한 스스로를 자극해야 한다는 것을 배웁시다. 어떤 사람이 홀로 물러가 있을 때 이렇게 깨달아야 합니다. “자, 나는 마땅히 그래야 할 만큼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렇게 살펴야 합니다. “내가 땅에 엎드려 입을 티끌에 대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것이 내게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그러면 그것이 나를 더 깊이 찔러서 내 하나님께 달려가도록 나를 일깨울 것이다.” (말하건대) 각 사람은 이렇게 개인적으로 스스로를 자극해야 합니다. 특히 필요가 우리를 그렇게 몰아갈 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듯이 그 필요가 너무도 큽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역병이나 기근을 보내시자마자,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다 함께 그분 앞에서 자기 잘못을 고백한다고 엄숙히 선언하고, 각 사람이 이웃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권한다면, 그것이

그분께 기쁜 제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우리가 고개를 쳐들고 와서, 징계를 전혀 느끼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조롱하는 듯 군다면, 그분이 매를 갑절로 하시고 심지어 그분의 율법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를 일곱 배나 더 벌하신다고 해서 놀라겠습니까? 우리는 "왜 그분이 우리를 이토록 몰아붙이시는가?" 하고 화를 내며 물을 줄은 압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를 낮추려 하셨을 때 우리가 그토록 거만하게 반항하며 매를 밀어냈기 때문에 그분이 매를 갑절로 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욥이 보여 주는 이 가르침을 더 잘 실천하도록 힘씁시다.

그 밖에 그가 결론으로 하는 말, 곧 자기 손에는 약탈한 것이 없었고 자기 기도는 깨끗했다는 말을 잘 새깁시다. 욥이 이 말을 덧붙이는 것은 (내가 짚었듯이) 그런 고난이 자기에게 이상하게 여겨졌다는 것을 나타내려는 것입니다. 그가 앞에서 그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실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자신 속으로 들어가 우리 삶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며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아, 주님, 주께서 나를 혹독하게 치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 잘못을 견주어 보고 그것을 내가 겪는 고난과 저울에 달아 보면, 아, 주님, 내가 주께 너무도 여러 가지로 죄를 지었으니, 주께서 나를 지옥까지 처박으신다 해도 나는 그래도 마땅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CO 24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치신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몹시 괴롭히는 시험입니다. "어찌 된 일인가? 내가 무엇을 저질렀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 엄하게 다루시는가? 나는 그분이 악인들은 아끼시는 것을 본다. 나는 선하고 바른 양심으로 그분을 섬기려 애썼다. 물론 내가 그 일을 다 해냈다고 하기에는 한참 멀었다. 그래도 나는 그것을 목표로 삼았다. 그런데도 나는 땅 위에서 가장 불행하고 가장 저주받은 피조물처럼 되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이것은 큰 시험이고, 욥에게 일어난 것처럼 우리를 당황하게 할 만한 시험입니다.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우리가 욥과 같아서 "우리 손에 약탈한 것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지 잘 살핍시다.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온전함을 내세우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듯 가장 악한 자들도 뻔뻔할 것입니다. 오늘날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을 타이르면, 아, 그들에게는 완전함밖에 없습니다. 가장 마귀 같은 자들도 사람들이 자기를 반쯤 천사로 여겨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했듯이) 우리 쪽에서는 아첨 없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잘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욥과 온전히 같지 않다면 손이 깨끗하다고 공언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우리 공상대로 자기 자신의 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어떻게 자기 삶을 살펴야 하며, 어떻게 자기 소송을 꾸려야 합니까? "내 생각에는, 내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모두 꺾여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으로 나아가서, 그분이 당신의 성령으로 우리를 비추셔서 우리의 어둠을 잘 살피게 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은 무서운 은신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등불을 밝혀 주시고, 우리가 우리 잘못을 알고 느껴서 고백하도록 분별력과 지혜를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고 가정해 봅시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욥이 그럴 만한 짓을 했기 때문에 그를 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러셨습니까? 그분은 그의 인내를 시험하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선한 사람들을 악한 사람들보다 더 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듯 에스겔은 예루살렘에 있던 가장 악한 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의 개인적인 죄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죄대로 우리를 벌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그분이 원하실 때 그렇게 하실 수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욥보다 백 배 더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내신 것보다 더 혹독한 고난을 우리에게 보내신다 해도, 그분은 우리에게 조금도 부당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CO 25 그러니 이것이 우리가 주목할 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서 한동안 우리에게 감추어지고 숨겨진 심판을 행하신다는 것을 깨달읍시다. 보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때로는 우리를 깊은 구렁에 빠뜨리려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 유익을 위해 그렇게 하십니다. 물론 지금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지만, 그분이 지금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실 때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밖에, (그가 뒤에서 할 공언을 우리가 듣겠지만) 욥이 손이 깨끗하고 정결했는데도 그토록 혹독하게 고난을 당했다면, 묻건대,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실 때, 그분께 그토록 여러 가지로 반역한 우리가 놀라야 하겠습니까? 각 사람이 자기 자신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저지른 불의와 범죄가 소름 끼칠 만큼 많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십니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 치십니까? 아직 욥처럼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훨씬 더 참아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매질을 조금 하실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칼로 세게 치신다고 가정해도, 그 타격은 치명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욥이 손이 깨끗하고 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데도 그토록 엄하게 다루어졌다고 말할 때, 온 세상이 그렇게 고난을 당한다 해도 놀랄 일이 아니라는 것을 배웁시다. 왜 그렇습니까? 불의가 홍수와 같아서, 각 사람이 개인적으로 그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공동의 악덕에 물들어 있다는 것을 깨달읍시다. 누가 자기가 그런 온전함 속에 걸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손이 깨끗하다고 진실로 공언할 수 있겠습니까? 아, 한참 멀었습니다. 그러하니 우리가 어떤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벌하신다는 것을 깨달읍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이상을 받아 마땅하다는 것까지 깨달으며 그 고난을 인내로 견딥시다. 그러나 우

리 하나님께 달려가서, 이 세상 삶에서 우리가 겪는 고난의 원인인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시기를 구합시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연약함 속에서 우리를 참아 주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선하심을 느끼게 해 주셔서, 그분이 이 덧없는 삶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당신의 불멸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실 때까지 우리가 언제나 그분을 영화롭게 할 거리를 갖게 해 주시기를 구합시다.

이제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엎드립시다.

제64편

욥기 16장 설교 3

CO 34:26–37

AI로 옮긴 초벌 번역입니다. 신학 감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CO 권: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 땅아, 내 피를 덮지 말라. 내 부르짖음이 머물 곳이 없게 하라. 지금도 보라, 내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를 보증하시는 분이 높은 곳에 계시네. 내 친구들은 나를 거슬러 말재주를 부리나,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네. 사람이 이웃의 아들과 다투듯 하나님과 다툴 수 있다면 좋으련만. 보라, 짧은 햇수가 흘러가고,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들어가네. (욥 16:18–22)

이 설교는 17절을 계속 다룬 뒤 이어지는 본문을 다룹니다.

CO 26 욥은 자기의 온전함을 공언하려고 여기서 두 가지를 내세웁니다. 곧 자기가 사람들에게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과, 깨끗하게 하나님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삶을 율법에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거기서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또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보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자주 듣는 것도 그럴 만한 까닭이 있습니다. 우리 삶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도록 다스린다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욥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압니다. 곧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힘썼고, 아무에게도 악을 행하거나 해를 끼치지 않고 이웃과 함께 걸어가는 데 힘썼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는 여기서 두 가지만 내세우지만, 그것으로 전체를 아우르려는 것입니다. 그가 자기 손에 폭행도 횡포도 없다고 말할 때, 그것은 자기가 아무에게도 해나 손해를 끼쳐서 누가 자기를 원망할 까닭이 없도록 살았다는 뜻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폭력이 드러나지 않게

잘못과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남을 해치는 데 빠지면) 이렇게 정도를 벗어나서, 한 사람을 괴롭히고 CO 27 다른 사람을 약탈하고 남의 살림을 먹어 치우려 애씁니다. 그래서 욥은 특별히 자기 손에 약탈한 것이 없었다고 밝힙니다. 두 번째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그분께 기도하는 것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므로 욥은 이 한 가지로 전체를 아울렀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삶이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받을지 압니다. 곧 우리 삶이 그분의 율법에 마땅히 비추어질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제멋대로 살면서, 자기들이 좋다고 여기고 자기들이 판단하는 대로 이것저것에서 즐거움을 찾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 위에 모든 권위를 가지시고,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헛수고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걷기를 배웁시다. 이것이 한 가지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에게 자주 제시됩니다. 그러나 그런데도 우리는 세상이 늘 길을 잃고, 사람들이 자기 공상을 지나치게 즐기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그토록 자주 우리를 이 자리로 데려와서, 우리가 좋아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살라고 하는 데는 까닭이 있습니다. 그 밖에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기도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잘 헤아려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할 생각을 거의 하지 않고, 우리가 보듯 세상은 그것을 가볍게 해치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을 말할 때, 우리 앞에 내세우는 가장 중요한 조항이 바로 그분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땅히 지켜졌다면, 사람들은 기도하는 방식을 훨씬 더 소중히 여겨서 이리저리 벗어나지 않고 성경에서 보여 주는 대로 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너무 제멋대로 굴어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좋고 유익한지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저마다 경솔하게 덤벼들고, 마땅한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이 오만

은 어디서 옵니까? 기도가 그리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의 가장 중요한 조항으로 여긴다면, 분명히 지금보다 훨씬 더 큰 마음으로 기도에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신에 죽은 성인들에게 기도하는 데 빠진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만 속한 것을 피조물에게 돌리는 세상은 그것이 좋은 일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황주의자들에게 왜 동정녀 마리아를 자기들 구원의 소망이라고 부르는지, 왜 그녀에게 피하는지, 왜 저마다 수호성인을 두는지 물을 때, 그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라고 일깨워 주면, 아, 그들에게 그것을 믿게 하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CO 28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그토록 정성스럽게 표현하는 것, 곧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려면 그분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그들이 한 번도 알거나 맛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크고 가장 영예로운 섬김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피하는 것, 이것이 그분이 요구하시고 인정하시는 가장 크고 가장 높은 영예입니다. 교황주의자들이 이것을 생각했다면, 죽은 피조물에게 가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바치는 것을 소름 끼쳐 하지 않았겠습니까? 기도는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섬김인데, 그들은 그것을 피조물에게 옮겨 갑니다. 이것은 자연의 질서까지 뒤집는 일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기에 담긴 것, 곧 욥이 기도라는 말로 자기가 하나님을 깨끗하게 섬겼다고 밝히려 했다는 것을 더욱 잘 새겨야 합니다. 그러니 이제 사람들이 자기의 온전함을 증명하려 한다면, 위선자들이 늘 하듯 "우리가 금식하지 않았느냐? 이것저것을 하지 않았느냐?" 하며 시시한 것들을 내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삶이 당신의 율법에 맞추어 다스려지고, 당신이 우리 위에 온전한 주권을 가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읍시다. 이것이 한 가지입니다. 그 밖에 우리가 또 주목할 것은, 우리 손이 모든 폭력에서 깨끗하지 않으면 우리 기도가 결코 하나님 앞에 깨끗하

거나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리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웃에게 잔인하고 해를 끼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고, 우리는 그분께 나아갈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약탈로 가득하고 이 사람을 괴롭히고 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려 드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 그들은 그런데도 뻔뻔스럽게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손이 피, 곧 악행으로 더럽혀져 있으므로 그들의 기도는 가증한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유대인들이 당신의 성전 마당을 밟으러 온다고 탄식하시며 그들을 조롱하십니다(사 1:12). 그들이 당신을 공경하려는 척하며 성전에 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곧 "너희는 이웃을 해치고 악을 행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내가 너희를 내게 가까이 오게 하리라고, 내가 너희와 조금이라도 사귀어야 하리라고 생각하느냐?" 요약하면 이것이 이 구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욥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땅아, 내 피를 덮지 말라. 내 부르짖음이 머물 곳이 없게 하라." 이 구절을 "땅이 피를 덮지 말라"는 말로 잘못 풀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욥이 지나친 방식으로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자기 비참이 알려지기를 원했다고, 자기 피가 CO 29 덮이지 않고 땅이 그 피의 원수를 갚아 달라고 부르짖기를 구했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슨 상관입니까? 그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그가 땅이 하나님께 복수를 요구하기를 바랐다는 말입니까? 게다가 뒤에 이어지는 본문이 그 뜻을 밝혀 줍니다. 이렇게 쉬운 일에 속으려면 눈을 감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욥이 여기서 짚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땅아, 내 피를 덮지 말라"이고, 다른 하나는 "내 부르짖음이 머물 곳이 없게 하라"입니다. 자기 부르짖음이 머물 곳이 없게 하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가 아무리 애써 부르짖고 괴로워해도 하나님께서 그를 물리

치시니 헛수고가 될 것이고, 사람들에게 가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가 "땅아, 내 피를 덮지 말라"고 할 때 이런 뜻이라고 쉽게 결론지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악을 행했다면 그 일이 셈과 심판에 올려지고, 자기의 온 삶이 드러나고, 자기 소송이 끝까지 다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자기가 받아 마땅한 대로 자기를 다루셔도 좋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피라는 말은 흔히 온갖 큰 죄를 가리킵니다. 시편 51편에서 "주님, 나를 피에서 건지소서"(시 51:14 참조)라고 하는 것은 "주님, 내가 저지른 죽을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욥은 여기서 자기가 저질렀을 수 있는 모든 범죄와 죄를 자기 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말의 흐름에 맞습니다. 그는 자기 손에 약탈한 것이 없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확증하려고 그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서 무엇이든 죄를 찾으시면 그것이 밝히 드러나 셈에 올려져도 좋고, 자기 죄가 어둠 속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끌어내셔도 좋으며, 모든 것을 잘 살핀 뒤에 자기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아무 은혜나 자비도 베풀지 않으셔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자기가 탄식하고 부르짖어도 아무 유익이 없고, 자기 모든 부르짖음이 헛되며, 하나님께서 귀를 막고 계신 것 같다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욥의 의도가 무엇인지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앞에서 다룬 것을 다시 떠올려야 합니다. 곧 욥이 하나님의 지극한 의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지나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너무나 완전하고 정교해서 어떤 피조물도, 앞에서 다룬 것처럼 천사들조차 거기에 미치지 못합니다. 욥이 그것을 잘 바라보았다면 두려움 때문에 결코 그런 공언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밖에 우리는 욥이 자기가 완전히 무죄한 것처럼 자신을 의롭다고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왜 자기를 벌하시는지를 바라봅니다. 곧 사람들이 흔히 자기 악행 때문에 벌을 받는 것처럼 자기가 그런 벌을 받을 만한 짓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

다. 하나님께서도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곧 그분은 그를 모든 사람의 거울로 세우시고 그의 인내를 시험하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욥은 CO 30 여기서 자기 삶이 완전히 깨끗하다거나 자기가 한 번도 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고 밝히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악인이나 남들보다 더 방탕하게 산 사람처럼 그렇게 엄하게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뜻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신다면 그것은 우리 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읍시다. 우리가 위선 없이 그분을 섬기고 공경하려는 소원이 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가 마땅히 그래야 할 만큼 깨끗하기에는 한참 멀었고, 우리가 십만 가지로 빚진 자로 드러나리라는 것을 깨달읍시다. 그러므로 각 사람은 자기 자신을 가까이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잘못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백 배 더 많이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몇 가지를 안다면, 사도 요한이 그의 서신에서 말하듯(요일 3:20) 하나님께서는 더 날카로운 눈을 가지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겸손해지기를 배우고, 하나님께서 우리 잘못을 덮어 주시기를 구합시다. 우리는 시편 32편(1절)에서 말하는 것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그 죄를 덮어 주시고 그 불의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악덕을 드러내시면 우리는, 내 말하건대 가장 완전한 사람들까지도, 모두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원의 유일한 피난처는 이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범죄를 덮으셔서 그것이 당신 앞에서 셈에 올려지지 않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것을 심판하려 하시는 한, 우리에게는 지옥이 마련될 수밖에 없고 다른 해결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 우리 부르짖음이 들을 자격이 없더라도 그분이 들어 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신을 온전히 완전하게 섬길 때까지 우리 간구를 들어주시기를 미루신다면, 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문을 스스로 닫아 버리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물리침을 당해 마땅할지라도 우리 부르짖음이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를 대해 주시도록, 이웃과 화평하게 지내려고 힘써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긍휼을 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오늘 우리가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엄하게 다루시리라고 밝힙니다(약 2:13). 하나님께서 우리를 엄하게 다루시는 것보다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더 무서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심으로 나타내시는 당신의 무한한 선하심을 베푸시는 것 말고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또 솔로몬은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에 귀를 막는 자는 자기도 부르짖을 때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잠 21:13). 그러므로 CO 31 우리 이웃이 고난을 당하여 우리 도움을 구하는데도 우리가 귀를 막고 그들을 물리치고, 더 나쁘게는 그들을 괴롭히기까지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런 보응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짖게 하시고, 어찌할 바를 모를 만큼 우리를 당황하게 하시면서도, 그 사이에 우리 말을 들어 주지 않으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짚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도록, 우리도 어떤 고난을 겪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그들을 도웁시다. 그리고 모든 잔인함과 횡포를 삼가서, 우리가 이웃에게 한 것과 같은 분량으로 우리에게 갚아진다고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게 합시다. 요약하면 이것이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입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도 보라, 내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를 보증하시는 분이 높은 곳에 계시네. 내 친구들은 나를 거슬러 말재주를 부리나,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네." 여기서 욥은 사람들에게 부당하게 정죄를 당했으므로, 홀로 충분한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 상소

합니다. 그는 자기 사정이 옳다는 것을 잘 알기에 하나님 앞에 상소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미 말했듯이) 그는 그 사정을 잘못 펼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도 그에게는 자기의 온전함을 주장할 정당한 까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이 자기를 부당하게 핍박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상소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살펴서, 대부분의 사람이 하듯 우리가 그런 담대함을 함부로 쓰지 않도록 합시다. 하나님을 증인으로 부르는 일에서, 묻건대, 누가 어려워하거나 망설입니까? 오늘날 세상은 거짓 맹세로 가득하고 신의가 없습니다. 그것은 어디서 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나운 짐승처럼 그분의 보좌에 부딪쳐 오기 때문입니다. 거짓 맹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실 힘도 권위도 없으신 것처럼 그분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증인과 재판관으로 부를 때 그렇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거짓으로 맹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엄을 대놓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위엄을 거의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말한 것을 더욱 잘 지켜야 합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공언하고 그분을 증인으로 부를 때 너무 담대해서는 안 되고, 그분 앞에서 셈을 치를 준비가 된 사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은 실제로 그렇게 자신을 그분 앞에 불러 세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미 보았고, CO 32 앞으로 더 충분히 볼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어떤 사람이 죄로 고발당하면, 그 죄를 지적받고 아주 확실히 입증되었는데도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시다. 사람들이 내게 부당하게 한다. 사람들이 나를 잘못 고발한다" 하고 말하는 데 아무 거리낌이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아무렇게나 굴러다닙니까? 위선자들도 자기를 높이려 할 때는 늘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 그분은 내가 누구인지 아신다. 나는 내 사정을 그분께 맡긴다" 하고 말할

것입니다.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사람들이 거짓 깃발을 내걸듯 하나님을 증인으로 부를 때 그분이 짐짓 모른 체하시고, 당신을 그렇게 조롱한 자들을 당장 벌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결국 그분이 당신의 율법에서 밝히신 것, 곧 당신의 이름이 그렇게 망령되이 일컬어지는 것을 참지 않으시고, 사람들이 당신의 위엄을 조롱하며 그토록 크게 모욕할 때 당한 그 모욕을 갚으시리라는 것을 보여 주지 않으시리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욥의 본을 따라 우리 삶을 잘 살펴야 한다는 것을 새깁시다. 무모하게 나서서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시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고, 우리 양심을 잘 살펴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인정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우리가 또 주목할 것은, 온 세상이 우리를 증언해 준다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기 전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우리 삶을 무슨 그럴듯한 겉모습에 맞추지 말라는 경고를 받습니다. 우리가 보듯 세상은 늘 야망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박수를 보내고 우리가 그들 앞에서 좋은 평판을 얻으면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께서도 그것으로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일깨워 주듯 그분은 죽을 인생과 같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것을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속에 감추어진 것을 살피시고 진실과 정직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그렇게 말씀하시고(렘 5:3), 사무엘서에도 다른 구절이 있습니다(삼상 16:7). 그렇다면 우리 손과 눈과 다리만 깨끗하면 된다고, 우리 죄가 드러나지 않으면 많은 일을 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웁시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증인이 하늘에 계신 것, 곧 (이미 밝혔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인정을 받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의 깨끗함 속에 걸어서 우리 안에 거짓이 없었을 때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두고 이것저것을 탓할

수 없다고 말할 만한 겉모습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른 마음이 있었고, 선을 행하기를 계속했고, CO 33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위뿐 아니라 생각까지 적어 두시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다스리기를 구했을 때입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은 "보라, 지금도 내 증인이 하늘에 계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또는 "~도"라는 이 말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증인으로 내세울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까지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 헤아려야 합니다. 위선자들은 하나님을 증인으로 부르면서도 감히 사람들의 판단에 자신을 맡기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아는 악인이 있다고 합시다. 그는 감옥에 갇히거나 교수대로 끌려가지만 않으면 끝까지 자기를 자랑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모든 사람이 그를 정죄할 것입니다. 그에게는 재판관이 서너 명이 아니라 백 명, 천 명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저기 악인이 있다. 도둑이 있다. 살인자가 있다. 약탈로 가득한 사람,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가 있다" 하고 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자들은 너무나 뻔뻔해서, 거리낌 없이 하나님을 자기들의 정직함의 증인으로 부르고, 그분이 자기들을 아시며 자기들은 그분 앞에서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힐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짚었듯이) 사람들의 판단에 맡겨진다면 그들을 정죄할 목소리가 천이나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감히 하나님 앞에 나서겠습니까? 그분의 위엄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이 하는 "지금도"라는 이 말을 잘 헤아려야 합니다. 그는 자기가 사람들을 증인으로 부를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자기를 위해 증언하리라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곧 자기가 맹인에게 눈이 되었고, 고아들의 보호자가 되었고, 과부들의 수호자가 되었고, 저는 사람에게 다리가 되었으며, 자기 손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닫힌 적이 없다고 증언하리라는 것입니다. 그가 뒤에서 그렇게 공언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욥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걸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기가 하나님께까지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더 큰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여기서 하늘의 증언을 얼마나 높이는지 봅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그가 고삐 풀린 방종으로 함부로 자신을 의롭다고 하려 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만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아신다고 공언하지만 그 삶이 너무나 추해서 공기까지 악취가 나고 어린아이들도 그것을 말할 줄 아는 조롱꾼들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이것입니다.

이어서 그는 자기 친구들이 자기를 거슬러 말재주를 부리고, 그 사이에 자기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린다고 덧붙입니다. 여기서 욥은 왜 자기가 하나님의 심판에 자신을 맡길 수밖에 없는지 보여 줍니다. 곧 그는 사람들에게서 아무 이치도 공평도 찾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CO 34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여긴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아주 큰 시험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려고 이 간계를 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매를 맞는 가련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겪는 고난만으로도 이미 그에게는 충분히 무겁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 사람들이 그의 등에 갑절의 짐을 지우고, 그가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은 것이 분명하다고 비난한다면, 그것은 그를 짓눌러 쓰러뜨리는 일입니다.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 때문에 치시는 완고한 악인들이 아닙니다. 바르게 걸어왔는데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치시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도 그럴 만한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전혀 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때로 앞날을 위해 그들을 죽이려 하십니다. 그들이 아직 충분히 길들여지지 않았으므로 그들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욕망을 잘라 내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그분은 그들에게 당신을 부르고 당신께 모든 신뢰를 두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치려 하시고, 그들의 인내를 드러내려고도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향하고 순전하게 걸어온 선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도 그는 큰 고난을 겪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를 남들보다 더 큰 죄인으로 여기신다는 말입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에게 그런 말을 내세운다면, 그것은 그를 절망에 던져 넣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욥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험이 매우 혹독하고 무겁다는 것을 잘 새깁시다. 그리고 우리가 써야 할 해결책으로 달려가도록 힘씁시다. 곧 욥이 앞에서 이미 다룬 것처럼, 사람들에게 너무 매달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서는 것입니다. 그는 "내 친구들은 나를 거슬러 말재주를 부린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그를 위로하고 그의 고통을 얼마간 달래 주어야 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며 즐거워했다는 뜻입니다. 그가 말하는 이 말재주란 그들이 그를 조롱하고 괴롭히고 당황하게 하려고 혀를 날카롭게 갈았다는 것일 뿐입니다. 이 일이 욥에게 일어난 것은 그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기를 기뻐하실 때, 세상이 우리를 나쁘게 판단하고 많은 사람이 이를 빌미로 마치 우리에게 바른 마음이 한 번도 없었던 것처럼 우리를 정죄하더라도, 모든 것을 인내로 받아들입시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꾀하는 것은 우리 십자가의 일부라는 것을 압시다. 그러나 우리는 욥이 밝히듯 그런 악에 대처해야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 눈이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러 오는 것을 보면, 우리는 그들에게 맞받아쳐서 그들을 물리치려 할 것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아, 사람들이 나에게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나를 이렇게 다루다니 참으로 잔인하다." 물론 우리는 그렇게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CO 35 거기에 너무 오래 머물러서는 안 되고, 지나가듯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다른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곧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안타까워하기 때문이어야 합니다. "보라, 사람들이 나를 나쁘게 판단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썼다." 우리가 나쁜 본보기가 되지 않으려고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가볍게 지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과 다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 양심 속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악덕이 너무도 흔한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 주는 이 교훈, 곧 우리 눈이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려야 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어떻게 합니까? 눈을 위로 들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악해서 그들에게서 아무 이치도 끌어낼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까? 그들이 우리 삶을 판단하기는 쉽고, 우리가 그들에게 그렇게 정죄받을 만한 일을 아무것도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달려가기를 배우고, 그분을 우리 보증인으로 모시는 것으로 만족합시다. 우리가 욥의 본을 마땅히 따를 때 그가 우리를 데려가는 곳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그가 방금 우리가 본 공언들을 한 까닭도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처럼 이 구절에서 그는 사람들에게 부당하게 정죄당했기 때문에 탄식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나아가 봅시다. 그는 죽을 인생이 자기와 같은 사람과 다투듯 하나님과 다툴 수 있기를 구합니다. 그러나 그는 "짧은 날들이 오고,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간다"고 말합니다. 욥이 하나님과 다툴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할 때, 그것은 우리가 앞에서 이미 본 것과 같은 흐름입니다. 그는 이것으로 자기가 화가 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너무 무거워서 더는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잘못이 있습니다. 우리는 욥을 모든 점에서 다 변명해 주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말한 것을 살펴봅시다. 곧 그는 옳은 사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흥분해서 너무 지나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자기 범죄와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알았다면 잠잠히 하나님의 뜻에 복종했을 것이고, 더는 소송이나 다툼에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앞에서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는 너무나 완전한 의가 있어서 피조물이 내세울 수 있는 모든 것이 없어질 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해의 밝음이 별들을 가린다면, 더욱더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삼켜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욥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그 깨달음을 지켰다면 "하나님과 다툴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그렇게 넘쳐흐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CO 36 짚었듯이) 그가 이 가르침을 알고 있었는데도, 그의 격정이 너무 격렬해서 그는 자신을 잊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성경에서 읽는 것을 잘 알아서, 조바심이나 다른 악덕의 시험을 받을 때 우리 격정에 재갈을 물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경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안 것이 이렇게 우리를 거슬러 일어나는 혼란에서 우리를 건져 내기에 충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을 거슬러 높아진 모든 것을 사로잡는 것이라고 말합니다(고후 10:5). 우리 감각과 육적인 욕망이 하나님을 거슬러 일어나 그분과 싸웁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을 사로잡아 두어야 합니다. 곧 우리 안과 우리 본성 속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가르침에 거스르는 것을 힘써 길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계속 지켜야 할 참된 굳셈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저것을 따지게 될 때에도, 심지어 싸움에 들어섰을 때에도, 우리는 가련한 양처럼 겸손히 머물러야 합니다. 그리고 늘 이런 결론에 이르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재판관이시니, 그분께는 나무랄 것이 없다. 내가 다툴 수 있다 해도 내 사정은 진 것이다. 내가 그분께 한마디도 내세울 수 없는데, 그분은 그것을 반박할 천 마디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리가 소송을 벌일 수 있다 하더라도 그분과 다투지 말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때로는 사람들을 더 확실히 깨우치시려고 "자, 변론하자" 하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그렇게 하십니다(사 1:18).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나는 변론을 시작하겠다. 재판관이나 중재자를 두어서 누가 그르고 누가 옳은지 가려 보자. 너희가 나를 무엇으로 고발할 수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해를 끼쳤느냐? 반대

로 나는 너희를 이런저런 점에서 고발한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재판관이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왜 그분이 이런 말투를 쓰십니까? 그분은 당신의 위엄과 높으심을 내려놓으시고, 당신이 피조물이고 거기에 어떤 중재자가 있어서 당신이 남의 판결을 받는다 해도, 사람들이 당신이 내세우실 것을 결코 이겨 낼 수 없으리라는 것을 보여 주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치 죽을 인생이신 것처럼, 또는 우리 처지를 입으신 것처럼 이런 말투를 쓰시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분께 폭정으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며, 그분이 절대 권력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님을 밝히시려는 것입니다. 교황제의 신학자들은 그런 마귀적인 교리를 지어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그들이 말하는 절대 권력, 곧 무법하고 당신의 의와 분리된 권력을 쓰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히려 그분은 온전한 정직으로 일하셔서 CO 37 모든 입이 그분 앞에서 닫힐 수밖에 없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정죄했습니까? 그래도 시편 51편에서 말하듯(시 51:4 참조) 그분은 판단하실 때 의로우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거짓되고 그릇된 판단을 내리고, 그분을 거슬러 많은 논쟁을 벌일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것으로 드러나실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수치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남습니까? 우리가 겸손하고 삼가서, 하나님의 모든 판단이 우리에게는 반대로 보이더라도 의롭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밖에 그분의 위엄을 조금이라도 깎아내리기를 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을 인생 같으셔서 내가 나와 같은 상대와 맞붙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위엄이 온전히 보존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을 없애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까? 우리가 그런 짓을 꾀한다면 그것은 가증한 신성모독이 아닙니까? 물론 욥의 의도는 하나님을 모독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 말을 완전히 굳혀서 했다면 사탄이 그를 완전히 사로잡은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했듯이) 그는 자기가 동의하지 않는 자기 격정을 털어놓는 것입니다. 그

러니 욥에게 이 첫 충동이 일어났지만, 그는 그 뒤에 그것을 잘라 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너무 무겁다고 여겨져서 그분을 거슬러 일어나고 싶은 생각이 들 때, 우리는 곧바로 고삐를 돌려 그 악한 욕망을 누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우리를 백 배나 더 혹독하게 벌하실 정당한 까닭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 위에 계신 지극히 높은 재판관이심을 깨달으며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분의 자비를 깨닫기를 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분이 모든 선의 샘이시니, 그분의 위엄이 우리에게 너무 두려워서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거나 우리 연약함을 알고 참아 주지 않으실 만큼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에 대한 좋은 담보와 확실한 보증을 주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을 우리 재판관으로 세우셔서, 우리의 구속자요 대언자로 나타나시는 그분께 우리가 자비를 얻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엎드립시다.

제65편

욥기 17장 설교 1

CO 34:38–50

AI로 옮긴 초벌 번역입니다. 신학 감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CO 권: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 내 영은 시들고, 내 날은 다 헤아려졌으며, 무덤들이 내 위에 있네. 비웃는 자들이 내 곁에 있고, 내 눈은 그들이 주는 쓰라림 속에 머무네. 청하오니 담보를 두시고 주를 위해 보증인을 세우소서. 누가 내 손을 쳐서 약속하겠습니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려 깨닫지 못하게 하셨으니, 그들을 높이지 않으실 것입니다. 곧 자기 친구들에게 아첨하는 말을 전하는 자들은 그 자식들의 눈이 멀 것입니다. (욥 17:1–5)

이 설교는 16장 마지막 절을 계속 다룬 뒤 이어지는 본문을 다룹니다.

CO 38 욥은 (어제 본 것처럼) 자기의 무죄함을 공언한 뒤에, 그것이 자기에게 아무 유익도 없고 자기가 절망한 사람 같다는 것을 덧붙입니다. 그는 "나는 다시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간다"고 말합니다. 또 그는 이 삶이 짧다고 탄식하는데, 이것으로 사람들은 땅을 지나갈 뿐이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덜 엄하게 다루셔야 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자기 영이 시들었다고, 곧 자기 숨이 다 사그라져 자기 안에 더는 힘이 없고 무덤들만 남았다고 다시 확인합니다. 어느 쪽으로 돌아서든 죽음이 눈앞에 있고, 사방에서 죽음에 에워싸여 자기를 위해 마련된 무덤들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욥이 말하려는 것이 이것입니다. 물론 그의 타고난 감각으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완전히 없애려 하신다고밖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높이 바라볼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신자들은 죽음 한가운데서도 생명을 붙잡아야 하고, 슬픔 속에서도 기뻐해

서 하나님께서 좋은 결말을 주시리라는 것을 의심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 속에서 기뻐할 거리뿐 아니라, 그것이 우리 구원으로 돌아오리라는 것을 알기에 자랑하고 개선의 노래를 부를 거리까지 주십니다. 그러므로 욥은 여기서 온전히 신자답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미 말했듯이) 그는 자기 격정을 털어놓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도 자기 안에서 CO 39 하나님의 약속에 기대어 거기서 위로를 얻으면서도 여전히 속으로 괴로워하고 흔들리는 것을 겪습니다. 우리는 시험을 단번에 이기지 못합니다. 큰 격렬함과 어려움 속에서 싸워야 합니다. 그런 싸움을 할 때 우리도 욥처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무덤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 영이 기진했다고, 우리 힘이 끊어졌다고, 더는 해결책이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겉으로 보이는 대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고난을 알아차리고 느낀 뒤에는 하나님께로 더 높이 올라가야 하고, 그분이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에게 나빠 보이는 것까지 우리 유익으로 돌리시리라는 것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약하면 우리는 이 구절을 이렇게 실천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 각자가 더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고 자기 처지에서 아무 출구도 보이지 않을 만큼 괴로울 때, 그렇다고 놀라지 맙시다. 육으로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셔서 더는 도우려 하지 않으시는 것 같더라도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욥이 그런 고뇌에 이르렀는데도, 잘 싸운 뒤에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쌍히 여기시리라는 결론을 내리기를 그치지 않았고 승리를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이 낙심할 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장애를 느낀 뒤에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래, 우리가 여기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길을 지나가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자연의 흐름으로는 그렇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죽음 한가운데서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는가? 그러니 담대하게 걸어가자. 게다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자로 계시지 않은가? 죽음으로 나아가자. 그것이 하늘의 영광에 이르는 입구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는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에 부활이 결합된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썩음 속에 머물도록 두지 않으시리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었는가? 시편 16편(10절)에 기록된 말씀, 곧 하나님께서 그분을 썩음에서 지키셨다는 말씀이 그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은, 마침내 우리도 거기서 풀려나 건져지게 하시려는 것임을 우리가 알지 않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서 얻는 그런 확실함을 가지고 죽음의 두려움과 싸워야 합니다. 요약하면 이것이 이 구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와 함께 우리는 우리 삶이 얼마나 연약한지도 일깨움을 받습니다. 욥은 "내 영은 시들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CO 40 사람의 모든 힘이 무엇입니까? 한 줄기 숨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이 아무리 길다 해도 그것은 잠깐 지나가는 길일 뿐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삶의 길로 보자면 그것은 몇 해 되지 않는 햇수이고, 우리가 거기서 지닌 모든 힘은 흘러가 버리는 덧없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하니 여기서 잠들지 말기를 배웁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연약한지 보여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그분을 생각하고 하늘의 삶을 찾을 기회를 주시려는 것임을 깨달읍시다. 그리고 우리 삶이 기울어 조금씩 사그라지는 것을 볼 때 지나치게 괴로워하지 맙시다. 그러니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맙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 내놓으시자마자, 우리가 거기서 빨리 지나가고 한 바퀴 돌고 가기 위해 있을 뿐이라고 밝히십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 삶이 아주 튼튼해서 나무랄 데가 없는 것처럼 여기에 기대어 있어야 하겠습니까? 이 구절에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무덤들이라는 말에서 우리가 또 주목할 것은, 우리가 한 가지 죽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죽음에 에워싸여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이 하나뿐이고, 그것도 아주

덧없어서 아무것도 아닌 한 줄기 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자신을 가까이 들여다보면, 백 가지 죽음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무덤을 말하면서 복수를 썼습니다. "무덤이 나를 위해 마련되었다"거나 "나는 그것을 피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나를 위한 무덤들"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에게 구덩이가 하나 넘게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욥은 자기가 한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해도 두 번째, 세 번째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요컨대 많은 위험을 이겨 냈다 해도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물론 우리가 모두 욥처럼 극한에 이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마련된 많은 죽음 사이에 생명 하나만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부르기를 배우고, 우리 영을 그분의 손에 맡겨서 안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의 파수꾼이 되기를 기뻐하실 때, 지나친 걱정 없이 우리 길을 갑시다. 그 밖에 우리를 삼키려는 죽음이 천 가지라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기서 건지실 만큼 능하십니다. 시편(68:20)[6]에서 죽음에서 벗어나는 길이 그분께 속해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곧 그분은 비록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지라도 우리를 거기서 풀어 주실 방법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우리는 늘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고, 이 땅에 머무는 데 너무 빠지지 말라는 경고를 받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한 발을 들고 있어야 합니다. CO 41 마치 무덤에 들어가야 할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결론을 내리며 거리낌 없이 그리로 가야 합니다. 그곳에 영원히 머물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우리가 죽음 속에서 멸망하거나 거기서 썩기를 원하지 않으신다고 밝히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나아가 봅시다. "참으로 비웃는 자들이 내 곁에 있고, 내 눈은

6. 원문에는 "시편 68편 21절"로 되어 있습니다. 프랑스어 성경의 절수를 한국어 성경의 절수로 바꾸었습니다.

그들이 주는 쓰라림 속에 머문다." 여기서 욥은 자기를 위로하러 왔으면서 자기를 더욱 괴롭게 할 뿐인 사람들을 두고 탄식합니다. 그는 그들을 고난당하는 사람을 비웃는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이 마땅히 그래야 했던 것처럼 동정과 인정을 가지고 와서 그의 고난을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이 자기를 더 쓰라리게 할 괴로움만 가져올 수 있을 뿐이고, 자기 눈은 그들이 자기에게 끼친 해악과 쓰라림 속에 머문다고 덧붙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고난당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을 잘 위로하려면 강철이나 쇠 같은 비정한 마음을 가지고 가서는 안 되고 자비로워야 한다는 경고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혼란과 괴로움 속에 있는 사람들의 처지를 자기 것으로 입지 않는다면, 곧 자기를 그들의 자리에 두지 않는다면, 그가 그들을 위로하기에 알맞다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괴로움 속에 있는 가련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데 (보기에는) 가장 능한 사람들이라도, 말솜씨와 뛰어난 말재주를 가지고 온다면 아무 동정이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를 잘 논하겠지만, 그 모든 것이 엉뚱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의 고난을 우리 안에서 느끼고 그것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고난을 누그러뜨리기에 알맞은 가르침을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비웃는 자들이라는 이 말에서, 비정한 사람들은 괴로움으로 혼란한 사람들을 결코 위로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새깁시다. 이것이 한 가지입니다. 그 밖에 어떤 비참을 겪는 사람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시편(41:1)[7]에서 말하는 것을 기억합시다. "가난한 자를 살피는 자는 복이 있다. 그가 재앙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이웃의 고난을 잘 판단하려면 남다른 분별력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보여 주시고 주시는 그 슬기를 따라야 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정반대로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우리는 아무 분별 없이 엉뚱한 말을

7. 원문에는 "시편 41편 2절"로 되어 있습니다. 프랑스어 성경의 절수를 한국어 성경의 절수로 바꾸었습니다.

늘어놓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의 고난을 잘 판단할 깨달음을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어떤 고난을 겪는 사람들을 위로하러 갈 때, 심지어 그들의 잘못을 보여 주러 갈 때에도, 그들이 넘어졌을 때 CO 42 목을 발로 밟듯이 날카롭게 가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일으켜 세우려는 마음과 소원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말했듯이) 하나님께 깨달음의 영을 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 밖에 이것은 더 나아가서 실천해야 합니다. 곧 우리 각자가 어떤 혼란에 빠질 때, 성경을 자기에게 적용해서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살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 우리를 찌르러 오면, 우리가 고난 속에 있는데 거기에 더해 무거운 짐을 얹으러 오면 우리는 속상해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대할 때 그것은 참으로 잔인하고, 사람들에게는 아무 진실함도 정직함도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우리 각자는 자기 자신에게 똑같이 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내가 어떤 슬픔 속에 있을 때 위로를 얻으려고 성경을 펴면서, 그렇게 할 만한 구절을 찾으려 살피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위협의 말씀을 만나면 불이 붙어서 내 괴로움이 점점 더 커집니다. 성경은 오히려 나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조금이라도 맛보게 해서 내가 그분 안에서 기뻐하고 내 모든 슬픔이 누그러지게 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마땅히 그래야 할 만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보여 주시는 만큼 우리 자신을 위로할 분별력이 없어서 어리석게 굽니다. 그러므로 이웃이 고난을 당할 때 그들을 동정하고 불쌍히 여길 뿐 아니라, 각 사람이 그런 극한에 처할 때 자기 모든 고난에서 위로를 얻고 덜함을 얻도록 자기 자신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어서 욥은 하나님께 담보를 두시고 보증을, 곧 보증인을 세워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는 "누가 내 손을 쳐서 약속하겠느냐?" 하고 말합니다. 그는 어제 밝힌 말, 곧 하나님과 다투고 싶다는, 그것도 자기 동료나 자기와 같은 사람과 다투듯 다투고 싶다는 말로 돌아갑니다. 그가 왜 담보를 구합니까?

왜 보증인이나 담보물을 구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위엄을 내려놓으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께서 주의 높으심 속에 머물러 계시는 동안에는, 내가 주와 다투러 나아갈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께서는 나를 당황하게 하실 만큼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내가 주와 말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여기에 담보를 두시고, 의무를 지시고, 판결에 승복하시고, 재판관의 관할에 복종하소서." 마치 어떤 곳에 사는 사람이 아닌 자가 거주지를 정하고 보증인을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욥이 "누가 내 손을 쳐서 약속하겠느냐? "고 할 때 뜻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곧 "누가 여기 나와서 책임을 지겠느냐? "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런 의식이 쓰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재판관이나 공증인의 손에 문서를 대거나 그 손을 잡는 것처럼, 그 시대에는 당사자들이 서로 CO 43 손을 쳐서 신의를 맹세하고 의무를 졌습니다. 이것이 욥의 의도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과 다툴 수 있게 해 달라고 구한 이 소원을 변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어제 지나가며 짚었듯이)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이 우리 재판관이 되시고, 그것도 그분의 방식대로 우리를 다루시는 것보다 더 바랄 만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분이 우리를 향해 엄격함을 펼치신다면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엄격하게, 자비 없이 심판을 받으러 오는 가련한 피조물들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죄 사함으로 우리를 받아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우리와 화목하셨음을 밝히시며, 죄를 용서받은 모든 사람이 복되다고 선언하시니,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잘못을 없애시고 말씀에 있는 대로 그것을 등 뒤로, 바다 깊은 곳으로 던지시는 분의 얼굴 앞에 나아가는 것보다 더 좋은 처지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모든 심판의 권세를 받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사정을 변호하시려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대언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

해 그토록 쓰라린 죽음을 견디셨는데, 그 죽음이 효력을 내게 하시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람들이 마땅히 분별이 있다면, 하나님께 심판받는 것보다 더 바랄 것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그들이 그분의 자비로 피하고, 우리를 정죄하려고 심판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무죄로 선언하시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자신을 맡긴다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 우리는 사도 바울과 함께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롬 8:33–34).[8]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사정을 변호하시는 대언자이시고, 그분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책임지시는 분이신데,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느냐?" 이제 우리가 고발이나 정죄를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욥은 여기서 자기가 격정과 고통 속에서 얼마나 흔들렸는지 밝혔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악함을 억눌러야 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본성이 얼마나 지나친지 우리가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욕망에 고삐를 풀어 준다면 어디까지 가게 되겠습니까? 욥은 하나님과 다투기를 구합니다. 아, 그가 자기 소송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는 깊은 구렁에 빠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누르시고 우리 격정을 길들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이것을 잘 새깁시다. 사람들이 육적인 욕망에 휩쓸리면 그렇게까지 넘쳐흐르고 완악해져서, 거리낌 없이 하나님께 덤벼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CO 44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거슬러 그렇게 일어서는 것을 소름 끼쳐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렇게 하고, 그것은 우리에게 흔한 악덕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욕망이 그토록 사납고 우리를 하나님을 거슬러 무장시키니, 그 욕망에 재갈을 물리기를 배웁시다. 이 본보기가 우리에게 제시된 것은, 각 사람이 자기 힘이 닿는

8. 원문에는 "로마서 8장 32절 "로 되어 있습니다. 인용된 내용에 맞추어 33–34절로 바로잡았습니다.

한 그 욕망을 억누르려고 힘쓰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한 가지입니다.

그 밖에 우리는 우리 짐을 덜려고 하나님의 위엄을 줄여 달라고 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치실 때 그분의 손이 우리에게 너무 강하고 무겁다면, 우리가 그분의 더욱 능력 있는 힘으로 떠받쳐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읍시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어떤 고난을 보내실 때, 그래, 그때 우리는 "이 짐은 내가 지기에 너무 무겁다. 더는 어찌할 수 없다 "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토록 연약한 것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단 일 분이라도 버티는지 조금 살펴봅시다. 우리가 어떻게 견딜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힘으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실 때 우리가 그 타격을 견디고 그분의 힘을 감당할 수 있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치실 때 우리를 떠받치실 손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타격을 받을 때마다 틀림없이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흔히 말하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가락으로 한 번 튕기시기만 해도, 치시는 시늉만 하셔도 우리는 멸망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실 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서 그분의 능력을 줄여 달라고 구한다면 그것은 큰 어리석음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미 짚었듯이) 우리 짐을 덜려고 하나님의 영광이 줄어들기를 바라지 말기를 배웁시다. 결과는 정반대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더는 그렇게 강하거나 튼튼하지 않으면 우리 짐이 덜어지리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 소원에서 완전히 어긋날 것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멸망시키는 원인이 될 것입니다. (이미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당신의 능력을 펼치시는 것 말고는 우리를 지킬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 구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하나의 조항입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하나님께 당신과 우리 사이에 담보를 두시고 우리에게 보증과 담보물을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 소름 끼치는 신성모독이라는 것도

새깁시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욥이 이런 말을 쓴 것은 하나님 안에는 너무 높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리를 내려놓지 않으시면 죽을 인생은 감히 그리로 나아가지 못하리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께 나아갈 다른 보증을 주십니다. CO 45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 한마디로 만족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확신을 얻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받아들입시다. 그분이 우리를 거짓말로 먹이시거나 헛되고 하찮은 소망으로 기르시려 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는 데 신실하시다는 것을 확신합시다. 이것이 우리가 이르러야 할 곳입니다. 그 밖에 우리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좋은 담보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이, 그분이 당신의 독생자를 죽음에 내주시고 다시 살리셨을 때 확증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충분히 큰 확실함을 가져다줄 담보가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당신의 약속을 인 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것 또한 아름다운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진실하심을 의심할 까닭이 없고, 그분의 말씀에 담긴 것이 우리에게 온전히 확실하고 틀림없다고 자랑할 수 있게 하십니다. (말하건대)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증이고, 우리가 확신을 얻도록 우리 손에 쥐여 주시는 좋은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가 다른 보증이나 담보물을 구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으로 만족하기를 배웁시다. 요약하면 이것이 이 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우리는 우리가 짊은 것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곧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부드럽게 다루시려 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얼굴 앞에 나아가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 주시는데, 우리가 그분과 다투기를 구한다면 우리 안에 그만큼 더 큰 배은망덕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심판받기를 거절한다면 너무나 비뚤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쓰실 가장 큰 엄격함 속에서도 당신의 선하심을 잊지 않으시고, 필요하다고 보실 때마다 늘 우리 짐을 덜어 주시고 우리를 참아 주시며, 우리의 모든 고난에 좋고 바람직한 결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우리가 그런 복과 특권을 거절한다면 우리는 배은망덕한 자들보다 더한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남은 것은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 나아가, 그분의 은혜로 떠받쳐지는 것뿐입니다.

이어서 그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려 깨닫지 못하게 하셨으니, 그들을 높이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기서 욥은 자기를 위로한다는 핑계로 자기를 괴롭히던 사람들에 맞서 스스로를 굳세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말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곧 욥은 자기의 모든 감정을 털어놓았으므로, 그가 한 가지 말을 이어 가지 않고 이 말을 하다가 저 말을 하며 변덕스러워 보이더라도 놀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싸우면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사람이 싸움을 할 때는 CO 46 늘 한 자세로 있지 않습니다. 원수가 몰아붙이는지, 아니면 자기가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지에 따라 움직이고 몸을 돌리고 팔을 휘두르고 물러서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시험에 맞서야 할 때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피하려고 몸을 굽히고, 어떤 타격을 피하려고 물러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 돌릴 틈을 주시면 우리는 용기를 내고, 꺾인 것처럼 보였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섭니다. 우리가 여기서 욥에게서 보는 것이 이것입니다. 지금 그는 다시 용기를 내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 친구들이 비웃는 자들이어서 나를 괴롭히기만 하는 것을 보니 내가 슬퍼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때문에 내가 너무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아무 깨달음이 없다는 것을 내가 잘 압니다. 그러니 이치가 없는 그들에게 내가 매달려서는 안 됩니다. 짐승이 내게 덤벼들거나 개가 내게 짖으면, 그것을 달래려고 아무리 말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 사람들의 엉뚱한 말을 들을 때 내가 슬퍼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려 깨닫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미 짚은 것입니다. 곧 우리가 가련한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려면 하나님께 그분의 성령을 구하고, 그렇게 할 분별력을 주시기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지 않으면 우리 말은 헛되고 쓸모없을 것이고, 반대로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는 덕을 세우는 말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마음을 가려 깨닫지 못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 눈을 가리신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에서 마음이라는 말은 때로 깨달음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물론 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진실함과 깨끗한 양심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너희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아니하셨다"고 말할 때(신 29:4), 우리는 거기서 마음이 지성을 가리킨다는 것을 봅니다. 이 구절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아주 지혜롭다고 생각하던 이 사람들의 눈을 가리셔서, 그것 때문에 그들이 짐승처럼 둔해졌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욥의 이 친구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새겨 봅시다. 그들의 말을 보면 그들이 뛰어난 사람들이었고 무지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보듯 그들은 훈련된 사람들이었고 큰 지혜가 있었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셨다고까지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분별력이 겨우 한 방울밖에 없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눈멀게 하기를 기뻐하시면 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밖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들을 눈멀게 하신다면,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날카로운 감각을 믿으며 자기의 지혜를 CO 47 크게 자부하는 사람들은 겸손해지기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셔서 그들이 한낮에도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자기 분별력을 자랑하고 모든 것이 자기 머리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유익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눈멀게 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이 가려져서 아무것도 분간하지 못하는 가련한 맹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결말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지 않으실 것입니다. 곧 그분은 결국 그들을 부끄럽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 세상의 일에서도 그렇다면, 사람의 모든 감각을 훨씬 뛰어넘는 하늘나라의 비밀에서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일, 곧 지금 삶에 관한 일에서도 지혜로운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셔서, 가장 약삭빠르고 큰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어린아이처럼 되고, 우스꽝스러운 짓을 하며, 걸핏하면 넘어지려 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의 눈을 가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령으로 우리를 비추지 않으시면 알 수 없는 그 놀라운 비밀들로 훨씬 더 높이 올라가야 할 때는 어떻겠습니까? 이것으로 우리는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들이 복음과 구원의 모든 가르침을 조금도 맛보지 못하는 것을 볼 때 걸려 넘어지지 말라는 경고를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흔한 사냥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령으로 거기서 일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꼭 새길 만합니다. 오늘날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들이 복음에 굴복하지 못한다는 데 걸려 멈추는 연약한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명망 높은 아무개가 그렇다니.” 더구나 한 사람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큰 민족들을 내세울 것입니다. “아니, 인재가 그토록 많은 저 나라에서도 복음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을 보라.” 마치 그것이 우리의 재주에서 나오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보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타고난 감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성경은 우리가 거기서 눈이 멀 것이고, 사람의 감각으로는 하나님의 모든 지혜가 어리석음일 뿐이라고

말합니다(고전 1:21). 그렇다면 자기 지식을 자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눈이 머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맙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 때문에 그들을 버려두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겸손하고 작은 사람들의 스승일 뿐이신데, 그들은 크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의 학교에서 무엇이라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눈멀게 하시는 것을 볼 때, 우리 자신을 믿지 말기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당신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리셔서, CO 48 이 세상의 어둠 한가운데서도 우리가 밝히 보게 해 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다루듯(벧후 1:19) 그분의 말씀은 그런 용도로 쓰여야 할 등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어둠밖에 없더라도,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따를 때 우리는 바르게 인도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령으로 우리를 비추시고, 사탄이 우리에게 씌운 눈가리개를 벗기시고, 우리 눈을 여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 그분의 일이니, 우리 자신을 믿지 않으며 온전한 겸손으로 그분께 그런 은혜를 구합시다.

그 밖에 그가 덧붙이는 이 말을 새깁시다. "주님, 주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셨으니 그들을 높이지 않으실 것입니다." 욥이 (자기가 말하는) 이 맹인들이 높아지지 않으리라고 말할 때, 그것은 (이미 밝혔듯이) 그들이 거기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조롱하셔서 우스운 꼴로 만드시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그분께 받아야 할 빛을 잃었을 때, 결국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가련한 짐승처럼 곤두박질치게 하셔서 우리가 너무 터무니없는 일에 빠져 모든 사람이 우리를 부끄러워하는데 정작 우리는 우리 수치를 알아차리지 못하게 되지 않을까 두려워합시다.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마음에 내버려 두신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28절)에서 말하듯,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감각과 이성을 거두시면 그들은 더는

아무것도 분간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가련한 우상 숭배자들이 나무토막 앞에 엎드려 그것을 경배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짐승 같은 짓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그렇게 눈멀게 하시면, 그들은 완전히 짐승처럼 되어서 한 악에서 다른 악으로 떨어지고, 결국 너무나 추한 일에 빠져서 모든 체면을 잃고 본성을 거스르기까지 하며 소름 끼치는 일을 저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돼지 같은 술주정뱅이들을 보기만 해도, 욕정의 불에 너무 달아올라 자기 안에 아무 절제도 품위도 남지 않은 음란한 자들을 보기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눈멀게 하시고 그들의 눈을 가리셔서 더는 보지도 분간하지도 못하게 하실 때 나오는 하나님의 보응의 열매가 그것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아직 마지막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것에 이르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벌을 말씀하시고 사람들을 눈멀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을 때, 선지자는 "언제까지입니까?" 하고 묻습니다(사 6:11). 성읍들이 허물어지고, 백성들이 망하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을 때까지라는 것입니다. CO 49 사람들의 이 눈멂이 맺는 열매가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걸어가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결코 그렇게 눈이 가려지도록 허락하지 마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 구절에 관해서는 이렇습니다.

이어서 욥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친구에게 아첨하는 말을 전하는 자는 그 자식들의 눈이 멀 것이다." 욥은 여기서 이 자리의 정황에 맞게 말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그의 친구들이 무엇을 주장하려 했는지 보았기 때문입니다. 곧 이 세상에서 누가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들이고 누가 유기된 자들인지 알아보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 하나 남겨 둘 마지막 심판이 없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다루시는 것을 보고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평가하려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너무나 비뚤어진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욥은 특별히 아첨이라는 말을 씁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친구에게 형통을 전하는 자, 곧 어떤 사람에게 '자, 너는 복 받은 사람이다. 네가 형통하고, 편안하고, 부유하고, 사람들에게 호의를 얻고 있으니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다' 하고 말하는 자, 이렇게 말하는 자는 저주를 받아서 그 자식들의 눈이 멀 것이다." 곧 그가 자기 자신뿐 아니라 자기 자손까지 저주를 받으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먼저 이 덧없는 삶의 형통에 매달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것은 아첨만 가져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한 가지입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가 잘 실천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덧없고 세상적인 삶의 형통에 완전히 매달리는 것은 아첨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자기들이 하나님께 사랑받는다고 스스로 믿기 때문입니다. 소돔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망하게 한 원인이 이것이었습니다. 하늘에서 그들의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그들은 쾌락과 안락 속에 있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그들을 향한 판결이 아브라함의 면전에서 내려지고 선포되기까지 했습니다. 홍수 백이십 년 전에 세상은 쾌락과 향락에 너무 넘쳐흘러서, 하나님께서 더는 사람들을 돌보지 않으실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아무 의심도 하지 않다가 갑자기 덮침을 당하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형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평가해야 한다는 것은 CO 50 완전히 거짓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빌미로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신다. 그분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니까" 하고 말하며 우리 자신에게 아첨하지 맙시다. (말하건대) 그렇게 우리 자신을 속이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그것은 우리의 수치가 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아첨이라는 말이 담고 있는 뜻이 이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우리가 이런 아첨을 쓸 때 그것이 우리에게나 이웃에게나 비참한 것 이상이라는 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구나 형통할 때는 눈이 부셔서 하나님을 거슬러 높아지려 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이웃도 속입니다. 편안하게 지내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품에 있는 것처럼 믿게 하지만, 그 사이에 그들은 지옥의 심연에 있거나 그 바로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욥이 이웃에게 이렇게 형통을 전하는 자들에게 그토록 무거운 벌을 선언하는 데는 까닭이 있습니다. 요약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형통할 때는 서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이 보여 주시는 이 선하심에 감사드리는 데 힘쓰도록 권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는 우리를 위로하려고 주신 약속을 받아들여 그것이 효력을 내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드럽고 너그러우시더라도, 우리는 언제나 고난을 당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말하건대) 그분이 우리를 엄하게 다루기를 기뻐하시면 징계를 받을 준비를 하고, 그분의 손의 매를 받을 각오를 하기를 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밖에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들을 그들이 받아 마땅한 대로 다루신다고 말할 만큼 우리 판단이 흐려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면 그분이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분이 우리를 아끼시면 부드러움으로 우리를 당신께 이끄시려 한다는 것을 깨달읍시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 우리에게 닥치든, 우리가 언제나 고개를 들고 하늘에서,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는 그 복된 안식에서 우리 생명과 만족을 찾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이 없게 합시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괴로워하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얻어진 그 개선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엎드립시다.

제66편

욥기 17장 설교 2

CO 34:51–63

AI로 옮긴 초벌 번역입니다. 신학 감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CO 권: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 그분이 나를 사람들의 흔한 속담거리로 만드시고, 뭇사람 앞에 구경거리로 세우셨네. 내 눈은 분함으로 흐려지고, 내 온몸은 그림자 같네. 의인들은 이 일로 놀랄 것이나, 무죄한 자는 위선자를 거슬러 일어날 것이네. 의인은 자기 길을 굳게 지키고, 손이 깨끗한 자는 더욱 힘을 얻을 것이네. 자네들은 모두 돌이켜 다시 오게. 자네들 가운데 지혜로운 자가 하나도 없네. 내 날은 지나갔고, 내 계획과 내 마음의 생각들도 끊어졌네. 그들은 낮을 밤으로 바꾸고, 빛이 가깝다고 하면서 어둠을 내게 내밀었네. 내가 기다린다 해도 무덤이 내 집이니, 나는 어둠 속에 내 잠자리를 펴리라. 나는 티끌을 "내 아버지"라 부르고, 썩음을 "내 어머니요 내 누이"라 부르리라. 그러니 내 기다림이 어디 있으며, 내 소망을 누가 바라보겠는가? 그것은 무덤 깊은 곳으로 내려갈 것이니, 거기서 우리는 흙 속에 누우리라. (욥 17:6–16)

CO 51 욥은 앞에서 해 온 말을 이어 가면서, 요약하면 지금 처지로는 자기가 절망 상태에 있고 자기 고난에 더는 해결책이 없다는 것을 보여 주려 합니다. 그렇다면 말한 사람들의 의도가 옳을 경우, 곧 사람들이 이 땅에서 받아 마땅한 대로 다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곧 그분의 사랑과 미움을 이 현재 삶의 처지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 옳을 경우, 그가 하나님께 달려가려 해도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고 결론지어야 할 것입니다. 요약하면 이것이 우리가 주목할 점입니다. 그런데 먼저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조롱거리로 세우셨고, 자기가 구경거리와 우스갯거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가 쓰는 두 번째 말은 북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욥이 여기서 자기의 지난 형통과 그때 자기가 처한 그토록 크고 극심한 고난을 견주려 했다고 보았습니다. 마치 "전에 나는 크게 위세를 떨쳤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다루셔서 내가 우스갯거리와 수치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물론 그 말을 지옥으로 옮기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가 "뭇사람 앞에"로 옮긴 곳이 원문에는 "얼굴들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욥이 사람들이 때가 되기도 전에 자기를 저주받은 가련한 사람으로 판단했다고 말하려 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살펴보면, 우리가 짚은 뜻이 자연스러운 뜻입니다. 같은 말을 되풀이해서 더 굳게 확인하는 것이고, 이것은 성경에서 흔히 쓰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고난의 거울로 세우셨으니, CO 52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지 그분께 미움을 받는지를 현재 삶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면 그를 절망한 사람으로 여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기를 그런 사람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그에게 어떤 연약함이 있었든지 그는 그것과 싸웠고,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쌍히 여기시리라는 것을 확신하고 굳게 믿었으며, 자기 비참에서 어떤 출구가 보일 때까지 입을 다문 사람처럼 지냈습니다.

그러면 그는 무엇을 덧붙입니까? 의인은 이 일로 놀라겠지만 무죄한 자는 위선자를 거슬러 일어날 것이고, 의인들은 자기 길을 지키며 손이 깨끗한 자들은 새 힘을 얻어 더욱 굳세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욥이 의인들이 놀랄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경외하며 깨끗한 양심으로 걸어온 사람들에게 그분이 고난을 보내시는 것을 우리가 볼 때 그것이 이상하게 여겨지고 우리가 당황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우리에게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신다면, 선한 사람들과 그분 앞에서 깨끗하게 걸으려고 애쓴 사람들을 아끼시고, 아버지가 자식을 대

하듯 그들을 대하시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이 그분의 손에 끝까지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셔서 이 땅의 일을 생각하지 않으시거나,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처신하든 상관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겉보기에 그들의 원수로 나타나셔서 그들이 잔인함의 표시밖에 보지 못할 때 우리가 자주 놀라는 것입니다. 욥이 놀람을 말하는 까닭이 이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래도 무죄한 자들이 위선자들을 거슬러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곧 그들이 놀라더라도 좋은 결론을 내리지 못할 만큼 놀라지는 않으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새겨야 할 구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그것도 지금 우리가 보는 대로 바르게 판단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경험으로 압니다. (더 자세히 밝혔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질서 있고 나무랄 데 없도록 당신의 심판을 집행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일들은 뒤죽박죽입니다. 악인이 벌을 받는 것을 보면 의인은 더 벌을 받고, 선한 사람이 형통하는 것을 보면 악인은 갑절로 형통할 것입니다. 우리가 CO 53 이런 일들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놀라고 당황하며, 흔히 말하듯 어느 쪽으로 돌아서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일들을 타고난 감각으로 판단하면 얼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도 그것을 보여 줍니다. 경험해 보기만 해도 충분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으로도 우리에게 그것을 일러 주려 하셨습니다. 곧 지금 나타나는 것만 바라보고 더 멀리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혼란스러워지거나 감각이 눈부신 것처럼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자녀들을 치시는 것을 보고 의인들이 놀랄 것이라고 하는 이 구절을 잘 새깁시다. 실제로 여기에는 이런 점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들지 않고 우리에게 혹독하고 괴로운 모든 것을 역경이라고 부르듯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피하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이렇게

치시고 그들 위에 세게 매를 내리시는 것을 볼 때, 우리 본성 속에 있는 이 거부감 때문에 우리는 놀라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신이 택하시고 당신을 경외하며 섬기는 가운데 깨끗하게 걷는 은혜를 주신 사람들을 아끼지 않으시는 것을 보면 우리 안에 의심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말하건대) 그것을 볼 때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교훈을 배우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다시는 바른길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타격이 오기 전에 미리 깨달읍시다. 그리고 선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혹독하게 다루어지는 것을 볼 때, 그 때문에 걸려 넘어져서 모든 것을 내던지지 맙시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이 진창에 머물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 욥이 말하는 데까지 나아가 그를 따라야 한다는 것을 깨달읍시다. 곧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을 거슬러 일어서기를 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신자와 믿지 않는 자가 다른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겉모습은 사람들에게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재판관으로 나타나지 않으시고 짐짓 모른 체하실 때, 당신의 백성이 억눌려도 도움을 받지 못할 때, 그 사이에 악인들이 득세하여 목에 고삐가 풀린 채 아무 해결책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지 않으신다는 공상에 완전히 빠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멈추어 서서 이 혼란과 이 시험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진창 속에 빠진 사람이 단단한 곳에 이를 때까지 힘써 빠져나와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시편 40편(2절)[9]에서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말하건대) 우리는 CO 54 마귀가 우리를 깊은 구렁의 가장 깊은 곳으로 끌어내리려 꾀하고 이 방법으로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려 한다는 것을 느낄 때 힘을 다해 몸을 뻗어야 합니다. 이 지점에 이르러 그것을 얻을 때까지 힘써서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실

9. 원문에는 “시편 40편 3절“로 되어 있습니다. 프랑스어 성경의 절수를 한국어 성경의 절수로 바꾸었습니다.

것이다. 그들이 (보기에는) 억눌린 것 같아도, 그분은 그들이 늘 그분의 손에 떠받쳐지게 하실 만큼 능하시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 주실 것이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자기가, 그것도 기적 같은 방식으로 건짐을 받았다는 것을 느낄 것이다." (말하건대) 이것이 우리의 훈련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려 하시는 싸움입니다. 곧 이 세상에서 일들이 뒤죽박죽인 것을 보고 우리가 한동안 괴로워하더라도, 이 시험을 이길 때까지 다시 일어서려고 힘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간단히 짚었던 것을 더 자세히 표현하며, 의인은 자기 길을 지키고 손이 깨끗한 자는 더욱 힘을 얻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아주 유익한 가르침입니다. 많은 사람이 탈선하는 원인은, 그들이 첫날부터 보상을 받기를 바라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욕심대로 만족시켜 주지 않으시면, 그분을 섬기는 것이 헛수고라고, 선한 사람에게나 악한 사람에게나 삯이 다르지 않으니 그렇게 애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조바심 때문에 많은 사람이 분을 내고 고삐를 돌립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따르기를 잘 시작했더라도 용기를 잃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것을 잘 새깁시다. 의인들은 선한 사람들이 여전히 핍박을 받는 것, 하나님께서 그들을 잊으신 것 같거나 심지어 그들의 맞상대가 되셔서 친히 그들을 핍박하시는 것 같은 것을 보고 괴로워할 만한 생각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사람들이 한동안 괴로워하더라도, 자기 길을 지키기로, 곧 끝까지 버티기로 결론을 내릴 때까지 스스로를 굳세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나가는 길이 온통 가시투성이이고 울퉁불퉁하며 심지어 울타리와 바위와 도랑을 뛰어넘어야 하는 것을 보더라도, 하나님을 섬기기를 계속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믿음의 시험과 검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아름다운 풀밭이 있어서 그늘 아래 강을 따라 걸어가고, 우리 온 삶에 즐거움과 기쁨밖에 없다면, 누가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다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소원과 정반대로 일들을 보내셔서, 이제는 진창에 들어가고, 이제는 자갈 위를 걷고, 이제는 우리를 가로막는 가시덤불을 만나고, CO 55 울타리와 도랑을 만나 그것을 뛰어넘어야 하며, 애써 수고했는데도 거의 또는 전혀 나아가지 못한 것 같고 출구가 보이지 않을 때, 그럴 때는 하나님을 따라 걷기를 소원한 우리에게 괴로운 시험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직 자기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자기의 모든 욕망을 길들이고, 어렵더라도 자기 뜻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복종시키기를 배우지 못한 사람은, 바르고 신실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것, 곧 우리 길을 지키는 것을 실천합시다. 곧 우리 삶을 하나님을 따라 다스리려 할 때 그 길이 매우 험하다는 것과, 많은 반대와 장애를 만나지 않을 수 없으리라는 것을 깨달읍시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길을 지키도록 굳세고 꿋꿋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이런 검증으로 이끄셔서 그들이 많은 괴로움을 겪도록 허락하시는데도 그들이 굳게 버텨야 한다면, 괴로움도 괴롭힘도 당하지 않으면서 바른길을 버리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볼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이 연약한 것을 보시고 그들을 참아 주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 그분은 그들의 기질에 맞게 다루셔서 아주 혹독한 시험을 보내지 않으십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마치 일부러 하나님을 떠나기를 즐기는 것처럼 탈선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묻건대, 그들이 욥이 여기서 말하는 것과 같은 시험을 받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대부분의 사람에게 있는 배은망덕이 보입니다. 아무 압박도 받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왜 그러는지, 무슨 시험을 받았는지 물어보면, 그들의 본성이 너무 악하고 비뚤어져서 걸핏하면 저주받기를 원한다는 것 말고는 아무 까닭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나가기를 원하시는 길이 큰 어려움으로 가득하고,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혹독한

일을 만날 만큼 앞으로 나아가기 힘들더라도, 여기서 보여 주는 대로 우리 길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잘 살핍시다.

그러나 우리가 새 힘을 얻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 없으므로, 욥은 손이 깨끗한 자가 힘을 얻을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이것으로 먼저 새길 것은, 우리 안에 너무 큰 연약함이 있어서 각 사람이 자기에게 아첨하고 자기가 연약하다는 것을 알자마자 느슨해진다면, 하나님을 섬기려는 모든 사람이 끝장나고 우리 안에 아무 굳셈도 꿋꿋함도 없으리라는 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CO 56 연약한지 조금 살펴봅시다. 하나님께서 어떤 좋은 열심을 주신 사람들조차 그렇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기 타고난 감각에 머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욥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사람들, 이미 위에서 그런 능력을 받아 선을 행할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다룹니다. 그런 사람들도 여전히 연약하고, 너무나 힘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몰아붙이시면 어떤 시험에 맞서야 할 때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런 연약함을 느낀다고 해서 용기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스스로를 굳세게 해야 한다고 할 때, 우리는 우리가 연약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아 주시고 그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위선으로 우리 자신에게 아첨하지만 않는다면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 안에 육적인 연약함이 그토록 많다는 것을 알면 "아, 나는 사람일 뿐이다. 우리가 무엇이냐?" 하며 자기 악덕 속에서 자신을 기릅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있는 흔하고 보통의 악덕을 내세우면 자기 책임이 면제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연약함을 느끼게 하실 때마다 그것이 해결책을 찾으라고 가르치시는 경고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에게 아첨하며 우리 악덕을 기르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우리가 고치려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 잘못을 용서하시리라고 생각하며 많은 사람이 속는 그런

시시한 변명을 찾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오히려 힘을 얻도록 힘씁시다. 그런데 그 힘을 어디서 얻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자기가 연약하다고 느낍니까? 성경이 힘이 있다고 보여 주는 곳으로 가서 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과 굳셈의 영을 당신 안에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시험에 꺾일까 두렵습니까? 굽힐까 두렵습니까? 하나님께 우리를 굳세게 해 주시기를 구합시다.

신자들은 이렇게 스스로를 굳세게 합니다. 자유의지를 믿고 놀라운 것을 자기에게 돌리며 자기 뜻을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처럼 헛된 자부심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결국 기울어지고, 그들 안에 헛된 것밖에 없었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러니 우리가 제대로 굳세지기를 원합니까? 우리 의를 자부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마귀가 우리에게 많은 싸움을 걸어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그분이 당신의 성령으로 우리를 굳세게 해 주시기를 구합시다. 요약하면 신자들의 삶은 이렇습니다. 곧 그들에게는 많은 시험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땅의 순례길에 있는 동안 그토록 많은 CO 57 비참에 매여 있으므로,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려고 애쓰는 사람들도 자주 많은 고난과 많은 시련에 짓눌리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놀랄 때, 처음에는 그것을 아주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겠지만, 그런 시험과 싸워서 탈선하지 않고 바른길에 머무릅시다. 그리고 우리 안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더라도, 사탄이 우리를 그분을 섬기는 데서 돌아서게 하려고 애써도 우리가 끝까지 그분을 섬기기를 계속하도록, 그런 이길 수 없는 능력을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욥은 여기서 특별히 손이 깨끗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참된 온전함이 마음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적어도 그 뿌리는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가장 완전하고 가장 천사 같은 삶을 산다 해도, 하나님을 섬기려는 깨끗하고 바른 마음이 없다

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잘못이나 해를 끼치지 않으며, 아무도 그를 원망하거나 그에게 무엇을 탓할 빌미를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이 야망으로 불타고, 위선이 있고, 자기를 기뻐하거나, 다른 어떤 숨은 악덕에 물들어 있다면, 비록 그것이 사람들에게 높이 평가받는다 해도 그의 모든 것에는 더러움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는 마음의 성향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이 장뿐 아니라 다른 여러 곳에서도 보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욥은 의인과 위선자에 맞서는 무죄한 자, 곧 온전한 자를 말한 뒤에, 손이 깨끗한 자를 덧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내적인 정직함을 가져야 하지만, 그와 함께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실제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악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멸시하는 자들이 자기들이 누구 못지않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며 자기들에게는 나무랄 것이 없다고 가장 대담하게 자랑하는 것을 봅니다. 요컨대 오늘날 그럴듯한 공언을 듣고 싶으면 가장 악한 자들을 찾아가면 됩니다. 그들이야말로 자기를 내세우려고 부풀어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사창가의 뻔뻔한 창녀들처럼 와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 말이오? 내게서 무슨 흠을 찾겠소?” 어린아이들도 그들의 삶을 분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삶이 너무 가증해서 공기까지 악취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안에 온전함이 있다는 것을 보이려면 우리 손도 깨끗하고 정결해야 한다고 특별히 말하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사람들과 지낼 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실제로 보여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컨대 우리는 CO 58 좋은 뿌리를 이렇게 증언해야 합니다. 누가 “저기 좋은 나무가 있다“고 말하는데 그 나무가 맺는 열매가 좋다는 것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좋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뿌리와 나무의 본성이 좋지 않으면 결코 좋은 열매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했듯이) 우리 마음에 그런 정직함과 온전함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쓴다는 것을 진실로 보여 주려면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요약하면 이것이 이 구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욥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자네들은 돌이켜 다시 오게. 자네들 가운데 지혜로운 자가 하나도 없네.”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들었듯이) 욥이 그렇게 핍박을 받는 것을 보고 그가 하나님께 유기된 사람이며 그에게는 저주밖에 없다는 것을 보이려고 많이 논쟁한 그 세 사람의 말을 반박하려는 것입니다. 욥은 사람이 하나님께 유기되었다고 말하려고 이 현재 삶에서 보이는 고난을 근거로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이 한 가지입니다. 다음으로 그는 또 사람들이 늘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이 아니며, 선한 사람들이 때로는 까닭을 알 수 없이 고난을 당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묻고 아무리 애써도 우리는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감추어져 있고 헤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그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므로, 그는 그들에게 아무 지혜도 없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앞에서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내시는 고난을 바르게 판단하는 것은 결코 작은 지혜가 아닙니다. 내 말은, 각 사람이 자기 처지에서 하나님의 손에 찾아오심을 받을 때, 자기 죄를 알고 자기 자신 속으로 들어가 겸손해져서 “이것은 내게 꼭 맞는 약이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런 악덕이 있는 것을 아셨고, 내가 그것을 알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셨다. 그러니 이제 나는 모든 것을 나 자신에게 적용해야 한다” 하고 깨달을 줄 안다면, 그것은 그에게 큰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는 하나님의 매에서 유익을 얻을 줄 알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특별히 왜 고난을 당하는지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것을 손가락으로 짚어 낼 수 없더라도, 이렇게 결심하는 것이 그에게 지혜가 될 것입니다. “그래, 주님, 주께서는 내 안에 감추어진 병들을 아십니다. 내가 잘못했는데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 해도

주님은 아십니다. 주께서 참된 의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가 주의 손에 고난을 당할 때, 내가 늘 주의 매와 주의 훈계 아래에서 유익을 얻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기 악덕을 징계하려 하셨다는 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더라도, 그는 이렇게 말할 만큼 겸손해져야 합니다. "아, 주님, 주께서 왜 CO 59 이렇게 하시는지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는 의로우시고, 이것은 내게 유익할 것입니다. 그것이 다만 나로 세상을 잊게 하고, 나를 주께로 더 이끌며, 하늘의 삶을 맛보게 해서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쾌락에 빠지지 않게 하시려는 것뿐이라 해도 말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모든 매를 자기 가르침에 적용할 줄 알 만큼 분별이 있다면, 그것은 아주 큰 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평생 동안 큰 유익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웃에게 보내시는 징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매를 맞는 것을 보면 우리는 이렇게 판단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징계를 받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죄를 알았고 그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이자 방탕한 자였다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 때문에 그를 치신다고 느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웃을 판단하면서 그것이 곧바로 우리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식으로 말입니까? "자, 나의 하나님, 주께서 이 사람을 벌하신다면 나는 어떻겠습니까? 주께서 내게 주를 섬기려는 소원을 조금이라도 주시는 은혜를 베푸셨다 해도, 주님, 나는 그만큼 주께 더 빚진 자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나를 징계하려 하시면 나는 더 많이 견뎌야 할 것입니다. 나는 이 사람보다 더 나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다시 떠올라야 합니다. 다음으로 그분이 어떤 사람들에게서는 음란을, 다른 사람들에게서는 술 취함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서는 신성모독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서는 약탈과 사기와 거짓 맹세를 벌하시는 것을 볼 때, 그래, 우리는 늘 그 모든 것에서 유익을 얻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합니

다(고전 10:6, 11). 그것들은 모두 그림과 같아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당신이 모든 불의를 얼마나 미워하고 혐오하시는지, 그리고 속담대로 우리가 남의 일을 보고 얼마나 유익을 얻어야 하는지 보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밖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크거나 엄청난 불경건을 보지 못해서 "저기 악인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 있다"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을 치시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너무 극단으로 치우쳐서도 안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몇 가지 연약함이 있었지만 그러면서도 정직함의 좋은 표시를 보였다고 합시다. 우리가 그가 큰 고난 속에 있는 것을 본다면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가련한 피조물을 왜 치시는지 아신다. 그러나 우리는 그를 불쌍히 여기고 동정해야 한다." 그래서 다윗은 가난한 자를 그 고난 속에서 판단할 줄 아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시 41:1). 곧 하나님의 종들과 자녀들이 고난에 짓눌리는 것을 볼 때 그들을 참아 줄 수 있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에게 인정을 베풀고, 그들을 마구 정죄하지 않는다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도 그런 엄격함을 고집하려 한다면 우리가 갑절로 정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CO 60 욥이 여기서 이 친구들에게 아무 지혜도 없다고 반박하는 데는 까닭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의 고난을 함부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학교에서 잘 배우고 우리 구원에 유익한 참된 분별력을 얻으려면, 이 세상에서 우리와 이웃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는 데 힘을 쏟고, 아침저녁으로 거기에 머물러야 한다는 경고를 받습니다. 각 사람이 거기에 힘써 훈련한다면 그것은 아주 잘 쓴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오시는 가르침의 핵심은 우리가 그분의 심판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고 그것으로 그분을 경외하는 데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우리 안에 완전한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다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온갖 겉모습을 갖추고, 성경을 정교하게 논하고, 그럴듯한

인용을 많이 끌어올 수 있다 해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징계와 고난을 보내실 때 우리에게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바르게 판단하는 데까지 이르기 전에는 헛된 것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위에서 욥은 자기 말을 마무리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날은 지나갔고, 자기 생각은 없어졌으며, 자기의 모든 계획은 부서지고 꺾였다는 것입니다. 빛 대신 어둠이 있었고, 날이 밝으리라고 생각했을 때 밤이 왔다는 것입니다. 요컨대 그는 자기의 모든 고난에 출구가 없었고, 이 현재 삶에서는 자기가 다시 일어서리라는 소망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때 나는 썩음에게 '너는 내 아버지' 라고 말했고, 티끌에게 '너는 내 어머니요 내 누이' 라고 말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더는 이 땅에서 친척이나 친구를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들에게서 감추셨고, 나를 산 사람들의 줄과 무리에서 잘라 내셨다. 나는 가련한 송장과 같다. 다시 돌아가리라고, 피조물들이 내 짐을 덜어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니 나는 완전히 깊은 구렁에 빠졌고, 내 처지에는 더는 해결책이 없다. 내 기다림이 무엇이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는 더는 기다림이 없다. 위아래를 다 둘러보아도 나는 깊은 구렁으로 내려가야 하고, 내 자리는 저 아래, 곧 죽음 속에 있다. 내가 무엇을 기다리든, 무엇을 짓든 그렇다." 그가 쓰는 말은 "짓다"에서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기다림을 말하면서 이 건물을 바라보는 것은 아주 알맞은 비유입니다. 이 말의 뜻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참고 내 고난을 계속 견디며 늘인다 해도, 내게 남은 것은 무덤뿐이다." 그는 이 기다림을 건물에 견줍니다. "나는 늘 어떤 소망을 남겨 두려고 아무리 집을 지어도 소용없다. 내게 더 나은 일이 일어나겠는가? 아니다. 내가 아무리 잘 지어도 CO 61 내 집은 무덤뿐일 것이다." 욥은 여기서 마치 하늘의 삶을 더는 맛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비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처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누구에게 말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물론 앞에서 그가 격정에 빠져 하나님과 다툴 때, 그는 자기에게 무서운 두려움들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늘 그것에 맞섰습니다. 그리고 그가 느낀 격정을 다룬 뒤에, 이제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현재 삶에서 선한 사람들과 신자들 위에 드러나야 하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겉으로 당신의 백성에게 자비를 보이지 않으시면 그분이 그들을 버리셨고 그들이 완전히 절망 상태라고 결론지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이 어떠한지 보여 줍니다. 욥은 그것을 비웃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 덧없고 무너질 삶에서 사람들이 받는 삯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밝혔듯이) 이렇게 판단하려는 것은 너무나 비뚤어진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욥이 여기서 절망한 사람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새깁시다. 그는 자기 친구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을 느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분께 버림받은 것이라고 그에게 믿게 하려 할 때, 그들의 어리석음을 꾸짖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잘 이해하려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 부활을 우리에게 확신시키려 할 때 펴는 논증을 살펴봅시다. 그는 "우리는 땅 위의 모든 사람보다 더 불쌍한 자"라고 말합니다(고전 15:19).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 세속적인 사람들, 위선자들, 하나님을 대놓고 업신여기는 모든 사람과 견주어서, 누가 더 잘 대접받는지 살펴보십시오. 모든 것을 따져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걷는 사람들보다 온갖 악에 빠진 사람들에게서 더 많은 형통을 보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만큼,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를 바로잡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이웃의 자식들보다 자기 자식들을 바로잡는 데 더 마음을 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밝히시려고, 우리가 잘못하는 것을 보시면 우리를 징계하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분은 우리의 순종을 시험하려 하시는데, 그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분은 우리 믿음을 확증하려 하십니다. 사도 베드로가 일깨워 주듯(벧전 1:7), 믿음은 너무나 귀해서 금과 은처럼, 아니 그보다 더 시험받을 만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알듯이 마귀는 우리를 거슬러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꾀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마음을 기울이는 것을 볼수록 그의 분노는 더욱 타오릅니다. 모든 악인이 우리의 원수이고, 사탄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그들을 이용합니다. 그러므로 CO 62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불쌍하다고 해서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더 나은 기다림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려고 이 논증을 씁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버리고, 우리를 발로 짓밟고, 우리가 온 세상에 수치와 조롱거리가 될 때, 우리에게 약속된 그 부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게 되리라는 그 부활을 우리가 바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에게 그것이 없다면 하늘에 하나님도 더는 계시지 않을 것이고, 의도 섭리도 더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이 논증이 이 구절을 여는 열쇠 구실을 해야 합니다. 욥은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들은 나를 절망한 사람처럼 보네. 내가 이리저리 많이 돌아다녀도 결국 무덤으로 가야 하니, 그것이 내 거처이고, 내 주위에는 썩음밖에 보이지 않네. 그런데도 자네들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 사랑받거나 미움받는 대로 다루어진다고 내게 믿게 하려는가? 나로 말하자면 나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썼다는 것을 알고, 내 기다림에서 헛되지 않을 것이네. 그런데 나는 여기서 더할 나위 없이 혹독하게 다루어지고 있네. 모든 사람이 나를 흘겨보고, 나는 구경거리와 뭇사람의 이야깃거리가 되었네. 그러면 무엇이 남겠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복과 특권을 묻어 버리고 내던지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조롱하시고

속이시며 그들이 그분의 약속에 기대는 것이 헛되다고 결론짓든지 해야 할 것이네. 자네들은 내가 그런 불경건에 빠지기를 바라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보는 것에 따라 하나님의 미움이나 사랑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읍시다. 우리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치시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온통 엄격함만 보이실 때 당신의 선하심이 한동안 감추어져 있더라도 그 선하심을 맛볼 기회를 그들에게 남겨 두신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하며 위로를 얻읍시다. "그래도 나는 내 하나님께서 결국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그분을 아버지로 느끼게 되리라는 소망을 늘 붙들 것이다. 그리고 한동안 내가 그분을 거슬러 일어난 일이 있었다 해도, 나는 다시 그 결론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절에서 잘 세워지려면 어떤 가르침을 거두어야 하는지 압니다. 곧 우리는 이 현재 삶의 비참, 특히 우리가 느끼고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서 보는 비참을,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나은 것이 남겨져 있다는 하나님의 표시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하늘의 삶의 소망 안에 굳게 서게 하는 원인이 되어야 합니다. 방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후서에서(살후 1:5 이하) 말하는 것을 본 것과 같습니다. CO 63 그는 그들이 많은 고난을 당하고 악인들에게 괴롭힘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표시다. 너희가 그렇게 억눌린 뒤에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는 것이 마땅하고 그분의 본성에 맞는 일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땅에서 안식을 얻지 못했으니, 하나님께서 하늘에 너희 안식을 마련해 두셨다는 것을 깨달으라. 그 밖에 악인들이 받아 마땅한 대로 벌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에 맞는 일인데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것을 보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고난과 혼란과 비참 가운데서 마치 거울처럼 너희가 언젠가 그분께 이르리라는 것을 밝히신다는 것을 깨달으라. 그리고 너희 기다림도 거기에 맡겨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가난과 환난을 보내시면, 늘

하늘의 삶에 대한 소망으로 이끌리기를 배웁시다. 선한 사람들과 하나님의 가련한 자녀들이 혹독하게 다루어지고,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고, 그들의 인내를 이용하고, 그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볼 때, (말하건대) 그 모든 것을 볼 때 이렇게 깨달읍시다. "보라,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삶에서 일들이 뒤죽박죽이더라도 그 때문에 우리가 탈선해서는 안 되고, 더 멀리 바라보아야 한다고 밝히신다. 우리가 이 세상과 이 썩을 것들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그저 그곳을, 그것도 아주 빨리 달리듯이 지나가야 한다고 밝히신다." 그 밖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끼신다면, 그분이 우리를 평안 속에 지켜 주실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며 우리에게 당신의 선하심을 조금 맛보게 하시려는 것임을 깨달읍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분은 그것이 앞날을 위해 우리에게 쓸모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담대하게 그분을 신뢰하기를 배우고, 그분이 이 세상의 모든 싸움과 공격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기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늘 아래 숨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두신 모든 좋은 것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시리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엎드립시다.

제67편

욥기 18장 설교 1

CO 34:64–75

AI로 옮긴 초벌 번역입니다. 신학 감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CO 권: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 그러자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자네들은 언제 말을 그치겠는가? 깨닫고 나서 우리가 말하게 하게.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처럼 여기며, 자네들 보기에 우리가 미련하고 하찮은가? 이 사람은 격분하여 자기 영혼을 찢는구나. 자네 때문에 땅이 버려지겠으며, 바위가 제자리에서 옮겨지겠는가? 참으로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네.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를 비추던 등불은 꺼질 것이네. 그의 걸음은 좁아지고, 그의 꾀가 그를 넘어뜨릴 것이네. 그의 발밑에 그물이 펼쳐져 있으니, 그는 그물 위를 걸어갈 것이네. 올무가 그의 발꿈치를 잡고, 도적들이 그를 덮칠 것이네. 그의 줄이 땅속에 숨겨져 있고, 그의 덫이 길 위에 놓여 있네. 두려움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의 발치에서 그를 짓누르며, 그가 어디로 가든 그를 넘어뜨릴 것이네. (욥 18:1–11)

CO 64 우리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판관으로 나타나시려고 사람들의 잘못을 벌하신다는 것이 참되고 매우 유익한 가르침이라고 풀이했습니다. 다만 그것이 분별 있게 이해되고 풀이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성경의 어떤 요점을 일반적으로 배운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것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서 유익을 얻어야 한다는 것을 봅니다. 경험으로도 성경을 마구잡이로 남용하고 무엇이든 함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제대로 적용되기만 하면 참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은 그것을 성령의 의도와 정반대로

비틀어 놓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리가 완전히 부패합니다. 빌닷이 여기서 다시 하는 일이 이것입니다. 그는 앞에서 이미 한 말, 곧 악인들이 한동안 형통하더라도 결국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형통이 영원히 지속되도록 두지 않으시리라는 말을 다시 꺼냅니다. 그것은 참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보내시는 벌이 이 현재 삶에서 이루어지고 드러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의 재판관이시라는 것이 눈으로 보인다고 생각할 때 그는 정도를 넘어섭니다. 반대로 CO 65 그것이 늘 보이는 것은 아니므로 그것을 일반 규칙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빌닷이 속는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가르침 자체는 좋고 거룩한데도 말입니다. 그러므로 언뜻 보기에는 아무 해가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악인을 눈에 보이게 벌하신다고 확신한다면 거기에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생각한 것과 정반대로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더는 세상의 재판관이 아니시고 당신의 직무를 버리셨으며 이 땅의 일들이 운수에 따라 굴러간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것은 가증한 신성모독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조바심의 시험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혼란을 바로잡지 않으시는 것을 보고 분을 낼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온갖 악에 빠지도록 유혹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인도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시니, 선을 행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우리는 그분을 부르기는커녕 그분에게서 완전히 멀어질 것입니다. 이처럼 빌닷은 좋은 가르침을 핑계 삼아 모든 경건(religion)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마음을 뒤엎고, 사람들을 절망 상태에 빠뜨립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는 성경에서 읽는 것과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 날마다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을 우리의 유익과 덕을 세우는 데 적용하도록 하나님께 분별력을 구해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빌닷은 먼저 사람들이 자기 말을 듣지 않고 자기가 한 말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화가 나 있습니다. 물론 그가 신실하게, 그리고 알맞게 가르쳤다면 화를 낼 정당한

까닭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의 가르침을 전하도록 세워졌는데, 우리 말을 듣는 사람들이 완악하거나 우리가 제시한 것을 비웃는 것을 본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조금이라도 있고 그분의 말씀을 경외한다면 우리는 괴롭고 속상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멸시는 우리를 향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자로 있는 살아 계신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분을 충실히 섬기는 사람은, 자기 수고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보고 슬퍼해야 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영혼들의 구원을 힘써 도모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멸망으로 가고, 좋은 경고에 그렇게 고집을 부리면 그들이 망한다는 것을 봅니다. (말하건대) 그런데 우리가 그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아야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빌닷이 마땅히 가르쳐야 할 대로 가르쳤다면, 사람들이 자기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탄식할 정당한 까닭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진리를 부패시켜 CO 66 거짓으로 바꾸었으니 슬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기서 누가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제시할 때 그것이 어떠한지 분별해야 하고, 우리가 모르는 것을 물리쳐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받습니다. 누가 자기 구원에 유익한 것을 보여 주려 해도 모든 것을 물리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그런 교만이 없게 합시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유익을 구하고 우리를 섬기려던 사람들을 슬프게 할 뿐 아니라, 그들 안에 거하시며 그들에게 우리를 세우고 좋고 알맞은 것을 제시하려는 열심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까지 슬프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 어떠한지 알기 전에는 그것을 업신여기지 않도록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그 밖에 빌닷이 여기서 욥에게 격분하여 자기 영혼을 찢는다고 나무랄

때, 우리는 (앞에서 짚었듯이) 사람들이 격정 속에서 스스로를 괴롭혀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늘 자기 고난 속에 더 깊이 빠질 뿐이며, 그것이 자기 머리 위로 돌아오리라는 경고를 받습니다. 물론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불평하고 날뛰고 분을 내고, 심지어 하나님을 거슬러 어떤 모독의 말을 쏟아내면 그만큼 짐이 덜어지리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말하건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고난 속에 붙잡아 두실 때 그들은 이렇게 앙갚음하려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결국 그들이 자기 사정을 조금이라도 낫게 했습니까? 오히려 이 구절에서 말하듯 그들은 격분하여 자기 영혼을 찢을 뿐입니다. 이방인들도 사람의 분노는 타오르고 거센 광기라고 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복종하지 못하고 점점 더 쓰라려지기만 한다면, 묻건대, 그는 미친 사람과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맞서려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역경을 보내실 때 우리에게 격정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격정에 재갈도 절제도 없어서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을 거슬러 타오르게 하고 찌르게 하여 우리가 쓰라림으로 가득하다면, 그렇게 하나님께 부딪쳐 갈 때 우리는 (이미 말했듯이) 광기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피조물이 감각과 이성을 잃지 않고서야 감히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가 잘 새겨야 할 구절입니다. 빌닷이 이것을 욥에게 잘못 적용하기는 했지만, 이 말 자체는 참이고 우리에게 쓸모 있어야 합니다. 조바심이 사람 안에 있는 일종의 광기라는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입니다. 조바심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고난 때문에 괴로워하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CO 67 하나님께 그저 복종해서 그분이 당신 뜻대로 우리를 처분하시게 하지 못할 때 생기는 지나친 분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격정이 너무 넘쳐흘러서 고난 속에서 절도를 지키지 못한다면 조바심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격정을 붙들고 누그러뜨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거슬러 발광하는 사람들, 아니 완전히 미친

사람들과 같다고 결론지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렇게 선언하셨으니, 우리가 더 자격 있는 재판관을 원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면, 이 구절에서 말하는 것 가운데 경험으로도 지극히 참되다는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감정을 짧은 고삐로 붙잡아 두기로 마음먹은 사람은 큰 지혜를 얻은 것임을 깨달읍시다. 실제로 사도 야고보가 "누구든지 지혜가 필요하면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하는 것도 이런 뜻입니다(약 1:5). 왜 그렇습니까? 그는 인내를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친구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치시고 너희가 시험을 만날 때 그것이 너희의 유익과 구원을 위한 것으로 여기라. 물론 그것은 이상하게 여겨지고,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은 아주 적다. 그러나 누구든지 지혜가 필요하면 하나님께 달려가라."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시험과 역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시는 좋은 것들이라고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잘못은 우리가 분별이 없고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한지 모르는 데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가 지혜를 잃었을 때, 특히 우리 격정이 우리 안에서 너무 지배하여 우리 정신을 어지럽힐 때 하나님께 달려가자. 그분은 우리의 부족함을 잘 채우실 것이다." 그러므로 이 구절에서 우리가 거두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실 때 우리가 너무 분을 내지 않도록 우리 고통을 누그러뜨리는 데 힘을 쏟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내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 유익과 구원으로 바꾸시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미친 사람처럼 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로 우리 고난을 누그러뜨리지 않으려 한다면, 그 결말은 어떻겠습니까? 빌닷이 여기서 보여 주는 대로입니다. 곧 우리는 우리 영혼을 찢을 뿐일 것입니다. 가련한 발광자가 공상에 사로잡히면 불 속에 뛰어들고, 창문에서 몸을 던지고, 남을 해치다가 자기를 해치는 것을 보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우

리가 분노에 휩쓸리면 우리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 수치로 돌아오리라는 것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님을 거슬러 넘쳐흐르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가르침, 곧 우리 영혼을 찢지 말고 하나님의 선한 뜻에 완전히 우리를 맡겨서 그분이 우리에게 CO 68 원하시는 대로 하시게 하기를 배워야 한다는 가르침을 잘 헤아려야 합니다. 요약하면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 때문에 세상이 바뀌겠는가? 바위가 제자리에서 옮겨지겠는가?"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너무 정교하게 풀이해서, 세상을 하나님께서 그 안에 두시고 세우신 질서로, 바위를 세상의 힘이신 하나님으로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 억지스럽습니다. 빌닷은 더 단순하게 말하려 했습니다. 곧 욥이 자기 말로 자연의 질서를 뒤집었다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그가 뜻한 것이 이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빌닷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보는 이 자연 질서를 세우셨듯이, 그분의 심판도 제 길을 가야 한다고 내세웁니다. 그것은 참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그 심판이 모두 드러나서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눈으로 보고 손가락으로 만지듯 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그것을 잘못 받아들입니다. 그 점에서 그는 속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의도를 아는 것은 좋습니다. 그래야 거기에 담긴 가르침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는 "자네 때문에 세상이 바뀌겠는가?" 하고 말합니다. 곧 이런 뜻입니다. "자네는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말하는가? 자네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당신의 심판을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게 집행하지 않으신다고 주장하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과 공중과 땅에 이 질서를 세우시면서, 동시에 당신의 심판이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으시겠는가? 우리가 위아래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볼 때, 그것은 그분의 선하심과 지혜와 의와 그분의 모든 능력을 우리가 알게 하시려는 것이 아닌가?" 분명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모든 피조물 안에 그토록 아름다운 거울을 우리에게 보여 주십니까? 우리에게서 영광을

받으시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에서 우리에게 당신의 능력을 밝히시듯이, 당신의 심판도 우리에게 알려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참입니다. 곧 마땅히 이해되어야 할 대로 이해된다면 참입니다. 그러나 빌닷은 그것을 너무 일반적으로 넓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가 우리에게 하나님에 관해 말할 때마다,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 주시고 우리에게 더 가까운 그분의 일들이 늘 우리를 그분께로 더 높이 이끌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날마다 보는 것, 곧 하나님께서 비와 맑은 날씨를 보내시고, 땅이 열매를 맺게 하셔서 우리를 먹이게 하신다는 것을 자주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비와 맑은 날씨가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땅이 우리에게 양식을 낼 때 그것이 그분의 은혜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이 기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나아가 더 높이 올라가야 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땅에 그런 능력을 주신다면, 우리는 더 고귀한 피조물이니 더욱더 그분께 우리 능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CO 69 생명은 땅이 열매 맺는 능력보다 더 크고 더 뛰어난 것이 아닙니까?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분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먹이시는 일에 마음을 쓰신다면, 그분이 이렇게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가련한 송장에 지나지 않는 우리 몸까지 돌아보시는데, 우리 영혼이 그분께 훨씬 더 귀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까? 다음으로 그분이 땅에 뿌려진 씨앗이 썩은 뒤에 싹이 트고 새로 열매를 맺게 하신다면, 우리가 썩음으로 간다 해도 하나님께서 자연 질서에서 그런 능력을 보이시니 우리를 더 나은 생명으로 회복시키실 수 없겠습니까?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해를 비추시고 지게 하실 때 확실한 질서를 가지고 계십니다. 또 달은 달마다, 해는 해마다 제 궤도를 돌고, 우리는 별들과 행성들에 있는 질서를 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진실하심 속에 변함없이 계시며 여기

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는 표시를 주신다고 결론지어야 합니다. 자연 질서에 속한 것에서 그런 꾸준함을 보는데, 썩지 않고 이 세상의 변화와 바뀜에 매이지 않는 우리 구원에 속한 그분의 약속은 어떻겠습니까?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더 가깝고 친숙한 하나님의 일들을 통해 우리를 더 높이 이끕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 사이를 마땅히 분별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빌닷은 자기 말에서 완전히 뒤죽박죽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확실한 질서로 창조하시고 그 질서를 유지하시니, 그분의 심판도 모두 확실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결론은 잘못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해가 지고 뜨기를 원하시고, 그것으로 세상 끝날까지 그분이 우리가 여기서 보존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주시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포도나무와 나무들과 열매 맺는 땅을 볼 때, 그래, 하나님께서는 이 삶이 죽을 것이고 덧없더라도 당신이 이 삶을 돌보신다는 것을 보여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치 그분이 우리 손을 잡고 저 위 하늘로, 당신께로 우리를 들어 올리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아주 친숙하게 알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심판에 관해서는 다른 이치가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이 삶에서 그것을 조금만 맛보고, 그것이 마지막 날에 드러나기를 인내로 기다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때 지금 뒤죽박죽인 일들이 바로잡힐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심판을 부분적으로만 이루실 것입니다.

CO 70 그러므로 빌닷이 여기서 내리는 이 결론은 좋지도 알맞지도 않습니다. 그는 서로 크게 다른 두 가지를 섞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분별을 써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이 어떻게 참이면서도 잘못 적용되었는지 압니다. 이 말은 우리가 자연 질서를 통해 우리보다 높은 것들을 찾도록, 곧 하나님의 지혜와 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을 알도록 가르침과 깨우침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참입니다. 이 덧없는 삶에 관

한 것만이 아니라 그분의 영원한 하늘나라에 관한 것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 배은망덕은 너무 추하고 아무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포도나무가, 그리고 강과 들과 그와 같은 모든 것, 곧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시고 우리 앞에 드러내시는 모든 것이 우리 눈을 찌르듯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기서 그분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눈먼 자들, 곧 우리 무지 속에서 멸망하는 자들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으로 넘어갑시다. "참으로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머리 위에서 빛나던 등불은 어두워지며, 그의 불꽃은 더는 남지 않을 것이다." 빌닷은 이런 비유들로,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악인들이 영원히 형통하도록 두지 않으시리라는 것을 나타내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동안 악인들이 편안히 지내며 개선의 노래를 부르고, 마치 운수를 손에 쥔 것처럼 즐거워하도록 허락하신다는 것이 참이라는 점을 잘 새겨야 합니다. 빌닷이 이 말을 잘 이해했다면, 그가 뒤에서 하듯 스스로 덫에 걸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여기서 악인들이 때로는 형통할 수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면 그가 어디서 속습니까? 그는 그들의 형통이 끝나야 할 때, 마치 날짜를 정하듯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웃음을 울음으로 바꾸셔야 할 때를 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정할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보듯이, 그리고 우리가 일부 짚었듯이, 하나님께서는 때로 악인들을 무덤에 이르기까지 형통 속에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곧 그들은 괴로움 없이 순식간에 무덤으로 내려갈 것입니다. 시편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시 73:4–5).[10]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 사슬과 밧줄을 끌고 다니며, 이 땅에서 시들어 갈 뿐이다. 죽음이 그들을 뒤쫓는 것 같은데도 그들을 데려가려 하지 않는 것 같다. 악인들은 어떠한가? 그들은 건강하고 튼튼하며, 아무 생각 없이 죽는다." 그러하니

10. 원문에는 "시편 73편 41절"로 되어 있으나 이는 전자텍스트의 판독 오류로 보입니다. 인용된 내용에 맞추어 4–5절로 표시했습니다.

하나님께 이 세상에서 악인들의 빛을 끄시고 그들을 어둠, 곧 수치 속으로 몰아넣으시라고 기한을 정해 드리는 것은 우리 일이 아니라는 것을 새깁시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우리 CO 71 하나님을 탓하는 것이 됩니다. 또 우리는 그분의 뜻이 그렇지 않다는 경고를 받습니다. 그분은 어떤 심판을 마지막 날을 위해 남겨 두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여기서 말하는 것,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나 위선자들이 자기 집에 켜진 등불 같은 것을 가지고 있으리라는 것을 새깁시다. 물론 그는 빛, 등불, 광채라는 여러 낱말로 그것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빌닷은 여기서 성경의 흔한 방식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빛은 악인들이 편안히 지내며 즐거워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호의를 베푸시는 것 같다는 뜻일 뿐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환난과 고뇌를 밤과 어둠에 견주는 것은 아주 흔한 일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과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들, 또는 거짓밖에 없는 사람들은 한동안 형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거기에 익숙해지고 단련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새삼스럽게 여기면 우리는 혼란스럽고 괴로워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악인들이 쾌락 속에 있고 이 땅에서 즐기며 온갖 즐거움을 누리도록 허락하시더라도 우리가 놀라서는 안 된다고 굳게 마음먹어야 합니다. 이것이 한 가지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훈련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혹독하게 여겨지겠지만, 우리는 (이미 말했듯이) 거기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 밖에 둘째로 새길 것은,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빛을 끄실 것이고, 악인들이 즐긴 뒤에는 그들이 누린 쾌락과 즐거움의 값을 아주 비싸게 치를 수밖에 없으리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빛이 꺼지는 것은 틀림없이 일어날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시편 37편 (10, 35, 36절)에서 힘주어 말하는 것도 이것입니다. 그는 악인들이 그렇게 개선의 노래를 부르고, 모든 것이 그들만을 위해 있는 것 같고, 그들의 삶이

행복한 것으로 여겨지고, 마치 그들만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처럼 그들이 자랑하는 것을 볼 때, 그들을 시기하지 말라고 어떻게 권합니까? 다윗은 우리가 그것을 확신하도록 무슨 이유를 듭니까? 그는 그것이 지나가리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다리자. 그러면 우리는 악인들이 가졌다고 생각하는 모든 행복이 불행일 뿐이라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물론 그들은 (흔히 말하듯) 자기들의 행운 속에서 안심할 것이고, 그것을 더할 나위 없이 즐길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을 닮으라는 유혹을 받지 않으려면, 우리는 이 세상을 넘어서기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편안히 지낸 것이 아무것도 아니며, 그것이 지속되지 않는 즐거움일 뿐이라는 것을 보여 주실 것이다." CO 72 물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그 연약함 속에서 참아 주셔서, 자주 악인들의 형통을 끊어 버리십니다. 시편(125:3)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 숨 돌릴 틈도 없이 늘 고난 속에 있다면, 우리가 손을 뻗어 악을 행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는 연약하므로 하나님을 부르고 그분을 섬기기를 원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고난을 누그러뜨리시고 악인들을 억누르셔서 그들이 꺾이도록 따귀를 치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탈선하도록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느 정도 참아 주시려고 때로 이 덧없는 삶 동안 당신의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늘 그런 것이 아니므로, 빌닷이 한 것처럼 그것을 일반 규칙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빛을 끄실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냐? 오늘이나 내일이다" 하고 말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한을 정해 드린다면, 그분은 우리가 우리 기다림에서 헛되이 끝나도록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그분의 손에 맡깁시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없애실 때와 시기를 아십니다. 선지자가 말하듯(렘 12:3) 그분은

때로 소나 돼지를 살찌우듯 그들을 살찌우십니다. 사람이 소나 돼지를 살찌우는 것은 그것들이 배불리 먹은 뒤에 일을 시키려는 것이 아니고, 추위와 더위 속에 내보내거나 다른 짐승들처럼 수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소를 때려잡고 돼지의 목을 딸 때까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이 무덤 앞에 이를 때까지 그들을 살찌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미 짚은 것을 잘 새깁시다. 곧 하나님의 심판에 기대려면 우리는 세상을 넘어서야 하고, 아직 우리 눈앞에 감추어진 것들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목할 점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이 높아지고 모든 일이 그들 뜻대로 되는 것을 볼 때, 그래, 우리가 그것을 새삼스럽게 여겨야 하겠습니까?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그렇지 않았습니까? 옛 조상들도 이 시험을 받았고 거기에 맞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것을 하나님께 맡깁시다. 다만 악인들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쾌락이 그들에게 수치로 돌아갈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당신의 은혜를 그렇게 넉넉히 베푸시기보다 그들을 궁핍하게 다루셨더라면 훨씬 나았으리라는 것을 깨달읍시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그분의 선하심을 남용한 만큼, 그들은 자기 배은망덕 때문에 그만큼 더 무겁게 벌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당신의 직무를 행하시기를, 곧 악인들의 빛을 끄시기를 기다립시다.

그런데 그와 함께 우리는 CO 73 여기에 나오는 표현들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빌닷은 악인들의 발밑에 그물이 놓여 있어서 그들은 좁은 길로만 지나갈 수 있고, 그들이 높이 오르면 덫에 걸리듯 붙잡힐 것이며, 비록 숨겨져 있어서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더라도 그들의 발밑에 올무가 놓여 있다고 말합니다. 다윗도 이와 같이 악인들은 늘 얼음 위를 걸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 길은 반짝이고 겉보기에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아무 단단함이 없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생각하기도 전에 갑자기 헛디뎌 목이 부러지게 하실 것입니다. 이 비유들은 모두 한 가지로

모입니다. 곧 악인들이 형통하고, 사람들이 그들의 행복을 감탄하며 높이 치고 온 세상이 그것을 탐내더라도, 그들은 멸망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나도 아무개처럼 되고 싶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땅 밑에 숨겨진 그물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업고 다니시는 것 같고, 그들에게 날 수 있는 날개까지 있는 것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이 높이 난다면 그것은 더 세게 떨어지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이 땅에 발을 딛고 있다면 그 밑에 그물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받았으니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빌닷이 자기가 하는 말을 잘 이해했다면, 그렇게 모순의 그물에 스스로 걸려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물이 악인들의 발밑에 숨겨져 있다고 말하면서 그는 이것을 붙들었어야 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물을 보여 주시기 전에는 우리가 눈으로 그것을 볼 일이 아니다. 그러면 그것이 언제냐? 그것도 우리가 어떤 때를 정할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복종해야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실 것이다, 저렇게 하실 것이다" 하며 규칙이나 일반 법칙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쪽에서는 이 가르침을 제대로 적용하도록 잘 살핍시다. 악인들의 발밑에 그물이 있다고 할 때, 그래, 이 세상에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그물이 쳐져 있다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잡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사탄은 우리를 공공연한 전쟁으로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매복을 하고, 할 수 있는 한 몰래 우리의 멸망을 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현재 삶에서 한 걸음도 그물에 걸릴 위험 없이 내디딜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탄의 그물과 밧줄이 우리를 잡으려고 펼쳐지고 다 준비되어 있을 때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다 닦인 길이 있고, 시편 91편(11–12절)에서 말하듯 우리는 천사들에게 떠받쳐지고 인도까지 받습니다. 악인들로 말하자면, 그들에게는 늘 그물

이 쳐져 있습니다. CO 74 물론 그들은 스스로를 추켜세우고, 다른 사람들도 그들이 끝까지 행복하리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를 위해 무엇이 마련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물이 악인들을 잡으려고 그렇게 쳐져 있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우리는 그것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새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눈에 아름답고 즐거운 길만 보이고, 악인들이 날뛰며 넘쳐흐르고, 하나님께서 더는 그들을 붙잡으실 수 없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그들에게 무서운 멸망이 마련되어 있다고 결론짓기를 그치지 맙시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우리 생각이나 우리 눈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려는 사람들은 성경을 왜곡합니다. 우리가 그물을 보고 싶어 해도, 성경은 그것이 땅 밑에 숨겨져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심판을 우리에게 드러내실 때까지 모르는 채로 지내기를 받아들입시다. 내 말은 믿음으로만 깨달을 수 있는 감추어진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상대로 그것을 경험하려 한다면 그것은 잘못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호의를 베푸시고 그들을 결코 벌하거나 셈에 불러내지 않으려 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재갈을 물려야 합니다. 그때 선한 사람들은 이런 결론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래, 나는 이 사람들의 결말이 어떠할지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재판관이시니, 나는 그 결말을 볼 때까지 인내로 기다릴 것이다. 그리고 악인들이 붙잡히리라는 것을 이렇게 알았으니,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리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방법은 아직 내게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는 내 한계를 넘어 오르려 하지 않는다.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사이에 내가 거기서 유익을 얻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분께 법을 정해 드리는 것은 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서 특별히 발꿈치를 말합니다. 빌닷은 자기가 풀이한 대로 그물이 땅 밑에

있어서 악인들이 거기에 걸리리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도, 발꿈치라는 이 말로 이것을 표현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단번에 넘어뜨리지 않으시고 그들이 멀리 달려가게 두시더라도 놀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끝까지 와서 그 어느 때보다 더 개선의 노래를 부를 것 같을 때, 그때 그분이 그들을 몰아붙이시고 그들이 목이 부러지도록 헛디디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에 놀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기다리시다가 결국 그들의 발꿈치를 붙잡아 멸망으로 내던지시는 것을 받아들입시다. 이 말이 우리에게 쓸모 있어야 할 점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빌닷은 동시에, 두려움이 사방에서 그들을 놀라게 하고 그들이 어디로 가든 넘어뜨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들이 CO 75 좁은 곳을 걸을 것이고 어디로 가든 매복을 피할 수 없으리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악인들에게는 즐길 만한 넉넉한 공간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듯 그들은 이리저리 넘쳐흐릅니다. 그러니 그들이 늘 좁은 길을 걷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잘 그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 밖에 우리가 늘 그것을 바라보지는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십니다. 그것도 빌닷이 표현하는 대로, 두려움이 그들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움을 잘못 받아들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원수들과 악인들이 자기 죄를 알고 깨달아서 그 죄를 회개할 만큼 두려워해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인들이 놀라면서도 그 사이에 즐거워하고 흥겨워하는 것, 이 두 가지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려 할 때 흥분하고, 자신을 잊고, 짐승처럼 둔해지며, 놀라운 것을 스스로 믿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면서 자기들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악인들의 기쁨이 이렇습니다. 곧 미친 기쁨이고, 그들에게서 모든 감각과 이성을 빼앗아서 그들 안에 아무 절제도 남지 않게 하는 기

쁨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때로 그들을 셈에 불러내시고, 속에서 그들을 소환하셔서 그들이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게 하십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깨달음을 할 수 있는 한 묻어 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 주시고 밝히시는 것을 보지도 듣지도 않으려고 귀먹고 눈먼 채로 있기를 만족해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가르침을 실천하고 거기서 유익을 얻으려면 어떻게 풀이해야 하는지 압니다. 요약하면, 악인들이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가졌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행복하다는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안심하고, 양심이 평안하고 쉼을 얻어서 삶에서나 죽음에서나 참된 굳셈으로 나아가고, 심지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악인들에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슬픔이 없으려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려고 아무리 애써도, 그들은 이를 악물고 거부해도 슬프고 괴로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그들이 가질 수 있는 온갖 좋은 것들 가운데서도 그들의 삶이 불행하다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리저리 괴로움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 한다는 것을 알 때, 그것이 우리의 모든 고난 한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게 합시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우리의 유익과 구원으로, 그리고 우리 원수들의 수치로 끝맺으시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가르침을 이렇게 실천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더 길게 풀이할 만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다음 강해에서 더 풀이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간이 허락하지 않아 더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엎드립시다.

제68편

욥기 18장 설교 2

CO 34:76–88

AI로 옮긴 초벌 번역입니다. 신학 감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CO 권: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 그의 힘은 굶주림으로 변하고, 그의 옆구리에는 고뇌의 꺾임이 있을 것이네. 죽음의 맏아들이 그의 가지들, 또는 그의 살갗의 지체들을 먹을 것이니, 참으로 그의 지체들을 먹을 것이네. 그의 소망은 그의 장막에서 뽑히고,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끌려갈 것이네.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살고, 그의 거처에는 유황이 뿌려질 것이네. 아래로는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잘릴 것이네. 그에 대한 기억은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더는 들리지 않을 것이네. 사람들이 그를 빛에서 어둠으로 내던지고, 그는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네. 그는 백성 가운데 아들도 손자도 없고, 그가 살던 곳에 살아남은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네. 살아남은 자들은 그의 날에 놀라고, 앞서 가는 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이네. 악인의 장막이 참으로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가 이러하네. (욥 18:12–21)

CO 76 우리는 어제 시작한 이야기를 이어 가야 합니다. 빌닷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악인들을 벌하지 않고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이 말은 (이미 말했듯이) 마땅히 이해되기만 하면 참으로 옳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얽매어서, 우리가 익숙해진 방식대로 그분이 악인들을 이렇게 또는 저렇게 벌하셔야 한다고 고집하지 않고, 그분이 CO 77 당신의 심판을 집행하실 자유를 그분께 맡겨 드린다면 말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내용을 봅시다. 빌닷은 먼저 악인의 힘이 굶주림이 될 것이고, 그의 옆구리에는 꺾임이 마련되어(또는 준비되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힘을 말할 때 모든 능력을 뜻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마치 악인에게는 양식이 굶주림으로 바뀔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가 덧붙이는 둘째 부분, 곧 그의 옆구리에는 꺾임밖에 없으리라는 말도 이와 맞아떨어집니다. 옆구리, 곧 갈빗대는 힘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살만으로는 사람을 지탱할 수 없고, 더 단단한 갈빗대가 있어야 하며, 거기에 모든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저주하셔서, 그들이 튼튼해 보이고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히 갖춘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그들을 지켜서 부서지고 꺾이지 않게 하지는 못하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유익을 얻으려면 먼저 성경이 말하는 것, 곧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새겨야 합니다. 모세는 이 말로 우리가 가진 풍족함이 우리를 지탱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면, 떡과 마실 것과 먹을 것이 모자라도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그분이 굶주림의 때에 당신의 백성을 먹이시리라고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사람이 곳간을 가득 채우고 잘 갖추어 두었더라도, 그는 죽어 넘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것으로 지탱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요약하면 하나님께서는 만나에서 한 번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탱하시는 분은 오직 당신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그것은 만나처럼 우리에게 쓸모 있을 것이고, 모자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이 우리 위에 없다면 아무것도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풍족함 속에서 여위고 깎이고 소진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닷의 이 말은 참으로 옳고, 우리는 성경에 이와 맞아떨어지는 다른 구절이 많다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이 말씀에서 유익을 얻기를 배웁시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위에 부어질 때가 아니면 우리에게는 힘도 실체도 없다는 것,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이 거기서이고, 우리가 보존되고 우리 처지에서 유지되는 것이 그 방법으로라는 것을 깨달읍시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뢰를 온전히 거기에 둡시다. 그 밖에 악인들이 튼튼한 것을 볼 때, 그것이 언제까지나 계속되지는 않으리라는 것을 압시다. 물론 빌닷처럼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을 언제나 눈에 보이게 보여 주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내로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좋게 CO 78 여기실 때 당신의 심판을 집행하실 자유를 그분께 맡겨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이 구절에서 새겨야 할 점입니다.

이어서 그는 죽음의 맏아들이 그의 가지들, 또는 그의 살갗의 지체들을 먹을 것이니, 참으로 그의 지체들을 먹을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낱말이 되풀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죽음의 맏아들이라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더 혹독한 종류의 죽음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편안히 세상을 떠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끼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괴로움을 당하여, 어떤 이들은 얼마 동안 시들어 가다가 끝까지 꺾이고, 또 어떤 이들은 죽을 때 거의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나오는 죽음의 맏아들이라는 이 말은 큰 격렬함을 담고 있다는 것을 새깁시다. 곧 어떤 사람이 고문을 당하듯 붙잡혀 있고, 하나님께서 그를 두렵게 하셔서 그가 질겁하며, 사방으로 고뇌에 둘러싸이고, 온통 무서움의 심연밖에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빌닷은 악인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는 모두 죽을 인생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떠나야 한다는 조건으로 우리를 여기에 두셨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말하듯이(고전 15:53), 우리 안에 있는 썩을 것이 없어지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늘의 생명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각 사람이 죽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을 통해 우리를 썩음에서 건지기를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고, 우리 몸이라는 이

무너질 오두막이 허물어지더라도 그분이 우리 안에 훨씬 더 뛰어난 건물을 다시 세우시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영광과 불멸로 옷 입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 주님께서 악인들에게는 죽음의 맏아들을 보내시리라는 것을 깨달읍시다. 그들의 죽음은 두려움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고, 아무 위로도 없으며, 고통이 조금도 누그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다릅니다. 곧 우리가 모두 함께 죽음을 지나가야 하고 그것이 예외 없이 우리 모두에게 공통된 일이지만, 죽음의 문제가 닥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셔서 우리가 평안한 마음으로 그분께 나아가고, 참되고 올곧은 신뢰로 우리 영을 그분께 맡겨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하고 신실한 파수꾼처럼 그분이 그것을 받아 주시도록 말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큰 격렬함 속에서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흔들리고 질겁하며, 하나님께 맞서고, 몸부림칠 것이고, 그들을 위로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말한 것을 기억합시다. 곧 이것이 언제나 눈에 드러나지는 않으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때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도 격렬한 죽음을 보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몸이 고통을 당한다고 해서 그들의 영혼의 처지가 그 때문에 더 나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CO 79 바로 이 점에서 빌닷은 속았습니다. 우리가 늘 붙들어야 할 것처럼,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흔히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집행하시는지 알아차리지 못하므로, 여기에 우리 생각과 공상을 끌어들이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심판을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집행하시면 그것을 새겨서 유익을 얻읍시다.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한다면, 그래도 좋습니다. 그분이 우리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그 드러남을 마지막 날까지 남겨 두셨다는 것을 압시다. 그러나 그동안에도 우리는 이 결론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곧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것이라 해도, 신자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으

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담대히 그분께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분이 자기들을 받아 주시리라는 것을 알고, 그분이 마지막 날까지 자기 영혼을 선하고 확실하게 지켜 주시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더욱이 그 영혼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맡겨져 있고 그분이 그것들을 당신의 보호 아래 두셨으므로 멸망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담대히 죽음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반대로 모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혹독하고 무서운 죽음이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자기들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다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을 뒤쫓아서 그들은 온갖 두려움과 공포밖에 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들을 때, 우리는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고 죽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 그분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데려가려 하실 때, 우리에게 마련된 위로를 생각해서 그분께 거역하지 맙시다.

이어서 그의 소망이 그의 장막에서 뽑히고, 그가 공포의 왕에게로 끌려가리라고 말합니다. 불의한 자의 소망이 그의 장막에서 뽑히리라고 말할 때, 이것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동안 그럴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거처를 주셔서 그들이 온갖 편안함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궁전에 살기까지 하는데, 가련한 신자들은 몸을 누일 작은 오두막도 겨우 얻습니다. 이처럼 온갖 악에 빠진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 마치 세상의 주권이 자기들에게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살 것입니다. 그들은 넓고 큰 집을 가지고, 거닐 곳을 가지며, 게다가 자기들의 쾌락에 소망을 둘 것입니다. 곧 자기들이 너무나 든든히 기대어 있어서 결코 흔들릴 수 없다고 여길 것입니다. 시편에서(49:11)[11] 그들이 자연의 질서를 업신여긴다고 말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 지은 건물들을 보면, 그들이 높이 올라서 하나님의 손이 그들에게 닿을 수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에게 밝혀지는 것은 이 두 가지입니다. CO 80 그러므로

11. 원문에는 "시편 49편 12절"로 되어 있습니다. 프랑스어 성경은 시편의 표제를 1절로 세므로, 한국어 성경의 절수로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 뽐내고 호화롭게 사는 것을 볼 때 그것에 놀라지 맙시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행태가 시작된 것은 오늘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아직 우리 기업에 이르지 않았고 우리 구원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이 형통하고, 득세하고, 아름다운 집을 가지고, 더욱이 자기 운을 믿고 교만으로 부풀어 있으며, 그들의 소망이 (보기에는) 그보다 더할 수 없을 만큼 깊이 뿌리내린 것을 볼 때에도 우리는 흔들리거나 걸려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때, 그래, 그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 곧 그들의 소망이 그들의 거처에서 뽑힌다는 것을 새깁시다. 다시 말해 오늘 그들이 그토록 화려하고 그토록 무장하고 채비를 갖추어서 사방에 성벽이 둘린 것 같고 어떤 재앙도 그들에게 다가가 괴롭힐 수 없을 것처럼 보이더라도, 이처럼 악인들이 편안히 지내고 앞으로도 그것이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거처와 그들의 소망을 함께 말하는 것은 까닭이 없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우리에게 보여 주는 것은, 그들이 한동안 그렇게 높아지고 이 세상의 모든 비참에서 면제된 것 같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당신의 원수 갚음을 집행하시는 데 아무 방해도 받지 않으시리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그들이 공포의 왕에게로 가리라고 말합니다. 앞에서 죽음의 맏아들을 말하여 보통의 죽음보다 훨씬 더 두려운 격렬한 죽음을 나타냈듯이, 이제 빌닷이 공포의 왕을 말할 때 그것은 왕다운 혹독한 공포, 곧 찾아볼 수 있는 가장 큰 공포를 뜻합니다. 물론 비유로 마귀를 공포의 왕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스러운 뜻은 내가 짚은 그것입니다. 실제로 죽음의 맏아들과 공포의 왕은 같은 말투입니다. 그러므로 요약하면, 여기서 악인들은 선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품는 모든 두려움이 아무것도 아닐 만큼 그토록 엄청난 공포로 끌려 가리라는 위협을 받는다는 것을 새

깁시다. 우리는 이 구절을 잘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걱정과 두려움의 계기를 보내시면 우리는 괴로워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삶에서 바랄 수 있는 으뜸가는 좋은 것은 평안, 곧 모든 의심과 염려에서 벗어나고 면제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걱정 속에 있기를 원하신다면, 그렇다고 우리가 괴로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을 때, 그것이 크다 하더라도 CO 81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우리가 그분께 달려가도록 재촉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안전하다면 결코 그분의 날개 그늘 아래 숨으러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들과 같습니다. 아이들은 두려움이 없으면 신이 나서 이리저리 뛰어다닙니다. 그러나 무슨 두려움이 그들을 놀라게 하면 엄마 품에서 그들을 떼어 낼 수가 없습니다. 병아리들도 겁을 먹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렇게 쉽게 어미의 날개 밑으로 모여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별이 너무나 없어서, 우리에게 위험이 있다는 것을 모르면 길 잃은 짐승처럼 굽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당신께로 이끄시려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보내십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싫든 좋든 하나님을 파수꾼으로 모시지 않으면 우리 생명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보내시는 걱정과 두려움은 바로 이것을 겨냥합니다. 다음으로 그들은 그것을 통해 자기 힘을 믿지 않는 데 익숙해집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서 무너진 것처럼 되어 어찌할 바를 모르지 않는 한, 하나님께 제대로 소망을 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이 안심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위로를 받읍시다. 그들이 오늘 누리는 그 안식은 결국 아주 비싼 값을 치를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공포의 왕에게로, 곧 아무것도 그들을 건질 수 없는 그런 경악에 이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고통과 극심한 고뇌 속에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려 해도 아무 방도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기대도록 겸손해져야 한다고 말해 주어도 그들은 그 모든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맛볼 수도 없습니다. (말하건대) 오늘 하나님을 조롱하는 모든 악인들의 경악이 이러할 것입니다. 요약하면 이것이 이 절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살고, 그의 거처에는 유황이 뿌려지리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자기 장막에 살겠지만 그 장막이 그의 것이 아니므로 그 위에 유황이 던져지리라고 풀이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딱딱하고 억지스럽습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빌닷은 악인들의 거처가 망하거나 낯선 사람들에게 넘어가리라는 것을 나타내려 했다는 것을 새깁시다. 요약하면 그가 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다른 구절에서 포도밭과 땅에 대해 비슷한 말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율법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그분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배은망덕하고 거역한 자들을 향해 선포하는 저주이기도 합니다. "너는 포도나무를 심어도 다른 사람이 그 열매를 거둘 것이고, 씨를 뿌려도 다른 사람이 추수할 것이며, 집을 지어도 낯선 사람이 CO 82 거기에 살 것이다." 그러므로 이 저주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빌닷은 한동안 큰 집을 차지하는 자들이 결국 거기서 쫓겨나고 다른 사람들이 그 뒤를 이을 수밖에 없으리라고 말합니다. 더욱이 그들이 거기에 살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기서 짓누르시리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쫓아낼 약탈자들이나, 와서 그들의 재산을 털고 빼앗을 다른 원수가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유황이 위에서 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특별한 방도를 찾아내셔서, 악인들이 자기 장막에서 높아져 있고 아무도 그들을 거기서 내보내지 못하더라도 그들을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요약하면 이것이 여기에 담긴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말한 경고를 붙들기만 하면 이 말은 참되고 매우 새길 만합니다. 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세상에서 언제나 똑같지는 않고, 우리 감각으로 파악할 수 있도

록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늘 집행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보듯이 당신의 자녀들이 이리저리 옮겨 다니게 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는 정처가 없다"고 말한 것도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고전 4:11). 그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저주가 내려서 그들이 이 세상에서 떠돌기만 하리라는 뜻으로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그들이 당신의 기업과 저 위에 그들을 위해 마련된 안식을 찾도록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이 (흔히 말하듯) 나뭇가지에 앉은 새처럼 어디에 기대야 할지 모르고 이리저리 옮겨 다닐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이 저주가 그들에게 집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그들에게는 선과 구원으로 바뀝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처럼 악인들과 당신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을 황폐하게 하시는 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여기 나오는 이 저주를 맛보게 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밖에 그들이 자기 집에 살고 아무도 그들을 괴롭히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벼락과 유황을 손에 쥐고 계시니 그들을 넉넉히 멸망시키실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들을 편들고, 세상이 그들을 받쳐 주고 감싸 주며, 그들이 사방으로 무장하고 있다 해도, 그래, 그것이 하나님께 문을 닫아서 그분이 원하실 때 당신 쪽에서 원수를 갚으시지 못하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어서 그의 뿌리가 아래로 마르고, 그의 가지가 위로 잘리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빌닷은 다시 악인들이, 그들의 운이 그보다 더할 수 없을 만큼 행복해 보여도 결국 부끄러움을 당하리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가 끌어오는 이 비유가 우리를 그리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는 그들을 뿌리를 땅속에 둔 나무에 견줍니다. 잘 심긴 나무가 있고, 그 위로는 넓게 뻗어 줄기와 CO 83 가지들을 가지고 있으며, 그 가지들이 꽃과 잎과 열매까지 맺습니다. 악인들과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의 겉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이런 비유들은 우리가 잘 새길 만합니다. (이미 밝혔듯이) 하나님께서 악에 넘쳐흐르는

자들을 첫 번에 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호의를 베푸시고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를 지치게 하는 데에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장 원수를 갚으시기를 바라며 욕망으로 끓어오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것을 더욱 잘 새겨야 합니다. 곧 악인들이 아름다운 나무들과 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35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불의한 자가 높아진 것을 보았다. 그가 얼마나 높았던지 레바논 산의 백향목처럼 보였다." 백향목이 나무들 가운데 매우 우뚝하듯이, 악인들도 사람들 가운데 그러하여 모든 사람이 그들 밑에서 낮아져야 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윗은 "내가 지나갔다. 내가 내 길을 갔다가 돌아오면서 보니 그의 흔적조차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가 지나갔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고 알맞은 때가 오기를 인내로 기다렸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악인들이 형통한 것을 볼 때, 그것이 우리를 붙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곳에 이를 때까지 우리 경주를 계속하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이 구절에서 새겨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 밖에 우리는 이 위협도 살펴야 합니다. 곧 악인들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어떤 바람이나 폭풍도 그들을 결코 흔들지 못할 것처럼 보일 만큼 형통하더라도, 그 뿌리가 아래로 마를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그들이 무너지고 소멸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는 가지가 잘릴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온갖 방식으로 그들을 뒤쫓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약속으로 달려갑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긴 나무에 견주어져서 늘 물기와 양분을 빨아들이고, 하나님께 온전히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그와 같다고 예레미야(17:7–8)에서 말하는 대로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분께로부터 물기를 빨아들이게 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시편의 다른 구절(92:12)[12]에서 말하는 것, 곧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고, 참으로 주님의 집에서 형통하리라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언제나 아래로 우리 뿌리를 길러 주시기를,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아무 겉모습이 없더라도 우리 생명을 그분 안에 감추어 두기를 그치지 않기를 기도합시다.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겉모습을 주기를 기뻐하신다면, 그래, 그것이 그분의 복을 드높이기 위한 것이 되게 합시다. CO 84 우리가 그분의 선하심의 본보기와 증거가 되도록 말입니다. 또 그분이 때로 우리 가지를 잘라 내기를 기뻐하신다면, 그분이 그것을 유익하게 하시기를 기도합시다. 포도나무를 자르고 가지를 칠 때 그것은 나중에 좋은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모두 내버려 두면 포도나무를 망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지를 잘라 내기를 기뻐하신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쓸데없는 것을 쳐 내신 뒤에 우리가 그분 안에서 더 잘 열매 맺게 하시려는 것이며, 모든 것이 우리에게 선으로 바뀌리라는 것을 깨달읍시다. 그와 동시에 이것은 우리를 붙들어서, 하나님께 우리를 악인들과 같게 해 달라고, 곧 그들처럼 형통하게 해 달라고 기도하려는 유혹에 끌리지 않게 하는 데에도 쓸모가 있을 것입니다. 이 비유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는 또 그들에 대한 기억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들의 이름이 더는 들리지 않으리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름과 영광을 구하려고 이 세상에 우리 신뢰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도 그런 허영을 비웃습니다. 이렇게 땅에 자기 이름을 두는 자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나라가 무엇인지 결코 알지 못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름을 내려는 데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그들에 대한 기억이 영원하

12. 원문에는 "시편 92편 13절"로 되어 있습니다. 프랑스어 성경은 시편의 표제를 1절로 세므로, 한국어 성경의 절수로 바꾸었습니다.

고 복되리라는 이 복을 약속하신 것도 헛된 일은 아닙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의 배은망덕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백성이 여전히, 그것도 좋은 방식으로 이름이 알려지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한동안 업신여김을 받고, 많은 중상과 모욕까지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들을 거기서 건지실 것이고, 그들의 올곧음이 알려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선한 사람들, 곧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기억은 복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이 세상에서 언제나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자주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억을 말씀하실 때에는 판단할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제대로 분별하는 데에는 눈멀고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을 조금도 줄이지는 않습니다. 이제 여기서 빌닷이 하는 말, 곧 악인들에 대한 기억이 사라지리라는 말로 옵시다. 그가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이미 짚은 대로 이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꼭 맞는 저주라는 것을 새깁시다. 그들은 자기들의 어리석은 야망에 취해서, 자기들의 불멸이 결코 세상에서 사라지지 않고 사람들이 언제까지나 자기들을 이야기하리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는 일이 어떻게 되는지 봅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애를 씁니까? 사람들이 자기들을 이야기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 그렇게 사람들의 입에서 대단하게 여겨지기를 탐냈습니까? CO 85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완전히 거꾸로 돌려 놓으십니다. 그들에 대한 기억이 남는다면 그것은 치욕이 될 것이고, 사람들은 조롱과 비웃음으로밖에 그들을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헛된 욕망에 이끌렸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묻어 버리셔서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무도 모르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세상이 계속되는 한 사람들이 그들을 이야기할 것처럼 보였고, 더욱이 그들 각자가 자기가 가장 크리라고 여겼더라도(앞서간 많은 사람을 보았지만 그래도 각자가

“나는 으뜸이 될 것이다” 하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했듯이) 그들을 묻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들을 이야기할 때 그것은 어떤 식입니까? 그들의 추함과 수치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저주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빌닷이 여기서 세상에 빠진 자들이 구하는 것의 핵심을 표현했다는 것을 새깁시다. 그런데 이것은 잘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관한 한 우리에 대한 기억을 없애신다 해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잃습니까? 무슨 손해가 있습니까?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기뻐하라. 너희 이름이 하나님의 명부, 곧 너희 영원한 구원의 명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눅 10:20). 이것으로 우리가 만족하기에 넉넉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자기를 이야기하게 하는 것밖에 다른 불멸이 없는 저 어리석은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빈약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책에 우리 이름을 등록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이 쓰신, 그것도 당신 손으로 쓰신 유언장이 있습니다. 곧 그분의 영원한 뜻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하나님의 손은 그분이 바뀌지 않게 정하신 그 작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모든 것을 확증하셨고, 당신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인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 대한 기억이 거기, 낙원의 천사들 가운데, 족장들과 선지자들 가운데, 사도들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만족할 거리가 없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 대한 기억이 이 세상에서 없어진다 해도 우리는 그 때문에 아무것도 잃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미 짚었듯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한동안 업신여김을 받고, 사도 바울이 말하듯 (고전 4:13) 이 세상에서 똥과 찌꺼기처럼 여겨지더라도, 그들에 대한 기억이 복되게 하십니다. 바울은 그들을 사람들이 내다 버리는 오물 가득한 내장에 견줍니다. 이처럼 신자들은 한동안 단련을 받습니다. 심지어 마치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진 것처럼 저주 아래 있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올곧음을 새벽빛처럼 빛나게 하시고, 그들은 복된 기억 속에 남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의 시대에 업신여김을 받고 버림받은 것을 봅니다. 사람들이 야곱을 어떻게 여길 수 있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 대한 기억이 복되다는 것을 봅니다. 모든 사람이 다윗에게 달려들었고, 사람들이 CO 86 그를 저주하고 업신여겼으며, 그는 땅의 벌레 같았습니다. 그는 가장 천한 자들에게까지 치욕과 조롱거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그를 가증한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에 대한 기억이 복되다는 것을 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는 기억이나 명성을 얻으려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판단할 줄 모르는 가련한 눈먼 자들이고, 흰 것과 검은 것을 분별할 능력도 없습니다. 이것이 이 구절에서 우리가 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그들이 빛에서 어둠으로 내던져지고, 세상에서 쫓겨나며, 백성 가운데 아들도 손자도 없고, 그들이 사는 땅에 살아남은 자나 상속자가 없으리라고 덧붙입니다. 여기서 빌닷은 앞에서 했던 말, 곧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형통하게 하시더라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말을 굳힙니다. 그리고 그것은 참으로 옳습니다. 그들의 모든 웃음이 울음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데, 그들의 처지에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악인들의 지금의 빛은 그들을 어둠의 길로 이끌기 위한 것임을 깨달읍시다. 우리 쪽에서는 이것을 들을 때, 우리가 어둠, 곧 고난 속에 있다면(이 낱말도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쪽으로 돌아서야 할지 모르고 사방이 너무 많은 비참으로 둘러싸여 아무 출구도 보이지 않는다면, 그래, 그토록 캄캄한 그 어둠이 우리를 하나님의 빛으로 이끄는 길이 되리라는 것을 압시다. 그분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놀라운 방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그들을 멸망시키려 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멸망 속에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깨달읍시다. 우리가 캄캄한 어둠 속에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넉넉히 빛으로 데려가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읍시다. 이것이 이 구절에서 우리가 거두어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악인들이 자기 귀족 신분으로 부풀어서 크게 뽐내며 날개를 펼치는 것을 봅니까? 그래, 물론 그들은 큰 빛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을 이루셔서 어둠이 오기를 기다립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듯이, 하나님께서 한동안 악인들을 형통하게 하시더라도 그 때문에 그들의 처지가 더 나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은 매우 유익합니다. 언제나 결말을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가련한 신자들이 여기서 괴로움을 당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더라도 그 때문에 그들의 처지가 더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끝을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어둠을 지나 그들을 빛으로 이끄시려 합니다. 그 밖에 악인들에게 자녀도 후계자도 없고, 그들이 자기 거처에 상속자를 남기지 못하리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저주를 따른 것입니다. CO 87 자손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삶의 모든 좋은 것이 당신께 바쳐지고 사람들이 당신을 그 근원으로 인정하여 당신께 찬양을 돌리기를 원하시지만, 특별히 당신이 어떤 사람에게 자손을 주실 때 그것으로 그에게 복을 주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빌닷은 그때 아직 율법이 기록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새겨 주신 이 가르침, 곧 우리 주님께서 악인들을 없애셔서 그들의 족속을 하나도 남기지 않으시고 그 모든 것을 멸하시리라는 가르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자녀들까지도 자식이 없는 것을 허용하신다고 반박한다면, 그에 대한 대답은 이것입니다. 곧 여기 나오는 저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자주 선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을 언제나 눈에 보이게 행하신다고 말하는 일반적이고 무차별한 규칙을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그분께 최종 판단을 맡겨 드려서, 그분이 알맞은 때와 장소에서 원하시는 대로 처리하시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로 신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자손을 두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첫 의인을 보십시오. 그가 무슨 후손을 남겼습니까? 더욱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와 하늘의 별처럼 되리라는 약속이 주어졌을 때, 그에게 씨가 많았습니까? 그가 죽은 뒤에 얼마나 많은 자식을 남겼습니까? 물론 그에게는 이삭 말고도 몇 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잘라 내셨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녀가 될 자격도 없었습니다. 물론 그 뒤에 그의 아들 이삭은 두 자식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는 마음속으로 살인자였고, 그는 다른 하나를 쫓아내어 자기 집에서 멀리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자들이 죽은 뒤에 자식을 남기지 못하더라도 그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봅니다. 그들에게는 하늘에 끊이지 않는 친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CO 88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신의 모든 성도와 신자들뿐 아니라 천사들과도 하나로 묶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에게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시는 저주로 알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상속자나 후계자를 가질 수 없으면 자기들에게 모든 것이 사라졌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의로운 보응으로, 그리고 그들에게 꼭 맞는 벌로 그것을 빼앗으십니다. 그것이 그들의 바람과 완전히 반대되기 때문입니다. 이것 또한 이 구절에서 우리가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 밖에 빌닷이 끝으로 뒤에 올 자들이 놀라고 앞서 갈 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리라고, 악인들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거처가 이러하다고 결론지을 때, 그것은 자기 이야기를 굳히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벌하셔서 세상이 그들의 처지를 바라보며 놀랄 만큼 그 처지가 비참하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참으로 옳고, 우리는 이 말에서 유익을 얻고 이 말을 붙들어야 합니다. 다만 빌닷이 이 저주 안에 욥과 고난당하는 모든

사람을 가두어 넣는 점에서는 그를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말했듯이) 고난은 악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공통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모든 일의 다스림을 하나님께 맡겨 드리도록 살펴야 합니다. 그것은 그분께 속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난하고 고난을 당하여 세상이 우리를 비참하다고 여길 때에도, 언제나 그분께 우리를 맡겨 드리면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가난과 고난에서 우리를 온전히 건져 주시기를 기다리며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에 기대기를 그치지 맙시다.

이제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엎드립시다.

제69편

욥기 19장 설교 1

CO 34:89–101

AI로 옮긴 초벌 번역입니다. 신학 감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CO 권: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 욥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자네들은 언제까지 내 마음을 괴롭히고, 자네들의 말로 나를 갉아먹겠는가? 자네들은 벌써 열 번이나 나를 부끄럽게 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나를 향해 마음이 굳어졌네. 내가 잘못했다면 내 잘못은 나와 함께 남을 것이네. 그러나 자네들이 스스로 높아져서 내 재앙을 두고 우쭐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나를 에워싸시고 당신의 그물로 나를 둘러싸셨다는 것을 알게. 내가 억울하다고 부르짖어도 그분은 대답하지 않으시고, 내가 외쳐도 내게는 공의가 없네. 그분이 내 길을 막으셔서 나갈 곳이 없고, 내 길에 어둠을 두셨네. 그분이 내 영광을 벗기시고, 내 머리에서 면류관을 벗기셨네. 그분이 사방에서 나를 허무시니 나는 사라지고, 그분이 내 소망을 나무처럼 뽑으셨네. 그분의 진노가 나를 향해 타올라, 나를 당신의 원수로 여기셨네. 그분의 군대가 몰려와서 나를 에워싸고, 내 장막 둘레에 진을 쳤네. (욥 19:1–12)

CO 89 우리는 빌닷이 욥을 논박할 때 그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벌하지 않고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일반 명제를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욥이 하나님께 그토록 혹독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 그도 그 무리에 속할 수밖에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를 바로잡습니다. 자기가 견디고 있는 고난에 따라 자기 삶을 평가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께서 자기가 저지른 잘못 때문에 자기를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감추어진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그는 친구들이 자기를 향해

그렇게 마음을 굳힌 것을 두고 그들을 원망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들은 벌써 그토록 여러 번 여기서 나를 부끄럽게 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구나. 자네들은 마음이 굳어졌네(또는 멀어졌네)." 이 낱말은 두 가지 뜻을 다 담을 수 있지만, 가장 알맞은 뜻은 그들이 마음이 굳어져서 그의 괴로움을 불쌍히 여기지도 동정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원망이 어디를 겨냥하는지 봅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가 잘못했다면 그 잘못이 자기 안에 남을 것이라고 덧붙일 때, 그는 이것으로 자기가 지나치게 격정에 휩쓸렸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가 잘못했다면 조용히 책망을 받아들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나를 내버려 두게. 내 벌은 내가 질 것이네. 내가 남에게 손해를 끼치며 죄를 지었나?" 하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보다는 고칠 수 없는 사람이나 절망한 사람에게 더 어울리는 말투입니다. 그렇지만 욥은 친구들에게서 다른 해명을 얻을 수 없는 것을 보고 이렇게까지 시험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도 그는 핵심으로 돌아가고 거기에 머물러 고집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CO 90 잘못된 주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들은 내가 이런 처지에 있는 것을 보고, 내 사정이 끝장났고 내가 정죄될 것처럼 보이니까, 사람들이 나를 그보다 더할 수 없이 가련한 피조물로 보니까, 스스로 높아져서 나를 이기려 하는가? 하나님께서 재판에서 나를 굽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곧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이치로 따져서는 안 되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맞추어 당신을 다스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네. 나는 그분께 이길 수 없네. 내가 아무리 다투어도 나는 내 고통을 지고 그 밑에 짓눌릴 수밖에 없네. 그동안 내가 부르짖고 탄식해도 그것이 내 고통을 덜어 주지 못하고, 나는 아무 유익도 얻지 못할 것이네. 그분이 나를 대적하는 원수로 나서셔서, 나를 에워싸는 군대처럼 끝없는 재앙을 내게 보내셨기 때문이네. 나는 여기서 고통을 당하고 있네. 더 나쁜 것은 내 길 어디에서도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네. 그분이 나를 가두고 조여서, 나를 짓누르고 괴롭히는 이 비참에서 벗어날

방도가 하나도 없는 것 같네." 우리가 욥이 무엇에 근거하고 있는지 이미 어느 정도 이해하지 못했고, 그것을 이제 다시 떠올리지 않는다면, 이런 말은 처음 보기에 아주 이상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것을 다시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욥의 이야기를 따라갑시다. 그가 친구들에게 하는 이 원망, 곧 그들이 자기를 부끄럽게 하는 것을 즐긴다는 원망은 정당합니다. (앞에서 다루었듯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매를 맞고 있다면, 우리에게 그를 꾸짖을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그것은 온유한 심령으로 해야 합니다. 약이 너무 독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하나님의 손 자체가 이미 충분히 혹독하니 거기에 더 보탤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거슬러 들떠서 아무 고통도 느끼지 않는 것 같고, 미친 사람처럼 굴어서 아무도 그를 어떻게 할 수 없다면, 그때에는 더 큰 엄격함을 써야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내와 선하심을 남용할 때, 그분이 첫 번에 그들을 마땅한 대로 다루지 않으신다고 해서 그들이 마음을 굳히고, 그분이 참아 주시기 때문에 더 완고해질 때, 그런 교만은 꺾어 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말하건대) 바로 그런 경우에 우리는 더 큰 엄격함을 써야 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분의 선하심과 온유하심을 독으로 바꾸어서 점점 더 그분을 거슬러 독기를 품는 것은 도무지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부드럽게 다루면 그들은 자기 쾌락에 들떠서 미친 사람처럼 되고, 사람들은 그들에게서 CO 91 아무 이치도 끌어내지 못하고 그들을 회개로 이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꺾여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 일하셔서 우리가 동정심으로 움직여야 마땅한 것을 볼 때, 우리가 온갖 엄격함을 가지고 거기에 간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인정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드러내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이 더할 나위 없이 고난을 당하고 있더라도, 그가 여전히 하나님을 거슬러 마음이 굳어 있고 그가 받은 모든 징계가 그를 고치지 못한 것을 본다면, 그때에는

엄격함을 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우리가 보는 고통을 불쌍히 여겨야 하고, 우리가 인정이 있다면 어느 정도 절제와 온유함이 있어서 얼마쯤은 차분한 방식을 쓸 것입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에게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욥을 마땅히 대해야 할 대로 대했다면, 그가 하나님의 손 아래 자신을 낮추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그렇게 다루어지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면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재판관이시고 자기에게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고백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기에 와서 그를 헐뜯고, (모든 진리를 거슬러) 그가 악인이며, 그에게는 위선밖에 없고, 그가 결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 적이 없으며, 그만큼 고난을 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낫고 더 의롭다고 그에게 믿게 하려 합니다. 그들의 말을 인정해 주려면 욥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 양심을 거슬러 말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고집하는 것은 바로 이 점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이웃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고난에 빠뜨리실 때, 그들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자들이라고 성급하게 결론짓지 말라는 경고를 받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남에게 바라는 대로 공평하게 판단하도록 살핍시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내를 시험하려 하시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바르게, 좋은 열심으로 그분 앞에서 걸었더라도 그분은 우리에게 거울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또 그분이 그 까닭을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게 하기를 기뻐하시든, 그들이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든,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보는 벌로 그들의 죄를 재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가장 악한 자들보다 의인들을 더 혹독하게 다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가장 악한 자들을 끝까지 남겨 두십니다. 그것은 그들을 더욱 변명할 수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머리 위에 그분의 진노와 더욱 무서운 보응을 쌓아 올릴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련한 사람들이 고난 속에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신중하고 절

제해서 그것을 가장 나쁘게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 밖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그런 재앙을 보내실 때 당신에게 정당한 까닭이 있다는 것을 거의 손가락으로 가리키듯 보여 주시더라도, 우리는 거기서 유익을 얻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당신의 CO92 심판을 느끼게 하실 때, 그분은 남의 대가로 우리를 가르치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은 돌아보지 않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정죄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각 사람이 자기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살펴야 합니다. "아, 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 주셨다면 나는 그만큼 그분께 빚진 것이다. 더욱이 나도 이런저런 방식으로 아직 징계를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나는 그런데도 내 하나님께서 나를 아껴 주신다는 것, 내가 끝까지 고난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여기서 편안하고 쉬고 있는 것이 그분의 순전한 자비에서 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말하건대) 우리가 이런 것들을 깨달아서, 우리 자신의 재판관이 될 계기로 삼고, 우리 자신은 돌아보지 않으면서 남을 정죄하지 맙시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비뚤어지고 그릇된 판단을 내릴 때 그것이 얼마나 큰 시험인지, 그때 절도를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봅니다. 우리가 알고 성경이 선언하는 그런 인내를 지녔던 욥조차 여기서 돌쩌귀에서 벗어나듯 제자리를 벗어나서, 스스로 재갈을 물지 못하고 잘못된 말을 내뱉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는 정당하게 원망합니다. 그러나 "내가 잘못했다면 내 잘못은 나와 함께 남을 것이다"라는 이 말은 고칠 수 없는 사람의 말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사람들이 우리에게 너무 인정 없이 군다 하더라도(우리는 열심이 너무 뜨겁거나 마땅히 필요한 만큼의 절제를 갖추지 못한 사람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나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보다 더 많은 허물을 우리 안에서 알고 계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실제로 우리는 우리 죄의 십분의 일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에게 알맞은 것보다 더 혹독한 징계를 보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병이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시므이에게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을 봅니다. 그는 시므이가 악인이고 자기를 향한 독기와 쓴 마음에 이끌리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내게 달려들라고 명하셨는지 누가 아는가?" 하고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당신 손 안에 붙잡고 계시고, 자기가 거칠게 다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악인들이 우리를 핍박하는 것도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면, 그분이 그들을 도리깨처럼 써서 우리를 정당하게 치실 것이기 때문인데, 좋은 열심으로 우리를 바로잡으려 애쓰고 우리 구원을 바라는 사람들을 볼 때에는 어떻겠습니까? 그들이 마땅히 필요한 만큼 온유하게 오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고삐 풀린 말처럼 굴며 모든 것을 물리쳐야 하겠습니까? 그것이 무슨 이치입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가 CO 93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의 영께 다스림을 받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드러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욥이 이 점에서 시험을 받은 것을 봅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욱 경계해야 합니다. 이런 일이 하늘의 천사 같은 사람에게 일어났다면, 묻건대, 우리가 사탄을 거슬러 잘 파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가 금세 우리를 탈선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한 번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바른길에서 벗어났을 때 우리를 바로잡으려면 어느 쪽으로 돌아서야 할지 도무지 모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이 내가 말한 대로 우리에게 가르침이 되게 합시다. 곧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를 거슬러 일어나고, 우리에게 너무 성가시게 굴며, 마땅히 필요한 만큼 절제하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책망을 받아들이는 것이 언제나 우리 구원에 좋으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낮추기 위해 우리 자신 안으로 들어가기를 배웁시다. 사람들이 우리를 너무 날카롭게 꾸짖고 우리의 추함을 드러낼 때 분하고 언짢아하지 맙시다. (우리가 보듯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흔히 규칙도 절제도 없이 날뛰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발당한 사람이 이렇게 깨닫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자, 나는 정말로 잘못했고 내가 죄 있다는 것을 느낀다. 내가 사람들 앞에서 아무리 변명해도 소용없다. 내가 나를 의롭다 하고, 내 눈과 이웃의 눈을 속이며, 사람들이 내게 큰 잘못을 저지른다고 생각한다 해도, 아, 나는 내 하나님의 손을 피할 수 없다. 사람들 쪽에서 내가 이리저리 둘러대며 변명해 보았자 무엇을 얻겠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정죄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단지 하늘의 재판관 앞에 불려 나가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내 양심이 나를 꾸짖어서 나는 내 재판관과 사형 집행인을 함께 지니고 다닌다. 그렇다면 차라리 내가 정죄를 받아들이고,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신다는 것을 느끼는 편이 낫지 않겠는가? 내가 그분께 이렇게 다루어질 때 이 약이 내게 알맞다는 것을 깨닫는 편이 낫지 않겠는가? 그 약이 쓰게 여겨지고 할 수만 있으면 내던지고 싶더라도, 나는 그것을 거쳐야 하지 않겠는가?" 이것이 이 구절에서 우리가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 밖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 잘못을 깨닫도록 깨어 있기를 배웁시다. 그분이 그것으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보듯이 우리는 본성상 위선으로 기울어 있고, 그래서 각 사람이 스스로 비위를 맞추며 자기 악덕 속에서 자기를 기릅니다. 다른 쪽에서 우리를 앞질러 막아 주지 않는다면, 언제까지나 자기 오물 속에 고여 있으려 하지 않을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점점 더 나쁜 쪽으로 나아가면 사탄이 소유권을 얻고, 우리는 너무 휩쓸려서 CO 94 우리 안에 무감각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잠언(28:14)에서 말하고 사도 바울도 말하는 대로입니다(롬 1:28; 엡 4:19).[13] 사람들에게 더는 아픔이 없을 때, 그들이 휩쓸려서 사탄의 손에 넘겨지고, 자기 죄를 느끼고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도록 찔리지 않을 때, 그것이 모든

13. 원문에는 "에베소서 4장 14절"로 되어 있습니다. 감각을 잃어버린 상태를 말하는 구절은 19절이므로 바로잡았습니다.

악의 극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참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두 거기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곧 그분이 때로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우리가 잊어버린 우리 악덕을 느끼도록 우리를 몰아붙이게 하시고, 우리가 잘 숨겨졌다고 여기는 곳에서 그것을 드러내게 하시며, 우리가 등을 돌렸던 재판관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일깨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했듯이) 이것은 업신여길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책망을 물리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의 빛을 끄려고 애쓰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 죄가 감추어져 있을 때 우리는 어둠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당신의 등불을 켜시고 우리를 비추셔서 우리의 비참을 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눈을 가리는 눈가리개를 원하고, 그것이 벗겨지는 것을 참지 않으려 합니다. 우리는 빛을 물리치고 어둠을 더 좋아합니다. 묻건대, 이것이 무슨 배은망덕입니까?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다시 데려가려 하시는 하나님의 영께 우리가 이렇게 맞서는 것은 가증한 신성모독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구절에서 특별히 새겨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곧 "내가 잘못했다면 내 벌은 내가 질 것이다. 다른 사람이 나 대신 그것을 견디지는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하건대) 이런 식으로 싸우지 맙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려고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의 은혜를 넓혀 주신다는 것을 압시다. 그분이 우리에게 누군가를 보내셔서 우리 잘못을 일깨워 주신다면, 그것은 그분의 선하심의 증거이며, 그분이 아직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당신께 남겨 두려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가시채를 뒷발질하려고 버티며 사람들을 통해 주어지는 책망을 물리친다면, 그 배은망덕은 하나님께 겨누어지는 것입니다. 모욕을 당하시는 분이 그분이고, 그것을 갚으실 분도 그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오만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오히려 우리가 잘못했을 때 그때가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가서 우리 병을 느끼고 그것을 고칠 때라는 것을 압시다. 이제 둘째 요점이자 핵심으로 옵시다. (앞에서 이미 밝혔듯이) 욥은 책망을 온전히 물리친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한바탕 울컥하듯 내뱉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짚었듯이, 욥은 이 책에서 자기 안에서 굳게 결심한 것만 말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움직이는 대로 자기 격정을 드러냈습니다. 그가 CO 95 거기에 맞서고 스스로를 억제하여 뒤에 그것을 뉘우쳤지만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는 핵심으로 옵니다. 자기가 한 말을 버려두고 그것에 마음을 쓰지 않습니다. 그것이 엉뚱한 말이고 이치에도 진리에도 전혀 근거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사정을 변호하는 데로 돌아갑니다. 곧 그의 친구들이 그를 바로잡는다는 핑계로 그를 거슬러 높아지고, 그것도 그를 부끄럽게 하려고 그의 치욕만 내세우며 높아지고, 인정도 절제도 없이 완고함과 뻔뻔함을 가지고 거기에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욥의 의도입니다.

그 밖에 그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자기 죄 때문에 자기를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이상한 방식으로 자기를 다루셨다고 결론짓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그는 자기가 부르짖어도 아무 해명을 얻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원수처럼 되셨기 때문이라고 원망합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먼저 이렇게 배웁니다. 우리 이웃의 잘못을 꾸짖어서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려면, 그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하고, 단순한 짐작이 아니라 진실로 그들을 꾸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그가 하나님께 고난을 당한다는 이유로 그를 정죄하려 한 것은 잘못된 처리 방식이었습니다. 우리는 (내가 이미 밝혔듯이) 전혀 다른 판단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못한 모든 사람을 똑같은 분량으로 벌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보듯이 가장 의로운 사람들이 때로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고통을 당하기까지 합니다. 그분이 그들에게 당신의 능력을 나누어 주신 만큼 그들을 끝까지 시험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같은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을 볼 때 괴로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누구보다 사랑하신 사람들을 아끼지 않으셨듯이 우리도 아끼지 않으신다고 해서 우리가 언짢아해야 하겠습니까? 성령께 그토록 뛰어난 증거를 받은 거룩한 조상들보다 우리가 더 특권을 누리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러므로 각 사람이 하나님께 다루어지는 대로 그에게 소송을 걸려 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가난한 사람, 병에 걸리는 모든 사람, 업신여김을 받고 아무 신망도 없는 모든 사람이 악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택하시는 곳이 바로 거기이고, 그분이 당신의 자녀로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사람들이 그들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명예와 높은 지위에 세워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당신의 은혜를 남용할 때 그들의 추락이 더 치명적이 되도록 그렇게 높이신 것입니다. 부를 가진 사람들은 그 속에 빠져들어서, 그것이 지옥의 입구처럼 됩니다. 그들은 자기 풍족함에 취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그리하여 그들이 소유했던 재물이 그들을 거슬러 보응을 부르짖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듯이 가장 튼튼한 사람들은 길들일 수 없는 CO 96 반항하는 말들이어서 아무도 그들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요약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광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너무나 악하고 비뚤어진 판단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가 아니면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도록, 그들의 잘못을 판단하기 전에 그것을 잘 알도록 그런 절차를 지키기를 배웁시다. 그 밖에 우리 한계를 넘지 말고, 사람들에게서 정죄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되, 하나님께서 그들을 유기하셨다는 확실한 표지가 있을 때까지 그들을 언제나 하나님의 손에 남겨 두기를 배웁시다. 그러니 우리 쪽에서는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을 가로채려고 경솔하게 굴지 맙시다. 이것이 이 구절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욥의 말이 참으로 옳다고 말했습니다. 곧 그가 자기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고 그가 자기 격정에서 넘쳐흐르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언제나 더욱 낮추어야 합니다. 그토록 큰 은혜를 받은 그런 사람도 길을 잃지 않을 수 없었는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이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굽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규칙도 없고 공평도 찾아볼 수 없는 뒤죽박죽인 방식으로 자기를 대적하여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나쁘지 않은 뜻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풀이했듯이 하나님께는 두 가지 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그분이 당신의 율법에서 우리에게 밝히신 의입니다. 이 의는 우리에게 아주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규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보다 더 높은 또 다른 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은밀하고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 전체를 다 이루었다 하더라도(그것은 불가능하지만, 그렇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는 그분의 완전한 의에 따라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가 당신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대로, 곧 우리 인간의 분량에 따라 그분을 흡족하게 해 드린 것일 뿐입니다. 아담의 죄 이후에 우리가 가진 분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창조된 대로의 분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천사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그분의 지고한 의 앞에서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 의는 우리가 우리 지성으로 깨달을 수 있는 모든 것보다 높아서 아무 비례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때로 사람들을 그들의 죄 때문에, 곧 당신이 율법에서 선포하신 저주에 따라 벌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런 점을 고려하여 벌하지 않으시고, 그 목적과 의도를 당신의 감추어진 뜻 속에 남겨 두십니다. 우리가 보는 욥이 핍박을 당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왜 그런지 묻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캐물어도 그것이 그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무엇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야곱이 얼마나 큰 고통을 CO97 견디었는지 보는데, 그런데도 그는

순전하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의 조상들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슬러 음모를 꾸미셔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고난과 비참을 거치게 하신 것 같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방탕해서 더 혹독한 벌을 받아 마땅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동안 우리에게 감추어진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욥이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곧 그가 견디는 고난을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공포하신 위협과 관련된 보통의 징계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며,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더 높은 까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단순히 이 점만 염두에 두었다면 그는 그 점에서 옳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굽게 하셨다. 여기서는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다" 하고 말할 때 그는 격정에 사로잡혀 있음을 드러냅니다. 물론 그는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는 것을 언제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듯이 그는 흔들린 것 같고 그런 말을 내뱉었지만,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와서 자기 입을 다물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렇지만 그에게도 거품이 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냄비가 끓어서 끓어오르는 것이 너무 크면 이리저리 넘쳐흐를 수밖에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욥도 그렇게 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거슬러 너무 날뛴다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우리 가르침에 적용할 수 있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먼저 이 교훈을 붙든다면 우리는 큰 유익을 얻은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때로 사람들의 죄를 고려하지 않고 그들을 고난에 빠뜨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들을 낮추시려 하기 때문이고, 당신이 당신의 피조물 위에 모든 권위를 가지고 계시며 그들을 인내의 거울로 정하셨다는 것을 보여 주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그분이 그들에게 그들의 연약함을 느끼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고난을 통해 드러나는 감추어진 악덕이 자기 안에 있다는 것과 자기에게 마땅히 필요한 만큼의 꿋꿋함이 없고 오히려

휘청거렸다는 것을 알아차릴 때, 자기를 더 잘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넘어진 것처럼 자기를 볼 때,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지 않으셨다면 자기들은 끝장났으리라는 것을 깨달아 더욱 하나님을 부르도록 재촉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어떤 고난을 견딜 때 가장 좋은 처방은 우리 죄를 알게 되는 것이고, 각 사람이 자기에게 소송을 걸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 나는 내 하나님께 너무 많이 죄를 지어서, 그분이 나를 백 배나 더 벌하신다 해도 나는 그보다 더 많은 벌을 받아 마땅하다." 그 밖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고난에 빠뜨리시는지 우리가 언제나 보지는 못하더라도, "자, 주님, 주님은 의로우십니다. 내가 주님의 뜻의 이유를 깨달을 수 없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바르고 공평하게 하시지 않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내게 충분해야 합니다."

CO98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감기신 것처럼 붙잡고 가련한 눈먼 자들처럼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도 우리가 이렇게 그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참된 지혜를 가지게 되리라는 것을 압시다. 그분이 우리를 데려가고 인도하려 하시는 곳으로 걷는 것으로 만족합시다. 그분의 뜻만이 우리에게 의가 되고 틀림없는 규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압시다. 우리가 욥이 지나치게 격정에 휩쓸리는 것을 보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단순한 뜻에, 그것도 그분이 하시는 일들, 특히 우리 감각과 능력을 넘어서는 일들의 이유를 캐묻지 않고 복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깨달읍시다. 내가 이미 말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순전하고 단순하게 따르는 영예를 그분께 돌려 드릴 줄 안다면 그것은 완전한 지혜, 천사의 지혜보다 더 큰 지혜입니다. 곧 우리가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그것이 모든 이치와 공평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여도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주님의 심판은 깊은 심연이지만, 우리는 감히 그것을 거스르려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욥은 그렇게 하도록 자신을 준비시켰고, 거친 공격과 시험을 받았지만 결국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

님께서 내 재판을 굽게 하셨다“고 말할 때 휘청거린다는 것이 보입니다. 곧 “그분은 재판관으로서 나를 다루지 않으시고, 마치 당신 안에 아무 긍휼도 없는 것처럼 예사롭지 않은 엄격함으로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욥이 이렇게까지 시험을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감각과 모든 힘을 이 가르침에 기울입시다. 곧 우리 하나님의 선한 뜻에 순전하고 단순하게 따르는 것입니다. 시험이 때로 우리를 휩쓸어 가더라도 거기에 머물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재판관이시라는 것과 죽을 인생이 자기에게 보내지는 것에 복종하지 못할 때 자기 창조주를 거슬러 높아진다는 것을 바라볼 때, 이 재갈이 우리를 붙들고 억제하게 합시다. 그들이 아무리 정반대로 항변해도,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로 하나님을 잔인하다고 고발하고 그분과 소송을 벌이려 한다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욥의 격정이 지나친 것을 볼 때 그는 우리에게 그런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를 마귀 같은 대담함으로 고삐를 풀어 버리는 자들과 견주어 볼 때, 우리는 더욱 자신을 낮추라는 경고를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우리는 욥과 같지 않은 사람을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한바탕 울컥해서 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나쁜 쪽으로 고집합니다. 어떤 일이 그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슬러 불평한 뒤에 그분을 CO 99 업신여겨도 된다고 스스로에게 허락합니다. 또 어떤 말씀이 그들에게 어려우면, 거리낌 없이 하나님을 거슬러 일어날 만큼 무모하고, 끝까지 고집을 부릴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교만한 자들을 보듯이, 성경에 그들의 생각과 어리석은 머리에 맞지 않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어디서 나오는지 캐물어 보지도 않고 첫 번에 정죄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설복을 당해도 뻔뻔하게 하나님과 그분의 감추어지고 헤아릴 수 없는 심판을 거슬러 일어나서 “봐라, 그것은 도저히 내 머리에 들어올 수 없다” 하고 말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이보게, 자네가 가련한 눈먼 자라고 해서 해가

어두워져서 비추지 않겠는가? 눈먼 사람이 "나는 밝게 보지 못한다" 하고 말한다고 해서 해가 어둠만 가져다준다는 말이겠는가? 참으로 그럴듯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사람들을 그렇게 광기 속으로 휩쓸어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결론을 내리게 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더욱 짧은 고삐로 우리 자신을 붙잡아 두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 우리 조바심이 우리를 부추기고 어떤 분과 언짢음으로 몰아갈 때, 적어도 우리가 한바탕 날뛴 뒤에는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와서(늦더라도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합시다. "주님,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셨다면 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내 하나님, 나는 주님의 영으로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무슨 일이 내게 닥치든 내가 주님의 선한 뜻에 온전히 복종하도록 주님께서 내게 그런 분별을 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 밖에 우리의 고통을 욥의 고통과도 견주어 봅시다. 그가 견딘 고난을 잘 살펴보면, 그것은 너무나 이상해서 그가 "나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짓누르신다" 하고 말할 만했습니다. 사실이 그렇다는 것은 이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끼손가락으로 우리를 건드리시기만 해도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곧바로 분을 냅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흔한 병을 보내시면, 아, 그분이 우리를 훨씬 더 아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어떤 식으로 고난에 빠뜨리시면 우리는 날뛸 것입니다. 요약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매를 한 대만 대셔도 우리는 그분이 벼락을 내리셨다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참을성이 없는 것을 보니, 욥이 견딘 것을 깨달읍시다. 우리가 거기까지 이른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품을 조금 뿜어내고 물러나는 정도로 끝나겠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계기에도 우리는 그리로 기울어 있으니, 우리는 모든 일에서 넘쳐흐르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모든 징계가 우리

구원을 겨냥하니 그것을 인내로 받아들이기를 배울 때까지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학교에서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는 것을 더욱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이 구절에서 우리가 CO 100 더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부르짖고 탄식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을 때 그것이 혹독하고 매우 위험한 시험이라는 것을 새깁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께 피하는 모든 사람에게 좋고 확실한 요새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요엘에서 말하듯이,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뒤섞인 것 같고 자연의 온 질서가 뒤죽박죽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는 언제나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러합니다. 곧 우리가 입을 열기도 전에 그분이 우리 말을 들으시고, 우리가 말하기도 전에 우리를 도우시려고 손을 뻗고 계시리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놀랍도록 너그러우신 분으로 나타나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분을 한 번만이 아니라 줄곧 불러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구했는데도 우리는 늘 같은 처지에 있고, 더 나쁜 것은 우리가 그분을 부른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괴롭히시려고 우리를 향해 더 언짢아지시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시험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나의 피난처요, 하나님께서는 진실하게 당신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신다는 말씀을 나는 들었다. 나는 이 약속이 무슨 뜻인지 시험해 보았는데, 아무 유익도 느끼지 못한다. 오히려 내 고통은 더 커질 뿐이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그런데 욥은 바로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만이 아니라 다윗과 다른 신자들도 그랬습니다. 더욱이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이 말씀이 그분께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낮에 주님을 부르고 밤에 부르짖는데도 주님은 내 고통을 덜어 주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주님께 피했을 때 그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언제나 알았는데, 주님은 여기서 나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으로 이렇게 새깁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그들이 도움을 구하려고 입을 열기도 전에 그들을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셨다고 해서, 그분이 그것을 언제나 눈에 보이게 보여 주신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분의 방식대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기 전에 그분이 이미 우리를 도우실 준비를 갖추고 계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사실이 그렇다는 것은 이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분께 기도하려는 이 마음이 어디서 옵니까? 그분의 성령에게서 오지 않습니까? 사람은 결코 자기 스스로의 움직임으로 하나님께 피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에게 등을 돌리셨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 바라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얼마 동안 버텼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그 힘을 주셨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비참 속에서 그렇게 참고 겸손할 수 있도록 그분의 손에 도움을 받았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CO 101 한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말을 들어주지 않으신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욥이 그랬고 다윗도 그랬다는 것을 봅니다.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거기에 이르셔야 했습니다. 그분이 우리처럼 시험을 받으셨다는 말, 곧 조바심의 시험을 받으셨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은 당신의 인성과 싸우셔야 했으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모든 도움에서 버리신 것을 보시고 고뇌하셔야 했고,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부르짖음까지 터뜨리셔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시험을 받고, 우리 연약함과 우리 안에 있는 그토록 많은 악덕 때문에, 곧 우리가 불신과 반역과 교만과 그와 같은 것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고뇌할 때, 그래, 이렇게 거기로 달려갑시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도우시려 한 첫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은 얼마 동안 그분의 손 아래 시들었지만 결국에는 자기 기도의 열매를 맛보았다.” 그러므로 이 일에 꾸준히 머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서 건지시고 우리 구주로 나타나실 때까지, 그분이 원하시는

동안 우리를 시들어 있게 하시는 것을 참읍시다. 그분은 이미 이 세상에서 그것을 어느 정도 맛보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엎드립시다.

제70편

욥기 19장 설교 2

CO 34:102–113

AI로 옮긴 초벌 번역입니다. 신학 감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CO 권: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 그분이 내 형제들을 내게서 멀리 물러가게 하시니, 내가 알던 사람들이 내게서 낯설어졌네. 내 가까운 이들은 나를 버렸고, 내 친척들은 나를 잊었네. 내 집에 사는 자들과 내 여종들은 나를 업신여기고, 나는 그들 눈에 낯선 사람이 되었네. 내가 내 종을 불러도 그는 대답하지 않네. 내가 내 입으로 그에게 사정하는데도 그러하네. (욥 19:13–16)

이 설교에는 앞에서 읽은 7–12절의 풀이와 이어지는 본문이 들어 있습니다.

CO 102 우리는 지난 설교에서 시작한 이야기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곧 우리가 기도할 때 첫 번에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혹독하고 무거운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그분이 우리를 받아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며, 우리가 그분께 피한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말하건대) 이것이 모든 신자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도와 달라고 달려갔는데도 시간만 버린 것처럼 보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절망한 사람처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백성을 단련하기를 원하십니다. 곧 그분은 숨으셔서 그들의 말을 듣지도 않으시고 그들이 견디는 고통을 돌아보지도 않으시는 것처럼 하실 것입니다. 물론 그분은 우리가 구하자마자 우리를 도우실 준비가 되어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더욱이 그분은 재촉받기를 기다리지

않고 우리 구하는 것을 앞질러 주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리신 것 같고 우리에게 하찮고 쓸모없는 소망을 주신 것 같을 때, 이 시험은 훨씬 더 무거워집니다. 그러나 그분이 이렇게 당신의 백성을 단련하셨으니, 오늘 그분이 우리에게도 같은 일을 하신다고 해서 놀랄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읍시다. 그러므로 인내로 기다립시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잊지 않으셨고, 우리에게 손을 뻗고 계시다는 것을 곧바로 드러내 보이지 않으시더라도 우리 기도를 들으시기를 그치지 않으신다는 것을 결말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인내하고 기도에 꾸준히 머물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기도를 들으셨다는 표시입니다. 앞에서 풀이했듯이,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지켜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단 일 분이라도 버틸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병으로 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도움을 미루시고 늦추시는 까닭은 우리가 마땅히 필요한 만큼의 간절함으로 그분께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자기는 기도를 소홀히 하지 않는다고 말할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에게 "자,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당신의 의무를 다했습니까?" 하고 물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한 기도했습니다" 하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모두 기도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보다 더할 수 없이 차갑게 기도하러 갑니다. 그런데 의무를 때우듯 의식으로 드리는 그런 간구를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차가움과 CO 103 게으름을 보시고 곧바로 우리를 돕지 않으시는 것은, 우리를 날카롭게 하시고 더 큰 갈망으로 불타오르게 하시려는 것이며, 그 방법으로 우리 믿음이 더 잘 시험되게 하시려는 것임을 새깁시다. 또는 우리가 어느 정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기도에 무심함이 없더라도, 우리가 여기 욥에게서 보듯이 감추어진 반역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욥은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마땅한 절제가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너무 참을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쉬지 말고 그분께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며 그 규칙을 줍니다(빌 4:6).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고 우리를 짓누르는 고통이 있어서 신음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언제나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고 그분께 복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더는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원수를 소환하고 그에게 도전하러 가는 것처럼 결투 신청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때로 법정 소환장과 같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큰 영예는 우리가 모든 역경 속에서 그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께 그런 경의를 드리는 대신 그분을 업신여기러 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 기도에 귀를 막으시고 우리가 그분께 청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척도 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이상하게 여길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 우리는 뜨거운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저 입을 열거나 아무렇게나 한숨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그분께 구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 안에 하나님을 굴복시켜서 우리 머리와 공상에 떠오르는 대로 다 하시게 하려는 교만이 없어야 합니다. 오히려 그분이 우리를 고난에 빠뜨리시더라도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면서 온갖 겸손으로 그분께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갖추면 훨씬 더 빨리 응답을 받으리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를 그토록 미루시는 것은 그 반대되는 악덕들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땅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간절함으로 기도했는데도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해 봅시다. 그래도 우리는 알맞은 때가 올 때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그 때는 그분의 손에 있고, 그것을 판단하시는 분은 그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기도가 무슨 유익을 거두었는지 알지 못한다면, 내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느끼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아주 고요히 머물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려 하시는 대로의 알맞은 때와 결말을

기다립시다. 그것은 우리 구원을 위해 좋고 복될 것입니다.

욥이 자기가 부르짖었지만 들어주시지 않았다고 말하는 점에서, 이것이 이 구절에서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가 덧붙이는 것은 모두 CO 104 자기 고난이 너무나 극심하다는 것을 원망하려는 것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곧 그가 지나치게 큰 고통을 당한다고 해서 놀랄 것이 없고, 그의 친구들이 그것을 두고 그에게 대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보통의 관례로 가늠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네.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그래, 사람들은 그에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고 말할 것이네. 그런데 나는 그분께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은 그에게 '이보게, 그렇게 심하게 날뛰어서는 안 되네' 하고 말할 것이네. 그러나 그가 당하는 고통은 흔한 것일 수 있네. 그런데 내 안에는 그토록 엄청난 아픔이 있고, 하나님의 손이 그토록 이상하고 혹독하게 나를 짓누르시니, 내게 감각도 이성도 남아 있지 않다 해도 놀랄 것이 없네." 이것이 욥의 의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의 타고난 감각으로는 알 수 없는 방식으로 피조물에게 당신의 엄격함을 행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그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내게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언제나 느끼게 해 주십시오. 내가 그것을 경험으로 알아차리지 못하고, 겉으로는 주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더라도, 언제나 내 소망을 주님의 선하심과 도우심에 둘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욥은 이렇게 말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흔히 말하듯) 그렇게 들판으로 뛰쳐나가 이 구절에서 우리가 듣는 원망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담긴 것에서 유익을 얻으려면, 성령께서 욥이라는 인물을 통해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다스려지지 않은 사람의 격정을 비추는 거울처럼 우리 앞에 두려 하셨다는 것을 새깁시다. 이것이 첫째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여기서 당신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당

신이 사랑스러운 얼굴을 감추시고 사람들에게 원수처럼 나타나기를 기뻐하실 때 그것이 온 세상을 삼켜 버릴 만큼 두려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둘째입니다. 셋째는, 욥이 그렇게 격정에 휩쓸렸지만 그래도 이 시험들에 맞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곧바로 그것을 이겨 낸 것은 아니어서 잘못된 말을 많이 내뱉었고, 그리하여 덕과 연약함이 뒤섞였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살펴야 할 것은 이 세 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욥이라는 인물에 자기를 비추어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새깁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약함을 알아차리도록 몰아붙이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자기가 강하고 튼튼하다고 여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이 놀랍다고, 우리는 결코 휘청거리지 않으리라고 상상합니다. 그렇습니다. 매가 멀리 있을 때 우리는 대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아붙이시자마자 우리는 쓰러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너무 CO 105 무감각하지 않다면) 우리 안에 아무 힘도 없는데 어떤 힘이 있다고 생각한 것이 헛되고 어리석은 오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느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은 확신에 눈멀고 취한 것처럼 되어 있으니, 성령께서는 여기서 욥이라는 인물을 우리 앞에 보여 주십니다.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손 아래서 어떻게 쓰러지는지, 어떻게 버티지 못하고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지 우리가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꿋꿋했던 욥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아,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둘째 것, 곧 핵심으로 와야 합니다.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우리 자신이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것도 믿지 않고 두려움 속에서 걸어갈 만큼의 유순함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무겁고 견딜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히십니다. 당신이 죽을 인생을 징계하시려고 그들에게 당신의 능력을 펼치려 하실 때, 그것은

무서운 일이어서 그들은 햇볕 아래 눈처럼 녹아내릴 수밖에 없고, 완전히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성경이 말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엄격함을 펼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분이 당신의 영, 곧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을 거두어 가시기만 하면 우리는 무너지고 맙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서 당신의 능력을 빼앗으실 뿐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거스르게 하시고, 우리를 삼키시려고 벼락과 폭풍처럼 오시리라고 말씀하실 때, 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죽을 인생이 하나님께 공격을 받을 때 버틸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에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얼마나 두려워야 하는지를 마땅히 필요한 만큼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욥이라는 인물에게서 그 본보기가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앞에서 짚었듯이) 욥이 잘못되고 정죄받아야 할 그런 격정을 즐기거나 그 속에서 자기를 길렀다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는 그것에 맞서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그는 흔들리는 것처럼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결코 나무랄 데가 없을 만큼 덕스럽지 않고, 어떤 식으로든 너무 약하다는 것을 드러낸다는 것을 보여 주려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고 완전히 쓰러질 것처럼 보일 때 낙심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런 처지에 있다면, 그래, 앞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아 주시기를 기도하고, 그분이 그렇게 하시리라는 것을 의심하지 맙시다. 욥에게 육신의 연약함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가 이기기를 그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입니다. (말하건대)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CO 106 시험을 이겨 내게 하시리라는 것을 의심하지 맙시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절뚝거리지 않고, 매를 맞지 않고, 상처에서 피가 나지 않으리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받을 매가 치명적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방패처럼 앞에 서 주시리라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깁시다.

이제 욥이 여기서 하는 원망으로 옵시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 길을 에워싸셔서 자기가 거기서 나갈 수 없고, 자기 길에 어둠을 두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도 그 고통이 곧 지나가고 언제까지나 계속되지는 않으리라는 것을 보면, 예를 들어 벗어날 방도를 찾거나 무슨 대책이 있으면, 그것이 우리 고통을 크게 누그러뜨립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빼앗기면 우리에게는 절망밖에 남지 않습니다. 욥이 여기서 뜻한 것이 이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길을 막으셨다고 말합니다. 곧 이런 뜻입니다. "아,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가련한 사람이 많은 고통에 시달리면 거기서 빠져나갈 길을 찾을 것이네. 그래, 이 길이 아니면 저 길로 나가려 하고, 방도를 찾고, 무슨 대책을 얻을 것이네.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가두셔서 나는 아무 출구도 보이지 않네. 내가 이것이나 저것을 얻을 수 있을지 아무리 궁리해도 내게는 아무 덜함이 없을 것이네. 왜 그런가? 온통 어둠뿐이기 때문이네. 곧 나는 길도 오솔길도 보이지 않네.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가두셔서, 한마디로 더는 방도가 없네."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것의 요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새겨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을 부르기를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매를 맞기도 전에 스스로 문을 닫고, 더는 기도하지 못하며, 완전히 넋을 잃기까지 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지금껏 아무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앞에서 욥이 이런 시험을 받은 것을 보았습니다. "너보다 앞서간 모든 신자를 보라. 하나님께서 언제 그들을 이렇게 다루신 적이 있느냐?" 그것은 욥이 완전히 잃어버린 자요 유기된 자라고 결론짓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참으로 새길 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때로 우리가 견디는 고통이 끝이 없고 우리가 결코 거기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을 때, 이리저리 찾아보아도 결코 거기서 놓여날 수 없을 것 같을 때, 이렇게 말

합시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기서 어떻게 끌어내실지 아신다. 그러니 우리는 거기에 머물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같은 일이 욥에게 일어난 것을 봅니다. 사도 야고보가 말하듯이(약 5:11) 결말을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그가 빠져 있던 고난에서 건지셨다면, 오늘 그분이 왜 우리를 도우러 오시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능력도 선하심도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길을 막으셨다는 욥의 이 말을 우리는 CO 107 이런 용도에 적용해야 합니다.

그 밖에 하나님께서는 한동안 당신의 신자들에게서 당신이 약속하신 복을 거두실 것이라는 것을 새깁시다. 그들이 그분께 기도하도록 재촉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기도 하고, 그분이 그들을 낮추려 하시거나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을 징계하시려는 것이기도 합니다. 욥에 대해서 말하자면, 물론 그는 자기가 저지른 잘못 때문에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벌하실 만한 것을 그에게서 충분히 찾지 못하셨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밝혔듯이) 그분은 그 점만 고려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의 인내를 시험하려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쪽에서는, 우리가 그분께 죄를 지었고 그 복을 누릴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거두실 것입니다. 또는 그것이 우리가 그분을 더 간절히 부르도록 그분이 주시는 박차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신자들에게 그들의 길에서 그들을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더욱이 천사들을 그들의 안내자로 주셔서 그들이 헛디디지 않고 나쁜 일을 만나지 않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아름다운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길이 우리에게 막힌 것 같고, 가시와 덤불밖에 없으며, 사방에 산과 바위뿐인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우리가 갇힌 것입니다. 빠져나가는 것은 불가능해 보일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깨닫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내게 당신의 선하심을

밝혀 주실 자격이 없다. 내 길은 평탄해야 할 텐데, 나는 어느 쪽으로 걸어야 할지 모른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내 잘못을 깨달아야 한다." 또는 이렇게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신자들에게 천사들을 안내자로 보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런데 어떤가? 내게는 전혀 다른 것 같다. 그러므로 나는 그분이 이 약속의 효력을 내게 보여 주시기를 기뻐하시도록 그분께 구해야 한다." 이처럼 우리는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부르도록 재촉을 받습니다. 그동안 그분이 끝까지 우리에게서 지혜와 분별을 빼앗지는 않으시리라는 것을 깨달읍시다. 길이 없는 곳에서 그분은 우리에게 길을 찾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일하셨을 때 그분의 능력이 더 잘 알려지고, 우리는 그분을 영화롭게 할 더 넉넉한 거리를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감각과 소망을 뛰어넘으셨을 때 우리에게는 그분을 영화롭게 할 거리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요약하면 이것이 이 말씀에서 새겨야 할 것입니다.

욥은 이어서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벗기시고 자기 머리에서 면류관을 벗기셨으며, 자기를 소멸시키고 허무셨고, 자기 소망을 나무처럼 뽑으셨다고 덧붙입니다. 여기서 욥은 두 가지를 나타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너무 혹독하게 고난에 빠뜨리셔서, 자기를 다른 사람들과 견주어 보면 자기가 훨씬 더 많이 견디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둘째, 그는 자기가 고난을 당하는 CO 108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주 큰 고통을 당하더라도 뽑힌 나무와 같아서, 그래도 작은 뿌리나 실뿌리가 조금은 남아 있고, 아직 숨 돌릴 틈을 얻을 수 있네. 그러나 나는 너무 뿌리째 뽑혀서 아무 실체도 남아 있지 않네.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잘라 내신 것 같네." 그가 아직 세상에서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그의 삶은 죽음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닥친 고통과 재앙만큼 많은 상처를 그에게 입히셨습니다. 그의 자녀들은 그의 눈앞에서 짓뭉개졌고,

그의 모든 재산은 빼앗기고 잃어버렸으며, 그의 몸은 썩은 송장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잘라 내시고 자기 소망을 거두셨다고 말하는 것은 까닭이 없지 않습니다. 마치 나무가 땅에서 완전히 뽑혀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처럼, 그 힘이 다 빠져나가서 그것이 땅에서 다시 푸르러져 어떤 열매를 맺기를 더는 기대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 모든 활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욥은 자기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들을 때, 그가 아무것도 자기를 덜어 줄 수 없을 것처럼 여길 만큼 괴로워한다고 해서 놀랄 것이 없습니다. 욥이 견딘 것의 백분의 일만 견디더라도 훨씬 더 참을성이 없지 않을 사람이 우리 가운데 누구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시리라고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자주 있는 조바심의 까닭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역경 속에서 인내하려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서 위로를 얻어야 하듯이,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에 빠뜨리시는 것을 우리가 참을 수 없고 너무 분해서 더는 질서도 이치도 없는 것처럼 여길 때, 우리 소망은 사라지고 맙니다. 욥에게 일어난 일이 이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보듯이 그렇게 넘쳐흘러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뿐 아니라, 절망 속으로 뛰어들 뻔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없애시고 그에게서 모든 소망을 거두셔서 그가 뽑힌 나무처럼 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욥이 우리가 보듯이 그렇게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스스로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멀리서 그에게 손을 내밀어 주지 않으셨다면 그는 완전히 잃어버린 자가 되었을 것이고, 지옥에 삼켜진 것처럼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이 심연에까지 떨어지도록 허락하지 않으신 것은 특별한 선하심이었다는 것을 깨달읍시다. 그리고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더욱이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를 일으켜 주셔야 할 필요가 크다는 경고를 받읍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부르게

하시려고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때로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 주셔서 CO 109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무너지도록 허락하셨다가 나중에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넘어진 사람들을 넉넉히 일으켜 주시리라는 핑계로 미친 사람처럼 고삐를 풀어 버려서 그분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남용하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 우리는 욥을 향한 그분의 선하심을 높여야 합니다. 우리가 무너진 것처럼 될 때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찾으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분이 그렇게 일하셔야 할 필요가 큽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번번이 넋을 잃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아름다운 거울을 봅니다. 이 말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밖에 그런 시험에 맞서려면, 사도 바울도 말하듯이(골 3:3) 우리 생명이 감추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을 새깁시다. 물론 우리는 뽑힌 나무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밀한 능력을 주기를 그치지 않으시고, 우리가 멸망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언제나 활력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생명과 구원을 우리가 보는 것으로, 눈으로나 우리의 타고난 감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하지 맙시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보존하려 하신다는 것을 깨달읍시다. 사도 바울은 우리 생명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기다립시다. 그리고 지금 알려지지 않은 것을 그분이 드러내실 때가 올 때까지 우리가 언제나 그분을 바라보는 은혜를 주시기를 이 선하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때까지 우리는 죽은 자들과 같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분의 은혜를 어느 정도 맛볼 것이고, 그분은 우리에게 그것을 넉넉히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깨우시고 당신이 우리에게 품으신 사랑을 깨닫게 해 주시기를 그분께 기도해야 합니

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단 한 방울밖에 없을 때에도 우리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8:10–11) 말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곧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생명을 가지실 때, 그것이 아주 작은 분량일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악한 본성에 속한 모든 것을 없애기에 넉넉하다는 것입니다. 그래, 물론 우리가 그것을 언제나 느끼지는 못할 것이고, 하나님의 영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도 그것을 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까지나 그런 멍함과 무감각 속에 머물러서 그분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 그것을 그분이 원하시는 용도에 적용하여 유익을 얻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허락하지 마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이것이 이 구절에서 둘째로 새겨야 할 것입니다.

욥은 그 뒤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해 진노를 불태우셨고 자기에게 원수가 되셨다고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에 빠뜨리실 때마다 성경은 그분이 CO 110 우리에게 노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분이 우리 격정에 매이신다는 말이 아니고, 그분이 실제로 우리를 버리시고 미워하신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그분이 우리 고난 속에서 당신의 진노를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까닭은 무엇입니까? 고난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 때문에 그들에게 보내시는 그만큼의 징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미 말했듯이) 그분은 때로 다른 까닭으로 당신의 백성을 징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처음부터 우리 앞에 떠올라야 합니다. 곧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께 빚진 자라는 것, 그래서 그분이 우리가 저지른 잘못을 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이 하는 말에는 일반적인 쓰임을 넘어서는 어떤 특별한 고려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진노가 자기를 향해 불타올랐다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새삼스러운 일이어야 합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성경 전체에서 당신이 징계하시는 사람들에게 노하셨다고 선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보다 더 많은 것을 표현하려 했습니다. 곧 하나님의 이 진노가 흔하거나 익숙한 것이 아니고,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를 완전히 유기된 자로 여기신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실 때 우리가 당신의 진노를 깨닫고 우리 죄를 알게 되기를 일반적으로 원하시듯이, 그분은 그 진노가 일시적이어서 지나가고 사라진다는 것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선지자 이사야(54:8)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로입니다. "내가 너에게 내 분노를 느끼게 하는 것은 잠깐 동안일 뿐이다. 그러나 나는 대대로 내 자비를 알게 할 것이니, 그것이 너에게 영원히 머물 것이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한편으로 우리가 우리 죄로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므로 그분이 노하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고, 다음으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화목하기를 구하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욥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당신의 원수로 여기셨다고 밝힙니다. 곧 이런 뜻입니다. "이 진노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해 노하신 것을 보이시고 그들에게 당신의 보응의 어떤 표시를 주실 때처럼 보통의 진노가 아니네. 그것은 내게 지나쳤네." 이것이 그의 말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와 같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밝혔듯이) 위로가 없으면 우리가 인내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지 못할 때 그분께 거역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윗은 "주님,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려고 주님은 사랑스러우십니다"라고 말합니다(시 130:4). 그러므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불쌍히 여기려 하신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지 못할 때, 그들은 자신을 낮추기는커녕 오히려 그분을 향해 이를 갈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위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멸망시키려 하시고 이미 자기를 완전히 무너뜨리셨다고 결론지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어디에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CO 111 우리가 이미 보여 주었듯이, 그는 여기서 자기의 첫 격정을 드러내는데, 거기서 그는 도를 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거기에 맞섰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볼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온 교회에

주신 약속을 우리 마음에 새겨 주셔서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서 빠져나가지 않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약속은 이러합니다. 곧 우리가 그분께 죄를 짓고 그분의 계명에서 벗어나면 그분이 우리를 징계하시겠지만 사람의 매로 하시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분이 우리를 부드럽게, 절제된 방식으로 징계하실 것이고, 그분의 자비가 결코 우리에게서 멀어지지 않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당신의 선지자 하박국(3:2)의 다른 구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입니다. 그렇다면 (말하건대) 우리의 모든 고난 속에서 그분이 우리를 당신의 원수로 여기시는 것처럼 보이도록 허락하지 마시기를 그분께 기도합시다. 오히려 우리가 그분을 노엽게 했을 때, 그분이 우리와 전쟁을 하시고 우리의 철천지원수가 되시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깨달읍시다. 그런데도 그분은 우리 아버지가 되기를 그치지 않으시고, 우리가 정반대의 것을 받아 마땅한데도 우리에게 당신의 선하심을 계속 베풀려 하신다는 것을 깨달읍시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원수로 여기신다는 그런 시험이 우리 앞에 닥치더라도, 언제나 그것에 맞서 싸우기를 그치지 맙시다. "보라, 물론 내 처지와 형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원수로 여기시고, 나를 당신 백성의 수에서 지워 버리신 것 같고, 더는 나를 기억하셔서 도우려 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 그러나 그래도 나는 그분께 기대고 모든 것을 그분께 의지하는 영예를 그분께 돌려 드릴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욥이 크게 짓눌렸지만 완전히 지지는 않았던 이 시험에 맞서야 합니다.

그는 이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몰려와서 그분의 부대들이 내 집 둘레에 온통 진을 쳤네." 그는 자기가 견디는 모든 고난을 하나님의 군대와 그분의 부대라고 부릅니다. 이 비유는 이미 다른 구절에서 보았습니다. 곧 우리가 겪는 모든 역경이 하나님의 그만큼의 채찍이요, 그만큼의 투창이요, 그만큼의 화살이요, 그만큼의 칼이며, 요약하면 그분을 따르는 그만큼의 병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것을 고백하지만 마땅히 필요한 만큼 그것을 확신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어떤 고통을 당하면 자기에게 나쁜 운수가 닥쳤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박이 떨어지거나 서리가 내려 포도밭과 밀을 망치면 그것이 나쁜 운수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투는 우리가 우리에게 가까운 것만 보고, 더 높이 올라가서 CO 112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처리하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데서 나옵니다. (말하건대) 이처럼 사람들은 언제나 덤벙대며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고난을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당신 손에 쥐고 계시고, 그것이 그분의 군대요 그분의 부대이며, 그것을 쓰시는 분도, 보내시는 분도, 당신 뜻대로 처리하시는 분도 그분이라는 것을 보여 줄 때, 이 모든 것을 잘 새깁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고난을 당할 때 언제나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고, 우리를 치는 것이 그 손이라는 것을 알며, 그것으로 자신을 낮추도록 가르침을 받읍시다. "그래, 주님,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보이고, 그 아래 있는 원인들도 보이며,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는지도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께서 모든 것 위에 계시니, 나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손에서 나오는 상처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 밖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난에 빠뜨리시려고 병사 하나나 칼 하나, 몽둥이 하나만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도 새깁시다. 그분께는 욥이 여기서 말하듯 우리를 사방에서 에워쌀 준비를 다 갖춘 부대들과 군대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가지 고통에서 벗어나도 하나님께서는 금세 우리를 다시 붙잡으실 수 있습니다. 이 점도 매우 유익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이 자기를 뒤쫓는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도 언제나 벗어나리라는 어떤 헛된 소망을 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여깁니다. "그래, 나는 이것도 이겨 낼 것이다. 아직 이런 방도가 있다." (말하건대) 이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 아래 자신을 낮추는 대신 더 거역하고, 그분을 뿔로 한 번 들이받으면 그분을 멀리 쫓아낼 수 있으리라고 여깁니다. 더욱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반역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로 한 대 치시면 우리는 교만과 오만으로 부풀어서 그분이 우리에게 큰 잘못을 하신다고 여기고, 그분이 그 백 배라도 우리를 뒤쫓으실 수 있다는 것은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새겨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욥은 자기 친구들이 자기를 거슬렀다고 원망하는데, 그는 바로 그 점에서도 자기가 하나님의 손을 깨닫는다는 것을 밝힙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미 말한 것을 더 잘 굳혀 주어서, 우리가 이 가르침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알게 해 줍니다. 병이 하나님의 병사들입니까? 병은 그분의 채찍이자 칼이기도 합니다. 성경이 이 모든 비유를 쓰는 것은 우리 마음속 깊이 넉넉히 들어올 수 없는 것들을 우리의 둔함에 맞추어 더 잘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갑자기 변해서 우리의 적이 될 때, 우리 친구여야 하고 우리와 가까웠던 사람들이 우리 고통을 더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 같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런 악한 마음이 CO 113 사람들의 부패가 아니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때 우리를 고난에 빠뜨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섭리가 그것을 이끕니다. 일들을 살펴보기도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변해서 그런 악의를 부리리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변화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결론지읍시다. 물론 어떤 행위에 잘못과 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일하신다고 말하면, 우리에게는 악과 허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가르침이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지 헤아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우리에게 악의적이고 잔인할 때 그 악의가 그들의 것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기로 이끄시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분이 그들에게서 모든 선하고 인정 있는 마음을 거두시지 않는다는 말도 아니고, 요약하면 그분이 우리가 그들에게 핍박을 받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때 악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그분께는 선하고 정당한 까닭이 있고, 모든 것을 바르게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분께 순종하려고 악을 행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양심과 그분의 계명이 그들에게 그 반대를 충분히 깨우쳐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욥이 여기서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그런 능력, 곧 당신의 피조물을 원하시는 대로 다루시고 좋게 여기실 때 그것들을 써서 우리를 고난에 빠뜨리시는 능력을 돌려 드린다는 것을 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병을 보내신다면, 그래, 그것은 그분께로부터 나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다른 재앙을 보내셔서 우리가 모든 재물을 빼앗긴다면,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욥이 앞에서 말한 대로입니다. 도적들이 그의 재산을 빼앗아 갔지만, 그는 "그래, 주님께서 주셨고 주님께서 거두어 가셨으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기를"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욥이 우리에게 보여 주는 것을 잘 헤아립시다. 곧 그의 친구들이 그를 거스르고, 와서 그를 들쑤시고, 그를 향해 패를 지어 그를 발로 짓밟기로 작정했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그렇게 굳게 하셨고 그들이 자기에게 인정을 베풀지 않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욥은 이것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나를 너무나 엄청난 방식으로 뒤쫓으셔서, 나는 주님께서 나를 과녁으로 세우시고 주님의 모든 보응을 내게 쏘신다는 것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지옥에 두신 것 같지 않습니까?" 욥의 이 말이 겨냥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물론 그는 자기 친구들을 자기에게서 멀어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은 점에서 좋은 분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그런 시험을 보고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한 점에서 그의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야 했습니다. "그래, 주님, 물론 주님께서 사람들을 무장시켜 나를 대적하게 하셨고, 그들을 여기로 데려오셔서 나와 전쟁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나는 주님께 도움을 기다릴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을 써서 나를 고난에 빠뜨리기를 기뻐하시니, 나는 주님께로 피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실 때 그들의 마음을 넉넉히 바꾸시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욥은 이렇게 나아갔어야 했습니다. 그는 첫 번에 그렇게 하지는 못했지만 그쪽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사람들이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꾀하고 우리를 핍박할 때, 그들에게 매달려 머물지 말고 우리가 상대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읍시다. 그러니 우리가 그분의 피조물들을 통해 징계를 받을 때 그분의 선하심에 소망을 두도록 그분께 달려갑시다.

이제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엎드립시다.

제71편

욥기 19장 설교 3

CO 34:114–126

AI로 옮긴 초벌 번역입니다. 신학 감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CO 권: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 내 숨결은 내 아내에게 역겨웠네. 내가 내 몸에서 난 자식들을 두고 그녀에게 애원하는데도 그러하네. 어린아이들까지 나를 물리치고, 내가 일어서면 나를 놀리네. 내 친구들은 나를 가증히 여기고, 내가 사랑하던 이들은 내게 등을 돌렸네. 내 뼈는 내 살갗과 살에 달라붙었고, 나는 내 이의 살갗을 지닌 채 빠져나왔네. 나를 불쌍히 여기게, 나를 불쌍히 여기게, 자네들 내 친구들이여.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기 때문이네. 어찌하여 자네들은 하나님처럼 나를 핍박하며, 내 살로도 배부르지 않은가? 내 말이 기록되기를, 책에 적히기를 바라네. 쇠 철필로 납에나 돌에 새겨져 영원히 남기를 바라네. 나는 내 구속자가 살아 계시고, 마침내 땅 위에 일어서실 것을 아네. (욥 19:17–25)

CO 114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하나로 묶으신 것은 서로 붙들어 주고,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도우려 애쓰며, 더 잘할 수 없을 때에는 적어도 서로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CO 115 모든 도움을 잃고, 사방에서 괴롭힘을 당하며, 아무도 우리에게 인정을 보이지 않고 모든 사람이 우리에게 잔인하게 군다면, 그 시험은 참으로 혹독합니다. 그래서 욥은 이 구절에서 아내도 친구도 종들도 자기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고 온 세상이 자기를 버렸다고 원망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들을 때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어제 다루었듯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각 사람이 우리에게서 멀어지도록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더 잘 달려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세상 쪽에서 어떤 받침을 얻고 있는 동안에는 마땅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땅에 붙잡혀 있습니다. 우리 본성도 온통 그쪽으로 기울어져 너무 거기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당신께로 이끄시려고 우리가 모든 사람의 도움을 잃게 하실 것입니다. 또는 그것이 우리를 낮추시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땅히 돌아보셔야 하고 우리가 그럴 만하다고 여기며, 각 사람이 그런 오만에 눈이 멀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때로 이 방법으로, 곧 모든 사람이 우리를 업신여기고 큰 자에게나 작은 자에게나 우리가 버림받게 하셔서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치려 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든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읍시다. 우리는 욥이 여전히 그분께 피하고 그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은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를 버리고 그에게 더는 아무 소망도 없다고 여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려고 그를 돌아보셨습니다. 그러니 이 일에 신뢰를 둡시다. 그 밖에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로 묶고 하나로 만드셔서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다는 것을 따라,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의무를 다하도록 가르침을 받읍시다. 사람들은 서로 완전히 떨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는 질서를 정하셔서 각 사람이 자기 집과 자기 살림과 자기 아내와 자식들을 가지고 저마다 자기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공동의 삶에서 빠져서 “나는 나 혼자만을 위해 살겠다” 하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짐승보다 못하게 사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로에게 빚지게 하셔서 서로 돕게 하셨다는 것을 깨달읍시다. 적어도 누군가가 궁핍한 것을 볼 때, 우리가 바라는 만큼 그에게 잘해 줄 수 없더라도 그에게 인정을 베풉시다.

그렇지 않다면 성령께서 여기서 욥이라는 인물을 통해 우리를 거슬러 보응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새깁시다. 욥이 (크고 지나친 격정에 흔들렸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영께 다스림을 받았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CO 116 특히 일반 원리들, 곧 그가 내세우는 명제들에 관해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밝혔듯이 그것들은 유익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련한 사람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고도 그를 도우려 애쓰지 않고 오히려 그에게서 물러난다면 그것이 너무나 큰 잔인함이라고 선언하신다는 것을 새깁시다.

또한 성경에서는 때로 지나가는 말로 하는 것들에서도 좋은 가르침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새깁시다. 여기서 욥이 자기 아내를 말하면서, 자기가 자기 몸에서 난 자식들을 두고 애원했는데도 그녀가 자기 숨결을 견디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것으로 그는 자식들이 남편과 아내의 사랑을 더 크게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하나님께서 자손으로 결혼에 복을 주실 때, 그것은 더 큰 화목 속에서 살도록 서로의 애정을 키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도 이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훨씬 더 분명히 보아야 할 사람들이 이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았다고 자랑하는 신자들이, 본성이 눈먼 것과 같은 가련한 무지한 자들에게 보여 준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정죄가 되겠습니까? 이방인들은 자식들이 남편과 아내의 사랑을 더 잘 굳히고 그들을 평화와 연합 속에 붙잡아 두는 담보와 같다고 고백했습니다. 그에 따라 욥은 자기가 그녀에게서 낳은 자식들을 두고 아내에게 애원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녀를 조금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것이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고, 그의 아내가 이 점에서 사나운 짐승처럼 굴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그러므로 그런 질서를 따르지 못하는 모든 사람이, 마치 성령께서 분명한 말로 그들에게 판결을 내리신 것처럼, 여기서 지나가는 길에 꾸지람을 받는다는 것을 새깁시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는 은혜를 베푸셨는데도 아무 분별이 없는 사람을 많이 봅니다. 아내와 함께 살아온 남자가 있습니다. 물론 결혼은 이미 너무나 거룩한 것이어서,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라는 이 한마디로 넉넉해야 합니다. 곧 남자가 아내와 가져야 할 연합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가지는 연합보다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굳히시려고 넘치도록 더하셔서 결혼이 자식을 낳게 하시는데도, 남자와 여자가 너무 짐승 같아서 그것으로 서로 더 사랑하도록 이끌리고 재촉받지 않는다면, 그들의 배은망덕이 너무나 무겁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말했듯이) 이것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아주 잘못 실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여기서 지나가는 길에만 언급되었다 해도 우리는 이 말에서 유익을 얻어야 합니다.

욥은 고통을 더 크게 말하려고, 자기 CO 117 친구들과 자기 의논 상대들, 곧 자기가 모든 비밀을 늘 털어놓던 사람들이 자기에게 등을 돌렸거나 자기를 비웃었고,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겼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신망과 지위를 가진 사람들만이 아니라 가장 작고 가장 천한 자들까지 자기를 업신여겼다고 말합니다. 요약하면 그는 친구들이 자기를 저버렸으니 자기가 모든 도움을 잃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둘째로, 자기가 치욕 속에 있어서 세상에서 가장 업신여김을 받는 자들조차 자기를 자기들 축에 끼워 줄 만하다고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를 사람들의 무리에 속한 자로 알아주지 않았고 그가 이미 없어진 것보다 더한 처지에 있었으니, 그 고난이 얼마나 컸는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요약하면 욥이 말하려 한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짚었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렇게 단련하셔서 그가 우리에게 거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의 철천지원수가 되어 우리를 핍박하는 일이 일어나면, 그것이 우리보다 앞서 욥에게 일어났으니 하나님께 달려가 그것을 인내로 견디기를 배웁시다. 더욱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하신

말씀을 떠올립시다. 그것은 그분 교회의 모든 지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내 상에서 떡을 먹던 자가 나를 향해 발꿈치를 들었다." 이것은 모든 신자에게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형상을 닮게 되는 것을 너무 괴로워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가 전적으로 믿었고 아주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핍박받는 것을 번번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 그것은 아주 혹독한 일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고, 우리가 그 고통을 느낄 때 그것은 우리를 낙심하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밝히셨고, 당신의 독생자에게서 그 증거를 주셨으니, 그 길을 지나갑시다. 이 조건에 우리를 복종시킵시다. 이것도 이 구절에서 살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욥이 덧붙이는 말로 옵시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게, 나를 불쌍히 여기게, 자네들 내 친구들이여.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기 때문이네."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벌하시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주님, 주님은 의로우십니다" 하고 말하며 그분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욥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저지른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 죄과대로 징계를 받았다고 가정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정죄에 이르게 하신 가련한 죄인을 볼 때 우리는 우리 속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그것도 두 가지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는, 각 사람이 자기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아 마땅한 대로 우리를 찾아오기를 기뻐하신다면 우리도 CO 118 그만큼, 아니 그보다 더 혹독하게 벌하셔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를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보기에 몹시 짓눌린 사람들만큼 무겁게 하나님께 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며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 악덕과 죄악이 우리를 낮추어야

합니다. “가련하고 비참한 사람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를 뒤쫓으시는 것이 보인다. 무서운 일이다. 그런데 어떤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벌하실 까닭이 충분히 있다. 그러므로 나는 나를 낮추고 이 사람에게 나를 비추어 보아야 한다.” 이것이 첫째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손에 더할 수 없이 심하게 고난을 당한 사람을 볼 때, 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을 뿐 아니라 우리 이웃이고 우리와 하나와 같다는 것을 압시다. 우리는 모두 한 본성이고, 한 육신을 가지고 있으며, 인류입니다. 곧 우리가 같은 근원에서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서로를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욱이 나는 가련한 영혼 하나가 멸망하러 가는 것을 본다. 내가 할 수 있다면 그를 도우려고 그것을 불쌍히 여겨야 하지 않겠는가? 내게 방도가 없더라도 나는 그렇게 하기를 바라야 한다.” (말하건대) 하나님께서 그럴 만한 사람들을 고난에 빠뜨리시는 것을 볼 때 우리를 동정으로 움직여야 할 두 가지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주 완고하고 무감각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깨달을 때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이 있다. 그는 나와 같은 본성을 지녔다. 게다가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구속받은 영혼이 있다. 그 영혼이 멸망한다면 우리가 그것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야 하겠는가?”

그래서 욥은 이제 “내 친구들이여,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으니 나를 불쌍히 여기게” 하고 말합니다. 이것을 더 잘 이해하려면 이 말씀,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은 무서운 일이라는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어떤 벌을 볼 때, 그분이 우리를 아끼시더라도 우리는 두려움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나는 편안히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건드리시는 척도 하지 않으시겠지만, 나는 그분이 이 사람을 치시고 저 사람을 고난에 빠뜨리시는 것을 볼 것이다.” 이것이 놀랄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 위에 큰 매를 내리치시기를 기다

려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너무 둔한 일일 것입니다. 오히려 그분이 남의 대가로 우리를 가르치려 하시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그분이 왜 사람들을 그렇게 벌하시는지 그 까닭을 살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 주는 대로입니다(엡 5:6). 그는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벗들이여, 너희는 CO 119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끼시는 동안 믿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벌하시는지 본다. 그분이 사람들에게 당신의 진노의 어떤 표시를 주실 때 그것이 너희를 가르치기 위한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그러니 사도의 이 말씀, 곧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라는 말씀을 잘 새깁시다. 그리고 그분이 어떤 벌을 내리실 때마다 그것에 마음이 움직입시다. 그러면 그와 동시에 우리는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도록 가르침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아, 가련한 피조물이 있다. 그를 괴롭히는 것이 죽을 사람이라면 그에게 어떤 덜함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거스르신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아야 하겠는가?" 누가 이렇게 반박한다고 해 봅시다. "자기 잘못 때문에 징계받는 사람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긴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맞서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의에 대드는 것과 같지 않은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두 감정을 함께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 그분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며 그분의 의를 인정하면서도, 벌받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기를 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만큼 또는 그 이상을 받아 마땅하기 때문이고, 또 우리는 모든 사람의 구원을, 특히 우리에게 더 가깝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 어떤 끈을 두신 사람들의 구원을 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비추는 작은 거울에 지나지 않는 이 땅의 사법을 인정하면서도 죄인을 불쌍히 여기기를 그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범죄자가 벌을 받을 때 사람들은 그에게 부당한 일을 한다거나 재판관이 잔인하다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법의 직

무에 세워진 이들이 범죄자를 사형에 처할 때 자기 의무를 다하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린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에도 우리는 자기 악행 때문에 고통받는 가련한 피조물을 불쌍히 여기기를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는 인정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은 불꽃에 지나지 않는 인간의 사법에서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다면, 저 위에 있는 지고한 보좌로 올라갈 때, 묻건대,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이 모든 일에서 어디서나 의롭고 공평하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내가 말했듯이) 그것이 우리가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동정하여 그들을 찾아가고 돕는 것을 막지는 않을 것입니다. 더 잘할 수 없을 때에도 우리는 그들의 구원을 바라고,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이 받은 징계를 유익하게 하셔서 그들을 당신께로 이끄시고, 그들이 완고하게 머물러 그분의 손에 대드는 일이 없게 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말하건대) 욥이 자기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친구들에게 요청하고 권할 때 근거로 삼는 것이 이것입니다.

CO 120 그리고 특히 그는 자기에게 더 가까운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사이에 일반적으로 어떤 하나됨을 두셨지만, 곧 (우리가 말했듯이) 그들을 모두 함께 묶으셔서 그들이 서로 떨어져서는 안 되게 하셨지만, 우리가 친족 관계나 다른 어떤 끈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두 배로 빚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웃들은 서로 더 가까운 우정을 품도록 재촉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하자면 사람들을 짐승을 멍에 아래 두듯이 두셨기 때문입니다. 짐승들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두 마리 소가 함께 멍에를 메었는데 저마다 고집을 부리려 하면 서로 괴롭힐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마음으로 함께 밭을 갈고 나서 마시고 자는 데에도 뜻을 맞추지 않는다면, 그들은 서로에게 사형 집행인처럼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도 그

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 그들을 서로 가까이 두실 때, 그것은 마치 그들을 한 멍에 아래 함께 매어서 서로 돕고 붙들게 하시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집을 부리고 짐승보다 더 나쁘다면, 그들은 자기 머리 위에 어떤 정죄를 받아 마땅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두시고 서로 사귈 방도를 주시는 만큼 그분이 우리를 서로에게 빚지게 하신다는 것을 잘 새깁시다. 친구는 자기 친구에게 그만큼 더 빚진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은 일반적이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모든 사람을, 그들이 우리의 철천지원수라 하더라도 사랑해야 하지만, 남편은 아내에게,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자식들은 아버지에게, 친척들도 서로에게 더 빚진 자가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두신 우정의 모든 등급을 깨달아야 합니다.

욥은 이어서 "어찌하여 자네들은 하나님처럼 나를 핍박하는가?" 하고 덧붙입니다. 이 말에는 별 이치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이미 짚었듯이) 의인은 불의한 자의 피에 자기 손을 씻으리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벌하시는 것을 볼 때 기뻐해야 합니다. 그런데 욥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핍박하시는 사람들을 사람이 핍박해서는 안 된다고 내세웁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이미 풀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동의하면서도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할 수 있다면 그들을 덜어 주기를 그치지 않을 수 있다고, 적어도 그들의 구원을 바라는 마음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을 때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람들을 핍박한다면 그것은 잔인한 일이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고난에 빠뜨리실 때(욥 같은 의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악하게 살아온 사람들, 악한 삶을 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들을 향해 고개를 쳐들고 그들을 더 괴롭히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분은 CO 121 먼저 우리 각자가 남의 모습에서 자기를 정죄하기를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매를

맞고 있는 것이 보인다. 왜 그런가? 그의 죄 때문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재판관이 아니신가? 그러므로 이것은 나와 관계가 있다. 내가 무죄한가? 하나님께서 내게서 나무랄 것을 찾지 못하시겠는가? 아, 잘못이 너무 많고, 너무 무겁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징계를 남에게서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남의 모습에서 자기를 정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김과 동정으로 단련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 순서를 따르면 잘못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잘못은 돌아보지 않고 이미 너무 많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괴롭히러 간다면, 그것이 잔인함이 아닙니까? 우리는 재판관이 되려고 하나님의 직무를 가로채려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리라는 말씀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미 말했듯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람들에게 보내시는 모든 벌로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각 사람이 자기를 정죄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재판관이셔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것으로 어느 정도 인정 안에 붙잡혀 있지 말아야 한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래서 욥은 친구들이 하나님처럼 자기를 핍박한다고 그들을 정당하게 꾸짖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께 죄를 지은 자들에게 당신의 보응을 펼치신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무장시켜 인정 없이 굴게 하시고 완전히 쓰러진 가련한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향해 우리를 분노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님을 잘 새깁시다. 오히려 그분은 우리가 그들을 동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밖에 욥은 여기서 친구들의 잔인함을 고발하며 그들이 자기 살로도 배부르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는 "어찌하여 자네들은 내 살로도 배부르지 않은가?" 하고 말합니다. 이것이 그가 끌어오는 비유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듯) 우리 이웃을 향해 그렇게 악착스러울 때, 그것은 마치 그들을 산 채로 잡아먹으려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 일상 언어에서 이런 말투를 잘 씁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먹고 마시며 식사

를 즐기듯이, 이웃에게 잔인한 사람들은 이웃을 자기 식사로 삼으려 하고 그들을 산 채로 먹고 삼키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욥은 "어찌하여 자네들은 내 살로도 배부르지 않은가?" 하고 말합니다. 우리 이웃이 넘치도록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고도 그것으로 우리가 배부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고통을 더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큰 잔인함이고 그들을 먹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욥이 친구들이 적어도 자기가 이렇게 쓰러진 것을 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고 말할 때 이 정황을 새겨야 합니다. "자네들은 무엇을 더 바라는가? 나는 CO 122 끝에 이르러서 더는 견딜 수 없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그의 불행을 바라며 복수할 온갖 방도를 찾았더라도, 그 사람이 더할 수 없이 고난을 당하게 되면 우리 분노가 가라앉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런 감정이 덕으로 여겨져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은 악했고 원수 갚음이 자기들에게 허락된다고 여겼지만, 그래도 원수들이 너무 괴로움을 당해서 자기가 더 손댈 필요가 없는 것을 보면 마음을 가라앉혔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해를 끼쳤다고 합시다. 그래, 해를 입은 사람은 할 수만 있다면 복수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하나님께서 앞질러 오셔서 해를 끼친 사람에게 큰 재앙을 보내십니다. 그러면 전에는 독기를 품고 미워하는 사람을 망하게 하기만을 바라던 사람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래, 내가 그에게 무엇을 더 하겠는가? 그는 너무 쓰러져서 오히려 불쌍하다. 그만하면 됐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세상에서 가장 화가 났더라도, 그가 고난 속에 있는 것을 보면 불이 저절로 꺼질 것입니다. (내가 말했듯이) 그것은 덕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나 사랑으로 여겨질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방인들 사이에서도 자연스러운 성향이라면, 오늘 자기 원수들이 더할 수 없이 핍박받는 것을 보고도 만족하지 않고 거기서 채워지지 않아서 그들을 아예 잡아먹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원수들에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에게 보내신 고난으로 만족하지 않는 것도 정죄받아야 한다면, 친구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렇게 잔인한 자들은 자기가 사람의 수에 들 자격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 의무를 다하려는 사람은 원수들의 고통과 고난 앞에서 마음을 가라앉혀야 할 뿐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원수 갚기를 구하는 대신 오히려 할 수 있는 한 그들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원수들과 우리를 노엽게 한 사람들에게 어떤 고난을 보내실 때, 그분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악의와 원한을 누그러뜨리시고, 우리가 이웃에게 그렇게 나쁜 마음을 품게 하는 원인을 바꾸려 하신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으로 부르시는데 우리가 완전히 거꾸로 간다면, 그것은 드러내 놓고 그분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잘못과 모욕을 끼친 사람들을 고난에 빠뜨리실 때, 그것은 우리 마음에 있는 쓴 것을 누그러뜨리시려는 것임을 잘 새깁시다. 그리고 우리가 전에 언짢고 상처를 받았거나 원수 갚기를 탐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CO 123 그 모든 나쁜 감정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동정과 인정으로 이끄시려 한다는 것을 새깁시다. 이것이 이 구절에서 우리가 새겨야 할 것입니다.

욥은 자기 비참을 두고 새로운 원망을 더하여, 자기 뼈가 살갗에 달라붙었고 자기가 자기 이의 살갗을 지닌 채 빠져나왔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방금 짚은 말, 곧 그의 친구들이 삼킬 것만 찾는 짐승 같다 하더라도 이제는 배불러야 한다는 말을 더 잘 표현하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들은 내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보지 않는가? 무엇을 더 바라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것보다 더 많은 고통을 누군가에게 바랄 수 있겠는가?” 그런데 그가 자기 살갗이 뼈에 붙었다고 말할 때, 그것은 자기가 완전히 말라서 죽은 사람의 모습처럼 되었고, 자기 안에 더는 진액도 실체도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가 자기 이의 살갗을

지닌 채 빠져나왔다고 말할 때, 그것은 자기 안에 잇몸 말고는 성한 데가 없다는 것, 또는 자기 살갗이 잇몸과 같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벌레가 몸을 차지하면 살갗은 더는 마르지 않고 잇몸처럼 되기 때문입니다. 곧 썩음이 퍼지고 모든 것이 먹혀 버리면 피 흘리는 살이 보이고, 상처에서처럼 반은 피고 반은 물인 것이 흘러나옵니다. 우리가 보듯이 상처는 잇몸과 비슷합니다.[14] 이처럼 욥은 자기가 너무 일그러져서 더는 자기에게서 사람의 얼굴을 알아볼 수 없었다고 밝힙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극한에 이르렀을 때 그의 친구들이 만족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지금 하는 것보다 이웃의 고난을 더 잘 살피라는 경고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재앙을 보내실 때, 그것을 헤아리고 잘 새기도록 눈을 더 크게 뜨는 은혜를 주시기를 그분께 기도합시다. 그리하여 그것이 우리를 불쌍히 여김으로 이끌고, 각 사람이 할 수 있는 한 거기에 방도를 마련하는 데 힘을 쏟으며, 결국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맞았으니 그분이 그들에게 자비로우시리라고 우리가 소망하게 합시다.

욥은 친구들에게서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모든 이치를 거슬러 자기를 의롭다 했다고, 자기 악덕을 알지 못하고 그것에 눈이 멀었다고 고발을 당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모든 말이 기록되기를, 쇠 철필로 새겨지기를, 납이나 돌에 새겨져 영원히 변치 않는 기념이 되기를 바라네.” 욥은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자기 무죄를 헛되이 주장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이것으로 책망받을까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밝힙니다. 자기에게 그렇게 할 정당한 까닭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요약하면 이것이 그가 겨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의 말에 지나침이 있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CO 124 엉뚱한 말이 많았습니다. 그는 절도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좋고 이치에 맞는 근거가 있었고 그의 사정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지만, (우리가 앞에서 밝혔듯이) 그는 그것을 잘못 펼쳤고, 정죄받아야 할 말을

14. 원문에는 “pluye“(비)로 되어 있으나, 문맥상 “playe“(상처)의 오식으로 보고 옮겼습니다.

많이 내뱉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이제 왜 자기 말이 그렇게 기록되기를 바란다고 말합니까? 그것은 자기 머리 위에 두 배의 정죄를 불러오는 것이 아닙니까? 욥은 핵심을 바라보았고, 자기가 내뱉은 낱말 하나하나에 매이지 않았다는 것을 새깁시다. 그는 여기서 자기 사정을 변호하는 것으로서 자기 말을 내세웁니다. 그런데 그 변호는 정당했습니다. 그것이 잘못 펼쳐졌고 그가 이리저리 엉뚱한 데로 빠졌지만, 그래도 그는 자기가 자기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엄격하시다는 이유로 자기를 세상에서 가장 악한 자로 여겨서도 안 된다는 것을 정당하게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욥은 그것을 이치에 맞게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는 자기 모든 악덕을 깨달아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 있다고 느낄 만큼은 하지 못했으므로 잘못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매우 신중하게 말하라는 경고를 받습니다. 시편(39:1)[15]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악인들이 다스리고 득세하는 동안 입을 다물고 나 자신에게 재갈을 물리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결국 나는 참을 수 없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에 짓눌린 자기를 보는데 악인들은 개선하고 순풍을 만나는 동안 시험을 받을 때, 그것이 너무나 혹독해서 우리가 스스로를 억제하여 하나님을 거슬러 불평하지 않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재갈을 물린 것처럼 있기로 결심했다. 나는 굴레를 씌우고 내 입에 빗장을 질러 한마디도 내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결국 그 모든 재갈이 끊어졌고, 내가 내렸던 그 모든 결심도 내가 속에 품었던 바람을 드러내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두지 못했다. 결국 불이 붙어 넘쳐흘렀다.” 이것으로 다윗은 고통이 우리를 짓누를 때, 특히 악인들이 입을 벌려 자랑하고 우리를 비웃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잠잠히 입을 다물고 인내하는 것이 참으로 크고 드문 덕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이 구절을 욥의 본보기와 함께 묶어 보면, 우리는

15. 원문에는 “시편 39편 2절“로 되어 있습니다. 프랑스어 성경은 시편의 표제를 1절로 세므로, 한국어 성경의 절수로 바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에 빠뜨리실 때 입을 다물도록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격정이 격렬한 만큼, 우리가 마땅히 그래야 할 대로 단순하게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기를 배우더라도, 우리는 아무것도 새어 나가지 않고 아무 거품도 끓어 넘치지 않을 만큼 신중하거나 절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CO 125 언제나 우리 말에서 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그분의 영예에 어긋나는 것을 말하려는 의도가 없더라도, 우리는 너무 대담하게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욥이 모든 것이 기록되고, 기념으로 새겨지고, 결코 지워지지 않도록 돌이나 납에 새겨지기를 구했을 때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우리가 가장 깨끗하다고 여기는 말에서도 그분이 우리 잘못을 용서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힘씁시다. 사도 야고보는 자기 혀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특별한 덕을 지녔다고 말합니다(약 3:2).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더할 수 없이 경솔하게 나쁜 말을 하고, 우리가 올곧게 말했다고 여길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여전히 지나침을 찾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 구절에서 우리가 새겨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욥은 자기 구속자가 살아 계시다는 것을 안다고 덧붙입니다. 물론 이것은 지금 다 풀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이 어떤 의도로 이렇게 말하는지는 짚어야 합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 사정을 펼치고 자기를 의롭다 하려고 위선자들처럼 하지 않았으며, 자기가 상대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들을 따로 떼어 낸 조각처럼 받아들이면 별로 덕을 세우지 못할 것이고, 우리는 욥이 무슨 말을 하려 했는지 알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짚은 것을 붙듭시다. 욥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듯이 사람들은 할 수 있는 한 자기를 변명하려고 애쓰는데,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자기에게 만족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선한 사람으로 여기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위선은 뻔뻔

함을 낳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 재판관이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아, 사람들이 내게 박수를 치고 나를 좋게 평판해 주는 것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을 얻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양심이 나를 꾸짖고 내가 잘못했다는 것이 드러났는데도 내가 CO 126 고개를 쳐들고 "왜 나를 고발하는가? 내가 무엇을 했는가? 내 사정이 옳지 않은가?" 하고 말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큰 뻔뻔함이 아닙니까? 나는 내 죄를 덮으려고 그럴듯한 빛깔을 칠할 것이고, 그렇게 사람들의 눈을 속이고 나면 내 소송은 이긴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가 말한 것, 곧 위선이 뻔뻔함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은 하나님을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자기 사정이 옳다고 대담하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욥은 반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고, 마침내 티끌 위에 일어서실 것을 아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악인이요 절망한 자로 여기네. 마치 내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분을 거슬러 나를 의롭다 하려 애쓰는 것처럼 말이네. 결코 그렇지 않네. 나는 오직 나를 낮추고 온전히 그분의 은혜에 기대기를 구할 뿐이네. 그러나 그동안 나는 자네들을 거슬러 내 올곧음을 지켜야 하네. 자네들이 중상으로만 나를 대하는 것을 보기 때문이네. 그러므로 나는 나를 변호하되, 그동안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눈을 거기에 고정하고 있네." 그런데 이것에서 우리는 좋은 가르침을 거둘 수 있고, 또 거두어야 합니다. 곧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가리고 옳은 사정을 지키는 척하며 선한 사람으로 보이려 하면서, 그동안 우리 양심이 우리를 꾸짖는 그런 위선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 죄를 알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불러내기를 배웁시다. (말하건대) 이렇게 말하며 그 끝에서 시작합시다. "자, 나는 어떤 처지에 있는가? 물론 나는 사람들 앞에서 넉넉히 나를 변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얻겠는가? 그분이 나를 받아 주시겠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그러므로 이것을 따라 큰 자나 작은 자나 우리 모두 이 하늘의 재판관 앞에 나아가고, 각 사람이 거기에 나서서 자기 잘못의 용서를 구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진실로 거기에 나아가면 그분께 사면을 받으리라는 것을 의심하지 맙시다. 우리가 그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의 은혜와 자비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엎드립시다.

제72편

욥기 19장 설교 4

CO 34:127–139

AI로 옮긴 초벌 번역입니다. 신학 감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CO 권: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 내 살갗이 벗겨진 뒤에 벌레들이 이것을 갉아 먹을지라도, 나는 내 육체로 하나님을 뵐 것이네. 내가 내 안에서 그분을 우러러볼 것이니, 다른 이가 아니라 내 눈이 그분을 뵐 것이네. 내 콩팥이 내 속에서 쇠하였네. 자네들은 "그가 무엇 때문에 핍박을 받는가?" 하고 말하지만, 일의 뿌리는 내 안에 있네. 칼 앞에서 두려워하게. 환난의 진노가 칼과 함께 있으니, 이로써 심판이 있음을 자네들이 알게 될 것이네. (욥 19:26–29)

이 설교는 25절 풀이를 계속한 뒤 이어지는 본문을 다룹니다.

CO 127 우리는 어제 욥이 여기서 하는 선언을 보았습니다. 곧 그는 사람들에게 매달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기꺼이 자기 양심 속으로 들어가서 마땅히 해야 할 대로 자신을 정죄하고 자기 죄를 느껴서 잘못했다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맞붙어 다투기 시작하면, 참으로든 거짓으로든 그들을 이기는 것밖에 바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생각하지 못하고, 따라서 마땅히 해야 할 대로 우리 잘못을 고치려고 애쓰지도 않습니다. 요컨대 위선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욥은 자기 구속자가 살아 계신다는 것을 안다고 말합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사람들 앞에서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을 내 목표로 삼고 변론한 것이 아니다." 그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거기서 심판을 받고 자기 온 삶을 셈해 드려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그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티끌 위에 서실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다 쇠하여 없어지고 세상도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계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정죄하시는데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변명하려 한다면 그것은 큰 어리석음일 것이다. 지금 내 재판관인 사람들, 또는 재판관이 되려는 사람들, 또는 내가 그런 영예를 돌려 드리고 싶은 사람들도 나와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언제나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나는 그분께 나를 맡기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대로 정하시는 것을 듣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런데 욥이 하나님께서 티끌 위에 서실 것이라고 할 때, 그는 하나님께서 사람과 같지 않으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모두 쇠하여 마침내 없어지고 맙니다. 우리가 온 곳, 곧 썩음과 부패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CO 128 사람처럼 쇠하실 수 없고 언제나 그대로 계실 것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 밖에 욥이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있는 능력을 티끌 위에, 곧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 안에 아무 힘도 없는 사람들 위에 부으시리라는 뜻을 담았다는 것도 새깁시다. 그가 하나님께 돌리는 이 칭호, 곧 그분이 자기 보증인이시고 자기를 지켜 주시는 분이라는 칭호에는 많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당신은 온전히 계시고 그 사이에 우리는 멸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당신의 능력에 참여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느끼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티끌 위에 서시되 그와 함께 티끌을 일깨우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방식으로 서십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분을 구속자요 보증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헛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욥이 여기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당신의 본질 안에만 가두어 두지 않으시고 사람들 위에 부으신다는 것을 나타내려 했다는 점을 잘 새깁시다. 이것은 우리에게 좋은 가르침입니다. 먼저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에만 들고 그들에

게 인정받으려 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지 경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얻습니까? 그 모든 것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가 그분께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눈을 고정하기를 배웁시다. 우리의 모든 힘을 쏟아야 할 곳이 거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 세상에 붙잡히지 않고, 우리 본성에 너무 깊이 뿌리박힌 이 위선에 휘감기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 우리 보증인이시라는 것을 깨달읍시다. 곧 사람들이 그분 앞에서 깨끗한 양심으로 행했을 때 그들의 온전함을 지켜 주시는 일은 오직 그분께만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언젠가 그들의 재판관이 되실 것이고 티끌 위에 서실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보는 모든 것이 연약하고 덧없더라도 하나님은 그와 같지 않으시고 더 높은 자리에 계십니다. 그것도 당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피조물들이 쇠하였을 때 그들을 모두 제자리로 회복시키시려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모든 신자에게 헤아릴 수 없는 위로입니다. 그들이 이 세상에서 비방에 짓눌리고, 바르게 행하려고 애썼는데도 사람들이 거짓으로 그들을 찌르고 물어뜯기를 그치지 않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자기를 맡기고 그분을 자기 보증인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없어질 때 하나님께서 서 계실 것이라는 이 확신에 기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CO 129 오늘 우리를 정죄하고 헐뜯으려고 나서는 사람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판이 완전히 뒤집힐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속자가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무모하게 하나님의 권한을 가로채고 자기들에게 허락되지 않은 일을 하려들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시고 높임을 받으셔야 하며, 우리를 지켜 주시는 일이 그분께 속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거짓으로 우리를 헐뜯을 때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증거를 가지고 있을 때마다 이것이 우리 기억에 떠올라야 합니다. 온 세상에게 버림을 받더라도 그분이 우리를 인정하시는 것으로 충분하게

합시다. 이제 욥이 하는 말로 갑시다. 그는 벌레들이 (그 낱말이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그가 온갖 벌레와 썩음을 뜻한다는 것은 분명히 보입니다) 이 살갗을 먹은 뒤에 남은 것마저 갉아 먹고 파먹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래도 하나님을 뵙기를 바라며, "내 육체로" 곧 회복된 상태로 그분을 뵐 것이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내 콩팥이 내 안에서 쇠하였을지라도", 곧 내 모든 힘이 부서지고 없어졌을지라도 "다른 이가 아니라 내가 그분을 뵐 것이다." 욥이 자기가 완전히 소진되더라도 다른 데가 아니라 하나님께 눈길을 고정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새겨 둘 만한 고백입니다. 마치 그는 자기가 하나님께 두는 소망을 자기가 볼 수 있는 것에 따라 재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그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를테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아서 온통 절망할 거리밖에 보이지 않고, 죽음이 사방에서 그를 위협하고 심지어 그를 삼키려 하는데도, 그가 굳게 서서 믿음 안에 꾸준히 머물며 이렇게 말한다고 합시다. "그래도 나는 내 하나님을 부를 것이고, 여전히 그분의 능력을 느낄 것이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데에는 그분의 능력만 있으면 된다. 내가 망한 것처럼 보일 때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런 사람은 눈앞의 것들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기가 하나님께 두는 믿음과 소망을 자기 타고난 감각으로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내지 않고, 세상을 넘어섭니다.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야 하고(롬 4:18 참조),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입니다(롬 8:24 참조). 이제 우리는 욥의 의도를 봅니다. 그가 여기서 부활을 명시적으로, 그리고 단순하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은, 욥이 오늘 자연의 보통 질서에서는 보이지 않는 능력을 하나님께 돌리려 했다는 것을 깨닫지 않고서는 풀이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베푸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먹이시는 동안에만 우리에게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으신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분이 우리를 CO 130 저버리신 것 같고 우리 앞에 죽음밖에 보이지 않을 때에도, 우리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 보증인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것이니 그분의 보호로 지켜지리라는 것을 우리가 굳게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 더 잘 유익을 얻으려면 욥이 하는 말을 잘 따져 봅시다. 그는 "내 살갗이 벗겨진 뒤에 여기 남은 것이 파먹힐지라도 나는 내 하나님을 뵐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땅이 밀과 포도주를 내게 하신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짐승 같은 사람이 많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먹이시고 자기들 배를 채우시는 것 말고는,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 아무 맛도 느낌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 물으면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좋은 것에서 그분의 선하심과 능력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미 말했듯이) 우리 믿음은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모든 것을 넘어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 주시고, 내게 건강을 주시고, 나를 먹이시니 그분을 믿는다"고 말하지 맙시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시다. "하나님께서 썩음일 뿐인 이 몸을 돌보실 때 이미 내게 당신의 선하심과 능력을 조금 맛보게 하셨고, 내가 그분의 영의 능력으로 존재한다는 점에서 그분이 아버지이심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나는 본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나 내가 오직 그분만 믿는 것은 그분이 나를 하늘로 부르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나를 소나 나귀처럼 여기서 얼마 동안 살도록 지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형상대로 나를 지으셔서 내가 그분 나라의 기업을 바라고 그분 아들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셨다. 나는 그분이 날마다 나를 그곳으로 초대하신다고 믿는다. 그래서 내 몸이 무덤에 던져지면 거기서 없어진 것처럼 되겠지만 그래도 마지막 날에 회복되리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 사이에 내

영혼은 죽은 뒤에 하나님의 보호 아래 안전하게 지켜질 것이고, 그때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위해 얻어진 생명을 지금보다 더 잘 바라보게 될 것이다." 우리 믿음이 바르게 서려면 이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갖추어지면 욥과 함께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 내 몸이 쇠해 가는 것이 보인다. 힘이 조금 남아 있다 해도 날마다 줄어든다. 나는 죽음을 십 리 밖에서 찾지 않고도 바라본다. 내 육체에서 조그마한 연약함만 보아도 그것이 이미 죽음의 전갈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나는 내 하나님을 뵐 것이다." 우리 힘이 조금씩 줄어들고 사라져 가는 것을 볼 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우리를 고난에 빠뜨리시고 우리가 반쯤 썩은 것처럼 되더라도 (욥이 CO 131 그러했습니다. 그는 "내 살갗이 먹히고 없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는 죽은 사람과 같았는데도 "그래도 나는 내 하나님을 우러러보기를 그치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욥의 본을 따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를 그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그대로 그분을 알도록, 곧 그분이 무슨 목적으로 우리를 지으셨고 이 세상에서 지키시는지를 잘 헤아리도록 우리가 배우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실 고난이 아무리 커도 우리를 놀라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밖에 욥이 자기 육체로 자기 구속자를 뵐 것이라고 할 때, 그는 (이미 말했듯이) 자기 살갗이 그렇게 먹힌 뒤에 자기가 새로운 상태로 회복되리라는 뜻으로 말합니다. 그는 자기 뼈까지 소진되어 온전한 것이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이어서 "내 육체로 나는 하나님을 뵐 것이다" 하고 덧붙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어떻게 자기 육체로 그분을 뵙겠습니까? 곧 "나는 전에 있던 대로 회복되어 여전히 내 하나님을 뵐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완전히 소진시키시고 깊은 구렁에 빠뜨리셨더라도 자기를 다시 일으키실 만큼 능력 있으시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할 조건이 이것입니다. 곧 그분이 우리를 무덤에 던지셨을 때에도 그분이 손을 내밀어 우리를 거기서 건져

내시리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내게 아무것도 모자라지 않게 하시니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고 말하지 맙시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버리시고 우리에게서 멀리 계신 것 같을 때, 욥과 함께 이렇게 말합시다. "나는 내 육체로 그분을 뵐 것이다. 나는 지금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그림자 같고, 내 생명은 금방 사라진다. 그래도 내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게 당신의 크신 능력을 나타내셔서 내가 그분을 뵐 것이다." 욥은 아직 큰 가르침이 없던 시대, 어쩌면 율법도 아직 기록되지 않았던 시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율법이 기록되어 있었다고 쳐도 아직 선지자들은 없었고 모세만 있었습니다(선지자들이 욥을 옛 시대 사람으로 언급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작은 빛의 불씨 하나만 가지고서도 고난 속에서 그렇게 굳세어져서, 죽음의 모습을 보았을 때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람들 가운데 괴물처럼, 무섭고 소름 끼치는 것처럼 세워 두신 것 같을 때에도 "그래도 나는 내 하나님을 뵐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가까이, 그토록 분명하게 부활을 선언하시고 그에 관해 그토록 아름다운 약속을 많이 주시는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핑계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거울과 실체를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언젠가 그 썩지 않을 영광에 참여하리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분을 살리셨습니다. 그렇게 많은 확증을 받고도 우리가 욥에게 있던 이 깨달음을 가질 수 없다면, 그것은 CO 132 우리의 배은망덕 탓으로 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참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약속에는 우리를 이렇게 지배하는 이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할 만한 능력이 넉넉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구절을 잘 새겨서 사도 바울과 함께 이렇게 말할 수 있게 합시다(고후 5:1). 우리 몸이라는 이 오두막이 무너지면 (그는 그것을 오두막, 곧 막대기 몇 개로 엮은 것, 아무것도 아닌 움막이라고 부릅니다) 하늘에 우리를 위해 마련된 훨씬 낫고 훨씬 뛰어난 건물이 있습니다. 이 겉사람, 곧 현재 삶에

속하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없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몸이 그렇게 쇠하는 것을 볼 때 이미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 부활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다른 구절(고전 15:36)에서 우리를 땅에 뿌리는 씨앗으로 데려가서, 씨앗이 먼저 썩지 않으면 살아 있는 뿌리를 내리고 좋은 열매를 맺도록 싹틀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것을 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 곧 당신 아들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위해 얻어진 하늘의 생명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새깁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가장 작은 시험에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말했듯이) 우리가 겪어야 하는 모든 비참이 다 죽음의 전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죽음을 보면서 우리가 거기서 소진되리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완전히 쓰러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고난 속에서 우리를 위로할 다른 길은 이 가르침밖에 없습니다. 곧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소진되더라도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뵙기를 그치지 않을 것이고, 참으로 우리 육체로 그분을 뵐 것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이어서 "다른 이가 아니라 내 눈이 그분을 우러러볼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욥은 앞에서 한 말에 이어 이것을 덧붙입니다. 곧 이런 뜻입니다. "내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힘 있게 회복시키시리라는 이 확신을 내게 주셨으니, 나는 온전히 그분께 붙어 있을 것이다. 이제 나는 헤매거나 이리저리 마음이 흩어져서는 안 된다. 오직 그분께만 붙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다른 이가 아니라 내 눈이 그분을 우러러볼 것이다." 이것도 아름다운 가르침입니다. 그가 방금 한 말, 곧 자기 육체로 하나님을 뵐 것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때의 경험과 관련됩니다. 지금 그가 하는 말은 다른 바라봄, 곧 소망의 바라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 가지 방식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아버지와 구원자로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아주 뚜렷하게 경험하게 하실 때 우리는

그분을 바라봅니다. “내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병에서 건지셔서 그것이 부활과 같았다. 그것은 그분이 나를 도우시려고 내게 손을 얹으셨다는 증거다. 그러니 나는 그분을 바라본다.” 이것은 CO 133 실제로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병중에 있고 더는 아무 희망이 없을 때에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내가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나는 그분이 내게 주시려는 결말을 인내로 기다리고, 그분이 나를 세상에서 데려가시더라도 내가 그분의 것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또 다른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욥은 자기가 회복되었을 때 실제로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라고 말했고, 둘째로 자기가 고난에 짓눌려 더는 견딜 수 없을 때에도 그분을 바라보기를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그는 “내 눈이 그분께 머물 것이다. 나는 거기서 벗어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본성이 어떠한지 봅니다. 곧 믿음은 하나님 안에 온전히 모여서 떠돌지 않으며, 우리가 흔히 그러듯 그렇게 이리저리 흩어지지 않습니다. 묻건대, 우리가 마땅히 그래야 할 만큼 하나님 안에서 쉬지 못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직무와 그분의 모든 능력을 그렇게 많은 조각과 토막으로 나누어서 그분께는 거의 아무것도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지켜 주시는 일이 하나님께 속한다고 말은 잘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우리 삶의 방편을 찾으려고 위아래로, 앞뒤로 허둥대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그 방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분께로부터 나온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에 하나님 자신의 능력을 돌려서 그것들을 우상처럼 만듭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바른 눈으로 바라볼 수 없고, 그분 안에서 쉼도 만족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욥이 쓰는 이 말을 잘 새깁시다. 곧 그의 눈이 다른 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우러러볼 것이라는 말입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거기에 붙어 있다. 나는 사람들이 그러듯 더는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내 하나님께 나를 맡기며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내 생명을 받은 분은 주님,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지금 내가 쇠한다 해도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 그런데 욥과 우리를 늘 이렇게 견주어 봅시다. 욥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그런 증거도 없었고 우리가 가진 가르침의 백분의 일만큼도 친숙한 가르침이 없었는데도 하나님을 우러러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리저리 헤맨다면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 나타나 계시고, 그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모든 충만이 거하며, 그분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을 때 성령의 모든 능력이 그분 안에 나타났는데도 말입니다. 더구나 그분을 바라보려고 우리 시선을 멀리 뻗을 필요도 없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그분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보는 아름다운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하니 (내가 짚었듯이) 우리에게 그토록 친밀하게 나타나신 분을 바라보려 하지도 않았다는 배은망덕의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CO 134 요약하면 이것이 이 구절에서 새겨야 할 점입니다.

욥은 또 "내 콩팥이 내 속에서 쇠하였을지라도" 하고 덧붙입니다. 곧 내 안에 더는 힘도 기운도 없을지라도라는 뜻입니다. 요컨대 (그가 이미 한 말에 이어) 그는 자기가 편안히 대접받고 하나님께서 자기 소원을 다 들어주시고 자기가 고난에서 지켜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줍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런 고뇌 속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벼락을 내리치시는 것 같고 더는 아무 기운도 없을지라도, 나는 내 눈으로 내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온전히 그분께 붙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이렇게 소진시키신 뒤에도 내가 여전히 그분을 내 구속자요 보증인으로 뵐 것을 나는 안다."

이제 그는 친구들에게 결론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들은 '그가 왜 핍박을 받는가? ', 또는 '우리가 왜 그를 핍박할까?' 하고 말하였네. 그러나 일(또는 말)의 뿌리는 내 안에 있네." 이 구절은 조금 모호합니다. 이 낱말을 두 가지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왜 핍박을 받는가?" 또는

"우리가 그를 핍박할까?"입니다. "그가 왜 핍박을 받는가?"로 받아들이면,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왜 그를 그토록 혹독하게 다루셨는지 놀라서 그가 완전히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결론짓는다는 뜻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를 핍박할까?"로 옮기면, 그들이 일부러 악의를 품고 와서 그에게서 흠을 잡고 그를 물어뜯으려 했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낱말에는 차이가 있어도 뜻은 하나로 모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거두어야 할 가르침을 봅시다. 그것이 핵심이고, 참으로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욥은 친구들이 자기 고난을 잘못 판단했다고 나무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첫마디부터 그에게 달려들어 "이 사람은 악인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가 선하고 깨끗한 양심으로 행했다면 이렇게 고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욥은 말의 뿌리가 자기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 낱말은 때로는 '일' 을, 때로는 '말' 을 뜻합니다. 그러나 욥은 여기서 자기에게 좋고 단단한 근거가 있으며, 사람들이 자기를 잘 살펴보면 자기 사정이 남들이 거짓으로 여긴 것과 같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리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이제 이것이 무엇을 겨냥하며 우리가 거기서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는지 봅시다. 욥이 친구들에게 그들이 "그가 왜 핍박을 받는가?"라고 말했다고 내세울 때, 그는 누가 하나님의 매를 맞는 것을 보자마자 남의 죄를 캐는 것이 사람들의 잔인함이라는 것을 보여 줍니다. "이 사람은 악인임에 틀림없다. 그러니 그의 삶을 샅샅이 뒤져 보자.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식입니다. 물론 (앞에서 더 자세히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CO 135 보내시는 모든 매와 징계에서 우리는 언제나 사람들의 죄에 대한 그분의 심판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자신을 정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자신은 봐주면서 남을 판단하는 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작합시다. 우리 자신에게서 시작합시다. 이제 우리는 이 가르침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봅니다. 곧 어떤 사람이 고난에 짓눌릴 때 우리가 그를 정죄하는

데 그렇게 성급하지 말고, 그에게서 죄를 찾아내려고 그쪽으로 기울지도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와 그 사람 모두의 재판관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고난받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와 함께 아파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의 잘못을 알더라도 함부로 덤벼들지 말고, 오히려 그가 거기서 나을 수 있도록 어떤 약을 가져다줄지 궁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그러듯 쟁기를 소 앞에 매지 않도록, 곧 사정을 알기도 전에 판결을 내리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같은 목적으로 사람들을 괴롭히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여러 번 말했습니다. 그분은 때로 그들의 죄를 벌하시고, 때로 그들의 인내를 시험하려 하시며, 또는 다른 뜻을 두십니다. 그러니 잘 알기도 전에 판단하는 데 너무 성급하거나 무모하지 맙시다. 욥의 친구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보기 때문입니다. 첫마디부터 "그가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 악인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편에서 말하듯 고난받는 사람을 지혜롭게 판단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시 41:1 참조). 다윗도 일찍이 어떤 사람 못지않게 하나님의 손에 혹독하게 짓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내가 내 마음에 맞는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기쁨의 기름을 부었다"고 말씀하십니다(시 89:20 참조). 하나님께서 다윗을 품에 안으시듯 하시는데, 그 사이에 그가 어떻게 대접받는지 우리는 봅니다. 우리가 그것을 무모하게 판단한다면 우리는 다윗도 아브라함도 모든 거룩한 족장들도 정죄할 것입니다. 그런 판단은 하나님의 영예를 더럽히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웃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볼 때 절제하고 겸손하며 하나님의 손을 깨달읍시다. 그래야 욥의 친구들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특별히 일의 뿌리, 또는 말의 뿌리, 또는 사실과 실체가 자기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로 그는 판단하기 전에 알아보아야 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실제로 우리가 함부로 나선다면 그것이 어리석은 주제

넘음이요 오만이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할 것입니다. “어리석은 재판관은 판결이 빠르다“는 속담도 아주 흔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일이 어떠한지 잘 살피고 따져 보지도 않고 이렇게 함부로 덤비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판단을 내리기 전에 뿌리까지 가야 한다는 것을 잘 새깁시다. CO 136 그리고 무식해 보일까 두려워서 성급하게 판단하지 맙시다. 사람들을 지나치게 서두르게 하는 것이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곧 그들은 첫마디에 날카롭게 판단하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내가 한마디 거들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 것이다” 하는 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심을 비웃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왜 한 사람을 다른 사람보다 더 벌하시는지 우리에게 밝혀 주실 때까지 절제와 겸손 안에 머뭅시다. 그것을 앞질러 가지 맙시다. 물론 우리가 알아보았을 때, 뿌리까지 갔을 때에는 그때 거리낌 없이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판단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말씀에 근거하고 그분의 성령께 다스림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먼저 여기서 말하는 그 뿌리까지 가야 합니다.

이어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칼 앞에서 두려워하게. 불의의 진노, 또는 칼의 환난이 가까이 있으니, 이로써 심판이 있음을 자네들이 알게 될 것이네.” 이 말은 꽤 모호합니다. 말이 끊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약하면 욥이 하려던 말은 이것입니다. 그는 “칼 앞에서 두려워하라“고 말합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네들은 그늘에 앉은 사람처럼 말하고, 할 일 없고 한가한 사람들처럼 제멋대로 이야기하고 있네.” 그런 사람들은 논쟁을 잘할 것입니다. 싸움터에서 멀리 떨어진 사람들만큼 전쟁을 잘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전투를 벌이고, 성을 포위하고, 죽이고, 약탈하고, 쑥대밭을 만듭니다. 놀라운 솜씨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실컷 떠들고 장터에서 술을 마신 뒤에 북소리 하나만 들려도 그들은 혼비백산합니다. 그러므로 욥은 친구들이 한가하게 자기 사정을

논했다고 나무라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이미 칼이 자기들 위에 나타난 것처럼 칼을 무서워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어서 그는 "불의의 진노"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그가 이미 앞에서 그들에게 나무란 그 잔인함을 가리킵니다. "진노", 곧 "자네들이 여기서 나를 향해 달아올랐네. 그것도 나를 괴롭히려고 말이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낱말은 '불의'를 뜻할 수도 있고 '고난'을 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욥은 친구들이 자기 고통을 불쌍히 여겨서 자기에게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달아올라서, 그것도 자기를 괴롭히고 더 들볶으려고 왔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을 불러옵니까? 그는 "칼"이라고 말합니다. 곧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광포를 벌하지 않고 두지 않으실 것이네. 내가 자네들에게 잘못했다 하더라도 자네들은 내게 더 너그러워야 했네. 그런데 까닭 없이 나를 정죄하면서 자네들은 내게 혹독함밖에 보여 주지 않네. 그러니 하나님의 칼이 자네들 위에 펼쳐질 수밖에 없네. 그것도 심판이 있다는 것을 자네들이 깨닫게 하려고 말이네." 이것은 새겨 둘 만하고 아주 유익한 말씀입니다. 욥은 이렇게 CO 137 친구들을 꾸짖으면서, 모두에게 공통으로, 그리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우리가 선을 악하게 판단할 만큼 악의가 있거나, 이미 충분히 비참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들볶을 만큼 인정이 없다면, 하나님의 칼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일깨웁니다. "악을 선이라 하고 선을 악이라 하는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악덕이 언제나 지배했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지배한다는 것을 봅니다. 자기 격정에 이끌리는 사람들이 드러내 놓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데 무슨 거리낌을 느끼겠습니까? 그들은 잘 알 것입니다. "이것은 그 자체로 좋은 일이다. 그래도 나는 거기에 맞서겠다. 여기 하나님을 섬기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다. 나는 그를 막겠다. 여기 교회에 덕이 될 수 있고, 사람들의 공동체와 공익에 쓸모 있을 수 있는 일이

있다. 그래도 나는 모든 것을 무너뜨리겠다." 심지어 재판석에 앉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거스르고 모든 공평과 정의를 뒤엎으려고 살덩이를 입은 마귀처럼 거기 앉아 있고 부패와 방종으로 가득한 사람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볼 때, 우리가 온갖 불의의 꼭대기에 이르렀다는 것 말고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하나님을 거스르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선을 뒤엎고 악을 지키는 데 몰두할 때, 마귀가 그들을 사로잡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악을 선이라 하고 선을 악이라 하는 모든 사람을 향해 선지자의 입으로 이 무서운 저주가 선포되었는데도 말입니다(사 5:20). 욥이 여기서 "칼을 두려워하라"고 말하면서 뜻한 것이 이것입니다. 그는 누구에게 말합니까? 하나님과 모든 정의를 거슬러 우쭐해진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빛을 어둠으로 바꾸려 하고 좋은 일을 짓누르려 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말고 누구와 싸우는 것입니까? 우리가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련한 사람 하나를 괴롭히고 그에게 새로운 괴로움을 더하기만 해도 우리에게는 두려워할 까닭이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그런 폭력과 착취를 참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가련한 사람들에게 모욕과 해를 끼치려 하면 그분이 앞을 막아서시고 당신이 그들의 보호자이심을 보여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련한 사람들과 이미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을 성가시게 하고 들볶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 이미 지나치게 고난받는 사람들을 더 괴롭히려는 모든 사람을 향해 하나님의 칼이 뽑혀 있다는 이 말씀이 우리 기억에 떠오른다면 우리가 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욕과 폭력과 착취와 그와 같은 일에 몰두하는 모든 사람에게 도전장을 내미시고 불과 피로 그들을 불러내십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당하고 CO 138 아무 의지할 데 없는 가련한 사람이 문제가 될 때, 우리는 그를 짓밟거나 그에게 어떤 괴로움과 모욕을 주기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하고 죄 없는 사람들을 괴롭힌 모든 사람을 향해 당신의 칼이 뽑혀 있다고 선언하시기 때문입니다.

욥이 결론으로 "불의의 진노가 칼을 불러올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지금 선한 사람들을 들볶는 데 날뛸 때 자기들이 벌을 받지 않을 것 같고, 하나님도 그분의 심판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칼이 그들을 위해 마련되어 있다." 그러니 평화롭게 지내기만 바라고 우리에게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가련한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혀 놓고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없다고 장담할 만큼 주제넘지 맙시다. 우리가 그들을 찌르고 그들에게 쓰라림을 준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만 배나 더 쓰라리실 것이고, 우리가 우리 재판관이신 그분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잘 헤아린다면 세상일이 지금과는 아주 다르게 돌아갈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군주들이 자기 야심 때문에 나라들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집들을 불태우고, 도시들을 무너뜨리고, 도둑질하고, 빼앗고, 약탈하고, 모든 것을 망가뜨려서 끔찍할 지경인 것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쟁이라는 명목 아래 그 모든 것이 그들에게 허용됩니다. 그러나 먼저 그들이 그런 소요를 일으키고 온 세상에 그렇게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지 살펴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거기로 불타오르게 하는 것은 그들의 야심뿐이고, 그들을 움직이는 그 광포에서 그토록 많은 악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데, 그들은 칼이 자기들을 위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또 그들의 탐욕을 시중들고 그것을 부추기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자기들 위에 칼을 뽑지 않으시리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들만 보지 맙시다. 왕도 군주도 아니고 나라들을 뒤엎거나 힘으로 밀고 들어갈 권력도 없는데, 그들 못지않게 또는 그들보다 더 악의를 품은 사람들을 우리는 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작은 전갈처럼 달리 해칠 수 없을 때 꼬리로 독을 쏠 것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찌르고 들볶는 것밖에 바라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여

기서 말하는 것, 곧 그런 모든 사람을 향해 칼이 뽑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경험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욥은 특별히 "자네들이 알게 하려고 "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하늘에 세상의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모를 만큼 둔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말에서 보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앞으로도 보겠지만, 그들은 배우고 잘 훈련된 사람들이었습니다. CO 139 그러면 욥은 왜 그들에게 "자네들이 알게 하려고 "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악한 감정에 눈이 멀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자기들이 그 사이에 휘장 하나만 쳐 두면 하나님께서 더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시고 그들이 받아 마땅한 대로 그들을 벌하지 않으실 것처럼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칼을 바라봅시다. 곧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를 괴롭히려 하신다는 표시, 당신이 세상의 재판관이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표시를 보여 주지 않으시더라도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그분이 부드러움으로 우리를 이끄시려 하고, 우리가 이웃에게 혹독하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 지나친 엄격함을 쓰지 않으시려 한다는 것을 알아 둡시다. 그 밖에 모든 악을 삼가는 것으로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읍시다. 우리는 고난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을 돕도록 힘써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는 모든 잘못과 해를 삼갔다고 장담할 수 있더라도,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면책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자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구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악을 삼간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 무죄 선고를 받지 못하고 죄 있는 자로 여겨진다면, 묻건대, 밤낮으로 악만 꾸미며 "이제 이 사람을, 그다음엔 저 사람을 어떻게 찌르고 괴롭힐까?" 하고 궁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일부러 이웃을 해치려고 이렇게 자기를 벼리는 악한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칼도 그와 함께 그들을 향해 벼려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자신을 생각합시다. 우리가 고난받는 것을 보는 사람들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온

세상에 그토록 많은 비참과 재앙이 있으니 멀리 있는 사람들도 불쌍히 여기고 그들과 함께 아파하며, 우리 시선이 거기까지 뻗치게 합시다(사랑은 온 인류를 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뇌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당신의 매로 그들을 징계하신 뒤에 그들을 당신께로 돌이키시며, 그 모든 것이 그들의 구원으로 바뀌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그리하여 지금 우리가 탄식할 까닭이 있는 대신, 그때에는 우리가 모두 함께 기뻐하며 한마음으로 그분의 이름을 찬송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이제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엎드립시다.

제73편

욥기 20장 설교 1

CO 34:140–152

AI로 옮긴 초벌 번역입니다. 신학 감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CO 권: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내 생각이 나를 재촉하여 대답하게 하니, 내 속에 조급함이 있네. 나를 부끄럽게 하는 꾸지람을 내가 들었으니, 내 깨달음의 영이 나를 재촉하여 대답하게 하네. 하나님께서 사람을 땅 위에 두신 때부터, 옛적부터 자네는 이것을 알지 못하였는가? 악인의 높아짐은 잠깐이요, 위선자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하네. 그들이 하늘까지 높아지고 머리를 구름까지 쳐들지라도, 그들은 자기 접붙인 가지처럼 망할 것이니, 그들을 본 자들이 “그들이 어디 있느냐?” 하고 말할 것이네. (욥 20:1–7)

CO 140 이 가르침에서 잘 유익을 얻으려면 앞에서 밝힌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벌하지 않고 두지 않으시리라고 말하며 욥과 다툰 사람들은 (그 자체로는) 참된 명제를 붙들었지만, 그것을 욥에게 잘못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깨달은 것을 바르게 적용할 줄 알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기를 늘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유익할 것을 악으로 비틀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이리저리 함부로 남용하는 사람이 많은 것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이 점을 새겨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좋고 아주 유익한 가르침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소발이 여기서 하는 말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악인들이 잠깐 형통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들은 망할 것이고, 그 결말은 비참할 수밖에 없으며, 사람들이 언제나 그렇게 보고 겪어 왔고,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께서 지금까지 하신 대로 당신의 심판을 행하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이르기 전에 그는 머리말을 둡니다. 곧 자기 깨달음의 영 때문이기도 하고, 욥에게 이렇게 꾸지람을 들은 것이 부끄럽기 때문이기도 해서, 자기가 대답하지 않을 수 없고 그렇게 하도록 재촉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가 CO 141 말하듯) 자기 말은 참이고 욥은 그 반대를 주장했다는 것을 알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러했다면 소발에게 정당한 까닭이 있었을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실 때 그것은 우리에게만 쓸모 있으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 이웃도 거기에 참여하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깨달음을 주신다면, 그는 그것을 혼자만 간직해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힘써서, 우리 이웃이 우리처럼 덕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한마음으로 영광을 받으시게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저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자기만을 위해 받은 것이 아니며,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공동의 유익에 써야 한다고 보여 줍니다(고전 12:7).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이 실천되기를 원하시는 방식도 이것입니다. 저마다 자기 자신으로 만족하고 이웃을 업신여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라는 몸이 더는 있겠습니까? 지체들이 서로 이어져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머리와 이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소발이 자기 깨달음의 영이 자기를 재촉하여 대답하게 한다고 말할 때 이것을 잘 새깁시다. 곧 하나님께서 그를 다스리셨고 그의 말이 제대로 놓였다면,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옳았을 것입니다. (내가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드러내 주셨을 때 그것이 우리 때문에 없어져서는 안 되고,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빛 가운데 드러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었으면 말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시 116:10). 이처럼 믿음은 죽은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드러나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시편의 이 구절을 잘 살려 씁니다(고후 4:13).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온 세상에 쓸모 있어야 할 깨달음을 주셨으니 잠잠히 있는 것이 자기에게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에게 맡겨진 이 보화를 펼쳐 보입니다. 그것이 한 사람만의 사사로운 것이 아니라 온 교회의 유익과 가르침을 위한 것임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저마다 이 가르침을 자기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저마다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충분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있다는 듯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다윗의 증언을 보았습니다. 곧 믿는 사람은 그와 함께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널리 알려지기를 원하신 것을 자기 악의로 묻어 버린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는 셈입니다. 등불을 켜는 것은 그릇 아래 두거나 숨기려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두어 두루 비추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입니다(마 5:15 참조). 그 밖에 어떤 사람이 무슨 은혜를 받으면, 흔히 그것이 CO 142 자기를 높이 평가받게 하고 남보다 더 대단하게 보이게 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더럽힙니다. 곧 우리가 그것을 어떤 야심에 쓰이게 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은혜를 나누어 주시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열매 맺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마다 하나님께 맡은 것을 살리고 나누는 데 마음을 쓰고, 그만큼 많이 받지 못한 사람들도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구원으로 이끌려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게 합시다. 이것이 첫째 항목입니다.

그런데 다른 항목은 우리를 더욱 다그쳐야 합니다. 소발이 자기를 부끄럽게 하는 꾸지람을 들었다고 말하는 대목입니다. 그는 이것을 자기 한 사람에게만 관련짓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우리가 말한 대로, 소발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발에 짓밟히는 것을 보고 화를 내는 것입니다.

욥에게는 그런 의도가 없었고 (우리가 밝혔듯이) 소발은 그에게 큰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러나 그래도 이 가르침 자체는 언제나 좋고 참되며,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령께서도 자기 상상에 눈이 먼 사람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기를 원하셨지만, 그 사람에게도 좋은 원리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쓸모 있을 수 있습니다. 누가 선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공격을 받으며, 사람이 트집과 잘못 적용한 것들로 그 진리에 맞서는 것을 볼 때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일이 우리에게 닥치면 우리는 힘닿는 데까지 거기에 맞서야 합니다. 그러니 내가 말한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에 맞서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정식 당사자처럼 거기에 맞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대리인과 증인으로 세우실 만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그분은 우리가 당신의 일을 지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큰 영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헛됨으로 가득하고 우리 안에 거짓밖에 없다는 것을 보시는데도 우리를 불러 당신의 대리인이 되게 하십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셔야 합니까? 그럴 의무가 있으십니까? 그런데도 그분은 우리를 거기까지 높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각 사람이 힘닿는 데까지 애쓰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악하고 고약해서 하나님을 거슬러 일어나고 진리를 비틀고 썩게 하기만 바라는 것을 볼 때, 우리가 그때 비겁해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듯 교황에게는 온갖 좋은 가르침을 헐뜯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놓는 모든 것을 왜곡하기만 바라는 유혹자들이 많습니다. 더구나 그렇게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곳곳에서 악한 영들, 사탄의 앞잡이들을 봅니다. 그들은 일을 꾸며 CO 143 모든 것을 뒤엎기만 바랍니다. 마귀가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데 좋았던 것을 무너뜨리려고 꾀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거슬러 그렇게 독을 품은 것을 볼 때 우리가 잠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꾸준히 거기에 맞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비겁한 자들일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가 그렇게 없어지도록 두고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배신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교황주의자들과 그들의 미신을 거슬러 말하지 않고 잠잠히 있는 것이 더 낫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겠지요. 그러나 그 사이에 마귀가 우리 침묵을 악용해서 늘 자기 거짓과 폭정을 내세우리라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가련한 영혼들이 멸망하는데 그 사이에 우리가 모른 척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자가 자기 의무를 다한다면, 이리와 도둑이 양 떼 안으로 들어와서 약탈하고 먹고 삼키는데도 한마디도 하지 않고 두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 교회의 목자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양 떼를 이끌고 순하고 온유한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려고 부드럽고 다정한 목소리를 가져야 하듯이, 반대로 도둑과 이리를 볼 때에는 그들에게 맞서며 크고 분명하게 외쳐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진리가 뒤엎어지는 것을 보는 사람들은 모른 척해서는 안 되고, 할 수 있는 한 거기에 맞설 열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 밖에 우리가 악인들의 속임수와 교묘한 술책에 맞서 좋은 일을 지키려고 그런 힘과 꾸준함을 가져야 한다면, 실제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악한 자들의 악한 삶과 그들의 뻔뻔함과 그들이 벌이는 모든 일 때문에 온갖 좋은 가르침이 멸시와 수치를 당하는 것을 볼 때, 묻건대, 그때도 우리가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필요가 지금처럼 우리를 다그치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한 뒤에 거리로 나가서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벌어지는 일을 바라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슬러 공모한 것 같습니다. 불과 물도 우리가 사는 일상의 삶과 설교되는 가르침만큼 서로 반대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말씀 듣는 것을 거의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것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모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그분의 말씀이 받아들여질 것이다" 하고 어떤 의식을 치른다 해도, 그것은 어린아이들의 장난과 같을

뿐이고, 일상의 삶에서는 사람들이 대놓고 하나님을 조롱하며 그분의 말씀을 멸시할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일들을 있는 그대로 CO 144 낱낱이 풀어 놓을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형편인지 다들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그토록 순종을 받지 못하시고 사람들이 그분께 그토록 적은 경외를 드리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탄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둔한 정도를 넘어선 사람들일 것입니다. 더구나 일이 소발이 말하는 그 수치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음행과 방탕과 모독과 약탈과 그와 같은 일들이 판을 치고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욕을 당하실 뿐 아니라, 어떤 벌을 내릴 때에도 하나님과 정의를 조롱하려는 것 같습니다. 나는 어제 내 눈으로 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매춘부 하나가 감옥에 갇히면 그녀를 대접하려고 과자를 들고 가야 합니다. 겉으로는 그녀를 가두어 두는 척하면서 큰 과자를 들고 보란 듯이 행렬을 벌입니다. 묻건대, 이것이 무엇입니까? 누가 내게 그 말을 해 주기만 했어도, 그 일이 소문으로만 돌았어도 나는 잠잠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내 눈으로 보았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로 데려가셨고, 다른 쪽에서는 마귀가 개선 행진을 벌이려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그분의 양 떼를 맡은 사람들이 그토록 엄청난 일들을 보고, 절제도 품위도 전혀 없고 더는 고삐도 없는 것을 볼 때 그렇게 거칠게 말하더라도 놀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토록 어지럽게 넘쳐흐르는 것을 생각하면, 그런데도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말의 백분의 일도 하지 않으니,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발이 자기가 받은 수치 때문에 달아올라서 잠잠할 수 없었고 대답하도록 재촉을 받는다고 말하는 이 구절을 잘 새깁시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악이 그렇게 활개 치도록 두고 거기에 맞서지 않거나,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를 지키려는 그분을 향한 열심을 조금도 보이지 않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기서 다루는 일반적인 주제로 갑시다. 소발은 이렇게 말합니다.

“옛적부터, 참으로 사람이 땅 위에 놓인 때부터 자네는 악인의 높아짐은 잠깐이요, 위선자 또는 범법자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는가?” 그는 여기서 좋고 참된 원리를 붙듭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들의 삶을 행복하다고 여긴다면 그것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행복은 꿈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조금 뒤에 이 비유를 덧붙일 것입니다. 물론 대부분은 악인들이 불행하다고 말은 잘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따라 삶을 다스리지 않는데도 편안하거나 영예를 누리는 것을 보면, 우리는 그래도 거기에 홀려서 그의 처지가 부러워할 만하다고 여기고, 저마다 그를 CO 145 시기할 것입니다. 그렇겠지요. 그러나 그 사이에 우리는 그렇게 높아지는 사람들이 시편에서 말하는 달팽이와 같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시 58:8).[16] 이것은 잘 새겨 둘 비유입니다. 다윗은 이 세상에서 높아졌지만 하나님 안에서 서 있을 살아 있는 뿌리가 없는 사람들이 달팽이와 같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룻밤 사이에 나타나지만 금세 녹아 없어집니다. 결국 민달팽이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않고 핵심, 곧 결말을 기다리는 것을 버려둡니다. 우리에게는 “그렇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사람들을 높이신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더 크고 더 무겁게 떨어져 목이 부러지게 하시려는 것이다“라고 말할 인내가 없습니다. 우리는 운수의 바퀴에 대해서는 잘 따질 줄 알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와 관련지어 그분의 일을 바라보고 모든 것에 대해 그분께 찬양을 돌리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니 더욱 이 말씀을 잘 새겨야 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땅 위에 두신 때부터 위선자들의 높아짐은 잠깐이고 그들의 기쁨은 언제까지나 가지 못한다는 것이 끊임없이 겪어 온 일로 늘 지켜봐 왔다는 것입니다.

소발이 이것이 오랜 경험으로 알려져야 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신

16. 원문에는 “시편 58편 9절“로 되어 있으나, 이는 표제를 1절로 세는 프랑스어 성경의 절수입니다. 한국어 성경 절수로 바꾸었습니다.

때부터 그러했다고 말할 때, 이 말에는 무게가 많이 실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보여 주는 본보기를 두세 개만 보아도 우리는 충분히 감동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서너 사람에게서 당신이 악인들을 벌하지 않고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시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분은 날마다 그것을 밝히시고,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도 그것을 밝히셨습니다. 세상 창조 때부터 대대로 따라가 보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행복 위에 언제나 재판관으로 나타나셔서 모든 것을 그들의 수치와 파멸로 돌아가게 하셨다는 본보기를, 그것도 그렇게 크고 그렇게 오랜 본보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 일에 대해 우리가 아직도 의심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말이 참으로 많은 뜻을 담고 있다는 것을 잘 새깁시다. 곧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람들이 땅에 산 때부터 당신의 심판을 보여 주는 증거가 늘 얼마쯤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일을 깨닫지 못할 만큼 둔하고 멍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이것을 거두어야 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 생애 동안 하시는 일을 잘 보고 새기려고 눈을 뜨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옛 역사에서도 유익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 몇몇 두드러진 심판이 글로 남아서 그 기억이 영원히 남기를 원하신 까닭이 이것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CO 146 성경에 담긴 것에서 유익을 얻어야 할 뿐 아니라, 이방인들이 쓴 역사책이 전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그분이 잔인함과 약탈과 그 밖의 착취에 빠진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보복하셨는지 우리는 보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음행과 그 밖의 더러운 것들이 너무 판을 칠 때 그분이 그것들을 어떻게 벌하셨는지, 또 그다음에 그분이 거짓 맹세와 잔인함을 어떻게 벌하셨고 사람들의 교만을 참지 못하셨는지 우리는 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 그것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쓸모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 주는 이 교훈을 잘 간직합시다. 곧 하나님께서 세상 창조 때부터 당신이 세상의 재판관이심을 보여 주시려고 늘 어떤 경고를 우리에게 주기를 그치지 않으셨으니, 우리는 그분을 두려워하고 조심스럽게 행하기를 배워야 하며, 그분이 악인들에게 내리신 벌이 우리에게 그만큼의 거울과 그만큼의 고삐가 되어 우리를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가 하는 말, 곧 악인의 높아짐은 잠깐이라는 말로 돌아갑시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늘까지 높아지고 머리를 구름까지 쳐든다 해도 그들은 서 있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곧 그들을 뒤엎으실 것입니다. 여기서 소발은 앞에서 본 이야기를 이어 갑니다. 곧 하나님께서 때로는 악인들이 높아지고 번성하도록 허락하시지만 그것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발이 이것을 잘 헤아렸더라면 욥과 더는 다툴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일반적인 명제를 붙들고 그것을 바르게 적용하지 않으므로 엇나갑니다. 그래도 (내가 말했듯이) 이 가르침은 성령께로부터 온 것으로 받아들일 만합니다. 남은 일은 우리가 그것을 마땅히 적용하도록 좋은 분별력으로 바라보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를 이어 갑시다. 악인들이 형통할 때 그것은 아주 괴로운 시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곧바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곧 악인들을 참지 못하시고 그들을 미워하시며 가증히 여기시니 그들을 멸하신다는 것을 보여 주시기를 바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그분이 너무 서두르신다고 말하지 않을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하나나 둘이나 셋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잡으시면, 우리는 너무 이르다고 말하며 조바심을 냅니다. 그러나 누가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잘못을 저지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 분 만에 벼락을 내리치시기를 바랄 것입니다. 우리 위선이 우리를 이끄는 곳이 여기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악인들이 CO 147 이 세상에서 얼마 동안 개선의 노래를 부르고, 활개 치고, 편안함과 쾌락 속에 있는 것을 볼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합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비참과 고난 속에 있을 때에도 그것 때문에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방법으로 우리 믿음을 시험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밝히시는 대로 일들이 마침내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본다면, 우리에게 그분을 향한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본 뒤에야 믿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만큼 빨리 보이지 않는데도 그 사이에 우리가 그분의 말씀 안에 굳게 머물고 그분의 입에서 나온 것에 기대어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그분을 믿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인들과 불의한 자들의 목에 고삐를 풀어 두실 때, 그것은 우리가 그분을 순전하게 섬겼는지, 그분을 거슬러 일어나지 않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실 일을 인내로 기다렸는지 시험하시려는 것이라는 점을 잘 새깁시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낙원이 이 세상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쾌락 속에 있고 싶어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응석받이 아이처럼 대해 주시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으로 우리를 당신께로 끌어당기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결코 세상에서 움직이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더할 나위 없이 휘감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 가지 고난으로 하늘나라로 끌려가야 하고, 하나님께서 당신께로 오라고 우리를 재촉하시며, 그 사이에 악인들이 끝까지 흥겨워했더라도 그분이 그들을 멸하시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주셔야 합니다. 그것을 보면 우리가 그들을 시기할 까닭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밝혔듯이) 이 시험이 우리 눈앞에 놓일 때 그것을 이기기를 배웁시다. 악인들이 높아지고 심지어 머리를 구름까지 쳐드는 일이 생기더라도, 하나님께서 잠드신 것처

럼, 그분이 더는 세상을 돌아보지 않으시고 더는 세상을 돌보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것 때문에 동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압시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단번에, 그것도 치명적으로 떨어뜨려 무너뜨리시려고 그들을 높이신다는 것을 깨달읍시다. 그들이 제 발로 서 있다가 넘어지기만 한다면 뼈 몇 개 부러지는 것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높이 오르도록 허락하실 때, 그분은 극도의 수치를 당하게 하시려고 그들을 거기에 두십니다.

소발이 악인의 높아짐이 잠깐이라고 말하는 의도가 이것입니다. 이어서 그는 그들의 기쁨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이 말로 그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들과 세상에 매인 모든 사람이 눈앞의 좋은 것들로 흥겨워하며 거기에 완전히 취해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도 형통할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CO 148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고 살리실 것을 보내 주시고, 우리를 대하셔서 아무것도 모자라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건강과 평화와 그와 같은 것들을 주실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또 기뻐해야 합니다. 율법에서 "너는 네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며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대로입니다(신 12:7). 그러나 신자들은 자기 기쁨을 눈앞의 좋은 것들에 묶어 두고 거기에 완전히 매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더구나 먹고 마실 것이 모자라고 병으로 고난을 당할 때에도 그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를 그쳐서는 안 되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배워야 합니다(빌 4:12). 곧 가난하고 부요한 것, 배고프고 궁핍한 것, 풍족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쁨이고, 믿지 않는 자들과 이 세상 자녀들의 기쁨과는 아주 다릅니다. 이 세상 자녀들은 손에 쥔 것으로 기뻐할 뿐 더 멀리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게도 하늘의 생명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짐승처럼 둔해져서, 편안하면 극도의 방탕으로 넘쳐흐를 뿐입니다. 반대로 신자들은 형통할 때 언제나 더 멀리 이끌립니다. 곧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버지보다 더한 분으로 자기들에

게 느껴지게 하셨을 때 그분의 선하심을 깨달을 것이고, 그분이 자기들을 버리신 것처럼 보였을 때가 바로 그분이 자기들을 도우시려고 가장 가까이 계셨을 때라는 것도 알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발은 이 구절에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들과 악에 빠진 자들이 높아지고 (흔히 말하듯) 운수가 그들에게 웃음 짓고 그들이 형통하며 편안할 때, 그 사이에 그들은 너무 멍해져서 그들의 기쁨이 술주정과 같고, 아무 질서도 절도도 없이 흥겨워한다는 것을 보여 주려 했습니다. 소발이 나타내려 한 것이 이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잘 새깁시다. "웃는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가 울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기쁨이 이를 가는 것으로 바뀔 것이다"(눅 6:25 참조). (내가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할 까닭을 주실 때 기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뻐합니까? 사도 야고보가 말하는 대로 합시다(약 5:13). "즐거워하는 사람은 찬송하라." 곧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부르며 늘 그분을 향하고, 그분을 향한 경외와 사랑과 신뢰 안에서 점점 더 굳세어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쁨은 이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그 기쁨 가운데서도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거스르기를 그치지 않는 것과 우리 안에 있는 악덕들을 보며 슬퍼해야 합니다(사도 바울이 고후 6:10에서 그 본을 보여 주듯이).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는 CO 149 충만하고 완전한 기쁨을 향해 늘 나아가야 합니다. 악인들의 기쁨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말에 관해서는 이렇습니다.

그 밖에 소발이 "잠깐"과 "짧은 동안"이라는 이 말에서 속았다는 것을 새깁시다. 성경이 악인들은 녹아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한순간에 멸하실 것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이미 풀이했듯이) 그분이 똑같은 척도를 지키신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마지막 날을 위해 무엇이 남겨지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붙잡혀서 우리 부활과 완성된 구속을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를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많은 것을, 아니 대부분을 당신의 마지막 심판을 위해 남겨 두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도 악인들을 멸하시고 그들이 짧게만 지속된다는 것을 보여 주시는 것은 언제나 그분의 직무입니다. 실제로 우리 삶이 어떠한지 바라보면, 이 세상에서 오래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거의 지나갈 뿐이고 한순간에 흘러가 버린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첫날부터 당신을 거스른 자들을 멸하시려고 손을 드시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 어리석어서 그분이 결코 제때에 오시지 않을 것처럼 여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이 삶이 오래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것이 그림자일 뿐이라고 고백합니다. 누구나 싫든 좋든 그것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악인들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말을 들을 때,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첫날부터 그들을 쓸어버리신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을 배웁시다. 그들이 쉰 살이나 예순 살까지 살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끌려 자기 파멸과 수치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우리는 인내해야 하고, 소발에게 있던 그 조급함의 들끓음 없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잠잠히 기다려야 합니다. (말하건대) 이 가르침에서 유익을 얻으려면 이렇게 적용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 항목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성경에 담긴 약속들을 읽을 때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많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며, 그들의 모든 계획이 좋은 결말에 이르게 하시고, 그들이 형통하며, 그들 자신과 그들의 자손과 가축과 집과 밭과 재산에 그분의 복을 받고,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보존되리라는 약속들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엾을 만큼 큰 가난과 비참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때로 입에 넣을 빵 한 조각도 없고, 병과 온갖 재앙에 시달립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위협하셨던 악인들은 형통합니다. 우리는 CO 150 거기서 놀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것이 시간 낭비였으며 그분의 위협과 약속이 헛된 것이라는 생

각이 듭니다. 무엇이 그런 혼란을 일으킵니까? 우리에게 고삐를 당겨 스스로를 붙잡고 "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 내가 보게 될 것이다" 하고 말할 인내가 없기 때문입니다. 건너뛰기만 하면 됩니다. 도랑을 건너야 할 때 거기서 뛰어서 건너뛰어 넘어가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의 일들을 뛰어넘어서 그렇게 높이 올라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심판이 우리 가까이 있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 나는 넘어갈 수가 없다. 이것이 나를 가로막는다 "고 말할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무슨 장애물이 있습니까? 그들 앞에 놓인 지푸라기 하나일 뿐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장애물 전부입니다. 우리가 큰일이라고 여기는 모든 것을 넘어서는 데에는 발을 들거나 그것을 밟고 지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큰 비겁함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담긴 것은 헛되이, 까닭 없이 말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 밖에 소발이 하는 말도 잘 새겨야 합니다. 곧 악인들이 머리를 하늘까지 쳐들고 구름까지 솟아올랐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실 방법을, 참으로 그들을 지옥까지 빠뜨리실 방법을 잘 찾아내시리라는 것입니다. 높아지기만 바라는 악인들의 결말이 이러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영예와 존귀로 높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사이에도 겸손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영께 다스림을 받는다면, 그가 큰 군주이고 온 세상에게 존경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올리시려고 손을 내미셨더라도, 그는 늘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고 자기 연약함을 깨달으며 두려움과 조심 속에 행하면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 내 하나님께서 내 고삐를 잡아 주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분이 내게 당신의 은혜를 나누어 주시더라도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내가 그것으로 자랑할 까닭이 있겠는가? 없다. 오히려 그분은 나를 당신께 가까이 이끄실수록 나를 그만큼 더 당신께 매이게 하신다. 내가 사

람들 가운데서 존경을 받는다면 나는 길을 잃고 무너졌을 사람들에게 쓸모 있는 거울과 같아야 한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두신 것은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내가 섬기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은혜를 받았을 때 그것을 자기에게 종속시켜 사사로이 쓰려 하지 않고, 이웃에게, 참으로 가장 작은 사람들에게까지 자기를 맞추려 할 것입니다. CO 151 사도 바울이 말하는 대로입니다(롬 12:16).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대로 끝까지 자기를 낮출 것입니다. 반대로 악인들은 높아질 기회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머리를 구름까지 쳐들고 하늘까지 솟아오를 뿐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그들은 자기를 잊고, 더는 자기가 죽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자기가 우상과 같다고 상상할 것입니다. 우리는 교만에 취해 자기를 알지 못하는 이 가련한 눈먼 자들에게서 그것을 봅니다. 누가 그들에게 사람에게 하듯 말하면, 그들은 이미 자기를 잊어버렸습니다. 소발이 악인들이 머리를 하늘까지 쳐들고 구름까지 솟아오를 것이라고 할 때 뜻한 것이 이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머리를 하늘 위로, 구름 위로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방식입니다. 곧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이고 우리 안에서 썩음밖에 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좋은 것들을 소망으로 소유하기를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과 함께 우리는 하늘의 시민이며 기업이 거기 우리를 위해 마련되어 있고(빌 3:20; 엡 2:19), 우리가 이미 하늘에 앉아 있다고, 참으로 우리를 당신께 이어 하나로 묶으셔서 결코 떨어지지 않게 하신 우리 머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다고 선언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자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은 머리를 하늘까지 들 뿐 아니라 하늘 위로 들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자기를 낮추지 말아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선지자 아모스가 말하듯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몸을 굽힐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17]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신 앞에서

17. 원문에는 아모스로 되어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행하라는 말씀은 미가 6:8에 있습니다.

몸을 굽히기를 요구하신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그분의 능력으로 지탱되지 않으면 우리 어깨 위에 견딜 수 없는 짐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그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짓누르고 쓰러뜨렸던 비참과 CO 152 재앙에서 우리를 건지셨을 때 우리 안에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들을 잘 새겨서, 하나님께서 깊은 구렁까지 낮추신 뒤에 하늘까지 높이실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들도록 그런 겸손에 우리 자신을 맞추기를 배웁시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를 원합니까? 자기를 낮춥시다(사도가 벧전 5:6에서 말하듯). 그리고 이렇게 자기를 낮춥시다. 먼저 (모든 좋은 것이 그분께로부터 나오니) 하나님께 속한 영광을 그분께 돌리고 그것을 참으로 인정해 드립시다. 그다음에 저마다 자기 소명을 살핍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으셔서 가장 큰 사람들이 가장 작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맞추어야 한다는 것을 압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가 함께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그 쓰임에 바칩시다. 그 은혜는 다른 사람들도 거기에 참여한다는 조건으로 우리에게 나누어진다는 것을 압시다. 우리가 이렇게 해 나간다면 우리는 분명히 언제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큰 공격을 퍼붓더라도 우리는 지켜질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넘어질 수밖에 없다면, 하나님께서 곧바로 우리를 일으키시려고 준비하고 계셔서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언제나 이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땅한 겸손 안에 붙잡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끝까지 모든 선 안에 머물도록 당신의 능력을 느끼게 하시리라는 것을 압시다. 이 세상에서 많은 위험과 고비를 지나가야 하더라도, 그분은 우리가 어떤 나쁜 일에 부딪혀 목이 부러지도록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더라도 그분은 (내가 말했듯이) 우리가 그것을 이기는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지금 소발의 이 말에서 우리가 거두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엎드립시다.

제74편

욥기 20장 설교 2

CO 34:153–166

AI로 옮긴 초벌 번역입니다. 신학 감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CO 권: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 그는 꿈처럼 흘러가 버려 다시 찾을 수 없고, 밤의 환상처럼 사라질 것이네. 그를 보던 눈이 다시는 그를 보지 못하고, 그의 처소도 다시는 그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네. 그의 자녀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아첨하고, 그의 손은 재물을 도로 내놓을 것이네. 그의 뼈는 그의 젊음으로 가득하나, 그것이 그와 함께 티끌에 누울 것이네. 악이 그의 입에 달면 그는 그것을 혀 밑에 감추고, 아껴서 놓지 않으며, 입천장 한가운데 머금고 있을 것이네. 그의 음식은 그의 창자 속에서 변하여 그의 몸 안에서 독사의 쓸개가 될 것이네. 그가 재물을 삼켰으나 그것을 토할 것이니, 하나님께서 그의 배에서 그것을 끄집어내실 것이네. (욥 20:8–15)

이 설교는 7절 풀이를 계속한 뒤 이어지는 본문을 다룹니다.

CO 153 소발은 여기서 어제 시작한 가르침을 이어 갑니다. 곧 악인들과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들이 행복해 보이더라도 그것은 오래가지 않으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대셔서 마침내 그들을 부끄럽게 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한 낱말을 쓰는데, 그것은 그들이 돌아서면서 망하리라는 뜻일 수도 있고, 또는 ‘그들의 똥처럼’ 이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18] 히브리 사람들은 똥을 그렇게, 곧 ‘돌다’ 에서 온 말로 부르기 때문입니다. 마치 그것이 똥 덩이처럼 치워지리라고 말하는 것과 같으며,

18. 원문에는 “Comme leur pente“로 되어 있으나, 뒤의 “estron“, “fiente“와 문맥으로 보아 “fiente“(똥)의 OCR 오류로 보고 옮겼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업신여김과 천대의 뜻으로 씁니다. 그러니 그가 하려는 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들이 으스대고 남들에게 두려움을 주더라도, 그들은 온갖 치욕 가운데 망할 수밖에 없고, 마치 누가 똥 덩이를 치우듯 거기 내던져지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뜻입니다. 이어서 그는 그들이 망해서 결코 다시 일어서지 못하고 온전히 회복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꿈이나 곧바로 지나가는 밤의 환상에 견줍니다. 요컨대 그는 그들이 큰 지위와 존귀 가운데 있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도 더는 그들을 알아보지 못할 것이고, 그들이 언젠가 제자리로 돌아오리라는 희망이 전혀 없으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밝혔듯이) 참으로 옳습니다. 악인들에게 보이는 모든 행복은 마침내 그들에게 더 큰 수치로 돌아갈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으니 나쁜 결말에 이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행복한 까닭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신의 은혜 안에 받아들이시고 복 주시는 것 말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 그 반대가 우리에게 있어서 그분이 우리를 버리신다면, 온 세상이 우리 편인 것 같고 모든 일이 넘치도록 우리 마음대로 되더라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좋은 것이 우리에게 악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CO 154 사랑 말고는 좋은 것의 샘이 없습니다. 그것이 있으면 우리가 비참해 보이더라도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선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형통할 수 없습니다. 겉모습은 얼마쯤 있겠지만 여기서 우리에게 일깨우듯 그것은 조금도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발이 쓰는 이 낱말을 잘 새깁시다. 그것이 (우리가 말했듯이) 두 가지를 뜻하더라도, 결국 손바닥 하나만 뒤집으면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뒤엎으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겨 둘 만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들이 (흔히 말하듯) 쇠와 못으로 박혀 있어서 결코 움직일 수 없을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파멸로

이끄실 방법을, 그것도 사람들이 생각하기도 전에 갑자기 이끄실 방법을 찾아내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일이 불가능해 보일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상상과 생각을 넘어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우리가 보듯 우리 주님께서 악인들을 수치스럽게 여기실 때, 그들의 이 영광과 존귀에 눈이 부셔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웁시다. 세상은 약탈로 부자가 된 사람들, 악한 수단으로 높아진 사람들, 하나님과 모든 공평과 정의를 업신여긴 사람들을 대단하게 여깁니까?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들을 똥 덩이와 오물과 더러운 것에 견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미 짚었듯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들에게서 어떤 위대함과 뛰어남을 보더라도 시험을 받지 맙시다. 오히려 성령께서 그들을 천하게 여기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내리시는 판결에 귀를 기울입시다. 거기에는 까닭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처지를 시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욕망이 번번이 그리로 이끌듯 그들의 올무에 끌려가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아무 정의도 행하지 않으시고 하늘에서 잠드셔서 불의가 넘쳐흐를 때 그것을 억누르려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가 동요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걸림돌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세상이 크게 여기는 것을 거름과 오물로 여기기를 배웁시다. 사람들이 악인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그들을 반쯤 숭배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이에 결말을 기다리며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거름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읍시다. 그런데 CO155 또 하나 새겨 둘 점이 있습니다. 곧 그들의 처소가 더는 그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을 바라보던 눈이 더는 그들을 보지 못하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로 소발은 악인들이 잠깐 동안만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님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신자들도 완전히 깊은 데 빠진 것처럼 보이도록 고난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다시 일으키실 희망 없이 부끄럽게 하려 하시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 약속이 있습니다. 곧 그들이 가장 깊은 지옥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손이 거기까지 뻗어서 그들을 건져 내시리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망의 그늘 한가운데를 지나가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리라는 이 표를 주셨으니 당황하지 맙시다. 곧 그분이 아직 우리를 잊지 않으셨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렇습니다. 우리 쪽에는 이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살짝 튕기기만 하셔도 그것이 치명상이 되어 결코 다시 일어서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 관해 말씀하실 때에는 그들을 멸하시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아무도 그들을 제자리에 돌려놓거나 다시 세울 수 없게 하신다는 조건으로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그것을 시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고, 나아가려 할수록 오히려 모든 것이 뒷걸음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소발이 여기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들과 악인들을 신자들과 어떻게 구별하는지 봅니다. 고난은 모두에게 공통이겠지만 결말이 다릅니다. 내가 고난이 공통이라고 말하는 것은, 신자들도 완전히 멸망할 것 같고 더는 아무 방도가 없을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이 죽음에까지 이르렀더라도 손을 내미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들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악인들로 말하자면 그들은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저주가 그들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고난을 보내실 때 스스로를 위로하기를 배웁시다. 고난이 크고 혹독하고 무겁더라도, 그 끝이 행복하다는 것을 보면 우리에게는 기뻐할 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악인들이 꽃피고 개선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볼 때에도, 우리가 세상 기준으로 비참하더라도 늘 우리 길을 가기를 그치지 맙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갑자기 치시면 그것은 그들을 다시 일으키시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편 37편(10절)에서 더 자세히 말하듯, 그들은 그대로 남아 있고 그들의 처소는 결코 다시 알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악인들이 이 삶에서 그토록 단단히 기대어 있어서

언제나 제 처지에 머물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신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일이므로, 성령께서는 이 가르침을 여러 번 되풀이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CO 156 그것이 우리 마음에 굳게 자리 잡고 우리가 온전히 설득될 것입니다. 그러니 악인들이 쓸려 나가야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다시 일어서도록 결코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첫눈에 알지 못한다면, 성경이 그것에 관해 어떻게 말하는지 들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멸하셔서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악인들이 있던 처소를 더는 알아보지 못하리라는 소발의 말에 관해서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밤의 꿈과 사람들이 지어내는 공상에 견주는 비유도 있습니다. 물론 사람의 삶 자체를 꿈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을 비추시고 그들이 더 나은 삶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전에, 사람들이 여기서 무엇을 합니까? (말하건대) 꿈꾸는 것 말고 무엇을 합니까? 여기 땅에서 재물을 얻고 쌓을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찾아다니고 이리저리 뛰어다니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빙빙 돌지만 결국 늘 재물을 쌓는 것 말고는 다른 생각이 없는 데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꿈일 뿐입니다. 사람들이 다른 어떤 악덕에 물들어 있든, 그들이 세상에 휘감겨 있는 동안, 묻건대, 그들에게 어떤 확실한 목표나 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다는 것을 깨달을 만큼 정신이 밝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계획이 차분합니까? 그들의 감정이 질서 있습니까? 그 어느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꿈꾸고 있습니다. 요컨대 사람들이 바라고 궁리하는 모든 것, 그들이 벌이는 모든 일,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을 낱낱이 살펴보면, 그들의 모든 일이 꿈이나 지어낸 허깨비와 같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말했듯이) 이것은 사람의 삶 전반에 대해 말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그분께 등을 돌리는 사람들에게 돌릴 수 있습니다. 그들은 빛을 버리고 일부러 어둠을

찾으니, 그들이 받아 마땅한 삯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곧 그들의 정신이 혼란스러워지고, 더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못하며, 흰 것과 검은 것을 분간하지 못하고, 오히려 밤이 그들을 지배해서 그들이 꿈만 꾸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들이 일들을 어떻게 둔갑시키고 완전히 거꾸로 뒤집는지도 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는 엄청난 것들을 스스로 믿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원수시라면 그가 멸망할 수밖에 없고, 아무리 성벽을 쌓아도 하나님의 손이 폭풍처럼 그 위에 떨어지는 것을 피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말했듯이) 악인들은 할 수 있는 한 빛을 피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두운 곳에, 밤 속에 두셔서 그들이 거기서 어둠에 휘감겨 있게 하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면 CO 157 그들의 정신이 그렇게 흐려집니까? 그들은 꿈과 공상을 지어내고, 이것저것을 스스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소발의 입을 통해 여기서 악인들을 꿈에 견주시는 데에는 까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를 이렇게 둔갑시킬 뿐 아니라, 사람들도 그들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악인 하나가 높아지면 모두가 그를 두려워하고, 심지어 그의 처지를 시기하며, 저마다 그와 같아지고 싶어 할 것입니다. 거기에 이를 수 없는 사람들도 그를 우상으로 만듭니다.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을 볼 때 사람들의 형편이 이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을 쫓아다니고 그들이 늘 양심에 괴로움을 당하므로, 그들 속에 끝없이 쉬지 않고 그들을 갉아 먹는 벌레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악인들이 얼마나 큰 당혹과 불안 속에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헛된 겉모습에 사로잡혀서, 흔히 말하듯 번쩍이는 것은 모두 금이나 은으로 여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 주는 것을 간직하기를 배웁시다. 곧 우리가 더는 이렇게 꿈꾸어서는 안 되고, 더는 우리 짐작과 공상에 이렇게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헛됨을 비웃으실 것이고,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은 뒤에 마침내 낮이 오며, 우리가 이 빛으로 나아가야 하고, 낮이 밝아 올 때 우리가 우리 꿈에 속았다는 것이 드러나리라는 것을 보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밤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추시니, 적어도 우리에게 달린 일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를 꿈꾸게 합니까? 우리가 헛된 상상에 이렇게 속고, 저마다 이런저런 공상을 지어내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눈앞에서 하시는 일, 더구나 그분이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을 차분히 헤아리려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 주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복이 있고, 하나님의 진리를 묵상하는 데 힘쓰는 사람은 복이 있으며, 하나님께 온전히 신뢰를 두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늘 좋은 양분을 얻으니, 어떤 더위나 가뭄도 그 푸르름과 생기를 잃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시 1:1–3; 렘 17:7–8 참조).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보여 주셔서, 우리에게 달렸다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변덕스러워서 단단한 것에 머물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흘러가고 날아가 버리는 행복을 가지려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스스로 원해서 CO 158 밤의 어둠을 찾아가니, 우리는 멸망하고 깊은 구렁에 떨어져 마땅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시는 은혜를 베푸시니 우리가 우리 꿈과 공상에서 벗어나 더는 이렇게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어서 "그의 뼈는 그의 젊음으로 가득하다"고 말합니다. 소발이 여기서 쓰는 낱말은 때로 숨겨지고 감추어진 죄를 뜻합니다. 실제로 '젊음'이라는 이 낱말도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그 뜻은 악인의 뼈가 그가 저지른 죄, 그것도 그가 젊을 때부터 시작한 죄로 가득하다는 것일 수도 있고, 또는 그의 젊은 시절에 그의 뼈가 가득했다는 것, 곧 그가 쾌락에 배부

르고 물리도록 지냈으며 소원을 다 이루었고 바라는 모든 것이 그의 손에 들어왔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새겨야 합니다. 그러니 '젊음'이라는 이 낱말을 본디 뜻으로 받아들이면, 먼저 그 뜻은 소발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들에 대해, 그들이 일단 악에 빠지면 결코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솔로몬의 잠언(22:6)에서 말하는 대로입니다. "젊은이가 비뚤어진 길에 들어섰는가? 그는 그 길을 계속 갈 것이고, 늙어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듯) 악에 빠지는 버릇이 들면 거기서 그들을 건져 내기가 아주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좋고 유익한 가르침입니다. 그것이 꽤 흔하고 이방인들조차 그것으로 속담을 만들었지만, 우리는 이것을 일깨움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엾을 만큼 악을 계속하는 데 빠져 있으면서도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더러운 것 속에 계속 머물 때 사탄이 우리를 차지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기 시작하면, 그는 하루, 한 달, 한 해를 더 계속해도 결국에는 잘 돌아올 수 있을 것처럼 여깁니다. 마치 회개가 우리 소매 속에 들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했듯이) 사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를 차지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악에 굳어지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오히려 우리 육신과 악한 본성이 우리를 떠밀어 빗나가게 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즉시 하나님을 경외함에 붙들려 멈춥시다. 넘어졌다면 곧바로 일어나도록 애씁시다. 길에서 벗어났다면 곧 돌아옵시다. (말하건대) 오늘에서 내일로 미룰 일이 아닙니다. 특히 젊은이가 자기 삶을 다스려야 할 때, 악덕과 부패에 자기를 내맡기지 않도록 잘 조심해야 합니다. 그가 마음 내킬 때 거기서 벗어나리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새길 것은 이것입니다. 곧 우리가 우리 죄에 절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CO 159 그런데 악인들의 뼈가 그들의 젊음으로 가득하다는 이 표현은 아주

적절합니다. 곧 악인들에게는 몇 가지 변덕스러운 욕심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속에 숨긴 악의가 없는 사람들도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아니고, 좋은 씨앗을 조금 가지고 있으며, 여전히 선에 힘쓰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붙잡아 주는 것이 없고 꾸준하지 못해서, 나쁜 만남을 만나면 탈선합니다. (말하건대)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소발은 훨씬 더한 것을 나타냅니다. 곧 악인들은 그들의 악의를 뼛속에 지니고 있고, 거기에 절어서 그것을 즐긴다는 것입니다. 또 마귀가 사람들을 독살했다면, 그것은 그들을 조금 찌르려는 것이 아니라 마음 가장 깊은 곳에 그의 독을 쑤셔넣어서 그들이 정신과 감각에서 온갖 악을 품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업신여기고 이렇게 악에 몸을 던진 사람들을 벌하시는 방식이 이것입니다. 곧 그들은 언제나 더 나빠지기만 하고 악에서 더 나쁜 데로 갈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회개가 사람들의 손에 있지 않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비웃는 이 농지거리꾼들은 "오, 마지막에 좋은 한숨 한 번이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누가 그들에게 그 한숨을 주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죄악 속에 고여 있지 않기를 배웁시다. 죄악이 우리 뼛속까지, 골수까지 들어오면 우리는 우리 악의를 지닌 채 무덤으로 옮겨질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싸워도 우리는 우리 묵은 가죽 속에 그대로 머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하나님의 보응이 우리에게 떨어지지 않도록 두려워합시다. 그 밖에 (내가 이미 짚었듯이) 거두어야 할 다른 가르침이 있습니다. 곧 악인들의 뼈가 그들의 젊은 시절에 가득하고, 그것들이 그들과 함께 무덤에 누우리라는 것, 또는 소발의 말대로 악의가 자기 자신과 함께 누우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로 그는 악인들이 말하자면 재물과 온갖 욕망으로 배가 터질 지경이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잘 여위게 하실 것이고 그들이 바싹 마른 것처럼 되어 완전히 벌거벗은 채 무덤으로 가야 하리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방금 한 말을 확증하려는

것입니다. 곧 악인들이 소원을 다 이루고 흥겨워해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처럼 보일 때, 그것은 마치 그들의 뼈가 젊은 시절에 가득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들이 바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신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들은 가서 눕습니다. 누구와 함께 눕습니까? 저마다 자기 하나로 만족합니다. 곧 그들에게는 그들 몸뚱이만 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벗기시고, 그들이 완전히 벌거벗었을 때 무덤으로 보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CO 160 경고를 받습니다. 악인들이 실컷, 심지어 배가 터지도록 먹고 마시고, 그들이 바라는 것보다 더 많은 재물이 넘치며, 존경을 받고, 온갖 쾌락을 누리는 것을 볼 때, 그것을 볼 때 우리는 동요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밝히셨으니, 우리가 그런 걸림돌에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발이 여기서 밝히는 그들의 끝을 잘 새깁시다. 곧 그들 각 사람이 자기 하나와 함께 무덤에 가서 누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우리 주님께서 악인들을 벗기실 때까지 기다립시다.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시기하거나 그들과 함께 탈선할 까닭이 더는 없을 것입니다. 누가 그것은 모두에게 공통이라고, 곧 우리도 티끌로 가서 거기서 썩는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며 행했다면 우리에게는 좋은 동무가 있습니다. 우리 영혼을 그분의 손에 맡기면 그분이 그것을 선하고 신실하게 지켜 주시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보여 주듯)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 영혼을 받아서, 우리가 하늘의 영광 가운데 다시 살아날 때까지 그 좋고 안전한 보호 안에 두리라는 것을 알 때 우리에게는 좋은 동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겉으로는 우리 각 사람이 이 세상과 사람들의 사귐에서 끊어지고 무덤에 던져질 수밖에 없더라도, 우리가 그분을 경외하며 행했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좋은 동무들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악인들은 티끌 속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 큰 무리와 큰 패거리가 따

랐고 (흔히 말하듯) 긴 꼬리를 끌고 다녔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기서 밝히는 이 끝으로 이끄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이 그들의 입에 달면 그들은 그것을 혀 밑에 머금고, 삼키지 않고 아끼며, 늘 입천장에 두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창자 속에서 독사의 쓸개로 바뀔 것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삼켰습니까? 그들은 토해 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악인들의 자녀에 관한 말도 있는데, 그것을 빠뜨렸습니다. 그러니 소발은 여러 말 가운데 악인들의 자녀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첨하고, 그들의 손이 그들이 가졌던 재물을 도로 내놓으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으로 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보응을 그가 말하는 사람들 자신에게서만이 아니라 그들의 자녀에게서도 밝히시고 느끼게 하시리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성경도 하나님께서 아버지들의 죄악을 자녀들의 품에 돌리시리라고 말씀합니다(렘 32:18 참조). 언뜻 보기에 이것은 하나님의 정의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에스겔서에서 말하듯 죄를 지은 영혼이 자기 죄악의 벌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겔 18:20 참조). 그러면 어떻게 CO 161 하나님께서 아버지들 때문에 자녀들을 벌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순전한 은혜로 악인들의 자녀를 면제해 주시고, 그들이 저주를 받아 마땅한데도 그들에게 복 주기를 그치지 않으신다는 것을 전제해야 합니다. 그 밖에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심판을 이루려 하실 때에는 악인들의 자녀가 자기 아버지들을 따라 제 길을 가도록 두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악을 늘 더하기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 그분의 진노를 돋우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들에게 내리셨던 보응을 자기 몸 위에 계속 쌓을 뿐입니다. 물론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 내지 않으시고, 그들이 자기 아버지들을 따르지 않도록 당신의 성령으로 그들을 감동시키지 않으시는 데서 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분께 그렇게 하실 의무나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므로 소발이 여기서 말하는 이런 종류의 벌을 이상하게 여기지 맙시다.

곧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자녀를 가난하게 하시고, 그들이 너무 하찮아져서 가장 천한 사람들에게 가서 아첨할 수밖에 없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아버지들은 끝까지 교만해서, 가장 높고 존귀한 사람들도 감히 그들에게 다가가지 못했고 사람들이 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마음이 그렇게 주제넘음으로 부풀어 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기 시작하면 사람들도 물리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들에게서 견딜 수 없는 교만을 봅니다. 그들은 자기에게 와서 간청하고 비위를 맞추는 사람들을 좋은 눈으로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자녀는 가장 멸시받는 사람들에게 아첨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이 보응이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자기 아버지들을 따르도록 허락하실 때 이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일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보응이 그들의 자녀에게까지 미쳐야 하니, 악인들에게 내리는 그분의 보응이 어떠한지 헤아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복 주시고 그들에게 당신의 자비를 느끼게 하기를 기뻐하실 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끝없는 선하심을 깨닫습니다. 그때 그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품으신 사랑의 뛰어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그분의 진노의 불이 붙어서 그것이 우리 자신을 쫓을 뿐 아니라 더 멀리 타올라 우리 자녀들까지 그 안에 휩쓸리는 것을 볼 때, 그것은 우리 머리털이 곤두서게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무서운 벌을 우리와 우리 뒤를 잇는 사람들 위에 불러오지 않도록 더욱 조심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행하기를 배웁시다. 또 그 사이에 우리 주님께서 당신을 경외하고 공경한 사람들의 자손에게 복 주시리라는 것을 깨달읍시다. 그러면 그분이 너무 너그러우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으로 CO 162 만족하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넓히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며, 우리가 더 큰 용기로 그분을 섬기는 데 힘쓸 것입니다. (말하건대) 이 구절에서 새겨야 할 점이 이것입니다.

이어서 "그들의 손이 재물을 도로 내놓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소발이 덧붙이는 말과 맞아떨어집니다. "그가 삼켰는가? 그가 토하리니, 하나님께서 그가 삼킨 것을 도로 내놓게 하실 것이다." 여기서 악인들이 짧은 시간에 많이 쌓아서 부자가 될 수는 있지만, 그렇게 얻은 재물을 누리지는 못하리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자녀들이 가난해지든지, 그들 자신이 토해 내든지 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셈하게 하시려고 늘 그렇게 오래 기다리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끝까지 다다른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께서 처방을 내리셔서 그들이 쌓은 그 많은 재물을 벗기시려고 그들에게 토하게 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여 주는 본보기를 잘 봅니다. 그러나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아주 적습니다. (말하건대) 우리는 사방에서 약탈하고 낚아채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삐를 풀어 주셔서 그들이 부자가 될 수단과 기회를 얻습니다. 그들은 밭과 재산을 사들이고, 돈을 굴리며, 큰 장사를 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할 나위 없이 가득하고 배부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모든 것을 삼켰습니까? 폭풍이 몰려와서 십만 에퀴로 부자가 되었던 사람이 너무 짓눌려 그저 무사히 빠져나가기만 바라게 될 것입니다. 바다 한가운데 있는 가련한 사람이 자기 재산을 다 버리고 목숨을 건지려고 뭍에 닿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말하건대)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재물을 그렇게 많이 쌓았을 때 그 재물이 그의 목을 조르고 그의 사형 집행인이 되도록 허락하실 것입니다. 또는 그렇게 갑작스러운 폭풍이 몰려와서 그가 재물을 벗기고 가난해질 것입니다. 또 조금씩 거덜 나는 사람들도 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운이 나빴다. 아무개는 부자가 되었고 자기 수완으로 그렇게 잘 벌어서 그만큼 올라섰는데, 이제 이런 일을 당했다. 누가 그를 저버렸거나, 그가 어리석은 거래를 했거나, 너무 무리하게 걸었다." 이처럼 우리는 중간 원인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핵심에까지 가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점에서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눈먼 자들인지 드러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잔인함과 약탈과 사기와 속임수와 교활한 술책으로 부자가 되었고, 남의 재산을 빼앗았으며, 과부도 고아도 불쌍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재산을 벗기게 되었다는 것을 헤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 드러나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모든 것을 비틉니다. 그러므로 CO 163 지금보다 더 지혜로워지기를 배웁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본보기를 주실 때, 곧 큰 부자였던 사람들이 줄어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토하게 하시도록 일하셔서 그들이 어떻게 가난해지는지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손을 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읍시다. 그런데 여기서 그들의 손이 재물을 도로 내놓으리라고 할 때, 그렇게 모든 것을 삼킨 사람들이 어떻게 스스로 물러서서 그렇게 낚아챈 것을 자기 손으로 도로 내놓기까지 하겠습니까? 그들이 기꺼이 그렇게 하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아, 내가 그렇게 약탈하고 속인 사람들에게 큰 잘못을 했다. 그러니 그것을 모두 돌려줄 방도를 찾아야 한다" 하고 깨닫게 하시지 않는 한, 악인들은 결코 스스로 원해서 거기에 이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웃을 속인 사람들이 거기까지 이를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발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사람들에 관해 말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손이 어떻게 자기가 빼앗은 것을 도로 내놓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토하게 하시는 방법을 사람들이 모르고, 그들이 정신과 판단력을 잃은 것처럼 보인다는 뜻입니다. 전에는 그들이 자기 일을 처리하는 데 그토록 능하고, 자기 일을 대비하려고 "이렇게 해야 한다. 그다음에 그것을 얻으면 또 이것을 더해야 하고, 이런 방법으로 해 나가야 한다" 하고 궁리했는데 말입니다. 그들이 이쪽저쪽에서 낚아채는 데 그토록 영리했습니까? 사람들은 그들이 멍청이가 된 것을 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쌓았던 그 모든 재물을 도로 내놓는 것 같고, 그 모든 것이 그들에게 아무

손해도 아닌 것 같을 것입니다. 요컨대 소꿉살림을 차렸다 허물었다 하는 어린아이들과 같다고 할 것입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늘 하던 대로 탐욕스럽고, 그들 속에 있는 그 용광로 때문에 세상 백 개라도 삼키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너무 멀어서 전에는 그토록 꽉 쥐고 있던 것을 놓아 버리는 데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가난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서 모든 감각과 이성을 빼앗으시는 것 말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구절에서 먼저 새겨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악인들이 이렇게 집어삼키고, 이 사람을 잡아먹고 저 사람을 약탈하며, 결코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여기고, 실제로 그들의 풍족함이 점점 더 불어나는 동안에도, 우리가 아직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그치지 맙시다. 악인 하나가 부자가 되고 사방에서 낚아챈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하는 말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아직 우리 CO 164 주님께서 내가 말한 그 처방을 내리셔서 그들이 그렇게 삼키고 먹어 치운 것을 도로 내놓게 하시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분명히 보지 못하는 것을 그분의 말씀 안에서 바라봅시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악을 행하려는 시험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왜 남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그렇게 탐을 냅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언제까지나 남아 있을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협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억누르는 고삐가 되어, 우리가 남의 재산에 손을 뻗고 이웃을 희생시켜 부자가 되려는 시험을 받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이렇게 말합니다. “악이 그의 입에 달면 그는 그것을 머금고 있을 것이다.” 이것은 소발이 쓰는 아름답고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들이 어떠한지 나타냅니다. 곧 그들은 입맛이 당기는 곳, 무슨 단맛을 찾는 곳에 머물며 거기서 즐거워합니다. 이를테면 탐욕

스러운 사람은 재물을 조금이라도 쌓을 수 있으면 그것이 그에게 설탕이고 꿀입니다. 실제로 그것은 굶주린 사람이 음식에 맛도 향도 없는데도 그것을 게걸스럽게 먹는 것과 같습니다. (솔로몬이 잠언 27:7에서 말하듯) 몹시 굶주린 사람은 쓴 음식을 먹어도 그것이 달게 느껴질 것입니다. 악인들이 그러합니다. 곧 그들은 자기 모든 악행에서 어떤 단맛을 찾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마귀가 그들에게 꿀을 발라 주기 때문입니다. 음란한 사람이 일단 정욕으로 달아오르면 마귀가 그의 눈을 멀게 해서 그의 죄를 그토록 달게 느끼게 하니, 그의 모든 즐거움이 거기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술 취함과 식탐에 빠져 있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처럼 악인들과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들은 자기 모든 악행에서 단맛을 찾습니다. 그들은 입맛을 다시며 그것을 설탕처럼 머금고 있는 미식가처럼 굽니다. 심지어 때로는 단맛을 더 오래 간직하려고 그것을 입천장에 머금고 있으며, 너무 빨리 삼킬까 봐 두려워하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말했듯이) 맛이 오래 남도록 두루미 목을 가졌으면 하고 바라는 미식가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좋은 포도주를 마시면, 마시는 동안에는 잔을 아무리 빨리 비워도 모자란 것 같지만, 그래도 그 단맛이 오래 남아 있기를, 늘 흘러내리는 샘이 거기 있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발은 악인들이 불의에서 맛을 느끼리라고 말합니다. 미식가들이 맛있는 한 입을 입에 넣었을 때 그것을 혀 밑에 머금고 입천장에서 굴리며 입맛을 다시는 것과 같습니다. CO 165 그들은 더할 나위 없이 흐뭇해합니다. 악인들이 이러합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들은 거기에 숨겨진 쓴맛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쓴맛은 어디서 옵니까? 누가 독을 먹이려 할 때에는 처음부터 쓴맛이 느껴지지 않도록 그것을 꿀과 설탕에 재워야 할 것입니다.[19] 그러나 독을 삼키고 나면 그것은 더 세게 쓰라려지고, 그 쓴맛은 한 입이 아직 입안에 있을 때 처음부터 느꼈을 때보다 훨씬 더 쓰고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 이처럼

19. 원문에는 “en encre“(잉크에)로 되어 있으나, 문맥으로 보아 “en sucre“(설탕에)의 OCR 오류로 보고 옮겼습니다.

악인들도 그 단맛을 삼키고 나면, 오, 그것이 그들에게 독사의 쓸개로 바뀔 수밖에 없다고 소발은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간직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실제로 이 비유가 밝혀질 때 누구나 그것이 꽤 흔한 가르침이고 가장 거칠고 무식한 사람들도 알아들을 수 있다고 여기겠지만, 실천은 늘 우리가 거기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그래도 이 비유에는 그런 맛이 있어서, 성령께서 우리가 거기 담긴 것을 더욱 간직하도록 이 비유를 우리에게 내놓으셨다는 것이 잘 보입니다. 그러니 마귀가 와서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에게 미끼를 던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까? 그에게 꾀이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악덕들은 처음에는 늘 어떤 단맛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거기에 속겠지만, 그것은 낚싯바늘입니다. 물고기들이 굶주리면 먹이에 달려들지만 그 사이에 목이 졸려 낚싯바늘에 걸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악덕들에게 꾀이고 속도록 두면 우리도 그러합니다. 이방인들도 이 비유를 잘 썼습니다. 플라톤은 사람들 안에 있는 쾌락과 감정은 그 수만큼의 미끼이고, 사탄이 그들을 나중에 파멸로 곤두박질치게 하려고 던지는 그 수만큼의 꾐이라고 말했습니다.[20] CO 166 물론 처음에는 단맛의 겉모습이 얼마쯤 있을 것이고,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여기 담긴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곧 악인들이 자기 모든 악행에서 느낀 단맛이 독사의 쓸개로 바뀌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들에 관해, 곧 그들이 독을 씹고 삼켰을 때 처음에는 쓴맛을 느끼지 못했더라도 마침내 그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으리라고 말하니,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우리 악덕에서 맛을 느끼도록 허락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잘 분별하고 우리 죄에서 첫맛으로 느끼게 될 헛된 단맛에 속지 않게 해 주시기를 구합시다. 그러니 그것에 꾀이지 말고, 오히려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그분의

20. 플라톤은 쾌락을 "악의 미끼 "라고 불렀습니다(『티마이오스』 69d).

은혜 안에서 참되고 살아 있는 단맛을 찾읍시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는 하늘 생명의 소망이라는 그 단맛으로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기를 구합시다. 그 밖에 우리가 굶주리고 우리를 채울 것이 없는 이 삶 동안, 또는 하나님께서 많은 고난과 비참으로 우리를 쓰러뜨리실 때, (말하건대) 그것이 우리에게 견디기 힘들지 않게 합시다. 우리가 그 하늘의 기업에 참여할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약속하셨으며 지금은 그들에게 감추어져 있는 그 헤아릴 수 없는 단맛을 충만히 누리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엎드립시다.

제75편

욥기 20장 설교 3

CO 34:166–178

AI로 옮긴 초벌 번역입니다. 신학 감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CO 권: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 그는 독사의 독을 빨 것이니, 독사의 혀가 그를 죽일 것이네. 그는 꿀과 버터가 흐르는 시내와 강을 보지 못할 것이네. 그는 얻은 것을 도로 내놓고, 그것이 그에게 남지 않을 것이니, 그가 일으킨 변화의 기세만큼 그렇게 될 것이며, 그는 그것으로 기뻐하지 못할 것이네. 그가 쌓았으나 가난해질 것이고, 그는 집을 약탈하였으나 그것을 짓지 않았네. 그는 자기 배에서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자기 욕망을 지키지 못할 것이네. (욥 20:16–20)

이 설교는 15절 풀이를 계속한 뒤 이어지는 본문을 다룹니다.

CO 166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떠나 악을 행하는 데 빠지게 하는 여러 부패 가운데 하나는, 대부분의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이 그저 바랄 만한 일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CO 167 그러면서 우리는 재물이 무엇에 있으며, 그것을 가지는 목적, 곧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살피지 않습니다. 그러니 세상은 눈이 멀어서 부자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무슨 목적으로 부자가 되어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련한 믿지 않는 자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부자가 되어야 한다"는 그 욕심에 매여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빼앗고, 약탈과 착취에 빠지며, 재물만 얻을 수 있다면 아무래도 상관없어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시고, 그들이 많은 재물을 쌓아서 온 땅을 삼킨 것처럼 보이게 된 뒤에도 자기가 가진 재물을 조금도 누리지 못하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손에서 재산을 빼앗으시거나, 그것을

흘러가 버리게 하셔서 그들이 아무 유익도 느끼지 못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기 담긴 이 말씀을 더욱 잘 새겨야 합니다. 먼저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 주는 것은, 사람들이 많은 재물을 쌓으면 그것을 누리리라고 스스로 믿을 때 그들이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모든 탐욕스러운 사람이 마음에 품는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밭과 재산을 가지면 거기서 수입을 거둘 것이니, 내 지하실과 곳간 밖에서 밀이나 포도주를 구하러 다닐 필요가 없고, 팔고도 남을 만큼 있을 것이다. 그다음에는 이것저것을 가질 것이니, 사람들이 나를 찾아와야 하고 나는 아무도 필요 없을 것이다. 나는 존경을 받고 신용을 얻을 것이다. 누가 내게 투덜대면 그를 짓누를 돈이 내 주머니에 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셈을 하면 그 셈은 크게 깎일 것입니다. (흔히 속담으로 말하듯) 그것은 주인을 빼놓고 셈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이 쌓아 올리고 이익을 보고 많이 모으도록 허락하시겠지만, 그들이 가득 차고 배부를 때 그들은 그것을 토해 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재산을 집어삼켰으나 그것을 토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배에서 그것을 끄집어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자기가 얻은 재산이 언제까지나 남아 있고 결코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리라고 믿습니까? 그들이 하늘에 자기들에게 셈하게 하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이 우리에게 보여 주는 대로입니다. 탐욕스러운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모든 재물 안에서 안전하리라고 셈을 하지만,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이 심판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집어삼켜서 그것을 금고나 곳간이나 지하실에만 둔 것이 아니라 자기 배 속에 가두어 두었다 해도,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것을 끄집어내지 않으시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집어삼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읍시다. 무엇보다 우리는 재물을 얻을 때 모든

것을 CO 168 하나님께 받는다고, 곧 우리가 정당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수단으로 그것을 얻었으며 그것을 우리 손에 쥐여 주신 분이 그분이시라고 진실하게 선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향해야 할 핵심이 이것입니다. 이 세상의 재물을 쌓는 일이 문제가 아닐 때에도 그렇다고 나는 말합니다. 그러니 더는 우리 모든 행복이 부자가 되는 데 있다고 상상할 만큼 어리석지 맙시다. 오히려 이것이 우리 앞에 떠오르게 합시다. 곧 재물이란 옳든 그르든 많은 재산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만족할 만한 것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손에 있는 재물을 누리고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 밖에 이 위협, 곧 우리 위장과 배가 집어삼켰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삼킨 것을 토하게 하시리라는 위협을 두려워합시다. (말하건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받고 그것으로 만족하기를 배웁시다. 너무 배불리 먹어서 나중에 토할 수밖에 없는 식충이나 술꾼처럼 되지 맙시다. 오히려 절제하고 삼가는 사람이 알맞게 음식을 먹듯이, 저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도에 따라 불어나기를 바라고, 이쪽에서 낚아채고 저쪽에서 먹어 치우며 자기에게 끌어당기고 약탈할 만큼 엄청난 탐심에 휩쓸리지 맙시다. 그러니 (내가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받는 것으로 만족합시다. 그런데 여기에 더 큰 저주가 덧붙어 있습니다. 곧 사기나 잔인함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식으로 부자가 되려는 사람들은 독사의 독을 빨고, 독사의 혀가 그들을 죽이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한 것, 곧 악인들의 음식이 그들의 창자 속에서 독사의 쓸개로 바뀌리라는 말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입에서는 거기서 어떤 단맛을 찾고, 심지어 입술을 핥으며 혀를 굴리면서 그것을 즐길 것입니다. 결코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를 속일 수 있으면 그토록 흐뭇해하고 그 일로 흥겨워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무슨 술책을 손에 넣으면 "오, 이것이 우리에게 딱 들어맞겠다" 합니다. 무엇을 얻으려고 마음먹으면 그것을 이룰 때까지

결코 쉬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혀에 있는 단맛이 이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쓴맛으로 바꾸십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악인들이 독사의 독을 빨고 독사가 그들을 죽이리라고 할 때, 그것은 믿지 않는 자들이 스스로 속는 그 모든 단맛을 하나님께서 바꾸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주려는 것임을 잘 새깁시다. 그들은 낚아채면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요컨대 CO 169 이쪽저쪽에서 낚아챌 수 있을 때가 그들의 낙원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결말에 이르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꾸시고, 사람들이 꿀과 설탕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독사의 독으로 바꾸시리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이 간구, 곧 하나님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간구를 단순하게 따릅시다. 그 말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고 마실 것을 주신 뒤에 그것이 좋은 양분이 되게 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도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배를 채울 것이 있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에 복을 주셔서 그것이 양식으로 유익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많이 먹고 게걸스럽게 먹은 사람이 그 때문에 더 배부르기는커녕 (우리가 다시 보겠지만) 모든 것이 그에게 독으로 바뀔 것입니다. 물론 그는 배가 가득 찰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련한 수종 환자와 같을 것입니다. 수종 환자가 몸속에 든 것을 빼냈다면 포도주 반 잔도 그에게 큰 것이고, 그때에는 빵 한 조각이 세상의 모든 음식보다 더 유익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속에 나쁜 체액이 가득하니 (흔히 말하듯) 바다와 물고기까지 마셔도 아무것도 그에게 유익하지 않을 것입니다. 들짐승처럼 잔인하게 모든 것을 먹어 치운 사람들도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독으로 바꾸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8:3에 있는 모세의 권면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는 아버지가 되어 주시기를 구하기를 배웁시다. 그분이 당신의 백성을 사십 년 동안 광야에서 빵도 다른 음식도 없이 먹이시고 하늘의

만나를 주신 까닭이 이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보존하신 것은, 사람이 자기 수고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네가 앞으로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러니 ‘내 손의 솜씨가 이것들을 내게 얻어 주었다’ 고 말하지 마라. 그렇지 않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네 조상들을 광야에서 하늘의 만나로 먹이신 것을 네가 보듯이, 그분이 네게 빵을 주실 때 그것을 그분의 손에서 받는 것으로 받아라.” 이제 가서 재물을 탐하고 그것을 우리에게로 빼앗아 와 봅시다. 그것에 대해 무엇이라고 선언하는지 보십시오. 곧 하나님께서 그것을 독사의 독으로 바꾸시니 그것은 전갈에게 물린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는커녕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우리가 겪어 볼 수 있는 일입니다. 눈을 떠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 담긴 그대로 세상에서 당신의 심판을 행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거기에 눈이 멀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완전히 모른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리지 않으려고 눈을 감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분별할 수 없을 것입니다(선한 사람들도 많은 두려움에 시달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기서 어떤 가르침을 받을 수 있도록 당신의 심판에 표지를 붙여 주십니다. CO 170 그러므로 그것은 우리와 우리의 악의에 달린 일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 주시는 것에서 눈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조금 갖기를 배웁시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빼앗은 재물로 살찌기는커녕 그것이 그만큼의 독이 되어 배부르기도 전에 배가 터지리라고 밝히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적은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만 하면 그것으로 만족하기를 배웁시다.

그와 함께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들은 버터와 꿀이 흐르는 시내와 강을 보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악인들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당신의 신자들에게 약속하신 복, 곧 마치 강들이 포도주와 꿀과 버터로 흐르는 것처럼 그들에게 넉넉함을 주시겠다는 복을 빼앗기리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물론

우리는 그런 것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그것을 깨닫고, 그분의 선하심과 아버지의 사랑에 기대어 그분이 당신의 친자녀처럼 우리를 먹이시려고 마음을 쓰신다는 것을 알 때, 강들이 꿀과 버터로 가득 차서 흐른다 해도 지금 우리가 누리는 만큼의 만족은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없어지고 마를 수 있지만, 결코 마르지 않는 이 샘, 곧 하나님의 손만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이 양식을 느끼지 못하고 들짐승처럼 빼앗는 사람들이 아무리 배를 채워도 소용없으리라고 선언하는 데에는 까닭이 있습니다. 그들이 세상의 모든 우물과 모든 샘을 가지고, 심지어 큰 강들을 가지더라도 그 한가운데서 늘 목마를 수밖에 없고, 그들을 배부르게 할 만한 넉넉함은 없을 것입니다. 무엇이 그 원인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이 복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했듯이) 사람들의 모든 쉼과 만족은 여기에 있고, 그들이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할 만큼 채워지고 배부르며 늘 제 길을 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도 이 방법으로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복이 없다면 세상의 모든 재물도 우리에게 충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말은 꽤 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누가 그것을 참으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사람들 사이에 공평과 정의가 다스리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될 것이고, 저질러지는 착취를 억누르려고 그토록 많은 법과 법정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토록 많은 권면의 가르침도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마다 자기 스승이요 교사가 될 것이고, 저마다 자기 안에 정의를 품고 있을 것이니, 재판관 앞에 나올 필요도, 집행관도, 변호사도, 소송도 필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악을 미리 막고, 이 CO 171 세상에서 재물을 우리 손에 맡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밀 한 톨 없고 물 한 방울 없더라도 당신이 좋게 여기시는 대로,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배부르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경험으로 그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분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 그분

의 선하심으로 어린아이처럼 받아먹습니다. 우리에게 많지 않으면 우리는 만족합니다. 그분은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먹고살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많이 있으면 그분은 우리가 그것을 바르게 쓰기를 원하십니다. 곧 저마다 받은 것을 모두 자기에게 붙들어 두는 구렁처럼 되지 말고, 모자라고 궁핍한 사람들과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당신이 당신의 백성을 먹이시는 아버지시라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니,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아시는 것을 잃을까 두려워하지 말고 이 아름다운 약속으로 만족합시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있다면 저마다 스스로를 붙잡을 것이고, "악을 삼가라, 이웃을 해치지 마라, 남이 너희에게 하기를 원하지 않는 해를 아무에게도 끼치지 마라" 하고 말할 위협도 법도 필요 없을 것이 분명합니다. 저마다 자기를 억누르고 온전함으로 나아가게 하는 이 고삐를 가지고 있을 것이니, 지금처럼 억지로 거기에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의 욕심이 너무 광포해서 도저히 길들일 수 없고, 그것을 묶어 두기에 충분한 밧줄도 사슬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말하건대) 그때에는 그런 힘이 더는 필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꺼이 아무 악도 행하지 않도록 손이 묶인 것처럼 될 것이고, 심지어 모든 사람을 섬기고 그들에게 유익을 주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르침을 잘 묵상해야 합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를 모든 헛됨과 방탕, 모든 지나친 욕심, 그리고 우리가 부자가 되려고 흔히 저지르는 해와 착취에서 건져 내기에 충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그분의 복 안에서 쉬게 하며, 그다음에 그분이 우리에게 맡기신 재물을 잘 쓰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관리인일 뿐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 것은 우리가 그분께 선하고 신실하게 셈해 드리고, 저마다 따로 게걸스럽게 먹지 않고 받은 능력에 따라 이웃과 나누었다는 것을 보여 드린다는 조건으로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요약하면 여기 담긴 것이 이것입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들은 얻은 것을 도로 내놓을 것이고, 그것이 그들에게 남지 않을 것이니, 그들이 일으킨 변화의 정도만큼 그렇게 될 것이며, 그들은 그것으로 기뻐하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는 우리가 이미 들은 것을 더 자세히 나타냅니다. CO 172 그러면 악인들은 배가 터질 것처럼 보일 만큼 많은 재물을 쌓았는데도 어떻게 결코 배부르지 않습니까? 왜 그들은 늘 모자랍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들 손에 있는 것을 번성하게 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구렁에 많은 재물을 던져 넣어도 구렁은 아무 느낌이 없듯이, 만족을 모르는 사람은 이쪽저쪽에서 빼앗아도 여전히 굶주려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두 가지 원인에서 옵니다. 우리가 적은 것으로 만족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지금까지 그분이 우리를 먹이신 것을 겪었듯이 그분의 손에서 우리 양식을 기다릴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듯이, 반대로 그분이 믿지 않는 자들의 탐욕이 불붙도록 허락하셔서 그들이 늘 쌓고 탐하면서도 결코 만족할 것을 얻지 못할 때, 그것이 그분이 그들을 벌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이 많은 재물을 쌓았는데도 기뻐할 수 없는 첫째 원인은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욕심에 불을 붙이시고, 그들 속에 그들을 쉬지 않고 괴롭히는 고문이 있도록 허락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잘 새깁시다. 그리고 마귀는 하나님의 정당한 허용으로, 그분을 바라볼 수 없는 사람들의 마음에 늘 불을 지핍니다. 첫째 원인에 관해서는 이렇습니다.

그다음에 둘째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먹이시려고 밀 한 톨을 불리시고 그것을 백 배로 늘리셔서 그들이 적은 것으로 만족하고 살찌게 하시듯이, 반대로 그분은 악인들이 집어삼킬 수 있는 모든 것을 갉아 먹고 말려 버리십니다. 그들은 두 배로 먹을 것입니다. 곧 넘치도록 쌓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소진시키시고 (선지자 호세아 13:15에서 말하듯) 그 위에 바람을 불어서 그것이 모두 없어지게 하실 것이니, 큰 재물 더미가 일 분 만에 사라질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서는 사람들이 크게 여겼던 것을 멸하십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자기가 가진 것으로 기뻐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들은 주제넘음으로 잔뜩 부풀어 오를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곳간을 넓힌 그 부자의 비유에서 그것을 보여 주십니다(눅 12:16–20 참조). 그는 "내 영혼아, 즐거워하라. 이제 너는 먹을 것이 넉넉하다. 결코 모자랄 수 없을 만큼 넉넉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재물에 빠져서 악한 길로 많이 얻은 사람들은 자기 재물로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물이 너희에게 넘쳐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마라"(시 62:10)[21]고 말씀하시는 데에는 까닭이 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는 이 말로 사람들이 부자이면서 이 세상의 헛된 것들에 휘감기지 않기가 아주 어렵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CO 173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교만하지 말라고 일깨우라고 권합니다(딤전 6:17). 이 말로 그는 부자들이 자기 재물을 우상으로 만들고, 자기가 사람들의 서열 위에 있다고 생각하며, 자기를 잊어버린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자기가 얻은 것으로 기뻐할 수 있겠지만, 그 기쁨이 어떤 것입니까? 저주받은 기쁨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를 가는 것과 고뇌로 바꾸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이 개선의 노래를 부르고, 자기 처지를 즐기며, 자기들에게는 행복밖에 없다고 여기는 것을 볼 때 하루나 한 해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새깁시다. 결말을 기다립시다. 그러면 마침내 여기 담긴 것이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곧 그들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고, 악인들은 (어떻게 되든) 늘 고통과 불안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 마음속에 있는 것을 낱낱이 살필 수 있다면, 그들의 즐거움 한가운데서도 그들이 늘 걱정과 당혹 속에 있고 땅이 꺼질 것처럼 여긴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많은 재물을 쌓은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물론 그의 교만은 참을 수 없을 것이고, 그는 온 세상의 목을 발로 밟으려 할 것입니다. 그는 자기 신용을 빌미로 이 사람을

21. 원문에는 "시편 62편 11절"로 되어 있으나, 이는 표제를 1절로 세는 프랑스어 성경의 절수입니다. 한국어 성경 절수로 바꾸었습니다.

짓밟고 저 사람을 억누르며, 사람들이 자기를 숭배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자기 집에 있을 때 그는 공작이 제 꼬리를 바라보듯 자기를 비추어 봅니다. (말하건대)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남몰래 찌르는 것들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 재물로 자랑하려는 사람들이 확실한 쉼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속에는 그들을 갉아 먹는 벌레가 있어서, 그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늘 고뇌와 당혹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악인들이 자기들이 일으킨 변화의 정도만큼 도로 내놓으리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언뜻 보기에 조금 모호할 수 있지만 좋은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 주는 것은, 악인들이 큰 수고로 쌓은 것을 도로 내놓아야 하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입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재물을 얻으려고 넘치도록 애쓸 때 그들은 참으로 눈멀고 분별이 없다. 그들의 모든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도로 내놓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아주 쓰라린 고통입니다(탐욕스러운 사람들이 자기 재물에 얼마나 매여 있는지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뼈를 부수어 골수를 빼내는 것보다 더합니다. 그들이 가진 재물은 그들에게 자기 생명 못지않기 때문입니다. 재물이 사람을 위해 지어진 것이고 현재 삶에 딸린 것일 뿐이라는 것을 보지 않는 사람들은 참으로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악인들은 스스로를 괴롭히고, 무슨 손실이나 손해를 입으면 CO 174 그것이 마치 누가 그들의 목을 서른 번 벤 것과 같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도로 내놓아야 합니다. 그것도 기꺼이 내놓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서 끄집어내시기 때문에 내놓습니다. 그것도 그들이 일으킨 변화의 정도만큼, 곧 그들이 변화와 격변을 일으킨 만큼 하나님께서 바꾸실 차례를 가지실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재물을 쌓으려고 탐을 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삐를 풀어 주시면 그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는 일들을 마구

휘저어서 새 세상을 만들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부자였던 사람을 가난하게 하고, 많이 가졌던 사람을 줄어들게 하며, 높았던 사람을 쓰러뜨립니다. 이처럼 탐욕스러운 사람들은 할 수 있는 한 새 세상을 만들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말했듯이) 그들에게 얼마 동안 그런 허가를 주셔서 그들이 모든 것을 움켜쥐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독이고 독약입니다. 그들은 자기를 채우지만, 그것은 나중에 토하려는 것이고, 더구나 거기서 그들이 삼킨 것의 끔찍한 쓴맛을 느끼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까? 곧 전에는 아무것도 없던 곳에 땅과 재산을 갖게 되고, 전에는 주머니에 세 푼도 없었는데 금고가 가득 차고, 전에는 멸시받던 사람들이 존경과 신용을 얻게 될 만큼 그런 격변을 일으켰습니까? 그렇게 온 세상을 바꾸었습니까? 하나님께도 차례가 있습니다. 죽을 사람이 일들을 휘저으려고 주제넘게 나서서 "나는 이것저것을 하겠다" 하고 꾀하고 궁리한다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모든 것을 바꾸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분이 하늘에서 한가로이 계시겠습니까? 그분이 허락하지 않으시는데 여기서 이 모든 변동이 일어난다고 우리가 생각합니까? 그리고 그분이 그것을 허락하시고 얼마 동안 모른 척하신다고 해서 그분이 당신의 직무를 내려놓으시고 더는 세상을 다스리지 않으신다고 생각합니까? 결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악인들의 눈을 그렇게 멀게 하기를 원하시고, 그들이 자기 계획을 이루도록 허락하셔서 그들을, 그것도 더 치명적으로 떨어뜨려 무너뜨리십니다. 다른 한편으로 그분은 신자들의 믿음과 인내를 훈련하십니다. 신자들은 그런 변화를 볼 때 동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아주 잠잠히 결말을 기다리고 지나치게 서두르지 않는 지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것이고, 그들은 그 방법으로 더 큰 소원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재촉을 받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내가 이미 짚었듯이) 악인들이 일으키는 변화의 기세에 관해 말할 때 여기에 좋은 가르침이 담겨 있음을 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따돌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경계표를 옮기려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왕국들과 공국들이 구별되기를 원하시듯이, 저마다 자기 것을 평화롭게 소유하도록 경계가 정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탈자들, 이 CO 175 구렁들, 이 들짐승들은 무엇을 합니까? (내가 말했듯이) 그들은 경계표도 경계도 아무것도 남겨 두지 않고 새 세상을 만들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이 크게 바꾸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허락하셨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나중에 반대로 바꾸셔서 일들을 처음 상태로 되돌리셔야 합니다. 이 말씀에 관해서는 이렇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악인들이 선한 사람들을 가난하게 하고, 자기가 짓지 않은 집들을 약탈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시는 모든 벌에서 늘 그분의 정의를 헤아려야 한다는 것을 봅니다. 물론 변화가 사람들이 말하는 우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 곧 어떤 격변이 일어나면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닫기만 해도 그것은 이미 좋은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저 하나님께 능력을 돌려서 "그분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하시며, 그분의 계획과 뜻으로 이끌리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고 더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땅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으로 알려지기를 원하시듯이 의로우신 분으로도 알려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앞에서 다루었듯이) 우리가 보이는 것들로 언제나 이 정의를 파악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붙들어야 합니다. 먼저 여기 아래의 일들이 운수와 우연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하시고, 다스리시며, 고삐를 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첫째 항목입니다. 그런데 온 세상이 복종하는 하나님의 이 능력을 깨달았으면, 둘째로 그분의 정의에 이르러야 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처럼 가지고 노시듯 이 세상의 일들을 그렇게 돌리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굳게 확신해야 합니다.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높이거나 쓰러뜨리기를 즐기실 때 사람들을 장난감으로 삼으신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하나님께 폭군 같거나 무질서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이 떼려야 뗄 수 없는 끈으로 그분의 정의와 이어져 있으며 그분이 모든 것을 공평하게 하신다는 것을 깨달읍시다. 물론 (우리가 짚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이 정의를 언제나 알아차리지는 못할 것이고, 그분이 때로 그것을 감추셔서 우리가 그분이 왜 그 일들을 하시는지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주 좋은 이유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욥의 친구들이 속은 점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 점에서 우리는 그들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욥을 악인으로 정죄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흔한 방식으로 그를 상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심판을 CO 176 같은 척도로 재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말했듯이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그분이 의로우시다고 결론지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그분의 심판이 헤아릴 수 없는 깊은 구렁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정의 때문에 두 가지로 찬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때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분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도록 눈에 보이게 죄악을 벌하실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26:9)에서 말하는 대로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재판을 여시고 세상의 재판관으로 나타나시면 그때 땅에 사는 사람들이 바르게 행하기를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 전에는 저마다 스스로 악을 행할 허가를 내주었는데, 이제 우리는 "아, 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재판관이 계신다"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정의는 때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낯선 방식으로 일하셔서,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고 물어도 거기서 말문이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도 우리는 그분 안에 깊은 구렁처럼 있는 그분의 감추어진 심판을 경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니 (내가 말했듯이)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우신 분으로 여겨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에게 알려져 있고 우리가 눈으로 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정의에 관해 말합니다. "악인들이 선한 사람들을 가난하게 했으니 그들에게 같은 분량으로 갚아 주셔야 한다. 그들이 집들을 빼앗고 약탈했으니, 그들이 평안히 살리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셔서 그들이 거기서 추방되어야 한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우리에게 좋은 지혜가 있으면 세상의 모든 변화에서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잘 산 사람들을 가난하게 하신다면, 푸른 나무에도 이렇게 하는데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겠느냐는 것을 깨달읍시다(눅 23:31 참조). 그러니 하나님의 손 아래서 떨면서, 그분이 우리 손에 맡기신 재물을 그분의 뜻대로 누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또는 그분이 그것을 우리에게서 벗기려 하신다면 그분이 보내실 가난을 인내로 견딜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새겨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삼킨 사람들에게 토하게 하시고, 셈하게 하시며, 그들이 약탈한 것을 돌려주게 하시고, 그들이 폭력과 사기로 지은 집에서 쫓아내시며, 그들이 악한 술책으로 쌓은 재물을 빼앗으시는 것을 볼 때 이렇게 깨달읍시다. "하나님께서 재판을 여시는구나. 그분은 악인들이 부자가 되도록 허락하시더라도 그것이 그들에게 영원히 남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그들이 들이마신 그만큼의 독이라는 것을 보여 주신다. 반면에 재물은 CO 177 신자들에게 유익하고 그들에게 버터와 꿀이 흐르는 그만큼의 시내가 될 것이다." (말하건대)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고 그 아래서 우리 자신을 낮추기 위해 이것을 깨달읍시다. 또 악인들이 자기 넉넉함과 신용과 영예 속에서 평안하고 편안해 보일 때 그들을 시기하지 않기를 배웁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악으로 바꾸시고

그들을 모든 사람 앞에 수치와 오명에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시는 징계와 벌을 새겨서 우리 가르침에 적용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일깨우는 대로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엡 5:6). "내 형제들아, 아무도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물론 사람들은 쏟아져 나오는 악한 말들을 듣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비웃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속지 마십시오. 그는 그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한다고 말합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머리를 치실 때까지 기다리지 마라. 그분이 너희 눈앞에서 악인들을 벌하시는 동안, 그분이 불의를 참지 못하시고, 사람들이 그분의 인내를 실컷 남용했을 때 재판관으로 나타나셔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라. 그러니 그런 징계에서 유익을 얻고, 그분이 남의 희생으로 너희를 지혜롭게 하려 하신다는 것을 깨달아라." 이것도 이 구절에서 새겨야 할 점입니다.

그다음에 자기가 짓지 않은 집들을 빼앗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그들이 짓지 않은 집에 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신 6:10–11 참조).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이셨을 때의 특별한 선물이었습니다. 그 밖에 우리는 성경의 일반적인 말씀을 압니다. 곧 자기 손으로 수고한 것을 먹고 그것으로 먹고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시 128:2 참조). 그러므로 재물이 우리에게 유익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할 수 있는 조건으로 그것을 가지기를 배웁시다. 하나님께서는 사기나 약탈에 관여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악인들이 그분의 뜻 없이는 부자가 되지 못하리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분이 그들이 하는 일을 인정하신다는 말은 아닙니다. 또 악인들이 하나님을 인정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그분이 이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분께 감사한다"고 말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마귀에게서

받은 것처럼 가지고 있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 주셨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 쪽에서는 (내가 이미 짚었듯이) 이 약속을 살리기를 배웁시다. 곧 우리 손으로 수고한 것을 먹으며, 다시 말해 좋고 정당한 수단으로 얻고 CO 178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만 먹으며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밖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이 지었더라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읍시다. 그 모든 것은 덧없고 지나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결코 떠나지 않을 것처럼 이 세상에 둥지를 트는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되지 맙시다. 그러니 거기에 매여 있지 맙시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집이 무엇입니까? 이 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크고 세상에서 가장 호화로운 궁전들이 있어도 그가 언제나 거기 있을 수는 없는 것이 분명하고, 그는 거기 감옥에 갇히듯 머물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각 사람에게 가장 고유한 거처는 자기 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연약한지 봅니다. 거기에 무슨 단단함이 있습니까? 썩음과 부패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늘의 건물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곧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가 그분의 성전이 되며,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썩고 덧없는 것이 새로워져서 우리에게 약속된 그 회복 안에 있게 되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남의 재물을 우리에게 끌어당겨 우리 것이 아닌 것을 누리려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셔서 우리가 그분의 성전이 되게 하시고, 그분이 당신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사탄이 우리를 휘어잡아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 악덕과 죄를 기르도록 허락하지 않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탄이 우리 몸을 더러운 마구간으로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더럽혀진 곳에 거하실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 그분이 우리 안에 머무시기를 원한다면 먼저 그분이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씻어 주셔서 당신의 은혜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가 그분의 성령의 참된

성전이 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잘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달읍시다. 성경이 그분이 시온을 세우시리라고 말하며 이 직무를 그분께 돌리는 대로입니다(시 102:16 참조).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전체적으로 당신 교회의 온몸을 세우시듯이, 그분이 우리 각 사람도 세우셔야 한다는 것을 압시다. 우리가 향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이 세상의 덧없고 썩을 것들에 빠지지 말고, 영원한 것을 향해 나아가며, 마침내 거기에 온전히 이를 때까지 점점 더 그것을 사모합시다.

이제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엎드립시다.

제76편

욥기 20장 설교 4

CO 34:179–190

AI로 옮긴 초벌 번역입니다. 신학 감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CO 권: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 그는 자기 배에서 배부름을 알지 못하고, 자기 욕망을 지키지 못할 것이네. 그의 음식에는 남는 것이 없으니, 그러므로 그의 재산이 불어나지 않을 것이네. 그의 넉넉함이 가득 찰 때 그는 고뇌에 빠질 것이니, 일하는 모든 사람의 손이 그에게로 올 것이네. 그가 자기 배를 채울 것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당신 진노의 두려움을 보내시고, 그의 음식 위에 비를 내리실 것이네. 그가 쇠 무기를 피하면 강철 활이 그를 맞을 것이네. 칼이 칼집에서 뽑혀 그를 베고, 그의 쓸개를 꿰뚫을 것이니, 두려움이 그에게 임할 것이네. (욥 20:20–25)

CO 179 어제 한 말에 이어 소발은 여기서 악한 사람은 결코 만족하지 못하고 쉼이 없으며, 그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고, 그의 재산이 상속자나 뒤를 잇는 사람에게 불어나지 않으리라고 덧붙입니다. 이 말씀은 이미 밝혀졌지만, 더 충분히 확증하려고 한 번 더 되풀이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더 잘 간직하고 그만큼 더 확신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재물이 넘치는 사람을 보면 우리에게는 그에게 아무것도 모자라지 않고, 그가 만족과 온갖 행복을 누리며, 모든 일이 그렇게 뜻대로 되니 즐기기만 하면 될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사람들 속에 숨겨진 가난을 알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그들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의 뼈와 골수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 번 듣는 것이 유익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우리에게 그만큼 더 확실해지고 그

기억이 우리 안에 새겨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어떤 사람이 부자이면 우리에게는 하늘과 땅이 뒤섞여야 그를 무너뜨릴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큰 넉넉함이 있더라도 그것이 없어지고 흘러가 버려서 뒤를 잇는 사람이나 상속자에게는 아무 기대도 남지 않을 수 있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니 이 두 가지를 잘 간직합시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넉넉함보다 하나님의 복을 더 귀하게 여기기를 배우고, 하나님께서 흩어 버리실 것이니 좋은 끝에 이를 수 없는 저주받은 재물을 탐하려는 시험을 받지 맙시다. 이 가르침이 우리에게 쓸모 있어야 할 점이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이 세상의 재물을 CO 180 많이 갖추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읍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선을 베푸셔서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느끼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양식을 그분께 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과 쉼을 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의 욕심이 어떠한지, 곧 결코 꺼지지 않을 욕망이라는 것을 봅니다. 그다음에 이 세상의 재물은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는 이따금 한때 거기에 눈이 부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재물 쌓는 데 빠진 사람들의 눈을 여셔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며 곧 지나가는 연기와 같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 손에 있는 재물만 바라본다면 만족하거나 배부를 수 없습니다. 쉼을 얻고 우리에게 넉넉하다는 것을 느끼는 유일한 길은 이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심을 나타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려고 늘 손을 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면 좋은 쉼을 얻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에게 빵 한 조각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실 만큼 넉넉히 부요하시다는 것을 알기에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그분께 기다릴 것입니다. 그분은 사자들과 들짐승들이 약탈에 빠져 있고 모든 것을 삼킬 것처럼 보여도 굶주리고 궁핍하기를 그치지 않

지만(시 34:10),[22] 하나님께서는 기근의 때에 당신의 백성을 먹이시리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시 37:19). 물론 그들이 언제나 그것에서 면제되어 이따금 곤경에 처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막다른 데까지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말하건대) 신자들이 기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좋은 것이 이것입니다. 악인들이 좋은 것을 참으로 인정하지 않듯이,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빵 한 조각을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들의 아버지이심을 나타내시는 것처럼 귀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그들은 그분이 오늘 자기들을 먹이셨다면 내일도 당신의 직무를 잘 행하시리라는 것, 그분께는 늘 넉넉히 있고 그분의 은혜와 선하심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위해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하십니다(시 31:19).[23]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 우리가 느끼기를 원하시는 것의 핵심이 몸의 양식을 생각하는 데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CO 181 더 높이 올라가야 합니다. 곧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비참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저 위 하늘에 우리를 위해 재물을 마련해 두셨으니, 우리는 그것을 향해 나아가고 거기에 온전히 마음을 빼앗겨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기 아래에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좋은 것은 이미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당신의 지극한 선하심의 맛보기와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인용한 시편 구절로 돌아갑시다. “주여,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위해 감추어 두신 주의 선하심이 얼마나 크신지요!” 선지자는 왜 이렇게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너그러운 선물을 어디에나 부으시지만(시 145:9에서 그분의 자비가 모든 피조물 위에, 참으로 짐승들에게까지 있다고 말하듯이), 악인들과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게걸스

22. 원문에는 “시편 34편 11절“로 되어 있으나, 이는 표제를 1절로 세는 프랑스어 성경의 절수입니다. 한국어 성경 절수로 바꾸었습니다.
23. 원문에는 “시편 31편 20절“로 되어 있으나, 이는 표제를 1절로 세는 프랑스어 성경의 절수입니다. 한국어 성경 절수로 바꾸었습니다.

럽게 먹고 배가 터지도록 먹으면서도 그분 안에 있는 선하심을 느끼지 못하고 그 깨달음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위해 감추어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 주는 첫째 것은 이것입니다. 곧 우리는 사람들이 가진 재물의 양에 따라 그들을 행복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되고, 만족에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보고 그것을 개의치 않는 사람들은 만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있는 좋은 것을 그들이 알지 못하니, 그것은 그들에게 그것이 모자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어서 "그들의 음식에는 남는 것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많이 쌓아서 자기 자녀들을 작은 왕들처럼 남겨 둘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갉아 먹으셔서 남는 것이 하나도 없게 하신다면 이상한 일입니다. 물론 이것이 언제나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우리가 밝혔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당신의 심판을 집행하실 때 똑같은 척도를 지키려 하지 않으십니다(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지막 날을 위해 남겨 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재산을 소진시키셔서 사람들이 그것이 눈앞에서 없어지는 것을 보고도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가 어떤 방법으로 가난해졌는지 알지 못하게 되는 표지들을 우리는 얼마쯤 알아차릴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직무를 행하시고 우리에게 당신을 생각하며 우리 재판관으로 깨달을 기회를 주신다고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러듯 무질서한 욕심에 시험받지 않고, 우리 행복이 많이 끌어모으는 데 있다고 여기지 않으며, 재물이 영원하다고 상상하지 않고, 오히려 늘 오늘도 내일도 평생 동안 그분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점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가르침을 우리가 실천해야 할 방식이 이것입니다.

CO 182 소발은 이렇게 말한 뒤, 악인은 큰 넉넉함 속에 있을 때에도 고뇌에

빠지기를 그치지 않을 것이고, 일하는 모든 사람의 손이, 또는 무슨 일을 해낼 만한 솜씨 있는 모든 사람의 손이 그에게로 오리라고 덧붙입니다. 그러니 뜻이 두 가지일 수 있습니다. 여기 놓인 낱말은 일을 해내는 데 재빠른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일하는 사람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해를 끼치고 모욕과 폭력을 가할 준비가 된 사람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스러운 뜻은, 일하는 모든 손이 악인들에게로 오겠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아무 유익도 되지 않으리라는 것입니다. 요점이 무엇인지 봅시다. 소발이 하려는 말은 이것입니다. 악인들이 끝까지 배를 채우고,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집에 재물을 쌓아 주셔서 그들에게 다른 사람들보다 백 배나 더 주시려는 것처럼 보이며, 온 세상이 그들을 섬길 준비가 되어 있고, 그들에게 품삯을 받는 일꾼들이 있으며, 저마다 "저를 써 주시겠습니까?" 하고 애쓰는 것을 보더라도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섬겨서 그들에게 이익을 보게 하려고 애쓰는 모든 손이 있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고뇌에 빠져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이고, 그러니 더욱 우리가 그것을 느껴야 합니다. 곧 우리는 그만큼 더 감동을 받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잘 지낼 만한 것이 있어서 아무것도 모자라지 않고, 큰 수행원을 거느리고 싶으면 그가 쾌락과 즐거움 속에 있도록 그를 위해 일할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이 자기 재물을 누리지 못하고 늘 고뇌에 빠져서 땅이 꺼질 것처럼 여긴다면, 그것은 자연을 거스르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모든 이치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쫓으시는 사람들을 우리는 충분히 봅니다. 그들이 악한 술책으로 재물을 얻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저주하시니 그 모든 것이 그들에게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을 그분이 그들에게서 분명히 보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말하건대) 이것은 아주 이상한 하나님의 심판이어서,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묻는다면 우리는 그 방법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결론지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에게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호의적이고 너그러우며 저마다 우리를 섬기겠다고 나서면 모든 것이 잘되고 우리에게 모자람이 있을 수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악인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마음대로 부리고, 그들의 이익을 위해 일할 준비가 된 군대 같은 것을 가지게 되더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며 늘 고뇌만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소발은 그가 앞에서 한 말을 더 크게 하려 했습니다. (말하건대) 그는 악인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우리에게 더 큰 확신을 주려 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는 여기서 그들의 넉넉함과

CO 183 사람들이 그들에게 품는 호의를 우리 앞에 내놓습니다. 부자들은 그 사이에 흥겨워하고, 우리에게는 그들이 모든 것을 얻었으며 하나님께는 그들을 해칠 능력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헛된 공상에 취합니다. 그런데 넉넉함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악인들에게 흥겨워할 거리가 있고, 말 한마디만 하면 그들의 식탁이 차려지며, 그들이 마음대로 부릴 종들과 품삯을 주고 쓸 일꾼들이 있어서 요컨대 세상이 그들을 위해 지어진 것처럼 보이는데도, 그들이 늘 고뇌에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빵 한 조각을 편안히 먹지 못합니다. 다섯 푼어치도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 자기를 맡기는 가련한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 사람은 일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점심을 먹었을 때 저녁에 무엇을 먹을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자기를 맡깁니다. 자기가 적어도 하늘을 향해 부리를 드는 새들과 같고 하나님께서 그 새들에게 먹이를 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말하건대) 이처럼 가난한 사람들은 시편(147:9)에서 말하는 작은 까마귀들과 같습니다.[24] 하나님께서 당신의 복으로 그들을 먹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배웁시다. 그분이 우리를 돌보실 때 우

24. 원문에는 “시편 147편 8절“로 되어 있으나, 까마귀 새끼를 먹이신다는 말씀은 한국어 성경 147편 9절에 있습니다.

리에게 모자람이 없을 것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많은 재물을 주지 않으시더라도 그분의 복이 우리에게 충분하리라는 것을 압시다. (말하건대)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좋은 것을 베푸시지 않더라도 고뇌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잘 살핍시다. 그분이 우리를 넉넉지 않게 대하시더라도 우리 마음이 넓어지기를 그치지 말고, 요컨대 그분이 결코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시리라는 신뢰를 가지고 지나치게 괴로워하지 맙시다. 그 밖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너그러우셔서 많은 재물을 베푸셨는데도 그들이 의심하고 이것저것 생각하기를 그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람들의 배은망덕의 표시입니다. (말하건대)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거나, 깨닫고도 마땅히 해야 할 만큼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표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히 주시면 만족하기를 배웁시다. 그분이 우리 눈앞에 당신의 선하심을 두셔서 우리가 그것에 기대고 거기서 쉴 줄 알게 하신다는 것을 압시다.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곧 우리에게 이 세상의 재물이 모자라고, 많은 악과 재앙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더라도 우리는 그런 염려에 맞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전혀 염려 없이 지낼 수는 없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걱정을 다스려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먹고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그분께 먹이를 구하고 또 지나치게 CO 184 괴로워하지 않으면서 그분의 선하심에서 그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호의적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시려고 이렇게 하신다" 하고 깨달읍시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고를 저주하실 수 있어서, 그들이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잔다 해도 아무 진척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시 127:2 참조).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모든 도움을 잃었을 때에도 그분의 은혜만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온 세상이 우리 편이더라도 하나님께서 손을 펴지 않으신다면 모든 것이 거꾸로 갈 것이 분명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 주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실천할 수 있다면 평생 동안 큰 유익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엾게도 저마다 이것을 고백하고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확신하면서도 거기에 마음을 정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복만이 사람들에게 유익하고 그들에게 만족을 준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실제로 분명히 드러냅니다.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때로 우리를 훈련하시려고 손을 거두시고 우리가 바라는 만큼 넉넉함을 주지 않으시면, 그때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도우실 만큼 전능하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괴롭히시면서 우리를 그리로 부르려 하셨습니다. 마치 우리가 그분을 찾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그분께 구하도록 재촉하시려고 박차를 가하시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손에 넉넉함이 없으면 먹을 것이 충분하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우리를 넉넉지 않게 대하실 때 그분의 복만으로 세상의 모든 넉넉함보다 우리에게 더 충분하리라는 것을 보지 않습니다.

이제 더 나아갑시다. 악인이 자기 배를 채울 때 하나님께서 당신 진노의 두려움을 보내시고 그의 음식 위에 비를 내리시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방금 우리가 한 말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물론 소발은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그는 악인들이 끝까지 갖추고 마련되어 있더라도 고뇌에 빠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족을 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숨겨진 가시와 찌르는 것을 주셔서 그들이 늘 괴로워할 수밖에 없으니 늘 곤란을 겪기를 그치지 않으리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섬기려고 애써도 아무 진척이 없으리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소발이 이렇게 말했습니까? 그는 악인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저주를 느끼지 못하고, (흔히 말하듯) 자기 행운 속에서 목욕하며, 심지어 그것으로 자랑할 수도 있으리라고 덧붙입니다. 요컨대 악인들이 적어도 겉보기에는 너무 편안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느끼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소발은 CO 185 하나님께서 일 분 만에 그들의 음식

위에 비를 내리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그분 진노의 맹렬함입니다. 내가 짚은 것을 우리는 봅니다. 곧 여기에는 앞에서 풀이한 것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것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그 고뇌와 악인들이 겪는 불안과 고통은 그들이 늘 불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 세상에는 확실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그들은 큰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얼마 동안 편안하고, 눈이 부셔서 모든 일에서 어디서나 행복할 것처럼 여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그들 위에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이 점점 더 흥겨워하도록 허락하실 것이고, 그들이 그렇게 자기 재물에 신뢰를 둘 때 그들은 하나님을 더 돋울 뿐입니다. 그들은 그 좋은 것이 누구에게서 나오는지 알지 못하고, 거기서 기회를 얻어 더욱 넘쳐흐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악인들은 자기를 찌르는 그 불안이 없고 쉬며 만족하여 모든 것이 자기들에게 잘되어 간다고 생각할 때 짐승처럼 둔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보응은 그만큼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자기 재물을 부정하게 얻었고, 사기와 약탈로 그것을 얻었으며, 모자란 사람들을 돕지 않고 구렁처럼 굴었으니 그것을 잘못 관리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향한 그 배은망덕과 교만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그토록 많은 빚을 진 분을, 마치 그분께 받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거스르려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자기 재물을 믿고 주제넘게 굽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세상에 자기 낙원을 만들고, 교만해지며, 하나님께 들이받으려고 뿔을 만듭니다. (말하건대) 이것은 온갖 불의의 꼭대기이고, 그 때문에 하나님의 보응이 그들 머리 위에 더 무섭게 내립니다. 소발이 지금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벗들이여, 악인들이 자기 재물에 완전히 취해서 아무 악도 자기들에게 닥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보더라도 그 때문에 그들의 처지가 더 낫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흥겨워하는 것밖에 할 일이 없고 온 세상이 그들 편을 들 때,

하나님께서 당신 진노의 불을 보내실 것이고, 그것이 폭풍처럼, 갑자기 쏟아지는 비처럼 그들 위에 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름철에 바람 한 줄기만 불면 아무도 생각지 못한 사이에 폭풍이 몰려오듯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벌하려 하실 때 그분의 진노도 갑작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남은 일은 하나님의 선하심의 그늘 아래 숨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넉넉함을 주시든 우리를 넉넉지 않게 대하시든 우리는 안전할 것입니다. 우리가 CO 186 그분의 손과 보호 아래 있을 때 빵 한 조각도 하늘의 만나처럼 좋은 양식이 될 것입니다. 넉넉함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우리에게 아버지이심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대하신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경우든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을 자기 유익에 쓸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아무리 배가 터지도록 먹을 것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너뜨리셔야 하고, 그 좋은 것이 그들에게 악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봅니다. 그들은 하늘의 만나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너무 밍밍했고, 그들은 이집트에서 먹던 고기를 탐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백성이 넘치도록 고기를 엄청나게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시편 78:30에서 말하듯) 고기가 아직 그들 목구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더는 당신께 매여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갑자기, 일분 만에 덮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을 때 거기에 휘감기지 않기를 배웁시다. 우리를 위로 올라가게 하는 사다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무덤을 만들지 맙시다.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믿지 않는 자들은 재물을 가지면 그 속에 휘감깁니다. 그러니 그들은 땅에 매이려고 그것으로 무덤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좋은 것들을 위로 올라가는 사다리로 써서 그분께로 인도되어야 하고, 그분의 선하심과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으면

서 그분의 모든 은택을 그분의 뜻에 맞는 쓰임에 바쳐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먹고 마실 것이 있더라도 눈을 위로 들고 하나님께 우리를 먹여 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양분을 얻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 우리를 지탱하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온전히 확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음식은 우리 입에 있는 동안에도 없어질 수 있고, 우리 배 속에서 쓸개와 독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배부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를 이어 주시는 것에 감사드리고, 그 방법으로 우리가 그만큼 더 그분을 섬기도록 재촉을 받읍시다. 이 말씀에서 새겨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이어서 소발은 악인이 쇠 무기를 피하면 강철 활을 만나리라고 덧붙입니다. 이 말로 그는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쫓으시고 벌하실 방법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그들이 무엇을 시도하고 꾀하든 그분의 손을 피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물론 악인들은 늘 어떻게 하면 악을 피할 수 있을지 알아보고, 그렇게 하려고 모든 것을 업신여길 만큼 뻔뻔함을 가질 것입니다. 소발도 악인이 쇠 무기를 피할 것이라고 할 때 CO 187 그들의 주제넘음을 나타내려 했습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악인들은 (보기에) 모든 악을 피할 만큼 꽤 약삭빠르고 신중하다. 그들은 무슨 곤란을 내다보면 '오,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손을 써 두어야겠다' 한다." 그러니 악인들은 자기 일에 늘 손을 쓰려고 마음을 쓰지 않을 만큼 잠들어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이 손을 쓰려 할 때 하나님께로 돌아서겠습니까? 그분의 성령의 뜻을 얻고 그분이 자기가 벌인 모든 일에 좋은 결말을 주시도록 그분께 피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만함과 오만밖에 없어서, 그들은 자기 머리로 좋고 아주 알맞은 방법을 잘 찾아내리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이끌고 그들의 일을 목적과 끝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악인들은 그 영예를 하나님께 돌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선지자 이사야 8:10에서 말하듯) 의논하고, 궁리하고, 이리저리 따지고, 결론을 내리며, 자기가 생각한 대로 모든 것을 해내고 이루어 낼 수 있으리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렇게 헛된 공상에 휩쓸렸으니 모든 것이 그들의 계획과 거꾸로 되리라는 것을 보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에게 교활함이 많고, 그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찾기가 쉽고 수월해 보이며, 그들이 자기 일에 충분히 대비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들을 찾아내실 것이고 그들이 그분의 그물을 빠져나가지 못하리라는 것을 잘 새깁시다. 요약하면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 주는 것이 이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는 당신의 원수들을 쫓으실 여러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큰 준비를 했다가 그것이 쓸모없어지면 기대가 무너져 다시 시작해야 하는 땅의 군주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움직이지 않으셔도, 아무것도 꾸미지 않으셔도,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세상의 모든 군대보다 더 많은 일을 해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때로 당신의 원수들과 어떻게 싸우셨는지 봅니다. 그분이 바로와 모든 이집트 사람을 징계하셨을 때 큰 군대를 일으키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에게 해충과 더러운 것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 이렇게 일하십니다.

그 밖에 그분이 악인들이 어떤 악을 피하도록 허락하신다면, 그것은 그들이 자기 솜씨로 자기를 거스르던 하나님의 손을 이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는 것은 그들의 정죄가 그만큼 더 커지고 그들이 고집을 부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도 봅니다. 악인들은 어떤 악에 완전히 짓눌리지 않았으면 귀를 한 번 털어 버리고 끝났다고 여기며, 그 일로 앞으로 더 큰 방종을 스스로 허락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때로 CO 188 불의한 자들에게 작은 악만 보내시고, 그 사이에 그들을 너무 혹독하게 쫓지 않으시며, 그들이 완전히 빠져나간 것처럼 두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갑절로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인내를 비웃고 그분의 진노를 점점 더 돋우니, 그분도 당신의 엄하심을 펼치시고 그들 위에 벼락을 내리치셔야 합니다. 그분이 그들에게 매 한 대만 대셨던 대신, 칼을 뽑으시고 그들을 향해 활을 당기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미리 잘 헤아리기를 배웁시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가 우리 꾀로 악을 피하리라고 생각하지 맙시다. 오히려 그분께 우리를 맡기기를 배웁시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당신의 철천지원수처럼 쫓으셔도 마땅한 자들인데, 그분이 우리를 긍휼히 받아 주시기를 기뻐하시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위협들이 성경에서 그토록 되풀이됩니다. 악인이 쇠 무기를 피하면 강철 활이 그를 맞으리라고 여기서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선지자를 통해 친히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봅니다(암 5:19). "네가 네 집에 숨어도 소용없을 것이다. 네가 들로 나가면 들짐승을 만날 것이다. 네가 사자의 아가리에서 빠져나가면 곰이 너를 찾아낼 것이다." 이 말씀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이 모든 피조물을 손에 쥐고 계시고 그것들을 써서 사람들을 쫓으실 수 있으니, 우리가 그분께 은혜를 얻고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때까지는 결코 건짐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셈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안전해지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께 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에게서 멀리 도망칠 때 그분의 손은 너무 깁니다. 그분이 칼을 뽑으셨다고 해서 그분께 활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곧 그분께는 그토록 많은 종류의 징계와 벌이 있어서, (이미 밝혔듯이) 우리가 그분과 화목하게 될 때까지 우리는 마침내 비참하게 쓰러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거슬러 일어나고 당신의 손에 거만하게 굳어지는 사람들을 칼과 활과 들짐승과 전갈로 위협하시듯이, 반대로 그분은 당신의 선하심에 피하고 거기에 신뢰를 두는 사람들을 구원하실 무한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십니다. 물론 우리는 많은 악에 둘러싸일 것이고, 많은 죽음이 우리를 위해 마련되어 있

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도 우리를 도우실 여러 방식이 있고, 그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방도를 잃고 망한 것처럼 보일 때 이렇게 깨달읍시다. "그렇다. 하나님께는 당신만 아시는 죽음에서 벗어날 길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다. CO 189 그분이 우리 믿음을 훈련하려 하시기 때문이다." 그분이 우리에게 당신의 선하심을 나타내실 때까지 기다립시다. 그분이 기뻐하셔서 당신의 얼굴을 우리 위에 비추실 때, 우리는 죽음 한가운데서 우리가 생명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하시는 위협은 우리가 그분께 피하도록 재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는 많은 위험 속에 있고, 하나를 벗어나면 다른 것이 가까이 있으며, 결코 거기서 건짐을 받을 수 없을 것처럼 보이더라도 기뻐하고 쉴 거리가 넉넉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벌하실 칼을 많이 가지고 계시듯이, 당신의 신자들을 도우실 구원도 무한히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약하면 이 절에서 간직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칼이 뽑혀 그의 쓸개를 꿰뚫을 것이고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고 말합니다. 칼이 뽑혀 악인의 쓸개를 꿰뚫고 지나가리라고 할 때, 곧 그것이 그의 심장에 상처를 입히는 치명상이 되리라고 할 때,[25] 그것은 하나님의 벌이 때로 갑작스러우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니 일반 규칙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가 일깨웠듯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심판을 그렇게 빨리 이루실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 삶에서 우리에게 그 본보기를 얼마쯤 보여 주셔서, 우리가 모든 것이 제자리와 완전함으로 회복될 그 마지막 날에 그만큼 더 주의를 기울이게 하십니다. (내가 말했듯이) 그래도 하나님의 심판은 때로 갑작스러울 것입니다. 소발이 "칼이 뽑혀 그의 쓸개까지 꿰뚫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나타내려 한 것이 이것입니다.

25. 원문에는 "pluye mortelle"(치명적인 비)로 되어 있으나, 문맥상 "playe mortelle"(치명상)의 OCR 오류로 보아 바로잡았습니다. CO 190의 같은 표현도 그렇게 옮겼습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악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벌하려 하신다는 것을 멀리서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그는 안전한 것처럼 제 길을 갈 것이다. 그러나 칼이 칼집에서 뽑히자마자 그의 몸을 꿰뚫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 구절의 뜻이 무엇인지 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우리는 위험을 오래전부터 내다보고 하나님께 피하여 그분이 우리를 지켜 주시기를 기도하라는 경고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심판을 여기서만 보여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악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벼락처럼 그들 머리 위에 떨어지리라고 말씀하십니다(살전 5:3).[26] 이것으로 우리는 (내가 말했듯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고 우리 삶이 매여 있는 악들을 멀리서 내다보라는 경고를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CO 190 우리 삶을 원망하며 우리가 비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두지 않으셨더라면 더 나았으리라고 말하기 위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잠들지 않고 하나님께 피하기를 배우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릴 때 사탄과 온 세상과 심지어 죽음까지도 무시할 수 있다고 확신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와 보증인으로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이 자기 악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들을 그만큼 더 빨리 무너뜨리려는 것이라는 점을 잘 새깁시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부를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분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여기니, 그들이 생각하기도 전에 파멸이 그들 위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밖에 그와 함께 두려움이 거기 있기를 그치지 않으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악인들이 겪을 악은 이중입니다. 곧 칼이 칼집에서 뽑히자마자 그들을 꿰뚫을 것이고, 그 뒤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쉬게 두지 않으셔서 악이 지나갔는데도 그들은 떨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나뭇잎 하나에도, 아무도 그들을 쫓지 않는데도 죽음이 벌써 자기들을 덮쳤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26. 원문에는 “데살로니가전서 6장 3절“로 되어 있으나, 데살로니가전서는 5장까지 있습니다. 인용된 내용은 5장 3절입니다.

(레 26:36 참조). 이처럼 우리는 성령께서 무엇을 뜻하셨는지 봅니다. 먼저 그분은 악인들이 단단히 무장하고 아무 악도 그들에게 다가갈 수 없을 것처럼 보일 때 우리가 그들을 시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 주려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그들을, 그것도 결코 나을 수 없는 치명상으로 꿰뚫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첫째 항목입니다. 그 밖에 악인들이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을 볼 때, 쉼을 얻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보호 안에 받아들이셨다는 것을 아는 것뿐이라는 것을 깨달읍시다. 그러니 그것으로 충분하게 합시다. 우리가 그분 앞에서 두려움으로 행해야 하더라도 우리는 언제나 그분의 선하심 안에서 안심할 것이고, 반면에 악인들과 그분의 위엄을 업신여기는 자들은 늘 두려움 속에 있어서 결코 쉼을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께로 피하고, 아무에게도 착취하지 않으며 이웃과 함께 살아서, 같은 분량으로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게 하기를 배웁시다. 우리가 이렇게 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당신의 선하심을 느끼게 하시고,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모든 위험과 모든 두려움과 공포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엎드립시다.

제77편

욥기 20장 설교 5

CO 34:191–203

AI로 옮긴 초벌 번역입니다. 신학 감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CO 권: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 그의 숨은 곳에는 온갖 어둠이 감추어져 있을 것이네. 아무도 불지 않은 불이 그를 사를 것이니, 그의 집에 남은 자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네.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내고, 땅이 일어나 그를 칠 것이네. 그의 집의 싹은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흐르는 물처럼 떠내려갈 것이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주시는 몫이요, 그의 말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기업이네. (욥 20:26–29)

CO 191 우리는 어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들이 아무 위로도 없이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신자들도 공포와 두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이 그분께 피하면 그분이 자기들을 도우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악인들로 말하자면, 그들이 모든 것을 업신여겼고 그들 안에 자기는 아무 악에도 매이지 않을 것처럼 여길 만큼 교만이 있었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놀라게 하셔서 그들의 두려움에 아무 처방도 없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따라 행하도록 두려워할 줄 알기를 배웁시다. 살인자들처럼 안심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다그치기를 배웁시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공포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심시키신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니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않는 유일한 처방은 이것입니다. 곧 조심스럽게 행하고,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과 사방에서 우리를 둘러싼 위험을 깨달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우리 손을 잡아 주시기를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불신하며 오직 그분

안에서 쉬기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이런 두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우리를 기쁘게 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안심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담하고 교만한 척하려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셔야 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미 지옥에 있는 것 같은 공포를 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소발은 악인들이 안심할 방법을 하나도 찾지 못하리라는 것을 더 잘 나타내려고, 그들의 모든 숨은 곳, 곧 그들의 은밀한 곳에 어둠이 감추어져 있으리라고 덧붙입니다. 언뜻 보기에 이 말에는 큰 뜻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잘 이해하면 이것이 방금 한 말을 잘 확증한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숨은 곳이란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쫓으실 때 그들이 가지는 피난처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늘 거기 머물 은신처를 얼마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악인은 늘 CO 192 어떤 뒷방을 가지고 있어서 여우처럼 굴고, 말하자면 굴을 하나 파서 덮침을 당하지 않으려 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들어가신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그는 자기가 숨을 작은 구멍 하나가 있어서 하나님의 손이 거기까지 이르지 못하리라고 스스로 믿을 것입니다.

그런데 소발은 거기에 어둠이 있으리라고 말합니다. 곧 악인들이 남몰래 숨으려 애썼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으실 때 그들은 그 속에서 공포에 사로잡혀서 아무도 그들을 쫓지 않는데도 떨리라는 것입니다. 요컨대 그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들이 매가 닿지 않는 곳에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는 모든 위협을 업신여기고 아무 악도 자기들에게 다가올 수 없을 것처럼 여기지만, 막다른 데에 이르면 아무리 숨어도 소용없으리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대지 않으시고, 그분이 그들을 거스르신다는 분명한 표시를 전혀 보이지 않으셔도, 그들에게는 어둠이, 곧 그들 위에 혼란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손을 피하려고 비뚤어진 핑계를 찾지 말라고 우리를 가르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

께 불러내실 때마다 셈하러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읍시다. 그러므로 거기서 빠져나갈 꾀를 아무것도 상상하지 맙시다. 세상이 우리에게 많은 피난처를 약속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압시다. 그러니 거리낌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위엄 앞에 서서, 그분이 우리를 긍휼히 받아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그분의 얼굴이 우리 위에 비칠 때 우리는 모든 어둠에서 건짐을 받고 놓여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수많은 깊은 구렁 속에 뒤섞인다 해도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으니 언제나 안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세상의 모든 은신처를 가진다 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는커녕, 우리가 사방으로 드러나서 우리 위에 닥친 악을 내다볼 수 있을 때보다 거기서 더 큰 경악을 겪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우리가 보듯 늘 숨은 곳을 가지지 않고는 못 배깁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보내실 때 무엇을 뜻하십니까? 그분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등불, 아니 해와 같기를 원하십니다. 저마다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살피고, 전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죄들이 드러나서 저마다 그것을 싫어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CO 193 받아 마땅한 징계를 멀리서 알아차려서, 평안과 안전을 스스로 약속하는 믿지 않는 자들처럼 덮침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알아보며, 선지자 하박국(2:1)에서 말하듯 높은 망대에서 파수하는 사람처럼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악을 미리 막기를, (말하건대) 기도와 간구와 회개로 그것을 미리 막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복음으로 우리를 비추실 때 뜻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반대로 끌어당깁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그 빛을 끄고, 우리가 악하니 우리 안에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컨대 우리는 늘 누가 우리에게 아첨해 주기를 바라고, 그런 아첨에 스스로 속는 것을 무척 좋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아무 유익도 주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분이 그만두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선지자 스바냐(1:12)를 통해 선언하신 것, 곧 등불을 들고 가장 깊은 지하실까지 들어가시리라는 것을 이루십니다. 그분은 예루살렘 성읍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등불을 들고 너를 찾아갈 것이다. 너는 네 보물을 은밀한 곳에 감추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네가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시도록 받아들이고, 그때 핑계를 찾지 맙시다. 우리가 이렇게 거리낌 없이 그분 앞에 나아가면, (성경이 말하듯) 우리가 그분의 장막 아래 숨겨질 것이 분명합니다(시 27:5 참조). 그분은 우리에게 피할 집이나 방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친히 우리에게 무너지지 않는 요새가 되실 것입니다. 요컨대 우리는 그분 날개의 그늘을 든든한 안전으로 삼을 것입니다. 반대로 여기서 말하는 것, 곧 숨으려 하고 심지어 깊은 곳을 파는 사람들도(선지자 이사야 29:15에서 말하듯) 싫든 좋든 하나님께서 찾아내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것입니다. 그들을 쫓는 것이 그들의 양심뿐이라 해도, 그들은 하나님의 손을 피하리라고 생각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새겨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이어서 아무도 불지 않은 불이 그들을 사르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소발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들과 모든 악인을 위협합니다. 곧 피조물 쪽에서 아무 악이 그들에게 오지 않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로 소멸되기를 그치지 않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이 만든 불은 필요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만으로도 기꺼이 그분께 복종하려 하지 않는 모든 사람을 없애기에 충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는 성경 전체에 꽤 흔합니다. 곧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과 같으시고(히 12:29 참조), 사람들은 곧 타 버릴 지푸라기 같거나 CO 194 금세 녹아 흐르는 눈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진노는 눈을 녹이거나 지푸라기를 태우는 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분노를 조금만 드러내셔도 산과 바위를 쪼개고

온 세상을 떨게 해서 하늘도 땅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없게 하는 불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토록 연약한 가련한 피조물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지푸라기밖에 없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사르는 이 불을 붙이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소발의 의도가 무엇인지 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의 입을 통해 말씀하시며, 우리가 세상의 호의를 믿어서는 안 되고, 모든 일이 바라는 대로 될 때에도 그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가 이어서 덧붙이듯) 하늘도 땅도 일어나서 그분의 보응을 집행하지 않는 것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과 헤아릴 수 없는 힘을 보여 주시려고, 때로는 피조물들이 우리에게 호의적이고 심지어 우리 소원이 이루어지며 아무것도 우리에게 거꾸로 오지 않도록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편안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이 우리의 원수시라고 선언하시기만 하면, 사람들을 쓰지 않으시고 아무 피조물도 쓰지 않으셔도, 그분 진노의 이 불만으로 우리를 사르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성경이 때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얼마나 무서워야 하는지 더 잘 느끼게 하려고 거기에 유황이나 벼락이 섞여 있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와 함께 그것이 사람의 손이나 어떤 기술이나 낮은 수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홀로 일하신다고도 덧붙입니다. 이사야 30장(33절)에서 게헨나가 하나님의 원수인 악인들을 위해 이미 오래전부터 마련되어 있다고 말하는 대로입니다. 그리고 불과 유황을 말할 때 그 안에 부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소발이 여기서 다른 데서 오는 풀무가 필요 없을 것이고 아무도 이 불을 붙이는 것을 거들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거스르신다고 선언하실 때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능력이 그들을 완전히 사르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하나님께 자신을 맞추어서 우리가 이 판결의 집행을 받지 않게 하기를 배웁시다. 하나님께서

꺼질 수 없는 이 불을 붙이셨을 때 “아이고” 하고 외쳐도 그때는 너무 늦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타오르는 불과 같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우리를 사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과 쓸데없는 것을 정련하기 위해서입니다. 금과 은이 용광로를 지나며 CO 195 정련되어 쓰이고 쓸모 있게 되듯이,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우리의 악한 욕심에서 정련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쓸데없을 뿐 아니라 해로운 것들이니, 그분은 그 뒤에 우리를 당신을 섬기는 데 바치려 하십니다. 무엇보다 먼저 이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사랑으로 불붙게 하셔서 우리가 온전히 그분께 마음을 빼앗기게 하려 하실 때, 그것은 그분의 말씀이라는 수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견딜 수 없다면, 선지자가 말하듯 우리는 지푸라기나 삼 부스러기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렘 5:14).[27] “내 말이 소멸하는 불 같지 않으냐, 바위를 부수는 망치 같지 않으냐? 이 백성은 지푸라기 같지 않으냐?”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에 주신 이 직무, 곧 불이 되는 직무를 없앨 수 없습니다. 말씀은 언제나 그러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쪽에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데 주의를 기울인다면, 그분은 우리를 우리의 더러운 것에서 정련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의를 따라 새로워지며, 그분의 사랑으로 불붙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고집을 부리고 악의와 반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물리친다면, 우리가 싫든 좋든, 아무리 거부해도, 우리가 곧 타 버리는 짚과 지푸라기와 삼 부스러기일 뿐이니 말씀이 우리를 태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신합시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우리 정죄를 느끼게 하셨을 때, 그분은 손을 대셔서 우리가 실제로 그분이 악인들을 불이 사르리라고, 그것도 아무도 불지 않고 아무도 불을 붙이지 않으며 사람이 손을 대지

27. 원문에는 예레미야 5:14만 표기되어 있으나, 말씀을 바위를 부수는 망치에 견주는 대목은 예레미야 23:29에 있습니다.

않고 피조물 쪽에서 아무 도움이 없어도 사르리라고 선언하신 것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야 합니다. 요컨대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기를 배우고, 이 세상에서 일이 우리 바람대로 되는 것을 볼 때 잠들지 맙시다. 우리 죄악이 하나님 앞에 놓이고 그분이 우리 재판관으로 나타나셔야 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 쓸모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에서 간직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와 함께 그의 집에 남은 모든 것이 악으로 가리라고, 또는 그의 집에 남은 자 위에 불행만 있으리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그들의 살림과 자녀와 그들에게 닿는 모든 것에 복을 주심으로써 당신의 선하심을 나타내시듯이, 반대로 그분은 당신의 진노가 불의한 자들 가까이 있는 모든 것에 미치니 그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 주십니다. 우리가 보듯 세상 전체가 우리 때문에 더럽혀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늘이든 땅이든 세상의 어느 구석이든 하나님의 진노와 모든 피조물 위에 그분의 저주가 나타나지 않는 곳이 없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우리 죄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는 CO 196 땅 위에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롬 3:10–12 참조), 우리가 모두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인 죄의 이 일반적인 정죄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본성상 죄를 미워하시니, 우리는 그분께 가증한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럽혀지고 오염되었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이 저주받은 것처럼 되었으니, 위에서나 아래에서나 그것들이 이 오염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악인들의 경우도 개별적으로 그러합니다. 어떤 사람이 온갖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모든 악으로 넘쳐흐른다면, 그가 닿는 모든 것이 그 안에 있는 오염으로 더럽혀진 것처럼 됩니다. 악한 사람이 자기와 사귀는 사람들을 썩게 하고 비뚤어지게 하며, 자기 자녀들을 잘못 가르치고, 자기 아내를 타락시키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의 머리 위에 있는 하나님의 은밀한 저주가 그의 자녀들과 온 집안과 가축과 나머지 모든 것 위에 쏟아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요약하면 여기서 악인들의 집에 남은 자에 관해 말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을 거스르실 때 놀랄 까닭이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 주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자신이 깊은 데 빠지고 멸망할 때, 하나님의 보응이 더 멀리까지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을 볼 때 그들의 행복을 시기하지 않게 하려고, 그리고 여기서 듣듯이 그들을 기다리는 결말을 알게 하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신자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깨달을 때, 그들은 그것에 깊이 감동을 받아서 그토록 덧없는 형통 속에 있는 악인들을 더는 행복하다고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악인들은 마지막 멸망에 이를 때까지 늘 자기 사슬을 끌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우시기만 하다면) 겉으로 비참한 것이, 사람들이 바랄 만한 모든 것을 가지면서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스르시는 것보다 낫다고 결론지읍시다. 이 구절에서 살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소발은 이렇게 말한 뒤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내고 땅이 일어나 그를 치리라고 덧붙입니다. 그는 앞에서 "아무도 불지 않은 불이 악인들을 사를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쓰지 않으시고도 당신을 거슬러 일어난 자들을 완전히 없애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는 다른 종류의 벌을 나타냅니다. 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조물들을 무장시키셔서 악인들에게 당신의 보응을 집행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위엄을 업신여기는 자들을 벌하려 하실 때 여러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말했듯이) 겉으로는 모든 일이 그들에게 잘되어 가서 그들이 아무것도 의심하거나 CO 197 불신하지 않고, 더구나 흥겨워하며 자기 행운 속에서 목욕하도록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자기 형통에 취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갑자기 짓누르실 것입니다. 그것도 사람이 만든 불이 아니라 그분의 은밀하고 헤아릴 수 없는 능력으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피조물들을 손에 쥐

고 계셔서 그것들을 우리에게 맞서 무장시키지 않으신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 파멸을 위해 일으키시는 피조물들은 그만큼의 칼, 그만큼의 활, 그만큼의 화살, 그만큼의 다른 무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말을 하는 것은, 악인들이 주제넘음으로 부풀어 오르면 자기의 뻔뻔함으로 자기 사건을 이기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낯 두꺼운 자들이 자기 죄에 대해, 그것도 어린아이들도 판단할 수 있을 만큼 뻔한 죄에 대해 꾸지람을 들을 때에도 여전히 놋쇠 이마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서른 번 꼼짝 못 하게 증명되지 않으면 결코 그들을 꺾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들을 어떻게 바로잡으십니까? 하늘이 그들을 치려고 무장할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모든 수단으로 그들의 추함을 드러내십니다. 그들이 그런 뻔뻔함을 부리고 사람들이 그들에게 한 모든 권면을 비웃으며 심지어 하나님의 위협을 우습게 여겼을 때, 그들은 쫓겨야 합니다. 사람들이 손을 대지 않아도 하나님 홀로 그들을 쫓으실 때 그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하나님을 거스르며 재갈을 물어뜯는 것밖에 할 수 없게 될 만큼 그렇게 쫓겨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광포가 지나갔습니까? 악인들이 하나님의 인내를 지나치게 남용했을 때, 그들은 자기 뻔뻔함과 고집과 함께 멸절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요약하면 소발이 하려던 말이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론 우리는 아주 자주 부당하게 비방을 받고 거짓 중상에 짓눌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사정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고, 성경이 말하듯 그분은 우리의 온전함을 새벽빛처럼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시 37:6 참조). 그래서 밤이 지나가고 우리의 무죄가 알려지지 못하게 가로막던 어두운 회오리바람이 있었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 보증인으로 나타나셔서 악한 자들과 그들의 모든 거짓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정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약삭빠르게 굴고 우리 꾀와 위선으로 빠져나가리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것을 기다립시다. 곧 하늘이 우리 죄악을 드러낼 것이고, 우리가

싫든 좋든 햇빛 아래로 나와야 하며, 한낮처럼 드러나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숨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 동안 거기 있도록 허락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가 찾아 들어간 가장 깊은 구덩이에서 CO 198 우리를 끌어내실 줄 아실 것이고, 우리의 추함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싫든 좋든 우리 죄를 숨긴 것을 부끄러워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그 죄들이 모든 피조물과 함께 일어나 우리를 칠 것입니다. 얼마 동안은 하늘도 땅도 우리 편을 들지 않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였더라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가 되시면 모든 피조물이 자기가 그분께 복종한다는 것을 보여 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이 언제나, 그렇게 빨리 일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 방식으로 집행된다고 밝혔듯이). 그러나 우리는 늘 이 말, 곧 하늘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들의 죄악을 드러내고 땅이 일어나 그들을 치리라는 말을 눈앞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권하듯 우리 죄악을 하나님께 드러내기를 배워야 합니다. 그러니 스스로 원해서 우리 빚을 고백하러 나아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 있는 자임을 깨달읍시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 죄악을 드러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덮으시고, 묻으시고, 깊은 바다에 던지셔서 다시는 기억나지 않게 하십니다(미 7:19 참조). 그다음에 우리가 하늘과 땅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당하게 정죄하실 수 있었으니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만 구한다는 것을 보였습니까? 그러면 하늘이 우리에게 외투가 되고 땅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덮어서 우리 죄악이 묻힐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우리가 하늘에서, 곧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악을 고백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우리가 교회를 걸려 넘어지게 하고 잘못 살았을 때에는 땅에서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탄식했다면 사람들 앞에서 정죄를 인정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짓으로 이기려 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 판결을 선언하신 것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셔야 할 것입니다.

소발은 이렇게 말한 뒤 그의 집의 싹이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흐르는 물처럼 떠내려가리라고 덧붙입니다. 여기서 악인들의 집의 싹을 말하는 것은, 그들이 앞날에 대해 품는 모든 희망이 그들을 속이리라는 것을 나타내려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손에 고난을 당했을 때에도 여전히 다시 싹트리라고, 새로워지고 다시 일어서리라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싹을 멸하시고, 당신의 진노의 날에 그것을 물처럼 흘러가게 하시리라고 말합니다. 물론 신자들도 하나님의 손에 고난을 당할 때 악이 영원하지 않으리라는 이 희망으로 늘 다시 일어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한순간 머물렀다면 그분의 자비는 그들에게 끝없이 이어지리라는 약속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사 54:7–8 참조). 그러므로 신자들은 CO 199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다시 싹트게 하시리라는 것을 알기에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고 또 그래야 합니다. 성경도 그들이 잘려도 뿌리는 땅에 남아 있다는 이 비유를 자주 씁니다(욥 14:7 참조). 그러나 그들이 그런 신뢰를 가질 때 자기 힘을 믿고 주제넘게 굽니까? 또 하나님을 거스르려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거기 버려두셔도 마땅하다는 것을 깨달은 뒤에, 그분이 자기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리라고 그분께 소망을 둡니다. 그러나 반대로 악인들이 자기 고난이 언제까지나 가지 않으리라고 믿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과 같고, 누가 더 단단한지 보자며 그분께 부딪쳐 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스르시는데 그들 쪽에서는 버팁니다. 곧 그들은 너무 고집스러운 악의를 품어서 목을 굽히지 않고 늘 하나님을 거슬러 뻣뻣하게 세우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에게 아첨하며 자기가 겪는 악이 지나갈 것이고 거기서 벗어나면 모든 것이 잘되리라고 스스로 믿습니다. 그들은 그런 주제넘음을 어디서 얻습니까? (내가 말했듯이)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자기들을 꺾을 만큼 강하지 않다고 여기고 결코 그분께 복종하려 하지 않는 그들의 마귀적인 교만에서 나옵

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에 담긴 것을 잘 새겨야 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이 싹을 물처럼 흘러가게 하시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악인들이 아무리 주제넘게 굴며 자기가 회복될 수 있으리라고 스스로 믿어도 소용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뽑아 버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싹이 얼마쯤 남아 있더라도, 곧 하나님께서 작은 흔적을 남겨 두셔서 그들이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은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것마저 흘러가 버릴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와 함께 이 말도 따져 보아야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른 척하시고 악인들을 바로 잡으려고 손을 대지 않으실 때 그분이 한가로이 계신다고 상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께는 알맞은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확실하고 정해진 날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이에 악인들이 형통하고 개선의 노래를 부르며 어떤 악도 결코 그들에게 닥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진노에 그날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실 때가 언제인지 잘 아신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말하건대) 인내로 기다립시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봐주신다고, 얼마 동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보응을 느끼게 하지 않으신다고, 우리가 그분을 거슬렀는데도 그분이 우리를 아주 조용히 두시고 부드럽게 대하신다고 해서 잠들지 않기를 배웁시다. (말하건대) 그것으로 스스로에게 아첨하지 맙시다. CO 200 사람들이 자기 죄에 절어 잠들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참아 주신다는 핑계로 그분의 진노를 생각하지 않는 것보다 더 위험한 속임수는 없습니다. 그때 그들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5절)에서 말하듯 더 큰 진노를 보물처럼 쌓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평안히 지내는 동안 스스로에게 아첨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의 그날을 늘 생각하며 그날을 미리 막기를 배웁시다. 그것도 날마다 우리 재판관 앞에서 떨면서, 우리가 그분께 그토록 많은 빚을 졌으

니 그분이 우리를 긍휼히 받아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사정을 변호하는 일이 문제가 될 때 입을 다뭅시다. 그런데 소발이 이것을 자기 이야기에 잘 적용했다면, 그는 지금처럼 욥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자기가 일반적으로 하는 말을 욥에게서 깨달았을 것입니다. 곧 악인들이 형통하는 동안 흠 없는 삶을 산 욥이 혹독하게 고난을 당한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고 불의한 자들을 인정하신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께는 당신의 진노의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소발은 하나님의 선지자와 같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그는 발람처럼 모든 것을 비틉니다. 자기가 말한 하나님의 진노의 알맞은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이 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말한 그런 지혜, 곧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벌하실 알맞은 때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헤아리는 지혜를 가질 것입니다.

우리가 들은 이 가르침 전체를 마무리하려고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악인의 몫이니, 참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그의 말 때문에 그의 기업도 하나님께로부터 이러하다.” 이 결론은 우리가 앞에서 들은 것에 인을 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마음에 더 확실해지고, 우리가 온전히 확신하며, 아무 의심 없이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악인들의 몫입니다. 누구에게서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입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악인들은 이 세상에서 흥겨워하며 고삐 풀린 말처럼 굴 것이다. 그들에게는 하늘에 재판관이 계시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그들은 그분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을 그분의 위엄에서 끌어내릴 수 없고, 그분이 그들의 일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특별히 이것은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악인들을 놀라게 하려는 것입니다. 모든 신자에게도 좋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사람들이 용서해 줄 많은 악을 저지를 수 있고, 심지어 아무도

우리를 나무라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결국 재판관 앞에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나아갈 때 사람들의 이 봐주기가 우리에게 두 배의 정죄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에 두 번 나타나 있으니, 이 구절에서 우리가 거두어야 할 경고가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아주 자주 CO 201 자기 의무를 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하도록 직분을 맡은 사람들도 그렇다고 나는 말합니다. 우리는 저마다 잘못하는 사람들을 권면하고 바로잡는 데 거의 마음을 쓰지 않고, 모두 모른 척합니다. 심지어 걸림돌을 억누르려고 손을 대야 할 법정도 아주 자주 모든 것을 그냥 넘길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전체적으로나 개별적으로나 모른 척하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직무를 게을리하지 않으십니다. 봐줌을 받은 사람들과 그렇게 봐준 사람들이 모두 셈하러 나아가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이름은 (이 구절의 정황과 함께) 우리에게 큰 무게로 다가와야 합니다. "이것이 악인의 몫이니, 참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데 까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우리 손을 잡아 주고 우리 죄에 눈을 감거나 우리 죄를 용서해 줄 때 우리가 흔히 붙잡는 그 모든 헛된 신뢰를 긁어내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지 맙시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두 배의 수치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빠져나갔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재판관으로 나타나셔야 하리라는 것을 깨달읍시다.

그런데 '몫'과 '기업'을 말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벌하지 않고 두지 않으시리라는 이 가르침을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려는 것입니다. 저마다 자기에게 정해진 것을 자기 몫이라고 부르듯이,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악인들에게 그들에게 속한 것을 정해 두셨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기업, 곧 그들의 유산 같은 것이어서,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내리실 이 징계보다 사람에게 더 고유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는 '말' 을 언급합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악인들이 하나님을 거슬러 쏟아 내는 모독에 국한합니다. 그러나 여기 쓰인 낱말에는 나쁜 뜻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더 단순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곧 악인들이 원하는 만큼 핑계를 늘어놓아도 그 모든 것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말과 함께 정죄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소발은 욥을 겨냥하고 있으며, 그 점에서 그는 (앞에서 밝혔듯이)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합니다. 그래도 이 말씀은 여전히 참되고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일반적으로 선언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곧 악인들이 자기 모든 말과 함께 하나님의 손에 멸절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이 여기 놓인 데에는 까닭이 있습니다. 악인들이 번번이 하나님을 거슬러 변론하려 하고, 자기의 둘러대기로 놀라운 일을 해내리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얼마 동안 그들이 그렇게 변론하도록 두십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분은 창세기(6:3)에 기록된 것을 보여 주십니다. "나의 영이 더는 사람과 다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더할 나위 없이 엄청난 악의를 참으셨습니다. CO 202 사람들이 그렇게 그분의 인내를 남용하는 것을 보시고 그분은 "나는 더는 다투지 않겠다. 내가 손을 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악인들은 자기를 의롭다 하려고 날카로운 혀를 가지고 하나님을 거슬러 그럴듯하게 말을 늘어놓을 줄 알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사정을 낫게 하겠습니까? 결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칼을 벼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 머리 위에 그만큼 더 엄한 심판과 그만큼 더 무서운 보응을 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슬러 변론하려고 혀로 무장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손을 무장하셔서 하늘에서 그 손을 드시고 그렇게 당신을 거슬러 변론한 모든 사람을 부끄럽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악인들을 지금보다 더 감동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세상의 큰 부분에 짐승 같은 둔함이

있다는 것을 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 아래, 그분의 이름과 권위로 우리에게 하는 꾸지람 아래 굽히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뻔뻔하게 대들어서, 튀르크 사람들과 이방인들 사이보다 경건(religion)이 더 없다는 것이 잘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마다에게 사사로이 하는 권면이 쓸모없을 뿐 아니라, 강단에서 아주 뻔한 잘못을 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온전히 겸손하게 그분께 간구해야 하는데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슬러 대놓고 대들기로 마음먹었다는 것 말고 무엇이 보입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지난 주일에 여기 가까운 콜로니에서 저질러진 그토록 추잡한 무례에 대해 말했을 때,[28] 사람들은 자기를 변명하고, 하나님을 거슬러 공모하며, 온통 알려진 일을 어떻게 덮을 수 있을지 궁리합니다. 예배당에서 설교가 중단되었습니다. 이 한량들이 경고를 받아도 그만두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일깨웠습니다. 오, 어떻게 됩니까? "그런 일은 참을 수 없다" 합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을 그럴듯하게 꾸밀 방법을 찾고, 심지어 마치 자기들에게 큰 잘못을 한 것처럼 시비를 걸려고 할 것입니다. 가련한 사람들이여, 여러분을 성찬에 준비시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 추잡한 방탕을 싫어하게 하려고 그것을 일깨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귀에 들리지 않았다면) 적어도 여러분이 얼마쯤 찔림을 받아 마음을 쥐어뜯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반대로 광포한 사람들처럼 와서 온갖 악을 꾀합니다. 이것으로 여러분이 대놓고 하나님과 싸우기만 바란다는 것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감추어져 있지만 온 세상이 아는 일들을 말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은 흔해 빠진 음행을 보고, 모독을 보고, 술 취함과 식탐과 그 밖의 방탕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과 모든 교회 질서에 대한 멸시를 보고, 부패와 잔인함을 보며, 이리들 사이만큼의 인정밖에 없어서 CO 203 이 사람을 모욕하고 저 사람을 약탈하는 것밖에 문제가 아니고 사람들이 더는 아무

28. 콜로니(Cologny)는 제네바 근교의 마을입니다. 이 설교 무렵 그곳 예배당에서 설교가 방해받은 일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끄러움도 없다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봅니다. 그런데 더 엄청난 일들이 있어서 그것을 강단에서 말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은 마땅히 훨씬 더 괴로워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양심으로 내 손에서 성찬을 받으러 오겠습니까? 당신은 유다처럼 거기 올 것입니다. 그러나 떨면서 가인처럼 하나님의 보응을 느껴야 할 것이고, 당신이 온통 드러나고 공공연히 선언된 유기된 자라는 것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예를 든 것은 우리가 더는 하나님을 거슬러 대들지 않기를 배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다투려 하실 때, 아, 우리가 우리 사정에서 이기려고 무슨 변론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더구나 하나님께서 긴 소송을 벌이시느라 시간을 보내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맙시다. 그분은 판결을 새로 선고하지 않으시고 결론을 내리시고 집행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세상의 재판관으로 나타나시는 성경에 우리에게는 그것이 충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그분과 다투기를 두려워합시다. 오히려 목을 굽혀 그분의 멍에를 메기를 배웁시다. 그분이 우리에게서 반역을 찾지 않으실 때 그 멍에는 메기 쉬울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새겨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잘못을 고백하면 그분의 자비로 무죄 선고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변론하려 하고, 우리 죄악을 덮으려고 핑계를 쓰려 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으로 꼼짝 못 하게 증명될 뿐 아니라, 그분이 우리 위에 손을 그토록 혹독하게 대셔서 우리가 그분 아래 짓눌릴 것이고, 그것도 아무 처방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더는 용서를 구할 때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당신께 자비를 얻을 방법을 내놓으실 때, 그분이 우리에게 정해 주신 이 알맞은 때를 씁시다.

이제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엎드립시다.

제78편

욥기 21장 설교 1

CO 34:204–215

AI로 옮긴 초벌 번역입니다. 신학 감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CO 권: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 그러자 욥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내 말을 들어 주게. 그것이 자네들의 위로가 되게 하게. 나를 참아 주게. 내가 말하겠네. 내가 말한 뒤에 자네들은 조롱하게. 내 말이 사람을 향한 것인가? 만일 그렇다면 내 영이 어찌 쇠하지 않겠는가? 나를 보게. 그리고 놀라서 손으로 입을 막게. 내가 그것을 기억하기만 해도 두렵고, 떨림이 내 몸을 사로잡네. (욥 21:1–6)

CO 204 욥이 여기서 펼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벌하지 않으시고 그냥 두셔서 그들이 형통한다고 내세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행하시는 심판을 성경이 증언하는 대로 헤아려야 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언뜻 보기에 욥의 이 말은 모든 진리에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밝힌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곧 성경이 하나님의 심판을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흠잡을 데 없이 다 이루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분은 지금 세상의 재판관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시지만, 그것은 모든 일에서 어디서나 그런 것이 아니고 똑같은 방식으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악인들이 당신의 손을 피할 수 없고 모두가 셈하러 나아가야 하리라는 어떤 표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때로 모른 척하기를 그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경험으로 그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선한 사람들을 지키고 보존하시며,

악한 사람들을 벌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되, 그것을 확실한 규칙으로 삼아서 모든 악인이 첫날에 벌을 받고, 하나님께서 내일까지도 미루지 않으시며, 그분께 인내가 없고, 그분이 오는 생명에 아무것도 남겨 두지 않으신다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큰 혼란에 빠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되고 온전해지는 것을 마지막 날에 기다려야 한다는 방식으로 그것을 깨달으면, 언뜻 보기에 욥의 말과 성경 사이에 있는 것 같은 모순을 우리는 잘 풀 수 있을 것입니다. 욥은 무엇을 주장합니까? 우리는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기는커녕 그들이 죽을 때까지 온갖 쾌락과 즐거움에 들떠 있으며, 쇠약하게 시들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특권으로 그들을 모든 CO 205 악에서 면제하려 하시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욥은 모든 것이 운수로 다스려지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일을 돌아보지 않으시며 그것에 관심이 없으시다는 뜻을 나타내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의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신도 사람들이 자기 말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아오실 때 대번에 그에게 정죄를 선고하며 "저 사람은 악인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께 미움받고 버림받았다"고 말해서는 안 되고, 그의 삶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 주려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언제나 사람들을 그들이 받아 마땅한 그대로 온전히 대하신다고 여겨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는 그토록 많은 불의한 자들이 왜 봐줌을 받습니까? 그분이 그들을 아무 징계도 하지 않으시니,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께 알려지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드러나지 않는 많은 벌을 마지막 날을 위해 남겨 두신다는 것을 깨달읍시다. 그 밖에 그분은 당신이 사랑하시고 당신을 그다지 심하게 거스르지 않은 사람들을 큰 엄격함으로 대하실 것인데, 그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까닭을 모른다면 겸손해집시다. 아직 그 이유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일에서 영광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욥이 무엇을 주장하는지 봅니다.

그러나 여기 담긴 것에서 더 잘 유익을 얻으려면, 그가 놓은 순서대로 일들을 풀어 가며 살펴봅시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을 들어 주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게. 그것이 자네들의 위로가 되게 하게." 곧 "자네들이 나를 위로하러 왔으니"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욥의 친구들이 그 목적으로 거기 왔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그토록 가련한 처지에 있는 것을 보고 동요했고, 사람의 이치에 따라 욥이 절망한 사람이라고 결론짓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벌하신다는 이 일반적인 명제에 이렇게 눈이 부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욥을 가장 악한 자들의 대열에 넣는데, 그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는 그들에게, 그들이 자기를 위로하러 왔다면 자기는 그들이 참아 주고 자기 말을 들어 주기만 바란다고 말합니다.

그다음에 그는 둘째로 자기 말이 사람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위선자들은 세상 앞에서 자기를 의롭다 한 것으로 만족합니다. 실제로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을 피하고, 억지로가 아니면, 그리고 그들 안에 있는 것을 잘 살펴보기 전에는 결코 깨달음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욥은 자기 말이 사람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곧 그는 사람들 앞에서 꾸미고 뽐내려는 야심이나 허영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는 증거로, 내가 사람들을 바라보았다면 내 영이 버틸 수 있었겠는가? 자네들은 내가 여기서 이런 궁지에 있는 것을 보네. CO 206 이토록 비참한 처지에서 견딜 수 있는 피조물은 없네. 나는 벌써 백 번은 깊은 데 빠졌어야 했네. 그런데도 내 영이 쇠하지 않는 것을 자네들이 볼 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손을 깨닫고 거기에 나를 맡기며 그분께 기대고 있다는 표시가 아닌가? 내가 여기서 흔들리는 갈대처럼 있지 않으니, 내게 더 낫고 더 단단한 기초가 있다는

것을 자네들이 알 수 없겠는가?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처럼 말하는 것을 자네들이 보니, 내 말을 들어 주게."

이어서 그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내가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주게. 나를 바라보면 나 스스로도 소름이 끼치고, 여기서 나를 놀라게 하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네." 욥은 온갖 두려움의 구경거리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일어난 일을 읽으면 우리 머리털이 곤두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는 자기를 생각하거나 자기에게 닥친 그토록 큰 재앙을 기억하기만 해도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자네들이 내 처지를 잘 알게 되면 그때 자네들은 놀라서 손으로 입을 막을 것이네." 곧 이런 뜻입니다. "자네들은 지금까지 한 것처럼 더는 나를 고발하지 않을 것이네. 자네들은 나에 대해 너무 편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은 자네들이 내게 있는 이토록 큰 비참을 조금도 불쌍히 여기거나 가엾게 여기지 않는다는 표시이기 때문이네." 그런데 여기서 먼저 새겨야 할 것은, 우리가 가련한 고난받는 사람들을 위로하려 한다면 어떻게 할지 잘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이 일에는 특별한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병과 같습니다. 의사가 모든 환자에게 같은 처방을 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뜨거운 병도 있고 차가운 병도 있습니다. 어떤 병은 사람을 말려야 하고, 다른 병은 식혀야 합니다. 어떤 병은 조여야 하고, 다른 병은 풀어 주어야 합니다. 이처럼 의사가 병을 살피지 않으면 환자들을 죽일 것입니다. 더구나 환자들의 체질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으로 찾아오시는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다음에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보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들인지 보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흠 없이 살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행했으며 온전함의 모든 표시를 보였는데, 그가 고난받는 것을 보고 우리가 그를 정죄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이 크게

잘못해서 한동안 하나님을 거슬렀더라도, 그가 겪는 역경에 꺾이고 우리가 그에게서 바른 회개밖에 보지 못하는데도 우리가 그에게 큰 혹독함을 쓴다면, 그것은 짐승 같고 악한 잔인함이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CO 207 우리는 그렇게 쓰러진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그들을 일으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실하게 가르치려는 사람들의 직무는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고,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곤경과 고뇌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입니다(사 35:3 참조).

이처럼 우리는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려면 큰 지혜를 써야 합니다. 그러므로 욥이 친구들에게, 그들이 자기 고통을 더 무겁게 하려고 말하기보다 잠잠한 것이 훨씬 낫고, 그들의 침묵을 위로로 받겠다고 말하는 데에는 까닭이 있습니다. 더구나 그는 그들이 자기 말을 들은 뒤에는 조롱해도 좋다고 덧붙입니다. 그들에게 그렇게 할 정당한 까닭이 있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어리석은 재판관은 판결이 빠르다"는 속담처럼 그들의 무모함을 꾸짖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욥의 말을 듣기도 전에 그를 정죄하는 데 너무 서둘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가 자기 말을 들은 뒤에 그들이 조롱해도 좋다고 할 때, 그는 그들에게 혼란과 무모함밖에 없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일, 아직 잘 알아보지도 않은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에서 우리는 공통의 가르침을 새겨야 합니다. 곧 판단하는 일이 문제가 될 때 우리 자신에게 고삐를 매고, 그렇게 성급하지 말고 사실의 진상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본성상 더할 나위 없이 이런 무모함과 성급함에 기울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니, 더욱 이 일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원숙하고 차분한 분별력을 가졌다는 평판을 얻고 싶어 하지만, 그 일에 힘쓰는 사람은 아주 적을 것입니다. 더 나쁜 것은, 굼뜬 사람으로 여겨질까 봐 서두르면서 자기 영리함을 보여 주려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흔히 우리를 지나친 대담함으로 곤두박질치게 하고, 아무 까닭도 공평함도 없이 이웃을 함부로 판단하게

하는 원인입니다. 이 악이 우리에게 그토록 자연스럽다는 것을 보니, 말하기 전에 일들을 살펴보기를 배웁시다. 지혜로운 사람은 늘 귀를 기울이고, 어리석은 사람은 입을 벌리고 있어서 결코 말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는 데에는 까닭이 있고(잠 17:27–28), 우리도 그 말을 잘 할 줄 압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우리는 그것을 잘못 실천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으뜸가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사도 야고보가 그것을 보여 줍니다. 그는 우리가 말하기를 더디 하고 가르침 받기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합니다(약 1:19 참조). 우리가 말을 서두르지 않는 그런 겸손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들을 깨닫는 은혜를 베푸실 것이고, 깨달은 뒤에 우리는 그 일이 어떠한지 그대로 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CO 208 요컨대 우리가 너무 성급한 재판관이 되지 않기를 배웠다면 큰 유익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이웃을 판단하면 두 가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업신여기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일깨우듯 모든 사람이 그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고후 5:10 참조). 그러니 내가 이웃에 대해 어떠한지 잘 알기도 전에 그를 판단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권위를 침범하는 것이고, 내게, 아니 낙원의 천사에게도 속하지 않은 것을 나 자신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뻔뻔한 일입니까? 물론 우리가 악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것도 우리 공상대로가 아니라 참으로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것을 거리낌 없이 정죄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도 무모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 우리는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내리신 판단을 인준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성급할 때 그것은 신성모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고유한 권리를 그분에게서 빼앗아 우리 자신에게로 낚아채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 우리가 감추어진 일들을 판단하려 하니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모욕을 당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분수를 알아야 하고, 우리가 모르는 것을 알아볼 필요가 있으며, 잘

알기까지는 "그것은 이러하다"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이유는 우리를 잘 붙잡아서 우리가 이웃을 판단하는 데 너무 대담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 밖에 사람들에 대해 이런 겸손을 지켜야 한다면,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어떻겠습니까? 이를테면 누가 어떤 가르침을 잘 살펴보기도 전에 한마디 거든다면, 묻건대, 그런 무모함은 두 배로 정죄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미 우리가 형제들을 잘 알기도 전에 그들을 판단하면 하나님의 영예를 빼앗는 신성모독자라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가르침이 사람들보다 훨씬 더 귀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내가 어떤 가르침을, 그것도 성경에서 나온 가르침, 신앙의 어떤 조항을 함부로 물리친다면, 그것은 거룩한 것들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사람들이 이 일에서 넘치도록 대담한 것을 봅니다. 오늘날 가르침에 대해 남보다 먼저 믿어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술 취하고 방탕하고 속된 사람들,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는 짐승들, 아니 돼지들만큼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가르침에 주둥이를 들이밀고, 성경으로 잘 인준된 진리를 거슬러 기를 쓰고 논쟁하려 할 것입니다. 누가 그들에게 그런 뻔뻔함을 줍니까? 그들이 듣기를 하찮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CO 209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주제넘음을 벌하셔서, 그들이 늘 혀를 놀리고 결코 인내로 들으려고 귀를 열지 않는 어리석은 자들의 대열에 있다는 것을 보여 주십니다. 그러니 더욱 이 구절과 여기서 우리에게 하는 이 권면을 실천해야 하고, 우리 각 사람이 판단하기를 더디 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가르침을 잘 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제자였던 적이 없는 사람은 결코 좋은 스승이 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한 번도 도제였던 적 없이 첫날부터 어떤 기술을 부리려 한다면, 그는 참 훌륭한 일을 해낼 것입니다. 참 대단히 나아갈 것입니다. 손재주의 기술에서도 그러하다면, 모든 사람의 정신을 넘어서고 천사들도 경배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스승이 되려면 학생이었어야 할 뿐 아니라, 남을 가르치려 할 때 평생 동안 꾸준히 배우고 깨우쳐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을 가르치는 은혜를 베푸셨을 때 자기 쪽에서는 더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 못지않게 배우려고 힘쓰지 않는 사람은 결코 선하고 신실한 교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읍시다. 요컨대 가르치는 사람이든 듣는 사람이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제자여야 하고, 죽을 때까지 그 가르침에서 점점 더 자라가야 합니다. 이 구절에 관해서는 이렇습니다. 이제 욥이 하는 이 선언으로 갑시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은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네. 만일 그렇다면 내 영이 어찌 쇠하지 않았겠는가?” 여기서 욥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 그들이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보여 줍니다. 그는 앞에서도 비슷하게 선언했지만, 그것을 되풀이하는 데에는 까닭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땅에서 헤맬 때 우리 말에는 쓸데없는 꼬리가 많이 끌려 다니고, 우리가 마땅히 그래야 할 만큼 솔직하고 진실하게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러듯 우리 말을 꼬아서 우리에게서 순전한 진실을 끌어낼 수 없게 만드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눈이 부셔서 일들을 마땅히 분별하지 못하니, 우리는 이미 우리 쪽에서 그들을 따르려는 경향이 있고, 그다음에 마귀가 끼어들어 모든 것을 휘저어 놓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눈앞에 두고 그분 앞에서처럼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 말은 결코 잘 풀리고 정리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에는 참으로 찔림을 받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눈으로 판단하고, 우리는 우리 악덕을 숨기기만 바라며, 악이 그다지 드러나지 않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기 죄 속에서 잠들고, 결코 마땅히 해야 할 만큼 솔직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CO 210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당신 앞에 불러내시고 자기들에게 소송을 거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이

그것을 미리 막아서 하나님께서 정죄하실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오히려 스스로 원해서 정죄를 인정하지 않는 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욥은 여기서 자기 말이 사람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물론 우리가 말할 때 우리 말이 이웃에게 덕이 되도록 이웃을 잘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가볍고 엉뚱한 말을 내던지면 이웃을 걸려 넘어지게 하고 여러 가지로 그들을 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을 향해, 곧 무엇이 그들에게 유익할지 살피며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 욥에게서 말하는 것, 곧 하나님께서 앞서 가셔야 한다는 것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 욥이 뜻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그들이 거칠고 무식한 것을 보면 어떤 식으로든 그들에게 자기를 맞추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은 잊히거나 뒷전에 밀리고 사람들만 만족시키려는 그런 허영에 이끌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말할 때 이미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셈하고, 자기 모든 생각이 이 하늘의 재판관께 알려져 있으니 아무것도 꾸며서는 안 되며, 진리를 흐려 놓는다고 자기 사정이 나아지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욥이 바라보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미 짚었듯이) 우리 안에 이런 지혜를 가집시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당신께로 부르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그분의 손에 찾아옴을 받을 때마다 그분이 우리 마음과 정신을 깊이 찔러서, 우리 잘못 때문에 우리를 벌하시는 분이 그분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모든 생각이 그분 앞에 펼쳐지며, 사람들의 마음에 들려고만 그렇게 지껄이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눈이 부셔서 우리 말에 취하지 않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하건대) 이 구절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욥이 덧붙이는 이유를 잘 간직해야 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어찌하여, 왜 내 영이 쇠하지 않겠는가?” 그는 이 말을 끊어진 채로 두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뜻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렇게 사람들을 향하는 사람들은 마침내

쇠하고, 처음에 그럴듯한 모습을 보였더라도 마침내 위선이 드러나리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경험으로 그것을 봅니다. 그렇게 야심에 이끌려 늘 사람들에게 평판을 얻고 싶어 하고 그것 말고는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 멋진 말을 하고 그토록 아름다운 수사를 구사해서 그들의 말을 들으면 눈이 부시고 놀라울 것입니다. 그 때문에 그들은 사람들이 박수를 칠 때 그 속에서 목욕합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몰아붙이셔서 그 속에 온통 꾸밈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 주십니다. CO211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그 분칠을 벗기십니다. 분칠한 여인들이 햇볕 아래 나와서 열기가 내리쬐면 그 분칠이 벗겨져서 그들의 갈라진 틈이 보이고 그들의 추함이 너무 드러나서 가서 숨을 수밖에 없는 것과 같습니다. 위선자들도 그러합니다. 그들은 그럴듯한 모습으로 넘치도록 세상의 존중을 받아서 사람들은 그들에게 아무 악도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 동안 그들을 그대로 두셔서 그들이 사람들 앞에서 빛나게 하십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의 꾸밈을 비웃으시면 그들은 온통 일그러집니다. 그들은 더는 견딜 수 없을 만큼 두 배, 세 배로 몰리고, 더는 전처럼 지껄일 일이 없습니다. 그들의 그 모든 아름다운 수사가 그들을 저버립니다. 그러므로 이 이유를 잘 새겨서, 하나님께서 그런 힘과 강압으로 우리를 몰아붙이시기 전에 스스로 원해서 그분께 나아가고 그분 앞에서처럼 말하도록 마음을 쓰기를 배웁시다. 이처럼 여기 놓인 이 이유는 우리에게 위협처럼 쓰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위선을 피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 우리 말에서 늘 그분을 바라보는 그 솔직함을 따르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욥의 본을 따를 때 그분이 분명히 우리가 버티는 은혜를 베푸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인과 유다와 그들 같은 자들도 마침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그것으로 감동을 받아 회개로 돌아온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억지로 거기까지 데려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욥을 따릅시다. 곧 우리 재판관의 얼굴 앞에 머물기를 구하고, 온전히 겸손하게 거기로 나아가며, 그분의 의를 깨달아서 그분께 속하고 그분이 받아 마땅한 영광을 돌려 드립시다.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며 그분의 선하심으로 도움 받기를 구한다면, 오, 우리가 끝까지 몰리고 깊은 데 빠진 것처럼 보일 때에도 우리 영이 쇠하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말하건대) 우리는 붙들리기를 그치지 않을 것이고, 마침내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찾고 스스로 원해서 당신께 나아오는 모든 사람을 받아 주시되, 그들을 당신 품에 안으시듯 받아 주시고, 그들의 연약함이 크더라도 결코 쓰러지지 않도록 그들에게 그런 버팀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친구들이 자기를 바라보면 놀라서 입을 닫을 수밖에 없고 스스로 잠잠하려고 손으로 입을 막으리라고 덧붙이는 데에는 까닭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참으로 깨닫는다면 분명히 지금보다 더 절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판단할 만큼 대담한 까닭이 무엇입니까? CO 212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 주시는 것을 잘 살피지 않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를테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괴롭히시는 것을 보면 물론 우리는 그것이 그분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벼운 깨달음입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아무개를 그의 죄 때문에 벌하신다." 그러고는 그 일에 벼락을 내리치는 것밖에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마땅히 헤아린다면 더 절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잘 헤아리려면 무엇보다 먼저 우리 죄를 생각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서 늘 천 사람, 아니 훨씬 더 많은 사람을 가르치려 하신다는 것, 나타나는 모든 징계와 역경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그만큼의 가르침과 교훈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누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그 사람에 관한 것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의 위엄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분명히 뿔을 쳐들지 않고, 그런 경외심을 가져서 우리 이웃을 판단할 때에도 두려움과 떨림으로 할 것입니다. 또 우리 각 사람이 그 전에 자기 자신을 판단하고 정죄했어야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훨씬 더 무거운 정죄를 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가련한 죽을 피조물이요 가련한 땅의 벌레인데 내 이웃을 판단하러 간다. 하나님께서 재판을 여실 때 나를 거슬러 무엇을 하시겠는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한다면, 묻건대,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겠습니까?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볼 때, 우리가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받아 마땅하고 그분이 우리를 더 엄하게 대하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잔인하다고 고발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의로우십니다. 그러니 그분이 아무개를 그렇게 혹독하게 벌하신다면 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하건대) 우리가 이렇게 헤아린다면 그것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행하게 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느끼게 하시듯 불쌍히 여기심과 자비를 베풀지 않으셨다면 우리 위에 있었을 정죄를 깨달으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할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두드러진 심판, 곧 기억할 만하고 흔하지 않은 심판을 볼 때 그것은 우리를 더욱 깊이 찔러야 하고, 우리가 놀라서 입을 닫을 만큼 큰 두려움을 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익숙해져서 길든 흔한 역경을 볼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깨닫지 못할 만큼, 그리고 그것을 깨달으면서 두려움으로 쓰러지고 겸손해지지 않을 만큼 둔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CO 213 때로 팔을 펼치셔서 우리가 알지 못했고 결코 생각지도 못했을 일들을 보게 하십니다. 무서운 벌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것은 이상하다. 이런 일은 들어 본 적이 없다." (말하건대) 우리는 그런 것을 볼 것이고, 그때 더욱 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잠들어 있고 너무 무심한 것을 보시면 우리를 깨우십니다. 어떤 사람이 잠에 너무 깊이 빠져서 불러도 대답하지 않더라도, 누가 와서 그를 흔들거나 억지로 팔을 잡아당기면 그가 깰 수밖에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대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이 보내시는 흔한 징계에 움직이지 않고 굼뜨고 무심하니, 그분은 우리를 억지로 깨우시려는 것처럼 크고 엄청나며 전에 들어 본 적 없는 벌을 보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유익을 얻도록 마음을 씁시다. 그저 두려움에 사로잡히거나 그분을 피할 만큼 놀라기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피하고 그분을 경외하며 행하도록 재촉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해 주시기를 구합시다. 그분께 붙들리고 지켜지지 않으면 우리에게 다른 일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놀라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람들은 그 심판을 잊어버리기만 바라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우울한 이야깃거리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괴롭히시면 (내가 이미 밝혔듯이) 우리는 모두 거기서 유익을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런 가르침을 억누르지 않는 사람이 아주 적습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시고 당신의 매로 우리를 치실 때에도 우리는 우리 정신을 흐려 놓고, 하나님의 손을 감추려고 여기저기서 헛된 둘러대기를 찾으려 애씁니다. 우리가 매를 잘 느끼면서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람들을 놀라게 하려고, 아니 돌들도 움직여야 할 하나님의 이상한 심판의 기억을 묻어 버리려 합니다. (말하건대) 우리는 그것을 묻어 버리려 할 만큼 악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 본보기들을 보았듯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귀가 울릴 만큼 무서운 심판을 행하셨을 때,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 말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제네바의 명예를 지킨다는 이 훌륭한 수호자들이 그 일로

야단법석을 떨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하건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무서운 구경거리요 두려움과 공포가 되기를 원하신 그 사람에 대해 말할 때, 그 일을 기억에 되살려[29] CO 214 하나님과 모든 경건(religion)을 거스르던 모독자가 낚아채이듯 데려가져서, 그를 배 속에 품었던 어머니가 마귀가 그를 데려갔다고 증언한다는 것을 보여 주면,[30] 그들은 사람들이 도시의 명예를 더럽힌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것이 도시의 명예를 위한다는 이 훌륭한 열심당들입니다. 그들은 제네바가 깊은 데 빠지기를 바랄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잘 알고, 그들을 손가락으로 가리킬 필요도, 그들의 이름을 댈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은 충분히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도시의 명예를 지키려는 척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지 사람들은 잘 봅니다. 이처럼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묻어 버리려 합니다. 그들은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그분의 자리에서 끌어내려서 그분의 관할 아래 있지 않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무서운 방식으로 일하실 때 우리가 거기에 움직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짐승보다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한량들은 그 모든 것이 묻히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 밖에 여기서 보여 주는 것을 잘 새깁시다. 곧 하나님께서 강한 손을 드셔서 흔하지 않은 방식으로 일하신다면, 그것은 너무 잠든 사람들을 깨우시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끄셔서, 우리가 놀라서 당신께 피하고 당신의 그늘 아래 숨기를 배우며,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깊은 구렁 밑바닥까지 넘어지지 않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구절에서 새겨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입을 닫는다고 말할 때, 그것은 히브리 사람들 사이에서 꽤

29. 원문에는 "momerie"(가면극, 우스갯짓)로 되어 있으나, 문맥상 "reduire en memoire "(기억에 되살리다)의 "memoire"를 잘못 찍은 것으로 보고 옮겼습니다.
30. 칼빈이 이 무렵 제네바에서 실제로 있었던 한 모독자의 죽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을 설교에서 언급하자 시의 명예를 내세워 반발한 사람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흔한 말투입니다. 이를테면 선지자와 지혜자가 손으로 입을 막으리라고 말할 때, 그것은 일들이 너무 어지러워서 가장 배우고 경험 많은 사람들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고 모든 판단을 잃으리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 지금 욥은 놀란 사람들이 스스로 잠잠하려고 손으로 입을 막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행하시던 이 심판이 사람의 감각으로는 무섭고 두려운 것이었고, 육신을 따라 그것을 판단하려 했다면 욥을 바라보며 당황하는 것밖에 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기서 공통의 가르침을 거둡시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진 방식으로 일하실 때 우리는 그분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그분이 당신 일의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 주시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 말할 수 있도록 그것을 알려 주기를 원하실 때, 그분이 우리 입에 말을 넣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 하나님의 일이 우리 감각을 넘어서서 그분이 왜 일들을 우리가 보는 대로 정하시는지 우리가 모르는 것을 볼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손으로 입을 막아야 합니다. 곧 CO 215 그것에 대해 지껄일 만큼 뻔뻔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 능력을 알아서 들판을 가로질러 헤매지 말고 늘 바른길을 따릅시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만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를 이 규칙으로,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데까지만 알라는 규칙으로 데려갑니다(롬 12:3). 그분이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동안에는 담대히 나아갑시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가 없을 때에는 거기 멈추어서 벙어리처럼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늘 입을 열고 있어야 합니다.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 감각에 복종시키려고 주제넘게 굴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남겨 두지 않으시기를 바란다면, 그것이 어디로 가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드러내 놓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 아닙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감추려 하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무지가 우리에게 알려지게 하시고, 그 사이에도 우리가 그분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인정하

며 그분의 놀랍고 헤아릴 수 없는 뜻을 경배하기를 그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미 짚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 일의 이유를 보여 주실 때에는 그분의 선하심에 감사드리며 이렇게 말합시다. "주님, 주께서 왜 이것이나 저것을 하시는지 우리에게 밝혀 주실 때, 주께서는 가련한 피조물인 우리에게 참으로 낮게 내려오십니다. 주께서 그럴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그토록 친밀하게 주의 선하심을 나누어 주시니, 주의 선하심은 우리에게 높임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 일의 이유를 감추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 높다면, 입을 닫읍시다. 곧 우리 공상대로 가볍게 지껄이지 말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무지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보여 주시는 것만 아는 것이 신자들의 참된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계시의 마지막 날이 와서 우리가 그분을 그분의 영광과 위엄 가운데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뵐 때까지, 그분이 어떤 식으로 일하시든 하나님 앞에서 잠잠합시다.

이제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엎드립시다.

제79편

욥기 21장 설교 2

CO 34:216–228

AI로 옮긴 초벌 번역입니다. 신학 감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CO 권: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 어찌하여 악인들이 살고, 늙어 가며, 재물 속에서 즐거워하는가? 그들의 씨는 그들 눈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그들의 자손이 그들 앞에 있네. 그들의 집은 두려움 없이 평안하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있지 않네.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배게 하고 헛되이 하지 않으며, 그들의 암소는 새끼를 낳고 낙태하지 않네. 그들은 어린것들을 양 떼처럼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뛰노네. 그들은 소고와 수금을 울리고, 오르간 소리에 즐거워하네. (욥 21:7–12)

CO 216 우리는 어제 욥이 언뜻 보기에 꽤 나쁘다고 여겨질 수 있는 말, 곧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벌하지 않고 두신다는 말을 무슨 의도로 펼치는지 보았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직무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세상의 재판관이시니 여기 아래에서 저질러지는 악을 바로잡는 것이 그분의 일입니다. 사람들이 비뚤어지는 것을 보시면 그분이 그들을 억누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는 사람들이 당신을 업신여기는 것을 보시면 당신의 영광을 지키시고 그렇게 교만과 반역으로 높아지는 자들을 낮추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악인들이 하나님을 거슬러 흥겨워하며 그대로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잠드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욥은 이런 탄식을 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하나님께서 세상의 재판관이시더라도 그분이 죄에 내리시는 징계와 보응이 언제나 뚜렷해서 눈으로 알아보고 손가락으

로 가리킬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심판을 미루시는 만큼 우리는 우리 정신을 붙잡아 두어야 하고, 사람의 이치의 공상을 따라 헤매게 두지 말며, 너무 성급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벌이 바라는 만큼 내려지지 않는 것을 볼 때에도 그 때문에 동요하거나 걸려 넘어지지 말고,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시는 알맞은 때가 올 때까지 아주 잠잠히 기다려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요약하면 욥이 무엇을 주장하는지 봅니다. 그런데 그는 신자들이 겪을 수 있는 시험도 그 속에 섞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체하시고 그분이 너무 더디신 것처럼 보이니, CO 217 신자들이 어떤 답답함과 괴로움을 품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맞서야 합니다.

이제 욥이 어떻게 말하는지 봅시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악인들이 사는가? 어찌하여 그들이 늙어 가는가? 어찌하여 그들이 재물이 불어나는가?"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으뜸가는 소원들 가운데 건강하고, 그다음에 오래 살고, 재물이 넉넉할 때 자기를 행복하다고 여긴다. 사람들이 흔히 행복을 두는 곳이 이것이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악인들에게서 찾을 수 있다. 그들의 가축이 번성하고, 그들의 자손도 번성하며, 모든 것이 그들에게 딱 맞게 온다. 그리고 그들은 즐거운 삶을 보낸 뒤에 일 분 만에 무덤으로 간다." 곧 그들은 평생 날개를 끌며 다니고 병약하며 많은 가난에 쓰러지는 선한 사람들처럼 시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악인들은 흥겨워하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큰 고통 없이 이 세상에서 데려가십니다. 그러니 가장 나쁜 자들이 하나님께 가장 큰 호의를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내리려 하시는 벌을 곧바로 집행하신다고 판단하려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욥이 여기서 하는 말을 요약해서 알았더라도, 모든 것을 더 잘 밝히려면 소발의 잘못이 무엇이었는지 깨닫는 것이 여전히 좋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앞 장에서 들은 모든 말씀은 좋고 참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했듯이) 그것들은 잘못 적용되었습니다. 소발은 어떤 사람이 혹독하게 고난받는 것을 보면 그가 하나님의 원수라고 말해야 하고, 어떤 사람이 편안한 것을 보면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로우시고 그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결론지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그것은 사두개인들의 잘못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영혼이 죽지 않는다고 여기지 않았고,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짐승처럼 살 뿐이며 하늘의 생명도 부활도 없다고 여겼습니다. (말하건대) 그들이 그렇게 짐승 같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그분을 섬기는 데 자기를 바치고 온전함과 선한 양심으로 행할 필요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을 돌아보셔서 그들을 돕고 구하시며 그들에게 당신의 선하심을 보이시지 않는다고, 또 그분이 악인들을 벌하지 않으신다고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흔히 아주 나쁜 때를 보내는데 이것이 어떻게 들어맞겠습니까? 사두개인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당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갚아 주시고 당신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을 벌하신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공상대로라면 사람들에게 앞날의 소망은 없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애 동안 CO 218 그들을 대하시는 대로 그들이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공상에 맞서고 그토록 해로운 잘못을 억누르시려고,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나 악인들을 벌하려 하지 않으십니다. 아직 나타나지 않은 으뜸가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품으신 사랑의 표시를 언제나 보여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분은 그들을 먹잇감처럼, 내버려진 채로 두셔서 그들이 괴롭힘과 공격을 당하고 그분께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에 우리를 위해 마련된 더 낫고 더 뛰어난 구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렇게 우리를 마지막 날로 부르십니다. 그것은 악인들이 받아 마땅한 대로 벌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봐주실 때마다, 또 선한 사람들이 더는 견딜 수 없을 만큼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을 불러도 겉으로는 응답받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그분이 그들에게 등을 돌리시고 그들을 버리셔서 그들이 시달리는 악에서 결코 건지려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일 때마다 우리 귀에 울리는 나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두개인들이 사람들이 완전히 죽는 존재이고 그들에게는 하늘의 생명이 없으며, 우리가 바라거나 두려워할 수 있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이 세상에만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들이 얼마나 짐승 같았는지 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토록 둔하고 야만스러운 의견에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소발과 그의 동료들도 어느 정도 그런 생각에 휘감겨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재판관이시다. 그러니 고난을 당하고 그분의 매를 맞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이 그들을 미워하시고 그들이 가장 버림받은 자들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이 결론은 어리석고 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영혼이 죽는다는 것, 부활이 없다는 것, 하나님 나라가 없다는 이 마귀적인 잘못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두 가지는 아주 잘 들어맞을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세상의 재판관이시면서도, 선한 사람들이 여기서 저주받은 것처럼 되고 그들의 삶이 많은 악에 매여 있으며, 악인들은 흥겨워하고 형통하며 개선의 노래를 부르고 모든 것을 바라는 대로 가지는 것입니다. (말하건대) 이 두 가지는 서로 어긋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해진 때를 주셔서 우리 머리에 공상이 떠오를 때 당신의 심판을 집행하셔야 하는 그런 세상의 재판관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재판관이시지만, 사람들이 비뚤어지고 그분을 넘치도록 거스를 때에도 그들을 벌하시는 기색을 보이지 않으실 만큼 모른 척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심판을 다른 때로 남겨 두시기 때문입니다. (CO 219 이미

말했듯이) 그분은 오늘도 내일도 재판관으로 나타나실 의무가 없습니다. 그분은 자기 일을 처리할 기회를 놓치는 피조물들과 같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손에 쥐고 있고 그 방법이 쉬운데 그것을 쓰지 않으면, 그것은 내게서 빠져나갑니다. 내가 거기로 돌아가려 해도 제때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우리가 부지런하도록, 곧 그분이 문을 여시면 들어가고 길을 보여 주시면 걷도록 재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분 자신은 우리 처지에 매여서, 그분이 곧바로 일하지 않으시면 기회가 그분에게서 빠져나가리라고 말할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당신이 기뻐하시는 대로 때와 시간과 방법을 되찾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상의 재판관이시더라도 그분이 이 삶 동안 악인들을 벌하신다고 결론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새깁시다. 물론 우리는 그분이 부분적으로 그렇게 하신다고 잘 결론지을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재판관이십니다. 그러니 그분은 저질러지는 악행을 보시고 그것을 적어 두시고 기록하십니다. 그다음에 그분은 선한 사람들, 곧 그분을 경외하고 섬기며 행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부르는 사람들을 돌보시고 마음에 두셔서 그들을 도우려 하십니다. 실제로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 가까이 계시고 자기들의 구원을 위해 깨어 계신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들은 이런저런 방식으로 그분께 도움을 받으니 경험으로 그것을 압니다. 악인들도 그분이 그들을 쫓으실 때 싫든 좋든 그분의 손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나 뚜렷하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이 여기서 저마다 받아 마땅한 대로, 그 분량대로 벌하신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그분 앞에서 셈해져야 하고 사람들이 그분의 손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몇몇 표시를 주십니다. 그분은 또 당신이 결코 당신의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을 당신의 보호와 지킴 아래 두신다는 것을 보여 주는 표시도 얼마쯤 주십니다.

(말하건대) 성경이 세상이 하나님의 섭리로 다스려지고 모든 것이 그분께 맞추어져야 한다고 말할 때 우리가 결론지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지금 당신이 사람들의 재판관이시라는 것을 완전히 온전하게 보여 주시기를 우리가 바란다면, (이미 밝혔듯이) 우리의 모든 기다림인 마지막 날을 위해 무엇이 남겨지겠습니까? 성경이 신자들을 재촉하고 잘, 그리고 거룩하게 살라고 권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벗들이여, 여러분의 마음을 그 마지막 날로 높이 드십시오." 우리가 여기 아래의 것들을 이기고 우리 정신을 저 위로 들어 올려 우리 닻이 거기에 온전히 박히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 붙어서 결코 거기서 돌아서지 않을 단단함과 꾸준함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CO 220 이처럼 우리는 욥이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덧없는 삶에서만 당신의 심판을 행하신다고 생각한 사두개인들의 이 거짓되고 저주받은 의견과 싸웠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는 악인들이 형통하고 모든 일이 그들 바람대로 될 수 있지만, 그 때문에 모든 것이 운수로 다스려지고 여기 아래에 혼란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동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 주려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들이 뒤죽박죽이고 우리가 바랄 만큼 질서 있지 않은 동안 감추어져 계신 것과 같은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우리는 정신을 모으고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당신의 얼굴을 보여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우리는 우리 타고난 감각보다 더 밝게 보아야 합니다. 날씨가 흐리면 우리는 해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가 구름 위에서 늘 빛난다는 것을 모를 만큼 분별없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에게 "해가 어디 있니?" 하고 물으면 "이제 해가 없어요" 하고 말할 것입니다. 그는 중간에 무슨 장애물이 있든 우리가 받는 빛이 해에서 온다는 것을 알 만큼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해가 뜨면 늘 제 길을 돈다는 것을 경험으로 굳게 알고 있는 우리는, 구름이 가려서 해를 보지 못하더라도 "해는 빛나고 있다. 다만 날씨가 맑고 개지

않아서 감추어진 것을 알아보지 못할 뿐이다" 하고 말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혼란을 보내셔서 우리가 고삐 없이 날뛰는 것 같은 죄악, 곧 어디에나 넘쳐흐르는 홍수 같은 죄악을 보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서려 하시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며 오히려 모든 것이 버려진 채로 가는 것처럼 보이고, 선한 사람들이 짓눌려 하나님께 한숨짓고 탄식해도 그분이 그들을 도우시는 기색을 보이지 않으실 때, (말하건대) 그 모든 것을 볼 때 우리는 우리 타고난 감각보다 더 높은 이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도우신다고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그분이 세상이 완전히 깊은 데 빠지도록 허락하지 않으시고 아직 은밀한 고삐가 있어서 그분이 악인들을 붙잡고 계시며, 모든 것이 피와 살육 속에 있지는 않다는 것을 보니, 어렴풋한 방식이기는 해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깨달읍시다. 그다음에 선한 사람들이 그분의 손에 도움 받고 건짐 받지 못하는 것을 봅니까? 그래도 그분은 그들을 지키고 보존하십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곧바로 멸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고난에 시달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완전히 등을 돌리시고 더는 그들을 돌아보지 않으신다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둡고 CO 221 짙은 구름 한가운데서도 그분은 그들이 필요할 때 도우시려고 그들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늘 느끼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 그것도 은밀한 방식으로 다스리신다는 것을 늘 확신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욥의 의도를 알 뿐 아니라, 이 말에서 좋은 가르침을 거두려면 그것을 어떤 쓰임과 목적에 적용해야 하는지도 봅니다. 이 삶 동안 일들이 지금처럼 그렇게 넘쳐흐르는 것을 볼 때 우리가 괴롭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할 나위 없이 여리고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늘 악으로 기울고, 다른 한편으로 마귀는 우리를 불신으로 재촉합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악인들을 억누르지 않으시고 그들이 잘못했을 때 바로잡지

않으시며, 반대로 선한 사람들을 돕지 않으시는 것을 볼 때, 물론 이것이 우리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왜 모른 척하시느냐고 묻는 어떤 서운함과 답답함을 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그분이 잠드신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성급하거나 들끓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심판을 어떻게 행하셔야 하는지 아시고, 그분께 법을 정해 드리는 것은 우리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이 아니면 언제란 말인가?" 그런데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결정하려고 주제넘게 나서야 하겠습니까? 그 밖에 너무 오래 기다렸다고 말한다면, 우리가 우리 눈앞만 바라본다는 것을 깨달읍시다. 다른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 지나가는 길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여기서 살았다면,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기 길을 다 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히 이어지는 그 시간, 영원히 이어질 그 생명에 견주면 작은 달리기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여기서 그들이 도는 이 길에서 얼마 동안 있으려고만 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멀리 부르신다는 것을 헤아리면,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바라는 징계를 곧바로 집행하지 않으시더라도 그분이 너무 더디시다고 여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보여 주었듯이) 그분은 우리가 잃었다고 생각하는 기회를 잘 되찾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들이 우리가 바라는 그런 질서로 놓이지 않을 때 우리 앞에 나타나는 악한 공상과 우리는 이렇게 싸워야 합니다. 그러니 그때 이렇게 깨달읍시다. "물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분은 언제든 당신의 일을 잘 하실 수 있다. 기다리기만 하고 잠잠히 있자. 그러면 끝 또는 결말이 우리가 그분께서 이 낮은 일들을 돌아보시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을 때에도 그분이 잠드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 줄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욥의 이 가르침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쪽에서 "하나님께서 CO 222 세상을 다스리신다면, 왜 저질러지는 그토록 많은 악을

바로잡지 않으시는가? 왜 그분은 넘치도록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보시는 당신의 백성을 건지지 않으시는가?"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분은 그렇게 당신 자녀들의 믿음과 인내를 훈련하기를 원하신다고 대답해야 합니다. 그분은 당신의 부드러움으로 악인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초대하시지만, 그들이 그분의 선하심을 기회로 삼아 굳어질 때 그들을 더욱 핑계할 수 없게 하십니다. 그분은 그들의 정죄를 늘 그만큼 더 무겁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답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때로 하나님께서 서두르시기를 바라는 시험을 받는다면, 그렇겠지요, 그러나 그분께 법을 정해 드리는 것은 우리 일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탄식할 수 있고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시 13:1 참조). 그러나 우리의 모든 소원과 간구는 인내로 다스려져야 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해야 하며, 그분이 당신의 선한 뜻대로 모든 것을 정하시도록 받아들여야 합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일이지만, 우리 바람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 욕심에 복종시키려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분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대로 일들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그 점에서 우리의 순종을 증명해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욥의 이 가르침을 참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늘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는 데 굳어지는 이 목표를 향해 나아갑시다. 우리는 이렇게 해 나가야 하고,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는 것과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그분의 직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두 항목을 붙들었다면 그것은 그 위에 지을 좋은 기초입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직무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우상처럼 상상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헤아릴 수 없는 본질로 알아서 "하나님께는 모든 위엄이 있다" 하고 말하면서, 그 사이에 그분께 고유하고 그분에게서 떼어 낼 수 없는 것을 그분에게서 벗긴다면, 우리는 그분을 우상, 죽은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분이 당신의 피조물들을 다스리지 않으시고, 모든 것이 그분의

통치 아래 있지 않으며, 모든 것이 그분의 손과 뜻으로 정해지지 않는다면, 묻건대, 그것은 하나님을 조각조각 찢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그분의 위엄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까?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이 항목, 곧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모든 것이 그분의 인도와 뜻 아래 있다는 것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의로우셔서 혼란스럽게나 함부로 다스리지 않으시며, 그분의 통치가 단지 당신의 절대 권력을 보여 주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덧붙여야 합니다. 폭군들은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은 무엇이든 이리저리 함부로 할 방종을 가로채면서 으스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그분의 의가 그 참된 규범인 그런 능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붙들었습니까? 그다음에 우리는 CO 223 이 세상에 있는 혼란으로 부활의 소망 안에서 굳세어져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악인들이 살고 늙어 가는 것을 보고, 그들이 모든 날을 기쁨 속에 보내며 성대하게 즐기는 것을 보고, 그들의 자녀와 가축과 집에서 모든 것이 바라는 대로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품에 안고 계신 것처럼 보이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다른 심판이 있다고 결론지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를 기다리는 이 기다림 속에서 기뻐합시다. 우리는 선한 사람들이 여기서 고난을 당하고 괴롭힘을 받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세상의 상속자입니다. 그러면 그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때로 먹을 빵 한 조각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윽박지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부르지만 건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그들을 향한 당신의 사랑을 보여 주시는 일을 남겨 두신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당신의 은혜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금 모든 일에서 어디서나 이루려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그 방법으로 그들이 그들에게 약속된 하늘의 기업을 찾도록 움직여서, 그리로 향하고 그것을 사모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본성상 일들이 잘못 놓인 것을 볼 때 걸려 넘어지고

심지어 탈선하기까지 하는 경향이 있는 대신, 그것이 우리에게 그만큼의 확증이 되게 합시다. 그것이 우리를 찌르는 박차처럼 되어서, 우리가 그 하늘의 생명을 향해 달려가며 이렇게 말하게 합시다. "그렇습니다, 주님. 악인들이 여기서 활개 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의 행복을 시기해서는 안 됩니다. 주의 저주가 그들 위에 무섭게 내리려고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참하더라도 그 사이에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지금 개선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을 위해 마련된 수치에 휩쓸리지 않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를 부르지만 곧바로 주의 도움을 보지 못합니다. 주님, 그것으로 우리는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이 여기가 아니라는 것을 잘 봅니다. 그러니 하늘로, 하늘로 갑시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곳이 거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삶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 그 방법으로 박차를 가하시듯 우리가 당신께로 높이 오도록 재촉하시니, 여기서 많은 물결과 회오리바람 사이에 흔들리는 것을 괴로워하지 맙시다. 이것이 이 구절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으뜸가는 실천입니다. 그러므로 욥이 여기서 도를 넘기는커녕 우리 신앙의 으뜸가는 항목들을 다루었습니다. 그는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가 곧바로 드러나지 않을 때 그것과 싸워서는 안 되고, 사두개인들처럼 여기 아래에 하나님의 모든 일의 완성을 CO 224 세워서도 안 된다는 것을 보여 주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늘 마지막 부활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거기서 모든 것이 바로잡히고, 지금 뒤죽박죽인 것이 제 질서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 우리가 처음에 어떤 시험에 사로잡히더라도 용기를 잃지 말고, 욥이 여기서 내리는 이 결론으로 돌아갑시다. (내가 이미 말했듯이)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그리고 어떤 시험이 우리를 몰아붙이면 얼마나 금세 쓰러지는지 지나치게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흔히 말하듯) 일들이

이리저리 엉망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여기서 짓눌리며 악인들이 활개 칠 때, 우리는 괴로움에 사로잡히고 마음에 쓴맛을 품을 것이며, 욥이 여기서 시작하듯 따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따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고 흔들리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고 따진 뒤에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 주는 것으로 와야 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여기서 흠잡을 데 없을 만큼 정교한 질서를 지키신다면 우리 낙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믿음, 무슨 소망이 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더 멀리 이끄시려고 지금 일들을 매달린 채로 두셔서 우리가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는가?" 하고 말할 수 있게 하시지만, 그것은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본성이 우리를 많은 악한 시험으로 기울게 하더라도 용기를 잃지 맙시다. 오히려 거기에 맞서기를 배우고, 욥이 한 대로 결론을 내립시다. 곧 처음에 흔들렸더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시는 모든 일에서 의로우시다고 결론지읍시다. 그리고 그분이 당신의 심판을 미루시더라도, 그 때문에 그분이 기뻐하실 때 그것을 집행할 기회를 잃으시는 것은 아니라고 결론지읍시다. 그분이 악인들을 봐주시는 것은 그들의 차례가 다 찰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에서 살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욥은 여기서 (악인들의 형통을 말한 뒤) 그들이 소고와 피리 소리에 달려가고, 오르간 소리에 뛰놀며, 그들의 날을 기쁨과 즐거움 속에 보내고, 일 분 만에 무덤으로 내려간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욥은 악인들이 살고 늙어 가며 모든 것이 바라는 대로 된다고 한 말보다 더한 것을 나타내려 합니다. 곧 그들 쪽에서도 좋은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시는 이 좋은 것들에 CO 225 취한 것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몸이 건강하고, 자손이 있고, 좋은 가축이 있고, 큰 재산이 있고, 온갖 면

에서 부유하고, 존경받는 것과, 거기서 정신을 잃은 것처럼 될 만큼 즐거움을 느끼는 것은 서로 다른 두 가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은 부유했고 몸이 건강하고 튼튼했습니다. 야곱도 자기 날들이 조상들의 날에 견주면 불행했다고 말할 때 그것을 충분히 보여 줍니다(창 47:9 참조). 이처럼 아브라함은 튼튼하고 기운이 좋았습니다. 또 그는 여기서 사는 것에 배부른 채로 좋고 꿋꿋한 노년에 죽으리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창 15:15 참조). 그는 부유했습니다. 그에게 기업이나 재산은 없었지만, 성경이 보여 주듯 큰 가솔과 많은 가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그가 거기에 취했습니까? 자기 재물에 눈이 부신 것처럼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였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더 멀리 부르신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자기 힘을 근거로 삼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몸에 기운과 건강을 주실 때 흥겨워하며 고삐 풀린 말처럼 구는 사람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늘 꺾인 사람 같았고 자기를 낮추기를 그치지 않았으니, 그의 본은 우리에게 크게 쓸모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세상 사람들, 땅보다 더 멀리 보지 않는 사람들은 재물이 있고 몸이 건강하면 거기에 취해서 자기를 잊고 더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같은 식탁에서 절제하는 사람은 거기 있는 것을 남용하지 않고 삼가며 음식을 먹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은 배가 터지도록 게걸스럽게 먹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포도주가 마음대로 있으면 그렇습니다. 완전히 짐승처럼 되려고만 애쓰고, 포도주를 쌓아 두려고 목구멍이 있는 줄 아는 사람들을 우리는 봅니다. 그들은 더 잘 채우려고 스스로 고문대에 오릅니다. 이처럼 어떤 사람들은 얼마쯤 행복을 누리면서도 거기서 흥겨워하지 않고 늘 두려움과 고삐 속에 자기를 붙잡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욥은 악인들이 하나님의 선물과 은혜를 남용할 것이고, 그분이 그들의 목에 고삐를 풀어 두실 때 그들은 들판으로 뛰쳐나가 더는 자기들에게 복종할 것이 없다고 여기며, 심지어 소고와 피리 소리에

흥겨워해서 춤추고 성대하게 즐기는 것밖에 일이 없고 완전히 짐승처럼 된다고 말합니다. 욥이 이 구절에서 나타내려 한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여기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들을 묘사하며 그들을 그림처럼 보여 주는 것은, 우리가 그런 둔함에서 벗어나기를 배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넉넉히 주실 때 CO 226 거기에 취하지 않기를 배웁시다. 오히려 늘 두려움으로 행하며 우리 자신에게 고삐를 매고 깨어 있읍시다. 사도 바울이 말하듯 우리는 밤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살전 5:5).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시고, 우리가 한낮처럼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구절에서 새겨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 밖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편안함과 쾌락을 보내지 않으실 때, 그분이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 몫을 잘라 내신다는 것을 깨달읍시다. 사람은 자기 아이에게 그 아이에게 알맞다고 아는 것보다 더 많이 먹을 것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는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베푸시려고 늘 손을 펴고 계십니다. 그분 쪽에서는 무엇이 모자랄까 봐 두려운 것처럼 인색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 욕심이 넘쳐흘러서 규칙도 절도도 없다는 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알맞은 몫을 주셔서 우리에게 좋다고 아시는 대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성대하게 즐길 거리가 없고 우리 쾌락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 몫을 잘라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읍시다. 그분은 우리 분량을 아시고, 넉넉함이 우리를 망치리라는 것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들이 피리와 소고 소리에 달려간다고 말할 때 둘째로 새겨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는 이 세상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정죄하시는 헛된 것들, 곧 춤과 그와 비슷한 방탕 속에서 지나치게 흥겨워하는 것이 새로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언

제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눈멀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과 영적인 생명에서 그들을 떼어 놓는 것밖에 노린 적이 없는 마귀는 그 시대에도 이런 술책을 가지고 있었고, 사람들은 아름다워 보이고 육신에 즐거운 것을 기꺼이 따랐습니다. 그러니 오늘날 흥겨워하기만 바라고, 더구나 몸가짐을 지키지 않고 길 잃은 짐승처럼 뛰고 춤추며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만 찾는 사람이 많은 것을 볼 때, 그것이 오늘 시작된 것이 아니며 마귀가 언제나 지배해 왔다는 것을 깨달읍시다. 그러나 악이 오래되었다고 해서 변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깨달읍시다. "사람들은 늘 그렇게 해 왔다." 그렇겠지요. 마귀가 언제나 다스려 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유에서 쫓겨나셨습니까? 그 밖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내일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피리와 소고와 그와 같은 것들이 그 본성상 그저 정죄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의 남용만 그렇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바른 쓰임을 비틉니다. 소고가 사람들을 즐겁게 하려고 울릴 때 거기에 CO 227 헛됨이, 내 말은 쓸데없는 정도가 아니라 짐승 같은 헛됨이 없는 적이 결코 없다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정신을 잃어서 절제 있는 기쁨으로 흥겨워하지 않고, 공중으로 몸을 던지며 자기 밖으로 빠져나가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처럼 욥은 여기서 저주받은 기쁨, 하나님께서 정죄하시는 기쁨을 나타내려 했습니다. 이것으로 경고를 받았으니 우리는 스스로를 억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놀이를 즐기기만 바라는 사람이 많은 것을 볼 때 "그들에게 화가 있도다" 하고 말합시다. 같은 저주가 우리에게 오지 않기를 원한다면, 그런 방탕과 CO 228 무례에서 우리 자신을 떼어 놓기를 배웁시다. 오히려 스스로를 억제하고 늘 하나님을 눈앞에 두도록 마음을 써서, 우리 기쁨이 그분께 복을 받고, 우리가 그분이 베푸시는 좋은 것들을 쓰되 늘 저 위 하늘을 사모하기를 그치지 않는 방식으로 쓰게 합시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모든 즐거움을 이 목표에 맞추어야 합니다. 곧 우리 안에 하나의 선율이 울려서, 그것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받고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엎드립시다.

제80편

욥기 21장 설교 3

CO 34:228–240

AI로 옮긴 초벌 번역입니다. 신학 감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CO 권: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 그들은 형통하게 날을 보내다가 한순간에 무덤으로 내려가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께 "우리에게서 떠나소서. 우리는 주의 길을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고 말하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겠으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하네. (욥 21:13–15)

이 설교는 12절 풀이의 나머지를 다룬 뒤 이어지는 본문을 다룹니다.

CO 228 어제 욥이 여기서 이 죽을 삶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좋은 것들을 남용해서 기쁨에 들뜨고 거기에 취한 것처럼 되는 사람들에 관해 말한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기뻐하되 우리 안에 늘 절제가 있어서 스스로를 억누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경고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좋은 것들을 받을 때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가장 많이 기억하게 해야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그분께로, 그리고 그분의 사랑으로 끌어당겨야 합니다. 반대로 우리는 절도도 질서도 없이 흥겨워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너무 흥겨워해서 더는 그분을 생각하지 않으며 더는 그분께 복종하려 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한 이 절제를 따르고, 우리의 모든 즐거움을 조절하기를 배워서 이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맙시다. 그 사이에 여기서 피리와 수금과 소고와 다른 악기들에 관해 말하니, 본성상 좋은 것들을 우리가 나쁜 쓰임으로 끌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도 새깁시다. 음악 자체는 정죄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거의 언제나 그것을 남용하니, 우리는 그만큼 더

조심해야 합니다. 이 구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일깨웁니다. 오늘날 음악을 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슬러 독을 품고 굳어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노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노래입니까? 추잡함으로 가득한 노래입니다. 그다음에 악의 꼭대기로 춤이 따라올 것입니다. 거기에는 늘 음란함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춤은 그 자체로,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남용하는 방식으로는 한마디로 말해 뚜쟁이 노릇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욥이 이 세상 자녀들과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들이 자기 즐거움에서 넘쳐 흐른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소고와 피리와 다른 악기 소리를 말하는 데에는 까닭이 있습니다. 내가 이미 짚었듯이 그는 이것들을 본성상 악한 것처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저질러지는 남용을 바라봅니다. 사람들은 음악을 절제 있게 쓸 만큼 결코 절도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악덕을 새겨서 그것을 생각하고 거기서 유익을 얻어야 합니다. 요컨대 우리가 마음 내키는 대로 음악에서 저질러지는 헛됨을 변명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께서는 그것을 정죄하십니다. 사람들이 지나치게 흥겨워하고, 이 낮은 것들에서 쾌락과 즐거움을 취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그분께 돌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약하면 이 구절에서 간직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CO 229 당신의 위엄을 업신여기는 자들이 평생 성대하게 즐긴 뒤에 일 분 만에 무덤으로 가도록 허락하시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시편 73편(4절)에도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는 다른 비유가 있습니다. 곧 악인들은 가로막히거나 붙잡히지 않고 죽음으로 가며, 그들에게는 결박도 밧줄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로 선지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시들어 가며 날개를 끌 뿐이라는 것을 보여 주려 합니다. 병과 그와 같은 것들은 우리를 죽음으로 끌어당기면서도 거기서 다시 끌어내는 결박과 같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 우리가 병들면 죽음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우리 삶이 얼마나 연약한지 경고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그만큼의 전갈로, "준비하라. 너희에게는 세상에서 확실하거나 단단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죽음의 결박이 우리를 그리로 끌어당깁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시들어 가면서도 죽을 수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길어야 반년도 살지 못할 것처럼 보이는데도 우리는 계속 살아가고, 그 사이에 병은 늘 이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그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악인들은 흥겨워하고 튼튼하며 기운이 넘칩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음에 이르면 바라던 대로 가서 눕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아주 이상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이미 풀이한 것을 간직합시다. 곧 욥은 하나님께서 여기 아래에서 모든 악행을 벌하지 않으시더라도, 그분이 잠드셨다거나 당신의 직무를 내려놓으셨다고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 주려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현재 삶 뒤에 심판을 행하시려고 남겨 두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덧없는 삶보다 더 높이 우리 정신을 들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기서 모든 소원을 이루었더라도 그가 불행하기를 그치지 않으며, 그 때문에 그에게 어떤 행복을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자기 재판관 앞에 나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여기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자기 쾌락에 취하는 사람들처럼 되려는 시험을 받지 맙시다. 오히려 비참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시는 편을 더 좋아하고, 거기서 만족을 얻읍시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로우신 것이 우리의 지극한 선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하늘의 기업을 바라보기를 배웁시다. 신자들이 여기서 받는 경고가 이것입니다.

이어서 욥은 악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완전히 물리치는지 밝힙니다. 그들은 그분께 "우리에게서 떠나소서. 우리는 주의 길을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물론 악인들은 하나님을 물리친다는 그런 모독을 입 밖에 쏟아 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제로 CO 230 자기가

그분 없이 지내려 하고 그분께 복종하는 데서 면제되기만 바란다는 것을 충분히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없을 때에도 할 수 있는 한 그분에게서 멀어지려고 애씁니다. 우리는 그것을 봅니다. 그렇다는 증거로, 사람들이 양심의 거리낌 없이 살려 하고, 일부러 짐승처럼 둔해져서 더는 선과 악을 분간하지 않고 모든 것이 자기들에게 허락된다고 여길 때, 그것은 하나님께 "우리에게서 떠나소서"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 계시다면 우리는 그분을 우리 재판관으로 눈앞에 두어야 하고, 그분 앞에서처럼 생각하고 말해야 하며, 그분께 판단받을 것으로 여기지 않고는 아무것도 꾀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마음대로 살 자유를 가지려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멀리 밀어내고 그분과 아무 사귐도 가지지 않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더구나 둘째 말, 곧 "우리는 주의 길을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말이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거나 그분에게서 멀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위엄과 관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신적 본질은 드러나지 않고 피조물들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것을 얼마쯤 느낄 것이고, 그분의 본질이 무한하며 어디에나 퍼져 있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우리는 주로 그분이 우리에게 당신을 나누어 주시는 능력들 아래에서 하나님을 압니다. 특히 그분이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밝히시고,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치시며,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고 우리 삶이 어떻게 다스려져야 하는지 보여 주실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분 가까이 있는 것은 이렇게 해서입니다. 곧 우리가 그분의 말씀으로 가르침 받기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친밀하게 당신을 나타내셔서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 거기 머물게 하신다" 하고 깨달을 때입니다.

그 밖에 사람들이 가르침을 잘 받으려 하지 않고, 모든 가르침을 물리치며, 완전히 멍해지기를 바라고, 누가 그들에게 좋은 가르침을 가져와도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면,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대신 이

렇게 그분에게서 멀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욥이 여기서 앞에서 뜻한 것을 밝힌다고 말했습니다. 곧 악인들과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길에 복종하려 하지 않을 때 할 수 있는 한 그분에게서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의 길을 원하지 않습니다"는 "우리에게서 떠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좋고 유익한 가르침을 거둘 수 있는 구절입니다. 먼저 여기서 잘 사는 것의 뿌리와 기초가 무엇인지 보여 주기 때문입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앞에 모신 것처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쪽에서 우리는 그분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CO 231 그래서 성경은 어떤 사람이 거룩하게 살았다는 것을 나타내려 할 때 그가 하나님을 눈앞에 두었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고 말할 때에는 그가 그분을 바라보지 않았거나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그에게 없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그것은 마치 그 사람이 탈선하여 온갖 악에 빠졌다고, 요컨대 그가 절망적인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투는 아주 새겨 둘 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본성상 이미 온갖 부패로 기울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기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바뀌고, 자기 모든 쾌락과 즐거움에 힘과 강압을 가해서 그들이 새로워졌다는 것, 곧 그들이 더는 전의 그들이 아니라는 것이 알려지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말하건대) 그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놀라운 능력과 힘이 있어서 사람의 고삐를 돌리게 하고 자기 뜻과 감각과 이성을 버리게 하지 않는 한, 사람은 늘 악 속에서 멀리 헤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보여 주었듯이) 사람들은 새로워질 때까지 늘 악을 향해 갈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그들을 새롭게 하겠습니까? 그들은 스스로 그것을 할 수 없고, 그것을 해낼 수 있는 피조물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거기서 일하셔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임재뿐입니다. 곧 사람이 "자, 나는 내 재판관이신 내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분의 손을 피할 수 없다" 하고 깨달을 때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헤아린다면 그때 그는 자기 악한 욕심과 싸울 수 있을 것이고, 악에 빠져 있던 대신 선을 따를 준비가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악한 감정이 우리를 휩쓸어 가는 것 말고도, 우리는 너무 눈이 멀어서 저마다 악을 선이라고 스스로 믿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추실 때까지 분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서로 섞여 걷는 동안 우리는 속담에서 말하듯 지푸라기 속의 쥐들입니다. 곧 우리 사이에 아무 질서도 없고 저마다 자기 동무를 속일 것입니다. 우리는 가련한 짐승들 같아서, 앞에 가는 사람은 가련한 장님처럼 잘못 이끌고, 그것은 늘 하던 대로 가는 다른 사람들을 꾀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관습을 법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바른길이 무엇인지 보여 줄 다른 처방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우리 가까이 계시게 하는 것뿐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는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정도를 넘어선다는 것을 잘 보여 줍니다. 그러니 저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고, 우리가 그분 가까이 있으며, 그분에게서 멀어지지 않도록 잘 조심합시다. 그것이 우리를 길들이고 선에 복종시킬 수 있는 유일한 고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우리를 악으로 CO 232 끌어당길 짐승 같은 방종이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우리에게 좋고 무엇이 우리를 붙잡는 데 필요한지 잘 아십니다. 그래서 저마다 그런 어리석은 공상 속에 헤매지 않고, 모든 정의와 공정의 규범인 당신의 순전한 뜻을 따르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땅히 행하기를 원합니까? 이 끝에서, 곧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데서 시작합시다. 우리가 어떻게 그분께 가까이 가겠습니까? 먼저 그분께 감추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그분 앞에서 셈해져야 하며, 그분이 우리 생각까지 판단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첫째에 관해서는 이렇습니다.

그 밖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판단하려 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좌우에 날 선 칼이라고 부르는 데에는 까닭이 있다는 것

을 깨달읍시다(히 4:12 참조). 말씀은 가장 은밀한 생각까지 살펴야 하고, 뼛속의 골수도, 그 무엇도 이 말씀으로 살펴지지 않을 만큼 은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깨달으면,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고, 늘 그분을 눈앞에 두게 하며, 그분께 순종하는 가운데서가 아니면 아무것도 꾀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담긴 것을 따라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바랍시다. 그 길을 모르고 싶어 하며 빛에 눈을 감는 사람들은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을 밀어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겨야 하는지 경고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 계시고 우리가 그분 가까이 있는 것이 우리의 지극한 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분 쪽에서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시고, 당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신다고 우리에게 증언하실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고, 그분이 우리 위에 다스리시도록 그분께 충성을 맹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하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이라는 수단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공상 속에 헤매게 두시고 우리를 다스리지 않으시며, 그분이 우리를 당신께 끌어당기시는 구원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없는 것보다 더 큰 불행이 우리에게 닥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반대로 우리가 가진 가장 크고 가장 헤아릴 수 없는 보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가 그분의 뜻을 배우며, 그분이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께 모으려 하신다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것을 아주 잘못 압니다. 그러니 더욱 이 구절을 잘 새겨야 합니다. 그 밖에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의 멍에 아래 목을 굽히지 못하는 모든 사람은 그분을 멀리 밀어내는 것과 같다는 경고를 받읍시다. 물론 그들은 사람들이 자기들을 CO 233 하나님의 철천지원수라고 부르고, 자기들이 그분을 모든 권위에서 쫓아내어 발로 짓밟기만 바란다고 말할

때 자기들에게 큰 잘못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 우리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렇겠지요. 그러나 그들이 성령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겠습니까? 성령께서는 구원의 가르침에 복종하려 하지 않는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을 거슬러 싸우고, 그분을 세상에서 추방하려 하며, 그분이 다스리시고 권위를 가지시는 것을 참지 못한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러하니 그런 신성모독의 죄를 짓고 싶지 않다면, 자기를 낮추기를 배웁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보내실 때마다 그 아래서 떨면서, 그것으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있고 늘 그분을 바라보며 우리 온 삶이 그분 앞에서 셈해져야 하고 우리가 그분의 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행하기만 바란다는 것을 보여 드립시다. 그 밖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바랄 만한 것이 되게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늘 그분의 눈길 아래, 그분의 인도 아래 있기를 갈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가장 악한 자들도 하나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노예선의 죄수들과 같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거기 묶여 있고 사람들이 세게 내리치는 것을 보면 노를 젓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억지로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분이 자기들에게 임재하신다는 것을 잘 깨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은 자기들을 거스르는 그분의 신성을 없애려 할 것이고, 하나님을 그분의 통치에서 쫓아내려 하거나 그분을 피하려 할 것입니다. 성경이 그들에게 산들을 향해 “우리를 덮으라” 하고 말하리라고 돌리는 대로입니다(눅 23:30; 계 6:16 참조). 이처럼 악인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자기들에게 무서우니 늘 그것을 피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쪽에서는 (내가 말했듯이) 그분이 우리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 있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지 않으실 때 우리 처지가 불행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지킴이가

되지 않으시면 우리가 멸망 말고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지키리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안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인도자입니까?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 무슨 일이 있어도 결코 우리에게서 떠나지 마시기를 기도하기를 배웁시다. 그렇게 하려면 그분 안에 있는 그 무한한 선하심을 맛보고, 그분이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시는 동안 그분이 세상의 재판관이시며 우리가 (우리가 말했듯이) 우리 모든 행위뿐 아니라 모든 생각에 대해서도 그분 앞에서 셈해 드려야 하리라는 것을 깨달읍시다. 물론 이것만으로는 우리가 CO 234 스스로 원해서 그분께 이끌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분을 우리 아버지로 깨달아야 합니다. 실제로 그분은 당신을 그렇게 보여 주십니다. 그분을 그렇게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으로 깨달으면 우리는 분명히 담대하게 그분께 가까이 가려고 할 것이고, 거기 이르면 어떤 식으로든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거기 머물기만 바랄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새겨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눈앞에 둘 뿐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인도하시기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은 여기서 악인들과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들의 그런 모독을 보여 준 뒤, 그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덧붙입니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겠으며, 그에게 기도한들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돌아오겠는가?” 여기서 욥은 모든 믿지 않는 자와 악인 안에 있는 교만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아주 새겨 둘 만한 구절입니다. 성경은 모든 악인 안에 있는 으뜸가는 악덕이 이 교만이라는 것을 보여 주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겸손은 신자들 안에 있는 지극한 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이 겸손이 있으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싫어하고, 아니 우리 자신을 완전히 정죄하며, 우리 덕에 대한 모든 상상을 벗어 버리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 안에서 우리 모든 선을 찾기를 배우는 것 말고도, (말하건대) 그것 말고도 우리 위에 모든 주권을 가지신 분께 우리가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

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겸손은 모든 덕의 어머니요 뿌리입니다. 반대로 교만이 사람들을 지배하면 그들은 평생 비뚤어지고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교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돌려집니다. 먼저 그들은 자기가 대단하다고 스스로 믿고 자기 지혜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주제넘음으로 부풀어 올라 있으니 결코 그들을 꺾을 수 없을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거슬러서라도 지혜로워지려 하고, 자기 감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여 주는 것을 듣는다면 자기를 너무 낮추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다음에 그들이 그렇게 자기 신중함을 믿었습니까? 그들은 자기 모든 쾌락과 즐거움에 고삐를 풀어 주려 하고, 그 일로 누가 그들을 꾸짖으면 자기들에게 큰 잘못을 한다고 여깁니다. 이처럼 믿지 않는 자들은 늘 주제넘음에 근거를 둘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하박국(2:4)은 이 높아짐을 믿음과 대비시키며, 믿음은 늘 사람들을 참된 겸손과 순종으로 이끌고, 반대로 믿지 않는 자는 늘 높아지고 하나님을 거슬러 일어설 수밖에 없으며 달리 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욥이 여기서 악인들을 말하면서 그들을 이 교만으로 무장시키는 데에는 까닭이 있습니다. 곧 그들은 자기가 하나님께 복종해서는 안 된다고 여깁니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겠는가?" CO 235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을 드러내시지 않는 한 그들은 이 말을 입에 담지 않을 것입니다. 위선자들이 때로 가증한 것들을 토해 내는 일이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때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억지로 그렇게 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 추함이 세상 앞에 알려지지 않도록 기꺼이 숨으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분을 영화롭게 하지 않은 사람들은 버림받은 마음에 내버려져서 온갖 추잡함에 빠지고 스스로 오명을 쓴다고 말씀하신 대로입니다(롬 1:28).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때로 악인들이 여기서 말하는 대로 말하도록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럴듯한 선언을 하더라도,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거스르며 그분이 자기들 위에 아무 권위도 갖지 않으시기를 바라는 이것이 있습니다. "그러니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겠는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고를 수 있는 가장 나쁜 자들도 처음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공경을 받으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잘 말할 것입니다. 참으로 일반적인 말로는 그것을 잘 고백할 것입니다. 그러나 (흔히 말하듯) 맞붙어야 할 때, 누가 그들을 바로잡으려 하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과 우리가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밝히지 않으셨습니까?" 하고 말하면, 그때 그들이 거기에 귀 기울이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누가 탐욕스러운 사람을 그의 탐욕에서 건지려 할 때, 어떤 사람이 야심에 빠져 있어서 누가 그 악덕을 바로잡으려 할 때, 음란한 자, 술취한 자, 모독하는 자도 마찬가지로 그때 그들은 하나님을 거슬러 발끈할 것입니다. 그들은 악을 행할 방종을 갖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입으로 "전능자가 누구인가?" 하고 말하지는 않더라도, 그들은 두꺼비처럼 부풀어 올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데 자기를 맞추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욥이 여기서 그가 말하는 모독을 대놓고 입으로 선언한 사람들만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흔히 말하듯) 그렇게 자기 자신에 부풀어 오르고 그런 오만으로 가득 차서 온전히 겸손하게 하나님께 자기를 맞추려 하지 않으며 그분이 자기들 위에 모든 주권을 가지시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깨닫지 않는 모든 사람을 고발한다는 것을 봅니다. 요컨대 우리가 이 사람들처럼 정죄받고 싶지 않다면, 하나님과 우리를 견주어 보아야 합니다. 곧 그분이 우리 창조주이시니 모든 통치권을 가지셔야 하고 모든 것이 그분께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첫째 항목입니다. 그분이 당신의 독생자의 죽음과 수난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그분은 우리 위에 모든 우위를 가지실 만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그토록 비싸게 사셨으니, 우리는 더는 우리 자신

에게 빠져 있어서는 안 되고 온전히 그분을 섬기는 데 바쳐져야 합니다. 그다음에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시니 우리는 그분께 CO 236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당신의 선지자 말라기(1:6)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주인이라면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 아버지라면 너희가 내게 드려야 할 사랑과 공경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그분이 우리 위에 가지신 권리를 깨닫고 그분께 그분의 모든 칭호와 자격을 돌려 드릴 때까지는 참으로 그분께 복종할 수 없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주인이요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분께 모든 경외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우리 아버지로 깨달을 때 우리가 그분을, 그것도 참된 사랑으로 공경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이는 모두가 미워할 만큼 악한 괴물이 아니라면 자기 아버지를 공경할 것이고, 그를 사랑하지 않고는 공경할 수 없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로 왔습니까? 아, 우리는 가련한 피조물입니다. 사람 안에 자랑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저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높이셨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습니다. 그 형상이 아담의 죄로 우리 안에서 지워졌고 우리가 어머니 배 속에서 온통 저주밖에 가지고 나오지 않더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이것만 해도 이미 너무 크고 너무 뛰어난 영예입니다. 그다음에 그분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기를 기꺼이 하셨고, 그분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다음에 그분은 우리를 당신 집안의 식구가 되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분을 섬기는 종으로만이 아니라 당신의 친자녀요 상속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모든 견줌을 해 보았다면, 묻건대, 우리 마음이 쇠나 강철로 되어 있다 해도 부드러워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만으로 부풀어 올라 터질 지경이라 해도, 그 모든 독이 씻겨 나가고 우리가 바른 겸손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러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당신의 계명에 순종하도록 주의를 기울이게 하시고 당신이 우리 위에 가지신 권위를 인정하게 하려 하실 때, 당신의 율법에 이 머리말을 쓰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출 20:2 참조). 그분이 "나는 여호와다" 하실 때 그분은 우리를 우리 창조로 데려가셔서 이렇게 보여 주십니다. "너희가 누구냐? 내가 세상을 지었듯이 너희를 무에서 지었고, 너희는 그 일부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 존재를 내게서 받아야 한다. 너희가 내게 충성을 맹세하고 나를 너희창조주로 깨닫는다면 내 아래서 떨 것이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신 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하고 덧붙이셔서, 당신이 당신의 백성과 당신의 말씀으로 가르치려 하시는 모든 사람의 아버지이심을 보여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말했듯이) 그 아버지 되심은 우리를 사랑이 담긴 경외로 이끌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셋째로 그분은 당신의 백성을 당신께 매이게 하신 CO 237 은택들을 일깨우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크고 더 뛰어난 은택들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땅의 종살이에서가 아니라 지옥의 밑바닥에서 건지셨고, 모세의 손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건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하니 우리는 우리가 모든 면에서 그분께 빚진 자라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가 더는 우리 자신에게 빠져 있는 것은 옳지 않고, 저마다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자기를 바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욥이 덧붙이는 말에 관해서도,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 주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더는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하고 말하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 삯도 내놓지 않으시고 "나를 섬기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을 하라" 하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명령받은 것을 다 하고 나서도 너희는 쓸모없는 종이다"(눅 17:10 참조)라고 일깨우시는 대로입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에게 빚지

지 않으실 것이고, 우리는 온전히 그분께 우리를 바쳐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아무 약속도 덧붙이지 않으시고 그저 명령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우리에게 당신을 맞추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그분을 섬기도록 이끌릴 수 없다는 것을 보시고, 그분은 "나를 섬기라" 하실 때 "그러면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 생명의 보호자가 되며, 너희 모든 필요에서 너희를 도울 것이다" 하고 덧붙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모든 약속으로도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더 나아가지 않으시면 그 약속들도 우리에게 쓸모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더 나아가십니다.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자비로 내게 받아들이고, 너희 모든 죄악을 지운다. 그다음에 내가 너희를 참아 줄 것이다. 너희가 연약해서 마땅히 해야 할 만큼 온전히 나를 섬기지 못하더라도, 나는 너희가 내게 드린 그 반쪽짜리 섬김을 받아 줄 것이다. 나는 너희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 행위를 낱낱이 따지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께 매이게 하시려고 이토록 많은 약속을 하십니다. 그것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긴들 무슨 유익이 있는가?" 하고 말할 핑계가 전혀 없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그분을 피하더라도 우리는 주인 없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흔히 말하듯) 고삐를 늘어뜨린 채 제멋대로 걸으려는 사람들도 싫든 좋든 섬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욕심과 마귀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비참한 섬김, 가장 꼭 매인 종살이는 자기 악덕에 복종하는 것이라고 잘 말할 줄 알았습니다. 쾌락이라는 것은 마귀 같은 여주인들입니다. 이방인들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은 우리가 CO 238 반쯤 왕이 되어서, 무엇이든 마음 내키는 대로 할 더할 나위 없이 고삐 풀린 자유를 가지려 한다면 그것은 더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말했듯이) 우리가 그보다 더 비참하고 저주받은 종살이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다음에 마귀가 우리 위에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의에서 면제되려 할 때 우리는 그의 지배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20절)에서 "너희는 의에서만 자유로웠다"고 말할 때 뜻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는 옛날의 종들이 해방되어 더는 자기 주인들에게 매이지 않고 자유롭고 해방된 신분이 된 것에 빗댑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 해방되어서 악을 행할 자유가 있었고 하나님의 의에 매이지 않았다. 그런데 어떠냐? 그렇다고 너희가 참된 자유 안에 있었느냐? 오히려 너희가 하나님의 의를 조금도 깨닫지 못하는 동안 너희는 죄를 섬겼다. 그러면 지금은 어떠냐?" 그는 신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지난 삶을 생각하면 부끄러워한다. 이제 너희는 마귀가 너희 위에 군림했고 그것이 너희의 멸망과 파멸이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께 그렇게 버림받고 짐승처럼 헤맸던 것을 떠올리면 너희는 스스로 부끄러워한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면제되려는 모든 사람의 처지가 이러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섬긴다면, 앞에서 밝혔듯이 그 종살이는 왕국을 소유하는 것보다 더 영예로울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종의 처지에 있도록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당신의 친자녀로 여기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하니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힘쓰는 것이 헛수고가 아니라는 것을 잘 보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복이 당신을 경외하며 행하는 데 있다고 내놓으시니 더는 "무슨 열매가 있겠는가?" 하고 내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을 봅니다. 반대로 그분을 섬기는 데서 면제되려 하는 것보다 더 큰 불행이 우리에게 닥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새겨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 밖에 욥이 그렇게 했듯이 이것을 더 멀리 넓혀 봅시다. 그는 악인들이 형통할 때 흥겨워하며 잘 살든 못 살든 마찬가지라고 여기고, 심지어 하나님을 비웃으면서도 그분이 단번에 자기들을 깊은 데 빠뜨리지 않으시면

그분이 자기들 편을 드신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나타내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악인들이 악행으로 넘쳐흐를 때 그들을 봐주실 것입니다. 그 일로 그들은 굳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벌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모든 것이 자기들에게 잘되어 간다고 여기고, CO 239 솔로몬이 말하듯(전 8:11) 멸시와 반역에 빠집니다. 이처럼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단번에 당신의 심판을 집행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아무 유익이 없고 악에 빠지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 안에는 이 결론이 있어야 합니다. 선지자 이사야(3:10)에서 말하는 대로입니다. "의인에게 좋은 열매가 있다고 말하라." 그러니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웃음거리처럼 보일 때에도, 우리는 늘 이 확신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곧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실망시키려 하지 않으시며, 그들이 그분 안에서 자기 삶을 찾았을 때 헛된 소망에 꾀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다윗과 함께 "주님은 나의 삶이시다"(시 16:5)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 앞에서 행하라.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창 15:1)라고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악인들이 형통하는 동안 가련한 신자들이 고난 속에 있고 사방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보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할 때, 그 너무 흔한 시험과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새겨야 할 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곧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한 뒤에 둘째로 여기에 기도를 놓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아래 자기를 낮추고 그분께 간구하며 드리는 경외입니다. 욥이 이 말을 쓴 데에는 까닭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으로, 형제 사랑으로, 절제로, 겸손으로, 그리고 그와 같은 모든 것으로 당신을 공경하고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도우려 애쓰며, 저마다 자기에게 명령된 것과 자기 소명이 요구하는 것에 복종하고, 함께 살며, 저마다 아무도 속이지 않고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분이 받아 주시는 그만큼의 제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이 끝에서, 곧 그분께 마땅한 찬양을 드려 그분을 공경하는 데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도와 간구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악행 없이 행해서, 누구를 속였다거나 잔인했다거나 이웃을 괴롭혔다고 그를 고발할 수 없고, 음행이나 술 취함으로도 그를 정죄할 수 없으며, 요컨대 그가 사람들에 관해서는 모든 두드러진 악덕을 삼갔는데, 그 사이에 그의 마음에 경건(religion)도 믿음도 없고 그가 하나님을 버려둔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그의 삶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헛됨밖에 없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CO 240 오물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 속한 것을 돌려주고 하나님은 실망시켜 드리며 그분에게서 그분의 우위와 권위를 벗긴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높은 특권을 가지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욥이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 주려 하면서 이 종류, 곧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 기도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기도를 놓는 데에는 까닭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으뜸가는 제사라는 것을 보여 줍니다. 시편 50편(15절)에서 말하는 대로입니다. 그분은 위선자들이 당신을 섬기는 척하는 모든 의식을 물리치셨습니다. 위선자들은 겉으로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기도를 들어 주셔야 할 의무가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니,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으뜸가는 섬김은 우리가 그분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그분께 나아가면 그분이 우리를 당신의 모든 좋은 것에 참여하게 하시고, 당신의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셔서 우리가 결코 그분의 은혜를 빼앗기지 않게 하시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욥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 주려 하면서 그분께 기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뛰어난 일이라고 말합니다. 요컨대 이것으로 배웁시다. 우리가 잘 다스려지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며 받아 주시는 삶을 가지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의 모든 신뢰를 그분께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선하심에 피하지 않으면 우리는 가련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그 선하심에 기대면 그분이 우리 구원에 유익하다고 아시는 것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모자라지 않으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모두에게 좋은 본이 되도록 마음을 쓰고, 이웃에게 잔인하지 말며, 오히려 모든 일에서 어디서나 그들을 도우려 애쓰고, 약한 사람들을 참아 주며, 모자란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 삶이 이렇게 다스려질 때 그것이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그분의 영예를 벗기고, 그분을 섬기는 척하면서 그 사이에 우리끼리는 개와 고양이처럼 지낸다면,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고 아무리 선언해도 소용없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철천지원수이고, 우리 안에 반역밖에 없으며, 우리가 평생 그분과 전쟁을 벌인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엎드립시다.

제81편

욥기 21장 설교 4

CO 34:241–252

AI로 옮긴 초벌 번역입니다. 신학 감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CO 권: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 그들의 복은 그들 손에 있지 않네. 악인들의 꾀는 나에게서 머네. 악인들의 등불이 어떻게 꺼지며, 그들의 멸망이 어떻게 그들에게 닥치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의 몫을 줄로 나누시는가? 그리하여 그들은 바람 앞의 지푸라기 같고 회오리바람 속의 그루터기 같네. 주님께서 그의 아들들의 힘을 감추시고 그에게 갚으시니 그가 그것을 볼 것이네. 그의 눈이 자기 화를 알고, 그는 전능자의 분노를 마시네. 그가 자기 집에 무슨 즐거움을 남기겠는가? 그는 자기 날들이 짧아진 것을 보네. (욥 21:16–21)

CO 241 우리는 앞에서 욥의 의도가 무엇인지 풀이했습니다. 곧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어서, 저마다 악하게 살았느냐 선하게 살았느냐에 따라 벌을 받거나 하나님께서 삯처럼 갚아 주신다고 확실하게 결론 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덧없는 삶에서는 모든 것이 뒤섞여 있어서, 악한 사람은 편히 지내고 선하게 산 사람은 평생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런데도 욥은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의로우신 재판관이시라는 것, 사람들이 현재의 형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죄를 눈감아 주시고 그들을 아끼실 때 그들이 누리는 것은 참된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니 요컨대 욥이 여기서 다루는 논쟁이 무엇인지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주 유익한 일입니다. 먼저 여기 아래의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당신 뜻대로 이끄신다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그분의 손과 인도 아래 있어서 그분 앞

에 셈하러 나와야 한다는 것을 믿기란 우리에게 아주 어렵기 때문입니다. (말하건대) 이것이 우리 머리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또는 우리가 그것을 깨닫더라도 그것을 굳게 확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선자들이 하나님을 속이리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입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어떤 고통을 당하거나, 일들이 바르게 다스려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악인들이 멋대로 날뛰도록 허락하시며, 그분이 그들을 벌하려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면, 우리는 의심하고 무서운 상상에 빠집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돌보시고 모든 것이 그분께 다스려진다면, 지금 보이는 것과 다른 다스림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한 가지입니다. 그 밖에 우리는 육적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일하지 않으시면 그분이 결코 제때 오시지 않을 것처럼 여깁니다. 오늘 그분의 심판CO 242 이 보이지 않으면 내일은 너무 늦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알맞은 때를 아시니, 좋다고 보실 때 당신의 심판을 행하실 것이다. 그분께 날과 시를 정해 드리는 것은 우리 몫이 아니다" 하고 말할 그런 인내와 안정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육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 담긴 이 가르침을 더욱 잘 되새겨야 합니다. 곧 우리가 이 온 세상을 넘어서고, 우리 믿음이 여기 아래의 일들을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형통하고 선한 사람들이 더할 나위 없이 괴로움을 당하는 것을 볼 때, 그것이 우리를 붙잡아 두지 않게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만큼 얽매이지 않게 해야 합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높이 들려서 이렇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고삐를 늦추셔서 그들의 삶이 행복해 보일 것이다. 반대로 우리는 선한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과 번민 속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고 그들을 생각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본다. 그러나 기다리며 넘어가자." 욥이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 주는 이 가르침을 우리가 실천해야 할 방식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가 왜 이렇게 논쟁하는

지 보았습니다. 그의 친구들이 그가 하나님의 손에 이렇게 고난을 당하니 악하다고 그에게 믿게 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에게 아주 무거운 시험이었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여기 내놓은 것으로 무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거칠게 다루실 때에도 절망이 우리를 이길 만큼 혼란에 짓눌리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한동안 거칠게 보이시더라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이 가르침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할 방식이 이것입니다.

이제 하나하나 짚어 봅시다. 욥은 여기서 한 가지를 선언합니다. 곧 악인들이 첫 일격에 벌을 받지 않더라도 그 때문에 그들을 행복하다고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복이 오래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끝을 내실 것을 그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들의 복은 그들 손에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저마다 그 받을 대로 대하신다고 논쟁한다. 그런데 우리는 정반대를 본다. 그러나 나는 그렇다고 악인들이 CO 243 더 이득을 본다고 여기지 않는다. 왜 그런가? (흔히 말하듯) 그들은 자기 운수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삐를 쥐고 계셔서, 그들의 모든 즐거움과 그들이 가득하고 완전한 행복에 속한다고 여기던 것을 얼마든지 빼앗으실 수 있다." 그들은 스스로 눈이 부시고 우쭐해져서 자기가 거의 반쯤 천사가 된 것처럼 여기며, 요컨대 모든 화에서 자기를 면제시킵니다. 그런데 그들의 복은 그들 손에 있지 않습니다. 곧 그들은 어리석은 상상으로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자기 삶이 그토록 행복하다고 말할 때 꿈을 꾸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꾀는 나에게서 멀다"고 합니다. 곧 "나는 악인들에게서 보이는 이 현재의 행복에, 거기에 취하는 사람들처럼 눈이 부시지 않을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는 욥이 이 말로 무엇을 나타내려 했는지 봅니다. 그러니 이 가르침에서 잘 유익을 얻으려면 이것을 새깁시다. 악인

들이 기세를 떨치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밀한 고삐를 쥐고 계셔서 그들이 오늘 가진 모든 것이 내일 빼앗길 것이고, 아무것도 그들 힘 안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에 잘 새겨져 있다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지금처럼 그렇게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오늘 보는 것이 늘 머물러야 할 것처럼 여기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세상에는 뒤바뀜밖에 없고, 일들이 일 분마다 바뀌며,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고 아무것도 굳건하지 않다는 것을 잘 고백할 것입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그것을 충분히 선언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는 증거로, 오늘 우리가 형통하면 우리는 그것에 사로잡혀서 모든 것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속담처럼) 주인 없이 셈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면 "이것이 언제까지 가겠는가?" 하며 결코 그 끝을 보지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악인들을 시기하면 그들이 결코 망하지 않으리라고 상상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하면 아무 처방도 느끼지 못할 만큼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누가 우리에게 "인내로 기다립시다. 하나님께서 돌보실 것입니다" 하고 말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기대어 머물지 못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현재의 일들이 우리를 휩쓸어 가고, 우리가 그것들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부르거나 그분께 우리를 맡기거나 그분이 때와 곳을 따라 일들을 돌보시리라는 것을 깨달을 만한 안정이 우리 정신에 없다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우리는 "악인들의 복은 그들 손에 있지 않다"고 하는 이 가르침을 더욱 공부해야 합니다. 곧 사람들이 형통할 수는 있어도, (앞에서 보았듯이) 그들의 생명은 실 한 가닥에 매달려 있고, 그들이 가졌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도 빌린 것처럼 가지고 있을 뿐이며, 한순간에 모든 것이 그들에게서 빼앗기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읍시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으니, 하나님께서 현재 삶에 관해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를 넉넉히 베푸시면CO 244 모든 것을 그분께 받은 것으로 여깁시다. 참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그것을 입히셨듯이 그것을 벗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 보소서. 주께서 제게 살 것을 주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게 확실하지 않으니, 늘 그것을 누리리라고 셈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주께서 기뻐하시는 동안까지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듯(고전 7:30) 신자들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지지 않은 사람처럼 하는 것이 이렇게 해서입니다. 그들은 그것들이 자기에게 영원하다고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 가난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며, 그런 일이 생겨도 그들에게 새삼스럽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난을 보내시면 이렇게 말합시다. “주님, 좋습니다. 부는 주의 손에 있으니, 좋다고 아시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를 먹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의 궁핍을 보시니 그것을 채워 주시고, 우리가 지나치게 괴로움을 당하도록 허락하지 마소서.” 또 악인들이 자기 풍요를 자랑하는 것을 볼 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손에 쥐었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읍시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간직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다음에 “악인들의 꾀가 우리에게서 멀다“고 할 때, 우리가 어둠 속에 있는 것처럼 되어 현재의 일들에 잠들어서는 안 되고, 풍요에 지나치게 흡족해해서도 안 되며, 하나님께서 우리 소원대로 대하지 않으신다고 그분께 앙심을 품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배웁시다. 그러니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악인들의 꾀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이 바라는 것을 보내시면, 그들은 더는 견딜 수 없을 만큼 교만으로 부풀어 오릅니다. 그들은 더는 자기를 죽을 사람으로 깨닫지 않고 자기 자리를 넘어 높아지며, 너무 높이 올라가서 결국 넘어져 목이 부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 안에는 오만밖에 없을 것이고, 영적인 술 취함이 있어서 그들은 거기서 짐승처럼 둔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죽음이나 병이나 가난을 말하면, 오, 그것이 자기에게는 닿을 수 없을 것처럼 여기고 사람들이 자기에게 큰

잘못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그들을 낮추려고 "우리 처지가 얼마나 덧없고 연약한지 깨달읍시다" 하고 말하면, "그래,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들 같은가? 내가 그런 대접을 받는 사람들 축에 드는가?" 합니다. 이처럼 악인들은 형통할 때 너무 우쭐해져서 그들에게는 더는 이치가 통하지 않습니다. 요컨대 그들은 자기가 사람이요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모든 징계에 자기가 더는 매여 있지 않다고 믿습니다. 그 밖에 그들이 고난을 당하면 그때는 앙심을 품고 하나님을 향해 이를 갈며, 그들이 분노의 거품을 뿜는 것이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CO 245 그들은 하나님의 손에 복종하는 것, 그분께 자기를 제물로 드려서 그분께 바쳐지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대로 대우받는 것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런 것이 무엇인지 전혀 모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드럽게 대하실 때 우리는 늘 고삐를 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당신께 끌어당기시려고 우리에게 당신의 아버지 사랑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알고, 마땅히 그래야 하듯 참된 겸손으로 그분께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주께서 이렇게 부드럽게 보이시니 제가 주께 붙어 있는 것이 마땅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여기서 행복을 세우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주께서 저를 괴롭게 하실 때에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주님, 좋습니다. 주께서 저를 깨우셔서 제가 여기 아래에 머물러 게을러지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과 땅의 것들에 제 신뢰를 두지 않게 하십니다. 주께서 여기서 저를 낮추시고 길들이셔서 제가 더 큰 용기로 주를 바라보며 주의 하늘나라를 사모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꾀를 악인들의 꾀와 갈라놓아야 하는 방식이 이것입니다. 곧 우리 정신이 여기에 휘감겨서 이 세상의 일들이 우리를 짐승처럼 둔하게 하고 취하게 하여 더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악인들이 흔히 즐거워하는 모든 것을 업신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비참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리라고 바랄 때

우리 처지가 그 때문에 더 나빠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이 구절에서 새겨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이어서 욥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악인들의 등불이 어떻게 꺼지며, 그들의 멸망이 어떻게 그들에게 닥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줄을(또는 고통을) 정하시는가?" 이것은 이미 들은 말을 굳히려는 것입니다. 욥은 등불이라는 말로 형통을 나타냅니다. 성경에는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빛에, 고난을 어둠에 견주는 말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는 악인들의 등불이 꺼지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는 놀라워하듯 그것을 말합니다. 이 일이 사람의 감각을 넘어서고,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것을 넘어서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했듯이) 우리는 눈이 부셔서 하나님께서 하려 하시는 것, 심지어 그분이 이미 선언하신 것을 멀리서 볼 수 없습니다.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그 빛이 결코 꺼지지 않을 것처럼 여깁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하더라도, 그리고 악인들이 거의 구름까지 높아진 뒤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망하게 하시는 것을 보며 날마다 그것을 겪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았습니까? 우리는 곧 그것을 더는 기억하지 못하고,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듯 우리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감각은 그렇게 높이 오르지 못하고,CO 246 우리는 현재의 일들에 너무 단단히 붙잡혀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려 하시는 것을 헤아릴 수 없으니, 욥은 여기서 낯선 일처럼 말합니다. 그는 "악인들의 등불이 어떻게 꺼지며 그들의 멸망이 어떻게 그들에게 닥치는가?" 하고 말합니다. 그가 "그들의 멸망이 그들에게 닥친다"고 할 때, 그는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부드럽게 대하실 때, 그것도 한동안 그러하실 때, 우리가 눈을 땅에 박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하나님께서 재판관이신지, 그리고 악인들이 결국 벌을 받을지를 알아야 할 때, 우리는 이쪽에서나 저쪽에서나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보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풍요에 취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서 아무것도 그들을 해칠 수 없고 모든 피조물이 그들을 섬기도록 정해진 것처럼 보일 때에도,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위에서 그들에게 멸망을 보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주 높이 보려 할 때 우리 감각을 따라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께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거리가 너무 멀어서 우리는 그 사이에서 기절해 버릴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모든 감각을 우리 자신보다 높이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악인들의 멸망을 판단해야 하는 방식이 이것입니다. 곧 세상을 따라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것입니까? 무한하며,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려는 것입니다. 일들이 사람들에게 불가능해 보일 때에도 우리는 이렇게 결론 내리기를 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추어지고 알려지지 않은 방식으로 일하실 것이다." 참으로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들을 때 우리가 놀랄 수밖에 없도록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 세상의 모든 수단에 매여 있지 않으시며, 당신이 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놀라운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우리가 간직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줄을 펴실 것이다"라고 합니다. 이 말을 어떤 이들은 "고통"으로 풀이하고, 그렇게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스러운 뜻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몫을 나누시리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줄이라는 말은 몫으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흔히 말하듯) 땅을 측량하려 할 때, 곧 땅을 재려 할 때 줄을 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비유를 하나님의 섭리의 질서에 적용합니다. 경계를 정하고 소유를 나누어 저마다 자기 권리를 갖고 일들이 뒤섞이지 않도록 땅을 측량

하듯,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섭리로 뒤섞인 것을 질서 있게 바로잡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은 그분이 줄을 펴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CO 247 그것을 펴시되 진노하셔서 그렇게 하시리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들이 첫 일격에 제대로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지나치게 당황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뒤섞여 있고 더는 고삐도 줄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악인들이 즐거워하며 들판을 가로질러 날뛰고, 선한 사람들이 발에 짓밟히며 큰 모욕과 착취로 공격받고, 처방은 나타나지 않고 화는 더 나빠지며,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시는 척하시고, 세상에 더는 정의가 없으며, 힘센 자가 이기고, 요컨대 우리가 여기서 큰 폭풍 속에 있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절망에 삼켜져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줄을 펴시기를 기다립시다. 그분이 오늘은 그 줄을 감추시고 경계를 가르지 않으시며 일들이 좋은 질서로 바로잡히지 않더라도, 그분은 늘 그 줄을 손에 쥐고 계시고, 그것을 어떻게 펴고 나누셔야 하는지 아신다는 것을 잘 보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분은 첫 일격에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까? 아직 알맞은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늘 악인들의 재판관이시기를 그치지 않으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첫 일격에 그들에게 당신의 원수 갚음을 보이려 하지 않으시고, 당신 안에서 정하신 것을 그렇게 빨리 집행하려 하지 않으십니다. 또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지도 않습니다. 더구나 악인들은 더욱 핑계할 수 없게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참아 주시는 동안 그들을 회개로 부르실 때 이루어집니다(사도 바울이 롬 2:4에서 말하듯). 그들이 그분의 선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그렇게 남용했으니 그분 앞에서 그만큼 더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 선한 사람들은 괴로움을 당하는 동안 자기를 낮출 까닭을 얻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그 수단으로 단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인내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그들의 구원이

소망 안에 있으니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알며,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그들을 당신께 나아오게 하셔서 그들이 이 세상 밖에서 자기 기업과 행복을 찾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심판을 미루시는 데에는 까닭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보다 더 잘 아시듯, 당신의 진노를 집행하기에 늘 알맞은 때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이 절에서 간직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또 함께 "그때 그들은 바람 앞의 지푸라기 같으리라"고 합니다. 이 말로 욥은 악인들이 자랑하고 우쭐해하는 모든 행복에는 뿌리가 없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비유는 아주 흔해서 풀이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푸라기가 바람과 회오리바람에 어떻게 날리는지는 우리에게도 충분히 알려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욥은CO 248 여기서 악인들의 행복이 그다지 뿌리박혀 있지 않아서, 하나님의 진노의 회오리바람이 불어오면 사라지고 이리저리 흩어져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으리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그가 하나님의 진노가 생각지도 않을 때 일 분 만에 오리라는 것을 보여 준다는 것을 새깁시다. "악인들은 갑자기 붙잡힐 것이고,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멸망이 갑자기 그들을 덮칠 것이니, 그것은 해산의 고통이 생각지도 않을 때 여인에게 닥치는 것과 같다"(살전 5:3)고 말하는 대로입니다. 그러니 욥이 이것을 나타내려 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일들을 보내지 않으실 때 우리가 애태우는 것을 괴로워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일들을 뒤죽박죽으로 내버려 두실 때 우리가 그토록 참지 못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긴 준비가 있어야 할 것처럼 여기고, 우리 주님께서 당신이 어떻게 일하려 하시는지 표징을 보이셔서 우리가 오래전부터 어떤 낌새를 얻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죽을 사람과 같으셔서, 일에 손을 대려 하실 때 많이 애쓰시고 여기저기서 도움과 수단을 찾으셔야 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모든 위엄을 우리 처지에 매이게

하려는 방식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분이 일 분 만에 당신의 일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 아무 수단이 없고 일들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을 때에도 그러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모든 행복은 꿈일 뿐이라는 것을 배웁시다. 곧 그들이 자기가 아주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자기 운수를 자랑할 때, 그 모든 것은 곧 사라질 헛된 상상일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 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겉으로는 비참하면서도 그 사이에 하나님 안에 살아 있는 뿌리를 가지고, 우리가 결코 그분의 능력과 도우심을 잃지 않으리라는 것을 아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그것을 지극한 선으로 깨닫고, 그것을 가진 것으로 만족하며, 나머지는 모두 그에 견주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악인들이 늘 자기 처지에 머물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기에 너무 굳게 세우셔서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처럼 보이며, 그들 또한 (시편에서 말하듯[31] 결코 화가 자기에게 이르지 않으리라는) 그 교만으로 부풀어 있더라도, 우리는 여기 선언된 대로의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기를 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곧 그 심판은 갑작스러우며, 일들이 오래 전부터 이끌어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자연의 일반 질서 위에 계셔서 우리에게 낯설고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CO 249 이어서 욥은 함께 이렇게 덧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그들 자신의 몸에 벌하실 뿐 아니라, 그들에게 보내시는 징계와 벌을 그들의 자녀들에게까지 퍼뜨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들은 살아 있는 동안 자기 처지에 헛됨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러뜨리시기 전에도 싫든 좋든 자기가 잘못된 터 위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그래도 우쭐해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늘 그렇게 버틸 수는 없다는 것을

31. 원문은 시편 번호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시 10:6 참고.

깨달을 때까지 그들을 몰아붙이십니다. 요컨대 욥이 여기서 다루려 한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자녀들에 관해 말할 때 그것이 성경의 일반 가르침을 따른 것이라는 점을 새겨야 합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신자들 자신에게 복을 주실 뿐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에게도 당신의 은혜를 이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토록 큰 사랑을 품으셔서, 우리 구원을 돌보시고 당신이 우리에게 알맞고 유익하다고 아시는 것을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기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 자녀들도 품으시고 그들에게도 아버지로 당신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렇게 묘사됩니다. 곧 그분이 우리를 당신께 받아들이시고 우리가 당신의 손과 보호 아래 있다고 증언하셨을 때, 그분은 우리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은혜를 보이십니다. 그러하니 우리는 그분 안에서 쉬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 때문에 우리 뒤를 잇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은혜를 이어 가신다면, 더더욱 우리는 늘 그분을 은혜로우신 아버지로 느끼리라고 결론 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서 난 사람들까지 돌아보실 만큼 그토록 너그러우시니, 우리가 그분과 그분의 선하심을 의심해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자손을 저주하신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그들이 그분의 성령의 인도를 잃어서 모든 것이 잘못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불평할 까닭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것을 이상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버지 때문에 자녀를 벌하실 수 있는가? '죄를 짓는 자가 자기 죄악을 담당할 것이요, 아들은 아버지 때문에 벌받지 않으리라' 고 하지 않았는가?" 하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곧 아들이 자기가 의로운데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가 받아야 할 벌을 죄 없는 자기에게 떨어지게 하셨다고 불평할 거리를 가지는 식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버지들의 죄악을 자녀들의 품에 갚으시리라고 할

때, 그것은 그분이 그들에게 잘못을 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악인들을 내버려 두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온갖 악 말고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에게CO 250 당신의 성령을 주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들 위에 군림하고, 그들을 부추겨서 하나님의 진노를 점점 더 돋우고 그들의 멸망을 앞당기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자녀들은 거기서 아버지들과 함께 얽혀 있습니다. 한 집안이 하나님께 저주받으면 그 집안은 사탄의 소유가 되고 사탄에게 종노릇하며, 하나님의 영께서 거기를 다스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이 아버지들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은 그들 자신에게도 정당한 원수 갚음입니다. 그들은 "우리는 죄가 없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들처럼 죄 있는 자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신자들의 자녀들이 이어 가며 아버지들의 길을 따를 때, 그때 하나님의 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자랑할 거리가 없습니다. 자녀들은 "이것은 우리에게 속한 기업이다. 우리 아버지들이 그런 유산을 받을 만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 하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값없는 선하심에 돌려야 합니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매이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빚지지 않으시며, 다만 그렇게 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일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첫 일격에 악인들을 벌하지 않으시더라도 그들의 자녀들에게 향하실 것이라고, 곧 벌을 그들에게 남겨 두실 것이라고 할 때 우리가 간직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의 말을 이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판단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가 왔다는 것을 보이실 때까지 미룰 수 있도록 우리 정신이 평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때를 정하는 것은 우리 몫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서두르는 것은 비뚤어진 일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방식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이 때로 우리에게 낯설

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 정신은 낮아져서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주님, 주께서 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는 좋다고 여기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공상에 맞지 않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자녀들에게 당신이 그 아버지들에게 집행하신 벌을 남겨 두신다고 할 때, “감추다” 또는 “남겨 두다“라는 말에서 새겨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모든 사람의 머리에 들어올 수는 없을 것이고, 흔한 가르침도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 우리의 모든 공부를 잘 쏟아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본성상 성급하고 참을성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려 하시는 것을 늘 눈에 보이게 보여 주시기를 바라고, 그분이 당신의 손을 아주 뚜렷이 보이시지 않으면 그분의 섭리에 자리를 내어 드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끊임없는 싸움 속에 있어서, 이 세상에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시달려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CO 251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이 “남겨 둠“으로 우리 자신을 단련합시다. 악인들이 승리를 뽐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른 모든 사람보다 특권을 주신 것처럼 보일 때, “좋다, 기다리자” 하고 말합시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남겨 둠“이라는 말과 “감추어 둠“이라는 말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것이 어떻게 될지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 알지 못하는 일을 판단하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그렇게 하면 경솔하다는 책망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우리 눈을 여시고 당신 안에서 정하신 것을 집행하실 때입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자들에게 마련하신 좋은 것들을 남겨 두시는 일에 관해서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 주는 이 가르침을 실천합시다. 그것들이 감추어져 있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이 약속하신 것으로 위로받으려 할 때, 우리는 세상을 넘어서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누구든 자기에게 드러난 것에 머무는 사람은 믿음과 소망을 버리는 것이고, 요컨대

스스로 구원의 문을 닫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 (내가 이미 짚었듯이) 욥은 악인들이 자기 처지가 모두 헛되고 어리석다는 것을 잘 보게 되리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그것을 진지하게 느끼거나 그것에 마음이 움직인다는 뜻이 아닙니다. 야심이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지 않고 그들이 완전히 멍해지지 않았다면, 그들이 높아지면서 자기가 불행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렇게 이 세상에 자기 신뢰를 두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믿지 않는 자들은 높아지고, 오늘날 오만과 주제넘음에 그토록 미쳐서 어떤 정의와 이치에도 따를 수 없으며, 오히려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를 업신여기며 그분께 앙심을 품습니까? 그런 광기는 어디서 옵니까? 그들이 자기에게 마련된 것을 알지 못하고, 보면서도 아무것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곧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당신의 진노의 표징을 많이 주시는데도 그들이 아무것도 깨닫지 않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은 많이 시달리고, 그 속에서 그들을 몹시 괴롭히는 찔림을 받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그들은 자기에게 다가온 멸망을 깨달을 만큼 깊이 찔리지는 않고, 다만 세상을 따라 자기에게 닥칠 수 있는 화에만 찔립니다. 그들은 "내가 빠질 수도 있는 이런 위험에 대비해야겠다" 하며 아주 당황할 것입니다. 악인들의 형편이 이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잘 새겨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이따금 한 번씩 찔려서 우리 연약함을 느끼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찮은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도 그렇게 하도록 몰아붙이시지만 그들은 거기서 아무 유익도 얻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어떻든CO 252 늘 고집을 부리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세상과 현재 삶의 일들의 헛됨에 관해 들을 때, 사람들이 출세하려고 많이 애썼고 심지어 자기 계획을 이루었더라도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모은 좋은 것들을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누리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의 뒤를 잇는 사람들도 그것 때문에 저주받고

그것을 누리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악인들의 형통을 시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덧없고 변하기 쉬우며, 심지어 그들에게 저주와 멸망으로밖에 돌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가르침을 이렇게 실제로 적용해야 합니다. 그 밖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과 풍요를 보내실 때, 그것 또한 오래가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늘 거기로,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보다 더 멀리 끌어당기려 하신다는 데로 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기 아래에 있는 헛됨을 깨달읍시다. 그리고 여기서 아무것도 우리에게 확실하지 않을 때 그것이 우리를 괴롭히지 않도록 그렇게 깨달읍시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여기 아래에 뿌리박으려 한다면 하늘나라를 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구든 우리 생명이 하나님과 함께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우리에게 나타나리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흔들리는 것, 뒤바뀜과 변화밖에 없고 확실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보는 것을 괴로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하시는 그 하늘의 생명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이 세상의 모든 혼란과 보이는 대로 뒤죽박죽인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로 세상을 이끄시고 다스리셔서 당신의 뜻 없이는 여기 아래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를 그치지 맙시다. 그리고 그 이유가 첫 일격에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더라도 그래도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직무는 평온하게,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끝은 저주받고 선한 사람들의 고난은 그들에게 구원으로 바뀌리라는 것을 경험으로 보여 주실 때까지 인내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실제로 보여 주실 때를 기다리는 동안, 늘 평온하게 그분 아래서 걷고, 우리에게 무슨 일이 닥치든 흐트러지지 맙시다. 그분이 기뻐하실 때 괴로움을 당할 준비가 되어 있고, 그분이 우리에게 형통을 주실 때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당신의 아버지 같은 선하심을 맛보게 하시고 우리를 점점

더 당신께 끌어당기시려는 것이 되게 합시다.

이제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엎드립시다.

제82편

욥기 21장 설교 5

CO 34:253–266

AI로 옮긴 초벌 번역입니다. 신학 감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CO 권: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 높은 것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누가 지식을 가르치겠는가? 어떤 사람은 기운이 한창일 때 편안하고 평안하게 죽네. 그의 속은 젖으로 가득하고 그의 뼈는 골수로 적셔져 있네. 다른 사람은 번민 속에 죽고 자기 재산을 먹어 보지도 못하네. 둘 다 티끌 속에 눕고 구더기가 그들을 덮을 것이네. 이 일들이 내게 모르는 것이 아니고, 나를 해치려는 너희의 꾀도 그러하네. 너희는 "제후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들의 장막은 또 어디 있느냐?" 하고 말하네.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게. 너희는 그들의 표징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네. 악인은 멸망의 날까지 남겨지고 진노의 날에 끌려가네. 누가 그의 앞에서 그의 길을 그에게 보이며, 누가 그가 한 일을 그에게 일러 주겠는가? 그는 무덤으로 옮겨지고 묘에 누이네. 진흙 땅이 그에게 달고, 뒤따르는 사람들이 그의 뒤를 오며, 앞서간 사람들의 수는 셀 수 없네. 그러니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네. 너희 대답에는 거짓밖에 남지 않네. (욥 21:22–34)

CO 253 욥은 여기서 어제 다룬 말을 이어 갑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렇게 뒤죽박죽으로 대하시는 것이 우리 생각에는 이상하더라도, 그분을 책망하거나 그분의 의를 상대로 소송하거나 그분이 잘못하시는 것처럼 불평하는 것은 우리 몫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분의 섭리와 다스림은 우리가 헤아리기에 너무 높고 너무 깊은 지혜라는 것을 알고, 그분의 위엄 아래 우리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여기 담긴 것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는 것을 보여 주려고 그는 "어떤 사람은 고통 속에 죽고 다른 사람은 평안히 죽는다"고 말합니다. 곧 어떤 이들은 평생 큰 비참 속에 시들어

가기만 하다가, 살아 있는 동안 괴로움과 고통밖에 없었으니 마지막에는 사는 것을 지겨워하며 죽는 것을 우리가 보리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은 살찌고 아주 건강하며, 심지어 부유하고 넉넉합니다. 욥은 그들의 젖통이 젖으로 가득하고 그들의 뼈가 골수로 배불러 있다는 이 비유로 그것을 나타냅니다. 곧 그들은 모든 면에서 기름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차이를 보면서도 그 까닭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왜 어떤 이들은 이렇게 형통하여 평생 즐거움과 평안 속에 있고, 다른 이들은 끊임없이 시들어 가는가?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고 묻는다면, 뚜렷한 이유는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CO 254 물론 (앞에서 짚었듯이) 우리에게 잘 알려진 하나님의 심판들도 있어서, 우리가 눈을 뜨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시는 까닭이 이것이다" 하고 잘 짚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늘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을 가리시고 우리가 그분의 일의 이유를 알지 못하며 거기서 눈먼 사람처럼 될 때, 우리의 순종을 시험하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더라도 그분이 의로우시고 공평하시다고 고백한다면, 그것은 우리 믿음과 우리가 그분께 드리는 섬김에 대한 좋은 증명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날카롭고 교활한 머리를 굴리고 지나치게 캐물으며, 하나님께서 그 근거를 보여 주시지 않으면 그분이 의로우시다고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면, 그것은 마귀 같은 교만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는 억지로가 아니면, 그리고 우리 마음에 들 때가 아니면 하나님께 복종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욥이 여기서 아직 우리에게 감추어진 하나님의 심판들에 관해 말한다는 것을 잘 새깁시다. 그 대부분이 그런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무엇이라고 말해야 합니까? "누가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는가?" 곧 "누가 하나님께 그분의 직무를 보여 드리겠는가? 누가 그분께 '그분은 이러저러하게 일하셔야 한다' 하고 그분의 공과를 가르쳐드리겠는가? 우리가 하겠는가? 우리가 그렇게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

께서 계신 그 무한한 높이에 이를 수 있겠는가?" 하는 뜻입니다. 아, 거리가 너무 멉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까지 오르려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셔서 부끄럽게 하실 줄 잘 아실 것입니다. 높은 것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낙원의 천사들 위를 걸어 다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도 온전한 겸손으로 하나님의 비밀과 그분의 헤아릴 수 없는 심판을 경배해야 합니다. 그런데 썩은 것일 뿐인 죽을 사람이 그것을 살피고 그 이유를 알려고 나서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려면 이렇게 자기를 낮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우리에게 이치에 맞아 보이지 않을 때에도 우리 정신에 고삐를 매고 사로잡힌 것처럼 하여 거기에 순순히 따르기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변장되시지 않고, 우리가 그분의 위엄과 영광을 다른 모양으로 바꾸지 않게 해야 합니다. 말하건대, 우리는 일들을 바라보며 그것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치를 따라 그것을 하신다고 결론내리는 데 익숙해져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미 말했듯이) 이 삶 동안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의와 선하심과 지혜를 알지 못하더라도 당신을 의로우시고CO 255 지혜로우시고 선하시다고 고백하는지 보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분은 그 표징을 우리에게 충분히 보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왜 그런지도 모르는 채로 당신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당신을 영화롭게 할 넉넉한 거리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가 눈먼 사람처럼 되는 많은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자기 것이 아닌 것을 가로채서는 안 됩니다. 곧 "좋다, 우리가 보는 대로 판단할 수 있다" 하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 너의 하나님이요 너의 창조주께 네가 드려야 할 찬양은 어떻게 되겠느냐? 너는 그분을 네 그릇에 따라 재려 하느냐?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네 정신이 무엇이냐?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그 안에 갇히고 담길 수 있을 만큼 굳건하고 힘이 있느냐? 그것은 너 자신에게 너무 많은

것을 돌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여기 아래에서 일들이 뒤죽박죽인 것을 볼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마땅히 처리하시고, 우리에게 감추어진 이유들을 아시며, 마지막 날에는 지금 묻혀 있는 것 같은 것이 모두 드러날 것이고, 우리는 그때까지 판단을 보류한 채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지 느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시들어 가며 많은 번민과 비참을 겪는다면, 그는 자기 하나님께 달려가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 주님, 이것이 제게는 이상해 보일 것이고, 그래서 주의 선하심으로 도우시지 않으면 저는 인내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제 유익과 이익을 위한 것이 제게 불행과 혼란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저를 이렇게 벌하시는 까닭을 깨닫지 못하더라도 그것이 제 유익을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도 주께서 저를 괴롭게 하시며 무엇을 겨누시는지 알게 해 주소서." 어떤 사람이 편안하다면 그도 고삐를 잡고 하나님께 자기가 가진 좋은 것을 남용하지 않게 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하다. 그분이 나를 다르게 대하시는 것을 보기 때문이다. 나는 가련하고 비참한 사람들을 그토록 많이 보는데, 나는 바랄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다. 하나님께서 나를 흡족해하신다는 표다" 하고 말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러니 그런 교만과 오만이 우리 머리에 들어오지 않게 합시다. 그리고 그런 시험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아끼시는지 느끼게 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그분의 일의 이유를 밝혀 주시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만큼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온전한 겸손으로 그렇게 해야 하고, 하나님을 우리 감각에 매이게 해서 그분이 왜 이것저것을 하시는지 모든 일에서 하나하나 풀어 주셔야 한다고 주제넘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CO 256 지금은 부분적으로만

알려진 것을 그분이 밝혀 주실 때까지 인내로 기다립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될 때까지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온전히 알 수 없으니, 이 삶에서는 그분이 당신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만큼 그분의 선하심과 의와 지혜를 조금 맛보는 것으로 만족합시다. 그분은 그 말씀에서 지금 이때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아시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호기심과, 우리가 너무 기울어 있고 빠져 있는 그 터무니없는 대담함을 버릴 때까지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 "누가 하나님께 그분의 직무를 가르치겠는가?"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잘 간직합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분의 공과를 보여 드리고 그분을 감독할 만큼 그렇게 큰 박사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에 불평하고 거기서 흠을 잡을 때, 그것은 마치 하나님을 가르치려는 것과 같습니다. 온통 어리석음과 무지뿐인 피조물이 자기 창조주를 가르치려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오만입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반박하고 말대꾸하려 할 만큼 높아질 때, 그것은 가증스럽고 자연을 거스르는 괴물입니다. 물론 우리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모든 불평과 모든 말대꾸, 하나님께서 우리 감각과 욕구를 거슬러 하시는 일에 대해 우리가 품는 모든 불만은 그만큼의 신성모독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든 악한 생각의 꼬리이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온전한 겸손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따르지 않고, 그분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이 선하고 의롭다고 전체적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을 그분의 하늘 보좌에서 끌어내리고 그분의 위엄을 벗기며, 자기가 그분의 자리에 들어앉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아무리 선언해도 소용없습니다. 사실이 그것을 보여 주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하늘의 일들을 지나치게 캐묻고 싶은 호기심이 우리를 간질이고, 그 사이에 하나님께 앙심을 품는 대담함이 거기 섞일 때마다, 우리는 이

견줌으로 와야 한다는 것을 잘 새깁시다. "너는 누구냐?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시냐? 그분은 너의 창조주시다. 그런데 너는 그분과 대등한 것처럼 그분께 다가가 그분의 일을 따지느냐? 너는 무엇을 믿고 그러느냐? 네가 그렇게 높이 들어가고 모든 것을 네 감각에 복종시키려 할 만한 무엇을 가졌느냐? 가련한 피조물아, 너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이 견줌으로 오면, 우리를 부풀게 하던 그 교만이 완전히 꺾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미친 사람보다 더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니 욥이 여기서CO 257 "누가 하나님께 지식을 보여 드리겠는가?" 하고 말하며 가르치려 한 것이 이것입니다. 그 밖에 사람들은 그렇게 오만해서, 억지로 붙잡혀 있지 않으면, 말하자면 사슬에 묶여 있지 않으면 그들을 억누르기 어려우니, 그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높은 것들을 심판하신다 "고 말합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좋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속하지 않은 것을 가로채서 하나님을 상대로 소송한다 해도, 결국 그들이 무엇을 얻겠는가? 그들이 이것저것을 내세울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니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한 높아진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를 갈아도 늘 당신의 자리에 머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온전히 머무실 뿐 아니라 높은 것들 위에서 심판하실 것이고, 우리는 여기서 개구리처럼 뛰어다닐 것입니다. 우리가 구름 위로 날아가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거기로 날아갈 날개가 있다 하더라도 천사들은 훨씬 더 높고 뛰어난 영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천사들이 하나님의 동료이거나 그분과 대등합니까? 오히려 반대로 그들이 날개로 얼굴을 가린다고 합니다. 우리가 에스겔에서 그룹들의 모습 아래 보았듯이[32] 천사들은 그 본성에 큰 위엄이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자기 창조주 안에 있는 그 영광 앞에서 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하니 그토록 고귀하고 뛰어난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그 위엄에 가까이 가야 할 때

32. 날개로 얼굴을 가리는 모습은 이사야 6:2의 스랍들에게서 나옵니다. 에스겔(1:11, 23)의 생물들은 날개로 몸을 가립니다.

부끄러운 것처럼 된다면, 그에 견주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높은 것들을 심판하시니 우리가 주제넘게 그분을 거슬러 높아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거기까지 이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향해 쏜 것은 그분께 아무 해도 끼치지 못할 것이고, 오히려 모든 것이 우리 부끄러움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우리 머리 위로 돌을 던지는 것과 같아서, 돌은 우리 위로 다시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 사이에 우리는 하나님께 닿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곁 이쪽이나 저쪽에 계시다면 우리가 그분께 한 대 휘두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위에 계시고, 그것도 우리가 그분께 이를 수 없을 만큼 높이 계시니, 우리가 그분을 거슬러 일어서려 한다면 그것은 돌을 위로 던지는 것과 같아서, (내가 말했듯이) 그것이 우리 머리 위로 다시 떨어져 우리가 그것에 짓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런 논증을 하고, 자기 공상대로 하나님의 일을 따지며 그분께 말대꾸하려는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돌을 던지겠지만 그 돌은 그들 위로 다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돌에 부딪치는 모든 사람은 그것에 깨지고 부서질 것이다. 그리고 결국 이 돌이 그들 위에 떨어져 그들을 완전히 부수고 짓누를 것이다"(마 21:44 참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높은 것들을 심판하시는 것은CO 258 그분이 모든 피조물 위에 지극히 높으시다는 점에서일 뿐 아니라, 그분이 마땅한 것보다, 그리고 자기 분수를 넘어 그렇게 자기를 내세우려는 사람들을 특별히 상대하신다는 점에서도 그렇다는 것을 새깁시다. 그분은 당신이 모든 교만한 자의 철천지원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높아지려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것이 그들의 멸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배웁시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고, 반대로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없어질 수밖에 없다"(눅 14:11 참조)라고 기록된 대로입니다. 늘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고유한 직무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기를 기뻐하시는 만큼만 지혜로운 것보다 더 나은 것은 없다

는 것을 새깁시다. 그리고 그분께 순종하고 모든 일에서 하나하나 그분께 복종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지혜라는 것을 압시다. 그리고 일들이 우리 마음에 들지 않아서 우리가 어떤 논쟁에 들어가고 싶은 충동을 받을 때, 우리 자신을 붙들고 이렇게 말합시다. "그렇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분에게서 선하고 공평하지 않은 것이 나올 수 없을 만큼 그런 완전함이 있다. 그분의 순전한 뜻이 우리에게 충분해야 한다. 그것이 모든 선의 규범이요 그 샘이니, 거기서 담대히 길어 내자." 그러니 그분이 우리에게 당신의 일의 이유를 밝혀 주실 때에는, 좋습니다,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이 보여 주시는 것을 온전한 겸손으로 받읍시다. 그러나 그분이 그것을 우리에게 감추려 하신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아시는 것을 밝혀 주신다는 것을 잘 알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동안 모르는 채로 있기를 참읍시다. 어떻든 그분은 우리를 일정한 한도 안에 두려 하십니다.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일의 이유를 보여 주시지 않더라도 그분이 의로우시다고 고백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배우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요컨대 이 구절에서 간직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이어서 그는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티끌에 덮이고 구더기가 그들을 먹는다고 말하며, 그것이 큰 시험이라는 것을 보여 줍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저마다 다르게 대우받았는데도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같은 끝을 맞는 것을 보면, 더는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은 무덤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것이요 바라보는 것이라고 자주 일깨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큰 정직함으로 걸어온 어떤 의로운 사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끊임없이 시들어 가고, 하나님께서는 죽을 때까지 그에게 많은 고통을 보내시기를 그치지 않으시며, 죽음에서도 그는 오래 시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온갖 악에 넘쳐 흐른 다른 사람은 편안하게 죽을 것입니다. 내가 말했듯이, 일들이 이렇게

뒤죽박죽입니다. 그러면 그 끝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무덤에 있습니다. 그들이 티끌 속에 있습니까? 그들은 거기서 썩고 구더기가 그들을 먹으니,CO 259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쓴 사람은 시간을 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여기서 즐거움과 쾌락 속에 산 사람이든 이 세상에서 슬픔과 수고밖에 없던 사람이든 모두 한 무더기로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에 머물려 한다면 우리가 당황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남습니까? 더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오늘은 나타나지 않는 심판을 남겨 두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참으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 감추어진 것들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죽음에서는 모든 것이 같더라도 그래도 처지는 아주 다르다는 것을 깨달읍시다. 그러면 그것은 언제이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알맞은 때에 그것을 보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우리의 직무는 늘 그분을 경외하며 걷고, 그분이 세상의 재판관이시니 죄악은 벌받지 않은 채 남지 않으리라는 것, 그리고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의 의를 따라 걸으려고 수고한 사람들은 헛되이 수고하지 않았고 그들의 기대가 꺾이지 않으리라는 것을 결론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론 내려야 하고 늘 더 멀리 나아가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혹하는 자의 입으로도 밝히려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발람은 모든 진리를 가로막고 그것을 거짓으로 바꾸려고 애썼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고문대에 묶어 두시듯 붙잡으셔서 그는 “의인들의 죽음은 바랄 만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내 죽음이 의인들의 죽음과 같기를 바란다“(민 23:10 참조)고 말합니다. 그는 그것을 자원해서 말한 것이 아닙니다(그는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의 위엄을 없애고 지워 버리고 싶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말하게 하셨으니, 그것은 그분이 낙원의 모든 천사를 보내신 것보다 더한 일입니다. (말하건대)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요 진리의 원수인 자를 억지

로 그렇게 말하게 하셨을 때, 이 가르침을 특별한 표로 인증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간직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곧 무덤에서 모든 것이 한 무더기로 놓이고,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부자와 가난한 사람, 편안히 산 사람과 늘 번민 속에 있던 사람 사이에 아무 차이가 없는 것을 볼 때, 우리 눈길을 무덤에 박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죽음에서는 모든 것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질서와 완전한 상태로 되돌리실 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러 나타나실 때 그것이 만물의 회복이 되리라고 말하는 대로입니다 (행 3:21 참조). 그러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회복하러 오실 것이라면, 오늘날 세상은 흩어져 있는 것 같고 일들이 거기서 뒤죽박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우리 믿음이 이 일들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완성하시고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때까지 인내로 기다립시다.

CO 260 이어서 욥은 함께, 자기를 당황하게 하려고 애쓰던 사람들의 생각과 자기를 해치려는 그들의 꾀가 자기에게 모르는 것이 아니라고 덧붙입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너희가 무엇을 노리는지 안다. 너희는 나를 절망에 빠뜨리려는 사탄의 앞잡이 같다. 그러나 나는 내 하나님께 두는 소망 안에 굳게 설 것이다. 내가 여기서 더할 나위 없이 짓눌려 있더라도, 나는 나의 구원자가 되겠다고 약속하신 분을 계속 부를 것이고, 너희의 모든 시험에 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욥이 자기 친구들이 내세운 모든 것에 맞서 무장하고 대비합니다. 그들이 그를 절망에 빠뜨리는 것 말고 다른 목적과 과녁을 겨누지 않는다는 것을 그가 잘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는 유익한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곧 사탄이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려고 애쓸 때 우리가 늘 그의 계략을 알아차리도록 조심하고 그것에 맞서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해치려고 애쓰고 우리의 멸망과 파멸을 꾸미는 것을 볼 때 우리가 그들의 악의를 조심할 만한 신중함을 가지고 있다면, 모든 죄악의 왕인 사탄에게 맞서려면 우리 감각과

정신을 더욱 날카롭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떤 해를 꾸밀 때, 좋습니다, 우리는 잘 망을 보고 우리 원수들에게 있는 힘과 능력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힘으로 물리칠 수 없으면 꾀를 씁니다. 어떤 사람이 나쁜 조언으로 우리를 꾀려고 애쓰는 것을 볼 때, 좋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알려졌습니까? 그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싸움은 (사도 바울이 엡 6:12에서 말하듯)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곧 우리가 사람들에게 맞서야 할 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에게는 영적인 원수들이 있으며 그들이 주된 원수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사탄이 자기 모든 힘을 펼칩니다. 우리는 공중에 있으면서 사방에서 우리를 에워싸고 둘러싸는 마귀들과 싸워야 합니다. 그들에게는 불화살이 있어서, 우리가 모든 면에서 잘 대비하고 무장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곧바로 우리를 쓰러뜨렸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보다 이 점에서 깨어 있어야 하고, 사도 바울이 다른 곳, 곧 고린도후서(2:11)에서도 말하듯 사탄의 계략을 알아야 합니다. 이 구절에서 새겨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욥이 마귀가 그를 거슬러 일으킨 사람들이 그에게 놓은 시험들에 맞서 대비했으니, 우리도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것만 바라는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의 계략을 알아차리도록 눈을 뜨고 있어서 그들을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에 관해 이런 조심성을 가진다면, 무엇보다 사탄에 관해 그것을 가집시다. 그가 주된 원수이고CO 261 그가 우리를 거슬러 꾸밀 수 있는 모든 술책과 음모를 물리치려면 무엇보다 그에게 맞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저마다 조심해야 할 시험에 우리가 붙잡힐 때 모든 핑계가 우리에게서 없어진다는 것을 새깁시다. 우리가 탈선하면 저마다 그럴 만한 계기가 있었다고, 다른 사람에게 꾀임을 받았다고 내세웁니다. 요컨대 우리는 우리 조상 아담이 보여 준 것을 그대로 합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여자가 나를 속였습니다“(창 3:12 참조). 그렇습니까? 그러나 그 사이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깨어 있으려 하기만 하면 넉넉한 신중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잠들어 있으려는 사람들은 사탄이 그들을 자기 그물에 붙잡고 그들이 이리저리 헤매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될 만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자원해서 목을 부러뜨리려 하는 것 같고, 자기가 빠지는 구덩이를 찾아다닌 것 같으며, 탈선할 어떤 계기를 찾으면 아주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걸려 넘어질 거리를 찾아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고는 "오, 아무개가 나를 꾀었다" 하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대로 우리가 망을 본다면, 우리는 늘 우리를 붙잡는 위험에서 지켜질 것입니다. 그러니 이 구절에서 새겨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이어서 욥은 함께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라. 너희는 그들의 표징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여러 가지로 풀이됩니다. 어떤 이들은 길 가는 사람들을 비유적인 뜻으로 신자들로 받아들입니다. 신자들은 이 세상의 나그네여서 거기 머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 억지스럽습니다. 어떤 이들은 욥이 여기서 자기 친구들이 자기를 길 가는 사람처럼, 곧 모르는 사람처럼 판단했다고 말하려 했다고 이해합니다. 마치 "너희는 나를 길 가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보다 더 나쁘게 대한다" 하고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다른 이들은 또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자연스러운 뜻을 붙듭시다. 곧 욥이 여기서 말하려는 것은, 그의 친구들(적어도 친구라는 이름을 가졌고 그 구실로 온 사람들)이 온전하고 더럽혀지지 않은 판단력을 가졌다면 그를 거슬러 그런 중상을 쓰지 않았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 너희가 지금까지 논쟁한 것이 어떠한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라. 누구든 그것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왜 그런가? 그들은 나쁜 감정을 품지 않았고 어떤 나쁜 판단에 사로잡혀 있지 않으니, 그 진실과 실상을 말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그렇게 절제되어 있어야 한다." 요컨대 그가 말하려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우리는 사람이 자기 안에 기르고 품은 나쁜 감정만큼

이치와 진리에 어긋나는 것은 없다는 경고를 받습니다. 그는 그것 때문에 눈이 멀어서 더는 분별하지 못하고, 빛도 그에게는 늘 어둠과 같을 것이기 때문입니다.CO 262 우리가 이것을 마땅히 우리 쓰임에 적용한다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저마다 자기 정념에 고삐를 늦추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판단할 때 이치를 바라보고 그것으로 우리 자신을 이끌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정념이 너무 지배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떤 공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교만에 이끌려서 무슨 일이 있어도 굽히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그에게 경고하면 그는 아무것도 듣지 않을 것이고, 누가 어떤 충고를 해도 그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과 모든 공평에 맞서 굳어지면, 그는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것보다 더 좋은 평판을 얻을 수 없을 것처럼 여깁니다. 그다음에 다른 사람은 어떤 미움이나 앙심에 독이 올라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일이 그러한지 아닌지 알아볼 겨를도 없이 대뜸 판단할 것입니다. 이 악덕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군림하고 기세를 떨치니, 우리는 "길 가는 사람들도 우리를 가르칠 것이다"라고 하는 이 구절을 더욱 새겨야 합니다. 곧 어떤 일을 한순간, 지나가는 길에 바라본 것만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나은 재판관이요 더 의로운 재판관이리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바르게, 진실하게 판단하지 못하게 막는 나쁜 감정에 사로잡혀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욥이 이 구절에서 말하려 한 것이 이것입니다.

이어서 그는 끝으로 자기가 해 온 말을 맺으려고, 악인은 자기 멸망의 날까지 남겨지고 그런 사람들은 진노의 날에 끌려가듯 하리라고 덧붙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좋다고 여기는 만큼 빨리 사람들의 죄를 벌하지 않으시고, 선한 사람들을 괴롭히셔서 많은 고통과 괴로움 아래 두실 때, 우리가 경솔한 판단에 뛰어들지 않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그때 이렇게

말합시다. “어떻든 악인은 자기 날까지 남겨져 있다.” (어제 다루었듯이) “남겨져 있다“는 이 말이 우리 정신에 잘 새겨져 있다면, 그것이 우리를 경외 안에 붙들어서, 이 삶 동안 혼란과 지금처럼 뒤죽박죽인 일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지금처럼 그렇게 휩쓸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남겨 드릴 줄 모르고, 그분이 오늘 당신의 일을 하지 않으시면 내일은 제때 오시지 못할 것처럼 여깁니다. 우리 정신이 뒤엉켜 있다는 것, 이것이 모든 것을 비뚤어지게 하는 원인입니다. 그러고는 그렇게 성급하게 함부로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믿음에 자리를 내어 주지 않으니, 우리는 경험에 따른 것 말고는 하나님이 무엇이신지, 그분의 의가 무엇인지 더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내쫓으려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더는 아무 소용이 없고 우리가 거기 담긴 것을 하나도 믿지 않으며CO 263 우리 자신의 눈을 믿겠다고 말하려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갈라놓고 그분의 학교에서 멀어져서 더는 거기서 공부하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뒤에 사람들이 그토록 미쳐서 그들과는 더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오히려 마귀가 그들을 사로잡아 완전히 휩쓸어 가는 것을 놀라워해야 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아닙니다,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당한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은 자기 멸망의 날까지 남겨져 있다“고 하는 이 가르침을 더욱 잘 새겨야 합니다. 요컨대 우리가 여기서 악인들이 편안하고 형통하며 승리를 뽐내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시험을 받지 않고 거기서 어떤 찔림을 받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한가로우시고, 주무시는 것처럼 보이며, 여기 아래의 일들을 돌보지 않으시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말하건대) 우리가 그런 공상을 품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물리치고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좋습니다, 주님. 주께서는 이 세상보다 더 멀리 바라보아야 한다고 저를 깨우치십니다. 처음에는 주께서 주무시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악인들 위에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다른 심판이 있다는 것을 볼 때, 선한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안식이 있다는 것도 잘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당신의 의를 밝히셔서, 모든 것이 질서와 제자리로 되돌려질 남겨 둔 심판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십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본보기들에서 우리가 유익을 얻어야 하는 방식이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들이 우리 욕구와 달리 잘못되어 가고, 악인들이 승리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는 기색을 보이지 않으실 때, 반대로 선한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하는데 그들이 도움을 받는 것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거슬러 많은 모욕과 해와 폭력이 저질러지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손을 대어 돌보지 않으실 때,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피합시다. "좋다, 다른 심판이 있다. 악인은 자기 멸망까지 남겨져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악인들이 오늘 아낌을 받으니, 그들의 원수 갚음이 그만큼 더 무서우리라는 것을 새깁시다. 그 때문에 그들의 처지가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죄가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조롱하고, 그분의 오래 참으심을 남용하며, 늘 악을 계속하고, 심지어 굳어져서 선한 사람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슬러 악의를 부렸으니, 그 유예 기간은 그들에게 아주 비싸게 팔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악인들이 그렇게 자기 멸망의 날까지 남겨져 있는 것을 볼 때 슬픔 가운데서도 기뻐해야 합니다. 물론 한동안 악인들은CO 264 이 세상에서 낙원에 있는 것처럼 지낼 것입니다. 그러나 늘 그러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삶은 짧고 덧없으며, 그들은 셈하러 나와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가지고 장난치고 그분의 위엄을 업신여겼다고 책망받을 때, 그때는 어떻겠습니까? 거기서 그들에게 얼마나 무서운 원수 갚음이 마련되어 있겠습니까? 그러니 악인들의 마지막 처지를 깊이 두려워해서, 그들 가운데 섞이지 않고 그들의 악덕과 더러움에 물들지 않도록 붙들려서, 하나님의 같은 진노에 함께 휘말리지 않게 합시

다. 그다음에 우리가 짓눌려 있습니까? 선한 사람들이 괴로움과 번민 속에 있는 것을 봅니까? 좋습니다, 이렇게 깨달읍시다. "우리 삶이 겉으로 비참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더 멀리 나아가게 하려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우리를 부추겨서 하늘의 생명을 바라보게 하며, 그것을 사모하면서 악인들이 흔히 흡족해하고 여기 아래에 자기 모든 행복을 세우는 모든 것을 업신여기게 하려고 박차를 가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끝으로 욥은 "누가 그의 앞에서 그를 거슬러 판단할 수 있으며, 누가 그가 한 일을 그에게 갚겠는가?" 하고 말합니다. 처음 보기에는 그가 여기서 하나님에 관해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악인에 관해 하는 말입니다. 그래도 어떻든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고, 악인이 사람들의 손을 벗어났더라도 하늘의 재판관 앞에 나아오기를 그치지 않으리라는 것을 보여 주려는 것입니다. 요컨대 욥이 말하려 한 것이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이 자기 삶을 다 보냈고 아무도 그들에게 맞서지 않았으며, 그들이 살아 있을 때 구름까지 높아진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들은 무덤에 오기를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것도 늘 시험을 굳히는 쪽으로 끌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같다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욥은 여기서 자기 적들을 거슬러, 끝이 겉으로는 같더라도 그 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며, 사람들이 짐승처럼 둔해져서 무덤과 거기 나타나는 것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결론 내립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셔서, 당신이 세상의 재판관이심을 보이실 때 염소들이 어린양들에게서 갈라지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마 25:32–33 참조). 그러나 그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욥이 여기서 하는 견줌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자기가 한 말을 되풀이합니다. 곧 겉모습으로는 이 사람과 저 사람을 분별할 수 없으리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십시오, 사람은 자기 몸이 묻히기만 하면 진흙 땅을 얻는 것으로 아주 흡족할 것입

니다. 죽은 뒤에는 그에게 다 마찬가지이고, 이 사람 저 사람이CO 265 함께 무덤에 놓입니다. 시편(49:14[33])에서 말하듯, 이것이 인류의 처지입니다. 높은 자와 낮은 자, 늙은이와 젊은이의 몸이 무덤으로 옮겨지고, 모두가 양 떼처럼 무덤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겉모습을 따라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분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욥은 이렇게 말합니까? 그가 모든 것을 뒤섞으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이미 밝혔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의 끝이 겉으로는 같은 것을 보며 닥칠 수 있는 시험들에 맞서 오래전부터 대비해 두는 것이 좋고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괴로움을 당할 때, 자기 처지가 이 세상에서 가련하고 비참하더라도 그들에게 마련된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좋은 것에 대한 소망이 그들이 이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슬픔과 괴로움을 줄이고 누그러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자기에게 닥칠 수 있는 시험들을 아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우리는 여기서 너무 성급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고통에서 주시려는 건지심에 관해 들을 때 곧바로 "그러면 그것이 언제입니까?" 하고 말대꾸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공상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일반적으로 모든 일에서 하나하나 인내하기를 배워서, 가벼운 공상에 뛰어들거나 하나님께서 지금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기를 바라시는 것들을 머리로 지어내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 그분이 그것을 우리에게 밝혀 주시고, 우리가 오늘 헤아릴 수 없는 일들을 그분이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될 때까지 그분께 판단을 맡겨 드립시다. 욥이 여기서 모두가 무덤으로 가고 모두가 거기로 옮겨진다는 것을 보여 주는 까닭이 이것입니다. 곧 우리가 이렇게 결론 내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좋다,CO 266 죽음에서는 모든 것이 같아서, 우리는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분별하지 못한다. 그리고 솔로몬이 그의 전도서(9:4)에서 말하듯 살아 있는 개가

33. 원문은 49:15. 프랑스어 성경의 시편 절수로, 한국어 성경으로는 14절입니다.

죽은 사자보다 나을 것이고, 사람의 몸도 짐승의 몸처럼 썩으니 사람의 죽음이 개의 죽음과 같다(3:19 참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서 우리에게 보여 주는 것을 바라봅시다. 곧 하나님께서 남겨 두신 더 큰 심판이 있고, 그분이 세상의 재판관으로 나타나실 때 그것을 집행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들을 알아야 하고, 그것을 안 뒤에는 거기에 맞서 넘어서야 하는 방식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오, 누구든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취하라. 죽음에서는 더는 소망이 없기 때문이다” 하고 말할 만큼 어리석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한다면, 우리에게 마련된 더 나은 소망이 있다는 것을 깨닫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곳이 거기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을 가진다면 모든 것에 대해 그분께 감사하자. 그러나 그것을 믿지는 말자. 특히 우리가 그것을 남용했을 때에는 그 좋은 것이 하루아침에 우리에게서 빼앗길 수 있기 때문이다.” (말하건대) 우리가 현재의 일들을 이렇게 생각해야 하고, 우리가 사람의 감각을 따라 판단하면 모든 것이 비뚤어지리라는 것을 살펴야 합니다. 그것은 믿음이 우리 안에서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늘의 빛에 이를 때까지 그 말씀이 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 주는 등불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거기서는 부분적인 앎이 없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바라볼 때 모든 것이 완전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엎드립시다.

제83편

욥기 22장 설교 1

CO 34:267–279

AI로 옮긴 초벌 번역입니다. 신학 감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CO 권: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 데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말했네. “사람이 하나님께 유익을 끼치겠는가?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유익할 뿐이네. 네가 의롭다 한들 전능자께 무슨 상관이 있으며, 네가 온전하게 걷는다 한들 그분께 무슨 이득이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너를 두려워하셔서 너를 책망하시거나 너와 함께 재판자리로 내려가시겠는가? 네 악이 크지 않은가? 네 죄악이 끝이 없지 않은가? 너는 까닭 없이 네 형제에게서 담보를 잡았고, 헐벗은 사람의 옷을 벗겼네.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지 않았고, 굶주린 사람에게 빵을 거절했네. 힘센 사람이 땅을 차지했고, 권세 있는 사람이 거기 살았네.” (욥 22:1–8)

CO 267 우리가 사람들을 상대할 때 상대편에게 무엇인가 나무랄 거리가 있거나 그에게서 흠잡을 것을 찾으면, 우리는 소송에서 이긴 것처럼 여깁니다. 말하건대 우리가 잘못했고, 우리를 정죄하는 데 우리 양심 말고 다른 재판관이 필요 없을 때에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고발하는데 내가 죄가 있다고 느끼면, 나는 그에게도 찔러 볼 데가 없는지 찾으러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무죄 방면을 위해 내세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면 내 소송을 판단해야 할 사람들의 눈을 돌려서 그들이 나에게만 머물지 않게 하고, 내가 저지른 잘못이 흐려지고 덮이게 할 수 있을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우리가 서로에게 흔히 쓰는 방식입니다. 곧 우리는 어떤 핑계를 찾을 것이고, “어떻습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이런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니 그 뒤에 내가 그를 해쳤다 해도 그것을 저울에 함께 달아야 합니다" 하고 말할 수 있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빠져나갈 구멍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저지른 잘못을 줄이려 할 것입니다. 또는 "내가 이 점에서 잘못했다 해도, 이 사람은 완전히 죄가 없는가?" 하고 내세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는 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물론 우리는 죽을 사람들에게 하듯 하나님께도 같은 방식을 쓰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분께 무엇을 나무랄 수 있습니까? 그분에게서 무슨 흠을 찾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매여 있고 빚지셨다고 말하려고, 우리가 그분께 무슨 섬김을 드렸다고 내세우겠습니까? 이 모든 일에서 우리는 입을 다물어야 하고, 오직 빚을 고백하고CO 268 온전한 겸손으로 말대꾸하지 않고 소송을 걸지 않으며 정죄를 받아들이는 것만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엘리바스가 여기서 다루는 논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가 하는 말에서 좋은 가르침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가 이것을 마땅히 적용했다면 아주 잘 말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욥이라는 사람에게 잘못 겨누었습니다. 그가 잘못한 것이 이것입니다. 어떻든 이 가르침 자체는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아주 유익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 앞에 부르시고 우리 잘못을 인정하라고 재촉하실 때, 더는 "내가 이 점에서 잘못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셔야 한다. 보라, 내가 이런 일로 그분을 섬겼으니 그분은 이것을 인정하셔야 하고, 이것은 보상받을 만하다" 하고 말할 어떤 말대꾸를 찾을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시시한 잡동사니를 치워 버립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설 때에는 그것들이 설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분께 아무 이득도 가져다드리지 못하고, (흔히 말하듯) 그분은 우리에게서 차가운 것도 뜨거운 것도 받지 않으시며, 우리가 그분께 유익을 끼칠 수 없듯이 그분께 아무 해도 끼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결론 나고 확정되었으니, 우리 안의 모든 주제넘음은 꺾여야 하고, 온전한 겸손으로 정죄를 받아들이는 것 말고 다른 처방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나 이것을 더 잘 이해하도록, 여기 담긴 대로 차례대로 풀어 봅시다. 엘리바스는 "사람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을 가져다드리겠는가?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유익할 뿐이다" 하고 말합니다. 물론 처음 보기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공경하려고 애쓸 때 그분께 많은 공로를 쌓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점에서 너무 눈이 멀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이 모자라시기라도 한 것처럼 우리에게서 어떤 좋은 것을 받으실 수 있다고 상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분은 늘어나실 수도 줄어드실 수도 없고, 모든 선의 샘이셔서 다른 데서 아무것도 빌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분께 가져다드리는 것은 그분의 필요를 채우거나 어떤 식으로든 그분을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내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너에게 가겠느냐? 모든 피조물이 내 손에 있지 않으냐?"(시 50:10–12 참조)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 밖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위엄 밖에서 아무것도 찾지 않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좋은 것이나 유익을 가져다드린다는 이 어리석은 공상을 치워 버립시다. 오히려 시편 16편(2절)에서 다윗과 함께 우리의 선함이 그분께CO 269 미치지 못하리라고 고백합시다. 사람들이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손에서 아무것도 받으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곧 그분이 그것으로 이익을 보실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배부를 만큼 많은 은혜를 넉넉히 베푸신 뒤에도 우리는 그분께 아무것도 갚아 드릴 수 없습니다. 시편 116편(12절)에서 말하는 대로입니다. "주께서 내게 베푸신 그 많은 것에 대해 내가 주께 무엇을 갚으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다만 그분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에게 매이게 할 수 있기는커녕, 그

분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좋은 것을 베푸셔도 우리는 그분께 같은 것으로 갚아 드릴 수 없고, 심지어 섬김 한 방울도 그분께 가져다드릴 수 없습니다. 여기서 살펴야 할 첫째가 이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섬기는 데 마음을 쏟으라고 요구하시는가? 그분이 당신 자신을 생각하시는 것 같다" 하고 묻는다면, 그것은 오직 우리와 우리 구원에 관한 일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사는 규범을 주시고 악을 삼가라고 명하시며 이것저것을 하라고 요구하실 때, 그분은 당신께 유익한 것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온 율법에서 당신의 이익을 조금도 고려하지 않으시고, 우리 구원에 좋고 알맞은 것을 바라보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고, 악을 행하면 그것은 우리 손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온전히 머무십니다. 물론 우리 쪽에서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그분의 위엄을 범하고 그분의 의를 없애며, 그 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무엇을 줄이거나, 그분이 가지신 것을 빼앗거나, 그분께 닿아서 어떤 해를 끼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자기 자신만 해칠 것이고, 그에게서 나오는 모든 유익도 그 자신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점에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선하심을 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정성껏 명령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밝히십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하십니까? "내게 무슨 이익이 돌아오겠지" 하고 살림을 잘 꾸리려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유익과 구원을 마련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이익을 바라지 않고 섬기며, 어떤 사람의 유익을 그토록 염려해서 그를 찾아가 "당신은 이것저것을 해야 합니다" 하고 재촉하고, 아침저녁으로 그를 따라다니며 그가 자기 일을 정돈하도록 찌르고 부추기는데, 그 모든 것에서 내게는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주 드물고 특별한 사랑의 표가 아니겠습니까?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그분의 무한한 위엄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생각하시고 그토록 염려하시기를 마다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깊이 찔려야 하고, 심지어CO 270 그런 선하심에 놀라 넋을 잃은 것처럼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서 아무것도 얻으실 수 없는데, 그들이 너무 굳어지고 둔해서 그분이 구원의 길을 보여 주시고 거기로 오라고 권하셔도 한 걸음도 걸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뒷걸음질한다면, 그것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배은망덕이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에 이렇게 배은망덕할 때 무슨 핑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보다 더한 것이 있습니다. 곧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으시면서도 당신이 매이신 것처럼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너희가 내게 가져오는 그 모든 것이 내게 필요하냐?"(사 1:11 참조)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다는 증거로, 그분은 우리에게서 아무것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고, 그것이 무슨 값어치가 있기라도 한 것처럼 당신의 장부에 올리십니다. 그분이 당신을 포도원을 가진 집주인에 견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는 대로입니다. 그는 포도원을 가꾸게 한 뒤 거기서 포도주를 거둡니다. 또는 밭을 가지고 거기서 곡식을 거둡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쓰셔서 우리 행위가 당신께 아주 기쁘게 받아들여져서 그것이 기쁘고 향기로운 제물과 같다는 것을 보여 주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분은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을 행할 때 그것이 마치 당신 자신에게 하는 것과 같아서 그것을 당신께 한 것으로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도 친히 말씀하시는 대로입니다. "너희가 내 지체 가운데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준 것을 나는 내 몸에 한 것처럼 인정한다"(마 25:40 참조).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거기까지 내려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고 썩을 수밖에 없는 사람의 처지에 당신을 맞추시고, 우리가 그분께 아무것도 가져다드릴 수 없는데도 우리가 우리 형제들에게 하는

것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빚지지 않으셨는데도 자원해서 우리에게 매이신다면, 우리 쪽에서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인자하게 대하시는 것에 감탄하여 넋을 잃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구절에서 하는 말을 잘 새깁시다. 곧 사람이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거룩하고 바르게 살려고 애썼을 때, 그렇다고 그가 평생 하나님께 무슨 유익을 가져다드렸다는 뜻은 아니고, 그는 자기 자신에게만 유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을 행할 용기를 주시려고, 당신께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을 기꺼이 받으려 하십니다. 그분은 마치 그것으로 당신이 나아지시기라도 하는 것처럼 그것을 요구하시고, 그것이 헛수고나 쓸모없는 일이 되지 않으리라고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말하건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살라고 재촉하실 때 그분의 의도가 이것입니다. 그 밖에 이 구절에서 이것이 무슨 목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지는지도 깨달읍시다. 내가 말한 이 정황을 간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 셈하러 나올 때, 우리가 그분께 무슨 이득을 가져다드릴 수 있다거나 그분께 무엇을 공로로 쌓았다는 우리의 모든 어리석은 생각을 잊어버려야 하고, (말하건대) 그 모든 것이CO 271 꺾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누가 도와 드리고 채워 드려야 하는 피조물 같지 않으시고, 아무것도 모자라지 않으시며 당신 자신으로 만족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하니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도 우리에게 매여 계시지 않으니, 그분 앞에서 우리를 낮추기를 배우고, 우리 잘못을 슬퍼하되 그것 때문에 완전히 부끄러워하며, 하나님께 그것을 용서해 주시기를 구합시다. 그러나 그분이 왜 우리를 용서하시겠습니까? "그분은 내가 잘 살려고 애쓴 것을 아신다. 나는 이것저것을 했다" 하고 말하기 위해서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내세울 수 있는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전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정죄를 받아들이면서 그 모든 핑계를 잊어버립시다. 우리가 그런 모든 말대꾸를 다 써 보았자 그것은 하나님께 미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을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우리 잘못을 덮으려고 그런 허튼 장식을 쓰더라도, 우리 거짓이 드러나면 우리는 그래도 부끄러움으로 당황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 나아올 때에는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이 점에서 우리는 교황주의자들이 얼마나 착각하고 있는지 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대하려 하시면 그들 모두를 저주 아래 두신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으면서도 자기들의 속상을 내세우고, 거기서 하나님과 흥정하려 합니다. 한 곳에서 잘못했다면 다른 처방으로 그 잘못을 메울 수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으신 이른바 잉여 공로의 행위를 가지고 있어서, 그들이 어떤 악을 저질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몰아붙이실 때 그것으로 구멍을 메우려 할 것입니다. 그들은 "좋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이것이 보상할 것이다. 그리고 저울에 달아 보면 오히려 남는 것이 있을 것이다" 하고 말할 것입니다. 교황주의자들의 처지가 이러해서, 죄 사함이 값없다는 것, 하나님께서 당신의 순전한 선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그들은 아주 터무니없는 말로 여깁니다. 그들은 그것이 죄책에 관해서는 사실이라고 잘 고백할 것이지만, 벌에 관해서는 그것을 갚는 것이 우리 몫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런 교만에 휩쓸릴 때, 그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다른 모양으로 바꾸어 버려서 더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모른다고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기 담긴 것을 더욱 잘 새겨야 합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유익을 가져다드릴 수 있다고 스스로 믿어 보았자 그것은 순전한 어리석음이요 헛된 공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의 높으심이 어떠한지 깨달았을 때, 아무 말대꾸 없이 온전한 겸손으로 우리 잘못을 인정하기를 배웁시다. 우리는 그분께 아무것도 나무랄 수 없고, 그분이 우리에게서 무엇을 받으셨다거나 어떤 점에서 매여 계시다고 내세울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한 가지입니다.

이어서 함께, 우리가 선을 행하든 행하지 않든, 우리가 온전하게 걷든 말든CO 272 하나님께는 상관없다고 합니다. 엘리바스가 이렇게 말할 때, 그는

하나님께서 눈을 감으시고 그분께는 선과 악의 분별이 전혀 없다는 뜻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 자신에 관해서는 그것이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의와 올바름의 샘이시니 공평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롭게 살면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같습니다. 우리 안에 선이 없다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해가 빛살을 던질 때 여기 아래에서 빛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 아래에서 우리가 보는 빛은 땅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집 위에, 땅 위에 빛이 있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빛은 거기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른바) 반사된 빛이어서 땅이 그것을 받는 대로 되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빛은 땅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또 우리가 거울에 자기를 비추어 볼 때, 거울에는 얼굴이 없지만 사람의 얼굴이 거기 나타나고 거울이 그것을 보여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을 행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우리는 본성상 부패해 있어서 우리에게서는 온통 더러움과 가난밖에 끌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선하심과 의를 우리 위에 부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이 당신의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도록 이 은혜를 베푸신다면, 우리는 그분의 형상이 거기 비추어지는 거울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위에서 오지만 여기 아래에서 나타나는 빛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한 모든 것이 당신에게서 난 것임을 아시니, 그래서 선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그 근원이요 샘이시니 달리 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 그분 자신에 관해서는, 곧 그분이 받으실 이익이나 유익에 관해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그분께 상관없습니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가장 나쁜 짓을 한다고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의를 없애겠습니까? 그분의 위엄을 줄일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영광과 영예를 없앨 수 있겠습니까? 그분 나라의 경계를 좁힐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상관없다고 하는 뜻이 이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 관해서는, 그

분께 우리를 맞추고 순종으로 그분께 복종하는 것이 우리의 복이 아닌지 살펴봅시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도, 우리 삶이나 행위도 필요로 하지 않으시면서도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그토록 염려하시니, 그것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품으신 사랑을 깨달읍시다. 이미 말했듯이 그분은 우리를 당신께 결합시키시기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것도 우리가 잘 살면 당신의 나라가 세워진다고 하시고, 우리가 잘못 살면 당신이 더는 다스리지 않으신다고 하실 만큼 결합시키십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당신의 지극한 주권이 늘 남아 있지 못하게 막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그분은 그런 말을 쓰십니까? (내가 이미 말했듯이)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밝히시려는 것입니다.CO 273 잠언 8장(31절)에서 말하는 대로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지혜가 등장해서, 사람들 가운데 거하는 것이 자기 기쁨이요 즐거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당신 안에 있는 좋은 것을 가두고 감추듯 붙들어 두려 하지 않으시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퍼져서 우리가 그것에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비추시기를 기뻐하셔서, 우리가 미련한 짐승 같지 않고 그분이 보여 주시는 것을 깨달아 그분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저 위 그분의 나라로 들려 올라가게 하십니다. 모든 일에서 하나하나 그러합니다. 곧 그분은 당신의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넉넉히 베푸셔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렇게 당신을 우리와, 우리를 당신과 결합시키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토록 돌보셔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가 그분께 상관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분이 거기서 이익이나 손해를 보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요컨대 새겨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이어서 함께 "그분이 너를 두려워하셔서 너를 책망하시거나 너와 함께 재판 자리로 내려가시겠는가?" 하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늘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하듯 하나님과 핑계를 대며 얼버무리려 해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리라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 줍니다. 사람들과 벌이는 소송과 다툼에서 왜 그렇게 많은 트집을 씁니까? 어떤 방벽을 세우고 상대를 달래려는 것이 아니라면, 또는 상대를 겁주어 그토록 엄격하게 더 밀어붙이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무엇이겠습니까?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공격을 받으면 그는 살필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나를 맹렬히 몰아붙인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러면 그는 어떤 핑계를 쓰러 오거나, 상대편 뒤에 누군가를 붙여서 (흔히 말하듯) 그의 귀에 벼룩을 넣을 것입니다. "네 상대가 너보다 세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또는 그는 땅 밑에서 무엇인가를 꾸며서, 그 사람이 물러서고 식어서 처음 시작한 대로 감히 밀어붙이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화가 자기 머리 위로 다시 떨어질까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을 사람들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그들에게 겁을 주는 데 익숙하고, 그들에게 이를 드러내며 우리에게 원수 갚을 방법이 있다는 어떤 표를 주니, 하나님께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처럼 여깁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가 아주 정신이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 오만해서 이웃에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도 해 보려 하니,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두려워하셔서 잠잠하시리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상대편을 겁주게 합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살피기 때문입니다.CO 274 "이 사람이 나를 해치려 한다. 내가 그를 막아야 한다. 그리고 그가 나를 공격하면 내가 그를 물리칠 것이다. 또는 그를 물리칠 법적 수단이 내게 있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 몰아붙이지 못하게 막는 것이 이것입니다. 곧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려 하고 악인들이 우리를 해치려 할 때, 정의가 그 사이에 끼어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피할 곳을 두니, 그것이 그들이 꾀한 것을 실행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우리가 죽을 사람들을 상대할 때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감정에 이끌리신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분께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말했듯이 그분께 뜨거운 것이나 차가운 것을 가져다드릴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앞질러 당신 목에 발을 올려놓을까 두려워서 우리를 몰아붙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입김만 부셔도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거슬러 일어서는 사람들은 목을 부러뜨리는 것 말고 무엇을 합니까? 그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위로 올라가려고 애쓰다가 힘줄과 핏줄이 끊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올라갈 수 없고, 거기서 멈추어 설 수밖에 없으며, 지나치게 애쓰려 하면 온몸이 부서질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죽음에 이르는 추락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슬러 일어서는 그 마귀 같은 오만을 품을 때 그러합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경계하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시편 2편(4절)에서 말하듯 그분은 그런 오만을 비웃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음모를 꾸밀 때 큰 소리를 낼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왕들과 제후들이 동맹을 맺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거슬러 모의하며 백성들도 거기에 동조하면 그들은 큰 소리를 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기 아래에서일 뿐이고, 선지자 이사야(40:22)가 말하듯 사람들은 메뚜기와 같습니다. 메뚜기는 다리가 아주 길어서 뛰어오를 수는 있지만 곧 다시 아래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여기서 잘 움직이겠지만, 구름 위로 뛰어오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지극히 높은 곳에 거하시는 분은 그것을 웃어넘기기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인지, 곧 하늘들 위라는 것을 보여 주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결코 그분께 닿을 수 없을 것이고, 그들이 여기서 큰 소리를 내는 동안 그분은 저 위 당신의 안식 가운데서 웃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환하시고 우리 소송을 진행하실 때, 그것은 우리가 그분을 해칠 수 있어서가 아니고, 그분이 우리가 당신을 앞지르지 못하게 막으시려고 당신 자신을 생각하셔서도 아니라는 것을 배웁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악을 느끼게 하시고,

그것으로 우리가 처방을 찾도록 부추겨서 참된 회개로 그분께 나아와CO 275 그분의 뜻대로 다스려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벌하시면서 그들의 구원을 마련하십니다. 그들을 정죄하시면서 그들을 무죄로 풀어 주려 하십니다. 또는 그들이 징계를 받을 때, 그분은 당신의 의를 확증하고 굳히셔서 어떤 악도 벌받지 않은 채 남지 않으리라는 것을 보이려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그분은 사람들 안에 있는 이교만도 없애려 하십니다. 그들이 자기 악덕을 흡족해하고 그것을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으로 끌어오실 때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려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어떤 가책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죄받으며 우리 악덕이 드러나고 우리 옴이 긁힐 때마다, 더는 우리 자신에게 아첨하지 않기를 배웁시다. (말하건대) 더는 핑계를 쓰지 않기를 배웁시다. 우리 처지를 더 나쁘게 만들 뿐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신께 어떤 해를 끼칠까 두려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잘못을 느끼고 그것을 싫어하도록 재촉하신다는 것을 압시다.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그분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려고 손을 내미신다는 것, 또는 우리가 그분께 맞섰을 때,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악의에 더하여 그분이 우리를 당신께 돌아오게 하시려 애쓰실 때 굽히지 않는 그 고집과 반역이 있었을 때, 우리의 정죄가 두 배가 되고 우리가 그만큼 더 핑계할 수 없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압시다. 요컨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이어서 엘리바스는 함께 "네 악이 크지 않으냐? 네 죄악이 끝이 없지 않으냐?" 하고 덧붙입니다. (이미 짚었듯이) 이것이 욥이라는 사람에게 아주 잘못 적용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우리는 이 일반적인 가르침을 붙들어서 필요한 대로 우리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경솔한 사람, 진리를 자기 쓰임에 맞게 적용할 만한 마땅한 신중함이 없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셈하러 나올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보여 주신다는 것을 새깁시다. 곧 우리가 모든 일에서 하나하나 그분께 빚진 자이고, 그분은 어떤 일에서도 우리에게 매여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분께 아무 해도 끼칠 수 없다는 것, 그분이 우리를 정죄하시고 재판으로 끌어오실 때 그것은 당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과 유익을 위해서라는 것, 참으로 우리가 정죄받는 것조차 그 뒤에 그분께 무죄로 풀려나서 악인들이 결국 오게 될 그 극단의 정죄에 우리가 떨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심판으로 끌어오시는 것은 우리 죄를 살피고 우리 온 삶을 낱낱이 뒤져서 우리가 우리 악덕을 싫어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잘 뒤져 보고 그 실상을 알았다고 여길 때에도, 우리는 아직CO 276 그 백분의 일도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것을 압시다. 말하건대 아주 밝게 보고 자기에게 아첨하거나 악 속에서 자기를 기르려 하지 않는 사람들조차 그렇습니다. 어떻든 사람들은 멍하고 시야가 짧고 흐리니, 그들이 자기 죄의 백분의 일도 깨닫지 못할 것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훨씬 밝게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오늘 어떤 악덕에 빠지고 그것을 완전히 깨우쳤다 해도, 내일 아침 우리는 또다시 잘못을 저지를 것입니다. 참으로 하루도 수많은 범죄와 위반 없이 지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늘 다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 악덕만이 아니라, 두 가지나 세 가지가 아니라, 백 가지 악덕을 깨우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자기 양심을 잘 살펴보고 자기가 그토록 여러 가지로 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하나님께서는 이보다 백 배나 더 아신다" 하고 결론 내리게 될 때, 그 사람은 거기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거기서 몹시 놀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죽음의 깊은 곳에 빠진 것처럼 우리 머리털이 곤두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구절에서 새겨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되는 것을 들을 때 우리가 물든 악덕이 거기서 정죄될 때마다, 저마다 자기 안으로 들어가고 저마다 자기 자신의 소송을 진행하며, 하나님께서 자기를 몰아붙이시기를 기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깨달아야 합니다. "아, 나는 이렇게 잘못했고, 그것도 한 번이나 두 번이 아니라 수없이 그랬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잘못했다면 다른 잘못도 많다. 하나님께서 내 더러움을 뒤지려 하신다면 어떻겠는가? 나는 완전히 터져 버릴 것이다." (말하건대) 이것이 우리를 겸손과 회개로 이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처럼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데 더디지 않을 것이고, 적어도 그분의 징계에 대들 만큼 그렇게 고집스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이 자기 악덕을 흡족해하고 자랑하며, 신음하고 부끄러움으로 당황하는 대신 착한 그리스도인, 그것도 찾을 수 있는 가장 완전한 그리스도인 노릇을 하려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그렇게 하는 데 더욱 마음을 써야 합니다. 물론 그들은 일반적으로 "오, 나는 사람이고 모두가 자기를 죄인으로 고백해야 한다" 하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든 "나보다 잘하는 사람은 없다. 나보다 더 잘 살려는 사람을 나는 모른다"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가련한 탈선자들, 그것도 그들의 죄악으로 공기가 썩은 냄새를 풍길 만큼 탈선한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여기 와서 대놓고 하나님을 조롱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말했듯이) 우리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잘 뒤져 보면, 한 가지 죄나 두 가지 죄가 아니라 모든 일에서CO 277 하나하나 완전히 부끄러워하며 정죄를 받아들이는 것 말고는 우리에게 남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저주받았고 비참한 것보다 더 비참하다는 것을 깨달읍시다. 요컨대 여기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형식적으로 자기를 죄인으로 고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오, 내게 잘못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하고 말하면 충분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맙시다. 오히려 그 짐이 너무 무거워서 우리가 더는 견딜 수 없게 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참으로 영화롭게 되시는 것은 이렇게 해서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작은 연약함과 불완전함이 있다고 말할 때가 아니라, 다윗과 함께 자기 죄의 크기와 자기 죄악의 많음을 말할 때입니다(시 38:4[34]). 다니엘이 그의 고백(9:20)에서 말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 견주면 천사와 같았지만 "나는 내 죄와 내 백성의 죄를 고백했다"고 말하며, 작은 잘못처럼 말하지 않고 "주님, 우리 죄는 크고 막대합니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깨닫기를 배우되,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서 하나하나 참으로 영화롭게 되시도록 그렇게 깨닫기를 배웁시다. 이것이 한 가지입니다. 또 우리가 저지른 잘못에 짓눌린 것처럼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은혜로우시리라는 무슨 소망을 가지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께서는 "나는 죄인이다, 내게 연약함이 있다 하고 말하는 너희 모든 사람은 내게로 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는 너희 모든 사람", 곧 자기 죄의 무게 아래 어깨가 굽은 사람들은 오라고 하십니다(마 11:28 참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 안에서, 그분의 은혜 안에서 자비를 얻도록 부르시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마음에 찔림 없이 아무렇게나 고백하며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말에서 새겨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 밖에 그런 깨달음에 이르려면 우리가 저지른 잘못을 하나하나 따로 살펴야 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잘 뒤져 보고 자기 잘못을 바라보며 그것을 하나씩 잘 짚어 보지 않았다면, 결코 진실하게 "나는 지옥에 빠진 것 같다" 하고 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하나하나 따로 살펴보지 않았다면 우리 죄악이 끝이 없고 셀 수 없다는 것을 결코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34. 원문은 38:5. 프랑스어 성경의 시편 절수로, 한국어 성경으로는 4절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순서가 놓인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죄가 크고 그의 죄악이 끝이 없다고 일반적으로 선언한 뒤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너는 헐벗은 사람의 옷을 벗기지 않았느냐? 까닭 없이 담보를 빼앗지 않았느냐? 굶주린 사람에게서 빵을 거두지 않았느냐?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물을 거절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사이에 폭력이 가득한 사람들과 한패가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너를CO 278 핍박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이미 말했듯이) 엘리바스가 욥에게 큰 잘못과 모욕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하나님의 영께서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낮아지려면 지켜야 할 순서를 가르치시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어지지 않고, 그분께 대들려 할 때 그런 식으로 그분의 원수 갚음을 돋우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요컨대 사람들이 하나하나 따로 자기를 살피고, 그다음에 항목별로 셈을 하지 않는다면 결코 마땅히 자기를 죄인으로 느끼지 않으리라는 것을 새깁시다. 물론 우리는 그것을 끝까지 해낼 수 없을 것이고, 늘 다윗과 함께 "누가 자기 죄를 알겠습니까?"(시 19:12[35]) 하고 결론 내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그 위를 대충 지나가기만 하고 일들을 깊이 파고들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땅의 재판관이 한 사람의 목숨만 걸린 소송에도 날카롭고 주의 깊을 줄 안다면, 묻건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노엽게 했을 때 거기에 더 큰 염려를 기울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형사 소송이 아니라 얼마 안 되는 돈이 걸린 소송일 때에도, 재판관은 증인이 있는지, 소송이 잘 진행되었는지, 사실이 확인되었는지 자세히 살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고작 열 플로린이나 스무 플로린, 백 에퀴, 또는 그 밖의 무엇에 관한 일일 뿐입니다. 그리고 재판관이 자기 직무를 다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도둑처럼 죄 있는 자로 여겨질 것입니다. 그는 한 사람에게 속한 남의 재산과 살림을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주니 도둑보다 더 나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묻건대, 하나

35. 원문은 19:13. 프랑스어 성경의 시편 절수로, 한국어 성경으로는 12절입니다.

님께서 우리를 우리 삶의 재판관으로 세우시는 이 영예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도 우리 구원을 위해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가 게으르고 우리에게 그토록 유익하고 이로운 것에 눈을 감는다면 핑계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가 짚은 것을 잘 달아 봅시다. 곧 사람들이 하나하나 따로 자기 삶을 잘 살펴보기 전에는 결코 마땅히, 요구되는 대로 자기를 참으로 죄인으로 알지 못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추한 범죄를 저질러서 우리아를 죽이려다가 한 사람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잔인한 살인의 원인이 된 것을 볼 때, 그 한 가지 죄가 그를 어머니 배 속까지 데려갑니다(시 51:5 참조). 그러니 그가 자기 죄의 추함을 본 뒤, 그 막대함이 그로 하여금 그 한 가지 죄만 생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자기를 더 가까이 들여다보고, 심지어 어머니 배 속까지 자기를 살피며 모든 일에서 하나하나 자기를 정죄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CO 279 사람들이 사제의 귀에 대고 고백해서 거기에 자기 죄를 쏟아 내게 하려 한 교황의 고해는 마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대식가가 포도주를 너무 많이 채워 넣어서 위가 더는 견딜 수 없을 때 그것을 토하러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방식의 고백을 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그분의 말씀에 완전히 어긋나고 거스르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그분은 우리가 한마디로 "내가 잘못했다" 하고 말하고, (이 지방 속담처럼) 숯불 위를 지나가듯 대충 넘어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세히 생각하고, 저마다 자기 양심 속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자,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 잘못만이 아니라 이런 잘못, 저런 잘못이 있고, 한 번만이 아니라 늘 거기로 되돌아간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따로 우리를 살펴볼 때, 우리는 "주님, 우리 죄악은 끝이 없고 우리 범죄는 한이 없습니다" 하고 결론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말하건대)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이 점에서입니다. 가련한 죄인들이 이렇게 깊이 찔리고 양심에 상처를 입어서 자기 악덕을 싫어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죄인이다" 하고 일반적으로만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마음 깊은 곳에서 찔리지 않았고, 자기 죄를 알고 그것을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을 잘 드러냅니다. 그러니 우리 쪽에서는 우리 모든 악덕을 잘 찾고 살피기를 배웁시다. 그리고 그것을 얼마쯤 모았을 때 그보다 백 배나 더 많다는 것을 알고, 우리 자신 안에서 부끄러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며 정죄를 받아들여 이렇게 말합시다. "아, 주님, 우리 죄가 많고 우리 죄악이 끝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말하듯 주의 많은 자비가 우리 위에 부어지게 하소서(시 40:11–12[36])."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심으로 우리 모든 범죄를 덮으시고 없애시며 당신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거기서 깨끗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실 때, 그것만이 우리가 그 모든 범죄의 용서를 얻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엎드립시다.

36. 원문은 40:13. 프랑스어 성경의 시편 절수로, 한국어 성경으로는 12절이며 주의 자비를 구하는 말은 11절에 있습니다.

제84편

욥기 22장 설교 2

CO 34:280–291

AI로 옮긴 초벌 번역입니다. 신학 감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CO 권: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 너는 과부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냈고, 고아의 팔은 꺾였네. 그러므로 올무가 너를 둘러싸고, 갑작스러운 두려움이 너를 놀라게 하네. 어둠이 너로 보지 못하게 하고, 큰물이 너를 덮네. (욥 22:9–11)

이 설교는 6, 7, 8절 풀이를 이어 간 뒤 이어지는 본문을 다룹니다.

CO 280 엘리바스가 여기서 욥에게서 결코 보인 적이 없는 죄들로 그를 고발하는 것이 어떻게, 왜 그런지 이상하게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뒤에서 보겠지만) 욥은 평생 아주 인정 많고 너그러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가 고아들의 후견인이었고 과부들의 보호자였으며, 눈먼 사람들에게 눈이 되고 다리 저는 사람들에게 다리가 되었고, 그의 손이 궁핍한 사람들에게 결코 닫힌 적이 없었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면 왜 엘리바스는 그가 이웃들의 재산과 살림을 빼앗았고, 불쌍히 여기지 않았으며, 잔인한 사람이었고, 자기 재산을 혼자 먹어 치웠다고 고발합니까? 이 일들에는 아무 근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엘리바스가 고난을 보고 욥이라는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을 새겨야 합니다. 그것이 그가 모든 것을 비뚤어지게 하는 원인입니다. 앞에서 보여 주었듯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괴롭게 하실 때 우리는 신중해야 하고, 그것을 보고 그가 악하며 그가 받을 대로 대우받는다고 결론 내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속담처럼 쟁기를 소 앞에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바스가 그렇게 하니, 그의 판단은 부패해 있습니다. 그

밖에 그가 여기서 내놓는 것은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마치 욥에게 자기 온 삶을 잘 돌아보라고 권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가 이렇게 흔치 않은 방식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 그가 악한 사람이었고 그의 범죄가 너무 막대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서운 원수 갚음을 펼치셨다고 결론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네가 형통할 때 잔인하지 않았는지 살펴보라. 네가CO 281 가난한 사람들을 나쁜 일로 몰아붙이지 않았는지 살펴보라. 네게 도움을 청한 사람에게 도움을 거절하지 않았는지 살펴보라. 네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이 아니었는지 생각해 보라. 그리고 지금도 네가 거기 머물러 자기를 의롭다 하려 한다면, 그것은 네가 대놓고 하나님을 조롱한다는 표다. 지금이야말로 네가 자기를 낮출 때이기 때문이다. 네가 이렇게 쓰러져 있을 때 너는 네 재판관을 인정하고 자기를 정죄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너는 늘 하나님과 다투려고 고집을 부린다. 그러니 네가 조롱하는 자라고 결론 내려야 한다." 엘리바스는 이렇게 나아갑니다. 거기서 우리는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있을 좋은 것이나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두신 덕을 보지 않고, 아무 낌새도 없는 곳에서 헛된 짐작을 쓰기 때문입니다. 엘리바스가 그가 여기서 욥에게 들이대는 것을 욥에게서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욥이 뒤에서 밝히는 대로입니다. 그러면 왜 엘리바스는 그렇게 그를 책망합니까? 그가 "욥이 하나님께 혹독하게 벌을 받으니 무슨 죄를 저질렀을 것이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히 버리셨다"는 이 어리석은 공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바스가 내리는 잘못된 결론이 이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로 당신의 사람들을 그들이 저지른 잘못대로가 아니라, 그들의 인내를 시험하려고 벌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이 푸른 나무를 이렇게 대하시면 마른 나무는 어떻겠느냐(눅 23:31 참조)는 것을 보이려 하십니다. 그 밖에 그분은 이 세상에 관해 그들을 죽이려 하십니다. 또 그분은 우리가 여기 아래에서 견디는 비참이

우리에게 약속된 그 복을 막지 못하리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그 복은 감추어져 있고 이 세상에서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괴롭게 하시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이 저주받고 비뚤어진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결론 내리러 간다면, 그것은 모든 것을 뒤집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나쁜 꼬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곧 그때 우리가 어리석은 짐작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인가? 이 사람은 겉으로 훌륭한 사람이었다. 그러면 그가 이렇게 대우받을 만한 까닭을 그에게서 어떻게 찾겠는가?" 이것이 엘리바스가 여기서 하듯 우리에게 공상하고 헛소리할 계기를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을 판단해야 할 때 더 신중하고 절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그들의 삶을 잘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악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그의 악덕이 널리 알려져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벌하신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의 본보기로 가르침을 받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교훈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에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서 하나님께서 그를 엄하게 벌하셔야 할 까닭을 보지 못했는데 그에게 어떤 재앙이 닥친다면, 판단을 보류하고CO 282 시편(41:1[37])에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실천합시다. 곧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좋은 쪽으로 기울어서 이렇게 깨달아야 합니다. "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받을 대로 대하려 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는 이 사람보다 낫지 않고, 심지어 더 나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가 얼마나 고난을 당하는지 본다."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멀리 이끄시려 하고 우리 삶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신다는 것을 배웁시다. 그다음에 그분은 당신의 사람들을 여러 싸움으로 단련하려 하시고,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인내했을 때 다른 곳에 그들에게 마련된 더 나은 안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위로받게

37. 원문은 41:2. 프랑스어 성경의 시편 절수로, 한국어 성경으로는 1절입니다.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식이 이것입니다.

이제 여기 놓인 것을 하나하나 짚어 봅시다. 엘리바스는 "너는 까닭 없이 네 이웃에게서 담보를 잡았고, 헐벗은 사람의 옷을 벗겼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 죄를 정죄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는 여전히 불쾌하다는 것을 봅니다. 어떤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궁할 때 그에게 꾸어 주면서 담보를 너무 잔인하게 잡아서, 그의 침상 이불이나 그가 입어야 할 겉옷을 빼앗는다 해도, 아무도 그 일로 그를 법정에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불려 간다 해도 그는 무죄로 풀려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자기 돈을 꾸어 주었고, 자기 돈을 지키려고 담보를 잡는 것이 그에게 허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 관해서는 그를 조금도 강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관해서는 그 때문에 우리가 무죄로 풀려나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책망받지 않았다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여긴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땅의 법질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완전함으로 우리를 이끌려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유지되어서 저마다 자기 권리를 갖고, 힘센 자가 이기지 않으며, 사기와 강탈과 해와 모욕이 징계받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세상의 법질서가 쓰여야 할 데가 이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에는 이렇게 내세우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나는 교수대로 끌려가거나 매를 맞을 만한 도둑이 아니었다. 사형 선고를 받을 만큼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몸의 형벌이나 불명예를 부르는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을 내세워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남몰래 이웃을 미워했다면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살인자로 여겨지고, 남의 아내를 더럽히고 꾀려고 애썼거나 심지어 음란한 눈길을 보냈다면 나는 간음한 자로 정죄받기 때문입니다. 내가 남의 재산을 탐내고 그것을 내게 끌어오려고 꾀한다면, 사람들이 나를 조금도 나무라지 않더라도CO 283 나는 하나님

앞에서 도둑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구절에서 유익한 가르침을 거둘 수 있습니다. 곧 사람들이 우리 평생에 우리가 잘못을 저질러 법정에 끌려갔다고 나무랄 수 없을 때에도 우리 자신에게 아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컨대 사람들이 우리를 더할 나위 없이 의롭다고 여길 수 있을 때에도, 그 때문에 우리가 빠져나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까닭은 무엇입니까? 자기 돈을 지키려고 담보를 잡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때로 살인자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까닭 없이" 담보를 잡는 것을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담보를 잡는 일 자체는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전히 물리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의 재산을 사는 것이 허용된다면 담보를 잡는 것도 허용될 것입니다. 밭이나 풀밭을 저당 잡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누가 어떤 세간을 가져오더라도 그 자체로 완전히 물리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터무니없이, 까닭 없이 담보를 잡는 것은 나쁘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엘리바스가 자기 뜻을 덧붙이니 우리는 다른 데서 풀이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욥이 이웃의 담보를 잡았고 헐벗은 사람의 옷을 벗겼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율법에서 선언하시는 것을 따른 것입니다. 곧 우리가 잡는 담보는 사람이 일상의 필요를 위해 쓰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출 22:26–27; 신 24:12–13 참조). 어떤 사람이 헐벗어서 추위에 떠는데 우리가 그의 겉옷을 빼앗을 만큼 잔인하다면, 그것은 일종의 살인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배가 고파서 곡식이나 다른 먹을 것을 사려고 자기 침상 이불을 맡기고 맨바닥에 눕는다면, 그것을 잡는 사람은 아주 비인간적입니다. 그는 할 수 있는 한 그를 죽이는 것이고, 다만 죽음의 방식을 바꿀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목이 졸릴 위험에 있는데 "좋다, 내가 밧줄은 풀어 주겠다. 그 대신 목을 베겠다"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가난한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서 빵을 얻으려고 자기 침상을 내줄 수밖에 없을 때, 그것은

너무나 추하고 변명할 수 없는 잔인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율법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사람의 담보가 네 집에서 밤을 지내지 않게 하라. 그것이 그의 필요에 쓰이고 그가 그것 없이는 탈이 나리라는 것을 보면 그에게 돌려주어라.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자기 잠자리를 가지고 네가 그의 필요를 채우고서 그것을 그에게 두면 그의 옆구리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네가 그의 겉옷을 돌려주어서 그가 춥지 않으면 그의 몸이 너를 축복할 것이다.” 반대로 가난한 사람이 네 악의 때문에, 그리고 네가 담보 없이는 아무것도 꾸어 주려 하지 않을 만큼 인색했기 때문에 맨바닥에 눕고 괴로워한다면, 그 가난한 사람이 원수 갚음을 구하지 않고CO 284 벙어리처럼 있더라도 너는 저주받을 것이고, 그의 궁핍만으로도 너를 하나님 앞에 셈과 심판으로 불러내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엘리바스가 지금 나타내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는 “그렇다, 너는 헐벗은 사람의 옷을 벗겼다“고 말합니다. 곧 “어떤 가난한 사람이 네게 와서 돈을 꾸어 달라고 했을 때, 너는 그에게서 담보를 잡으면서 그가 네게 자기 겉옷을 주는지, 자기 잠자리를 주는지, 자기 냄비를 주어서 빵이 있어도 그것을 어떻게 먹을지 모르게 되는지 살피지 않았다. 너는 그에게 필요한 것을 빼앗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온전하게 걷고 형제처럼 함께 살려면, 땅의 법을 지키고 세상의 법질서를 거스르지 않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오히려 더 높이 올라가야 합니다. 곧 남이 우리에게 해 주기를 바라는 것만 남에게 하라는 이 자연의 공평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마다 자기가 남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곧 자기가 그런 궁핍에 처했을 때 무엇이 공평하다고 판단할지를 자세히 살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할 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돌보라고 명하십니다. 내가 배고플 때 나는 추위에도 떨기 쉽습니다. 그런데 내 등에서 겉옷을 벗겨 가는 사람은 내 목을 베는 것만 바란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 이치를 잘 내세울 줄 알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남에게 그와 같이 할 때, 우리를 정죄할 다른 재판관이 필요하겠습니까? 요컨대 이 구절에서 간직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이어서 "너는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않았고, 굶주린 사람에게서 빵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엘리바스는 욥이 궁핍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돕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에서 열매를 거두려면, 앞에서 짚었듯이 욥이라는 사람은 제쳐 두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우리 잘못을 느낄 수밖에 없을 만큼 엄하게 대하실 때, 저마다 자기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말하건대) 우리가 이웃에게 명령받은 대로, 마땅히 해야 했던 대로 그런 인정을 베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지 잘 살펴봅시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 부르짖으며 도움을 구할 때 귀를 막는 사람은 자기 차례에 부르짖어도 응답받지 못할 것이다"(잠 21:13)라고 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협하십니다. 우리에게 능력과 방도가 있었는데도 우리에게 도움을 구한 사람들을 돕기를 마다했다면, 그분은 우리가 어떤 화에 빠지도록 허락하실 것이고, 가장 부유하고 가장 넉넉한 사람들도 그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CO 285 우리가 처음에는 헤아리지 못하는 많은 징계를 손에 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부자들은 결코 어떤 곤경에 빠지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온 세상에 혼란과 뒤죽박죽이 있어도 자기는 평안할 것처럼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궁핍할 때 이웃을 돕지 않고 그들을 아랑곳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차례가 올 것이고, 도움을 받지 못하며, 그들을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고 선언하십니다. 심지어 그들은 위에서도 응답받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께 피하려 해도 문이 그들에게 닫힐 것입니다. "긍휼을 베풀지 않은 사람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약 2:13)고 말하는 대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께 긍휼 없이 대우받으리라고 선언하실 때, 그것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위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시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깊은 곳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웃에게 그렇게 잔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당신의 선하심에 대한 모든 소망을 빼앗으시고 우리를 거기서 쫓아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고난이 클 때, 그 까닭을 잘 찾고 이렇게 살피기를 배웁시다. "자, 나는 이 세상의 재물이 모자란 사람들을 도울 방도가 있었다. 나는 그들을 어떻게 도왔는가? 내가 내 할 일을 다했는가? 내 도움이 모자랐던 사람이 있었다면 나는 그를 도우려 애썼는가? 누가 내게 왔을 때 나는 내 살림을 나눌 준비가 되어 있었는가?"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신음하고, 그분이 우리 잘못을 일깨워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라는 것을 깨달읍시다.

그 밖에 이렇게 말하는 모든 핑계가 헛되다는 것을 새깁시다. "어떻습니까? 내가 내 살림을 완전히 털어 버려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내 것이어서 내가 좋다고 여기는 대로 나누어 주면 그만이 아닙니까? 내가 재물이 있다 해도 나는 그것을 빼앗지 않았고 아무에게도 잘못하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가지는 것이 왜 허용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것이 그분께 받은 것임을 알고 그분께 감사드립니다." (말하건대)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내세워 보았자 소용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자들에게 그들이 가진 것을 주시고, 그들이 그것을 정당한 방법으로 얻어서 그분께 받았다고 선언할 수 있을 때에도, 그것은 그들이 남의 궁핍을 돌아보지 않거나 형식적으로만 그렇게 하는 식으로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넉넉히 주실 때, 그분은 우리를 당신의 대리인이요 수납인으로 삼으시는 영예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납인이 재물을 받고 모으는 일만 맡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명하면 나누어 주는 일도 맡는다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CO 286 우리 손에 맡기신 재물의 관리인으로 우리를 세우실 때, 그분은 우리가 그것을

나누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어디에 나누어 줍니까? 우리는 그분이 우리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쓰기를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 그분은 우리가 우리 이웃과 모자란 사람들을 돕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재물을 넉넉히 가진 사람들은 "오, 이것은 내 것이다" 하고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네가 그것으로 모자란 사람들을 돕는다는 조건에서입니다. 너 혼자 먹어 치우라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네게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보여 주듯 이 일에서는 법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제후가 세금을 매기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제후는 저마다 가진 재산에서 얼마를 요구할 것이고, 그것에 따라 세액이 정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순전한 너그러움과 기꺼운 마음으로 당신께 예물을 드리는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대로입니다(고후 9:7). 그러니 부자는 억지로나 강요로가 아니라 기꺼운 뜻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야 합니다. 어떻든 우리가 이웃의 궁핍을 알았는데도 아무 도움을 주지 않아서 그들이 굶주리고 목말랐다면 우리는 핑계할 수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맡기신 재물을 혼자 먹어 치우고 잘못 쓴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하건대) 우리가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인자로 죄 있다고 여기실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벌받는 사람은 굶주린 가난한 사람에게 빵을 거절했고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 절에 관해서는 이렇습니다.

이어서 그는 "그 사이에 힘센 사람이 땅을 차지했고, 권세 있는 사람이 거기 살았다"고 덧붙입니다. 이것은 부자들이 편안하니 동정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 주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자란다는 것이 무엇인지, 궁핍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래서 거기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요컨대 그들은 배가 부르면 온 세상도 자기들처럼 배가 불러야 할 것처럼 여깁니다. 요컨대 엘리바스가 여기서 뜻한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것을 욥이라는

사람에게 돌립니다. 그러니 그는 땅이 소수의 사람을 위해 지어진 것이 아니라고 그를 나무랍니다. 부자들은 결코 충분히 가졌다고 생각하지 않고 날마다 새로 사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내게 딱 맞겠다. 이 땅 조각도 보태야겠다." 그들이 제 몫을 다 받을 때, 곧 묻힐 때에는 여섯 자만 있으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백 사람을 먹일 소유를 가진 사람도 여전히 굶어 죽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들은 채울 수 없는 구렁이어서, 땅을 차지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해를 하늘에서 기꺼이 뜯어낼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햇빛을 누리는 것을 함께 가진 것조차 시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구렁들은 모든 것을 삼키려 하고,CO 287 세상이 자기들을 위해 지어진 것처럼 여깁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여기서 그런 허영을 책망합니다. 그것은 마땅히 정죄받을 만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욥이라는 사람에게 잘못 적용합니다. 그래도 어떻든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자기 신용을 남용하고, 벌고 늘 거래할 방도가 있다고 해서 끊임없이 긁어모으며, 자기 탐욕을 채울 수 없어서 그것이 끝이 없어 "나는 이것을 가질 것이다. 저것도 또 긁어모을 수 있겠다" 하며 이쪽저쪽에서 움켜쥔다면, 그것은 마치 땅이 자기 하나만을 위해 지어지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는 것을 깨달읍시다. 여기서 "권세 있는 사람들이 거기 산다"고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는 질서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지으셨다"(잠 22:2)고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면서 두 가지를 뜻합니다. 곧 부자는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니 그를 업신여겨서는 안 되고,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부와 가난이 있기를 원하셨으니 부자를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재물을 가지고 자기가 가진 것을 누리는 것은 허용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그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서로 나눈다는 조건으로 산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것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거처나 집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분은 땅을 사람들의 기업으로 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일반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 땅 한 뼘도 없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어떻든 그들은 소유로가 아니면 세를 내서라도 세상에 살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단련하려 하신다면 고향이 아닌 낯선 땅에서라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부자들이 자기 집에 살면서 자기 날개를 펼쳐 다른 사람들을 멀리 내쫓아야 할 것처럼 여긴다면,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 앙심을 품고 그분을 무시하며 온 세상을 가로채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이 구절에서 살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용이 높은 사람들에게 교만으로 눈이 멀지 말고, 그들이 흔히 하듯 자기 권세를 남용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아주 유익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이 부자라면 그렇다고 온 땅을 차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가 권세 있다면 그렇다고 하찮게 여겨지는 가난한 사람들을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아닙니다. 서로 참아 주어야 하고, 부자는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와 함께 살 수 있는 방도를 주어서 그들이 그의 이익을 위해 일할 때 정직하게 자기 생계를 벌게 해야 하는 식으로 서로 맞추어야 하기 때문입니다.CO 288 가난한 사람은 자기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가 남에게 잘못하지 않고 생계를 벌 수 있게 하시기를 기뻐하실 때 만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나누어서 공동의 살림이 이어지고 저마다 먹고 살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 부자들은 그들이 흔히 하는 그런 교만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경고를 받고, 가난한 사람들도 자기 분수와 작음에 따라 걸어야 하며, 모두가 하나님의 손으로 이 세상에 머물고 그분의 은혜로 먹고 사는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요컨대 이 구절에서 우리에게 보여 주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어서 함께, 욥이 과부들을 아무 구제도 도움도 없이 돌려보냈을 수 있고, 고아의 팔이 그에게 꺾였다고 합니다. 곧 그가 고아를 내쫓아서, 가난한 고아들이 도움을 받아야 했는데 오히려 짓눌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

별히 과부와 고아를 말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부탁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도움을 덜 받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살아 있는 동안 남편의 그늘 아래, 그의 보호 아래 있을 것입니다. 어른이 된 사람도 이미 자기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과부는 조언도 방도도 없을 것이고, 가난한 고아는 일 처리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그들은 약탈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그만큼 더 부탁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보답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같은 것으로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할 때 우리 사랑을 시험하려 하십니다. 그다음에 사람들이 짓눌리는 곳, 바로 거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방도를 써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부와 고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탁하십니다. 그분은 나그네도 함께 놓으십니다. 그들은 친척이 없고, 자기를 떠받쳐 줄 오랜 인척이나 우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사람들을 더욱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요컨대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율법과 성경 전체에서,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괴롭힐 때 다른 사람들에게 악을 행할 때보다 당신이 더 무겁게 노여워하신다는 것을 보여 주신다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도움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만큼 더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에게 같은 것으로 갚을 것이 없으니,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알아주시고 당신의 장부에 올리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를 그렇게 대한 것이 사람들이 이미 우리에게 보답한 것보다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것을 의심하지 맙시다.CO 289 반대로 우리가 이미 그렇게 많은 해에 노출된 사람들을 괴롭히고 화 위에 화를 더한다면, 우리는 모든 악의의 꼭대기에 이른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모든 사람다운 감각을 잃고 미련한 짐승처럼 되었다는 표입니다.

그러므로 엘리바스는 이 죄를 책망하려고 여기서 "너는 과부를 물리치고 그에게 아무 도움도 주지 않았다. 고아가 짓밟힐 때 그를 돕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요컨대 우리 주님께서는 약한 사람들이 더 많은 방도와 힘을 가진 사람들에게 떠받쳐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읍시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를 바라보십니까? 그분이 주로 당신의 연민과 자비를 베푸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짓눌려서 더는 견딜 수 없는 사람들에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하늘 아버지를 닮아야 한다고 합니다(마 5:48 참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가 되도록 헛되이 부르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야 하는 방식이 이것입니다. 곧 우리가 그분을 닮을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피조물을 불쌍히 여기시고 당신의 선하심이 어디에나 퍼져 있지만, 특별히 해와 폭력으로 짓밟히고 짓눌린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을 도우려 하시며, 당신이 고아들의 후견인이시고 과부와 나그네를 지키실 것이라고 선언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언하시니 우리는 이 점에서 그분을 닮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대로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택하신 은혜를 버린다는 표입니다. 이 구절에서 새겨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이제 엘리바스가 "그러므로 올무가 사방에서 너를 둘러싸고 갑작스러운 두려움이 너를 놀라게 한다"고 하는 데로 옵시다. 이것이 욥이라는 사람에게 잘못 적용되었다고 밝힌 것을 늘 간직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일반적으로, 모든 재앙과 비참이 하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보내시는 그만큼의 징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도록 이것들이 우리 눈앞에 놓였다는 것도 간직합시다. (이미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같은 분량으로 벌하지 않으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떻든 우리가 무엇을 당하든 그것은 우리가 우리 삶을 살피고, 그분의 위엄 앞에 죄 있는 자라는 것을 알

고 하나님 앞에서 신음하라는 경고입니다. 이것이 한 가지입니다. 그 밖에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벌하시는 것 말고 다른 과녁을 가지고 계시더라도, 저마다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받을 때 자기 자신을 살펴야 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켜 주실 때 눈을 감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고난이 있으면 이렇게 압시다.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올무를 놓으셨다." 왜 그렇습니까?CO 290 우리가 사나운 짐승 같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 양 떼의 양처럼 걸었다면 그분은 우리를 잡으시려고 그물을 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양과 숫양에게 그물을 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쉽게 다룰 수 있는 짐승이어서 휘파람만 불면 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도 자원해서 온다면 그분이 우리를 쫓아오시거나 우리에게 그물을 치실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들짐승을 쫓을 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엄하게 대하신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분께 반역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압시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우리 삶을 살피며, 우리가 그분을 노엽게 하지 않았는지 알아봅시다. 그다음에 우리에게 두려움이 닥치고 우리가 놀랄 때, 그것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며 평온하게 걷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압시다. 그분은 당신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원수들에게 에워싸여도 그들을 지키시고, 많은 위험 가운데 있어도 그들이 늘 안전하며 당신의 그늘 아래서 편안하고 평안하게 잠들리라고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움으로 놀랄 때, 우리가 그분의 순종 아래 순전하게 걷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핍박하신다는 것을 깨달읍시다. 요컨대 화평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듯, 우리에게 닥치는 혼란은 그분의 그만큼의 저주입니다. 나는 화평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라는 참된 확신을 가지고 그분을 불렀을 때, 그리고 그분이 우리가 당신께 오는 것만 바라신다는 것을 알 때, 그것은 헤아릴 수 없는 복이요 아무리 귀히 여겨도

모자란 보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이라는 수단으로만 그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아버지이심을 깨달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영혼의 영원한 구원에 관해서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달려가 그분께 우리 삶을 맡기고 우리의 모든 필요 가운데 그분을 찾을 수 있는 이 특권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기대고 우리 염려와 모든 곤경을 그분께 맡기는 그런 화평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복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이렇게 흔들릴 때 그것이 극단의 저주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두려움과 놀람 속에 있고 자기 둘레에 위험밖에 보지 못하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께 돌아가서 그분 안에서 안식과 확신을 찾을 줄 모른다면, 사람의 처지가 비참한 것보다 더 비참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겁에 질려 있을 때, 그는 이미 지옥에 있는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CO 291 우리 바라는 대로 된다 해도) 우리에게 화평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압시다. 그러나 그 사이에 우리는 악인들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 화평을 찾아서는 안 된다는 것도 새깁시다. 그들은 핍박받거나 괴롭힘을 당하지 않는 동안 스스로 대단한 것을 믿고, 그것으로 흥겨워하며 하나님께 앙심을 품습니다. 우리는 게으름과 둔함에서 나오는 화평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서 그렇게 흥겨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써가 아니면 결코 화평을 가지지 못하고, 그것은 저주받은 화평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둔해지는 것보다는 우리가 흔들려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과 화해할 방도를 찾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화평은 우리가 편안할 때에만 있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터를 두고 그분께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잘 새깁시다. 그 사이에 우리가 흔들릴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지만, 그분이 그 방법으로 우리를 당신께 부르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런 화평을

찾게 하시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깨달읍시다. 실제로 엘리바스는 그가 말하는 혼란과 (그의 생각에) 욥을 사로잡은 두려움이 다름 아니라 욥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에 소망을 둘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 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주 유익하고 새겨 둘 만한 대목입니다. 신자들조차 (그들은 무감각하지 않으니) 큰 혼란과 괴로움 속에 있게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들을 비추기를 그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깊은 구렁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그들에게는 늘 하나님에게서 오는 어떤 빛이 있고, 그들은 그분의 선하심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위로를 받으면 그분은 그들을 늘 더 멀리 이끄십니다. 그들이 틀림없는 그분의 약속에 기대어 있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그들은 어떤 공격을 받더라도 늘 머리를 들어 그분께 구원을 바랍니다. 그것은 마치 물에 빠지려는 사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손을 내미시면, 좋습니다, 그는 다시 살아난 것처럼 되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아무 빛이 없고 어둠이 사방에서 우리를 둘러싸서, 하나님의 어떤 선하심도,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 한다는 것도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화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견뎌야 할 이 모든 영적 싸움, 곧 하나님께서 우리의 굳건함과 꿋꿋함을 시험하시려고 보내시는 그만큼의 혼란과 두려움 가운데서 확신하기를 원한다면, 다른 한편으로 그분이 보여 주시는 이 빛, 곧 그분의 말씀에 담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들에 눈을 던지도록 힘씁시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기울여 거기에 기대고 완전히 머물 때, 그분이 우리에게 그런 안식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으리라는 것을 의심하지 맙시다. "주님, 제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주의 인도 아래 있기만 하면, 사망의 그늘 속을 걸어도 아무 해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시 23:4 참조).

이제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엎드립시다.

제85편

욥기 22장 설교 3

CO 34:292–304

AI로 옮긴 초벌 번역입니다. 신학 감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CO 권: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 하나님은 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않는가? 별들의 꼭대기가 얼마나 높은지 보게. 그런데도 너는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겠는가? 구름 너머로 심판하시겠는가? 구름이 그분께 가리개가 되어 아무것도 보지 못하시지 않겠는가? 그분은 하늘의 궁창을 거니신다" 하고 말했네. 너는 악인들이 걸어온 옛길을 살펴보지 않았는가? 그들은 제때가 되기 전에 삼켜졌고, 그들의 터는 흘러가 버린 강물 같았네. 그들은 하나님께 "우리에게서 떠나소서" 하고, "전능자가 우리에게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하고 말했네. (욥 22:12–17)

CO 292 앞에서 보았듯이 엘리바스는 욥이 사람들과 잘못 지냈다고 거짓으로 고발했는데, 욥이 정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보고는 그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라고 덧붙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악에 빠졌을 때 떨어지는 마지막 지경이 이것입니다. 곧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바로잡힘을 받고도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굳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매가 우리를 길들일 수 없을 때, 그것은 우리가 완전히 가망 없다는 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잘못을 보여 주시고 그것을 느끼게 하시는 것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되돌리는 참된 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대드는 사람들은 그것으로 자기가 고칠 수 없는 사람이고 자기 병이 나을 수 없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런데CO 293 이것이 욥에게 잘못 돌려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우리는 지금까지 지켜 온 순서를 따라야 합니다. 곧 가르침이 선하고 거룩하니 우리가 저마다 거기서 유익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니 먼저, 역경으로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의 손 아래 자기를 낮추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안에 아무 경건(religion)도 믿음도 없었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마음밖에 없다는 것을 드러낸다는 것을 새깁시다. 하나님께서 눈감아 주실 때 우리가 탈선하고 나쁜 길을 계속할 만큼 어리석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거의 억지로 몰아붙이실 때야말로 우리가 고칠 때이고, 지금 아니면 결코 고칠 때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신다 해도 그것으로 이미 우리에게 충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를 치실 때 그것은 그분이 당신의 말씀에 주시는 도움과 같습니다. 우리가 박차에 너무 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우리를 고치지 못한다면, 그것이 우리가 길 잃은 자식 같다는 것 말고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러니 먼저 새겨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욥이라는 사람에 관해서는, (이미 밝혔고 앞으로 더 충분히 보겠지만) 그토록 완전했던 그가 그런데도 비난을 받고 그런 모욕을 견뎌서 잔인하고 신의 없다는 고발을 받았고 마침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로 여겨졌으니, 사람들이 때로 우리를 이렇게 부당하게 정죄할 때 인내하기를 배웁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비난받도록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분 앞에서처럼 걷기를 배우고, 야심에 이끌리지 않으며, 사람들의 영광과 칭찬을 탐하지 않고, 우리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좋은 대답을 줄 때 만족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성상 이 어리석은 오만으로 기울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인정받고 싶고, 우리 안에 좋은 것이 있으면 온 세상이 그것을 알고 우리를 물리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거기에 야심이 섞여서, 사람들이 우리를 높이 여기고 우리 덕이 여기 아래에서 칭찬받기만 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기고, 그 사이에 하나님은 잊혀 버립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잘못하도록 허락하시고, 우리가 선을 행하려 애썼을 때 그들이 모든 것을 악으로 돌려서 우리가 그들에게 비난받고 헐뜯기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재판관으로 모시고 그분께 인정받을 때 만족하기를 배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온 세상이 우리를 물리쳐도 우리에게 다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힘들다면 욥의 본보기를 눈앞에 둡시다. 그는 모든 거룩함에서 우리를 훨씬 뛰어넘었지만, 그런데도 우리는 그가 거짓 구실로 얼마나 모욕을 당했는지 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고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내가 말한 이 교훈을 배우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CO 294 곧 우리는 사람들에게 영예를 받으려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우리 양심이 그분이 우리를 받아 주신다고 증언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엘리바스가 여기서 하는 말로 옵시다. "어떠냐? 하나님께서 저 위에 계신 것을 모르느냐? 별들의 꼭대기가 얼마나 높은지 보라." 엘리바스는 욥을 불경건과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로 고발했으니 권면을 씁니다. 그는 "적어도 하나님은 바라보라" 하고 말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잠들어 있었고 우리 죄를 생각하지 않았거나 우리 안에 거만과 반역이 있었을 때, 우리를 깨우는 유일한 방법은 이것입니다. 곧 하나님만 생각하면 그것이 우리를 이성으로 되돌릴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여기 아래에 머무는 동안 우리는 육적인 안도감을 품어서 아무것에도 마음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우리 둘레에서 우리를 흔들 만한 것을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우리는 이미 스스로 거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로 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위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싫든 좋든 그때 머리를 숙이고 그분 안에 있는 그 무한한 높으심을 경배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그러니 엘리바스가 여기서 지키는 순서는 아주 좋고, 우리는 그것을 규범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에 찔리지 않고, 하나님의 원수 갚음을 묵상하지 않으며, 우리 즐거움에 취해 있을 때마다, 요컨대 악이 우리 마음에 들고 사람들이 우리를 회개로 이끌 수 없을 때, 이것이 처방입니다. 곧 "그래도 우리가 셈해 드려야 할

재판관이 계시다" 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죽을 피조물 같은 분이십니까? 아,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헤아릴 수 없는 위엄, 그 측량할 수 없는 높으심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놀라서 자기를 낮추고 더는 전처럼 높아져 있지 않아야 합니다. 엘리바스의 의도가 이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은 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않느냐?" 하고 말합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를 말하는 것은 그분을 피조물들과 이 세상의 것들과 구별하려는 것 말고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무한한 본질을 가지셨으니) 하늘에 갇혀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의 위엄은 어디에나 퍼져 있고, (선언된 대로) 그분은 땅도 채우십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하며 "하늘들도 주를 담지 못합니다"(왕상 8:27 참조) 하고 말했고, 하나님 자신도 당신의 선지자 이사야(66:1)를 통해 "하늘은 나의 왕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하늘에 갇혀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데에는 까닭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에는 위엄과 영광의 표 같은 것이 있어서,CO 295 우리가 거기로 눈을 들 때 마음이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 아래의 땅을 바라봅시다. 물론 거기서 보이는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로 그분을 높이도록 부추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 아래를 이리저리 둘러볼 때에는 하늘을 바라볼 때만큼 그런 경외에 찔리지 않습니다. 하늘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의 표와 자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경이 우리로 하나님을 공경하게 하려 할 때 그분이 저 높은 하늘에 계시다고 말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맙시다. 실제로 누가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세상에 계신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육적이고 우리 정신이 늘 아래로 향하니, 그분을 기둥이나 집이나 산에 매어 두고 강물에 잠기게 할 것입니다. 사람들의 공상이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땅의 것을 아무것도 상상하지 않기를 배우고, 이 세상을 넘어서서 우리 감각과 공상에 머물지 않기를 배우도록, "하나님은 하늘에 거하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헤아리려고 그분을 이 세상에 가두는 것은 우리 몫이 아니라는 것(우리는 결코 그분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고, 우리 감각은 너무 작은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온전한 겸손으로 그분을 경배하기를 배워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 높은 하늘에 계시다고 하는 까닭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잘 안다면 모든 미신이 쉽게 바로잡힐 것이 분명합니다. 그 근원이 거기서, 곧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 공상과 그릇대로 헤아리려 하고 거기서 자기를 붙들지 못한 데서 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감각은 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고 캐물으려고 들썩거리고, 그러고는 하나님께서 육적이시기라도 한 것처럼 그분을 자기들 좋을 대로 만들어 내고 상상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정성껏 우리를 거기서 끌어내시고, 우리가 좋을 대로 그분에 관해 아무것도 상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 주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그렇게 바꾸어 버릴 때 그것은 그만큼의 신성모독이요 성물 모독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듯(롬 1:25) 우리가 그분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만들어 내고 자기 머리대로 하나님을 바꾸는 모든 사람은 위조범입니다. 어떤 공문서나 증언을 변조해서 위조범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엄을 없애서 위조범이고, 그것은 다른 모든 것을 넘어서는 막대한 성물 모독입니다. 그런데 어떻든 그렇게 자기 욕구대로 어리석은 공상을 지어 올리는 모든 사람이 그런 성물 모독의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 주는 이 교훈, 곧 하나님께서 저 위에 계시다는 것을 더욱 잘 되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에 관해 말할 때마다 우리 감각이 모자라고 그 높으심에 이르기 전에 백 번은 기절해 버리리라는 것,CO 296 그리고 그분이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밝히시는 것 말고는 그분에 관해 아무것도 상상하지 말고 겸손으로 그 높으심을 경배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든 지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말했듯이) 이 가르침이 우리 안

에 잘 새겨져 있다면, 세상은 늘 거기서 군림해 온 모든 미신에서 깨끗해질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그렇게 우상을 만들어 내고, (흔히 말하듯) 어떤 기념물과 형상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여겼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헤아리고 그분에 관해 사실이 아닌 것을 생각할 방종을 스스로에게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모든 미신의 근원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 낸 것은 하나님의 높으심과 그분의 헤아릴 수 없는 위엄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나타낼 보이는 표를 원하며 "우리는 그분이 우리 앞에 가시기를 원한다"(출 32:1 참조) 하고 말했을 때 우리에게 보여 주는 것이 이것입니다. 곧 "우리는 그분이 거기 우리에게 매인 분으로 계시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는 안 되고, (내가 말했듯이) 온전한 겸손으로 그분을 경배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사람들이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좋을 것이고, 이런 것이 하나님께 기쁠 것이다" 하며 스스로 법을 만들어 냈을 때, 그것은 그들이 그분을 자기들과 같게 만들어서 그분이 그들이 지어낸 그 모든 자질구레한 겉치레, 곧 외적인 것들을 기뻐하시게 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마치 그분이 피조물이시고 육적이시기라도 한 것처럼 그분을 하늘 보좌에서 끌어내려 여기 아래로 끌어오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교황제에 있는, 이른바 예배라고 하는 그 모든 어리석은 경건 행습이 하나님의 높으심을 알지 못한 데서 왔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것을 알았다면 이렇게 결론 내렸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아 보이는 것들을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은 우리와 다른 본성을 지니셨기 때문이다. 그분은 영이시니, 우리 본성에 맞는 것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그분을 섬겨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스스로 무엇이든 꾀하려고 주제넘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는 그분의 율법이 있고, 그분은 거기서 당신의 뜻을 밝히시고 우리에게

규범을 주셨으니 거기에 붙어 있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요구하시는 절제이고, 그분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도 거기서 벗어나지 않고 거기에 맞추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에 이어 엘리바스는 "별들의 꼭대기가 얼마나 높은지 보라" 하고 말합니다. 이것은 내가 이미 한 말을 따른 것입니다. 곧 여기 아래의 피조물들이 우리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로 충분히 움직이지 못하니,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더 깊이 찔리기 때문입니다. 물론 눈을 뜨고 우리 발아래만 보아도 하나님을 공경하도록 이끌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미 너무 추한 배은망덕이요 둔함입니다.CO 297 땅이 제힘으로 그 많은 열매를 냅니까? 우리가 땅에서 얻는 양식이 땅의 본성과 고유한 성질에서 옵니까? 그러니 사람이 자기 발아래만 본다 해도, 눈을 뜨기만 하면 그가 경배해야 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우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둔하고 거칠어서 그것이 우리를 그다지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 둔함과 연약함을 돕도록 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늘을 바라보는 것과 별들에서 보이는 그 모든 질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엄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증언하는 그토록 아름답고 정교한 배치가 우리를 움직이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주 짐승처럼 둔해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하늘을 바라보며 놀라야 합니다. 그 밖에 우리가 해와 별들이 그토록 고귀하고 뛰어난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거기에 여기서 우리에게 일깨우는 것, 곧 하나님께서 그 위에 계시고 우리는 그분께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더합시다. 우리가 그것을 알았을 때 우리는 더욱 감탄으로 넋을 잃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가르침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해와 달과 별들을 바라보다가 우상숭배로 이끌린 것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거기서 그런 영광과 존귀를 보아서, 해를 하나님처럼 경배하지 않으면 해에게 잘못과 모욕을 하는 것처럼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더 나은 길잡이가 없으면

달리 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이방인들이 핑계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들은 해와 달이 피조물이고, 그것도 아무 감각이 없는 죽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떻든 그들은 가르침을 받을 성경도 율법도 없었으니, 해와 달에 나타난 그 영광과 높음에 찔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들을 경배하고 우상으로 삼도록 움직여졌습니다. 그런데 이 오류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정죄하는 데 쓰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충분히 당신을 밝히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위엄을 증언하시고 당신께 나아오는 길을 보여 주시며, 그 위에 (우리가 거기서 실제로 확증을 보듯) 당신이 입으로 하신 말씀을 확증하시려고 해와 달을 진본 인장처럼 우리에게 내놓으시니, 묻건대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고, 우리가 이 크신 하나님과 그분의 헤아릴 수 없는 위엄을 경배하며 그 아래 우리를 낮추도록 가르침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두 배로 죄 있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요컨대 이 구절에서 간직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CO 298 이제 엘리바스가 욥에게 나무라는 것으로 옵시다. 곧 욥이 하나님께서 여기 아래의 일들을 전혀 보지 못하신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욥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궁창을 거니시고, 구름이 그분께 가리개가 되어 그분이 사람들의 형편을 보시고 다스리시지 못하게 막는다고 말하는 그 불경건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엘리바스가 욥에게 거짓으로 덮어씌우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악인에게서 보일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여기 자기들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니, 자기들이 그분에게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분이 더는 자기들을 보지 못하시는 것처럼 즐거워할 수 있다고 결론 내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이 없으면 자기가 길을 잃었고 하나님께서 자기 가까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 가련한 눈먼 사람들과 같습니다. 교황주의자들은 자기들에게 입을 삐죽거리는 십자고상을 보지 못하면, 자기들의 인형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된 것인가?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더는 경건이 무엇인지, 그리스도교가 무엇인지 모르고, 인형을 가지고 나무 조각이나 돌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하나님께 기도할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늘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듯 이방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모독하며 유대인들이 구름과 불확실하고 감추어진 신을 경배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늘만 바라보고, 자기 욕구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낼 형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가련한 교황주의자들이 이렇게 나아가서 이방인들과 완전히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다른 방법으로 그들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밝혀 주실 때까지 사람들은 달리 처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아무 경건심이 없는 악인들은 무엇을 합니까?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시지만 거기 당신의 영광 가운데 계신다. 그분이 여기 아래의 일들에 무슨 신경을 쓰시겠는가? 그분은 거기에 얽히거나 섞이려 하지 않으신다. 그것은 그분께 속한 일도 아니고 그분의 위엄에 어울리는 일도 아니다.” 그러니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보지 못하신다고 말할 때, 그것을 핑계 삼아 그분에게서 멀어지고 온갖 악을 행할 방종을 스스로에게 허락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지 않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고삐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도 그런 혼란에 빠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신이 저 위에 거하시며 여기 아래의 일들을 바라보시고 아무것도 당신께 감추어지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선언하실 때, 좋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분의 얼굴 앞에서처럼 걸으라는 경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것을 우리에게 선언하셨습니까? 그분은 당신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도 일하셔서 우리 눈을 여시고, 우리가 우리 모든 행위와 생각에서 당신의 위엄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그분은 더 큰 확증을 위해, 우리에게 설교되는 당신의 말씀이 좌우에 날 선 칼과 같아서CO 299 우리 모든 생각과 감정을 살피고 뼈의 골수까지 꿰뚫는다고 덧붙이십니다. 히브리서(4:12)

에서 말하는 대로입니다. 요컨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에 이 직무를 맡기셨다고 우리에게 선언하실 때 그것이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고삐가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 이 말씀을 잘 새깁시다. 곧 악인들은 자기 타고난 감각으로 하나님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구실로 자기가 그분의 손을 벗어났다고 생각하고, 그때 즐거워하며 하나님께서 여기 아래에서 벌어지는 일에 신경 쓰지 않으시고 모든 것이 거기서 뒤죽박죽이며 그것이 그분이 아시는 데까지 이르지 않는다고 일부러 스스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름에 관해, 구름이 하나님의 가리개와 같다고 하는 말은 참으로 옳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다른 뜻에서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위엄을 말할 때 그분이 구름 사이에 감추어져 계시다고 잘 말합니다. 그러나 무슨 목적으로 그렇게 말합니까? 우리가 늘 하듯 호기심에서 도를 넘지 않게 하려는 것 말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더할 나위 없이 들썩거리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관해 말할 때 그들은 아무 근거도 이치도 없이, 아무 절제도 없이 그것을 따집니다. "그렇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이냐? 저것은 무엇이냐?"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에 관해 따질 때, 그들은 그분을 자기 동료처럼 말할 뿐 아니라 자기보다 못한 무엇처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람들에게서 이 마귀 같은 대담함을 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가장 깊은 비밀에 들어가려 하고, 모든 것을 뒤지며 그분께 아무것도 남겨 두지 않으려 합니다. 요컨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매여 계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처지가 이러합니다. 그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두운 구름을 가리개처럼 두르고 계신다고 말합니다(시 18:11 참조). 어떻게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공상을 비웃으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고 싶습니까? 그분의 모든 비밀을 헤아리고 싶습니까? 구름까지만이라도 가 봅시다. 별들에 이르기 전에 아직 먼 거리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구름 하나가 우리가 해를 보지

못하게 막을 것입니다. 그리고 해의 빛이 우리에게까지 오더라도 우리는 해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할 것입니다. 한낮에 해가 비칠 때 하늘이 흐리고 비가 오면 우리는 "해가 지금 이러이러한 곳에 있다" 하고 해의 자리를 짚을 수 없을 것입니다. 구름 하나가 날마다 나타나는 피조물 하나를 우리가 보지 못하게 막는다면, 묻건대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이신지 어떻게 헤아리겠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은 사람들이 자기 분수를 넘어, 자기에게 속한 것 이상으로 캐물으려 하고, 하나님에 관해 멋대로 따지며 하나하나 풀어내서 그분께CO 300 아무것도 남겨 두지 않으려 할 때, 사람들 안에 있는 그런 오만을 비웃습니다. 그러니 성경은 그분이 구름 속에 감추어져 계시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분이 보지 못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쪽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헤아릴 수 없고, 구름이 우리를 막으며, 우리 감각이 너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인용한 그 구절에서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허망해진다고 말합니다(롬 1:21). 허망해진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리저리 헤맨 뒤 연기처럼 흩어져 버린다는 것 말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처지가 그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쪽에서는 아주 밝은 눈을 가지셔서 세상의 모든 구름을 꿰뚫으실 것이고, 그 사이에 그분께 어두운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 때문에 그분이 가까이 갈 수 없는 빛에 거하신다고 말합니다(딤전 6:16). 이 말은 아주 새겨 둘 만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지실 수 없습니다. 그분 둘레에 빛밖에 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가까이 갈 수 없는 "이라는 말은 우리가 거기에 다가갈 수 없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이 높아지려 하면 그만큼 더 뒤로 물러날 것입니다. 말하건대 "나는 하나님이 무엇이신지 알 것이고, 내 좋을 대로 그분을 헤아릴 것이다" 하며 교만과 주제넘음으로 높아지려 할 때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마귀 같은 오만이 아닙니까? (내가 말했듯이) 하나님의 빛은 가까이 갈 수 없고, 그 사이에 우리 안에는 가난과 연약함과 무능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

들은 스스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고, 그분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야 하며, 우리는 그분이 당신의 말씀으로 나타나시는 대로 그분을 깨닫고 거기 담긴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길이 하나님께 가기에 우리에게 가까이 갈 수 없는 길이더라도, 그분은 빛 가운데 거하신다고 합니다. 곧 그분은 눈이 가려져 있어서 보지 못하시고 모든 것을 알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구름이 참으로 하나님의 가리개여서 사람들이 그분께 이르지 못한다는 것, 그러나 그것은 그분이 당신의 섭리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지 못하고, 여기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뿐 아니라 여기서 생각되는 모든 것을 밝히 보지 못하신다는 뜻의 가리개는 아니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하나님을 잘 공경한다고 생각한 어떤 이들이 여기서 하는 말을 상상해 냈다는 것을 새겨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증스러운 신성모독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공상대로 하나님을 공경하려 할 때 모든 것을 비뚤어지게 하는 방식이 이렇습니다. 그러니 어떤 경솔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까지 얽히셔서는 안 되고, 그분이 그렇게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것이 그분의 위엄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파리 한 마리와 벌레 한 마리와 공중의 새들과 이것저것을 신경 쓰시겠는가? 어림도 없다." 그러니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들에게 그럴듯해 보이는 영예를 하나님께 돌리려 하면서, 그 사이에 그분의 능력과 위엄을 벗기려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CO 301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그분을 공경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이미 밝혔듯이) 우리 머리로 만들어 낸 그런 섬김을 그분께 가져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당신에 관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밝히시는 것, 그분이 당신의 거룩한 입으로 선언하신 것을 순전하게 들읍시다. 그 결론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을 성경에서 나타나시는 대로 알았을 때 우리가 그분을 마땅히 영화롭게 할 수 있으리라는 것을 압시다. 그것이 그분이 요구하시고 인정하시는 바른 영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의 자비가 미련한 짐승들에게까지 미치고, 그분의 손과 능력으로 떠받쳐지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할 때, 거기서 먼저 그분의 능력이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땅의 벌레들까지 신경 쓰시고, 새 한 마리도 그분의 뜻 없이, 그분이 미리 보시고 정하시지 않고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데서 우리는 그분의 무한한 선하심을 봅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토록 하찮고 우리가 업신여기는 것들을 돌보시기를 마다하지 않으시니, 그분 안에 얼마나 큰 선하심이 있습니까? 그 밖에 거기서 우리는 그분이 품으신 사랑이 어떠한지도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깨우심을 따르면 그렇습니다. "너희는 작은 참새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것들도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먹이시는데, 너희를 먹이시려고 돌아보지 않으시겠느냐? 너희가 늘 그분의 날개 아래 있지 않겠느냐? 그분이 모든 것을 너희 구원으로 돌리지 않으시겠느냐? 그분의 선하신 뜻 없이 너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마 6:26; 10:29–31 참조)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해야 하는 방식이 이것입니다. 그분을 우리 감각과 공상에 매이게 하지 말고, 성경에서 그분에 관해 우리에게 보여 주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 더는 "하나님은 하늘의 궁창을 거니시니 우리 일에 섞이지 않으신다. 사람과 땅의 일에 얽히시는 것은 그분께 어울리지 않는 일이다" 하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더는 그런 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한가함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실 필요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떼어 내려 하고 모든 것이 그분의 뜻과 능력으로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품는 것은 짐승 같은 생각입니다. "오, 하나님은 그토록 영광스러우시니 저 위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셔야 한다. 그러니 그분은 아무 걱정도 없으셔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을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말했듯이) 우리 주님은 편안하게, 안식과 한가함 속에 사는 데 자기 행복의 큰 부분을

두는 죽을 사람들과 같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애쓰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머리를 쥐어짤 필요도, 손이나 발이나 그 무엇으로 수고할 필요도 없으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어떤 식으로 그렇게 하십니까? 그분이 몸을 움직이시고, 가시고, 오시고, 꾀하시고, 긴 궁리를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순전한CO 302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떠받치십니다. 그 말씀은 모든 피조물이 거기에 순종할 수밖에 없을 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저 위에서 회랑을 거닐듯 거니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채우시고, 우리는 늘 그분이 우리 가까이 계신 것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읍시다.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 쪽에서 그분 가까이 있어서 그분의 얼굴 앞에서처럼 걸어야 합니다. 우리가 한 걸음도 그분이 보시지 않는 데서 내디딜 수 없고, 모든 것이 그분 앞에 적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이 구절에서 새겨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이어서 엘리바스는 욥에게, 옛사람들의 길을 살펴보지 않았느냐고, 그리고 악인들이 어떻게 되었느냐고 묻습니다. 그는 그들이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졌으며, 그들의 터, 곧 그들의 모든 굳건함이 흘러가서 말라 버린 강물 같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엘리바스는 다시 앞에서 한 말을 굳힙니다. 곧 아주 옛날부터 악인들이 벌을 받았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밝혔듯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두려움 안에 붙들어 두시려고 늘 당신의 심판의 본보기를 얼마쯤 주셨습니다. 선지자 이사야(26:9)에서 말하는 대로입니다. "주께서 당신의 심판을 행하실 것이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의가 무엇인지 배울 것이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팔을 뻗치시고 악인들을 징계하시며 당신이 그들의 재판관이심을 보이시는 것을 볼 때, 그것이 우리로 그분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도록 부추겨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나 사람들이 그분 앞에 셈하러 나와야 하고 죄악이 벌받지 않은 채 남지 않으리라는 표징을 얼마쯤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

이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노엽게 한 사람들을 똑같이 벌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이 이 세상에서 벌을 받는다는 일반 규칙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날까지 남겨 둔 심판이 있을 필요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영혼의 불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부활의 소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모든 것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리바스가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본보기들에서 일반 규칙을 만들려 할 때 그는 모든 것을 비뚤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겨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당신을 거슬러 일어선 악인들을 벌하셨을 때, 그것이 한 번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많은 악인이 끝까지 아낌을 받고 온갖 쾌락 속에 산 뒤 시들어 가지도 않고 일 분 만에 죽더라도 그들이 셈하러 나와야 하리라고 결론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언제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감추어진 것이 우리에게 드러날 때까지 인내로 기다립시다. 그러니 요컨대 이 구절에서 새겨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여기서 하는 이 말을 잘 붙잡아 둡시다.CO 303 곧 악인들은 한동안 즐거워할 수 있고, 심지어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분께 앙심을 품기까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가 여기서 그들에게 "우리에게서 떠나라. 전능자가 우리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하고 말한다고 돌리는 대로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악인들에게서 이런 미친 듯한 광기를 볼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조금도 알려 하지 않고, 그분이 자기들 위에 더는 아무 능력도 권위도 없으신 것처럼 그분께 앙심을 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억누르실 줄 잘 아십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엘리바스는 여기서 욥이 그런 사람들도 그 집이 재물로 가득하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을 나무랍니다. 그에게는 욥이 그것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부인하려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반대였습니다. 욥이 한 고백은 우리가 붙들어야 할 바로 그대로의 것이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아끼시고 그들이 행복해 보이며, 심지어 그들이 모든

경건을 조롱하기만 하는데 그것이 벌받지 않은 채 남을 때에도, 우리는 그런 시험을 이겨 내야 하고, 지금은 우리가 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세상의 재판관이시며 당신을 그렇게 보이시리라고 결론 내리기를 그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욥이 한 고백은 바르고 온전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엘리바스가 그것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 말을 풀이했습니다. 곧 악인들이 하나님께 "우리에게서 떠나소서" 하고 말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모든 앎을 피하고 일부러 짐승처럼 둔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는 대로입니다.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만 바라는 이 놀기 좋아하는 자들에게 말하면, (말하건대)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그것으로 그들을 위협하면 그것은 우울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은 성경 전체가 불태워져서 결코 그것에 관해 말하지 않기를 바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마치 범죄자가 교수대도 재판도 그 무엇도CO 304 결코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요컨대 그는 세상에 더는 법질서가 없기를 바랄 것입니다. 이처럼 악인들은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위엄을 없애는 것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그 사이에 그들은 모든 가르침을 물리치고, 아무것도 보지도 듣지도 않으려고 귀를 막고 눈을 가립니다. 요컨대 그들은 할 수 있는 한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서 멀어지고, 거기에 매이지 않기를 몹시 바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도 대단한 그리스도인 흉내를 내는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그들은 "좋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고 설교가 있어야 한다" 하고 한마디로 말하는 것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들이 무슨 알 수 없는 말을 하고 자기들의 옴을 긁지 않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무슨 선언을 하든, 자기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그분께 "우리에게서 떠나소서" 하고 말하는 것만 바란다는 것을 잘 드러냅니다. 그들이 이 신성모독을 입으로 말하지는 않더라도 그들의 뜻과 의도가 무엇인지 잘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쪽에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조심성으로 걷기를 배웁시다. 그리고 그분이 한번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으니, 그분이 그렇게 계속하셔서 우리가 결코 그분에게서 멀어지지 않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토록 친밀하니(그분이 날마다 당신의 거룩한 복음의 설교로 그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니), 우리가 그 말씀에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우리를 구름 위로, 참으로 하늘까지 들어 올리시게 합시다. 그분이 우리를 당신과 온전히 결합시키셔서 지금은 우리에게 감추어진 것을 완전하게 바라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형상으로 온전히 새로워질 때까지,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점점 더 자라게 합시다.

이제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엎드립시다.

제86편

욥기 22장 설교 4

CO 34:305–317

AI로 옮긴 초벌 번역입니다. 신학 감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CO 권: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 그런데도 그분은 그들의 집을 좋은 것으로 채우셨네. 악인들의 꾀는 나에게서 멀기를 바라네. 의인들은 그들을 보고 웃으며, 죄 없는 사람은 그들을 비웃네. 우리의 살림은 무너지지 않았고, 그들의 남은 것은 불이 삼켰네. 그분과 친해지고 화평을 이루게. 그러면 그것이 네게 형통이 될 것이네. 그분의 입에서 율법을 받고, 그분의 말씀을 네 마음에 두게. (욥 22:18–22)

이 설교는 15, 16, 17절 풀이를 이어 간 뒤 이어지는 본문을 다룹니다.

CO 305 어제 우리는 엘리바스의 이 말이 무엇을 겨누는지 풀기 시작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형통하게 두시고 그들을 벌하지 않으신다고 욥이 한 말을 책망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겉모습을 따르면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엘리바스와 그의 동료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심판을 미루시더라도 그것이 결국 여기 아래에서 나타나지 않는 일은 결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경험은 그것과 어긋납니다. 그러니 욥의 말이 참되어서,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일들을 질서로 되돌리실 때까지 인내로 기다려야 하고, 그 일은 이 세대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소망 가운데 걸어야 합니다. 그런데 소망은 우리 눈길을 현재의 일들에 붙박아 두지 않고, 모든 것이 뒤죽박죽일 때에도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을 평온하게 기다리는 것을 뜻합니다. 어떻든 엘리바스는 이 항목을 고집합니다. 곧 우리가 세상일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나 악인들을 벌하셨다는 것이 보이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두려움 안에 붙들어 두시려고 늘 당신의 심판의 표징을 얼마쯤 주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떻든 그것을 한결같은 규칙으로 만드는 것은 모든 이치와 진리에 어긋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미 다루기 시작한 것으로 옵시다. 엘리바스는 악인들에 관해 말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물리치고 그분이 자기들에게 가까이 오시기를 원하지 않을 만큼 큰 교만을 돌립니다. 그들이 이 말을 입으로 내뱉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보듯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당신께 복종시키시는 것을 참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령으로 그들을 길들이실 때까지 멍에를 질 수 없고, 저마다 자기 욕구가 이끄는 대로 할 방종을 가지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오래전부터 굳어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모든 좋은 가르침을 싫어하고 미워해서 결코CO 306 그것에 관한 소식이 없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수는 오늘날처럼 늘 너무 많았습니다. 그 밖에 그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물리칠 만큼 탈선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것처럼 그분께 앙심을 품습니다. "전능자가 우리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물론 그들은 그런 신성모독을 토해 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살인자들처럼 태연하게 걸어서 어떤 위협에도 더는 마음 쓰지 않고 그것을 비웃기만 하며,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짓누르고 몰아붙일 때까지 늘 자기 죄악을 이어 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하실 모든 것에 상관하지 않는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요컨대 우리는 엘리바스가 여기서, 사람들이 악을 고집했을 때 어떻게 넘쳐흐르는지, 그리고 마귀 들린 것처럼 되어서 누가 그들에게 경고하거나 그들을 바른길로 되돌리는 것을 참지 못하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더는 자기들 위에 아무 권위도 없으신 것처럼 그분께 앙심을 품는지를 나타내려 했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구절에서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본보기들이 우리 눈앞에 없다면 좋으련만! 그러나 짚은 것을 새깁시다. 곧

하나님의 영께서 여기서 사람들이 오랫동안 자기 죄 속에서 자기를 길렀을 때 어디로 넘어지는지를 거울에 비추듯 보여 주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 부딪치는 그 짐승 같은 짓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듯(엡 4:19) 그들 안에는 더는 아픔이 없고, 그들의 양심은 완전히 잠들어서 더는 아무것에도 거리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두려움으로 걷고, 하나님께 우리가 그런 극단에 이르지 않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제 엘리바스의 말을 이어 갑시다. 그는 욥에게 그런 사람들의 길을 살펴보지 않았느냐고, 거기에 주의하지 않았느냐고 묻습니다. 이 말을 엘리바스가 욥이 그들을 따랐거나 그들을 닮았다고 나무라는 것처럼 풀이하는 사람들은 착각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욥이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벌하시는지 의심하니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려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욥이 늘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늘"이라고 하는 데서 그는 틀립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벌을 다가올 때를 위해 남겨 두기를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CO 307 소돔 성을 그 이웃 성들과 함께 멸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악에 빠진 모든 성에 똑같이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한번 온 세상에 홍수를 보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 번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사람들이 자기들 위에 그분의 원수 갚음을 돋우기를 그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분께 늘 죄를 똑같이, 같은 방식으로 벌하셔야 한다는 법을 지워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당신 기뻐하시는 대로 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분이 지키시는 질서를 좋다고 여겨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여 주었듯이) 그분이 아무 벌도 내리지 않으신다면 아무 심판도 없고 더는 결코 셈하러 나올 필요가 없는 것처럼 보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더는 바랄 것도 나무랄 것도 없을 만큼 완전하게

회복된다면 더는 부활의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는 중도를 지키셔서, 죄가 그분 앞에서 벌받지 않은 채 남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몇몇 본보기만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 미루시고 우리를 마지막 날까지 기다리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일들이 이미 이루어져서 더는 바랄 것이 없는 것처럼 여기 아래에 매여 있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컨대 엘리바스가 이 절에서 "너는 세대의 길에 주의하지 않았느냐?" 하고 말하려는 것이 이것입니다. "세대"라는 이 말은 때로 옛적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벌하시기 시작하신 것은 오늘이 아니다. 지난날의 역사들이 늘 그렇게 되어 왔다는 것을 보여 준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지 그토록 오래되었고, 홍수가 있은 지 그토록 오래되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 규칙 아래 두셔서 사람들을 그들이 받을 대로 대하신다는 것을 깨달아라."

그 밖에 엘리바스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들, 그분의 능력을 조롱할 만큼 탈선한 자들의 벌을 말한 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을 좋은 것으로 채우셨다"고 말하며 그들의 악의를 더 무겁게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빚진 것이 없다면 그분께 복종하지 않는 것을 그래도 변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부드러움으로 자기를 당신께 끌어당기신다는 것을 느끼고도 그분께 대들기 시작해서 그분이 자기를 얻으시도록 어떤 식으로도 허락하지 않았을 때, 모든 핑계는 무너지고, 그들은 거기서 당황할 수밖에 없을 만큼 큰 배은망덕의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엘리바스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을 좋은 것으로 채우셨다"고 하는 말이 무엇을 겨누는지 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 일반적으로 빚져 있습니다. 그분께 지음을 받았고, 그분이 그들을CO 308 이 세상에 두시고 거기서 보존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더 특별히 당신을 나타내실 때, 그것은 그를 그만큼

더 핑계할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어떻습니까?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형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것을 바라는 대로 보내십니다. 그 사람은 여러 가지로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는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께 불평할 까닭이 적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자들과 그렇게 편안한 사람들이 대들고 고집 센 말처럼 굴 때, 그것이 더 큰 범죄로 돌려져야 할 것은 분명하고, 거기에는 까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보이신 그 부드러움이 그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본성상 고분고분하지 않고 그들 안에 거만이 있었다 해도, 그들을 그렇게 인자하게 대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부드러움으로 그들을 얻으려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그렇게 사납다면 그들의 범죄는 두 배가 됩니다.

엘리바스가 여기서 다루려 한 것이 이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히 베푸시는 은혜와 우리가 그분 손에서 받는 그 많은 은택을 잘 귀히 여기기를 배웁시다. 그것들은 우리가 그분께 순종하도록 우리를 잘 맞추어야 하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 위에 모든 주권을 가지시는 영예를 그분께 드려야 한다는 그만큼의 경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을 사람에게 빚져 있다면, 그가 우리를 넘보더라도, 좋습니다, 우리는 그에게서 참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그에게 빚져 있다” 하고 말할 것입니다. 본성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우리를 지으시고 빚으신 분, 우리를 보존하시는 분, 그토록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아버지로 당신을 나타내시는 분, 곧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좋은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갚겠습니까? 우리가 그분께 빚진 것을 어떻게 그분께 돌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이미 짚었듯이) 저마다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누어 주신 은택들을 헤아려 보아서, 그것들이 우리를 그분께 순종하도록 이끄는 그만큼의 도움이 되게 합시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위에 평온하게 다스리시고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가 결코 그분께 반역하지 않게 합시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자하게 대하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너그러움을 펼치셨을 때, 그것이 우리를 그분께 고분고분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낯설어지시기를 바라지 않게 합시다. 그분이 우리에게서 멀어지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좋은 것, 우리가 받는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 계시다는 데서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무슨 좋은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피하려고 애쓸 때 그것은 가련한 처지입니다. 그들은 모든 불행만 바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좋은 것으로 채우셨을 때 우리를 잘 낮추도록 힘씁시다. 그리고 너무 살찐 말들이CO 309 자기 주인에게 발길질하는 것처럼 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노래(신 32:15)로 유대인들을 나무라시는 대로입니다. 너무 잘 먹은 그 말들을 닮지 말고, 우리가 그분 손에서 많은 좋은 것을 받았다 해도 그분이 일 분 만에 우리를 가난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 그분이 우리를 살찌우셨다 해도 우리가 곧 마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 우리 하나님께 복종합시다. 그분이 우리에게 입김만 부셔도 우리의 모든 살림은 흘러가 버릴 것입니다. 그러하니 늘 두려움으로 걸으며, 우리가 가진 좋은 것에 대해 하나님께 인정하고 경의를 드립시다. 그분이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를 이어 가시기를 기뻐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부가 행복하고 복될 수 있는 방식이 이것입니다. 그러면 영예와 즐거움과 그와 같은 것들이 사람들을 취하게 하고 잠들게 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그들이 깨어서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길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주님, 지금까지 주께서 우리에게 이 선하심을 베푸셔서 우리가 편안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주께서 얼굴을 돌리시기만 해도 우리는 망합니다. 그러니 주님, 주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떠받치시고 지키셨듯이 끝까지 그렇게 해 주소서.”

이어서 엘리바스는 여기서 그들이 제때가 되기 전에 무너졌고, 그들의 터가 흘러가 버린 강물 같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일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들에게 때로 일어나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대단한 것을 약속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러뜨리셔서, 그들이 품은 그 헛된 소망이 꺾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악인들이 형통 가운데 살다가 죽도록 허락하신다 해도, 그것이 무엇입니까? 현재 삶을 바라보면, 묻건대 그것이 얼마나 갑니까? 우리는 삽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늘 성경이 묘사하는 대로일 것입니다. 곧 푸르게 자라는 풀과 같지만 바람 한 번 불면 시들어 버립니다. 낫이 한 번 지나가기만 하면 풀은 건초가 되고 그 생기는 곧 말라 없어집니다. 햇볕 한 번이면 모든 것을 태우기에 충분합니다(사 40:6–7 참조). 그러니 우리 삶의 연약함을 알았으니, 우리가 흘러가서 마르는 강물에 견주어지는 것을 더는 이상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또는 지나가 버리는 강물에 견주어지는 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물이 있어도 조금 뒤에는 우리가 본 그 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엘리바스는 너무 넘쳐 흘러서 그 뒤에 말라 버리고 더는 흐르지 않는 강을 뜻합니다. 악인들이 그러합니다. 그들은 결코 모자라지 않으리라고 생각할 만큼 대담합니다. 그러나 그들은CO 310 힘이 한 방울도 남지 않을 만큼 다 소멸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엘리바스의 의도대로 받아들이지 않기만 하면, 우리는 이 구절에서 좋고 유익한 가르침을 거둘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첫 일격에, 심지어 이 삶에서 벌하지 않으시고 아끼시더라도, 그들은 흘러가는 강물과 같기를 그치지 않으며, 그들 안에는 아무 굳건함도 없고, 심지어 그들은 제때가 되기 전에 망하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제때가 되기 전입니까? 그들이 여기서 불멸을 스스로에게 약속하고 자기 행복이 영원히 가리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끊으시고 그들을 비웃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 영혼아, 배불리 먹어라"(눅

12:19 참조) 하고 말하고 온 세상을 삼켜야 할 것처럼 여겼을 때, 그들이 생을 마치는 데에는 곡식 한 됫박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러뜨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제때가 되기 전에 망한다고 하는 데에는 까닭이 있습니다. 그들은 오래 살리라고 스스로 약속하다가 그 소망이 꺾이고,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짧게 하시고 잘라 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마치 누가 베틀의 씨실을 자르는 것과 같다고 말하는 대로입니다(사 38:12 참조). 베 짜는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 일하는지 볼 때, 실은 늘 더 이어져 갈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이 끊어집니까? 베 짜기가 멈춥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러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간다고 생각하고 결코 끝이 없을 것처럼 여길 때 우리는 스스로 취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실을 자르시고 그것은 더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이 가르침을 묵상합시다. 그래서 우리 삶이 얼마나 짧은지 안 뒤에 우리에게 약속된 하늘의 기업을 바라보고, 우리 기대가 거기에 터를 두게 합시다. 이 세상에 자기 터를 두는 모든 사람은 굳건함이 거의 없고, 물 위나 허공에 짓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 그 모든 것은 흘러가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보듯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집을 짓고 현재의 것들을 믿는 사람들의 주제넘음을 벌하시고, 우리가 말했듯이 그것이 물 위나 허공에 짓는 것일 뿐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잘 보여 주십니다. 확실하고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터를 두어야 할 곳이 거기이고, 성경이 말하듯 그것이 참된 버팀목입니다. 요컨대 이 구절에서 새겨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에서 더 잘 유익을 얻으려면, “제때가 되기 전에“라는 이 말, 곧 악인들이 제때가 되기 전에 무너지리라는 말을 달아 봅시다.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억지로 뽑아내시듯 여기 아래에서 데려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결코 거기서 옮겨지지 않을 것처럼 여기 땅에 달라붙어 있고, 여기에 뿌리를 내립니다. 참으로 공상으로 그렇게 합

니다. 그러니 악인들과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들은 자기 교만 속에CO 311 너무 깊이 뿌리를 내려서, 자기가 땅속 백 자 깊이의 터를 가져서 흔들릴 수 없을 것처럼 여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손가락으로 살짝 튕기기만 하셔도 그들은 쓰러질 것입니다. 그 뿌리는 상상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악인들이 제때가 되기 전에 망한다고 하는 데에는 까닭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여 준 것을 간직합시다. 곧 시간이 오래 걸리고, 우리 주님께서 악인들과 당신의 위엄을 업신여기는 자들을 억누르려 하시는 것이 보이지 않더라도, 그렇다고 우리가 용기를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늘 더 멀리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유를 쓰시도록 맡겨 드립시다. 곧 그분이 좋다고 보시면 이 세상에서 악인들을 징계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드러날 그 마지막 날에 이를 때까지 그분의 심판이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게 하시도록 말입니다.

엘리바스는 의인들이 그들을 보고 웃으며 죄 없는 사람이 그들을 비웃으리라고 덧붙입니다. 처음 보기에는 이것이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 하늘 아버지를 본받아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비와 연민으로 기우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비웃는 것은 잔인함 없이 되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악인들이 그렇게 망하는 것을 볼 때 그들을 비웃는 그런 감정을 돌리십니까? 그런데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잘 바라보고 거기서 유익을 얻으려면 우리가 우리의 모든 육적인 정념에서 깨끗해져야 한다는 것을 새깁시다. 우리는 원수 갚고 싶은 욕구에 이끌려서도 안 되고, 늘 그러듯 지나친 정념에 움직여서도 안 됩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 안에서 바로잡혀야 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잘 바라보도록 우리에게 깨끗한 눈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멸하시면 우리는 아무 잔인함 없이 그들을 비웃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잘 인정해야 하고, 그것을 좋다고

여기면서 그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거기서 우리 구원이 앞당겨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으신 사랑을 밝히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죄를 벌하실 때 우리에게 기뻐할 거리가 있다는 것을 배웁시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왜 그런지 알아야 합니다. 이유가 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재판관이심을 보이시고 거기서 그분의 영광과 위엄이 나타나니 기뻐해야 합니다. 이것이 기뻐할 근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신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당신을 영화롭게 할 당신 능력의 증명을 주실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기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CO 312 우리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을 우리가 무엇에서 구하겠습니까?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원수들과 우리를 괴롭히고 모욕한 자들을 벌하실 때, 그분은 당신의 자녀로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보여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징계하시면서 당신이 선한 사람들과 신자들에게 품으신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이것이 또 기쁨의 둘째 이유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내가 말했듯이) 우리는 모든 원수 갚고 싶은 욕구와 모든 악의에서 깨끗해져야 합니다. 요컨대 우리가 우리 육에 속한 모든 것을 벗어 버리고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우리는 악인들의 멸망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유익을 얻을 바르고 깨끗한 열심을 가질 것입니다.

새겨야 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곧 의인들이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망하게 하시는 사람들을 비웃으리라고 할 때, 그것은 고난당하는 모든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 징계하시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완전히 고칠 수 없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분은 그들의 영혼이 멸망하지 않도록 그들의 몸만 벌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유기된 자들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 주시지 않는 한, 그분이 완전히 유기하신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그리고 홍수로 멸절된 사람들이 그

러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극단의 원수 갚음에 대한 확실한 증언을 가집니다. 그 비참한 사람들에게는 회개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자비를 받을 자격을 스스로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과 그와 같은 다른 사람들에 관해서는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이웃을 징계하시는데 그분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려 하시는지 우리가 아직 모를 때에는, 우리는 그들의 비참을 동정해야 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잘 길들여져서 그분이 그렇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쉼을 주시기를 바라야 합니다. 요컨대 우리가 이 구절을 실천해야 하는 방식이 이것입니다. 물론 이 가르침을 이렇게 짧게만 짚으면 모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마다 내가 짚은 것을 잘 새긴다면 나중에 더 길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하면 이렇게 요약해서 짚은 것이라도 우리에게 충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나는 우리가 모든 이웃에게 그런 인정을 가져서 그들의 구원을 바라고 그들의 불행을 슬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의 규범이 그것을 요구한다고 우리에게 말하는 대로입니다. 그는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라"(롬 12:15)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늘 그런 감정과 열심을 가졌다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죄를 벌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는 그것을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거기서 당신을 밝히시고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만큼, 그분이 인류를 돌보시고 모든 것이 그분 아래서 다스려진다는 것을 볼 때 우리 믿음이 그분 안에서CO 313 점점 더 확증되고 굳어져야 합니다.

이어서 "우리의 살림은 무너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글자 그대로는 "우리의 살림이 무너지지 않았거나 감추어지지 않았다면"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히브리어 낱말이 두 가지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본디 "감추다"라는 뜻이지만, 어떤 것이 숨겨지면 보이지 않고 더는 없는 것처럼 보이니, 비유로 때로 "잘라 내다, 없애다"라는 뜻도 지닙니다.

그 밖에 그가 “그들의 살림이 망하지 않았느냐?” 하고 이것을 악인들에게 돌려서 말해야 할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실제로 그리스 사람들은 이 구절을 그렇게 옮겼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자연스러운 뜻은 “우리의 살림이 감추어지지 않았다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꽤 흔한 말투로, 더 강한 긍정을 담고 있다는 것을 새깁시다. 마치 “참으로, 우리 살림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살림“이라는 말도 우리의 형편이나 생계, 우리 손에 있는 것, 우리를 보존하거나 회복하는 방도를 뜻합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내놓는 맞지 않는 풀이들은 제쳐 두고, 엘리바스가 말하려는 것을 그대로 붙듭시다. 그는 여기서 의인들을 악인들과, 신자들을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들과 견줍니다. 신자들에 관해서는 “참으로 우리의 살림은 감추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감추다“라는 이 말을 쓸 때, 그들의 살림이 사라지거나 잃어버려졌다는 뜻이 아니라, 반대로 보물처럼 안전하게 놓여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 많은 위험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그래도 서 있고 보존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지 않고, 요컨대 숨겨진 곳에 있지 않으며, 보물처럼 감추어져 있지 않다면, 우리 생명은 일 분마다 이리저리 빼앗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뜻을 따라 이렇게 이해하면 이것은 아주 좋은 가르침입니다. 의인들이 말할 것이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살림과 형편, 곧 우리를 보존하고 지키는 능력, 그 모든 것이 감추어져 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악인들이 가진 남은 것은 불에 삼켜진다.” 곧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무것도 남겨 두지 않으셔서 그들이 자기 모든 재산과 함께 멸절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죽을 삶 동안 우리가 완전히 깊은 곳에 빠지고 짓눌리며 곤경에 처해 있어서, 요컨대 우리에게 힘도 살림도 없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르침을 바른 쓰임에 적용할 때 우리는 그만큼 더 그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참으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말, 곧 “우리는 죽었고 우리 생명은 감추어져 있다

“(골 3:3)는 말을 따라 그렇게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신자들이 세상에 있는 동안 그들의 처지가 어떠한지 보여 주면서CO 314 그들의 생명이 없는 것처럼 감추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좋은 은신처에 있습니다. 그는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하늘에 계신 그분의 생명은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보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 계십니까? 그분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타고난 감각으로는 그 실상을 알아차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든 우리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감추어져 있으니, 우리는 그것을 잘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과 소망을 시험하시려고 우리가 많은 위험에 에워싸이고, 우리 생명이 실 한 가닥에 매달린 것 같고, 바람이 우리 살림을 이리저리 휩쓸어 가며, 요컨대 우리에게 생명은 작은 한 방울인데 눈앞에는 천 가지 죽음이 있어서 우리가 천 가지로 망할 것처럼 보이도록 허락하시리라는 것을 새깁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그늘 아래 두시기만 하면 그렇다고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에게 그런 피난처가 있으면 우리는 아주 안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가르침을 실천해야 하는 방식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악인들에게 눈을 던져 그들의 멸망을 볼 때,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 그만큼 더 굳어지고, 그분을 더 높일 계기로 삼아 이렇게 말합시다. “주님, 우리 생명이 주의 손에 있고 주께서 그 지킴이가 되시니, 주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특권을 주시는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소멸되는 것을 보는 저 사람들과 우리가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는 그들이 멸망으로 가는 것을 보고, 그들의 남은 것이 완전히 소멸되는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가 그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아무것도 다르지 않고, 다만 주의 순전한 은혜로 다를 뿐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택하시기를 기뻐하셨고, 우리를 보존하시며, 우리가

주께 순종하며 걷도록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 안에 그런 좋은 것을 시작하셨듯이 이어 가시며,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좋은 것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특권을 봅니다. 마치 우리가 이 덧없는 삶의 모든 비참에서 면제되고 더는 사람들 축에 들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이 영예와 이 복을 주실 때, 우리가 우리를 향한 주의 그런 선하심을 높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하건대)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자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안 뒤에 우리는 이렇게 그 은혜 안에서 그만큼 더 굳어지고, 그분께 감사드리도록 부추김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악인들의 멸망을 바라보고 그것을 기뻐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으니,CO 315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벌하시고 그들 위에 당신의 원수 갚음의 표징을 얼마쯤 주실 때, 그것이 늘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와 아버지 사랑을 우리에게 더 잘 확신시키시려는 것임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좋습니다.

엘리바스는 이렇게 말한 뒤 욥에게 하나님과 친해지고 그분과 화평을 누리라고, 그러면 그것이 그에게 형통으로 돌아오리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두라고 덧붙입니다. 욥이 하나님과 친해지라고 말하면서, 그는 욥이 전에는 그분에게서 물러나 있었다는 뜻으로 말합니다. 그분과 화평을 누리라고 말하면서, 그는 욥이 자기의 악한 삶으로 하나님의 원수인 것처럼 자기를 드러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미 보았듯이 이것은 그에게 잘못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가르침 자체는 참되고 아주 유익합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먼저 여기서 사람들이 넘쳐흐를 때 그것은 마치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과 같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악덕에 빠져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께 앙심을 품고, 그분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그분께 하직 인사를 하는 것과 같거나,

하직인사도 없이 도망자처럼 되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그런 방종을 스스로에게 허락할 때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시 36:1 참조) 그들이 더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성경이 말하는 데에는 까닭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람들이 사나운 짐승 같고, 너무 짐승처럼 둔해져서 더는 하나님의 집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기 악덕과 죄를 생각하지 않을 때마다 그분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자기가 잘 지낸다고 여깁니다. 이것이 첫째입니다. 둘째로 여기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전쟁을 벌인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여기서는 엄숙하게 선전 포고를 하려고 전령이나 나팔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탈선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데서 돌아설 때마다 자기가 하나님의 철천지원수라는 것을 선언하고 그분을 거슬러 전쟁을 벌이기 때문입니다. 신하들이 왕을 거슬러 일어난다면, 묻건대 그것은 어떤 그럴듯한 명분이 있고 관례대로 격식을 지킨 전쟁보다 훨씬 더 악한 전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탈선할 때 그는 하나님을 거슬러 군대를 세운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감정과 욕심 하나하나가 하나님과 그분의 의를 거슬러 싸우려고 무장한 그만큼의 병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 이 구절을 더욱 잘 새겨야 합니다. 곧 우리가 악을 행할 방종을 스스로에게 허락하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진 모든 친밀함을 없애고 우리를 사나운 짐승처럼 만들어서CO 316 더는 그분의 손과 순종 아래 있지 않을 만큼 멀리 떨어져 나가는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크고 막대한 악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곧 우리가 일부러 하나님을 거슬러 싸우러 나온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피조물이 자기를 빚은 분을 거슬러 일어서는 것, 이것은 가증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무엇을 얻겠습니까?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그렇게 미친 듯이 그분께 달려드는 것을 그치지 않으니, 우리가 미친 사람보다 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봅니다. 이 구절에서 새겨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권면을 따릅시다. 곧 우리가 한동안 탈선했고, 우리 욕심이 우리를 헤매게 하고 벗어나게 해서 우리가 사나운 짐승이 되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찌하실 수 없었고, 우리가 마땅히 그분의 인도 아래 머물지 않았다면, 그분과 친해지기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그분께 길들여지도록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당신께 부르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헤매고 길에서 벗어난 것을 보시면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이 우리에게 설교되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사나웠던 대신 우리를 길들이시려는 것, 곧 우리를 고분고분하게 하시고 첫마디에 우리를 다루실 수 있게 하시려는 것 말고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교훈을 배웠다면 우리는 평생을 위해 많은 유익을 얻은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우리를 하나님께 길들이는 것 말고 무엇을 겨누겠습니까? 물론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 쪽에서 더할 나위 없이 친밀하게 되셔서 유모와 같고 어머니와 같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자녀들에게 그토록 너그럽고 인자한 아버지들에게만 견주시지 않고, 당신이 어머니와 유모보다 더하다고 말씀하십니다(사 49:15 참조). 그러하니 하나님께서 그런 친밀함을 보이시니, 우리는 더는 사나운 짐승처럼 있지 맙시다. 우리가 그랬다면 그것을 이어 가지 맙시다.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가 우리 죄로 그분께 전쟁을 벌일 만큼 그토록 비뚤어지고 어리석었다는 것을 볼 때, 그분과 화평을 찾으러 나아갑시다.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지 않습니다. 그분이 당신의 무한한 선하심으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야 합니다. 그분은 복음이 설교될 때 그렇게 하십니다. 복음은 화평의 가르침이라고 불리고, 사도 바울이 말하듯(고후 5:18–19) 화목의 소식입니다. 그러하니 하나님께서 기꺼이 우리를 당신께 부르시고,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앞서 오시며, 우리가 당신과 화평을 찾으러 오기를 기다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마중 나오셔서 우리와 화목하시는 것만 바라시니, 우리가 배은망덕으로 그분을 물리치고 그분이 우리에게 내놓으시는 좋은 것을 아랑곳하지 않을 만큼CO 317 불행한 사람이 되지 맙시다. 오히려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받으실 준비가 되어 계시고, 우리가 그분께 참된 자녀가 될 때 그분이 우리에게 너그럽고 자비로우신 아버지가 되려 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해 주시리라는 것을 알고, 참된 겸손으로 나아가 그분께 우리를 내어 드리고 복종합시다.

이제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엎드립시다.

제87편

욥기 22장 설교 5

CO 34:318–330

AI로 옮긴 초벌 번역입니다. 신학 감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CO 권: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 네가 전능자께 돌아오면 다시 세워질 것이고, 네 장막에서 죄악을 멀리 쫓아낼 것이네. 너는 금을 티끌 위에 두고, 오빌의 금을 시냇가 조약돌처럼 여길 것이네. 전능자께서 네 원수들을 쫓아내시고 너는 굳건한 요새를 가질 것이네. 너는 전능자를 기뻐하고 하나님께 네 손을 들 것이네. 네가 그분께 기도하면 그분이 네게 응답하실 것이고, 너는 그분께 네 서원을 갚을 것이네. 네가 일을 정하면 그것이 네게 이루어지고, 그분의 빛이 네 길에 비칠 것이네. 악인들이 낮아질 때 나는 높아질 것이라 하고, 하나님께서 눈을 내리깐 겸손한 사람을 구원하시네. 죄 없는 사람이 그 땅을 건질 것이고, 그 땅은 네 손의 깨끗함으로 지켜질 것이네. (욥 22:23–30)

이 설교는 22절을 계속 다룬 뒤 이어지는 본문을 다룹니다.

CO 318 이미 밝힌 대로 우리는 이것을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 보여 주려고 우리 모두에게 주는 권면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엘리바스가 이것을 욥이라는 사람에게 잘못 적용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공통의 가르침, 우리에게 크게 유익할 수 있는 가르침을 주려 하셨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처럼 된 뒤에 그분과 친해지는 것이 무엇인지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악에 빠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분께 등을 돌리며 사나운 짐승처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방종하게 나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듯, 우리는 그분과 친해져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도록 맡기고, 그분께 고분고분하며, 어린

양이 되어서, 그분이 우리에게 손짓하시자마자 그분께 나아가고, 요컨대 사나운 짐승처럼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이렇게 말한 뒤 이제, 탈선했던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율법을 받고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한다고 덧붙입니다. 이것은 아주 새겨 둘 만한 대목입니다. 잘 사는 규범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분이 보여 주시는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임을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하니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벗어나자마자 구원의 길에서 돌아서는 것이니, 이 구절에서 특별히 우리가 그분의 입에서 율법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까닭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는 말을 인정하는 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니니, 엘리바스는 우리가 그것을 우리 마음에 두어야 한다고 덧붙입니다. 사람이 겉모습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자기를 맞춘다 해도 그것은 으뜸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눈과 손과 발로만 악을 행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크게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마음이 앞서 걸으며 나머지 모두를 이끌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학교에서 잘 유익을 얻기를 원합니까? 그분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분은 진실을 보시고(렘 5:3), 반대로 모든 위선을 몹시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시는 대로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쫓겨난 것처럼 되었을 때 어떻게 그분께 돌아가야 하는지 봅니다. 곧 우리가 그분의 제자가 되고 그분이 우리 스승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을 따라 걷지 않는 모든 사람은 사람들이 그들을 인정하더라도 길을 잃은 것이라는 결론을 거둘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보듯 사람들은 자기들의 어리석은 경건 행습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거룩함밖에 없다고 여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상의 처음부터 흔한 착각이었고 오늘날에도 너무나 군림하고 있습니다. 곧 세상은 자기 욕구대로 처신하려 하면서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좋다고 여기셔야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반대로 여기서 무엇이라고 선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걷지 않는 모든 사람은 길을 잃은 자라는 것입니다.CO 319 물론 그들은 자기 삶이 선하고 거룩하다고 스스로 믿을 수 있고, 사람들이 그들에게 박수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권위 있게 선언할 수 있는 적법한 재판관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이 그것에 관해 무엇이라고 선언하시는지 듣습니다. 그러니 우리 어리석은 경건 행습을 인정받으려고, 그리고 저마다 이런 것이 자기에게는 좋아 보인다고 말하려고 더는 말대꾸해서는 안 됩니다. (말하건대) 우리의 모든 공상이 무너져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하며, 그분이 우리 위에 모든 주권을 가지셔서 우리가 따르기를 원하시는 길을 보여 주셔야 합니다. 먼저 간직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물론 이 가르침은 자주 우리에게 짚어집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것을 그토록 많이 말씀하시는 데에는 까닭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감각에 매여 있는지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 머리로 지혜로워지려 하고, 하나님께 그분이 우리 위에 모든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가 그분께 복종하는 영예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명령받은 것보다 더 하는 것이 마귀의 종노릇이라는 속담을 그대로 실천합니다. 교황제에서 이른바 하나님 섬김이라고 하는 것을 모두 뒤져 보십시오. 거기서 순전한 사람의 발명 말고 무엇을 찾겠습니까? 교황주의자들이 그토록 애쓰는 그 일들이 하나님께 기쁘다고 증언하는 음절 하나도 성경에는 없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들이 거기에 얼마나 악착같이 매달리는지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종하지 못하고 그분의 입에서 율법을 받지 못하는 그 마귀 같은 교만에서 옵니다. 물론 그들은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다스리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충분히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그들이 부리는 반역이 보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싸웁니까?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순전한 율법에 아무것도 더하지도 빼지도 말자고 요구하는 것 말고 무엇이겠습니

까? 교황주의자들이 하나님의 순전한 가르침에 다스려지도록 자기를 맡길 수 있다면 우리는 곧 함께 합의할 것이고 더는 아무 논쟁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법과 규정이 지켜지기를 원하면서,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이 이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욕구대로 걸으려 할 때 그것이 그만큼의 착각이요 미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더라도, 사람들은 늘 지나치게 앞서 나아가려는 것을 붙들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을 이 고삐 안에, 곧 모든 일에서 하나하나 목을 굽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우려 하시는 멍에를 받도록 붙들어 두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황의 폭정을 물리쳤다 해도, 우리는 말대꾸 없이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평온하게 우리를CO 320 맞추지 못하고, 무엇인가 우리에게 힘들고 언짢아 보이면 거기에 대들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에게 이런 대담함을 줍니까? 사람의 정신에는 하나님의 순전한 율법에 순순히 따르지 않으려는 그 높아짐과 주제넘음이 쉽게 있다는 것 말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한다는 이 항목을 자주 되새기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지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우리가 가련한 짐승 같아서 우리 안에 신중함도 지혜도 없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우리가 어디로 걸어야 하는지 보여 주시기 전에는 결코 바른길을 알지 못하리라는 것을 보여 줍니다. 이것이 한 가지입니다.

그 밖에 우리가 아무 반박도 말대꾸도 없이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배우고 거기에 익숙해질 때까지는 우리 악한 감정에 휩쓸리리라는 것도 밝혀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인가 유보하는 것이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과 싸우지 않을 수 없고, 그 가르침이 우리를 너무 언짢게 할 때, 곧 우리 공상을 넘어설 때 찔리고 독이 오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에게서 모든 거스름을 없애고, 우리 공상과 악한 욕심에서 나오는 모든 그럴듯한 이유를 없애서, 어린양처럼

평온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다루시게 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손짓하시자마자 그분께 나아가야 합니다. 끝으로 여기서 우리가 이리저리 휩쓸려 가는 흔들리는 갈대 같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교황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을 따라야 한다고 잘 말할 것이지만, 거기에 자기들의 시시한 잡동사니를 섞습니다. 더 나쁜 것은, 그들이 사람들이 상상해 낸 것을 그토록 높이 쳐서 성경이 업신여김을 받으리라는 것입니다. 어떻든 그들은 뒤죽박죽 섞어 놓아서, 하나님이 이기셔야 하는지 사람들이 이겨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짚었듯이) 성령께서는 하나님과 피조물들을 구별하시면서, 하나님 홀로 우리 위에 다스리시고 그분이 우리 박사요 스승이 되시며, 우리 삶의 모든 완전함이 그분께 순전하게 순종하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는 한, 우리가 결코 잘 다스려지지 않을 것이고 우리 삶에 바른 개혁이 없으리라는 것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니 이 말에 관해서는 이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엘리바스가 덧붙이는 것, 곧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 마음에 두라는 것도 잘 간직해야 합니다. (내가 이미 짚었듯이) 그럴듯한 얼굴을 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흠잡을 것이 없는 것을 볼 때 우리를 충분히 의롭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감추어진 감정까지는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것은 하나님께CO 321 고유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든 사람들이 우리를 천사처럼 여겼다 해도, 우리 마음이 바르고 깨끗하지 않고 성경이 그토록 많이 말하는 그 진실함과 온전함이 없다면 나머지는 모두 연기일 뿐일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 할 때 "나는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악을 삼가겠다" 하고 발이나 손에서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저마다 자기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모든 악한 욕구가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만큼의 반역이며, 그것이 없어질 때까지는 그분이 우리 위에 다스리실 수 없으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걷도록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도록 힘씁시다. (말하건대) 우리 온 삶에서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좋은 뿌리가 있도록 힘씁시다. 그리고 "너희가 성령으로 산다면 성령을 따라 걸어라"(갈 5:25)고 할 때 우리에게 보여 주는 것이 이것입니다. 생명이 있고 그다음에 행위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야 합니다. 곧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의에 어긋나는 모든 것을 쓰러뜨리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그것이 우리 모든 행실에서 드러나서, 우리가 그렇게 열매를 맺었을 때 사람들이 우리가 어떤 나무인지 알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 선 칼과 같아서 골수까지 살피는 직무를 맡았고, 사람들 안에 드러나지 않는 생각이나 감정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히 4:12 참조). 또 다른 구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유익을 얻는 사람들이 자기 안에서 책망을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고전 14:24–25). 곧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서듯 하고 그분의 하늘 보좌 앞에 스스로 출두해서, 전에 감추어져 있던 자기 범죄를 거기서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학교에서 잘 유익을 얻으려면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여야 한다고 내가 특별히 밝힌 까닭이 이것입니다.

이어서 함께 "네가 전능자께 돌아오면 다시 세워질 것이고, 네 장막에서 죄악을 멀리 쫓아낼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너는 금을 티끌 위에 둘 것이고, 오빌의 금이 시냇가 조약돌만큼 많을 것이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엘리바스는 욥을 더 잘 부추기려고, 그가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올 때 그에게 돌아올 좋은 것을 보여 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욥이라는 사람에게 잘못 적용되었으니 우리는 늘 그 사람은 제쳐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좋고 우리 구원에 알맞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로 권하실 때에도 그런 말투를 쓰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곧 그분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을 그저 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큰CO 322 용기를 주시려고 약속을 덧붙이십니다. 실제로 우리가

우리 의무만 듣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몰랐다면, 그것은 우리를 붙잡고 막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는 아무 열심도 감정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람이 의심 속에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유익할지 아닐지 모르면 그는 게을러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바른길로 돌아올 용기를 가지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받으실 준비가 되어 계시며 이미 팔을 벌리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이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분께 나아가기는커녕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을 것입니다. 더 나쁜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의심할 때 늘 뒷걸음질하려 애쓰고 그분의 위엄이 그들에게 무서우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대하려 하시고 우리 재판관이시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너무 겁에 질려서 할 수 있는 한 그분을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요컨대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같은 부드러움을 맛보지 않았고 그분이 우리를 자비로 받으실 준비가 되어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가 회개하게 하는 이 점을 얻어 낼 수 없으리라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 특별히, 욥이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면에서 복을 주실 것이고, 그가 모든 살림을 빼앗겼던 대신 어느 때보다 다시 부유해질 것이며, 금과 은이 그의 집에 넘치고, 그가 모든 것을 바라는 대로 가지며,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셔서 기쁨과 감사밖에 없으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컨대 우리는 엘리바스의 의도가 여기서 무엇인지 봅니다. 곧 욥이 자기가 헛되이 오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을 찾아도 실망하지 않으리라는 좋은 소망을 품었을 때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부추김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달려가면 그분은 늘 우리 잘못을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계시고, 당신의 무한한 선하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없애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엘리바스는 우리가 본 점에서 늘 도를 넘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시는 모든 사람을 이 세상에서 똑같이 형통하게

하시는 것처럼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나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괴롭게 하시고 많은 비참에 매이게 하셔서 그들의 인내를 시험하시며, 그런데도 그들을 사랑하기를 그치지 않으시는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은혜로우실 때 자기 모든 소원을 보내 주시리라고 상상하며 스스로를 속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어떻든 우리는 율법에서 하는 말로 돌아와야 합니다. 곧 모든 역경이 우리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의 매이듯, 반대로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와 그분이 우리를 당신께 받아 주셨을 때, 그분은 우리를CO 323 아주 부드럽게 대하셔서 우리 구원에 알맞은 만큼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라는 것입니다 (레 26장; 신 28장 참조). 어떻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죄악이 우리에게서 쫓겨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형통하리라는 이 가르침은 참되고 아주 유익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으로, 다른 사람은 병으로, 또 다른 사람은 사람들이 그에게 가하는 많은 고통으로 우리가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칠게 다루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까?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분이 우리에게 마련하시고 넉넉히 베푸실 준비가 되어 계신 좋은 것들을 누릴 그릇이 못 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이 당신 본성대로 우리를 대하시는 것, 곧 우리가 바랄 수 있는 모든 것을 보내 주시는 것을 견디지 못하리라는 것을 보십니다. 우리에게 재물이 넉넉하고 건강과 평안이 있다면, 우리는 곧 우리 즐거움에 취해서 너무 잘 먹고 살찐 말처럼 우리 하나님께 발길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이 베푸시는 좋은 것들을 바르게 쓸 수 없다는 것을 보시고 그것을 줄이십니다. (우리가 말했듯이) 그분이 인색하셔서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 분량을 아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좋은 것들을 조금씩 나누어 주셔야 하고, 우리가 그렇게 탐식으로 기울어 있으니 우리를 굶주리고 목마르게 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그 뒤에 영적인 술 취함이 따라오기 때문이기도 합니

다. 그것이 가장 나쁜 꼬리입니다. 우리가 더는 그분을 아랑곳하지 않고 너무 흥겨워해서 그분이 우리를 어찌하실 수 없게 될 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괴로움을 당하는 까닭이 이것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저마다 저지르는 범죄를 바라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 내버려 두시고 바로잡지 않으신다면, 자기 죄 속에 잠들고 거기서 굳어지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이고, 그다음에 대담함은 점점 더 자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우리를 너무 참아 주시면 우리를 멸망으로 가게 두시리라는 것을 보시고 그 악을 바로잡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분께 그만큼 더 빚져 있고 매여 있습니다. 요컨대 우리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지금처럼 그렇게 엄하게 우리를 대하시도록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선하심에 자리를 내어 드린다면 그분이 모든 면에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고, 이 세상이 우리에게 땅의 낙원 같아서 평안과 기쁨밖에 없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듯 우리는 그분 앞에서 늘 머리를 들고 있을 거리를 가질 것입니다. 그러니 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분이 우리의 모든 역경과 비참을 좋은 것으로 바꾸실 것이고, 우리 삶이 너무 행복해서 우리가 마음껏 기뻐하며, 그분이 우리에게 그토록 좋은 아버지셨고 우리가 그분을 그렇게 알게 된 것에 대해 그분께 감사드릴 거리를 가지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의 요지가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서 우리가 거둘 좋고 유익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곧 우리가 괴로움을 당할 때마다CO 324 우리를 낮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듯 앙심을 품고 하나님께 대들며, 그분이 우리에게 큰 모욕을 하신 것처럼 언짢아하고 속을 끓여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집안일에 쪼들려서 자기에게 알맞은 것을 갖지 못하면 그는 언짢아하고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다른 사람이 병에 시달리고, 또 다른 사람이 더 심하게 가난에 쪼들리면 어디서나 불평이 들릴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육은 늘 이렇게 우리를 부추기고 찔러서 하나님께 대들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징계하시면서 우리 죄를 깨닫게 하려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서 신음하고, 우리가 저 질렀고 날마다 저지르는 악에 부끄러워하며 그분께 돌아가 용서를 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밖에 우리는 짚은 것을 우리 쓰임에 적용해야 합니다. 곧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에게서 멀어졌을 때 본성상 그분께 돌아가는 데 너무 더디다는 것을 보시고, 부드럽게 우리를 그리로 초대하시며 우리가 그분께 받아들여질 것이고 그분을 헛되이 찾지 않으리라는 좋은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노엽게 했을 때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물리치셔도 마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께 십만 번 용서를 구한다 해도 우리는 그분께 내쳐져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그분과 화해를 구할 때 그분은 우리와 화목하시는 것만 바라시고 이미 그럴 준비가 되어 계시다고 증언하실 때,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들을 때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지 않고 우리 모든 감각과 감정으로 그분을 향하고 사모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주 완고하고 고분고분하지 않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밖에 우리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유일한 처방이 이것이라는 것을 잘 새깁시다. 곧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들을 잘 되새기는 것입니다. 그것 없이는 (내가 말했듯이) 우리가 늘 그분을 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죄를 싫어하는 척하거나 잘못 산 것에 대해 어떤 가책이나 거리낌을 가지더라도,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로우시려 한다는 것을 알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우리 삶을 바꿀 용기를 갖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께 우리를 바칠 그런 열심을 결코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유익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것은 아주 잘못 실천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교황제에서는 회개를 많이 말할 것이지만 그 사이에 그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마귀가 그들을 너무 홀려 놓아서 그들의 회개는 며칠 금식하고, 주기도문 몇 번 중얼거리고, 거룩송 몇 번

하는 것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CO 325 문제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낡은 가죽을 벗고, 겉모습에서만이 아니라 속 감정에서도 새로워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황제에서는 그런 것을 하나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회개가 무엇이며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지 안다고 해 봅시다. 그래도 그들에게는 으뜸가는 것이 모자랍니다. 그들은 가련한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라고 확신을 주지 않고, 은혜와 자비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회개해야 한다고 충분히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되는대로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려 애쓸 때 그것이 헛수고인지 무엇을 얻는 것인지 그들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보여 주었고 성경이 충분히 밝히는 대로입니다. 곧 사람들은 냄비 둘레를 맴돌 수는 있겠지만, 어떻든 그분의 아버지 사랑을 확신하지 않는 한 결코 자원해서, 순수하고 진실한 감정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으리라는 것입니다. 시편(130:4)에서 말하는 대로입니다. "주님, 주의 선하심을 알기 전에는 결코 주를 경외하지 않을 것이고 결코 주께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 주는 이 교훈이 얼마나 유익한지 봅니다. 그런데 그는 이것을 더 잘 나타내려고 특별히,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것이고, 그다음에 그분을 부르면 응답받을 것이며, 그분께 자기 서원을 갚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른길로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리라고 할 때 이 말을 잘 달아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자녀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상상하는 행복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과 구별하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재물이 넉넉하고 평안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건강을 주시면 그것으로 자기가 아주 행복하다고 여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감각이 더 높이 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육적이고 땅에 속한 사람들은 이 현재의 일들만 바라봅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탄의 그물에 붙들려 있습니

다. 세상에 관해 일들이 우리에게 알맞게 되면 그것으로 충분하고, 우리는 더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며, 우리 삶이 행복하다고 여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를 생각하는 것입니까? 반대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좋은 것들을 그분에게서, 그분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받아들이며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로우시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이 그분의 선하심과 사랑의 그만큼의 증거임을 느끼며 그분께 감사드릴 때 우리가 행복하리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므로 세속적인 사람들은 땅의 좋은 것들을 즐거워하고 자랑하면서 더 멀리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기서 자기 소원이 이끄는 모든 것을 가지기만 하면 하나님과 자기 사이가 어떠하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CO 326 반대로 신자들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다 해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으뜸가는 것, 곧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아버지이신지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은 하나님의 이 선하심에 절여져 있지 않으면 그들에게 아무 맛도 향도 없습니다. (속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좋은 것들에서 좋은 맛을 느끼게 하는 참된 양념은 우리가 거기서 그분의 선하심과 사랑을 알아보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구원의 그만큼의 증거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식탁이 잘 차려지면 마시고 먹고 게걸스럽게 먹어 치우며 다 마찬가지로 여깁니다. 그리고 배가 잔뜩 부르면 놀이를 합니다. 그들이 시간을 다 보냈습니까? 다시 잔치를 벌이러 가거나 잠을 자야 합니다. 요컨대 세속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써가 아니면, 한마디로 짐승처럼 둔해짐으로써가 아니면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없습니다. 그들이 평안하고 편안하게 있으려 할 때에는 잠든 것처럼 되어서 하나님을 조금도 바라보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신자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있어도 "보라,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는 아버지시다. 그분이 이 연약하고 덧없는 몸을 돌보신다면, 더더욱 내 영혼을 돌보실 것이다. 영혼이 그분께 훨씬 더 귀하기 때문이다" 하고 깨닫지 않는

한 그것에서 아무 입맛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나그네처럼 있는 이 세상에서 그분이 우리에게까지 팔을 뻗치시기를 마다하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그분 나라로 모아들여질 때에는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신자에게 이것이 없으면 그는 마시지도 먹지도 못하고 근심과 번민 속에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마음을 늘 살펴서 하나님 앞에서처럼 펼쳐 놓는 사람은 복이 있다"(잠 28:14)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이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고 결론 내릴 수 없다면, 그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확신하며 그분 안에 자기 모든 안식을 둘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다. 세속적인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은 참된 기쁨이라기보다 짐승 같은 짓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그것을 아주 뚜렷한 실제에서도 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먹고 마실 때 어떻게 합니까? 미련한 짐승처럼 합니다. 돼지가 구유 앞에 있고 누가 먹이를 가져다주면 먹이가 있는 동안 배를 채웁니다. 소나 나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세상의 대부분이 이렇게 합니다. 기도도 감사도 아무 인정도 없이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게걸스럽게 먹어 치울 것입니다. 반대로 신자들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로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지 않는다면 음식이 자기에게 정죄로 돌아가리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누리는 모든 좋은 것이 그만큼의 도둑질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CO 327 기도와 간구로 그분께 인정을 드리지 않는다면 그렇습니다. 물론 의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마음은 찔리지 않은 채 입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드리는 사람이 많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참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음식을 바라보며 이렇게 깨닫기 때문입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좋은 것들에 참여하게 하신다. 어떤 조건으로인가?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면, 좋다, 우리는 우리 기업을 누리는 것이고, 그것은 그분이 모든 것을 우리 때문에 지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미 보증금처럼 주시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아니라면 이것은 도둑질로, 참으로 성물 모독으로 여겨져야 한다." 그런데 신자들이 그런 시험에 들 때 그들은 거기서 슬픔에 사로잡히고 마음이 번민하여 빵 한 부스러기도 기쁨과 흡족함으로 삼킬 수 없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참으로 돌아온 사람이 자기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리라고 할 때 이 구절에서 새겨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율법에서도 "너는 네 하나님 앞에서처럼 마시고 먹으며 그분 앞에서 기뻐하라 "(신 12:7 참조)고 말하는 대로입니다. 거기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자녀와 신자들을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하시면서, 믿지 않는 자들은 먹고 마실 것이 넉넉해도 저주받기를 그치지 않을 것이고 그들의 모든 즐거움과 쾌락이 그들에게 부끄러움으로 바뀌리라는 것을 보여 주십니다. 그러니 그들을 닮으려는 시험을 받지 맙시다. 오히려 우리가 행복한 삶을 누리고 여기서 우리에게 넉넉히 베풀어지는 좋은 것들을 바르게 누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눈앞에 계셔야 하고,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해 그분께 경의를 드려야 하며, 우리를 먹이시는 아버지로 당신을 나타내시고 당신의 선하심을 느끼게 하시는 분이 그분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더 높이 끌려 올라가고, 그분이 우리에게 품으신 그 아버지 사랑을 늘 그만큼 더 확신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요컨대 그분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넉넉히 베푸시는 썩을 좋은 것들이 우리를 하늘로 들어 올리는 도움이 되어서, 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거기서 붙잡게 해야 합니다.

그 밖에 하나님 안에서 잘 기뻐하는 방법이 함께 나타나 있습니다. 곧 우리가 그분을 부르고, 그분께 응답을 받았을 때 그분께 우리 서원을 갚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기쁨에 대한 좋고 아주 유익한 설명입니다. 우리가 그분 손에서 받는 모든 좋은 것에서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아 그분 안에서 기뻐하고 거기서 우리 모든 안식과 흡족함을 얻지 않는다면, 그 모든 좋은 것에는 하나님의 저주밖에 없으니, 우리는 어떻게 거기에 이를 수 있는지,

참된 방법이 무엇인지 잘 살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먼저 그분을 불러야 하고, 그다음에 그분께 응답받았을 때CO 328 그분께 우리 서원을 갚아야 한다고 나타냅니다. 여기에는 우리 직무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곧 우리가 그분을 헛되이 부르지 않을 것이고 우리 기도가 헛되거나 쓸모없지 않으리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끝에서, 곧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서 시작해야 합니다. 참으로 먹고 마실 때 이리저리 손을 뻗기 전에 그래야 합니다. 이 끝에서, 곧 우리 하나님을 부르는 데서 시작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모든 질서를 뒤집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가져야 할 으뜸가는 훈련이요 공부는 자기 하나님께 달려가고, 그분이 모든 선의 샘이심을 깨달아 그분 안에서 그것을 찾으며, 몸에 관해서나 영혼에 관해서나 그분의 순전하고 값없는 자비로 주어지는 것 말고는 좋은 것 한 방울도 기대하지 않는다고 선언하는 것임을 배웁시다. 우리가 이 가르침을 잘 간직했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필요가 우리를 거기로 몰아붙이는 것을 봅니다. 참으로 우리가 부끄러울 만큼 몰아붙입니다. 저마다 우리를 둘러싼 가난과 고난이 끝이 없다고 잘 고백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 얼마나 게으르고 더딥니까? 하루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우리를 몰아붙이는 이유가 십만 가지인데, 우리는 겨우 서너 번 그분을 생각하고, 그것도 더할 나위 없이 차갑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받는 모든 좋은 것이 그분 안에, 그분 손에 있고 그분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셔야 한다고 선언하면서, 이 교훈을 간직하여 마땅히 실천한다면 우리는 크게 유익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함께 그분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리라는 약속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듯 의심하며 나아가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 없이는 모든 기도가 순전한 위선일 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우리 믿음에 관해 드리는 증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려 하실지 아닐지 모르는 채 흔들리고 당황해 있다면, 우리에게 아무 믿음도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증언이어야 할 기도가 우리 안에 불확실함밖에 없다는 것을 드러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일컫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응답받으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교의 으뜸가는 항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곧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신께 나아올 때마다 우리 간구를 받으실 준비가 되어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가 그분을 찾는 것만 바라시고, 문이 우리에게 열려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점에서 우리는 온 그리스도교가 교황 아래서CO 329 어떻게 없어졌고 지금도 그러한지 봅니다. 거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충분히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응답받으리라는 무슨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반대로 그들은 의심하며 나아가야 한다고 부끄러움 없이 말합니다. 말하건대 무지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대단한 박사들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 간구를 얻으리라고 확신한다면 그것은 주제넘은 일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때 저마다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는 것은 무서운 성물 모독입니다. 하나님께 대신 빌어 줄 수호성인과 대변자를 두어야 한다는 미신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마다 친숙한 수호성인 하나를 둔 뒤에도 또 한 무리를 두어야 합니다. 결코 끝이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그들이 잘 기워 붙였습니까? 잘 덧대어 놓아서 어느 쪽으로 돌아서야 할지, 무엇을 붙들어야 할지 모르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결국 (흔히 말하듯) 처음과 똑같이 대단한 학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무엇을 얻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께 맨 마지막에야 기도합니다. 수호성인과 대변자들이 첫마디와 맏물 같은 것을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으뜸가는 섬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피조물들에게 옮기고 하나님께는 남들이 마다한 것과 남은 부스러기만 돌아간다면 어떻겠습니까? 교황제에서는 이렇게 하고, (내가 말했듯이) 무지한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큰 학자들이 그렇게 하며, 그것은 거기서 붙들고 있는 그 마귀 같은 가르침을 따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거기서 온 그리스도교가 무너지고 없어졌다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구렁에서 건지셨을 때 우리는 그분의 선하심을 더욱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밝히는 가르침을 더욱 잘 지켜야 합니다. 곧 우리가 진실하게 우리 하나님을 부를 때 그분을 헛되이 찾지 않으리라고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께 응답받으리라고, 심지어 우리가 입을 열기도 전에 이미 손을 뻗쳐 필요할 때 우리를 도우시리라고 선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당신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시는 대로입니다(사 65:24 참조). 그래서 성경에서 이 약속들이 그토록 자주 되풀이되는 것이고, 거기에는 까닭이 있습니다.CO 330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셔도 사람들은 그분께 응답받으리라고 확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서 우리 거짓말은 너무 많이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다고 주신 약속을 확증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는 데 그토록 너그러우시고 수월하신 것이 무슨 목적인지 새겨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분께 우리 서원을 갚게 하려는 것, 곧 감사로써 우리가 모든 일에서 하나하나 그분께 빚진 자라고 선언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서원"이라는 이 말은 사람들이 드리는 엄숙한 증언 같은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위에서 주어진 것 말고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하나님께 같은 것으로 갚아 드릴 수 없으며,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것 말고는 그분께 드릴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시편에서 말하는 대로입니다. "내가 주께 받은 모든 좋은 것에 대해 주께 무엇을 갚으랴?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리라"(시 116:12–13 참조). 그러니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그분의 모든 좋은 것에 대해 그분께 경의를 드리고, 그분의 너그러움을 깨달아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를 그만큼 더 높이는 것 말고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방법이 이것입니다. 곧 우리가 그분께 얼마나 빚져 있는지 깨닫고 그분의 모든 은택에 대해 그분께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앞으로 그분을 우리 아버지로 인정하고 그분께 마땅한 영예와 경의를 드리도록 부추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분이 결코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시리라는 것, 우리가 그분을 그토록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으로 느꼈으니 그분이 그렇게 계속하시리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분께 신뢰를 둔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얻으신 그 하늘나라로 우리를 모아들이셨을 때 당신의 선하심을 참되고 완전하게 누리게 하시리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엎드립시다.

제88편

욥기 23장 설교 1

CO 34:331–343

AI로 옮긴 초벌 번역입니다. 신학 감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CO 권: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 욥이 대답하여 말했네. “오늘도 내 말이 쓰라리지만, 내가 당하는 매가 내 신음보다 무겁네. 내가 어디서 그분을 찾을 수 있는지 알아서 그분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다면 좋으련만! 거기서 나는 그분 앞에 내 사정을 아뢰고 내 입을 변론으로 채우겠네. 그분이 내게 무엇이라고 대답하실지 알고, 그분이 내게 하실 말씀을 깨닫겠네. 그분이 큰 힘으로 나와 다투시겠는가? 아니네, 오히려 내게 능력을 주실 것이네. 거기서는 의인이 그분과 변론할 것이니, 나는 영원히 무죄로 풀려날 것이네.” (욥 23:1–7)

이 설교는 앞 장의 마지막 세 절에 관한 것을 조금 더 다룬 뒤 이어지는 본문을 다룹니다.

CO 331 우리는 엘리바스의 마지막 말과 이제 들은 욥의 대답을 견주어 보아야 합니다. 엘리바스는 자기 쪽에서, 하나님께서 늘 의로운 사람들을 알아주실 것이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뿐 아니라 그들 때문에 온 나라에도 은혜를 베푸시리라고 주장합니다. 욥은 거기에 대해, 자기가 하나님의 손에 극도로 엄하게 다루어진다 해도 그것은 자기가 그렇게 받을 만해서가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그렇다는 증거로, 자기 사정을 변론하는 것이 허락된다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벌하시는 것이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 주리라고 합니다. 그러니 여기서 오가는 서로 반대되는 두 말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첫째 말, 곧 엘리바스의 말에 관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깨끗한 마음으로 당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은혜로우시겠다고 약

속하셨고, 그것이 그들 자신만이 아니라 그들의 집안, 심지어 한 나라에도 미치리라고 약속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어떤 확정된 규칙에 매이시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이 당신의 사람들, 모든 일에서 하나하나 그분께 순종하려 애쓴 사람들을 인내로 단련하시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앞에서 밝혔듯이 한결같은 분량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한 사람의 손의 깨끗함으로 한 나라가 건짐을 받으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반대로 선지자 에스겔(14:14)이 하는 말을 듣습니다. "욥과 다니엘과 노아가 이 성에 있다 해도 그들은 자기 목숨만 건질 것이고, 그들의 자녀들조차 망해야 할 것이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 때문에 한 나라를 구원하실 의무가 없다는 것을 보여 주려고 여기 이 구절을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다면(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 그것은 그분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그분께 법을 지우는 것은 너무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에게,CO 332 소돔에서 의인 다섯 사람만[38] 찾아졌다면 하나님께서 그들 때문에 온 성을 불쌍히 여기셨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이 가증스러운 죄로 가득했더라도, 거기서 의인 다섯 사람만 찾아졌다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기록한 그 원수 갚음을 쓰지 않으셨으리라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그것을 근거로 한 나라에 의인 한 사람이 있을 때마다 그가 그 나라가 구원받는 원인이 되리라고 결론 내리려 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밝혔듯이 그것을 그렇게 멀리 넓혀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요컨대 성경에 담긴 모든 현세의 약속, 곧 현재 삶의 형편에 관한 약속들은 우리가 늘 거기에 머물러야 할 만큼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간직합시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 은혜의 충만함을 다른 삶에서 당신의 신자들에게 남겨 두시고, 여기서는 그들이 그것을 얼마쯤 맛보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 세상에서 그분의 좋은 것들로 완전히 배부르는 것은 그들에게 유익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38. 원문대로 옮겼습니다. 창세기 18:32에서는 열 사람입니다.

대로 행복을 누린다면(앞에서 더 충분히 다루었듯이) 어떻겠습니까? 저마다 여기서 잠들려 할 것이고, 우리가 가진 하늘 생명의 소망은 잠든 것처럼 될 것이며, 심지어 완전히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고난으로 우리를 깨우셔서 우리에게 약속된 그 불멸의 기업을 생각하고 우리 정신이 거기로 들려 올라가게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 우리가 많은 비참으로 단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현재 삶에 관한 약속들의 확실성에 가리지 않고 기대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맞다고 아시는 대로 그것을 나누어 주시고 늘 우리 연약함을 고려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떻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섬기기를 바라는 사람들을 형통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당신의 은혜를 느끼게 하셔서, 그들이 이미 하늘에 그들에게 마련된 헤아릴 수 없는 좋은 것들의 보증물 같은 것을 가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기에만 매달려서는 안 됩니다. 그 밖에 하나님께서 바르게 걸어온 사람들을 괴롭게 하시기를 기뻐하실 때, 그들은 그 때문에 놀라거나 용기를 잃거나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셨다고 결론 내려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분이 그 방법으로 그들을 당신께 끌어당기시려 하고, 그들의 육적인 정욕을 죽이려 하시며,CO 333 세상에 관해 그들 안에 있는 넘치는 것들을 잘라 내려 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더 멀리 나아가고 현재의 일들에 머물지 않도록 더 잘 준비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늘 위로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를 느끼게 하시는 데서 유익을 얻어야 하는 방식이 이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 약속을 얼마쯤 가지는 것으로 충분하고, 지금은 완전함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구원에 좋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는 욥이 이렇게 엘리바스를 나무랄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그는 앞에서 그랬듯이 도를 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가 쓰는 말로 더 잘 이해될 것입니다. 그는 자기 말이

쓰라리지만 자기가 견디는 매가 자기 신음보다 무겁다고 말합니다. 이 말로 그는 자기 탄식이 아주 거칠지만, 그의 고통을 바라보고 잘 달아 보면 그것이 그가 하는 모든 탄원보다 더 무겁다는 것이 드러나리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요컨대 욥은 자기가 그토록 탄식하고, 자기를 억누르지 못하며, 자기 슬픔을 누그러뜨리지 못하는 것을 변명하려 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이렇게 지나친 데에는 까닭이 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그가 견디는 고통이 그가 하는 모든 탄식을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라면 그래도 참아 줄 만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함께 우리가 다른 곳에서 본 말로 들어갑니다. 곧 그가 하나님을 상대로 변론하고 싶어 하며, 거기 이를 수 있고 자기 사정을 주장할 허락을 받는다면 끝까지 해내서 무죄로 풀려나리라는 것을 보여 줍니다. 그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거슬러 힘을 쓰지 않으시고 규칙에 맞는 의를 가지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런 심리를 받는다면 그와 함께 소송은 내게 이긴 것이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앞에서 밝힌 것을 되새기지 않으면 이 말은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늘 의로우시지만 두 가지 의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그분이 당신의 율법으로 우리에게 밝히신 의입니다. 말하건대 사람들을 대하고 판단하시는 의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보좌 앞에 부르시고 거기서 당신 율법의 규범을 따라 대하신다면 그것이 한 가지 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정죄받을 때 그것이 정당한 까닭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아무도 반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가운데 우리가 그분께 빚지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모자란다면, 그분이 우리를 우리 허물대로 징계하실 때 우리가 무엇을 말대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것이 아무 반박 없이 고백될 하나님의 의입니다. 물론 악인들은 늘 투덜거리기를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든 그들의 모든 불평 속에서도 그들은 입이 막혀 있습니다. 그들 자신의 양심이 그들을 정죄해서,CO 334 다른 데서

정식 소송을 걸거나 긴 조사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속에서 그들을 태우는 낙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더 낯선 다른 의가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율법을 따라서가 아니라 당신이 정당하게 하실 수 있는 대로 대하려 하실 때입니다. 그 까닭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율법에서 우리에게 공과를 주시고 거기 담긴 것을 하라고 명하실 때, 그것이 우리의 모든 능력을 넘어서고 죽을 사람 누구도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을 끝까지 이룰 수 없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그분께 그보다 더 빚져 있고 매여 있으며, 율법은 하나님의 그 무한한 의만큼 완전하고 정교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미 보았듯이 그 의를 따르면 그분은 당신의 천사들에게서도 죄악을 찾으실 것이고 해도 그분 앞에서는 밝지 않을 것입니다(욥 4:18; 15:15 참조). 그러니 율법의 의보다 더 완전한 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쓰려 하신다면, 어떤 사람이 율법에 담긴 모든 것을 이루었다 해도 그는 정죄받기를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쓰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렇게까지 맞추셔서, 당신이 명하신 그대로의 이 의를 그것이 사람의 처지에 얼마쯤 맞추어져 있더라도 완전히 완전한 것처럼 받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말하건대 죄로 부패하지 않은 사람의 처지에 맞추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첫째 의에 관해서도 더 길게 풀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이룬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 사실입니다. 말하건대 신자들조차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본성 그대로 머문다면, 우리는 율법을 이루기는커녕 좋은 생각 하나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그 자체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모든 선의 철천지원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두실 때 우리는 그분께 우리 할 일을 다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그분의 진노를 돋우기만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분이 당신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선을 사랑하는 은혜를 베푸시고, 심지어 우리 삶이 거룩함의 거울이요 본보기가 될 만한 능력을

우리 안에 두실 때에도, 우리는 여러 가지로 모자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는 항목 하나가 있으면 천 가지 항목에서 죄가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는 어떤 얼룩도 없는 선을 결코 행하지 않아서, 그분이 우리를 엄격하게 대하려 하신다면 우리는 모든 일에서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죄 있는 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은혜를 베푸실 때, 그분은 당신이 우리 안에 두신 선을 그것이 불완전하더라도 받아 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모자라니 우리에게는 요구될 것이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CO 335 연약함과 악덕을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그 모든 것에 눈을 감으십니다. 아버지가 자기 아이를 지나치게 캐묻지 않으려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아이에게 있는 잘못들을 잘 보지만 그것을 참아 줍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모자라는 모든 연약함을 용서하시며 이 연민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기서 하는 말로 옵시다. 욥은 자기가 가련한 죄인이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는 교만으로 너무 눈이 멀어서 자기가 완전히 의롭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물어뜯을 것이 없다고 믿을 만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일반적인 방식으로, 곧 당신을 섬긴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아주 부드럽게 대하셔서 그들이 그분이 좋은 아버지이심을 잘 느낄 수 있게 하시겠다고 당신의 율법에서 밝히신 대로 대하려 하신다면, 그런 방식과 그 규범을 따라서는 그분 앞에서 잘 대답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사람들에게 은밀하고 감추어진 의를 쓰신다고, 그분이 더는 당신 율법의 형식을 따라 자기를 대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이 깨달을 수 없고 그들의 모든 생각과 감각을 넘어서는 어떤 고려를 하신다고 말하려는 것입니다.

그의 의도가 이것입니다. 이것을 욥이라는 사람과 그 곁에 세운 다른 사람에게 예를 들어 적용해 보면 더 잘 이해될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께 택하신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 사람은 거룩하고

선한 양심으로 걸으려 애썼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을 다스리시며 돌보신다는 표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그럴 만한 공로가 있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피조물에게서 공로나 자격을 찾는다면 피조물이 자기 것을 하나님께 가져다드려야 할 것인데, 사람 안에 좋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성령의 은혜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람은 자기 것을 하나님께 아무것도 가져다드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선조차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들여질 만하지 않아서, 늘 어떤 얼룩이 있으니 물리쳐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신자들을 형통하게 하실 때, 그분은 그들에게 당신의 뜻을 따라 걷고 싶은 마음을 주신 뒤 이 일반적인 의, 곧 당신의 율법에서 우리에게 내놓으시는 의를 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욥은 신자이고 순수하고 바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는데도 끝까지 괴로움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처형대 위에 세우셔서 거기서 무서운 원수 갚음을 펼치시는 것 같습니다. 요컨대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그가 가인이나 유다보다 더 혹독하게 다루어집니다. 그런 이토록 낯선 방식이 무슨 뜻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두고 욥은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은밀한 의를 쓰신다고 말합니다. 곧 그분이 당신의 율법에 담긴 이 일반적인 규범을 쓰지 않으시고, 욥의 인내를 시험하려 하시며,CO 336 그가 온 세상에 본보기가 되기를 원하시고, 요컨대 당신이 당신의 피조물들 위에 어떤 권위를 가지셨는지 보여 주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점에서도 그분은 의로우시기를 그치지 않으십니다. 말하건대 그분이 완전히 그런 식으로 하신다 해도 그렇습니다. 이미 밝혔듯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 비상한 의를 쓰지 않으시지만 욥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당신 율법의 규범을 따라 나아가지 않으신다 해도 의로우시리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이제 욥이 이렇게 말하면서 바르게 말하는지 잘 살펴봅시다. 분명히 그렇

지 않습니다. 지나친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증거로 여기 놓인 말을 들어 봅시다. 그는 "그분은 힘으로 나와 다투지 않으실 것이고, 거기서 나는 옳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힘으로 그와 다투지 않으시리라는 것을 그는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분이 그에게 심리를 허락하려 하신다면 재판으로 들어가시려는 것이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른바 절대 권능을 쓰신다고 전제합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아무 의의 형식이 없더라도 내 좋을 대로 하겠다" 하는, 지나친 지배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점에서 욥은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무한하지만 그것을 그렇게 절대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은 그분 안에 폭정을 상상하는 것이고, 그것은 그분의 위엄에 완전히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의로우시지 않고는 권능 있으시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의와 권능은 떼어 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욥의 말은 나쁩니다. (우리가 다루었듯이) 그의 의도가 하나님을 모독하려는 것이어서가 아니라, 어떻든 이 터무니없는 말들이 그에게서 새어 나오는 것이고, 그것은 그의 정념이 억눌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일을 있는 그대로 참되게 다루어 봅시다. 지금까지 우리는 말을 대강 그려 보았을 뿐입니다. 하나님 안에 두 가지 의가 있다고 말한 것은 참됩니다. 그러나 그 적용은 욥의 공상을 따른 것이었고, 그 적용은 나쁩니다. 이제 순전한 진리로 와서 실상이 어떠한지 알아봅시다. 밝힌 것을 간직해야 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율법에서 우리에게 맞추셔서, 우리가 그분께 빚진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분량에 맞는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가 부패한 그대로의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하기 전의 아담처럼, 그리고 낙원의 천사들처럼 온전한 상태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율법에서 우리 분량을 고려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분량"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잘 간직합시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처한 이 가난을 따른 것이 아니라(우리는 악밖에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성에 부패가 없었다면 우리가 온전히 머물렀을 그 상태를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더 잘 깨달으려면 천사들을 거울로 삼읍시다. 보십시오,CO 337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기려 애씁니다. 그들은 우리처럼 악한 감정의 시험을 받지 않고, 그들 안에는 반역도 죄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은 우리가 보기에는 순수하더라도, 하나님의 무한한 위엄에 견주면 불완전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좋다고 보시면 우리를 비상한 방식으로 대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곧 율법의 규범이 없더라도, 또는 우리가 거기 담긴 모든 것을 이루었다 해도 그분은 우리를 정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당신이 주신 이 규범으로 만족하시면서 당신의 가련한 피조물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을 보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그분 앞에서 깨끗하고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제 더 나아가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손이 깨끗하게 걷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늘 무엇이 우리에게 알맞고 우리 구원에 유익한지 판단하시는 그 앎을 당신께 남겨 두시면서 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징계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섬기려 했고 그것에 애썼다 해도, 그래도 그분은 때로 우리를 엄하게 대하기를 그치지 않으셔서,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하시니 우리가 세상의 가장 악한 자들보다 그분을 더 무겁게 노엽게 한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욥이 이해한 것과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가 드린 순종으로 만족하셔야 할 것처럼 보이고, 그가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단지 하나님의 권능에서 나오는 것처럼 보이며, 하나님께서 무턱대고 나아가셔서 무엇이라 말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가련한 피조물을 삼키시려고 여기서 당신의 억센 팔을 펼치려 하시고 거기에 아무 이유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죄받을 말이고, 심지어 가증스러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듯 욥을 이렇게 괴롭게 하셨을 때, 그분이 일반적인 방식으로 그가 받을 만한 대로 그를 벌하려 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참으로 사실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따라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렇게 벌하실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아 주시고, 참아 주시면서 우리가 당신 성령의 은혜로 하는 행위를 그것이 흠이 있더라도 받아 주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그렇게 하실 의무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이 당신이 우리에게 매이시고 우리에게 빚지시는 조건으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값없는 선하심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 그분을 거기에 억지로 매이게 하려 한다면 그분께 잘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 욥은 이 점에서 착각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한 가장 바르게 걸었을 때에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 있는 자로 드러나서, 그분이 그에게CO 338 세상의 모든 고난을 보내실 수 있고, 사람은 자기를 정죄하고 낮추며 자기가 그보다 더 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욥이 착각하는 것이 이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순전한 선하심으로 당신의 자녀들을 참아 주시고 그들의 행위가 그럴 만하지 않은데도 그것을 받아 주시니, 욥에게는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에게 잔인하게 대하시거나 적어도 절대 권능을 쓰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욥의 죄를 벌하려 하지 않으셨고, 다른 것을 고려하셔서 다른 방식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우리가 보여 주었듯이 그분은 그의 인내를 단련하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세상에는 흥겨워하며 승리를 뽐내는 악인이 많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눈감아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분의 의도가 욥을 그가 받을 만한 대로 대하시려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봅니다.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규범을 따라 욥에게 백 배나

더한 고난을 보내셔서 그가 그것을 견딜 수 없게 하실 수 있었다고 늘 결론 내려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저지른 가장 작은 범죄도 이미 하나님의 위엄을 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묻건대, 하나님의 위엄이 그렇게 우리에게 범해지고 그분의 의가 무너질 때, 그토록 막대한 일에 어떤 벌이 충분하겠습니까? 우리가 십만 번 깊은 곳에 빠진다 해도 그것이 우리가 저지른 죄의 막대함에 맞먹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이 하나님께서 율법의 규범을 따라 자기를 대하지 않으신다고 말할 때 그는 잘못 따집니다. 물론 그가 "그분의 일반적인 방식을 따라서는"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죄를 벌하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까닭이 있다는 뜻으로 말했다면, 그렇게 말했다면 그것은 좋고 참된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나는 하나님께서 지나친 권능을 쓰시는 것을 잘 본다. 그분은 나를 삼키시려는 것처럼 나를 향해 벼락을 치신다. 그러니 나는 잠잠해야 한다" 하고 말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할 때 그는 고삐 풀린 말처럼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가 늘 인내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인내가 이따금 크게 끓어오르고 넘쳐흐르는 거품이 없는 그런 인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욥이 여기서 하는 말의 실마리가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꽤 높은 일이니, 이어지는 말을 풀어 가면 더 큰 빛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욥이 자기가 아무리 쓰라린 말을 토해 냈더라도 자기가 당하는 매가 자기 신음보다 무겁다고 내놓은 뒤 하는 말로 옵시다. 그는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면" 하고 말합니다. 그는 이것으로 무엇을 뜻합니까?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변론하러 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변론하시려고 그렇게까지 낮추신다 해도 우리가 결코 우리 소송을 이길 수 없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당신의 선지자 이사야(1:18)를 통해 "누가 이기는지 알아보도록 우리 사이에 재판관이나 중재자를 세우자"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CO 339 당신의 직무를 내려놓으시거나, 사람의 심리에 당신을 맡기실

만큼 그렇게 낮아지셔서 누가 주제넘게 그분께 판결을 내리게 하시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컨대 그분이 당신의 권위를 내려놓으시고 그분과 우리 사이를 판단할 어떤 사람이 있다 해도, 우리는 정죄받기를 그치지 않을 것이고,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우리의 모든 이유를 끌어와도 우리는 당황할 수밖에 없으리라는 것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서 흠잡을 것을 너무 많이 찾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한 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욥은 하나님을 찾아서 그분을 상대로 변론하고 싶다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내려오셔서 그를 상대편으로 삼아 재판관 앞에서 그의 소송을 다루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크게 착각합니다. 그가 그런 특권을 얻고 하나님께서 그의 청을 들어주셨다 해도, 그는 늘 당황한 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가 착각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고통이 그를 너무 흔들어 놓아서 그가 더는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는 어둠 속에서처럼 흐릿하게 보거나 눈이 가려진 것처럼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엄격하게 살피기를 기뻐하신다면 그가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이 그에게서 흠잡을 것을 찾으시리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보내실 때 경계를 늦추지 말라는 경고를 받습니다. 그러니 고삐를 짧게 잡도록 힘씁시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곧 우리 정념에 눈이 부실 것이고, 고통이 우리를 너무 몰아붙여서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저마다 자기 자신을 더욱 가까이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보내실 때, 그분이 당신의 은혜로 우리를 떠받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곧 지고 쓰러지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밖에 우리 욕구를 믿지 맙시다. 오히려 우리 인간의 이성이 무엇인가를 우리 앞에 내놓을 때 이렇게 말합시다. “아, 가련한 피조물아, 너는 무엇을 상상하려 하느냐? 너는 네 자신의 소송에서 적법한 재판관이 아닐 뿐 아니라, 네 고통이 여기서 너를 눈멀게 했고 너는 바른길에서 벗어나고

있다. 네가 평온하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잘 판단할 수 있을 것이지만, 네 공상이 너를 휩쓸어 간다. 그러하니 너는 여기서 네 사정을 변론하려고 주제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너는 대답할 것이 없고 당황할 수밖에 없으리라는 것을 알고 자원해서 정죄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 구절에서 새겨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이제 더 나아가 봅시다. 욥은 "그때 하나님께서 힘으로 나와 다투시겠는가? 아니다, 오히려 내게 능력을 주실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로 그는 지금 하나님께서 힘으로 자기와 다투시거나 따지신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 조금도 어울릴 수 없는 것을 그분께 돌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소르본의 박사들이 하나님께서 절대 권능을 가지셨다고 말할 때,CO 340 그것은 지옥에서 만들어진 마귀 같은 신성모독입니다. 그것이 신자의 머리에 들어와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권능을 가지셨지만 그 권능이 모든 의의 규범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권능 있으시되 더는 의롭지 않으신 분으로 만들려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조각조각 찢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늘 드러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늘 온전하기를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 깨달음을 따라 재서는 안 됩니다(그것은 그 의를 너무 좁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떻든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이 그분의 의와 떨어질 수 없다는 이 점을 확정해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조각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욥은 하나님께서 힘으로 자기와 다투신다고 전제합니다. 곧 그분이 무섭게 나타나셔서 욥이 그분을 이길 수 없는데, 그것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 내 좋을 대로 너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것 말고 다른 것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피조물들을 처리하시되, 이미 말했듯이 그분의 권능이 그분의 의와 결합되어 있지 않다고 결코 상상해서는 안 되도록 처리하십니다. 그리고 욥이 "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힘으로 나와 다투시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할 때 잘못한 것이 이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으로 욥과 다투셨다 해도, 그것은 절대 권능, 폭군 같은 권능으로가 아니라, 그 의가 사람들에게는 헤아릴 수 없었다 해도 의로운 권능으로 하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에 관해 들을 때 그분이 늘 의로우시다고 고백하도록 그 권능을 경배하라는 경고를 받습니다. 그렇게 하려면(이미 짚었듯이) 그분의 권능을 우리 감각을 따라 재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향해 들리는 그 많은 불평의 원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왜 이것저것을 하시는지 그 이유를 헤아리지 못하면 그분께 언짢아하고 이를 갈며 앙심을 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욕구대로 처신하시기를 바라고, 그분이 하시는 모든 것을 감독하러 오며, 그분이 왜 그런지 보여 주시지 않으면 그것을 좋다고 여길 수 없다면, 그것은 마귀 같은 대담함이요 오만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는 이 은밀한 권능을 경배하며, 거기에 지금 우리가 볼 수 없는 의가 담겨 있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권능을 없애려는 다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당신의 값없는 선하심으로 우리를 택하셨고, 당신의 뜻을 따라 모든 것을 처리하시며, 그분의 손으로 정해지고 이끌어진 것 말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설교하는 것을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소화하지 못하니,CO 341 이렇게 내놓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떤 이들을 택하시고 다른 이들을 유기하셨다면, 그분이 사람들을 멸망하도록 지으셨다는 결론이 나올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에 어울립니까? 그다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다면, 그토록 많은 나쁜 일이 있으니 그것을 두고 무엇이라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련한 어리석은 자들, 아니 오히려 미친 자들은 이렇게 말할 만큼 자기를 낮추지 못합니다. "하나

님께서 구원하려 하지 않으시는 사람들을 지으셨다는 이것들이 우리에게 이상하게 여겨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너무 높고 너무 깊다는 것을 깨닫자. 우리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감추어진 것을 알 만한 그릇으로 우리를 만드실 날이 올 것이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희미하게 알지만, 우리가 그분과 같아질 때에는 그분을 계신 그대로 볼 뿐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은 일들을 완전하게 알리라고 말합니다(고전 13:9–12; 요일 3:2). 자기 오만에 취한 이 술꾼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자기를 복종시키는 이 영광을 그분께 드리지 못합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의 섭리에 관해 말하면 그들은 "어떻게 사람이 자기가 저지른 악 때문에 정죄받으면서도 그 일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하고 말합니다. 그들은 사람이 자기 악의로 죄가 드러나니 정당하게 정죄받지만, 하나님께는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목적이 있다는 것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욥은 자기에게 닥친 모든 징계를 하나님께 돌릴 때 그것을 잘 보여 주었습니다. 도적들이 그의 살림을 빼앗았을 때 그는 그것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욥 1:21 참조). 그러나 그것은 도적들과는 다른 관점에서입니다. 그러니 이 일들이 우리에게 이상하더라도, 어떻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헐뜯으러 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서 우리가 새겨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이 이것입니다. 곧 우리가 우리 감각으로 헤아릴 수 있는 그런 규범에 하나님을 매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의는 우리의 모든 그릇을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낯설고 알려지지 않은 방식으로 일하실 때에도 그분이 의로우시다고 늘 결론 내리기를 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께 드려야 할 영예를 시험하시는 방식도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곧 일들이 우리 이성과 욕구와 정반대로 되는데도 우리가 늘 그분의 이름을 높일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바라는 대로 대하시고 온 세상이 우리가 머리로

결론 내린 대로 다스려진다면, 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고 말하기가 우리에게 아주 쉬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미 우리 자신 안에서CO 342 그래야 한다고 결론 내렸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바치는 복종일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려 하실 때 그때 그분이 지혜로우시다는 것이니, 어림도 없는 말입니다. 반대로 (내가 말했듯이) 그분은 우리가 우리 타고난 감각으로 좋다고 여길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시면서 우리의 겸손을 시험하시고, 그때 그런데도 우리가 그분이 의로우시다고 고백하며 겸손의 고삐 아래 사로잡힌 것처럼 머무는지를 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분께 속한 영광을 드리는 방식이 이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엄격함을 쓰셔서 우리가 어느 쪽으로 돌아서야 할지 모르고 너무 몰아붙여지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욥과 함께 하나님께서 힘으로 우리와 다투신다고 말하지 않기를 배웁시다. 하나님께 절대 권능을 돌리지 않도록 조심하고, 오히려 그분 안에는 늘 헤아릴 수 없는 의가 있으며,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것이 드러나지 않을 때 그것을 경배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읍시다. 늘 "주님,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심판은 깊은 바다입니다" 하고 결론 내립시다. 그래서 특별히 시편 (36:6[39])에서 "주님,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심판은 깊은 바다입니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이 점에서 자기를 낮추어야 합니다. 그가 거기까지 들어가려고 주제넘는다면 결코 끝까지 해내지 못하고 거기에 잠겨 빠져 버릴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토록 크고 어두운 깊은 곳들을 볼 때에도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 밖에 욥이 여기서 하나님께서 절대 권능으로 다투려 하지 않으실 때 자기에게 능력을 주시리라고 말하는 대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이 쓰시는 가장 큰 엄격함 가운데서도 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고백합시

39. 원문은 36:7. 프랑스어 성경의 시편 절수로, 한국어 성경으로는 6절입니다.

다. 그분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는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없애시려고 극한의 힘을 펼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입김만 부셔도 끝장입니다. 사람이 무엇입니까? 곧 말라 버리는 작은 이슬, 꽃 한 송이, 풀 한 포기, 아니 그보다 못한 것, 요컨대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시려고 당신의 권능을 보이시지 않는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보내실 수 있는 가장 작은 고난에도 우리는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더 혹독하게 징계하려 하실 때 그분께 떠받쳐지지 않는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떠받치셔서, 우리를 쓰러뜨리시려고 한 손으로 우리를 치실 때 다른 손을 아래 두셔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가 무너지도록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괴로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꿋꿋하고 꺾이지 않으리라고 결론 내립시다. 참으로 그분이 우리 가까이 계시다면, 곧 그분의 사람들인 우리에게 그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그런CO 343 도우심을 느낀다면 그것으로 우리에게 충분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 연약함을 잘 고려하셔서 당신의 은혜를 점점 더 알게 하시고, 그것을 넉넉히 펼치셔서 우리가 당신의 거룩한 부르심 안에서 끝까지 견디도록 잘 무장되게 하시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엎드립시다.

제89편

욥기 23장 설교 2

CO 34:344–355

AI로 옮긴 초벌 번역입니다. 신학 감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CO 권: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 내가 앞으로 가도 그분은 내게 나타나지 않으시고, 뒤로 가도 나는 그분께 닿지 못하네. 그분이 일하시는 왼쪽으로 가도 나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른쪽으로 돌아서도 그분은 숨으셔서 나는 그분을 보지 못하네. 그분은 내 길을 아시는 대로 나를 시험하시리니, 나는 금처럼 나올 것이네. 내 발은 그분의 길을 따랐고, 나는 그분의 길을 지켜 벗어나지 않았네. 나는 그분 입술의 명령을 물리치지 않고 그것을 간직했으며, 그분 입의 말씀을 내 양식보다(또는 내 관습보다) 더 감추어 두었네. (욥 23:8–12)

이 설교는 7절을 계속 다룬 뒤 이어지는 본문을 다룹니다.

CO 344 어제 한 말을 이어서 욥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자기가 받을 만한 대로 대하려 하신다면 자기가 지금처럼 괴로움을 당하지 않으리라고 선언합니다. 그는 늘 하나님께서 율법의 규범을 따라 자기와 나아가신다면 그렇다는 뜻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그는 자기가 죄인으로서 벌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기에게 알려지지 않은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엄격함을 펼치실 때 그에게 일반적인 방식을 쓰지 않으신다는 것은 참으로 사실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율법을 너무 범해서 그 벌이 다른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 그런 사람들과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욥은 그런 사람들 축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룩하게 살려고 애썼고, 사람들 앞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해서도 처신을 잘해서 다른 사람들에 견주면 반쯤 천사로 여겨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하나님께서 좋다고 보시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만 한다면, 자기가 견디는 벌이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고 말할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을 참아 주신다고 해서 그분이 그래야 할 의무가 있다거나, 원하실 때 그들을 더 혹독하게 징계할 자유가 없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욥이 이 점에서 잘못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 죄 때문에 벌받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밖에 그가 하나님의 은밀한 심판들 속으로 들어갈 때 그는 잘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권능을 가지셨다고 생각하고, 피조물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더라도 그분 안에 감추어진 정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율법의 이 규범을 쓰기를 기뻐하신다면 의인이 그분과 다툴 수 있으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나아간다 해도 우리는 여전히 모두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죽을 사람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었다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담긴 모든 것을 이루지 않는 사람은 저주받을 것이다"(신 27:26 참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 율법의 이 엄격함을 쓰려 하실 때 온 인류가 저주 아래 갇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을 다루는 대로입니다. 특히 갈라디아서 3장(10절 참조)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당신 율법의 규범을 따라 의인에게 심리를 허락하시기만 하면 그가 자기 사정을 변론할 수 있으리라고 말할 때 욥은 착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했듯이) 우리는 모두 정죄를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 점에서 잘못해서만이 아니라 모든 일에서 하나하나 우리는 죄가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요구되는 만큼의 감정으로, 그분이 받으실 만하고 우리 의무인 만큼의 완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로 드러나는 것은 한 부분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일에서 하나하나 그렇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 밖에 의인들이 그분 앞에 나설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셈하러 나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시편 32편(1절)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묻어 버리셨을 때가 아니면 우리의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감히 입을 열어 하늘의 재판관을 상대로 변론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언자로 모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사정을 변론하시면서 우리 공로를 내세우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CO 345 우리를 벌하실 때 우리에게 잘못하신다고 맞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당신이 이루신 속상을 내세우시며, 당신이 우리 빚을 갚아 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죄로 풀려났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의롭고 바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사정을 변론할 수 있으리라고 말할 때 욥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우리는 봅니다.

이제 다른 점, 곧 그가 앞에서 하나님을 찾아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할 것이고, 뒤로 가도 그분을 따라잡지 못할 것이며, 왼쪽으로 돌아서도 그분이 그에게 숨으실 것이고, 오른쪽으로 돌아서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리라고 하는 데에 관해서입니다. 이것으로 그는 하나님의 심판이 자기에게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그것은 참으로 사실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세상의 네 방위로 풀이하는데, 결국은 같은 뜻입니다. 그것은 시편(139:7–10[40])에서 말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누가 내게 날개를 주어 피하게 하겠는가? 내가 바다를 건너도 하나님의 손은 너무 길어서 거기서도 나를 붙잡을 것이다. 내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도 거기서 그분께 찾아질 것이다. 내가 구름 위로 오르려 해도 그분의 손이 나를 거기서 끌어내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해 뜨는 곳과 해 지는 곳, 남쪽과 북쪽으로 이해할 때 이 구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은 사람들이 아무리 긴 궁리를 해 보았자 소용없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온 세상을 돌아다녀도 결코 하나님의 큰 비밀에 이르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모든

40. 원문은 139:8. 프랑스어 성경의 시편 절수로, 한국어 성경으로는 7–10절입니다.

분량과 능력을 넘어섭니다. 그런데 뜻은 늘 우리가 말한 대로입니다. 곧 욥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쓰시는 방식이 너무 높고 너무 깊어서 사람의 정신이 거기까지 이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잘 적용하기만 하면 아주 참된 말입니다. 그러나 잘못은, 욥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이유를 알아차리지 못할 때 거기에 이른바 절대 권능밖에 없다고, 곧 하나님께서 아무 질서도 규범도 지키지 않으시고 당신 좋을 대로 일하시며, 제후가 이치로 자기를 다스리려 하지 않고 자기 욕구를 따르려 할 때처럼 당신 좋을 대로 하신다고 상상한다는 데 있습니다. 욥은 이 점에서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에게 갑작스러운 정념이 있어서 이 말들이 생각 없이 새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그는 늘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고 나무랄 데 없으시다고 결론 내리기를 그치지 않고, 늘 그것을 마음속에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정념에 사로잡힐 때 그는 자기 혀를 붙들지 못해서 터무니없는 말이 몇 마디 나옵니다. 요컨대 간직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을 우리 쓰임에 적용하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거기서 우리 사정을 변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읍시다. 그분이 우리를 상대로 긴 소송을 벌이시지 않아도 우리는 모두 정죄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변호와 핑계를 가졌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 죄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CO 346 우리가 모두 그분께 빚진 자라는 것을 깨닫고 그분께 용서와 자비를 구하는 것 말고 다른 처방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방식이 이것입니다. 곧 우리가 의롭다거나 그분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다고 주장하지 말고, 우리가 저지른 죄를 깨닫고 그분이 당신의 순전한 선하심과 자비로 우리를 받아 주시기를 구하며, 우리 사정을 변론하려고 입을 열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툼은 우리 몫이 아니고 그 직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쪽에서는 입을 다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언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게 합시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우리 잘못이

묻히고 우리가 정죄받는 대신 무죄로 풀려나게 합시다. 먼저 간직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우리 재판관에게서 풀려나는 방식이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대로입니다(롬 8:33–34[41]).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니 누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발하겠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사정을 손에 쥐시고 그것을 변론하려 하시니 누가 그들의 상대편이 되겠는가?" (말하건대) 이것이 우리의 모든 피난처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망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받아 마땅하듯 그분의 진노에 벼락을 맞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점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자주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새겨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그것을 이상하게 여겨서 대들고, 거기에 아무 이유가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둔함에는 너무 높으며, 우리가 거기에 이르려 한다면 그것은 너무 주제넘은 일이라는 것을 깨달읍시다. (말하건대) 우리는 이것을 완전히 확정해 두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참으로 감추어져 있고, 우리가 아무리 캐묻고 살피고 뒤져 보아도 거기서 당황하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께 당신 안에 규범이 없다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과 우리를 견주어 봅시다. 얼마나 먼 거리가 있겠습니까? 그분은 "내 길은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너희 길보다 멀다"(사 55:9)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분은 당신의 자비를 우리 본성에 따라 헤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 주시려고 이 말씀을 쓰십니다. 그러나 어떻든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흔히 말하듯) 그분을 우리 자로 재는 것이 모든 이치에 어긋나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 주십니다. 그러면 무엇이 남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을 때 그것을 경탄하고, 그것을 경배하면서 그분이 하시는 모든 것이 무한한 지혜와

41. 원문은 8:30. 인용한 말씀은 33–34절에 있습니다.

올바름과 선하심으로 처리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그것을 의심하려 한다면 그는 당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시편(51:4[42]) 에서 말하는 대로입니다. "주님,CO 347 주께서는 어떻든 늘 의롭다 하심을 받으실 것입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을 거슬러 말대꾸하며 그분을 감독하려는 사람들 안에 있는 마귀 같은 대담함을 잘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거기서 무엇을 얻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올바름을 지키실 것이고, 그들은 그들의 대담함과 함께 완전히 깊은 곳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 간직할 만한 점이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까지 가고 북쪽에서 남쪽으로 가도, 온 세상을 헤집고 다닌 뒤에도 하나님께 이르지 못하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뜻이 그런 깊은 바다여서 우리가 거기에 이를 수 없고, 그분이 가지신 올바름이 무한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 줍니다. 그런데 우리 분량을 바라봅시다. 우리 안에 어떤 연약함이 있는지 바라봅시다. 사람이 평생을 여행에 쓰려 해도 온 세상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땅의 중심, 곧 가장 깊은 곳까지 갔다 해도 하나님에 관해 무엇을 알았겠습니까? 심지어 구름 위를 날아다녔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알기에는 아직 멀 것입니다. 그러니 요컨대 두 가지를 배웁시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방식대로 일하지 않으실 때, "피조물들은 이것저것을 할 수 있다. 사람들은 이런 관습이 있다. 늘 이렇게 일해 왔다. 이것이 자연의 질서에 속한다" 하고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자연의 질서에도, 그런 경계 안에도 가둘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분의 심판이 너무 깊은 바다여서 우리가 거기에 이를 수 없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리저리 마구 나아가시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그분이 하시는 일에서 흠을 잡으며 우리에게 공상과 그럴듯한 구실이 있

42. 원문은 51:6. 프랑스어 성경의 시편 절수로, 한국어 성경으로는 4절입니다.

을 때에도, 그분이 의로우시기를 그치지 않으신다는 것을 완전히 확정해 둡시다. (말하건대) 그래도 우리는 "주님, 주는 의로우십니다" 하고 결론 내린 것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예레미야(12:1)가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대로입니다. 물론 그는 악인들이 기세를 떨치고 선한 사람들이 끝까지 짓밟히며, 모든 것이 무질서하게 돌아가고 힘센 자가 이기며, 사람들 사이에 더는 정의도 공평도 없는 것을 보며 괴로워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것을 탄식하고 언짢아합니다. 그다음에 그는 악인들이 하나님께서 주무시고 더는 당신의 직무를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벌받지 않은 채 머무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이것은 선지자가 느낀 아주 힘들고 괴로운 시험입니다. 그러나 그는 육적인 감각이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을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자기 탄식과 하소연을 하기 전에 머리말을 붙입니다. 그는 "주님,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CO 348 심판은 바릅니다" 하고 말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 의도가 하나님과 다툼을 벌이고 자기 동료나 대등한 자와 하듯 따지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치를 따라 일하시는지 아닌지 의심하려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스스로 그런 자유를 빼앗고, 자기 정신에 떠오를 수 있는 것을 잘라 버립니다. 그러니 그는 말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주님, 어떻든, 사람들이 주께서 이유 없이 일들을 하신다고 상상할 수 있더라도, 주는 모든 일에서 하나하나 의로우시고 나무랄 데 없으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욥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의 이유를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고만 말해서는 안 됩니다(그것은 참으로 사실이지만 반쯤만 입을 벌려 하는 말일 뿐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렇게 높이 오를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헤아릴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실 때에도 그분을 의롭다고 인정하고 경배하며 그분 앞에서 우리를 낮추기를 그쳐서는 안 된다" 하고 말해야 합니다. 요컨대 간직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가 아무리 궁리해 보아도 그렇다고 이기지는

못하리라는 경고를 받읍시다. 물론 사람들은 정신이 아주 민첩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오만의 계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보듯 많은 사람이 정신이 꽤 깨어 있으면 모든 일의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처럼 여기고, 그것이 그들을 헤매게 해서 결국 자기 생각에 눈이 부십니다. 곧 그들이 너무 많이 꾀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오만을 벌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리저리 궁리해 본다 해도 그것은 모든 일의 끝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생각합시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정신이 그 높음에 이르기에는 너무 약하고 둔하다는 것을 보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아야 하고, 마지막 날에 온전한 계시를 받을 때까지 구원에 유익한 일들을 일정한 분량으로 맛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이 구절에서 간직해야 할 것이 또 이것입니다.

이어서 욥은 함께 "그분이 내 길을 아시는 대로 나는 그분께 시험받을 것이고, 금처럼 나올 것이다"라고 덧붙입니다. 이것으로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보다 크게 유리하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나는 그분을 알 수 없지만 그분은 나를 아신다. 나는 그분의 일을 모르지만 그분은 내 일을, 그것도 일뿐 아니라 내 모든 생각을 판단하신다. 요컨대 그분은 풀무 속의 금처럼 나를 시험하셔서, 내 안에 아무리 작은 찌꺼기나 연약함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가려내지 않으시는 것이 없다. 그러니 내가 변론하려 해도 나는 그분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그가 내리는 결론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아시고CO 349 풀무 속의 금처럼 우리를 살피시고 시험하신다는 이 말은 참으로 옳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우리가 그분보다 아래 있다고 불평할 까닭이 있습니까? 피조물이 대들어서 자기 창조주를 상대로 소송을 걸려고 일어서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과 같은 특권을 주시지 않는다고 그분이 우리에게 잘못과 모욕을 하셨다고 말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길을 아시고 우리가 그분께 살펴지며 그분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

든 악하고 쓸데없는 감정과 생각을 가려내신다는 이것이 우리 앞에 나타날 때, 그것으로 우리가 겸손과 두려움을 배워야 하고, 욥이 이 구절에서 하듯 어떤 하소연을 하도록 부추김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압시다.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 모든 면에서 우리를 짧은 고삐로 붙들어 두려 하신다는 것을 봅니다. 그분이 이렇게 우리를 살피시는 것이 그분께 무슨 이익이 돌아오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것이 우리에게 좋다는 것을 아십니다. 마찬가지로 그분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것이 그분이 무엇을 두려워하시거나 거기서 이익을 찾으시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순종으로 단련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것이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으뜸가는 것이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모든 덕의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 위에 당신의 위엄을 가지시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며 우리 처지가 어떠한지 보여 주시며 우리를 당신 발아래 두시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 안에 있는 교만과 대담함을 생각할 때 어떻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 일의 이유를 보여 주지 않으시는 것은 우리가 그분께 순종하기를 배우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 밖에 우리가 그분이 왜 이것저것을 하시는지 보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분의 본질을 헤아리겠습니까? 우리 쪽에서는 그분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 (내가 말했듯이) 그것은 우리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가운데 누가 자기를 살핍니까? 오히려 반대로 우리 가난과 악덕을 찾도록 빛을 켜야 할 사람들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켜 두신 등불을 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과 악의 분별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악을 알아볼 수 있도록 그분이 초를 켜 두신 것과 같은 것 말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이 그 모든 앎을 끄려고 애쓰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자기 양심을 없애 버리고 돼지처럼 사는 것이 허락되어 자기가 저지르는 악에 더는 부끄러움도 수치도 없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그렇게 짐승처럼 둔해지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살핌으로 이끄시려고 그들 안에 켜 두신 등불과 초를 끄려고 애쓰는 것을 봅니다. 그러하니 우리가 그 직무를 하려 하지 않고 자원해서 미련한 짐승처럼 되어 우리 안에 더는 신중함도 이성도 없으려 하니, 우리CO 350 주님께서 우리를 살피시고 시험하시는 것은 아주 마땅합니다. 그러니 이 구절에서 새겨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길과 우리 행위를 아시니, 그분이 우리를 풀무를 통과하는 금처럼 지나가게 하실 때 그것은 우리 유익과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잘 결론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 이유도 알아차리지 못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결국 왜 우리를 이렇게 시험하셨는지, 심지어 왜 우리를 불 속의 금처럼 그 많은 고난을 지나가게 하시는지 보여 주시리라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그러니 그것이 견디기에 쓰라리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데에는 까닭이 있습니다. 우리 감각이 너무 약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때가 되면 그분이 함부로 일하지 않으셨고 무엇이 우리 구원에 알맞은지 아셨다는 것을 느끼게 하실 것입니다. 요컨대 간직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이렇게 말한 뒤 한 가지 선언을 덧붙입니다. 곧 그의 발이 하나님의 길로 걸었고, 그가 그분의 길을 버리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명령을 자기에게서 돌리지 않았고, 그것을 자기 양식이나 자기 처신의 방식보다 더 감추어 두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욥은 자기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들, 방탕하고 악에 빠진 사람들 축에 들지 않을 만큼 바르게 걸었다고 선언할 수 있었습니다. 욥은 그것을 충분히 밝힐 수 있었습니다. 실제가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듯 다윗도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주님, 저는 온 마음으로 주의 계명을 지켰습니다. 주님, 주의 율법은 제게 금과 은보다 귀했고, 그것이 제 모든 즐거움이었습니다. 저는 제 악한 감

정에 빠져 있지 않았고, 주의 율법을 듣는 데서 제 모든 기쁨을 얻었습니다"(시 119:10, 72, 77 참조). 다윗이 이렇게 말할 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구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누가 주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사람들과 셈하시면 의롭다 함을 받을 피조물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주의 종과 함께 심판에 들어가지 마소서. 주님, 주께서 우리 모든 잘못을 지켜보려 하시면 누가 서겠습니까?"(시 130:3; 143:2) 그러니 우리는 다윗이 거리낌 없이 정죄를 받아들이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랐다고 선언할 때, 그것은 그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인정하고 그분께 경의를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 주께서 제게 그토록 많은 좋은 것을 베푸셨고, 주의 성령으로 저를 다스리셨습니다. 제가 주의 계명을 따른 것은 제 자신의 기술기에서 온 것이 아니라, 주께서 저를 이끄시는 대로 제가 거기에 몸을 바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이런 경의를 드리면서CO 351 좋은 소망 안에서 점점 더 굳어지고, 하나님을 그토록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으로 느꼈으니 그분이 결코 자기를 저버리지 않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욥이 그렇게 나아갔다면 이 선언은 좋고 거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는 여기서 변론하려 하고, 하나님께서 당신 율법의 일반 규범을 따라 자기를 대하신다면 자기에게 그런 엄격함을 쓰실 까닭이 없으리라고 내세우려 합니다. 욥은 이 점에서 크게 잘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저지른 범죄 때문에 그를 벌하려 하셨다 해도 그분은 그렇게 하실 수 있었고, 그분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은 그분의 순전한 너그러움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욥은 하나님의 의도와 자기 자신을 충분히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는 이렇게 깨달아야 했습니다. "주님, 주께서 저를 징계하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율법을 따라서도 주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큰 온전함으로 주 앞에서 걸으려고 애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늘 흠잡을 것이 있으니 주께서는 제 모든

행위가 흠 있다고 보실 것입니다." 욥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주님. 주께서 오히려 저를 아끼신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것은 주의 아버지 같은 선하심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괴로움을 당한다면, 주께서는 그것이 제 죄 때문이 아니라 주께서 제 인내를 단련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보소서, 저는 끝까지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께서 은밀하고 놀라운 심판으로 그렇게 하신다고 결론 내려야 합니다." 욥이 이렇게 말했다면 모든 것이 잘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정념에 휩쓸립니다. 그리고 이 점에서 우리는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가 괴로움을 당할 때 자기 자신을 의심하라는 경고를 받습니다. 우리는 눈이 부신 것처럼 되어서 무엇이 좋은지 분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여기서 인내의 거울로 우리 눈앞에 놓인 욥에게 일어났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실 때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그분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분께 불평하려는 생각이 우리에게 떠오르면, 우리가 스스로는 하나님의 진노를 더 돋우지 않는 말을 한마디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꺾어 버립시다. 그러니 간직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 밖에 이 말씀을 이어 가면서,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읍시다. 욥이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보여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우리를 온전히 바치고 드리려 할 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합니까? 그분이 보여 주시는 길을 지키는 데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자기 좋을 대로 경건 행습을 지어 올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보듯 세상은 너무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아주 경건하고 놀라운 일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그들은 자기에게 좋아 보이는 것을 바라봅니다.CO 352 그렇습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아무 주권도 없으시고, 그분을 섬기는 것의

으뜸이 순종이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려는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공상에 문을 닫고, 자기 감각이나 지혜로 자기를 다스리지 말고, 여기서 밝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합니다. "나는 걸었다. 나는 내 발을 하나님의 길에 두었고, 거기서 벗어나지 않았으며, 그분의 길에서 조금도 비켜서지 않았다." 이 규범을 지켰고 그것을 잘 지켰다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로 교황주의자들과 그렇게 큰 논쟁을 벌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교황제에서 무엇을 하나님 섬김이라고 부릅니까? 하나님께서 결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는데 그들 스스로 지어낸 것입니다. 무엇을 경건 행습이라고 부릅니까? 저마다의 욕구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무엇인가에 공상을 품으면 그는 함께 하나님께서도 거기서 기쁨을 얻으신다고 믿을 것이고, 무엇인가 꾀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늘 세상에서 군림해 온 대담함이 이것입니다. 곧 사람들은 주인이 되어 제멋대로 법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만들어 낸 것을 받아 주시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 보여 주시는 길이 아니면 앞으로 걸으려고 발 하나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 주십니다. 우리는 거기에 붙들려 있어야 합니다. 흥겨워하려 하고 여기서 껑충껑충 뛰고 이리저리 헤매려 하는 사람은 목과 다리를 부러뜨릴 수는 있겠지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곧 우리가 그렇게 우리 공상대로 가려 하면 아무 유익도 얻지 못하고 오히려 나아가는 대신 늘 뒷걸음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잘 사는 방식, 바르게 사는 방식은 우리가 길에 발을 두는 것이라는 것을 배웁시다. 참으로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그분이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 주신 길에 말입니다.

그리고 욥이 자기가 거기서 물러서지 않았다고 덧붙이는 데에도 까닭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그는 사람들이 늘 들썩거리는 욕구에 부추겨져서 자기 바른길에서 빗나가려 한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억지로가 아니면 우리를 당신께 순종하는 데 붙들어 두실 수 없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것도 더하지도 빼지도 않을 만큼 순전하게 걸으려는 사람도 자기 안에 찌르는 것이 있고 길 밖으로 나가고 싶은 간지러움을 느끼기를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저마다 그런 자유를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것을 볼 때 그렇습니다. "오, 이 사람은 이런 일을 한다" 하며 우리는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그런 본보기를 보고 그때 거기로 빗나가려 합니다. 요컨대 우리 정신이 호기심 많고CO 353 공상을 좋아하며, 또 온 세상에서 우리를 악으로 끌어당기는 것들을 보니, 우리는 모든 면에서 쉽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서 휩쓸려 나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 주신 길에서 비켜서지 않았다고 욥과 함께 진실하게 선언할 수 있도록 힘씁시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율법으로 보여 주시는 것을 듣는 데 마음을 기울여야 합니다. 욥이 덧붙이는 이 선언, 곧 자기가 하나님 입술의 명령을 듣는 데 완전히 몸을 바쳤다는 선언이 없다면,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인정하시고 자기들이 바른길에 있다고 스스로 믿으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는 입술의 명령을 말합니까? 이것은 쓸데없는 말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이 자기 삶을 하나님의 율법에 맞추어 재고 자기 모든 생각과 행위가 거기에 맞추어져서 조금도 거기서 비켜서려고 주제넘지 않는 만큼이 아니면 그는 무질서하고 뒤죽박죽인 삶을 살게 되리라는 것을 더 잘 나타내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말씀의 쓰임과 거기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유익을 보여 주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의 쓰임은 우리를 바른길에 붙들어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오는 영감을 기다린다면, 사탄이 (자기 모습을 바꾸니, 고후 11:14 참조) 우리 머리에 많은 환상을 넣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그의 오류를 잘라 버리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거기에 붙어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놓으시는 좋은 것을 쓰도록 힘씁시다. 그런데 함께 유익도 있습니다. 잘못하지 않으리라고 확신하는 것보다 더 바랄 만한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련한 교황주의자들처럼, 자기 머리로 처신하는 모든 사람처럼 의심 속에 걷는다면,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것을 받아 주실지 의심 속에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분이 보여 주시는 길이 틀림없고, 우리가 거기서 잘 걸을 수 있으며, 거기서 앞으로 나아가면 그분께, 그리고 우리 구원의 과녁에 가까이 가리라는 것을 완전히 결론 내렸을 때, 그러니 우리가 그런 확신을 가질 때 그것은 헤아릴 수 없는 보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스스로 빼앗지 맙시다. 우리가 보듯 세상은 너무 악하고 비뚤어져서, 완전히 확실하고 우리에게 거짓말할 수 없는 진리를 따르기보다 자기 공상에 빠지기를 훨씬 더 좋아할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 입술의 명령을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입으로 설교되는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정하셔서 우리가 거기에 머물고 이리저리 헛된 사변을 찾지 않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보여 줄 때, 이 구절에서 간직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이어서 그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양식이나 자기 처신의 방식보다 더 감추어 두었다고 덧붙입니다. 그가 여기서 쓰는 말은 본디 규례,CO 354 결정을 뜻합니다. 실제로 세 절 뒤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에 관해 정하셨다고, 또는 자기를 돌아보셨다고 말할 때 그는 여기 놓인 바로 이 말을 씁니다. 그러니 그 본뜻은 결정, 규례, 일반적인 처신의 방식입니다. 그다음에 때로는 비유로 사람의 일상 양식이나 그의 양식 준비를 뜻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자기 양식을 마련하는 것이 일종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루에 배가 터지도록 먹지 않고 자기 영양과 살림을 위한 몫을 가지며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니 이 말은 이렇게 저마다의 일상 양식과 양식 준비로도 쓰입니다. 그런데 둘 다 꽤 알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욥은 여기서 그것을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세상의 모든 것보다 더 귀

히 여긴 보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자기 양식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목숨을 사랑하는 만큼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려 애쓰기 때문입니다. 빵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얼마나 놀라고 당황합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자기 필요를 채우는 데 큰 걱정을 하는 만큼,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양식, 자기 먹고 마시는 것보다 앞세울 때, 그것으로 그는 이 현재 삶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마음을 쏟는 것만큼 자기에게 중요하지 않았고,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음식으로 먹는 것보다 그분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는 것을 더 사랑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거기서 우리는 좋은 경고를 거둘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살기를 탐하는지 보기 때문입니다. 탐할 뿐 아니라 그런 욕구에 미쳐서 그들 안에 아무 분량도 절제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그들은 왜 사는지, 왜 살기를 구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조금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우리에게 하는 말을 더욱 잘 새겨야 합니다. 곧 우리는 늘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영광에 우리를 바치며,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는 하늘 생명의 소망 안에서 점점 더 굳어지기 위해서가 아니면 이 세상에서 살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감각과 모든 공부를 쏟아야 할 과녁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함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그것은 우리 영혼의 영적 양식입니다)을 우리 몸을 위해 바랄 수 있는 모든 양식보다 앞세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빵과 물로, 심지어 포도주와 찾을 수 있는 가장 맛있고 진귀한 다른 음식으로 먹고 산다 해도, 그 사이에 우리 영혼이 굶주려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소와 나귀와 말이 우리보다 더 낫고 뛰어난 처지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영혼을 먹이는 하나님의 말씀을CO 355 이 덧없고 썩을 현세의 삶에 관한 모든 것보다 앞세우기를 배웁시다. 그리고 그것이 다만 "나는 가르침을 받았다" 하고 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욥이 말하듯 하나님을 섬기는 데 우리를 바치기 위해서가 되게 합시다.

이제 이 말이 "일반적인 처신의 방식"을 뜻한다고 밝힌 데로 옵시다.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때 요컨대 뜻은 바뀌지 않겠지만, 거둘 만한 아주 유익한 점이 하나 더 있을 것입니다. 욥은 그렇게 해서, 자기가 늘 자기 육적인 신중함을 따르려는 이 세상의 자녀들처럼 지혜롭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복종하려고 자기에게 좋아 보이는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을 밝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미 짚었듯이 이것은 아주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 주시는 길을 지키지 않으면 떠돌고 헤매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관습, 우리 규례, 우리 삶의 방식을 치워 버립시다, 치워 버립시다. 그 모든 것이 무너지고 없어지게 합시다. 사람들이 자기 발명을 흡족해하고, 자기 관습에 빠져 있으며, 자기 삶의 방식을 고집하는 동안에는 그들이 하나님께 자기를 바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송아지나 암소에게 모자를 씌우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본성이 아니어서 그들이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때 우리는 그런 일에서 미련한 짐승들보다 더 사납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도록 빚어지려면, 먼저 우리 머리에 떠오르는 그 모든 그럴듯한 발명을 벗어 버리기를 배워야 합니다. "왜 이것이 좋지 않겠는가? 우리는 그렇게 익숙해져 있고, 모두가 그렇게 하며, 늘 그렇게 해 왔다." 그 모든 것을 더는 내세울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거기에 맞추어야 한다"는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욥이 하나님의 말씀과 거기 담긴 가르침을 찾았고, 그것을 감추어 두었으며, 다른 모든 것보다 귀히 여겼다고 말하는 데에는 까닭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감추다"라는 이 말에 관해서는 오늘 풀 수 없을 것이니 내일로 남겨 둡시다.

이제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엎드립시다.

제90편

욥기 23장 설교 3

CO 34:356–368

AI로 옮긴 초벌 번역입니다. 신학 감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CO 권: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 그분은 한 뜻을 품으시니 누가 그분을 돌이키겠는가? 그분은 당신 마음에 원하시는 것을 하시네. 그분은 나에 관해 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고, 그분께는 그런 일이 많네. 그러므로 나는 그분 앞에서 두려워하고, 그것을 생각하면 그분을 무서워하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약하게 하셨고 전능자께서 나를 놀라게 하셨네. 나는 어둠으로 끊어진 것이 아니고, 그분이 어둠을 내 얼굴에서 감추셨기 때문이네. (욥 23:13–17)

이 설교는 12절을 계속 다룬 뒤 이어지는 본문을 다룹니다.

CO 356 어제 우리는 하나님께 바르게 순종하려면 우리의 모든 관습과 처신의 방식을 버려야 하고, 그것을 좋다고 여기게 하려고 이것저것을 내세워서는 안 되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순전한 말씀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놓인 이 말, 곧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보물처럼 우리 마음에 감추어 두어야 한다는 말을 새기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감추어져 있지 않으면 결코 살아 있는 뿌리를 내리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게 될 많은 사람이 하나님에 관해 듣고 마음이 움직이고 어떤 좋은 감정을 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 안에 바르게 심겨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나타났던 믿음이 사라져 버리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 마음 깊이 있을 때, 곧 우리가 그것을 우리에게 하는 말을 인정하는 가벼운 움직임으로가 아니라 진지한 애정으로 받았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학교에서 유익을 얻은 것이라는 것을 잘 새깁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속에 있고 영적인 것이라고 자주 일깨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 세상을 만족시켜서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흠잡을 것이 없다고 생각할 때에도, 마음이 앞서 걷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박수를 보내는 그 모든 그럴듯한 겉모습을 물리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CO 357 하나님의 말씀을 감추어 두어야 한다는 이 말씀을 간직합시다.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것이 묻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면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러야 하기 때문입니다(롬 10:10 참조).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드러나야 합니다(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 안에 없다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신자들이 하는 선한 행위는 우리가 말한 그 마음에서 우러난 애정에서 나와야 하고, 가볍고 변덕스러운 움직임에서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 밖에 "감추다"라는 이 말은 보물의 비유를 들면 충분히 이해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도 적용해 봅시다(마 13:52). 곧 사람이 잘 갖추어져 있으면 자기 살림에 필요한 것과 남의 쓰임에 필요한 것도 꺼낼 수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 인색해서 돈이 가득한 궤짝과 잘 채워진 곳간과 저장고를 가지고도 굶어 죽고 아무도 돕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완전히 짐승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아 둔 것은 일이 요구하는 대로 그것을 지혜롭게 쓸 수 있게 하려는 것임을 깨달읍시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의 가르침이라는 이 보물을 우리 양심에 감추어 둘 때, 그것은 우리 자신의 쓰임에 유익할 뿐 아니라 우리 이웃을 세우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하는 말, 곧 믿음을 담는 그릇이 선한 양심이라는 말(딤전 3:9)도 기억합시다. 그러니 요컨대 이 말에서 새겨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으려면 우리 머리에 그것에 대한 어떤 의견만 가져서는 안 되고, 그것을 헤아릴 수

없는 보물처럼 우리 마음에 부지런히 간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욥이 덧붙이는 것으로 옵시다. 그는 하나님께서 한 뜻을 품으시면 아무도 그분을 거기서 돌이킬 수 없으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늘 하나님께서 자기를 거슬러 절대 권능을 쓰셔서 자기 권리를 얻으려고 소송으로 갈 일이 없다고 앞에서 한 말을 이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지나치다고 밝혔습니다. 욥이 하나님께서 자기가 저지른 죄 때문에 자기를 벌하시는 것이 아님을 알았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서 의로우시고 공평하시다는 것을 확정해 두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는 규범도 분량도 없는 터무니없는 권능을 상상합니다. 그 점에서 그는 하나님께 모욕을 합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이 말을 마땅히 적용하면 그것은 참됩니다. 곧 하나님께서 한 뜻을 품으신다는 것, 곧 그분이 한결같으시고 변하지 않으시며 아무도 그분을 거기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듯 거짓말쟁이 발람도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고 변하기 쉽고 변덕스러운 사람들과 같지 않으시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그분이 말씀하시고 행하지 않으시겠는가?"(민 23:19 참조)CO 358 하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 가르침 자체는 좋고 성경은 이 말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 가르침에 적용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쓰임은 두 가지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은혜롭고 호의적이시며 모든 필요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실 때, 그것이 우리에게 결론 난 것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지 아닐지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의 진리는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반대로 그분이 우리를 위협하실 때 우리는 떨어야 합니다. 그런 주인을 가지고 장난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하나님의 한결같으심과 당신의 뜻을 집행하시는 굳건함에 관해 우리에게 하는 모든 말이 겨누는 목적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자비로 받으시겠다고 증언하실 때 당신의

마음을 펼치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당신께 부르실 때, 그것은 우리를 실망시키시거나 어떤 헛된 소망으로 우리를 달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분 뜻의 확실한 증거를 가졌으니 담대하게 거기에 머물고 거기에 기댑시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이 그분을 거슬러 일어서도 그분을 당신의 뜻에서 흔들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꾸밀 수 있는 모든 것을 거슬러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방식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슬러 일어선 것을 볼 때에도 우리는 늘 평안할 것입니다. 우리가 보듯 성령께서도 신자들을 그런 신뢰로 무장시키시고 그들이 모든 원수를 비웃도록 가르치십니다. "그래, 모의해라, 할 수 있는 가장 나쁜 짓을 해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끝까지 서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 가까이 계시겠다고, 마귀와 사람들이 우리를 거슬러 지어낼 수 있는 모든 것을 꾸밀 때 그들의 모든 요새를 물리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하니 우리는 우리 원수들이 꾀하고 꾸미는 모든 것을 비웃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결국 하나님께 맞설 수도,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지 못하게 막을 수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굳건함에 관한 이 가르침을 실천해야 하는 방식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위협에 관해 짚은 것도 받아들입시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 악덕을 책망하시고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좋은 일을 하신다면, 우리가 우리 범죄 속에서 고칠 수 없는 채로 머물지 말고, 저마다 자기를 낮추고 경계하며, 온 조심성을 다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놓으시는 저주를 앞질러 막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당신의 진노를 느끼게 하려 하시는 것도 그 목적 때문입니다. (말하건대) 그분이 그것을 우리에게 집행하실 수밖에 없게 되지 않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뜻을 품으시고 아무도 그분을 거기서 돌이킬 수 없다는 이 가르침의 참된 쓰임이 이것입니다.CO 359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셨고 선지자는 이 두

가지, 곧 하나님께 권능과 심판이 있다는 것을 들었다"(시 62:11–12[43])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 주께서 말씀을 되풀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께서 한마디 하셨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충분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십만 명의 증인이 있는 것과 같고, 우리가 한 번 들은 것을 주께서 끊임없이 다시 말씀하시고 되풀이하신 것과 같습니다. 우리 귀가 그렇게 두들겨 맞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는 너무 확실해서 음절 하나만 있어도 큰 책 한 권을 가진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확증하실 때 우리를 부르시며, 한 번 말씀하신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한 번 들은 것을 자주 다시 말씀하시며, 우리가 평생 그분의 선하심으로 가르침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넘치는 것입니까?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둔함에 그렇게 맞추어 내려오시는 우리 하나님의 무한한 선하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의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언하셨는데도 그 일이 확실할지 따지는 대담함을 가져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시편(12:6[44])에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새겨야 합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은 풀무에서 일곱 번 정련한 은과 같아서 찌꺼기도 군더더기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두 마음을 품거나, 자기가 한 말을 꾸며 바꾸거나, 그 말을 거두어들이거나, 거기서 빠져나갈 교묘한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죽을 사람들의 말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의 말씀은 잘 정련된 은과 같아서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말하건대) 신자들은 하나님의 입에서 듣는 모든 것에 이 서명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거기에는 온통 진리와 확실함밖에 없다고 우리에게 선언하는 대로 우리가 거기에 이 서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진리를 증언하는

43. 원문은 62:12–13. 프랑스어 성경의 시편 절수로, 한국어 성경으로는 11–12절입니다.
44. 원문은 12:7. 프랑스어 성경의 시편 절수로, 한국어 성경으로는 6절입니다.

데 우리의 인정을 받기를 원하실 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예를 깨달읍시다. 사람의 정신에는 거짓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영예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는 대로입니다(요 3:33).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참되시다고 서명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헛됨밖에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증인으로 세우시는 영예를 주시는 것을 보니, 우리는 그분에게서 들은 것을 온전한 순종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완전히 확신하도록 그만큼 더 불타올라야 합니다.

이어서 함께 "그분은 당신의CO 360 마음이 원하시는 것을 하신다"고 합니다. 이것도 잘 이해하면 아주 참된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보았듯이) 욥은 하나님께서 무질서한 권능을 쓰신다고 상상했고,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을 만큼 큰 격렬함으로 당신의 팔을 펼치려 하신다고밖에 판단할 수 없었으니 잘못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밝혔듯이) 욥이 자기 안에서 이 신성모독을 결론 내린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는 그렇게 지나쳤던 그의 첫 정념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신다는 이 가르침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 살펴봅시다. 먼저 하나님의 바라심이 어떤 것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이 어떤 죄악과도 어울리실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바라심은 의롭고 공평해야 합니다. 그러하니 모든 일에서 하나하나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를 배웁시다. 그리고 먼저 이 세상에서 일들이 뒤죽박죽인 것을 보고 모든 것이 마땅한 것과 다르게 되어야 할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께서 고삐를 쥐고 계시고 그분이 당신의 뜻 안에서 처리하지 않으신 일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하는 말을 바라봅시다. 우리는 그분이 하신 일을 자주 이상하게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눈이 하나님의 무한한 권능을 헤아리기에는 너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니,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이 우리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결론 내립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르게 일하셔야 할 것처럼 보이더라도, 우리 감각을 사로잡아 그런 종살이에 묶어 두어서, 하나님께서는 의와 올바름으로 재지 않고는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으신다고 늘 고백합시다. 그리고 그 사이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 구원을 처리하신다는 것도 새깁시다. 나는 지금 모든 사람을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번 신자들에게 당신을 나타내시고 그들을 특별히 당신의 자녀가 되도록 부르시며, 우리가 말했듯이 그들에게 당신의 마음을 펼치셨을 때 그들이 거둘 수 있는 위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자들은 불확실한 채 매달려 있거나 자기 구원이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손에 있는 맡겨 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누가 그것을 거기서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신자들은 자기 구원을 담대하게 자랑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29절)에서 말하는 대로입니다. “너희를 내게 주신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슨 목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구원이 우리에게도 피조물에게도 달려 있지 않고, 여기서 온갖 우연에 노출되어 있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당신 품에 지니고 계시고, 아무도 그분을 이길 수 없으니 우리가CO 361 결코 멸망하지 않으리라고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처리하시고, 우리 구원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것을 이루시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으로 그것에 대한 좋은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주 확실한 보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 안에 있어서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모든 좋은 것에 참여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지셨습니다. 그러니 이 가르침을 마땅히 실천할 때, 우리는 그것이 참되고 거룩할 뿐 아니라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이 유익하다는 것을 볼 것입니다.

이어서 그는 “하나님께서는 나에 관해 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고, 그분께는 그런 일이 많다“고 덧붙입니다. 여기서 욥은 어제 풀이한 말을 씁니다. 우리는 그 말이 두 가지를 뜻한다고 말했습니다. 곧 법과 규정과 처신의 방식, 질서나 일상, 그리고 사람의 양식 준비와 그의 양식입니다. 이제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 “일상“을 행하시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는 “그분이 내 일상을 행하실 것이다” 또는 “그분이 내 작정을 행하실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뜻은 두 가지이지만 이 구절의 정황이 뜻이 무엇인지 보여 줍니다. 곧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에 관해 정하신 것을 이루시리라는 뜻으로 말했습니다. 이것으로 그는 우리가 여기서 운수나 우연으로 이끌어지는 것이 아님을 나타냅니다. 그 까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될지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세상에 두셨을 때, 그것은 우리를 내버려 두듯 거기 던져 놓고 우리가 되는대로 걸어가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우리 삶과 우리 죽음이 어떻게 될지 정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인도 아래 걸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듯) 그분의 선하신 뜻 없이는 우리 머리털 하나도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읍시다(마 10:30 참조). 그분의 섭리가 참새들과 땅의 벌레들에게까지 미친다면, 그분이 훨씬 더 귀히 여기시는 우리, 실제로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시고 빚으신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니 이것이 우리가 잘 새겨야 할 항목입니다. 곧 우리는 저마다 자기 작정이 있다는 것,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두셨을 때 함께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지 정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우리 걸음을 이끄셔서 우리 생명이 우리 죽음과 마찬가지로 우리 손에 있지 않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이것저것을 꾀해 보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가는 대신 뒷걸음질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일들이 흔들리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고 더는 우리를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넋을 잃지 않기를 배웁시다. 그분이

이미 대비하셨고 앞으로도 대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신자들이 하나님의 섭리로 위로받아야 하는 방식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는 (흔히 말하듯) 처음 끓어오를 때CO 362 여기서 절망한 사람처럼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보라, 나는 끝났다는 것을 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나에 관해 당신 좋을 대로 정하셨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니, 내가 거기에 대들어 보았자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작정을 말하기 전에 그분의 의를 깨달아 그분께 속한 영광을 그분께 돌려야 합니다. 그러니 앞에서 말한 그 절대 권능을 하나님 안에 상상하지 맙시다. 그것은 그분을 폭군과 같게 만드는 것이고 가증스러운 신성모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처리하시면서 지극히 높은 규범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의와 올바름이 거기에 맞추어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읍시다.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의 영원한 선택에 맞서 다투는 그 허영에 찬 자들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는 이유를 보지 못하면 그것을 폭군 같은 것으로 상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신성모독입니까? 그런 사람들은 마귀 들린 것보다 더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가장 무지하면서도 하나님의 비밀을 캐물으려고 꾀합니다. 물론 그들은 대단한 학자인 척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순전한 짐승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의 이유를 자기들에게 보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그분이 당신의 섭리로 여기 아래의 모든 것을 이끄신다는 것도, 세상의 창조 전에 당신이 원하신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택하셨다는 것도 결코 그분께 인정해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광기를 조심합시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이 의롭고 선하다고 고백하면서, 그분의 일이 우리에게 자주 헤아릴 수 없으리라는 것,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그분의 뜻을 거슬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새깁시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십니까? 그것이 선하다고 결론 내립시다. "그렇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런지 이유를 보지 못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어떤 이유에 매이게 하려는 사람은 그분의 영광을 벗기는 것 말고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이치의 유일한 규범이요 모든 의의 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께서는 의롭고 공평하지 않은 것을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신다고 말하는 이 절제를 가집시다. 그 밖에 우리가 이 의와 올바름을 일반적으로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를 우리 구원과 결합시키고 하나로 묶으시는 좋은 일을 하신다는 것도 깨달읍시다. 그분은 당신의 권능도 거기에 결합시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말할 때 그것은 그분을 공경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평안하고 모든 시험을 거슬러 꺾이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무한한 만큼 그분은 우리를 잘 보존하시고 지키실 줄 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의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하니 하나님의 의와 우리 구원 사이에는 떼어 놓을 수 없는 끈 같은 것이 있으니, 이 끝에서 시작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모든 것을CO 363 이루신다"고 말하고, 또 "그분이 우리에 관해 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라고 말할 때, 그 모든 것에 지나친 것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놀라운 의와 지혜로 다스려진다는 것을 알게 합시다. 그 밖에 이 말을 짧고 쉽게 풀이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영원한 구원에 관해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는지 정하셨고, 그다음에 현재 삶에 관해서도 정하셨다는 것을 새깁시다. 첫째 작정에 관해서는,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택하셨습니다(엡 1:4 참조). 그분이 우리를 택하기를 기뻐하셨을 때 당신의 무한한 자비 말고 무엇을 바라보셨겠습니까? 우리는 아담의 부패한 덩어리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전 4:7에서 말하듯) 그분이 우리를 구별하셔서 우리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실 때 왜 우리를 다른 사람들보다 앞세우셨습니까? 우리는 멸망하고 정죄받아

마땅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멸망에서 건지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분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으로 부르시며 당신 나라의 상속자로 세우기를 기뻐하셨을 때, 우리가 이 작정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 방식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작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면 우리는 우리가 양자 된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니 저 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장부를 들춰보러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이 그것에 관해 우리에게 주신 증언으로 만족합시다. 장부의 진본 사본 하나만 얻을 수 있는 사람도 그것으로 만족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에 관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밝히셨을 때 (말하건대) 우리가 거기에 순순히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쉬어야 하는 방식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꿀 수 없는 작정을 하셨으니 우리 구원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 현재 삶의 작정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이끄시고 우리에게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없으며 그분이 모든 것을 대비하셔서, 그분이 정하신 대로가 아니면 우리가 가지도 오지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읍시다.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으니 잘 지내리라는 것을 압시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돌보시니, 마귀도 우리의 모든 원수도 우리를 이길 수 있으리라고 의심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대비하실 것이고, 우리를 거슬러 꾀해지는 모든 일에서 우리를 잘 지키실 줄 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를 위로해야 할 뿐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 직무를 행할 용기를 주어서, 저마다 자기 소명 안에서 걷게 하려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슬러 꾸며지는 모든 음모와 꾀함을 바로잡으시고, 사람들이 우리를 붙잡으려고 친 모든 그물을 찢으시리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돌보시고CO 364 저 위에서 여기 아래에서 일어나야 할 모든 것을 정하시는 것을 볼 때, 그것이 우리를 놀람으로 넋을 잃게 해야 할 선하심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개구리 같고, 선지자 이사야(40:22)가 말하듯 메뚜기입니다. 요컨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야 할 일을 처리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속담처럼) 짚더미 속의 쥐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볼 때 우리는 이렇게 잘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나의 구원자요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내 구원을 당신 손에 쥐고 계시니 내가 망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시리라는 것을 안다. 그분이 내게 그렇게 약속하셨으니 그것이 내게 완전히 확실해야 한다."

이어서 욥은 함께 그분께 그런 일이 많다고 덧붙입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덤비는 것인가? 온 세상이 그분을 거슬러 일어서도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나는 가련한 벌레다. 그러니 나는 물러서야 한다." 그런데 그가 자기가 견디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의의 영예와 찬양을 돌리기만 했다면, 그 점에서 그는 잘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정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마땅히 의롭고 공평하신 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쪽에서는 저마다 자기가 자기 하나님의 손과 인도 아래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온 세상도 마찬가지로 그렇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마귀가 하나님께 매여 있지 않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그가 얼마나 미친 듯이 우리를 거슬러 일어서는지 봅니다. 우리는 또 악인들의 분노가 어떠한지 보아서, 그들이 우리를 삼켜야 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삼키러 오는 크고 격렬한 폭풍과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보존하시려고 그들을 맡아 지키실 뿐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셔서 마귀가 무엇을 꾀하든 자기 계획을 이룰 수 없고 늘 이 하늘의 섭리가 그 위에 있다는 것을 새깁시다. 우리가 이 가르침을 실천해야 하는 방식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욥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고, 그것을 생각할수록 그분을 더 무서워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분이 내 마음을 약하게 하셨고 전능자께서 나를 놀라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 까닭은 무엇입

니까? 그는 "그분이 나를 어둠으로 끊으신 것이 아니고, 어둠을 내 앞에서 감추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구절을 "그분이 감추지 않으셨다"로 받아들이지만 그것은 정반대입니다. 요컨대 욥이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먼저 그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두려워한다고 말합니다. 그다음에 그 까닭을 덧붙이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당신의 무서운 위엄을 느끼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나는 내가 그분을 상대하고 있고 그분이 내 상대편이시라는 것을 안다. 나는 고난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을 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구절은CO 365 마땅히 적용할 수 있을 때 우리에게 아주 유익합니다. 먼저 욥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당신의 위엄을 느끼게 하시니 그분의 임재에 두려워한다고 말하는 데에는 까닭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찔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분의 위엄을 무서워하는 것은 아주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정하게 나타나시고 우리를 당신께 초대하시며, 말하자면 우리를 어린아이처럼 귀여워하실 때에도, 우리는 늘 두려움과 겸손 없이는 그분께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은 그분께 나아가고 싶어 할 것이고 실제로 나아갈 것이며,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이심을 알아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늘 그분을 공경하려고 두려움과 순종을 품을 것이라는 것을 잘 새깁시다. 그래서 시편 5편(7절[45])에서 "주님, 나는 주의 풍성한 선하심을 힘입어 주의 성전에 들어가고, 거기서 두려움으로 경배하겠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컨대 하나님의 위엄에 대한 이 두려움에 관해 여기서 새겨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우리는 욥처럼 그것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읍시다. 곧 우리가 완전히 겁에 질려서 하나님의 권능을 무서운 것으로 피하고 그분 앞에서 숨기만

45. 원문은 8절. 프랑스어 성경의 시편 절수로, 한국어 성경으로는 7절입니다.

바라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 두려움을 품은 뒤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납게 쫓아내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께 끌어당기려 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본성에 있는 주제넘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쓰러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는 그런 교만이 있어서, 우리 육이 길들여지고 꺾일 때까지는 결코 하나님께 그분께 속한 영예를 드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억지로입니다. 우리는 자원해서는 결코 겸손하고 절제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기서 폭력을 쓰셔서 우리 육에 속한 것을 죽이셔야 하고, 우리는 그분 아래 굽히도록 깨지고 부서진 것처럼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당신 쪽에서 우리 아버지이심을 밝히실 때 우리가 그분께 경의를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를 만큼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배한 뒤에는 그분의 풍성한 선하심을 힘입어 그분께 가까이 나아갑시다.

그런데 어떻든 욥이 여기서 하는 말은 아주 새겨 둘 만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고, 그를 핍박하시며 그를 놀라게 하셨기 때문에 그가 그런 두려움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욥은 자기가 늘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그런 시험의 공격을 받을 때 그런 두려움을 품게 되어CO 366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모르는 분처럼 되신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두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본성상 귀먹고 둔해서, (앞에서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지로 몰아붙이실 때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잘 꺾으실 때까지 살인자들처럼 태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이 더할 나위 없이 필요하다는 것을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고삐 풀린 말처럼 굴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께 어떤 복종을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모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분은 우리에게 보내시는 고난으로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한 가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신자들이 때로 하나님의 심판에 너무 놀라서 붙잡히고, 그것도 넋을 잃을 만큼 붙잡히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욥이 그랬듯이 얼마 동안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주 새겨 둘 만합니다. 마귀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두 극단을 쓰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게으름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칠게 당신께 끌어당기시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죄 속에 잠들어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서 그것을 얻었다면 그는 만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실 때, 그때 마귀는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간계를 앞질러 막아야 합니다. 그러니 욥이 그렇게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죽이시지 않는다면 그와 같은 일이, 그것도 훨씬 더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배웁시다.

그런데 그 사이에 사람들이 어떻게 이 두려움과 놀람으로 이끌리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경험은 그것이 늘 그런 것이 아님을 보여 줍니다. 그렇다는 증거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게 치실 때에도 이를 갈기를 그치지 않을 악한 자를 많이 볼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들에게 원수를 갚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때문에 그들이 고쳐지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누그러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안에는 전보다 더한 죄악과 악의가 있어서, 그들은 고집 센 짐승처럼 하나님께 대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고난이 늘 사람들을 길들이고 꺾을 수는 없고 그들이 재갈을 물고 하나님과 정반대로 간다는 것을 보면서, 그것으로 욥이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둠 속에서 끊지 않으셨으니 두려워했다고 말하는 데에는 까닭이 있다는 것을 배웁시다. 그는 여기서 “어둠 앞에서 “라고 쓰고, 심지어 글자 그대로는 “어둠의 방식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이 재앙이 내게 닥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끊지 않으셨다"로 잘못 풀이했습니다. 욥은 그렇게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이렇게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숨어서 끊듯 하신 것이 아니다. 내가 견디는 고난은 알려지지 않은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흔히 고통을 당하고CO 367 어떤 괴로움을 겪을 때 그것이 어느 쪽에서 오는지 모르는 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분이 어둠을 내 앞에서 감추셨다"고 덧붙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서 "그분이 감추지 않으셨다"고 말해서 본문을 망가뜨렸습니다. 반대로 "그분이 어둠을 감추셨다"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곧 "그분이 나를 당신 앞에 나서도록 몰아붙이신다"는 뜻입니다. 범죄자가 억지로 자기 재판관 앞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도망칠 수 있다면 기꺼이 빠져나갈 것이고, 심지어 어느 구석에 있게 되면 스스로 목을 베어 자기를 죽이고 스스로 자기 사형 집행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싫든 좋든 그는 나서서 자기 판결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 욥은 자기가 어떻게 다루어졌는지 보여 줍니다. 곧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숨어서가 아니다. 나는 '이것은 나쁜 운수다' 하고 말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내 상대편으로 나타나시고, 내가 셈해 드려야 할 분이 그분이시며, 그분이 내게 당신의 손을 보이셨다는 것을 느끼게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주 새겨 둘 만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으로 당신을 밝히실 때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 얼마나 적게 찔리는지 우리가 자주 보기 때문입니다.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이 그 증인입니다. 그보다 더 혹독한 하나님의 매가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이 모두 거기에 맞서 얼마나 굳어졌는지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이따금 하나님의 손을 알아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곧 지나가 버렸고, 그들은 스스로 눈이 부셨거나, 마귀가 그들을 너무 홀려 놓아서 자기들의 상대편이 모세와 아론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람들을 꽉 붙잡으실 때 그들에게 당신의 손을 느끼게 하신다는 것, 그리고CO 368 그들이 이를 갈아도

그분이 그들의 재판관이시고 그들을 꺾으실, 아니 그들을 깨뜨리고 완전히 짓누르실 만큼 권능 있으시다는 것을 그들이 알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보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분의 손에 고난을 당할 때, 모세도 말하듯(레 26:28) 우리가 그분과 무턱대고 맞서 걷지 않게 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오히려 우리를 징계하시는 분이 그분이시라는 것을 바라보도록 눈을 뜨고 있게 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손을 알아보지 못할 만큼 둔하고 멍해지지 않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선지자가 "그들은 자기를 치시는 손을 바라보지 않았다"(사 9:13[46])고 말할 때, 그것은 그 반역하는 백성이 하나님의 매에 얻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 주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힘씁시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려고 당신의 강한 손을 느끼게 하셨을 때 우리가 고칠 수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해 주시기를, 그리고 우리가 슬픔에 너무 삼켜져서 겁에 질려 그분을 피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오히려 그분이 우리를 당신께 끌어당기셔서, 무덤에 두시는 것이 그분의 직무이듯 거기서 끌어내실 수도 있다는 것을 신뢰하며 우리가 선지자와 함께 이렇게 말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주께서 셋째 날에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우리가 얼마 동안 죽어 있더라도 그분의 선하심으로 살아날 것이다"(호 6:1–2 참조). 그러니 상처를 내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거기서 고쳐 주실 지극히 높은 의사이심을 알고 늘 그분께 나아갑시다.

이제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엎드립시다.

46. 원문은 9:12. 히브리어 성경의 절수로, 한국어 성경으로는 13절입니다.

제91편

욥기 24장 설교 1

CO 34:368–380

AI로 옮긴 초벌 번역입니다. 신학 감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CO 권: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 어찌하여 때가 전능자에게서 감추어지지 않으며, 그분을 아는 자들이 그분의 날을 보지 못하는가? 사람들은 경계표를 옮기고, 가축 떼를 빼앗고 약탈하여 그것을 먹이네. 또 어떤 이들은 고아의 나귀를 끌어가고, 과부의 소를 볼모로 잡네. 그들은 가난한 자들을 길에서 밀어내어 그들이 숨게 하고, 온순한 자들은 땅에 몰려 있네. 그들은 들나귀처럼 아침에 광야로 먹이를 찾아 나가니, 광야가 그와 그 자식들에게 빵을 주네. 그들은 들에서 자기 수확을 거두고, 포도원에서 포도를 따니, 곧 악인들이 그렇게 하네. 그들은 헐벗은 사람을 벗겨서 그가 추위 속에 옷 없이 다니게 하네. 그들은 산에서 밤비에 젖고 바위를 잠자리로 끌어안네. 그들은 고아를 약탈하고 가난한 자에게서 볼모를 잡네. (욥 24:1–9)

CO 368 여기서 다루는 내용은 앞에서 다른 곳에서 이미 풀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이 가르침을 그토록 자주 우리 앞에 내놓으시는지 잘 살펴보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심판을 눈에 보이게 행하지 않으셔서, 사람들이 CO 369 그분이 선한 자들을 지키시려고 돌보시고 악한 자들의 원수가 되셔서 그들이 받아 마땅한 대로 벌하신다는 것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일들이 뒤죽박죽이기 때문입니다. 욥이 앞에서 이것을 길게 말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너무 큰 걸림돌이어서 우리가 그때마다 흔들린다는 것을 압니다.

가장 완전한 사람들도 그렇다는 말입니다. 악이 계속되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아무 처방도 내리지 않으시면 저마다 괴로워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참으실 수 있는지, 어떻게 그렇게 못 본 체하시는지, 그렇게 모든 것을 허락하실 때 마치 잠들어 계신 것처럼 보이는지 따지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기 담긴 이 가르침으로 굳게 세워져야 하고, 그것이 우리 기억에 자주 되살아나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일들이 어지러운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은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더라도 그것을 보게 해 주는 믿음의 밝음을 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목적은 이것입니다. 욥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얼마 동안 당신의 심판을 감추시고, 악인들에게 첫 번에 당신의 원수를 갚지 않으시며, 선한 자들을 건지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이 많은 불의를 견디도록 허락하신다는 것을 보여 주려 합니다.

그것을 증명하려고 그는 "어찌하여 때가 전능자에게서 감추어지지 않으며, 그분을 아는 자들이 그분의 날을 보지 못하는가?" 하고 말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엘리바스가, 하나님께서 세상의 재판장이셔서 그분이 당신을 섬기는 자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들을 눈여겨보시고 늘 그들에게 손을 내미시는지를 저마다 알아볼 수 있고, 반대로 악인들은 그분의 손에 벌을 받는다고 주장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것이 정반대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는 증거로, 모든 것이 강도질로 가득하고, 더 강한 자들이 폭력으로 이기며, 수고한 사람들이 자기 손으로 일한 것을 먹지 못하고 그들의 살림이 빼앗기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선한 자들이 그렇게 시달리고 고난을 당하는데 악인들은 용납되고 벌을 받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마치 이 세상일에 관심이 없으신 것처럼 그들을 기다려 주실 때, 그분이 못 본 체하시고 알맞은 때를 아실 때까지 재판장으로 나타나려 하지 않으신다는 것 말고 무엇이라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까닭을 캐물으려 하면 거기서 당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은 비밀스럽고 놀라우며 모든 사람의 감각을 넘어선다는 것, 우리가 여기서 우리 정신

안에서는 힘이 다하리라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상하게 보여도 그분이 의로우시다고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하나님의 비밀을 경배해야 한다는 것을 결론 내려야 합니다. 그 밖에 "어찌하여 때가 하나님에게서 감추어지지 않는가?"라는 이 첫 문장을 두고 많은 사람이 애를 썼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이 세상의 다스림에서 CO 370 배제하려 하여 신성모독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때"라는 말로 변화와 바뀜을 겪는 일들을 뜻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마치 욥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일반적으로는 잘 다스리시지만 모든 일에 관여하시지는 않아서 개별적인 일들을 하나하나 정하고 이끄시지는 않는다고 말하려 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연스러운 뜻과 거리가 멉니다. 우리는 본문 자체 말고 다른 데서 풀이나 주석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어찌하여 때가 감추어지지 않는가?"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욥은 이 말로 무엇을 뜻합니까? 그는 "어찌하여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그분의 날을 보지 못하는가?" 하고 덧붙여서 스스로 풀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시고 밝히시는 날들이 하나님의 날이라 불린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벌하지 않으시고 선한 자들을 건지지 않으시며 그들의 간구를 첫 번에 들어주지 않으실 때, 우리는 어둠 속에 있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숨으셔서 이 세상에서 물러나시고 모든 것을 내버려 두시려고 세상에서 떨어지신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섭리를 느끼게 하셔서 그분이 위아래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밤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어두운 때입니다. 밝음은 하나님의 얼굴에만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모든 선한 자의 아버지로 당신을 나타내시고 당신의 은혜로 그들을 보존하시며, 반대로 악인들을 그들이 받아 마땅한 대로 벌하실 때입니다. (말하건대) 우리를 비추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참된 날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가 그렇게 말합니다.

악인들에게 "너희가 주의 날을 기뻐하느냐? 그날은 너희에게 빛이 아니라 어둠으로 바뀔 것이고 두려움과 놀람으로 가득할 것이다"(암 5:18–20 참조) 하고 말할 때처럼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악인들은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임재는 그들을 삼키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이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모든 위협을 비웃으며 자기들의 악한 욕망을 좇는 까닭이,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났다고 여기는 것 말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당신을 밝히실 때 그들은 이를 갈면서도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의 날을 그분을 아는 자들이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곧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도우심과 그분이 약속하신 구원을 기다리는 선한 자들이, 그분이 자기들을 도우려 하신다는 것을 첫 번에 알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분을 찾지만 그 사이에 마치 그분을 불러도 아무 유익이 없었던 것처럼 거기서 판단을 보류한 채 머뭅니다. 그러니 선한 자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없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곧 그들은 하나님께서 진실하게 당신을 부르는 자들을 들으시려고 늘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며 밝히시듯, 그분이 자기들에게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경험으로 그렇게 빨리 느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CO 371 이 구절의 자연스러운 뜻을 얻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심판을 매 순간 집행하지 않으시고 미루시고 늦추시니 때가 하나님에게서 감추어져 있지 않다는 것, 그러나 그 사이에 우리는 그분의 날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혀 돌보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일 것이고, 얼마 동안은 그분이 우리에게서 떨어지시고 멀어지시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분의 섭리가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보시고 살피시며 눈을 가리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감각에 관련된 말입니다. 성경은 흔히 사람들의 무딤과 연약함에 맞추어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는 당신의 때가 있

고, 그때 그분은 당신이 일들을 보신다는 것을 보여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오늘부터 모든 것을 알아보지 않으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쪽에서 오늘 그분이 사람들을 돌보시고 저질러지는 악을 적어 두고 표시해 두시려고 눈을 뜨고 계셔서 그것을 바로잡으시리라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곧 우리 깨달음으로는 그렇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져 있으나 하나님께는 알려진 어떤 때가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심판을 늦추시고 첫 번에 집행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글자의 뜻은 이렇습니다.

이제 이 구절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을 거두도록 힘씁시다. 내가 이미 말했듯이, 세상에서 일들이 뒤죽박죽이고 하나님께서 더는 거기에 관여하지 않으시며 운수가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처럼 보일 때, 그것은 신자들에게 아주 나쁜 시험입니다. 그리고 마귀적인 속담들이 생긴 까닭이 이것입니다. 모든 것이 우연으로 굴러간다느니, 일들을 이끄는 것은 눈먼 힘이라느니,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공처럼 가지고 노신다느니, 이치도 분량도 없다느니, 아니면 모든 것이 어떤 비밀스러운 필연으로 다스려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각하시지도 않는다느니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판쳐 온 신성모독이 이런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미 말했듯이) 우리가 어지럽고 우리 판단과 이성을 넘어서는 일들을 판단하려 할 때 사람의 감각은 눈이 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그런 걸림돌을 거슬러 무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재판장으로 당신을 밝히지 않으시고, 오히려 저 하늘에 갇혀 계셔서 편히 지내시며 우리 일에 끼어들려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우리는 그분이 당신의 직무를 그치지 않으신다는 것을 결론 난 것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에게 비밀스럽고 알려지지 않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밖에 그분의 심판이 우리에게 놀랍더라도, 우리는 그분이 의로우시다고 고백하고 그분이 왜 그렇게 미루시는지 그 까닭을 보여 주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면서, 온 겸손

으로 그것을 경배하기를 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이상하게 보인다면, 앞에서 다룬 것을 기억합시다. 곧 우리 정신은 너무 비뚤어지고 CO 372 악해서 하나님의 일을 거꾸로 뒤집을 것이고 그것을 결코 우리 유익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잘못하자마자 그 죄대로 벌을 받고 선한 자들은 여기서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그런 질서를 지키신다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더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우리를 여기 아래에서 떼어 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롭고 완전하며 흠잡을 데 없는 형편을 주신다면, 믿음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고, 우리는 더는 죽지 않는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갖지 않을 것이며, 우리 생각으로는 부활도 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자기가 바라는 대로 느낄 수 있다면 여기 아래에서 잠들어 버리고 여기에 붙어 버릴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깨우려면 일들이 뒤죽박죽인 편이 훨씬 낫습니다. 우리가 평화 속에 있다면 잠들어 버려서 아무 감각도 아무것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들이 나쁘게 흘러가면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 감각을 위로 들어 올리며,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준비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묵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마지막 날과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부활을 기다리도록 이끄십니다. 그러나 그래도 사람들은 많은 거짓되고 악한 상상에 휘말리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내가 이미 말했듯이) 일들이 우리 바람대로 되지 않으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지 않으시고 더는 돌아보지 않으시며, 그분을 섬기는 것은 헛수고이고, 잘 살든 못 살든 다 마찬가지이며, 선한 자들이 그분 아래서 두려움으로 걸어도 아무 유익이 없다고 여기는 시험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심판을 사람들의 욕심과 감각과 생각이 이끄는 대로 맞추어 놓지 않으셨다고 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온갖 불경건으로 넘쳐흐릅니다. 그러하니 우리의 모든 육적인 지혜를 믿지 않을 뿐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에 원수라는 것을 알기를 배웁시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것에 고삐를 풀어 주어서는 안 되고, 여기 담긴 가르침을 잘 묵상해야 합니다. 곧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들에게 감추어져 있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넘어선다는 것, 우리 머리는 무한한 것을 담기에는 너무 작은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심판을 헤아릴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깊음이라고 부르는 까닭도 이것입니다(시 36:6; 롬 11:33 참조). 그러니 이것이 우리 기억에 떠올라서 우리를 고삐로 붙잡아 두어야 하고, 우리는 너무 앞서 나가지 않도록 삼가고 절제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CO 373 감추어진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 구절에서 좋고 유익한 가르침을 거두려면 우리가 이르러야 할 목적이 이것입니다.

이제 불의가 판치고 거기에 아무 처방이 없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새삼스럽게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도 새깁시다. 언제나 그래 왔기 때문입니다. 욥 시대의 형편과 오늘의 형편을 비교해 보면, 그때는 훨씬 더 많은 올곧음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나빠지고, 사람들이 온갖 악에 굳어지며, 부패가 점점 더 커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욥의 시대에 이미 여기서 하는 탄식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곧 부자들은 모든 것을 삼키는 깊은 구렁 같아서 고아들을 먹어 치우고 과부들을 약탈했으며, 그들 안에는 잔인함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이 수고하고 심지어 자기 집에서 기름을 짰어도 사람들이 와서 그들의 살림을 빼앗아 가기를 그치지 않았고, 포도를 거둔 뒤에도 그들은 목마르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포도주를 그들의 손에서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잔인함이 그 지경에 이르러서 가난한 사람들은 옷을 벗겨져 모두 헐벗은 채 다녀야 했고, 이불과 베개 대신 바위를 끌어안고, 비와 밤이슬과 바람과 추위 속에서 자야 했습니다. 그런데 욥의 시대에 이미 그런 잔인함이 있었다면, 세상이 온갖 악으로 넘쳐흐르고 우리가 모든 불의의 꼭대기에

이른 오늘, 잔인함이 많고 더 강한 자들이 폭력으로 이기며 더는 이치도 공평도 올바름도 없고 사람들이 들짐승 같다고 해서 놀랄 일이겠습니까? (말하건대) 정의가 훨씬 많던 때에도 그런 착취가 그 사이에 섞여 있기를 그치지 않았던 것을 보면, 이것이 우리에게 새삼스러워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깨닫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것이 헛되이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거기서 가르침을 받아서, 이런 불의가 이렇게 판칠 때 저마다 참고 모든 것을 평온하게 견딜 마음을 먹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일로 훈련하려 하시기 때문이고, 우리보다 앞서 산 사람들이 뒤따를 사람들에게 길을 보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말하건대) 우리가 이런 일에 대비하기를, 곧 참을성 있게 되기를 배웁시다. 우리는 악인들의 잔인함에 굳어져 그들을 닮아서는 안 되고, 늑대들 사이에서는 늑대처럼 울부짖어야 한다는 저주받을 속담을 실천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인내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우리 안에서 이렇게 결론 내리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많은 CO 374 착취와 폭력과 악의와 잔인함이 있도록 허락하셨으니, 오늘도 그와 같다면 우리는 머리를 숙여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악을 바로잡아 주실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하며, 그것이 첫 번에 이루어지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얼마 동안 못 본 체하시고, 일들이 그분의 얼굴에서 감추어져 있는 것처럼, 그분이 아무것도 셈하려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사이에 우리는 잠잠해야 합니다. 우리가 투덜거린다면,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세상을 정의로 다스리지 않으시는 것처럼 그분을 고발하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분 위에 서는 우월함을 가로채는 것 말고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너무도 가증스러운 신성모독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야 할 다른 점으로 옵시다. 곧 욥이 여기서 짚는 불의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뜻 보아 변명할 수 있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부자들이 고아들에게서 볼모를 잡고, 그들의 나귀를 끌어가며, 가난한 과부들의 소를 잡는다고 말할 때처럼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볼모를 잡는 것은 정당한 일이고, 어떤 제도에서든 그것은 허용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이 볼모를 잡도록 허락하셨을 때,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지나치게 짓눌리지 않고 그들의 살림이 빼앗기지 않는다는 조건이었다는 것을 새깁시다. 우리가 앞에서 밝혔듯이, 가난한 사람의 침대를 잡아서 그가 짚 위에서 잘 수밖에 없게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서는 벌을 받지 않을 잔인함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셈에 오르고 장부에 적힙니다. 이웃을 조금도 불쌍히 여기지 않은 자들이 자기들에게도 아무 자비 없이 심판이 집행되리라는 것을 알게 될 때까지 말입니다(약 2:13 참조).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아무 원수 갚음도 구하지 않을 때에도 그분은 그것을 하기를 그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이 모세를 통해 선언하시는 대로입니다. 곧 추위에 떠는 사람은 입을 다물고 있더라도 그의 옆구리가 부르짖으리라는 것입니다. 그가 모든 것을 견디더라도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잔인했던 자를 정죄하시는데 가난한 사람의 가련한 처지를 보십니다. 그러니 욥이 자기 시대에 저질러지던 잔인함들 가운데 특히 부자들이 고아와 과부에게서 볼모를, 그것도 그들이 먹고사는 데 꼭 필요한 볼모를 잡았다고 늘어놓는 데에는 까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하려고 나귀 한 마리를 가진 고아가 있다고 합시다. 그것을 빼앗긴다면 그것은 그의 입에서 빵을 빼앗는 것과 같습니다. 암소 한 마리를 가진 과부가 있다고 합시다. 그녀는 거기서 젖을 짜서 빵을 삽니다. 그런데 그것을 빼앗긴다면 그녀는 완전히 빼앗기고 헐벗은 채 남습니다. 그것이 사람들 앞에서 도둑질로 여겨지지 않고 벌을 받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셈에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쁜 것은,

CO 375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변명을 늘어놓아도 우리가 꼼짝없이 드러나고

우리 자신이 그것의 재판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에 비하면 어떻게 당신의 직무를 행하시겠습니까? 가난한 고아가 빵을 구걸할 지경에 이른 것을 보고, 사람들이 그의 살림을 벗겨 가는 것을 보며, 가난한 과부가 짓눌리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마음이 움직이고 찔려서 "이게 무슨 잔인함이냐?" 하고 말합니다. 죽을 사람이요 가련한 땅의 벌레인 우리도 악을 알아보면 그것을 정죄합니다. 그런데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이 머셨겠습니까? 그분이 눈을 감고 계시겠습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많은 핑계로 자기를 덮으려 애써도, 그들 마음에는 늘 그런 새김이 있어서 선과 악을 가를 수밖에 없고, 자기가 재판관 노릇을 했을 때 우리보다 훨씬 더 밝게 보시는 하늘의 재판장 앞에 나아가야 하리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경계표를 옮겼다고 여기서 말하는 것도 새겨야 합니다. 그것은 너무 어지러운 일입니다. 경계표는 유산을 구분하려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거래하려고 공적인 신용과 같은 돈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서로 거래할 돈이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물론 주조된 돈이 있기 전에도 사람들은 맞바꾸기로 서로 어떤 교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단순함은 오늘 없고, 우리가 보듯 이렇게 비뚤어진 시대에는 그것을 실천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주조되어 유통되고 통용되는 돈은 사람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게 하려는, 이른바 보증인이나 담보와 같습니다. 그다음에 밭과 소유지를 위한 경계표가 있습니다. 그것이 확실하고 한결같지 않으면 우리 사이에 더는 인정이 없을 것이고, 우리 삶은 들짐승과 맹수의 삶보다 더 어지러울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렇게 오래전부터 이미 경계표를 바꾸고 사람들 사이에서 거룩한 것이어야 할 것을 위조하는 이런 속임수와 악의가 있었다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내가 이미 말한 대로, 경계표가 범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면 모든 것이 먹잇감과 약탈물로 내던져지고 세상에는 강도질밖에 없으리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때부터 있었다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그런 걸림돌을 거슬러 굳게 서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이에 세월이 잘못하는 자들을 의롭게 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점을 새겨야 합니다. 어떤 일이 관습이 되고 오래 쓰여 왔으면 그것으로 방패를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묻겠습니다. 오늘 경계표를 뽑아내는 자들이 도둑보다 더 나쁘다는 것을 우리가 모릅니까? CO 376 우리에게는 그런 판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법도 성경도 없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에는 그런 거짓을 미워하는 것이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가 "보라, 사람들이 그렇게 써 왔고, 삼천 년도 더 전에 그렇게 실천했다"고 내세운다면, 그렇다고 오늘 경계표를 위조하는 자들이 오래전부터 그것을 차지해 왔다는 이유로 의롭게 되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보게 될 본보기들에 굳어지지 않기를 배웁시다.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들이 뒤따라서, 그들에게 모든 것이 허락된 것처럼 보이고 관습이 법처럼 되더라도, 거기에 잠들지 맙시다. 모든 올바름의 규범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렇다고 바뀌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한 번 세우신 것은 영원히 남아야 하고, 사람들의 모든 행위는 거기에 견주어져 거기에 맞추어져야 하며, 거기서 벗어나자마자 그것은 정죄받아야 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잘못과 불의가 관습이 될 때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 아주 흔한 일이니 나도 그것을 따를 수 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새깁시다. 결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늘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내가 말했듯이) 그분은 바뀌지 않을 규범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리저리 돌아서고 일들이 아주 어지러워 보여도, 하나님의 의는 늘 범할 수 없고 온전한 채로 남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인내로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걷고, 그분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이 올바름을 바라보기를 배웁시다.

이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갇히고 길에서 밀려났으며, 악인들은 활개를

쳐서 숨기는커녕 거리를 지배하고 길바닥을 제 것처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은 그때 본 것만큼, 아니 그보다 더 보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정의가 없다는 것을 볼 때, 불의를 억누를 책임을 맡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손에 칼과 정의의 지팡이를 쥔 사람들마저 자기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을 볼 때, 그 때문에 지나치게 걸려 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받습니다. 물론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바쳐져야 할 그 자리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더럽혀지는 것을 보고 탄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정의가 마땅히 다스리도록 허락하지 않으실 때 우리가 의롭게 벌을 받는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분의 다스림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죄가 저질러지는 것을 보고, 정의의 CO 377 어른들과 관원들이 거기에 손을 대지 않으며 마땅히 가져야 할 힘과 활기를 갖지 않은 것을 볼 때 탄식해야 합니다. (말하건대)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것을 알아봅시다. 그렇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모독을 받으니 그것이 우리를 찌르고 우리가 그것으로 슬퍼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결국 이렇게 결론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까지도 일들이 완전함에 이르게 하지 않으시니, 우리는 그분이 마지막 날에 재판장으로 나타나시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밖에 악인들이 그렇게 방자해져서 이 사람을 때리고 저 사람을 치고 많은 해와 폭력을 저질러도 아무 처방이 없고 늘 다시 시작하며, 선한 사람들은 집을 나설 때 입을 다물어야 하고 사람들이 그들을 비웃으니 갇힌 것처럼 거기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을 볼 때에도, 우리는 그런 걸림돌을 거슬러 무장해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을 볼 때 하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사람들이 미지근하다면 그분이 당신의 능력을 펼치시기를 기도합시다. 그러나 그분이 미루시고 일들이 우리 바람대로 되지 않는다면, 그분의 비밀스러운 심판을 경배합시다.

그러니 의인들이 갇히고, 길에 감히 나서지 못하며, 숨어야 하고 갇힌 사

람처럼 붙잡혀 있으리라는 것이 우리에게 묘사되는 까닭이 이것입니다. 그 사이에 이것이 악인들이 퍼져 나가는 방식이라는 것을 새깁시다. 곧 그들의 불의에 눈을 감아 주고 알맞은 때에 그들을 바로잡지 않으면, 그들은 그런 대담함을 얻어서 감히 거리 한가운데 나서서 거기서 개선 행진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런 본보기를 보지 않는다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선한 사람은 찔리고 조롱당하고 괴롭힘과 시달림을 받지 않고는 거리를 다니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누가 그를 덮치면 자기의 정당한 사정을 내세우기도 어렵습니다. 그 사이에 십 년 전에 교수대에 매달렸어야 할 불한당들은 무엇을 합니까? 오, 그들은 고개를 쳐들고 다닐 것입니다. 그것도 그런 대담함으로 다녀서,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뿐 아니라 사법 전체에 수치를 안길 것입니다. 사사로이든 공적으로든 사람들이 모여야 할 때, 불한당 하나가 거기 와서 창녀의 낯을 내밀 것이고, 사람들은 그것을 참아 주고 그가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들을 드러내 놓고 업신여기는 것을 견뎌 줍니다. 그러니 마땅히 있어야 할 징벌이 첫 번에 없으면, 악인들은 교만해져서 가난하고 순박한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온갖 불경건으로 넘쳐흐르며, 선한 사람들이 감옥에 있는 것처럼 숨어서 CO 378 더는 한마디도 하지 못하게 될 만큼 대담해진다는 것을 새겨야 합니다. (말하건대) 그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질서를 세우실 때까지 참고 기다립시다. 그렇지만 그 사이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공적인 자리에 세우신 사람들에게, 자기 직무를 부지런히 행하고 그 일에 힘을 다해서 여기서 보여 주는 것과 같은 그런 극단적인 무질서와 혼란에 대해 죄가 없게 하라는 경고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그들의 머리 위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들은 짐의 일부를 질 뿐 아니라 그 밑에 완전히 짓눌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우리가 새겨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악인들이 아침에 일어나 자기 일을 하러 간다고, 그것도 (욥이 말하기를) 가볍고 아주 날랜 짐승인 들나귀처럼 약탈하고 빼앗으러

간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는 악하고 비뚤어진 자들의 발이 피를 흘리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려고 빨리 달린다는 것을 나타냅니다(잠 1:16; 사 59:7 참조). 부지런함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덕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위해, 어떤 목적으로 지음을 받았는지 알아서 거기에 힘쓰고 자기의 모든 솜씨와 날램을 거기에 써야 합니다. 우리는 시편 104편(23절)에서 하나님의 질서에 관해 하는 말을 압니다. 곧 해가 뜰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팔을 부시는 것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비추셔서 저마다 자기 일과 자기 노동을 하러 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그분은 우리를 게으르고 쓸모없게 지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이웃을 섬기려고 어떤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을 보여 주십니다. 그러니 해는 우리가 우리 의무에 속한 일을 부지런히 하도록 재촉하는 하나님의 독촉관과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흔히 부지런함은 넉넉해서 기꺼이 힘을 쓰려 하고 아침에 꽤 일찍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려고 그렇습니까? 술에 취하고 먹고 마시며 온갖 무절제로 넘쳐흐르려고 그렇습니다. 선지자 이사야(5:11)가 말하듯, 그들의 방탕을 하기에는 하루가 충분히 길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 너무 지쳐서 더는 견딜 수 없을 때 그들은 완전히 짐승처럼 됩니다. 그들은 낮에 자고 밤에 깨어 있어서 본성의 질서가 그들 때문에 완전히 뒤집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들도 아침에 일어납니다. 무엇을 하려고 그렇습니까? 이웃에게 어떤 배신과 비열한 짓을 하려고, 이 사람을 속이고 저 사람을 꾀어 넘기려고 그렇습니다. 어떤 이들은 음행하러 가고, 어떤 이들은 악한 거래를 하러 갑니다. 그러니 대부분의 사람이 자기 부지런함을 쓰는 데가 이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 주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힘써야 하는지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해가 뜰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비추셔서 우리가 손을 놀릴 수 있게, 곧 CO 379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쓰려 하시는 곳에서 일할 수 있게 하시니 그분께 감사하기를 배웁시다.

그 밖에 늘 이 목적을 가집시다. 곧 우리가 무엇으로 부름을 받았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인정하시는지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의 밝음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지런함을 남용해서 그것을 이웃을 해치거나 누구에게 해와 손해를 끼치는 데 쓰지 않도록 잘 조심합시다. 오히려 도둑과 음행하는 자와 술주정뱅이가 그렇게 악에 부지런한 것을 볼 때, 우리 자신을 꾸짖기를 배웁시다. "뭐라고? 이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부지런한 사람이다. 그런데 무엇을 하려고 그런가? 스스로를 죽이러 가려고 그런다." 사람이 술 취함과 폭식에 빠져 있으면 그는 죽기도 전에 이미 자기를 무덤에 넣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술주정뱅이들이 송장 같아서 반쯤 썩어 있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좋은 피조물을 남용하는 그 훌륭한 부지런함에서 얻는 품삯입니다. 다른 이들은 음행하러 가고, 또 다른 이들은 약탈과 강도질을 하러 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익을 본다고 생각해도 그들은 자기 멸망에만 부지런한 것입니다. 그들이 실컷 애를 쓰고 나서 한 일이라고는 나무 더미 같은 것을 쌓은 것뿐이고,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거기 붙어서 결국 모든 것을 살라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들과 악인들이 이렇게 악을 행하는 데 부지런한 것을 볼 때, 묻겠습니다, 우리가 팔이 부러진 것처럼 게으름뱅이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큰 수치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들이 우리가 그렇게 쓸모없었다는 것의 증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CO 380 구절에서 새겨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곧 우리는 부지런하라는 경고를 받는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려 하시는 곳에 이 부지런함을 쓰도록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분의 선하신 뜻을 바라봅시다. 그것은 우리가 이웃을 돕기 위해 서로 나누는 것이고, 저마다 자기에게 모자란 것이 있는 사람들을 도울 어떤 능력과 수단이 있는지 살피는 것입니다. 우리 부지런함은 그런 것이어야 합니다. 그 밖에 하나님께서 이제 낮에도 밤에도 우리를 비추시니 빛의 자녀처럼

걸읍시다(엡 5:8 참조). 밤에는 그분을 부르고 그분께 탄식합시다. 그리고 낮에 그분이 우리에게 당신의 해를 보내셔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 직무가 무엇인지 볼 때 그 일에 신실하게 힘씁시다. 그리고 적어도 이렇게 악에 빠져 있는 자들만큼은 서둘러서 그들이 우리 게으름의 증인이 되지 않게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첫 번에 벌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더라도,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무서운 원수 갚음이 그들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완전히 확정된 것으로 붙듭시다. 그렇다고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기를 그치지 맙시다. 우리 믿음은 지금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넘어서서 감추어진 것을 바라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제 형편과 완전함으로 되돌려 놓으실 때까지, 그것은 마지막 날에야 있을 것인데, 그때까지 이 세상에서 보이는 혼란에서도 우리가 유익을 얻어야 하는 방식이 이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엎드립시다.

제92편

욥기 24장 설교 2

CO 34:380–392

AI로 옮긴 초벌 번역입니다. 신학 감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CO 권: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 그들은 헐벗은 사람을 옷 없이 다니게 하고, 굶주린 자에게서 이삭을 빼앗네. 자기 담장 안에서 기름을 짜고 포도즙 틀을 밟는 자들이 목마르네. 성읍에서 사람들이 부르짖고 상한 자들의 영혼이 호소하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막으심을 두지 않으시네. 그들은 모든 빛을 미워하는 자들 가운데 있어서 빛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 길에 머물지 않네. 살인자는 아침에 일어나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과 같네.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녁을 기다리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네. 그는 낮에 표시해 둔 집들을 밤에 뚫고, 빛과 어울리지 않네. 아침 빛이 그에게는 죽음의 그림자 같으니, 누가 그들을 알아보면 그들은 죽음의 그림자의 두려움에 빠지네. 그들은 물 위에서 가볍고, 그들의 몫은 땅에서 저주를 받으며, 그들은 포도원의 열매를 보지 못하네. (욥 24:10–18)

CO 380 욥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바로잡지도 대비하지도 않으시는 가운데 온 세상에서 볼 수 있는 형편을 계속 보여 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CO 381 하나님의 심판이 늘 보이는 것이 아니고 첫 번에 알아볼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손을 펴실 때까지 참고 잠잠히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 주려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렇게 하실 알맞은 때를 아시고, 그때를 정하는 것은 우리 몫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제 욥은 세상이 약탈로 가득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온통 헐벗은 채 다니고, 이삭을 주운 사람들이 빵 한 조각 먹을 것이 없으며, 그들이 부자들 뒤에서 겨우 주운 것마저 빼앗긴다고

내세웁니다. 이것으로 그는 가진 것이 있는 자들이 자기의 세력과 재산을 남용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완전히 집어삼킨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것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재판장이시면서 거기에 대비하지 않으십니다. 언뜻 보면 이것이 우리를 흔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듯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기들 욕심대로 일하지 않으시면 그분이 잠들어 계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우리 안에서 완전히 확정해 두어야 하고, 오래전부터 그것을 미리 내다보아서 그 일이 일어날 때 흔들리거나 걸려 넘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언제나 그래 왔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재판장이시기를 그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분의 날을 그렇게 빨리 보지 못하니 때가 감추어진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물론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그분은 숨으십니다. 곧 고난받는 사람들을 도우시려고 그들을 돌보려 하신다는 것을 보여 주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얼마 동안 그들의 인내를 시험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한 뒤 그는, 수고한 사람들, 심지어 가진 것이 있는 사람들도 자기 재산을 누릴 수 없으리라고 덧붙입니다. 그는 자기 담장 안에서 기름을 짠 사람, 포도주를 밟은 사람도 목마르기를 그치지 않으리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것은 흔히 하나님의 어떤 의로운 벌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보듯 율법에도 그 위협이 들어 있습니다. “너는 나무를 심어도 그 열매를 먹지 못할 것이고, 땅을 갈고 밀을 뿌려도 거두지 못할 것이며, 포도원에서 수고해도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다“(신 28:30, 38–39 참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에서 일들을 뒤죽박죽인 채로 내버려 두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이 주신 재물을 잘 쓰지 않은 자들을 벌하시겠다고 위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 쪽에서는, 어떤 이들은 약탈하고 빼앗고 다른 이들은 자기 살림을 빼앗길 때 하나님께서 왜 못 본 체하시는지 늘 눈으로 짚어 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 까닭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낮추셔서 우리가 그분이 의로우시다고 고백하는 영예를 그분께 드리게 하시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눈이 부신 것처럼 되어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간할 수 없을 때에도 말입니다. 그리고 욥이 여기서 겨냥한 것이 이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수고한 사람들이 CO 382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죽어 가는 것을 보는데, 그 사이에 다른 이들은 그들의 살림을 빼앗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처방을 내리실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지고 우리 감각으로 헤아릴 수 있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시며, 그것은 사람의 정신을 넘어서는 놀라운 뜻이어서 우리가 거기서 눈먼 사람 같다고 결론 내려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우리 이성으로 재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그러면 우리는 깊은 구렁에 들어갈 것입니다). 오히려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그리고 그분이 일들을 온전히 드러내 주실 때까지 모르는 가운데 걷는 이 삼감과 절제를 우리가 갖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우리는 우리 분량 안에 머물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삐 풀린 말처럼 굴려 한다면 우리에게는 길도 오솔길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욥의 의도는 하나님의 심판이 사람들의 재량에 맞추어져 있지 않고 우리에게 비밀스럽고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읍에서 사람들이 부르짖고, 상한 자들, 곧 죽어 가는 자들의 영혼이 호소하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막으심을 두지 않으신다고, 또는 하나님께서 이치에 어긋난 일을 하지 않으신다고 덧붙입니다. 이 말은 이 두 가지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아들이지 않으신다고 풀이합니다. 그리고 이 두 낱말은 얼마간 닮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도"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려면 "테필라"여야 하는데 여기에는 "티플라"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

론 모음 부호가 그것을 허락한다면 그 풀이가 더 알맞고 어울릴 것이라는 점은 나도 인정합니다. 여기서 부르짖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부르짖는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부당하게 괴롭힘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간구를 돌아보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기에 막으심을 두지 않으신다는 이 번역도 아주 알맞습니다. 대부분은 이것을 다른 뜻, 곧 하나님께서 이치에 어긋난 일을 하지 않으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지만 말입니다. 실제로 이 낱말은 성경 거의 어디서나 그런 뜻으로 쓰입니다. 곧 잘 정돈되지 않은 것, 근거가 없는 것, 그 안에 참됨이 없는 것, 또는 심지어 부끄럽고 정죄받아야 할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 그런 뜻이 성경에서 더 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의 정황을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욥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이치와 공평에 근거해 있다는 것을 다루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는 그렇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가 펼치는 논쟁은 다른 목적을 향합니다. 곧 우리가 세상의 형편을 볼 때 당황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우리 손에 있다면 일들을 완전히 다르게 처리하려 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보는 이 뜻과 다스림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CO 383 우리 생각대로 처신하지 않으시고, 심지어 사람들이 살펴보고 "보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당신의 심판을 행하지도 않으신다는 것을 간직해야 합니다.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은 흔히 숨어 계신 것 같을 것입니다. (말하건대) 욥의 의도가 이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구절을 이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곧 성읍에서 사람들이 부르짖고, 괴롭힘과 짓눌림을 당하는 자들의 영혼이 호소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이 집행되는 것을 막지 않으신다는 것, 곧 일들이 무질서하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얼마 동안은 그렇습니다. 그분이 못 본 체하신다고 해서 (앞에서 다루었듯이) 잠들어 계신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판단을 보류해야 하고, 사람들이 잘못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고 그분의 정의가 우리에게 드러나 보이리라는 일반 규칙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 반대를 봅니다. 욥이 특히 성읍에서 사람들이 부르짖는다고 말할 때 그렇습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알려지지 않은 잘못들은 말하지 않겠다(몰래 많은 속임수와 폭력이 저질러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주 널리 알려진 불의들이 보인다. 그것이 온 성읍에 알려지고, 거리가 그것으로 가득하며, 저마다 그것을 말할 줄 알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고난받는 사람들이 부르짖어서 저질러진 불의에 대한 증인이 많다. 보라, 그 궁핍이 너무 극심해서 지금 그들을 돕지 않으면 결코 도울 때가 없으리라는 것이 보인다. 그들은 말하자면 정신이 다할 지경에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도우려 하시는 기색도 보이지 않으신다. 그들이 헛되이 부르짖은 것 같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피한 것이 헛수고인 것 같다." 그것을 볼 때 무엇이라 말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방식대로 일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감각이 거기서 눈이 부신 것처럼 될 수밖에 없다는 것 말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에게 헤아릴 수 없는 이 지혜를 경배하기를 배웁시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시다. "주님, 우리 육과 본성이 주를 거슬러 투덜거리도록 우리를 부추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주를 우리 욕심에 맞추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의 때가 올 때까지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주께서는 유익하고 알맞다고 아시는 대로 일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은 새겨 둘 만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성급한지 보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 누가 손가락으로 우리를 건드리기만 해도 우리는 너무 언짢아서 하나님을 부를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숨 한 번 쉬었을 뿐인데 그분에게서 곧 도움을 받지 못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큰 잘못을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그런 끓어오름이 있고 우리

정념이 그렇게 지나치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가르침을 그만큼 더 잘 새겨야 합니다. 곧 성읍에서 사람들이, 그것도 이미 죽음으로 정해진 것 같은 사람들이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렇게 탄식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막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이상해 보인다면, CO 384 먼저 우리 주님께서 이웃을 불쌍히 여기지 않은 자들에게, 그들이 부르짖어도 응답받지 못하리라고 위협하셨다는 것을 알아봅시다(잠 21:13 참조).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너희에게 자비를 구했다. 그러나 그들이 너희에게서 어떤 은혜를 얻으려고 왔을 때 너희는 그들에게 잔인했고, 그들의 모든 간구에 귀를 막았다. 너희가 부르짖을 때가 올 것인데, 그때 너희 말을 들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그런 위협을 들을 때 우리는 부르짖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잔인하게 굴지 않았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셔서 그들이 거기서 신음하고 탄식하며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니 부르짖음이 하늘까지 올라가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끝까지 괴롭힘을 당한다고 여기서 우리에게 말할 때, 그들이 그렇게 다루어질 만하지 않은지 좀 살펴봅시다. 그리고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의로운 재판장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밖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견디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우리를 벌하시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면(호소하고 그렇게 짓눌리는 사람들이 늘 온유하고 인정이 있었고, 그런 벌을 받을 만한, 곧 알려진 해나 불의를 이웃에게 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그 까닭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지 않으시니 그분의 놀라운 비밀을 경배합시다. (말하건대) 우리가 이 구절을 실천해야 하는 방식이 이것입니다.

그러하니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그분이 우리를 도우려 하신다는 것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그분이 우리를 잊으셨다고 여기지 말고 낙심하지 맙시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의 섭리는 우리의 모든 감각을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앞에 무덤이 보이고, 우리가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우리 비참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구했는데, 그때 그분이 하늘에 갇혀 계신 것 같고 우리에게 어떤 덜어 줌을 주시려는 그분의 손을 알아보지 못할 때에도, 잠잠히 있기를 배워야 합니다. 늘 그분께 구하기를 그치지 맙시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소망에서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여기서 모든 사람의 감각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본을 따라 우리가 소망을 넘어 소망해야 한다고 말하는 까닭도 이것입니다(롬 4:18). 그리고 이 구절에서도 우리는 같은 것을 새겨야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지혜로우려 하는 동안에는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쉬거나, 그분의 선하심이나 그들에게 약속된 구원에 기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을 훈련하시려고 우리가 백 가지 죽음에 둘러싸이게 하시고, 심지어 깊은 구렁에 삼켜진 것처럼 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CO 385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다리는 우리 구원을 우리 감각과 사람의 이성에 따라 판단하지 않기를 배웁시다(그 잣대는 너무 작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소망에 반하여 소망하라는 사도 바울의 이 구절을 실천합시다. 우리가 한 치 앞도 보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십니다. 빠져나갈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아내실 것입니다. 보기에 죽음이 이미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처방을 내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어떤 방식일지 알지 못하더라도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우리 몫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이 사람들이 헤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넘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놀람에 사로잡힌 것처럼 될 수밖에 없으리라는 이 영예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교회의 구원에 관해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곧 신자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어떻게 건지셨는지 생각할 때 그것을 꿈처럼 여긴다는 것입니다(시 126:1 참조). 그 일은 본성의 질서를 따르지 않으니 사람의 이성으로는 헤아릴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하건대)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기대려고, 그리고 그분이 당신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소망을 기르려고 이렇게 잠잠히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부르짖는데 그분이 우리 말을 들어 주시는 기색을 보이지 않으실 때에도, 늘 우리 간구를 이어 가기를 그치지 말고 모든 소망을 넘어서, 곧 우리가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넘어서 소망합시다. 이 구절에 관해서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빛을 피하고 숨는다고 합니다. 늘 밤의 어둠을 찾는 도둑이 낮이 오면 그것을 죽음의 그림자처럼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간음하는 자와 음행하는 자는 저녁이 오기를 엿보아 자기 매음굴에 들어갑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이렇게 악을 행하면서 빛을 미워합니다. 그런데 욥은 무슨 목적으로 이것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엘리바스가 말한 대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 주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의도는 (우리가 보았듯이) 일들이 여기 아래에서 너무 잘 정돈되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끄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는 그것을 잘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타고난 감각으로가 아닐 것입니다. 여기서는 우리 믿음이 다스려야 하고, 우리는 현재의 보이는 것들보다 더 멀리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니 욥은 여기서 무엇을 말합니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사람들은 죄를 지을 때 스스로를 정죄한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눈에 보이게 정죄받지 않는다.” 곧 하나님께서는 첫 번에 그들에게 원수를 갚지 않으시고 그들을 거기서 평안히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스스로를 고발하고 말하자면 자기 형사 재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정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아끼십니다.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심판을 남겨 두시고, CO 386 이 세상에서 일들이 어느 정도 뒤죽박죽이도록 허락하셔서 우리가 위로 그분께 끌려가게 하시며, 지금은 우리가 많은 싸움과 시험으로 훈련

받아야 할 때(그것은 어지러운 때입니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를 들어 올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이 소망을 갖는 것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우리 감각대로 걷지 말고 지금 볼 수 있는 것에 머물러 있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것 말고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모든 이치와 올바름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욥이 겨냥한 것이 이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하는 말을 잘 새깁시다. 곧 악을 행하려는 자들은 밤의 어둠을 찾고, 날이 밝아 오는 것을 보면 괴로워하며, 그것이 그들에게 죽음의 그림자 같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때로 그런 뻔뻔함에 이르러서 한낮에도 악을 행하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 에스겔 16:25에서 말하듯) 그들은 다리를 벌리는 창녀들과 같아서 더는 수치도 선악의 분별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듯(엡 4:19) 그들은 더는 감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말하듯, 그들이 깊은 데(곧 하나님과 모든 공평을 업신여기는 데)에 이르면 짐승처럼 되어 더는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합니다(잠 18:3 참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여전히 어떤 흔적을 남겨 두셔서, 그들이 이를 갈면서도 자기 죄 가운데서 스스로를 정죄할 수밖에 없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성경이 없고, 율법도 제도도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여기서 우리에게 하는 말만 바라봅시다. 곧 사람이 악을 행하려 하면 숨을 어떤 방법을 찾으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다면 악은 악이고 정죄받아야 한다고 잘 결론 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음행, 자기의 도둑질, 자기의 술 취함, 자기의 방탕과 그와 비슷한 것들을 즐기려는 사람에게 사람들의 눈을 피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그는 심지어 불의를 자랑하고 그것을 덕으로 삼으려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숨습니다. 누가 그를 그렇게 하도록 강요합니까? 누가 "사람이 혼자이고 그의 악에 맞장구쳐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그렇다"고 말한다면, 그러나 온 세상이 불의로 가득합니다. 사람들이 아주 흔히 함께 공모하고,

어떤 악덕에 빠진 자들은 다른 사람들도 자기처럼 하는 것 말고는 바라지 않는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 서로에게서 숨어서, 자기들의 더러움이 결코 알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 점에서 악인들은 본성 안에도 없앨 수 없는 법이 있고, 선과 악 사이에 분별이 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볼 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CO 387 재판장이시라고 결론 내려야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자기 죄를 부끄러워하고 가책을 느끼는 그런 감각을 새겨 넣은 이가 누구입니까? 그들은 그것을 자원해서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햇빛을 피합니다.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의 빛을 피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스스로 짐승처럼 되어 자기 양심을 잠재우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더는 감각이 없기를 바라는지 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습니까? 그래도 그들은 이를 갈면서도 자기 안으로 들어가야 하고, 이 고삐에 붙잡혀서 자기 양심 속에서 "내가 죄를 지었다. 나는 내 잘못을 변명할 수 없을 것이다" 하고 말해야 합니다.

그러니 그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결론 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그분에게서 오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죄로 상처를 입고 어떤 뉘우침을 갖는 그런 헤아림을 결코 스스로 갖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억지로 거기에 몰아넣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양심을 몰아붙이시고 지지셔서 거기에 타는 불 같은 것이 있게 하신다면, 그분이 언젠가 사람들을 당신 앞에 부르시지 않을 것이고, 모든 것이 셈에 올라 장부가 펼쳐지지 않을 것이며(다니엘 7:10에서 말하듯), 지금 어둠 속에 묻혀 있는 것이 드러나지 않으리라고(사도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말하듯, 고전 4:5[47]) 우리가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 악인들이 갖는 이 부끄러움밖에 없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아주 확실하고 틀림없는 증거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양심

47. 원문에는 "고전 4:6"으로 되어 있습니다. 숨은 것을 드러내신다는 말씀은 5절이므로 바로잡았습니다.

보다 크시다는 사도 요한의 말로 돌아가야 합니다(요일 3:20). 사도 요한은 저마다 자기 안으로 들어가면 자기를 고발할 다른 증인이나 상대편이 필요 없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 악을 느껴 그것으로 충분히 확신하게 되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들이여, 우리가 우리 죄를, 그것도 억지로 몰려서 알아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떠시겠습니까? 우리가 밝히 보는데 그분은 눈이 머셨다고 생각합니까? 그분은 우리 양심이 가질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권위를 가지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사람이 한 가지 죄로 자기를 정죄한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백 번 정죄받아 마땅하다고 결론 내려야 합니다. 그가 자기 악 가운데서 놀라고 겁에 질린다면, 우리가 우리 죄 가운데 머물고 고집을 부린다면 우리에게 준비된 하나님의 무서운 원수 갚음을 그가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가장 필요하면서도 가장 실천되지 않는 가르침 가운데 하나입니다. (내가 이미 말했듯이) 사람들 안에 이성이 한 방울이라도 있다면, 그들이 자기 죄에 대해 갖는 이 가책과 부끄러움밖에 없다 하더라도 그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으리라는 것을 확신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기를 고집하는 사람을 볼 때마다, 또는 CO 388 우리가 우리 죄를 느낄 때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심판에 소환하시고 그것을 생각하도록 몰아붙이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 년에 한 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셀 수 없는 심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서 잘못하면 곧바로 가책이 오고 우리를 찌르는 그 아픔이 옵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달관을 보내셔서 "내 앞에 와야 한다. 나는 너희 재판장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잘못한 사람들 가운데 자기 죄를 덮으려고 애쓰고 그 일에 교묘한 사람을 많이 볼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가 정죄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누가 그것을 돌아봅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런

경고를 거슬러 어떤 악의로 굳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사탄에게 단단히 홀렸다고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경고 말고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 잘못이 무엇인지 보여 주시고, 그것을 느끼게 하시며, 우리를 당신께 끌어당기십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는 늘 우리 더러움 속에 웅크리고 감각이 없는 사람처럼 있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것으로 이 가르침이 아주 잘못 실천된다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것이 헛되이 기록된 것은 아니고, (이미 말했듯이) 그 자체로 아주 새겨 둘 만합니다. 곧 사람들이 자기 악 가운데서 변명하고 자기를 의롭다 하려 애써도 끝내 그렇게 할 수 없으니, 우리 저마다 깨어나야 하고, 일을 꾸며 감추어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비난을 피하는 데에만 소용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밤에 몰래 음행했거나, 도둑질했거나, 이웃을 꾀어 넘겼거나, 어떤 배신을 하려고 문을 닫아걸었다면, 그의 추악함이 모두에게 알려지지 않으니 그가 사람들에게 정죄받지 않으리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 밖에 사도가 우리에게 일깨우는 것을 잘 새깁시다(히 4:12). 곧 하나님의 말씀은 양쪽에 날이 선 칼과 같은 능력이 있어서 뼈와 골수를 찔러야 하고, 그분께 감추어진 것은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파되도록 정하실 때 우리 생각과 우리 애정 속에서 우리를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도 덧붙입시다(살전 5:5). 곧 우리를 비추는 복음이 있으니 우리는 더는 밤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죄가 묻혀서 기억에 떠오르지 않으면 큰 것을 얻었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르침으로 우리를 비추셔서 우리는 밤에도 낮을 가집니다. CO 389 해가 더는 낮에 교회를 비추지 않고 달도 밤에 비추지 않으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는 빛이

되시리라고 말하는 대로입니다(사 60:19 참조). 물론 이 본성의 질서는 늘 제 형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사람이 자러 가서 자기 방을 잘 닫아걸고, 그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하는지 아무도 모를 만큼 숨어 있다 해도, 그에게는 늘 자기를 비추는 이 복음의 가르침이 있고,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이 앎을 끌 수 없습니다. 실제로 업신여기는 자들과 속된 자들이 그렇게 하려고 애써도(우리가 보듯 오늘 모든 경건(religion)을 없애 버리기만을 바라는 미친 짐승 같은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이 타오르는 등불을 그들 앞에 두셔서 그들이 거기서 자기 정죄를 알아보게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 복음의 가르침을 주셨고 우리가 이 빛을 끌 수 없으니, 우리 자신을 생각합시다. 그리고 도둑과 음행하는 자와 다른 악행자들이 숨을 곳을 찾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그분 앞에 있으며 그분이 거기서 얼굴을 맞대듯 당신을 나타내셔서 우리 아버지나 우리 재판장이 되시니 우리가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 준다는 것을 알아봅시다. 그러니 우리의 온 삶을 그분께 바치기를 배웁시다. 그리고 자기 악행을 덮으려는 자들이 빛을 죽음의 그림자처럼 피하고 밤이 오면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만, 그와 달리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빛을 써서 길 한가운데서 헤매거나 벗어나지 않도록 합시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당신께 끌어당기시려고 손을 내미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복음으로 우리 죄와 우리 안에 있는 비참을 알게 하셨을 때 우리가 그분이 주신 은혜를 유익하게 써야 하는 방식이 이것입니다. 그 밖에 악인들이 낮의 빛을 미워하고, 늘 마음대로 악을 행할 수 있도록 해가 하늘에서 뽑혀 나가기를 바라는 것처럼, 그들은 복음의 빛을 더욱 피한다는 것을 새깁시다. 그리고 이 가르침이 세상에서 그렇게 잘못 받아들여지는 까닭도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대로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반역하는지, 특

히 그분이 당신의 아들을 우리 구속자로 보내시고, 우리 죄 사함이 우리 앞에 내놓아지며, 하나님께서 더할 나위 없이 큰 부드러움과 너그러움으로 우리를 청하실 때에도 그런지 놀랍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물리칠 만큼 그렇게 고집 셀 수가 어떻게 있는가? 그것은 너무도 엄청난 배은망덕이 아닌가?" 그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러나 복음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까닭이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악을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한다"(요 3:20) 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CO 390 대부분의 사람이 온갖 악에 빠져 있고, 심지어 자기 고집이 드러난 자들도 굳어지기를 그치지 않으며, 알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려고 눈을 감으려 합니다. 그러니 그렇다면, 그 위에 사람들이 복음을 맛보려 하지 않고 거기에 입을 대려 하지 않으며 오히려 미친 사람처럼 군다는 것이 보일 때, 그것을 놀라워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을 이상하게 여겨야 하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도둑과 살인자와 음행하는 자와 다른 모든 악행자가 해를 눈멀게 해서 그것이 더는 세상을 비추지 않기를 몹시 바란다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여 주었듯이) 복음의 빛은 훨씬 더 큽니다. 그것은 우리 눈을 인도해서 겉으로 길을 보여 주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의 숨은 생각에까지 들어가서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 감추어진 것을 살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악인들이 이 가르침에 오려 하지 않고 어떤 식으로든 거기에 따르려 하지 않는 까닭이 이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 쪽에서는, 우리가 말했듯이 정반대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하니 본성의 질서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해를 비추실 때 그것이 저마다 선에 힘쓰고 자기 의무에 몸을 바치게 하려는 것임을 알아봅시다. 이것이 한 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우리 소명과 형편에 따라 걸었고 저마다 하루 종일 하나님과 이웃을 섬겼을 때, 밤이 우리에게 악을 행할 허락을 주는 어둠 노릇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압시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미 밝혔듯이 하나님 말씀의 이 등불은

결코 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낮이나 밤이나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고, 사도 바울이 말하듯(엡 5:8) 깨어 있고 빛을 받은 사람이 됩시다. (말하건대) 우리 악덕 속에서 우리 자신을 달래려고 잠들어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 없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오히려 저마다 자기를 재촉하여, 우리가 정신이 취해서 악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오히려 먹고 마시는 데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욕구와 모든 탐욕에서 절제합시다. 짧은 고삐가 있어서 우리를 악으로 끌어당기는 쓸데없는 정욕을 잘라 낼 줄 알게 합시다. 요컨대 이 구절에서 새겨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욥은 끝으로, 악인들이 물 위에서 가벼워서 흘러가 버리고 그 사이에 무덤으로 간다고 덧붙입니다. 그는 마른 땅과 햇볕이 눈과 거기 있는 모든 물기를 빨아들이듯 무덤이 악인들을 삼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욥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저질러지는 모든 악행을 벌하신다는 것을 보여 주려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 점에서 그는 CO 391 엘리바스와 맞장구를 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의도는 전혀 다릅니다. 요컨대 그는 악인들이 망하기는 하되, 그들 위에서 하나님의 손을 눈에 띄게 알아보고 "보라, 하나님께서 아무개가 악하게 살았으니 그를 벌하셨다" 하고 말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망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 주려 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악인들이 물처럼 사라져 버리니 그들에 대한 기억이 더는 없습니다. 그들은 무덤으로 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선한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욥이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벌하시려고 당신의 정의를 늘 알아볼 수 있을 만큼 행하시지는 않는다고 결론 내린다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앞에서 말한 것을 기억합시다. 곧 욥은 섭리가 전혀 없고 모든 것이 운수로 다스려지며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잠들어 계신다고 스스로 믿으려고 하나님을 거슬러 신성모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의도는 하나님의 심판이 늘 보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그 문장을 간직해야 하고, 그것이 매번 우리 눈앞에 떠올라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보여 주었듯이 아주 유익한 가르침이지만 다시 되풀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곧 선한 사람들이 크게 짓밟히리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래 시들다가 제날보다 먼저 죽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자기 바람으로는 너무 오래 산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삶은 끊임없는 시듦일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볼 것입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모욕과 잔인함과 악의로 가득했던 악인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들은 실컷 즐긴 뒤에 죽습니다. 그것도 물이 흘러가듯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수를 갚으신다는 어떤 확실한 표시도 알아볼 수 없고, 그들의 죽음은 부드럽고 평온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볼 때 무엇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감각대로 판단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악인들을 늘 벌하시지 않고 그들이 평소대로 살아가게 내버려 두시며, 그다음에 그들이 죽을 때에도 거기서 모든 사람에게 공통되고 일반적인 것밖에 알아볼 수 없다는 것을 볼 때, 그것은 큰 걸림돌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들이 벗어났다거나 벌을 받지 않고 남으리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기다리는 그 심판을,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대로 바라봅시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심판을 완전하게 행하지 않으시고 다만 부분적으로 행하셔서 우리에게 그 어떤 표시를 주실 때, 그것은 일들이 아직 제 형편에 이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려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를 거기로 다시 부르시는 것임을 압시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소망하고, CO 392 그분을 우리 구속자로 기다리는 데 그만큼 더 마음을 쏟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폭군들이 지배하고 죄 없는 피가 흘려지는 것을 보고, 음행과 다른 방탕과 불의와 모욕과 폭력을 보며, 가난한 사람들이 짓밟히고 그들의 목에 발을 올려놓는 것을 보고, 모든 일이 그런 뒤범벅 속에 어지러워서

우리가 무엇이라 말해야 할지 모를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것입니다. 곧 이렇게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우리 바라는 대로 정돈되어 있다면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도, 우리에게 약속된 부활도, 그분의 하늘나라도 더는 소망하지 않을 것이고, 이미 낙원에 있는 것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끓어오르는 바다에서처럼 흔들리고 폭풍과 회오리바람 한가운데 있을 때, 그것은 우리가 하늘에서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고 주께서 약속하신 안식을 사모하기를 배우게 하시려는 것이고, 주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향해 늘 눈을 들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모두를 당신께 모으러 오실 때, 주께서 우리를 그분의 책임과 보호와 인도에 맡기셨듯이 말입니다.” 그 밖에 오늘 악을 행하면서 숨는 악인들을 볼 때, 그래도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임재에서 숨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봅시다. 그들이 해를 피한다 해도 우리는 마음을 살피시는 분의 눈길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피하려고 숨을 곳을 찾아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니, 우리가 자원해서 그분의 얼굴 앞에 나아가 서야 합니다. 악인들은 그분을 피하고 심지어 그분의 심판에 관해 그들에게 하는 모든 위협을 비웃지만, 그와 달리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바라지 맙시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자신이 우리 재판관이 되는 은혜를 베푸시니, 우리가 그분께 정죄받기를 기다리지 말고 오히려 사함을 받으려고 우리 스스로 자원해서 정죄를 받아들입시다. 그러니 우리가 이 구절을 실천해야 하는 방식이 이것입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설 때 우리 자신을 정죄하기를 배우고, 자기 죄를 싫어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날마다 우리에게 내놓아지고 제시되는 은혜만을 구하는 모든 사람을 자비로 받아 주시겠다고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엎드립시다.

제93편

욥기 24장 설교 3

CO 34:393–405

AI로 옮긴 초벌 번역입니다. 신학 감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CO 권: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 마른 땅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빨아들이듯, 죄짓는 자들도 무덤으로 가네. 다정한 사람은 그를 잊고, 벌레들은 그를 달게 여기네. 그는 더는 기억되지 않고, 불의한 자는 나무처럼 부러지네. 그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잉태 못하는 여인을 괴롭히고, 과부에게 아무 선도 베풀지 않네. 그는 힘센 자를 자기에게로 끌어당겨, 그가 자기 목숨을 믿지 못하게 하네. 사람들이 그에게 모든 것을 안전하고 평안하게 주지만, 그의 눈은 그들의 길을 엿보네. 그들은 잠깐 높아졌다가 사라지고(또는 죽고), 가난해지며, 탑처럼 갇히고, 이삭 끝처럼 잘리네. 그렇지 않다면 누가 나를 거짓말쟁이로 만들겠으며, 누가 내 말을 반박하겠는가? (욥 24:19–25)

CO 393 이 가르침에서 유익을 얻으려면 앞에서 밝힌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곧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세상에 뒤죽박죽인 일이 많은 것을 보고 우리가 지나치게 언짢아하거나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완전한 형편을 가지려 한다면 우리 소망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낮추시려는 무질서를 참을성 있게 견뎌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사람들 쪽에서 일들이 이렇게 어지럽고 거기에 손을 대야 할 사람들이 자기 직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참된 처방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피하고 그분께 소망을 두기를 배웁시다. 그리고 얼마 동안 많은 불의와 모욕을 견뎌야 하더라도 결국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리라는 것을 의심하지 맙시다. 그런데

욥은 앞에서 저질러지던 폭력과 착취를 보여 준 다음, 가난한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힌 자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도 말했습니다. 그는 한 비유를 덧붙이는데, 그 문장이 아주 짧고 끊어져 있어서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마른 땅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마신다. 무덤에서 그는 죄짓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마치 마른 땅이 눈 녹은 물을 마시고 그 물이 해와 더위에 흘러 없어지듯 무덤이 모든 악인을 삼킨다고 말하는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이것으로 욥은 하나님께서 그럴 만한 자들을 눈에 보이게 벌하신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다른 사람들처럼 죽고, 그들의 CO 394 몸에 하나님의 의를 알아볼 수 있는 어떤 집행도 이루어지지 않으며, 오히려 그들은 평범한 길을 가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자연스러운 죽음으로 세상을 떠나도록 허락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악인들과 그렇게 많은 악과 잔인함을 저지른 자들을 벌하시는 것을 보지 못할 때, 그분이 하늘에서 잠들어 계신 것처럼 보이고, 약하고 무지한 사람들은 마치 그분이 세상을 돌아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려고, 선한 자들을 지키시고 그렇게 넘쳐흐르는 자들을 억누르시려고 모든 것을 처리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그것으로 걸려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보여 주었듯이) 욥의 의도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심판을 경배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우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이 하시는 일의 까닭을 헤아리지 못하더라도, 그렇다고 그분을 거슬러 신성모독을 해서도 안 되고 싫증을 내서도 안 되며,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것도 알맞은 때에 밝히실 때까지 아주 잠잠히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 말입니다. 그분께 그날을 정해 드리는 것은 우리 몫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이 현재 삶에서 당신의 심판을 집행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믿음과 소망을 이 세상보다 더 멀리 뻗기를 배우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를 다른 목적에 적용해도 뜻이 아주 잘 맞을 것입니다. 곧 마른 땅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마시듯, 악인들은 무덤에 이르기까지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욥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악을 행하는 데 너무 길들어서 그들의 본성이 완전히 거기에 빠져 있다." 속담에서도 사람들이 선이든 악이든 습관이 들면 그들이 들인 관습이 말하자면 그들의 본성이 된다고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런 버릇이 들어서 아무 힘도 들이지 않고 그것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욥은 여기서 자기가 말하는 자들이 한때의 충동으로 죄짓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려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자기를 부추기는 기회를 만나 타락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전에는 바르고 흠 없이 살았더라도 그때는 폭풍에 휩쓸린 것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악이나 모욕을 저지르기는 하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는 사람들을 볼 것입니다. 욥은 여기서 그렇게 한 번 잘못하고 어떤 시험에 진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악덕에 굳어져서 그것을 말하자면 자연의 질서처럼 만든 자들을 말한다고 밝힙니다. 그러니 해에게는 눈을 녹이는 본성이 있고 그다음에 마른 땅이 그것을 마시듯, 악인들은 CO 395 무덤에 이르기까지, 곧 죽을 때까지 악을 계속 행합니다. 우리가 그런 본보기를 볼 때, 그리고 심지어 이 문장으로 세상에서 너무나 흔한 일을 생각하라는 경고를 받을 때, 하나님께 피하기를 배웁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손 아래 굽혀져서 그분을 섬기고 영화롭게 하는 데 그렇게 몸을 바쳐 그것이 우리에게 본성처럼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그분께 기도합시다. 물론 선한 사람들에게는 늘 어떤 거스름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어떤 어려움과 반대 없이 그렇게 곧게 걷지 못하기 때문입니다(육과 영 사이에 끊임없는 싸움이 있듯이 말입니다, 갈 5:17 참조).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시는 이 능력이 우리가 기꺼운 뜻으로 선을 사랑하고 완전히 거기에 붙어 있을 만큼 이겨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까지 강하게 하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그분이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차지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시기를,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고 우리가 악을 행하는 데 너무 굳어져 그것이 우리 본성처럼 되지 않게 해 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 밖에 온갖 불의에 그렇게 고집 센 사람들을 볼 때 그것을 새삼스럽게 여기지 맙시다. 여기서 그 본보기를 보듯이 언제나 그래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끝으로 욥은, 평온한 사람이 그런 자들을 잊을 것이고, 벌레들이 그들을 달게 여길 것이며, 그들이 더는 살아 있지 않으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으로 그는 악인들이 늘 다스리지는 못하고 끝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보여 줍니다.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을 때까지 평안히 내버려 두시고, 그들의 처지가 온 공평과 올바름 가운데 살며 이웃에게 아무 해도 끼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의 처지보다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남의 살림을 먹어 치우고 놀랍도록 잔인했던 이 약탈자들과 강도들을 순박하게 산 선한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그것이 같은 형편이고 모든 것이 거기서 뒤섞여 있어서 세상에서 일들이 뒤죽박죽이라는 것 말고는 말할 수 없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더 멀리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렇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벌하시는 것을 오는 삶까지 남겨 두셔서, 우리가 여기 아래에 완전히 머물지 않고 지금 뒤죽박죽인 모든 것을 회복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늘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을 보지 않는다면 말입니다(행 3:21 참조). 이제 우리 삶의 짧음을 바라보고, 가난한 사람들을 약탈하는 데 빠져 있던 자들이 (여기서 말하듯) 무덤으로 가서 벌레의 먹이가 되는 것을 볼 때, 우리에게 약속된 이 죽지 않음을 향해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참으로 비참하다는 것을 알아봅시다(고전 15:19 참조). 그런데 여기서 욥은 우리에게 사람의 삶과 죽음의 생생한 그림, 하나의 모습을 그려 줍니다. CO 396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나은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 애썼으며, 아무 속임수나 불의 없이 이웃과 사귀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악인들과 함께 무덤에 거두어져야 하고, 거기서 모든 것이 뒤섞여 우리는 썩어 갑니다. 사람들을 그 본성대로 생각하면 그들은 이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더 나은 기다림이 없다면 그것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러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뒤바뀜을 보면서, 머리를 들고 우리에게 약속된 하늘의 삶을 바라보라는 경고와 재촉을 받읍시다. 그리고 우리가 썩음을 겪는 가련한 송장 같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한 번 구속하신 분을 우리에게 보내 주시리라는 이 소망 속에 삽시다. 그분은 우리 구원을 위해 치르신 그토록 비싸고 헤아릴 수 없는 값이 사라지거나 헛되게 되도록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뻐해야 할 것이 이것이고, 우리의 모든 영광이 있는 곳도 이것입니다.

욥은 이어서 악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아무 두려움도 경외도 없이, 심지어 사람들에 관해서도 자기를 붙잡는 아무 부끄러움도 없이 완전히 악에 기울고 빠져 있다는 것을 밝힙니다. 그는 한 가지 경우만 듭니다. 곧 그들이 아이를 낳지 못한 잉태 못 하는 여인들을 짓밟고 억누르며 과부들에게 아무 선도 베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이 한 가지 경우 아래 스스로 원수를 갚을 수 없고 사람들 쪽에서 아무 의지할 데도 도움도 없는 모든 가난한 사람을 포함하려 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는 악인들이 그런 사람들을 노린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자기들을 위해 다 준비된 먹잇감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특히 잉태 못 하는 여인들을 말합니다. 여인이 과부라도 자식이 있다면, 자식들이 제 도리를 하기만 하면 그 여인에게는 도움이 있고, 흔히 말하듯 노년의 지팡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인이 과부인데 아이를 낳지 못했다면 그녀는 완전히 외롭습니다. 그러니 악인들이 찾고 바라는 것은 그런 먹잇감입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도 거기에 맞서지 않고 모든 것이 자기들에게 허락된

것처럼 보이고, 그들은 과부들의 보호자라고 당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시 68:5 참조). 앞에서 말했듯이 그들은 고아들과 나그네들에게도 똑같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욥은 한 가지 본보기를 드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마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 붙잡히지 않는 그런 자들은 사람들 쪽에서 자기들을 막을 수 있는 이가 보이지 않으면 악을 행할 자유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아무 막음 없이 남의 재산을 자기에게 끌어들였을 때, 그때 그들은 CO 397 그만큼 더 제멋대로 하고 온갖 자유를 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둘째로 그는, 그들이 힘센 자들을 자기 뒤로 끌어당긴다고 덧붙입니다. 곧 그들이 가난한 사람들과 스스로를 지킬 방법이 없던 사람들을 먹어 치우고 짓밟는 이 일을 오래 해 오면 더 큰 대담함을 얻어서, 그때는 부자들에게도 달려들고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과 무서움의 대상이 되어서, 사람들은 강도들 사이에 있는 것처럼 그들의 손에서 자기를 몸값을 치르고 빼내야 하고, 저마다 자기 목숨을 믿지 못하며, 심지어 그들과 타협하러 갈 수밖에 없는데, 그들을 달래 놓아도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배신하고 신의가 없었던 뒤에 들짐승처럼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먹어 치우고 약탈하여 그들 안에 더는 아무 인정이 없다는 것이 보이는데도, 여전히 그들에게 어떤 몸값을 주어야 하고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에게 준 사람들의 목숨을 엿보고, 사람들이 자기에게 뇌물을 바치면 그것이 자기가 받아야 할 세금인 것처럼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요컨대 욥의 의도가 무엇인지 봅니다. 곧 악인들이 스스로를 도울 수 없고 사람들 쪽에서 아무 도움도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짓밟은 뒤, 그 위에 더 대담해져서 들짐승처럼 되어 아무도 아끼지 않고, 부자들과 힘센 자들, 세력과 권위가 있는 자들에게 달려들며, 그때 혼란이 극에 달해서 짐승 같은 폭력으로 빼앗는 것밖에 없고, 요컨대 더는

아무 인정도 부끄러움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에게 밝히는 것은, 우리가 그런 본보기를 볼 때 (앞에서 말했듯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런 걸림돌에 대비하여, 우리 주님께서 일들이 이렇게 얽히도록 허락하시는 것이 우리가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는 유산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려는 것임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확실한 안식이 있는 것처럼 여기에 둥지를 틀지 말고, 오히려 이 세상에서 순례자가 되고 떠도는 사람이 되기를 배우게 하시려는 것입니다(히 11:13 참조). 그리고 우리에게 아무 굳건함이 없을 때(사도 바울은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처지라고 말합니다, 고전 4:11), 우리가 이 모든 일에서 유익을 얻을 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지로 이 세상에서 떼어 내실 때까지 우리는 하늘의 삶을 향해 나아가는 데 마음을 쏟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토록 많은 변화를 허락하시고, 일들이 이렇게 이리저리 마구 흔들려서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되고 우리가 놀라서 CO 398 머리털이 곤두설 만큼 큰 무질서가 있도록 허락하시는 까닭이 이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물러나게 해서 우리가 여기에 너무 머물러 있지 않게 하는 데 쓰여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적용해야 하는 곳이 이것입니다.

그 밖에 아무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이 많은 폭력을 견딘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사람의 도움을 거두셔서 그들이 그분을 그만큼 더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아무도 우리의 필요를 도와주지 않을 때 그것을 운수로 돌려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사람의 모든 수단을 벗기셔서 우리가 우리 안에서 낮아지고,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찾고, 거기서 우리의 모든 피난처를 갖게 하신다는 것을 알아봅시다. 그러니 우리가 이 가르침을 실천해야 하는 방식이 이것입니다. 그 밖에 그 사이에, 악인들이 사람들 가운데 도움이 없는 사람들에게 어떤 불의와 모욕을 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사랑을 훈련하려 하신다는

것을 알아봅시다. (말하건대) 그것은 우리가 저마다 힘닿는 대로 그런 사람들을 돕는 데 힘쓰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곳, 우리가 그분을 경외하는지, 우리 안에 어떤 사랑이 있는지 살피시는 곳이 바로 거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친구나 친척 가운데 누가 괴롭힘과 시달림을 당하는 것을 본다면, 그렇습니다, 본성이 우리를 그를 돕도록 이끕니다. 그러나 아무 의지할 데 없는 가난한 사람이 모욕을 당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그를 돕고 그의 필요 가운데 그를 덜어 주려고 애쓰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장부에 적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다움이 한 방울도 없다는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밝혔듯이)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의 도움이 없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일부러 우리 눈앞에서 그들이 고난을 받도록 허락하셔서 우리가 그들을 도우려고 애쓰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화가 있습니다. 아무 변명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짓눌리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것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보내신다고 생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쪽에서는,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에게 행해지는 어떤 불의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실 때, 우리가 앞서 막아서지 않고 할 수 있는 한 그의 방패가 되어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적어 두시고 표시해 두신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분은 그 일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내가 말했듯이) 일부러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살피려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욥이 여기서 밝히는 둘째 항목으로 옵시다. (그가 말하는) 악인들이 힘센 자들을 자기 뒤로 끌어당긴다고 합니다. 급류가 나무를 뽑고 집을 무너뜨리듯 말입니다. 그러니 오래전부터 악을 행하는 데 굳어진 자들은 집과 나무까지 모든 것을 뒤엎는 큰 폭풍과 비바람 같습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CO 399 그것을 그렇게 많이 겪지 않는다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굶주려서 가지기를 바라는 자들이 원수를 갚을 손톱과 발톱이 있는 힘센 자들에게 감히 달려들지 못하고, 작은 사람들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들에게 악을 행할 허락을 주었습니까? 그때 그들은 더 힘센 자들에게 달려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뜻 없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들과 세력과 권위가 있는 자들이 이렇게 악인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은 그들에게 내리는 의로운 갚음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는 데 넘쳐흘러서 이 사람을 치고 저 사람의 것을 훔치고 어떤 다른 극악한 짓을 저지를 때, 그렇습니다, 넉넉하게 살고 자기를 지킬 것이 있는 사람들은 그저 웃어넘깁니다. 물론 그들은 그런 자들을 정죄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정죄하면서 거기에 어떤 처방을 내리려고 애씁니까? 결코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생각에 그것은 자기들과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 그가 내게 덤볐다면 내게도 이빨이 있다는 것을 단단히 보여 주었을 것이다." 세력이 있고 부유하며 잘 갖추고 있어서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가난한 사람들은 끝까지 짓밟힙니다. 모든 것을 허락받고 온갖 방자함을 얻은 이 무뢰한들이 자기들이 벌을 받지 않는 것을 보면, 그들은 가장 큰 자들에게 달라붙으러 옵니다. 그런데 누가 그것을 허락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처리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안에 어떤 인정이 있었다면, 가난한 사람들이 짓밟히는 것을 보고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거기에 맞섰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모욕과 시달림을 당할 때 우리는 악을 억누르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에 고삐를 풀어 주어 악인들에게 이렇게 넘쳐흐를 기회를 줍니다. 그러니 그다음에 우리가 그들에게 찔리고, 하나님께서도 그 악이 우리 머리 위로 돌아오도록 허락하시고 처리하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것은 새겨 둘 만한 구절입니다. 성령께서 거울에 비추듯, 불의가 활개 치게 내버려 두고 알맞은 때에 바로잡으려 애쓰지 않으면 그것이 점점 더 커져서 꼭대기에까지 이른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교훈은 무엇보다 부유하고 권위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는 저 큰 군주들의 궁정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은 본보기는 보지 못할 것입니다. 거기서는 큰 세력을 가진 총신 서너 명이 온 세상을 떨게 해서, 이만 리브르, 삼만 리브르의 연수입이 있는 사람들도 그들의 발톱 아래를 지나야 하고, 엎드린 개처럼 굴며, 자기 몸값을 치르고 자기 살림의 일부를 속전으로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CO 400 우리는 여기서 그런 본보기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량에 따라서는 어디서나 여기서 우리에게 밝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온 세상에, 큰 사람에게나 작은 사람에게나 미치는 것은 아주 마땅합니다. 그러니 작은 사람들에게 해치고 약탈하고 많은 착취를 할 자유를 가졌던 자들이 결국 큰 사람들도 두렵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어떤 해와 불의를 당할 때 그들을 돕고 지켜 줄 수단과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거기에 맞서지 않으면 그들 자신도 찔리게 되리라고, 곧 결국 자기 몸으로 그 책임을 지게 되리라고, 그들도 약탈당하고 그들에게 마땅한 대로 눈이 뽑히리라고 경고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런 갚음을 보내실 때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물론 혼란은 늘 점점 더 커집니다. 그러나 그래도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그들을 비추시니 그 안에서 비밀스럽고 사람의 깨달음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있는 모든 무질서의 원인이 우리라는 것을 이렇게 알아야 합니다. 일들이 우리 욕심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불평할 줄은 잘 알아서 "아이고, 큰일 났다" 하고 부르짖을 것이고, 심지어 곧 하나님을 고발할 태세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는 그 잘못이 우리에게서 나오고 우리가

그런 악에 대해 죄가 있다는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저마다 악덕과 불의를 억누르려 애쓰고, 어떤 악이 있을 때 저마다 그것을 막는 데 힘쓴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에 복을 주실 것이고 우리 사이에 바람직한 질서와 기뻐할 거리가 있으리라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잘못되어 가는 것에 처방을 찾는 대신, 불을 붙이려고 나무를 가져오지 않거나 스스로 성냥개비가 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짓이 이렇습니다. 그러니 일들이 바닥도 기슭도 없이 깊은 구렁처럼 뒤섞여 있다고 해서 이상하게 여겨야 하겠습니까? (내가 말했듯이) 불이 붙었을 때 우리는 늘 나무를 보태기를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부자들과 권위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살펴보아야 하고, 모욕과 불의가 저질러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짓눌리는 것을 볼 때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그들을 도우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단이 있는 사람들의 일이라면, 손에 정의의 칼을 쥔 사람들의 일은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그들이 비겁하다면, 그들이 못 본 체한 모든 악이 그들의 머리 위로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처형대 위에 세우듯 하셔서 사람들이 그들의 몸에서 그분의 의로운 원수 갚음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니 그들은 CO 401 여기서 우리에게 밝히는 것을 그만큼 더 잘 새겨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기 담긴 가르침을 적용해야 할 목적이 이것입니다.

그 사이에 욥이 쓰는 말을 잘 새겨야 합니다. 그가 그런 악인들이 활개를 치고 그런 대담함을 얻었을 때 사람들이 그들의 손에서 몸값을 치르고 자기를 빼내야 하며, 그들이 이 사람을 먹어 치우고 저 사람을 약탈한 뒤, 사람들이 그들 아래 잘 엎드리고 그들을 달래려고 손을 채워 주었을 때에도 여전히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말하는 데에는 까닭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에도 만족하지 않는 미친 개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식욕을 돋울 뿐이고, 그런 뇌물은 그들을 더 부추기고 더 굳어지게 합니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자기들에게 마땅히 바쳐야 할 공물처럼 보이고, 누가 그들에게 선물을 한 번 바치면 늘 다시 바치기를, 그리고 결코 끝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만족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믿지 못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전에 부유하고 세력이 있던 사람들도 떨어야 하리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나는 이 악인들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을 본다. 그들은 곧 내게 어떤 흉계를 꾸밀 것이고, 나는 거기에 어떻게 맞설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니 그들의 비위를 맞추고 그들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 적어도 그들을 성나게 하지는 말아야 한다." 그러니 전에 안전하던 사람들도 악인들에게 너무 고삐를 풀어 주었을 때는 떨고 자기 목숨을 믿지 못하게 되어, 악인들을 달랠 때까지는 자기가 어떤 처지인지도 모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할 방법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들은 늘 당혹과 괴로움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제때 제자리에서 악을 바로잡지 않고 나쁜 풀이 자라서 퍼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 주는 좋은 거울을 가집니다. 제때 손을 대지 않았으니 나중에 그것을 뽑아내려 해도 끝내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나쁜지 봅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쉽게 악을 바로잡을 수 있었던 사람들에게 용기가 없어지게 하셔서, 그들이 거기서 팔이 부러진 사람 같고 그들 안에 힘도 큰 뜻도 없어서 모든 것이 흘러가 버리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말했듯이 그것은 처음에 악을 억누를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보이는 그 비겁함에 대한 의로운 벌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그들에게 어떤 잔인함이나 폭력이 행해지는 것을 보는 동안 거기에 처방을 내리지 않으면, 악이 그렇게 지배하게 되어서, 나중에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실제로 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손을 댈 수 없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영예와 은혜를 주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생각합시다, 잘 생각합시다.[48]

48. 원문은 여기서 문장이 끊기고 바로 다음 쪽으로 넘어갑니다. 전자 텍스트에서 몇 줄이 빠진

CO 402 그 밖에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쉬지 않고, 그분의 보호에 기대려고 자기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겨 버릴 생각을 하지 않을 때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지 알아봅시다(벧전 5:7 참조).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욥이 우리에게 묘사하는 것, 곧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은 이 세상에서 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이 활개 치는 것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 그들과 잘 지낼 궁리를 해야 한다."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는 그것이 악을 기르는 것, 곧 그들에게 그만큼 더 대담함을 주는 것임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모든 사람을 죽이기만 바라는 미친 사람이 있는데, 어떤 이는 와서 그의 손에 칼을 쥐여 주고, 어떤 이는 그에게 돌을 대 주며, 또 어떤 이는 그를 더 독하게 만들 어떤 수단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악인들이 세력을 가진 것을 보고 그렇게 그들의 비위를 맞추는 사람들이 똑같이 합니다. 어떤 이는 정의를 팔아넘기려고 그들에게 뇌물을 바치러 올 것이고, 어떤 이는 어떤 교묘한 수단으로 그들과 가까워지러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늘 그들을 더 불붙이는 것이고, 그들의 광기를 그만큼 더 날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에는 어떤 두려움에 붙잡혀 있었다 해도, 이제는 모든 것이 자기들에게 허락되리라고, 온 세상이 자기들을 두려워하니 더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 내리기 때문입니다. "오, 이 사람도 결국 굽실거리러 왔다. 다른 사람들도 내 팔 아래를 지나야 할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원숭이 재주를 부리게 할 것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비위를 맞추러 올 때 악인들은 이렇게 그만큼 더 큰 대담함을 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쪽에서는 늘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돌아보지 않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고 늘 당혹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을 조심해야 한다. 나는 그의 손을 거쳐야 하리라는 것을 잘 안다. 그러면 이제 나는 어떻게 할까? 내가 이치와 좋은 권면을 가지고 그에게 가면 헛수고다. 그의 귀는 이미 그런 것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니 다른 방법

것으로 보입니다.

으로 가는 편이 낫다. 곧 사나운 늑대에게 하듯 그의 아가리를 채워 주어야 한다. 그에게 가져다주어야 한다." 아니면 "그가 야심으로 가득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출세하려 하며, 자기를 내세우려 하고 자기 날개깃에 스스로 반해 있는 것을 보니, 오, 내가 엎드린 개처럼 굴 줄만 알면 내 일은 이긴 것이다. 나는 다른 방법을 모른다. 그 길을 거쳐야 한다."

(말하건대) 이것이 흔한 일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악인들이 이렇게 탐욕과 야심으로 가득하고, 또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들짐승 같은 것을 볼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 그래도 주께서 사람들의 고삐를 쥐고 계시니 그들을 억누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CO 403 우리가 바라는 만큼 빨리 일하지 않으신다면, 그분이 얼마 동안 우리를 치려 하신다는 것을 알아봅시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 구원을 위해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가 이렇게 넘쳐흐르는 자들의 뜻에 완전히 내던져지도록 허락하지 않으시리라는 것을 확신합시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 손에 쥐고 계시고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빨리 알아보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우리를 당신의 보호 안에 두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의 보증인이 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 지켜보시고 그들의 손과 발톱과 아가리에서 우리를 지켜 주시리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악인들과 그들의 모든 대담함을 거리낌 없이 비웃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 쪽에서는 악에 빠져 거기에 동의하는 것 말고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우리가 되돌아가야 할 곳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 깨달음으로는 감추어져 있지만, 성경에 그것에 대한 아주 좋고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 우리는 그것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이렇게 옳지 않은 수단으로 우리 몸값을 치르러 가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우리의 불신과 믿지 않음을 드러내는 것이고, 또 악을 기르는 것이니 우리 힘이 미치는 한 그 악에 대해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이

악인들에게 아첨하러 가고, 그들에게 더 큰 힘을 실어 주는 것을 돕고, 몸값을 치르고 그들의 손에서 자기를 빼낸다면 그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먼저 (내가 말했듯이) 그는 하나님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기대어 쉴 수 있다면, 우리는 결코 구부러진 수단을 꾀하지 않을 것이고, 늘 "하나님께서 내게 그것을 허락하시는가? 그분이 그것을 금하셨는가? 그렇다면 더 나아가서는 안 된다" 하고 살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뇌물이나 그와 비슷한 것으로 악인들의 호의를 얻으려고 애쓰는 모든 사람은 참으로 믿지 않는 사람이고 그것을 충분히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마땅히 영화롭게 하지 않고 오히려 악인들의 불의를 길러 주었으니 그들의 공범이 된 것에 대한 갚음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그들이 모든 질서를 부패시키고 비뚤게 하려고 악인들과 약속한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자기 힘이 미치는 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미 말했듯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하기를 배웁시다. 그러면 우리는 더는 욥이 여기서 말하는 이 비참, 곧 우리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비참에 매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악인들을 감싸고 하나님의 섭리에 기대지 않는 사람들은 늘 떨 수밖에 없고 아무 안전도 안식도 없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욥이 덧붙이는 것도 잘 새겨야 합니다. 곧 우리가 CO 404 선물이나 다른 악한 방식으로 악인들의 호의를 얻으려 하면 그들은 우리를 더 세게 엿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신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 묻겠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신실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경고를 받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배신과 온갖 악을 쓰도록 허락하지 않으시는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사람이 알면서 이렇게 그물에 몸을 던지러 간다면 무슨 변명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눈으로 봅니다. 악인들이

함께 공모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서로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두 악인이 함께 동맹을 맺으면 그들이 손의 두 손가락처럼 붙어 있어서 하나에게 덤비는 사람은 다른 하나에게도 덤비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그들이 서로 믿느냐 하면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아무 손해만 없다면 하나는 다른 하나를 교수대로 보내 버렸으면 하고 바랄 것이 분명합니다. 적어도 그를 땅속 백 자 아래에서 보고 싶어 할 것이고, 그들을 편드는 모든 사람이 결국 그들의 원수가 됩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혼란 한가운데서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봅니다. 그러니 이렇게 어지럽고 뒤섞인 일들에 우리가 놀랄 때, 눈을 위로 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볼 것입니다. 그분은 심지어 악인들이 서로 믿을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늘 떨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악의를 길러 주고 그들과 맞장구치며, 그들의 비위를 맞추고 그들을 기쁘게 하려고 거짓 꾸밈으로 가득한 사람들도, (말하건대) 그들도 늘 떱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쉴 수 있다면, 악인들이 우리에게 많은 착취를 하고 우리 주님께서 그들이 우리를 짓밟고 찌르도록 허락하시더라도, 우리는 우리가 견디는 것이 유익한 것 말고는 견디지 않을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복되고 유익한 결말을 주실 줄 아시리라는 것이 분명합니다(고전 10:13 참조). (말하건대) 이 세상에서 일들이 이렇게 뒤죽박죽인 것을 보면서 우리가 재촉을 받아야 할 처방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이렇게 말한 뒤에, 그들이 잠깐 높아졌다가 힘을 잃고, 이삭 끝처럼 잘리며,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갇힌다고 덧붙입니다. 요컨대 그는 이미 말한 것을 보여 줍니다. 곧 현재 삶보다 더 멀리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뒤죽박죽인 흐름을 보게 되어 분별할 수 없으리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얼마 동안 크게 활개를 칠 것이고, (흔히 말하듯) 운명의 바퀴 꼭대기에 있다가 곧 힘을 잃습니다. 그런데 선한 사람들도 높아질 수 있고 결국 넘어

집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경험으로 그것을 봅니다. 욥이 “그렇지 않다면 누가 나를 CO 405 거짓말쟁이로 만들겠는가?” 하고 결론 내리는 대로입니다. 그러니 그런 경험을 보면서 하나님께로 물러나기를 배웁시다. 우리가 현재의 일들만 붙잡는다면, 우리는 흔들리는 갈대 같을 뿐 아니라 바람에 이리저리 날려 다니는 지푸라기와 겨 같아서 우리 안에 아무 굳건함이 없으리라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어지러운 일들을 바라보되, 하나님의 섭리가 늘 우리 정신에 새겨져 있도록 바라보는 이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것을 우리 생각대로 깨달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거울 같아야 하며, 성경이 이 세상보다 더 멀리 바라보게 하는 안경 노릇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더라도, 그래도 “주님, 주는 의로우십니다” 하고 말하며 그분 아래 우리를 낮추기를 그치지 맙시다. 그리고 늘 그분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필요 한가운데서 그분을 부르기를 그치지 맙시다.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고 당신의 선하심을 느끼게 하셔서, 우리가 안식과 안전 가운데 있고 이 세상의 모든 시험 한가운데서도 자랑할 수 있으리라는 것을 알면서 말입니다.

이제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엎드립시다.

제94편

욥기 25장 설교 1

CO 34:406–417

AI로 옮긴 초벌 번역입니다. 신학 감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CO 권: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 그때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말했네. 다스림과 두려움이 당신의 높은 곳에서 평화를 이루시는 분께 있네. 그분의 군대에 수가 있겠는가? 그분의 빛이 누구 위에 비치지 않겠는가? 하나님과 비교하면 사람이 무슨 의를 자기에게 돌리겠는가? 아무것도 아닌 그가 말일세.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겠는가? 보게, 달에 이르기까지 빛나지 않을 것이요, 별들도 그분 보시기에 깨끗하지 못하네. 하물며 썩은 것일 뿐인 바람 같은 사람, 벌레일 뿐인 사람의 아들이겠는가? (욥 25:1–6)

CO 406 우리는 자기를 높이 평가하는 데 너무 빠져 있고, 그 어리석음은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위엄이 어떠한지 생각하지 않는 데서 나옵니다. 그러니 여기서 우리는 좋고 아주 유익한 경고를 받습니다. 곧 우리가 어떤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고 싶은 시험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로 눈을 돌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능력과 권능이 어떠한지, 그분의 의가 어떠한지, 그분의 온 영광이 어떠한지 잘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수다가 쑥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으로 부풀고 오만에 취해 있던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를 없애 버리기에 충분해서 우리가 스스로 부끄러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성령께서 빌닷이라는 인물을 통해 우리에게 이 권고를 주시는 까닭이 이것입니다. 곧 하나님 안에 지극히 높은 다스림이 있어야 하고, 우리가 그분을 생각할 때, 그분이 하늘과 온 세상에 세우신 질서를 볼 때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

고 우리에게 그분 앞에서 값어치 있을 만한 것이 있기는커녕, 우리를 비추는 별들도 그분께는 어둡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에게 무엇이 남겠습니까? (다 털어 보아야) 그들은 벌레요 썩은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별들보다 위에서 자랑하려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들의 어리석음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여기 담긴 말이 어떤 목적을 향하는지 봅니다. 곧 사람들이 여기 아래를 바라보아서는 자기를 낮출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위엄을 지니고 그들 눈앞에 놓이셔서, 그들이 더는 자기를 내세울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누구든 완전히 낮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눅 14:11 참조).

그런데 여기서 빌닷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경외받고 두려움의 대상이 되셔야 하는지 느끼게 하려고, 그분이 당신의 높은 곳에서 평화를 이루신다고 내세웁니다. 곧 그분이 하늘의 질서를 그렇게 처리하셔서 거기서 평화롭고 잘 정돈된 다스림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사들에게 적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마 6:10 참조) 하고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것은 사람들 안에 있는 반역 때문에 여기 아래에서는 하나님께서 잘 순종 받지 못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의에 따를 수 없는 많은 악한 탐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맞추어져 있어서 모든 일에서 어디서나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 말고는 구하지 않듯, 그분이 CO 407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 본성에 있는 악한 애정을 바로잡으시고, 당신의 나라와 다스림이 여기 아래에서 평화롭게 되기를 기꺼이 이루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러니 이 구절을 거기서 천사들에 관해 하는 말에 적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빌닷이 더 멀리, 곧 우리가 하늘의 질서에서 알아볼 이 모든 이끄심을 바라보았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 해가 우리 눈에는 끝없이 큰 몸 같고

그 움직임이 너무 빨라서 모든 것을 뒤엎을 것처럼 보여도, 어떤 시계도 그렇게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곧 해처럼 그렇게 제 길을 잘 따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달과 모든 별에서도 우리는 같은 것을 봅니다. 그 수가 끝이 없어도 아무 혼란이 없고, 거기서는 모든 것이 더할 나위 없이 잘 배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빌닷이 여기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높은 곳에서 평화를 이루신다고 내세우는 데에는 까닭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의 피조물들에게서 그분의 다스림을 볼 뿐 아니라, 그분은 저 위에서 세상의 온 질서를 그렇게 처리하셔서, 여기서 일들이 어지럽고 흔들리며 많은 변화와 소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당신이 정하시고 당신 안에서 작정하신 목적으로 이끄시기를 그치지 않으십니다. 물론 우리가 아래로 눈을 던지면 여기서 우리에게 밝히는 대로 그렇게 평화로운 이 다스림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본다면, 세상의 소란과 모든 뒤바뀜 한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 좋으신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높은 곳에서 평화를 이루신다는 이 말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 봅니다. 곧 그분이 당신의 모든 피조물의 고삐를 쥐고 계셔서, 어떤 변화가 보이든 다스리시기를 그치지 않으시고, 그분이 당신의 계획으로 모든 것을 이끄시듯 모든 것이 그분의 뜻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께 권능과 다스림과 놀람이 있는 것이 아주 마땅하다고 결론 내립시다. 곧 우리가 다스리시는 분께 하듯 그분께 경의를 드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경외와 두려움의 대상이 되시며, 우리가 온 공경으로 그분을 하늘과 땅의 주인이요 지극히 높은 주님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뜻 보면 이 말이 거의 쓸데없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짚은 것을 잘 따져 보면, 빌닷이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대해 가지신 이 다스림과 통치를 여기서 일깨우는 데에는 까닭이 있다는 것을 잘 볼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입에서 쉽게 굴

러다닐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에 관해 넉넉히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우리는 그분의 위엄을 깨닫지 못하고, 그분을 거의 우상으로 만듭니다. 물론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하기를 끔찍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CO 408 우리는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하고 그분 안에서 느껴야 할 능력을 그분께 돌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위엄을 이야깃거리로 삼고, 그분의 이름은 업신여기듯 우리 입에서 굴러다니며, 우리는 대개 웃음거리처럼 그분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더할 나위 없이 속되다는 것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될 때 모든 무릎이 꿇어야 하고 모든 피조물이 떨어야 하는데(빌 2:10 참조), 우리는 그분께 아무 공경도 겸손도 드리지 않을 만큼 대담합니다. 요컨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엄을 알지 못하고, 그분 앞에 자기를 낮추고 마땅히 그분께 복종하도록 그분의 능력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말할 때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 성품이 밝혀져야 합니다. 곧 사람들이 그분을 있는 그대로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그토록 자주 그분께 칭호를 붙여서 그분의 이름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분을 전능하신 분, 온전히 지혜로우신 분, 온전히 의로우신 분, 홀로 죽지 않음을 지니신 분(딤전 6:16 참조), 그리고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라 부르는 까닭이 이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둔해서 하나님을 그분께 합당하게 영화롭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깨우려는 것 말고 무슨 목적으로 말해지겠습니까? 요컨대 성경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마다, 그것은 우리의 배은망덕과 둔함을 꾸짖으려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그분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고, 우리 힘이 미치는 한 그분의 능력과 영광을 벗긴다는 것을 꾸짖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분을 있는 그대로의 분으로 여겨서 경배하고 그분 앞에 자기를 낮추며 그분께 합당하게 그분을 높이고 기리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그러하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높은 곳에서 평화를 이루시고, 세상을 그

렇게 다스리셔서 모든 것이 그분께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보이며, 어떤 고집과 반역이 있어도 그분이 끝내 당신의 뜻을 집행하기를 그치지 않으신다고 여기서 말할 때, 그것을 들으면서 우리가 늘 하던 대로 하나님을 가지고 놀려고 더는 잠들어 있지 말고 그분의 위엄 앞에서 떨기를 배웁시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 놓인 이 결론으로 돌아갑시다. 곧 그분께 지극히 높은 다스림과 두려움이 있다는 것, 곧 우리가 그분께 복종해야 할 뿐 아니라 온 두려움으로 떨어야 한다는 것, 그분이 그렇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셔서 우리가 그분께 대들고 그분이 하시는 일을 거슬러 따지거나 그분의 일에 흠잡을 것이 있는 것처럼 투덜거리는 그런 어리석은, 아니 미친 대담함을 갖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모든 사람의 입이 막힙니다(롬 3:19 참조). 사람들이 자기의 저주받을 주제넘음을 벗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떨기를 배우며, 모든 경의를 드려야 할 분이 그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CO 409 그리고 빌닷이 그분의 군대에는 수가 없다고 덧붙이는 까닭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분의 빛이 누구에게 비치지 않겠는가?" 하고 말합니다. 그가 그분의 군대에 수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덤비고 그분과 전쟁을 하려 할 때 그들은 미친 사람 이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나타내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그것을 고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하나님을 거슬러 투덜거리고, 그분의 심판에 성을 내고, 그분이 하시는 일로 언짢아하면서 그분과 전쟁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우리 위에 가지신 다스림과 통치는 무엇에 있습니까? 우리가 그분의 능력뿐 아니라 그분의 선하심과 끝없는 지혜, 그분의 의, 그분의 자비, 그분의 심판을 알아볼 때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질 때 우리는 그분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서 이치를 찾지 못하고, 그분을 잔인하다고 고발하거나, 참지 못해서 그분께 성을 내거나, 그분이 하시는 일에 걸려 넘어질 때, 그들이

그분에게서 그분의 신적 영광을 벗기려고 애쓴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분과 싸우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그분의 의와 선하심과 능력과 끝없는 지혜 안에서 영화롭게 하지 않을 때, 그것은 마치 그분께 도전장을 내밀고 그분을 거슬러 일어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죽을 사람이 누구에게 덤비는 것입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군대는 수가 없다고 합니다. 보십시오, 낙원의 모든 천사가 자기들을 빚으시고 지으신 분의 영예를 지키려고 무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도 벌레요 썩은 것일 뿐인 우리에게 이렇게 공격받는 그분의 위엄을 위해 원수를 갚으려고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하나님의 군대와 무리를 무슨 목적으로 말하는지 잘 새깁시다. 곧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슬러 투덜거리고 그분의 의를 거슬러 신성모독을 하려고 주제넘게 굴 때마다, 그들에게는 하늘에 있는 천사 수만큼 죽을 원수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수가 끝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또 모든 피조물이 그들에게 달려들려고 무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신 것이 거기서 당신의 영광이 빛나게 하시려는 것 말고 무슨 목적이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자원해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분께 속한 영예를 그분께 드린다면, 여기서 그분의 군대와 무리에 관해 하는 말은 그들을 겁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쁘게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명하실 것을 행하려고 준비된 수백만의 천사를 당신 주위에 두셨다고 들려줄 때(단 7:10 참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은혜로 받아 주셨을 때, 우리가 사방에서 포위당하더라도 그분이 CO 410 우리를 여기 아래에서 든든히 안전하게 지키시기에 충분히 강하시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 말고 무슨 목적을 향하겠습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힘을 펼치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이것저것을 꾸밀 때에도, 심지어 마귀가 우리를 거슬러 일어설 때에도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

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려고 당신의 하늘 군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34편(7절[49])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 진을 친다고 말하는 대로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당신의 천사들에게 우리를 인도하라고 명하셔서 신실한 사람이 넘어지지 않으리라고 말하는 대로입니다(시 91:11–12 참조). 그러니 우리는 끝없이 많은 천사가 우리를 위로하려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우리를 도우시리라는 것, 그리고 그분께 그렇게 하실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들이 하나님께 기대고 온 겸손으로 그분 아래 따르면서 많은 천사에게 보존되듯, 대드는 모든 자, 모든 교만한 자, 모든 반역하는 자는 그것으로 두려워해야 하고,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덤빌 때 많은 원수를 상대하고 있다는 것, 천사들 안에 있는 모든 힘이 그들을 짓누르려고 그들을 향해 돌아서리라는 것, 모든 피조물도 자기를 존재하게 하시는 분의 영광을 지키려 하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군대가 수가 없다고 말하는 이 말을 잘 간직합시다. 그리고 그 위에 사람들이 우리를 거슬러 아무리 모의해도 소용없으리라는 것을 알아봅시다. 그들이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모아도 더 강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이기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잘 어울려 다니고 우리와 닮은 사람이 많은 것을 볼 때 더는 속지 맙시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한순간에 하나님의 손에, 그분의 능력으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 혼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거나 멸하시기에 충분하시지만, 그분께는 또 당신의 군대가 있어서, 그것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장비처럼 준비되고 갖추어져서 그분 좋으실 때 우리를 거슬러 일어설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합시다. 그리고 (내가 말했듯이) 세상이 우리 편이고 우리를 지켜 줄 큰 힘이 있는 것을 볼 때 교만해지지 않기를 배웁시다. 여기서 우리에게 밝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면 그

49. 원문에는 "8절"로 되어 있습니다. 프랑스어 성경은 시편의 표제를 1절로 세므로, 한국어 성경의 절수로 바꾸었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사람들의 불신이 얼마나 눈먼 것인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골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낙원의 천사들이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위해 깨어 있어서 구원의 일꾼이 되게 하든지(히 1:14 참조), 아니면 그들이 우리의 상대편이요 죽을 원수가 되게 하든지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선하심과 은혜를 베푸셔서 당신의 천사들을 우리를 섬기도록 정하십니다(성경이 시편 91:11에서 말하는 대로입니다). 그분은 CO 411 우리가 그들로 무장되기를 원하시고, 동시에 그들이 당신의 능력이라고 선언하십니다. 마치 우리를 지키실 수 있도록 우리 위에 손을 펴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사들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그들이 우리를 모든 악에서 지켜 주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내놓아지는 그런 좋은 것을 스스로 골라낼 수는 없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좋은 것을 받기는커녕, 그분의 위엄을 업신여기면서 천사들을 자극하고 그들을 우리의 멸망과 수치를 위해 무장시킵니다. 그러니 우리가 천사들을 우리 구원의 일꾼으로 두기보다 원수로 두기를 더 좋아한다면, 우리가 완전히 분별을 잃었고 마귀가 우리를 홀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그분을 우리 머리로 경의를 드리기만 하면 우리를 돕고 인도하려고 준비되어 있는데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에 관해 우리에게 말할 때마다 그분 안에서 죽은 것을 상상하지 말고, 여기서 우리에게 밝히는 그분의 영광을 생각하기를 배웁시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둔하니, 하나님께는 당신의 군대가 있고, 당신의 명령을 집행하려고 준비된 끝없이 많은 천사가 있으며, 그다음에 모든 피조물이 아주 마땅하게도 그분께 순종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이어서 하나님의 빛이 모두 위에 비친다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조물들 위에 당신의 은혜를 그렇게 부으셔서 어디서나 그분의

선하심과 지혜의 어떤 불꽃이 보인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특히 사람들에게 한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보이는 곳이 바로 거기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이 1장(요 1:3–4 참조)에서 말하는 대로입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당신의 피조물들에게 존재를 주셨을 뿐 아니라, 그것도 당신 말씀의 능력으로 그것들을 그 형편대로 지키시려고 살리셨지만,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생명 속에 빛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짐승이나 나무나 땅의 열매가 가진 것보다 더 고귀하고 더 빼어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깨달음과 이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빛이 사람들 위에 비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그분께 매이고 빚을 졌는데 이 빛을 사라지게 한다면 우리가 그만큼 더 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17:27–28)에서 하는 말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곧 우리가 눈먼 사람처럼 더듬으며 다닌다 해도 하나님의 영광은 느껴지리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시니 그분을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고,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CO 412 힘과 존재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구절은 이렇게 풀이됩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 빛에 참여하는 자로 만드셔서 우리를 당신께 그렇게 매어 두셨으니,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없애려 애쓰고 그분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배은망덕한 자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느끼지 않고는 움직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은 그분에게서이고, 우리를 들짐승이 아니라 이성 있는 피조물로 만드신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할 분도 그분이십니다. 우리가 소나 나귀보다 나은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세우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이 아니라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추시는 이 빛은 우리에게 그만큼 많은 기회가 되어

그분의 영광을 높이고 그분의 손 아래 우리를 복종시키게 합니다.

이 구절에서 끌어내는 한 가지 뜻이 이것이고, 그것은 좋은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잘 살펴보면, 빌닷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과 이성을 주시려고 우리 위에 당신의 빛을 부으셨다는 것만 나타내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우리가 그분의 임재를 피할 수 없고, 우리가 그분 앞에서처럼 걸어야 하며, 그분이 모든 것을 보시고 말하자면 우리 위에 눈길을 두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빛이 사람들 위에 부어진 것은 이런 뜻입니다. 곧 우리가 그분의 임재에서 숨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가 이미 한 말을 이어 가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큰 군대처럼 당신을 섬기도록 갖추어진 천사들을 가지고 계신다고 말했듯이, 이제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의 임재를 피할 수 없으리라고 덧붙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개구리처럼 뛰어다니고 고삐 풀린 말처럼 굴 수 있다고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의 빛이 우리를 그렇게 비추어서, 우리가 죽을 사람을 상대하는 것처럼 그분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피할 수 있다고 여기는 그런 대담함에 부추김을 받을 때 이렇게 결론 내리기를 배웁시다. "정말인가? 우리가 어디로 가겠는가?" 그분의 눈길이 끝이 없으니 그분의 능력이 어디나 퍼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땅의 깊은 구렁에 들어간다 해도 그분은 우리를 보시고 표시해 두기를 그치지 않으실 것입니다(시 139:7–8 참조).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휘젓고 뒤섞고 많은 일을 꾀하고 공모해도 늘 그분과 그분의 눈길에 지켜보이고 있으니 아무 소용이 없으리라는 것을 알고, 더는 하나님을 거슬러 일어설 만큼 어리석지 맙시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에서 꽤 흔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잘 간직하지 못하고, 적어도 우리는 그것을 아주 잘못 실천합니다. 그렇다는 증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CO 413 우리가 하고 말하는 모든 것이 그분께

적혀 있다는 것이 우리 기억에 떠오른다면, 묻겠습니다, 우리가 지금보다 다른 두려움과 조심으로 걷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람들만 두려워합니다. 여기 아래에 증인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아무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악한 탐욕에 고삐를 풀어 주는 까닭이 이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영이 그들 안에서 다스리지 않으니, 아무도 그들을 꾸짖지만 않는다면 가증스러운 것을 품고 그것을 자기 안에서 계획해도 그들에게는 아무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비추신다는 것을 자기 눈앞에 두는 사람은 아주 적습니다. 그들이 이 빛을 기억한다면 그것이 그들의 모든 악한 애정을 억누르고, 그들을 부풀게 하는 그 모든 망상에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리라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람들을 부끄러워한다면 모든 사람의 재판장이신 분은 우리를 얼마나 더 움직여야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판단한다 해도 그것은 그들의 권위나 그들 자신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께만 속한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려는 것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분께 아무 공경도 드리지 않을 것이고, 그분의 진노를 우리에게 불러일으키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위에 당신의 빛을 부으셨다는 이 교훈을 잘 간직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온 양심의 깨끗함으로 걷게 하는 좋은 고삐가 되어서, 우리가 겉으로 사람들에게 저지르는 잘못뿐 아니라 우리 안에 감추어진 모든 악과 모든 위선을 바로잡게 하리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요컨대 우리가 이 말에서 간직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빌닷은 이렇게 말한 뒤에 “그러니 하나님과 비교하면 사람이 무슨 의를 자기에게 돌리겠는가?” 하고 덧붙입니다. 글자 그대로는 “하나님과 함께“입니다. “그리고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떻게 자기를 무죄로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우리가 자기를 높이 평가하고 우리 안에 어떤 의나 덕이나

칭찬받을 만한 무엇이 있다고 스스로 믿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보여주는, 정식 소환장과 같습니다. 숲 한가운데 있는 강도는 사법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앞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에 자기 죄에 대한 그런 감각을 새겨 두셔서 그들이 스스로 자기를 판단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으니, 그는 늘 어떤 두려움을 지니고 다닙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 위에 강도들은 즐거워하며, 가련한 나그네를 붙잡을 수만 있다면 만나는 대로 목을 따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그들이 꼼짝없이 붙잡혀서 자기들의 품삯이 준비된 것을 볼 때, 그때 그들에게는 더는 그 대담함이 CO 414 없고, 그들이 짐승처럼 빠져 있던 그 광기도 더는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셈해 드려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끝없는 권능과 그분 안에 있는 다스림을 깨닫지 못하는 동안에는, 우리 안에 그런 오만이 있어서 구름 위로 자기를 높이는 데 아무 힘도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가 우리에게 의를 말하면 우리는 쉽게 우리 안에서 그것을 찾을 것이고, 우리 악덕이 우리에게는 덕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신 앞에 소환하시고 억지로 거기로 끌어당기실 때까지, 자기를 있는 그대로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그런 대담함에 취해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를 안다면 더는 자기를 높이 평가할 일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빌닷은 특히 "죽을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의롭게 될 수 있겠는가?" 하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게가 큽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있는 동안에는 자기 덕을 잘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저마다 '나로 말하면 나는 선한 사람이다' 하고 말할 것이고, 심지어 저울에 올라갈 때면 자기를 남들보다 훨씬 더 높이 평가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이런 것이 있고, 저런 악덕이 있다. '" 우리는 남들을 깎아내리려고 놀랍도록 잘 감시할 줄 압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는 우리 연약함은 고백하려 하지 않고, 우리 힘이 미치는 한 그것을 덮습니다. 그리고 어떤 작은 덕 한 방울이라도 있으면(적어도

그렇게 보이는 것이 있으면 말입니다. 우리가 곧 말하겠지만 그 모든 것은 연기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셔서 우리를 입히시려고 당신 옷을 벗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오만이 이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자기들끼리만 바라보는 동안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르러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고, 우리가 위선과 거짓에 휘감겨 있도록 두지 않는 그분의 위엄에 겁을 먹고 우리 삶을 살피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는 얼마 동안 우리를 속였던 그 모든 어리석은 자랑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니 여기서 우리에게 밝히는 대로, 우리가 교만의 시험을 받고 자기를 높이 평가할 만한 어떤 덕이 있다고 여길 때, (말하건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소환하기를 배웁시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거기로 끌고 가시기를 기다리지 말고, 저마다 자기 자신에게 이 일을 합시다.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밟아야 할 절차를 보여 주십니다. 그러니 사람은 늘 자기에게 자랑할 무엇인지 모를 것이 있다고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리석음과 오만을 바로잡으려면 "너는 누구냐?" 하고 살펴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인지 알려면 하나님께로 갑시다. 사람은 자기 안에서만 자기를 바라보는 동안이나 이웃과 자기를 비교하는 동안에는 결코 자기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눈을 위로 들고, CO 415 모든 것을 아시는 분, 하찮은 잡동사니로 만족하는 죽을 사람들과 같지 않으신 분, 그 앞에서는 우리가 여기서 크게 값지게 여겨지는 모든 하찮은 것들 같은 우리 조개껍데기를 내세울 수 없는 분의 심판대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셈에 넣을 때 우리는 자기를 압니다. 그러니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라진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때 우리는 자기를 낮추어 따르고 더는 그런 교만으로 그렇게 높아지지 않기를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 곧 여자에게서 난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겠는가?" 하고 말하는 까닭이 이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이치에 이

르게 하고 그들이 스스로를 속이는 그 헛된 신뢰를 완전히 벗게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은 없으니, 여기서 빌닷은 또 덧붙입니다. 곧 달에 이르기까지 빛나지 않을 것이고, 별들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지 않을 것인데, 벌레일 뿐인 사람, 썩은 것일 뿐인 사람의 아들은 어떻겠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여러 가지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달에 이르기까지 빛나지 않으실 것이라거나, 아니면 그분이 당신의 장막을 치지 않으실 것, 곧 그 가까이 오시려고도 하지 않으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별들이 깨끗하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큰 고귀함을 보는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고 그 거리가 너무 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특히 위에 있는 피조물들이 여기 아래의 피조물들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어떻든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달과 별들에게서 너무 멀리 떨어져 계셔서 끝없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겠습니까? 그런데 이 뜻은 꽤 알맞습니다. 실제로 "빛나다"로 받아들이든 "장막을 치다"로 받아들이든 모두 같은 데로 돌아옵니다. 요컨대 빌닷이 나타내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피조물들을 당신 앞에 부르려 하신다면 달에 더는 빛이 없을 것이고 별들은 어두워지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세상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위엄이 앞으로 나오실 때 그 모든 것은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자기를 기뻐하고 자랑하라고 해 보십시오. (흔히 말하듯) 달을 이로 물거나 별들 위로 올라갈 만큼 우리를 그렇게 높이 올려 줄 날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우리 안에 무엇이 있다고 여기는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오시면, 그분의 헤아릴 수 없는 영광에 모든 것이 삼켜지고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사람들이 자랑하려 할 때 어디에 있는지 봅니다. (말하건대) 사탄이 그들을 완전히 홀린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들이 별들 위로 날아다니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CO 416 그렇게 할 만큼 재주가 있습니까? 사람이 네 걸음만 위로 몸을

던지려 해도 그것은 온몸의 힘줄이 끊어진 뒤 목이 부러지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랑할 무엇이 있다고 여길 때마다 우리는 그런 도약을 하니, 말하자면 그것은 사람들에게나 천사들에게나 목이 부러질 일입니다. 그러니 (내가 말했듯이) 우리가 미친 사람 이상이 아니겠습니까? 빌닷의 의도가 이것입니다.

그 밖에 어떤 이들이 이것을 월식으로 풀이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뜻은 더 단순합니다. 곧 가장 고귀하고 심지어 어떤 신성을 지닌 것처럼 보이는 피조물들도 하나님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 모든 것은 낮아지고 하나님께서는 온전하신 채로 남으셔야 한다는 것, 그리고 오직 그분 안에만 의와 능력과 지혜가 있고 나머지는 모두 헛됨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나 경험은 해도 별들도 어둡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것들이 가진 빛은 다른 데서 빌려 온 것이라는 것을 새겨야 합니다.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거기서 보여 주시는 당신 영광의 작은 불꽃들과 같습니다. 그러니 해도 달도 별들도 그것을 자기 것처럼 자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맞은편에 오시면 이 빛은 나머지 모든 것과 함께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해가 별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어둡게 만든다면,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빛은 어떻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빌닷의 의도를 얻었습니다. 그는 "그렇다, 달에 이르기까지 빛이 없을 것이고, 별들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온 세상에 빛이 퍼져 있는 것을 보고, 우리 눈은 그 빛을 받고 누린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기는커녕, 우리가 달과 하늘의 모든 별의 몸에까지 간다 해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어두워지고 사라질 것이다." 이제 사람들로 옵시다. 그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의 덕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무엇을 자랑할 수 있습

니까? 그들은 벌레요 썩은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그 위에 그들은 자기를 의롭다 하려 할 것입니다. 이제 이 가르침을 실천하여 우리 쓰임에 적용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칭찬받을 만한 것을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러니 여기서 사람들은 모든 선에서 비어 있고, 그것으로 자기를 내세울 수 있는 의가 한 방울도 없으며, 오히려 자기 안에는 온갖 가난과 비참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정죄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선언됩니다. 그런데 이 CO 417 가르침이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면, 우리는 오늘 교황주의자들과 그렇게 많은 싸움과 논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 쪽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자기를 준비시킬 어떤 힘이 있는 것처럼 자기들의 자유의지를 높이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은 우리가 연약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그분 성령의 은혜로 인도받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는 고백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사이에 그들은 사람들에게 어떤 준비를 돌리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도우려고, 함께 일하려고 하나님의 협력자라고 합니다. 요컨대 그들은 그분의 동료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들이 그런 기초를 놓았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자기에게 돌려야 해서, 사람들을 그들의 덕과 공로로 높이는 것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셔야 한다는 것을 늘 고백하더라도, 오, 그래도 그들은 오줌보에 바람을 넣어 부풀게 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곧 그들은 자기가 공로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당신의 은혜에 합당할 수 있는 만큼 그들을 받아 주시며, 늘 그들의 덕을 돌아보신다고 스스로 믿으려고 이 마귀적인 가르침을 들이켭니다. 그러니 교황제에서 판치는 이 마귀적인 망상 때문에 사람들은 이렇게 바람으로 부풀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모자라면, 오, 우리에게는 여공(餘功)의 행위가 있어서 우리 죄에 대해 하나님께 속상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께 죄를 지었고 그분이 우리 잘못을 용서하시리라는

것을 알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그분께 어떤 갚음, 어떤 속상을 가져갈 수 있다. 그것이 그분과 화목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빌닷이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 주고 우리가 앞에서 본 것이 잘 알려져 있다면, 그 모든 논쟁은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교황주의자들에게는 사람들의 의와 공로와 속상과 자유의지를 이렇게 대충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들을 그들 자신의 덕으로 의롭다 하려는, 자기들이 지어낸 헛된 상상 속에 잠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구절을 잘 새겨야 합니다. 그러니 결론으로 이것을 새깁시다. 우리가 우리 양심을 하나님 앞에 소환할 수 있을 때, 그것은 우리를 낮추어서 더는 우리 자신에게서 아무것도 자신할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고, 우리가 벌레요 썩은 것일 뿐이며 우리 안에는 온갖 더러움과 악취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남습니까? 우리 구원의 길에 관해 우리에게 말할 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신뢰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바라보기를 배웁시다. 곧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순전한 선하심으로 우리를 받아 주셔서, 당신의 성령으로 우리의 모든 얼룩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씻으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흘리신 그분의 피로 우리를 씻으셔서, 이 방법으로 우리를 그렇게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셔서 우리가 당신의 얼굴 앞에 설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엎드립시다.

제95편

욥기 26장 설교 1

CO 34:418–430

AI로 옮긴 초벌 번역입니다. 신학 감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CO 권: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 욥이 대답하여 말했네. 자네가 누구를 도왔는가? 힘없는 자를 도왔는가? 기운 없는 팔을 구원했는가? 지혜 없는 자에게 조언했는가? 자네는 그 일을 제대로 말하는군! 자네는 이 말을 누구에게 들려주는가? 누구의 영이 자네에게서 나왔는가? 죽은 것들이 물 아래와 그 이웃한 곳들에서 빚어지네. 깊은 구렁이 그분 앞에 벌거벗었고, 멸망에는 덮개가 없네. 그분은 북쪽을 빈 곳 위에 펴시고, 땅을 아무것도 없는 것 위에 세우시네. (욥 26:1–7)

CO 418 우리는 이 책 첫머리에서, 사도 바울이 좋은 교사에게 요구하는 덕이 욥을 위로하러 온 사람들에게 없었다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딤후 2:15 참조) 그것을 그 바른 쓰임에 그만큼 지혜롭게 적용해서, 약한 사람은 굳세게 되고, 괴로움에 빠진 사람은 기뻐하게 되며, 미지근한 사람은 자극을 받고, 길을 잃은 사람은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덕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밝혔듯이) 욥의 친구들이 일반적으로 좋고 거룩한 가르침을 다룬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것을 욥이라는 사람에게 잘 적용하는 이 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저마다 거기서 하는 말을 좋은 쓰임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잘 새깁시다. 이것은 CO 419 본문을 한 점 한 점 풀이할 때 더 잘 이해될 것입니다. 욥은 여기서 빌닷에게 “자네의 모든 말로 무슨 유익을 얻었는가?” 하고 묻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가 누구를 도왔는가? 약한 사람을

도왔는가? 힘없는 팔을 구원했는가?"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좋은 가르침은 허공에 던져서는 안 되고, 그것이 향하는 사람에게 알맞은 가르침을 가져다주어야 한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완전히 쓰러지고 너무 겁에 질려서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을 보는데, 그에게 거칠게 굴고 그를 향해 호통을 친다면, 묻겠습니다, 그것은 그를 완전히 절망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자기 죄에 굳어진 사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 심지어 모든 경고를 비웃는 사람을 보는데, 그에게 비위를 맞추고 부드러운 말로 그를 대한다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김에 내맡기기보다는 차라리 입을 다무는 편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고집 세니 오히려 모루에 망치를 내리치듯 세게 쳐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욥은 여기서 빌닷이 하나님의 권능을 말한 것이 헛되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그는 "그것은 엉뚱한 말이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보라. 자네가 내게 말을 하니, 지금 내게 유익한 것을 돌아보아야 한다. 그러니 그런 지혜를 가졌어야 했고, 여기서 자네 말을 아무렇게나 던져서는 안 되었다."

이제 우리는 욥이 무엇을 말하려 했는지 더 잘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유익을 얻을 줄 알 때 그 말씀의 유익이 무엇인지 새겨야 합니다. 여기서 그 말씀이 약한 사람들을 강하게 하고 일으켜 세워야 하며, 힘없고 완전히 쓰러진 사람들을 지켜 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도 히브리서(12:12)에서 이사야의 구절을 들면서 이 쓰임을 잘 짚습니다. 곧 떨리는 다리를 굳게 하고 약한 팔을 강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책임을 맡은 사람들에게 이 직무를 돌리기 때문입니다. 그는 "가서 가련한 약한 자들을 굳세게 하고, 떨리는 다리와 걸을 수 없는 무릎을 강하게 하라"(사 35:3 참조) 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에 교사로 세우시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혀에 맡겨진 말씀

밖에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는 사람들 안에 있는 연약함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떨어서 스스로 버틸 수 없을 때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분은 우리에게 그런 활력을 주셔서 우리가 되살아난 것처럼 됩니다. 전에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는데 이제 우리는 걷고, 전에는 부러진 것 같던 우리 팔을 선을 행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 CO 420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쓰이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연약함 가운데서 그 말씀으로 강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우리의 모든 약함을 바로잡는 그 처방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모르는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 잘못으로 우리에게 쓸모없게 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가르치는 책임과 직무를 맡은 사람은 자기가 말하는 청중이 어떤 사람들인지 잘 살펴야 합니다. 그들이 느슨하고 식어 있는 것을 보면 그들을 찔러야 하고 권면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용기가 없다면 그래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많은 사람이 거기서 흔들리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믿지 못하고, 사람들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여 거기에 기댈 수 있게 해도 겁을 먹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나뭇잎 하나 떨어지는 소리만 들어도 그들은 흔들립니다. 그들은 너무 겁이 많아서 날마다 굳세게 해 주지 않으면 결코 그들이 넘어지거나 꺾이지 않고 서 있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교회에 교사로 세워진 사람은 청중이 느슨하거나 굼뜨면 그들을 권면하고 용기를 주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결코 모자라지 않으신다는 것을 일깨워서, 그들이 그분을 부르고, 부른 뒤에는 그분의 도우심을 누리며 담대하게 걷게 하는 이 헤아림과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그 밖에 남을 가르치는 우리가 이 목적을 향해야 하듯, 저마다 자기 자리에서 같은 일을 해야 합니다. 사도가 말하는 대로입니다. 그는 이 구절을 모든 개인에게 적용하여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이여, 선지자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전하도록 택하신 사람들이 약한 자

들에게 활력과 힘을 주어야 하고 그들을 바른 길로 걷게 해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을 살피십시오. 저마다 자기가 약하거나 미지근하고, 자기 불신이나 지나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데 방해를 받는 것을 볼 때 힘을 내고, 스스로를 강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서 활력을 찾으러 오십시오. 여러분의 악덕 속에서 자기를 달래지 마십시오. 연약함을 느낄 때 '나는 연약하다' 하고 말하지 말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처방을 찾으십시오. 와서 읽고 거기 담긴 약속들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겠다고, 그들이 힘을 잃을 때 당신의 영 안에 넉넉한 능력이 있다고 어떻게 선언하시는지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에게서 그런 도움을 기다리고, 그것을 기다리면서 늘 이 신뢰 가운데 걸으십시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욥이 여기서 빌닷이 허공에 쏟아 놓은 모든 말이 쓸모없는 소리일 뿐이었다고 꾸짖는 것에서 어떻게 유익을 얻어야 하는지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그것은 약한 사람을 강하게 하고, 부러진 것 같던 팔을 구원하고 지켜 주려는 것이 아니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CO 421 우리가 팔이 부러지지도 무릎이 떨리지도 않고,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데 힘쓸 활력을 가져서 선을 행하는 데 날래고 기꺼이 준비되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유익을 얻은 것임을 잘 새깁시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좋은 학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느슨하고 미지근해서 넘어지거나 꺾이지 않고는 한 걸음도 걸을 수 없는 동안에는, 우리가 이 하늘 학교에서 유익을 잘못 얻었고 그것이 우리 잘못에서 온다는 것을 새깁시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를 강하게 해서 우리가 더는 약하지 않게 하는 본성과 성질이 있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때문에 막히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그러니 가르치는 책임을 맡은 사람들은 늘 그 목적을 향해야 하고, 저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설교에 올 때 자기 개인의 처지를 헤아리는 이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자, 나는 약하다. 나는 새 활력을 얻어야 한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는 이 처방을 받으려고 귀를 기울여야 한다.” 요컨대 저마다 자기 병을 아는 만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시는 것을 행하려고 애쓰고, 그것을 고치려고 그분의 약속을 끌어안아야 합니다.

욥은 이렇게 말한 뒤에 “자네가 누구에게 조언했는가? 지혜가 모자란 사람에게 했는가?” 하고 덧붙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관해서는 특히 그것이 무지한 자들과 작은 자들을 가르치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시 19:7 참조[50]). 그리고 이것은 율법을 단순하게 풀이한 것일 뿐인 성경 전체에 미칩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온 말씀이 이렇게 쓰이기를 원하십니다. 곧 우리가 가련한 눈먼 사람이고 우리 안에는 무지밖에 없으니, 우리가 신실하게 가르침을 받아서 더는 헤매지 않고, 요컨대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두세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지혜가 있고 자기를 다스릴 줄 알 만큼 슬기롭다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사람들은 자기의 타고난 정신을 그렇게 자신할 만큼 어리석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오만을 비웃으시고, 그들의 그 훌륭한 주제넘음에는 헛됨밖에 없다는 것을 잘 보여 주십니다. 그분은 지혜로운 자들을 그들의 꾀에 빠뜨리셔서(고전 3:19; 욥 5:13 참조) 그들이 자기 생각대로 걸으려 했을 때 스스로 속았다는 것을 보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우리 모두가 가련한 눈먼 사람 같다는 것, (말하건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학교에서 유익을 얻을 때까지 사람들 안에는 무지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봅시다. 그런데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분의 말씀 안에 지혜의 모든 완전함이 있으며, 그 말씀이 무지한 자들을 가르치려는 것이라는 이 칭호가 헛되이 붙은 것이 아님을 압시다. 그래서 욥은 특히 빌닷이 CO 422 지혜가 없는 자에게 조언하지 않았다고 꾸짖는 것입니다. 마치 그가 가르침을 마땅히 지혜롭게 적용할 줄 몰랐으니 그것을 더럽혔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런

50. 원문에는 장절 표시가 없습니다. 한국어 성경 절수로 적었으며, 프랑스어 성경으로는 8절입니다.

꾸짖음이 우리를 향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좋은 가르침이 되게 그것을 쓰기를, 그리고 그런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가 더는 헤매고 길 잃은 가련한 짐승 같지 않게 되기를 배웁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을 가르치는 이 직무를 맡기신 사람도, 무슨 일이 있든지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과 그분의 입으로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잘 살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의 무지를 깨우쳐 주실 때까지 그들은 자기 안에서 자랑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교만을 낮추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슬러 일어서는 모든 높은 것을 낮추는 데 쓰여야 한다고 말할 때 그렇게 말하고(고후 10:5), 또 고린도전서(3:18)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학교에서 지혜로워지려면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대로입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에게는 이상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첫걸음이고, 우리가 평생 계속해야 할 교훈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의 사역자들은 사람들에게 그들 안에 계획도 지혜도 없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더는 자기 힘이나 이성을 믿지 않고, “나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잘 안다” 하고 말할 만큼 오만하지 않게 하고, 오히려 모두가 자기를 어리석은 자처럼 여기게, 곧 자기 안에 헛됨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지혜가 한 방울이라도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기하셔서 우리를 온전한 채로 두지 않으실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 유익을 위해 우리 오만을 낮추려 하십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하고 작아져서 오직 그분만을 높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에 완전히 복종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의 사역자들이 이 끝, 곧 사람들에게 그들이 지혜를 완전히 갖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 주는 데서 시작하지 않고는 결코 백성을 세울 수 없으리라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저마다 자기 자리에서 이 경고를 받아들여야 하고, 우리에게 모든 지혜가 모자라고 우리가 그것에서 비어 있다는 것을 알면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으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하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밝히 시도록 맡기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모든 것을 받으려고 준비하여 그분께 그것을 구할 때, 우리가 넉넉히, 그리고 온전한 완전함으로 가르침을 받지 못하리라고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입으로 다스림을 받도록 맡기는 이 지혜를 가질 때, 우리는 거기서 흠잡을 데 없는 온 지혜의 참된 완전함을 가질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CO 423 성령께서 좋은 가르침의 고유한 직무요 참된 본성이 지혜와 이성이 모자란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선언하실 때 거짓말을 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끝으로 욥은 빌닷이 엉뚱하게 말했다고 꾸짖습니다. "자네는 그 일을 제대로 말하는군!" 하고 말하면서, 그는 빌닷의 말이 그가 다루어야 할 일에 맞추어지거나 재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새겨 둘 만한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허공을 날아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저 솥 둘레만 맴돌면서 에둘러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듯 일반적인 이야기만 늘어놓고 가르침을 마땅히 유익하게 적용할 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가 여기서 반나절을 보내며 책의 절반을 풀이했는데, 여러분과 여러분의 유익과 덕 세움은 돌아보지 않고 여기서 허공에 대고 사변을 늘어놓으며 많은 것을 뒤죽박죽으로 다루었다면 어떻겠습니까? 저마다 성전에 온 그대로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럽혀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아무 쓰임이 없게 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기서 하는 말을 잘 간직합시다. 곧 우리가 하는 말을 확실한 목적에 맞추어야 하고, 어떤 주제를 다룰 때 알맞게 말하며, 일들을 제 순서대로 정리할 줄 알아서 아무 혼란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내가 이미 말한 대로, 슬퍼하고 괴로워하며 양심에 걸리거나 어떤 큰 소란을 겪는 사람들을 위로하려 한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내놓아서 그들을 위로할 방법을 찾아야 하고, 처방을 적용하려면

병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 안에 있는 거만함과 반역을 꺾으려 한다면, 하나님의 원수 갚음이 어떠한지 보여 주고, 그들이 이를 갈더라도 그것을 비웃을 일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해야 합니다. 그분은 당신의 입김으로 모든 것을 삼켜 버리실 수 있는 분이고, 모든 것을 없애 버리는 벼락과 같으시기 때문입니다. 괴로움을 당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고난을 평온하게 견디지 못하거나, 믿지 못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인내를 권하려 한다면, 거기에 알맞은 논거를 찾아야 합니다. 많은 것을 뒤죽박죽으로 말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의사에게 가서 어떤 병의 처방을 청했는데 의사가 자기 의술을 일반적으로 다루며 그것에 관해 논쟁하는 사이에, 곧바로 손을 썼다면 되살아날 수 있었던 가련한 환자가 숨을 거두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말이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석수에게 가서 CO 424 어떤 건물을 맡겼는데, 그가 성을 쌓는 일을 논하고 허공에 큰 건물을 세울 것을 내놓으며 어떻게 할지 논쟁하면서 그 사이에 지금 할 일은 돌아보지 않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변호사에게 가서 어떤 소송에 관해 조언을 구했는데 그가 법을 일반적으로 논하고 일을 지금 사건으로 좁혀 오지 않는다면 똑같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룰 때 이리저리 떠돌지 않도록 확실한 목적을 가져야 하고, 우리가 무슨 목적으로 말하는지 알고 옳게 분별해서 우리 말이 엇나가거나 이리저리 헤매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을 잘 새깁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많은 좋은 것을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 모든 좋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욥이 여기서 보여 주려 한 것이 이것입니다. 그는 좋은 가르침을 그 쓰임에 맞게 쓰는 이 지혜를 갖지 못한 빌닷의 경솔함을 꾸짖습니다.

그런데 그는 더 무게 있는 말을 또 합니다. 그는 "자네는 이 말을 누구에게 들려주는가? 누구의 영이 자네에게서 나왔는가?" 하고 말합니다. "자네는 이 말을 누구에게 들려주는가?" 하고 말하면서, 그는 우리가 이미 밝혔듯

이 가르침이 향하는 사람들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나는 여기에 나 혼자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함께 유익을 얻어야 합니다. 내가 강단에 오를 때 그것은 남들만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고, 나는 따로 물러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나도 학생이어야 하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여러분에게처럼 나에게도 쓰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내가 나 자신이 배부른 것으로 만족하고, 내가 전하는 가르침이 쓰이게 하려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깜냥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맞추는 이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당신의 심부름꾼이 되는 이 직무에 세우실 때 우리를 당신의 백성에게 매어 두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당신의 교회에 결합시키셔서 우리가 거기에 눈을 두어야 하게 하십니다. 그러하니 우리가 눈을 감고 우리가 말하는 사람들을 아무것도 헤아리지 않은 채 우리 말을 허공에 던진다면, 그것은 너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남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르치는 책임을 맡은 사람들은 온 백성에게 말할 때 어떤 가르침이 좋고 유익할지 살펴서, 그것이 모두의 공동 유익이 되도록 신실하게, 좋은 분별로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잘 새깁시다. 우리에게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뒤범벅을 만들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맛도 향도 없을 만큼 뒤섞인 죽으로 만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가르침을 받으러 오는 사람이 무엇을 구하는지 우리가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CO 425 그가 자기 육적인 욕심대로 구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에게 알맞고 그에게 쓰일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욥이 여기서 하는 "누구의 영이 자네에게서 나왔는가? "라는 말을 풀이합시다. 물론 사람들은 이 구절을 마치 "자네는 어떤 영으로 말하는가? 하나님의 영인가, 사람의 영인가? "라고 말하는 것처럼 풀이했습니다. 그리고 이 뜻을 완전히 물리칠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누가 구원의 가르침을

전하는 일을 맡는다면, 그는 여기서 사람이 자기를 내세울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자기의 타고난 감각으로 나서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으로 자기를 다스려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셨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보도록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힘을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전 2:4 참조). 그러니 그것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본문의 흐름을 살펴보면, 욥은 오히려 이미 짚은 것을 따라 빌닷의 말이 그의 영혼을 살리지 못했으니 잘 짜인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 주려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켜보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무지한 사람들을 가르치고 약한 사람들을 강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말씀은 느슨하고 안에 미지근함과 게으름밖에 없는 사람들을 권면하고, 자기 잘못 속에 잠든 사람들을 꾸짖으며,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찌르고, 방탕한 사람들을 바로 세웁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보다 더한 것, 곧 그 말씀이 죽은 자들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욥이 "누구의 영이 자네에게서 나왔는가?", 곧 "자네 말의 힘으로" 하고 말하면서 보여 주려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걸어갈 용기를 주고, 우리 연약함 가운데서 우리를 강하게 하며, 우리가 다리가 부러졌을 때 날래게 하고, 전에는 모든 힘이 없던 우리를 굳세고 튼튼하게 할 때 그 말씀이 마땅히 다루어진 것임을 잘 새깁시다. 그러나 그 말씀은 우리가 죽음에 있는 것 같을 때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특히 복음에 관해 하는 말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요한복음 5장(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때가 왔으니, 인자의 음성을 산 자들이 아니라 죽은 자들이 들을 것이다."[51] 그러면 그들은 누구입니까? 아무도 거기서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우리 안에서 당신의 가르침이 힘을 내게 하기 시작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붙잡혀 있던 이 영적인 죽음에서 우리를 끌어

51. 한국어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칼빈은 "인자"로 인용했습니다.

내시는 것으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시기 전에는 우리가 눈멀어 있고, 그분이 우리 귀를 열어 주시기 전에는 우리가 귀먹어 있으며, 그분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전에는 우리에게 영혼도 마음도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어떤

CO 426 생명의 겉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신자들처럼 먹고 마시고, 그다음에 자기 일을 처리할 수 있으며, 심지어 흔히 그들 안에 훌륭한 덕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으니 그들 안에는 죽음밖에 없고 온통 혼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께 끌어당기실 때 우리를 죽음에서 끌어내셔야 하고, 우리 안에서 당신의 말씀이 힘을 내게 하시려면 그 끝에서 시작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강하게 하실 때까지 그들의 힘이 어떠한지 살펴봅시다. 그들은 자기를 신뢰합니다. 곧 자기 목을 부러뜨릴 갈대에 기대고 있습니다(사 36:6 참조). 심지어 그것은 마치 사람이 창끝에 몸을 기대려는 것과 같습니다. 끝이 뾰족하고 심지어 끝에 쇠를 박은 막대가 있는데 사람이 거기 와서 기대면 그는 꿰뚫리고 맙니다. 우리가 우리 힘에 두는 신뢰가 그런 것이어서, 그것은 우리에게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끌어내실 때까지, 그것도 당신 말씀의 방법으로 그렇게 하실 때까지 우리 안에는 생명이 한 방울도 없다는 것을 잘 새깁시다.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는 모든 믿지 않는 자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한지 봅니다. 물론 그들은 자기들의 방종에 너무 취해서 자기 악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더 나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동안 우리는 죽었고 완전히 잃어버린 바 되었으며 우리 안에는 온갖 불행밖에 없다고 선언할 때 늘 참된 것으로 드러날 것입니다(엡 2:1 참조).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는 세상의 배은망덕이 어떠한지 봅니다. 살아나고 생명을 얻도록 자기를

맡기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이 모두에게 전파되고 널리 알려지기를 원하실 때 우리에게 이 좋은 것을 내놓으십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생명이 내놓아지는데 우리는 그것을 물리칩니다. 곧 대다수가 거기서 물러나서 자기가 누릴 수 있었던 그런 좋은 것을 밀어낸다는 것이 보입니다. 그것은 너무도 추한 배은망덕이 아닙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정신이 나갔다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래도 복음에 따르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얼마나 적은지 보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거슬러 신성모독을 하거나 그것을 비웃기만 하고, 아니면 거기서 탈선하며, 들짐승보다 다루기 어려울 만큼 미친 듯이 하나님을 거슬러 일어서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니 구원의 좋은 가르침을 받는 사람의 수가 그렇게 적고, 대부분이 거기서 멀어지며, 어떤 이들은 (내가 말했듯이)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어떤 이들은 그것을 비웃고, 어떤 이들은 그것을 거슬러 그런 광기로 일어서서 자기 안에 하나님을 거스르는 불경건밖에 없다는 것을 잘 드러내는 것을 볼 때, 그것으로 사탄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홀렸는지 보입니다.

CO 427 어떻든 우리는 영이 우리에게서 나와야 한다고 말하는 이 구절을 잘 새겨야 합니다. 곧 전에는 우리가 죽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활력을 주어서, 전에는 잠들어 있었을 뿐 아니라 완전히 꺼져 있던 우리 영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죽을 사람의 입으로 말해지는 한 스스로는 이것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려면 그 말씀이 먼저 생명을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내가 말할 때 마음을 건드리는 것도, 내가 내놓는 가르침을 저마다에게 들어가게 해서 그가 하나님께 오도록 움직이게 하는 것도 내 손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성령으로 당신의 말씀이 힘을 내게 하셔야 하고,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가 뿌리를 내리고 우리에게 썩지 않을 생명의 씨앗이 되기 전에 그것을 살리셔야 합니

다(벧전 1:23 참조). 그러니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한 당신의 가르침이 힘을 내게 하시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비밀스러운 능력으로 이렇게 일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모자람은 어디서 옵니까? 우리에게서 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귀를 뚫어 주셔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그분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마음이 돌처럼 굳고 반역으로 가득하니, 그분이 그것을 부드럽게 하셔서 살처럼 만드셔야 합니다(겔 36:26 참조).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내가 말한 이 힘과 성질, 곧 우리 영혼을 살리는 힘과 성질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52] 그리고 이것을 놀라워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무슨 목적으로 당신의 말씀이 전파되도록 정하시고 원하셨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당신께 이끄시고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려 하며, 그뿐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생명의 샘이시고 우리 안에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의 방법으로 우리를 당신과 당신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로 만드시고, 우리 안에 거하려 하시며, 심지어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도록 우리 안에 사신다면, 그것이 우리가 말한 그 부활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요컨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겉모습을 가져도 비참한 자 이상이고, 우리 안에는 저주밖에 없으며, 생각으로는 어떤 활력이 나타나 보여도 우리의 가련한 영혼은 죽어 있다는 것을 알아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께 거두어 주시는 만큼 우리가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그분은 그것을 당신 말씀의 방법으로 하십니다. 이 보물이 그런 것이고 그토록 헤아릴 수 없는 것임을 보면서, 그것을 귀히 여기고 그것에 합당한 대로 그 값을 인정하며, 우리의 배은망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놓으시는 그분의 능력과 효력을 우리에게 느끼게 하시는 것을 막지 맙시다. 그러니 요컨대 욥의 이 머리말에서 우리가 새겨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52. 전자텍스트에는 “mortifier“(죽이다)로 되어 있으나, 문맥에 따라 “vivifier“(살리다)로 보고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어서, CO 428 자기도 하나님의 권능에 관해 많은 것을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이 무엇에 관련되는지 알아야 한다고 덧붙입니다. 말이 그렇게 허공에 매달려 있다면 차라리 입을 다무는 편이 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논하는지 살펴야 하고, 사람들이 그런 가르침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니 욥은 여기서 그것이 (흔히 말하듯) 문제의 핵심이 아니었고, 빌닷은 자기 말에서 헤매기만 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뒤에서 다루어질 것처럼 다른 점으로 나아갔어야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그는 빌닷이 말한 이 능력을 자기도 모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지, 그리고 그분 안에 있는 그런 능력과 위엄이 우리에게 두려워야 하며 우리가 온 공경으로 그분께 나아가 경의를 드리고 그분께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물론 이 가르침은 그 자체로 아주 유익하고, 그것이 일반적으로 전파될 때 우리는 그것을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래도 개별적인 일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손에 쥔 주제에 맞지 않는 것들에 관해 긴 말을 할 일이 아니라, 흔히 말하듯 요점으로 와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 말입니다. 그러니 빌닷이 욥에게 꾸짖음을 받는 점이 이것입니다. 곧 그가 하나님의 권능을 논할 때 그 말이 무엇에 쓰일 수 있는지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으셨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모든 것을 당신 손에 쥐고 계시고, 그분의 위엄이 두려워야 한다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 나는 그 모든 것을 안다." 그런데 이 말을 더 잘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위엄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끌어서 그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경건(religion)을 갖게 하려고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 주어야 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새깁시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늘에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좀처럼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친 사람을 많이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짐승처럼 거기 있습니다. 물론

그들에게 하나님을 말하면 그들은 "오, 그래, 하나님이 계시지" 하고 시늉을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의 영광이 무엇인지 결코 느껴 본 적이 없고, 그분 안에 있는 이 놀라운 능력을 결코 깨달은 적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영적이라는 것, 우리가 올곧음과 꾸밈없음으로 그분께 나아가야 하고 모든 거짓 꾸밈에서 깨끗해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일이라면, 오, 그들은 결코 그것을 알아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일에 너무 매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이 이렇게 속되고 현재 삶의 쾌락에 너무 휘감겨 있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위엄이 어떠한지 느끼게 하려고 앞에서 짚은 말들을 길게 다루어 주어야 합니다. 물론 CO 429 우리 모두 저마다 분량대로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을 아는 앎으로 부름을 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그들이 전에 비웃던 분의 위엄 아래 그들을 떨게 하려고 이 말들을 길게 풀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새겨야 할 한 가지입니다. 또 이런 헤아림으로 다시 이끌어야 할 다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는 사람들도 그렇다는 말입니다. (말하건대) 그들도 가르침을 받아야 하고, 그분의 위엄이 무엇인지 그들의 기억에 되살려 주어서 그들이 늘 그 아래서 떨고 마땅히 낮아지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거기에 일반적으로 머물러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다면, 그렇습니다, 그것은 놓인 기초이고, 그다음에 그 위에 세워야 합니다. 그것도 이미 땅 아래 놓인 기초에 건물을 맞출 줄 알도록 세워야 합니다. 그러니 마음에 경건이 있고 하나님의 권능 아래 자기를 낮추고 겸손해진 사람들에게 말할 때, 이런 일반적인 말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오히려 개별적으로 저마다에게 무엇이 유익한지 살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놓인 기초 위에 세우려고 그래야 합니다. 욥이 여기서 밝히려 한 것이 이것입니다.

이제 그가 쓰는 말로 옵시다. 그는 죽은 것들이 물 아래와 이웃한 곳들에서 빚어진다고 말합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 자네는 여기서 그분의 군대가 끝이 없고 모든 피조물이 그분 손에 있으니 하나님의 권능을 내게 말했네. 나도 그 모든 것을 고백하네. 심지어 나는 더 멀리 바라보네. 나는 깊은 구렁까지, 땅의 중심까지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전에는 아무것도 아니던 것들을 만들어 내시거나 죽어 있던 것들을 살리시는 것을 바라보네." 모든 피조물의 생명이 어디서 옵니까? 그것은 가장 깊은 구렁에 감추어진 것과 같습니다. 누가 "우리가 어떻게 우리 힘 안에서 보존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주신 생명을 어디서 찾아오셨는가?" 하고 묻는다면, 그것은 마치 그분이 깊은 구렁에 가서 그것을 가져오신 것과 같습니다. 땅이 어떻게 그 열매를 냅니까? 그런 싹을 지닌 밀이 그다음에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보십시오, 이것들은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 위에 욥은 위로 올라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하늘을 펴셨다는 것을 잘 안다. 그분은 아무 받침도 없던 빈 곳에 그것을 펴셨다." 그것은 마치 누가 허공에 휘장을 치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람들에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당신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 주려 하셨습니다.

물론 욥은 특히 북쪽을 들지만, 그는 하늘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늘이 거기 있는 극을 중심으로 돌기 때문입니다. 수레의

CO 430 바퀴에서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나무가 있고 바퀴가 가운데 뚫린 구멍으로 그 나무 둘레를 돌듯, 하늘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보입니다. 곧 창공의 운행을 더 잘 아는 사람들은 하늘이 그렇게 도는 것을 봅니다. 북쪽에는 눈으로 보이는 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퀴 가운데 있는 이 굴대와 같고, 창공이 그것을 가운데 두고 도는 것이 보입니다. 우리에게 감추어져서 알아볼 수 없는 다른 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남극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 말했듯이 바퀴가 끼워진 나무가 있는 것처럼

하늘이 그 둘레도 돌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하늘의 운행을 말할 때, 우리가 날마다 보는 해의 운행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에게는 자기만의 특별한 움직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늘의 창공 전체의 보편적인 움직임입니다. 그런데 이 두 별은 거기 붙어 있는 것 같아서 움직이지도 떠돌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욥이 하나님께서 하늘을 북쪽으로 펴셨다고 말하는 까닭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그렇게 말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놀람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그것에 관해 어떤 경험이 있어서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이렇게 잘 짜인 질서는 하나님 안에 그런 지혜가 있어서, 그것이 모든 사람의 감각을 넘어선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세상의 창조에서 이렇게 당신을 밝히신 우리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을 경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그리고 그가 그분이 땅을 아무것도 없는 것 위에 세우셨다고 말하는 까닭이 이것입니다. 땅이 무엇 위에 머물러 있습니까? 공기 위에 있습니다. 우리 위에 공기가 보이듯 땅 아래에도 그만큼 있어서, 땅은 그 가운데 매달려 있습니다. 물론 철학자들은 땅이 세상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데 왜 그렇게 머물러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받쳐 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깊은 데로 빠지지 않는지 놀랍다고 논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본성의 질서에서 보이는 것 말고는 다른 이유를 댈 수 없습니다. 그것은 너무도 놀라운 일이어서, 사람들은 여기서 당황하고 자기를 넘어 들어 올려져서 하나님 안에 끝없는 지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분을 영화롭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욥의 말이 어디를 향하는지 봅니다. 곧 그는 하나님의 위엄을 부인할 만큼 짐승 같지 않았고 그분의 영광을 넉넉히 안다는 것을 보여 주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말하려는 것은, 그것을 일반적으로 다룬 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것을 쓰임에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내일 그것에 관해 더 온전히 말하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엎드립시다.

제96편

욥기 26장 설교 2

CO 34:431–442

AI로 옮긴 초벌 번역입니다. 신학 감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CO 권: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 그분은 물을 구름 속에 묶으시니, 구름이 그 아래서 터지지 않네. 그분은 당신 보좌의 얼굴을 붙잡으시고, 그 위에 구름을 펴시네. 그분은 빛과 어둠이 끝날 때까지 물 위에 경계를 두셨네. 그분은 하늘의 기둥들을 떨게 하시고, 당신의 꾸짖음으로 그것들을 놀라게 하시네. 그분은 당신의 힘으로 바다를 가르시고, 당신의 슬기로 교만을 잠잠하게 하시네. 그분은 당신의 영으로 하늘을 꾸미셨고, 당신의 손으로 미끄러지는 뱀을 지으셨네. 이것들은 그분 길의 가장자리이니,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는 것이 얼마나 적은가? 그분 권능의 두려움을 누가 알겠는가? (욥 26:8–14)

CO 431 어제 우리는 여기 담긴 하나님의 일들에 관한 말에서 우리가 어떻게 유익을 얻어야 하는지 풀이하기 시작했습니다. 곧 그 일들을 온 공경으로 생각하면서 그분께 합당한 영예를 그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기적을 잘 생각했다 해도 그 사이에 그분이 우리에게 영화롭게 되지 않으신다면 거기에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앞에 놓일 때마다, 그것이 우리가 그분의 위엄을 알아보고 그분께 합당한 찬양을 드리게 하려는 것임을 배웁시다. 욥은 땅이 놀라운 방식으로 세워졌고 오늘도 그렇게 존재한다는 것을 일깨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위를 걸어 다니지만, 앞에서 말한 유익을 얻으려고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아주 적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물을 구름 속에 묶으시고 구름이 터지지 않는다고 말할 때, 그것은 우리가 날마다 눈으로 보는 기적

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아무도 그것을, 아주 빈약하게가 아니라면 생각하지 않아서, 그것은 흘러가 버리고 하나님의 이 힘은 우리에게 영화롭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욥은 자기가 창조주를 알지 못한 채 짐승처럼 이 세상을 지나가는 사람들 축에 들지 않는다는 것을 밝히려고 "나는 하나님께서 물을 구름 속에 묶으신다는 것을 안다" 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아주 익숙하니 우리는 그것을 대단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이에 거기서 우리에게 기적 같은 힘을 보여 주기를 그치지 않으십니다. 물이 이렇게 허공에 매달려서 거기서 굳게 버티는 것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보고, 또 공기는 너무 엷어서 늘 물에게 자리를 내줄 것이며, 물은 본성상 공기보다 무겁습니다. 그러니 물은 아래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CO 432 물이 거기서 마치 통 속에 담긴 것처럼 붙잡혀 있는 것을 봅니다. 시편(33:7)에서 말하는 대로입니다. 선지자는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 알아보는 기적을 나타내려고 이 비유를 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물을 구름 속에, 그것도 구름이 터지지 않게 묶으신다고 말하는 이 절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 봅니다. 그것은 허공에 구름이 생기고 거기 물이 갇혀 있는 것이 보이며 땅이 물에 잠기지 않을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을 펴시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 주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이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시고, 당신에게 어떤 권능, 곧 끝없는 권능이 있는지 우리에게 느끼게 하려 하신다는 것을 압시다. 그리고 하늘이 맑고 깨끗할 때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지 않고 이렇게 나타나는 그분의 영광을 알아보지 못하니 그분이 우리를 깨우려 하신다는 것, 그러하니 그분이 이렇게 물을 거두어 허공에 머물게 하셔서, 물이 거기 매달려 있는 것 같고 병이나 통 속에 담긴 것처럼 붙잡혀 있게 하실 때,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를 가르치려 하신다는 것을 압시다.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배은망덕을 꾸짖으시고

우리를 당신께 부르시며, 당신께 모든 면에서 놀라운 권능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면서도 한 치도 보지 못합니다. 누가 "욥이 여기서 말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하고 묻는다면, 우리는 이성으로 납득하게 되며, 하나님께서 본성의 질서 위에 계시다는 것은 분명히 드러나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찔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우리는 억지로가 아니면 그것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것으로 사람들이 자기 힘이 미치는 한 하나님의 영광을 흐리게 하고 그것을 발아래 밟는다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에서 변화를 볼 때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 주는 것을 새기라는 경고를 우리는 그만큼 더 잘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날씨가 늘 흐리게 하실 수도 있고, 하늘이 늘 맑아서 구름이 결코 없게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변화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일들이 한 형편으로 계속 된다면 우리는 잠들어 버릴 것이고, 운수가 다스리는 것처럼 보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다양함 가운데서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의 손이 일하신다는 것, 그분이 하늘에서 한가하지 않으시다는 것, 그분이 세상을 한 번 지으시고 그다음에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처리하시고 당신의 CO 433 피조물들을 그렇게 이끄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늘이 흐려지고, 허공에 구름이 생기며, 비와 날씨의 변화가 있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곧 우리 주님께서 그 방법으로 우리에게 당신을 밝히시고,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생각하지 않는 것을 보시니 우리를 당신께 끌어당기신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간직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당신 보좌의 얼굴을 붙잡으시고, 원하실 때 그 앞에 구름을 두신다고 합니다. 욥이 쓰는 이 말은 때로 "죄다"를 뜻하고, 또 "잇다"를 뜻하기도 합니다. 건물을 지으려고 이음을 만들 때 나무를 잇고 끼워맞

추며, 돌을 배치해서 회반죽으로 붙어 있게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당신 보좌의 얼굴에 그런 이음을 만드신다고 합니다. 하늘을 그분의 자리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거기 안에 갇혀 계시다는 것이 아닙니다(우리는 그분이 모든 것을 채우시고, 그분의 본질이 끝이 없어서 하늘에서처럼 땅에도 퍼져 있다는 것을 압니다, 렘 23:24 참조).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려 할 때 위를 바라보기를 배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무딤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높이기는커녕 낮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그분을 말할 때 우리는 온 공경으로 그분을 경배하려고 우리 감각을 들어 올려야 하고, 우리 감각과 생각대로 그분에 관해 무엇을 상상하려고 땅의 것들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듯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 있는 까닭이 이것입니다(사 66:1 참조). (말하건대) 그분이 거기 갇혀 계시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 위엄의 높으심을 보여 주어서 우리가 우리 방식대로, 실제로 그러하듯 무디고 거칠고 둔한 우리 정신대로 그분을 생각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요컨대 하나님을 바르게 생각하려면 우리는 모든 피조물을 넘어서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보좌에 이음을 만드셨다고 말하는 이 문장으로 옵시다. 실제로 하늘에 있는 이 질서를 잘 살펴보면 그것은 우리를 놀람에 사로잡히게 해야 할 일입니다. 모든 철학자가 하늘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떤 본성인지 충분히, 그리고 정교하게 캐물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추측밖에 없어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결론은 하나님께서 여기서 그런 걸작을 만드셔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경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높고 깊고 비밀스러운 것을 우리가 헤아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욥이 하나님의 위엄을 기리려고 여기서 그분이 당신의 보좌에 만드신 이 이음을 말하는 데에는 까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하나님께서 당신 좋으실 때 구름을 펴신다고 덧붙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변화를 볼 때, 그것은 정해진 질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CO 434 그다음에 한가하시려 한 것이 아님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분이 한 번 지으신 모든 것을 날마다 이끄시고 다스리시며, 하늘과 땅과 나머지 모든 것에 늘 당신의 손을 가까이 두시고, 당신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밝히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느끼게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하나님 위엄의 이 생생한 모습과 거기 나타나는 기적 같은 힘을 알아보지 못할 만큼 눈멀지 맙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작품들을 누리고 보면서도 그 만드신 분에게까지 올라가 거기서 유익을 얻지 않는다면, 차라리 눈이 뽑히는 편이 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들짐승들은 빛을 가졌다고 해서 죄가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그 일꾼을 알아볼 이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쪽에서는, 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과 함께 그분이 위아래로 보여 주시는 놀라운 것들을 헤아릴 어떤 이성과 깨달음을 주셨다는 것 말고는 우리를 그분 앞에서 정죄하고 우리에게서 모든 변명을 빼앗는 데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으리라는 것이 분명합니다(롬 1:20 참조). 그러니 우리가 받아야 할 경고가 이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여기서 우리 앞에 하늘에 있는 이 다양함을 내놓으시는 것도 이 목적 때문입니다. 그분은 곧 그것을 다시 말할 것입니다. 요컨대 우리 삶의 으뜸은, 하나님께서 우리 쓰임을 위해 지으신 모든 것에 참여하면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신 분을 기리기를 배우고, 그분께 경의를 드리지 않고는 그분의 피조물들을 차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컨대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 주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이어서 그분이 빛과 어둠이 끝날 때까지 물에 경계를 두셨다고 덧붙입니다. 여기 기억할 만한 하나님의 또 다른 일이 있습니다. 곧 아래에 있는 물이 한계가 지어져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붙잡고 계셔서 그것이 제 경계를 넘을 수 없으며, 그것이 지속되고 끊임없으며 세상 끝날까지 그러리라는 것입니다. 그는 위의 물, 곧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끌어올

리셔서 비로 흘러내리게 하실 때까지 허공에 붙잡혀 있는 물을 말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바다와 물에 경계를 두지 않으신다면 온 땅이 그것으로 덮일 것이 분명합니다. 철학자들과 본성의 온 질서를 캐묻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그들은 원소들이 그 본성대로 어디서나 온전히 제자리를 차지한다면 땅은 물 아래 감추어지리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실제로 경험이 그것을 보여 줍니다. 땅이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 그 무게 때문에 단단하고 견고하기 때문이 아니라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물은 더 가볍고, 또 흘러서 그런 단단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기는 물 위에 있고, 불은 그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원소들이 CO 435 그 성질에 따라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듯) 공기가 온 땅을 둘러싸고 있으니, 물도 그 사이에, 곧 땅과 공기 사이에 사방으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물의 고유한 자리와 위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불이 어디나 퍼져 있듯, 물도 마른 채로 남는 땅을 한 뼘도 남기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가장 높은 산들조차 그 아래 감추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른 채로 남아 있는 낮고 움푹한 곳들을 보고, 바다는 그보다 위로 솟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미 보여 준 이치로도 그것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바다가 무엇인지, 특히 그것이 솟아오를 때를 생각해 보면, 땅이 그것으로 덮이지 않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놀랍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아주 뚜렷한 기적이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배은망덕으로 눈을 감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이교도들조차(이성이 그들을 거기로 밀어붙이니) 하나님께서 어떤 빈 자리가 있기를 원하셨을 때 그것은 사람들을 머물게 하려는 것이었고, 그분이 땅의 한 부분이 이렇게 마른 채 남도록 정하셨을 때 사람들을 돌아보셨다고 인정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가 너무 강해서 그들이 그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까? 우리가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좋은 것을 어떻게 알아봅니까?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는 데 벙어리입니다. 더 나쁜 것은 우리가 그분이 우리에게 살라고 주신 땅을 더럽힌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물을 물러가게 하시고 거기 사슬로 묶어 두신 것처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여기 살 자리를 주시는 동안, (내가 말했듯이) 땅은 우리 더러움과 우리 불의로 더럽혀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받으시는 감사라고는 이것뿐입니다. 곧 그 사이에 그분을 영화롭게 하려고 열리는 입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정신이 너무 둔해져서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니,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일깨우는 데에는 까닭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다시 말하게 될 것, 그리고 특히 선지자 예레미야(5:22)에서 말하는 것을 새겨야 합니다. 곧 바다는 너무 맹렬해서 그것을 붙잡을 방법이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거기에는 든든한 빗장이 있습니다. 바다는 땅을 삼키겠다고 위협하는 것 같고, 땅이 삼켜질 것처럼 보이지 않는 파도는 하나도 밀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머리털이 곤두설 만큼 무서운 일인 그런 맹렬함을 바다에서 볼 때,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강하고 꺾이지 않는 손을 바라보아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그분의 힘이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이 드러나 있다고 고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그것에 그만큼 더 깊이 찔려야 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다를 이렇게 출렁이게 하실 때, 우리에게는 우리 하나님의 CO 436 우리를 향한 끝없는 선하심을 알아보고, 또 그와 맞먹는 그분의 힘을 알아보아서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을 그만큼 더 신뢰하며, 우리가 여러 면에서 우리 생명을 그분에게서 얻는다고 고백하는 데까지 이르는 이 지혜가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으시고 세상에 두시며 거기서 우리를 먹이시는 것만이 아니라, 땅이 물 아래 잠기지 않아서 살 수 있는 어떤 마른 자리가 있다는 것에서도 그렇습니다. (말하건대) 여기서 특히 바다를 말하는 것은 이 목적 때문입니다. 곧 바다가 하나님께 붙잡혀 있고, 물이 거기 갇혀 있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겨 낼 수 있는 사슬도 밧줄도 없는데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들짐승을 길들이는 것이 바

다를 길들이는 것보다 더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기를 다스리시고, 놀랍고 헤아릴 수 없는 방식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는 욥이 덧붙이는 말을 새겨야 합니다. 곧 어둠과 빛이 끝나고 서로 뒤섞일 때까지 그렇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하루나 한순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신다는 것, 그것이 늘 지속되어 왔고 계속되리라는 것을 나타내려는 것입니다. 폭풍이 자주 일어나고 되풀이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늘 바다가 이기지 못하도록 막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사람들을 위협하시려고, 그들이 자기를 낮추고 더 큰 조심으로 걷기를 배우게 하시려고 기뻐하시는 만큼만 예외입니다. 그러니 욥은 빗장과 경계가 세상이 끝날 때까지, 빛이 어둠과 뒤섞일 때까지, 곧 더는 본성의 질서가 없을 때까지 물에 놓여 있다고 말할 때, 하나님 안에 있다고 여기서 밝히는 힘의 찬양을 이렇게 더하려 했습니다. 이 말투가 담고 있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바다뿐 아니라 강들도 때로 넘쳐서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집과 포도원이 잠기며, 바다에서는 더 크고 지나친 맹렬함이 보인다고 내세운다면, 거기에 대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일반적으로 보존하기를 그치지 않으시고, 그분이 바다가 이렇게 넘치도록 허용하시는 것은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 주시는 당신의 힘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헤아린다면, 심지어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이성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무덤 한가운데서 우리 생명을 보존하시니 우리가 날마다 우리 생명을 그분께 경의로 드리리라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 땅에서 어떻게 있습니까? 우리가 무덤 속에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보십시오, 바다와 물이 우리 위로 솟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들에 삼켜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당신의 손을 두셨기 때문이 아니라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기는 커녕 돼지 같습니다. 우리는 CO 437 배를 채우고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배부

르면서, 그분이 우리 눈에 보여 주시는 것, 곧 그분이 이렇게 바다를 붙잡고 계시니 우리가 기적이 아니고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하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힘이 어떠한지 알아보도록 우리를 부추기시려고 바다가 넘치는 것을 허용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에 관해 들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각합니다. 또는 우리가 너무 둔하지 않다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일이 온 세상에 일어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려고 세우신 본성의 질서를 보존하려 하시기 때문이 아니라면 무엇 때문인가?" 하고 살펴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손이 그 위를 다스리지 않는다면 깊은 구렁과 심연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다와 물 위에서 하시는 이끄심에서 이렇게 유익을 얻어야 합니다. 곧 그분이 우리 생명을 얼마나 아버지처럼 돌보시는지 알아보고, 우리가 그분께 얼마나 빚졌는지 느끼면서, 그분을 섬기고 영화롭게 하며 더 큰 조심으로 그분께 순종하며 걷도록 애쓰는 것입니다. 그 밖에 누가 "이런 것들은 흔한 일이고, 어린아이들도 그것을 아니 그것을 설교할 필요가 없다"고 대꾸한다면, 그럴수록 더 나쁩니다. 모든 사람에게 흔하고 늘 있는 것을 알려고 학교에 다니거나 깊은 학문을 배울 필요가 없는데, 그 사이에 우리가 실제로 그 모든 것에서 아무것도 간직하지 않았다는 것을 드러낸다면, 우리는 그만큼 더 변명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저마다 보고 바라보는 이런 것들을 우리 앞에 내놓으시는 까닭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치 우리가 그분이 주신 이 시력을 악하게 남용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피조물을 바라보면서 거기 나타내시는 그분의 힘을 기리는 유익을 얻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바다와 물이 이렇게 붙잡혀 있어서 땅이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이 (보기에는) 대단한 일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당신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밝히시고, 우리를 당신의 보호 아래 두셨다는 것을 보여 주시며, 우리가 거기서 잠들어 있어서는 안 될 만큼 당신의 선하심과 힘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을 생생하게 잘 깨닫는 것은 큰 지혜입니다. 이것들이 우리 정신에 잘 새겨져 있을 때, 우리는 하루만이 아니라 평생 동안 유익을 잘 얻은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듯) 하나님의 일들을 잘 바라보고 그것을 그 바른 목적에 맞추는 것이 완전한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하늘의 기둥들이 떨고 그분이 당신의 음성으로 그것들을 놀라게 하신다고 합니다. 욥은 세상에서 날마다 보이는 질서를 말한 뒤에, 천둥과 폭풍에서는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CO 438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과 공기를 떨게 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당신의 권능과 힘을 느끼게 하시는 또 다른 방식이라는 것을 이어서 덧붙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생각할 감각과 이성만 있다면 말입니다. 물론 하늘을 받치는 기둥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욥이 여기서 드는 비유입니다. 큰 궁전은 기둥으로 짓고, 빈 공간이 넓은 곳은 스스로 버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큰 성전을 짓는다면 그런 덩어리를 받치는 데 도움이 될 기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늘도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그것은 기둥을 가질 만한 건물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거기에는 기둥이 없고, 하나님의 힘이 그런 건물에서 사람들이 없이는 해낼 수 없는 것을 채워 줍니다. 실제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 주신 것을 흉내 내는 것 말고 짓는 데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그분 안에 있는 끝없는 힘과 지혜의 작은 불꽃일 뿐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기둥 없이는 길이와 너비가 백 자 되는 방 하나도 만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늘은 그에 비하면 끝없는 공간을 가지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것이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받쳐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욥이 기둥을 말할 때, 그는 천둥이 치거나 하나님께서 어떤 폭풍이나 천둥을 보내기를 기뻐하시면 공기가 그것으로 울리고, 말하자면 하늘의 기초와 기둥이 그것으로 흔들리는 것 같다는 뜻으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위에서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려고 거기 거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려는 것입

니다. (내가 말했듯이) 그분이 거기 갇혀 계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우리가 우리 감각과 정신을 들어 올리도록 살피고, 온 공경과 겸손으로 그분을 경배하려고 그분을 생각하며, 그분에 관해 육적이거나 땅에 속한 것을 아무것도 상상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욥의 말이 무엇인지 봅니다. 곧 하나님께서 한편으로 바다를 사슬로 묶어 두신 것처럼 붙잡으시고 그것이 넘을 수 없는 경계를 거기 두실 때 우리에게 당신의 힘을 밝히시듯, 다른 한편으로 그분이 천둥을 터뜨리기를 기뻐하시고 하늘에 어떤 폭풍을 일으키실 때, 그때는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고 더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힘을 느끼게 하시는 또 다른 경우입니다. 실제로 이교도들도 그것을 잘 고백할 줄 알았습니다. 그것도 어떤 정교한 이치가 아니라 다만 흔한 경험으로, 우리가 벼락과 폭풍을 들을 때 사람들은 이를 갈면서도 어떤 신성을 느끼도록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교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들, 모든 경건(religion)을 비웃기만 바라는 속되고 짐승 같은 자들, 하나님과 본성의 질서 안에 있는 이끄심에 관해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향해 CO 439 혀를 내미는 자들도, 그들도 천둥소리를 들으면 그때는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경험이 그것을 보여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힘의 뛰어난 표징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욥이 본성의 끊임없는 질서에 관해 다룬 것에 이제 폭풍과 천둥을 덧붙이는 까닭이 이것입니다. 곧 사람들이 알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그분이 보여 주시는 것을 알아보려 하지 않을 만큼 굳어져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의 기둥들을 떨게 하시고 모든 것이 뒤엉킬 것처럼 보이는 그런 천둥을 일으키실 때, 그때 사람들은 어떤 신성을 생각하고 위에서 다스리는 지극히 높은 권능이 있다는 것을 느끼도록 억지로 몰리는 것 같다는 것을 보여 주려는 것입니다. 일들이 되는대로 지나가지 않고, 어떤 뜻이 있어야

하며, 이것을 다스리는 어떤 계획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장을 우리에게 가져오는 목적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먼저 우리는 우리 본성이 얼마나 짐승 같은지 경고를 받습니다. 우리가 이성 있는 피조물이고, 심지어 모든 것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가 있다고 스스로 여기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위아래로 당신 위엄의 그토록 많은 표징을 주시고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시며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고, 그것도 우리가 더 바랄 수 없을 만큼 친밀한 방식으로 당신을 밝히시는데도, 우리가 그냥 지나쳐 버리고 그렇게 많이 경고를 받아도 그것이 우리에게까지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딱한 일, 아니 끔찍한 일이 아닙니까? 그것은 큰 비뚤어짐, 그리고 너무도 엄청난 비뚤어짐이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본성상 너무 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없애기만 바라고,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반대로 눈을 감고 그것을 알아보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봅시다. 그러하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벼락을 치시거나 천둥을 울리실 때, 그것이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만큼의 꾸짖음이라는 것을 알아봅시다.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불행한 피조물들아, 내가 너희를 세상에 머물게 하고 너희에게 살라고 땅을 주었으며, 거기서 너희를 온갖 좋은 것으로 채웠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그토록 너그러워서 그토록 인자하고 불쌍히 여기는 아버지로 나를 나타냈는데,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작정한 악의와 고집으로 그 모든 좋은 것을 꺼 버렸으며, 너희 눈앞에 있는 빛을 흐리게 하기만 바란다. 그렇다면 나는 무서운 방식으로 너희에게 가서 너희를 소환하여, 너희가 이를 갈면서도 내 안에 있는 이 헤아릴 수 없는 위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게 해야겠다." 그러니 천둥이 허공에 일어나고 CO 440 어떤 다른 폭풍이 있을 때 우리가 지켜보아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곧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악의와 배은망덕을 꾸짖으시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흔하고 끊임없는 질서에서 유익을 얻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눈을 뜨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사방에서 우리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의도도 이것이고, 성경이 세상에 있는 일반적인 질서, 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질서를 말한 뒤에 여기서 천둥을 말하듯 특별한 것도 우리 앞에 내놓는 의도도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그분이 당신의 권능으로 바다를 가르시고, 당신의 슬기로 교만을 잠잠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욥은 이미 말한 것을 되풀이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신다고 말하면서 그가 짚는 것은 또 다른 경우입니다. 회오리바람이 일어날 때 바다가 우리에게 달려들어 모든 것을 삼킬 것처럼 보이지만, 그 한가운데 있으면 더 무서운 광경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파도는 산 같아 보이고, 그 사이에 있는 것은 깊은 구렁 같아서 바닥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고, 그다음에 그런 교만을 잠잠하게 하신다고 말하면서 욥이 나타내려 한 것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갑작스러운 그 변화는 하나님의 권능을 그만큼 더 잘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바다 한가운데 있는데 큰 폭풍이 일어나 그렇게 빽빽한 물의 산들이 보이면, 두세 시간 뒤는커녕 일 년 뒤에라도 바다가 잠잠해질 수 있으리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크고 그렇게 격심한 변화가 곧바로 잠잠해질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도 바다가 그렇게 끓어오른 뒤에 고요해지고 잠잠해지는 것이 보일 것입니다. 그러니 일들이 이렇게 갑자기 바뀔 때 하나님의 놀라운 힘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욥이 여기서 나타내려 한 것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그가 앞에서 말한 것을 더 분명하게 나타내고 더 기리려 했다는 것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바다에 경계를 두셨다고 밝혔는데, 이제는 그분이 당신의 권능으로 그것을 가르신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 위에 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으로 하늘을 꾸미셨고, 거기에 미끄러지는 뱀을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그가 여기서 뱀을 말할 때 땅에 있는

뱀들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슨 목적으로 그것을 하늘과 이어 놓았겠습니까? 오히려 그는 흔히 뱀이라고 불러 온 그 별 무리를 말합니다. 구부러진 별의 줄이 있어서 꼬리를 감는 뱀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런 굽이가 있어서 사람들이 "그것은 뱀의 모양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들이 CO 441 하나님의 일들을 더 잘 구분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거기에 꾸며 낸 이야기들, 그것도 악한 꾸며 낸 이야기들을 섞었습니다. 마귀는 늘 사람들을 하나님의 위엄에 대한 특별한 증거가 있는 세상의 창조에서 딴 데로 돌리려는 이 술책을 써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뱀이라는 이름이 생긴 것은 사람들이 별들의 질서를 더 잘 바라보도록 일깨우려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그 밖에 여기서 욥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으로 하늘을 꾸미셨다고 말할 때 한 가지 경우 아래 전체를 포함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꾸밈으로, 어떤 아름다움으로입니까? 그는 하늘에 모양을 주는 것이 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하늘은 텅 빈 것이어서 우리 시선이 거기서 길을 잃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낮에는 해가 있고 밤에는 별들이 보일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공기 속에서 숨 쉬는 데 필요한 만큼만 이 넓은 공간을 만드시고 저 위에서 우리를 비추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셨고, 넘치도록 거기에 꾸밈을 더하려 하셨다는 것을 그만큼 더 잘 알게 됩니다. 그러니 그분은 거기에 별들을 두시고 하늘을 그런 아름다움으로 장식하셔서, 우리가 그분의 선하심과 지혜와 힘을 기리도록 그만큼 더 부추김을 받게 하시고, 요컨대 우리가 모든 면에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욥이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내놓는지 봅니다. 그것은 자기 쪽에서는 하나님께 아무 공경도 드리지 않고 그분을 경배하려고 그분의 권능과 힘을 알아보지도 않는 속되고 업신여기는 사람들처럼 세상에서 살지 않았고, 오히려 이 모든 것이 자기 마음과 정신에 새겨져 있었다는 것을 증언하려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당신을 밝히실 때 눈을 감고 있지 말라는 경고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헤아릴 수 없는 좋은 것을 누리면서 그분께 아무 경의도 드리지 않아 우리가 들짐승보다 못했다는 이 배은망덕의 꾸짖음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으로 욥은 이것들이 그분 길의 가장자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분에게서 깨닫는 몫이 얼마인가? 그분의 무서운 힘을 누가 헤아리겠는가?" 하고 말합니다. 이것은 아주 새겨 둘 만한 결론이고, 또 무게가 큰 결론입니다.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감각과 깨달음을 넘어서고 그것들이 너무 크고 높아서 우리가 거기서 눈이 부신 것처럼 될 수밖에 없다고 결론 내리지 않는다면, 그 일들을 바라보아도 아무것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을 알려고 온 공부를 기울이고 그분의 모든 능력에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려 할 때, 그가 모든 것을 끝내 알 수 있으리라고 여긴다면 그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 감각 안에 가두려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큰 욕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CO 442 사람이 바다와 땅을 주먹 안에 가두거나 두 손가락 사이에 쥐려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더 지나친 광기입니다. 하늘과 땅도 하나님 안에 있는 의와 힘과 지혜와 선하심만큼 크지 않고, 그것들은 그 작은 표시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묵상하는 데 말할 수 있는 가장 부지런한 사람이 되더라도, 그들이 그것을 끝까지 알 만큼 예리하다고 여기고 "오, 나는 그것에 관해 알아야 할 것을 알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시고 지혜로우신지 완전히 본다" 하고 말할 만큼 오만하다면, 오, 그것은 그분께 끼치는 추한 모욕입니다. 그러하니 하나님의 일들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무딤을 생각하고, 우리 감각이 그렇게 높이 올라가기에는 너무 작다는 것을 알며, 다윗과 함께 "주님, 주의 일들은 놀랍습니다. 누가 그것을 다

이야기하겠습니까? “(시 40:5; 106:2 참조) 하고 고백하는 것이라는 것을 잘 새깁시다. 물론 다윗은 그것을 잘 이야기하고, 저마다 그것을 생각하도록 다른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말을 다 한 뒤에 그는 끝으로 “주님, 누가 그것을 끝까지 해낼 수 있겠습니까?” 하고 덧붙입니다. 이제 이 구절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욥은 “보라, 이것들은 가장자리다” 하고 말합니다. 그는 “그것들은 성 밖 변두리일 뿐이다” 하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의 끝에까지 가려 한다면 결코 거기 이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높이 올라가기에는 너무 느리고 너무 무겁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길고 넓게 뻗을 만큼 날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우리의 모든 감각이 거기서 삼켜지지 않을 만큼의 그런 생기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이 얼마나 뛰어난지 알려고 우리의 모든 공부를 잘 기울였을 때, 우리가 이 앎의 완전함에 이르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 가장자리만 알아보았을 뿐이고 그 깊은 데까지 헤아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 거칠고 너무 연약하며, 우리 안에는 그분 안에 있는 것의 작은 몫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낙원의 천사들이 와서 우리에게 설교자가 된다 해도 그들은 하나님의 일들의 작은 몫밖에 나타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아래의 죽을 피조물들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그렇게 기리기를 배워서, 그분께 마땅히 드려야 할 찬양을 드리는 데 우리를 막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합시다. 우리가 평생 우리의 모든 감각을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기리는 데 기울인다 해도, 우리가 그분께 진 빚의 백분의 일도 갚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엎드립시다.

제97편

욥기 27장 설교 1

CO 34:443–455

AI로 옮긴 초벌 번역입니다. 신학 감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CO 권: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 욥이 다시 자기 말을 이어 말했네. 내 권리를 빼앗으신 하나님, 내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께서 살아 계시니, 내 숨이 내 안에 남아 있고 하나님의 영이 내 코에 있는 동안, 내 입술은 불의를 말하지 않고 내 혀는 거짓을 내뱉지 않으리라. (욥 27:1–4)

CO 443 여기서 우리는 앞에서 이미 다룬 것과 같은 말을 봅니다. 욥은 자기가 저지른 잘못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고 어떤 비밀스러운 까닭이 있으며, 자기가 따지고 변론하려 한다면 하나님을 상대로가 아니라 자기를 악인으로 몰아세우고 자기가 견디는 고난이 자기 죄의 크기에 맞먹는다고 결론 내리려는 사람들을 상대로 이기리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핍박하시게 된 것이 그것, 곧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악했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감추어지고 알려지지 않은 어떤 까닭이 있으며, 하나님의 율법에서 우리에게 밝혀진 이 일반적인 정의보다 더 높이 올라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이 장의 주제가 무엇일지 봅니다. 그러하니 욥이 다시 자기 말을 이어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가 하는 말에 더 권위가 있게 하려고 맹세를 담은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권리를 빼앗으신[53] 하나님,

53. 원문에는 “a esté mon droit“(내 권리였던)로 되어 있으나, 본문 상자와 이어지는 풀이(“ravi son droit“)로 보아 “a osté“(빼앗았다)의 오식으로 보고 옮겼습니다.

내 영혼을 괴로움에 빠뜨리신 전능자께서 살아 계신다. 그래도 나는 결코 굽히지 않으리라. 그리고 내가 의롭다고 주장했을 때, 그것은 나를 높이려는 것도 아니었고, 위선이나 반역 때문도 아니었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몰라서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래도 나는 너희가 나를 만드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받아 마땅한 대로 나를 핍박하신다고는 결코 고백하지 않으리라. 그렇다, 나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한다면 말이다. 너희는 거짓되고 악한 것을 주장하기 때문이다. 곧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현재 삶에서 사람들을 저마다 받아 마땅하고 저지른 대로 다루신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흔히 사람들에게 내리시려는 벌을 미루셔서 죽은 뒤에야 그것이 보이게 하시고, 또 반대로 흔히 당신이 사랑하시고 신실하게 당신을 섬긴 사람들에게 큰 엄격함의 표시를 보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재촉해서는 안 되고, 그것이 첫 CO 444 번에 집행되리라고 여겨서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불의하셔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일들이 뒤죽박죽인 것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날을 위해 기다리고 소망하는 더 나은 질서가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눈먼 이 이상이실 것입니다. 우리는 일들이 마땅히 되어야 할 대로 되지 않는다고 말할 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당신이 무엇을 하시는지 모르시거나, 아니면 그분이 언젠가 세상을 심판하시리라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판단을 보류한 채 있고 일들이 혼란 속에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정신이 의심에 붙잡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우리를 훈련하시고 지금이 싸움의 때라는 것을 보여 주려 하십니다. 그러니 전투에서는 공격이 이리저리 날아다니고 모두 겁에 질려 있는 동안에는 누가 이기고 누가 졌는지 모르지만, 승리가 누가 이겼는지 보여 주듯, 이 세상의 그런 뒤범벅 속에서는 모든 것이 뒤죽박죽일 수밖에 없어서, 사람의 판단에 나타나는 대로는 하나님께서 일들을 제 형편으로

되돌리시는 것을 알아볼 수도 소망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그분이 그렇게 하시리라고 기다려야 합니다. 다만 그것은 오늘이나 내일이 아닙니다.

이제 여기서 욥은 이상해 보이는 말을 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자기 권리를 빼앗으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여기서 자기 쪽이 의롭다는 듯이 하나님과 다투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는 하나님을 잔인함과 폭력으로 고발합니다. 그러니 욥의 의도를 알지 못한다면 이 두 가지는 아주 이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서 자기 권리를 빼앗으셨다고 말할 때,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폭군처럼 구신다는 뜻으로 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자기를 더 혹독하게 징계하실 좋은 까닭이 없을 만큼 자기가 의롭다는 뜻으로 말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새깁시다. 오히려 그는 일반적인 정의에 관해 율법에 기록된 것을 바라보고, 그다음에 자기를 정죄한 사람들의 말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말했듯이) 욥의 친구들은 그보다 더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지은 자들을 벌하시고 선한 자들의 아버지요 구원자이시다. 그러니 욥은 악인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이며 그의 온 삶이 방탕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왜 그런가? 그가 끝까지 고난을 받는 것이 보이기 때문이다. 세상에 흔히 일어나는 모든 역경을 보아도 이것만큼 크지 않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누구보다 엄청난 죄인으로 보셨다고 결론 내려야 한다." 욥의 CO 445 친구들이 내린 결론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쁜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율법에서 선언하시는 저주들에 머물러서(신 28장), 그 모든 것이 이 현재 삶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죽은 뒤에는 선한 자들과 하나님의 종들에게 더는 상이 없으며, 악인들이 여기 아래에서가 아니면 벌을 받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비뚤게 풀이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죄인들을 벌하시겠다고 위협하실 때, 그분은 당신을 어떤 정해진 때에 묶으시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것이 흔히 이 현재 삶 동안에 보입니다. 그러나 늘 그런 것은 아니고, 그것을 아무 예외 없는 일반 규칙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너무 매어 놓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욥이 친구들에 맞서 정당한 사정을 가졌다는 것을 봅니다. 그러하니 앞에서 밝힌 것을 간직합시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우리에게나 이웃에게나 보내시는 고난을 판단하려면 큰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다루시는 대로 그분이 우리에게 품으신 애정을 헤아리려 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번번이 절망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분이 우리를 괴롭게 하신다면 우리는 늘 그분의 손에 징계를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칠게 다루신다고 해서 우리를 미워하신다고 상상한다면, 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분을 부를 수 없을 것이고, 우리 슬픔을 누그러뜨릴 아무 위로도 가질 수 없을 것이며, 그러니 우리는 끝장입니다. 그러하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늘 사람들을 그들의 죄 때문에 괴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인내로 훈련하시고, 그들의 육적인 탐욕을 길들이시며, 그들을 당신께 완전히 복종시키려 하신다는 것, 그리고 또 그들이 이 현재 삶에서 이 세상을 지나가기만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신다는 것을 아는 이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마치 그들의 안식과 그들의 유산이 여기 있지 않다고 선언하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르게 한다면, 그것은 견디는 사람들을 절망에 빠뜨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큰 죄 때문에 그를 벌하신다는 이 항목을 고집하면서 그를 완전히 짓눌러 버리지 않은 것이 그들 덕분이 아니었듯이 말입니다. 욥이 그런 말을 들으면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자기를 정죄받고 저주받은 사람으로 여기는 것 말고는 더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죄 없는 사람을 정죄하는 이 교만밖에

없다 하더라도 어떻겠습니까? 그러니 시편(41:1[54])에서 하는 말을 잘 간직합시다. "고난받는 자를 지혜롭게 판단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징계를 본다면, 그렇습니다, 거기서 유익을 얻읍시다. 고난받는 사람들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 자신을 바라봅시다. 그 밖에 사람들의 죄를 늘 그들이 견디는 고난에 따라 재지 맙시다. 선한 사람들이

CO 446 흔히 악인들보다 더 혹독하게 다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저 사람은 그 안에 있는 어떤 큰 죄 때문에 하나님께 고난을 받는다" 하고 말하는 어떤 결론을 내리러 가기 전에 사람들의 삶이 어떤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악인들을 압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는 것을 봅니까? 두려워합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울처럼, 생생한 모습처럼 우리 앞에 두셔서, 우리가 그분께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에게 일어날 일과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을 보여 주신다는 것을 알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잘 살았는데 그가 왜 견디는지 우리가 알아보지 못한다면, 거기서 멈추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심판을 밝히실 때까지 기다립시다. 그리고 그 사이에 너무 서두르지 맙시다. 잠잠히 있지 않는 사람은 재판관이 되려 하면서 번번이 하나님의 일을 비뚤게 할 수 있고, 따라서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그분의 권위를 가로챌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욥이 "하나님께서 내 판결을 빼앗으셨다"고 하는 말로 돌아갑시다.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했듯이 욥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서 폭군처럼 구신다는 뜻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한 가지입니다. 그다음에 그는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다고 따질 때 이기고 무죄 판결을 받을 만한 그런 권리가 있다는 뜻으로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다만 자기가 견디는 고난이 자기 안에 있던 올바름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크고 어두운 구름과 같다는 것, 그러하니 자기 고난은 하나님께서 당신 율법을 어기는 자들에게 위협하시는 징계가 아니라는 것을

54. 원문은 41:2. 프랑스어 성경의 시편 절수로, 한국어 성경으로는 1절입니다.

밝힙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이해하려면 이미 밝힌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그들의 몸과 재산과 가족과 가축에서 괴롭게 하시리라는, 율법에 담긴 위협들이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병과 전쟁과 기근과 굶주림과 목마름과 그와 비슷한 것들로 벌하시더라도, 그분께 죄를 짓고 그분의 말씀을 업신여긴 사람들을 이렇게 벌하시더라도, 그것이 늘 똑같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난은 흔히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에게 공통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위협하십니까? 오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 그것의 어떤 표시와 낌새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여기 아래에서 당신의 모든 심판을 완전하게 이루신다면 어떻겠습니까? 더는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나는 몸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하고 말할 때 우리 믿음의 고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 삶이 덧없고 썩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뿐 아니라 그것은

CO 447 많은 비참에 매여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복이 없고, 그것은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하니 악인들도 지금은 일부분만 벌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다리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온전히 심판하실 마지막 날까지 그들이 받아 마땅한 정죄를 그들에게 남겨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모든 무릎이 하나님의 위엄 앞에 꿇으리라는 이사야(45:23)의 이 구절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도 그것이 이루어지지만 일부분일 뿐입니다. 그러니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당신이 세상의 재판장이시라는 어떤 맛보기를 주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욥의 말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의 권리를 빼앗으십니까? 그분이 사람들을 벌하시되, 그들이 그분께 버림받은 것 같고 그분이 그들을 죽을 원수처럼 덮치시는 것 같을 만큼 벌하실 때입니다. 그때는 겉모습으로는 사람들이 악하고 저주받았다는 것 말고

는 말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이 격언, 이 일반 규칙을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분의 원수인 자들은 악하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끝까지 고난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완전히 불타오르셨고 그분의 진노가 특히 거기에 달라붙은 것처럼 보이는 것을 볼 것입니다. 우리의 타고난 감각으로는 "보라, 하나님의 원수다"라는 것 말고는 깨달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 영혼을 괴로움에 빠뜨리셨으니 자기 권리를 빼앗겼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가 "전능자께서 내 영혼을 괴로움에 빠뜨리셨다" 하고 덧붙이는 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를 그렇게 괴롭게 하셨는지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는 동안에는, 그의 권리가 묻혀 있는 것 같아서, 사람들에게는 그가 악하고 가증스러운 자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여기서 일반적인 판단에 따라 말하고 있으며, 그 사이에 하나님께, 그것도 그분의 비밀스러운 뜻 안에 의로운 까닭이 없다는 뜻으로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잘 새깁시다. 오히려 저 위로 올라가야 하고, 빛을 흐리게 하는 이 모든 크고 짙은 구름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욥의 의를 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안에 두 가지 정의가 있다는 것을 봅니다. 하나는 율법에 담겨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성에 어느 정도 맞으니 우리에게 아주 잘 알려진 정의입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의 모든 깨달음을 넘어서는 정의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으로가 아니면 그것을 헤아리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에게 감추어진 것으로 그것을 경배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어둡고 감추어진 것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마지막 날이 오기를 기다려야 합니다(고전 13:12 참조). 하나님의 율법에 담긴 이 일반적인 정의는, 우리가 그분을 경외하고 섬겼을 때 그분이 필요한 때에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구원을 돌보신다는 것을 보여 주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CO 448 우리가 그분께 순종하며 걷고 그분을 우리 아버지로 여기면, 그때 그분도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인정하신다는

것을 보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신자들이 그분을 경외하며 걸었을 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받는 모든 은혜는 율법에 담긴 이 일반적인 정의를 확인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공로로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우리가 그분의 성령으로 다스림을 받을 때에도, 우리의 모든 행위는 여전히 더럽혀져 있고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그것을 물리치실 수 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으로 말하면 우리는 좋은 생각 하나도 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에도 늘 흠잡을 것이 있을 것이고, 우리는 그분 성령의 은혜 사이에 우리 연약함을 섞어서, 우리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이 더럽혀질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공로로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가 그분을 섬기려는 좋은 마음 사이에 섞인 악덕을 용서하시며, 또 당신과 당신의 뜻을 따르려고 애쓴 신자들에게 갚아 주십니다. (말하건대) 그분은 이 세상에서 그들에게 갚아 주시고, 그들이 당신께 따르려고 품은 이 열심에 눈을 감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것을 인정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밝히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육의 연약함이 허락하는 한 당신께 온전히 복종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당신의 일반적인 정의를 이렇게 나타내십니다. 내가 "온전히 "라고 말할 때 그것은 완전하게라는 뜻이 아니라, 성경도 그렇게 말하듯 거짓 꾸밈 없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음행하는 자들과 도둑들과 술주정뱅이들을 벌하실 때, 그것도 그분의 일반적인 정의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약탈하고 남의 살림을 먹어 치우고 삼키는 잔인한 짐승 같았던 악인을 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살림에 입김을 부시면 그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정의를 참으로 보여 주는 것이고, 우리가 부정하게 얻은 재물이 흘러가 버리는 것을 본다는 확실한 증거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오, 하나님께서

재판장이시다" 하고 알게 합니다. 그다음에 살인자들도 그렇게 벌을 받을 때, 우리는 "오, 잔인한 사람들은 제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하리라고 기록되어 있다"(시 55:23[55]) 하고 살펴봅니다. 다른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비웃고 성이 나서 사나운 광기로 일어서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들을 볼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악인들이 이 세상에서 이미 그렇게 징계를 받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재판장으로 당신을 나타내신다고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당신의 정의를 CO 449 집행하시려고 당신의 튼튼한 팔을 이렇게 펴신다는 것을 알 때 우리 머리털이 곤두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것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정의, 곧 그분의 율법에 담긴 대로 우리가 아는 정의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우리는 선한 사람들이 고난을 받는 것을 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꾸밈없이 걸으려 애쓴 사람들을 가난하게 하시는 것을 볼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악에도 빠지지 않은 사람이 그런데도 평생 시들어서 겨우 몸을 끌고 다니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누가 그 원인입니까? 우리는 모르고 그것을 정할 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까닭을 남겨 두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이 일반적인 정의에 속하지 않고, 그것을 같은 잣대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악인들이 형통한 것을, 그것도 (앞에서 밝혔듯이) 하루나 이틀이 아니라 평생 형통한 것을 볼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이 죽을 때에도 웃으며 죽는 것 같아서 그것은 꿈같을 뿐입니다. 그들은 오랜 병도 없이, 많이 견디지도 않고 한순간에 세상에서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오, 우리는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고발해서는 안 되고, 그분을 향해 부리를 갈아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그분께 우리 감각보다 더 높은 정의가 있어서 우리가 거기까지 이를 수 없고 지금은 그 까닭이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봅시다. 그래도 그분이 지금

55. 원문은 55:24. 프랑스어 성경의 시편 절수로, 한국어 성경으로는 23절입니다.

당신의 비밀스러운 뜻 속에 남겨 두시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그분의 비밀스러운 심판을 경배하고 거기에 복종하기를 그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권리를 감추시는 것이 이런 방식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한 대로, 어떤 사람이 이렇게 고난을 받는다면 사람들은 그가 악인이라는 것 말고 무엇이라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모두가 죄인이고, 하나님께서는 당신 좋으실 때 우리를 멸하고 삼키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하려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백성을 의로운 자로 인정하시고 그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돌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롬 4:7–8 참조). 물론 거기서 사함을 받으려면 그들이 그분 앞에서 자기를 정죄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떻든 그분은 그들을 사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그분은 그들을 괴롭게 하십니다. 무슨 목적으로 그렇게 하십니까? 그분이 그들을 멸하고 망하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은 그들의 권리를 감추십니다. 곧 그때 그분이 그들을 당신의 자녀로 여기신다는 것도,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도 분명히 보여 주지 않으십니다. 그런데도 그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감각이 그것을 헤아릴 수 없더라도 말입니다.

그 밖에 욥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백성을 괴롭게 하시는지 밝히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지 않고 서두를 때 품는 이 비뚤어진 판단과 거짓 의견을 더 바라본다는 것도 새깁시다. 우리가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정죄의 판결을 내리지 않는 이 분별과 절제를 가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처사를

CO 450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권리를 감추신다고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많은 고난에 시달리는 가련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위에 저마다 그에게 달려들어 그를 정죄합니다. 그러니 그런 당혹이 사람의 권리가 묻혀 있는 것처럼 되는 원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기에) 첫 번에 당신 앞에서 올바른 사람의 사정을

지켜 주셔야 할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못 본 체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분은 사람들이 우리를 잘못 판단하고 우리를 헐뜯으며 우리를 저주받은 자처럼 여기도록 허락하시고, 그 사이에 우리를 짓눌린 채 거기 내버려 두실 때 판결을 당신께 남겨 두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당신 백성의 올곧음을 새벽빛처럼 빛나게 하시리라고(시 37:6) 말하는 까닭이 이것입니다. 그 약속은 그것이 늘 눈에 보이게 이루어진다고 말하려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 모욕과 비난 속에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천사 같은 완전함 가운데 걸었던 사도 바울도 그것을 보여 줍니다(고전 4:12–13[56]). 그는 자기가 그런 일을 겪었다는 것, 자기 사생활에 관해서만이 아니라 자기 직무에 관해서도 사람들이 자기를 헐뜯어서 많은 중상에 내맡겨졌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가르침을 신실하게, 온 깨끗함으로 다루었는데도 사람들 안에 그런 배은망덕이 있어서 그를 업신여기기를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 나는 빛을 비출 주의 날에 호소한다." 그는 이 세상에서 흔히 여기서 말하는 이런 소란이 있어서 흰 것과 검은 것을 분간할 수 없고, 하나님의 가장 좋은 종들이 중상과 모욕을 당하리라는 것을 보여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그들이 고난받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헐뜯기를 좋아하는 대로 늘 그것을 나쁜 쪽으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첫 번에 우리의 보증인이 되시려고나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고 밝히시려고 나타나지 않으실 때, 그분이 우리 사정을 손에 잡지 않으시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정죄받도록 허락하실 때, 그분이 판결을 빼앗으신다는 것을 잘 새깁시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분이 고난을 점점 더 키우시면 그 위에 사람들은 더 대담해집니다. 곧 그들이 처음부터 완전히 거꾸로 판단할 만큼 비뚤어졌다면 그만큼 더 대담해져서 "오,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가 아직도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보이지 않느냐?" 하고

56. 원문 장절입니다. 중상을 받는다는 말은 12–13절에, 주의 날에 호소한다는 말은 3–5절에 있습니다.

말합니다. 그러니 선한 사람들은 짓눌린 것 이상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한쪽으로 물러나셔서 그들을 의롭게 여기시는 기색을 보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분이 그들과 전쟁을 하시고 누구보다 그들을 정죄하려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욥이 하나님께서 자기 권리를 빼앗으셨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거슬러 신성모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고, 이 뛰어난 가르침에서 우리가 어떻게 유익을 얻어야 하는지 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흔히 권리를 빼앗으실 수 있지만, 그런데도 우리에게는 CO 451 그분을 고발하거나 그분에 대해 불평할 거리가 없을 것이고, 그분이 하시는 일을 거슬러 변론해도 우리 사정을 이기지 못하리라는 것을 압시다. 그분에게는 감추어진 정의가 있어서, 그분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실 때까지 우리는 그것을 경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상한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실 때, 그분은 우리를 겸손으로 훈련하려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고삐로 붙잡아 두시고, 우리가 이렇게 말하며 그분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어둠 속에서 가련한 눈먼 사람 같아서 이 일에서 한 치도 보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주는 의로우십니다. 주의 심판이 내게 깊은 구렁이어서 내가 거기 들어갈 수 없고, 심지어 내가 죽음 속에 묻혀 있는 것 같아도, 그래도 주님, 나는 주께서 의로우시다고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되 그 까닭이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는 고난에서 우리가 유익을 얻은 것입니다. 그 밖에 욥이 여기서 하는 말을 실천합시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 판결을 빼앗으셔도, 그 때문에 그분을 늘 하나님으로 여기고 그분의 위엄 아래 자기를 낮추기를 그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가 "내 판결을 빼앗으신 하나님, 내 영혼을 괴로움에 빠뜨리신 전능자께서 살아 계신다" 하고 말하는 대로입니다. 여기서 욥은 고집 센 말처럼 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중의 괴로움이 있어도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 위에 모든 다스림과 우월함을 가지셨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가 그분께

경의를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는 이 말을 쓰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주님, 나는 주의 가련한 피조물이고, 주는 내 위에 모든 권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가 이중의 고난 속에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잘 새겨야 합니다. 우리는 그가 재산과 몸에서 어떻게 핍박을 받았는지, 그가 죽을 피조물이 견딜 수 있는 만큼 견뎠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고난이 있었습니다. 곧 그를 절망으로 부추기러 온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은 모든 악의 극한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미워하신다. 너는 더는 그분께 나아갈 길이 없다는 것을 잘 보지 않느냐? 그분의 자비에서 어떤 덜어 줌을 기다려도 헛되다. 그분이 너를 거스르시고, 네가 이렇게 고난받을 때 그분이 그 표시를 잘 보여 주시기 때문이다. 너의 지난 삶 전체를 정죄하는 것 말고 무엇을 하겠느냐? 하나님께 어떤 자비를 얻으려면 너는 완전히 바뀌어야 하고, 지금까지 네가 아무 값어치도 없었으며, 지금까지 하나님을 비웃는 자, 위선과 악의로 가득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 욥이 견딘 두 가지 고난이 이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께 경의를 드립니다. 그는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맹세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처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대부분 하는 맹세들은 그분의 이름을 업신여기며 하나님께 끼치는 그만큼의 모욕 말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맹세하면 CO 452 하나님의 이름을 거의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드러냅니다. 그 이름은 우리에게 너무 거룩해서, 우리가 그것을 들을 때 머리를 숙이고 그 안에 있는 끝없는 영광을 알아보아야 할 것인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이름은 조롱처럼 굴러다닐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하는 모든 가벼운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기는 그만큼의 모욕과 불의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거짓 맹세가 있는데, 그것은 더 가증스럽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게 맹세하는 데

익숙해진 뒤에는 진리를 위조하고 그것을 거짓으로 바꾸기까지 나아가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 사이에 굴러다녀서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너무도 그것을 가지고 놉니다. 그런데 욥은 맹세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때 그분을 우리 재판장으로 알아보고 그분께 속한 권위를 그분께 돌리며, 우리가 잘못했다면 그분께 정죄받으려고 그분의 보좌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욥이 어떻게 자기가 견딘 고난이 하나님의 손에서 온다는 것을 알아보며 거칠게 굴지 않는지 봅니다. 그는 고집 센 말처럼 자기 주인을 거슬러 발길질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낮추며 "무슨 일이 있든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 하고 말합니다. "물론 보라, 나는 끝장난 사람이고, 내가 마땅히 그래야 하는 만큼 완전히 참을 수 없을 만큼 견디고 있다. 그러나 그래도 나는 미친 사람처럼 굴며 '나는 하나님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그분이 나를 내버려 두시고 더는 내 위에 권능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하고 말할 만큼 절망하지는 않으리라. 오히려 나는 그분이 내 재판장이시고 모든 권위를 가지셨다는 것을 안다. 나는 그분이 내 위에 가지신 이 권능에서 아무것도 덜어 내려 하지 않고, 그분이 내게 보내시는 고난을 인정하면서 늘 그분의 손 아래 머물겠다." 그러하니 내가 여기서 우리에게 뛰어난 가르침이 있다고 말한 데에는 까닭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징계받고 고난받는 데 익숙해지라는 가르침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하니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아보면서, 우리가 절망의 시험을 받아 우리 안에서 이미 지옥에 이른 것처럼 보일 만큼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일이 일어날 때, 그렇습니다, 여기에 머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판결을 감추시고, 우리 권리를 너무 빼앗으셔서 우리가 끝장났고 더는 처방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다, 하나님께서 내 권리를 감추신다." 우리는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턱을 들어 올려 주시고 우리를 바로 세우셔서 다시 위에 두시며 우리 사정을 지켜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짓눌리고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히며 저마다 우리에게 혀를 내밀고 우리가 모욕을 당하더라도 낙심하지 맙시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CO 453 우리에게 내놓는 본보기를 봅니다. 그러니 신자들은 이렇게 이것을 실천하여 거기서 유익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하시는 일의 까닭을 헤아릴 수 없더라도, 그래도 늘 이 겸손에 이르러서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주님, 주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를 처리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가 지금 거기서 당황하고 있더라도, 우리가 주의 모든 일에서 늘 주를 찬양하며 '주께서 살아 계신다' 하고 말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 이 구절에서 새겨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담긴 것을 알아보기가 우리에게 쉬울 것입니다. 우리가 전체 요지를 헤아렸으니, 이어지는 문장들을 이 가르침에 이어 붙이고 맞추기만 하면 됩니다.

욥은 자기가 살아 있는 동안 자기 입에서 속임수도 악한 말도 나오지 않으리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그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처럼 말한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주 새겨 둘 만한 점입니다. 우리는 이 책을 풀이하면서 여러 번, 사람들을 망치는 너무 흔한 악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곧 그들이 이렇게 세상에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살피려고 마음을 가다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거짓으로 고발하면, 우리는 그들에게 너무 매여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피려고 우리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반대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잘 대답하려 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양심 속에서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돌아보지 않고 우리 재판을 하고 그것을 다 결론 내려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모든 말에서 위선자이고 우리 잘못을 덮고 꾸미는 데 그렇게 애를 쓰는 까닭이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곧 우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가진 이 좋은 평판과 신용을 지키려 합니다. 그런데 욥은 반대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처럼 나선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그리고 그가 사람들에게 말하지만, 비난받지 않으려는 그런 어리석은 야심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다.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판단하고, 그의 양심이 그에게 대답하는 대로 일을 하나하나 짚어서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러니 이렇게 사람들에게 매여 있는 것은 생각할 수 있는 만큼 나쁜 일이라는 것을 새깁시다. 우리가 이 끝, 곧 하나님 앞에서처럼 우리 자신을 판단하고, 세상에 대해,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에 관해 품을 수 있는 모든 의견과 우리에게 덮어씌울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 눈을 감는 데서 시작하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 모든 것을 돌아보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르게 낮아질 것이고, 거짓 꾸밈으로 말하지 않을 것이며, 일을 꾸며 감추지 않을 것입니다. CO 454 거기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한 가지입니다.

그 밖에 욥이 쓰는 이 말투를 잘 새깁시다. 그는 "내 안에 숨이나 호흡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내 코에 있는 동안" 하고 말합니다. 그는 자기 생명을 하나님의 은혜 없이 가진 것처럼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것이 꽤 흔한 일이고, 우리가 우리 호흡과 우리가 가진 모든 활력을 하나님에게서 얻는다는 것을 아무도 부인하지 않으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그것을 진지하게 알아보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사람들은 여기서 짐승 같은 방식으로 살아서, 자기들이 자기 자신에게서, 자기 고유의 힘으로 버틴다고 여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요컨대 사도 바울이 하는 말, 곧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인다는 것(행 17:28)을 바르게 아는 사람은 아주 적습니다. (말하건대) 그것을 아는 사람은 아주 적습니다. 그러니 욥이 여기서, 자기 정념에 너무 눈이 부셔서 더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많은 사람처럼 휩쓸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 준다는 것을 잘 새깁시다. 물론 (우리가 보았고 또 볼 것처럼) 그에게서 터무니없는 말이 새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는 그 위의

건물이 그와 같지 않았더라도 늘 이 좋은 기초 위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말하건대) 그래도 그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공경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그 밖에 욥이 한가하고 편안한 가운데 말한 것이 아니라는 이 정황을 잘 새깁시다.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히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처럼 보이는 그런 고난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우리가 사는 것이 그분에게서라는 것을 알아보며 자기 생명을 그분께 경의로 드립니다. 그러니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셔서 그분의 은혜를 묵상하게 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확신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우리 생명과 거기에 딸린 모든 것이 그분의 은혜와 능력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아보고 고백하지 않을 만큼 짐승 같다면, 무슨 변명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변명할 수 없는 자 이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우리 생명을 생각할 때마다 욥이 여기서 하는 이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을 잘 간직합시다. "내 안에는 내 고유의 힘으로 된 숨도 호흡도 없고, 그 모든 것을 내게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물론 욥이 여기서 하나님의 영을 말할 때,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영의 본질이 있다고 여긴 몽상가들처럼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너무도 가증스러운 이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성경의 이런 말투를 지켜보아서, 하나님의 영이 그 본질대로 우리 안에 있다고 말하는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무지에 매이고, CO 455 변화에 매이며, 바뀔 수 있고, 심지어 우리 죄와 악덕으로 얼룩지고 더럽혀진다는 결론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말했듯이) 이것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크게 어지럽힌 점입니다. 여기서 벌을 받은 그 불행한 이단자[57]가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의 본질에 참여한다고 말하려고 생각해 낸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가증스럽고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어서, 사람이 거기까지 이른다면 완전히 짐승처럼 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것은 그분의

57. 1553년 제네바에서 처형된 미카엘 세르베투스를 가리킵니다.

본질이 우리 안에 있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숨, 곧 그분이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불어넣으시는 것을 말하는 것임을 새깁시다. 우리가 보듯 해는 하늘에 머물러 있는데 그 빛의 광선이 우리에게까지 와서 우리가 그 빛과 열기를 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 아래에서 해를 쥐고 있다는 뜻입니까? 실제로 해가 여기 아래에 퍼뜨리는 그 힘으로 땅에 활력을 주어서 땅이 열매를 맺어 사람들에게 살림과 양식을 주는 것을 볼 때, 하나님 자신과 그분의 영 안에 있는 헤아릴 수 없는 능력은 어떻겠습니까? 그분이 그 사이에 우리가 그분의 본질을 가지지 않고도 그 능력을 우리에게까지 퍼뜨리실 수 없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영이 그 본질대로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이 우리 안에 그렇게 퍼져 있어서 우리가 그것으로 살고 그 방법으로 굳게 서며, 우리가 모든 것을 그분과 그분 성령의 은혜에서 얻으니 우리 온 생명을 하나님께 경의로 드려야 한다는 것을 알아본다는 것을 잘 새깁시다. 그러니 우리가 현재 삶에 관한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보아야 한다면, 더더욱 죽지 않는 생명에 관한 것을 그분 안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을 살핍시다. 그분이 우리를 거기로 부르시고, 그분이 현재 삶의 모든 끈과 방해에서 우리를 건지실 때까지 우리가 거기를 사모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엎드립시다.

제98편

욥기 27장 설교 2

CO 34:456–469

AI로 옮긴 초벌 번역입니다. 신학 감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CO 권: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 내가 자네들을 의롭다 하는 일은 결코 없으리라. 내가 숨질 때까지 나는 내 무죄함을 버리지 않으리라. 나는 내 의를 굳게 붙들고 놓지 않으리니, 내 마음이 내 날들에 대해 나를 꾸짖지 않으리라. 나를 거스르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는 악인이 되기를 바라네. 위선자가 재물을 모았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뽑아 가실 때 그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욥 27:5–8)

CO 456 욥은 자기가 한 말에 관한 자기 의도를 밝히고, 자기가 하나님을 거슬러 신성모독을 한 것이 아니라 다만 자기에게 닥친 이 고난이 자기 죄 때문이 아니고 거기에 사람들에게 감추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심판이 있다는 뜻이었다는 것을 보여 준 뒤에, 자기가 이 말을 한결같이 지키리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순서를 잘 지켜야 합니다. 곧 미리 잘 확신하지 못한 일에 한결같고 굳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집 센 사람들과 좋고 칭찬할 만한 한결같음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점도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판단하지 않고, 분별하려고 일들을 좋은 이치로 따져 보지 않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품으면 아무도 그를 거기서 조금도 움직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 사람이 한결같다고 불리지는 않을 것이고, 칭찬받을 만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고 그것을 주장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재판관은 판결이 빠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 판단하려고 서두를 뿐

아니라 거기에 고집을 부리는 사람은 구제할 길 없는 어리석은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욥이 여기서 밟는 절차를 잘 새깁시다. 그는 먼저 자기가 무슨 뜻이었는지 밝혔고, 자기가 어떤 거짓 의견에 젖어 있지 않으며 자기가 한 모든 말에 오류가 없고 그것이 순전한 진리라는 것을 보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밝힌 다음 이제 그는 자기가 올바르고 의롭다고 아는 자기 말에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라는 이 선언을 덧붙입니다. 그러니 어떤 것을 판단해야 할 때 우리 자신을 가까이 살피고 분별합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할 만큼 넉넉한 정신이 없다면(우리는 늘 우리의 무딤과 연약함을 알아야 하니), 하나님께 지혜와 분별의 영을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그러나 어떤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CO 457 거기에 확고하게 되었을 때, 더는 흔들리지 맙시다. 고집 센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의 어리석은 생각에 빠져서 아무도 그들을 거기서 끌어낼 수 없는데, 진리가 우리에게 알려졌을 때 우리가 금세 흔들려 버린다면 그것은 큰 수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경솔함과 변덕을 정죄하는 데에는 이렇게 자기 고집에 빠진 고집쟁이들 말고 다른 증인도 다른 재판관도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어떤 것을 인정한 뒤에 거기에 머물고,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해도 그들을 돌려 세울 수 없다면,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진리를 알게 하신 사람들이 적어도 그것을 끌어안고 거기에 굳게 서서, 사람들이 그들을 거기서 끌어내려고 애써도 거기에 확고하게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 구절에서 우리가 새겨야 할 두 가지가 이것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는 것을 주장하는 데 경솔하지 말고, 먼저 분별하며 잘, 그리고 바르게 판단하도록 절제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었습니까? 곧 우리가 어떤 것을 잘 알았습니까?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압니까? 그 위에 무슨 일이 있어도 거기에 머물 용기를 내고, 거기서 흔들리지 맙시다. 그리고 이것은 믿음의 참된 본성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밝혀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에 잘 기초해 있다면 우리는 들뜬 의견으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확실함은 없고 어떤 생각만 있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듯) 거기에 들러붙는다면, 그들은 사탄에게 홀린 것과 같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보십시오, 터키 사람들은 자기들의 모든 오류에 꽤 굳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진 그런 굳건함, 아니 오히려 그런 완고함을 믿음으로 돌려야 하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확실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가르침을 누구에게서 받는지, 곧 하나님에게서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우리를 당신의 학교로 부르신 분이 그분이시라는 것을 잘 확신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확실함이 있습니까? 거기에 동시에 끝까지 버티려는 마음을 결합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람이 불 때마다 휘어지고, 무엇인지 모를 새것을 듣자마자 배운 것을 잊어버리는 많은 사람처럼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맛본 적조차 없다는 것을 충분히 드러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말했듯이 우리가 좋다고 알게 된 것이 결코 우리에게서 빠져나가지 않고, 우리가 결코 거기서 돌아서지 않으며, 오히려 그것을 우리 마음에 그렇게 새겨서 끝까지 거기에 머물러야 합니다 (마 24:13 참조). 그러니 이 구절에서 우리가 이미 간직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 밖에 욥이 여기서 "내가 자네들을 의롭다 하는 일은 결코 없으리라" 하고 말할 때, 나쁜 사정을 주장하고 진리를 거스르는 사람들에게 CO 458 동의하는 척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잘못이 아니라는 것도 새깁시다. 그것을 마음으로 하지 않고 속으로는 다르게 작정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모독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진리가 그분께 얼마나 귀한지 압니다. 그러니 나쁜 사정을 떠받들고, 진리를 흐리게 하려고 그것을 거슬러 일어서며, 어떤 나쁜 수작을 벌이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들과 그들의 공범들에게 붙어 있는 척만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같은 불의에 대해 죄가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대부분의 사람이 이렇게 악인들과 맞장구치는 것을 전혀 꺼리지 않는 것을 보니, 우리는 이 교훈을 그만큼 더 잘 되새겨야 합니다. 그들은 악이 싫어도 적어도 좋은 낯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잡히기를 바라더라도, (흔히 말하듯) 미움을 사지 않으려고, 그리고 우리가 보는 그런 싸움을 떠맡지 않으려고 휘어지고 굽히는 척할 것입니다. 악인들이 이기고 활개 치는 것을 볼 때마다 "그렇다, 그들과 함께 돛을 내려야 한다"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입을 크게 벌려 악을 인정하지는 않더라도 거기에 반대하기는커녕, 사람들은 그들이 거기에 붙어 있고 동의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세상에서 그것을 너무 흔히 보아서 딱할 지경입니다. 좋은 싸움을 지키려고 맞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오, 나는 그렇게까지 끼어들고 싶지 않다. 내 다리에 고양이를 던질 것이 보인다.[58] 저마다 나를 거슬러 일어설 것이다. 나는 그것을 내 일로 삼고 싶지 않다" 하고 말할 것입니다. 정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려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분께 버림받아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더구나 우리가 악인들을 의롭다 하고 그들의 나쁜 사정을 인정하는 어떤 표시를 준다면, 그것은 작정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분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 욥이 여기서 "결코 없으리라" 하고 그렇게 격렬하게 말하는 데에는 까닭이 있습니다. 그는 불의를 의롭다 하는 것을 너무도 추한 일로 미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온 질서를 뒤엎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5:20)가 선을 악이라 하고 악을 선이라 할 자들에게 그토록 무서운 저주를 선언하는 까닭도 이것입니다. 그는 그것이 빛을 어둠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이 구절에서 우리가

58. 원문 "on me ietteroit le chat aux iambes"는 "나를 곤경에 빠뜨리다"라는 뜻의 프랑스어 관용구입니다.

지켜보아야 할 또 다른 점입니다. 욥은 "내가 자네들을 의롭다 하는 일은 결코 없으리라" 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다음에 자기 원수가 저주받기를 바란다고 덧붙여서 이 말을 더 굳게 합니다. 물론 그 사이에 다른 절이 하나 있지만, 이 두 문장을 이어 놓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는 "내 원수가 저주를 받고, 나를 치려고 CO 459 일어서는 자는 악인이 되기를 바란다" 하고 말합니다. 그는 먼저 (흔히 말하듯) 자기 몽둥이를 아주 확신한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그는 자기에게 맞서려는 모든 사람을 업신여기고, 마치 결투에서처럼 그들에게 도전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경솔한 사람도 이런 대담함을 써서 온 세상을 거슬러 일어서고 굽히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욥이 자기 기초를 아주 안전하고 굳게 놓지 않고는 짓지 않았다는 것, 그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확고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가 자기와 싸우려는 모든 사람에게 도전할 때, 그는 그런 사정에서는 중립이 없다는 것, 우리가 두 물 사이를 헤엄치는 중간치가 되어서는 안 되고 이쪽이든 저쪽이든 서야 한다는 것, 우리가 이리저리 휘어지지 말고 참된 꾸밈없음 속에 곧게 걸으며 이렇게 말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정인가? 우리 모두 그것의 변호인이 되어 그것을 지켜야 한다. 우리가 나쁘다고 아는 다툼이 있는가? 진리를 거스르는 무슨 표지가 있는가?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애쓰고, 그것이 용납되지 않게 하자." 우리가 못 본 체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배신자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열심을 봅니다. 그것은 진리가 우리에게 알려졌을 때 그것을 고백하고 우리가 그것을 좋은 것으로 여긴다고 밝히는 데 그치지 않고, 모든 오류와 모든 거짓되고 악한 의견에 맞서는 열심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욥이라는 인물로 우리에게 보여 주는 그런 힘으로 불타올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구원의 가르침,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경건(religion)에 속한 것이 문제가 될 때, 우리가 좋고 참되다고 아는 것을 받아들여야 할

뿐 아니라, 그것도 배우려는 순종하는 정신으로 받아들여야 할 뿐 아니라, 이 진리에 반대되고 그것과 함께할 수 없는 모든 거짓 의견을 미워해야 한다는 것을 잘 새깁시다. (말하건대) 우리는 거기에 날카롭게 맞서야 하고, 우리를 반대하고 우리와 맞지 않는 모든 사람이 악하고 저주받았다고, 곧 우리가 그들을 정의와 올바름의 원수로 여긴다고 밝혀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와 하나 되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분께 반역하며 진리를 물리치니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고 모든 하나 됨의 참된 끈을 끊으니, 우리는 드러내 놓고 싸워야 하고 결코 그들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흔히 말하듯) 악인들의 비위를 맞추려 하고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 조심하며 두 물 사이를 헤엄치려는 사람들은 두 얼굴을 가졌다는 것을 드러내고, (흔히 말하듯) 옷도 갈아입지 않고 두 배역을 연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꾸밈을 견디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러하니 CO 460 여기서 하는 말을 잘 간직합시다. 곧 "그래, 나는 그것이 통해도 괜찮다" 하고 말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진리를 거스르지 않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을 보여 주려 한다면, 동시에 그것을 지켜야 하고, 우리를 거슬러 일어서는 모든 사람이 원수여서 우리가 그들을 미워해야 합니다. 진리와 거짓 사이에는 불과 물 사이보다 더 많은 화합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또 새겨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 밖에 욥은 자기 마음이 자기 날들에 대해 자기를 꾸짖지 않으리라고, 또는 기울지 않으리라고, 또는 뒷걸음치지 않으리라고 덧붙입니다. 이 낱말은 "꾸짖다"로 받아들일 수 있고, "다시 젊어지다"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비유적으로 "물러서다", "뒤로 돌아가다"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내 마음이 다시 젊어지듯 뒤로 물러서지 않으리라" 하고 말할 때 그 뜻이 잘 맞습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내 날들

에서 “, 곧 내가 이미 지나온 내 평생의 모든 때에서라는 것입니다. 요컨대 욥은 자기가 결코 기울지 않으리라는 것, 그리고 그날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데, 그것도 온 올곧음으로 섬기는 데 버텨 왔듯이 이제도 굽혀서 반역하고 다른 사람으로 나타나지 않으리라는 것, 오히려 사람들이 늘 그를 알아온 대로 알아보리라는 것을 나타내려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이미 밝힌 것을 이어 가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비추시는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선과 악을 분별하고 무엇을 따라야 하는지 아니, 우리가 들뜨지 않고, 흔들리는 갈대 같지 않고, 굳게 버티도록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을 살핍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에 두셨을 때 돛을 돌리지 말고 늘 따라갑시다. 심지어 저마다 더 나아갔을수록, 하나님께서 그를 그만큼 더 한결같도록 매어 두셨다는 것, 그리고 그가 등을 돌리고 바른 길을 떠난다면 그것이 그에게 그만큼 더 큰 수치여야 하고 그의 배은망덕이 그만큼 더 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밝히시자마자 우리는 그것을 사랑하는 데 사로잡혀서, 거기서 점점 더 자라 가려고 애쓰고 결코 거기서 돌아서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 첫날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진리를 우리에게 밝히시자마자 그것을 따르려고 잘 불타올라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한 달만이 아니라 일 년, 삼 년, 십 년 동안 이끄시는 은혜를 베푸셔서 그가 하나님과 자기 구원이 무엇인지 알면서 오래 살았는데, 그다음에 그가 반역하고 돌아서서 끝까지 이어 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직 좋은 뿌리를, 충분히 깊은 뿌리를 내리지 못한 사람이 돌아서거나 어떤 경박함으로 흔들려 버리는 것보다 CO 461 훨씬 더 큰 비겁함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선이 무엇인지 맛보았는데 곧이어 사람들이 그를 거기서 돌려 세운다면, 물론 그는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가 온전한 가르침을 받기 전에 그렇게 딴 데로 돌려졌다는 것을 사람들은 불쌍히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오래 바른 길을

따랐고 가장 굳건한 사람 가운데 하나로 보이는데, 그 사이에 그가 떨어져 나간다면 거기에 무슨 변명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욥이 이 구절에서 나타내려 한 것이 이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바르게 걷는 은혜를 베푸셨고 자기가 오랜 세월 동안 선이 무엇인지 알았으니, 이제 자기 마음이 뒤로 돌아서지 않으리라는 것을 보여 줍니다. 그러니 그의 본을 따라 우리 저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 복음의 순전한 믿음으로 이끌기를 기뻐하셨을 때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잘 생각하기를 배웁시다. 그분이 그것으로 세상의 모든 계약, 가장 엄숙한 계약이 맺어진 것보다 더 우리를 당신께 매어 두셨다고 생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잘 시작했을 때 끝까지 이어 가도록 살핍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손을 내미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분이 우리를 두신 길을 따라갑시다. 그 밖에 저마다 하나님의 진리를 안 뒤로 지난 세월을 잘 세어 보아야 합니다. "어떤가? 하나님께서 내게 당신을 나타내신 지 벌써 일 년, 삼 년, 십 년, 이십 년이 되었다. 그런데 그동안 나는 어떻게 자랐는가? 그리고 지금도 내가 마땅히 그래야 하는 만큼 나아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내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집에 받아 주시고 내가 완전히 길을 잃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으며 오히려 지금까지 버티게 하는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제 내가 그분을 부인하고 떠난다면 어떻겠는가? 그 배은망덕은 정죄받아 마땅한 것 이상이 아닌가?" 저마다 욥이 여기서 자기 인물로 우리에게 보여 주는 이 한결같음 안에서 자기를 굳게 하려면 이렇게 자기를 셈에 불러 세워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또 새겨야 할 항목입니다. 요컨대 우리는 이 구절에서, 신자들이 이성으로는 정죄하고 나쁘다고 확신하는 것을 믿는 척하면서 어떤 식으로든 꾸며 감추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핑계를 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그럴듯한 구실을 내세우든 우리는 늘 우리 위선 가운데서 정죄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사랑하시고 그

것을 너무 귀히 여기셔서,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거기에 붙어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일에서도 “그래, 나도 그렇게 믿는다” 하고 말하는 사람은, 그것이 아무 해를 끼치지 않고 아무에게도 잘못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사이에 마음에 정반대를 품고 있다면

CO 462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의 가르침,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리고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그분의 영예가 문제가 될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굽혀도 된다는 허락이나 방종을 얻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일에서도 우리가 물리치는 것에 동의하는 척한다면 우리는 이미 우리 잘못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가 공격받을 때, 사람들이 우리에게 거짓되고 악한 것을 내놓을 때 우리가 그런 핑계를 쓴다면, 우리는 우리 힘이 미치는 한 하나님을 배신한 뒤에 그분이 당신께 그렇게 결합하셔서 당신 자신, 곧 당신의 진리를 부인하지 않고는 떼어 낼 수 없는 것을 그분에게서 벗기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욥의 본으로 우리에게 밝히는 것을 잘 새깁시다. 곧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믿음을 주시는 이 은혜를 베푸셨을 때, 우리는 우리가 믿었고 확신한 것을 고백하고 전파하려고 입을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롬 10:10 참조). 그렇습니다, 알맞은 때와 곳에서 그래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가 참되다고 아는 가르침을 거슬러 일어서는 것을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거짓된 자가 되려 하지 않는다면 우리 힘이 미치는 한 그들에게 맞서고 하나님의 다툼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은 더 길게 풀어 볼 만하지만, 내가 그것을 짧게 간추린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밖에 저마다 거기서 유익을 얻도록 자기 자신을 생각하십시오. 실천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욥이 덧붙이는 것으로 옵시다. 그는 “위선자가 재물을 모았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뽑아 가신다면 그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하고 말합니다. 여기서 욥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죄를 벌하지 않으시고, 잠들어 계시며 눈을 감고 계셔서, 여기 아래에서 일들이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셔서 모든 것이 온통 어지러워진다는 뜻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그는 결국 모든 것이 셈에 오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첫 번에 눈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합니다. 요컨대 욥이 여기서 밝힌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늘 앞에서 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곧 욥의 상대편들은 사람들이 여기서 그들이 받아 마땅한 대로 다루어진다고, 하나님께서는 늘 당신께 구하고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선하고 다정하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으로 나타나시며, 반대로 당신을 업신여기는 자들, 곧 당신을 거슬러 일어서는 모든 자와 바른 길에서 벗어나는 모든 자에게는 곧바로 당신의 엄격함과 원수 갚음을 펼치신다고 논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반대를 봅니다. 곧 선한 사람들이 고난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할 나위 없이 혹독하게 핍박하시니 그분이 그들의 원수이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는 악인들이 CO 463 쾌락과 즐거움 속에서 개선 행진을 하는 것을 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신 품에 아주 곱게 안고 계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기서 당신의 정의를 온전히 행하지 않으시고, 선한 자들의 품삯과 악인들의 벌을 마지막 날까지, 이 삶 밖으로 남겨 두신다는 것을 알아봅니다. 그러니 이제 욥은, 자기가 앞에서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벌하지 않으시고 선한 자들을 괴롭게 하시며 그럴 만하지 않은 자들에게 지나친 잔인함을 쓰시고 반대로 악인들의 비위를 맞추시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에게서 그분이 늘 세상의 재판장이시고 땅의 형편을 다스리시려고 지켜보신다는 그분의 직무를 벗기려는 뜻은 아니라고 밝힙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습니까? 오, 그분께 어떤 정해진 날을 지정해 드리거나 그분이 지금 이 시각에 당신의 직무를 행하시라고 독촉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참고 기다려야 하고, 그분은 여기저기서 당신 심판의 본보기들을 우리에게 보여 주실 것입니다. 요컨대 욥이 여기서 밝히려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이 가르침을 보았지만,

그것이 여러 번 되풀이되는 것을 지겨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붙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항목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곧 이 세상의 소란 한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일들을 되는대로 흘러가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 그분이 악인들을 아끼시고 얼마 동안 그들을 벌하시는 것을 미루시더라도 결코 그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으시다는 것, 그러니 그 때문에 그들의 처지가 더 나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늘 불행하고 그들에게 감추어진 원수 갚음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오늘 나타나지 않는 그분의 벌을 이렇게 미루시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첫 번에 그들을 벌하시는 것이 그들에게 훨씬 나으리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 선한 사람들이 고난을 받더라도, 그들이 하나님께 피하고 자기 위에 놓인 멍에를 지려고 목을 숙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순종을 시험하려 하시고 그래도 그들을 사랑하시기를 그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 때, 그들이 복되기를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완전히 확신하는 것이 더할 나위 없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웁시다. 우리가 그것을 확신할 때 우리는 평생을 위해 많은 유익을 얻은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을 살펴봅시다. 우리가 어떤 시험을 받자마자 너무 당황하고 겁에 질려서 아무도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이 형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그들을 더 참으시는 것을 보면, 이를 가는 것밖에 없고, 더는 기다릴 것이 없으며, 하나님을 부르고 섬긴 것이 헛수고였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 처지가 우리 육이 바라는 대로가 아니면 낙심하고, 그렇습니다, 성을 내고 CO 464 하나님을 거슬러 거의 거품을 뭅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너무 흔들려서, 우리의 모든 비참 한가운데서 하나님께 피해야 하고 그분이 늘 우리 구원자요 아버지이시리라는 것을 알아서 우리 악을 누그러뜨려야 한다는 것을 확고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러하니 이것을 확고히 하려고 우리 연약함과 싸웁시다. 그리고 또 반대로 악인들의 형통함을 볼 때 우리가 힘을 잃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소나 돼지처럼 살찌우신다는 것을 알고

늘 용기를 가집시다. 소를 잡으려 할 때 사람들은 그것을 살찌울 것이고, 쟁기질을 시킬 때보다 도살장으로 끌고 가려고 준비할 때 훨씬 더 잘 대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돼지에게도 똑같이 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악인들을 소나 돼지처럼 다루셔서 그들을 살찌우시고 배불리시고 완전히 배가 터지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멸망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이 그분의 선하심과 참으심을 남용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너그러우시고 그들이 그분의 손에서 받는 모든 은혜를 더럽히는 동안, 그들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진노의 보물을 쌓을 뿐입니다(롬 2:5). 그러니 이 가르침이 우리에게 그렇게 유익하고, 다른 한편으로 그것을 헤아리기가 아주 어려우니, 그것이 여러 번 되풀이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맙시다. 우리는 첫 번에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니 이 교훈을 되새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그것을 깨닫기 시작만 잘 해도 큰 유익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것이 날마다 되풀이되어도 우리는 곧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이제 욥의 말로 옵시다. "위선자가 재물을 모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뽑아 가실 때 그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욥은 이 말로 사람들의 복을 이 현재 삶 안에 가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언제 사람들이 복되다거나 불행하다고 말하겠습니까? 우리 시선을 이 세상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되고(그것은 너무 좁은 경계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에까지 가야 합니다. 바로 거기서 우리 주님께서는 여기서 편히 지내고, 많은 재물을 모으고, 영예를 누리고, 세력을 가지고, 평안히 실컷 먹고 마시고, 요컨대 여기서 자기 바람을 다 이루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말하건대) 하나님께서는 죽음에서, 그 모든 것이 지나가고 사라지는 연기일 뿐이라는 것을 밝히십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처지가 복된지 저주받았는지 잘 판단하려 할 때, 그들이 여기서 어떻게 살고 이십 년이나 삼십 년이나 오십 년 동안 어떻게 대우받는지만 보지 말고,

사람들이 여기를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신께 부르신다는 것을 알아봅시다. CO 465 시편 90편(3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날아다니듯 한 바퀴만 돌게 하시고 그다음에 "사람의 아들들아, 내게로 돌아오라" 하신다고 말하는 대로입니다. 현재 삶만 생각하는 모든 사람처럼 어리석은 의견에 사로잡히지 않으려면 먼저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들은 "아무개는 부자다. 그는 재산이 그렇게 많고, 그다음에 좋은 소유지가 그렇게 많다. 개선 행진하는 것밖에 없다. 그는 좋은 집에 살고 지갑에 돈이 있다" 하는 것을 보면 곧바로 사로잡히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저 사람은 큰 세력이 있고 친척과 인척이 있다. 아무개는 지혜롭다고 여겨져서 저마다 그에게 아첨한다." 우리가 이 세상만 생각할 때 이렇게 됩니다. 우리 눈이 부시거나 그 앞에 눈가리개가 있는 것처럼 되어서 더는 판단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 주는 것을 간직합시다. 곧 하나님께서는 죽음으로 이 세상에서 편히 산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것으로 사람들의 처지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밝히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 하찮은 판단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욥은 특히 "악인이 많이 모았다 해도" 하고 말합니다. 곧 이 삶 동안 어떤 사람이 바랄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해 봅시다. 그렇다고 그의 처지가 더 낫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뽑아 가실 때 어떻겠는가?" 하고 말합니다. 이 "뽑다"라는 말은 악인들의 죽음이 늘 폭력적이라는 것을 보여 줍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 세상에서 거의 썩어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는 견딜 수 없을 만큼 오래 살게 하셔서 그들이 평생 십 년 동안 몸을 끌고 다니기만 한다 해도, 그들이 실컷 배부르고 만족한 채 죽는다 해도, 그래도 그들은 뽑혀 나갑니다. 까닭은 무엇입니까? 먼저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그들은 자기가 무슨 목적으로 세상에 놓였는지, 곧 하나님께 다시 부름을 받으려고 놓였다는 것을 결코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늘의 삶과 우리에게

준비된 죽지 않는 유산을 그만큼 덜 확신합니다. 그러니 모든 불의한 자에게 모자라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곧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께 다스림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자기가 지음받은 목적, 곧 그들이 이 세상에 지나가려고만 놓였다는 것을 알지 못하며, 끝으로 하늘의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안식이 거기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악인들은 이 세 가지를 결코 깨닫지 못했으니, 그들이 이 세상에서 뽑혀 나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억지로 끌어내셔야 해서 그들이 기꺼운 뜻으로 그분께 가지 않는다고 해서 놀랄 것이 없습니다. 반대로 신자들은 그분을 알면서 여기서 살았던 것에 만족하며, 여기서 우리에게 약속되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을 온전히 누리려고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 악인들은 뽑혀 나갑니다.

CO 466 그런데 그래도 잘 생각해 보면, 이렇게 뽑혀 나가는 것은 본성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그리고 내가 말한 이 반역이 모든 믿지 않는 자 안에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때로 이교도들도 이런 말을 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죽음을 피하고 현재 삶에 너무 빠져 있다면 우리가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밝히셨습니다. 재판관이 악행자를 고문대에 붙잡아 두고 그가 원하지 않는 것을 자백하게 하듯, (내가 이미 말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교도들에게서 거의 억지로 고백을 끌어내셔서, 기꺼이, 평온한 마음으로 죽지 않는 모든 사람이 본성 전체를 뒤엎는 괴물 같다는 것을 보여 주셨습니다. 보십시오, 좋은 가르침을 한마디도 들어 본 적 없는 이교도 한 사람이 자기 아들의 죽음에 관해 듣고 "나는 내가 그를 죽을 자로 낳았다는 것을 안다" 하고 말합니다.[59] 보십시오, 한 사람에게서 끌어낸 이 고백은 온 세상을 일반적으로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 두셨을 때,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처리하기를 기뻐하시는지 바라보아야 한다. 그분이 우리를 거기서

59. 아낙사고라스의 말로 전해집니다(키케로, 『투스쿨룸 대화』 3.30).

데려가려 하신다면, 우리 생명이 그분의 뜻에 매여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보자." 다른 이교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 마치 망대에 보낸 파수꾼처럼, 또는 사람들이 군인에게 '여기 가라, 저기 가라' 하듯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원하실 때 우리를 다시 부르신다는 조건으로 우리를 여기 아래에 두셨다." 이렇게 말한 이교도들은, 이 자리에서 자기의 악한 애정을 그럴듯하게 꾸미고 변명하려고 대꾸하려는 모든 사람을 정죄하기에 넉넉하고도 남는 증인입니다. 그 밖에 (내가 이미 말했듯이) 그들은 하나님께 강요받아서야 이렇게 말했다는 것을 새깁시다. 곧 우리가 그분의 뜻에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 정죄가 그들에게서 기록되고 선고된 것처럼 우리에게 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이 남습니까? 우리가 기꺼이 죽고 평안히 하나님께 가도록 준비되려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막는 악덕을 알아보고, 그것을 고칠 처방을 알아봅시다. 그러니 먼저 하나님께 복종하기를 배우고, 우리를 지으시고 빚으신 분의 다스림에서 벗어나려 할 만큼 비뚤어지고 미치지 맙시다. 신자들이 먼저 힘써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곧 우리가 왜 지음받고 빚어졌는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모든 다스림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분께 따르고 완전히 그분을 섬기는 데 자기를 바쳐서, 살든지 죽든지 늘 그분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롬 14:8 참조). 사람이 이렇게 온 겸손과 공경으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자기를 부인하여 "그분이 너를 이기셔야 하고 CO 467 모든 주권을 가지셔야 한다" 하고 말할 수 있을 때, 그것은 좋은 시작입니다. 물론 이 가르침은 우리를 사흘이고 석 달이고 붙잡아 둘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마다 여유 있게 그것을 생각하도록 내가 짚는 것을 요컨대 우리가 아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평안히 살고 죽으려 하고 억지와 폭력으로 이 세상에서 뽑혀 나가지 않으려 한다면 되새겨야 할 첫째 교훈이 이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가 있습니다. 곧 우리가

무슨 목적과 의도로 이 세상에 놓였는지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들짐승 같지 않겠습니까? 소는 하나님께서 왜 자기를 지으셨는지 모르고, 다른 짐승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에게는 감각과 이성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를 세상보다 더 멀리 부르셔서 이 삶이 지나가는 길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들짐승들은 누가 그것들을 때려잡거나 목을 따거나 어떤 비참으로 죽을 때까지 죽는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그것들은 삶과 죽음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그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 주님께서는 날마다 우리 눈앞에 우리 연약함의 거울들을 보여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묻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짐승 같지 않겠습니까? 더 나쁜 것은, 들짐승들이 우리를 정죄할 수밖에 없으리라는 것입니다. 소는 자기가 왜 지음받았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어떤 본성의 질서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소가 뿔을 숙이고 멍에를 지려고 목을 굽히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그것에게 뜻도 감각도 없이 어떤 가르침을 주셔서 가련한 짐승들에게 자기 직무에 속한 것을 하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 사람들이 소나 말이나 나귀보다 더 고집이 세다면, 그것은 너무도 추한 일이 아닙니까(사 1:3 참조)? 그러니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세상에 두셨는지, 우리가 무슨 목적으로 여기서 사는지 배웁시다. 곧 우리가 여기에 지나가는 길에 있는 것 같고, 여기 아래 땅에 머물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비용으로 먹고 살아가고 있으니 완전히 그분의 은혜에 매여 있다는 것을 알아보고, 그분을 아버지요 구원자로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섬기는 데 몸을 바칠 때 그분이 실제로 우리에게 그런 분으로 당신을 밝히시는 대로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폭력적인 손에 억지로 끌려 나가지 않고 기꺼이 죽으려 한다면 되새겨야 할 둘째 항목이 이것입니다. 셋째가 있는데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곧 하늘의 삶입니다. 죽음은 그 자체로 늘 우리에게

무섭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면 우리는 겁에 질리지 않을 수 없으며, CO 468 죽음을 생각할 때 어떤 놀람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하니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죽음을 바라지 않는다고, 사람이 죽기를 바라는 데 이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그것을 피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죽음이 저주이고, 본성의 부패 같은 것이며, 사람이 죄를 짓기 전에 있던 하나님의 질서가 바뀐 것 같은 것이라는 이 감각을 우리 안에 새겨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 육에 반대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앎 때문에 그 두려움이 우리를 겁에 질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하니 사도 바울은 내가 든 고린도후서 5장(1–4절)의 그 구절에서, 우리가 죽음 그 자체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무너질 천막 같은 데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바란다고 말합니다. 우리 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너무 썩기 쉬워서 나뭇잎도 우리만큼 빨리 썩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준비된 집이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 하늘의 영광으로 회복될 때 곧 썩어 버리는 나뭇잎 아래 작은 오두막 같은 데가 아니라 죽지 않고 영광으로 가득한 건물에 거하리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삶, 그토록 복된 삶으로 부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의 보증을 주신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죽음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것으로 우리 구원을 완전하게 차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처럼 죽음에 가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나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하고 말합니다. 그들이 자기 영혼의 죽지 않음에 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 재판장이 되실 것이다" 하고 알아보면서 거기서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그들은 너무 짐승처럼 되어서 이것보다 더 나은 삶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께 거두시려고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 주시는 본을 따라 완전히 그분께 자기를 맡길 때 그분이 그렇게 하시리라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분은 "아버지, 내 영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눅 23:46 참조)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기꺼이 "주님, 내 영혼을 주의 손에 맡깁니다" 하고 말하기를 배웁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지킴이시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이렇게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이 와서 그분이 우리 영혼을 몸과 다시 결합하실 때까지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으니, 우리는 이렇게 자원하여 기꺼운 뜻으로 죽음에 갈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질 때 이 기도를 굳게 하려고 "진리의 하나님, 주께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시 31:5 참조)를 덧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쓰셔서 이것이 CO 469 교회의 모든 지체에게 공통되어야 할 간구라는 것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거짓 꾸밈없이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 맡길 때 그분이 그것을 지키려고 받아 주시리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도록, 그분이 진리의 하나님이셔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우리가 망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시리라는 것을 알아봅시다. 우리가 그분의 손에 자기를 맡기는 이 정신과 지혜만 가진다면 말입니다.

이제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엎드립시다.

제99편

욥기 27장 설교 3

CO 34:470–481

AI로 옮긴 초벌 번역입니다. 신학 감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CO 권: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 위선자가 재물을 모았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뽑아 가실 때 그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고난이 그에게 닥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겠는가? 그가 전능자 안에서 즐거워하겠는가? 그가 언제나 하나님을 부르겠는가? 내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자네들에게 가르치고, 전능자께 있는 것을 숨기지 않으리라. 보게, 자네들이 이 모든 것을 보았는데, 어찌하여 헛됨 속으로 사라져 버리는가? (욥 27:8–12)

CO 470 어제 우리는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를 판단하려 할 때 현재 삶에 머물지 말고 더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의 삶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것이 그림자일 뿐이라는 것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 바람을 다 이루고 하나님께서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그에게 허락하신다고 해 보더라도, 그 모든 것이 곧 지나가 버리는 연기 말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 사람의 삶이 복된지 불행한지 분별할 줄 알려면 욥이 여기서 말하는 이 소망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그는 우리를 죽음으로 다시 데려가서, 믿지 않는 자들이나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폭력으로 뽑혀 나가니 그들이 모두 불행하다고 결론 내려야 하고, 그들이 가진 즐거움과 재물과 영예와 그와 비슷한 것들은 그들을 속이는 헛됨일 뿐이어서 거기에 정신을 팔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밝힙니다. 그러니 사람이 이 세상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분의 선하심에 기대어 쉬며, 그 사이에 자기의 영원한 유산이 여기가 아니라 하늘에 있

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마다 떠날 준비가 되어 있게 살 때, 그는 복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키고 계시다는 것조차 알지 못하고, 늘 세상에 머물고 싶어 해서 억지와 강요가 아니면 떠날 수 없는 사람은, 그가 얼마 동안 바라는 모든 것을 가지더라도 비참한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더 굳게 하려고 이제 욥은, 악인들이 기도할 때, 그것도 괴로움 한가운데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지 못하리라고 덧붙입니다. 이것은 아주 새겨 둘 만합니다. 욥은 우리가 가질 수 있고 바라야 할 으뜸가는 좋은 것이 무엇에 있는지 보여 주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께 피난처를 두고, 그분이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셔서 필요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는데 이것이 없다고 해 봅시다. 나머지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닐 것이고, 심지어 그에게 불행으로 바뀔 것입니다. 사람이 웃고, 쾌락과 즐거움 속에 있으며, 재물이 넘쳐흐르고, 저마다 그를 높이며, 요컨대 그가 여기 아래 낙원에서 작은 신처럼 보인다 해도, 그가 하나님께 피하는 이 특권을 갖지 못하고 그것이 헛되지 않고 자기 간구가 들어질 것이라고 완전히 확신하지 못한다면, 그가 그 밖에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은 저주일 뿐이고 그의 멸망을 그만큼 더 키울 것입니다. 그러니 욥이 여기서 우리를 우리 온 삶에서, 곧 우리가 바랄 수 있는 좋은 것에서 으뜸가는 것으로 다시 데려가는 데에는 까닭이 있다는 것을 잘 새깁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고, 우리가 그분께 피하며, 그분이 우리 말을 들으시고, 우리가 우리 간구를 얻어서 필요한 대로, 그리고 그분이 우리 구원에 알맞다고 아시는 대로 그분의 선하심으로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기서만이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가르침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의 말을 들어 주려 하시지 않는다면 그들은 늘 불행하다는 것을 볼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우리가 그만큼 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좋은 분별이 한 방울이라도 있다면, 그것이 참되고도 남는 가르침이라는 것을 알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눈을 뜹시다. 그리고 CO 471 이 복을 누리고 그것이 주로 무엇에 기초해 있는지 알려면,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그분이 필요할 때 우리를 도우려고 준비되어 계시리라는 참된 신뢰와 확실함으로 우리가 그분께 피할 수 있지 않다면, (말하건대) 우리에게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비참한 자 이상이라는 것을 알기를 배웁시다. 그 밖에 우리에게 그런 좋은 것, 곧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좋은 것이 있다면, 우리가 복되지 못하게 막는 고난도 비참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쓰러진 것 같을 때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그것도 알맞은 때에 우리를 건지시며, 심지어 우리의 모든 비참을 선과 구원으로 바꾸셔서 그것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만큼의 도움이 되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알맞고 유익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보내지 않으셨다는 것을 느끼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실 때, 그것은 우리의 모든 악에 충분해야 할 처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약속이 있을 때, 그것은 우리의 모든 비참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 저마다 거기서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1–2절)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대로입니다. 그가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과의 이 평화 아래 욥이 여기서 하는 말이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확신하지 않는다면, 그분께 나아가도록 문이 열려 있고 쉽게 나아갈 길이 있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가질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에게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영원한 유산을 자랑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고 확고합니다. 요컨대 욥이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겠는가? 그것도 그가 자기 고난 속에서 그분을 부를 때에?" 하고 말하면서 뜻한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도우려는 마음이 있으시리라고 약속하셨는데, 그분이 어떻게 당신을 부르는 사람을 물리치십니까? 그분은 심지어 구함을 받기를 기다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바람보다 앞서 오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적어도 우리에게는, 우리가 입을 열자마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려고 준비되어 계시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이 당신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시는 대로입니다(65:24). 그런데 내가 짚은 다른 구절에는 더 나아가 "그들이 부르짖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정반대의 위협이 있습니다. 곧 악인들이 하나님께 피하고 그분께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구해도 그분이 그들의 말을 들어 주지 않으시리라는 것입니다. 그 해답은 아주 쉽습니다. 시편(145:18)에서 하는 말, 곧 하나님께서는 진실하게 당신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계신다는 말을 따져 보면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선지자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만 거짓 꾸밈으로 찾는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비로 받아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 말고는 우리 악에서 건짐받을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니, 믿지 않는 자들조차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들이 CO 472 경건(religion)을 비웃고,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가 그분에게서 소망해야 할 그분의 자비와 은혜에 관해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는 모든 말을 비웃었더라도 말입니다. 그러니 악이 그들을 짓누를 때 그들은 "아이고, 하나님!" 하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들을 그렇게 하도록 몰아붙입니까? 그들의 타고난 감각입니다. 그러니 위선자들과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모든 자에게도 어떤 기도의 모양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건성으로 딴생각을 하며 기도할 때만이 아니라, 때로는 그들이 어떤 간절함으로 거기에 나아가는 것이 보일 것입니다(그들이 몰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실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렇게 말하는 앎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당신께 초대

하신다. 나는 거기 가서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분이 나를 당신 자녀의 수에 넣어 인정하기를 기뻐하시니, 나는 어리석은 경솔함과 주제넘음으로 가 아니라 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거기 가겠다. 나는 그분의 약속을 신뢰한다." 위선자들은 이런 말을 할 수 없고, 그러하니 그들 안에는 아무 진실도 없습니다. 거기에 믿음이 있어야 할 것인데, 믿음은 악인들이 결코 맛보지 못한 약속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우리 비참에 대해 가져야 할 이 감각이 있습니다. 곧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자기 안에서 부끄러워하고, 자기 죄를 싫어하며,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가 비참한 자 이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악인들과 위선자들에게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려고 입을 연다 해도, 그들 안에 아무 올바름이 없으니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힐 뿐입니다. 그러하니 그들은 선지자 이사야가 29장(13절)에서 하는 말, 곧 그들의 혀와 입은 하나님께 잘 나아오지만 마음은 늘 그분에게서 멀리 있으리라는 말을 이룹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당신을 부르는 모든 자의 말을 들으시겠다고 선언하고 증언하실 때, 그분은 그들의 기도가 믿음에서 나오고, 사람들이 그분의 약속을 잘 묵상하여 거기서 그분께 나아갈 담대함을 얻으며, 그 사이에 그들이 자기를 있는 그대로, 곧 잃어버린 자요 정죄받은 자요 모든 선을 갖지 못한 자로 알아보기를 뜻하신다는 것을 잘 새깁시다. 우리도 그분의 선하심과 은혜의 샘에 피하려면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위선자들과 악인들이 당신께 나아올 때 그들을 밀어내신다고 해서 이상하게 여길 수 없습니다. 그것은 기꺼운 뜻으로, 순전한 애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 그들은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피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들은 그분 없이는 지낼 수 없으니, 그렇습니다, 억지로 그분께 나아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분께 자원하는 제사를 드리기를 배웁시다. 그분 없이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과 우리 구원에 속한 것을

갖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 기꺼운 뜻으로 거기 나아가기를 배웁시다. 그 밖에 CO 473 그분이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셨으니 그분이 우리에게 호의와 은혜를 베푸시려 한다는 것을 의심하지 맙시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받으시려고 다 준비되어 계시고, 우리가 그분께 구하러 갈 때 우리 간구에 귀를 막지 않으시리라는 이 믿음을 늘 가집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방식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특히 "위선자에게 환난이 닥칠 때"라고 씁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 기도가 얼마나 값진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가져오는지 알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순간마다 우리에게 당신의 선하심을 밝히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빨리 깨닫지 못했다 해도, 그분은 이미 우리 머리 위에 있는 악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당신의 손을 그 앞에 두고 계십니다. 그러니 형통한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보아야 하고, 우리가 그 은혜로 지켜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형통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움을 고난 가운데서만큼 그렇게 확실하고 밝게 경험하지 못합니다. 악이 우리를 짓누르고 죽음이 우리를 위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러 앞서 오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끝장났고 절망적이라고 판단하는 이 눈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이런 헤아림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흔들리겠습니까? 그러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을 아주 뚜렷이 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자로 당신을 밝히시는 것은 주로 고난 가운데서입니다. 그리고 시편(50:15)에서 "너는 네 환난 날에 나를 부를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니, 너는 그것으로 나를 찬양하리라" 하고 말하는 까닭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극한에 이르러 더는 견딜 수 없을 때가 아니면 하나님께 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그런 강요를 기다린다면 우리는 너무 게으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곧 밝히겠지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괴롭게 하시면서 우리를 재촉하시고, 그때 우리 게으름을 바로잡으시며 우리를 찔러서 당신께 오게 하십니다. 특히 우리가 그분을 불러야 할 때가 그때이고 그것이 참으로 알맞은 때라고 말합니다. 시편 32편(6절)에서 의인들이 알맞은 때에, 곧 악이 그들을 짓누를 때 하나님께 구하리라고 말하는 대로입니다. 우리에게 늘 그렇게 할 까닭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어느 때보다 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우리는, 우리가 끝까지 몰려 더는 견딜 수 없을 때 낙심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갈 담대함을 얻어야 한다는 경고를 받습니다. 그분이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도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를 받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려고 손을 내미실 뿐 아니라, 우리 안에 너무 많은 게으름이 CO 474 있는 것을 보시니 거의 억지로 우리를 끌어당기신다는 것을 알면서 말입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새겨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 믿음의 열매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곧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께 피할 때, 우리는 비참 가운데서도 복되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 때문에 보내시는 모든 저주가 믿음의 방법으로 우리에게는 선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고난 한가운데서 그분이 구원자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느끼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욥은 이렇게 말한 뒤에, 불의한 자는 전능자 안에서 즐거워하지 않을 것이고 언제나 그분께 구하지도 않으리라고 덧붙입니다. 그가 불의한 자는 언제나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리라고 말할 때, 그것은 이미 짚은 것, 곧 우리가 더는 견딜 수 없을 때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늘 하는 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굳게 하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우리가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는 지낼 수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분에게서 기다리는 은혜는 우리가 이미 무덤 가장자리에 있는 것 같을 때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고 악을 우리에게서 돌려

놓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삶에서 늘 백 가지 죽음에 포위되어 있고, 우리가 매인 비참이 끝이 없다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셔야 하고 우리의 성벽과 성채가 되셔야 합니다. 그분이 당신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시는 대로입니다(26:1). 곧 그분이 우리의 요새요 방패이시라는 것입니다. 시편에서 그분을 그토록 자주 그렇게 부르는 대로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드리시고 우리 위를 크게 내리치실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쉬고 편안하며 아무 위험도 알아보지 못할 때에도 그분을 이렇게 불러야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우리 삶이 얼마나 많은 비참에 매여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지 않으면 우리가 거기서 벗어날 수 없으리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분께 피하여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아, 주님, 우리를 주의 보호 안에 두시고, 주의 섭리로 우리를 둘러싼 그 많은 죽음 사이를 지나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것은 저녁과 아침으로 해야 합니다. 더구나 우리는 (멀리 갈 것도 없이) 날마다 우리를 공격하는 시험을 압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것은 현재 삶에 관해 우리가 처한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 주시기를 구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이 사탄의 시험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손을 펴고 계셔서 우리가 악에 떨어지도록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마 6:13 참조). 그분의 능력으로 붙들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떨어질 수 있는 치명적인 추락이 순간마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신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지켜지고 보호받을 필요가 얼마나 있는지 CO 475 살펴봅시다. 사탄은 한쪽에서 우리를 이길 수 없었을 때 앞뒤에서 새로운 기습을 하고, 이쪽저쪽에서, 위아래에서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불붙고 타오르는 화살이 너무 많아서(엡 6:16 참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아 주시고 지켜 주지 않으셨다면 그는 우리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루에 한 번만, 또는 필요가 우리를 몰아붙일 때만 하나님께 기도할 일이 아니라, 계속해야 하고

그것이 늘 하는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불의한 자는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리라고 말하는 까닭이 이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새겨야 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욥은 악인이 때로 기도하는 척하더라도 거기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 따라갈 한 결같음과 이어지는 실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위선자들의 기도가 하나님 자녀들의 기도와 다른 점이 이것입니다. 위선자는 자기 마음을 살피지 않고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것을 잘 할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고, 심지어 자기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작은 시험이 그에게 닥치면 그는 성을 내고 더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분을 거슬러 투덜거리고, 그런 광기로 거품을 물어서, 그가 전에도 하나님에게서 아무것도 기다리거나 소망하지 않았고 올바른 마음으로 그분을 찾지 않았으며 거짓 꾸밈밖에 없었다는 것을 잘 드러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을 그들의 욕심대로 다루지 않으시고 어떤 괴로움 속에 가두어 두실 때, 그들의 위선은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때 그들은 그분께 성을 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신실한 사람은 형통하고 평안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괴롭게 하실 때에도 그분이 내신 상처의 의사가 되어 주시기를 늘 그분께 구하며 버티기를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호 6:1 참조). 요컨대 하나님의 자녀들은 계속 기도하고, 이 끝까지 버팀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괴롭히시고 그들에게 등을 돌리시며 그들의 간구에 귀를 막으신 것처럼 보여도 그래도 그들은 계속하고 결코 지치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믿지 않는 자들은 기도한 뒤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박수를 쳐 주지 않으시고 그들의 비위를 맞추어 그들의 모든 바람을 이루어 주지 않으시면, 자기들이 시간을 허비했다고 여깁니다. 그러니 우리는 바르게 기도하는 방식이 무엇인지 봅니다. 먼저 극한의 필요를 기다리지 말고 오히려 필요한 대로 앞질러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보다 앞서 오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한 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고난과 곤경 속에 있을 때에도 형통할 때처럼 기도하기를 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의적이시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오히려 우리가 우리 육적인 감각으로는 그분이 우리를 거스르시고 우리 원수이시라고 여기더라도, CO 476 우리는 그분을 부르면서 우리 믿음을 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아무 유익도 얻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간구에 귀를 막으신 것처럼 보일 때에도, 지치지 말고 버텨야 합니다. 오히려 오늘 우리가 신음하고 탄식했는데 아무 덜어 줌도 느끼지 못했다면, 내일 다시 이 처방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실제로 보십시오, 환자는 약이 무엇으로 자기에게 유익한지 첫 번에 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도 그는 사람들이 주는 조언을 믿기를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하나님보다 죽을 사람들에게 더 믿음을 두어야 하겠습니까? 그러니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여기 놓인 이 말을 잘 따져 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러 한때의 충동으로 간다면 아무것도 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일에 부지런해야 하며, 저마다 저녁과 아침으로 자기를 재촉하고 자기를 불러 세워야 한다는 것을 생각합시다. "뭐라고? 가련한 피조물아, 여기서 자고 있느냐? 네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셔야 할 필요를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고난을 받고 악을 견딜 때, 하나님을 부르기를 그치지 말고 낙심하지 맙시다. 고난이 우리에게 선과 구원으로 돌아오리라는 것을 알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평생 동안 거기에 머뭅시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끝까지 버텨서 우리가 거기서 귀찮게 조르는 사람이 될 만큼 합시다. 우리 주 예수께서 드시는 비유에서 보여 주시는 대로입니다(눅 18:1–8 참조). 곧 하나님께서 첫 번에 우리 말을 들으셨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 주지 않으시더라도 우리는 기도하기를 결코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악인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지 않으리라고 합니다. 이것은

아주 눈여겨볼 말이고 좋은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욥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신자들이 가진 즐거움이나 기쁨과 믿지 않는 자들이 누리는 즐거움 사이의 차이를 짚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모든 자, 모든 악한 자, 방탕하게 사는 모든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복되어 보여도 불행하고 그들 안에는 온갖 가난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꼴사납고 가난하며 거의 정죄받은 피조물로 여겨지더라도,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니 복됩니다. 그러니 이것은 잘 지켜보고 자주 기억에 되살려야 할 구절입니다. 우리 가운데 기뻐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우리는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그것을 어디서 얻어야 하는지, 그것을 어디에 맞추어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기쁨이 하나님 아들의 입으로 저주를 받는 까닭이 이것입니다. "너희 웃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눅 6:25 참조). 어떻게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늘 우울하기를 원하십니까? CO 477 우리가 어떤 즐거움을 누리면 하나님께서 언짢아하시고 마음 상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기뻐하기만을 바라시고 그들에게 그렇게 할 것을 주신다고 말하는 구절들은 어디 있습니까? 그분은 그들을 먹이시고 살리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기쁘게 하시려고 넘치도록 주시기 때문입니다(시 104:15 참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이 세상의 웃음을 저주하십니까? 오, 그것은 사람들이 기뻐하려고 취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자기를 잊고 하나님에게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듯 대부분의 사람은 하나님을 멀리 내던지고 넘쳐흘러서 그들 안에 더는 분별도 이성도 없을 만큼 무절제에 빠지지 않고는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분량을 넘으니 그들의 기쁨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본보기를 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 일이 그렇게 잘 알려져 있지도 실천되지도 않는다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자기 안에서 그런

악덕을 찾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말할 때 우리는 그것이 빨리 끝났으면 하고 바라기 때문입니다. 말하건대,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그분 안에서 찾는 그분의 달콤함이 어떤 것인지 느끼게 하지 않으셨다면 말입니다. 그것을 한 번 맛본 사람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말하는 것을 아무리 들어도 물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세상의 모든 즐거움보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분을 생각하는 것을 더 좋아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헛된 것에 빠진 사람들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하나님을 말할 때 결코 충분히 빨리 빠져나가지 못하리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그들에게는 우울할 거리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잔치에서, 이야기에서, 그와 비슷한 데서 하나님을 언급하면 그것이 모든 것을 언짢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기쁨이 그렇게 비뚤어지고, 바른 길에서 벗어나 방탕하며, 아무 확실한 목적이 없고, 온갖 방탕과 무절제 속에서가 아니면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그 위에 이 무서운 저주를 선언하신다고 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맙시다.

그러니 율법에서 하는 말로 돌아갑시다. "너는 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라"(신 12:7, 12 참조). 하나님 앞에서 기뻐한다는 이 가르침은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좋은 것이 그분에게서 나온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우리가 그분을 우리 아버지로 여기고 그것에 대해 그분께 감사를 드리게 하시려고 그것을 우리에게 넉넉히 베푸신다는 것을 알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분이 모든 좋은 것의 샘이시니 우리가 그분께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컨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사람들은 피조물에도 이 모든 썩을 것에도 매달리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아버지 같은 선하심으로 돌려야 한다는 것을 알며, 그분이 나누어 주시는 좋은 것을 그분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굳게 서려고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CO 478 기뻐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반대로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말했듯이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 것처럼 되고, 그분께 등을 돌리며, 심지어 그분을 잊어버리지 않고는 결코 웃거나 즐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쁨은 참으로 저주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욥의 말이 무엇인지 봅니다. 그는 사람들의 복을 마땅히 판단하여 겉에 나타나는 것에 머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교도들조차 이 상상의 복에 관해 그것이 아름다운 그림 같다고 잘 말할 줄 알았듯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나무로 된 인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겉은 금칠이 잘 되어 놀랍도록 빛나지만, 그 속은 좀이나 다른 벌레에 먹혀 있을 것입니다. 기뻐하려고 이렇게 하나님을 비웃는 이 모든 멋쟁이 세상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세력과 재물과 쾌락을 가질 수 있을 것이고, 그러니 사람들은 그들의 삶이 세상에서 가장 복되다고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그들은 속에서 갉아 먹히고 있고, 그들의 악한 양심은 그들을 쉬지 않고 괴롭히는 사형 집행인 같아서 그들은 자기가 어떤 처지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들은 하나님을 부를 수 없으니 그분에게서 자비를 소망하지 못하고 아무 확실함도 갖지 못하며, 이것이 얼마나 오래갈지 모르니 늘 떨 수밖에 없습니다. 요컨대 그들은 둔하고 들짐승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신자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이 보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아버지 같은 얼굴을 바라보았을 때, 그분이 우리를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괴롭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악에 좋은 결말을 주시리라고(고전 10:13 참조) 선언하실 때 그 한마디가 우리를 위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참고 견뎠을 때, 우리를 이 세상의 헛된 것에서 끌어내시려고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손에 징계받는 것이 우리에게 알맞고 유익했으니, 그것이 우리 구원에 유익했다는 것을 느끼게 되리라고 선언하실 때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이미 짚은 것을 봅니다. 곧 믿지 않는 자들이 사람들이 흔히 바라는 모든 것을 가지더라도 그것은 헛됨과 거짓일 뿐이라는 것, 그리고 반대로 신자들은 많은 고난에 짓눌리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고, 그분이 자기들에게 호의적이시며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방식으로 자기들을 징계하신다는 것을 아니 그분 안에서 기뻐할 수 있어서 복되기를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앞에서 말한 것, 곧 어떻게 기뻐해야 하는지를 간직합시다. 물론 우리에게 먹을 빵과 마실 포도주와 이 삶에 알맞은 다른 좋은 것들이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뻐할 거리와 까닭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이런 너그러움에는 CO 479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에게 자손을 주실 때, 재물을 보내실 때, 그와 비슷한 다른 일에서 그를 형통하게 하실 때처럼 말입니다. 그것은 늘 기뻐할 거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기뻐해야 합니까? 우리가 든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기쁨에 복을 주시고 그것을 인정하시며 그것이 그분 앞에서 하는 것 같도록 기뻐하려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가 모든 좋은 것을 그분에게서 얻는다는 것을 알아서 그것을 그분께 경의로 드립시다.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분 안에 그런 기다림을 가져서, 현재의 것들에 정신을 팔지 않고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기를 배웁시다. 이 세상이 지나간다는 것을 알듯(고전 7:31 참조), 우리도 여기를 지나가기만 해야 한다는 것을, 그것도 아주 빨리, 여기에 매달리지 않고 우리의 참된 목적이신 하나님을 늘 향하여 지나가야 한다는 것을 압시다.

그런데 욥은 이어서, 자기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과 전능자께 있는 것을 가르치겠다고 덧붙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친구들이 이 모든 것을 보았는데도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경솔하게 말했으니 분별이 크게 모자랐다고 덧붙입니다. 그런데 욥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충분히 구분했습니다. 하루나 짧은 동안만 나타나는 이 겉모습으로 사람의 삶이 복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되고, 속으로 들어가서 마음에 있는 것을 살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심지어 죽음에 있는 이 소망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을 보여 주면서 말입니다. 곧 사람들이 여기 아래에서 살 때 자기 하나님께 결합되어 그분을 부르고, 거기에 피난처를 두며, 그분께 자기를 바치고, 그분의 선하심 안에서 기뻐하며, 죽을 때 그분의 보호에 자기를 맡기고 그분께 자기 영을 부탁할 수 있어서, 그분의 손에 있으니 안전하다는 것을 안다면, 그들이 복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영예롭다고 여겨지고 높은 자리에 있으며 쾌락과 즐거움 속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좋은 것의 샘이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니 늘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에 이르러서는 그들이 그분께 소망을 두지 않고, 평온하게 그분의 손에 자기를 맡겨야 할 것인데 억지로 끌려가듯 끌려갑니다. 그러니 욥은 그 모든 것을 충분히 구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말을 더 굳게 하려 합니다. 그러하니 그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과 전능자께 있는 것을 보여 주겠다는 이 머리말을 씁니다. 그리고 그는 이미 한 이 말을 이어 갑니다. 곧 우리가 잘 판단하려 할 때 여기 아래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넘어서야 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CO 480 욥의 상대편들이 속은 점이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곧 그들은 현재 형편에 따라 판단했고, 이 낮은 것들에 머물려 했습니다. 그러니 욥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 그렇습니다, 그분의 심판이 비밀스럽다는 것을 새겨야 한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만 머물고 오늘 일들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늘 비뚤어지고 뒤죽박죽인 판단을 할 것이다. 왜 그런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께 부르시고, 당신이 당신의 심판을 일부분 집행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나타내셔서 우리가 그 어떤 표시를 알아볼 수 있게 하시더라도 많은 것을 당신 손에 남겨 두신다고 밝히시기 때문이다.” 군주가 자기의 모든 계획을 펼치지 않고,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데 알맞다고 아는 만큼만 칙령을 내리듯 말입니다. 사람도 자기 집에서 살림에 필요한 것은 말하지만, 밝혀 봐야 유익하지 않을 나머지는 자기에게

남겨 둡니다.

그런데 죽을 사람들도 그런 자유를 누린다면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기서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의와 지혜를 보여 주셔야 하고, 그분의 심판이 우리에게 다 알려지고 널리 드러나서 그분께 아무것도 남지 않아야 하겠습니까? 그것이 어디로 가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우리는 욥의 의도가 무엇인지 봅니다. 그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능과 의와 지혜를 알아볼 수 있는 대로의 세상의 현재 형편 안에 가두려는 그 비뚤어진 교만을 꾸짖습니다. 욥은 반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아니다. 그분께 있는 것을 알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믿음으로이지 우리의 타고난 감각으로가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그렇게 높이 이르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남겨 두신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남겨 두셔서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고 어지러운 것을 볼 때 우리가 참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감추어진 것을 보게 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요컨대 이 구절에서 거두어야 할 가르침이 무엇인지 봅니다. 곧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모든 일에서 유익을 얻어 그것을 우리 쓰임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는 자비로운 분으로, 저 자리에서는 엄격한 분으로 당신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볼 때,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그분을 경외하며 걷도록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드러난 일들을 바라보되, 그 사이에 그분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을 남겨 두신다는 것을 알도록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지금 선한 사람들은 고난을 받고, 그들이 그분께 피해도 그분이 그들을 도우려 하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가장 순박한 사람들, CO 481 아무에게도 잘못하지 않고 산 사람들이 끝까지 괴롭힘을 당하고 먹잇감으로 내던져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건지시려는 기색을 보이지 않으십니다. 반대로 악인들은 개선 행진을 하고 자기 악 속에서 굳어지며,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업신여길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못 본 체하십니다. 그러나 그래도 일들이 그런 무질서 속에 있고 하나님께서 첫 번에 거기에 처방을 내리지 않으시는 것을 보면서 흔들리거나 걸려 넘어지지 맙시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밝히는 것, 곧 하나님께서 당신 손에 많은 것을 쥐고 당신께 남겨 두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은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그 까닭을 모르더라도 우리는 자기를 낮추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참된 지혜는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복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구나 그분이 그것으로 우리 믿음을 훈련하려 하시고, 우리가 인내가 무엇인지 실천으로 배우기를 원하시니, 우리의 모든 깨달음을 거기에 복종시키기를 거절하지 맙시다. 그 밖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일부분 우리에게 밝히시니, 아주 드러나 있는 것에서 한 치도 보지 못할 만큼 눈멀지 맙시다. 이런 것들을 조금 맛보려고 너무 오래 캐물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려 하면 가르침을 받기에 넉넉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알면서 눈을 감지 말고, 욥이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처럼 헛됨 속으로 사라져 버리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실 때, 그분이 우리가 당신의 일들을 알아서 그분께 속한 영예를 그분께 돌리고, 현재의 것들에 머물지 말고 오히려 우리가 소망해야 할 심판이 있고 거기서 일들이 제 형편으로 되돌아가리라고 결론 내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압시다. 그러하니 헛됨 속으로 사라져 버리지 맙시다. 곧 이 세상의 것들에 돌아서거나 정신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내놓으시는 소망 안에서 마음을 가다듬읍시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당신께 거두러 오실 것이고, 거기서 우리가 그분과 그분의 아버지 하나님께 소망을 둔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리라는 소망입니다.

이제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엎드립시다.

제100편

욥기 27장 설교 4

CO 34:482–494

AI로 옮긴 초벌 번역입니다. 신학 감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CO 권: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 보게, 이것이 악인이 하나님께 받는 몫이요, 약탈자들이 전능자에게서 받는 유산이네. 그의 자식들이 많아지면 칼에 넘겨지고, 그의 자손은 빵으로 배부르지 못하리라. 그들 가운데 남은 자는 멸망 속에 묻히고, 그들의 과부들은 그들을 위해 울지 않으리라. 그들이 은을 먼지처럼 쌓고 금을 진흙처럼 모아도, 의인이 그것을 입고 죄 없는 자가 그 은을 나누리라. 그는 좀같이 자기 집을 짓고, 파수꾼이 초막을 짓듯 하네. 부자가 잠들 때 그는 아무것도 모으지 못하고, 그가 눈을 뜨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리라. (욥 27:13–19)

CO 482 언뜻 보면 욥이 여기서 전과 다른 말을 하여 자기 말을 거두어들이고 자기 상대편과 맞장구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의 의도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가 자기를 위로하러 온 사람들과 다툰 까닭이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늘 이 세상에서 당신의 징계를 행하셔서 사람들이 눈으로 분간하고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다른 사람들이 한 것과 같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욥은 자기 생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말한 대로라고, 그것도 일부분은 그렇다고 가정한다는 것을 새깁시다. 실제로 우리는 다음 장에서 그가 어떻게 이것을 뒤집어서, 요컨대 (그가 앞에서 이미 말했듯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고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는지 볼 것입니다. 그는 금과 은을 지혜와 비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금은

정련하기 전에는 더러움으로 가득한 금속이어서 그것을 귀히 여길 만큼 알아보기도 어렵고, 은도 마찬가지이며, 그 광맥이 땅속에 뒤섞여 있으니 그것을 찾기도 어렵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금과 은의 광산을 찾아냅니다. 그러나 지혜는 사람들에게서 더 멀리 거하여, 아래로 파 내려가도 찾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그것을 얻을 만큼 높이 이를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욥은 하나님의 심판을 헤아리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어려운 지혜라는 것, 그리고 마치 오늘 우리가 그것을 완전하고 온전하게 아는 것처럼 그것을 확실한 규칙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CO 483 그러니 요컨대 우리는 욥이 스스로 모순되지 않고, 그가 앞에서 맞선 사람들의 말과 가르침에 굴복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봅니다. 오히려 그는 그들이 말한 것이 일부분은 참되지만 전부는 아니라고 들려줍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 현재 삶 동안 늘 집행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의 어떤 표시를 갖기는 하지만 그것이 전부입니다. 이제 우리는 욥의 의도가 무엇인지 봅니다. 그러나 이 가르침에서 유익을 얻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이 구절에서 우리가 새겨야 할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기 담긴 것이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내리시는 징계, 곧 그분이 이 덧없는 삶에서 그들을 벌하기를 기뻐하실 때의 징계를 밝힌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 좋으실 때 그런 징계를 미루시고, 그것을 남겨 두셔서 이 현재 삶에서는 나타나지 않게 하신다는 것, 그리고 마치 하나님께서 잠들어 계셔서 당신의 직무를 행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그것으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새겨야 합니다. 그분은 당신이 왜 미루시는지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 까닭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분이 그렇게 하기를 기뻐하시고, 그분의 뜻은 모든 공평과 올바름의 규범입니다.

그러니 여기 담긴 모든 것을 되돌려야 할 두 가지 점이 이것입니다. 그

런데 첫째에 관해서는 (내가 이미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악인들과 당신 율법을 어기는 자들에게, 그런 방식으로 그들을 징계하셔서 그들이 그분께 자기 몫과 유산을 받으리라고 위협하신 데에는 까닭이 있다는 것을 새깁시다. 그것으로 사람들이 여기 아래에서 벌을 받지 않고 남고, 그들이 저지른 악행과 폭력과 착취에 대해 원수를 갚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도, 저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놓치지 않으시리라는 것을 이해합시다. 그러니 결국 그들은 셈에 오를 것이고, 그것이 그들에게 몫과 유산으로 셈해질 것입니다. 그들이 첫날에 벌을 받지 않더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미 밝힌 대로 말합니다. 그것을 일반 규칙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흔히 그렇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온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배웁시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의 손에서 벗어났을 때 다 면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위에 큰 것을 얻은 것처럼 우리 자신을 달래지 말며,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악하게 산 자들에게 준비해 두셨다고 밝히시는 이 유산을 바라봅시다. 아이가 첫날부터 아버지의 재산을 차지하지는 않지만 세월이 지나면 그것의 주인이 되듯,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이 당신께 죄를 지었을 때 곧바로 그들을 벌하지 않으시지만, 결국 그들의 몫은 그들에게 보존되어 있어서 그들에게서 빠질 수 없는 유산처럼 확실하게 그들에게 남을 것입니다. 이것이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의 자식들이 CO 484 많아지면 칼에 넘겨지고, 그들의 자손은 망하여 아무 처방 없이 멸망 속에 묻히리라고 합니다. 이 말로 하나님께서 악인들과 당신의 위엄을 업신여기는 자들을 그들 자신의 몸에서 벌하실 뿐 아니라, 이 원수 갚음이 자식들에게까지 미친다는 것을 이해합시다. 물론 이것은 우리 감각에는 이상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인들의 자식들을 그들에게 잘못하지 않으시면서 벌하실 수 있는지는 앞에서 이미 밝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모두 아담 안에서 저주를 받았고, 어머니 배에서 정죄밖에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면,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우리는 이미 멸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쓸어버리시고 그것을 삼켜 버리신다면, 사람들이 그분을 잔인하다고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부드럽게 다루시는 것은 그분의 순전한 선하심에서 오는 것이지 무슨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악인들의 혈통에서 당신의 은혜를 거두시고, 아버지들을 벌하시려고 자식들을 같은 멸망에 휩쓸리게 하시며, 아버지가 점점 더 방탕해졌으니 자식들이 아버지들의 불의를 채울 수밖에 없고 그것이 그들의 품에 되던져지듯 할 때(렘 32:18 참조),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될 때,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맙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아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그것을 따지려 한다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어떤 이유가 있다고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우리 이성과 깨달음으로 재려는 것은 마귀적인 대담함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미 밝힌 것을 간직합시다. 곧 온 인류가 그 자체로 잃어버린 바 되고 정죄받았으며,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비난받지 않으시면서 엄격하게 그것을 처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확신시키실 때 그것은 우리의 합당함이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밝혔듯이 그분의 순전한 자비에서 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그들 자식의 몸에서 벌하실 때 그들에게 행하시는 이 엄격함에서도 영화롭게 되셔야 한다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모든 자가 자기 혈통에까지 핍박을 받으리라는 위협을 받을 때 그들에게 더 큰 두려움을 주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천 대까지 자비를 베푸시려고 너그럽고 불쌍히 여기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입니다(출 20:5–6 참조). 그것으로 그분은 당신이 우리에게 품으신 끝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더 확신시키려 하십니다. 하나

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여기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 우리 혈통까지 부르려 하신다는 것을 알 때, 그것이 특별한 선하심의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당신께 받아 주실 뿐 아니라 CO 485 우리 자식들도 이 은혜에 참여하게 하시니,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안에서 그만큼 더 기뻐할 까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밖에 사람들은 박차에 둔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협하실 때 쉽게 굽히지 않으니, 그분이 그들을 그들의 몸에서 벌하신 뒤에 이 엄격함이 그들의 혈통 위에까지 이르러야 하고, 심지어 그들이 죽은 뒤에도 그분이 그들의 혈통을 핍박하시면서 당신이 그들을 얼마나 미워하고 싫어하셨는지 보여 주기를 그치지 않으시리라고 선언하시는 까닭이 이것입니다. 그것을 말할 때 악인들은 (그들이 돌보다 더 굳다 해도) 무서운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라고? 우리 자식들까지 거기에 휩쓸리고, 그 파편이 우리가 죽은 뒤에까지 날아간다면, 우리에게 내릴 하나님의 원수 갚음은 어떤 것이겠는가? 우리 때문에 우리 혈통이 망해야 한다면 우리 멸망은 어떤 것이고 얼마나 무섭겠는가?"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특히 악인들을 그들의 자식들에게까지 벌하시겠다고 위협하시는 까닭이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본성상 둔하고 굳어져 있으니, 우리가 두려움으로 더 깊이 찔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제 처음에 짚은 것으로 옵시다. 곧 그 심판을 알아볼 수는 있지만 늘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악인들의 자식들이 곧 녹아 없어지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들에게 재산이 있다면 그것은 흘러가 버리고, 그들이 잘, 그리고 넉넉하게 먹고살 것이 있어 보였는데 그 모든 것이 흩어져 버리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놀라며,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고 다만 그것을 볼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주의를 기울이면,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그들의 혈통에서 징계하시리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경험으로 잘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보십

시오, 재산을 모으려고 평생 괴로움과 수고 속에 있었던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큰 더미를 쌓았을 것이고, 그의 후손들에게 결코 재물이 모자라지 않을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그 모든 것이 다 없어집니다. 그런 변화를 무엇으로, 어떤 원인으로 돌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손을 대신다고 결론 내립시다. 그러하니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때 눈멀지 말고, 그런 본보기들에서 가르침을 받기를 배웁시다. 그래서 우리가 탐욕에 휩쓸리지 않고, 사람들의 복이 많이 모으는 데 있다고 여기지 않게 합시다. 오히려 하나님의 복만을 귀히 여깁시다. 우리를 먹이는 것이 그것이고, 우리 자식들을 계속 먹일 것도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손을 펴고 계신다면, 그것이 우리의 넉넉함입니다. 그분이 거기에 머물러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우리에게 너그러우신 아버지로 느끼듯, 우리가 죽은 뒤에도 그분이 우리 자식들에게 모자라지 않으시리라는 것을 압시다. 그러나 악인들은 부자가 되려고 그렇게 애를 쓰니, 그들이 모은 재물이 CO 486 그들의 자식들을 아버지들보다 더 큰 멸망에 빠뜨리는 원인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많이 벌어서 놀라운 일을 한다고 여길 때, 그들은 자기 자식들을 망하게 할 밧줄을 꼬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이 자식들에게 어떤 소박한 기술을 배우게 해서 선한 양심으로 걷게 했다면 그것이 그들에게 좋은 유산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재산을 차지하면 눈이 멀어서 온갖 악에 빠질 것이고, 재물이 그들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가증스럽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교만을 견디실 수 없고, 사람들도 그들에게 분노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자기 재물을 믿고 일을 벌이며 모든 사람에게 폭력과 해를 끼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덮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들이 맛있는 것과 술에 익숙해졌습니까? 그들은 그것 없이는 지낼 수 없고, 그것이 결국 그들을 온갖 악에 내맡기는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불의가 자라고

커지는 만큼 하나님의 원수 갚음도 그만큼 더 불타오르고 무르익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런 변화를 보고, 아버지들이 악하게 얻은 재산이 자식들의 손에서 흩어지고 사라지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당신이 그런 위협을 선언하신 것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신다는 것을 잘 새깁시다. 이것이 한 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내가 말하기 시작했듯이) 그것이 늘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도 새깁시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의인들과 그들 자식의 재산을 빼앗으셔서 그들이 그것을 빼앗기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분이 당신께 비밀스럽게 지니신 까닭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그것이 그들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압니다. 그분은 그 방법으로 그들을 인내로 훈련하려 하시거나, 그들이 여기 아래에서 잠들어 버릴 기회를 빼앗으려 하시거나, 요컨대 그들이 가진 넉넉함이 그들에게 해로운 넘침이 되리라는 것을 잘 보시니 그들에게 하제나 사혈 같은 것을 주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피를 뽑으면 그것이 그를 해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강도가 사람을 죽이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의사는 환자의 건강을 위해 피를 뽑고, 좋은 까닭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때로 의인들에게서 그분이 주신 재산과 살림을 빼앗으시거나 그들의 자식들을 가난하게 하시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거기서 어떤 벌을 알아보기를 원하셔서가 아니라, 정반대로 (내가 말했듯이) 그분이 당신의 백성에게 쓰시는 하제입니다. 그것으로 그분은 또 그들을 물러나게 하십니다. 그들이 이 세상의 재물에 휘감길 수 있고, 그것이 그들과 그들의 온 혈통이 멸망하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앞에서 말한 이 심판은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것을 아무 예외 없는 CO 487 일반 규칙으로 만들지 맙시다. 오히려 우리가 그토록 자주 말했고 다음 장에서 또 밝힐 것으로 돌아갑시다. 곧 하나님의 심판이 늘 보이지는 않으리라는 것, 그리

고 우리가 그것을 짚어 내어 "하나님께서는 늘 이런 식으로 하신다" 하고 말할 수 없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그 자신의 몸에서든 그의 혈통에서든 벌하셨을 때, 그런 본보기를 바라보고 거기서 유익을 얻읍시다. 그분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못 본 체하시고 첫 번에 그들을 벌하지 않으신다면, 주의 날이 빛날 때까지 참고 기다립시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어둠 속에 있는 것 같고 일들은 아직 어둡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모든 책과 장부가 펼쳐지고(계 20:12 참조) 더는 감추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을 참고 기다립시다. 그 밖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실 때, 그것도 그분이 우리를 미워하시고 죽을 원수처럼 우리를 핍박하신다고 여길 수 있을 만큼 괴롭게 하실 때에도, 그래도 그분 아래 우리를 낮추기를 그치지 말고, 그분이 그 방법으로 우리를 당신께 끌어당기려 하신다는 것을 알아봅시다. 그리고 그분 좋으신 대로 그분의 손에 다루어지도록 맡기고, 우리 생각에 너무 빠지지 않도록 살핍시다. 저마다 자기 삶을 자기 손에 쥐고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것은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말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순종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바랄 만한 지혜가 우리 안에 얼마나 있는지 살펴봅시다. 정반대로 우리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데에만 쓰이는 것을 바라는 시험을 받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삐로 우리 자신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완전히 맡겨야 하는 까닭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악인이 금을 먼지처럼 쌓고 화려한 옷과 휘장과 그와 비슷한 것들을 흙처럼 쌓아도 의인이 그것을 입으리라고 합니다. 이것은 흔히 일어날 수 있고, 그것이 일어날 때 우리는 눈멀어서 하나님의 손을 알아보지 못하는 일 없이 거기서 유익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아무리 애쓰고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누워도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뒷걸음칠 것이고, 반대로 그분은 당신의 신자들

에게 그들에게 알맞은 모든 것을 잠자는 가운데 주시리라고 말합니다(시 127:1–2 참조). 보십시오, 위협이 있고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봅니다. 그분은 신자들을 형통하게 하시고, 때로 그들을 그렇게 나아가게 하셔서 재산이 그들의 손에서 불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평생 쉬지 않고 모으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갑자기 망하게 하셔서 그들이 많은 수고를 한 뒤에 모든 것이 흘러가 버리는 사람이 많은 것을 볼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봅니다. 그러나 늘 그렇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현세적 심판을 바라보되, CO 488 그분이 늘 똑같이 하시도록 그분을 묶지 않게 바라보기를 배웁시다. 현재 삶에 관한 것과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심판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약속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판단해야 합니다. 현재 삶을 위한 약속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약속들이 늘 같은 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는 못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알맞다고 아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구원에 속한 영적인 약속들은 확실하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결코 우리에게 모자라지 않으시리라고 결론 내려야 합니다. 그러니 이 덧없는 삶에 속한 것과 하늘의 삶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속한 것을 구분합시다. 그런데 현재 삶에 관해서는, 물론 일반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기서 우리를 인도하시리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거기 두려 하시는 동안 우리가 그분의 선하심으로 살아가고 그분의 그늘과 보호 아래 있으리라는 것을 잘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개별적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재산을 넉넉히 주실지, 건강을 주실지,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실지, 이런저런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실지는 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하나도 꼭 집어 말할 수 없고, 눈을 가리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기서 싸움 속에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밖에 우리는 흔히 말하듯 발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고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구원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막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롬 8:28 참조). 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는 늘 악인들 위에 있습니다(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유하고 개선 행진을 하며 세력과 영예 속에 있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부를 수 없고, 그러하니 그들의 양심에는 안식이 없고 끊임없는 불안 속에 있으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앎으로 자기 악을 누그러뜨릴 수 없습니다. 어제 다루었듯이 그들은 그것을 맛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눈에 보이게 원수를 갚지 않으시더라도, 그들은 자기 복 한가운데서 저주받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벌은 그들에게서 빠질 수 없고, 그들은 실컷 미룬 뒤에 거기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오래 살아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호의를 베푸시고 모든 일에서 어디서나 그들을 기쁘게 하려 하신다고 생각할 때에도, 그것은 그들이 이 세상에서 징계를 받은 것보다 훨씬 나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좋은 것을 실컷 먹어 치우고, 온갖 무절제에 취하며, 그분의 부드러움과 참으심을 남용하고, 그분과 그분의 가르침과 모든 경건(religion)을 비웃은 것에 대해 아주 비싼 셈을 치러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선언하시는 마지막 벌은 그들에게서 빠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CO 489 그들이 첫 번에, 그것도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 벌을 받지 않는 일이 잘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욥이 하는 말로 옵시다. 그는 악인들이 은을 먼지처럼 쌓으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원수 갚음을 더 잘 밝히시려고 악인들이 부자가 되도록 허락하셔서, 그들이 세상의 모든 재물을 삼키는 깊은 구렁인 것처럼 보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악한 사람이 거의 얻는 것이 없다면, 그가 부자가 되어 많이 모았는데 그다음에 그것을 누릴 수 없을 때만큼 여기서 말하는 벌이 잘 보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재산을 모으려고 그렇게 애쓰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물으면 "오,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 나는 늙을 것이고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사람들에게는 많은 사고가 일어난다. 적어도 필요할 때 나를 도울 것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다음에 내게는 자식들이 있으니 그들을 가난하게 남겨두고 싶지 않다" 합니다. 부자가 되려고 그렇게 애쓰는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우리는 그들이 자기가 모은 것을 누릴 수 없는 것을 봅니다. 그들이 스스로 그것을 누리지 않든지 (자기가 자기에게 베푸는 좋은 것을 스스로 시기하고, 모자랄 때도 감히 자기 재산으로 자기를 돕지 못할 만큼 인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서 재산을 거두어 가시든지 합니다. 그분이 그들이 활개 치도록 내버려 두신 뒤에 한순간에 그들이 빼앗기는 일이 때로 있고, 그들과 그들의 혈통이 가난해지는 것이 보이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위협이 많은 사람에게 집행되는 것을 봅니다. 곧 악인들은 은과 금과 세간을 모으고, 그 사이에 선한 사람들이 결국 그것을 입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은 순박함과 올바름 속에 걸으니 많은 것이 모자랄 수 있고, 가난이 오늘내일 그들을 덮치겠다고 위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대비하셔서 그들은 늘 제 길을 지나갑니다. 그러니 우리는 선한 사람들이 악인들의 노획물을 입게 되리라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그것을 확실한 규칙으로 만들고 하나님을 거기에 묶는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러하니 우리는 늘 하나님의 심판이 눈으로 짚어 낼 만큼 널리 드러나고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간직해야 합니다. 부유한 악인을 보면 우리는 걸려 넘어집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악인들과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들이 영예 속에 있는 것을 보면, 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지 않으시고 일들이 운수로 굴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재려 하면 믿음이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러니 CO 490 판단을 보류하기를 배웁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손에서 재산을 뽑

아 가신다면, 그분이 여기서 듣는 이 위협을 이루신다는 것을 알아봅시다. 그분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면, 그분이 당신 심판의 집행을 마지막 날까지 남겨 두시고 지금 일들을 완전함에 이르게 하려 하지 않으시는 것이 우리 소망을 기르시려는 것임을 새깁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빠지지 않고, 여기 아래를 낙원처럼 여겨 거기서 우리 복을 찾지 않으며, 오히려 우리 눈을 위로 들고 여기 아래를 길처럼 그만큼 더 가볍게 지나가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요 떠도는 자라는 것을 알아서, 그러하니 늘 이 하늘의 영원한 유산을 사모해야 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곧 불의한 자가 좀같이 자기 집을 짓고, 그것이 파수꾼, 곧 포도원을 지키는 사람의 초막 같으리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들이 집을 지을 때, 그들은 자기가 죽은 뒤에도 천 년 동안 거기 살 것처럼 여깁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들이 짓는 건물에서 보이는 이 교만으로 그들은 여기서 죽지 않음을 상상한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습니까(시 49:11 참조)? 그들은 자기 궁전으로 자기 삶을 늘릴 수 있을 것처럼 여깁니다. 집이 천 년을 갈 것이면 사람은 자기 집이 자기에게 붙어 있고 그 방법으로 자기가 이름을 날리리라고 스스로 믿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오만을 비웃으십니다. 그래서 욥은 악인들의 집을 좀의 집에 견줍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좀은 자기가 머물려고 모든 것을 상하게 하고 망칠 것입니다. 옷감을 먹고 모피를 먹으며 찾는 것은 무엇이든 갉아 먹을 것입니다. 요컨대 좀은 남의 비용과 손해로 머물 수밖에 없고, 그 사이에 그 집에는 썩음과 벌레밖에 없습니다. 파수꾼이 포도원을 지키려고 초막을 지을 때 그것은 석 달짜리일 뿐입니다. 포도를 거두면 초막은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허물지 않더라도 저절로 쓰러집니다. 그러니 이제 악인들이 아름다운 궁전을 지을 것이고, 그들이 이렇게 지을 때 그곳에 늘 머물 것처럼 여긴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들 자신은 무엇입니까? 좀과 같습니다. 곧 그들에게는 썩

음밖에 없고, 그들은 늘 그것을 지니고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 그들의 집은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얼마 동안 자랑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집을 무너뜨리셔서 그들이 거기 오래 있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자기를 내세우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집행하시는 눈여겨볼 심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본보기를 볼 때 그것을 잘 지켜보아야 하고, 그 위에 이 세상에 머물지 말고 속임수와 불의와 약탈로 CO 491 짓지 말라는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머물 곳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산으로 된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집에 사는 사람들은 여기에 둥지를 틀려고 자기 탐욕에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땅에 둥지를 틀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뽑아내시는 것을 막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기 아래에 둥지를 틀지 않도록 잘 조심합시다. 29장(18절)에서 욥이 자기 처지가 결코 바뀌지 않으리라고 셈했다고 말하게 될 대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영속을 스스로 약속하면서 스스로 속고,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어리석은 주제넘음을 비웃으십니다. 그러니 신자들이 알맞게 머물 곳이 있을 때에도 그들은 자기를 이 세상의 나그네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 늘 거기서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바랄 만한 편의가 그들에게 없다면, 그들은 그냥 지나가야 하고, 하나님께서 여기가 그들이 머물러야 할 곳이 아니라 더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눈에 보이게 일깨우신다는 것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이 여기 아래에서 정신을 팔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볼 때 우리가 간직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러니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는 길로 곧게 나아갑시다. 그러면 우리는 복을 받을 것이고, 저마다 살 날 동안 평안히 거할 것입니다. 우리가 악인들과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들이 가진 불안에 시달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한 가지입니다. 그 밖에 우리와 우리 집이 썩음일 뿐이라도, 그래도 우리에게

는 위로가 되는 이 약속이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하늘의 영광으로 온전히 회복될 때 우리는 여기 아래의 이런 물질적인 건물이 더는 필요 없을 것이고, 심지어 우리 몸도 지금과는 아주 다를 것이라는 것입니다(빌 3:21 참조). 그러나 그 사이에 약탈과 다른 악행으로 짓지 않기를 배웁시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지어진 그런 큰 궁전들을 이렇게 무너뜨리시고 폐허로 만드시는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듯 선지자들도 그것이 올빼미와 들짐승과 맹금의 궁전이 될 것이고, 심지어 부엉이와 들사람이 거기 살리라고 위협합니다(사 13:21–22; 34:11 참조).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그런 큰 궁전을 지으려고 저지르는 약탈과 착취에 원수를 갚으시려는 것입니다. 선지자 하박국(2:11)에서 하는 말대로입니다. 곧 남의 재산을 가로챈 자들이 집을 지을 때 벽들 사이에 합창 같은 것이 있어서, 한 벽은 "나는 피로 지어졌다" 하고 외치고, 다른 벽은 "나는 살인으로 지어졌다" 하고 외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자들은 집을 지을 때 자기 집에서 누리며 살려 한다면 그것이 정당하게 얻은 재산이 되도록 잘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어도 거기에 머물러 CO 492 둥지를 틀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마다 거기서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악인이 세상을 떠나도 영예롭게 묻히지 못하고, 눈을 떠도 아무것도 그에게 보이지 않으리라고 합니다. 이것은 앞의 말을 맺으려는 것입니다. 욥은 악인들이, 그것도 높아진 뒤에 넘어지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듯) 잘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가 바라보는 것이 이것입니다. 곧 우리 주님께서 악인들을 높이시고 그다음에 그들이 떨어지게 내버려 두신다는 것, 그것도 치명적으로 떨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죽을 때 영예롭게 묻히지 못하고, 그 밖에 자기 주위를 둘러보아도 아무 도움을 찾지 못하며 그것을 기다린 것이 헛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좋은 거울을 가집니다. 다만 우리가 욥과 다툰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일들을 완전한 형편으로 되돌리시라고 강요

하려 하지만 않는다면 말입니다. 그것은 마지막 날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우리 주님께서 악인들을 뒤엎으시고 쓰러뜨리실 때마다 우리는 경고를 받아야 하고 거기서 그분의 손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사람들을 아주 높이 올렸다가 아래로 떨어뜨리는 운수의 바퀴를 상상하듯, 여기서 어떤 우연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변화와 뒤바뀜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으로 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그분은 때로 당신의 은혜를 남용한 자들을 벌하시고, 때로는 그들을 참아 주셔서 그분이 그들을 벌하려 하신다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짚었듯이 그들은 그만큼 더 무서운 셈을 치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악인들이 넘어지는 것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까닭 없이 높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추락이 목이 완전히 부러질 만큼 혹독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아주 높이 올라간 뒤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넘어지게 하셔야 합니다. 그 밖에 장례에 관해 여기서 말하는 데에는 까닭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구원에 관해서는 아무래도 상관이 없지만, 생각할 것이 두 가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악인들이 죽을 때 하나님과 자연을 업신여기고, 자연이 무엇이라 하든 자기의 위대함과 화려함을 여전히 늘리리라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거기서 썩음으로 이끄실 때, (말하건대) 그때 세상에 속하고 육에 속한 사람들은 평생보다 훨씬 더 큰 허세를 부릴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그렇게 호화로운 장례는 그들에 대한 기억이 죽지 않고 사람들이 영원히 그들을 이야기하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CO 493 큰 화려함 속에 묻히려는 이 어리석은 호기심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하시든 자기 교만을 이어 가려는 것과 같다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주제넘음을 비웃으십니다. 그분은 그들이 영예롭게 묻히리라고 여긴 그들의 생각을 헛되게 하시고,

그 대신 때로 그들에게 아주 이상한 무덤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장례가 하나님께서 들여오신 것이라는 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아무 근거 없는 사람의 발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셔서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증거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묻힐 때, 그들은 마지막 날에 부활할 때까지 맡겨 두듯 거기 땅에 놓입니다. 그러니 장례는 우리에게 부활의 거울과 같습니다. 그러니 악인들이 장례를 빼앗길 때, 그것은 마치 우리 주님께서 여기서 말하듯 그들의 삶에서처럼 죽음에서도 그들 위에 당신의 저주를 눈에 보이게 선언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악인들이 영예롭게 묻히더라도, 그것 때문에 흔들려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잊으시고 알맞은 때에 당신의 심판을 집행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새깁시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가 묻혔다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눅 16:22 참조). 그러면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그에 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어서, 그가 개들에게 먹혔는지 들판에 버려졌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하지 않고, 부자의 장례만 말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때로 묻히지 못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래도 그들이 저주받았다고 결론 내려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악인들이 묻힐 때 그것이 그들이 죽음에서 복을 받았다는 뜻이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현세의 벌을 같은 실로 집행하지 않으시고, CO 494 그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을 마지막 날까지 남겨 두신다는 것을 보여 주려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들이 불태워지고 극도의 모욕을 당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몸으로는 악인들과 함께 망하고 교수대로 끌려가는 것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교자이고 그 수치가 하나님 앞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영예보다 더 영예롭더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덤을 주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악인들에

대한 이 위협은 어디 있습니까? 오, 우리는 우리가 말한 것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곧 그것이 오늘로서는 감추어지고 헤아릴 수 없는 심판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것이 드러날 그날로 이끄실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이렇게 폭정을 당하는 사람들, (말하건대) 악인들과 박해자들에게 모욕을 당하는 죄 없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이 무덤 노릇을 하리라는 것, 그리고 그들이 세상에서 가장 영예로운 무덤을 가진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시는 좋은 것과 특권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리라는 것을 알아봅시다. 하늘보다 더 영예로운 무덤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서 흔하고 평범한 무덤을 빼앗으실 때 그 무덤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묻히기를 기뻐하실 때 그것을 그분 선하심의 증거로 알아봅시다. 그리고 그분이 악인들에게서 그것을 빼앗으실 때에도 그들의 삶과 죽음에서 그분의 원수 갚음을 바라봅시다. 그러나 그 사이에 우리가 마지막 날에 이를 때까지 그분의 비밀스러운 심판에 관해서는 스스로를 억제하고 말하자면 눈을 감고 있기를 배웁시다. 그날 그분은 지금 우리에게 뒤죽박죽인 것들을 완전하게 밝혀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엎드립시다.

제101편

욥기 28장 설교 1

CO 34:495–507

AI로 옮긴 초벌 번역입니다. 신학 감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CO 권: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 부자가 잠들 때 그는 아무것도 모으지 못하고, 눈을 떠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리라. 공포가 물처럼 그를 덮치고, 밤에 폭풍이 그를 앗아 가리라. 동풍이 그를 들어 올려 가 버리고, 회오리바람처럼 그를 그 자리에서 밀어내리라. 그것이 그에게 달려들어 그를 아끼지 않으니, 그는 그 손에서 도망치리라. 사람들이 그를 향해 손뼉을 치고, 그의 자리에서 그를 향해 휘파람을 불리라. (욥 27:19–23) 은에는 그 근원이 있고, 금에는 녹여 내는 곳이 있네. 철은 흙에서 캐내고, 놋은 돌에서 녹여 내네. 하나님께서 어둠에 끝을 두셨고, 끝을 향해 가는 모든 것에 흑암과 죽음의 그늘의 경계를 두셨네. 강물이 거주하는 자를 향해 넘쳐흐르나, 그 물은 발에게 잊히고, 사람보다 높이 불어났다가 물러가네. 같은 땅에서 빵이 나오지만, 그 아래에는 불처럼 바뀌는 것이 있네. 그 돌이 청옥이요 그 흙덩이가 금인 곳이 있네. 새도 그 길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그것을 보지 못하였네. 사자 새끼들도 그곳을 밟지 못하였고, 사자도 그 곁을 지나가지 못하였네. 그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째 뒤엎네. (욥 28:1–9)

CO 495 어제 다룬 말씀에 이어서, 여기서 부자가 눈을 떠도 아무것도 찾지 못하리라고 합니다. 이 말로 부자들이 얼마 동안은 안심하고 자기에게 아무것도 모자랄 리 없다고 여기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이 그들에게 감추어지고 그들에게 더는 소망이 없으리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잠에서 깨어 도움을 찾겠지만 찾지 못할 것입니다. 요컨대 부자들이 얼마 동안은 자기 넉넉함 속에서 잠든 것 같습니다. 그들은 결코 모자랄 일이 없으리라고

여기고, 자기 오만 속에서 말하자면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로 도움을 찾게 하시되 찾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때 그들은 자기가 재물에 헛되이 소망을 두었다는 것을 깨닫고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은 날마다 보입니다. 그러하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가 결코 모자랄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하더라도, 거기서 잠들어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받습니다. 우리 삶이 놀랄 만큼 많은 변화에 매여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부르려고 깨어 있읍시다. CO 496 우리 손에 있는 것에 머물지 않으려고,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고 깨어 있읍시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배우고, 오직 그분의 섭리와 선하심 위에 세워지고 기대게 됩시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거두어야 할 경고가 이것입니다. 그 밖에 이것이 늘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앞에서 말했듯이) 이것을 일반 규칙으로 만들지 않기를 배웁시다. 부자들이 자기 넉넉함 속에서 죽고, 많은 사람을 거느리며, 저마다 그들을 섬기려 애쓰고, 요컨대 그들에게 아무것도 모자라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직무를 버리셨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오히려 그분은 어떤 사람들에게 집행하시는 이 심판을 남겨 두십니다. 그분이 기뻐하시기만 하면 이 세상에서 그것을 다 이루실 수 없으리라고 우리가 여기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구절을 조금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곧 "사람들이 바라보리라"는 말을 부자들에게 돌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돌립니다. 그러니 넉넉함 속에 있었고 세상을 따라 그렇게 자기를 내세우던 자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사람들이 바라보겠지만 거기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리라는 것입니다. 시편 37편(35–36절)에서 말하는 대로입니다. "나는 레바논 산의 높은 백향목처럼 높아져서 머리가 거의 구름에 닿을 듯한 자를 보았다. 그 뒤에 다시 지나가 보니 그의 자취조차 알아볼 수 없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악인들을 사라지게 하셔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세상에서 지워지게

하십니다. 이 구절은 그런 뜻으로도 잘 맞을 것입니다. 그 밖에 이것을 어제 풀이한 것처럼 죽음이나 장례에 관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악인이 쉬려고 누우려 할 때 쉼을 찾지 못하리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가장 쉬운 풀이는 악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당신의 심판을 선언하시는 것을 피하지 못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했듯이 그런 일이 일어나기는 하지만 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기를 찾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나쁜 원칙일 것이고, 우리가 앞에서 밝혔듯이 우리가 상상한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할 때 우리는 흔들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당신 좋으실 때 당신의 심판을 미루시고 여기 아래에서 그것을 드러내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아봅시다.

그런데 이어서, 공포가 급류처럼 불의한 자를 덮치리라고 합니다. 그는 여기서 물을 말하지만, 그것이 밤에 오는 폭풍이나 회오리바람처럼 CO 497 갑작스러운 폭우와 같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은 아주 눈여겨볼 만하고 또한 흔한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그런 공포를 보내셔서 그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게 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폭우처럼, 아무도 미리 막지 못하고 조심하지도 않던 밤의 폭풍처럼 온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것을 말하는 까닭은 악인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평안히 내버려 두셔야 한다고 스스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그들이 몰리지 않는 동안에 말입니다. 그들은 악한 양심을 지녔으니 완전히 잠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들은 놀라운 것을 스스로 약속합니다. 선지자들, 특히 이사야(28:15)에서 말하듯, 그들은 죽음과 언약을 맺고 무덤과 동맹하고 결탁했다고 여겨서, 땅이 홍수로 덮이고 모든 것이 망하더라도 재앙이 자기에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고 합니다. 보십시오,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몰아붙이지 않으시면 이렇게 교만으로 부풀어 오르고 거기서 굳어집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그들을 위협하고 그들의 일이 어떻게 끝날지 보여 주면,

그들은 흔들리기는커녕 그것을 비웃기만 합니다. 그래서 공포가 급류처럼 그들을 덮치리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한 사도 바울의 말씀(살전 5:3)도 그러합니다. 곧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갑자기 짓눌리고, 그들이 생각지도 못했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던 멸망이 그들에게 닥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보내시는 그런 변화를 말할 때, 그것은 마치 밤에 폭풍을 보내시듯 그분이 그들을 갑자기 망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히 내버려 두신다고 여겨 그렇게 어리석은 주제넘음에 취하지 않기를 배웁시다. 우리 자신을 달래지 말고,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작고 낮은 자리에 두려 하신다는 것을 알아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나아갈 마음을 더 자유롭게 가지고, 이 세상의 헛된 것들에 정신을 빼앗기지 않으며, 오히려 우리 자신을 온전히 그분께 드리도록 자극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땅의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폭풍에 갑자기 망할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들어 놓으실 만한 공포를 우리 위에 보내실까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러나 반대로 자기의 땅의 형통을 믿고 주제넘게 구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죽을 때는 늘 셈을 하러 나와야 하고, 그때는 하늘의 재판관의 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조심하며 걸읍시다. 그 밖에 악인들이 때로 두려움에 떨지 않았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의를 잊으셨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가 CO 498 (내가 말했듯이) 그분의 심판을 늘 지금 알아보지는 못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때로 당신의 손을 감추신 듯 붙들고 계시면서 우리 믿음을 시험하려 하신다는 것을 알고, 이것이 밝혀지기를 마지막 날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 밖에 하나님께서 악인들과 당신 말씀을 업신여기는 자들에게 보내시는 공포가 눈에 띄지 않더라도, 그들은 늘 마음속에 감추어진 공포를 느낀다는 것을 새겨야 합니다. 선지자 이사야(48:22; 57:20

참조)에서 말하듯, 악인들에게는 평안이 없고 그들은 서로 부딪치는 물결과 같습니다. 거센 바람이 불면 물이 몹시 출렁여서 물결이 서로 깨어지는 것이 보입니다. 이처럼 악인들은 다른 데서 아무도 건드리지 않아도 스스로 괴로워하고, 자기의 모든 생각과 감정 속에서 자기 자신의 사형집행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듯 아무도 쫓지 않는데도 잎사귀 하나 떨어지는 소리에 그들은 떨 것입니다(레 26:36 참조). 그러나 이 공포는 감추어질 것입니다. 그들이 겉으로는 태연한 체할 것이고, 또 그들이 자기를 알지 못하고 속으로 마비되어 하나님께 대들며, 그분이 그들을 회개로 이끄시려고 주신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가 말한 이 평안을 찾기를 배웁시다. 곧 우리 하나님께 기대고 그분을 부르기 위해 선하고 깨끗한 양심을 지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괴로움을 보내시더라도, 그분의 선하심 안에서 기뻐할 것을 갖지 못할 만큼 완전히 짓눌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끝으로 그들이 동풍에 앗겨 가고, 그들의 자리에서 쫓겨나며, 재앙에 짓눌려 도망치리라고 합니다. 동풍과 회오리바람이라는 이 비유도 같은 뜻으로 덧붙인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보여 주듯 유대 땅에서는 동풍이 가장 거센 바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말은 악인들이 형통하여 부유하고 힘이 있었다 해도, 큰 폭풍이 일고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바람이 불어닥친 듯 앗겨 가고 쓰러져서 도망칠 수밖에 없으리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잘 무장되었다고 여겼고 그들 자신도 그것을 믿었다 해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위에 집행되는 것을 막지 못하리라는 것을 그들은 잘 느낄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다 해도 그들은 도망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안에 재앙을 맞설 힘이 더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것이 하나님의 손이니, 그들은 자기가 짓눌렸다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요컨대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 주는 것은,

그렇게 대담하게 이웃을 괴롭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손에 몹시 괴로움을 당해서 CO 499 그들 안에 있던 그 대담함과 사자 같은 용기와 모든 오만을 잊어버리고, 오리처럼 겁쟁이가 되리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전에 업신여겼던 하나님의 손을 느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우리는 인내를 준비하려고 하나님의 심판을 멀리서부터 미리 내다보라는 경고를 받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히 내버려 두시더라도, 우리 죄를 살피고 우리가 그분의 매에 맞아 마땅하다는 것을 알기를 그치지 맙시다. 그렇게 하면서 머리를 숙이고, 우리 자신을 고삐로 붙잡으며 악을 행하는 데 대담하지 않기를 배웁시다. 우리의 모든 대담함은 우리 하나님을 부르는 데 있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을 때 그분의 능력으로 죄와 마귀와 세상에 맞서는 데 있게 합시다. 그러나 그 사이에 늘 겸손과 절제 속에 걸읍시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두렵게 한 자들이 숨을 수밖에 없고 아무 피난처도 찾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악인들이 아무리 도망쳐도 소용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시편(139:7–9)에서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주여, 내가 주의 손에서 벗어나려 하면 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구름 위로 날아갈 수 있다 해도 주의 위엄이 저 위에 있어 나를 물리칠 것입니다. 내가 바다를 건너면 주의 손이 더 멀리 갈 것입니다. 내가 깊은 곳까지 들어가도 주께서 나를 거기서 끌어내실 것입니다.” 그러니 악인들은 산들에게 자기 위에 무너지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이 어디에 숨든 하나님의 손이 그들에게 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손에 핍박을 받으면서도 평안을 찾는 자의 생각은 어리석다는 것을 잘 새깁시다. 그들은 그 손을 피해 도망칠 수 있겠지만 헛될 것입니다. 그 밖에 이것이 모든 일에서 지금 보이지는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재판관이시기를 그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늘 이 점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맺는 말로, 사람들이 악인들을 그렇게 볼 때 저마다 손

뼉을 치고 자기 자리에서 비웃고 조롱하며 휘파람을 불리라고 합니다. 곧 전에 짓눌려 지냈고, 자기를 삼키며 잡아먹을 준비가 되어 있던 그 강도들 때문에 감히 거리에 얼굴을 내밀지 못하던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신용과 권세를 누리던 자들을 쓸어버리실 때 기뻐하리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손뼉을 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런 자들에게 있던 교만과 오만을 비웃을 것입니다. 여기서 선한 사람들과 신자들이 악인들의 멸망을 볼 때 기뻐하는 것이 옳은지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이 구절에 관해서는 거의 쓸데없습니다. 여기서는 무엇이 옳은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세상이 기뻐한다는 것을 나타낼 뿐이기 때문입니다. 경험으로도 보듯이, CO 500 크고 작은 모든 사람을 괴롭힌 약탈자들이 죽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러뜨리시면 모든 사람이 함께 기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세상의 원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에서 또 새겨야 할 것은, 우리의 기쁨이 육적인 것이 아니고 원수를 갚으려는 욕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선하고 거룩하며 하나님께 인정받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수 갚음이나 어떤 육적인 감정에 이끌려 기뻐한다면, 그때 우리의 기쁨은 저주받은 것이고 정죄받아 마땅합니다. 그러하니 사람들이 기뻐하거나 슬퍼할 때 자기 정념에 이끌린다면, 그들의 기쁨이나 분노는 대개 악한 것이 됩니다. 그러니 악인들의 멸망을 기뻐하려 한다면 그것은 육적인 욕심에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고 그분이 선언하시는 것에 동의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그분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일에 점점 더 굳게 세워지고, 우리 정념이 잘 다스려지도록 하려는 것이어야 합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악인들의 멸망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에게 옳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육적인 감정에 이끌리지 않도록, 우리 것을 조금도 섞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그런데 이 구절에 관해서는, 야망과 헛된 영광으로 가득하여 온 세상에게서 존중받기를 바라는 악인들이 가증스럽게 되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미움 속에 두셔서

저마다 그들의 멸망을 기뻐하게 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 준다는 것을 새깁시다. 보십시오, 이렇게 그들은 자기 기대에서 완전히 어긋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매번 그렇지 않다 해도 그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직무를 잊으셨다고 생각하지 말고,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약속된 드러남을 기다립시다. 그래서 욥이 세상에서 보이는 자연의 많은 비밀을 밝히기 시작하고, 그 위에서 모든 감추어진 것의 이치를 알게 된다 해도 하나님의 지혜는 그것을 넘어서고 더 높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이런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들은 바뀐다. 자연의 모든 질서에서 우리는 영속을 보지 못한다. 기름지고 좋은 밀을 내던 밭이 있던 곳에 불, 곧 가뭄이 있는 것을 보고, 자갈이나 모래밖에 없다고 생각한 곳에 때로 금과 보석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시편 107편(34절)에서 말하듯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은 변화를 볼 것입니다. 거기서 선지자가 다루는 주제가 이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의 죄 때문에 땅이 메말라서 소금을 뿌린 것처럼 보이리라는 것, 사람이 잘 살던 곳이 황폐해지리라는 것, 사람들이 기근 때문에 도망칠 수밖에 없으리라는 것, 더위와 추위가 그들을 CO 501 몹시 괴롭혀서 그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리라는 것을 보여 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심으로 사람들의 악을 이기셔서, 전에는 메말랐던 땅을 기름지게 하시고, 밀 한 알도 자라지 않던 곳에 넉넉한 양식이 있게 하시리라는 것을 보여 줍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들은 욥이 여기서 그 시편에 담긴 것과 같은 묘사를 하려 했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나는 이미 그의 의도를 보여 주었습니다. 곧 이 세상에는 감추어져 있고 아무 이치가 없어 보이는 것이 많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그 이치를 찾게 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찾아내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결코 끝까지 다 알아낼 수 없고 사람들이 결코 그렇게 높이 이를 수 없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비교는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나아가는 비교라고 부릅니다. 마치 욥이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내 친구들이여, 금과 은을 어디서 찾을지, 보석을

어디서 찾을지 그 방법을 찾는 것은 사람의 정신에게 아주 어려운 일이네. 물론 그래도 사람들은 그것을 해내네. 그러나 그것을 자연의 비밀이라고 부를 수 있네." 사람들이 당황하고 놀랄 수밖에 없는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강물이 때로 아무도 생각지 못한 곳에서 솟아나오기 때문입니다. 불었다가 줄어드는 물이 있어서, 때로 어떤 곳을 마른 발로 걸어가다가도 조금 뒤에는 물이 넘쳐흐릅니다. 그다음에는 급류가 말랐다가 곧 다시 불어납니다. 물론 거기에는 큰 비밀이 없어 보입니다. 급류는 눈이 녹고 큰비가 내릴 때 불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때로 말랐다가 그다음에 물을 쏟아 내는 샘들이 보여서, 하나님께서 그런 변화 속에서 당신의 능력을 보여 주려 하신다는 것 말고는 무엇이라 해야 할지 모를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세상에서 보이고 현재 삶에 속한 것들 가운데 어두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사람의 정신은 그것을 잘 캐물을 수 있고 거기에 공부를 기울여서 어떤 이치를 찾아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분의 심판에 이를 때, 그것을 우리 머릿속에 가둘 생각을 하지 말고 끝까지 다 알아낼 생각을 하지 맙시다. 오히려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위엄이 우리 위로 너무 높다는 것을 고백합시다.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굴복시켜서 우리 좋을 대로 정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 주실 것으로 만족합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너무 먼 거리가 있어서, 그분이 다가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그분께 이르지 못하리라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면서도,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드러내실 것을 지금 우리가 알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욥의 의도입니다. 그 사이에 CO 502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것에 오래 머물 필요는 없습니다. 성령의 의도는 우리에게 광산 기술을 보여 주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설교 한 편이나 네 편에서 금광과 은광을 찾아가는 법을 배운다면 그 유익은 아주 보잘것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이 아니고, 또 모든 사람이 그 일에 종사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금광과 은광을 말할 때, 모래 속이나 어떤 강에서 금이 발견되고 거기에 금 알갱이가 있으리라고 말할 때, 우리는 각 부분에 매달려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높임을 받으시려고 자연 속에 그런 비밀을 두셨다는 것을 보는 것으로 충분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간직해야 할 요점은 이것입니다. 곧 우리가 세상의 가장 작은 것들에서도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지혜를 알아보아야 한다면, 금과 은과 그와 비슷한 것들처럼 우리에게 낯선 비밀이 있을 때는 더더욱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것이 있을 때 우리는 더 깊이 감동을 받아야 하고, 우리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능력을 더 잘 느끼고 붙잡도록 우리 정신이 더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나무 그루터기처럼 멍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그분 손의 능력을 바라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것이 알려지고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주 마땅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우리가 그분께 돌려 드리고, 그것으로 그분이 어떤 장인이신지 알도록 자극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발로 짓밟고 그분의 위엄을 알지 못하며 세상을 돌아다니는 그 비참한 자들처럼 되지 맙시다. 그러니 그렇게 짐승같이 되지 맙시다. 우리가 너무 둔하고 거칠어서 흔하고 낮은 것들에서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 느끼지 못한다 해도, 적어도 우리에게 낯선 것에 이를 때는 거기서 감동을 받고, 기적 같은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지 않을 때 우리의 배은망덕은 핑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것들에 정신을 팔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그분께 나아오며 그분이 주시는 경고에서 유익을 얻을 줄 알기를 훨씬 더 원하신다는 것을 새깁시다. 그러니 이 구절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높고 장엄한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잘 살피려고 공부를 기울이고,

그것을 살피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배우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어둠에 경계를 두셨다고 합니다. 보십시오, 어둠은 모든 것을 감춥니다. 낮에는 흰 것과 검은 것을 분간하지만, 밤이 오면 모든 것이 뒤섞이고 CO 503 혼란스러워집니다. 우리 감각이 모자라서 사람이 돌인지 모르고, 집이 산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사람들에게서 이렇게 시력과 분별력을 빼앗는 어둠에도 경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그것에 그 분량을 정해 주십니다. 이 말로 욥은 이 세상에 큰 다양함이 있고 모든 것의 모습을 감추는 어둠까지 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그것을 이겨내리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그다음에 빛을 보내셔서 어둠이 늘 이어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좋고 아주 유익한 가르침을 얻습니다. 곧 사람의 정신이 낮은 것들과 이 덧없는 삶에 관한 것들에 관해서는 이해하고 판단하는 어떤 능력을 가질 수 있지만, 하늘에 속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 그분의 심판에 관한 것은 모두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가르침이 우리에게 아주 유익하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을 마땅히 이해할 때에 말입니다. 물론 가장 작고 낮은 것들조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만큼이 아니면 우리는 깨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듯 (흔히 말하는) 단순하고 어리석어서 짐승보다 나을 것 없이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추시려고 거울처럼 우리 눈앞에 두십니다. 감각도 이성도 없는 아주 어리석은 사람을 봅니까? 우리는 거기서 멈추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본성의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성과 지성은 어디서 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 아닙니까? 그러니 정신과 지성을 가진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과, 그만큼 그들이 그분께 더 빚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한 가지입니다. 심지어 우리 주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예리하게 하셔서, 그들이 자기가 하려는 일을 해낼 재주가 있고, 결론을 내리고 숙고하며

자기 모든 일을 슬기롭게 처리하고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깨닫는데, 다른 사람들은 더디고 둔해서 무엇을 가르치려 하면 망치로 세게 두드리듯 해야 한다면, 사람들 사이에 있는 그런 다양함은 우리에게 잘 판단하고 분별하는 어떤 능력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 줍니다. 우리는 그것을 본성에 돌려서 우리 주님께서 당신 좋으신 대로 저마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신다는 것을 알아보지 못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 밖에 사람의 정신이 본성상 여기 아래의 것들과 현재 삶에 관한 것들을 알 수 있다고 말할 때, 이 "본성"이라는 말은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그것이 CO 504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지 않으신 자들에게도 주어진다는 것을 나타내려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찍으시는 표지이므로 양자의 영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니 우리가 거듭나서 구원 소망의 보증과 담보를 가지려고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았다 해도, 우리는 지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 아래의 것들을 판단하는 것은 신자와 불신자에게 공통된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악인들과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들이 자기 일에서 자주 더 예리하고 더 슬기로운 것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눅 16:8 참조). 그러니 우리가 간직해야 할 것은 여기 아래의 것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했듯이)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말고 다른 데서 얻는 것은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분량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좋으신 대로 그것을 나누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이 세상에 두실 때 그들에게 어떤 몫의 슬기를 주셔서 그들이 여기 아래의 것들을 판단하게 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은 선과 악도 분간합니다. 도둑질과 살인과 음행을 정죄하지 않을 만큼 짐승 같은 사람을 어디서 찾겠습니까? 본성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모든

사람에게는 어떤 법과 어떤 질서가 있고, 그들은 사람의 삶에 속한 일들을 꾸려 나가려면 질서 없이는 지낼 수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다음에 그들에게는 기술과 직업이 있어서, 하나는 빵 굽는 사람이고, 하나는 농부이며, 하나는 구두장이이고, 하나는 직물 장수입니다. 이런 기술들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령으로 비추신 신자들에게만큼이나 불신자들에게도 공통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은혜는 사람들을 위한 것일 뿐입니다. 그런 도움과 수단이 없으면 인류가 제 형편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요컨대 우리가 간직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곧 자연에 큰 비밀들이 있고 현재 삶에 속한 것들이 높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사람들에게 그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직업을 말할 때, 그 기술을 알기 전에는 그 일들이 낯설게 보일 것입니다. 심지어 놀랄 만큼 정교한 기술로 만든 작품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할 것입니다. 땅속의 금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가? 보라, 물이 있는데 사람들이 거기서 소금을 만든다. 그것이 어떻게 되는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런 재주를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금과 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흙 속에 섞여 있는 금속이고 아무 빛깔도 없으며, 심지어 CO 505 쓸모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분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정련해서 쓸 수 있게 하고, 귀한 금속이 되게 하며, 우리가 보듯 금과 은을 그렇게 쓰는 것처럼 사람들 사이에 거래하는 수단이 되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다음에 다른 기술들에 관해서도, 처음에는 어떻게 그것으로 일할 수 있는지 놀라지 않을 만큼 낮고 흔하고 평범한 직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밀을 뿌리는 것을 볼 때에도 "그것이 어떻게 자랄 수 있는가?" 할 것입니다. 포도주는 어떻게 만들며, 그와 비슷한 다른 것들은 어떻게 만드는가?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알려지면 우리는 더는 그것을 낯설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기술을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거기서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말한 것이 이것입니다. 곧 사람들에게는 자연의 것들을 깨닫는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것이 처음에는 어둡고 사람들의 정신이 굳고 거칠어도, 그들은 이 땅의 삶을 꾸려 나가는 데 이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 세상을 지나가도록 그런 도움과 수단을 주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덧없는 삶 위로 올라가는 문제에 이르면, 그때는 우리 모두가 모자라리라는 것을 알아봅시다. 그리고 모든 교만한 자가 속는 것이 여기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여기 아래의 것들에 예리하고 날카로우니 하나님의 모든 비밀, 율법과 선지자들과 복음의 모든 가르침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주제넘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갑절로 눈멀게 하십니다. 흔히 말하듯 믿음은 초자연적인 빛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살피는 일은 우리 안에서 저절로 자라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죽을 사람으로서 그것을 가지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자연의 질서를 넘어 우리에게 그것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만큼 가질 뿐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낮은 것들에 관해 자기 슬기를 믿는 자들의 교만을 어떻게 벌하시는지 봅니다. 보십시오, 이 세상의 멋쟁이들은 자기 잔꾀에 능란하면 하나님과 세상을 다 속이려 할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너무나 영리해서 아무것도 자기를 빠져나가지 못하리라고 여깁니다. 그 위에서 그들은 놀라운 것을 꾸며 내고 자기 분수를 넘는 일을 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렇게 곤두박질치게 내버려 두시고, 그 사이에 필요한 때에 그들을 눈멀게 하셔서 어린아이들도 그들을 비웃을 수 있게 하십니다. 가장 영리하고 끝까지 지혜롭다고 자부하는 자들이 모든 이성을 빼앗기고 덫에 걸리듯 붙잡히는 일이 자주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그들의 간계로 덫에 걸리듯 잡으신다고 말하는 대로입니다(욥 5:13; 고전 3:19 참조). 우리는 그것을 봅니다. “그렇게 앞을 잘 내다보던 사람이 어떻게 이제

이렇게 붙잡히고, 그렇게 작은 일에서 눈이 어두워질 수 있는가? 그에게는 이성이 없는가?" 그렇습니다, 마치 CO 506 너무 밝게 본다고 자부하고 자기 슬기와 지혜를 믿는 자들을 눈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지 않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분은 그런 오만을 벌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믿고 주제넘게 구는 만큼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예를 빼앗으니, 그분은 그런 신성 모독에 원수를 갚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밖에 사람들이 자기 영리함을 선보다 악에 쓰니,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이 그분이 넉넉히 베푸신 선물을 그렇게 더럽힌 것에도 원수를 갚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고 예리한 정신을 주실 때 그것은 특별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속임수와 악의로 바꾸어 버린다면, 하나님께서 그 때문에 우리를 벌하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분이 우리 구원뿐 아니라 우리 이웃의 공동의 유익을 위해 바치신 것을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낮고 덧없는 것들에 관해 자기 감각을 너무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오만을 벌하신다면, 묻건대 그들이 하늘 위로 올라가 모든 하늘의 비밀을 알려 하고, 하나님께서 당신께 남겨 두셔서 오직 그분께만 속해야 할 것을 붙잡으려 할 때, 말하건대 사람들이 그렇게 높아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큰소리를 꺾으시고 그들의 오만과 교만에 원수를 갚으시려고 그들을 가장 깊은 구렁에 빠뜨리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정신이 여기 아래에서 땅의 삶에 속하고 관계된 것을 분간하기에는 충분하다 해도, 그렇다고 우리가 하늘까지 올라가 하나님의 은밀한 뜻에 들어가서, 우리 주님께서 당신께 감추어 두신 것을 우리 감각과 머릿속에 가둘 수 있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을 배웁시다. 요컨대 영원한 생명에 관한 모든 것은 우리의 모든 분량을 넘어선다는 것,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것도 자연의 질서를 넘어 일하셔야 한다는 것을 압시다. 그분은 우리가 사람인 그만큼만 우리를 비추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빛을 주셔야 합니다. 그 빛은 우리

가 말한 양자의 영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 밖에 그러하니 이제 사람의 자유의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옹호하려는 자들이 얼마나 미쳐 있는지 알아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우리 자신을 이끌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자유의지를 가졌다면, 먼저 우리에게 믿음과 의와 거룩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이 어떻게 우리를 불쌍한 눈먼 자들로 정죄하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밀에 올라가리라고 자부할 만큼 높아져서는 안 되고 오히려 자기에게 감각과 이성이 없다는 것을 고백해야 한다고 선언하는지 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학교에 들어갈 때 우리가 배워야 할 첫 과목은 사도 바울이 말하듯(고전 3:18)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CO 507 물론 이것이 우리에게 이상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길을 지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선생 노릇을 하시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곧 우리 안에 이성이나 지성이 한 방울도 없다는 것, 우리가 짐승들보다 그것을 더 빼앗겼고 우리 안에 그들보다 분별과 슬기가 적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도록 우리 자신을 낮추기를 배웁시다. 그러하니 이제 무엇이 필요합니까? 먼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으려면 그분이 우리에게 당신의 성령을 주셔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혼란스러우니 그분이 우리 어둠을 밝히시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와서 보여 주셔야 하며,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지식 말고는 아무 지식도 가졌다고 자부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한 가지입니다. 그러나 둘째로, 우리가 이 하늘의 빛과 성령에게서 나오는 이 깨달음의 선물을 받았을 때 우리는 또한 성경으로 나아가야 하고, 거기 담긴 것을 넘어 하나님의 일이나 심판을 캐물으려고 주제넘게 굴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 주시고 가르치시는 것을 아는 것으로 만족합시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절제를 가집시다. "그렇습니다, 주님, 주께서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려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것을 잠잠히 받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더 나아가지 않으시면 우리 정신은 거기서 멈추겠습니다.” 그러니 이 가르침에서 유익을 얻으려고 우리가 새겨야 할 것이 이 두 가지입니다. 곧 우리에게 허락된 것보다 더 알려는 어리석은 주제넘음으로 나서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일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당신의 성령으로 우리를 비추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으로 가르침을 받으려 하며, 거기 담긴 것 말고는 아무것도 알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거기서 우리 구원에 알맞고 유익하다고 아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엎드립시다.

제102편

욥기 28장 설교 2

CO 34:508–520

AI로 옮긴 초벌 번역입니다. 신학 감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CO 권: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 그가 바위 속에 물길을 내고, 그의 눈은 모든 보배를 보네. 그가 강물을 묶어 넘치지 않게 하고, 숨겨진 것을 빛 가운데로 드러내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찾으며, 깨달음의 자리는 어디인가? 사람은 그 값을 알지 못하고, 그것은 사는 자들의 땅에서 찾아지지 않네. 깊은 물은 "그것이 내 안에 없다" 하고, 바다는 "그것이 나와 함께 있지 않다" 하네. 순금으로도 그것을 살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치를 수 없네. 금덩이로도, 귀한 마노와 청옥으로도 그 값을 매길 수 없네. 금과 수정도 그것과 견줄 수 없고, 순금 그릇으로도 그것과 바꿀 수 없네. 산호나 수정은 말할 것도 없으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네. 에티오피아의 황옥도 그것과 견줄 수 없고, 순금 덩이로도 그 값을 매길 수 없네. 그러면 지혜는 어디서 오며, 깨달음의 자리는 어디인가? 그것은 모든 사는 자의 눈에 가려져 있고, 하늘의 새들에게도 감추어져 있네. 멸망과 죽음도 "우리가 귀로 그 소문만 들었다" 하네. 하나님께서 지혜의 길을 아시고, 그 자리를 아시네. 그분은 땅끝까지 살피시고 하늘 아래 모든 것을 보시네. 바람에 무게를 정하시고 물에 분량을 정하신 이가 그분이시네. 비에 법칙을 정하시고 울리는 폭풍에 길을 정하실 때, 그때 그분이 그것을 보시고 아셨으며, 그것을 마련하시고 세우셨네. 그리고 사람에게 말씀하셨네.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깨달음이다." (욥 28:10–28)

CO 508 우리는 여기서 욥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가 "지혜"라는 말로 무엇을 뜻하는지 밝혔습니다. 그의 의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깨달으려 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려 하지 않을 때 너무나 오만하다는 것을 보여 주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라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자면, 그는 그것을 모든 것에 대한 지식, 특히 하나님께서 지금은 우리에게 분량을 따라, 그리고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아시는 대로 나누어 주시는 것들을 온전히 드러내 주실 때까지 우리에게 감추어 두시는 것에 대한 지식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CO 509 욥은 (내가 말했듯이) 여기서 자연 속에 감추어지고 어두운 것이 많지만, 그래도 사람이 거기에 이르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로 우리가 거기서 어떤 이치를 본다는 것을 일깨웁니다. 우리는 늘 이 점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 밖에 그것이 분량을 따라서라는 것을 잘 새깁시다.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 이성과 지성이 여기 아래의 것들과 현재 삶에 관한 것들보다 더 멀리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봅시다. 우리가 하늘나라에까지 올라가 영원한 생명에 속한 것을 캐물으려 하면, 거기서 우리는 모자라고 완전히 눈이 멉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지혜를 어디서 찾겠느냐고 묻습니다. 그것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죽은 자들 사이에서도 찾지 못할 것이고, 모든 사는 자에게 물어도 마찬가지라고 그는 말합니다. 물론 많은 사람이 자기가 지혜롭다고 자부할 수 있고, 모든 지혜를 자기 소매 속에 넣어 두었다고 자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추어 두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난 자들조차, 그들이 이 죽을 몸에 더는 싸여 있지 않고 여기 아래에서 더는 졸고 있지 않다 해도, 하나님의 은밀한 뜻에 속한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위아래로 찾아도, 사람은 자기 재주로는 결코 지혜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당신 손에 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재물로 그것을 얻으려 한다면 속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기에는) 자기 재주로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워지는 것은 그들에게 달려 있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지혜는 너무나 뛰어난 보배여서 그것과 맞바꿀 만한 것을 찾을 수 없습니

다. 금과 은을 모으고 온갖 보석을 가져와도 그것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요컨대 욥이 여기서 우리를 낮추려 한다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만큼 능숙하다고 여기지 않고, 오히려 우리 분량을 넘는 것을 기꺼이 모르고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에 우리에게 알맞은 것을 알고자 한다면 하나님께 당신의 성령으로 그것을 드러내 주시기를 구합시다. 거기로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에 여기 놓인 결론에도 이릅시다. 곧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를 당신 안에 지니고 계시고, 세상을 지으실 때 바람과 물의 무게를 정하신 것만으로도 그것을 잘 보여 주셨듯이, 하나님 홀로 모든 지혜를 당신 안에 지니시고 그 근원이시니, 그분은 사람들이 이 방법으로 지혜롭게 되도록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곧 그들이 그분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욥의 결론에서 우리는 사람의 지혜가 어리석은 호기심으로 모든 것을 알려고 캐묻는 데 있지 않고, 자기 경계 안에 머물며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께 복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데 있다는 것을 봅니다. CO 510 그것이 참된 지혜이고, 사람들은 고삐에 매인 듯 거기 붙잡혀 머물러야 합니다. 이 구절의 글자에 관해서는 이것으로 됩니다.

이제 그것에서 유익을 얻도록 살펴봅시다. 먼저 지혜를 사는 자들 사이에서 찾지 못하리라고 할 때, 그것은 늘 사람들이 자기 감각을 믿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일의 이치를 깨달을 만큼 예리하고 날카로운 정신을 자기에게 돌려서도 안 된다는 경고라는 것을 잘 새깁시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생각하면 이 경고는 아주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자연의 것들에 교만하고 주제넘다면 나머지 것들에서는 더욱 방자하여, 저마다 아무것도 자기에게 감추어지지 않을 만큼 날카롭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가운데 누가 이기고 누가 제 동료보다 더 지혜로울지의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다툽니다. 그것은 끔찍한 일이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그만큼 미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자기 감각을 너무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세상을 바로잡는 데 지금처럼 큰 어려움을 겪지 않으리라는 데서 드러납니다. 크고 작은 사람들이 그런 주제넘음으로 높아져서,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으려고 그분께 순순히 자기를 맡기는 사람은 아주 적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가르치려 하실 때, 말하건대 가장 무식하고 어리석은 자들까지도 대꾸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두 자기가 지혜롭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오, 나는 나를 다스리는 법을 안다. 마치 내가 짐승인 것처럼 대하는구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밝혀 주시는 이 영예를 베푸시는데, 그 사이에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선생과 스승이 되시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면, 그들은 미친 것 이상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모두 지혜로워지려는 이 오만이 아니면 어디서 오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 경고가 간직될 만하고 저마다 거기서 자기를 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본성상 이 악이 뿌리박혀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상상대로 내버려 두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일에 끼어들지 않으시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충분히 능숙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지혜가 사람들 사이에서 찾아지지 않는다고 할 때, 요컨대 욥이 (아니 오히려 그의 입을 빌린 성령께서) 여기서 우리가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을 만큼 좋고 날카로운 정신을 가졌다고 상상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높음을 꺾으려 한다는 것을 잘 새깁시다. 여기서 성령께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높아지면서 스스로 속는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들에게 지혜가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어떤 지혜입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는 CO 511 여기 아래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깨달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이 어둡다 해도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드러내 주시고, 그 지식은 본성의 지식이라고

불릴 것입니다. 똑같은 분량은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이 거기 참여한다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무엇이신지, 또는 그분의 심판을 아는 문제에 이르면, 거기서는 모든 사람의 감각이 눈부셔 어두워질 수밖에 없고, 사람들이 높아지려 할수록 그만큼 더 꺾이고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특히 욥은 지혜를 금이나 은이나 어떤 보석으로도 얻지 못하리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서 그들의 모든 헛된 주제넘음을 벗겨 내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부자이면 다른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으니 자기가 산더미 같은 값어치가 있다고 여기고 자기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욥은 우리 안에 어떤 뛰어남이 있든 그 때문에 우리가 더 지혜로운 것은 아니고, 그 위에 우리 자신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쓸데없는 말이 아닙니다. 부자들과 지위 있는 사람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할 때 불쌍한 세상이 어떻게 속는지 우리가 보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오, 그것에 반박해서는 안 된다. 아무개가 그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그런 명성에 사로잡혀서, 부자가 말했을 때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가 순전히 짐승이라 해도 사람들은 그 권위에 놀라 거기서 눈이 부신 것처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많은 단순한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에 다가가 거기 복종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 그들이 세상의 높은 사람들을 바라본다는 것 말고 무엇이겠습니까? "뭐라고? 보라, 모든 것을 다스리는 사람들, 부자들, 지위 있는 사람들이 모두 이 가르침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그러니 그것은 아무 값어치가 없고 의심스러운 것이며 우리가 거기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표시다." 우리는 재물이 저울에 올려지고, 사람들이 지혜가 거기에 붙어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부자들이 대개 헛된 오만으로 눈멀어서, 재물이 사람들을 마비시키고 완전히 짐승같이 만드는 어리석음만 가져온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큰 지위와 높은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의 낮은

처지에 있는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슬기를 주실 때 자기를 알고 정신을 차릴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높이 오른 사람은 자기를 잊고 눈이 멉니다. 그가 자기에 대해 실제보다 더 상상하며 날개를 펴는 만큼, 우리 주님께서 그의 모든 이성이 새어 나가고 그가 거기서 우상처럼 되도록 허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눈으로 봅니다. 그러나 그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것, 곧 지혜를 금이나 은으로 얻지 못하리라는 것을 잘 따져 봅시다. CO 512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아래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더는 믿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것은 특별한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순전한 선하심으로 와서 우리를 비추시고 당신 좋으신 대로 그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실 때까지 우리에게 닫혀 있는 보배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욥이 여기서 결론으로 하는 말을 잘 새깁시다. 곧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부터 지혜를 가지셨고, 그것을 지니셨으며 마련하셨고, 그다음에 사람에게 "보라, 너희가 이렇게 지혜로워질 것이니 곧 나를 경외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욥은 하나님과 우리를 비교합니다. 우리 교만은 힘으로가 아니면 꺾거나 길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일한 방법은 그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되돌릴 때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 정신의 연약함과 거칠음을 보여 주어도 우리는 결코 거기에 이르려 하지 않고, 늘 뒷걸음치며, 몰래 어떤 오만을 간직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 정신이 딱할 만큼 약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어도, 우리는 우리가 지혜롭다는 이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께로 되돌릴 때, 그때 우리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과 더는 우리 자부심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욥이 여기서 하나님을 앞에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 안에만 있는 이 지혜를 우리가 알도록 그는 세상의 창조를 우리 눈앞에 둡니다. 그는 말합니다. "자,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연의

질서를 어떻게 마련하셨는지, 바람과 물과 다른 것들을 어떻게 달아 보셨는지,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깨달을 만큼 날카로운 정신을 가지겠는가?" 물론(우리가 말했듯이) 철학자들은 지금 보이는 것들의 이치를 잘 깨달을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에 이르면 그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어서,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경배하며 그것이 자기에게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 구절에서 욥의 의도가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그는 우리 지혜가 모든 것을 캐묻고 모든 것을 살피고 따지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대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아는 데 있다고 우리가 어떻게 결론 내려야 하는지 보여 줍니다. 이것은 뛰어난 구절입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 홀로 당신의 비밀을 아시고, 성경의 다른 구절들에서 말하듯 그분께는 모사가 없다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사 40:13; 롬 11:34 참조). 그러니 우리는 그분의 은밀한 뜻에 들어가거나 그분께 허락받은 것보다 더 알려고 주제넘게 굴어서는 안 되고, 오직 그분의 학교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 주기를 기뻐하시는 것을 배우며, 그것이 우리의 모든 지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구절이 뛰어나다고 말했습니다. CO 513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에게는 고치기 어려운 두 가지 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대담함이고, 다른 하나는 어리석은 헛됨입니다.

그런데 그 대담함은 사람들이 늘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보다 더 알려 한다는 것입니다. 요컨대 그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든 말든 지혜로워지려 합니다. 그런데 모든 지혜의 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이것은 엄청난 악이고, 그런데도 고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사나운 충동으로 덤비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어찌 되든 나는 이것저것을 알고 싶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거기에 빗장을 거셔서 문이 네게 닫혀 있다면 너는 어느 쪽으로 들어가겠느냐? 그런데 보십시오, 사람들은 어찌 되든 자기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을 캐물으려

합니다. 그 밖에 그들은 자기 힘으로 거기에 이르리라고 여깁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늘 자기 이성과 감각을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본성상 우리 안에 있는 이 대담함과 오만과 싸워야 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보다 더 알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둘째 악은 이 경박한 헛됨입니다. 곧 사람들이 자기에게 유익한 것, 자기가 멈추어서 모든 공부를 기울여야 할 것을 버려두고 그것을 셈에 넣지 않으며, 그 사이에 자기에게 아무 유익도 가져다주지 않을 헛된 것들에 매달려 괴로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것저것 찾아내고 이야기를 늘어놓는 곳이 거기입니다. "나는 이것을 알고 싶다." 왜 그것을 알고 싶으냐? "그것이 내 마음에 들기 때문이다."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고 믿음으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로나 우리를 세울 수 없는 것들을 알려는 어리석은 욕구에 끌려다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드러내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먼저 그분이 우리를 낮추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오만을 아시고, 우리가 모든 것을 안다면 견딜 수 없으리라는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무지한데도 우리가 드러나 보이려 하지 않도록 붙잡아 둘 수 없다는 것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십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지혜로운 자로 보이기를 바랄 때 우리는 너무 우스꽝스러워서 어린아이들도 우리를 비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런 고삐로 붙잡으셔도 우리는 여전히 자랑하고 우쭐대며, 심지어 우리 안에 지혜밖에 없다고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설득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있는 이 무지 아래 붙잡아 두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시기하셔서 우리에게 감추어진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은 이 방법으로 우리를 겸손으로 가르치려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지혜의 가장 중요한 점은 절제하고 삼가며, 심지어

CO 514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을 느껴서 높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겸손하기를 배우도록 많은 것을 감추십니다(아무것도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이 없다면 우리는 겸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분은 무엇이 우리에게 좋은지 분간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온전히 몰두하게 하시고 붙잡아 두려 하시는 곳이 거기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호기심을 먹이려 하셨다거나 우리가 바라는 것을 알게 하려 하셨다는 것을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귀가 간지럽고 늘 우리 욕구 속에서 들썩입니다. "나는 이것을 알고 싶다. 저것은 무엇인가?" 그런데 그것은 모두 유익할 수 없는 경박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헛됨과 어리석은 욕구를 고치시려고 당신이 우리에게 좋다고 아시는 것만 우리에게 밝히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마련하셨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당신 안에 간직하셨고, 그 사이에 사람들에게 "나를 경외하라, 그러면 너희가 지혜로워질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는 이 구절을 잘 간직합시다. 이것으로 욥은 먼저 사람들이 모든 것을 캐물으려 하면서 스스로 속는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높이 날다가 목이 부러집니다. 흔히 말하듯 날개 없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께서 드러내기를 기뻐하실 것으로 만족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 주시는 것, 그리고 그분이 우리 저마다가 무엇에 힘쓰기를 원하시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곧 그분을 경외하는 일로 우리를 세울 수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사색하고 허공을 날아다니려고 지혜로워지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곧 우리 삶을 마땅히 다스리는 지식과 결합된 지혜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이제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당신의 은밀한 심판을 맡겨 드려야 하고, 우리 위에 있는 것을 안다고 주제넘게 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봅니

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 주시는 것을 판단하는 것으로 만족합시다. 많은 것이 마지막 날까지 남겨져 있고, 그때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이며(고전 13:12 참조), 지금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려는 대로 부분적으로 아는 것으로 충분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 주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밀한 심판에 대해 아무것도 알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할 때, 그 뜻은 우리 주님께서 당신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보다 더 나아가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려 하신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그분의 인도 아래서 길을 잃을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상상대로 하나님께서 감추시는 것을 사색하러 간다면 우리는 깊은 구렁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가 짓눌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알맞은 것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의 교만을 벌하십니다. 그러니 욥은 우리가 말한 CO 515 이 두 가지 악을 고치려고 우리에게 "보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고 보여 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는 이 말은 무게가 큽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당신의 비밀과 당신의 모든 뜻을 캐물을 길을, 그분이 그들에게 보여 주실 것 말고는 끊어 버리려 하셨다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그분은 당신의 학교에서 배우기를 원하시는 가르침이 거룩한 삶으로 세우는 데 유익하다는 것을 그들에게 밝히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지으시고 빚으신 분께 복종하고 그분께 순종하며 걷기를 배우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정하신 지혜입니다. 요컨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리 앞에 내세울 때(그것이 우리의 모든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가장 바라는 것에서 우리를 끌어내신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곧 어리석은 야망으로 우리를 부풀리고, 우리를 크게 주제넘게 만드는 바람으로 가득한 지식을 갖게 하는

것 말고는 아무 쓸모없는 헛된 사색에서 끌어내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아무 유익도 가르침도 없습니다. 그러니 욥은 여기서 이 두 가지를 맞세워서, 하나를 한쪽에, 다른 하나를 다른 쪽에 두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사람들이 지혜로워지고 싶은가? 그들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지혜로워지려 해서는 안 된다. 보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혜를 완전하게 지니고 계시다. 우리가 그분께 더 가까이 갈수록 그만큼 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이 지혜에 관해서는 우리를 하나님과 같게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그분께 복종시키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 아담과 우리 어머니 하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색하지 않으셔서 그들에게 좋다고 아신 그런 지혜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보십시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져서 자기에게 속한 모든 것을 깨달았으니, 그가 절제되고 잘 다스려진 욕구를 가졌다면 더 바랄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보십시오, 사탄이 그의 귀에 대고 그가 모든 것을 아는 하나님과 같아지리라고 속삭입니다. 그 위에서 그는 방자해지고 고삐 풀린 말처럼 날뜁니다. "오,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그에게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우둔함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을 말할 때 우리는 싫든 좋든 우리가 불쌍한 짐승이고, 우리가 가졌다고 자부하는 모든 빛이 어둠일 뿐이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 하나님의 신비를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고전 2:14 참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쪽에서 부르시면 우리는 다른 쪽으로 뒷걸음치거나, 너무 게을러서 그분께 다가갈 수 없는 것이 어디서 옵니까? 그것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것은 아담 안에 있던 이 교만의 값입니다. 그는 CO 516 자기 구원에 알맞은 것들을 알기에 적당한 만큼 하나님의 영으로 비추심을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과 같아지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높아졌을 때, 그는 그를 오늘 우리가

있는 이 끔찍한 혼란의 구렁에 처넣는 하나님의 강한 손을 만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특히 욥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고 말하는 까닭입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너희가 지혜로워지려면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살피라. 그것은 구름 위로 올라가려 하고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아야 할 많은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다. 이를테면 '하나님께서는 왜 세상을 지으시기를 그렇게 오래 미루셨는가? 무엇이 그분을 움직여 이것저것을 하시게 했는가? 그분은 왜 일들을 이렇게 마련하시는가? 왜 일들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도록 허락하시는가?' 하고 말하는 것이다. 너희 지혜는 거기 있지 않다. 그리고 너희가 그 방법으로 지혜로워지리라고 여길 때 너희는 길을 잃기만 할 것이고, 그런 미로에서 결코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길에서 벗어나기만 해서 부끄러움을 당한 채 남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지혜를 어디서 찾겠는가?"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너희에게 좋은지 판단하고 분간하는 것은 내 일이다. 내가 너희에게 보여 주고 가르치는 것으로 만족하기를 배우라. 무엇이 너희에게 유익한지 보는 것은 내 일이기 때문이다. 곧 나를 경외하고 공경하는 것이다. 그러니 거기 머물고 이 경계를 넘지 말라." 이제 우리는 욥의, 아니 오히려 성령의 의도를 봅니다. 그러니 아무 쓸모없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밀한 뜻에 들어가며, 그분의 모든 심판의 이치를 살피려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리석고 들썩이는 욕심에 더는 고삐를 풀어 주지 않기를 배웁시다. 우리가 몰두하고 공부를 기울여야 할 곳은 거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에 기울여야 합니까? 참된 세움에 우리를 쓰일 수 있는 것에 기울여야 합니다. 성경 전체가 유익하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딤후 3:16 참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람들에게 지혜가 당신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분은 그것을 말씀하셨고, 당신의 율법을 반포하시고 그것을 당신의 선지자들을 통해, 마침내 복음을 통해 풀어 주셨을 때 그것

을 실제로도 보여 주셨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지혜가 당신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밝히시는 곳이 거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가르침에서 더 잘 유익을 얻도록,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고 알맞다고 아시는 지혜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데서 그분의 선하심이 어떠한지 새깁시다. 우리가 본성상 그것을 빼앗기고 거기서 쫓겨났는데도 말입니다. 지혜가 사는 자들 사이에서도, 죽은 자들 사이에서도 찾아지지 않으리라는 것, 깊은 구렁까지 갈 수 있겠지만 늘 부끄러움을 당한 채 남으리라는 것은 이미 말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 안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들은 "우리는 그것에 대해 들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다.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과 아무 친밀함도 없다" 하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십시오, CO 517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지혜를 내어 주시는 이 영예와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것은 감추어진 보배,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배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다가갈 길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와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찾으려고 멀리 돌아다닐 필요가 없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도록 우리 자신을 맡기기만 하면 이 보배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낯설었고 우리가 빼앗기고 쫓겨났던 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기를 기뻐하실 때, 그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특별한 선입니다.

그래서 또 그분은 잠언 8장에서 사람의 이 배은망덕을 꾸짖으십니다.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가 거리와 광장에서 외친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나를 밝힐 준비가 되어 있다.' 지혜는 문을 두드리고, 사람들 가운데 거하는 것이 자기 기쁨이라고 선언한다." 그런데 그 사이에 아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람들은 그것을 비웃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렇게 크고 좋은 것을 셈에 넣지 않습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꾸짖으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곧 우리는 지혜가 너무나 귀한 것이어서

어떤 금이나 은도 그것과 견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는데도, 그래서 우리가 미친 것 이상이라고, 그리고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것을 가지는 것을 셈에 넣지 않으니 마귀가 우리를 단단히 홀렸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얻으려고 이리저리 애쓰거나 큰 수고를 하거나 멀리 돌아다닐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 앞에 놓일 때 받기만 합시다. 그런데도 우리는 사람들이 그것을 셈에 넣지 않는 것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흔히 말하듯 핀 하나면 우리 정신을 팔게 하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자기 욕심에 붙잡히지 않은 사람이 없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보다 동전 한 닢의 이익을 더 바랄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리를 막는 것은 한 가지만이 아니고, 저마다 이 악이나 저 악에 빠져 있는 대로 길에서 벗어나 쉽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것입니다. 음란한 자는 자기 더러움에 너무 더럽혀져서 귀가 막혀 있고, 심지어 완전히 귀가 먹어서 사람들이 아무리 그에게 말해도, 하나님께서 높고 분명하게 외치셔도 아무것도 알아듣지 못할 것입니다. 탐욕스러운 자도 마찬가지이고, 술주정뱅이도 그렇습니다. 요컨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지 못하게 돌려놓는 걸림돌이 여러 가지라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구절에서 고발하시는 것은 너무나 흔하고 일상적인 악입니다. 곧 그분이 사람들에게 공통으로 주어져야 할 이 지혜의 보배를 보내시고 그들의 문을 두드리시며 그들을 초대하실 때, 저마다 다가가기보다 오히려 뒷걸음친다는 것입니다.

그 밖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사람들의 짐승 같은 무관심과 배은망덕을 고발하고 정죄하시듯, 그분은 또한 모든 신자에게 CO 518 그분께 가르침을 받는 것을 그들이 얼마나 귀히 여겨야 하는지 보여 주십니다. 신명기 4장(6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대로입니다. “보라, 네 지혜와 네 깨달음은 네 하나님께서 네게 가까이 오시고, 네게 당신의 뜻을 밝히시며, 너를 가르치고 당신 안에서 너를 세우기에 좋은 것을 네게 보여 주시는 것이다.”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께 이끌려 하실 때, 우리의 참된 지혜와

깨달음이 모두 당신께 귀 기울이는 데, 그렇습니다, 그분이 당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 주시는 것을 깨닫는 데 있다고 선언하실 때, 우리를 초대하시는 곳이 거기입니다.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아,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하듯 헛된 것들에 매달리며 스스로 속지 말라. 오히려 내가 너희에게 보여 주는 것을 간직하고, 그것이 너희의 모든 지혜와 깨달음이라는 것을 알라. 그리고 너희가 이 경계 밖으로 나가려 할 때 너희는 어리석은 자, 아니 미친 자가 되리라는 것을 알라." 그리고 그 사이에 그분은 다시 꾸짖으시고, 꾸짖으시면서 우리가 당신 말씀을 가지고도 바르게 걷지 않는다면 아무 핑계도 없으리라는 것을 보여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신명기 30장(12–14절 참조)에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더는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는가? 누가 깊은 곳에 내려가겠는가? 누가 바다를 건너겠는가?' 하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보라, 말씀이 네 마음과 네 입에 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는 거기서 우리가 우리 위에 있는 것들을 깨닫기가 너무 어렵다고 핑계할 수 없다고 선언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정신의 굳음을 핑계하고 하늘 비밀의 높음을 핑계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아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대비하였고 미리 앞서 나갔다. 내가 너희에게 내 율법을 주고 내 뜻을 밝힐 때 너희에게 지혜를 정해 주어서, 그것이 너희 가운데 거하기만을 바란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8장(31절)에서도 "나의 기쁨은 사람들 가운데 거하는 것이다" 하고 말하는 대로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내게 오려고 긴 이야기를 늘어놓을 필요가 없다. 구름 위로 날아갈 필요도, 깊은 구렁에 들어갈 필요도, 바다 건너로 갈 필요도 없다. 내 말씀이 너희 입에 주어지고 너희 마음에 놓일 때, 보라, 그것이 너희의 모든 지혜이고, 너희가 멈추어야 할 곳이 거기다."

그런데 이제 먼저, 그러하니 사람들이 그분이 당신 말씀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실 때 주어지는 이 은혜를 업신여기면 그들은 할 수 있는 만큼 그분께 전쟁을 거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을 잘 살핍시다. 지혜가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것을 기뻐한다고 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무겁게 다가와야 할 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당신의 지혜를 당신 자신의 인격으로 말하듯 들여오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분의 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니, 내가 말했듯이 그것을 거부할 때 우리는 그분께 전쟁을 거는 것이고, 그것은 마치 우리가 알면서 그분께 대들고 그분을 CO 519 우리에게서 쫓아내려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아봅시다. 그것은 너무나 엄청난 일이 아닙니까? 그 밖에 우리는 우리 구원을 바라는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 주시고 당신께로 우리를 초대하셔서 그분 안에서 우리가 모든 좋은 것의 충만함을 찾게 하시는데, 우리는 거기 갈 생각도 하지 않고 그분께 등을 돌립니다. 그다음에 그분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은 우리에게 알려지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서 말하자면 변화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형상과 영광이 우리가 모든 것보다 앞세워야 할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 것을 견디지 못할 때, 그것은 마치 우리가 빛을 어둠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영광을 없애서 그것이 더는 나타나지 않고 알려지지 않게 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없애고, 그것도 자기의 선과 구원과 모든 기쁨이 있던 그 빛을 끄려고 애쓸 때, 그들은 무서운 괴물이요 마귀에 단단히 들린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 악은 흔한 것 이상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학교에 초대하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문을 열어 주셔서 우리가 그분께 가르침을 받게 하실 때, 본성상 우리가 이 지혜를 빼앗겼는데 그분이 와서 그것을 우리 눈앞에 두시고 그렇게 친근하게 내어 주실 때, 그분이 베푸시는 이 은택을 귀히 여기기를 배웁시다. 심지어 그분은 우리가 청하기를 기다리지 않으시고 와서 우리 문을 두드리시며, 우리를 재촉하시고, 우리를 당신께 얻으시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부드러움을 쓰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자하게 초대하실 때, 이 영예를

귀히 여기기를 배우고, 그분이 우리가 그분께 나아오기를 원하실 때 그분께 그렇게 배은망덕하지 맙시다. 그리고 심지어 이미 말한 것, 곧 우리 본성이 어떠한지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의 천사들처럼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천사들은 너무나 고귀하고 뛰어난 본성을 지녔고, 이미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며, 창조될 때 가졌던 그 온전함을 간직하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신 뜻에 참여하게 하기를 기뻐하시는 것에 대해 그분께 더없이 빚을 지고 있고, 그들에게 베풀어진 은혜 때문에 CO 520 놀라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과 같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는 몸으로는 땅의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지 않는 영을 주셨다 해도 우리는 앞에서 밝혔듯이 진흙과 점토로 된 오두막에 살며, 거기에는 썩음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짐승들 사이에, 벌레들 사이에, 너무 낮고 무거운 것들 사이에 있어서, 우리와 하늘 사이에 끝없는 거리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더 나쁜 것이 있습니다. 곧 우리가 우리 조상 아담에게 주어졌던 그 지성을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버림받은 피조물과 같습니다. 나귀와 소는 자기 본성을 간직하는데, 사람들은 너무 타락하고 썩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신께로 부르실 때 그런 선하심에 사로잡혀야 하는데도 짐승들보다 덜 감동을 받습니다(사 1:3 참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영광에, 그렇습니다,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에 참여하기만을 바라시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파될 때 우리는 이미 그것을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모든 것에서 유익을 얻을 수 없다면, 묻건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지금은 시간이 허락하지 않아 더 말할 수 없으니,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의 무지 속에 머물도록 살핍시다. 그분 홀로 무엇이 우리에게 알맞고 유익한지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분의 학교에서 가르침을 받고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 주시는 것을 배우는 것으로 만족합시다. 그 밖에 그분의 뜻을 성경에 담긴 대로 알아봅시다. 그리고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려 하고 내어 주시는 선을 거부할 만큼 배은망덕하지 말고,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며, 우리의 모든 악한 감정을 벗어 버리려 애씁시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도록 우리 자신을 맡겨서,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 주시는 것으로 세워지고, 거기서 점점 더 자라며, 평생 거기서 굳게 세워지기를 바랍시다.

이제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엎드립시다.

제103편

욥기 28장 설교 3

CO 34:521–532

AI로 옮긴 초벌 번역입니다. 신학 감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CO 권: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 그가 바위 속에 물길을 내고, 그의 눈은 모든 보배를 보네. 그가 강물을 묶어 넘치지 않게 하고, 숨겨진 것을 빛 가운데로 드러내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찾으며, 깨달음의 자리는 어디인가? 사람은 그 값을 알지 못하고, 그것은 사는 자들의 땅에서 찾아지지 않네. 깊은 물은 "그것이 내 안에 없다" 하고, 바다는 "그것이 나와 함께 있지 않다" 하네. 순금으로도 그것을 살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치를 수 없네. 금덩이로도, 귀한 마노와 청옥으로도 그 값을 매길 수 없네. 금과 수정도 그것과 견줄 수 없고, 순금 그릇으로도 그것과 바꿀 수 없네. 산호나 수정은 말할 것도 없으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네. 에티오피아의 황옥도 그것과 견줄 수 없고, 순금 덩이로도 그 값을 매길 수 없네. 그러면 지혜는 어디서 오며, 깨달음의 자리는 어디인가? 그것은 모든 사는 자의 눈에 가려져 있고, 하늘의 새들에게도 감추어져 있네. 멸망과 죽음도 "우리가 귀로 그 소문만 들었다" 하네. 하나님께서 지혜의 길을 아시고, 그 자리를 아시네. 그분은 땅끝까지 살피시고 하늘 아래 모든 것을 보시네. 바람에 무게를 정하시고 물에 분량을 정하신 이가 그분이시네. 비에 법칙을 정하시고 울리는 폭풍에 길을 정하실 때, 그때 그분이 그것을 보시고 아셨으며, 그것을 마련하시고 세우셨네. 그리고 사람에게 말씀하셨네.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깨달음이다." (욥 28:10–28)

이 설교는 앞 설교의 본문 전체를 계속 다룹니다.

CO 521 우리는 앞에서 욥의 의도가 사람들에게 그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

시는 것보다 더 알기를 바라지 않을 만큼 절제를 지켜야 한다는 것, 그러니 그들이 길을 잃고 헤매지 말고 그들에게 정해진 길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보여 주려는 것임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욥은 우리를 하나님과 구분하고, 죽을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캐물으려고 높아지며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려 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우리가 이를 수 없는 분, 그분이 우리를 당신께로 높이기를 기뻐하시는 만큼만 이를 수 있는 분, 심지어 우리가 당신을 알도록 몸을 낮추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께 복종하는 것으로 만족합시다. 우리 연약함으로는 하나님의 그 높음에 올라가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니, 그분이 우리에게 내려오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지혜가 모든 것을 아는 데 있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높음보다 훨씬 낮은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우리에게 감추어진 것, 곧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경배합시다. 그러니 요컨대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 우리가 가질 수 없는 다른 지혜를 가지셨다는 것을 잘 보여 주셨다고 하는 이 구절에서 우리가 새겨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바람이나 물을 재고 세상과 자연의 모든 질서를 마련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 능력을 넘어선다면 우리 자신을 낮추고 우리에게 주어진 깨달음으로 만족하기를 배웁시다.

그런데 이미 풀어 놓은 것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셨다“는 이 말을 잘 따져 봅시다. 그것은 우리가 위에서 주어진 것보다 더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들보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잘 새깁시다. 욥이 특히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을 건네셔서 그들에게 분량을 따라 어떤 지혜를 주셨다고 말할 때, 그는 그것으로 우리가 분별없이 사는 짐승들과 같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뛰어난 특권을 주셨다는 것을 보여 주기 때문입니다. 곧 우리가 지각이 있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 만한 어떤 빛과 이성을 가지며, 어떤 절제와 예의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짐승들과 구분하셨을 때 그분의 은혜와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기를 기뻐하신 영예를 귀히 여기기를 배웁시다. 그런데 이것은 새겨 둘 만합니다. 우리가 CO 522 사람들에게서 두 가지 극단의 악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결코 좋은 중간을 지키지 못합니다. 지혜롭고 지각 있으려는 자들은 많은 헛된 호기심에 빠져서 사색하고 위아래로 이리저리 애쓰며 만족할 줄 모릅니다. 그들은 이것저것을 알고 싶어 하고 결코 쉬지 못합니다. 늘 헛되고 쓸모없는 것에 수고하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사람들이 자기 분량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날아다니며 빠져나올 수 없을 만큼 깊은 구렁에 처박힐 때, 그것은 아주 나쁜 극단입니다. 반대로 그렇게 헛되이 괴로워하지 않으려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짐승같이 됩니다. 경험으로 보듯, 특히 교황제 안에서 그렇습니다. 묻건대, 거기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있는 이 어리석음의 좋은 거울을 보지 않습니까? 그들은 어떤 절제를 잘 지킨다고 생각할 때 아무것도 전혀 알려 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공통되어야 할 것에 자기 문을 닫아 버립니다. 요컨대 호기심이 지나칠까 두려워서 아무 깨달음도 없는 송아지나 다른 짐승처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라틴어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이 그렇게 짐승같이 되려고 라틴어로 "하나님의 비밀은 내버려 두라(Mitte arcana Dei)", 곧 하나님의 비밀을 캐물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보십시오, 사람들은 이렇게 늘 자기 한계를 넘어서고 좋은 중간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에 담긴 것을 간직합시다. 곧 하나님께서 특히 사람들에게 "보라, 이것이 지혜다" 하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욥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른 피조물들과 구분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식을 높입니다. 요한복음 1장(4절 참조)에서 말하듯, 우리에게는 먹고 마시고 몸을 쓰기 위한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깨달음의 빛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것은 높임을 받을 만하니, 우리가 배은망덕으로 그것을 빼앗기고 잃지 않도록 살핍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감는다면,

우리는 자연의 질서를 거스른 자로서 치욕을 당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과 악을 분별하는 힘을 주시고, 우리가 지각이 있는 만큼 당신께 다가가고 당신의 형상에 참여하도록 여기서 당신의 일들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더럽히고 아무것도 알려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CO 523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시려던 좋은 것,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히 여겨야 할 좋은 것을 버리려고 드러내 놓고 우리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요컨대 우리가 간직해야 할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 세상에 두실 때 모든 깨달음을 빼앗으려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들이 나귀나 말과 같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이성을 주셨으며 그들이 지각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분은 "보라, 이것이 지혜다" 하고 말씀하실 때 특히 그들에게 말을 건네셨습니다. 그분은 왜 다른 피조물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에게는 우리에게만큼 그런 영예를 베풀려 하지 않으셨고, 그들을 그렇게 높은 자리로 올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가 말했듯이) 살면서 자라기를 셈에 넣지 않는 모든 자는 자기를 지으신 분에게서 완전히 멀어지기만을 바란다는 것을 잘 보여 줍니다. 이것이 한 가지입니다.

그러나 둘째로 우리는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넘어서는 안 될 경계를 두셨다는 것을 간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혜롭고 지각 있으려는 자들은 들판을 가로질러 헤매며 어리석은 사색과 몽상에 매달려서는 안 되고, 먼저 이 교훈을 간직해야 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 주시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지혜이고, 늘 그것이 우리 머리말 같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각 있기를 원할 때 이 목소리를 들읍시다. 곧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런 절제 속에 붙잡아 두셔서 우리가 이리저리 헤매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좋게 여기신 것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이 말로 옵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지혜입니다. 여기서 욥이 사람의 지혜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안에 완전히 가두어 너무 좁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신 말씀에서 다른 것들도 가르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을 간직하며, 알면서 귀먹은 체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분이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보여 주시고 말씀하실 때 눈과 귀를 열어 두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6절 참조)에서 “보라, 네 지혜와 네 깨달음은 네 하나님께서 기꺼이 네 선생이 되어 주시니 그분의 학교에서 자라는 것이다” 하고 말하는 대로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사람의 지혜는 자기 좋을 대로 모든 것을 캐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두려 하시는 말씀으로 나아가 거기 온전히 복종하며 자기 분량을 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 대신 욥은 우리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컨대 여기서 그는 우리가 말한 절제 말고도, 우리 지혜가 CO 524 하나님을 경외하며 걷고 그분께 순종하도록 우리를 세우는 지혜라는 것을 보여 준다는 것을 새겨야 합니다. 그러니 그는 여기서 우리를 믿음과 그것에 딸린 것에서 끌어내려는 것이 아닙니다. 곧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한 선하심을 알아서 거기 기대고,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니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으며, 그분이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으니 끝까지 우리 구원을 이루시려고 당신의 자녀로 우리를 사랑하시리라는 것을 아는 것에서 끌어내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욥은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말하면서 믿음을 빼는 것이 아니라, 요컨대 참된 지혜가 사색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줍니다. 우리가 보듯 많은 사람이 이것저것을 알려고 몹시 괴로워하며 애쓰지만 왜 그러는지 모르고, 거기에는 아무 견고함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자, 여러분에게 완전히 감추어진 것들을 깨달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고 묻는다면, 분명 아무 유익도 없을 것이고 그들은 그 때문에 더 나아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고 말하듯(고전 8:1), 바람과 이 어리석은 욕구를 먹고 부풀어 오르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사람의 헛됨이 이러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욥은 우리 주님께서 정하신 대로 우리가 지혜로워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걷도록 선하게 세워지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잠언 1장과 9장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을 지혜의 머리 또는 시작이라고 부릅니다(잠 1:7; 9:10 참조).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 "시작"을 가나다 같은 것으로 이해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시작이다. 왜 그런가? 거기서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이를 처음부터 가장 높고 깊은 학문에 넣지 않고 기초를 배워야 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런데 솔로몬의 말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사도 요한의 서신(요일 4:18)에서 참되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없애고 내쫓는다고 하는 말에 근거를 둡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그곳에서 믿지 않는 자들이 자기가 어디에 서 있는지 모르니 하나님의 위엄 아래서 떨며 그분을 피할 때 가지는 두려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지 않아서 그분께 나아가 그분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나, 곧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화목하려 하셨다는 것과, 그분이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으니 늘 우리에게 다정하게 나타나시고 우리를 자비로 받아 주시리라는 것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은, 그것을 맛보지 못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말하면 공포와 놀람에 빠집니다. 그들은 모든 재판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불쌍한 죄인과 같습니다. 보십시오, 모든 불신자의 형편이 이러합니다. 그들은 반쯤 얼어붙어 있고, CO 525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을 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확신할 때 우리는 그 부드러움에 이끌려 그분과 하나가 되고, 말하자면 고개를 들고 나아갑니다. 늘 공경과 겸손을 지니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을

굳게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불쌍한 불신자들을 괴롭히는 그 의심과 불안이 더는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런 두려움을 말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머리이고 시작이라고 할 때, 그것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 주려는 것입니다. 요컨대 그것은 여기서 욥이 가르치는 것과 완전히 같은 가르침입니다. 곧 사람들이 지혜로워지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걷기를 배워야 하고, 자기 삶을 마땅히 다스리도록 세워져야 하며, 아무 유익도 견고함도 없이 자기를 흔들리게 하는 사색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솔로몬은 다른 구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생명의 샘이라고까지 말합니다(잠 14:27).[60] (그가 덧붙이듯) 사람들을 멸망에서 끌어내는 생명의 샘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거기 머물러야 하고 그것이 우리의 완전한 행복이기 때문이 아니라면 그렇게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이 구절의 뜻이 무엇인지 봅니다. 곧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께 순종하도록 세워진 자들이 참으로 지각 있는 자들이고, 우리가 공부를 기울여야 할 곳은 거기이지 들뜬 사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지자 이사야 33장(6절)의 아름다운 구절을 덧붙이면 더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거기서 그는 전에 흩어지고 어지러웠던 교회의 참된 개혁을 말합니다. 그러니 그는 그때 뒤집혀 있던 것으로 보이던 일들이 히스기야 때에, 그렇습니다, 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던 만큼 제 형편으로 돌아오리라고 말합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있어야 할 완전함을 다룬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는 히스기야 때의 견고함과 힘과 구원이 지혜와 지식일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그의 보배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선지자가 하나님이 알려지지 않는 곳에서는 모든 것이 흩어지고 황폐함밖에 없을 수밖에 없다고 선언하는 것을 봅니다. 다른 구절(사 5:13)에서도 선

60. 원문에는 “잠언 14장 17절“로 되어 있으나, 하나님을 경외함을 생명의 샘이라 부르는 구절은 14장 27절입니다.

지자는 땅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 모든 것이 뒤집혔고 사람들이 온갖 악으로 방자해졌다고 탄식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스스로 원해서 속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은 마음에 내버려 두셔서(롬 1:28 참조) 그들이 가증스러운 일이 될 만큼 엄청나고 추한 죄에 뛰어드는 것을 더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CO 526 그래서 같은 선지자 이사야가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멸망으로 끌려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반대로 우리가 인용한 그 구절에서 그는 교회가 온전히 회복되고 일들이 좋은 질서로 돌아올 때 지혜와 지식이 견고함이요 구원이요 힘이라는 것을 보여 줍니다. 마치 사람들이 순수하게 가르침을 받고 자기에게 유익한 것을 알 때가 아니면 교회의 구원이 달리 설 수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교황의 교회가 어떤 것인지 보입니다. 그들에게는 화려함이 넉넉하고, 우리가 보듯 그들은 마귀 같은 교만으로 감히 하나님께 대들어, 하늘의 위계를 자기편에 두었다느니, 하나님의 진리와 그분의 가르침의 확증을 지녔다느니, 성령을 자기 소매 속에 넣어 두었다느니, 하나님을 자기 벽에 매어 두었다느니 하는 그렇게 멋진 칭호들을 자기에게 돌리기를 조금도 꺼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지식은 어떻습니까? 정반대로 우리는 그들이 불쌍한 세상을 짐승같이 만드는 것만을 바라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건물 전체가 그들에게 뒤집혀 끔찍한 혼란에 빠졌다고 잘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교회의 구원이요 힘이요 견고함이라고 선언하는 지혜가 거기에 없기 때문입니다. 첫째 점에 관해서는 이렇습니다. 그러나 그 구절을 여기 담긴 것에 맞추어 보면, 히스기야와 온 백성의 보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 거기서 이사야는 욥이 뜻한 것을 잘 보여 줍니다. 곧 하나님께서 당신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것을 아는 자들은 작고 경박한 잔재주에 빠지지 않고, 자기 삶을 다스릴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걷도록 선하게 세워지리라는

것입니다. “보배“라는 말로 그는 사람들이 그들의 완전하고 온전한 행복에 머물듯 온전히 머물러야 할 곳, 그리고 그들이 만족과 쉼을 얻어야 할 곳이 거기라는 것을 보여 주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하는 말이 참으로 옳다는 것을 봅니다. 곧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거룩한 삶 속에 걷는 데까지 자랐을 때 그들이 지혜롭고 지각 있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 밖에 이미 짚은 것으로 돌아갑시다. 곧 그 사이에 우리는 성경에 담긴 것에 모든 공부를 기울이고 우리 감각을 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섬기는 일에 우리를 드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시편 130편(4절)에서 “주여, 주는 선하시고 주께 자비가 있으니 이는 주를 경외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고 말하는 대로입니다.[61] 그러니 우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알고 붙잡아서 그분께 거리낌 없이 나아가 그분을 찾기 전까지는 CO 527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무 기초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피하는 동안 우리는 그분께 사납게 굴고, 따라서 그분께 반역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으로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결코 이 선하심을 바르게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 경외도 거기에 있습니다. 이 말로 성경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어떤 종살이, 그것도 억지로 바치는 종살이만을 뜻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여기서 경외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다스림을 받도록 온전히 우리 자신을 내어 드리고, 무엇보다 그분의 선하심과 자비가 어떠한지 알며, 그분께 그런 공경을 드려서 참으로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분이 당신께 속한 영예를 말씀하실 때 그분은 당신의 위엄만 내세우시거나 당신을 주인이요 주라고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라고도 하십니다. 그분은 선지자 말라기(1:6)를 통해 “내가 주인이면 나를 경외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61. 원문에는 “시편 130편 7절“로 되어 있으나, 인용한 내용은 130편 4절입니다.

아버지면 사랑이 어디 있느냐?" 하고 외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거기서 그분은 사랑과 경외를 구분하십니다. 그러나 그다음에 그분은 둘 다 하나로 돌아간다는 것을 보여 주십니다. 곧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와 주인으로 알아야 하니 그분을 사랑해야 하는데, 그것도 평생 그분께 순종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바라거나 애쓰지 않을 만큼의 공경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욥이 여기서 믿음을 거부하려 했기는커녕 오히려 우리를 거기로 이끈다는 것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걷기 위해 우리가 시작해야 할 곳도 그 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혜를 말할 때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인들의 눈을 열어 주셔서(엡 1:18)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하늘에 그들을 위해 마련해 두신 구원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다음에 3장(18–19절)에서 그는 우리가 우리 구원을 확신하도록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과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사랑을 알아야 한다고, 그것이 우리의 길이요 너비요 높이요 깊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방으로 뻗어 나가도, 올라가려 한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난 이 사랑을 깨닫는 것보다 더 높이 갈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모든 깊은 곳을 찾아도 거기 머물러야 한다. 우리가 이쪽저쪽으로 가더라도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이것이다. 곧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을 우리 아버지요 구원자로 선언하시는지, 어떻게 당신 아들의 인격 안에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CO 528 우리 구원이 놓여 있는 당신의 선하심과 자비에 우리를 참여시키려 하셨는지를 깨닫는 것이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그분의 선하심을 확신해야 한다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욥은 한 부분으로 전체를 나타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로 세워지려는 이 감정과 열심이 없을 때 사람들이 빠지는 이 모든 어리석은 잔재주를 정죄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에 우리는 이 구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성경에 담긴 말씀이 우리가 아무리 높여도 모자랄 만큼 뛰어난 보배라는 것을 거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혜가 가장 무식하고 어리석은 자들에게서도 귀히 여겨지리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 주님께서 본성 속에 그런 인상을 새겨 두셔서 우리가 참된 지혜가 바랄 만한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 말씀에 이렇게 영예로운 이름을 붙이시고, 우리가 거기서 자라면 우리의 모든 지혜가 거기 있다는 것을 보여 주십니다. 그러니 이것은 우리를 불붙여 성경에 담긴 것을 찾게 해야 합니다. 요컨대 우리 하나님의 학교에서 자라려면 이것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본성상 바랄 만한 것을 우리가 거부하고 빼앗기기를 원한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자라려는 그런 바람으로 불붙어서, 거기 담긴 가르침을 우리의 모든 욕구와 우리를 휩쓸어 가는 이 세상의 모든 헛된 것보다 앞세우기를 배웁시다.

그 밖에 성경에서 자라려는 그런 바람을 가지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또한 그것을 마땅히 공경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몽상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을 볼 것입니다. 거기에 일반 백성을 위한 단순함이 있어 보이고, 자기는 성경에 몰두하면 충분히 날카로운 정신을 가지지 못하리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마땅한 값을 치르십니다. 그들 안에 있는 것을 살펴보면 그들이 갑절로 눈멀었다는 것,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서 상식을 빼앗으셔서 그들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가장 야만적인 자들보다 더 미련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하건대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셈에 넣지 않는 모든 자의 교만의 삯이 이러합니다. 물론 처음 보면 우리는 거기서 큰 단순함을 볼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높은 문체를 쓰지 않으시고 오히려 크고 작은 사람 모두에게 맞추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의 위엄을 조금도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분의 영광을

가려야 하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그분께 겸손하고 그분께 속한 영예를 그분께 드리는 것을 막아야 하겠습니까? 정반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경에서 그렇게 투박하게 말씀하시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분의 무한한 선하심입니다. 그분은 CO 529 우리 정신이 너무 둔하다는 것을 보시고 우리와 함께 더듬거리며 말씀하십니다. 그러하니 우리 주님께서 거기서 평범한 말, 그렇습니다, 글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투박한 말을 쓰신다 해도 성경을 공경하기를 배웁시다. 그런데 더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고전 2:4–5) 우리가 성경에서 꾸밈이 없고 다듬어진 말이 없을 때 하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엄을 그만큼 더 잘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우리가 보듯 세상 사람들은 수사학을 공부하고 경박한 멋으로 자기 말을 꾸밉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우리는 투박한 말을 찾지만, 그 사이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위엄이 나타납니다. 거기에는 그것을 빛나게 할 육적이거나 땅에 속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는 거기서 당신의 팔을 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 심지어 그것을 느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성경의 이 단순함이 우리로 그것을 업신여기게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셈에 넣지 않는 그 악취 나는 교만한 자들을 볼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데서 아무 도움도 빌려 올 필요가 없으시다는 것, 그리고 그분의 능력이 거기서 눈에 보이듯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더 잘 느끼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더 감동을 받아 그분께 경의를 드리고 우리 자신을 그분께 온전히 복종시키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에서 자라려는 감정을 가지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잘 새깁시다. 오히려 우리가 모든 공경을 다해 거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압시다. 거기 담긴 모든 것을 끌어안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하나님을 거슬러 지껄일 날카로운 부리를 가지지 말며, 성경의 순수한 가르침에 반대되는 교리나 논쟁을 가져오지 맙시다. 오히려 이런

일반 결론을 가집시다. “우리에게 말해지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읽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까? 오 주님,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우리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대꾸하는 것은 우리 몫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 반대 없이 주께서 선언하신 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니 “지혜“라는 이 말에서 우리가 새겨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곧 사람들이 허공에 지혜를 짓느라 헛된 상상에 정신을 빼앗기는 대신,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까닭 없이 당신 말씀에 ‘지혜’ 라는 이 이름을 붙이시는 것이 아니다. 그분이 그것을 그렇게 부르실 때 그것은 우리가 거기로 나아가야 하고, 거기 복종하며 온전히 머물러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또한 우리의 모든 완전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함에 관해 말하는 것은, 금과 은이 용광로에서나 시금석으로 알려지듯, 우리가 성경에서 자랐는지 알려면 이런 시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CO 530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로 세워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설교에 올 것이고, 형편이 되는 사람들은 성경도 읽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거룩하고 좋은 훈련이고, 우리가 지금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거기 몰두하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우리가 우리 시간을 잘 썼는지 아닌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이야기를 잘하고, 사람들이 묻는 것에 멋진 답을 내놓을 수 있으며, 사람들이 내놓는 모든 어려운 문제를 풀 만큼 능숙하고, 구절의 풀이를 알아서 “이것은 이렇게 이해해야 한다” 하고 말할 수 있을 때가 아닐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설교에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 데서 자랐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 삶이 그것을 증언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분의 학교에서 공부를 잘했다는 표시이고, 그분이 좋고 신실한 선생이셨듯 우리 편에서도 시간을 잃지 않았다는 표시입니다. 우리가 간직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 밖에 성경이 신자들과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들을 분간하는 좋고 확실한 표지를 주려 할 때 이렇게 말하는 것도 봅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아, 그분을 찬양하라. 주를 경외하는 너희여, 그분의 집에 들어가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기뻐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분께 담대히 기대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여, 주를 송축하라“(시 22:23; 115:11; 135:20 참조). 말하건대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양 떼를 방자하게 날뛰는 모든 들짐승과 분간하는 참된 표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설교에 오고 손에 성경을 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헛된 지식의 주제넘음으로 부풀리려 하지 않으시고, 우리 귀가 가려울 때 그것을 간질이려 하지도 않으신다는 것을 알기를 배웁시다. 요컨대 그분은 우리에게 호기심을 가르치려 하지 않으시고, 당신을 경외하고 공경하며 섬기도록 우리를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그 목표를 가질 때, 우리는 늘 하던 대로 성경에서 헤매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유익한 것을 깨닫도록 복종하지 못하고, 저마다 따로 무엇인지 모를 것을 지어내는 이 악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렇게 많은 오류와 이단과 그릇되고 엉뚱한 견해가 어디서 나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 말씀으로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려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함이 등 뒤로 밀려나고, 성경이 우리에게 아주 다른 용도로 주어진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남용하고 악하게 더럽히니, 그만큼 더 우리는 CO 531 성령께서 누가 바르게 지각 있는 자인지 잘 살피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절을 잘 새겨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이미 말했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그분 그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당신을 밝히시는 그대로 그분을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주인이요 우리 구원자요 우리 아버지로 알기 전까지는 결코 그분을 경외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솔로몬은 우리가 잠언 1장에서

인용한 구절에서 거룩한 것들을 아는 것이 참된 깨달음이라고 말합니다.[62] 그는 하나님을 경외함을 말한 뒤에 거룩한 것들을 아는 지식을 둡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이 두 가지를 떼어 놓을 수 없게 묶으시니 우리는 그것을 하나로 묶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는 우리가 내가 말한 곳에 이르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결코 우리 안에 있지 않으리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곧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대로 그것을 알고, 그분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분의 선하심에 이끌려 그분께 나아가며, 그분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는 이 담대함을 가져서, 우리가 혼란에 빠질 때 그분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그분은 예레미야(9:23–24)에서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기 지혜를 믿지 말고, 힘센 자는 자기 힘을 믿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나를 아는 것으로 자랑하라. 나는 공의와 정의와 자비를 행하는 주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사람들의 콧대를 꺾고, 그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그분에게서 물러나면서 가졌다고 여기는 지혜가 연기와 거짓일 뿐이라는 것을 보여 준 뒤에, 그들을 거기로 되돌립니다. 그는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아는 것 말고는 자랑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고 따르라고 정하신 규칙을 아는 것입니까? 그것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분을 우리 보호자로 알아야 합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이 그분 고유의 직무이고 그분이 모든 것을 당신 손에 쥐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그분이 우리를 당신의 보호 안에 받아 주시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고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 안에서는 늘 혼란에 빠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안에 가난과 비참밖에 없으니, 그분이 우리 구원을 위해 깨어 계시고 우리가 평생 지향하고 사모해야 할 완전함으로 우리를 이끄셔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62. 칼빈은 이 말을 잠언 1장의 구절로 들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에 이어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하는 구절은 잠언 9장 10절입니다.

그러니 이 가르침에서 유익을 얻으려면 우리가 모든 공부를 기울여야 할 곳이 여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께로 이끄시는 방법이 이것, 곧 그분을 경외함과 그분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들뜬 많은 사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를 꽤 이야기할 것이고, 믿음에 대해 지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CO 532 하나님을 모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결코 맛보지 못했습니다. 그분께 나아가도록 사로잡히고, 나아가면서 여기서 말하는 이 경외를 가지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비싸게 속량하셨으니, 저마다 자기 자신과 자기 욕구에 몸을 맡겨야 하겠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얻으셨으니 저마다 그분께 자기를 바치고 우리가 그분의 참된 소유요 유업이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당신의 집안 식구로 거두시니 우리가 그분께 순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새겨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곧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지금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여기 모였듯이, 그분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거기서 훈련하라고 명하시듯이),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서 그분을 우리 아버지요 주인으로 알고,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을 섬기는 데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기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경박한 것들을 찾으며 그것을 더럽히지 말고, 늘 우리 하나님을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그대로, 그분이 당신 말씀으로 밝히시는 대로 알려는 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그분이 우리가 넘어서기를, 무슨 일이 있어도 거기서 벗어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량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여기서 결론으로 놓인 대로, 하나님을 경외함은 또한 우리에게 악에서 떠나기를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새깁시다. 곧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자기 삶을 다스리려는 이 바람을 가진 자들은 본성상 그쪽으로 기울어 있으니 악과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은 시험과 우리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돌려놓는 다른 것들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아

니, 우리는 우리 육의 시험과 이 세상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우리 자신을 강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악한 감정이 우리를 부추겨 하나님께 대들게 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우리를 부추기는 모든 것이 잘려 나가고 꺾이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 요컨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서 자랄 수 없다는 것을 새깁시다. 우리 본성 안에 모든 악의 바다요 구렁 말고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당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 주시는 것으로 훈련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한 혼란에 빠지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며 걸으며, 그분의 학교에서 점점 더 자라서, 그분이 우리를 당신의 제자로 인정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섬기려 한다는 것을 증명하게 합시다. 그래서 그분 편에서도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여기시고 우리에게 아버지로 나타나시게 합시다.

이제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엎드립시다.

제104편

욥기 29장 설교 1

CO 34:533–544

AI로 옮긴 초벌 번역입니다. 신학 감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CO 권: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 욥이 다시 말을 이어 이르되, 내가 지난날과 같았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 주시던 그날들과 같았으면 좋겠네. 그때는 그분의 등불이 내 머리 위에 비치었고, 나는 그 빛으로 어둠 속을 걸었네. 내가 젊은 날에 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또는 함께하심)이 내 장막 안에 있었고, 전능자께서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내 종들이 나를 둘러 있었네. 나는 내 발걸음을 버터로 씻었고, 바위가 나를 위해 기름을 시냇물처럼 흘려 주었네. 내가 성문으로 나가면 거기 나를 위해 자리를 마련하게 하였네. (욥 29:1–7)

CO 533 처음 보면 욥이 여기서 지난날을 그리워하며, 하나님께서 전에는 자기를 형통하게 하셨는데 이제는 그렇게 혹독하게 괴롭히시도록 자기 처지를 바꾸셨다고 언짢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의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마치 자기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인 것처럼 자기 마음을 그릇되게 판단하던 사람들에게 말을 건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는 이 사람들이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더 멀리 가지 않으니 비뚤어진 판단을 한다는 것을 보여 주려 합니다. 그런데 욥은 (결론에서 보겠지만) 그를 그렇게 판단해야 한다면 오히려 그가 형통하던 때를 바라보아야 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그러니 욥이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좋은 것들을 빼앗긴 것을 보고 슬퍼하며 대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상대들을 꾸짖는다는 것을 새깁시다. 그들이 그를 판단하는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본 변화를 따라 그를 완전히 정죄받은

사람으로 여기고, 전에는 그들이 그를 다른 사람들 가운데 뛰어나고 가려낸 사람으로 크게 공경했다는 것을 더는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구절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시면 언짢아해도 된다는 본보기로 삼지 맙시다. 오히려 우리가 앞에서 본 욥의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좋은 것을 받았으니 그분이 보내시는 나쁜 것을 참고 견디지 않겠는가?"(욥 2:10 참조)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낮추기를 기뻐하실 때 그분이 베푸신 은택의 기억이 우리의 모든 언짢음을 누그러뜨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분께 배은망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우리 주님께서 전에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셨으니 그분이 기뻐하시는 모든 것을 받는 것이 아주 마땅하지 않은가?" 그리고 심지어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굳게 세워서, 우리가 CO 534 경험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그렇게 선하시다는 것을 알았으니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일들이 우리 바람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밝히실 때 우리는 만족할 까닭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실 때 우리가 우리 형통을 기억해야 하는 방식이 이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슬픔을 더하거나 우리를 어떤 원망으로 찌르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너무 사납게 굴고 우리 정념이 너무 격렬할 때 우리를 억눌러야 합니다. 말하건대 이 기억은 우리가 느끼는 아픔을 누그러뜨려야 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셨고, 그것이 우리에게 충분한 위로거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돌보셨으니,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견디도록 우리가 온전히 그분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 아주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필요한 경고입니다. 곧 아픔이 우리를 몰아붙이고 우리가 더는 견딜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이렇게 몰아붙이시지 않았고 우리 연약함을 헤아려 그것을 견뎌 주셨으며, 그것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증언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소망을 두고, 우리가 그렇게 인내로 훈련을 받은 뒤에도 그분이 우리 아픔을 고치시고 우리를 거기서 건지시리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말하건대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모든 고난 속에서 이 가르침을 이렇게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욥의 주된 의도로 돌아갑시다. 우리가 말했듯이 여기서 그는 그의 상대들이 눈먼 자들 같고 지금 눈에 보이는 것에 머무르니 어리석게 판단한다는 것을 보여 주려 합니다. 욥이 더할 나위 없는 극한에 있었으니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고 그를 저주받은 사람으로 여겨야 한다고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보았듯이)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시편(41:1)에서 말하는 이 슬기를 가져서, 고난받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도록 우리 자신을 억제해야 합니다. 그 밖에 다른 끝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곧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맞는 것을 보면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가 악하고 완전히 방자한 사람이었다면, 거기서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이 그토록 자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곧 당신의 위협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시고, 우리는 거기서 흔히 말하듯 남의 비용으로 CO 535 두려움 속에 걷기를 배워야 합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여기 아래를 보지 않으시고 일들을 완전히 뒤죽박죽으로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당신의 심판을 행하실 때 그것은 선지자 이사야(26:9)에서 말하듯 우리에게 의를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알아야 합니다. "오, 하나님을 가지고 장난해서는 안 된다. 그분이 얼마 동안 못 본 체하신다 해도 결국 벗어났다고 생각한 자들, 사람들도 벌받지 않고 남으리라고 여긴 자들을 셈에 불러내실 것이다." 그러니 보십시오, 우리는 고난에 대해 단순하게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자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살펴서, 그들의 허물에 따라 그 징계도 알아보고 거기서 유익을 얻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잊으신 것처럼, 심지어 그를 핍박하시는 것처럼 보일 만큼 괴로움을 당하는 선한 사람을 본다면 거기서 우리는 무엇이라 말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정신을 멈추어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감추어지고 알려지지 않은 것들을 판단하려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 지나친 무모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낮추려 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일의 까닭이 우리에게 드러나거나 알려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분이 의로우시다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봅시다. 그리고 욥의 친구들도 그렇게 판단해야 했는데 그들은 그를 부당하게 정죄했습니다. 그들은 그가 평생 거룩함과 모든 완전함의 거울 같은 것을 보았는데,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히 삼켜 버리려 하시는 것처럼 보일 만큼 쓰러진 것을 보았으니 이 점에 이르러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이라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우리 감각이 여기서 눈부셔 어두워진다. 이 사람은 거룩하게 살았다. 그가 악인이거나 음란한 자거나 술주정뱅이거나 거짓 맹세하는 자거나 방탕한 자거나 잔인한 자거나 교만한 자였다는 것은 말할 수 없다. 그에게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를 그렇게 혹독하게 다루시는가? 우리는 모른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우리를 낮추셔서, 그분의 심판이 때로 깊은 구렁이고 우리가 거기 너무 깊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신다. 오히려 우리는 그분이 왜 그렇게 일하시는지 보여 주실 때까지 눈을 감고라도 그분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

그러니 보십시오, 시편이 "고난받는 자에 대해 바르게 판단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고 말할 때 말하는 슬기가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것을 우리 자신의 가르침에도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듯) 하나님께서 푸른 나무를 그렇게 태우신다면 마른 나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눅 23:31 참조)? 그러니 우리가 선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알던 사람들과 우리 자신을 견주어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안에 아주 무거운 허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부드럽게 다루실 때 그분이 나를 참아 주시고 내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을 잘 알겠다. 나는 CO 536 저 사람보다 더 나쁘기 때문이다. 나를 그와 견주어야 한다면 내가 그만큼 올곧게 걸었다고 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다는 것을 알겠다. 그런데도 보라, 하나님께서는 그를 괴롭히시고 나는 편안하고 평안하다. 내가 그럴 자격이 있는가? 결코 아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무 약해서 고난을 견딜 수 없으리라는 것을 아신다. 그러니 그분은 나를 아끼신다. 그러하니 나는 그 모든 것을 그분의 선하심에 돌려야 한다. 그러나 내가 쓰러지고 고난을 견뎌야 한다 해도, 그 때문에 늘 하나님을 부르기를 그쳐서는 안 된다. 그것이 내 유익과 구원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분의 위협을 듣기만 할 때에도 그것으로 아픔을 견딜 준비를 해야 한다.” 그래서 그분이 당신의 매로 우리를 치기를 기뻐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낯설게 여기지 않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래전부터 거기에 준비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욥의 의도가 무엇인지 봅니다. 그는 지금 있는 것들과 자기에게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자들이 경험으로 반박당하리라는 것을 보여 주기 때문입니다. 그는 흠잡을 데 없이 걸어서 저마다 그의 삶을 정죄하기보다 오히려 감탄했기 때문입니다. “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괴롭히려 하셨다고 해서 그가 버림받은 사람이고 그가 한 모든 일이 위선일 뿐이었다고 결론 내려서는 안 된다. 그것은 너무 비뚤어진 일이다.” 그 사이에 욥이 자기를 거짓으로 고발하러 온 자들에게 말했다 해도, 어쨌든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의 공동의 가르침을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구절에서 내가 이미 말한 것을 거듭시다. 곧 사람들이 맞는 모든 징계와 매에 대해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고난에 관해 이 일반 규칙을 잘 가져야 합니다. 곧 고난은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의의 증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깨끗하고 죄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다루실 것이기 때문입

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렇게 비참하고 그렇게 여러 모양으로 괴로움을 당하는 것을 볼 때, 그것은 개인으로나 공동으로나 그들 죄의 열매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흔히 말하듯 모든 것을 한 자로 재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 밝혔듯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고난을 보내시는 데에는 여러 까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러 목적을 지니고 계시니, 우리는 모든 것을 한데 뭉뚱그려서 흔히 말하듯 모든 것을 한 틀로 찍어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여기서 슬기로워야 하고, 우리 정신을 고삐로 붙잡을 수 있어야 하며, 분량과 잣대를 따라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하니 (내가 말했듯이) 저마다의 삶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방탕한 삶을 살며 온갖 악에 빠졌던 자들이 괴로움을 당한다면, CO 537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인격에서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것을 알아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떠서 허물이 하늘의 재판관 앞에서 셈에 오르지 않고 남지 않으리라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을 왜 괴롭히시는지 우리가 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 반대가 보인다면, 그때는 이렇게 말하기를 배웁시다. "주여, 어찌 되든 주는 의로우십니다. 물론 우리는 여기서 눈이 부셔 어두워지고, 우리 육이 (악한 것이니) 우리를 부추겨 주께 불평하도록 몰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따지는 자들처럼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고 말하지 않을 것이고, 그분과 소송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주께서 지금 우리에게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 주실 때까지 잠잠히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요컨대 이 구절에서 우리가 간직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 자신을 판단해야 할 때에도 이 같은 가르침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새깁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아붙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손이 우리를 거슬러 그렇게 무겁다는 것을 느끼더라도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분을 부를 용기를 얻으며 그분 안에서 위로받기를 그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이렇게도 이 가르침을 실천해야

합니다. 반대로 형통할 때에는 우리의 편안함과 즐거움에 그렇게 취하지 맙시다. 우리가 보듯 세상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남용해서, 그분이 우리로 억지로 우리 죄를 생각하게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거기서 눈이 부신 것처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히 내버려 두십니까? 우리는 영적인 술취함 같은 것에 빠져서 우리 생각에 휩쓸리고, 고집 센 말처럼 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때 그렇게 교만과 주제넘음으로 높아지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오히려 (내가 이미 말했듯이) 그분이 우리에게 보내실 고난을 받을 준비를 할 여유를 주신다는 것을 알아봅시다.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엄격하게 다루지 않으시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내버려 두시고 그들 목에 고삐를 풀어 주시며 첫 번에 그들을 망하게 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더라도, 그들이 그것으로 더 이득을 본다고 생각하지 말고, 시편 37편(1절)에서 말하듯 그들의 행운을 부러워하도록 시험받지 맙시다. 오히려 여기서 우리 믿음을 훈련하며, 하나님께서 얼마 동안 감추려 하시는 당신의 심판을 선언하실 때를 기다립시다. 그분께 날과 시를 정해 드리는 것은 우리 몫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신자들은 우리 주님께서 악인들과 당신께 쓸려 나가 이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져 마땅한 자들에게 호의를 베푸시는 것처럼 보일 때마다 판단을 보류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그렇다고 CO 538 그분이 그들을 형통 속에 내버려 두신다 해서 그들에게 호의를 베푸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들을 그만큼 더 핑계할 수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자기를 회개로 초대하시고 그렇게 인자하게 대하시던 하나님의 참으심을 남용했으니, 이것은 그들에게 아주 비싼 값을 치르게 할 것입니다. 요컨대 이 가르침에서 우리가 새겨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이제 욥이 여기서 쓰는 개별 낱말들로 옵시다.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 주시던 지난날처럼 내가 왜 그렇지 못한가?”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 주셨다고 말하면서 지금은 자기가 그분께 버림받았다는 뜻을

나타냅니다. 그가 그런 생각을 굳게 가졌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때로 그렇게 하듯 자기 본성의 감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말투를 잘 쓸 것입니다. "주여, 주께서 나를 버리셨습니다. 주여, 언제까지 내가 잊혀 있겠습니까? 주여, 언제까지 주의 얼굴을 돌리시겠습니까? 주여, 언제까지 내 아픔을 덜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시 13:1–2 참조) 신자들이 그런 말을 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셨다고 여겨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셨다면 그분을 부르는 것은 헛되고 소용없는 일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더는 우리를 지키려 하지 않으신다면 "주여, 필요할 때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말하려고 그분께 피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묻건대 그분께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하고 말하는 것이 헛수고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신자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셨다고 탄식할 때 그것이 실제로 그렇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두 가지 느낌과 깨달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본성의 감각에서 오고, 다른 하나는 믿음에서 옵니다. 그런데 우리 본성의 감각은 무엇을 대상으로 하고 무엇을 바라봅니까? 우리가 느끼고 보고 만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찌할 바를 모를 만큼 극한에 내버려 두실 때, 그분과 우리 사이에 두꺼운 구름이 있어서 우리가 더는 그분의 손과 인도 안에 있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이 우리에게서 멀리 계신다고 여길 때에도 그분이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눈을 감고 계신 것처럼 보일 때에도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가? 그분의 약속을 담대히 붙들자."

그러니 이제 우리는 신자들에게 두 가지 깨달음이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잘 실천해야 합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저마다 자기 안에서 그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아픔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등을 돌리셨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본성이 우리를 거기로 몰아갑니다. 그러나 그다음에 우리는 곧 하나님의 약속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분은 "네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시 50:15). 그분이 우리를 당신께 부르도록 초대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지키심과 보호 안에 있다는 표시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CO 539 이렇게 믿음이 본성의 감각을 억눌러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비참 한가운데서 평안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그분이 명하시는 대로 걷게 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욥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 주시던 때는 어디 있는가?" 하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고 계셨다는 것을 실제로 눈에 보이게 보여 주셨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욥이 이렇게 핍박을 받는데 그가 하나님의 지키심 안에 있다고 말하겠는가?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신다고 말하겠는가?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비참한 피조물로 버리셨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니 욥은 여기서 마치 오늘 하나님께서 그를 잊으셨다는 것처럼 실제로 있는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것, 자기 본성의 감각으로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그는 믿음의 힘으로 거기에 맞서고, 하나님의 약속에 기대어 자기에게 닥친 이 시험과 싸우지만 말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우리는 이 구절을 이렇게 받아들여야 하고, 그 사이에 그것을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형통할 때 그것을 행운이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봅시다(사람들은 늘 너무 악해서 하나님께 속한 영예를 그분에게서 빼앗고 훔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이 말을 씁시다. 그러면 우리는 왜 형통합니까? 우리가 십만 가지 죽음에 에워싸여 있는데 왜 지금 살고 붙들려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보호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늘 하나님의 섭리로 달려가서,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좋은 것에 대한 찬양을 그분께 돌려야 합니다. 말하건대 이

덧없는 삶에 관해서도 그렇습니다. 그 밖에 우리 주님께서 보기에 처지를 바꾸시고, 우리가 이쪽저쪽에서 공격을 받아 하나는 우리를 약탈하고 하나는 우리를 모욕하며 많은 역경이 우리에게 닥치도록 허락하실 때, 사람의 눈으로 보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고 더는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을 받아들이기를 그치지 맙시다. 그렇습니다, 소망이 없는 중에 소망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듯(롬 4:18) 이것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인격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진 과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욥은 그때 하나님께서 그 위에 당신의 등불을 켜 두셨고 그는 어둠 한가운데서 그 빛으로 걸었다고 덧붙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실 때 우리를 비추신다고 때로 말한다는 것을 새깁시다. 그래서 말씀이 등불이라고도 불립니다(시 119:105). 그러나 이 구절에는 다른 뜻이 있습니다. 욥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당신의 율법을 가르치셨다거나 성령의 어떤 계시로 가르치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CO 540 곤경 속에서 그에게 위로를 주셨고, 그 사이에 거기에 좋고 바랄 만한 결말을 주셨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등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도우셨으니 그가 형통하던 때입니다. 성경도 현재 삶의 고난을 어둠에 견주는 것을 우리가 보는 대로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전쟁 중에 있거나 기근이나 역병에 시달린다면, 보십시오, 우리는 밤에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감추어져서 어느 쪽으로 돌아서야 할지 모릅니다. 반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다정하게 대하실 때는 해가 비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맑은 날씨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반대로 밤이 우리를 우울하고 무겁게 만든다는 것을 봅니다. 또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오면 우리는 맥이 빠진 것처럼 되고 저마다 물러갑니다. 그러니 욥이 여기서 말을 이어 그가 그 행복한 처지에 있고 저마다 그에게 박수를 보낼 때 하나님의 등불이 그 위에 비쳤

다고 말한다는 것을 새깁시다. 거기서 우리가 짚은 이 가르침이 우리에게 더 잘 확증됩니다. 곧 우리는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행운에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듯 사람들은 세속적이어서 좋은 일에서나 나쁜 일에서나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무슨 좋은 것을 가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추시고, 우리에게 인자한 얼굴을 보이시며,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로 알아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압시다.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형통 속에서 우리에게 당신의 얼굴을 보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며 그분의 선하심을 찬양할 까닭을 가지고,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부드럽게 초대하실 때 그분께 이끌리며, 그것이 우리에게 그분을 사랑하고 온전히 그분을 섬기는 데 우리 자신을 드릴 용기를 주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말투가 쓸데없지 않다는 것을 봅니다. 욥은 불신자들 식으로 "나는 운이 좋았다, 나는 편안했다" 하고 말하는 대신,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당신의 등불을 비추셨다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어둠 한가운데서 그를 비추셨다고 덧붙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과 위험 속에 있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하건대 보기에 바라는 대로 사는 사람들조차 그렇습니다.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난 것 같은 사람을 우리가 안다 해도, 그가 땅에 있는 한 가시밭 사이를 걸어야 합니다. 우리는 늘 많은 죽음의 위협을 받을 것이고, 어떤 사람의 곳간과 지하 창고가 가득하다 해서 그가 한순간에 가난해질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 이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는 어둠 속에 있는 것과 같다는 것, 곧 많은 괴로움과 위험에 CO 541 에워싸여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 대비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 걸음도 걸을 수 없고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도 없으며 그러면 많은 비참에 걸려 넘어질 것이라는 것을 잘 새깁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등불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비추실 때 그 모든 것을

고쳐 주십니다. 그러니 그분께 마땅한 찬양을 돌려 드리기를 배웁시다. 곧 그분이 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보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덧없는 삶에서 설 수 없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면서, 당신이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고, 우리가 많은 재앙에 빠지지 않게 하시니 우리가 많은 재앙에서 벗어날 만큼 우리를 당신의 보호 안에 두고 계시다는 것을 실제로 느끼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삶의 형편에 관한 모든 것에 대해 이 찬양을 받으셔야 한다면, 묻건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당신 말씀의 가르침에 관해서는 어떻겠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말하듯(벧후 1:19) 우리가 여기 아래에서 지내는 동안 우리는 어둠 속에 있는 것 같고 불쌍한 눈먼 자들 같습니다.[63] 더욱이 우리 정신에 관해서는 우리가 너무 마비되어서, 그분 말씀의 이 등불로 비추심을 받지 않는다면 걸음마다 구렁에 빠지듯 넘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크고 짙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알려져야 하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려고 눈을 뜨며 그것을 알아보는 데 아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모든 좋은 것에 대해 그분께 경의를 드리고, 그것을 게걸스럽게 삼키지 않으며, 온전히 그분의 섭리에 기대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 구절에서 우리가 새겨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욥이 젊은 날에 하나님의 뜻도 자기 장막 안에 가졌다고 합니다. 그가 여기서 쓰는 말은 본래 늦가을을 뜻하지만, 비유로 젊은 시절을 가리킵니다. 열다섯 살의 젊음이 아니라 사람의 원기가 한창인 때, 이를테면 스물다섯에서 서른다섯 살까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 사람이 자기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풀이했듯이 자식을 낳기 위해서가 아닙니다(그것은 어리석고 둔한 풀이입니다). 오히려 사람이 의논하고 사람의 삶에 알맞은 일을 하기에 한창 원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63. 원문에는 “베드로후서 1장 9절“로 되어 있으나, 어둠 속에 비치는 등불로 말씀을 일컫는 구절은 1장 19절입니다.

사람들이 그 나이에 일을 잘 감당해서 그들을 쓸 수 있는 것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늦가을이 열매를 내듯, 그 나이의 사람도 열매를 내기에 알맞습니다. 곧 그를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는 이 말을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서도 비유로는 달리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곧 "내가 내 늦가을에 있는 것 같았다", 다시 말해 "내 넉넉함 속에서 열매를 거두는 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욥이 뜻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봄에 있을 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CO 542 밀을 내야 할 풀을 보고, 포도나무에 싹이 트기 시작하는 것을 보지만, 거기에는 소망뿐입니다. 우리는 풀밭이 풀을 내는 것도 봅니다. 그러나 늦가을에는 짐승들이 꼴을 먹었으니 살지고 잘 먹었고, 땅의 소산은 거두어져 쌓여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때가 넉넉한 때입니다. 그러니 나는 욥이 여기서 "내가 내 재물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너무 많은 좋은 것을 주셔서 그것이 내 집에 넘쳐흐르던 때" 하고 말하려 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는 이미 한 말에 이어 하나님의 뜻 또는 함께하심이 자기 장막 위에 있었다고 덧붙입니다. 욥이 쓰는 말은 "뜻" 또는 "모임"을 뜻하고, 둘 다 잘 맞습니다. 그러니 그것으로 크게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뜻은 늘 하나로 남기 때문입니다. 곧 "내가 내 장막 위에 하나님의 섭리를 가졌을 때",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내 모든 일을 마련하시려고 나를 지켜보셨을 때", 또는 "그분이 나와 함께하셨을 때", 다시 말해 "내가 그분이 내게 호의를 베푸신다는 것을 느끼고, 그분이 나를 당신 품에 안으시듯 내게 가까이 계셨을 때"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욥은 하나님의 은택을 계속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가 당한 것처럼 그렇게 괴로움을 당한 사람이 그래도 정신을 잃지 않고 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면, 우리의 편안함 한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거기 아주 평온하게 내버려 두실 때 우리가 그분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어떻겠는지 잘 새깁시다. 우리는 사람이 아픔에 몰리면 너무 쓰러져서 하나님도 자기 자신도 기억하지 못하고, 넋이 나가

며 감각이 혼란스러워진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이제 욥은 어떤 형편에 있었습니까? 그런 식으로 괴로움을 당한 피조물이 좀처럼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그가 여전히 하나님께 말을 건네고, 지난날 받은 좋은 것들이 우연히 그에게 온 것이 아니고 자기 재주로 얻은 것도 아니며 사람들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면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그는 말합니다. "내 위에 당신의 등불을 켜 두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인도하신 이가 그분이시며, 내게 가까이 계셨던 이가 그분이시다." 욥이 그렇게 말할 때, 이 증언은 그렇게 쓰러지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을 잊고 그분께 아무 경의도 드리지 않으며 그분의 은택을 게걸스럽게 삼키는 자들을 두 번, 세 번 정죄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욥의 본보기를 따라 형통할 때나 역경 속에서나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배웁시다.

그런데 그렇게 말한 뒤에 그는 하나님을 자기와 함께 모시고 그분의 함께하심과 무리를 가졌던 그때 자기 처지가 어떠했는지 덧붙입니다. 곧 그의 발이 버터에 씻겼고, 시냇물이 그를 위해 기름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들로 욥은 하나님께서 그를 CO 543 아무것도 모자라지 않을 만큼 즐거움 속에 두셨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가 버터 위를 걸으며 자기 발걸음을 거기 씻었다고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드러운 것들 위로 걷게 하셨다는 것을 나타내려는 것입니다. 시편 91편(11–12절 참조)에서 신자들이 천사들의 손에 들려서 그들의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않고 아무 나쁜 일도 만나지 않으리라고 말하는 대로입니다. 그러니 이 구절에서 욥은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지난날 나를 그렇게 대하셔서 나는 거의 땅을 밟지 않았고, 딱딱한 포장길을 느끼지 않았으며,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게 버터와 부드러운 것으로 길을 깔아 주신 것 같았다." 요컨대 그는 그가 사람들의 보통 처지에 있는 대신 모든 즐거움 속에서 헤엄치는 것 같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자기 편안함에 사로잡혀 흥청거리며 완전히

정신을 놓아 버리는 자들, 곧 탐식가와 술주정뱅이와 방탕한 사람들처럼 그가 거기 취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욥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너무나 큰 형통 속에 두셔서 말을 넘치게 쓰지 않고는 그것을 충분히 나타낼 수 없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가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높인다는 것이 보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우리가 잘 새겨야 할 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베푸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때, 우리는 큰 은택이 마땅히 높임을 받도록 그것을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악의로 그것을 작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떼임을 당하십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빚 전체를 부인할 수 없으면 "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하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보듯 셈이 나쁜 사람들은 일이 알려지고 충분히 분명할 때 "나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빚지지 않았다" 하고 말할 만큼 뻔뻔하지는 않겠지만, 할 수만 있다면 백 플로린을 다섯 플로린으로 만들고 싶어 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높여야 할 은사를 깎아내리면서 우리의 배은망덕과 불성실로 그분을 떼어먹습니다. 반대로 욥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베푸셨을 때 "그렇습니다, 나는 그만큼 하나님께 빚졌고 그것은 그분의 은혜로 내게 온 것입니다" 하고 한마디 말하는 것으로 셈이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밝힙니다(그것은 너무 경박한 의례일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좋은 것들을 그것이 마땅한 만큼 귀히 여기기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무엇입니까? 묻건대 우리 처지를 살펴보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서 끌어내셨는지 살펴봅시다. 다른 쪽으로는 우리가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려고 손을 펴시고 당신의 모든 피조물을 우리를 CO 544 섬기는 데 쓰실 만한 자격이 있는지 살펴봅시다. 그것을 조금 살펴봅시다. 분명 우리는 정반대를 발견할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버리셔야 마땅한데

그 사이에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베푸시기를 그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이 우리에게 품으신 이 아버지의 사랑을 귀히 여기고, 지금까지 해 온 것보다 더 정성껏 그것을 맛보기를 배웁시다. 버터와 기름의 이 비유에서 우리가 새겨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마치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나를 다른 사람들과 견주어 보면, 나는 하나님께 너무나 빚을 져서 그것을 충분히 갚아 드릴 수 없다는 것을 느낄 것이다."

그런데 그 위에서 그는 자기가 누리던 영예를 보여 줍니다. 그는 자기 발을 버터에 씻었고 바위가 그를 위해 기름을 흘렸다고, 곧 가장 단단한 것조차 그에게는 즐거움으로 바뀌었다고 말하며 자기 재물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그는 자기가 영예와 신용을 누렸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그는 말합니다. "다스리는 자들이 성문에 멈추어 섰고, 나는 거기 나를 위해 자리를 놓게 하였으며, 저마다 내게 영예와 공경을 드렸다." 욥이 그렇게 말할 때 그것은 자랑이 아닙니다(오히려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내신 치욕을 온전한 겸손으로 견디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는 그의 상대들을 꾸짖습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너희는 오늘 나를 정죄받고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판단한다. 왜 그런가? 보라, 내가 불쌍한 썩은 고깃덩이처럼 되었고, 모든 도움을 빼앗겼으며, 저마다 나를 비웃기 때문이다. 그런데 너희가 바르게 판단하는지 보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는 온 세상에게서 영예를 받았고, 그때 너희는 내게 박수를 보냈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보이는 것에 머무르니 너희 판단은 바르지도 공평하지도 않다. 너희는 더 멀리 보아야 했다." 이제 우리는 욥의 의도가 무엇인지 봅니다. 그러니 밝힌 것에 이어 (지금은 더 나아갈 수 없으니) 배웁시다. 말하건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베푸실 때마다 그것이 행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온다는 것을 알아보기를 배웁시다. 그리고 반대로 그분이 우리를 괴롭히기를 기뻐하실 때 그분이 그 방법으로 우리를 깨우려 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우리로 용기를 잃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낮추려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봅시다. 그러하니 늘 그분께 달려가기를 그치지 맙시다. 그분이 당신의 매로 우리를 치셨을 때, 우리 구원에 알맞은 처방을 아시니 우리를 잘 고쳐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엎드립시다.

제105편

욥기 29장 설교 2

CO 34:545–557

AI로 옮긴 초벌 번역입니다. 신학 감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CO 권: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 젊은이들은 나를 보면 숨었고, 귀인들은 일어나 서 있었네. 다스리는 자들은 내가 말할 때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렸으며, 지도자들의 목소리는 잠잠하고 그들의 혀는 입천장에 붙었네. 내 말을 듣는 귀는 나를 복되다 하였고, 나를 보는 눈은 나를 위해 증언하였네. 이는 가난한 자가 부르짖을 때 내가 그를 건졌고, 도울 자 없는 고아를 도왔기 때문이네. 망하게 된 자의 축복이 내게 임하였고, 나는 과부의 마음을 위로하였네. (욥 29:8–13)

CO 545 무엇이든 귀한 만큼 그것을 지키고 슬기롭게 좋은 용도로 써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재물에 관해서는 저마다 그렇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물론 많은 사람이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탕진합니다. 그러나 그들 자신도, 귀히 여겨야 할 것을 다스릴 줄 모르는 것이 책망받을 악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는 영예가 사람의 가장 중요한 보배라고 고백하면서도 그것을 거의 아끼지 않고 너무 헐값에 넘깁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은, 가장 영예를 받고 사람들이 가장 떠받드는 자들이 자기 덕 때문에 존중받느냐고 물어보면 드러납니다. 정반대입니다. 높은 사람들과 부자들 앞에서 굽실거리는 자들에게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하게 하느냐고 물으면, 그들은 그 사람들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 대부분이 악하다는 것을 자기 양심으로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영예가 내팽개쳐져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보다 귀한 것이라고 잘 말할 것입니다. 그

런데 이것은 책망받아야 합니다. 사도 야고보도 그렇게 악인들에게 영예를 드리는 자들을 비웃을 뿐 아니라 날카롭게 꾸짖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약 2:1–4 참조). 그것은 하나님께서 좋은 용도로 구별해 두신 것을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에게서 나오는 것 말고 무엇을 공경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니 악인이 그런 명성을 누릴 때,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그분에게서 빼앗아 마치 마귀에게 주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악인이 높은 자리에 있다면 그의 인격 때문이라기보다는 그가 차지한 자리 때문에 그를 공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악이 존중받고 사람들이 그것을 덕으로 여긴다면, 그것은 모든 질서를 뒤엎는 뒤섞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구절에서 욥이 영예를 크게 받았다고 말할 때 그것이 CO 546 재물이나 신용 때문이 아니라 덕 때문이라고 말한다는 것을 잘 새겨야 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젊은이들이 나를 보면 숨었다.” 무엇이 젊은이들을 숨게 했습니까? 어떤 사람이 방자하다면, 젊은이들은 그런 그늘과 뒷배를 얻었을 때 오히려 악을 행하는 데 더 대담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욥이 사람들이 그 앞에서 숨을 만큼 그런 공경을 받았다면, 그것은 그에게 사람들이 그를 공경하지 않을 수 없을 만한 덕이 있었다는 표시이지, 그가 부자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먼저 새겨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숨다“라는 이 말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가질 부끄러움을 담고 있다는 것도 새깁시다. 그들도 사람들 앞에서는 여전히 자제하고 자기 추함이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히 어떤 위엄을 지닌 덕 있는 사람이 있으면, 사람들은 악을 행하려 할 때 그 앞에서 숨습니다. 그런 부끄러움이 무슨 쓸모가 있습니까? 그것은 쓸데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분명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의식해서만 악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그는 거의 자라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영예도 적은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거기서 두

가지 유익이 나옵니다. 하나는 이것입니다. 아이가 이성이 무엇인지 알고 판단력을 가지기 전에도 좋은 것들에 길들여지듯, 우리 주님께서도 때로 그 자체로는 악한 이 부끄러움을 쓰십니다. 말하건대 아직 덕을 그 자체 때문에 사랑할 만큼 나아가지 못한 자들을 조금씩 이끄시려고 그것을 쓰십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오, 들떠 있고 자기 안에 뿌리가 없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그분의 사랑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컨대 그는 완전히 눈이 부신 사람 같아서 악을 행하는 것을 자기에게 허락하고 거기 방자하게 빠집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에게는 아직 고삐가 있고 뻔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쁜 무리 속에 있을 때 스스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사람들을 많이 볼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금세 타락시키고, 그들은 이리저리 휩쓸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그들 안에는 어떤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느 정도 공경하는 사람이 그들을 흘겨보면 그들은 당황해서 거의 땅에 묻히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들의 악을 일깨우면 그들은 입에서 대꾸가 나오지 않고, 대들기보다 오히려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사람이 자기 죄의 추함을 아는 이 절제를 자기 안에 간직할 때 그것은 그가 CO 547 완전히 잃어버린 자도 아니고 고칠 수 없는 자도 아니라는 어떤 표시입니다. 그 사이에 그것이 그 자체로 덕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조금씩 돌아올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에게 이 약을 병에 대비한 준비약 같은 물약으로 쓰셔서, 그다음에 환자가 어떤 강한 약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 물약은 몸을 바꾸어 놓을 뿐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환자를 낫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준비약은 좋은 것이고, 사람이 그렇게 반쯤 바뀌어 이미 약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약이 더 효험이 있습니다. 이 부끄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그 자체로는 악을 고치거나 우리를 거기서 씻어내지 못하고, 우리를 마땅히 걷게 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완전히 방자하지 않도록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내가 말했듯이) 마땅히 가져야 할 기초가 없고 당신 이름을 경외하는 마음이 잘 뿌리내리지 않은 들뜨고 가벼운 사람들에게 있는 이 부끄러움에서 끌어내시는 한 가지 쓰임과 유익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쓰임이 있습니다. 곧 우리에게서 모든 핑계가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마에 새기시고 낙인을 찍으시듯 표지를 주셔서 우리가 우리 악을 의롭다 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어떤 사람 앞에서 숨으러 갈 것이다. 그 까닭은 무엇인가? 부끄러움이다. 그러면 이 부끄러움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낙인처럼 내게 찍어 두셨다. 그래서 내가 다른 경우라면 해와 하늘과 땅과 사람들이 내 비루함의 증인이 되기를 바랄 만할 때에도,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내가 미움과 저주를 받으리라는 것을 보니 나는 억눌린다. 악은 그 자체로 저주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우리는 사람들이 가지는 이 부끄러움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거슬러 벌이시는 소송 같다는 것을 봅니다. 마치 그분이 조사를 하시고 우리를 거슬러 증거를 모으셔서, 우리가 유죄로 남게 하시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핑계를 내세워도 모든 악은 악이고 정죄받아야 한다는 우리 자신의 서명이 이미 다 되어 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이 다른 점에서는 멍하고 자기 죄를 아는 일에 조금도 찔리지 않는다 해도, 그가 그것을 부끄러워할 때 그 방법으로 그는 핑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구절에서 어떤 가르침을 거두어야 하는지 봅니다. 먼저 우리가 악을 행하면서 어떤 부끄러움을 느끼고 사람들 앞을 피하며 우리 추함이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는 CO 548 우리 죄 속에서 우리 자신을 달래고 그것을 덮을 때가 아니며, 오히려 그것을 정죄하기를 배워야 한다고 일깨우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밖에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그런 부끄러움을 느낀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은 피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 압시다. 우리가 아무리

숨은 곳에서 우리 자신을 맞추어도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고, 그분의 눈길이 늘 우리를 보시며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행위뿐 아니라 가장 은밀하고 깊은 생각까지 적어 두실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만 두려워하지 말고 무엇보다 우리를 보시는 하늘의 재판관을 두려워하기를 배웁시다. 그리고 이 부끄러움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지 맙시다. 우리가 말했듯이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이가 늘 가나다에 머물러 있거나, 환자가 물약 한 번 먹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치료를 이어 가지 않아 그대로 죽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부끄러움만 우리 안에서 다스려서는 안 되고, 그것이 우리를 더 멀리 이끌어야 합니다. 곧 사람들이 우리 비참을 하나도 알아보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를 덮고 온 세상을 속일 가리개를 가질 수 있다 해도, 우리 양심이 깨어 파수를 보고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몰아붙여서, 우리가 좋은 평판을 바랄 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바라도록 우리 온 삶을 다스리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드러난 악을 삼가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씻기고 우리 감정이 바르며 우리 더러움을 감출 뒷방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니 이 구절에서 우리가 간직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우리는 우리가 어떤 시대에 있는지 봅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거의 없으니 사람들을 공경하는 마음도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불의가 너무 방자해져서 가장 뻔뻔한 자들이 가장 용감한 자들입니다. 젊은이들은 적어도 어떤 절제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교도들이 자기 본성의 감각으로 어떤 부끄러움을 가지는 것이 젊은이들의 나이에 알맞은 덕이라는 것을 안 것은 까닭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젊은이들은 아직 마땅히 요구되는 만큼 절제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악으로 부추기는 끓어오름이 있고, 머리에 불이 있으며, 그다음에 그들의 욕심이 너무 격렬해서 억누르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거기에 처방을 주십니다. 곧 젊은이들이 아무리 경솔해도

그들은 유죄를 확신하게 되고 자기를 알 수밖에 없어서, 그들 안에 아직 마땅히 요구되는 그런 절제가 없다는 것을 알아차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어떤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CO 549 이제 무엇이 보입니까? 이런 작은 쓰레기들이면 충분할 것입니다. 보십시오, 달팽이 같은 것들이 껍질에서 나오자마자 허리에 칼을 차야 하고, 모든 부끄러움을 벗어 던집니다. 그들은 자기가 창녀촌의 창녀처럼 되어야 하고, 무엇을 하든 더는 공경도 정의도 자기를 다스릴 아무것도 없어야 한다고 여깁니다. 요컨대 우리는 젊은이들이 완전히 마귀에 들려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을 뿐 아니라 더는 아무 예의도 없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때, 불의의 홍수가 있고 일들이 너무 뒤죽박죽이 되어 더는 처방이 없다는 것을 알아봅시다. 본성으로 모든 사람에게, 특히 젊은이들에게 새겨져 있어야 할 것, 곧 이 부끄러움과 절제가 지워졌고, 젊은이들이 대드는 데 완전히 뻔뻔하며 자기 뻔뻔함 때문에 조롱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더 큰 두려움과 조심 속에 걷기를 배웁시다. 저마다 우리처럼 한다고 내세울 때 우리는 핑계를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더 낫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죄 선고를 받는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가 물러날 계기가 되어서, 어디서나 그렇게 다스리는 악 속에 휩쓸리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 밖에 이미 말한 것을 기억합시다. 곧 우리는 피조물들에게만 보이는 것처럼 걸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우리 눈앞에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얼굴을 피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위선으로 기울어 있으니 우리는 많은 에움길을 찾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어디서나 우리를 쫓아오셔야 합니다. 그러하니 우리 자신을 온전히 그분께 바치고 우리 눈길을 거기 박아 두기를 배웁시다. 그리고 그분이 당신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시니, 사도가 히브리서(4:12)에서 우리에게 일깨우는 것도 생각합시다. 거기서 그는 우리가 듣는 말씀이 하나님과 같은 본성을 지녀서,

우리 생각을 살피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따져서 골수와 핏줄과 그 밖의 모든 것을 가른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 말씀을 보내실 때 사람들에게 감추어진 모든 것이 빛 가운데로 나오도록 그런 검사를 하려 하시니, 우리 저마다 대낮에 있듯 걷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당신의 복음으로 우리 가운데 다스리실 때 우리가 더는 어둠 속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이 구절에서 우리가 간직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욥은 귀인들이 그 앞에서 일어났고, 그렇습니다, 지도자들과 다스리는 자들이 그가 말하는 것을 들을 때 잠잠했다고 덧붙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본성이 가르치는 질서를 봅니다. 다만 CO 550 사람들의 대담함이 모든 것을 뒤엎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주님께서 보여 주시는 것을, 말하건대 본성의 질서를 따라 따른다면, 분명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다른 사람들보다 판단력과 지식이 더 많은 사람이 있을 때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들을 것이고 저마다 잠잠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좋은 이성으로 말하고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은사가 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업신여김을 받으며, 많은 수다쟁이가 나서서 고삐 풀린 혀로 자기 말을 들어 주기를 바라고, 그 방법으로 진리가 내던져지고 밀려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 까닭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끄시고 다스리시는 것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내가 말했듯이) 그들은 자기 대담함으로, 아니 오히려 자기 광기로 본성의 모든 질서를 썩게 합니다. 우리가 진리와 이성에 복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세워진 자들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우리는 들짐승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구절을 잘 새깁시다. 욥은 여기서 자기 인격을 높이려 할 뿐인 것이 아니고, 그것이 그의 의도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어제 우리는 그가 그렇게 말할 개별적인 까닭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밖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입으로 주시는 일반 가르침도 거둘 수

있습니다. 곧 바르고 덕 있는 사람이 있고 그가 또한 슬기를 갖추었다면, 그 사람의 말을 우리 가운데서 듣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 주는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을 사람에게만 잘못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모욕을 당신께 한 것으로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까닭이 없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가르침으로 우리를 다스릴 수 있다면, 그가 그것을 자기에게서 가졌다고 생각합니까? 저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잘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그렇게 높이시고 그에게 당신의 영을 더 넉넉히 나누어 주실 때, 그것이 그가 자기를 내세우게 하려는 것입니까, 아니면 오히려 모든 사람의 공동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까? 어떤 큰 은혜를 그렇게 받은 사람은 그만큼 더 이웃에게 빚진 것이고, 저마다 그것에 참여하도록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 아래서 자랄 수 있는데도 그의 말을 들을 생각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을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그렇게 죽을 사람을 당신의 이름으로 보내실 때 알려지기를 원하신 그분의 위엄을 비웃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교만과 함께 배은망덕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을 일으키십니다. 그들의 말을 듣기만 합시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 구원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생각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 주시는 좋은 것을 할 수 있는 한 거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CO 551 여기서 덕 있고 우리보다 슬기가 더 많은 사람이 있다면 그는 사람들이 그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가 말할 것을 받아들이려고 주의할 만하다고 밝히는 데에는 까닭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내가 이미 밝혔듯이) 그 모욕은 하나님께로 향하고, 우리가 그분께 다스림을 받으려 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분께 배은망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있습니다. 어떤 슬기를 가진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면, 그들이 특별히

우리에게 보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을 보내신다고 말할 자격이 있을 때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그들이 사는 동안 쓰셨고, 같은 질서가 지금 당신의 교회에 있어서 세상 끝까지 남기를 원하셨듯이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직무에 세워진 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전파될 때 우리가 그것을 듣기를 거절한다면, 그것은 갑절의 반역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만큼 더 유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기서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 말씀을 보내실 때 잠잠하고, 크고 작은 사람들이 질서를 지키며, 우리가 벙어리 같되 귀머거리는 되지 말라는 경고를 받습니다. 말하건대 벙어리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대꾸하지 않고 듣는 것이 문제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을 잠잠히 받아들여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맺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 우리는 귀머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성상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에 그렇게 나쁘게 기울어 있다는 것을 보니, 우리는 그분이 우리 귀를 뚫어 주시고 그분께 기울이는 데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딤을 고쳐 주시기를, 심지어 우리에게 당신 뜻을 깨닫게 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 짐승 같아서 그분의 성령으로 비추심을 받지 않으면 우리 구원에 알맞은 것을 결코 깨닫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 혀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감정을 고삐로 붙잡기를 배웁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지 못하게 막는 것은 우리가 너무 말이 많고 우리 수다가 너무 지나치고 쓸데없을 때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욕심이 있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자면 끊어 버리는 대꾸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마다 자기를 잘 살펴봅시다. 우리가 설교에서 가르침을 받으려고 올 때, 또는 다른 때에 성경을 손에 들 때, 물론 우리는 여기저기서 좋은 말씀과 유익한 금언을 몇 마디 알아들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것은 곧 우리

에게서 빠져나가고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우리 대꾸로 어지럽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것은 마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끊어 버리는 소음이 있어서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 밖에 우리는 CO 552 우리에게 하는 말의 백분의 일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육에 속하고 우리 감정이 우리를 휩쓸어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가 이미 말했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잘 자라려면, 너무 날카로운 우리 혀를 고삐로 붙잡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감정이 질서 잡혀서 우리 하나님께 평온한 순종을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새겨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말하는 데 너무 재빠르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가르침받기 쉬운 자로 만드는 이 절제와 겸손을 가져야 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들어서 늘 자란다고 합니다(잠 1:5).[64] 솔로몬은 거기서 무식한 자들과 어리석은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첫날부터 자기를 대학자요 박사라고 여기고, 가르침을 조금만 맛보면 충분히 자랐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두꺼비처럼 충분히 부풀어 오를 것이지만 그것은 바람일 뿐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렇게 오만하니, 솔로몬은 들어서 자라지 않을 만큼 지혜로운 자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말하는 데 너무 앞서 나가지 말고, 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듣고 알아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더 간직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욥이 특히 다스리는 자들, 슬기로 훈련되고 사람들 사이에서 권위를 가진 자들이 그가 뛰어났으므로 그의 말을 들었다고 말하니, 묻건대 그런 지식을 자기에게 돌릴 수 없고, 경험도 없으며, 그렇게 많은 슬기를 얻을 직무에 있어 보지도 못한 자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오늘 가르침을 받는 것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아주 적고, 저마다 선생의 직무를 가로채는 것을 봅니다. 보십시오,

64. 원문에는 “잠언 17장 5절“로 되어 있으나, 지혜로운 자가 들어서 학식이 더한다는 구절은 잠언 1장 5절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사도 야고보(3:1)가 우리에게 주는 이 과목, 곧 우리가 많이 선생이 되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는 과목을 잘못 실천합니다. 반대로 자기가 온 세상을 이끌 능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그 사이에 자기가 어린 송아지에 지나지 않는데도 누가 자기를 가르치고 일깨우는 것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특히 욥에게서 짚은 이 정황을 그만큼 더 지켜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슬기롭고 권위 있는 사람들이면서도 잠잠히 가르침받기를 거절하지 않은 자들을 칭찬하십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 주실 때, 그것은 그 사람들을 칭찬하려는 것만이 아니라(그들은 오늘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의 본보기와 가르침을 주시려는 것임을 알아봅시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생각하면 이 경고는 쓸데없지 않습니다. (내가 말했듯이) 저마다 지혜로워지려 하고, CO 553 아무도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고 고백하는 그런 겸손으로 기꺼이 자기를 맞추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여기서 우리에게 그런 가르침을 내놓으십니다. 곧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다 해도 우리 안에 더 자랄 필요가 없을 만큼의 완전함을 상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아봅시다. 우리를 가르치기에 능숙한 사람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궁핍을 채우시려고 거기에 당신의 보배를 두셨다는 것을 알아봅시다. 물론 그분이 모든 지혜의 샘이시니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것을 당신의 시내와 수로를 통해 우리에게 흘려보내십니다. 사람들이 그분께 은혜를 받을 때 그것은 그들을 통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큰 은혜가 없다 해도, 그가 이성과 진리로 우리에게 말한다면 우리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린아이가 우리 허물을 일깨운다 해도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사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린아이를, 아니 아무 권위도 뛰어난 은사도 없는 불쌍한 어리석은 자를 거절해서는

안 되고 그런 자들에게서도 책망을 받아야 한다면, 묻건대 하나님께서 높이시려고 말하자면 두드러진 자리에 두신, 분명히 나타나는 그분의 은혜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아주 미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거부할 때 우리가 광인 같다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늘 가르침과 교훈이 주어지는 곳마다 그것을 받아 굳세어져야 하니, (내가 말했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보고, 그것이 나타나는 곳에서 그것에 복종하는 영예를 그것에 돌려 드립시다. 그러니 이 구절에서 우리가 새겨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또한 자기가 날카롭고 예리한 정신을 가졌기 때문만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올곧음을 지켰기 때문에 영예와 존중을 받았다고 밝힙니다. 그리고 이것도 우리가 잘 새겨야 할 구절입니다. 물론 누군가 자기 이웃을 가르치는 일을 맡을 때, 그가 올곧은 사람이고 그 안에 잘 살고 모든 사람에게 좋은 본을 보이려는 감정이 있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또한 솜씨가 있어야 하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분별과 이성을 주셨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어떤 사람이 바랄 수 있는 가장 박식한 사람이고, 이야기할 혀도 재빠르며 말하는 데는 아무 흠이 없다 해도, 그 사이에 악한 양심을 지니고 하나님을 비웃는 자이며 CO 554 평생 세속적인 사람이라면, 그는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들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의 삶이 그를 너무 의심스럽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의 가르침에서 좀처럼 맛을 느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사람들의 악한 삶이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없애야 한다는 뜻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서 보는 흔한 연약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곧 사람들이 아무 올곧음도 없고 자기 행위로 모든 덕을 비웃는 악하고 비뚤어진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이 천사처럼 말한다 해도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들을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가 진심으로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 보이니 속는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가르치는 일을 맡은 사람에게는 이런 올곧음을 가지는 것이 아주 필요합니

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가 거짓으로가 아니라 감정을 담아 말하고, 거기서 연극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배우는 어떤 배역을 잘 연기할 수 있겠지만, 결국 그것은 놀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말을 잘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는 사람은 혀로만 말해서는 안 되며, 그가 선언하는 것이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가 가져오는 가르침을 실제로 확증하고 인봉해서, 그가 말하는 것을 그가 마음에 품고 자기 안에 새기고 아로새겨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 보여야 합니다.

그러니 욥이 자기가 높은 사람들과 가장 영예로운 사람들에게 존중받았다고 이야기한 뒤에, 그것은 자기가 가난한 자들과 괴로움당하는 자들을 도왔기 때문이고, 망하게 된 자의 축복이 자기에게 임했으며, 자기가 고아들의 후견인이요 과부들의 보호자였기 때문이라고 덧붙일 때, 이 구절에서 우리가 간직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러니 이 올곧음이 그에게 권위를 얻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시편 15편(4절)에서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귀히 여겨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얼마 전에 밝혔듯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 지혜, 그렇습니다, 참된 지혜이니, 우리는 거기서 어떤 사람이 그 말을 들을 만한지 아닌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그 밖에 어떤 사람이 바르게 걷고 좋은 표를 보일 때, 그가 말한다면 그것은 거짓이 아니고 그가 혀끝에만 수다를 달고 아무 감정도 없는 조롱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봅시다. 그러니 어떤 사람이 자기 온 삶에서 하나님께서 섬김과 공경을 받으시도록 진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 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런 거울을 우리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를 가르쳐야 할 자들의 좋은 삶을 셈에 넣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 가르침에 대해 우리에게 주시는 인증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내가 이미 말했듯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남지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덕에 달려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CO 555 그러니 그것은 범할 수 없는 권위를 지녀야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자기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바란다고 증언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 은혜를 베푸실 때, 그러니 우리가 그런 증언을 가질 때, 그것은 가르침에 대한 서명 같은 것이고,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는 데 게으르고 더디다는 것을 보시고 우리를 밀어 주시며 찌르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셈에 넣지 않을 때, 그것은 우리가 고집 센 짐승 같다는 표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욥이 여기 적어 놓은 대로 이 구절을 잘 새깁시다. 그리고 그 사이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책임을 맡은 자들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곧 자기 삶이 모든 사람에게 본보기가 되도록 자기를 다스리고, 자기가 헛되이 말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안에 온전히 새겨져 있다는 것을 증언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들의 인격에서 하나님 말씀을 높이고 그들과 함께 그분께 순종하도록 권면을 받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 목사와 모든 위정자와 백성을 다스리는 책임을 맡은 사람들, 그리고 일반적으로 가르치는 지위와 소명을 가진 모든 사람이 생각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곧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이 길을 보여 주기를 원하시고, 그들이 말할 뿐 아니라 자기 삶으로 그것이 진심이요 진실이라는 것을 증언하라는 조건으로 그들을 이 직무에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가르침은 모든 사람에게 두루 미칩니다. 필요할 때 때와 곳에 따라 자기 이웃을 가르쳐서는 안 될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우리 악을 감추거나 잊지 않도록 살핍시다. 그러니 자기 이웃을 잘 바로잡으려는 사람은 먼저 자기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가르치려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선생이 되어야 합니다. 곧 자기에게서 시작하여 좋은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한 것도 잊지 맙시다. 곧 우리는 누구에게서나 가르침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려 하실 때 가르침받기

쉬운 자가 되어 그런 좋은 것을 거절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이 여기서 하는 말의 요점은, 그가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 주었다는 것입니다. 야망에 끌리는 자들은 자기가 이름난 사람임을 보이려 할 것이고, 사람들 앞에서 어떤 상과 칭찬을 기대하지 않으면 결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욥은 여기서 자기가 아무 보상의 소망도 없는 곳, 사람들 앞에서 큰 소문이나 명성을 얻을 수 없는 곳에서 힘썼고, 사람이 이미 죽은 것처럼 보일 때 선을 행하려 애썼다고 밝힙니다. 그는 그것으로 자기가 CO 556 헛된 영광에 끌리지 않았고, 여기 아래 땅에서 자기 삯을 찾지 않았으며, 하나님 앞에서 걸었다는 것을 잘 보여 줍니다. 사람이 자기 이익을 바란다면, 오, 그가 누구에게 호의를 베풀어야 할 때 그 사람이 자기에게 되갚을 방법이 있는지, 똑같이 갚아 줄 수 있는지 분명 두 번 살펴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이 세상에서 베풀어지는 모든 호의는 값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삯을 바라는 것이고, 그것을 덕에 돌릴 수 없습니다. 사랑이 사람들을 이끌어 서로 선을 행하고 무엇이 필요한 자들을 돕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마다 늘 자기 이익을 바라보고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베푼 선이 자기에게 돌아올 수 있는지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 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떤 사람의 보상도 바라보아서는 안 되고, 칭찬과 존중을 받기를 바라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욥은 망하게 된 자의 축복이 자기에게 임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잘 새깁시다. 어떤 사람이 망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에게 베푼 선은 그만큼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고, 사람들에 관해서는 그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욥은 여기서 완전히 빼앗기고 더는 아무 도움도 없어서 사람들이 그들을 생각할 생각도 하지 않는 자들을 말합니다. 보십시오, 묻힌 사람 같은, 불쌍한 썩은 고깃덩이 같은 사람이 있고, 나는 그를 도우러 갑니다. 내가 사람들에게서 어떤 칭

찬을 얻으려 했다면, 오, 분명 나는 내 덕을 전파하고 자기가 내게 얼마나 빚지고 매여 있는지 말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미 반쯤 죽은 것 같고 완전히 망할 것처럼 보이는 불쌍한 사람을 맡을 때, 그것은 내가 사람들의 칭찬을 찾지 않는다는 표시입니다. 그다음에 내가 거기서 무슨 삯을 기다리겠습니까? 보십시오,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사람이 있고, 그에게는 더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런 올곧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안에서 야망이 내던져지고 탐욕도 우리를 이끌지 않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요컨대 욥이 나타내려 한 것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또 그는 여기서 우리가 짚은 이 모든 부류, 곧 과부들과 고아들과 온 세상에게 업신여김을 받는 자들을 적어 둡니다.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받은 선을 되갚을 방법이 있는 자들은, 오, 그들은 스스로를 추천합니다. 그러나 불쌍한 사람이 모든 호의를 빼앗기고 부모도 친구도 재산도 권위도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가 그를 돕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본다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아무 사랑도 없다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저마다 그렇게 자기 이익에 빠져 있으니, 그래서 CO 557 우리 주님께서 특히 과부들과 고아들과 그렇게 극한에 있어서 더는 견딜 수 없는 자들을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말하건대 하나님께서는 이 점에서 우리 사랑을 시험하시려고 그들을 우리 앞에 두십니다. 그러니 이것이 우리가 욥에게서 새겨야 할 점이고, 이 모든 것이 우리 가르침을 위해 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 만큼 잘 새겨야 합니다. (내가 이미 짚었듯이) 욥은 여기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높이려고 이렇게 허세를 부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성령께서 그의 인격에서 무엇을 귀히 여겨야 하는지 우리에게 보여 주십니다. 곧 겉으로 드러나고 사람들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광채를 지닌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주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러운 것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고는 다른 증인이 없는 것처럼 걷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이 목표로 모아져서 "내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을 명하셨다. 그분이 나를 시험하려 하시는 것이 이것이고, 나를 쓰시는 곳이 여기다" 하고 말할 때, 그러니 어떤 사람이 이 규칙을 지킬 때, 그것은 그가 모든 사람의 눈길에서 떠나 하나님 안에 자기를 모으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그것으로 충분하고 만족해야 합니다. 야망이나 헛된 영광 때문에 돌아서거나 정신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 할 때 사람들에게서 우리 보상을 기다리지 말고, 가장 아름다운 겉모습을 지닌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명령된 것에 머무를 만큼 온전하고 꾸밈없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순종을 받으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충분해야 한다는 이 결론만을 내려 두어야 합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과 함께 또한 욥의 본보기를 따르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보여 줍시다. 그렇습니다, 아무 견고함도 없는 무엇인지 모를 의식으로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율법에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으로 그것을 보여 줍시다. 곧 우리가 공의와 정의와 자비를 행하는 것입니다(미 6:8 참조). 다시 말해 저마다에게 그의 권리를 돌려주고, 모든 악과 모든 모욕과 속임수와 폭력을 삼가며, 우리 이웃을 섬기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괴로움당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가엾게 여겨서 우리에게 주어진 방편에 따라 그들을 돕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엎드립시다.

제106편

욥기 29장 설교 3

CO 34:558–570

AI로 옮긴 초벌 번역입니다. 신학 감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CO 권: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 망하게 된 자의 축복이 내게 임하였고, 나는 과부의 마음을 기쁘게 하였네. 나는 의를 옷으로 입었고, 내 공의를 겉옷이나 면류관처럼 둘렀네. 나는 눈먼 자의 눈이 되고 다리 저는 자의 발이 되었네. 나는 가난한 자들의 아버지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소송은 부지런히 살폈네. 나는 악인의 턱뼈를 부수고, 그 이빨 사이에서 먹이를 빼앗았네. (욥 29:13–17)

CO 558 어제 우리는 욥이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덕을 인정한다는 것을 보여 주기 시작했습니다. 곧 그런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거기서 자기 삯을 찾지 않으면서 선을 행하고, 야망이나 자기 개인의 이익에 끌리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있듯이 걷는다는 것입니다. 덕의 겉모습은 있지만 바르게 걷지 않는 자들은 선을 행하면서 늘 사람들이 자기에게 똑같이 갚아 줄 수 있을지, 자기가 존중과 칭찬을 받을지, 그 방법으로 신용을 얻을지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값없이, 곧 이 세상에서 아무 보상도 바라지 않고 선을 행하는 데 힘쓴다면,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섬기려 한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그러니 욥은 자기가 선을 베푼 사람들이 그것을 되갚을 만한지 바라보지 않았다고 밝힙니다. 오히려 그는 가난한 자들과 고아들과 과부들과 다리 저는 자들과 눈먼 자들에게 향했습니다. 그러니 그것으로 그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려 했다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는 야망에 끌리지 않았고 사람들이 자기에게 박수치기를 찾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그는 망

하게 된 자의 축복이 자기에게 임하는 것으로 만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가 이미 반쯤 죽은 것 같은 자들을 도우려 했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어떤 은혜나 호의를 베풀면 그것은 사라져 버리고 결코 다시 이야기되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 때문에 선을 행하는 데 방해받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죽어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일을 기억하시고 그것이 당신의 장부에 남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우리는 늘 욥이 CO 559 육적인 감정에 이리저리 정신을 빼앗기는 자들 같지 않았고, 자기 목표, 곧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따르는 목표를 눈앞에 두었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우리도 우리 삶을 그렇게 다스려야 합니다. 욥은 여기서 자기 칭찬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저마다 자기를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보여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우리에게 호의를 보이고 우리를 칭찬하며 우리가 명성과 신용을 누리자마자 높아지는 것보다 쉬운 일이 없으니, 욥은 여기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되돌리고, 그분 홀로 우리 재판관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권위가 그분께 속하며 그분이 우리의 입법자이시니, 우리가 하는 모든 일과 말에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찾아서는 안 된다고 밝힙니다. 이것이 한 가지입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께 품은 사랑을 시험하시려고 우리에게 보상할 방법이 전혀 없는 자들을 우리 앞에 두신다는 것을 새깁시다. 보십시오, 우리 이웃이 전에 우리에게 아무 호의나 도움도 베풀지 않았을 때, 또는 우리가 우리 수고와 돈을 잃은 것처럼 보일 때에도 우리가 여전히 힘쓰기를 그치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우리 이웃을 섬긴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삯꾼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하니 괴로움당하는 불쌍한 사람들이 있을 때마다, 이를테면 어떤

이들은 이 세상의 재물이 궁하고, 다른 이들은 해와 모욕을 당하며, 어떤 이들은 조언이 필요하고 다른 이들은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우리 사랑을 시험하려 하신다는 것을 잘 살핍시다. 그것은 그분이 하시는 검사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데 우리가 저버리고 그의 소리를 들어 주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섬기려는 열심도 감정도 없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협이 우리 머리 위에 집행되리라는 것을 압시다. "가난한 자가 부르짖었는데 너는 귀를 막았다. 이번에는 네가 부르짖을 것이고 아무도 들어 주지 않을 것이며, 아무도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잠 21:13 참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우라고 보내신 자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자비를 찾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굳고 비정한 마음을 가졌던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난을 볼 자들의 눈을 가리셔서 그들이 그것에 찔리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탄식하고 견뎌도 아무도 그것을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난받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을 때 그것이 우리가 받아 마땅한 값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시험을 보내시고 그 방법으로 우리가 그분을 섬기기를 바라는지 아닌지 알려 하시니 말입니다. 요컨대 우리는 여기서 자비가 하나님을 따라 CO 560 다스려진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 말이 담고 있는 것은, 누군가 고난을 당하고 우리 도움이 필요한 것을 볼 때 우리 마음이 찔리고 그 아픔을 우리 자신의 몸으로 겪듯 하며, 그것이 우리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돕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그것이 진심 어린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제"라는 말은 "자비"와 같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람을 바라보지도 않고 개처럼 여기며 그의 아픔을 조금도 함께 느끼지 않고, 요컨대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아도 무엇인가를 주기만

하면 구제를 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구제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은 구제, 곧 자비의 증거입니다. 그러나 불쌍히 여김도, 내가 말한 진심 어린 감정도 없다면 그 증거는 참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난받는 자들을 불쌍히 여길 만큼 인정이 있고, 그것이 또한 우리를 부추겨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만큼 그들을 돕게 할 때, 그때 우리 삶이 하나님께 인정받으리라는 것을 잘 새깁시다. 거기에 몸을 드리는 자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영으로 다스림을 받고 자기 삶이 인정받는다고 잘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율법에서 다른 많은 것을 명하시고, 나도 이것이 전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어쨌든 어떤 사람이 다른 점에서는 작은 천사 같아서 사람들이 그를 감탄한다 해도, 그가 들짐승처럼 잔인하고 그 마음이 너무 굳어서 가난한 자들과 고난받는 자들을 아랑곳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때라면 귀히 여겨질 수 있었을) 그의 모든 덕을 가증스럽게 여기시리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결하고 절제 있게 살고, 저마다에게 그의 권리를 돌려주며, 아무에게도 해나 폭력이나 속임수를 행하지 않으면서, 말하건대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받아 주시고 우리가 하는 일이 그분께 인정받는 섬김이 되기를 원합니까? 거기에 자비를 함께 더합시다. 고기가 소금 없이는 아무 맛이 없듯, 우리가 이웃을 돕고 그들이 도움을 구할 때 손을 내밀 만큼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것에서 아무 맛도 느끼지 않으시리라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욥이 망하게 된 자의 축복이 자기에게 임했다고, 자기가 과부들의 아버지요 고아들의 후견인이었다고 말할 때, 이 구절에서 우리가 간직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 밖에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서 모자람과 궁핍을 보는 만큼,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라, 나는 사람들이 서로 나누기를 원한다는 것을 너희에게 보여 준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는

것을 잘 새깁시다. CO 561 하나님께서는 저마다 자기 자신으로 만족하고 따로 살게 하실 수도 있으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봅니다. 말하건대 가장 부유하고 넉넉한 사람들조차 그렇습니다. 몸이 건강하고 날래며 재산이 더할 나위 없이 많아서 만족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하나 들어 봅시다. 그래도 그에게는 다른 사람이 필요합니다. 모두 농부가 될 수는 없고, 모두 직물 장수나 구두장이나 다른 손기술을 가진 사람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요컨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지로 하듯 서로 묶어 두시고, 필요가 우리를 하나로 묶어 두는 끈 같다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밖에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한 사람에게는 병을, 다른 사람에게는 이것저것의 궁핍을 보내실 때 우리를 더 잘 몰아붙이신다는 것을 봅니다. 부자들도 가난한 자들 못지않게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분은 자주 우리를 어느 쪽으로 돌아서야 할지 모를 곤경에 두십니다. 말하건대 (보기에) 모든 것을 손에 쥔 자들조차 하나님께서 그들이 결코 생각하지 못했을 곳으로 이끄십니다. 그 까닭은 무엇입니까? (내가 말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할 수만 있다면 서로 없이 지내려 하고 저마다 자기만을 위해 살려 하는 것을 보시고, 말하자면 머리채를 잡아 우리를 끌어오셔서, 그분이 온 인류에게 두신 처지에서 우리가 벗어나려 하는 것이 너무 큰 어리석음이라는 것을 보여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 이웃 가운데 누가 모자랄 때, 여기서 말하는 다리 저는 자들, 눈먼 자들, 망하게 된 자들, 과부들, 고아들처럼 모자랄 때, 저마다 이렇게 살펴야 한다는 것을 잘 새깁시다. "자, 나는 여기서 어떻게 힘써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면 그분은 동시에 우리가 그것으로 모자란 자들을 돕도록 우리를 매어 두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 이웃에게서 떼어먹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돕도록 정하신 것을 그들에게서 훔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자란 자들이 그만큼 덜어지도록 이 용도와 이 목적으로 우리 안에 두신 것을 감춘 것에 대해 우리는 셈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저마다 자기에게 주어진 능력을 잘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마땅히 쓰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아주 비싼 값을 치르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히 여기셔서 그것이 그분이 명하시는 대로 깨끗하게 쓰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리 작아도 마땅한 만큼 귀히 여겨져야 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바르고 정당한 용도에 쓸 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다면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내가 감사하며 그것을 쓰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그분은 CO 562 또한 내가 내 이웃을 도울 것을 가지도록 그것을 내게 주셨다. 그러니 나는 거기까지 뻗어 나가야 한다. 그리고 내가 거기 갇힌 듯 머문다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재물의 관리인일 뿐이고, 그것이 내 마음대로 처분할 내 것이 아니며 그 관리만 내게 맡겨졌다는 것을 잘 보여 주실 것이다.” 그러니 저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사를 어디서 쓰이게 하려 하시는지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말하듯(잠 5:15) 저마다 자기 물을 마시되 그 시냇물이 우리 이웃에게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우리 혼자 게걸스럽게 먹지 맙시다. 우리를 배부르게 하고 또 모자란 자들을 도울 수 있는 샘을 우리가 가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샘에서 마십시다. 그러나 그 사이에 다른 사람들도 그 덕을 보도록 살피고, 우리가 들짐승이 되지 않게 합시다. 요컨대 이 구절에서 우리가 간직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 밖에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너무 잔인하지만 않다면 우리 이웃의 궁핍이 저절로 우리를 부추겨 그들을 돕게 해야 한다는 것도 새깁시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에게 기록된 율법도 선지자들도 아무것도 없다 해도, 우리가 어떤 궁핍을 볼 때 본성만으로도 우리를 굽히고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에 충분히 좋은 선생이

아니겠습니까?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눈멀고, 다른 사람은 다리를 절며, 또 다른 사람은 이 세상의 재물이 궁하고, 어떤 사람은 뒷배를, 어떤 사람은 조언을 빼앗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선지자 이사야가 58장 7절에서 말하듯)[65] 우리 자신의 살을 봅니다. 우리는 우리 본성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모양대로 지어진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이 궁핍에 있는 것을 보면서도 그들을 돕지 않는다면, 우리는 짐승 같고 그보다 더 나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자신을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아무리 이것저것을 내세워도 우리를 핑계해 줄 무지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가르침이 한마디도 없다 해도, 인정만으로도 그렇게 극한에 있는 자들을 도우려 애쓰지 않는다면 우리가 유죄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교도들조차 사람의 본성이 이 점에서 필요한 만큼 우리를 가르친다는 것을 충분히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저마다 자기 경험으로도 충분히 확신합니다. 누군가 고난받는 것을 볼 때, 분명 그때 우리에게는 본능이 있고, 할 수만 있다면 거기로 달려가야 한다는 움직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다음에 저마다 눈을 가리고, 우리는 다른 쪽으로 등을 돌리며, 헛되고 경박한 핑계로 우리 자신을 면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이웃의 CO 563 궁핍에 힘쓰려 애쓰지 않았을 때 이 모든 움직임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소송 같은 것이 될 것입니다. (이미 말했듯이) 사람들이 그렇게 도움이 모자란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정하셔서 우리 사랑이 시험받게 하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너무 잔인했다는 것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욥은 자기가 알지 못하는 소송을 살폈다고, 곧바로 진실을 알려했다고 덧붙입니다. 그는 여기서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앞에서 보았듯이 재판의 권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재판의 직무에 있는 사람들이 새겨 둘 만한 조항입니다. 여기서 그는 그들이 저마다의 권

65. 원문에는 “Isaie 158, 7“로 되어 있습니다. OCR 오류로 보아 사 58:7로 바로잡았습니다.

리를 살피는 데 깨어 있어서 아무도 짓눌리지 않고 속임수나 해가 행해지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 주기 때문입니다. 물론 거기서 우리는 일반 가르침도 거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먼저 위정자들과 재판을 맡은 사람들은 성령께서 여기서 그들에게 그들의 과목을 보여 주시고 확실한 규칙을 주려 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거기에 힘쓰려 할 때 자기 의무를 충실히 다할 수 있게 하시려는 것이고, 반대로 그들이 그것을 다하지 않을 때 핑계할 수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기에 담긴 것이 이것입니다. 그러니 재판관이 알면서 아무에게도 잘못하지 않고 자기가 보는 대로 선고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잘 새깁시다. 그는 부지런히 살펴야 합니다. 재판관이 누가 음식을 씹어서입에 넣어 주기를, 일을 손가락으로 가리켜 주기를 기다리는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스스로 살피려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일이 어둡고 의심스러우면 잘 알기 위해 모든 공부를 거기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재판관에게 그런 부지런함이 요구된다면, 묻건대 그들이 알면서 눈을 감고, 호의나 미움이나 뇌물의 타락에 넘어가며, 심지어 남의 재산을 빼앗고 한쪽을 편들고 다른 쪽을 짓누르려고 휩쓸려 간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것이 있을 때 그 정죄는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그러니 이 가르침을 잘 살핍시다. 어떤 사람이 공적인 자리에 부름받았을 때 하나님을 충실히 섬기고 자기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려 한다면, 먼저 자기가 거기서 우상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왕들과 군주들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슬기의 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그들이 그것을, 그것도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특별한 선물로 필요로 하기 때문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 그 자리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셔서 그들 안에 슬기와 올곧음이 있어 잘 알고 분간하며 경솔하게 나아가지 않게 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CO 564 하나님께 자기를 맡겼습니까? 둘째는 그들이

부지런히 조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알지 못할 때 "나는 그것을 전혀 몰랐다" 하고 말하는 것으로 셈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무관심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에게 아주 비싼 값을 치르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기 직무를 다하려는 재판관은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려고 깨어 있어야 하고, 할 수 있는 한, 방편이 닿는 대로 끝까지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으로 "오, 나는 그것을 듣지 못했다" 하는 것이 경박한 핑계라는 것이 보입니다.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자들에게 거짓을 잔뜩 먹일 것입니다. 묻건대 그들이 스스로 원해서 속으려 하고, 악이 흘러가도록 더 캐묻지 않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심지어 그들은 자주 눈을 감을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 경박한 핑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흰 것과 검은 것을 판단하지 못하도록 눈앞에 가리개를 둔 우상이십니까? 그런 재판관들이 알면서 무지하거나 그렇게 잠들어서 속기만을 바랄 때 그들의 주인께 얼마나 큰 치욕을 돌리는 것입니까? 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나쁜 소송을 가진 사람이 재판관의 눈에 재를 한 줌 뿌리거나 다른 무엇으로 가리듯 재판관의 눈을 어둡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 재판관은 그것으로 만족하고 "나는 하나도 안 보인다" 하고 말할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배신입니까? 하나님의 자리는 거룩해야 하는데 사람들이 와서 할 수 있는 한 그것을 더럽힙니다. 거짓이 그렇게 재판과 올곧음을 뒤엎도록 내버려 둘 때 그것은 너무 추한 더럽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보라, 이것이 이유다" 하고 잘 말할 것입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거짓입니다. 그러니 재판관들이 그렇게 두 마음을 품고, 바람마다 굽는 갈대처럼 사람들이 그들을 구부리며, 그들이 무엇인지 모를 것을 들은 것으로 충분히 여겨 그것을 먹고 지내고, 아무 기초도 견고함도 없다면, 묻건대 그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이기를 그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속는 것을 반가워하고 어떤 핑계와 꾸밈을 가지는 것보다 더 바라는 것이 없는 많은 사람을 볼 뿐 아니라, 그들

자신이 거짓의 변호인이 되어 와서 권리를 뒤엎으려고 뒤섞음을 가져오는 것을 볼 것입니다. 보십시오, 아주 깨끗한 소송이 있어서 어린아이들이 거기 앉아 있다면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 사실대로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재판관들이 무엇인지 모를 의심을 가져올 것입니다. 소송은 참되고 그 자체로 충분히 분명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모든 것을 헝클어 놓으려고 무엇인지 모를 것, 흔히 말하듯 허튼소리를 가져올 것입니다. 말하건대 재판관들은 소송 대리인이나 변호인이 와서 자기 거짓과 사건 전체를 꾸밀 나쁜 것들을 가져오기를 기다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CO 565 그들 자신이 "어떻게?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다" 하고 말할 것입니다. 아주 분명하고 명백한 좋은 소송 말고는 아무것도 없을 것인데, 그 사이에 그들은 모든 것을 뒤얽어 혼란스럽게 하려고 거기에 자기 거짓을 가져올 것입니다. 요컨대 거기서는 어린아이들조차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추한 뻔뻔함만 보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분이 사람들이 그렇게 당신의 위엄을 비웃고 당신 이름에 바치신 거룩한 자리를 더럽히는 것을 견디시겠습니까? 결코,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재판의 자리를 차지한 자들이 무서운 셈을 해야 하고, 그들이 경솔하게 판단하지 않도록, 그리고 "어리석은 재판관에 짧은 판결 "이라는 속담을 증명하지 않도록 깨어 살피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무서운 저주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봅니다. 오히려 그들은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려고 애써야 하고, 그들이 사정을 알아보지 않아서 진실을 알지 못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늘 하나님 앞에서 단언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실제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무관심이 그렇게 혹독하게 벌을 받고, 그렇게 돛을 내려 버린 자들이 하나님의 손을 피할 수 없다면, 악한 양심으로 뇌물에 타락하고 호의나 미움에 사로잡혀서 들짐승처럼 덤벼들어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뒤엎는 자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더는 자기가 어

디에 서 있는지 모르고, 재판에 피난처를 구할 때 거기가 강도 소굴 같다면 말입니다. 묻건대 거기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얼마 동안 못 본 체하신다 해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런 깨어 있음을 요구하시니 재판을 집행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저마다 개인으로서도 할 수 있는 한 선과 악을 살펴서 우리 이웃을 해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새깁시다. 우리가 공적인 판결을 선고하는 재판관은 아니라 해도, 우리가 이웃을 잘못 판단할 때, 그리고 잘 알지 못해서 여러 방법으로 그들을 해칠 수 있을 때 우리는 자주 그들에게 잘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거짓에 속지 않고 그 때문에 누구에게 잘못하지 않도록, 진실을 알고 살피는 데 공부를 잘 기울입시다. 그 밖에 욥은 모든 재판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슬기와 조심을 다룬 뒤에, 그들에게 꼭 필요한 또 다른 덕을 덧붙입니다. 곧 양심의 온전함입니다. 그들이 모든 모욕과 폭력에 맞서고, 누구에게 어떤 모욕이 행해지는 것을 할 수 있는 한 고치지 않고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CO 566 그래서 욥은 자기가 악인의 턱뼈를 부수고 그 이빨 사이에서 먹이를 빼앗았다고 단언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재판관들과 위정자들이 악에 맞서지 않고는 그것을 견딜 수 없을 만큼의 굳셈을 가지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덕도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대범해도, 미움을 사면 많은 어려움에 빠진다는 것을 볼 때 그것이 그를 주춤하게 하고 식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물론 말하건대 이교도들과 하나님이 무엇이신지 결코 알지 못한 자들에게서도, 그들이 무엇에도 굽히지 않고 권리를 지키려 했으며 부당하게 짓눌린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 도왔다는 본보기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본보기를 몇 가지 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것은, 당신의 이름을 내세우면서도 굽히거나 못 본 체하며 선한 자들이 짓눌리고 해를 당하며 이리가 양을 잡아먹도록 내버려 둔 자들에게서 모든 핑계를 없애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내가 이미 짚었듯이) 여기 이 덕과 꺾이지 않는 굳셈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러니 재판의 직무에 세워진 자들은 하나님께 잘 판단할 슬기를 주시기를 구하고 자기 의무를 다하고 짓밟힌 자들에게 손을 내밀려고 온갖 애를 쓴 뒤에, 폭력으로 남의 재산을 가로채고 가난한 사람들의 목을 밟으려는 자들에게 방패처럼 맞서야 합니다. 재판관들은 여기에 몸을 드려야 합니다. 물론 악인들이 고삐가 풀려 있고 아무도 그들에게 맞서지 않는 것을 볼 때 "내가 거기서 무엇을 하겠는가? 내게는 방법이 없다" 하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핑계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경박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아무도 나와 함께하지 않고 모든 것이 거기서 막혀 버리는 것이 보인다. 내가 내 의무를 다하려 하면 나와 함께해야 할 자들이 나를 버려두고, 악인 한두 명이 이빨만 드러내도 나는 떨며 어찌할 바를 모른다. 그러니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 나는 기꺼이 그것을 고치고 싶지만 혼자서는 할 수 없다." 이런 이유들은 사람들 앞에서는 어떤 그럴듯함을 지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밝혔듯이) 성령께서는 그 책임에 맡겨진 모든 자에게 공통의 과목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곧 그들이 악인들의 공공연한 원수임을 선언하고, 악인들이 미친 짐승처럼 이 사람을 잡아먹고 저 사람을 물려고 이빨을 갈아 둔 것을 볼 때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막고 그 앞을 가로막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신용과 권위를 거기에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CO 567 "나는 악인의 턱뼈를 부수고 그 이빨 사이에서 먹이를 빼앗았다"고 하는 것은 작은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위정자들을 세우실 때, 곧 사람들을 이 직무에 부르시고 당신 공의의 칼로 무장시키실 때, 그분은 동시에 그들이 선하고 죄 없는 자들을 지키고, 권리를 위해 나서며, 모든 모욕과 모든 악행과 모든 폭력에 맞서도록 그들을 매어 두신다는 것을 새깁시다. 이제 재판관이 "오, 나는 누가 옳고 그른지 알지 못했다" 하고 말한다면 그것은 누구 탓입니까? 먼저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구한 자들에게 슬기를 주시는 데 결코 모자라지 않으실 것이고, 그다음에 그들이 권리를 살피려고 충실히 수고할 때 그들의 수고에도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재판관들이 짓눌린 자들을 살피기는커녕, 사람들이 와서 하소연하여 그 소리가 허공에 울려 퍼져도, 그 사이에 손을 대어 고쳐야 할 자들의 귀는 막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모욕이 행해지는 것을 참고 견뎠다 해도, 그 악이 재판관에게 아주 잘 알려져 있다면 그는 핑계를 얻지 못합니다. 그는 "그가 하소연하러 오지 않았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악은 네 눈앞에서 저질러졌고, 그것을 바로잡는 것이 네 직무였는데 너는 그것을 셈에 넣지 않았다. 그러고도 하나님 앞에서 셈이 끝났다고 생각하느냐? 그런데 불쌍한 사람들이 하소연하고 와서 자기 권리를 일깨워도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없는 것이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아무 악도 없는 곳에서는 칼을 뽑아야 하고, 광기라 할 만큼 격렬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은 정의의 열심이다" 하고 말할 것입니다. 참 그럴듯합니다. 불쌍한 사람이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내버려 두면서, 그 사이에 아무것도 아닌 일에 온갖 엄격함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아무 이성도 맥락도 없는 너무 추한 뻔뻔함입니다. 모욕을 당한 불쌍한 사람이 하소연하여 자기 권리를 내놓으면, "오, 아무것도 아니다. 여드레 뒤에 오라." 그리고 그다음에 그 일을 너무 길게 끌어서 그가 지쳐 버리게 할 것입니다. 소박한 사람은 먹고살 지대와 수입이 없고 자기를 위해 뛰어다닐 사람이 없다면, 말하건대 손기술로 사는 사람은 아주 분명한 일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으려 해도 굶어 죽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잘못합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일이 아주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가 정당한 대우를 받고 싶습니까? 그는 지갑이 가득해야 하고, 가게 문을 닫고 반년 동안 놀 셈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아무리 쫓아다녀도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비웃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런 무질서를 봅니다. 그러니 그렇게 거룩한

직무에 세워진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셈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는 자기 결백을 내세울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가르침은 그들 때문에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말했듯이) 일들이 앞에 놓였는데도 그렇게 짓밟히고 짓눌린 자들을 도우려는 아무 열심도 없는 것을 볼 때, 살피는 것은 까마득한 일입니다. CO 568 그리고 악인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방종에 따라 대담하게 구는 것도 보입니다. 그들이 어떤 악을 저질렀는데 그것이 벌받지 않고 남으면, 그것은 마치 그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악을 행할 자유와 특권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쓰고 남용할 것입니다. 그 위에서 그들은 점점 더 이어 갑니다. 그 사이에 재판관은 "물론 그런 악이 저질러졌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악도 일어났으며, 너무 많아서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다" 하고 잘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처방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리가 공경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이 덕과 굳셈이 있어서 악이 억눌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자리가 공경받겠습니까? 그러하니 악인들이 사자나 곰이나 다른 들짐승이 될 만큼 그런 방종이 있다면, 거기서 하나님의 권위를 지닌 자들은 이렇게 알아야 합니다. "나는 내 주인을 섬겨야 한다. 그러면 나는 그것을 어떻게 다하겠는가? 내가 내 직무에 속한 것을 행할 때 그때 나는 그분을 내 편에 모시고 그분의 손에 붙들릴 것이다." 그러니 재판관이 생각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들짐승들에게 맞서고 그 이빨 사이에서 먹이를 빼앗으며 그 턱뼈를 부술 사자의 용기를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말투가 쓸데없지 않다는 것을 새깁시다. 요컨대 욥은, 아니 오히려 그의 입을 빌린 성령께서는 재판의 직무를 마땅히 행하려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들 손에 쥐여 주신 칼을 써서 악인들의 턱뼈를 부수지 않으면, 곧 엄격함과 단호함을 쓰지 않으면 결코 그것을 해낼 수 없으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려 했기 때문입니다. 재판관이 나약해서, 악행을 벌해야 할 때 "나는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모르겠다, 무엇이라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며 거기 서 있고, 일들이 뒤죽박죽일 때 그것을 바로 세울 대범함이 없다면, 오, 그는 분명 결코 자기 직무를 다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악인들의 턱뼈를 부순다고 말할 때,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칼을 주신 자들에게 너무 대담한 악인들을 거슬러 그것을 굳세게 쓰라고 일깨우신다는 것을 알아봅시다. 그리고 그들이 짐승 같으니, 칼을 받은 자들도 그들의 모든 폭력과 광기를 억누를 굳고 한결같은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 이 구절에서 우리가 새겨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으로 욥이 놓은 이 말을 새깁시다. 곧 그가 의를 옷으로 입었고, 공의, 곧 올곧음을 겉옷과 면류관처럼 가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는 허세가 아니라 덕으로 꾸며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신용으로 높이신 자들은 세상이 자기를 두 눈으로 마주 볼 자격도 없다고 여기고, 거기서 CO 569 공작처럼 날개를 펼칩니다. 보십시오, 오늘 높은 자리와 재판의 직무에 있는 자들의 꾸밈이 이러합니다. 거기서는 교만밖에 보이지 않고, 화려함과 허세밖에 없으며, 그들은 자기가 더는 죽을 사람이 아니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기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 의무를 충실히 다하려 애쓰는 사람은 의를 자기 옷으로 입고, 올곧음을 겉옷과 장식으로 삼는다고 합니다. 묻건대 예의만 생각하더라도, 사람이 누가 자기 옷과 겉옷을 벗겨 가서 흔히 말하듯 사과 따는 사람 꼴로 내버려 두는 것을 견디겠습니까? 춥지도 덥지도 않다 해도 그는 사람들 사이에서 점잖게 지낼 수 있도록 여전히 자기 옷차림을 간직하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사람의 옷을 벗겨서 비바람 속에 두고 얼어붙게 내버려 두거나, 더위 속에 내버려 두고 그의 옷을 갈기갈기 찢어 놓는다면, 그는 그것을 마음에 담아 두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의와 올곧음이 우리의 참된 꾸밈이고 우리가 입은 우리 옷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자기 의무를 다하는 데 충실히 처신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고, 그는 위로부터의 보호로

무장되며, 사람들 편에서 그에게 박수를 보내지 않았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를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이렇게 무장되고 꾸며져야 합니다. 곧 우리가 의와 올곧음을 간직하고 그것을 벗기거나 빼앗기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니 자주 사람들이 아첨이나 뇌물이나 위협이나 미움이나 다른 시험으로 우리에게서 이 옷과 의와 올곧음의 겉옷을 벗기려 애쓰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우리 수치와 추함을 드러내려 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벗지 않도록 잘 살핍시다. 그리고 그다음에 세상과 현재 삶에 관해서는 우리 자신을 추위나 더위에 내놓지 않도록,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가난이 닥치게 하시면서 그 사이에 우리에게 아무 도움도 없게 하시지 않도록 잘 살핍시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우리 옷을 벗기도록 내버려 둘 만큼 비겁했다면 그다음에 고난을 견디는 것이 아주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덮고 비를 막을 겉옷이 있었는데 나는 그것을 내팽개친다. 내 겉옷을 입을 생각도 하지 않는다면 나는 뼛속까지 젖고 꿰뚫려도 마땅하지 않은가?"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CO 570 우리가 잘 덮이도록 우리가 의로 옷 입을 때 당신이 친히 우리를 덮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밝히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서 의를 아무 값어치 없는 것처럼 내던지고, 그분이 그토록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이 올곧음과 공평을 귀히 여기지 않으며 바람에 날리듯 내던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우리 옷을 벗을 때, 묻건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치욕에 내놓으셔서 우리가 조롱받고 멸시받으며, 그다음에 모든 것을 빼앗기고 그분에게서도 사람들에게서도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게 되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 구절에서 우리가 새겨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는 결코 우리 의무를 그렇게 잘 다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말하건대 그렇게 높고 어려운 책임을 진 위정자들만이 아니라, 자기 집과 자기 자신만 다스리면 되는 사람들도 모든 일에서 어디서나 의와 올곧음으로 꾸며질 만큼의 완전함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두 가지 까닭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가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여기 담긴 것들을 우리 안에서 찾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선에는 더디고 악에는 가볍고, 우리 안에는 슬기도 분별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선지자 이사야 11장(2절 참조)에서 말하듯 슬기와 능력의 영이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그것을 길어 와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그리고 그분이 당신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실 올곧음과 슬기로 옷 입는다면,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서도록 마땅히 꾸며지고 단장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삶에서는 우리 안에 늘 불완전함이 있고 늘 흠잡을 것이 있을 것이니,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당신의 순전한 은혜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으시고, 그것이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용서되며, 그분이 우리 모자람을 채워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그분이 늘 우리 안에서 당신 성령의 은사를 점점 더 자라게 하시고, 우리 육의 모든 연약함과 썩음을 우리에게서 벗기시며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에 이를 때까지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엎드립시다.

제107편

욥기 29장 설교 4

CO 34:571–583

AI로 옮긴 초벌 번역입니다. 신학 감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CO 권: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 나는 말하기를, “내가 내 보금자리에서 죽고, 내 날을 모래알처럼 많게 하리라. 내 뿌리는 물가로 뻗고, 이슬이 내 곡식 위에 머물러 매우 풍성하리라. 내 영광은 새로워지고, 내 활은 내 손에서 굳세어지리라” 하였네. 사람들은 기다리며 내 말을 들었고, 내 의논에 잠잠하였네. 내 말이 끝나면 그들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고, 내 말은 듣는 자들 위에 비처럼 방울져 내렸네. 그들은 이슬을 기다리듯 그것을 기다렸고, 바라던 비를 기다리듯 입을 벌렸네. 내가 그들과 함께 웃어도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고, 내 얼굴빛을 떨어뜨리지 않았네. 내가 길에 나서면 나는 첫자리에 있었고, 군대와 함께 있는 왕처럼, 괴로움당하는 자들의 위로자처럼 그들 가운데 있었네. (욥 29:18–25)

CO 571 욥은 자기 덕과 하나님께서 자기 안에 두신 은혜로 얻은 권위를 말한 뒤에, 이제 자기 형편이 영원할 것처럼 보였다고 덧붙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는 자기가 세상의 뜻을 거스르다시피 하며 다스리고 늘 의심과 흔들림 속에 있는 자들과 같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우리가 보듯 거짓 간판으로 어떤 권위에 오른 자들은 한창 세력을 떨치고 온 세상이 그들 아래서 떨겠지만, 바람이 바뀌기만 하면 세상의 아주 작은 변화도 그들을 짓눌러 버릴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두려움을 받지만 미움을 받고, 그들에게 아첨하는 자들은 그들이 망하는 것을 보기만을 바랍니다. 요컨대 거기에는 아무 기초도 없습니다. 그런데 욥은 자기가 사흘만 가는 들뜬 신용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너무나 잘 세워져 있어서 사람들이 그

의 처지가 결코 바뀌지 않으리라고, 그가 사방으로 붙들려 있다고 말했을 정도였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이것이 그의 의도입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너무나 괴롭게 하셔서 그는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피조물이 된 것을 봅니다. 그러니 그가 더는 견딜 수 없을 만큼 고뇌한다 해도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는 결코 기대하지 못했을 재앙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때로 말이 지나치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 도를 넘고 지나친 것입니다. 그러니 그에게 닥친 고난이 헤아릴 수 없고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것이었음을 생각하면 그것을 이상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늘 경계하도록 가르침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행복을 보내시면 우리가 거기서 너무 잠들지 말고, CO 572 이 죽을 삶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변화에 매여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모든 뒷배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온 세상이 우리에게 호의를 보이고 우리를 받쳐 줄 어깨가 십만 개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래도 여기 아래에는 견고한 것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덧없으며, 손바닥만 뒤집으면 모든 것이 바뀌고 가장 높이 오른 자들이 무너져 내리리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말하건대 이 구절에서 우리가 거두어야 할 경고가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필요한 가르침입니다. 사람이 행복한 처지에 있을 때 늘 그 처지에 머물리라고 스스로 믿는 것보다 쉬운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윗조차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내가 편안할 때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으리라고 말하였다"(시 30:6).[66] 물론 그는 시편 10편(6절)에서 이것을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들에게 돌립니다. 그들의 행복을 말하면서, 그들은 온 세상이 뒤집혀도 자기는 서 있으리라고, 자기가 너무나 잘 무장되어 있다고 스스로 믿는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과 불신자들은 이렇게 자기 힘을 믿고 주제넘게 굴며, 아무것도 자기를 해칠 수 없을 만큼 사방으로 잘 무장되

66. 원문에는 "시편 30편 7절"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어 성경 절수로는 6절입니다.

어 있다고 여깁니다. 성경 전체도 그런 교만을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내가 인용한 구절, 곧 시편 30편에서 자기 자신을 두고,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형통하게 하시며 그가 자기 모든 원수 위에 있는 것을 볼 때 자기가 잠들어 버렸고, 그때 그런 형편에서 결코 움직이지 않으리라고 셈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러나 주여, 주께서는 나를 그렇게 높이신 것이 오직 주의 기쁘신 뜻의 은혜였다는 것을 경험으로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주의 손을 느끼자마자 나는 완전히 혼란에 빠진 형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하나님의 자녀들조차, 불신자들에게 있는 그런 주제넘음으로 부풀어서 (흔히 말하듯) 자기 행운에 취하지는 않더라도,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스스로 약속하는 것을 억제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그들은 이 좋은 시절이 늘 이어지고 자기 형통이 결코 끝나지 않으리라고 상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악으로 기울어 있고 다윗조차 거기서 완전히 깨끗하지 못했으니, 우리 자신을 재촉하는 것 말고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 악을 짚으면서 처방도 보여 줍니다. 그는 말합니다. "주여, 내 견고함과 CO 573 내 나라의 견고함은 오직 주의 선하심에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좋은 것이 거기, 곧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 안에는 확실하고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결론 내릴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부르면서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보내기를 기뻐하실 것을 그분 손에서 기다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당신의 선하심을 이어 가시리라고 소망하면서도, 그분이 우리를 낮추시고 고난으로 우리 인내를 훈련하려 하실 때를 준비하기를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늘 거기에 준비되어 있을 것이고 그것을 낯설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 밖에 다윗이 자기가 흔들렸다고 말하는 것을 잘 새깁시다. 왜 그렇습니까? 완전히 졸고 있는 사람을 덮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손에 괴로움을 당할 때 그런 혼란에 빠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미리 거기에 준비되어 있어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 주시는 모든 변화를 내다보고, 우리 저마다 파수를 잘 서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 담긴 가르침이 우리에게 아주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곧 욥이 이 비유를 쓰듯 우리가 우리 보금자리에서 죽으리라고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움직이기를 기뻐하시면 가지 위의 새처럼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자였는데 그분이 우리를 가난하게 하려 하실 때, 우리가 큰 영예와 높은 자리에 있었는데 그분이 우리가 치욕 속에 있고 온 세상이 거의 우리를 비웃을 만큼 업신여김을 받기를 원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인내로 받아야 하고, (내가 말했듯이) 타격이 오기 전에 거기에 준비되어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 그런 식으로 우리를 찾아오실 때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그리스도인의 처지가 움직이는 것이니 우리는 이 경고를 받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와 자기 동료들이 정처 없이 지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고전 4:11). 그가 그 말을 쓰는 것은 우리가 한결같아서는 안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굽히지 않기로 굳게 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겉으로 보이는 형편에 관해,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가 움직여야 하고 우리에게 아무 정처도 없어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으니, 저마다 주인 없이 셈하지 않도록, 그리고 늘 이렇게 머물리라고 스스로 믿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자기가 자기에게 줄 수 없는 것을 스스로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어떤 형통을 가지든 그것이 확실하거나 머무는 처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군주가 어떤 영지를 소유나 유산으로 주지 않고 "나는 그대가 내 기쁜 뜻에 따라 그것을 누리기를 원한다" 하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CO 574 하루하루만 그것을 가지고, 군주는 그렇게 조건을 걸어 둔 그 증여를 자기

좋을 때 거두어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살아서나 죽어서나 누린다는 조건이 아니라 오직 그분이 좋게 여기시는 동안만 누린다는 조건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한지도 아십니다. 이것이 첫째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우리를 움직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거기 너무 오래 웅크리고 있게 내버려 두신다면 분명 우리는 거기서 녹슨 것처럼 되고 많은 군더더기를 끌어들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움직이십니다. 곧 우리 형편을 바꾸시고, 우리를 괴롭게 하시며, 우리를 가난하게 하시고, 우리를 높이신 뒤에 쓰러뜨리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재물 사이에 휘감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늘 이 하늘의 삶을 지향하지 않을 만큼 미련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구절에서 우리가 간직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 밖에 우리 저마다 세상에서 보는 뒤바뀜을 바라보며 자기를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거기서 유익을 얻을 줄 알도록 그것을 보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무도 바라거나 기대하지 못했던 일을 볼 때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큰 신용에 오른 사람이 있어서 아무것도 그를 거스르지 않고, (흔히 말하듯) 순풍을 받으며, 재물을 많이 모으고, 친구가 더할 나위 없이 많으며, 좋은 집안과 맺어졌고, 끝없이 많은 지지자를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쓰러뜨리시려고 손을 얹으실 때 그가 넘어지는 것을 본다면, 그때 우리는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봅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는 확실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우리에게 밝히신다는 것을 알아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날개 아래 숨으러 오고, 그분이 우리에게 고난을 보내려 하실 때 그것을 받을 준비를 하며, 어떤 넘어짐이 있다면 우리가 오래전부터 미리 생각해 두었으니 너무

놀라거나 혼란에 빠지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때로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도시들과 나라들과 왕국들에도 뒤바뀜을 일으키십니다. 자기를 너무 내세워서 사람들이 그들이 구름 위로 높아졌다고 여겼던 그 대단한 궁정 사람들이 있을 때, 그렇습니다, 거기서 무너짐을 본다면 그것은 이미 크고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미 말했듯이) 도시나 나라나 왕국까지, 처방이 너무 많아서 다가갈 수 없는 것처럼 여겨졌던 것이 갑자기 쓰러지는 것을 본다면, 말하건대 그 모든 것이 쓰러지는 것을 본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런 거울을 우리 눈앞에 두셔서 우리 저마다 자기 연약함을 그만큼 더 잘 생각하고, 어떤 주제넘음이나 CO 575 헛된 신뢰 속에서 잠들지 않게 하신다는 것을 알아봅시다. 그러니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이 구절에서,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온 삶에서 주시는 경험에서 유익을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욥은 자기가 한 말을 나타내려고 여러 비유를 씁니다. 곧 이슬이 늘 자기 곡식, 또는 자기 가지 위에 머물리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둘 다를 담고 있고 모두 하나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자기 날을 모래알처럼, 모래처럼 늘리리라는 것, 곧 셀 수 없이 늘리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자기 영광이 새로워지고 자기 활이 꺾이지 않으리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부활의 소망으로 받아들이지만, 전체 흐름을 보면 욥이 현재 삶의 형편을 다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렇게 높이 올라가서 너무 영리한 주해를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내가 이미 가져온 자연스러운 뜻으로 만족합시다. 곧 욥이 여기서 자기 형편이 너무 잘 세워져 있어서 그것이 지금처럼 그렇게 비참한 처지로 떨어진 것을 보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말했듯이) 이 정황은 많은 사람을 크게 놀라게 할 만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변화를 볼 때 속으로 따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높은 산들 위에 벼락을 치시고, 이 거물들의

머리를 치시는가? 그것이 가능한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기서 당신의 능력을 밝히셔서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 믿지 않고, 온전히 그분께 자기를 맡기며, 오직 그분의 선하심에만 기대고 자기 상상으로 아무것도 스스로 약속하지 않기를 배우게 하려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만큼 더 우리는 이 정황을 잘 새겨야 합니다. 곧 욥이 하루나 이틀이나 사흘, 또는 어떤 짧은 기간만 높아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든 위험에서 완전히 면제되어 더는 어떤 불운에도 노출되지 않은 것처럼 보였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손이 그를 너무 혹독하게 쳐서 그가 거기서 완전히 일그러진 모습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에게 눈여겨 볼 거울을 주려 하셨다는 것을 알아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늘 파수를 서고, 하나님을 부른 뒤에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고난을 보내기를 기뻐하실 때 우리가 그렇게 내다보았으니 그것을 참고 받을 수 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 안에 어떤 덕이 있든,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닥칠 때 그것이 우리를 더 화나게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를 넉넉히 베푸시고, 심지어 그것을 마땅히 잘 쓰도록 당신의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셨다면, 우리가 몸으로는 약해지고 완전히 쓰러졌다 해도 그것이 우리를 인내 속에 굳게 세우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봅시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CO 576 와서 당신 성령의 능력을 펼치셔서 우리를 붙드실 것을 압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험과 싸우고, 그분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더 커진 만큼 우리가 얻은 승리가 그만큼 더 영광스럽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욥은 앞에서 이어 온 말을 계속합니다. 곧 그가 헛된 명성으로가 아니라 자기 슬기와 위엄으로, 그리고 저마다 그를 공경할 만큼 자기를 다스린 것으로 얻은 그 큰 권위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 특히 그는 자기가 온 세상에게 말을 들었다고, 그것도 사람들이 그의 말을 기다리고, 목마른 사람이 입을 벌리듯 저마다 입을 벌리고 있을 만큼 들었다고 말합

니다. 또는 땅이 몹시 마르면 우리가 보듯 갈라져서 마치 마실 비를 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욥은 그렇게 되었다고 밝힙니다. 곧 그가 비와 이슬 같았고, 그의 말을 듣고 귀 기울인 모든 사람이 그의 말에 목말라했으며, 그가 말하는 것을 들은 자들은 그의 말을 돌이킬 수 없는 판결처럼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특히 우리에게 밝히는 것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그렇게 혹독하게 괴로움을 당한 욥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다고 그분께 불평하고 그분을 잔인하다고 고발하려고 하소연하지 맙시다. 욥이 거기서 무엇을 얻었는지 우리가 보기 때문입니다. 곧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징계에 대들려 할 때 그는 지고 부끄러움을 당한 채 남았습니다. 그런데도 그에게 어떤 거룩한 삶이 있었고 어떤 완전함이 있었는지 보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실 때 그분이 늘 의로우시리라는 것을 배웁시다. 그리고 우리를 욥과 견주어 보면 우리는 아직 그런 완전함에 근처도 가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우리보다 더 혹독하게 매를 맞았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모든 겸손과 인내로 그 타격을 받는 것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것이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여기서 욥의 인격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실히 가르칠 수 있도록 보내시고 이끄시는 자들에게 우리가 어떤 공경을 드려야 하는지 봅니다. 그는 사람들이 기다리며 자기 말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거기서 그는 사람들이 자라려는 이 바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그리고 본성이 그들을 부추겨 자기를 기르려고 먹고 마시기를 바라게 한다면, 그들은 자기 영혼의 꼴, 곧 짐승들과 달라지도록 선을 알고 가르침을 받는 것을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유지하는 데 유익하다고 아는 것은, 그것을 바라라고 가르치는 선생이나 스승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로 재촉하거나 CO 577 그것을 기억나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말했듯이) 저마다 먹고 마시기를 잘 바랄 것이고, 저마다

입을 것을 구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우리 생명에 관계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가장 뛰어난 부분은 영혼이 아닙니까? 그러면 영혼은 어떻게 길러져야 합니까? 먹고 마시는 것으로가 아니라, 그 본성에 알맞은 것이 있습니다. 곧 우리가 이성과 지성을 가져서 우리 삶이 짐승 같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피조물이라는 것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구절에서 우리에게 보여 주는 것은, 우리가 너무 멍하지만 않다면, 우리 안에 이성이 한 방울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늘 사람이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아는 데 자라도록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받은 뒤에 그 안에서 점점 더 굳게 세워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들으려 하지 않는 무관심한 사람들을 많이 보고, 가르침을 업신여기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것을 미워하며 할 수 있는 한 거기서 빠져나가는 다른 사람들도 봅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람 축에 들 만합니까? 결코 아닙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짐승들과 다른 점은 우리에게 어떤 분별과 판단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선과 악을 분간하는 깨달음의 씨앗을 두셨다 해도, 우리 정신에는 그런 거칠음과 연약함이 있어서 우리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랄 수 있는 모든 도움을 가진다 해도 우리 안에 있는 모자람이 여전히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 주시는 모든 좋은 것을 우리가 거부하는 것은 우리가 짐승보다 더하기 때문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 사람이 자기 창조의 목적과 자기가 왜 이 세상에 사는지 안다면, 그는 늘 자라도록 움직여질 것이고 거기에 공부를 기울일 것이며, 따라서 방편이 그 앞에 올 때 결코 거절하지 않으리라고 결론 내려야 합니다. 그는 이렇게 알 것입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치려 하신다. 그러니 나는 그분께 가르침받기 쉬운 자가 되어야 하고, 내 구원에 좋고 유익한 대로 내게 내놓인 그분의 가르침을 들어야 한다.” 모든 사람 안에 있어야 할 바람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게으름을 살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데, 좋은 정신과 슬기를 가진 어떤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분 자신이 선생 노릇을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눈에 보이는 몸으로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으신다 해도, 우리에게는 그분의 율법과 선지자들과 복음이 있어서, 거기서 말씀하시는 분이 그분이시라는 틀림없는 인증과 증언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 CO 578 하나님께서 죽을 사람들을 도구처럼 쓰시면서도 우리를 가르치시려고 당신의 거룩한 입을 여시니, 묻건대 우리가 그분의 학교에서 자랄 생각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너무 배은망덕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일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봅니다. 그러하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꾸짖으시는 것에 관해 여기서 보여 주는 이 과목을 잘 간직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유대인들을 그렇게 꾸짖으셨습니다(마 16:2–3). “위선자들아, 너희는 계절을 분간할 줄 알고, 해가 언제 땅에 힘을 주어야 하는지 알며, 너희 일을 처리하려고 날씨가 언제 맑고 좋아야 하는지 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우리 영혼에 알맞은 것을 알지 못합니까? 우리가 이 삶에 빠져 있으니, 우리가 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때 비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 이제 땅이 젖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는 더위가 필요하고, 맑은 날씨가 필요하고, 이것저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 일시적인 삶의 편의에 관한 것을 너무 잘 이야기해서 그 점에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 말씀을 보내시는데, 우리는 그분이 찾아오시는 알맞은 때를 알지 못하여(눅 19:44 참조), 문이 열렸을 때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분이 사방에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는 들어갈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 밖에 욥이 자기 말이 비나 이슬처럼 바라던 것이고 기다리던 것이었다고 말할 때 이 비유를 까닭 없이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새깁시다. 모세도 자기 노래에서 그것을 씁니다(신 32:2). 그는 말합니다. “하늘이여,

내 말이 때를 따라 내리는 이슬이나 비처럼 방울져 내리게 하라."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려면 비를 그 자체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쓰임과 유익을 살펴봅시다. 비는 어떤 데서는 괴로울 수 있습니다. 들판을 다니다가 젖어서 뼛속까지 꿰뚫리는 사람들에게 그렇습니다. 또 사람들을 집 안에 갇혀 있게 하니 모든 사람에게 괴로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때맞은 비는 우리에게 양식을 주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땅을 적셔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가 바랄 만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편에서는 우리가 땅보다 훨씬 더 메마르다는 것을 알아봅시다.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온갖 나쁜 풀밖에 낼 수 없다는 데서 드러납니다. 물론 악에 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기름집니다. 그러나 선에 관해서는 우리는 밀 한 알, 좋은 풀 한 포기도 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먹이고 기를 좋은 열매를 가져올 수 있기는커녕, 하나님께서 우리 본성을 바꾸시기 전까지는 좋은 씨앗 한 톨도 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선을 두셨습니까? 그분은 그것에 물도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가시에 숨 막히거나 변질될 것입니다. 그러니 CO 579 우리 주님께서 거기서 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쓰시려는 방법이 이것입니다. 곧 그분은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비처럼 보내셔서, 우리가 그렇게 적셔지며 그 능력과 힘이 어떠한지 느끼고, 그분이 우리 안에 두신 좋은 뿌리가 망하지 않고 점점 더 자라서 싹을 내고 좋은 열매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 밖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위에 비를 내리실 때 우리가 돌이나 바위 같지 않도록 살핍시다. 비는 잘 일구어진 땅에는 유익할 것입니다. 그러면 바위에는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버려진 비입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구어져 있고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며 굽히려는 감정을 가졌다면, 그분이 당신의 말씀을 비처럼 내리실 때, 오, 분명 그것은 우리 마음에 들어올 것이고, 우리는 선을 향해 더 잘 준비되도록 그 능력을 느낄 것이며,

선행이 우리가 헛되이 적셔지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버려지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보여 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저주받은 본성에 늘 머물려는 악하고 비뚤어진 많은 사람처럼 된다면, 우리는 바위 같을 것입니다. 우리 위에 비가 내릴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비를 받을 아무 준비도 없을 것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아주 비싼 값을 치르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파되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우리 위로 흘러내리게 하실 때 그것이 그분이 보내시는 비라는 것을 알아봅시다. 우리가 그것을 허공으로 흘려보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배은망덕이 벌받지 않고 남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리라는 것을 새깁시다.

그러니 욥이 자기 말이 비와 이슬처럼 기다려지고 바라던 것이었다고 말할 때 쓰는 이 비유를 우리가 이런 목적으로 돌려야 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 보내시는 좋은 가르침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온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죽을 사람에게서 듣는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보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적셔 주시기만을 바라십니다. 무슨 뜻으로 그러십니까? 우리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여기 덧붙이듯 우리가 곧바로 좋은 씨앗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욥은 자기 말이 바라고 기다리던 것이었다고만 말하지 않고, 사람들이 동시에 크고 뜨거운 감정으로 그것을 받았으며 그 다음에 거기에 아무 대꾸도 없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기를 기뻐하시고, 그렇게 하시려고 그분 성령의 은혜를 받아 우리가 그 아래서 자랄 수 있는 알맞은 사람들을 일으키실 때, 그들이 말할 때 우리는 모든 공경을 다해 그들의 말을 듣고 아무 억지 없이 좋은 가르침에 동의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영들을 시험해야 하고(요일 4:1 참조), CO 580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확신하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내놓는 모든 가르침을 함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때, 곧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입을 통하듯 가르침을 받는다는 확신을 가질 때, 오, 대꾸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확신하고, 거기에 우리를 맞추며, 그것이 우리 가운데서 제 길을 가고 권위를 가지게 하는 영예를 그분께 돌려 드립시다. 물론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도록 내버려 두는 것으로 만족하고, 자기가 좋다고 아는 것을 내놓을 때 그것에 발길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들은 자기 삶에서 그것에 거스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당신의 백성인지 아닌지 시험하려 하시는 곳이 거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꾸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께 순종하는 것보다 좋은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고백을 했습니까? 저마다 자기 집에 돌아갔을 때 자기가 그 가르침을 간직했고 그것을 좋다고 인정한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자기가 고백한 것과 거꾸로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은 갑절로 정죄받아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불의가 완전히 드러났을 때보다 몰래 훨씬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듯, 하나님께 대꾸하는 것도 입으로만이 아니라 삶으로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복음이 가르치는 대로 살지 않을 때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께 충분히 대꾸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자기 이웃을 괴롭히고, 드러내 놓고 그에게 맞서 일어나 어떤 폭력을 행할 때, 분명 그런 모욕은 견딜 수 없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더디셔도 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잔꾀로 말하자면 땅 밑에서 우리 이웃을 해치려 애쓰고, 우리 간계가 너무 잘 덮이고 감추어져서 사람들에게 책망받을 수 없고 (보기에) 아무도 우리를 하소연할 수 없을 때에도, 보십시오, 그 사이에 우리가 그렇게 몰래 저지른 착취에 대해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께 원수 갚기를 구하는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좋고 거룩한 가르침으로 듣고, 우리 영혼의 참된 꼴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과 우리가 지향하는 구원으로

이끄는 방편으로 받아들이는 공경을 그것에 드렸다 해도, 그다음에 저마다 자기 삶으로 대꾸하지 않도록 자기를 살펴야 한다는 것을 잘 새깁시다.

그런데 이제 세상에서 이 덕을 얼마나 찾을 수 있는지 조금 살펴봅시다. 보십시오, 욥은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직 아주 어두웠던 때를 말합니다. 그가 모세의 율법 뒤에 살았는지 앞에 살았는지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CO 581 그가 선지자들보다 더 오래된 사람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선지자들이 그를 말할 때 옛적에 살았던 사람처럼 말하기 때문입니다(겔 14:14 참조). 그러하니 묻건대 오늘 세상은 그때보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데 더 몸을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말했듯이) 그때는 가르침이 아주 어두웠고, 하나님께서는 밤에 작은 이슬이 내리듯 방울방울 그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오늘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시는 이 넘치는 은혜에 비하면, 흔히 말하듯 손가락 끝으로 맛보는 정도로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복음에서 우리는 지혜와 지식의 끝없는 보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밀하게 당신을 밝히시며, 우리가 그분 가르침의 모든 완전함으로 채워지고 배부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더할 나위 없이 분명하고 확실한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욥이 말하는 그 공경은 어디 있습니까? 그 바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다정한 순종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내가 이미 짚었듯이 우리는 업신여김을 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가르침이 전파됩니까?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오히려 대부분은 자기 상상과 땅의 염려에 사로잡혀 있거나, 그 안에 하나님께 문을 닫는 무엇인지 모를 것을 가지고 있거나, 가르침에 발길질하며 고집 센 말처럼 굽니다. 그들은 의례로만 설교에 올 것이고, 돌아갈 때도 올 때와 같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공경은 아주 적은 수의 사람에게서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온전히 거기에 자기를 맞추는 것은 아주 드문 덕입니다. 저마다 지혜롭고 영리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식으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성경을 알지

않으려고 그렇습니다. “오, 그렇지만 내 생각에는 이렇고 저렇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자기 생각을 내놓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것이 교황주의자들의 신앙의 주된 조항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마귀보다 더한 이 교만 속에서 자기를 귀히 여기셔야 한다고 여기고, 사람들이 자기가 상상한 모든 것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입으로 그렇게 드러내 놓고 신성을 모독하지 않는 자들도, 그들이 하는 일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께 반역하는지 보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복음에서 지혜의 모든 완전함을 펼치시고, 그렇게 친밀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우리를 온전히 배부르게 하려 하시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가 그분 말씀에서 아무 맛도 느끼지 못하고, 모든 것을 업신여기며, 그것이 우리에게 풀이될 때 거기에 맞서려 애쓰고, 심지어 우리 행위로 그것을 깎아내리려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악할 때, 욥의 말을 들은 자들이 우리를 거스르는 증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와서 자기가 욥에게 드린 순종을 들어 우리를 꾸짖지 않겠습니까? 욥은 분명 CO 582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에게 주신 것만큼의 소명의 증언을 가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하니 이 구절을 잘 새깁시다.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 곧 오늘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가 그 직무에서 세례 요한보다, 그리고 모든 선지자보다 더 뛰어나다고 하듯이(마 11:11 참조),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가르침을 우리가 업신여긴다면, 그분이 그것을 그렇게 공경하라고 명하시니 분명 우리는 갑절로 유죄가 될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새겨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욥이 그들과 함께 웃어도 그들이 그것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말로 그는 자기에게 그런 위엄이 있어서 사람들이 감히 그가 농담한다고 믿지 못했다는 뜻을 나타냅니다. 그가 평생 하나님의 선지자로 나타났고 그렇게 큰 권위를 얻어서, 사람들이 그에게 드리는 그 공경

때문에 그가 다른 사람들과 같아지거나 그들의 동료가 되려 한다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는 덧붙입니다. "그들이 내 얼굴빛을 떨어뜨리게 하였다." 곧 "그들이 나로 기쁜 내 얼굴을 감추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가 기뻐하는 것을 보았어도 어떤 식으로든 그를 언짢게 할까 두려워서 감히 그를 따라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한 말을 더 굳게 해 줍니다. 성령께서는 거울처럼 그때 온 백성이 뛰어난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어떤 공경을 드렸는지 보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안에 거하시던 같은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그가 웃을 때 사람들이 감히 그를 따라 하지 못하고 그를 언짢게 할까 두려워할 만큼 그를 공경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드려야 할 순종을 보여 주고, 가르침이 우리 구원을 위해 그분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알 때 우리가 그것을 귀히 여기고 공경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 주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욥은 그렇게 자기를 공경하고 왕처럼 첫자리를 내어 준 사람들과 자기가 어떻게 지냈는지도 보여 줍니다. 곧 그가 괴로움당하는 자들의 위로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자기 편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이 권위를 남용하여, 에스겔(34:4)에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처럼 다스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목을 밟을 만큼 지나치게 엄격하고, 벼락을 치며 사납게 굴지만, 그 사이에 그들 안에는 아무 인정도 없고 괴로움당하는 자들에게 손을 내밀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욥은 자기가 폭군 같은 위엄, 곧 불쌍한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CO 583 겁주는 비정한 높음을 가지지 않았다고 밝힙니다. 오히려 그가 그들에게 친근하게 나타났지만 그들은 그를 두려워했고, 그가 하나님의 영을 넉넉히 받았다는 것을 알았으니 감히 그와 함께 장난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그가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고 인정 있었듯이, 그것이 하나님께 부름받아 자기 이웃을 가르치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일반적으로 모든 신자에게 저마다 자기 자리에서 과목이 된다는 것을 알아봅시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권위를 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성령으로 채우셔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영예로운 자가 된다면, 오, 높아지거나 다스림을 가로챌 일이 아닙니다(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을 비뚤게 하여 그분의 의도와 완전히 거꾸로 돌리는 것일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 불쌍한 괴로움당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려고 우리를 쓰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곧 온 겸손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구할 자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 말을 들으며 기뻐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업신여기는 악인들에게는 그들의 멸망을 선언하니 미움을 받듯이, 자기 안에서 쓰러져 있고 오만이나 교만이나 반역으로 높아지지 않으며 늘 낮아져 있는 자들, 요컨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제자는 그분의 가르침으로 기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대로입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는 너희 모든 사람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가볍게 하리라“(마 11:28 참조).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책임을 맡은 자들은 이 점을 잘 살펴야 합니다. 곧 자기 가난과 비참을 알아 자기 안에서 짓눌리고 삼켜진 것 같은 모든 사람에게 자기가 가져오는 가르침이 달콤하고 다정하게 느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그들이 엄하게 군다면, 그것은 자기 안에 있는 굳음 때문에 엄하게 다루어지고 길들여져야 할 자들에게 그래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엎드립시다.

제108편

욥기 30장 설교 1

CO 34:584–596

AI로 옮긴 초벌 번역입니다. 신학 감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CO 권: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 그런데 이제는 나보다 나이 어린 자들이 나를 비웃네.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내 양 떼를 지키는 개들과 함께 두기도 싫어하던 자들이었네. 그들의 손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었겠는가? 그들에게는 기력이 다 없어졌네. 그들은 궁핍과 굶주림으로 메말라 쓸쓸하고 어둡고 황폐한 광야로 달아났네. 그들은 나무 곁에서 풀을 뜯었고, 노간주나무 뿌리가 그들의 먹을거리였네. 그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났고, 사람들은 도둑을 쫓듯 그들 뒤에서 소리쳤네. 그들은 강의 틈과 땅굴과 바위 속에 살았네. 그들은 나무들 사이에서 울부짖고 덤불 아래 모여들었네. 어리석은 자의 자식들, 이름 없는 자의 자식들이 땅보다 더 낮아졌네. 그런데 이제 나는 그들의 노래가 되었고 그들의 이야깃거리가 되었네. 그들은 나를 꺼려 멀리 피하고, 서슴없이 내 얼굴에 침을 뱉네. (욥 30:1–10)

CO 584 우리는 욥이 한때 누리던 영예를 보았습니다. 그가 그것을 이야기한 것은, 지금 그가 처한 치욕과 견주어서 그것으로 자기가 슬퍼할 까닭이 더 크다는 것, 그리고 전에 자기를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던 자들에게 끝까지 그렇게 멸시당하는 것을 보는 것이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이라는 것을 보여 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높은 자리와 큰 지위에 올랐다가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을 보면 그것이 훨씬 더 그를 괴롭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는 자기에게 남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떨어져 나온 뛰어난 형편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들판의 제 집에서 살았고 영예나 화려함에 한

번도 젖어 보지 않은 가난한 사람은, 사람들이 그를 비웃든, 그를 존중하지 않든, 그의 인격에 어떤 멸시의 표시를 보이든 다 매한가지입니다. 소박하게 살아온 착한 사람들도 그것 때문에 그렇게 언짢아하지 않고 넘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즐거움 속에서 길러진 사람, 재물이 넉넉하여 사람들이 그를 어느 정도 존중하던 사람은 어떤 치욕도 견디지 못하고 치명상을 입은 듯 아파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의 얼굴에 대고 욕을 하지 않더라도, 그를 내치거나 업신여기려는 어떤 에두른 방식이 있으면 그는 그것 때문에 분해합니다. 보십시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곧 영예를 누리던 자들은 자기 인격이 업신여김을 받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CO 585 그것 때문에 훨씬 더 언짢아합니다. 욥이 여기서 밝히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드리던 공경, 곧 어디서나 사람들이 자기 말을 들었고, 그것도 부자라는 칭호와 자격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보다 정신과 슬기를 주셔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기댈 수 있었고, 자기가 평생 모든 덕의 거울이요 본으로서 사람들이 본받을 만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조롱받고 저마다 자기를 손가락질하는 것을 보니, 그것은 그가 한 번도 그렇게 높아진 적이 없었던 경우보다 지기에 훨씬 더 무겁고 쓰라린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좋은 가르침을 거두어야 합니다. 곧 사람이 즐거움 속에서 길러지면 자주 거기서 너무 연약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늘 영예 속에 지내서 아무도 우리를 언짢게 하지 않고, 우리 귀를 긁어 주기보다 간질이는 말만 듣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무엇보다 우리 인격이 비난받을 때 인내하고 우리 악을 알아보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영예를 드리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내친다면, 그것은 우리가 모든 영예가 속한 우리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우리 머리 위에 그런 치욕의 값을 받는 것이 아주 마땅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점에서 우리 겸손을 시험하려 하십니다. 곧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는 모욕을 너무 언짢아하지 않고 온유하게 받는 것입니다. (내가 말했듯이) 그렇게 곱게 길러지는 것이 우리를 참을성 없게 만들고 아무것도 견디지 못하게 하며, 누가 우리에게 무슨 흠을 잡으면 그것이 우리를 슬프게 하고, 심지어 우리를 독이 오르게 해서 어느 쪽으로 돌아서야 할지 모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모욕과 치욕을 견디는 데 익숙하게 하시면, 그분은 그것으로 우리의 선과 유익을 꾀하셔서 흔히 말하듯 우리를 단련된 군사로 만드시려는 것임을 배웁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오른쪽과 왼쪽으로 무장해야 하고, 영예뿐 아니라 치욕과 조롱도 지나가야 한다고 말합니다(고후 6:7–8). 하나님께서 우리가 존중받기를 원하시면, 우리가 늘 그런 형편에 머물리라고 여길 만큼 그것을 확대하지 말고, 심지어 헛된 영광이나 야망에 취하지 말며,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이웃을 잘 세우도록 우리를 그만큼 더 당신께 매어 두신다는 것을 알아봅시다. 어떤 사람이 어떤 높은 자리에 있을 때, 그는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고 있으며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비추도록 찬장이나 탁자 위의 촛불처럼 두셨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 그는 그만큼 더 조심스럽게 걸어야 하고 아무에게도 걸림돌이 될 빌미를 주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CO 586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예는 헛된 영광이 아니라 우리 이웃을 세우는 데 쓰여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쪽으로는 사도 바울이 하는 말(고후 6:8)도 잘 새깁시다. 곧 우리는 치욕에 아주 익숙해져서 귀가 거기에 닳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헐뜯어도 우리는 모든 것을 인내로 받아야 합니다. 그 사이에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슨 빈정거림을 던진다면 그것이 우리 악 때문이 아니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 밖에 우리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우리를 험담하고 헐뜯는 자들이 악의로 그렇게 하며 아무 까닭도 없다는 것을 안다면,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

님 앞에 맡기고 그분께 인정받는 것으로 만족합시다. 그리고 그 사이에 (내가 말했듯이) 오래전부터 그것에 완전히 단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그렇게 연약해져서 귀가 너무 간지러워 아무 모욕도 견디지 못하는 것은 아주 나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구절에서 우리가 새겨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은 실천하기 어려우니,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본보기들도 새깁시다. 보십시오, (여럿 가운데 기억할 만한 사람을 하나 들자면) 다윗은 왕이 되었고, 사람들이 그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눈으로 볼 만큼 형통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방편이나 자기 재주만으로 높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특별한 능력을 밝히려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그렇게 영예를 받습니까? 한순간에 그는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것도 자기 아들에게 당합니다. 사람들이 그의 머리에 돌을 던집니다. 그의 신하 시므이가 행동과 말로 그를 핍박합니다. 그는 "살인자야, 너는 네 값을 받는다" 하고 말하며 그에게 대듭니다. 그는 다윗이 사울의 집안에 저지른 잔인함에 대해 마땅히 받을 삯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내신다고 꾸짖습니다(삼하 16:5–13 참조). 보십시오, 우리가 짚은 정황을 생각하면 다윗은 시므이에게 분노로 불타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신하가 드러내 놓고 자기에게 맞서 일어나는 것을 보는데, 그는 그렇게 뛰어나고 두려움을 받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먼저 하나님께서 자기를 높이셨고, 그것도 순전한 은혜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 그리고 이제 자기가 그렇게 쓰러졌으니 그것이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물어뜯기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하셨다." 시므이의 모욕과 교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그것이 하늘의 섭리 없이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 그는 자기를 낮춥니다. 이 점에서 그가 가난한 시골 사람처럼, 자기 아버지의 목자나 소치기처럼 길러진 것이 그에

게 아주 유익합니다. 그는 젊을 때 어린양들을 지켰으니, 업신여김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모를 만큼 곱게 길러지지 않았습니다. CO 587 그러니 그것이 그에게 유익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지 않으시고 늘 사람들에게 아첨을 받도록 내버려 두신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으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우리에게 험담과 반대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방법으로 우리를 준비시키셔서, 그분이 때로 우리를 짓누르려 하실 때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 낯설지 않게 하신다는 것을 알아봅시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극한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가 인내하도록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다윗의 본보기를 새깁시다. 그는 우리처럼 정념에 매인 사람이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뜻이 자기가 거기서 갈기갈기 찢기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것도 부당하게 찢기는 것이었는데도 스스로 기꺼이 복종했습니다. 우리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잘 대답해 주고 사람들이 우리를 부당하게 핍박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그것은 우리를 슬프게 해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위로받아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하건대 보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그만큼 더 잘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나를 이렇게 업신여길 무슨 까닭을 찾겠는가?" 하고 말할 만큼 어리석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치욕 속에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그만큼 더 인내로 이끌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살았고 악인들과 헐뜯는 자들에게 우리를 모욕할 빌미를 주지 않았는데도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이 우리를 험담하고 비웃도록 허락하신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람들의 악의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그들이 부당하게 우리를 미워하게 하신 것이 특별한 은혜라는 것을 알아봅시다. 그 밖에 그분이 우리가 부당하게 고난받기를 원하시니, 우리는 그 길을 지나야 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 낯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이 구절에서 우리가 거두어야 할 가르침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은택이 우리 고난 속에서 우리

를 가볍게 해 주어야 하지만, 우리가 영예를 누렸다면 그다음에 치욕 속에 있는 우리를 보는 것이 우리를 슬프게 하고 갑절의 고통이 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새겨야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그런 시험에 맞서야 합니다. 우리의 인내는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욥이 우리에게 밝히는 것을 느낄 때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늘 하나님 앞에서처럼 걸을 용기를 냅시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가 부당하게 헐뜯기기를 기뻐하시면, 무슨 일이 있어도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그런 싸움에 대비해 무장합시다. 사탄이 악한 사람들을 일으켜 우리를 험담하고 헐뜯게 몰아갈 때 꾸미는 것이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곧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시간을 버렸다고 결론내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는 흠 없이 살려고 애썼고, CO 588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려고 힘썼으며, 내가 그에게 손해나 해를 끼쳤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런데도 나는 이렇게 핍박받는 것을 본다. 그러면 바르게 걸어서 내가 무엇을 얻었는가?" 보십시오, 이것이 사탄의 간계와 술수입니다. 곧 그는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수고를 잃는다고 믿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우리를 휩쓸어 가서, 우리가 이 사람을 해치고 저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기를 더는 꺼리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람들의 배은망덕은 우리를 그만큼 더 재촉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게 해야 한다는 것을 새깁시다. 우리가 셈을 해 드려야 할 분이 그분이시고, 그분께 인정받는 것으로 우리에게 충분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에게 배은망덕한 것을 봅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선을 행하려 애썼는데 그들이 와서 우리 얼굴에 침을 뱉고 거짓 비방을 쓰웁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우리를 당신께로 다시 부르신다는 것을 알아봅시다. 마치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너희가 내 얼굴 앞에서처럼 걷기를 원한다. 그러니 너희 보상은 지금 여기 아래에 있지 않다. 모든 일에서 어디서나 내게 순종한 것으로 만족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그렇게 헐뜯는 것은 너희가 그들에게도

그들의 견해에도 매이지 않게 하려는 것이고, 너희가 너희 덕이 존중받아 마땅하다고 말하는 그런 헛됨에 끌리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보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 이 시험과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 주님께서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에게 특별한 가르침을 주려 하셨다는 것을 잘 새깁시다. 말하건대 욥에게 일어난 이 변화,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날마다 눈으로 바라보며 세속 역사에서 읽는 모든 사람에게 일어난 변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먼저 (어제 밝혔듯이) 영예와 높은 자리에 오른 자들에게는 고삐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런 형편에 머물려고 영원히 그것을 차지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손바닥 뒤집기보다 빨리 그들을 흔드실 뿐 아니라 그분이 그들을 두신 그 높음을 완전히 뒤엎으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그들에게 베푸시는 영예 대신 그들이 사방에서 모욕과 조롱과 비방에 공격받는 자기를 보게 되리라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은 지위와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이렇게 고삐로 자기를 붙잡아야 하고, 오늘에서 내일로 그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다고 셈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겸손을 시험하시려고 사람들에게 그들을 비웃고 그들에게 많은 모욕을 할 허락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듯 이교도들조차 그것을 알았고 그것으로 흔한 속담을 만들었으니, 그것은 우리에게서 모든 핑계를 없애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그것을 잘못 실천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CO 589 순풍을 받고 (흔히 말하듯) 행운이 그들에게 웃을 때 절제를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형통에 취하는 것은 너무 흔한 악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충분히 말할 줄 알지만 거기서 자기를 지키는 사람은 아주 적습니다. 그러니 이런 금언들이 어디서나 받아들여지고, 저마다 그것이 참되다고 고백할 것이지만, 곧 사람이 자기 형통을 믿어서도 거기 취해서도 안 되고, 그것이 늘 이어지리라고 여겨서도 안 되며, 일어날 수 있는 변화와 뒤바뀜을 생각해야 한다고 고백할 것이지만, 그래도 아무도

거기에 공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의 즐거움과 영예에 그렇게 빨리 사로잡히는 것을 보니, 그만큼 더 우리는 거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러니 아무도 자기의 무질서한 욕구에 휩쓸리지 않도록 그만큼 더 여기 적힌 가르침을 잘 새겨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은 영예를 누리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잘 낮추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달도 날도 스스로 약속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그들을 치욕 속에 두려 하실 때 매 순간 그런 수치의 짐을 질 어깨를 가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 세상에 있는 비뚤어짐을 볼 때 우리는 그만큼 더 이 경고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 바르게 걷는 사람이 영예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악인들도 싫든 좋든 거기 붙잡혀 덕을 사랑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다음에 미친 듯이 선을 헐뜯고 빛을 어둠으로 바꾸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위엄을 업신여기는 자들에게도 이 판단을 새겨 두셔서 그들이 그분에게서 나온다고 아는 모든 것을 귀히 여기게 하시지만, 그다음에 그들은 광기에 빠지고 눈을 감으며 알면서 짐승같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그분 성령의 선물과 은혜를 거슬러 자기 신성 모독과 치욕을 토해 내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탄이 악인들을 그렇게 몰아가서 그들에게서 모든 절제를 없애고 심지어 그들을 광기로 불붙이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함 속에 걸어온 사람들이 많은 비방과 헐뜯음에 매여 있다 해도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너무 흔한 일임을 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의 모욕과 비방을 지나가야 한다는 경고를 받아야 합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헐뜯기기를 원하실 때, (내가 이미 말했듯이) 그것이 우리 죄 때문이라면 우리는 입을 다물고 우리가 받아 마땅하고 CO 590 우리 허물의 정당한 삯인 치욕을 잠잠히 질 까닭이 그만큼 더 큽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저마다 부지런히 자기를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헐뜯거나 우리가 조롱받아 웃음거리가 되자마자 우리는 이렇게 알기를 배워야 합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 우리 소송을 하라고 일깨우신다.” 이교도들조차 우리의 죽을 원수가 자주 친구보다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고 잘 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친구들은 우리를 아끼고, 그것이 우리를 우리 악 속에서 기르는 까닭이 됩니다. 그들의 의도가 우리에게 아첨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우리를 참아 주며 베푸는 인정 때문에 우리는 우리 불완전함을 고치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원수들은 우리를 엿보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을 들추어낼 모든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가 빈정거림을 받자마자 우리는 이렇게 알아야 합니다. “자, 보라, 하나님께서 나를 소환하셔서 내 소송을 하게 하시고, 나를 재촉하게 하시며, 내가 나를 정죄하는 재판관이 되게 하시고, 그 방법으로 내 치욕이 묻히고 감추어지게 하신다.” 보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험담하는 자들이 악의로 그렇게 하더라도 어떤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 “이 사람은 원수 갚음에 이끌린다” 하고 대꾸하지 맙시다. 그런 것은 하나도 바라보지 말고, 유죄를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지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세상 앞에서도 무죄 선고를 받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심지어 사람들이 우리를 험담하는 그 점에서 아무 이유도 느끼지 못한다 해도 이렇게 알아봅시다. “내가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이 일에서 잘못하지 않았다 해도, 그렇습니다, 내가 유죄인 다른 많은 악이 있다. 그러나 내 하나님께서 나를 아끼셔서 그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그분이 내 모든 더러움을 들추어내기를 기뻐하신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말하건대 하나님께서 그 방법으로 우리가 등 뒤로 던져 버리고 싶었던 죄들을 우리 개인 앞에 내놓으려 하시고, 그것이 아무 아첨 없이 우리 안에 있는 악을 우리가 미워하게 하시려는 것임을 알아봅시다. 이것이 둘째입니다.

그런데 끝으로 우리 양심이 깨끗하다면, 곧 우리가 모든 일에서 어디서나 허물이 없고 천사 같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아무 빌미도 없고 사람들이 부당하게 우리를 쫓아다니며,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거나 우리 직무에 속한 것을 충실히 행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면, 말하건대 사람들이 (악의로 독이 올라 있으니) 그 때문에 우리를 비난한다면,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말했듯이) 우리가 그런 삯을 받아서 그분에게서 더 좋은 삯을 기다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아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CO 591 그 까닭을 전혀 보지 못하고 속으로 혼란에 빠져 있다 해도, 그 때문에 "주여, 어찌 되든 주는 의로우십니다" 하고 말하기를 그치지 맙시다. 그러니 보십시오, 우리는 여기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가 날마다 보는 모든 징계에서 유익을 얻도록 살핍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우리를 준비시키셔서, 선한 사람들이 치욕 속에 있는 것을 볼 때에도 우리가 그분께 찬양을 드리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게 하려 하신다는 것을 압시다. 우리 저마다 자기가 견디는 것에서 인내하고 그 인내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듯, 그분이 선한 사람들이 헐뜯기도록 허락하시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그분을 고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선한 사람이 수치와 치욕 속에 있고 혀들이 그를 거슬러 풀려 있을 때 너무 걸려 넘어지지 맙시다. 우리는 욥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봅니다. 그는 (우리가 말했듯이) 모든 거룩함의 본이었는데, 우리는 그가 완전히 절망한 것처럼 보일 만큼 치욕 속에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고발하고 그분께 사납게 굴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덕 있는 사람에게 그런 고난이 일어난 것을 볼 때 우리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 까닭이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더라도, 그것이 까닭 없지 않다는 것, 그리고 그분의 심판이 우리에게 헤아릴 수 없다 해도 우리가 그분의 모든 심판에서 그분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봅시다. 그러니 이것이 또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뛰어난 덕을 주셔서 영예롭게 하신 자들을 업신여길 뿐 아니라 추하게 모욕할 만큼 교만한 자들로 옵시다. 여기서 욥이 말하는 자들의 인격에서 우리는 그것이 가증스러운 악이라는 것을 봅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 그의 덕 때문에 영예와 공경을 받아야 할 사람에게 그렇게 맞서 일어나는 이 교만, 아니 이 짐승 같은 뻔뻔함을 정죄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보십시오, 짖는 개들이 있고, 그것들은 물 수 없는 곳에서 짖습니다. 욥은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재물이나 지위나 다른 어떤 것 때문에 신용을 얻은 자들 같지 않았고, 그의 덕 때문에, 곧 사람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 영광의 표지 같은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신용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아무 절제도 없고 선이나 영예가 무엇인지 모르는 비루한 사람들이 그를 거슬러 방자하게 굴며 자기 혀를 풀어 놓습니다. 그것이 견딜 수 없는 비루함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들을 물 수 없으면서도 짖고 으르렁거리는 들개에 견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악은 견딜 수 없고, 진리와 이성으로 그것이 정죄받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CO 592 다른 사람들에게서 정죄하고 미워하는 것을 따라 하지 않기를 배웁시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변화를 일으키시고 전에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 아래로 떨어질 때, 방자하게 그를 거슬러 소리치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그런 변화를 일으키시면서 저마다 깨어나고 우리가 주제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본성상 너무나 그쪽으로 기울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가난한 사람이고 결코 신용을 누린 적이 없으며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어떤 거물이 쓰러지는 것을 본다. 그것은 산이 무너져 내리는 것과 같다. 거기서 내가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심판에 그만큼 더 큰 광채를 주셔서 내가 나 자신이 무엇인지 살피게 하려 하신다는 것 말고 무엇이겠는가? 나는 여기서 작은 벌레 같아서 땅 위를 기어다닐 뿐이고, 이 사람은 구름 위로 높아진 것 같았다. 그런데도

나는 하나님께서 내 눈앞에서 그를 낮추시는 것을 본다. 그러니 네가 너를 귀히 여기고 존중할 때 너는 아주 어리석지 않은가?" 보십시오, 이렇게 작은 사람들은 두려움과 조심 속에 걸으라는 경고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들 눈앞에서 큰 사람들을 그렇게 쓰러뜨리실 때, 그들은 자기 편에서 자기가 높아지려 할 때 그분이 자기도 그렇게 쓰러뜨리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어떤 높음이 있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들의 높은 둥지에서 잘 뽑아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운명도 그들을 어쩌지 못할 것처럼 보이는 자리에 세워져 있을 때에도, 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가진 운명이라는 상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당신의 손이 어디에나 미친다는 것을 보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세상의 군주들과 높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높은 자들과 가장 높이 오른 자들 위에 그렇게 벼락을 치시는 것을 보며 두려워해야 한다면, 묻건대 가장 작은 자들은 어떻겠습니까? 그 밖에 다른 사람들을 거슬러 높아지지 않도록 잘 살핍시다. 그리고 실제로 자기 안에 칭찬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덤벼드는 것은 본성에 거스르는 일이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에게 늘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는 누구냐? 이 사람이 멸시받아 마땅하다고 치자. 어쨌든 그것은 네가 할 일이 아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고, 슬기롭지 않다고, 칭찬할 만한 덕이 없다고, 귀족이 아니라고 그를 업신여긴다면,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서도 그런 것을 하나도 찾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작은 사람들이 작은 사람들에게 맞추는 것 말고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큰 사람이라 해도 우리는 낮아져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일깨우듯(롬 12:16),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작은 사람들, 아니 가장 작은 사람들에게 맞추려고 낮아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덕도 슬기도 귀족 신분도 이 세상의 재물도 빼앗겨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짓밟힌 듯한 사람을 보고 CO 593 또 와서 그에게 덤벼든다면, 나는

온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구절로 우리 자신을 잘 살피라는 경고를 받읍시다. 그리고 업신여김을 받는 사람이 있을 때 이렇게 알아봅시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되거나 더한 일이 될 수 있다. 그러하니 입을 다물자." 이것이 우리가 받아야 할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우리 기억에 잘 새겨 두었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보이는 헐뜯음과 빈정거림과 비웃음을 보지 않을 것입니다. 흔히 말하듯 저마다 자기 코를 붙잡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이 자기 안에 어떤 덕이 있고 부자이거나 권위를 가졌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개를 숙일 많은 계기를 주시지 않을 만큼 완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저마다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잘 살펴보면, 분명 우리는 업신여김을 받는 자들을 업신여기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치욕 속에 두려 하신 자들을 거슬러서도 너무 높아지지 않도록 절제 속에 붙잡힐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욥의 말로 옵시다. 그는 젊은이들이 자기를 비웃는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그들의 아비들을 자기 개들을 지키는 자로 둘 생각도 하지 않았을 그런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욥이 여기서 크게 오만하게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기를 비웃는 자들을 깔보려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모으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이렇게 말할 때입니다. "그들의 아비들은 거지였다. 나는 그들을 쓸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땅을 긁어 뿌리를 캐러 다니던 건달들, 불쌍한 굶주린 자들이었고, 숲에서 노간주나무 열매를 먹었다. 그런데 이제 내가 그들에게 이렇게 조롱받는 것을 보다니!" 말하건대 처음 보면 욥이 여기서 어떤 오만과 주제넘음으로 불타오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그가 자기가 느꼈지만 동의하지 않은 시험을 나타낸다고 밝혔듯이, 이 구절에서도 그것을 간직해야 합니다. 곧 욥은 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만, 그 사이에 그런 치욕을 참고 견디려고 자기 마음과 골수를 갉아먹는 분함과 싸우기를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칭찬할 것이 하나도 없는 자들에게 업신여김을 받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더 무겁고 더 낯선 것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한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압니다. "여기서 우리 자신을 변명하려고 박수를 보내서는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니 그럴 만한 것이 있다." 그러나 악하고 방탕하며 온갖 추문으로 가득한 자들이 우리를 비웃는다면, 분명 그런 극한은 치욕에 더 큰 광채를 주어서 우리가 그만큼 더 슬퍼하게 합니다. CO 594 그러니 보십시오, 욥이 그렇게 헐벗은 자들이[67] 자기를 거슬러 일어났다고 말하면서 바라보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욥이 앞에서 자기가 부자나 지위 있는 사람이나 귀족으로서 영예를 받은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는 것을 잘 새깁시다. 그는 거기에 기초를 둔 것이 아니라, 너무나 큰 온전함과 완전함 속에 걸어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 두신 덕을 바라보며 사람들이 그를 공경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는 그런 은혜를 남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이것이 이제 그가 칭찬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자들에게 그렇게 업신여김을 받을 때 그 일을 더 무겁고 괴롭게 여기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욥이 거기까지 쓰러진 것을 보니, 우리 주님께서 오늘 비슷한 일을 허락하신다면 이 본보기로 굳세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아봅시다. 그러하니 일이 우리에게 무겁고 지기 힘들다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기를 기뻐하시는 동안 고개를 숙일 만큼 절제합시다. 실제로 우리를 그리로 가르쳐야 할 자연스러운 이치도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아무 예의도 덕도 인정도 없는 비루한 사람들이 방자하게 험담한다 해도 우리는 그것을 낯설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일이 날마다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입니다. 아주 흔한 것은 우리에게 새로워서는 안 되고 우리는 거기에 완전히 길들여져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자연스러운 이치 말고도, (내가 이미 짚었듯이) 우리 주님께서 높은 자리와 영예에 오른 자들이 아니라 가장 버림받은 자들 앞에서 우리를 그렇게 치욕

67. 원문의심: 원문에는 "rictus"로 되어 있어 뜻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문맥을 따라 "헐벗은 자들"로 옮겼습니다.

속에 두셔서, 마치 우리가 사람보다 짐승에게 공격받는 것처럼 하실 때 우리 인내를 그만큼 더 잘 시험하려 하신다는 것을 알아봅시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누군가를 핍박하실 때 그것은 그를 낮추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 인류에게 공통된 일에서도 그것을 봅니다. 이와 벼룩과 빈대와 다른 벌레들이 크고 작은 사람 모두에게 전쟁을 거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아무도 거기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더러움과 악취 속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벌레들에게 일종의 다스림을, 왕과 군주들 위에까지 주셔서 저마다 그것을 겪게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그만큼 더 낮추시려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 그분이 우리를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우리를 거슬러 높아지는 그런 극한에 두실 때, 그것은 우리에게서 모든 헛된 영광과 주제넘음을 없애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늘 새깁시다. 그러하니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손에 다시 맡겨진 듯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주여, 보십시오, 나는 없어진 것 같고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주의 손을 늦추시고 주께서 나를 두신 치욕에서 나를 건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는 또 CO 595 흔히 보는 일에서 잘 처신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곧 어떤 사람이 높은 자리와 신용을 누릴 때 아첨하며 엎드린 개처럼 굴던 자들이, 그가 갑자기 처지가 바뀌어 쓰러진 것이 보이면 그를 거슬러 일어나고, 그것을 즐기는 것처럼 보일 만큼 방자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 속에 감추어진 악의가 보입니다. 그러니 우리 저마다 그런 치욕을 참고 견디도록 미리 무장해야 하듯, 우리 저마다 이 일에서 슬기롭게 처신하도록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들을 영예롭게 여기고, 거기에도 우리 안에 위선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뒤엎으시면 때로 우리가 앞장서서 그들에게 덤벼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역사에서 군주들의 병사들이 자기 군주를 거슬러 일어난 그런 본보기를 봅니다. 보십시오, 모든 것을 떨게 할 만큼 세력을 떨치던

큰 장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주를 지키려고 목숨을 내놓았을 자들이 그가 쓰러진 것을 보면, 후계자나 원수의 환심을 사려고 와서 배신을 하고 원수도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잔인한 짓을 저지를 것입니다. 원수라면 불쌍히 여길 곳에서, 전에 그들을 지키려고 목숨을 내놓았을 자들이 그만큼 더 잔인하고 사납게 방자해집니다. 우리가 그런 본보기를 볼 때 우리 자신을 살피고, 그런 악에 물들지 않도록 생각합시다.

그 밖에 여기서 욥이 이 사람들의 아비들을 자기 양 떼의 개를 지키는 자로 둘 생각도 하지 않았다고 말할 때 스스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앞 장에서 그는 자기가 너무나 인정이 많아서 고아들의 아버지요 과부들의 보호자였을 뿐 아니라, 눈먼 자들의 눈이요 다리 저는 자들의 발이었다고, 곧 모든 불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도우려고 인정을 베풀었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의 아비들을 자기 개들과 함께 둘 생각도 하지 않았다고 말하니 그것이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욥이 여기서 자기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있는 그대로 말한다는 것을 새깁시다. 마치 이 사람들의 아비들이 사람들 보기에 개를 지킬 만한 자로도 여겨지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요컨대 욥이 나타내려 한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귀히 여길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 해도 그 때문에 그들을 깔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간직해야 합니다.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의 피조물로, 그리고 CO 596 우리 모습을 지닌 자들로 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니 그들을 공경합시다. 가장 높이 오른 사람이 나머지 사람들과 멀어지려고 이것저것을 아무리 가져와도, 왕은 자기 본성을 벗어 버리든지, 아니면 온 세상의 가장 가난한 목자와 소치기와 형제가 되든지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왕이 자기 안에 가진 가장 중요하고 가장 뛰어난 것, 곧 사람이라는 것을 그는 목자와 공통으로 가지지 않습니까? “오, 나는 그런 혈통에서 나왔다.” 친구여, 모두 아담에게서, 그리고 그다음에 노아에게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혈통에 관해서도 일이 어떻게 되는지 보입니다. 가장 고귀하고 가장 이름난 혈통이 가장 좋은 것은 아니어서, 세상에서 존중받는 어떤 대단한 인물의 아들이 되느니 차라리 들판 목자의 아들로서 좋은 아버지와 좋은 어머니의 아들이 되는 것이 자주 더 나을 것입니다. 그렇게 높은 혈통으로 올라가도 때로는 강도나 창녀의 자식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하니 자랑해야 할 곳은 거기가 아닙니다. 반대로 (내가 말했듯이) 이 점에 이르러야 합니다. 곧 왕이 자기 안에 가진 가장 뛰어난 것은 사람이라는 것이고, 그는 그것을 들판의 소치기와 공통으로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높고 영예로운 사람들이 아무리 자랑하고 이 점에서 아무리 자기를 높여도, 그들은 사람 말고 다른 것이 될 수 없고, 그들이 업신여기는 가장 작은 자들과 하찮은 자들도 그들만큼 그것을 가집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 같은 본성으로 지으셨고, 우리를 서로 묶으시려고 거기에 이 하나 됨을 두셨다는 것을 알아봅시다. 그러니 이 구절에서 욥이 뜻한 것이 이것입니다. 그러하니 이 모든 이야기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변화와 뒤바뀜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 주시는 생생한 그림 같은 것을 그린다는 것을 새깁시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매이지 않고 더 나아가, 영원한 견고함을 가질 하늘의 삶을 사모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삶에는 연약함과 비참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서 건지셔서 하늘에 우리를 위해 마련해 두신 영원한 안식에 참여하게 하실 때까지 우리가 늘 거기에 매여 있으리라는 것을 알기를 배웁시다.

이제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엎드립시다.

제109편

욥기 30장 설교 2

CO 34:597–608

AI로 옮긴 초벌 번역입니다. 신학 감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CO 권: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 하나님께서 내 줄을 끊으시고 나를 괴롭게 하셨으므로, 그들도 나를 거슬러 굴레를 벗어 던졌네. 젊은 것들이 내 곁에서 일어나 내 발을 얽어매고, 심지어 걸려 넘어질 것으로 내 길을 에워쌌네. 그들은 내 길을 헝클어 놓고, 도울 자 없는 나를 해치려 애쓰네. 그들은 넘쳐흐르는 강물처럼 내게 몰려오고, 재앙을 틈타 까닭 없이 나를 핍박하네. 공포가 내게 덮쳐 와서 바람처럼 내 존귀함을 쫓아 버렸고, 내 구원은 구름처럼 지나가 버렸네. 내 영혼이 내 안에서 뒤집히고, 고난의 날들이 나를 사로잡았네. 밤에는 내 뼈가 쑤시고 내게는 쉼이 없네. 병이 심하여 내 옷은 빛깔이 바뀌었고, 옷깃이 내 몸에 달라붙었네. 그분이 나를 땅에 내던지셨으니 나는 티끌과 재 같네. 내가 주께 부르짖어도 주는 내게 대답하지 않으시고, 내가 기다려도 주는 아랑곳하지 않으시네. 주께서 잔인한 자처럼 내게 돌아서시고, 주의 손의 힘으로 나를 대적하시네. (욥 30:11–21)

CO 597 욥은 앞에서 아무 값어치 없는 자들이 그렇게 오만하게 자기를 거슬러 일어났다고 밝혔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힘을 끊으셔서 자기가 약해지고, 그렇습니다, 사람들 보기에 기운을 잃어 저마다 자기를 업신여길 수 있게 되지 않았다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었으리라고 덧붙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힘줄 또는 자기 끈을 끊으셨다는 이 비유로 그가 뜻하는 것이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는 단단한 끈이 있는 것과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끈을 끊기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흘러내리고 더는 아무것도 서 있지 못하며 모든

것이 흩어진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욥의 의도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그의 기력을 빼앗으셔서 그를 제 형편에 붙들어 둘 것이 더는 아무것도 없게 하지 않으셨다면, 업신여김을 받고 아무 권위도 아무것도 없던 사람들이 그렇게 오만하게 그를 공격하거나 감히 그를 거슬러 일어나지 못했으리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욥이 마치 사람들이 자기를 짐승으로 만들었다고, 이제 사람들이 자기 고삐를 벗겼다고, 이제 자기를 다시 매었다고 말하는 것처럼 풀이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 억지스럽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연스러운 뜻을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새겨 둘 만한 점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거슬러 방자하게 군다면 우리는 늘 이 비유로 돌아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곧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흩으셔서 더는 묶음이 없고, 마치 몸에 힘줄이 없거나 CO 598 나뭇단이나 밀단 같은 것이 풀린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서 있을 수 없는 것은 모아지고 다른 데서 붙들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묶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한 가지입니다.

반대로 또 그분이 우리를 풀기를 기뻐하실 때 보십시오, 우리는 조각난 것처럼 됩니다. 우리를 붙들 수 있는 것이 더는 아무것도 없어서, 사람들이, 말하건대 가장 업신여김을 받는 자들이 우리 위에서 세력을 떨칠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왕들에게 띠를 매어 주시고 그들의 허리띠를 끊으시는 이 직무가 하나님께 돌려진다는 것을 보았습니다(욥 12:18 참조). 거기서 우리에게 나타낸 것은, 왕들과 군주들이 권위를 가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칼을 채워 주시고 그들을 굳게 붙드시며 그들이 그렇게 두려움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허리띠를 끊으려 하시면, 그들 안에는 여자들에게만큼의 힘도 권위도 없고 그보다 더 적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더 일반적인 가르침을 얻으니, 저마다 그것을 자기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곧 우리에게

어떤 눈에 보이는 힘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서 나온다고 상상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헛된 주제넘음에 찔리지 않도록 늘 그분께 우리 자신을 복종시킵시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분이 주신 것을 자기에게서 가졌다고 상상하는 것을 보시면, 그것을 그들에게서 벗기셔서, 당신의 은혜가 어떠한지, 그리고 그분이 그것을 느끼게 하시던 동안 그들이 그것을 얼마나 귀히 여겨야 했는지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알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가 말했듯이)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어떤 힘도 상상하지 않기를 배우고, 밀단이 제 끈으로 묶여 있듯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알아봅시다. 그 사이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풀려 하시고 우리 줄을 늦추시면 우리는 곧 흩어질 것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를 이어 가기를 기뻐하시는 만큼이 아니면 우리에게는 아무 머무는 형편도 없으리라는 것을 알아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짓밟히고 사람들이 우리를 언짢게 하거나 괴롭히는데 우리에게 아무 도움도 원수 갚을 방법도 없다면, 이것을 기억합시다. 곧 위에서 주어지지 않았다면 사람들이 그런 우위를 가지지 못했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업신여김받게 하시는 만큼 저마다 우리를 거슬러 일어날 수 있을 것이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낮추도록 이 과목을 간직해야 합니다. 우리를 치욕에 내놓으시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우리를 핍박하도록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만한 이 슬기가 CO 599 우리 안에 있기 전까지는 우리는 결코 마땅히 꺾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렇게 말한 뒤에 비슷한 다른 탄식들을 덧붙입니다. 곧 전에는 그 앞에 거의 엎드렸을 젊은이들이 곁에서 일어나, 와서 그를 넘어뜨리려고 다리를 걸고, 그가 부딪치거나 걸려 넘어지도록 그 앞에 돌을 놓다시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그는 자기가 사방에서 조롱받았고, 그가 이야기한 대로 전에 있던 공경이 더는 조금도 없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요컨대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모든

악에 내놓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는 자기 영혼이 자기를 핍박한다고 덧붙입니다. 거기서 그는 자기가 속까지 상처를 입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사람이 조롱을 받으면서도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욥은 사람들이 그에게 한 그런 치욕과 모욕이 그의 마음속까지 찔렀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영혼이 핍박을 받았고 자기 구원이 빼앗긴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가 쓰는 말은 본래 "왕다운" 또는 "너그러운" 또는 "자원하는"이라는 뜻이고, "영혼"이라는 이 말은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욥이 자기 영혼을 가장 고귀한 부분으로서 "왕다운" 또는 "으뜸가는" 것이라고 부르거나, 아니면 "너그러운" 것이라고 부르거나(군주들이 이 이름, 곧 "너그러운 자"라고 불리듯이 말입니다. 그들에게 더 큰 후함이 있고 그렇게 할 것도 가지고 있으니 그들에게 이 칭호가 돌려지는 것입니다), 또는 "자원하는" 것이라고 부르려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어의 방식이 한 가지를 자주 두 번 되풀이하거나, 서로 가깝고 같은 목적을 향한 두 낱말을 두는 것이니, 이 구절의 참된 뜻은 욥이 자기 존귀함이 뒤집혔고 자기 구원이 빼앗긴 것 같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먼저 "존귀함"이라는 말을 쓰고, 그다음에 더 멀리 미치는 "구원"을 덧붙입니다. 그러니 뜻은 이렇습니다. 곧 전에는 그가 큰 높은 자리에 있었는데 이제 그 모든 것이 쓰러졌고, 전에는 그가 잘 무장되어 아무 악도 결코 그에게 닿지 않을 것처럼 보였는데 이제 그의 구원이 사람들에게 너무 괴로움을 당하고 짓눌려서 그가 전에 보던 모든 사람의 위로를 빼앗긴 것처럼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우리는 어제 짚었듯이 늘 그런 변화에 대비해 굳세어지라는 경고를 받습니다. 우리에게 욥의 본보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얼마 동안 사람들 가운데 뛰어났고, 그의 형편은 더할 나위 없이 고귀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무서운 구경거리로 세우십니다. 저마다 그를 섬길 준비가 되어 있었

고, 온 세상이 그에게 호의를 보여야 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전에 그의 친구였던 자들이 들짐승처럼 되어 그의 구원을 빼앗으려고 미쳐 날뜁니다. CO 600 우리가 그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식으로 괴롭히기를 기뻐하시면 준비합시다.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하실 때 욥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 지나치게 흔들리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얼마 동안 당신의 종을 그렇게 훈련하셔서 그를 완전히 버리시는 것처럼 보였어도 늘 그를 불쌍히 여겨 바라보셨다는 것, 그리고 그가 전에 그렇게 많은 좋은 것을 받은 분을 늘 기다리고 그분을 부르며 그분께 피난처를 둔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결말이 보여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똑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 쉬고 늘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붙듭시다. 그러면 그분은 결말이 욥에게와 다르지 않으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느끼게 하실 것입니다. 그 밖에 내가 낱말마다 매달리지는 않지만, 우리 저마다 여기서 다루는 것들을 속으로 묵상해야 합니다. 욥은 자기가 처한 처지가 우리 머리털이 곤두설 만큼 비참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려 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먼저 (우리가 보여 주었듯이) 그는 여기서 자기가 참을성이 없고 괴로워하며 자기가 겪는 고난이 지긋지긋하다는 것에 대해 변명합니다. 그것이 지나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성령께서 그의 입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 아픔이 크고 견딜 수 없어 보이면 욥에게 일어난 일과 견주어 보고, 그가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괴로움을 당했으니, 우리 아픔이 우리를 몰아붙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괴롭히시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가 너무 연약하거나 초보자 같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욥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아니, 그가 견딘 아픔은 이것보다 훨씬 더 지나치고 엄청나지 않았는가?” 그러니 보십시오, 여기서 욥이 겪은 역경을 길게 밝히는 것으로 우리는 이렇게 인내로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그는 내가 짚은 이 말로 옵니다.

곧 아픔이 속에 있었고, 사람들이 그에게 한 조롱과 치욕과 모욕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가 속으로 쓰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비웃는 원수들이 있고 그들이 여기저기서 자기를 헐뜯으리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편안할 수 있다면, 그런 사람은 완전히 쓰러져 더는 견딜 수 없는 사람만큼 괴롭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사람이 사람들에게 그런 잔인함이 있어서 그들이 그가 겪는 아픔으로 만족하지 않고 와서 불을 더 지피고 그를 더 찌르며, 그가 반쯤 죽은 것 같은 것을 보고 저마다 그를 멍들게 하려고 한 대씩 때려 이미 그를 끝까지 괴롭히는 고통을 더 느끼게 한다는 것을 본다면, CO 601 그것은 그의 슬픔과 고뇌를 크게 더합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욥이 공포가 자기를 사로잡았고 자기에게 아무 쉼이 없었으며, 마치 계속되는 열병에 걸린 사람이나 숨을 돌리고 다시 숨을 쉴 겨를도 없을 만큼 괴로운 사람처럼 자기 맥박이 아무 쉼 없이 늘 뛰었다고 말할 때 이 구절에서 뜻한 것이 이것입니다. 그러니 욥은 그런 탄식으로 자기가 먹고 마시고 즐기기를 그치지 않을 많은 사람처럼 조롱만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자기를 지킬 수 있어서 사람들이 해를 꾸며도 해내지 못하는 자들처럼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욥은 정반대로 자기가 공포에 시달렸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그런데 이 "공포"라는 말 아래 그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거스르시거나 사람들이 우리를 거슬러 일어날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모든 고뇌를 담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말은 슬픔과 고뇌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슬픔은 우리가 이미 겪는 아픔에서 오지만, 공포를 가질 때는 마치 우리가 죽음이 우리를 위협하는 것을 보는 것 같고, 많은 위험에 에워싸인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상상합니다. "어떻게? 물론 나는 이미 그런 아픔을 견디고 있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아픔이 또 내게 닥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다음에 다른 쪽에는 이것이 있고 저것이 있다." 그러니 우리가 위험들을 바라보며, 한 죽음을 벗어나면 두 번째, 세 번째 죽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요컨대 우리가 사방에서 공격받는 것처럼 보일 때, 보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완전히 넋 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욥이 속으로 공포에 사로잡혔다고 말하면서 뜻한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우리가 잘 지켜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중요한 좋은 것이자 사람들이 본성상 바라는 것은 안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복을 말씀하시면서 무엇보다 우리가 쉼 속에 있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당신의 보호 안에 두실 때 우리가 깨워질 걱정 없이 편히 잘 수 있고, 길 한가운데 나무 아래 누워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에게 잠긴 방도 문빗장도 열쇠도 없다 해도 그분의 손과 보호 안에 있으니 안심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욥이 자기가 공포에 사로잡혔다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그는 하나님께 더는 아무 신뢰도 없었고, 따라서 우리가 바라고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모든 자녀에게 약속하신 가장 큰 좋은 것을 빼앗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물론 신자들은 결국 늘 자기 안에 그런 쉼을 가져서 자기 아픔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기대고 그분이 결코 그들을 잊지 않으시리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CO 602 이것은 모든 신자가 하나님을 믿는 동안 결코 모자랄 수 없는 쉼입니다. 욥은 그것을 부분적으로 잘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때로 (말하건대 잠시 동안) 당신의 백성을 그런 혼란에 두셔서, 그들이 자기가 어디에 서 있는지 모르고, 성령의 이 기쁨이 그들 안에서 쓰러져 숨 막힌 것처럼 되며, 그들이 하나님께 달려가거나 그분이 자기를 지켜보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없고, "아니다, 어찌 되든 그래도 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것이다. 물론 나는 그분이 나를 도우려 하시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참고 그분을 기다릴 것이다" 하고 말할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없게 하신다는 것을 새깁시다. 그러니 신자들은 때로 완전히 굳게 결심할 수 없고, 너무 큰 소용돌이와

폭풍에 흔들려서 어찌할 바를 모를 것입니다. 그들은 거기서 그런 격랑 속에 있고 그런 식으로 휘둘려서 그들의 심이 혼란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먼저 우리가 평온하려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역경 한가운데서 평온하려면 우리 하나님께 달려가야 하고, 그분이 늘 우리와 함께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헛되지 않다고 굳게 결심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하고, 사방으로 그것으로 무장해서 우리 고난 한가운데서 평온합시다. 하나님의 손에 도움을 받으리라는 이 소망 말고는 우리를 안심시키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지는 동안에는 (흔히 말하듯) 우리는 발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돌아서서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려 하고 우리 구원을 돌보신다고 결심하지 못하자마자, 보십시오, 우리는 넋이 나가고 너무 겁에 질려서 결코 안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고난 한가운데서 떨림과 공포에 짓눌리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에 우리 자신을 굳게 세우기를 배웁시다. 그 밖에 우리가 때로 어찌할 바를 모를 만큼 심하게 짓눌린다 해도,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 달려가기를 그치지 맙시다. 그분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쫓아내실 것이고, 그것을 고치시고 우리 아픔을 누그러뜨리지 않으신 채 우리가 늘 그런 곤경 속에 머물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리라는 것을 소망합시다. 우리가 욥에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니(다윗에게도 일어났고, 그들은 인내와 믿음과 소망의 두 거울입니다), 우리 육의 연약함을 따라 우리가 아픔에 짓눌리고 이제 우리는 끝났다고 할 만한 공포에 사로잡힌 것처럼 보일 때 너무 넋 나가지 맙시다. 하나님께서는 늘 당신의 신자들 안에서 일하실 것이고, 그분의 일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들은 그것을 느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신자들이 그런 고뇌 속에 있고 너무 겁에 질려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소망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더라도, CO 603 그들은 모자라지 않을 것이고, 그들이 자기 본성의 감각으로는 그분

의 도우심을 알아차릴 수 없다 해도 그분께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고뇌 속에서 이렇게 나아가야 하고, 이 가르침에서 유익을 얻도록 이렇게 실천해야 합니다.

그런데 욥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땅에까지 내던지셨고 자기가 티끌과 재처럼 되었다고 덧붙일 때(그는 앞에서 자기 옷이 빛깔이 바뀌었고 자기 살갗에 달라붙었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그는 자기가 완전히 쓰러졌고, 자기 안에 생명의 소망이 한 방울도 더는 없어서, 사람들이 "보라, 다 삭아 버린 사람이다. 거기에는 죽음 말고 다스리는 것이 없다" 하고 말했을 정도라는 것을 보여 줍니다. 땅과 티끌과 재라는 이 말들로 그는 자기 힘이 모자랐을 뿐 아니라 자기가 죽은 몸, 그렇습니다, 반쯤 썩은 몸 같았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욥은 그가 견딘 그 극한의 고난 속에 더는 아무 생명의 표시도 없었고, 오히려 사람들이 그를 정죄했으며 심지어 그가 이미 모든 사람에게 정죄받았다는 것을 잘 보여 줍니다. 거기서 우리에게 보여 주는 것은 우리 신뢰가 보이는 것들에 매여서는 안 되고, 죽음 한가운데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며, 우리가 끝난 것처럼 보일 때에도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이 생명을 붙잡고 끌어안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세상의 어떤 사람의 방편에 매여 있지 않고, 그분이 우리에게 헤아릴 수 없는 방식으로, 그렇습니다, 은밀하게 일하신다는 것도 새깁시다. 보십시오, 이 구절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서로 묶인 두 가지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우리가 알아차리는 것 안에 갇혀서는 안 된다고 말한 것은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능력은 무한하고, 그것을 이 세상의 방편과 보이는 것에 맞추거나 재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방식으로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하니 우리 믿음도 그만큼 넓어져야 합니다. 그러니 이 가르침을 잘 깨달으려면 우리가 짚은 둘째 것에서 시작합시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 일하시려는 능력이 이 낮은 것들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의 질서가 이러하니, 우리가 어떤 겉모습을 보니, 이런 방편과 도움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하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그분께 너무 큰 모욕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 안에 있는 것은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분의 능력을 우리 상상과 깨달음 안에 가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한하고 깊은 구렁이듯 그분의 지혜도 그렇고 그분의 의도 그러하니, 그분의 능력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능력과 CO 604 이 힘을 깨달으려 할 때, 묻건대 우리가 그것을 우리 머릿속에 가둘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려 하실 때 그것은 평범한 방식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기적으로 일하셔서 우리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실 만큼이라는 것을 잘 새깁시다. 그래서 그분은 사람들을 무덤에 두시고 거기서 끌어내시는 이 직무를 당신께 돌리십니다(삼상 2:6 참조). 그리고 그다음에 시편(68:20)에서는 "죽음에서 벗어나는 길이 우리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말합니다.[68] "우리 하나님께"라고 말하는 것은, 신자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맛보고, 그분이 거기 담긴 것, 곧 그분이 죽음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경험으로 느끼게 하신다는 것을 맛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벗어나는 길은 무엇입니까? 죽음이 우리를 다스려서 우리가 삼켜진 것처럼 보이고 더는 생명의 소망이 없을 때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수 있다는 것, 그것도 놀랍고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방식, 실제로 나타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생각해 낼 수 없는 방식으로 살리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에스겔에게 이런 환상이 주어졌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전에 말라서 더는 아무 기운도 없던 뼈들이 서로 다가오고, 힘줄이 다시 붙으며, 영이 들어와 기운이 생기고, 보라, 살아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

68. 원문에는 "시편 68편 21절"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어 성경 절수로는 20절입니다.

입니다(겔 37:1–10 참조). 그러니 보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능력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곧 그분을 믿는 문제에 이를 때 "하나님께 어떤 방편이 있는가? 일들이 그럴 듯한가? 우리 안에 그것을 도울 무엇이 있는가?" 하고 따지러 오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 아니,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실지 아시니 그분을 기다립시다. 그런데 이제 (내가 말했듯이) 우리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 위로 펼쳐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량으로 갇히거나 사람의 방편이나 자연의 방편에 매인 능력을 가지신 것이 아니니, 우리 믿음도 위아래로 펼쳐져서 무한해야 합니다. 물론 그것은 마땅히 그래야 할 만큼 완전하지는 결코 않을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작은 몫만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힘써야 하고, 우리 믿음이 약하고 우리가 그것을 분량만큼만 받았다 해도 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어떤 목표입니까? 우리 하나님 안에서 쉬고 그분에게서 구원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기다리겠습니까? 이 땅의 것들에 머물러야 하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저마다 자기를 재촉하며 이렇게 바라봅시다. "그렇습니다, 주여, 주는 전능하시니 지금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주의 능력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에게 보여 주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욥의 CO 605 인격에서 당신 능력의 그런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것이 우리를 그만큼 더 굳게 세우게 합시다.

끝으로 욥은 사람들이 그에게 한 모욕과 치욕을 말한 뒤에, 또 자기를 사로잡은 공포를 탄식한 뒤에 하나님께 말을 건넵니다. 그러니 그는 자기가 하나님을 부르려고 그분께 향해도 응답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거기 서서 기다려도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고 그를 바라보시는 체도 하지 않으시며, 더 나쁘게는 잔인한 자처럼 그에게 돌아서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있을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시험입니다. 우리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신 조건이 이것이라는 것, 곧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시험받고 많은 비참으로 괴로움을 당해서 이 덧없는 삶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시려는 것임을 압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에게 어떤 슬픔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연약함이 지니는 것이고, 우리가 위로받을 만큼 한결같지 못하다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여전히 우리 본성의 연약함에 돌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달려가는데도 그분에게서 아무 덜어짐도 느끼지 못하고, 그분이 못 본 체하시며, 그분을 부르는 것이 시간 낭비인 것처럼 보이면 우리는 극한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처방이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절망한 것 같고 심지어 죽은 것 같을 때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살리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느낄 것이다. 나는 쓰러진 자들을 일으키고,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며, 무덤에 빠져 있던 자들, 그렇습니다,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처럼 보일 만큼 깊이 빠져 있던 자들을 거기서 끌어낸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가 결코 그분께 거절당하지 않으리라고 아주 넉넉히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찾으러 갑니까? 그분은 멀어지시고, 보기에 귀를 막으십니다. 보십시오, 이것은 우리를 삼켜 버릴 만한 시험입니다.

그러니 여기 이 구절을 잘 새깁시다. 욥은 자기가 지옥까지 이른 것 같았고, 평범한 방식으로 징계받은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겉으로 보기에 그를 너무 버리셔서 그가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헛수고를 했고, 그분이 나를 도우시고 그분이 내 구원자이시리라고 소망하면서 속았다" 하고 결론 내릴 수 있을 정도였다고 밝히려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당신의 백성이 괴로움을 당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지만 그들을 당신께로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네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네게 응답하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시 50:15). 그러니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는 죽음 속에서 생명을 소망해야 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은 진실하게 당신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계시다고 말씀하실 때

(시 145:18 참조), 그분은 우리에게 문을 열어 주십니다. 욥은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주를 찾으러 가도 주를 찾지 못하고, 내가 주를 불러도 주는 내게 대답하지 않으시며, 내가 두드려도 문이 내게 닫혀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이렇게 말합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CO 606 당신께 구하는 모든 신자에게 가까이 계시겠다는 이 약속을 이루지 않으셨느냐고 물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들이 아직 기록되지 않았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늘 당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기를 그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다음에 그것이 기록되게 하시면서 그분은 당신이 어떤 분이시고 늘 어떤 분으로 나타나셨는지 밝히셨습니다. 그러니 욥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헛수고를 했다면 이 약속들은 거짓일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진실하게 당신께 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계시리라는 것, 당신을 부르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리라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께 구하는 모든 것이 주어지리라는 것(요 16:23 참조), 심지어 우리가 입을 열기도 전에 그분이 우리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으시리라는 것(사 65:24 참조)이 거짓일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그때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우려 하시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결국 그것을 알았고, 일어난 일에서도 보듯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그것을 느끼게 하셨다는 것을 새깁시다. 말하건대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매 순간을 따라 판단해서는 안 되고(그것은 그것을 너무 좁히는 것일 것입니다), 결말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새깁시다. 그리고 우리가 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귀를 열지 않으신 것을 보더라도, 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기를 이어 간다면 우리 고난의 결말은 늘 복될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이 있든 우리가 그분을 부를 때 그분이 우리 말을 들으려 하지 않으신다고 여기지 맙시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욥에게 어떻게 되었는지 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부르짖어도 응답받지 못하리라"고 말할 때 그것은 불신자들에게만 일어날 수 있는 위협입니다. 우리가 부르짖는다면, 그렇습니다, 믿음과

소망으로 부르짖는다면, 우리가 말한 이 약속이 우리에게 틀림없으리라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부르짖으면서 울부짖고 고함칠 뿐 하나님께 아무 믿음도 없고, 그분 없이는 자기가 망하고 삼켜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분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응답받지 못합니다. 그러니 욥에게 이 시험, 곧 그가 부르짖었는데 응답받지 못한 시험이 일어난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말을 들으시는 체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그분이 우리 기도를 거부하시고 셈에 넣지 않으신다는 뜻은 아니라고 결론 내립시다. 오히려 그분은 우리가 기도를 이어 가게 하시려고 못 본 체하십니다. "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겠습니까?" 하고 말하며 한 번 기도한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우리는 거기서 꾸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미루신다면, 그분이 우리 말을 들으셨다는 것을 알 때까지 그래도 늘 더 나아가기를 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밖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체하지 않으셔도 그분이 그것을 들으셨다는 것을 보여 주신다는 것을 잘 새깁시다.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은, 보십시오, 욥이 부르짖으면서 CO 607 응답받지 못했다고 탄식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의 간구를 듣지 않으셨다면 그는 삼켜진 것 이상이었으리라는 데서 드러납니다. 다만 그는 그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자주 우리 안에서 이렇게 일하셔서, 우리는 우리 상상을 따라 그분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겠는가?" 하고 바라보면 그것이 우리 감각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거칠고 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주님께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그분을 빼앗겼다고 생각했을 때에도 그분이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기를 그치지 않으셨고, 몰래였을지라도 늘 우리 안에 당신의 능력을 방울방울 흘려보내기를 그치지 않으셨다는 것을 보여 주십니다. 그러니 이런 시험 속에서 훈련을 받읍시다. 곧 우리가 우리 고난 한가운데서

하나님께 구하는데도 아무 덜어짐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아픔이 더해지며, 우리가 그분을 찾으러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괴롭히려고 날을 세우시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그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인내로 기다려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말입니다. "주여, 물론 이 싸움은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이었던 욥이 그것을 지나갔으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령으로 우리를 강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그분이 그때 욥에게 베푸시고, 그의 때에 다윗과 다른 모든 신자에게 베푸신 은혜가 오늘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시험 가운데 가장 큰 시험, 곧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부르는데 응답받지 못하는 시험을 완전히 이길 때까지 이렇게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욥이 "주께서 나를 거슬러 돌아서셨고 잔인한 자처럼 되셨다" 하고 말할 때 더한 것이 있습니다. 그는 이 말로 자기가 처해 있던 아픔과 고난에서 건짐을 받거나 덜어지지 못했을 뿐 아니라, 불이 그만큼 더 타오르고 구렁이 더 깊이 열리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 요컨대 그가 하나님을 부르면서 자기 처지를 더 나쁘게 만드는 것 같았다는 것, 마치 그가 하나님께 자기를 더 괴롭히시라고 일깨워 드리는 것 같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고난 속에서 기도할 때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이미 큰 시험입니다. 그리고 욥이 그것을 느꼈듯이 우리에게도 그것이 자주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CO 608 가까이서 살펴보면 이것은 훨씬 더 무겁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가 얻는 것이 없기는커녕,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더 노하시고 우리가 와서 그분을 우리를 거슬러 찌르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 너희가 여기 와서 나를 귀찮게 하는구나. 내가 너희에게 더는 견딜 수 없을 만큼 주겠다. 전에는 내 매가 가벼웠고 나는 너희를 새끼손가락으로 건드리듯 했을 뿐이지만, 이제는 큰 매로 너희에게 가겠다. 너희를 완전히 짓누르려고 칼을 뽑겠다." 그러니 때로 우리는 우리 기도에서 얻는 것이 없고, 다만 하나님께 우리에게 더 혹독하고 모질게 하시라고, 우리를

더 괴롭히시라고 일깨워 드리는 것 같으며, 고난이 더 쓰라려지고 우리를 완전히 삼킬 만큼 넘쳐흐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마다 자기 안에서 그것을 경험하듯, 신자들에게는 그렇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 위에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기서 욥이 우리에게 밝히는 것을 잘 새깁시다. 곧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믿음을 시험하려 하셔서 우리가 쇠약해지고 아픔이 더해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새로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첫 번에 우리 말을 들어 주지 않으시고 그때 여전히 노하신 체하신다 해도, 그러니 그것이 우리 앞에 닥친다 해도, 그분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것이고, 아픔이 더해지는 만큼 그분도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쓰러지지 않게 하시리라는 것을 믿읍시다. 그러니 우리는 늘 그분의 손에, 그렇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방식으로 붙들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믿음을 충분히 훈련하셨을 때, 그분이 우리를 괴롭히실 때 우리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느끼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우리는 이 구절을 이렇게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더라도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떤 시험을 보내시든 짓눌리거나 지지 않으며 꾸준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눈앞에 죽음이 완전히 와 있는 것을 보고 지옥의 구렁까지 삼켜진 것 같을 때에도, 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 욥에게 응답하셨듯이 결국 우리의 모든 아픔에도 좋고 복된 결말을 주시리라는 것을 의심하지 맙시다.

이제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엎드립시다.

제110편

욥기 30장 설교 3

CO 34:609–621

AI로 옮긴 초벌 번역입니다. 신학 감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CO 권: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 주께서 잔인한 자처럼 내게 돌아서시고, 주의 손의 힘으로 나를 낚아채셨네. 주께서 나를 바람 위로 들어 올려 그것을 타게 하시고, 내 정신을 녹아내리게 하셨네. 주께서 나를 무덤으로, 모든 사는 자에게 정해진 집으로 보내실 줄을 나는 아네. 그러나 많은 사람이 고난 중에 부르짖어도 거기서는 아무도 손을 뻗지 않으리라. 고된 날을 보내는 자와 함께 내가 울지 않았던가? 내 영혼이 가난한 자 때문에 근심하지 않았던가? 나는 좋은 것을 기다렸으나 나쁜 것이 왔고, 빛을 바랐으나 보라, 어둠이 왔네. 내 창자가 끓어오르고, 나를 사로잡은 고난의 때에 쉼이 없네. 나는 슬퍼하며 다니고, 회중 가운데서 부르짖네. 나는 용들의 형제요 타조들의 벗이 되었네. 내 살갗은 검게 되었고 내 뼈는 말라 버렸네. 내 수금은 통곡으로 바뀌었고, 내 피리는 애곡하는 소리가 되었네. (욥 30:21–31)

CO 609 우리는 앞에서 욥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보였을 때 그가 견딘 이 시험이 얼마나 큰지 풀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아픔 속에서 우리가 가진 마지막 피난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처방은 최고의 것이고 우리에게 모자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대에서 어긋난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께서 귀먹은 체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 요컨대 우리 기도와 간구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보십시오, 그것은 우리 앞에 지옥이 열린 것과 같고, 우리는 완전히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기를

미루시는 데 까닭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시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기서 특별한 능력으로 일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분을 부른 뒤에도 우리 아픔에서 아무 덜어짐을 찾지 못할 때 분명 우리는 모두 삼켜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욥에게 일어났으니 우리 저마다 그의 본보기를 따라 준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쇠약하게 내버려 두시고(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 그분께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인내로 기다리고 그런 시험과 싸웁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순종하려고도 애씁시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우리 정신을 고삐로 붙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픔이 우리를 몰아붙이고 우리가 더는 견딜 수 없을 만큼 괴로움을 당해도, 그래도 여기서 말하는 그 단순함 속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 동안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복종해 왔다면, CO 610 끝까지 거기서 꾸준합시다. 그리고 그중간에 우리가 너무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보이면 이 본보기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몸을 감추시고 첫 번에 당신의 능력을 느끼게 하지 않으시더라도 결코 그들을 잊지 않으시며, 결국 그분이 때가 알맞다고 아실 때 그들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결말이 우리에게 보여 주게 합시다. 그러나 사도의 교훈(히 6:12)을 간직합시다. 곧 믿음은 인내와 결합되어야 하고, 우리는 개선 행진에 이르기 전에 많은 싸움으로 훈련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삶은 싸우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이어지는 것은 우리가 이미 짚은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욥에게 잔인하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느낀 아픔의 극한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를 괴롭히는 지나친 엄격함을 잔인함이라고 부를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정죄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욥의 의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더 잘 깨달으려면 앞에서 밝힌 것을 간직합시다. 곧 신자들이 하나님의 손에 몰릴 때

말로 다할 수 없을 만큼 무서운 고뇌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내신 고난을 탄식하면서 이런 비유들을 쓰는 데에는 까닭이 있습니다. 곧 그가 깊은 구렁 밑바닥까지 이르렀고, 빛이 한 방울도 더는 없었으며, 그의 뼈가 썩은 것 같고, 골수가 빨려 나갔으며, 그의 모든 힘이 사라졌고, 그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으며, 그가 죽음을 선고받아 더는 처방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시 69:1–3; 22:14–15; 31:9–10).[69] 그가 그렇게 말할 때 그것은 불쌍한 신자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깨달을 때 그들을 몰아붙이는 격렬함과 고뇌를 나타내려는 것임을 새깁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스르신다고 깨달으면 그것은 모든 아픔을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두려워할수록, 보십시오, 그것이 우리 곤경과 고통을 더합니다. 불신자들과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들과 모든 세속적인 사람들은 멍한 것 같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악에 굳어져서 모든 경건(religion)을 비웃기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괴롭히시면 물론 그는 "아이고" 하고 소리칠 수밖에 없겠지만, 그 사이에 그는 자기를 치는 손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는 매질을 느끼지만 그것이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자들은 CO 611 자기의 모든 선과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아버지 같은 선하심에 있다는 것을 아니, 자기 아픔 한가운데서도 거기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수이시거나 그들을 버리셨거나 그들에게서 멀어지신 것처럼 보이면, 그들이 편안하고 모든 것이 뜻대로 되더라도 그들은 어찌할 바를 모를 만큼 무서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서 사자처럼 자기에게 잔인하시고 큰 이빨로 자기 모든 뼈를 부수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사 38:13). 히스기야의 의도가 하나님을 탄식하거나 그분과 다투려는 것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그는 왜 그분을 그렇게 먹이를 삼키러 와서 모든 것을 부수고 깨뜨리는 사자와 들짐승에 견줍니까? (우리

69. 원문에는 시편 69편 2–4절, 22편 15–16절, 31편 10–11절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어 성경 절수로 바꾸었습니다.

가 이미 말했듯이) 그것은 불쌍한 신자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느끼고 자기 죄를 알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재판관으로 나타나실 때 그들을 괴롭히는 그 공포를 나타내려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몸의 모든 아픔을 넘어서는 고뇌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욥이 하나님께서 잔인하게 자기를 거슬러 돌아서셨다고 탄식할 때, 그는 하나님께서 분량을 넘으셨다거나 어떤 폭정을 쓰셨다거나 불의하시다는 뜻이 아니라, 그 고통과 자기가 처한 아픔의 격렬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이 그렇게 말할 때 그것이 정념에 사로잡힌 사람으로서이고, 그러하니 앞에서 밝혔듯이 그가 완전히 변명될 수는 없다는 것을 잘 새깁시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정념이 다스릴 때 우리가 마땅히 그래야 할 만큼 공경스럽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에 대해 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정념은 눈멀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마땅한 공경으로 그분에 대해 말하려면 우리는 정신을 모으고 잠잠하고 평온하게 붙잡아 두어야 합니다. 그러니 욥이 여기서 자기의 첫 시험이 어떠했는지 보여 주고 밝히니, 그가 경솔하게 말하는 것처럼 말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가 하는 말을 마치 우리가 그를 따라 해도 되는 것처럼 선례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사람이 자기를 억누르려 애써도 자기 연약함을 다 이겨내지는 못해서 늘 흠잡을 것, 정죄받아야 할 무엇인지 모를 것이 남는다는 것을 알아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마땅히 요구되는 만큼 하나님께 복종할 수 없으니, 그만큼 더 우리는 우리 감정 속에서 고삐에 매인 듯 우리 자신을 붙잡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새겨야 할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스르는 분으로 나타나셔서, 당신의 선하심과 값없는 사랑 안에 우리를 받아 주시는 대신 우리 원수가 되실 것처럼 보이고, 우리 죄가 우리를 꾸짖으며, 우리가 우리 위에서 CO 612 저주의 표시밖에 알아보지 못할 때, 우리가 끝까지 괴로움을 당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주 필요한 가르침입니다. 저마다 타격이 오기 전에 준비하고, 우리가 거기에 이를 때 극한의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무장해서, 깊은 구렁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어떤 위로를 맛보며 우리가 알아볼 수 없는 더 나은 결말을 참고 기다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결코 아무 고뇌도 없고 두려움에 떨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바랄 만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맙시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밝혔듯이) 짐승같이 된 불신자들과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들에게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돼지와 소는 자기 감각이 미치는 만큼밖에 자기 아픔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자기 감각 속에서 완전히 마비되어 하나님을 잊고 그분 이름의 기억을 발로 짓밟기만을 바라는 그 비루한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런 마비에서 깨어나 하나님의 진노를 느끼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압시다. 그래서 우리가 더 큰 조심 속에 걷고, 그 방법으로 우리 자신을 낮추기를 배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소환할 때가 아니면 결코 자기 연약함을 잘 확신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염려하고 자기 안에서 자기를 살피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합니다(잠 28:14 참조). 왜 그렇습니까? 우리 정신이 거기서 쓰러진 것처럼 될 때, 그 무관심이 우리의 멸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근심 속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좋고 우리 구원에 알맞으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우리 죄를 그만큼 더 잘 생각하도록 와서 당신의 진노를 느끼게 하시는 데 까닭이 있다는 것을 알아봅시다. 이것이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둘째로, 우리가 결코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그렇게 잘 이끌리거나 우리 감정을 그렇게 잘 절제할 수 없어서 여전히 너무 큰 거스름이 있으리라는 것을 새깁시다. 우리가 보듯 인내의 거울이었던 욥도 하나님에 대해 말할 때 절제될 만큼 자기를 붙잡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마땅히 그래야 할 만큼 공경스럽게 나아가지 못하고 이 시험 속으로 곤두박질치듯했기 때문입니다(그런데도 그는 지지 않았고, 아주 힘겹게 맞섰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있는 정념이 그렇게

엉뚱하다는 것을 보니, 우리 자신을 사로잡힌 자처럼 붙잡아 두기를 배웁시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길들이려고 잘 싸운 뒤에도 여전히 불완전함이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당신의 무한한 선하심으로 우리를 참아 주지 않으신다면 늘 우리를 정죄할 것을 찾으시리라는 것을 알아봅시다. 우리가 새겨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욥은 이 큰 CO 613 공포와 자기를 사로잡은 고통과 아픔을 나타내려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바람 위로 들어 올리셨고, 허공에서 타고 다니게 하셨으며, 자기의 모든 힘과 기운을 녹아내리게 하신다고 덧붙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회오리바람에 휩쓸리듯 낚여 올라가 휩쓸려 갈 때 그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사람이 쓰러져서 거기서 죽는다면, 하나님께서 갑작스러운 폭풍으로 그를 허공으로 들어 올리실 때만큼 일이 무섭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욥의 의도가 무엇인지 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한 말을 굳게 하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낯선 방식으로 훈련하시고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눈으로 본 본보기와 우리가 겪은 경험만을 따라 깨닫지 맙시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방식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넋이 나간 것 이상이 될 만큼 우리를 시험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아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알았을 때 그분이 필요할 때 우리를 강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 사방에서 무덤밖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몸의 죽음뿐 아니라 지옥에 삼켜질 것처럼 보여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서 꾸준하기를 그치지 맙시다. 늘 그분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에 기대고, 그분을 부르며 그분께 우리의 모든 피난처를 두기로 굳게 결심합시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감각이 거기에 맞서고 그분께 나아가는 길이 우리에게 닫힌 것처럼 보여도 말입니다. 그러니 이 구절들에서 우리가 묵상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바람과 회오리바람을 말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허공에서 타고 다니게 하셨다고

말할 때 그것이 쓸데없는 말이라고 생각하지 맙시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때 우리를 징계하시는 낯선 방식들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미리 생각해 두지 않아서 허를 찔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 주려는 것입니다. 그 밖에 우리가 우리 안에서 그렇게 크고 엉뚱한 고난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아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봅시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아픔을 견딜 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보기에) 이치보다 더 언짢고 괴롭다면 욥의 본보기를 들어 봅시다. 어떻게 합니까? "너는 아직 하나님의 그 선한 종만큼 그런 극한에 이르지 않았다. 그 까닭은 네 하나님께서 네 연약함을 헤아리시기 때문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그분은 그렇게 하실 수 있고 그럴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너를 그렇게 혹독하게 다루려 하지 않으신다. 거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는 그분이 여전히 네게 인정을 베푸신다는 것을 본다. 네가 어떤 엄격함을 느끼든, 너는 그분이 잔인한 사자처럼 네게 와서 너를 조각조각 찢어 놓았다고 말할 만큼 아직 괴로움을 당하지 않았다. 너는 CO 614 그런 것을 하나도 내세울 수 없다. 그러니 너는 이 선하신 하나님께 잘 구하고 그분께 돌아갈 수 있다. 그리고 그분이 여전히 네게 인정 있고 자비롭게 나타나시니, 그분은 여전히 네게 아버지요 구원자이실 것이다." 그러니 보십시오, 이 비교는 이렇게 우리에게 쓰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언짢음과 짜증이 너무 많고 우리가 대들어 반역하도록 부추겨진다고 느낄 때, 우리는 우리 정념을 누그러뜨려야 합니다. 말하건대 그때 우리는 여기 적힌 것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욥은 다시 하나님께 자기가 연약한 불쌍한 사람이고 죽음에 가까우니, 하나님께서 왜 자기를 그렇게 혹독하게 핍박하시는지 놀랍다고 내세웁니다. 그는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무덤으로, 모든 사는 자에게 마땅한 집으로 보내실 줄을 나는 압니다. 주께서 사람들을 여기 아래에 두셔서 순간처럼 지나가게 하시는 것이 사람의 처지이니, 왜 주께서 그들을

시험하시고 그들 위에, 그들을 거슬러 주의 능력을 펼치십니까?" 보십시오, 이것이 욥의 의도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비슷한 말들을 보았지만 이것이 되풀이되는 데에는 까닭이 있습니다. 실제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께 우리의 연약한 처지의 약함을 내놓으며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그분이 우리를 자비로 받아 주시고 우리를 덜어 주시도록 움직이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시편(103:14)에서 주님께서 우리가 티끌일 뿐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지나간 뒤에는 썩음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아시며, 그것을 아시니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 비참을 불쌍히 여기신다고 말하는 대로입니다. 그 약속은 우리로 이렇게 기도하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다른 구절(시 78:39)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지나가며 사라지는 그림자일 뿐이라는 것을 보시고 허물을 용서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 비참에서 건짐을 받으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 해도 손바닥만 뒤집으면 보라, 우리는 죽은 자라는 것, 심지어 우리가 한창 피어나고 기운찰 때에도 오늘은 푸르지만 베어지면 시들고 아무 물기도 기운도 없이 말라 버리는 풀에 견주어진다는 것을 그분께 내세워야 한다는 것을 배웁시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내세우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비참에서 우리를 건지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깨움을 받으셔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그분은 우리보다 우리 연약함을 더 잘 아시니 그것을 알려 드릴 필요가 없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그분께 기도하듯, 우리가 기도에 넣는 모든 간구와 모든 이유는 우리의 쓰임과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하나님께 자기가 연약한 불쌍한 피조물이라고 내세울 때 그는 자기 자신을 거울에 비추어 보고 CO 615 겸손을 배웁니다. 우리가 우리 처지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늘 어떤 교만으로 부풀어 있거나, 자비를 얻도록 마땅히 준비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우리 안에서 쓰러질 만큼 거기까지 이끄시면, 그때

우리는 그분의 도우심을 찾도록 그만큼 더 잘 준비될 것이고, 그렇습니다, 더 큰 열심과 경건으로 찾을 것입니다. 그 밖에 우리 주님께서는 또한 당신이 무엇보다 요구하시는 이 섬김, 곧 시편 51편(17절)에서 말하듯 상하고 쓰러진 영을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70]

그러니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연약함을 내세울 수 있습니다. 곧 우리가 티끌과 썩음일 뿐이고,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것도 아닌 것보다 못하다는 것을 내세워서, 그것으로 그분이 우리를 자비로 받아 주시도록 움직이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어떤 짜증이 섞여서는 안 되고, 어떤 가시나 불평이 담긴 탄식이 있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새깁시다. 욥이 여기서 마땅히 그래야 할 만큼 절제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떻게 "나는 무덤으로, 모든 사는 자의 집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안다" 하고 말합니까? 그가 여기서 자기가 시험받은 어떤 지나친 정념을 밝힌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가 거기에 졌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는 자기 안에서 그 반역을 느껴서 마땅히 그래야 할 만큼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맞추지 못했습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여, 주께서 여기서 나를 시험하시고 나를 핍박하십니다. 그런데 나는 누구입니까? 주께서 아무것도 아닌 불쌍한 피조물에게 그렇게 모질고 엄격하게 나타나셔야 합니까?" 그러니 우리는 여기 이 참을성 없음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우리 본성의 부패가 어떠한지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적처럼 지켜 주시지 않는다면 가장 좋은 것들에도 늘 악이 섞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손에 괴로움을 당한 사람들이 그분께 자비를 얻으려고 자기 약함을 내세우고, 자기 생명이 아무것도 아니며 자기에게 아무 힘도 없고 죽음이 매 순간 자기를 위협한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 좋고 거룩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말하건대 보십시오, 그것은 좋고 거룩한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70. 원문에는 "시편 51편 19절"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어 성경 절수로는 17절입니다.

기쁘신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낮추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 그 본보기를 보듯 그것을 악으로 바꿉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주여, 내가 누구입니까? 주께서는 나를 지나가며 흘러가는 그림자로 아십니다. 내 모든 힘은 연기일 뿐입니다" 하고 내세운다면, 말하건대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핍박하시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분해하고 짜증을 낸다면, 그것이 악하고 저주받은 정념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탄식이 좋고 유익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좋은 것을 비뚤게 하려고 늘 어떤 지나침을 섞는 것을 억제하지 못합니다. CO 616 그러니 우리 본성에는 선을 썩게 하고 악으로 바꿀 만큼의 악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 주시는 것을 곧은 실처럼 따를 수 없을 만큼 들떠 있다는 것을 보니, 그만큼 더 우리는 늘 경계하고 우리 자신을 의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때문에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 안의 지나침을 정죄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서 아첨을 써서는 안 되고, 악이 악이 아니라고 스스로 믿어서도 안 되며, 그것을 정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정죄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 주시리라는 것을 의심하지 맙시다.

그 사이에 우리는 욥의 의도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무덤으로 갑니다. 그런데 나는 거기서는 아무도 손을 뻗지 않으리라는 것을 압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거기서 손을 뻗지 않으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스러운 뜻은 이렇습니다. "내가 많은 사람에게 애도를 받는다 해도, 어쨌든 아무도 나를 도우려고 손을 뻗을 수 없을 것이다. 내가 죽음에 사로잡히면 거기에는 더는 처방이 없고 사람의 모든 도움이 모자란다." 그러니 우리는 욥의 의도가 이렇게 말하려는 것임을 봅니다. "주여,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으며, 그 밖에 우리가 죽으면 완전히 사라져서 아무도 우리를 도울 수 없으니, 적어도

우리가 여기 아래에 있는 동안 우리에게 어떤 휴전을 주십시오. 왜 주께서 우리를 거슬러 그렇게 크고 엄격하게 대하십니까?" 요컨대 욥이 말하려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미 우리가 이 탄식을 어떻게 써도 되는지, 곧 불평 없이 그리고 따지지 않고 써야 한다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이 극한에서 하나님을 거슬러 높아지고 그분이 우리를 괴롭히시는 매에 대들려 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다른 생각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을 새깁시다. 곧 우리가 죽음을 향해 가고 늘 무덤에 한 발을 걸치고 있는 것 같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서 건지시려고 당신의 손을 뻗으셨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세상에 내려오셨습니까? 왜 심지어 지옥까지 내려가셨습니까? 곧 모든 불쌍한 죄인에게 마땅했던 고뇌를 겪으셨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거기서 건지시려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죽음 속에서 기뻐할 좋은 소망을 품지 못하는 자들은 마치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인격으로 그것을 겪으셨다는 것을 부인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 저주에 매이고 당신을 거스르는 하나님의 손을 느끼실 만큼 거기까지 당신을 비우신 것은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그분이 얻으신 승리가 우리를 위한 것임을 우리에게 확신시키시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분이 CO 617 죽음을 이기는 권능을 가지셨으니, 늘 이 부활이 우리 눈앞에 오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탄의 종살이에서 건지시려고 당신의 강하고 이기시는 손을 뻗으셨다는 것을 알아봅시다. 그리고 거기서, 이 죽을 삶 동안 우리가 많은 아픔을 겪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려 하신다 해도 그것을 이상하게 여겨서는 안 되고, 여기서 하는 이런 탄식과 하소연에 들어가서도 안 된다는 것을 알아봅시다. "그렇습니까? 나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 세상을 지나간 뒤에는 무덤으로 가야 하고, 아무도 나를 도우러 달려올 수 없을 것입니다." 오, 우리를 위해 보증인이 되시고, 죽음의 고통을 없애시며, 사탄의 사슬을 끊으시고, 우리를 풀어 주시려고 놋문을 부수신(시 107:16

참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속자로 모실 때 우리는 충분히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알 때, 여기 아래에서는 싸워야 하고 저 위 하늘에는 우리를 위해 마련된 안식이 있다는 것을 알아서, 이 세상의 역경 한가운데서 인내합시다. 우리가 여기서 전쟁을 한다면 하늘에서 개선 행진이 우리에게 모자랄 수 없다는 것을 알아봅시다. 그러니 욥이 공격받았고 그렇게 힘겹게 맞선 시험들에 대해 무장하고 갑옷을 입으려면 우리가 묵상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 밖에 그가 덧붙이는 말을 잘 새깁시다. "괴로움을 당하고 고되고 모진 날(또는 때)을 보내는 자와 함께 내가 울지 않았던가? 내 영혼이 가난하고 괴로움당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나는 좋은 것을 기다렸으나 나쁜 것이 내게 왔고, 빛을 바랐으나 보라, 어둠이 왔다." 이것으로 욥은 하나님께서 왜 자기를 그렇게 혹독하게 다루시는지 그 까닭을 보지 못한다고 밝힙니다. 그가 형통할 때 잔인하지 않았고 가난한 자들과 슬픔 속에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겼으며, 자기 기쁨에 취하지 않았고, 늘 사람 삶의 비참이 어떠한지 알아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아픔으로 훈련받는 자들과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욥은 자기가 그렇게 괴로움을 당할 까닭이 없다는 것을 보여 주려고 이것을 내세웁니다. 그런데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매로 치실 때, 그것은 대개 우리가 우리 편안함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분이 우리 육이 너무 흥청거리는 것을 보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잔인하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대개 우리를 괴롭히시는 두 가지 까닭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서도 그분이 그렇게 자기 편안함 속에서 방자해지는 자들을 위협하시는 것을 봅니다. "웃는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가 울 것이기 때문이다"(눅 6:25 참조).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평안 속에 있고 일들이 뜻대로 될 때 자기를 휩쓸려 가지 않게 억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들은 자기를 잊고, 자기가 모든 아픔에서 CO 618 면제되었다고 생각하며,

술주정뱅이 같습니다. 술주정뱅이가 아무 절제도 없이 들짐승처럼 뿔로 들이받듯,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드럽게 대하실 때 대부분의 사람도 그렇습니다. 곧 그들은 그분의 선하심을 남용하고, 제멋대로 자기를 내던지며, 자기 욕심에 고삐를 풀어 줍니다. 사람이 배불리 먹고 마실 것을 가질까요? 보십시오, 음행이 뒤따를 것이고, 그다음에 추한 방탕이 따를 것이며, 신성모독과 모욕과 폭력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노름과 그와 비슷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요컨대 사람들은 편안할 때 좋은 절제를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괴롭히시는 까닭이 이것입니다. 곧 그분은 그들이 그렇게 바로잡히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보십니다. 그 밖에 또 다른 악이 있습니다. 바라는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은 불쌍한 괴로움당하는 자들을 셈에 넣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들을 업신여기고, 심지어 그들의 목을 밟을 것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가 꾸짖음을 받은 것을 봅니다. "보라, 빵이 넉넉했고, 그다음에 즐거움이, 그다음에 잔인함이 있어서, 그들은 궁핍한 자들을 도울 생각도 하지 않았다"(겔 16:49 참조). 그러니 편안한 자들이 자기 이웃의 괴로움과 고난에 함께하려 하지 않고 땅의 낙원에 있는 것처럼 머물며 모든 비참과 괴로움을 느끼지 않으려 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차례에 그들을 혹독하게 다루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 형제들에게서 본 아픔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으니, 하나님께서 그다음에 억지로라도 그들이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하셔야 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모든 비참을 벗어 버리려 했지만, 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알아야 한다는 것을 억지로 보여 주십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우리가 지켜야 할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대개 사람들을 괴롭히시는 것은 그들이 형통할 때 잔인하거나, 아니면 방탕한 기쁨에 취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이런 까닭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실 수 있고, 욥에게 일어났듯이 그분께는

우리가 아무 까닭도 알아차리지 못할 은밀한 심판이 있으리라는 것도 새깁시다. 그래서 그가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그렇게 절제했으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셔서는 안 되었다고, 자기가 인정 있고 온화한 사람이었고 불쌍한 괴로움당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아파했으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아끼셔야 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것으로 우리는 우리가 간직해야 할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평화와 안식과 필요한 모든 것이 있어서 얼마 동안 괴로움에서 벗어나 있다면, 너무 연약해지지 말고, 고난받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려고 물러나는 응석받이처럼 굴지 맙시다. 오히려 CO 619 우리 이웃의 아픔에 찔려서 그들과 함께 탄식하고 우리 힘이 닿는 만큼 그들을 도웁시다.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그들을 도울 수 없을 때에는 적어도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러니 보십시오, 우리가 새겨야 할 첫째 가르침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가 즐거움 속에 있을 때 잠들지 말고, 늘 여기에는 확실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 견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봅시다. 말하건대 우리는 먼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아끼실 때 우리 자신을 잘못 알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간직해야 합니다. 좋은 것이 우리에게 오래가지 않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미 말했듯이 우리가 그것을 남용하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보내신다면 우리 자신을 잘 생각하고, 우리가 형통하던 때에 잠든 것처럼 지내지 않았는지 살펴봅시다. 그것으로 우리는 우리 허물을 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정죄하라는 경고를 받기 때문입니다. "주여, 주께서 우리를 괴롭히시는 것은 마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의 은혜로 우리가 형통하던 때에 우리는 주를 잊었고, 고삐가 풀린 것처럼 지냈으며, 너무 방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께서 우리를 벌하시고 우리가 우리 죄와 방자함의 열매를 느끼는 것이 아주 마땅합니다." 보십시오, 하

나님께서 어떤 고난으로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저지른 허물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도움을 받아 마땅했던 자들에게 우리가 잔인하지 않았는지 잘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셈에 넣지 않았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차례에 우리를 혹독하게 다루시는 것이 아주 마땅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질고 엄격하실 때 우리는 우리 허물을 알아보기를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한 가지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자면) 우리가 우리 이웃을 도우려 애쓰고 그들의 아픔을 불쌍히 여기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라고 권하듯(롬 12:15) 우는 자들과 함께 울었다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기를 기뻐하실 징계를 견딜 준비를 늘 하기를 그치지 맙시다. 말하건대 우리가 그 까닭을 알지 못한다 해도 말입니다. 우리가 형통할 때 깨어 있었고 우리 편안함을 남용하지 않았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혹독하게 다루기를 그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물으면 그 까닭이 처음에는 드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낮추시려고 그렇게 하시니, 늘 그분이 의로우시다고 인정합시다. 그래서 나는 우리가 이 두 가지 까닭을 구분해서 간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곧 먼저 우리는 성경에 있는, 자기 이웃에게 잔인하고 CO 620 자기 형통 속에서 짐승같이 되는 자들을 거스르는 위협을 간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 사이에 사람들이 절제 있고 소박하고 인정 있다 해도, 욥에게 일어났듯이 하나님께서 보통과 다른 방식으로 그들을 괴롭히기를 그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아봅시다. 그러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가 여기서 "나는 빛을 기다렸으나 보라, 어둠이 왔다. 좋은 것을 바랐으나 보라, 나쁜 것이 왔다" 하고 말하는 대신,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대로 좋은 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듯(딤전 4:8) 하나님을 경외함에는 영원한 생명뿐 아니라 현재의 덧없는 삶의 약속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늘 하나님의 손에서 좋은 것을 기다립시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에게 나쁜 것을 보내기를 기뻐하실 때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만큼 그것을 기다리지는 맙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드럽게 대하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같은 부드러움을 쓰시겠다고 약속하실 때, 그것은 "그것이 우리 구원에 알맞은 한"이라는 조건이 아니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시적인 복은 우리 주님께서 분량을 따라 우리에게 넉넉히 나누어 주셔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까닭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미 내세운 까닭입니다. 곧 사람들이 하나님의 좋은 것을 남용하고 그것을 썩게 하거나 그분의 의도와 완전히 거꾸로 나누어 주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거나 어려운 것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베푸셨다면 그분이 그것을 이어 가시고 심지어 늘 더해 가시리라고 잘 소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대는 그 사이에 그분이 우리에게 나쁜 것을 보내기를 기뻐하실 때 그것을 받을 준비가 완전히 되어 있지 않을 만큼이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삶에 결코 바뀌지 않을 머무는 형편이 있으리라고 셈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이 연약하듯 우리도 많은 변화에 매여 있어야 하고, 오늘 우리에게 좋은 것이 있다면 내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서 빼앗으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아봅시다. 그리고 그분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 까닭을 보지 못한다면 그것으로 만족합시다. 그러니 보십시오, 신자들이 이 세상의 일시적인 좋은 것을 기다려야 하는 방식이 이것입니다. 곧 그들이 그것을 누린다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셨던 대로 그들을 계속 대해 주시리라고 굳게 결심하되, 좋은 것을 기다리면서 나쁜 것을 받을 준비를 해서 허를 찔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 동안 그들을 더할 나위 없이 부드럽게 대하신 뒤에 그들에게서 당신의 복을 빼앗으신다면 그것이 그들에게 낯선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하건대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을 완전히 거꾸로 돌리셔서 그들을 괴롭히신다면 그들이 그것을 새롭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우리가 좋은 것을 기다려야 하는 방식이 이것입니다. 곧 늘 나쁜

것을 견딜 준비가 되어 있고, 그것을 인내로 견딜 준비가 되어 있어서, 우리가 CO621 나쁜 것이 닥쳤을 때 휩쓸려 가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에 결론으로 여기서 욥에 대해 하는 말을 잘 새깁시다. 그는 자기가 용들의 동료요 타조들의 형제, 곧 들사람 같았다고 탄식합니다. 그가 더는 사람의 수와 줄에 들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그를 거기까지 버리셔서 그가 들짐승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죽을 피조물보다는 오히려 천사에 견줄 수 있을 만큼 거룩함과 완전함 속에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는 그가 어떻게 다루어졌는지 봅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모든 일에서 어디서나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라는 경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완전히 삼키려 하시는 것처럼 보일 만큼 혹독하게 괴롭히신다 해도 그 때문에 그분께 여전히 소망을 두기를 그치지 말고, 우리가 앞에서 본 것, 곧 그분이 우리를 죽이셨다 해도 우리가 늘 그분의 자비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욥 13:15 참조)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죽음의 싸움과 싸우고 그분의 약속 위에 서서 우리의 모든 아픔 한가운데서 굳게 버티고 한결같아야 합니다. 우리가 새겨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 밖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괴롭히신다면, 그런 고난에 대해서는 고뇌를 덜 가져야 하고 오히려 그만큼 더 부드럽게, 평온한 양심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병이 우리 안에 너무 뿌리박혀 있으니 우리가 그렇게 모질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 하나님께 대들지 않고는 기뻐할 줄 모르니, 여기 덧붙인 이 위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곧 그분이 우리 수금을 슬픔으로, 우리 피리를 애곡하는 소리로 바꾸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남용하는지 봅니다. 저마다 자기 개인을 살펴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평안히 내버려 두시면 우리는 흔히 말하듯 곧 경첩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공동의 형편으로 오면, 아, 우리는 오늘 세상이 더할 나위 없이 방자하다는 것을 볼 것입니다. 요컨대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들기로 공모한 것처럼 보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인자하고 인정 있게 나타나실수록 우리는 그분을 노엽게 하는 데 그만큼 더 대담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하니 그분이 우리 수금과 피리를 애곡과 울음과 슬픔으로 바꾸실까 두려워합시다. 우리는 그럴 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시던 은혜를 우리가 그렇게 추하게 남용했으니 그분이 우리를 슬픔과 고뇌 속에 두시는 것이 아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난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손을 느끼게 하기를 기뻐하실 때, 우리가 그 까닭을 알든 그것이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않든, 그 때문에 그분께 달려가기를 그치지 맙시다. 우리가 우리 허물을 정죄했을 때,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당신의 선하심을 이어 가시고 늘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를 느끼게 하시며 마침내 우리를 모든 완전함으로 그것으로 채우시리라는 것을 확실히 확신할 만큼 우리가 그것을 정죄할 때, 그분이 우리를 자비로 받아 주시리라는 것을 소망합시다.

이제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엎드립시다.

제111편

욥기 31장 설교 1

CO 34:622–635

AI로 옮긴 초벌 번역입니다. 신학 감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CO 권: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으니 어찌 처녀를 바라보았겠는가?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몫이 무엇이며, 하늘에 계신 전능자께서 주시는 유산이 무엇인가? 불의한 자에게는 끊어 냄이 있고, 죄악을 꾀하는 (그리고 꾸미는) 자들에게는 부끄러움이 있지 않은가? 그분이 내 길을 보지 않으시며 내 걸음을 다 세지 않으시는가? (욥 31:1–4)

CO 622 우리는 앞에서 욥이 자기 친구들이 그에게 믿게 하려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단언하는 것을 이미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는 자기가 거룩하고 온전하게 살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다시 이 말로 돌아오는데, 까닭이 없지 않습니다. 그가 마음의 올곧음과 하나님 앞의 단순함 속에 걸었는데도 사람들이 그를 위선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에게 무거운 시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 그는 자기 평판이나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지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가 여기서 보듯 걸었다 해도 하나님의 손에 괴로움을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왜 그를 그렇게 찾아오셨는지 그 목적과 까닭을 그가 아는 것은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이 장의 결론에서 더 온전히 볼 것입니다. 이제 CO 623 여기 담긴 것을 살펴봅시다. 곧 욥은 자기가 하나님을 충실히 섬겼고, 이제 그렇게 무겁고 지나친 아픔을 견디는 것이

자기가 저지른 범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시고 사람들은 알아차리거나 판단할 수 없는 어떤 다른 감추어진 까닭이 있다는 것을 밝히려 합니다. 먼저 그는 자기가 자기 눈과 약속하여 살아 있는 처녀를 음란하게 바라보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자기 온전함을 증언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가 결코 악으로 부추겨진 적이 없다고 단언할 수 있다면 그것은 큰 완전함의 표시이고 천사 같은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갑작스럽고 들뜬 시험을 받으면서도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 심지어 그 모든 것을 물리치고 미워하는 일은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람이 자기 모든 감각을 그렇게 온전하게 모든 타락에서 벗어나게 지켜서 결코 속을 수 없다면 그것은 큰 덕일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것을 더 잘 깨달으려면, 죄가 형성되기까지 악에는 세 단계가 있다는 것을 새깁시다. 말하건대 실제로 행한 죄가 없다 해도 그렇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죄를 말하면서 아이의 비유를 씁니다. 그는 정욕이 잉태하고 그다음에 죄를 낳으며, 일이 실행되는 행위에 이를 때 죄가 완성된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약 1:14–15). 그런데 나는 겉으로 드러난 행위가 없다 해도 악에는 세 단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사람이 무엇을 볼 때 품는 들뜬 상상입니다. 이것저것이 그의 머릿속에 떠오를 것입니다. 또는 아무것도 보지 않아도 그의 정신이 악에 너무 재빨라서 이리저리 휩쓸리고 많은 상상이 머릿속에 떠오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분명 악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죄로 돌려지지는 않습니다. 이제 둘째 단계가 있습니다. 곧 어떤 상상을 품은 뒤에 우리가 어느 정도 간질임을 받고 우리 의지가 그쪽으로 끌리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거기에 동의나 합의가 없다 해도, 어쨌든 그 안에 우리를 부추기는 어떤 찔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것은 나쁜 죄이고 잉태된 것과 같습니다. 그다음에 동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굳은 의지를 가져서, 기회가 오면 악이 행해지지 않을 까닭이 우리에게 없을 때입니다. 그때가 셋째 단계이고, 그때 겉으로 행위가 없다

해도 죄가 우리 안에 형성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새겨 둘 만합니다. 이 일이 어렵게 보일 수 있지만, 그래도 내가 방금 말한 것을 알지 못하고 날마다 자기 안에서 그것을 경험하지 않는 남자도 여자도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괴로움을 당할 때 이런 생각이 떠오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CO 624 우리를 생각하시는가?" 그런 상상을 품지 않도록 자기를 억제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본성이 너무 타락하고 악으로 기울어 있어서 우리가 그런 깨달음을 가지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앞에 닥칠 때, 우리가 그것을 밀어내고 "어떻게? 나는 그것을 미워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고 당신을 찾는 자들을 도우려 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신성 모독이다. 그것은 마치 그분이 더는 세상을 다스리지 않으신다고 부인하려는 것과 같다" 하고 생각한다 해도, 그것은 이미 악입니다. 그러니 그런 것들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를 때, 보십시오, 그것은 악이고, 우리는 이렇게 결론 내려야 합니다. "아, 주여, 우리가 그런 괴물 같은 것들을 품을 수 있으니 우리는 헛됨으로 가득한 불쌍한 피조물입니다." 둘째가 있습니다. 곧 아픔이 우리를 몰아붙이고 고통이 더 커질 때 우리는 이런 불평에 이릅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신다면 내가 이렇게 쇠약해지겠는가? 그분이 나를 도우실 마음이 없으신가?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못 본 체하신다. 그러니 내가 그분께 버림받은 것 같다." 우리가 그렇게 속으로 따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지 아닌지 그런 깨달음을 품을 때, 그때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나타나셨는지 알고 그분의 약속을 받아들이며 그 위에 서서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아니다, 어찌 되든 나는 내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피난처를 둘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결국 이런 확신과 견고함을 가진다 해도, 거기에 이르기 전에 흔들림과 당혹 속에 있다면, 보십시오, 그것은 첫째보다 더 큰 악이고, 우리가 그렇게 나쁜 시험을 받아들일 수 있었으니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심과 불신의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셋째 단계가 있습니다. 곧 우리가 완전히 쓰러져서 "오, 보라, 아픔이 이겼다. 하나님께서 내게 손을 내미시기를 너무 오래 미루셨다. 나는 여기서 절망한 것 같다" 하는 말 말고는 무엇이라 해야 할지 모를 때입니다. 우리가 너무 짓눌려서 더는 하나님을 부를 수 없고 그분의 약속에 기대어 거기서 기뻐할 맛을 느끼지 못할 때, 보십시오, 그것이 악의 셋째 단계입니다. 마치 아이가 형성된 뒤에 낳는 일만 남은 것처럼, 여기서는 겉으로 드러난 행위가 오는 것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욥의 말로 옵시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내 눈과 언약 또는 약속을 맺었다." 우리는 이것이 큰 완전함의 표시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자기 눈길을 붙잡아서 이리저리 바라보면서 자기를 악으로 끄는 것을 하나도 품지 않고, 자기 안에 참된 정결과 예의가 있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다면, CO 625 그는 거의 천사처럼 모든 타락에서 깨끗하다고 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욥이 이것을 헛되이 단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가 하나님의 천사처럼 이 세상에서 지냈다는 것을 알아봅시다. 물론 그는 본성상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약속을 맺었다고 말할 때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서 자라서 자기 악한 욕심을 발로 짓밟고, 자기 마음에 이 승리를 얻어서 고삐에 매이고 갇힌 듯 자기를 붙잡을 수 있었던 뒤의 일입니다. "나는 아무 악도 바라거나 원하려고 탐내지 않을 것이고, 내 안에 하나님을 노엽게 하려는 핏줄 하나도 가지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내 눈과 내 입과 내 귀에서 여기 붙잡혀 있을 것이다." 보십시오, 욥은 이렇게 이 약속을 맺었습니다. 그가 자기 본성 안에 그런 온전함을 가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처럼 정념에 매인 사람이었고, 그가 평생 많은 시험을 겪었다는 것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걸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익숙해져, 나쁜 욕구를 품지 않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니 그에게는 이른바 습관이 있었습니다. 곧 그가 그것에 너무 길들여져서 더는 이쪽저쪽으로 자기를 던지며 이런저런

것에 자기를 부추기며 떠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컨대 우리는 여기서 욥이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썼을 뿐 아니라 너무 힘써서 자기 육의 모든 정념을 길들이고 사로잡았으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는 그에게 아무 수고도 들지 않았다는 것을 밝히려 했다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우리 연약함과, 심지어 우리 본성에 있는 타락 때문에 우리 안에 가지는 그런 싸움이 그에게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자신의 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새깁시다. 그는 그런 완전함을 스스로 얻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령으로 그를 너무 새롭게 하셔서 그가 사람들의 보통 줄에서 구별된 것과 같아야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주여, 내 눈을 돌이켜 헛된 것을 보지 않게 하소서"(시 119:37) 하고 구하는 데에는 까닭이 있기 때문입니다. 욥이 자기가 단언하는 것을 자기 재주로 가졌다면, 분명 다윗도 아무 헛된 것을 품지 않고 그의 눈이 어떤 식으로든 속거나 정신을 빼앗기지 않을 만큼 그런 굳셈을 똑같이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가 아니면 그것을 가지거나 얻을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욥이 자기 자유의지로 그런 약속을 맺을 수 없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곧 그 안에서 이성이 너무 다스려서 그가 자기 모든 정념을 이겼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여기서 그런 좋은 것에 대한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려 합니다. 그러니 그것은 마치 그가 그런 좋은 것을 얻었다는 것처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너무 잘 다스리셔서 자기 눈길로 더는 악에 부추겨지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 밖에 욥이 그렇게 말할 때, CO 626 반대로 그는 사람이 여자나 처녀를 바라보고 악에 부추겨진다면 그것이 이미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뜻을 나타낸다는 것을 새깁시다. 그렇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행위가 없다 해도, 심지어 그 사람이 처녀를 더럽히거나 꾀려고 애쓰지 않는다 해도, 그 안에 아직 "나는 그러고 싶다" 하고 말할 결정된 의지가 없다 해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그런 의지를 가지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부추겨지는 이 시험에 맞선다 해도, 그는 하나님을 노엽게 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새겨 둘 만한 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곧 우리가 몸으로 음행을 삼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셈이 끝났거나 무죄 선고를 받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여자를 바라보기만 한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 눈길이 음란하다면 하나님 앞에서 음행한 자로 판단받는다는 것입니다(마 5:28 참조). 그리고 더욱이 (내가 이미 말했듯이) 의지가 거기 굳어지지 않았을 때에도 우리는 이미 우리 자신을 낮추려고 하나님 앞에서 그 허물을 고백해야 합니다. 교황주의자들은 사람이 악에 동의하면, 곧 기회가 있으면 악을 행하기로 굳게 결심할 만큼 악을 바라면, 오, 그것이 정죄받아야 할 죄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어떤 나쁜 욕구를 가지더라도 완전히 거기에 동의하지만 않으면 교황주의자들은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보십시오, 그것은 저주받을 신성모독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막 12:30 참조) 하고 말씀합니다. "뜻과 힘"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께 드려야 할 사랑을 우리 마음과 감정에만 한정하지 않으셨고, 우리 정신과 감각과 우리의 모든 힘, 곧 우리 본성에 있는 모든 능력과 힘도 똑같이 거기에 쓰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이 어떤 악을 품는다면, 그가 완전히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 그의 감정이 온전히 거기 빠져 있지 않다 해도, 묻건대 그가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자기의 가장 작은 부분이라도 타락을 향해 있는 사람이, 다른 점에서는 율법을 이루려고 애쓴다 해도,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겠습니까? 분명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 말고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요일 3:4 참조).

그러니 우리가 악에 부추겨질 때 가지는 모든 악한 상상은 그만큼의 죄

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무한한 선하심으로 우리를 참아 주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 그분께 빚진 자가 되리라고 결론 내립시다. 그러나 그분은 당신의 백성을 용서하십니다. 어쨌든 그들은 그것을 죄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든 자기를 달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돋우기만 하고 자기 정죄에 이르도록 악을 덮는 것입니다. 결국 CO 627 위선이 드러나고 밝혀져서 나머지 모든 것과 함께 벌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악에 부추겨질 때 자기가 잘못하지 않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않는다고 상상하는 자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형편을 낫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위선이 무겁게 벌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가 이미 말했듯이) 우리가 악에 동의하지 않고 간질임을 받기만 하며 어떤 바람이 있고 우리가 거기에 맞선다 해도, 그것은 이미 우리 안의 허물이요 연약함이라는 것을 간직합시다. 우리가 어떤 나쁜 욕구를 품기만 해도 그것은 이미 우리 본성이 타락했다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악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첫 사람에게 두셨던 올곧음과 온전함에서 이미 돌아서지 않았다면, 분명 우리 눈길은 지금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정결할 것이고, 우리의 모든 감각, 곧 듣고 말하고 만지는 것이 모두 깨끗하고 맑아서 아무 감염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려면 모세가 하는 말을 잘 따져 봅시다. 사탄이 하와를, 따라서 그녀의 남편을 꾀러 왔을 때, 그들이 그에게 귀를 빌려주고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이 야망에 타락한 뒤에,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보고 그것이 지식을 얻기에 탐스러운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창 3:6 참조). 어떻게 그들이 그것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까? 아담과 하와는 전에 이미 그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금한 열매를 먹지 말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그 시간에 너희가 죽음을 선고받아 나에게서 끊어진다고 내가 너희에게 선언한다"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는 전에도 이 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 왜

모세는 이제 그것을 그들에게 죄로 돌립니까? 그들이 그것을 탐스럽다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곧 그것을 먹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을 때 그들에게 악하고 비뚤어진 욕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디서 옵니까?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타락했고 동시에 눈을 망가뜨렸기 때문입니다. 마치 사람이 무절제하게 술을 마셔서 시력을 망가뜨릴 때, 눈이 상하기 전에 그 안에 악이 있고 거기 무엇인가 타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는 어떤 사고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테면 사람이 눈멀게 될 때는 그 전에 어떤 카타르나 그런 다른 것이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시력을 빼앗을 것입니다. 정죄받아야 할 모든 악한 눈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이미 감염되고 타락한 어떤 나쁜 욕구가 없다면, (내가 말했듯이) 눈은 그 자체로 깨끗하고 맑아서 우리가 무엇인가 악한 것에 부추겨지지 않고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CO 628 이제 우리는 어떤 나쁜 욕구를 품지 않고는 눈을 뜰 수 없을 것이고, "저것은 아름답다, 저것은 좋다" 하고 말하면 곧바로 우리 하나님을 노엽게 하게 됩니다. 그것은 큰 비뚤어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안에서 다스리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아봅시다. 실제로 아담이 죄를 범한 뒤로 죄가 자기 소유를 차지하여, 우리 본성이 너무 타락해서 우리가 아름답고 좋다고 부를 수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여기서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좋은 것을 베푸시니 그분의 선하심을 찬양하도록 부추겨져야 하는데도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자극받는 대신, 우리는 "저것은 아름답다, 저것은 좋다" 하고 말하자마자 간질임을 받고, 그렇습니다, 탐욕이나 음행이나 다른 쾌락으로 떠밀립니다. 요컨대 하늘 아래 아름답고 좋은 모든 것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하는데 오히려 우리를 우리 하나님에게서 돌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아름다움과 선함의 근원이 아니십니까? 물론 이 나쁜 욕구는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서 다스리지 않고

다스려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거기서 일하시기 전까지의 사람의 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신자들은 늘 악으로 끌릴 만큼 비뚤어지거나 그들의 감각이 그렇게 망가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들에게는 늘 어머니 배에서부터 있는 이 감염의 어떤 찌꺼기가 있을 것입니다. 곧 그들이 처음부터 악을 미워하고 물리치더라도 그들 안에는 악으로 끌리게 하는 가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내가 말했듯이) 우리가 어떤 아픔을 겪자마자 하나님께서 자기를 돌보지 않으신다는 이 상상을 품지 않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리고 보십시오, 우리가 거기에 동의하고 의지가 결정되지 않았더라도 우리 상상이 거기 조금 머문다면 그것은 신성 모독, 그렇습니다, 저주받을 신성 모독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사람이 악에 부추겨지면, 그가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 오히려 이 시험을 밀어내며 그것과 싸운다 해도, 그래도 그가 하나님을 노엽게 하기를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보여 주었듯이 그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것은 나쁜 근원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눈은 그 자체로 타락하지 않을 것이고, 죄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곳은 거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디입니까? 사람의 정신과 그의 영혼 안입니다. 실제로 눈이 그렇게 악을 향하고 거기에 부추겨지기 전에 악한 감정이 속에 감추어져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욥이 자기가 모든 악하고 음란한 눈길을 삼갔다고 단언하면서, 거기에 물든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CO 629 자기 안에 허물이 없다고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준다고 말했습니다. 그 위에서 우리는 잘 경계하고, 내가 이미 짚었듯이 우리 자신을 달래지 않기를 배웁시다. 내가 경계하라고 말하는 것은, 묻건대 우리 눈을 붙잡아서, 이 세상의 재물을 볼 때 어떤 나쁜 정욕이나 무질서한 욕구에 시험받지 않고 탐욕에 찔리지 않으며, 여기저기 있는 편안함과 즐거움과 쾌락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을 바라도록 끌리지 않고, 이쪽저쪽을 바라볼 때 음행도

야망도 탐욕도 우리를 찌르는 아무것도 없게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큰 어려움 없이는 되지 않고 우리의 모든 힘을 넘어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거스르는 무엇인가를 품지 않고 눈을 뜨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하니 파수를 잘 서기를 배웁시다.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여전히 흠잡을 것이 있고 우리 죄의 용서로 피해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너무 타락해서 우리 감각을 어떤 식으로든 쓰거나 무엇에 쓸 때 하나님께 나쁘고 언짢은 우리 타락의 어떤 찌꺼기가 없을 수 없으니, 우리가 용감하게 싸워야 한다고 결론 내립시다. 그러니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를 부지런함으로 재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둘째로, 마귀가 위선으로 우리를 잠재워서 우리가 우리 허물을 알지 못하게 하고 그것이 악을 더 나쁘게 만들기만 하려고 애쓰니, 우리 자신을 낮추기도 배웁시다. 그러니 우리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 불완전함을 살핀 뒤에 하나님 앞에서 탄식합시다. "아, 주여, 주께서 내가 주를 섬기는 데 나아가기를 바라도록 은혜를 베푸셨고, 나는 거기에 수고를 기울이고 힘쓰며, 내 모든 정념에 맞서고 나 자신과 싸웁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 주 앞에서 의롭지 않습니다. 주여, 흠잡을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보십시오, 신자들은 많이 수고하고 자기의 모든 힘을 넘어 애쓴 뒤에도 늘 이 감정을 간직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게 하실 선 가운데 그렇게 악이 섞여 있을 때 자기를 정죄하고, 그분 앞에서 유죄를 인정하며 자기를 낮추어 은혜를 얻기를 배워야 합니다. 그러니 이 구절에서 우리가 새겨야 할 점이 이것들입니다. 그런데 어찌 되든, 아침저녁으로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는 상상이 있고 그것으로 우리 본성에 놀라운 타락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해도, 용기를 잃지 말고 늘 더 나아갑시다. 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밀어 주기 시작하셨다면 그것을 이어 가시고 CO 630 당신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우리가 그분께 구하고 우리가 이미 우리 악한 감정 위에 한 발을 올려놓았다고 느낀다면, 두 발을 다 올려놓아서

그것들이 결코 다시 일어설 수 없도록 짓밟히게 합시다. 그리고 마귀가 와서 우리를 악으로 부추기려고 찌를 때 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늘 우리 감각을 위에서 다스리게 합시다. 요컨대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마음을 너무 다스리셔서, 악한 감정이 있다 해도 그것이 고삐에 매인 듯, 아니 사슬에 묶인 듯 붙잡혀서 일어나지 못하고 우리를 이리저리 흔들지 못하게 하며, 우리가 늘 굳게 서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셔야 하고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뜻을 따라야 한다" 하고 결심하게 합시다.

그러니 보십시오, 우리의 악한 상상 한가운데서 우리는 이렇게 늘 선 속에 걸을 용기를 내야 합니다. 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아 주시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그만큼의 죄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용서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점에 관해서는 이것이 우리가 교황주의자들과 다른 점입니다. 교황주의자들은 악한 정욕에 맞서기만 하면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보십시오, 그것은 저주받을 신성 모독입니다. 그것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율법 전체를 뒤엎으시려고 당신 자신을 부인하셔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사람들과 무지한 사람들만 가질 들뜬 견해가 아니라, 그 대단한 박사들이 자기 학교에서, 아니 오히려 마귀의 회당에서 내리는 결정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그것이 그만큼의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의 선하심과 값없는 자비로 그것을 지우시니 그것을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런 위로를 가졌으니 우리는 (내가 이미 말했듯이) 그만큼 더 힘써야 합니다.

그 밖에 욥은 그것이 범죄이고 자기가 음란한 눈길을 가졌다면 죄가 있었으리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을 잘 보여 줍니다. 그는 이렇게 덧붙이기 때문입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몫이 무엇인가? 하늘에 계신 전능자께서 주시는 유산이 무엇인가?" 그런데 여기서 욥은 자기가 (여기

아래에서 존중받기만을 바라는 자들이 하듯)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내세우고 덕과 거룩함의 명성을 얻으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눈을 하나님께 박아 두고 그분 앞에서처럼 여기서 말하며 그분을 증인과 재판관으로 청한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르러야 할 곳도 거기입니다. (앞에서 다루었듯이) 우리가 우리 삶을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하는 동안 우리는 거짓과 핑계와 잔꾀로 가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로 흰 것을 꾸며 검은 것으로 바꾸고, 악을 CO 631 덕으로, 그 반대로 만들게 할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애쓸 때 우리는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든 올곧음 속에 걷고 여기서 욥이 말하는 이 온전함을 가지기를 바란다면, 오, 분명 그는 자기를 모아야 하고 더는 여기 아래에서 흩어져 "누가 나를 험담할 것인가?" 하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잘려 나가야 하고, 그는 자기를 하나님 앞에 소환해서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자, 나는 어떠한가? 내가 상대할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땅의 모든 사람을 만족시켰다 해도 나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는 모두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멋진 얼굴과 멋진 꾸밈과 겉모습과 그와 비슷한 것들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마음을 보시며 생각을 살피시고 어둠 속에 감추어진 모든 것을 들추어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하니 온전함과 올곧음 속에 걷도록 거기 붙잡혀 있읍시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는 이리저리 정신을 빼앗기고, 핑계와 우리를 꾸밀 멋진 장식을 지어내는 데 매여 있으며, 더 잘할 수 없을 때는 우리 조상 아담처럼 잎사귀로 우리를 덮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모든 신자에게 보여 주는 이 과목을 잘 새깁시다. 곧 우리가 마땅히 걸으려 할 때 사람들 앞에서처럼 있어서도 안 되고 우리 눈이 그들에게 머물러서도 안 되며, 하늘의 재판관을 바라보고 우리가 대답하고 셈을 해 드려야 할 분이 그분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가지입니다. 그 밖에 (우리가 이미 짚었듯이) 욥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음란한 눈길을 벌하지

않고 견디지 않으시리라는 것을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그만큼의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는 불의한 자가 끊어지리라고 덧붙입니다. 거기서 그는 자기 눈을 헛된 것에 빠지게 한 자는 완전히 동의하지 않았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요 악인으로 정죄받는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욥의 시대에 관해 말한 것을 간직합시다. 그가 율법 이전에 살았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그가 옛사람으로 언급된다고 밝혔듯이 그는 선지자들보다 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욥은 하나님께서 아직 아주 넉넉한 가르침도, 그 뒤에 온 것 같은 빛도 주시지 않았던 때에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이 율법에서 어두웠던 것을 크게 밝혔기 때문입니다. 욥은 그 전에 살았습니다. 그러니 그 뒤에 온 가르침을 보면 거기에는 작은 불꽃 같은 것만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기가 나쁜 욕구에 부추겨지면 하나님 앞에서 죄가 있으리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대낮처럼 우리를 비추는 의의 태양을 가진 우리는 지금 어떻겠습니까(말 4:2 참조)? CO 632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복음과 함께 너무 큰 빛을 가져오셔서 우리에게는 아무 핑계도 없습니다. 우리가 "나는 그것을 알아듣지 못한다. 그것은 너무 높고 너무 깊은 것이다" 하고 말한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끝까지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우리에게 충분히 넉넉한 가르침이 없습니까? 그러니 욥이 안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변명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원수 갚음이 어떠한지, 곧 교황제 안에서 얼마나 끔찍한지 보입니다. 그 짐승들은 사람이 그렇게 악에 시험받고 자기 안에 가시와 품는 나쁜 감정이 있어도, 완전히 거기에 동의하지만 않으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고 감히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밝혔듯이) 비교하면 아무 가르침도 없던 욥은 그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때보다 당신의 진리를 우리에게 훨씬 더 알려 주시는 이 은혜와 특권을 베푸셨으니 우리 자신을 가까이서

살펴봅시다. 그리고 깨어 있어서, 우리가 눈을 뜨고 우리 안에 어떤 헛됨, 어떤 나쁜 감정을 느끼자마자 이렇게 알아야 합니다. "오, 그 안에 감추어진 악이 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 보라, 악이 겉으로 나타날 때 이미 우리 눈이 거기에 물들어 있다. 불꽃이 있는데 그것이 불 없이 생기겠는가?" 그러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죄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라면 우리는 그 때문에 삼켜질 것입니다. 그것이 저 위에서 우리를 위해 마련된 우리 유산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우리를 의롭다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전혀 다르게 판단하실 하나님 앞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욥은 특히 "저 위에서, 하늘에서" 하고 말합니다. 이 말은 여기서 되풀이되지만 쓸데없는 말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은근히 하나님의 심판과 우리가 사람들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견해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사람들은 매번 우리를 의롭다 할 수 있고, 우리 더러움과 비참은 알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작은 천사처럼 여겨질 것이고, 그 위에서 우리는 우리 안에 흠잡을 것이 없다고 여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보십시오, 욥이 우리를 저 위로 부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 아래에서는 죄인들이 자기를 무죄라 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쉽게 인정받을 것입니다 (거기서는 겉으로 모든 덕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 위에서, 저 위에서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 동안 다스렸던 모든 헛된 견해를 뒤엎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나쁜 정욕에 부추겨져서 죄가 있듯이, 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CO 633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아버지 같은 선하심을 쓰시지 않는다면 그 삯도 하늘에서, 곧 위에서 우리에게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배웁시다. 그러니 우리가 간직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엄격하게 벌하지 않으시는 것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높이고, 또 날마다 그분께 우리 허물의 용서를

구하도록 자극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한 자에게는 끊어 냄이 있고, 죄를 저지르는 자들에게는 괴로움이 있지 않은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길을 보지 않으시며 내 걸음을 다 세지 않으시는가?” 욥은 여기서 자기가 말한 그 몫과 유산을 더 분명하게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죄의 느낌으로 우리를 더 깊이 찌르려는 것입니다. 물론 그는 율법에서 말하는 모든 것에 매달리지 않고 그렇게 많은 말을 쓰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성령께서는 여기서 그의 입으로 우리에게 공통의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그분이 죄인들에게 보내시는 벌을 우리에게 말할 때 우리는 너무 더뎌서 그것이 우리를 거의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깨우셔서 그분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분을 그렇게 우리를 거스르는 분으로 모시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우리가 더 잘 느끼게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욥이 여기 담긴 이 선언을 덧붙이는 까닭이 이것입니다. “불의한 자에게는 끊어 냄이 있지 않은가? 악인은 괴로움을 당하지 않겠는가?” 여기 이 끊어 냄은 무엇을 뜻합니까? 악인들이 쓸려 나가 마땅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삼키시고 완전히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삯이나 유산보다 더 많은 것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말했듯이) 아주 가벼운 징계로 벗어나리라고 스스로 믿기 때문입니다. 마치 죄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자기가 교수대에 오를 만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래, 나는 매질로 벗어날 것이다, 추방될 것이다” 하고 스스로 믿는 것과 같습니다. 말하건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있는 그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영원한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니 자기가 받아 마땅한 벌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욥이 저 위에서 모든 악인에게 마련된 몫을 말한 뒤에, 그것이 그들을 삼키는 끊어 냄이요 부끄러움이라고 덧붙이는 데 까닭이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의

무관심을 꾸짖으신다는 것을 알아봅시다.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심판을 아는 데, 그렇습니다, 우리 허물을 느끼는 데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분이 그렇게 말을 거듭하실 필요가 없었을 것이고, 한마디 단순한 말로 우리에게 일깨우신 것으로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당신의 율법을 업신여기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마련하시는 몫을 말씀하신 뒤에 "끊어 냄"을 덧붙이시는 것은, 우리가 짐승 같아서 일을 단순하게 밝혀 주면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멍함에 사로잡혀 있어서 CO 634 하나님께서 우리를 혹독하게 치셔도 그분 손의 타격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위협으로 우리가 어떻게 마땅히 찔리겠습니까? 그분의 손의 타격으로도 우리가 아직 충분히 낮아질 수 없으니, 그분이 말씀만 하실 때 우리가 속으로 찔리거나 쓰러지지 않으리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 여기서 우리의 무관심과 멍함이 꾸짖음을 받는다는 것을 잘 새깁시다. 그러하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성껏 우리를 재촉하실 때 깨어나서 우리 자신을 더 잘 생각하도록 가르침을 받읍시다. 이 절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으로 욥이 "하나님께서 내 길을 보지 않으시며 내 걸음을 다 세지 않으시는가?" 하고 말할 때, 그가 일반적으로 내놓은 가르침을 자기에게 적용한다는 것을 잘 새깁시다. 그는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삯 또는 몫이 무엇인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산이 무엇인가?" 하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욥은 그렇게 모든 사람에 대해 말했지만, 이제 이 가르침을 자기 쓰임에 적용하고 자기가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말했는지 밝힙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기억에 떠오르거나 사람들이 그것을 우리에게 내놓거나 우리가 그것을 읽을 때마다, 우리 안으로 들어가고 저마다 자기 인격을 살펴보는 이 슬기를 가집시다. 하나님의 심판이 결코 이야기되지 않고 거기 묻힌 듯 남아서는 안 되고, 저마다 그것을 자기 안에서, 자기 개인의 쓰임에 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욥이 공통의

가르침을 다룬 뒤에 동시에 자기 인격을 바라볼 때 우리가 새겨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길을 살피시고 아신다.” 곧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재판관이시니 자기도 그분의 손을 피할 수 없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길을 아시지 않으며 내 걸음을 다 세지 않으시는가?” 이것이 첫째에 관한 것입니다.

둘째에 관해서는 욥이 쓰는 문체, 곧 하나님께서 그의 길과 걸음을 보시고 그것을 세신다는 말도 새깁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멀리서 세시고 여기 아래에서 드러날 것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행위를 적어 두시고 표시하시려고 가까이서 보신다는 것을 나타내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흐릿한 눈길이 아니고 그분이 헤매는 시선을 가지신 것도 아니며, 그분이 적어 두시고 세시고 모든 것을 헤아리셔서 아무것도 그분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아무것도 그분 앞에서 잊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묻건대)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볼 때 우리 길을 더 잘 알고 우리 걸음을 셀 까닭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자기 죄의 백분의 일도 좀처럼 알지 못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하루에 백 번 허물을 저지르고 한 번 그것을 생각할까 말까 할 것입니다.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신다고, CO 635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눈길 앞에 있어서 아무것도 그분께 감추어지지 않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행위와 생각 가운데 아무것도 잊지 않으신다고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기 담긴 이 말들을 잘 따져 봅시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아시고 우리 걸음을 세신다는 것, 다시 말해 그 수가 그분 앞에 놓여 있어서 마지막 한 항목까지 모든 것이 셈에 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거짓과 아첨으로 자기 악을 덮은 자들이 얻을 것이 이것입니다. 모든 것이 빛 가운데로 나와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남습니까? 우리가 늘 하던 것보다 더 가까이서 우리 자신을 생각하고, 사방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매복에 허를 찔리지 않도록 늘 파수를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본성을 가득 채운 그렇게 많은 악에 빠지기 쉽다는 것을 보며 그것을 잘 살펴서 거기서 언짢아하고, 하나님 앞에서 유죄를 인정하며, 탄식하면서 다윗과 함께 우리 모든 허물이 우리에게 알려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고백해야 합니다(시 19:12).[71] 그러하니 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도 볼 수 없는 허물과 죄를 우리 안에서 보셨을 때 당신의 자비로 그것을 지워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우리가 우리 구원에 대해 다른 확신을 가지지 않고, 오직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자비로 받아 주시고, 우리를 씻어 주는 이 씻음, 곧 그분이 우리 구속을 위해 흘리신 피를 우리가 가진다는 것만을 확신하게 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엎드립시다.

71. 원문에는 “시편 19편 13절“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어 성경 절수로는 12절입니다.

제112편

욥기 31장 설교 2

CO 34:636–647

AI로 옮긴 초벌 번역입니다. 신학 감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CO 권: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 내가 거짓 가운데 걸었거나 내 발이 속임수로 달려갔다면, 하나님께서 내 행위를 공의의 저울에 달아 보시고 내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네. 내 걸음이 길에서 벗어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라갔거나, 내 손에 얼룩이 묻었다면, 내가 씨를 뿌리고 다른 사람이 그 열매를 먹으며, 내 심은 것들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네. (욥 31:5–8)

CO 636 욥은 자기가 정결하게 살아서 자기 눈이 나쁜 눈길로 더럽혀지지 않았다고 단언한 뒤에, 자기가 이웃과 너무나 올곧게 지내서 자기 발이 속임수나 악의로 기울지 않았다고 덧붙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그가 어제 말한 것과 다른 종류의 온전함을 짚는다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는 사람 삶의 가장 중요한 것도 하나하나 풀어 갈 것이고, 거기에는 까닭이 있습니다. 사람이 음행을 삼간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도둑질과 속임수와 폭력에서도 깨끗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합쳐 놓으신 것을 떼어 놓기를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 삶을 다스리시려고 당신의 율법 전체를 주셨고, 음행을 금하실 때 도둑질과 거짓과 폭력과 그와 비슷한 것들도 정죄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려는 사람은 한 가지 죄에서 깨끗한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자기 온 삶을 율법에 맞추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말했듯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를 범하지 않고는 결코 나눌 수 없는 것들을 떼어 놓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욥이 자기의 정결하고 순결한 삶에 대해 그런

단언을 한 뒤에, 자기가 아무도 속이지 않았고 자기 발이 결코 거짓이나 악의로 돌아서지 않았다고 덧붙이는 까닭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새겨 둘 만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율법으로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비뚤어진 길과 잔꾀로 우리 이웃의 재산을 끌어당기지 않는 이 꾸밈없음을 우리 안에 가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마다 올곧은 사람으로 여겨지기를 원하지만, 이것은 아주 어려운 덕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본성은 늘 위선에 빠져 있어서, 무엇인지 모를 것이 들어 있지 않은 말은 한마디도 듣지 못할 것이고, 우리가 이웃과 거래할 때 우리는 늘 모든 것을 우리 이익으로 가져가려고 일을 꾸미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그런 속임수의 뿌리가 있는 것을 볼 때, 그만큼 더 우리는 이 올곧음과 꾸밈없음을 힘써 배워서 우리 삶이 거짓으로 기울지 않았다고 하나님 앞에서 단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까닭도 있습니다. 곧 속임수가 폭력보다 더 나쁘다는 것입니다. 마치 독으로 죽이는 사람이 칼로 죽이는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인 것과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정을 핑계 삼아, 또는 먹고 마실 것을 주는 척하며 사람을 CO 637 죽이는 그 배신은 가증스러운 일이고, 그 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이 간계로 자기 이웃을 속이고, 사람이 조심할 수 없을 만큼 교묘하게 파고든다면, 그것은 더 비뚤어진 본성의 표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두 가지 까닭이 우리를 그만큼 더 가르쳐서, 우리 이웃이 어떤 식으로든 우리에게 속지 않도록 꾸밈없음과 온전함을 따르게 해야 합니다. 먼저 여기서 우리가 간직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 밖에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내려 하실 때 진리라는 칭호를 취하시니 진리가 그분께 귀하다는 것을 알아봅시다. 그러니 거짓과 속임수는 그분 앞에서 그만큼 더 가증스러워야 합니다. 그것은 그분의 본성에 정면으로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맞추어져야 한다고 말할 때 사도 바울은 이 진리의 거룩함을 둡니다(엡 4:24).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위선에 빠져 있고 그들 안에는 꾸밈밖에 없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다가가고 그분께 순종하도록 이끌릴 때 그분이 그들에게 당신의 표지를 찍으셔서 그들을 당신의 자녀로 알아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 이 진리의 거룩함이 거기서 다스립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그들의 육, 곧 그들의 타락한 본성 안에서는 꾸밈과 잔꾀밖에 다스리는 것이 없습니다. 요컨대 어떤 사람이 꾸밈없이 걷지 않고 이웃과 거래할 때 바르게 일하지 않는다면, 사람이 이름 댈 수 있는 다른 모든 덕을 가졌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 이 깨끗함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배웁시다. 그러니 우리 삶이 인정받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속임수나 거짓 속에 걷지 않도록 이 온전함과 꾸밈없음에 우리의 온 힘을 기울입시다.

그 밖에 욥이 하는 말도 새깁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의의 저울에 달아 보시고 내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란다." 이 저울의 비유는 아주 눈여겨볼 만합니다. 그것은 우리 위에 내릴 심판이 어떠할지, 우리가 어떤 셈을 해야 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인정받고 승인받을 수 있을지를 보여 주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의의 저울에 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곧 그분의 율법과 그분의 뜻(그분이 우리에게 밝히신 대로)이 우리 행위가 좋고 받아들여질 만한지 아는 저울이라는 것입니다. 물건을 근으로 팔 때 무게를 달듯 우리 행위도 판단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입니까? 하나님의 저울로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 가르침이 우리에게 아주 유익하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속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자기에게 돌리고, 심지어 자기 욕구대로 자기를 다스릴 때에도 자기 행위가 좋게 여겨지리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생각한 것을 거스르시기를 원하지 않고, 그분에게서 모든 권위를 깎아냅니다. CO 638 사람이 자기 삶의 주인이 되려 하고,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명하실 수 없는 것처럼

그 삶의 인도자가 되려 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기를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나를 다스리는 것은 내 몫이다. 나는 내 머리를 따르겠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아무것도 명하려 하시기를 원하지 않는다” 하고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것은 저주받을 신성모독이고 사람들은 입으로 그것을 선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자기 어리석은 경건을 따르고 자기가 품은 견해에 고집을 부리는 자들은, 묻건대, 하나님 위로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분에게서 모든 주인됨을 빼앗아 그분이 더는 명하실 수 없게 하면서 그분을 억누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자기가 좋다고 판단한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를 원하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셨으니 나쁘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시니 좋다” 하고 말하도록 더는 질서를 지키지 않고, 자기가 보기에 그럴 듯한 것, 자기 생각을 따른다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를 두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것은 마귀 같은 주제넘음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은 더할 나위 없이 흔합니다. 그러니 이 구절에서 하는 말을 잘 새깁시다. 곧 우리는 저울로 나아가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행위를, 그렇습니다, 우리 욕구가 아니라 율법의 규칙을 따라 살피신 대로 거기서 우리에게 유리하든 불리하든 판결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저지른 허물을 상쇄하려고 너무 어리석고 둔한 저울을 잘 상상해 냅니다. 보십시오, 교황제 안에 속상이 들어온 것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이 자기들의 성미가엘에게 돌린 이 저울입니다. 그들은 선한 행위를 한쪽에, 악한 행위를 다른 쪽에 둡니다. 그리고 사람이 악보다 선을 더 많이 행했다면 교황주의자들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무죄 선고를 받는다고 여깁니다. 보십시오, 그것은 너무 둔한 원숭이 흉내입니다. “이것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으로 살리라“(레 18:5 참조) 하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한 부분만 이루었다고 생명이나 구원을 약속하지 않으시고, 모든 일에서 어디서나

그것을 다했을 때 약속하십니다. 반대로 “여기 담긴 모든 것을 이루지 않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신 27:26 참조)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하니 사도 야고보가 말하듯(약 2:10) 우리가 율법의 한 조항이라도 어겼다면 우리는 모든 것에 죄가 있습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우리가 이미 짚었듯이) 선과 악을 그렇게 서로 맞세워 놓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교환이나 보상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어리석고 짐승 같은 상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말했듯이) 이 저울은 하나님의 율법이 거기 있고 우리 행위가 검사를 받으러 올 것이며, 하나님의 율법에 맞는다고 판명되는 것이 좋은 것으로 여겨지고 인정받으리라는 것입니다. 마치 물건이 CO 639 정직한 것이면 저울에 올리고, 그렇습니다, 그 무게대로 값을 치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이미 말했듯이) 사람들이 자기 무게와 자기 되를 가져와서 그것을 믿어 주기를 바란다 해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한 도시에는 공공 저울이 있을 것이고, 저마다 자기 고유의 무게나 되를 가지지 않을 것이며, 그것은 이치에 맞지도 허락되지도 않을 것이고 모든 것이 혼란에 빠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질서와 좋은 규율과 공평을 지키려면 모든 사람의 규칙이 되는 확실한 저울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자기 판단과 견해를 따라 행위를 좋게 여기게 하려 할 때, 그것은 마치 저울을 새로 만들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거짓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공공 무게를 위조한 사람은 정죄받을 것이고, 그것은 마땅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무게보다 하나님께 더 귀한 바르게 사는 규칙을 위조한 사람은 어떤 물건을 위조한 것보다 더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하니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 주는 대로 우리 자신을 다스리기를 배웁시다. 곧 우리의 모든 행위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잘 바라보고, 대꾸 없이 그분이 당신 율법에서 인정하시는 것을 좋다고 여기며, 그분이 금하신 모든 것을 나쁘다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교황제 안에서

다스리는 그런 어리석은 경건은 더는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높아지고 저마다 하나님을 섬길 어떤 방법을 지어내어 "이것은 좋다,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싶다" 하고 말하는 것이 어디서 옵니까? 모두가 거짓 무게와 거짓 저울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저마다 자기 생각을 내세우려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거부하시고 정죄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삶을 하나님의 계명에 맞추어 다스리고 재는 이 겸손을 우리 안에 가집시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길 그 많은 방법을 가지는 일이 모두 내던져지고, 우리는 공통되고 확실하며 틀림없는 규칙을 가질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의의 저울은 하나뿐이고 우리를 다스릴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신분들을 구분하셨지만 그분은 우리 모두를 하나의 일반적인 길로 다시 부르십니다. 그분은 가장 높은 사람에게도 가장 낮은 사람에게도 똑같이 "음행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는 자나 거짓 증인이 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왕들과 손기술로 사는 사람들의 삶을 이 일반 규칙으로 되돌리시고, 우리가 길을 잘못 들 수 없도록 큰길을 보여 주시니, 우리가 거기 머물기를 바라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만큼 더 핑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마다 자기 이웃에게 좋은 본을 보이려 애쓰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맞추도록 서로 도와서, CO 640 그분이 모든 사람에게 순종을 받으시고 우리가 마땅히 그분께 온전히 복종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저울과 이 되를 피한다 해도 어쨌든 그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곧이어 "그분이 내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란다" 하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욥은 우리가 선한지 악한지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께만 속한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물론 그는 두 가지를 나타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삶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율법을 따라 판단하시리라는 것이고, 그다음은 그분 홀로 자격 있는 재판관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권한을 가로챈다 해도 그들의 견해는 뒤집힐 것입니다. 그것은 오만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당신 율법의 검사를 따라 우리 행위를 판단하시리라는 것은 우리가 잘 새겨야 할 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먼저 하나님께 자기 자질구레한 잡동사니를 가져와서 그것으로 그분을 만족시키려는 위선자들의 모든 헛된 신뢰를 꺾으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나는 이것을 했고 저것을 했다." 우리가 보듯 교황주의자들은 자기 경건을 따라 큰 수고를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빚지신 것처럼 여기거나, 아니면 그것을 가져가지 않으면 결코 그분께 무죄 선고를 받지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들은 가서 자기를 일하게 한 자에게 삯을 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인정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행위를 저울에 다신 뒤에, 곧 당신의 율법을 따라 살피신 뒤에 판단하시리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분은 새로운 판단을 지어내지 않으실 것이고 이미 당신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서로 묶인 것입니다. 곧 입법자이신 하나님께서 재판관이시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전에 가르침을 받은 대로, 곧 그분의 율법을 따라서입니다. 그러니 그분이 주시고 우리가 지키기를 원하시는 율법과 그분이 내리실 판단 사이에는 일치가 있습니다.

그러니 첫째에 관해서는 이렇습니다. 곧 위선자들은 자기 행위가 인정받으리라고 여기면서 그 사이에 하나님의 율법에 아무 공경도 돌리지 못할 때 헛된 주제넘음 속에서 부끄러움을 당한 채 남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하는 것을 비교하고 저울에 올리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갚으셔야 한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거기 복종하려 애썼다면 우리 행위가 그분께 기쁘시리라는 경고를 받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정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듯 교황주의자들은 우리가 하는 것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회당에 있는 그렇게 많은 멋진 화려함과 멋진 장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황주의자들의 성전에

들어가면 더할 나위 없이 많은 허세가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그들은 원숭이이고, 그 사이에 우리가 하는 것을 셈에 넣지 않습니다. 그들 보기에 여기 와서 CO 641 하나님을 부르면서 거기서 빛나는 그 멋진 의식을 가지지 않는 것은 하찮은 일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충분합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그분의 율법과 그분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바라봅시다. 그것이 신자들을 부추기고, 그분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섬길 용기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복음에서 가지듯 우리가 가진 가르침에 모든 일에서 어디서나 맞는 것 말고는 다른 것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들이 알 때 말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듯이 "너희를 심판할 것은 내가 아니라 이 말씀이다"(요 12:48).[72]

그 밖에 우리가 늘 이 큰 재판관 앞에 셈을 하러 나와야 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 자신을 달래고 사람들에게 존중받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봅시다. "하나님께서 아시리라" 하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 아래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은, 지금 이루어지는 모든 판정에는 아무 확실함도 없고 아무 확정도 없으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뒤엎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향하고 사모한 분이 그분이시고, 우리가 복종하려 한 분이 그분이시며, 우리가 늘 우리를 이끄시는 분으로 그분을 공경했다고 하나님 앞에서 단언할 수 있도록 걷기를 배웁시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간직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이어서 덧붙입니다. "내 발(또는 내 걸음)이 길에서 벗어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라갔거나, 내 손에 얼룩이 묻었다면." 이것은 그가 한 이 온전함과 꾸밈없음의 말에 이어지는 것이지만, 그는 자기가 한 말을 더 자세히 나타냅니다. 그리고 먼저 그는 자기 걸음이 길에서 기울지 않았다고 단언합니다. 물론 우리는 많은 헛걸음을 하지 않고 자주 이쪽

72. 원문에는 "요한복음 12장 47절"로 되어 있으나, 말씀이 심판하리라는 구절은 12장 48절입니다.

저쪽으로 기울지 않을 만큼 완전하게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부주의나 연약함 때문이라도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욥은 자기가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뜻으로 말하고, 성경이 늘 하듯 이 길의 비유를 씁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그만큼 더 잘 끌어당기려는 것입니다. 그분의 율법이 "길"이라고 불릴 때, 묻건대 그것은 우리를 찔러서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대로 걷게 하는 가시 같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복종 속에 붙잡아 두는 고삐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곳에 가야 한다면 좋은 길, 그렇습니다, 가장 짧고 가장 쉽고 가장 확실한 길로 가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가 우리를 속이면 우리는 그에게 더할 나위 없이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길을 잃으면, 우리가 바르게 가는지 헤매는지 모를 때 걸음마다 무겁고 발에 납덩이가 달린 것처럼 큰 괴로움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CO 642 어떤 여행에서 하루 길을 마치려고 좋은 길을 아는 데 그렇게 마음을 쓰니, 우리 삶에서는 우리가 알면서 헤매려 하고 그것을 바라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은 큰 딱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길을 잃거나 벗어나지 않으려고 캐묻는 데 무관심할 뿐 아니라, 길이 우리 눈앞에 놓이고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그것을 가리키시며 우리를 거기로 부르시고, 그것을 따르라고 권하시며,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돌아서지 말고 그분이 보여 주시는 그대로 그 길을 곧장 가라고 일깨우실 때에도 우리는 그것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 "길"의 비유를 써서, 우리가 우리 삶에서 잘못한다면 우리 무지에 아무 핑계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밝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밝히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께 순종한다면 그것은 좋고 틀림없는 길이어서 우리는 불쌍한 떠돌이처럼 헤매거나 벗어날 수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그분의 율법과 그분의 말씀에 전혀 자기를 맞추지 못하는 자들은 아무리 달리고 뛰어다녀도, (선지자 이사야가 말하듯) 충분히 이리저리 애쓰겠지만 그것은 다리를 부

러뜨리려는 것이고 그 사이에 아무것도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욥이 쓴 "저울"이라는 말이 우리를 두려움 속에 붙잡아 두어서 우리가 우리 상상으로 주제넘게 굴지 않고 우리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 애쓰게 해야 하듯, 이 "길"이라는 말도 우리가 우리 좋을 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시는 것을 온전히 붙들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니 요컨대 욥이 단언하는 것에서 우리가 간직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그것은 사람에게 불가능할 것입니다. 내가 말했듯이 연약함과 무지 때문이라도 말입니다), 그가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 곧 거기서 헤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라갔다면" 하고 덧붙이듯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그는 자기가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을 바라보며 품는 이 모든 헛된 것에 동의할 만큼 나쁜 감정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어제 다루었듯이) 우리가 가지는 눈길만큼 그것은 우리 안에 욕심의 불을 붙이는 횃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성이 너무 비뚤어져서 우리는 아름답거나 좋은 것을 찾으면 거기서 하나님을 노엽게 할 거리를 끌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아름답습니까? 우리는 사로잡힙니다. 어떻게입니까? 나쁜 욕심으로입니다. 그것이 좋습니까? 우리 욕구가 불붙습니다. 무엇에입니까? 악에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악한 욕구에 동의하는 데 그렇게 가벼우니, 욥은 자기 마음이 자기 눈을 따라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투와 CO 643 어제 한 말 사이에 어떤 모순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모든 음란한 눈길과 어떤 악에 물든 눈길이 이미 마음에서 나오고, 그것이 마음이 타락했다는 표시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우리는 모세가 아담과 하와에 대해 말한 것, 곧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보고 그것이 탐스럽다는 것을 보았다는 것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니 그들 안에 이미 그들을 악으로 이끈 어떤 나쁜 욕심이 있었어야 합니다. 눈은 나쁜 마음에 부추겨지지 않으면 그 자체로 죄를

짓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욥은 어떻게 자기 마음이 자기 눈을 따라가지 않았다고 말합니까? 그런데 어제 우리는 동시에, 우리가 눈을 뜰 때 많은 나쁜 욕구가 떠오르겠지만 그 때문에 자주 우리가 찔리거나 간질임을 받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령으로 우리를 고삐로 붙잡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명 우리는 악으로 부추기는 어떤 시험을 가질 뿐 아니라 동시에 넘어지고 질 것입니다. 그러니 어쨌든 우리는 처음에 어떤 나쁜 상상을 깨달을 수 있지만, 그래도 어떤 식으로든 그것에 찔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한 점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우리는 또 세 단계를 두었습니다. 곧 깨달음만 있을 때, 그다음에 마음의 어떤 움직임이 있을 때, 그다음에 완전히 결정되고 굳어진 의지가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죄 속에 잉태되고 태어나서 타락에 빠져 있으니, 보십시오, 우리가 가지는 나쁜 상상이 거기서 나온다는 것을 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눈을 뜰 때 어떤 시험이 우리 앞에 닥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하건대 우리가 거기에 붙지 않고 완전히 그것을 거부하며 조금도 그것에 움직이지 않는다 해도 그렇습니다. "그것이 내 눈앞에서 어른거리더라도, 내 마음의 어느 부분도 그쪽을 향하지 않고 나는 그 모든 것을 끔찍하게 여긴다." 그러면 그 깨달음은 어디서 옵니까? 죄가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거기 묻혀 있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처음에 우리 조상 아담 안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다면, 분명 우리의 모든 감각은 (어제 밝혔듯이) 깨끗하고 맑아서 더럽혀진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이고, 우리가 가지는 모든 눈길은 하나님을 향할 것입니다. 우리가 피조물들을 바라보자마자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새겨져 있을 것이고, 우리는 그분을 공경하고 그분의 사랑으로 온전히 불붙도록 그분께 이끌릴 것입니다. 거기에는 아무 헛됨도, 아무 방탕도 없을 것입니다. 나쁜 반역이 있기는커녕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것이 선으로 나아가는 그만큼의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음란한 눈길과 우리가 CO 644 우리 눈을

통해 품는 다른 모든 시험이 원죄라는 이 근원, 곧 우리가 우리 조상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타락과,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으니 우리 본성이 비뚤어졌다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 새깁시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사람이 나쁜 마음에 부추겨져 악을 사모한다는 것과, 그 사이에 눈에서 오는 그 깨달음이 마음의 감정보다 앞선다는 것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우리가 마음속에 나쁜 욕구를 따르도록 눈으로 그렇게 시험받는 것은 악이 이미 그 안에 잉태되어 있을 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죄가 앞섭니다. 그러니 마음이 타락으로 감염되지 않았다면 우리 눈은 깨끗하리라고 결론 내려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때로 속의 감정 없이 시험받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분 안에는 아무 더럽힘도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히 4:15 참조). 그분은 온전한 본성이 시험받을 수 있는 대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분께도 대상들이 있었지만 그분의 의지가 그분을 선 안에 붙잡아 두었습니다. 그분의 모든 감각에도 타락한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의 모든 감각은 죄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감각에 어떤 타락이 있으면서도 의지는 늘 바르게 남을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둔 구분으로 밝혔고 내가 지금 되풀이한 대로입니다. 이것이 어둡다면 조금 더 쉽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눈을 하늘로 들 때 어떤 높아짐에 시험받는다면, 이 세상의 재물을 바라볼 때 탐욕에 부추겨져서 이것저것을 가지기를 바란다면, “저런 집이 내 것이면 좋겠다, 저만큼의 풀밭과 저만큼의 포도밭을 가지면 좋겠다” 한다면, 그 밖에 다른 많은 것을 보며 어떤 탐심을 가진다면,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그쪽으로 끌리고, 우리가 어떤 속의 감정을 가지며, 안에서 무엇인가 타는 것을 느끼고, 우리 욕구가 가져다주는 것을 가지지 않을 까닭이 우리에게 없다면, 보십시오, 마음이 우리 눈을 따라간 것입니다. 곧 원죄의 타락 때문에 비뚤어진 눈

길을 품고 우리 마음이 그것을 따라간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율법에 거스르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감정을 고삐로 잘 붙잡지 못해서 우리를 악으로 부추긴 무엇인지 모를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것은 아름답다" 하고 말할 이 깨달음을 가지면서도 거기 머물러 있다면, 또는 "저것은 탐스럽다" 하고 말하면서도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하고 말할 이 절제를 가진다면, 말하건대 우리 마음이 거기서 가라앉아 있고 CO 645 흔들리지 않으며, 동요하지 않고 우리를 찌르는 가시가 없으며, 우리가 우리 만족과 우리 가난 속에 굳게 머문다면,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 몸의 감각이 어떤 나쁜 깨달음을 품게 하지만 그래도 마음은 멈추어 있고 움직임이 없습니다. 요컨대 우리 눈은 떠돌 수 있고, 원죄에서 나오니 정죄받아야 할 지나친 눈길이 있을 수 있지만, (내가 말했듯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십니다.

그 사이에 욥이 여기서 자기 마음이 자기 눈을 따라 걷지 않았다고 하는 말에서 우리가 새겨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아 그분의 사랑과 공경과 경외를 배우게 하려고 지어진 우리 눈이 사탄의 뚜쟁이 같고, 와서 우리를 꾀고 망하게 할 사기꾼 같다는 것입니다. 말하건대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지으셨습니다. 무슨 목적으로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내며 사물을 분별하고 그것이 우리를 그분께 이끌게 하려는 것입니다. 위아래를 바라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께로 부르시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피조물만큼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초대하는 그만큼의 방편이 아닙니까? 그러니 그분은 "내게로 오라" 하고 말씀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보듯 우리에게 그렇게 넉넉히 베푸시면서 당신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거기로 끌어당기십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분은 그것으로 우리에게 그분을 경외하며 걸을 계기를 주십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우리 눈이 지어진 목적이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눈이 없다면 지금처럼 모든 일에서 어디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방법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비뚤어져서 우리 눈을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용도로 돌립니다. (내가 말했듯이) 우리 눈은 우리를 꾀려고 우리를 눈부시게 하고, 그것이 열릴 때마다 우리 정신을 빼앗고 헤매게 해서 우리가 짐승 같아지고 사납고 방자한 욕구를 가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것은 불을 붙이려는 두 개의 횃불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우리를 그 영광으로 변화시켜야 하는데, 오히려 사탄의 횃불을 받아 우리의 모든 감정을 독으로 물들여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그분을 거슬러 높아지는 것 말고는 아무 바람도 없게 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저마다 경계하도록 우리가 잘 지켜야 할 점입니다. 그 밖에 우리가 우리 연약함과 타락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어서 우리 눈이 그렇게 떠돌고 우리 정신을 빼앗으며, 우리를 악으로 끄는 갑작스러운 깨달음이 늘 있으니, 적어도 우리 마음을 고삐로 붙잡도록 살피고, 우리 감정이 눈과 함께 들떠서 앞에서 말한 그 길에서 CO 646 우리를 헤매게 하지 않게 합시다. 오히려 온전한 복종과 경외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머물기를 배웁시다.

끝으로 욥은 자기 손에 어떤 얼룩이 묻었다면 하고 덧붙입니다. 이것도 또 다른 비유입니다. 그는 자기 삶의 온전함을 그만큼 더 잘 밝히려 합니다. 우리가 물건을 손으로 다루어야 하듯, 우리가 사람들과 지내야 할 때 우리가 맺는 모든 것은 마치 무엇이 우리 손을 지나가고 우리에게 다루어지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욥은 자기가 사람들과 가진 모든 일과 거래에서 속임수나 폭력이나 타락이나 그와 비슷한 것에 결코 물들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그것은 큰 온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늘 욥이 자랑하려고 자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새깁시다. 오히려 성령께서 여기서 우리에게 완전함의 거울을 주려 하셔서, 우리 안에 어떤 얼룩이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를 부르시고 셈을 하라고 소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벌받지 않고 남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동시에 저주가 덧붙여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씨를 뿌리고 다른 사람

이 먹으며, 내 심은 것들이 뽑히기를 바란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부당한 이익으로 부자가 되려고 애썼다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재산을 뽑아 버리시고 모든 것이 망하여 못쓰게 되기를 바란다." 요컨대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 주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하는 것보다 더 조심스럽게 걷도록 살핍시다. 사람들은 가볍게 셈을 끝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어떤 보통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이럭저럭 자기에게 만족하면, 보십시오, 그들 보기에 그들은 의롭고 흠잡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내가 이미 짚었듯이 이 저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를 움직이지 않으니 성령께서 여기서 또 다른 도움을 덧붙이십니다. 곧 욥의 본보기에서 우리 삶이 어떻게 다스려져야 하는지 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지나가며 우리가 간직해야 할 것은, 욥이 자기를 높이려 한 것이 아니라 그의 본보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보여 주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가 그런 완전함 속에 걸으려 애쓰고, 우리 마음을 고삐로 붙잡았으며, 우리의 들뜬 욕구에 정신을 빼앗기지 않았고, 저마다의 권리를 지켰으며, 아무 속임수나 악의도 쓰지 않았다 해도, 앞에서 보았듯이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신다면, 그것이 우리 죄 때문이 아니고 그분이 다른 목적, 곧 우리를 낮추시거나 우리 인내를 시험하시려는 목적을 가지셨다 해도, 그래도 고개를 숙입시다. 그 밖에 우리가 CO 647 어찌 되든 늘 죄가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늘 우리 안에서 흠잡을 것을 찾으셔서 우리 온 삶을 거부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아봅시다. 보십시오, 우리는 이 구절을 이렇게 실천해야 합니다. 요컨대 어쨌든 우리는 늘 우리 손에 눈을 붙여 두어야 합니다. 곧 우리가 다루는 모든 것에 그런 깨끗함이 있어서 우리 손이 거기에 물들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깨끗함을 지키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다루는 만큼 그것은 우리 손을 지나가는 그만큼의 송진 같기 때문입

니다. 우리가 거기서 어떤 얼룩을 묻히지 않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기서 일하셔야 하고, 우리를 지켜 주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기적 같은 방식으로 지켜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온전함이 요구되는데 우리가 정반대로 끌리고, 우리 안에 많은 흠과 얼룩을 느끼지 않을 만큼 깨끗하기는커녕 그렇다는 것을 볼 때, 그것이 우리를 그분께 기도하도록 잘 부추겨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피난처를 두는 것밖에 남지 않습니다. 우리가 저지른 허물의 용서를 그분께 구할 뿐 아니라, 그분이 당신의 성령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 손을 깨끗하게 지켜 주셔서, 우리가 사람들과 무엇을 맺든 모든 속임수와 악의에서 붙잡혀 있게 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욥이 여기 두는 저주를 잘 새깁시다. 그가 그것을 자기 인격에 적용하지만, 그래도 그는 그렇게 자기 이웃에게 꾸민 악으로 자기 손을 더럽힌 모든 자에게 어떤 값이 마련되어 있는지 일반적으로 선언하기 때문입니다. 탐욕스러운 자들이 남의 비용으로 부자가 되려고 큰 수고를 합니까?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빠져서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것 말고는 다른 목표가 없습니까? 오, 그것이 오래가리라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여기서 선언하신 것, 곧 심은 자들이 그 열매를 먹지 못하리라는 것을 집행하지 않으시리라고 생각하지 맙시다. 실제로 우리가 보듯 가장 많은 재물을 모은 자들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그것을 빼앗으십니다. 그리고 자주 그들이 얻은 것을 먹고 마시지 못하게 누가 막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 자신이 자기를 너무 시기해서 감히 자기에게 좋은 것을 하지 못하고, 거기서 괴로워하며 자기 자신의 사형집행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들이 오랜 세월과 큰 수고로 모은 것을 하나님께서 빼앗으시고 다 긁어 가십니다. 자식들이 그것을 멋지게 탕진하고, 끝까지 남아 있는 재물은 대개 자식들에게 올가미를 만들어 교수대로 보내는 데 쓰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눈으로 봅니다. 그러니 올곧음 속에 걷기를 배우고,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모은 자들이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저주가 늘 그 뒤를 따르고, 그렇게 남의 재산을 빼앗고 약탈한 자들에게서 빠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적은 것으로 만족하도록 살핍시다. 우리가 늘 그분을 경외하며 걷기만 하면, 우리 편에서 그분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모든 이웃과 참된 사랑과 형제다운 꾸밈없음을 쓸 때, 그분이 우리에게 좋은 아버지요 기르시는 분이 되시고 결코 우리에게 모자라지 않으시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엎드립시다.

제113편

욥기 31장 설교 3

CO 34:648–660

AI로 옮긴 초벌 번역입니다. 신학 감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CO 권: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 내 마음이 어떤 여인에게 꾀임을 받아 내가 이웃의 문에서 엿보았다면, 내 아내가 다른 사람의 맷돌을 돌리고 남들이 그 위에 엎드려도 좋네. 그것은 비루한 짓이요 정죄받아 마땅한 죄악이기 때문이네. 그것은 모든 것을 멸망까지 삼키는 불이요, 내 소득의 뿌리까지 뽑아 버릴 것이네. 내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다툴 때 내가 그들의 송사를 물리쳤다면,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때 내가 어떻게 하겠으며, 그분이 나를 찾아오실 때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는가? 그를 지으신 이가 나를 모태에서 지으시지 않았는가? 그분이 우리를 태 속에서 빚으시지 않았는가? (욥 31:9–15)

CO 648 여기서 우리는 욥이 하는 눈여겨볼 만한 두 가지 단언을 봅니다. 하나는 그가 너무나 정결하게 살아서 어떤 여인도 꾀려고 애쓰지 않았으니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가 자기에게 매인 자들에게 교만하지도 잔인하지도 않았고, 자기와 같은 자들을 거슬러 높아지기는커녕 자기가 권세를 가진 곳에서도 인정 있고 겸손하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에서 다룬 것을 간직해야 합니다. 곧 욥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걸었고 아무에게도 잘못하지 않고 사람들과 지냈다고 CO 649 한 가지 종류에서만 단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 전체를 담아서 거기 담긴 것들을 풀어 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도 특별히 그것을 경고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보여 주었듯이) 우리가 한 조항에서 우리 의무를 다하려 애쓰면서 그 사이에 나머지를 버려둔다면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율법에서 합쳐 놓으신 것을 떼어 놓거나 조각내기를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앞에서 이미 풀이한 것을 간직합시다. 이제 나머지가 덧붙여지기를 기다리며 욥이 지키는 순서를 따라갑시다. 그가 음행에 대해 하는 말의 뜻은, 자기가 어떤 여인이라도 꾀려 했다면 자기 아내가 음란한 자들에게 내맡겨지는 그런 치욕을 겪겠다고 나서는 것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남들이 내 아내 위에 엎드리고, 그녀가 그 비루함을 겪으며, 나도 그것을 견디게 되기를 바란다. 내 마음이 꾀임을 받았거나 내가 이웃의 문에서 엿보았다면", 곧 악을 행하려고 엿보았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는 자기가 왜 음행을 그렇게 크게 끔찍하게 여겼는지 밝힙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것은 비루한 짓, 그렇습니다, 재판관에게 속한 죄악, 곧 정죄받아 마땅한 죄악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삼키는 불이고 내 재산의 뿌리를 뽑아 버릴 것이다." 그러니 보십시오, 욥은 이렇게 정결 속에 붙잡혀 있었고 음행이라는 이 더러움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곧 그는 그것이 가증스러운 것이고 하나님께서 견디실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여기 두는 벌은 음란한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의 정당한 값입니다. 곧 그들이 남에게 한 것과 같은 것이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구절에서만 언급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보다 다윗의 인격에서 그 눈여겨볼 본보기를 가집니다. 그는 거룩한 선지자였고 온 인류 가운데서 택함받은 왕이었으며, 하나님께서 그를 당신 마음에 맞는 자로 찾으셨다는 증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한 번 기울어 남의 아내를 빼앗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게 일어난 벌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가 선지자 나단을 통해 그에게 선언되었습니다. "너는 몰래 했으나 그것이 공공연하게 네게 갚아질 것이다. 해가 그 증인이 될 것이다"(삼하 12:11–12 참조). 다윗은 그런 잔꾀로 일을 처리해서 자기 죄가 세상에 알려지지 않으리라고, 아무 꾸짖음도 불평도 없으니 자기는 셈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위선에 원수를 갚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그것을 몰래 했다 해도 그의 악은 공표되어야 하고, 그가 치욕을 당하며 죄가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입니까? 자기 친아들이 와서 백성을 모으려고 나팔을 불게 하고, 거기서 왕의 아내들이 온갖 비루함에 내맡겨지는 것이 보이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보십시오, 그것은 본성을 거스르는 근친상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CO 650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행한 이가 나다."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더 나아가지 않고 압살롬의 인격만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 물론 그가 그렇게 본성의 질서를 범하고 모든 예의를 뒤엎으며 자기 아버지에게 이 치욕을 준 것은 저주받을 일로 여겨야 한다. 그러나 어쨌든 내가 여기서 일했고, 사람들은 그것이 우연히 왔다고 여겨서는 안 된다. 그것을 행한 이는 나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선지자, 우리가 말한 그런 뛰어남을 받고 우리아의 아내 안에서의 이 넘어짐을 빼고는 평생 온전함 속에 걸었던 사람을 아끼지 않으셨다면, 그러니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하신 다윗에게 그런 엄격함을 쓰셨다면, 남의 아내를 꾀는 것을 일상의 직업으로 삼고 자기의 악한 일을 이루려고 엿보는 음란한 자들을 그분이 어떻게 아끼시겠습니까? 그들은 하늘에 그런 비루함이 벌받지 않고 남도록 허락하지 않으실 재판관이 계시다는 것을 느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런 치욕을 그들의 인격 위에 돌려보내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가 정당한 값, 자기가 받아 마땅한 값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기를 배워야 합니다. 그 밖에 이 위협은 하나님을 어느 정도 경외하는 자들 안에서 시험을 잘 꺾어야 합니다. 그들이 남의 아내를 욕보이면 그들의 아내도 빼앗기고 더럽혀져야 하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의를 집행하시려는 듯 음란한 자들을 일으키시리라는 것을 들을 때 말입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떤 맛과 어떤 이성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깨우시는 그런 위협을 들을 때

분명 그는 고삐에 붙잡힐 것입니다. 그러하니 저마다 이 구절에서 유익을 얻읍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비루함을 견디실 수 없다는 것을 보며,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셔서 우리 악한 감정이 길들여지고 이 저주받은 욕심이 우리 안에서 다스리지 않으며, 심지어 거기에 자리도 들어올 길도 없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기를 배웁시다. 이것이 한 가지입니다. 그 사이에 그 죄에 대해 덧붙인 것도 새겨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혹독하게 벌하시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맙시다. 우리는 늘 죄를 우리 자로 재려 하고 (어제 말했듯이) 거짓 저울을 가져오니,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꾸짖고 그분이 우리 허물을 벌하실 때 너무 지나친 엄격함으로 그분을 고발하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욥이 덧붙이는 것을 잘 지켜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것은 너무 큰 비루함, 그렇습니다, 정죄받아야 할 엄청난 일이고, 모든 것을 멸망까지 삼키려고 타는 불이다." 그것은 우리가 음행을 장난으로만 여길 사람들의 흔한 견해를 따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CO 651 보듯 빈정거림이 날아다니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많은 자들과 세속적인 사람들이 그것을 비웃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은 소죄(용서받을 수 있다는 가벼운 죄)다, 용서해야 한다" 하는 마귀 같은 신성모독과 그와 비슷한 말을 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늘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특히 음행을 말한 뒤에 "친구들이여, 헛된 말에 시험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한다"(엡 5:6) 하고 말합니다. 이미 사탄이 세상을 그런 농지거리로 흠뻑 적셔서 음행이 마땅히 그래야 할 만큼 가증스럽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아무리 그런 빈정거림으로 지껄이고 자기를 달래도 소용없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진노는 제 길을 갈 것입니다. 그분이 늘 음행을 견딜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셨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먼저 그것이 성령의 전이어야 할 우리

몸을 더럽히는 것이라는 것을 새겨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죄들은 음행처럼 사람 몸에 그 더러움과 흔적이 남도록 저질러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고전 6:18). 음란한 남자와 여자는 마치 자기에게 낙인을 찍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추함과 치욕을 가져가려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음행하면서 하나님과 그분 성령의 전을 더럽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안다면, 오, 분명 우리는 지금과는 다르게 그 죄를 끔찍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간음이 음행과 결합될 때 그것은 모든 사람의 권리와 모든 공평을 뒤엎는 것입니다. 남의 재산을 훔치면 벌이 내려지고, 도둑은 모든 사람에게 배척받으며, 사람들이 그 뒤에서 소리치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그런데 간음은 단순한 도둑질이 아닙니다. 거기서는 남의 재산과 재물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 영예와 모든 것을 훔치고, 이미 태어난 자들뿐 아니라 아직 배 속에 형성되지도 않은 자들까지 훔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혼인은 우리 주님께서 성경에서 그렇게 부르시듯 거룩한 언약이 아닙니까(말 2:14 참조)? 어떤 매매 계약을 위조했거나, 몰래 어떤 권리를 자기에게 돌렸거나, 어떤 거짓 증인을 매수했다면 벌이 있고 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세상에 있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계약이 범해지고 위조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지켜야 할 신의에 대해 그렇게 엄숙한 선언을 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처럼 여기 성전에 와서 저마다 자기가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을 때 그분이 재판관이 되시도록 그분을 부르는데, 그 모든 것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안다면 분명 음행과 간음이 지금처럼 용납되지 않을 것이고, CO 652 저마다 그것을 끔찍하게 여길 것이며, 심지어 자기를 억제하고 자기 재판관이 되어 이 판결을 법과 규칙으로 삼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이나 경건(religion)으로 붙잡을 수 없을 만큼 악한 자들이 있다 해도 그들은 이 위협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요컨대 분명 사람들은 우리 가운데서 그런 악을 잘라 내려는

다른 열심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서 우리는 복음을 고백하는 많은 사람이 자기에게 일깨워지는 것을 거의 아랑곳하지 않고, "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하고 생각하면서도 움직이지 않는 것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그들을 눈부시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너무 휩쓸려서 그들 안에 이성도 지성도 없습니다.

그러하니 여기 담긴 이 과목을 그만큼 더 잘 간직합시다. 그러니 음행이 큰 비루함이요 정죄받아야 할 죄악이라고 할 때, 저마다 자기를 하나님의 심판 앞에 소환하고, 우리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살핍시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을 넘어서는 덕이고 모든 악한 욕심을 없애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셔야 하니, 그분이 당신의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셔서 우리가 이 죄를 미워하고 또 여기서 말하는 원수 갚음을 늘 우리 눈앞에 두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음란한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여기 적힌 이런 모양으로 벌하지 않으신다 해도, 그분에게는 여러 방법이 있어서 우리가 그분 손을 피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 압시다. 어떤 사람이 남의 아내를 꾀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내가 그런 추함에 빠지도록 허락하지 않으신다 해도(악한 사람이 덕 있는 아내를 가질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 아내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녀가 지켜지고 악에 자기를 내맡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남편이 자기 편에서 악인이라 해도 말입니다), 그렇다고 그 남편이 더 이득을 본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방식으로 그를 잘 찾아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모세의 노래(신 32:34)에서 말하듯 그분의 상자에는 징계가 넉넉히 있고, 그분이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무서운 매를 가지고 계시며 좋으실 때마다 그것을 펼치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아봅시다. 그분이 미리 우리에게 일깨우시는 은혜를 베푸시니, 그분의 심판을 앞질러서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합시다.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받는 경고를 느끼지 못할 만큼 여전히 무관심하다면, 성령께서 이 위협을 거듭하시면서 그것이 모든 것을 멸망까

지 삼키는 불이요 재산을 뿌리까지 뽑아 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잘 새깁시다. 적어도 이것이 사람들을 깨우지 않는다면 그들은 짐승보다 더한 것입니다. 단지 CO 653 "그것은 비루한 짓이고 정죄받아 마땅한 죄다"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모든 것을 삼키고 뿌리까지 이르는 불이며 극한의 멸망이어서 모든 것이 긁혀 나가지 않고는 아무 재산도 남지 않으리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진노가 우리에게 무섭게 되도록 그런 식으로 우리를 위협하시는 것을 들을 때, 지금이 아니면 언제 우리 자신을 생각하겠습니까? 그 밖에 이 가르침을 두 가지로 실천합시다. 곧 저마다 이 점에서 그것으로 유익을 얻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저마다 자기 신분과 소명에 따라 그 악이 백성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바로잡고 우리가 그것에서 깨끗하도록 애쓰는 것입니다. 첫째에 관해서는 저마다 자기를 살피고, 꾀임을 받지 않도록 자기의 모든 감정 위에 파수를 잘 서야 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사람이 음란한 눈길을 가지지 않도록 자기 눈에 파수를 잘 세우지 않는다면 행위에 관해서 자기를 지킨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나쁜 탐심으로 남의 아내를 바라본 사람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음란한 자요 간음한 자로 판단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에 이르고, 그다음에 여자들을 꾀려고 엿보고 망을 보는 데까지 이른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 그만큼 더 우리는 우리 욕심 위에 파수를 서도록 깨어 있어야 하고, 그것이 다루기 힘든 만큼 저마다 자기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아래 고삐에 붙잡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분이 하시는 그렇게 무서운 위협을 바라보며, 음행이 우리 가운데 다스리는 것을 볼 때 그것을 바로잡으려는 이 열심을 가집시다. 우리가 그것을 용납하고 그것이 우리의 무관심으로 길러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뚜쟁이와 포주처럼 여겨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변명해서는 안 됩니다. 애꾸나 장님 노릇을 하며 음행이 저질러지도록 내버려 두는 사람은 (내가 이미 말했듯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뚜쟁이가

아니라고 면할 수 없고,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하나님 진노의 장작을 쌓기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음란한 자의 집이 불타 없어지고 불이 모든 것을 삼켜야 한다면, 우리 편에서 그 불을 끄고 음행이 우리 가운데서 세력을 떨치지 못하고 흔하거나 용납되지 않게 하도록 살피지 않는다면, 불이 온 도시와 온 나라에 붙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우리가 완전히 타 버릴 때까지 우리를 갉아먹는 하나님의 저주를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히 재판관들을 말하니, 죄를 징계하는 책임과 직무를 맡은 자들은 자기를 잘 살펴야 합니다. 그들이 음행이 자기 눈앞을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고 그것을 감추며 셈에 넣지 않고, CO 654 심지어 그것이 늘 더 세력을 떨치는 것을 만족스럽게 여긴다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갑절의 뚜쟁이요 갑절의 포주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구절에서 우리가 새겨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 밖에 음행의 행위를 저지르지 않으려고 억지 두려움에 붙잡히기만 하지 않도록 살핍시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당신 성령의 전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당신께로 끌어당기시는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보며, 그분이 우리가 몸뿐 아니라 영으로도 온전한 깨끗함 속에서 그분을 섬기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졌고 그분이 심지어 우리를 당신의 지체로 당신께 연합하셨으니, 우리가 그렇게 추한 것에 가서 우리 자신을 더럽혀 그분께 이 치욕을 드리지 않도록 살핍시다.

그러니 보십시오, 신자들은 억지 두려움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다가오려 하셨을 때 그분이 베푸신 은혜와 영예를 알아서 이렇게 정결로 자기를 이끌어야 합니다. 그러니 그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께 나아가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욥이 여기서 음행에 대해 하는 이 단언에 관해서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가 덧붙이는 둘째 단언으로 옵시다. 곧 그는 남의 권리를 빼앗기는커녕 자기에게 매인 자들에게 교만이나 잔인함을 쓰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때의 남종과 여종은 오늘과 같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일한 만큼 품삯" 하는 식으로 고용하지 않았고, 그들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노예여서 나귀와 소처럼 소유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새겨 둘 만합니다. 사람의 법으로는 주인이 자기 종에게 죽이고 살리는 권세를 가졌지만, 그래도 우리는 욥이 그것을 어떻게 썼는지 봅니다. 곧 그는 자기를 억제하고 자기에게 법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서는 그런 주인 됨을 가진 자들이 그것을 남용하거나 폭군이 되어 이성을 가진 피조물들을 발로 짓밟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때의 종들의 신분과 처지가 어떠했는지 잘 새겨야 합니다. 그것은 욥이 사람들 편에서는 허락되었을 것을 자기에게 허락하지 않으면서 쓴 인정과 올곧음이 어떠했는지 더 잘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는 그것이 하나님을 따라서는 자기에게 허락되지 않았다는 것을 잘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가 쓰는 말들을 새깁시다. 그는 말합니다. "내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다툴 때 내가 그들의 송사를 물리쳤다면." 그가 여기서 쓰는 말은 다투다, 따지다, 어떤 의견 차이나 소송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욥은 자기가 자기 종들의 입을 막을 수 있었고 원할 때 그들을 때려눕힐 수 있었으며 아무도 그것 때문에 그에게 노하지 않았을 텐데도, CO 655 자기가 그들에게 그들의 좋은 송사를 변론할 자유를 주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곧 그가 화를 냈을 때 합당한 변명이 있으면 그의 종들이 거리낌 없이 자기 송사를 따지고 자기 권리를 보여 줄 수 있어서 그가 힘으로 그들을 짓누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에게 교만도 잔인함도 없었다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는 동시에 자기가 어떻게 자기 정념을 절제하여 아랫사람들을 견딜 만큼 인정 있을 수 있었는지 밝힙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들을 지으신 이가 나도 지으셨고, 우리는 모두 한 분에게서 빚어졌다." 이것을 "우리가 한 태에서 빚어졌다", 곧 "우리는 모두 아담에게서 나왔고 모두 같은 본성이다" 하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더 멀리 넓혀야 합니다. 그러니 욥은 자기 종들을 그렇게 인정 있게 견딜 때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공통의 창조주가 계시고 우리가 모두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비슷한 본성이 있어서, 모든 사람이 낮은 신분이고 세상을 따라 업신여김을 받는다 해도 그래도 그들이 우리와 형제 됨을 가진다고 결론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자기 형제로 알아볼 생각도 하지 않는 사람은 소나 사자나 곰이나 다른 들짐승이 되어야 하고, 우리 모두에게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욥이 여기 가져오는 두 가지 까닭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서 그는 결론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실 때 내가 어떻게 하겠는가? 그분이 나를 거슬러 일어나지 않으시겠는가? 내가 그분 얼굴 앞에 설 수 있겠는가? 그분이 내 온 삶을 셈에 부르신다면, 내가 내 종들에게 인정 있지 않았다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우리가 거기서 유익을 얻을 줄만 안다면 큰 가르침, 아주 유익한 가르침을 담은 구절입니다. 우리가 아랫사람들을 징누를 방법이 있을 때 스스로 법과 분량과 규칙을 정할 만큼 그들에게 인정 있어야 한다면, 우리와 같은 자들에게는 어떻겠습니까? 누가 내게 매여 있다면 그가 말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그에게 무엇이든 할 수 있을 만큼 권위를 써도 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듯 사람들은 늘 자기에 대해 실제보다 훨씬 더 스스로 믿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몫의 권위를 주시면 그것을 끝도 중간도 없을 만큼 부풀립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우리 아래 있고 우리가 그 위로 높아진 자들조차 아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와 같은 자들이나 윗사람들을 상대할 때는 어떻겠습니까? 주인이 자기 종을 폭력으로 징누르거나, 자기 종이 좋은 송사를 지키는 것을 견디지 못할 만큼 주제넘음과 오만으로 높아졌다면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CO 656 종이 자기 주인에게 반역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거슬러,

신하가 자기 윗사람을 거슬러 일어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분명 더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기서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일반 가르침을 봅니다. 곧 먼저 어떤 높은 자리에 오른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기 두신 것이 그들이 고삐를 풀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며 그들의 목을 밟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늘 겸손과 절제 속에 자기를 붙잡아 두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한 가지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는 이 권위는 섬기고 작은 사람이 그 때문에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쓰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분명 사람은 자기 집에서 주인 됨을 가지려 할 것이고, 그보다 고귀한 주인 됨은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은 자기 집에서 홀로 말을 듣고 순종을 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주인이 자기 종들에게 그들이 잘못을 당했을 때 잠잠히 그들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될 만큼의 다스림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사람이 자기 사사로운 영역에서 아랫사람들에게 그런 인정을 써야 한다면, 재판의 권위를 가진 자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들은 주인이 종들 위에 다스리듯 다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권위가 있고 영예로운 우위가 있지만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종살이에 있도록 다스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왕들과 군주들은 자기를 달래지 말아야 하고, 세상이 자기를 위해 지어졌다고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들이 많은 사람을 위해 지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의 선을 위해 군주국과 왕국을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들 가운데 두셋을 높이시려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인류 가운데 어떤 질서와 어떤 규율이 있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왕들과 군주들은 자기 백성 위에서 살되 그들을 짓밟지 않고 그들 위에 폭정을 행하지 않도록 잘 살펴야 합니다. 그들은 자기 종들을 잔인하게 다룬 주인들보다 훨씬 덜 변명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재판의 직무에 부름받아 저마다에게 그의 권리를 돌려주려고 하나님의 종으로 앉아 있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훨씬 덜 허락될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자기를 잊고 교만으로 휩쓸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섬기던 형제들에게 어떤 폭력이나 잘못을 저지른 주인들보다 그들을 훨씬 더 혹독하게 징계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 밖에 다른 사람들 위에 어떤 권위를 가진 자들이 높아져서는 안 된다면, 같은 처지에 있는 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저마다 자기 이웃과 CO 657 자기 동네 사람과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사람이 자기와 같은 자를 알아보고 그와 함께해야 할 때 높아져서 황소처럼 군다면, 묻건대 그런 교만이 길들여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람이 들뜬 무모함 말고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는데 자기 이웃 위에 그런 권위를 가로채려 해서, 그들을 흘겨보는 것 말고는 바라볼 생각도 하지 않고, 온 세상이 자기 눈길에 떨어야 한다고 여긴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허세에 손을 대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구절을 잘 새깁시다. 그것은 주인들만 절제와 인정으로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일반적으로, 그리고 더 강한 이유로 가르치려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하나님께서 아랫사람들이 자기 위에 권위를 가진 자들에게서 참고 견디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듯, 저마다 자기 신분과 소명을 잘 살펴야 하고, 주인이 자기 종을 짓누르지 않고 종이 자기 주인에게 대들지 않으며 저마다 자기 의무를 다해서 하나님께서 최고로 섬김을 받으시도록 그런 절제에 우리를 맞추기를 배워야 합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새겨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정신이 너무 사나워서 저마다 자기에게 속한 것보다 더 많이 가로채려 한다면 더 잘 확신하게 되도록, 우리 안에 그런 오만이 있고 우리에게 매인 자들에게 잔인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선지자들의 입으로 정죄받을 뿐 아니라 마지막 날에 이교도들이 우리 재판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새깁시다. 나는 이미 사람의 법에 따르면 그때 주인이 자기 종들에게 죽이고 살리는 권세를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이교도들은 그 위에서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우리는 종들을 품꾼처럼, 곧 우리가 고용했고 우리에게 매여 있지 않은

사람들처럼 써야 한다." 그것이 그들 자신의 말입니다. 그때의 믿지 않는 자들이 저마다 자기에게 법을 정해야 하고, 종들에게 자기 좋을 대로 할 방종이 허락되어 있었다 해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그런 인정의 고려를 가졌다면, 묻건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심을 받은 우리가 적어도 그런 고려를 가지지 않는다면 무슨 핑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권위로 높이신다면 그것은 우리 절제를 시험하시려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우리에게 매인 남종과 여종을 주신다면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이 인정과 올곧음으로 우리를 훈련하시려는 것임을 새깁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다면, 그것을 CO 658 그분에게서 받았으니 그 방법으로 그것을 절제 있게 쓰도록 부추겨진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에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그런데도 우리를 아끼시니,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서 기꺼이 그분을 본받아야 하고, 그분을 닮고자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 있어야 합니다. 그 밖에 사람이 자기가 가진 권위를 핑계 삼아 다른 사람들을 거슬러 잔인하게 높아지려 할 때 그 권세가 완전히 비뚤어진 것이라는 것을 알아봅시다. 말하건대 사람이 자기 신용 때문에 그렇게 높아질 때 그것은 완전히 악한 본성의 표시입니다. 반대로 인자하고 다정한 본성을 가진 자들은 분명 늘 자기 아랫사람들을 아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위를 더 주실수록 스스로 그만큼 더 자기를 억제할 것입니다. 여기서는 다른 데서 오는 강제가 문제가 아닙니다. 마치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엎드린 개처럼 굴며 온갖 아첨을 쓰다가, 높아지면 방자해져서 자기 안에 아무 절제도 없었고 종의 본성을 지녔다는 것을 보여 주는 자들처럼 말입니다. 그것은 비루하고 가증스럽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성령께서 이 구절에서 명하시는 이 절제로 그만큼 더 이끌어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앞에서 짚은 두 가지 까닭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곧 우리에게는 우리가 모두 나온 한 창조주가 계시고, 우리는 비슷한 본성을 지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거기에 부추겨질 때 우리 안의 모든 교만과 모든 잔인함을 꺾으려면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살림을 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남종과 여종을 주셨는데, 그가 너무 높아지고 지나친 엄격함을 쓰도록 시험받는다면, 여기서 우리에게 밝히는 이 처방을 찾아야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 종들을 잔인하게 다루고, 그들의 입에서 빵을 빼앗아 그들이 내가 아까워하지 않고는 한 입도 감히 먹지 못하게 하며, 일로 그들을 너무 몰아붙이고, 요컨대 그들에게 잔인하게 나타난다면, 나는 누구에게 덤벼드는 것인가? 물론 그들은 내 것이다. 그러나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으시고 빚지 않으셨는가? 우리에게는 하늘에 공통의 주인이 계시지 않은가?" 그리고 사도 바울이 주인들에게 자기 종들을 아끼라고 권하면서 내세우는 것이 이것입니다(엡 6:9). 그는 말합니다. "친구들이여, 너희가 그들 위에 있다 해도 너희에게도 하늘에 주인이 계시다." 높아진 자들도 그 때문에 매여 있기를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자기에게 종들을 맡기신 분께 셈을 해야 하리라는 것을 살펴야 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그들은 붙잡힐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우리 자신에게서 가졌습니까? 저마다 자기 자리에서 가진 이 우위에 CO 659 우리가 무슨 권리로 이르렀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맡기신 맡긴 물건 같은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그분의 뜻대로 그것을 쓰도록 살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교도들조차 최고 권력을 질서 잡으려 할 때 잘 말했습니다. "그렇다, 물론 왕들은 두려움과 무서움을 받는다. 그러나 그들은 하늘의 재판관의 손을 피할 수 없다. 그들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최고의 우위를 가진 군주들에 대해 그렇게 말한다면, 주인과 안주인 같은 보통 신분의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그 밖에 (내가 말했듯이) 이렇게 알아봅시다. "보라, 우리는 모두 공통의 창조주를 모신다." 우리가 모두 한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참된 결론, 곧 하나님께서 노여

워하지 않으시고는 우리가 우리 이웃을 짓누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도 헛되이 높아지지 말아야 합니다. 솔로몬이 말하듯(잠 14:31; 17:5) 눈먼 자나 가난한 자를 비웃는 사람은 그를 지으신 분을 업신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라, 불쌍한 사람이 있다. 나는 그를 업신여기고 그에게 어떤 수치를 줄 것이다." 물론 그 모욕은 먼저 죽을 사람에게 향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거기 와서 앞에 나서시고 그 모욕을 당신께 한 것으로 받으십니다.

그러니 욥이, 아니 오히려 성령께서 이 구절에서 주인을 지으신 이가 종을 지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짚으려 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헛된 주제넘음에 찔려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를 더 귀히 여기고, 저마다 우리 앞에서 멍에를 메고 우리 발 앞에 엎드리며 우리가 세력을 떨치기를 바랄 만큼의 다스림을 바랄 때, 이 생각에 이릅시다. "그러나 어쨌든 내가 주인이라면 하나님께서 내 종을 지으셨고, 그분이 나처럼 그를 빚으셨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 그것은 우리 안에 있던 이 오만을 길들여서 모든 높음이 억눌리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여기서 말하는 이 둘째 고려, 곧 우리가 비슷한 본성을 지녔다는 것도 가집시다. 물론 하나님께서 짐승들과 나무들과 다른 것들도 빚으셨지만, 사람들을 짐승처럼 빚지 않으셨고 그들 안에 당신의 형상을 새기시면서 그들에게 지성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CO 660 다른 쪽으로 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거울에서처럼 거기서 나 자신을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 그런 결합을 두셨으니, 묻건대 그것을 깨뜨리려 애쓰는 사람은 인류에게서 자기를 잘라 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두신 이 본성을 알아보지 않는다면 그는 개들에게 보내져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은 아주 적습니다. 반대로 사람이 손가락 하나만큼 높아지면 자기가 더는 보통 줄에 있지 않다고 여기는 것이 보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더 우리는 이 가르침을 잘 새겨야

합니다. 오늘 같은 빛이 아직 없던 그때 욥이 모두가 한 하나님에게서 지어졌고 그분이 우리 모두를 한 줄에 두셨으니 그것이 사람들의 교만과 모든 오만과 높음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묻건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로 당신을 선언하시는데 우리에게 무슨 핑계가 있겠습니까? 그분은 당신이 가난한 자와 부자, 종과 주인을 아울러 인류의 창조주이시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우리가 그분 집의 식구인데 그분의 집에서 우리를 잘라 내려 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이에 형제 됨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영광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들의 종이 되실 만큼 거기까지 낮아지신 것을 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듯(롬 8:17)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가 부름받은 공통의 유산도 있습니다. 그러하니 우리 자신을 낮추기를 배웁시다. 그리고 교만과 잔인함이 우리에게 낙원의 문을 닫으려는 것임을 아니,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인정하시는 자들, 우리가 그 위에 우위를 가질 자들에게 인자하고 인정 있게 합시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들과 함께 모아져서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모든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시게 하고, 저마다 자기 소명에 따라 자기 의무를 다하는 그런 질서를 따르며, 모든 사람의 공통의 재판관이신 이 크신 주님이시요 주인께 우리 모두 경의를 드립시다.

이제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엎드립시다.

제114편

욥기 31장 설교 4

CO 34:661–675

AI로 옮긴 초벌 번역입니다. 신학 감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CO 권: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 내가 가난한 자의 바람을 물리쳤거나 과부의 눈을 지치게 하였거나, 내 빵 조각을 혼자 먹고 고아가 그 몫을 얻지 못하였다면, (이는 내가 젊을 때부터 고아가 나를 아버지로 삼은 것처럼 나와 함께 자랐고, 과부가 어머니 배에서부터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네) 내가 옷이 없어 죽어 가는 사람이나 덮을 것이 없는 가난한 자를 보고도, 그의 허리가 나를 축복하지 않았고 그가 내 어린양의 털로 따뜻해지지 않았다면, 성문에 나를 도울 자가 있는 것을 보고 내가 고아를 치려고 손을 들었다면, 내 어깨뼈가 어깨에서 떨어지고 내 팔이 그 뼈마디에서 부러지기를 바라네. 나는 하나님의 벌을 두려워하였고, 그분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네. (욥 31:16–23)

CO 661 여기서 욥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도우면서 자기가 어떤 인정을 가졌는지 보여 줍니다. 앞에서 그는 자기가 아무에게도 잘못하지 않았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는 더 나아갑니다. 곧 그가 도움을 청하러 오는 자들의 궁핍을 불쌍히 여겨 자기 재물과 재산으로 그들을 도왔고, 그렇습니다, 그들을 쇠약하게 기다리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는 자기에게 재빠름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곧 사람들이 그에게 구하자마자 그가 힘썼고, 귀를 잡아당겨야 움직이는 자들처럼 오늘에서 내일로 미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가난한 자의 바람을 물리쳤다면” 하고 말합니다. 곧 그가 가난한 자가 모자라고 궁핍한 것을 보고도 그를 돕지 않았다면 하는 것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과부의

눈을 지치게 하였다면." 우리가 무엇을 바라며 기다릴 때 늘 우리 눈길을 거기에 두고, 무엇을 바라보는 데 주의를 기울일 때 눈이 지치고 침침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욥의 의도를 봅니다. 곧 그가 도움을 청하러 온 가난한 자들을 (흔히 말하듯) 헛되이 기다리게 하지 않았고 곧바로 그들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그는 또 옷이 없는 자들이 추위로 죽어 가는 것을 보지 않았다고 덧붙입니다. 오히려 그는 말합니다. "그들의 허리와 옆구리가 나를 축복하였다", 곧 "그들이 내가 베푸는 은혜를 느꼈다. 그들이 내 어린양의 털로 따뜻해졌다." 요컨대 그는 자기 빵 조각을 혼자 먹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좋은 것을 따로 게걸스럽게 먹지 않았으며, 과부들과 고아들에게 그 몫을 나누어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그들을 그들의 아버지처럼 나와 함께 길렀다." 거기서 그는 자기가 고아들에게 아버지 같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어머니 배에서부터 과부를 나와 함께 CO 662 두었고, 도움이 필요한 가난한 자들을 마음에 두었으며, 결코 그들에게 모자라지 않았다. 그렇지 않다면 내 어깨뼈가 내 어깨에서 떨어지기를", 곧 "내가 사지가 찢기고 조각조각 썩어 거기 쓰러지기를, 내 팔이 그 마디와 뼈에서 부러지기를, 사람들이 나와 내 몸 위에서 크고 완전히 끔찍한 하나님의 저주를 보기를 바란다. 내가 약해서 원수를 갚을 수 없던 자들에게 잘못하였다면, 이를테면 내가 고아를 치려고 손을 들었다면 말이다. 그리고 사람들에 관해서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고 재판이 내 폭력과 잘못을 뒷받침해 주었을 것이라 해도, 내가 그런 짓을 꾀했다면 내가 사지가 찢기고 썩기를 바란다.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괴롭히심이 늘 내게 두려움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분의 짐을 질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그는 (앞에서 이미 했듯이) 자기가 부끄러움이나 다른 고려로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재판관이심을 보고 바르게 걸었다고 밝힙니다. 그리고 그가 세상에 관해서는 벌받지 않고 남을 수 있었고, 재

판으로든 다른 방법으로든 사람들이 자기를 쫓을까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자기 신용 때문에 작은 자들에게 악을 행할 방종을 가질 수 있었다 해도, 그는 늘 이렇게 바라보았습니다. "내 하나님이시여, 나는 주의 진노가 내게 무서우리라는 것을 압니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요컨대 욥은 여기서 자기가 벌 때문에(그는 그것을 자기 눈앞에서 보지 못했습니다) 죄를 삼간 것이 아니라 양심 때문에 삼갔다는 것, 곧 그가 양심을 소환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다가올 심판을 두려워하게 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여기 담긴 것의 요점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첫째에 관해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여 주는 과목을 가집니다. 곧 우리는 우리 이웃이 궁핍에 있을 때 그들을 도울 만큼 불쌍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구제가 우리에게 부탁됩니다. 이 말이 "자비"와 같은 뜻을 담고 있다는 것은 자주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 칭호 가운데 인정 많고 자비로우시다는 이 칭호를 당신께 돌리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점에서 그분의 본보기에 우리를 맞추려 애쓰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없고 그분은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불쌍한 사람들이 고난받는 것을 볼 때 불쌍히 여김으로 움직이고, 저마다 자기 능력에 따라 그것을 채우려고 살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CO 663 우리 모든 재산을 준다 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덕으로 여겨지지는 않을 것입니다(손이 주려고 열리기 전에 마음이 불쌍히 여김에 찔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고난받는 자들을 불쌍히 여길 때 우리는 또한 할 수 있는 만큼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사도 야고보가 일깨우듯(약 2:16) 내가 가난한 자에게 "친구여, 하나님께서 네게 채워 주시기를" 하고 말한다면, 나는 그것으로 내게 아무 사랑도 없다는 것을 보여 주기 때문입니다. 내가 "참 딱하다" 하고 말하면서 그 사이에 내가 선을 행해야 할 사람을 도우려 애쓰지 않는다면 나는 비웃는 것이고 위선자일 뿐입니

다. 곧 나는 거기서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 주시는 딱한 처지를 볼 것이고, 그것은 마치 그분이 내게 힘쓸 계기를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을 볼 것인데 그 사이에 아무것도 아닌 체할 것입니다. 내 안에 인정이 한 방울이라도 있다면 그런 궁핍을 내 몫만큼 도우려고 애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구절에서 간직해야 할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제하라고 권하시고 그것이 두 가지 점에 있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 이웃이 고난받는 것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것, 그리고 그런 불쌍히 여김의 감정을 가졌을 때 그들을 도울 방법을 살피고 저마다 자기 자리에서 힘쓰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가 볼 모든 궁핍을 채울 수 없고, 그리스도인은 지갑에 손을 넣지 않고도 탄식해야 할 것입니다. 가장 좋은 감정을 가진 사람들도 늘 힘쓸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그 불쌍히 여김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마치 가난한 자들이 먹고 배부른 것처럼 사랑으로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불쌍히 여김이 가난한 사람 안에 있을 때 그것은 그에게 넉넉히 주고 베풀 가득한 지갑이 있는 것만큼의 제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우리 능력에 따라 힘쓰도록 살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이 우리 손에 맡기신 재물의 관리자로 세우셨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저마다 따로 게걸스럽게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모자란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여기서 확정된 법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도 그것을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지로 하듯 강요하지 않으시고 기꺼운 마음을 원하신다고 말합니다(고후 9:7).[73] 그러나 그 사이에 가난한 자들이 우리 눈앞을 지나가고 우리가 그들의 궁핍을 보는데도 우리가 지갑을 닫고 그들을 도울 생각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들짐승 같고 우리 안에 불쌍히 여김이 한 알도 없다는 확실한 표시라는 것을 잘 새깁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보내실 때 우리 차

73. 원문에는 "로마서 12장 8절"로 되어 있으나, 억지로 하지 말고 즐겨 내라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례에 같은 잔인함을 느낄 수밖에 없으리라는 것, 우리가 비참해도 아무도 그것에 움직이지 않고 사람들이 우리를 CO 664 경멸하며 바라보고, 우리가 내쳐지며 모든 도움을 빼앗기리라는 것을 새깁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늘 돌려주시는 분량이고, 그렇게 자기 이웃에게 잔인했던 모든 자의 삯이기 때문입니다. "긍휼을 베풀지 않은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약 2:13 참조) 하고 말하는 대로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 공로에 따라 사람들이 우리에게 잔인했던 뒤에도, 결국 우리는 우리를 온갖 엄격함으로 다루실 하나님 앞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선하심, 그분이 우리에게 본보기와 규칙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선하심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만큼 더 우리는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 주는 이 가르침을 묵상해야 합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우리 저마다 악을 행하고 이웃을 해치며 남의 재물과 재산을 빼앗는 것을 삼가기만 할 때 만족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손이 깨끗하고 약탈과 속임수와 강탈에 빠지지 않았다고 단언할 수 있을 때 그것은 이미 어떤 덕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셈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핍한 자들을 도울 것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재물을 그분이 뜻하신 것과 다른 용도에 써서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종이 자기 주인의 재산을 받도록 맡겨졌고, 주인이 그에게 "너는 이 사람에게 이만큼 주고, 내가 빚진 이 금액을 갚아라" 하고 명했거나, 그에게 이런 일정한 몫을 주며 자기 재산이 그렇게 쓰이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종이 인색하게 굴어서 사람들이 그 뒤에서 "내게 갚아라" 하고 소리쳐도 아무것도 내주려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와서 "당신 주인은 내게 이런 것을 주라고 하셨다" 해도 아무것도 펼치려 하지 않으며, 집안식구들이 빵을 달라고 소리쳐도 자기 주인을 섬기며 일하는 자들을 거기서 굶어 죽게 내버려 둔다면, 묻건대 그 종이 "보십시오, 나는 당신 재산에서 한 푼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내가 당신을 위해 남겨 둔 모든 것입니다" 하고 말할 때 그것이 견딜 만하겠습니까? 주인은 그를 이렇게 꾸짖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 목적으로 내 재산을 네 손에 맡긴 것이 아니다. 네가 내가 정한 곳에 내 재산을 쓰지 않았으니 너는 나를 부끄럽게 했다. 이제 네가 네 것이 아닌 재산을 아끼며 인색했으니 나는 비난을 받아야 한다." 그러니 주인이 그런 종에게 말할 때 그를 악한 자로 정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가난한 형제들을 돕도록 하시려는 뜻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재물을 넉넉히 베푸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너무 움츠러들어서 우리 지갑에서 한 푼도, 우리 부엌에서 빵 한 조각도 나가지 않는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재산의 한 부분을 정해 주신 자들에게서 떼어먹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CO 665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맡기신 것을 그분에게서 훔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이미 말했듯이) 자비로 더 기울기를 배웁시다. 그리고 우리가 이만큼 주어야 한다고 말할 확정된 법을 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마다 힘쓰고 저마다 자기 힘이 닿는 데를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을 때에도 아직 셈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저마다 가져야 할 특별한 법이 이것입니다. 곧 사랑이 길고 넓게 뻗어 나가서, 우리가 가난한 자들에게 아직 충분히 셈을 다하지 않았다고 고백할 만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완전하게 나아가지 못한다 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아무 인색함이나 아까워함 없이, 모자란 자들을 도울 너그러운 마음으로 행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구제를 받으시고 그것이 그분께 향기로운 제사라는 것을 압시다. 그렇습니다, 흠잡을 것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의 십분의 일도 하지 못한다 해도 말입니다. 그 사이에 여기 놓인 이 정황, 곧 모자란 자들을 쇠약하게 기다리게 하지 않는 것을 잘 새겨야 합니다(우리가 미룬다면 그것은 이미 우리가 우리 이웃을 도우려는 기꺼운 뜻이 없다는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좋은 고려가 있지 않다면 그들을 다른 때로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이 불쌍히 여김으로 기울어 있으면서도 그 사람의 궁핍을 알아보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욥이 자기가 가난한 자를 그 바람에서 물리치지 않았다고 말할 때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는 여기서 인색한 사람들이 가지는 그 어려움을 나타내려 하기 때문입니다. 곧 그들은 누가 무슨 도움을 청하고 지갑에서 한 푼을 꺼내야 할 때 마치 창자를 뽑아내는 것처럼 여기니, 늘 어떤 여유를 가지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빚을 받으러 오면 갚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심지어 잘 갚을 수 있지만, 하루이틀 자기 돈을 가지고 즐기기를 좋아하는 셈이 나쁜 사람과 같습니다. 아니면 그들은 교수대로 끌려가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는 할 수 있는 한 미루고, 사다리를 오를 때가 되면 계단마다 흥정할 것입니다. 이 구두쇠들도 그렇게 합니다. 사람들이 와서 그들이 빚진 것을 청하면 늘 뒷걸음치고, 구제를 청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이 있다면 분명 우리 안에 그런 아까워함이 없을 것이고, 그런 유예를 구하지 않을 것이며, 가난한 자들이 우리를 기다리며 쇠약해지지 않아서 그다음에 우리 귀가 그들의 부르짖음으로 닳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할 수 있는 만큼 CO 666 바로 그때 그들을 도우려 애쓸 것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이 구절에서 우리가 간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기쁘신 구제를 하려면 누가 우리를 재촉하고 졸라대기를 기다려서는 안 되고, 거기 있는 필요를 보며 바로 그때 그것을 처리하려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아픔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결코 제때 우리를 도우러 오지 않을 것처럼 보이듯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분량만 쓰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참된 자연의 규칙, 곧 우리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마 7:12 참조). 그러나 우리는 도움을 청하는 데는 서두르고 그것을 주는 데는 딱할 만큼 더딥니다. 그래서 욥이 과부를 쇠약하게 기다리게 하지 않았고

가난한 자를 그 바람에서 물리치지 않았다고 말할 때 우리는 이 말을 그만큼 더 잘 지켜보아야 합니다.

그는 자기 빵 조각을 혼자 먹지 않았고 고아와 과부가 그 몫을 얻었다고 덧붙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말합니다. "나는 어머니 배에서부터 과부를 나와 함께 길렀고 고아를 아버지처럼 먹였다." 여기서 우리는 선하심과 너그러움의 놀라운 본보기를 봅니다. 한 주에 서너 사람에게 작은 구제를 한 것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보십시오, 욥은 자기가 고아들의 아버지였고 과부들의 보호자였다고, 그들을 돕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재물과 재산으로 그들을 먹였다고 밝힙니다. 우리가 그것을 들을 때, 묻건대 백 사람이 우리에게 구하는데 우리가 한 사람에게 겨우 작은 도움을 줄까 말까 한 것을 크게 부끄러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스무 번 모자라도 누군가에게 가볍게 셈을 다한 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기니 말입니다. 그것도 마땅히 요구되는 대로 채워 주려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며 작은 동전 하나를 주고 "다른 데 가서 구하라" 하려는 것입니다. 욥이 여기서 우리에게 거울로 주어지고, 그의 인격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직무가 무엇인지 밝히시는데 그 사이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큰 부끄러움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담긴 것이 우리에게 가르침과 교훈이 되어야 하듯, 반대로 그것은 우리를 정죄하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욥이 여기서 보여 주는 것을 따르지 않았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짐승 같은 잔인함을 꾸짖을 다른 증언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말했듯이 우리가 이런 완전함을 가지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 주기를 그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구제가 마땅히 그래야 할 만큼 완전하지 않다 해도, 우리가 고난받는 자들에게 이 불쌍히 여김을 가지고 그들에게 CO 667 선을 행하려 애쓰며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우리가 욥과 같지 않다면 왜 그를 따르지 않습니까? 왜 적어도 멀리서라

도 그의 본보기에 우리를 맞추려 애쓰지 않습니까? 왜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아들을 먹일 수 없을 것이고, 우리에게 그럴 것이 있다 해도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어서 끝까지 힘쓰지 못하도록 붙잡힐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어떤 불쌍히 여김을 가져야 합니다. 모든 것을 하지 못한다면 무엇인가를 합시다. 그리고 그다음에 욥이 이른 목표에 다다를 수 없다면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로 부르시니 그것을 향해 나아갑시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큰 부끄러움이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리 하나를 움직일 때 이를 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마치 그 게으른 자들이 다리 하나를 들 때 산을 끌고 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들이 팔 하나를 듭니까? 그들은 찌푸리고 투덜대며, 나아가는 대신 뒷걸음칩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그것은 우리 안에 아무 감정도 없다는 표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욥이 자기가 가졌다고 밝히는 그런 완전함을 우리가 가지지 못한다면 적어도 그의 본보기를 따르기를 배웁시다. 그는 그것을 자랑하려고 밝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더 움직여지게 하려고 밝힙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한 가르침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다는 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핑계가 그만큼 덜하도록 거울을 내놓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아무 분별 없이 주어야 하는가?” 하고 묻는다면, 그 대답은 성령께서 구제하는 자들에게서 그 재물이 어디에 쓰일지 살피는 분별을 빼앗으려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 분별 없이 나아간다면 저마다 털리듯 하고 결국 가난한 자들이 도움 없이 거기 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흔히 말하듯) 가장 뻔뻔한 자들이 그것을 가져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가장 뻔뻔한 자들은 누구입니까? 불쌍히 여김이 가장 적은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가난한 체할 것이고,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으려고 사람들이 자기에게 두 배, 세 배를 주기

만을 바라며, 다른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마른 것은 거의 아랑곳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세상에 있는 악의, 곧 딱할 만큼 많은 위선자가 있는 것을 생각하면, 슬기를 가지고 누구에게 줄지 가까이서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백 명 가운데 도움받을 만한 사람을 하나 찾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들이 실제로 가난하다 해도 그들에게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손에 무엇이 들어오자마자 게걸스럽게 먹고 술에 취하며,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다 없어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우리는 불의의 절정에 이르렀으니 주는 문제에 이르면 잘 분간하고 따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CO 668 이 슬기를 핑계 삼아 우리 인색함을 덮지 않도록 살핍시다. 하나님께서는 재물이 잘 쓰이도록 누구에게 주어야 할지 살피는 것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먼저 이것을 완전히 결심해 두었어야 합니다. "나로서는 내가 가진 분량에 따라 아끼지 않고 내 힘이 닿는 대로 선을 행하겠다. 나는 내가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는 곳을 찾기만을 바란다." 사람이 그것을 결심했을 때 이 사람이나 저 사람에게 구제가 잘 쓰이는지 알아보아도 됩니다(그는 거리낌 없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오, 주는 문제에 이르면 먼저 잘 판단해야 한다" 하고 말하고, 그다음에 늘 "오, 나는 거기서 가난을 찾지 못한다" 하며 핑계를 대고, 힘쓰지 않을 어떤 계기를 가지는 것을 반가워한다면, 그런 사람은 자기 도움이 모자란 자들을 돕는 데서 빠져나가기만을 바란다는 것이 뻔히 보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알아보려 한다면 선한 뜻이 앞서야 합니다. 곧 우리는 선을 행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바라지 말아야 하고, 그다음에 담대히 알아봅시다. 우리가 먼저 좋은 감정을 가지고 우리 인색함을 덮을 것을 구하지만 않는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우리는 여기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 사이에 우리 부지런함이 너무 까다로워서도 안 됩니다. 선을 행하면서 속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고, 분간하려 애써도 자격 없는 자들에게 어떤 구제를 주는 일이 우리에게서 빠져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선을 행하다가 지치지 말라고 권합니다 (갈 6:9). 우리는 그렇게 하는 데 많은 걸림돌을 만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험담하는 악한 자들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배은망덕이 올 것이며, 그 모든 것이 우리를 길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늘 용기를 가지고 어찌 되든 이어 가야 합니다. 요컨대 (내가 이미 말한 것에 이어서) 우리는 여기서 어디서나 특별한 법을 둘 수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반 규칙으로 충분해야 합니다. 곧 우리가 불쌍히 여김과 동정으로 기운 인정 있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도움이 모자란 자들에게 선을 행하고 그들을 도우려는 바람을 가지며, 우리를 기다리는 자들을 쇠약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필요가 요구할 때 손이 열리도록 마음을 열어 두는 것입니다. 요컨대 여기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 밖에 욥이 동시에 하는 말을 잘 새깁시다. 곧 그는 옷이 모자란 자가 죽어 가는 것을 보지 않았고, 아무 덮을 것이 없는 자가 추위로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오히려 그들의 옆구리와 허리가 나를 축복하였고 내 양의 가죽으로 따뜻해졌다." 여기서 욥은 자기가 모든 방식으로 구제하는 데 힘쓰려 애썼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CO 669 굶주리고 목마른 자들에게 먹고 마실 것을 주는 것뿐 아니라 헐벗은 자들을 입히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불쌍히 여기려 한다면 우리가 보는 대로 우리 이웃의 궁핍을 채워야 합니다. 한 부분에서 그들을 돕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욥과 같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만큼 많은 수천 마리의 가축이 없으니 말입니다. 그는 수입으로는 오늘의 큰 군주들 가운데 들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그는 소를 쌍으로나 백 마리씩만 가진 것이 아니라 큰 마을 대여섯 곳, 아니 훨씬 더 많은 곳, 한 지방에 있을 만한 가축떼를 가졌습니다. 우리는 그의 재물과 재산이 가축에만 있었고, 그것이 한 지방의 가축 같았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저마다 거기에 이르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 되든 우리 분량을 살펴봅시다. 그 분량에 따라 우리는 선을 행하려 애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렙돈만 넣은 과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돈을 던져 넣은 자들보다 더 칭찬하시고 귀히 여기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대로입니다(막 12:42–44 참조). 그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녀가 자기의 모든 재산을 주었고,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부를 생각하면 작은 몫만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저마다 자기를 살펴봅시다. 그리고 먼저 우리 이웃이 먹을 것이나 마실 것이나 입을 것이 모자란 것을 볼 때, 다른 방법으로 그들을 도울 수 없다면 적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길을 열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그 사이에 어찌 되든 그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이 우리 탓이 되지 않게 합시다. 그러니 보십시오, 우리가 간직해야 할 것은, 욥이 자기 빵 조각을 말하고 굶주린 자들에게 그 몫을 나누어 주었다고 말한 뒤에, 그의 도움 없이는 추위로 죽을 수 있던 자들도 똑같이 입혔다고 덧붙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는 그들의 허리가 자기를 축복했다고 말합니다. 거기서 그는 그들이 그렇게 그에게 도움을 받았으니 그에게 고마워할 까닭이 있었다는 것을 밝힙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그는 자기가 사람들에게서 삯을 기대하지 않았고, 자기가 선을 행하면 그들이 그에게 갚기를 찾지 않았으며, 그것이 하나님께 기쁘시다는 것을 알고 자기가 행한 선으로 만족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잘 간직해야 할 과목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배은망덕하고 우리가 선을 베푼 자들이 우리에게 불평하며 선을 악으로 갚는다 해도, 우리는 그들에게 선을 행하면서 아무것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먹였다면 그들이 싫든 좋든 그들의 배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축복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다른 방식으로 도왔다면 그 일이 대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CO 670 물론 그들은 때로 너무 악해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래, 참 그럴듯하구나. 내가 그에게 무엇을 빚졌는가?” 우리가 오늘 보듯 가장 가난한

자들이 가장 교만할 것이고, 사람들이 선을 행하려 애쓴 자들이 가장 험담하는 자들일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때문에 언짢아하지 맙시다. 우리가 그런 배은망덕을 견딜 수 없다면 여기 적힌 말, 곧 우리가 행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축복하리라는 말을 새깁시다. 도움을 받았는데도 대들고 불평할 만큼 비루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는 자기 옆구리를 지니고 다닙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입혔다면 그의 몸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축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론 그 자신은 그런 감정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찌 되든 하나님께서는 입혀진 몸을 바라보시고, 그 축복이 그분 앞에서 셈에 오를 것입니다. (내가 말했듯이) 먹여진 사람은 그의 배가 말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의 입이 너무 신의가 없어서 선을 악으로 바꾸고 거기서 독밖에 나오지 않는다 해도, 우리 주님께서는 행한 구제의 축복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새겨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필요로 하는 자들을 돕도록 부추겨지고, 그들이 우리에게 보상하고 그들에게 베푼 선을 갚을 만한지, 또는 우리에게 고마워할 만한지 바라보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정반대로 한다고 칩시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행해진 그 제사를 받으시니 우리는 수고를 잃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추운 사람을 입힌 자들을 옆구리나 허리가 축복한다는 이 말이 담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가난한 자들이 우리를 거슬러 원수 갚음을 부르짖지 않고 하소연하지 않는다 해도, 그들이 궁핍을 겪었는데 우리가 눈을 감고 아무 불쌍히 여김도 없이 "나는 편안하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하고 말했다면, 그들의 옆구리가 우리를 저주하리라는 것을 새깁시다.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잔인했다면, 가난한 궁핍한 자들이 그렇게 궁핍으로 죽었는데 우리가 그들을 도울 생각도 하지 않았다면, 분명 하나님께서 옆구리와 허리가 말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 잔인함을 하소연하려고 입을 열지 않는다 해도, 오, 그들이 겪은

고뇌가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서 하소연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하소연에 따라 원수 갚음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말했듯이 사람들이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해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렇게 말한 뒤에 자기가 고아를 거슬러 손을 들지 않았다고 덧붙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성문에 자기를 도울 자가 있는 것을 보았다 해도, 곧 그가 사람들에게 벌받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었다 해도 말입니다. 그때는 재판을 CO 671 가장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인 성문에서 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욥은 말합니다. "물론 나는 이 사람을 떨게 하고 저 사람을 도망치게 할 수 있었고, 벼락같을 수 있었으며, 그래도 아무도 내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왜 그런가? 신용 있는 사람은 뒷받침을 받을 것이고 사람들이 감히 그를 하소연하지 못할 것이며, 하소연한다 해도 재판관들이 감히 바로잡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내가 세력을 떨쳤고 재판이 내가 꾀했을 모든 것을 용납했을 것이라 해도, 나는 내 신용을 남용하지 않았고 심지어 가난한 자를 짓밟지도 않았다. 고아가 있을 때 나는 그를 내 이익으로 삼으려 애쓰지 않았다." 우리는 고아들이 자주 먹이로 내놓인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욥은 자기가 남의 재산을 빼앗을 수 있을 때에도 결코 그렇게 하려 애쓰지 않았고, 사람들 편에서는 그것이 허락되었을 것이라 해도 결코 남의 비용으로 자기 유리함을 얻으려 하지 않았을 만큼의 올곧음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그러나 그는 그 까닭을 덧붙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괴롭히심과 그분의 멸망이 내게 두려움이었기 때문이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나를 꾸짖지 않으리라는 것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내 하늘의 재판관이신 하나님께 내 눈을 박아 두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먼저 언제나 큰 타락이 있었다는 것, 곧 저마다에게 그의 권리를 돌려주도록 세워진 사람들이 그것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오늘 재판관들이 가장 악한 자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을 편들며 그들의 악행을 뒷받침한다

해도 그것은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상적인 관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더 재판의 직무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셈을 다하도록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타락은 오래전부터 다스렸고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세력을 떨칩니다. "그 악이 아주 옛날부터 있었으니 마찬가지 아닌가?" 하고 말한다면, 오, 그 때문에 변명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지식이 없었고 가르침이 오늘만큼 친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재판의 자리에 앉아 지팡이를 손에 든 자들이 강탈을 용납하고, 불쌍한 사람이 짓밟히는 것을 보면서도 셈에 넣지 않으며, 어떤 신용을 가진 자들이 자기에게 속한 것보다 더 가로채는 것을 보면서 못 본 체한다면, 그들이 날마다 권면과 일깨움으로 귀가 닳고 그들이 하나님과 자기에게 맡겨진 백성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들으니 그들에게 무슨 핑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가르침 위에서, 재판관들이 악인들을 뒷받침하는 그런 타락이 세상에서 일상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비슷한 혼란을 볼 때 우리 저마다 위로받아야 하고, 우리에게 많은 모욕을 하는 자들에게서 CO 672 정당한 대우도 권리도 얻지 못하고 그들을 이길 수 없다 해도 너무 아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새깁시다. 그때 우리는 인내로 무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당신의 백성을 그렇게 훈련하려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욥의 시대부터 재판에 질서를 세우실 수 있으셨지만 많은 가난한 자가 탄식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다면 그분은 그 방법으로 견디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려 하십니다. 이것이 한 가지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재판의 직무에 있는 자들은 자기를 잘 살펴야 합니다. 사람들이 그 악으로 기울어 있으니, 그들이 조심하지 않으면 곧 자기 의무에서 벗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본보기를 너무 많이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되새겨야 할 둘째 과목도 있습니다. 곧 우리가 사람들 편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것을 바라보지 말고, 욥의 본보기를 따라 우리 눈길을 하나님

께 박아 두며,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를 붙잡아 우리 이웃을 해치거나 그들에게 어떤 잘못도 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과목은 아주 필요합니다. 묻건대 오늘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책망받지 않는 것 말고 무엇을 바라봅니까? 그것을 해낼 수만 있으면 충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재판의 질서는 어떻습니까? 욥의 때와 같습니다. 도움은 성문에, 강탈하고 과부들을 삼키며 불쌍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위해 있었습니다. 아, 오늘 우리는 그런 극한에, 아니 더 나쁜 곳에 이르러서 불쌍한 사람이 짓밟혀도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의 재산을 약탈하고 속이며 불쌍한 사람들을 때리거나 괴롭히고 온갖 불의에 방자하게 빠지는 자들은 그런 대담함을 품은 방탕한 사람들이어서, 자기에게는 더는 법이 없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위정자들은 자기 편에서 여자들보다 더 겁이 많고, 하나님의 영의 능력이 하나도 없거나, 못 본 체하고 환심을 사며 심지어 악인들과 반쯤 손을 잡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리고 일들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고치려는 열심이 없습니다. 다른 자들은 더 나쁠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무너지고, 더는 혼란밖에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예의도 더는 없을 만큼 악의 극한에 이르기만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니 대부분의 사람은 악을 저질렀을 때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지 말고는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남의 재산을 엿볼 상놈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을 낚아챌 방법이 있으면 그는 살핍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나 셈을 하러 나와야 할 것입니다. "오, 마찬가지다. 내가 아무개를 매수하면 곧 끝난다. 내가 그에게 CO 673 이것을 선물하면 그를 얻은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이 또 두 사람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그다음에 내가 이런 일을 하면 넷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일에 마음이 쏠린 사람을 반다스만 더 얻으면 나는 다 얻은 것이다." 보십시오, 이렇게 재판을 손에 쥔 자들이 창녀처럼 팔리려고 내놓일 것입니다. 그들은 더는 부끄러움도 없고 자기

영예도 아무것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들이 내세울 술수가 너무 비루해서 세상에 아무 그럴듯함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봅니다. 그러니 저마다 훔치고 약탈하고 때리고 온갖 강탈을 할 허락을 자기에게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일을 재판에 가져가면 모든 것이 썩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욥이 자기 신용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재판관들조차 감히 자기를 바로잡지 못할 만큼 자기가 두려움을 받았고 하소연이 없었을 것인데도, 스스로 원해서 악을 삼갔다고 단언할 때, 그리고 "사람들이 내게 허락하니 나는 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결론 내리지 않고 하나님의 괴롭히심이 자기에게 두려움이었다는 이 말을 고삐처럼 가졌다고 할 때, 그것은 우리가 잘 새겨야 할 말입니다.

그러니 꾸밈없음과 선한 양심 속에 걷기를 배웁시다. 우리가 무엇을 하려 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허락되었는지 아닌지 이 검사를 합시다. 그리고 어떤 것이 하나님을 언짢게 하고 그분이 그것을 금하시고 버리신다는 것을 볼 때 그것으로 만족합시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박수를 보내고 심지어 우리 좋을 대로 하도록 허락한다 해도 그것을 삼갑시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늘의 재판관 앞에 나와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손을 벗어났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그분의 원수 갚음을 갑절로 하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두려워한다는 것을 실제로 잘 보여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위엄보다 죽을 피조물들, 불쌍한 썩은 고깃덩이들을 앞세우는 것은 우리가 그분께 하는 너무 추한 모욕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면서 그 사이에 하나님을 비웃기만 할 것이고, 그분의 위엄은 내게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미움이나 호의나 다른 비뚤어진 방법으로 재판을 썩게 하고 재판관들을 얻었을 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둘째 모욕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그분이 거룩하게 하신 것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재판은 거룩한

것이고, 우리가 거기 앉은 자들, 하나님께서 당신 이름의 권위가 거기서 빛나도록 하시려는 뜻으로 세우신 자들을 악으로 돌려놓을 때 우리는 와서 그것을 더럽힙니다. 말하건대 우리가 그렇게 와서 그들을 타락시킨다면 그것은 신성 모독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의 손을 벗어날 때 CO 674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 위에 갑절로 쌓기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눈을 박아 두고 그분의 심판을 바라보아서, 우리가 악을 행할 수 있고 사람들 편에서 그것이 허락된다 해도 우리 자유로운 뜻으로 자기를 억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의 괴롭히심을 느낄 때에야 그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미리 앞질러야 한다는 것도 새깁시다.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맞을 때에야 그분이 자기 재판관이심을 느낀다면 그것은 너무 늦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협하시는 동안, 타격이 우리 머리 위에 쏟아지기 전에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모든 악을 행하는 자들과 자기 이웃을 괴롭히는 자들에게 마련된 괴롭히심을 멀리서 알아볼 때, 보십시오, 이렇게 저마다 악을 행하는 것을 삼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타격이 오기 전에 우리에게 그렇게 일깨우셔서 당신의 원수 갚음을 앞지르게 하실 때 그것은 큰 은혜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간직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욥이 덧붙이는 결론입니다. “내가 그분의 짐을 어떻게 지겠는가?” 그것은 사도가 말하는 것(히 10:31), 곧 살아 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이 너무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주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에만 닿는 사람의 벌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삼키면서도 결코 꺼지지 않고, 우리가 끝없이 견디도록 남아 있어야 할 만큼 타오르는 하나님 진노의 이 불은 어떻겠습니까? 왜 우리는 거기를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이 괴롭히심에 찔립시다. 그리고 사람들 편의 부끄러움이나 벌 때문에 악을 행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 정신과 감각으로 알아서 이렇게 생각합시다.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고문을 우리에게 가하기로 결정했다 해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이 원수 갚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이 바퀴에 매이거나 집게로 살을 뜯기거나 산 채로 불태워진다면, 그렇습니다, 그것이 아주 무거운 고문이라 해도 그것은 지나가고 오래가지 않으며, 그다음에 그것은 몸에만 관계됩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는 모든 것을 삼키고, 끝없이 타는 뜨거운 불이며, 속에서 마음을 갉아먹고 먹어 치우는 벌레입니다(막 9:48 참조). 성경이 이런 비유를 쓸 때 그것은 아직 실제가 어떠한지 나타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작은 깨달음을 주려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 모든 악인에게 마련된 하나님의 원수 갚음이 견딜 수 없는 짐이라는 것을 잘 새깁시다.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가 두려움과 인내 속에 걷도록 부추겨지게 합시다. 사람들이 우리를 거슬러 폭력과 잔인함을 쓴다면 CO 675 그것을 원수 갚으실 하늘의 재판관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세상에 관해서는 우리에게 허락된다 해도 우리가 악을 행하지 않도록 붙잡히게 합시다. 그리고 우리 양심이 깨끗하도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이끄는 참된 규칙이 되도록 살피고, 늘 우리 눈을 위로 들어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신 분, 우리가 언젠가 그분의 심판대 앞에 셈을 하러 나와야 하리라고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분을 바라봅시다.

이제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엎드립시다.

제115편

욥기 31장 설교 5

CO 34:676–687

AI로 옮긴 초벌 번역입니다. 신학 감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CO 권: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 내가 금에 내 마음을 두었거나 금덩이에게 “너는 내 소망이다” 하였다면, 내가 부자라고 기뻐하였거나 내 손이 넉넉함을 얻었다고 기뻐하였다면, 내가 빛나는 해를 바라보았거나 밝게 지나가는 달을 바라보아 내 마음이 남몰래 꾀임을 받고 내 손이 내 입에 닿았다면, 그것은 정죄받을 죄악이요 내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부인한 것이 되었으리라. (욥 31:24–28)

이 설교는 21–23절을 계속 다루고, 이어서 여기 덧붙인 본문을 다룹니다.

CO 676 어제 우리는 욥이 사람들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늘 하나님께 눈을 두어서 바르게 걸었다고 단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모든 사람의 재판관이시고 우리가 셈을 해 드리러 나와야 할 곳이 그분 앞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는 자기가 가진 것이 있는 부자들이 하듯 자기 신용을 믿지 않았고, 두려움을 받으려는 그런 어리석은 상상을 가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큰 사람들은 늘 주제넘음으로 부풀어 있고, 우리가 보듯 가난한 자들과 원수 갚을 방법이 없는 자들이 짓밟히며,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에게 잘못과 모욕과 치욕을 줍니다. 그러니 욥은 자기가 사람들에게 모든 모욕을 삼갔고 그들에게 악을 행하려 애쓰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손을 피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위에서 우리는, 여기 아래에서 악이 용납된다면 우리가 인내를 써야 한다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당신의 백성을 그렇게 훈련하려 하셨기 때문입니다. 곧 사람들이

그들에게 많은 모욕을 하고, 그들이 자기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지 못하며, 재판이 눈멀거나 비뚤어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람들을 벗어났을 때 무엇을 얻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새깁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 위에 다시 지필 뿐이기 때문입니다. 재판을 썩게 한 사람은 신성 모독의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사람들은 어떤 것이 사람들에게 벌받지 않으리라고 해서 그것이 허락된다고 여길 때 속습니다. 그것으로 사람들은 더 대담해지고,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더 무겁게 노여워하십니다. 그러니 그때 그분의 저주가 자라고 우리 위에 그만큼 더 타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욥은 자기가 고아를 짓밟지 않았고 약한 자들을 모욕하지 않았다고 단언한 뒤에, 자기가 금에 신뢰를 두지 않았고 자기 재물에게 "나는 너희 안에서 쉰다" 하고 말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자기 재산이 불어날 때 기뻐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입니다. 우리는 늘 앞에서 밝힌 것을 간직해야 합니다. 곧 욥은 한 가지 덕만 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르게 사는 규칙 전체를 일반적으로 담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다 해도 율법의 한 부분을 이룬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우리는 모든 일에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모든 것에 우리 삶을 맞추고 재려 애써야 합니다. 그러니 욥이 고아들과 불쌍한 사람들에게 잔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단언했듯이, 이제 그는 자기 안에서 교만이나 주제넘음으로 부풀지 않았고, 부자이기 때문에 자기를 더 귀히 여기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별한 덕입니다. 우리가 보듯 무엇보다 사람이 자랑할 것을 조금이라도 가지면 그의 어리석은 오만을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풀어 오르고 자기를 내세우려고 왕이나 군주일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이 아주 조금만 가지면 곧 높아지고 날개를 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야망은 남자들에게만이 아니라 여자들에게도 있습니다. 실제로 가진 것이 생기자마자 여자들의 화려함이 넘쳐흐르고 씀씀이가 커지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사람은 얼굴빛까지 바뀌어서 이웃을 흘겨보는 것 말고는 바라볼 생각도 하지 않고, CO 677 입을 반만 열 것입니다. 아니면 입을 연다 해도 사람들이 더는 감히 그에게 말을 걸지 못할 만큼 큰 오만을 보여 주려는 것일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거의 어디서나 교만이 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금과 은을 큰 더미로 가지고, 욥이 자기 재물이 불어났다고 밝힐 때처럼 그가 가진 것들을 가진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 사람이 금과 은으로 금고가 가득할 때, 그가 늘 자기 금과 은이 아무것도 아닐 만큼 그런 절제와 겸손 속에 있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하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욥이 부자가 된 것을 보고 헛된 주제넘음에 눈멀도록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가 늘 그것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고 거기 마음을 두지 않을 만큼 자기 재물을 소유하게 하셨을 때 그분이 욥 안에서 기적처럼 일하셨다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욥이 자기에 대해 단언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명령된 것입니다. 시편(62:10)에서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74] 하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대로입니다. 곧 그것을 믿고 어떤 높음으로 부풀어 오르도록 그것을 우상으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탐욕이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엡 5:5). 사람이 많이 모으려는 그런 탐심을 가지면서 동시에 자기 재산을 핑계로 자기를 내세우려는 이 높음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교만이 사람 안에서 다스릴 때 거기에는 갑절의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에게 가진 것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모자라실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고, 그다음은 자기가 부자인 것을 알 때 하나님께 거의 대들고 자기가 너무 잘 무장되어 더 바랄 것이 없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요컨대 그것은 술취함입니다. 술 취한 사람이 놀라운 것을 스스로 믿듯, 사람이 부자이고 자기 재물을 믿고 주제넘게 굴면 그는 자기가 죽을 사람이라는 것을 더는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를 너무 잊어서

74. 원문에는 "시편 62편 11절"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어 성경 절수로는 10절입니다.

하나님을 거슬러 높아지기를 조금도 꺼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먼저 욥이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든 신자에게 명하시지 않는 것을 자기에 대해 단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새깁시다. 곧 재물이 넘쳐도 거기에 마음을 쏟지 말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것이 사람들 사이에서 아주 드문 덕이니 그만큼 더 우리가 거기에 온 열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새깁시다. 우리는 큰 어려움 없이, 그리고 온 힘을 다하지 않고는 우리 자신을 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재물이 우리를 휩쓸어 가지 않고, 우리가 거기에 마음과 감정을 둘 만큼 눈멀지 않도록 그런 절제 속에 우리를 붙잡아 두려고 애씁시다. 그 밖에 사람이 자기 재산을 믿는 것이 견딜 수 없는 악이라는 것을 새깁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고유한 영예를 그분에게서 빼앗아 죽고 감각 없는 피조물에게 주는 것은 너무 큰 엄청난 일이 CO 678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재물을 믿고 주제넘게 구는 사람은 우리가 이미 밝혔듯이 그것을 신으로 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예를 빼앗기시고, 죽은 피조물인 금과 은이 그것을 가집니다. 그것은 괴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재물을 핑계로 우리가 우리를 믿고 주제넘게 굴면, 사도 바울이 탐욕스러운 자들을 부르듯 우리는 신성 모독자요 완전한 우상숭배자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배웁시다.

그리고 욥이 "내가 금에 내 마음을 두었거나 금덩이에게 '너는 내 신뢰다' 하였다면" 하고 말하면서 나타내려 한 것도 이것입니다. 욥은 여기서 자기와 자기 돈 사이의 대화를 들여옵니다. 물론 사람이 자기 재물에게 말하지는 않을 것이고, 찬장이나 금고를 열 때 거기 누가 함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러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 말로 부자들이 자기 재산을 믿을 때 그들에게 있는 어리석음과 오만을 아주 잘 나타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거기서 금과 은과 은밀한 합의와 결탁 같은 것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은 말하지 않지만, 말하지 않으면서도 여기서 욥이

보여 주는 것을 가지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피조물들과 이 땅의 것들에 우리 신뢰를 두도록 부추겨질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그분의 영예를 빼앗고 그것을 벗겨 내어 아무것도 아닌 것에 돌리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미워합시다. 그 사이에 욥이 여기서 우리 위에 두는 이 정죄도 간직하고, 그와 우리를 견주어 봅시다. 사람이 무엇인지 모를 재산을 가지면 높아지고 자기 깃털을 거울에 비춰 보며 자기가 무엇인가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보십시오, 욥은 그렇게 큰 보배를 가져서 금과 은을 더미로 쌓았는데도 늘 가난한 사람처럼 이 겸손 속에 자기를 붙잡아 두었습니다. 그러니 욥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이 큰 넉넉함 속에서도 눈멀지 않았는데 우리가 조금만 가지고 높아진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이것이 한 가지입니다.

그 밖에 사람이 부자인데도 교만해지지 않고 늘 평온하게 머물며 자기를 믿고 주제넘게 굴지 않고 보통 줄에 있는 사람처럼 걷는다면 그것은 그에게 큰 시험이라는 것을 새깁시다. 보십시오, 그것은 좋은 시험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거기까지 이르지 못했다면 우리가 큰 덕을 얻었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이 제네바 도시에서도, 심지어 이 온 지방에서도 욥 같은 사람을 하나도 찾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가장 부유한 자들을 다 모아도 그가 가졌던 것에 비하면 말하자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CO 679 오늘 자기 재물을 자랑하는 자들은, 그들이 가진 것을 욥이 가졌던 것과 견주면, 양파껍질 위에 올라서서 자기가 크다고 여기는 자들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을 그렇게 작은 처지에 붙잡아 두실 때, 그들은 그것이 자기 유익을 위한 것이고, 자기가 더 큰 넉넉함 속에 있다면 터져 버릴 수 있고 그것이 자기 멸망의 원인이 될 것이며, 너무 높이 오르려다 목이 부러질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높이 오르도록 허락하지 않으실 때 우리의 선과 구원을 꾀하신다는 것을 새깁

시다. 흔히 말하듯 우리는 우리 행운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듯 우리에게 높아질 까닭이 없고 우리 형편이 더할 나위 없이 작은데도 우리는 늘 크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본성을 거스르듯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방편을 가진다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이 우리로 우리 처지가 낮고 작다 해도 그것을 더 잘 참고 견디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더는 견딜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 방법으로 그들을 낮추고 꺾으셔서 그들이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그들에게 고삐를 짧게 잡지 않으시고 그들이 그런 검사로 붙잡히지 않는다면 그들이 아마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찌되든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 우리에게 알맞은지 아시고 그것을 당신 손에 쥐고 계셔서, 그것이 좋고 유익하리라고 아실 때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는데 아무 걸림이 없으시다는 것으로 만족합시다.

그러니 요컨대 욥이 금에 신뢰를 두지 않았고 자기가 부자가 된 것을 보고 높아지지 않았다고 여기서 하는 말에서 우리가 새겨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덧붙이는 것도 새겨 둘 만합니다. 곧 그는 자기 손이 많이 모을 수 있었을 때, 그리고 사방에서 좋은 것이 그에게 왔을 때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 거기서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보면 욥이 여기서 죽을 사람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자기에게 돌리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사람이 좋은 것을 가질 때 기뻐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하고, 그러면 그는 나무 그루터기 같을 것입니다. 그러면 욥은 어떻게 자기가 기뻐하지 않았다고 말합니까? 대답하자면 그는 여기서 모든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새깁시다. 사람이 가난하면 슬퍼하고 부자이면 기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 기쁨은 그 자체로 나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는 먹고 마시며 주 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리라“(신 12:7 참조) 하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넉넉히 베푸시고 우리에게 먹고살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기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밝혔듯이) 그 기쁨이 하나님을 언짢게 하거나 CO 680 그 자체로 정죄받기는 커녕, 오히려 그것은 믿음과 우리가 그분께 가지는 경외의 표시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좋은 것에 따라 그분께 감사하기를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욥은 여기서 눈먼 기쁨, 곧 세상 사람들에게 있는 그런 기쁨을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 재산에 휩쓸려서 하나님을 잊은 뒤에 자기 연약함을 더는 기억하지 못하고 속으로 높아집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그것은 미친 기쁨, 방자한 기쁨이고,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돌려놓고 너무 취하게 해서 우리가 더는 우리가 누구인지 모르게 합니다. 그리고 욥이 여기서 뜻한 것이 이것입니다. 요컨대 그는 자기가 자기 마음을 너무 고삐로 붙잡아서, 재물이 그에게 왔을 때, 그렇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손에서 받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가 그것을 기뻐했다면 그를 그렇게 불어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했고, 그 사이에 그는 자기 행복을 재물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새겨야 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속는 것이, 그들이 더 멀리 이끌려야 하는데 이 덧없는 것들에 머문다는 것 말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의 선과 행복을 말할 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하고, 그분에게서 떨어지면 우리가 불행하며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재산과 모든 즐거움과 모든 영예가 우리 위에 그만큼의 정죄일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우리 선과 행복이 문제가 될 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는 사람들이 썩어 없어질 것들에 정신을 팔아서 그것을 자기 신으로 삼는 것을 봅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 금과 은을, 어떤 이들은 자기 영예와 신용을, 어떤 이들은 자기 쾌락을 신으로 삼습니다. 사람이 부자가 되기를 구할 때, 보십시오, 그것이 그의 목표입니다. 그는 자기가 부자가 되면 복되리라고 여기고, 그 사이에 하나님을 거기 버려두고 떠납니다. 높은 자리와 신용으로 높아지

기를 구하는 사람은 그것에 사로잡혀 있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으며 그에게는 다 매한가지일 것입니다. 음란한 자나 다른 악한 탐심에 빠진 자는 자기 욕구를 누리기만 하면 모든 것이 자기에게 잘 된다고 여기고 거기서 기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지향하고 사모해야 하는데 썩어 없어질 것들에 머무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이제 욥이 자기 재물로 기뻐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부자였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기뻐했다는 것을 새깁시다. 그러나 이것도 더 친근하게 밝히지 않으면 충분히 이해되지 않을 것입니다. 말 자체가 너무 어둡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속일 만큼 영리한 것처럼 늘 그분께 꾸밈을 쓰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자기를 반쯤만 알 때 늘 자기 핑계로 CO 681 빠져나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하니 한마디로 재물로 기뻐하지 말고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해야 한다고 말하면, 오, 가장 탐욕스럽고 이 세상의 재물에 가장 빠진 자들이 이 핑계를 내세우고 입을 가득 채워 이렇게 단언할 것입니다. "오, 나로서는 내 재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게 주셨으니 나를 이끄시고 다스리시는 그분 안에서만 자랑한다."

그러니 보십시오, 이렇게 사람들은 위선으로 가득하여 늘 자기 더러움을 감출 어떤 멋진 빛깔을 찾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기뻐한다는 이 말을 더 잘 풀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곧 우리가 가진 재물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이 거기서 우리에게 아버지로 나타나려 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시니 우리 편에서도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에게 형제됨을 쓰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재물을 맡긴 물건처럼 우리 손에 두셔서 그것이 모자란 우리 이웃을 돕게 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밖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의 것들에

붙잡아 두려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압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동시에 그분이 하늘에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죽지 않는 삶을 바라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썩어 없어질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고, 재물을 우리가 빠져들 진흙과 수렁처럼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재물에 쏟는 자들은 여기서 흔히 말하듯 수렁에 빠진 것과 같습니다. 그런 자들이 한 다리를 빼내면 다른 다리가 더 깊이 빠져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듯, 이 세상에 신뢰를 두는 자들도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있기는커녕 이쪽으로 넘어지고 저쪽으로 비틀거리며 헛걸음을 합니다. 요컨대 그들은 자기가 빠진 이 구렁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반대로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하늘의 삶으로 부르십니다.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서둘러 오라. 세상 위로 걸어오고 거기에 매이지 말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권면을 따를 때, 분명 우리는 하늘의 삶을 향해 나아가는 것 말고는 다른 바람이 없을 것이고 더는 이 세상의 재물에 붙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새깁시다. 시편 16편(5절)에서 말하는 대로입니다. "주는 내 유산이요 내 몫이시니, 그것이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이 만족이 있다면,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까지 이끄시기를 기뻐하실 때 CO 682 이 세상의 모든 재물을 잃는 것이 우리에게 아무 값도 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결코 빼앗길 수 없는 그분 한 분을 모시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네 지극히 큰 상급이다"(창 15:1) 하고 말씀하시는 것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로 우리를 당신께로 끌어당기시고, 우리 마음과 감정이 이리저리 휩쓸리지 않고 당신께 박혀 있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봅니다. (우리가 이미 밝혔듯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은 넉넉할 때나 가난할 때나

자기 마음이 이 세상의 재물에 매여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넉넉할 때 그것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놓으시는 길을 따르고 자기 이웃에게 자기 의무를 다하는 데 막히지 않음으로써 보여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가난할 때, 하나님께서 그가 가졌던 모든 재물을 빼앗기를 기뻐하실 때 인내함으로써 보여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 결론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오, 그래도 나는 내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았고, 그분의 은혜 안에 있는 것으로 내게 충분하다. 그러니 나는 이제 평온해야 한다. 보라, 내가 내 모든 쉼을 얻어야 할 곳이 여기다."

요컨대 욥이 자기가 재물로 기뻐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뜻하고 자기 본보기로 우리에게 가르치려 한 것이 이것입니다. 이 기쁨이 동시에 감사를 담고 있다는 것도 새겨야 합니다. 곧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까닭이 있을 때, 우리가 그분의 순전한 선하심에서 말고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 그분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밖에 이 말로 교만도 정죄됩니다. 재물로 기뻐하는 것이 금지될 때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며 그 안에서 높아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딤전 6:17)입니다.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교만하지 말고 높아지지 말며 살아 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권하라." 거기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미 짚은 것, 곧 부자가 겸손하고 자기 안에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를 귀히 여기는 아무 오만도 없는 것은 아주 드물고 거의 찾을 수 없는 덕이라는 것을 보여 줍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교만이 내던져지고 우리 마음이 온전히 꺾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큰 어려움 없이, 그리고 자기의 모든 힘을 넘어 애쓰지 않고는 거기에 이를 수 없으니, 사도 바울은 알맞은 처방을 보여 줍니다. 곧 우리가 살아 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무

엇인지 안다면 분명 재물이 우리를 휩쓸어 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재물에 마음이 쏠린 자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분도 그분의 은혜도 아랑곳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말했듯이 CO 683 사도 바울이 다른 곳에서 탐욕을 우상 숭배라고 부르는 데에는 까닭이 있습니다.

욥은 이것을 단언한 뒤에 덧붙입니다. "내가 빛나는 해를 바라보았거나 밝게 지나가는 달을 바라보았다면, 그리고 내가 내 손을 내 입에 대었다면, 실로 그것은 범죄가 되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되었으리라."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마치 욥이 해와 달을 경배하지 않았다고 단언하는 것처럼 풀이했습니다. 옛날에 그 미신이 아주 흔했고, 특히 동방 지역에서 그러했으며, 앞에서 보았듯이 욥은 거기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욥이 여기서 자기가 함께 지내던 대부분의 사람처럼 하지 않았다는 것, 곧 해와 달을 보고 감탄하며 그것에 어떤 신적 위엄을 돌리고 그것을 우상으로 삼지 않았다는 것을 밝히려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특히 모세를 통해 당신의 백성에게 해와 달을 경배할 만큼 눈멀어서는 안 된다고 일깨우십니다(신 4:19). 해가 무엇입니까? 물론 그것은 그 안에 놀라운 빛을 지녔고,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 영광의 표지들을 봅니다.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우리에게 설교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으로 하시듯 말씀하셔서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도록 부추겨진다고도 합니다(시 19:1–4 참조). 그러나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깨우십니다. "어떻게? 너희가 해와 달을 경배한다면 너희는 배은망덕하다. 내가 왜 그것들을 짓고 빛었느냐? 너희가 그것들의 창조주인 나를 알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그 반대로 한다면 너희 배은망덕은 갑절이 될 것이다. 해가 무엇이냐? 너희 종이다. 달이 무엇이냐? 너희 여종이다. 해가 비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에 그 쓰임을 주시는 대로 너희를 비추고 땅이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러니 피조물들이

아무리 고귀해도 우리에게 복종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우리를 섬기도록 정하셨으니, 우리가 그것들을 우상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너무 추한 배은망덕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아주 참되지만, 그 사이에 이 구절에는 맞지 않습니다. 욥은 여기서 우리가 이미 한 말, 곧 자기 안에 주제넘음이나 오만이 없었다는 말에 이어서 다른 비유를 쓰려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듯 교만한 자들은 (흔히 말하듯) 코를 높이 들고, 자기가 사람들의 보통 줄에 있다고 여기지 않으며, 마치 이 죽을 삶에서 떨어져 나가려는 것처럼[75] 무엇인지 모를 태도를 지닙니다. 그리고 그들의 교만은 이웃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어디서나 이마를 치켜들어서, 하나님 앞에 그런 대담함으로 나아와 해와 달이 우리 위에 있다 해도 그들에게는 충분히 높지 않을 것이고, 눈을 들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CO 684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누가 가장 큰가? 가장 높은가?" 그러니 욥은 사람들이 속으로 높아지고 자기 분량을 넘어 자기를 내세우려 할 때, 요컨대 보통 길을 지킬 생각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보다 더 크기를 원할 때 그들에게 있는 이 어리석은 높음을 나타내려 했습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빛나는 해와 밝게 지나가는 달을 바라본다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런데도 우리 주님께서 거기서 우리 연약함의 표시를 주신다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해를 바라보면 곧 눈이 부셔 어두워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해의 빛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섬기도록 그것을 하늘에서 돌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를 비추려고 거기서 일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쓰임만이 아니라, 우리는 해가 우리 몸에 기운을 주고 땅이 그 열로 열매를 맺는 것도 압니다(보십시오, 우리 양식과 먹을거리가 거기서 나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낮추시려고 우리 연약함을 일깨우십니다. 우리가 눈을 위로 들면 그것이 부셔 어두워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빛나는 해와 밝게 지나

75. 원문의심: 원문에는 "ceste vie immortelle"(이 죽지 않는 삶)로 되어 있으나, 문맥상 "mortelle"(죽을)의 잘못으로 보여 그렇게 옮겼습니다.

가는 달을 그렇게 바라보는 자들은 본성을 거슬러 자기가 용감한 사람들이고 자기 안에 나머지 온 세상보다 더 많은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려는 것입니다.

욥은 자기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고 단언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그는 자기 마음이 남몰래 꾀임을 받아 자기 손이 자기 입에 닿은 적도 없다고 덧붙입니다. 그가 자기 마음으로 남몰래 꾀임을 받지 않았다고 말할 때, 그것은 그가 사람들에게 다정하고 겸손했을 뿐 아니라, 사람들이 그를 귀히 여겼어도 하나님 앞에서 늘 작은 자 같았다는 것을 더 잘 나타내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마다 그를 떠받들고 온 세상이 그를 두려워했어도, 그 모든 것 때문에 그가 자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누가 그의 마음을 해부하듯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살피고 따져 보아도 거기서 아무 감추어진 높음도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이 말을 쓰는 것이 그래서입니다.

그는 그다음에 자기가 자기 손에 입 맞추지 않았다고, 그것이 입 맞추려고 자기 입에 닿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그가 자기 덕을 공로로 삼고 자기 구원의 신뢰를 자기의 선하고 거룩한 삶 위에 두려고 귀히 여기지 않았다는 뜻으로 풀이합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은 좋고 그 말 자체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그것은 아주 타락한 시대에 있던 사람이 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는) 성 그레고리우스는 무지와 타락으로 가득한 시대에 있었고 그다음에 로마의 감독이었는데, 적어도 그는 사람이 자기 공로를 믿는 것이 짐승 같은 불경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O 685 그리고 오늘 그것이 우리가 교황주의자들과 다투는 가장 중요한 조항입니다. 우리는 우리 구원이 하나님의 값없는 선하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수난 위에 세워져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하는데, 교황은 반대로 저마다 자기 구원자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로마 교황이었던 사람이 사람들이 자기 손에 입 맞출 때, 곧 자기 행위를 믿고 그

것을 공로가 되는 덕으로 삼을 때 그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요 엄청난 불경건이라고 잘 말할 줄 압니다. 그러니 이 가르침에 관해서는 그것이 좋고 유익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자기 덕에 대한 것보다 더 단순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물론 그것도 거기 담겨 있지만,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그는 사람들이 피조물과 자기 자신을 믿을 계기로 삼는 모든 것을 일반적으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는 말합니다. "내 손이 내 입에 입 맞추었다면 ", 곧 "내가 내 신용이나 무엇에든 기대었다면, 내가 거기서 내 재산에 짐승 같이 빠져 그것을 우상으로 삼고 그것에 경의를 드렸다면" 하는 것입니다. 이 "입 맞추다 "라는 말은 경의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 손이 내 입에 입 맞추었다면, 곧 내가 이 헛된 신뢰에 빠져서 나 자신에게 경의를 드렸다면, 내가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시기를 바란다. 실로 그것은 살아 계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이 높음이 하나님께 견딜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욥이 쓰는 해를 바라본다는 이 말투는 잘 새겨 둘 만합니다. 물론 우리는 본성상 얼굴을 위로 들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짐승들과 구분하려 하셨습니다. 그분은 짐승들이 땅만 바라보니 아래로 매달린 듯 있기를 원하시고, 사람은 더 좋고 뛰어난 처지로 하늘을 가졌으니 머리를 위로 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은 우리 정신이 늘 위로 들려 하나님과 하늘나라를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그것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어야 하는 것을 막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자기가 큰 일과 자기 위의 놀라운 일 속에 걷지 않았다고 단언합니다(시 131:1). 이 말투는 욥이 쓰는 비유와 어느 정도 비슷합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주여, 내가 큰 일 속에 걷지 않은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큰 일 속에 걷는 것이 허락되지 않겠습니까? 재판의 직무는 영예롭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직무도 그러하며, 요컨대 자기 소명 안에서 바쁘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학교에서 아이들만 가르친다 해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피조물들이 있고 그는 그들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것은 큰 일이 CO 686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이끌 백성을 가졌다면 그것은 뛰어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우리가 높아지려 할 때의 이 부푼 마음을 말합니다(그가 자기 신분에서 큰 일 속에 걸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하니 그는 덧붙입니다. "내 위의 놀라운 일 속에서도 걷지 않았습니다." 곧 "나는 내 능력을 넘는 것을 끌어안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욥은 말합니다. "나는 해를 바라보지 않았다." 곧 "나는 코를 치켜들지 않았고, 세상에서 좋은 평판을 누리는 동안 하나님을 거슬러 높아지려고 허세를 부리려 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으로 우리는 (내가 이미 짚었듯이) 사람들이 자기를 내세우려는 이 어리석은 욕구가 하나님께 견딜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무엇이 남습니까? 처방으로 가야 합니다. 그것은 겸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위로 들지 말라고 금하시니 스스로 원해서 우리를 낮춥시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렇게 할 거리가 넉넉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들여다본다면 우리는 늘 "자기를 잘 아는 사람은 자기를 낮게 여긴다"는 이 속담을 실천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 처지가 어떠한지 알려 하지 않으니, 우리가 구름 위로 오르려 할 만큼 우리를 휩쓸어 가는 이 어리석은 교만이 있다 해도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온전한 절제 속에 붙잡히고, 우리가 머리를 들지 않았고 오히려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 늘 낮은 자리에 있었다고 단언할 수 있도록 우리 비참을 잘 살펴야 한다는 것을 새깁시다. 이것이 한 가지입니다.

둘째로, 욥의 마음이 남몰래 꾀임을 받지 않았다고 할 때, 겸손이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덕만이 아니라는 것을 간직합시다. 우리는 (보기에) 인정 있고 온화한 많은 사람을 볼 것이지만, 그 사이에 그들은 속으로 몰래 자기에

대한 어리석은 평판을 기르기를 그치지 않고 자기를 귀히 여길 것입니다. 우리는 고양이처럼 얌전한 체할 이 모든 위선자를 봅니다. 그 사이에 그들은 너무 오만해서 하나님을 거슬러 독이 올라 터질 지경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겉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겸손하고 순한 양처럼 보일 것이지만, 그 사이에 와서 하나님을 들이받는 황소 노릇을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기 덕을 자랑하고 낙원을 얻을 공로가 있다고 여기는 모든 자(교황제 안의 이 모든 맹신하는 남자와 여자들처럼), 말하건대 자기 공로를 귀히 여기는 모든 자는 분명 하나님을 거슬러 높아지는 것이고, 그것은 사람들에게 오만을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쁩니다. 헛된 오만으로 부풀어 허세를 부리고 제 다리로 서 있지도 못하는 사람을 보면 저마다 그를 비웃고, 그것은 너무 악취 나는 것이어서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런데 CO 687 그런 주제넘음이 하나님을 거스른다면, 그것이 감추어져 있다 해도, 묻건대 그것은 훨씬 더 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사람들에게 부드럽고 다정한 얼굴과 온화한 태도를 가진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잘 새깁시다. 오히려 우리 마음이 남몰래 꾀임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그 안에 어떤 감추어진 오만을 가지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알아차려지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께 정죄받기를 그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감추어진 교만이 정죄받아야 한다면 날개를 펴고 자기를 드러내는 자들은 벗어나지 못하리라는 것을 새깁시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무대 위에 두듯 거기 두셔서, 우리가 모두 그쪽으로 기울어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로잡으실 때까지 우리 안에서 다스리는 악을 우리가 알게 하신다는 것을 압시다. 그 밖에 자기 손에 입 맞추는 것에 관해서는 이 말투가 경의를 드리는 것과 같은 것을 담고 있다고 이미 말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런 문체를 쓰신 데에는 까닭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한 영예를 가로채는 것보다 더 쉽게 속는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도 바울이 밝히듯 그분께 대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자기와 자기 덕을 완전히 믿지 않게 될 때까지는 마땅히 낮아지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을 마땅히, 그분께 합당한 만큼 공경할 수도 없으리라고 결론 내려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엎드립시다.

제116편

욥기 31장 설교 6

CO 34:688–699

AI로 옮긴 초벌 번역입니다. 신학 감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CO 권: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 내가 내 원수의 재앙을 기뻐하였거나, 그에게 역경이 닥쳤을 때 들떴다면, 내가 내 입이 악한 말을 하도록 허락하여 그를 저주하였다면, 내 집 사람들이 "누가 그의 살로 우리를 먹여 주겠는가? 우리는 배부르지 않다" 하지 않았다면, 나그네가 밖에서 잤고 내 문이 지나가는 자들에게 열리지 않았다면. (욥 31:29–32)

이 설교는 26–28절을 계속 다루고, 이어서 여기 덧붙인 본문을 다룹니다.

CO 688 우리는 욥이 해와 달을 바라보지 않았다고 단언하는 이 말씀을 풀기 시작했고, 요컨대 그것으로 그가 자기가 교만으로 높아지지 않았다는 것을 밝힌다고 말했습니다. 자기를 믿고 주제넘게 굴며 자기가 대단한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려고 자기 재산이나 신용을 믿으며, 심지어 이미 자기가 더는 하나님께 매여 있지 않다고 여기는 자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욥은 자기가 무엇이든 자기에게 돌릴 만큼 그런 교만으로 부풀지 않았다고 단언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범죄요 죽어 마땅한 죄라고 말한 뒤에, 그것이 또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되리라고 덧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분량을 넘어 높아지려 할 때 그들의 이 높음을 미워하신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겸손이 무엇보다 그분께 기쁘신 제사라는 것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성상 쉽게 낮아지지 않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로 여겨지고 인정받으려면 이 점에서 말하자면 없어진 것처럼 되어 자기를 귀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겸손은 우리가 자랑할 것을 가졌는데도 작은 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온전한 가난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내세우려고 입을 열려 하면 우리 안에 온전한 혼란밖에 없다는 것을 찾게 되리라는 것을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이 어떤 헛된 주제넘음을 품는다면 그것은 그만큼의 바람일 뿐이고, 그것이 우리를 터지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채워지지는 않으리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참되고 바른 겸손이 담고 있는 것은 사람이 자기에 대해 아무것도 귀히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에게는 그렇게 할 까닭이 없고, 자기를 귀히 여기는 사람은 누구나 너무 눈멀고 짐승같이 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안으로 들어가 자기의 모든 덕을 잘 살피는 사람은, 자기가 그것을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에서 말고는 가지지 않았고 그만큼 그분께 빚졌다는 것,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덕 가운데 연약함이 너무 많아서 우리는 눈을 내리깔 수밖에 없다는 것을 찾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자기를 귀히 여기려고 자기를 달래는 자들은 속을 뿐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그분의 영예를 훔치고, 그 방법으로 신성 모독자가 됩니다. 더욱이 그들은 여기서 CO 689 말하듯 살아 계신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물론 처음 보면 그것은 아주 가혹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잘 생각하면, 자기를 달래는 사람은 하나님을 부인한다고 말할 때 욥이 분량과 이치를 넘지 않았다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고 고백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분께 그분의 영예와 그분께 속한 모든 것을 남겨 드리며 그분을 있는 그대로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에게서 그분 영광의 한 부분을 빼앗아 그것으로 나를 입힌다면, 나는 누구입니까? 불쌍한 땅벌레, 썩은 고깃덩이가 하나님을 줄여서 자기를 높이려고 그렇게 자기를 귀히 여기려 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과 땅을 뒤섞고 자연의 모든 질서를 뒤엎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밖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벗겨지시고 그분의 영광이 먹이로 내놓일 때 그것은 그분을 부인하

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더는 그분을 있는 그대로 알지 않고 오히려 그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높아지고 자기를 내세우는 것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종의 방식이 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새깁시다. 그래서 우리가 노래한 시편(10:4)에서도, 자기 덕에 기대고 그것을 믿으며 자기에게 너무 많은 것을 돌려서 아무 악도 자기에게 닿을 수 없다고 여기는 교만한 자들이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결론 내리고 할 수 있는 한 모든 경건(religion)을 거부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들은 그것을 입으로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일은 그러합니다. 우리 안에 감추어진 것을 살피시는 성령께서 그렇다고 밝히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하니 하나님을 공경하려면 이 거짓 상상을 없애고 모든 교만이 우리에게서 꺾이게 하기를 배웁시다. 사람이 겸손으로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도록 자기를 드리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했듯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값어치도 없다는 것, 그리고 모든 영광이 온전히 하나님께 남겨져야 한다는 것을 알지 않으면 우리는 겸손할 수 없습니다. 그 밖에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를 귀히 여겨도, 그 사이에 그들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분, 죽을 원수로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것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될 것입니다. 높아지는 사람은 하나님께 부딪치지만, 낮아지는 사람은 그분의 손에 기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비참을 안다면 우리는 거기서 쓰러진 것처럼 될 것이고, 그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두어 당신 품에 두시려고 손을 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세우려 합니까? 너무 혹독한 부딪침이 있어서, 우리에게 어떤 오만이 있든 우리 머리를 깨뜨릴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주제넘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대로 나서실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요컨대 이 구절에서 우리가 간직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두 가지 방식으로 해와 달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 곧 자기를 믿고 주제넘게 굴려고 머리를 들 수 있다는 것을 새깁시다. CO 690 어떤

이들은 자기 재물과 자기가 세워진 어떤 영예를 핑계로 자기를 잊고 자기가 더는 죽을 피조물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이 거기에 이를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눈먼 교만을 잘 벌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스꽝스럽고 온 세상의 조롱을 받아 마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딸린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다른 방식의 교만이 있습니다. 곧 사람들이 자기를 달래서 자기에게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지혜와 덕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많은 공로를 세울 수 있다고 여길 때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자기 구원의 찬양을 자기에게 돌릴 만큼 자기를 믿고 주제넘게 굴 때, 그들은 치명적인 멸망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께 남겨 두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안에 정죄밖에 없고 우리가 완전히 잃어버려지고 절망했으니 그분의 값없는 선하심 말고는 아무 소망도 되찾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이 어두워질 때, 그것은 하나님을 없애려고 사람들을 높이는 것이고, 마치 하나님의 영예를 약탈하도록 내놓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머리를 숙이기를 배웁시다. 우리가 쓰러지고 우리를 부풀린 이 어리석은 주제넘음을 바로잡은 뒤에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자랑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당신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실 것이며, 그분이 가지신 모든 좋은 것이 우리에게 속한다고 우리가 소망할 수 있으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자람을 채우시기에 충분히 부요하시고,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모자라지 않으시리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입니다. 곧 사람들이 너무 가난하고 비참해서 그들 안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광이시고 그들의 모든 추함을 덮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낙원의 천사들과 함께 높아지는 것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으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한 이 겸손에 관해서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렇게 말한 뒤에 또 다른 단언을 덧붙입니다. 곧 그는 자기 원수들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기뻐하지 않았고, 그들이 넘어지는 것을 보고 기쁨으로 들뜨지 않았으며, 심지어 자기 입에 그들 위에 어떤 저주를 던질 허락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점에서 너무 꾸준해서 자기를 원수 갚음으로 부추길 수 있던 집안 사람들에게 귀를 빌려주지 않았고, 불쏘시개 같은 자들이 와서 그를 움직이려 할 때에도 그래도 자기를 억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욥의 이 단언이 담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곧 그가 미움을 받고 사람들이 그를 해치고 손해를 입히려 애썼어도 그는 똑같이 갚지 않았고, 더욱이 자기 CO 691 마음에 감추어진 미움을 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언은 새겨 둘 만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 가운데 거의 가장 어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황제 안에서 그 위선자들이 성경을 위조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권고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신성 모독하게 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 힘으로 재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바라보았고, 어떤 것이 우리 능력을 넘는다는 것을 보면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하지 않으신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들 보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말고는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 점에서 그들은 너무 속았고 거기에는 너무 둔한 위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다른 모든 계명을 살펴서 우리가 그것을 이룰 수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시작하려고 좋은 생각 하나도 가질 수 없고,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도 없다는 것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모든 힘을 기울이겠습니까? 그러나 이 위선자들은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자기가 품은 거짓 상상에 속았습니다. 마귀가 그들을 그렇게 취하게 했습니까? 그 위에서 그들은 사람들이 자기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봅니다.

그러하니 그들은 하나님의 멍에를 거부하고, 그것은 엄격하게 지켜야 할 분명한 계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권고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 밖에 그 권고가 복음의 완전함에 속하고 율법 아래서는 그렇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보십시오, 그것은 또 한 번의 신성 모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욥이 단언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가 모세의 율법이 반포되기 전에 살았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앞에서 보여 주었듯이) 그는 선지자들보다 더 오래된 사람이었고(그들이 그를 옛사람으로 언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기가 원수들을 사랑했다고 밝힙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에게 어디서 왔습니까? 늘 신자들의 마음에 기록되어 있던 율법에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두 돌판에 당신의 성령으로 늘 당신 자녀들의 마음에 쓰신 것 말고 무엇을 적으셨습니까? 그리고 오늘 그분이 성경 전체에서 하시는 것이 당신의 성령으로 그 안에 새기시는 것을 우리 눈앞에 두시는 것 말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전파되는 가르침과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속의 은혜 사이에 일치가 있고, 그것이 모든 일에서 어디서나 맞아떨어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내려오시기 전에 욥이 자기가 원수들을 사랑해서 그들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았다고 단언한 것을 봅니다. 나는 우리가 이것을 잘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CO 692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하시는 대로 그분께 일깨움을 받은 뒤에도 우리가 핑계를 쓰려 하고, 가르침이 아직 아주 어두웠던 때에 산 자들조차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갑절로 죄가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 그렇습니다. 그러니 먼저 하나님께서 언제나 당신의 자녀들이 원수를 사랑하는 이 표지를 지니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새깁시다.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려면 모세의 율법에서 하는 말(출 23:4–5)을 들읍시다. “네 원수의 나귀나 소가 구덩이에 빠졌으면 너는 그것을 일으켜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원수의 짐승들에게 선을 행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러면 그들의 인격에 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들을 도우려 애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내 원수의 선을 꾀해서 그의 가축에게까지 그것을 보여야 한다. 그러면 훨씬 더 귀한 그의 인격은 어떻겠는가?” 그러니 우리는 교황주의자들의 이 가증스러운 신성 모독을 거슬러, 하나님께서 언제나 신자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고 자기 손해를 꾀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려 애쓰기를 원하셨다고 결론 내려야 합니다. 이것이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서 우리는 또 이것이 버려도 자유로운 권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치명적으로 노엽게 하지 않고는 대들 수 없는 엄격한 계명이라는 것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 아래서 신자들을 자기 원수를 사랑하도록 매어 두려 하셨으니, 더 강한 이유로 이제 우리는 이 규칙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입으로 그것에 대한 더 넉넉한 선언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가르침은 그 자체로 어둡고, 심지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뒤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그 순수함으로 되돌리셨고, 우리가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우정을 품지 않고 우리를 해치려는 자들을 도우려 애쓰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지 못하리라고 선언하셨습니다(마 5:44–45 참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상속권을 빼앗기고, 그분이 우리를 당신 자녀의 줄에서 거부하시고 쓸어버리신다는 것은 끔찍한 위협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런 위협 아래 우리가 우리 원수에게 좋은 감정을 품어야 한다고 선언하셨으니, 이 가르침에 우리를 맞추기를 배웁시다. 그리고 거기서 교황주의자들의 뻔뻔함이 너무 추하고, 아니 완전히 마귀 같다는 것을 알아봅시다. 그들은 우리가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도록 우리 마음을 이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그분 나라에서 쫓겨난다는 그런 정죄의 판결이 있는데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단순한

권면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 밖에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거울도 가집니다. 그분은 당신의 CO 693 죽을 원수였던 자들을 위해 당신을 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쓰라린 죽음을 견디신 것은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화해가 이루어져야 했다면 미움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스르셨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원수였던 때에 우리를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께로 거두시려고 죽음에, 그렇습니다, 모든 저주에 당신을 내놓으셨습니다(롬 5:10 참조). 그런 담보는 마음이 돌보다 굳다 해도 그것을 깨뜨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원수에게 품는 모든 미움을 길들이려 할 때 우리를 데려가는 곳도 거기입니다(엡 4:31–32).

그러니 보십시오, 우리가 새겨야 할 순서는 이것입니다. 곧 율법 아래 산 자들이 원수를 갚으려 할 때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면, 내가 이미 말한 그런 선언을 가진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원수에게 아무 악도 바라지 않는 것으로도 아직 충분하지 않고, 우리는 그들의 선과 구원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새겨 둘 만합니다. 자기를 언짢게 하고 자기에게 어떤 모욕을 한 자들에게 칼을 빼 들고 덤벼들지만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무죄 선고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할 것입니다. “오, 나로서는 원수를 갚고 싶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원수를 갚아 주시기를 기도하고, 그에게 나쁜 일이 일어난 것을 보면 아주 기쁠 것이다.” 그렇습니까? 그러나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저주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를 헐뜯는 자들을 축복하며, 우리 손해를 꾀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해야 한다고 선언하실 때 이 가르침을 실천하는 다른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는 너무 독이 올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삼키시기만을 바라고, 어느 쪽에서든 그들에게 악이 닥칠 수 있으면 그것을 기뻐합니다.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

침에 담긴 모든 것을 뒤엎지 않고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악한 감정을 가지지 않은, 곧 드러내 놓고 자기 욕심에 그렇게 고삐를 풀지는 않을 다른 사람들도 찾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할 것입니다. "나로서는 그를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고, 내 악을 바라지 않듯 그의 악도 바라지 않는다." 그런데 그 사이에 그들은 자기를 언짢게 하고 자기가 노여워하는 자들의 구원과 유익을 바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손과 혀에 관해서 모든 원수 갚음을 삼가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새깁시다. 우리 원수였던 자들의 악과 역경을 바라지 않도록 나쁜 감정을 버리는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고,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어떻게입니까?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욥이 자기 원수들의 선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들에게 악이 닥쳤을 때 분명 기뻐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노엽게 하는 자들을 거슬러 부추겨지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단단히 붙잡을 뿐 아니라, CO 694 그들에게 악이 닥칠 때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그것을 불쌍히 여기고 가엾게 여길 만큼 그들에게 그런 우정의 감정을 품기를 배웁시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 어렵게 보인다면, 욥은 우리처럼 정념에 매인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위에서 승리를 얻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이것은 큰 노력 없이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힘써야 합니다. 우리 덕을 신뢰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이 우리를 이끄는 것을 우리가 보는 곳으로 우리를 맞추어 주는 온유의 영을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게 명령된 것을 바라보면, 오, 분명 내 본성은 정반대로 끌린다. 사람들이 나를 해치고 내게 어떤 악을 꾸몄을 때 나는 언짢을 것이고, 내가 올곧음과 공평을 사랑한다 해도 나를 해치려 애쓴 자들을 거슬러 악의로 부풀고 어떤 원수 갚음의 욕구를 가지기를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정죄하시고, 내가 내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거부하시고 내가 그분

자녀의 수에서 굵혀 나가리라는 이 끔찍한 판결을 선언하신다. 그런데 그 위에서 나는 내 연약함뿐 아니라 그렇게 비뚤어진 내 본성을 아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내 안의 이 악을 바로잡아 주시기를 기도해야 한다. 나는 내게 쓰라림밖에 없다는 것을 안다. 그래, 하나님께는 부드러움의 영이 있다. 그러니 나는 그분께 그것을 구해야 한다. 그래, 내 안에 나를 괴롭히는 시큼함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온유와 인정의 영이 있다. 나는 그분께 나를 거기에 참여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한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피할 때 분명 그분은 우리에게 모자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밖에 우리 안으로 들어가서 힘씁시다. 우리 자신을 달래서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오, 보라, 물론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것을 명하신다. 그러나 나는 사람이고 내 연약함을 느낀다. 그렇다, 나는 병들었다." 보십시오, 의사가 처방을 손에 들고 나서서 다가오는데, 나는 누가 거기에 처방을 대는 것을 견디느니 차라리 내 병 속에 웅크리고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변명될지 두고 봅시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악을 압니까? 처방으로 갑시다. 그리고 그것을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크게 내키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우리 욕심과 싸워야 합니다. 그것이 사나운 짐승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그것을 힘으로 억누르고 큰 폭력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가 거기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해내는 것은 큰 어려움을 거쳐서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본성으로 있는 이 쓰라림을 인정과 부드러움으로 바꾸실 것이고, 우리가 우리 원수를 미워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점에서 우리가 우리 원수를 미워하도록 부추겨질 때마다, CO 695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자들을 용서하듯 우리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를 구할 때 하는 이 간구(마 6:12 참조)를 기억해야 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소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실제로 우리는 그분의 심판대

앞에 나서러 옵니다). "어떻게? 내가 내 하나님께 내 원수를 용서한다고 단언하고 그분께 다른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서, 그 사이에 내 안에 온전히 꾸밈밖에 없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내 기도가 저주로 바뀌지 않겠는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 분명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나쁜 마음을 깨뜨릴 수 있을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를 얻으셔서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까지 우리에게 쉬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악을 더 잘 알려면, 성경이 우리를 이끄는 대로 단계를 따라 나아갑시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떤 모욕을 할 때 우리가 노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어떤 사람을 거슬러 투덜대기만 해도 그것은 이미 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듯(마 5:22) 이미 우리는 영원한 불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것을 당신 시대의 재판 방식에서 빌린 비유로 나타내십니다. 그러니 이 점에서 세 단계의 범죄를 견주시려고 그분은 이 첫째 것이 재판으로 벌받아 마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를 언짢게 한 사람을 거슬러 업신여김과 경멸의 어떤 말을 내뱉으려고 입을 열 때, 보십시오, 그것은 더 크고 더 두려워해야 할 정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비유를 가져오시듯, 마치 우리가 조금 더 엄숙하게 모인 공회나 당회에서 정죄받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 단계가 있습니다. 곧 사람이 분노로 드러내 놓고 말로 모욕하기에 이를 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최고 법원에서처럼 벌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비유를 떠나 단순히 그런 사람은 지옥 불에 마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세 가지 모두 그것에 마땅하다는 뜻이지만, 그래도 악의 단계를 보여 주십니다. 그러니 사람이 갑작스러운 분노를 가졌을 때, 그것이 내 마음에 웅크리고 있지 않다 해도 보십시오, 그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죽음의 죄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마음에 치명적인 미움을 기르고, 누가 우리에게 어떤 모욕을 했다고 원수를 갚으려는 독으로 가득할 때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안의 이 악을 바로잡기를 배웁시다. 그리고 우리 입에서 어떤 나쁜 말이 빠져나갔다면 그것을 탄식하고, 사도 바울이 하는 말(엡 4:26–27)로 와야 한다는 것을 알아봅시다. "해가 너희 분노 위에 지지 않게 하고, 사탄에게 자리를 내주지 말라." 그는 그것으로 우리가 어떤 분노에 움직였다면 그것이 지나가야 하고 해가 그 위에 지지 않아서 우리 분노가 CO 696 속에서 저 스스로 길러지지 않게 해야 한다고 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덧붙이는 징계가 우리를 잘 찔러야 합니다. 그는 그것이 마귀에게 우리를 차지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저마다에게 "너는 마귀가 너를 다스리고 네 안에서 다스리며 네 군주가 되기를 원하느냐?" 하고 묻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끔찍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우리 원수를 거슬러 그렇게 어떤 악의를 품을 때마다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도 바울의 입으로 말씀하신 그분의 성령을 거짓말쟁이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알았습니까? 늘 더 나아가서 이렇게 알아봅시다. "보라, 하나님의 피조물이 있고, 나는 그것이 불쌍한 저주받은 영혼이라는 것을 본다. 멸망의 길에 있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말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는가?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 영혼들을 속량하지 않으셨는가?" 물론 그 효력이 온 세상에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의인들과 멸망으로 가는 죄인들을 분간하는 것은 우리 몫이 아니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처럼 그들을 위해서도 죽음과 수난을 견디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살리려면 우리는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려 애써야 합니다. 그 밖에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무겁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슨 견줌이 있는지 살펴봅시다. 날마다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그분께 돌아가자마자 그분은 우리에게 아주 친밀하게 당신께 나아올 이 자유를 주셔서 우리가 받아들여지리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사람들이 우리를 노엽게 했을

때 우리와 화해할 아무 방법도 찾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욥이 모든 원수 갚음을 삼갔을 뿐 아니라 자기 원수들에게 악이 닥쳤을 때 언짢았고 그것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이 기쁘지 않았다고 단언하는 것을 볼 때, 이 구절에서 우리가 간직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성경은 의인이 불의한 자의 부끄러움을 기뻐하리라고 말합니다(시 58:10).[76] 그리고 그것은 참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기쁨을 가지려면 우리는 모든 사사로운 악의와 우리 자신의 인격을 바라보는 모든 것을 벗고 씻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악인들의 재앙을 기뻐할 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의롭고 공평하시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어야 하고,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재판관으로 나타나시며 남의 비용으로 그들에게 본보기와 가르침을 주시니 그들도 두려움 속에 걸으라는 경고를 받게 하려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나아갈 때, 곧 우리 하나님의 공평한 의를 바라보고 그분이 주시는 본보기로 두려움과 조심 속에 걷도록 가르침을 받으며, 사람들이 우리에게 한 어떤 악 때문에 어떤 분노에 부추겨졌을 때 원수를 갚으려고 CO 697 우리 인격을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용서하고, 그다음에 망해 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가엾게 여길 때,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악인들의 멸망을 정당하게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행하시는 모든 심판에서 그분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 육적인 감정을 섞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보내시는 재앙을 기뻐하려 할 때 우리 열심이 순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 욥은 내가 짚은 이 정황을 덧붙입니다. 곧 그의 집안 사람들이 불쏘시개 같아서 와서 그를 화나게 했고 그가 원수를 갚기를 바랐을 것이지만, 그래도 그는 그 때문에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는

76. 원문에는 "시편 58편 11절"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어 성경 절수로는 10절입니다.

대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너무 거칠게, 욥의 종들이 그가 나그네들을 맞아들이는 데 너무 인정이 많아서 언짢았고 그가 그들에게 주는 수고 때문에 그가 죽기를 바랐다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맥락에 맞지 않습니다. 욥은 여기서 다만, 사람들이 그에게 잘못과 모욕을 하는 것을 보고 그의 종들이 원수 갚음으로 부추겨졌어도 그 자신은 자기를 억제했고 그런 시험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밝히려 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새겨 둘 만합니다. 그가 자기에게 행해진 잘못에 자기 집안 사람들보다 덜 찔렸다는 것은 그에게 뛰어난 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입니다. 자기 모욕을 너무 마음에 담아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만족시킬 수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노여움을 당한 사람에게 아무리 "아니다, 나는 그 모욕을 내게 한 것으로 받는다. 내게 맡겨 두라. 내가 너를 위해 잘 원수를 갚아 주겠다" 하고 말해도, 그의 정념이 너무 엉뚱해서 그것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욥의 종들은 사람들이 그에게 악을 행할 때 노했는데 그 자신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께서 그 안에서 정교하고 놀라운 방식으로 일하셨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그가 여기서 자기를 귀히 여기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무대 위에 두신 것처럼 우리에게 거울과 본으로 내놓인다는 것을 새깁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에게 우리를 맞추려 애쓰고, 우리가 그런 본보기를 따르지 않는다면 아무 핑계도 없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우리 원수에게 원수를 갚도록 부추길 수 있는 시험이 있고, 심지어 사람들이 우리를 부추기고 불붙이며 다른 사람들이 우리 죄 속에서 우리를 달래 준다 해도, 그 때문에 사람들의 그런 아첨을 믿지 말고 우리 눈과 감각을 하나님께 향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자기를 용서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죄하실 때 자기를 의롭다 하는 까닭이, 와서 그들에게 알랑거리는 자들에게 귀를 빌려주기 때문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왜 그것이 CO 698 우

리에게 허락되지 않겠는가? 그렇다, 그가 당신에게 그런 잘못을 했다면 왜 당신은 앙갚음을 하지 않고 똑같이 갚아 주지 않는가?" 그런데 우리가 원수에게 악을 행해야 한다고 설득하는 데는 수사학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안에 그쪽으로 향하지 않는 핏줄도 힘줄도 없고, 우리는 거기에 너무 사납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보십시오, 와서 우리 악을 덮고 거기에 박수를 보내는 변호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만큼 더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 곧 우리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을 묵상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내세울 수 있는 모든 것에 귀를 막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아첨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리고 그들이 우리 영예와 유익을 위한 열심 있는 자들인 체하며 우리를 위해 힘쓰기만을 바라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런 사람들을 의심합시다. 어떤 사람이 우리가 너무 움직이고 찔린 것을 보고 우리를 꾸짖으며 우리 정념을 누그러뜨리려 애쓰는 것이, 좋은 감정으로 한다 해도 그렇게 와서 덤벼드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 아껴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잘못하는 것을 보면 와서 앞을 가로막을 사람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 나로서는 그런 손해를 내 것으로 여기고 원수를 갚겠다. 나는 사람들이 당신에게 그런 모욕을 한 것을 견디고 싶지 않다." 그러니 우리가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볼 때 어떤 사람이 어떤 열심을 가지는 일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우리가 더 큰 멸망으로 곤두박질치는 것 말고 거기서 무엇을 얻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친구는 우리가 어떤 모욕을 겪었을 때 우리를 누그러뜨리려 애쓰는 자들입니다. 그 밖에 와서 악을 키우는 그런 불쏘시개들에게 시험받을 때, 우리의 모든 감각을 하나님께로 모으도록 살피고 이렇게 말합시다. "오, 어쨌든 사람들이 나를 의롭다 했다 해도 그 때문에 내가 하늘의 재판관 앞에서 무죄 선고를 받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 나는 이 모욕을 견디도록 나를 억제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자녀 가운데 하나로 여기려 하시니 나는 그분을

본받고 그분을 닮아야 한다. 그리고 그분이 선한 자와 악한 자에게 당신의 해를 비추시니(마 5:45 참조), 나는 나를 해치려 한 자들에게 선을 행하고, 그 방법으로 그들 머리 위에 숯불을 쌓도록 애써야 한다(롬 12:20 참조)." 우리는 이 구절을 이렇게 실천해야 합니다.

그 밖에 욥이 덧붙이는 것도 새깁시다.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곧 나그네가 밖에서 자지 않았고 문이 그에게 열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욥은 자기가 자기에게 보상할 방법이 없는 자들에게 인정 있었다는 것을 밝힙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바른 사랑을 가졌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는 곳도 거기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그것을 CO 699 되갚을 수 있는 자들, 친척이나 어떤 다른 끈으로 우리와 이어진 자들에게 선을 행한다면, 그것은 우리 사랑의 참되거나 온전한 증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우정도 하나님을 따라 다스려질 때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우리가 다른 것보다 우리 자신을 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보듯 사람이 자기 친척과 친구에게 선을 행할 때 자기 개인의 이익을 찾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에게 보상할 수 없는 자들, 심지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할 때, 보십시오, 거기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바른 사랑의 규칙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이제 욥이 단언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그는 나그네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에서 그들을 부탁하시듯 말입니다. 그리고 까닭이 없지 않습니다. 자기 나라에 있는 자들은 충분한 뒷배를 가질 것이고, 친척이 있으며, 많은 방편과 도움이 있을 것이고, 사람들이 그들을 해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불쌍한 나그네들은 모든 도움을 빼앗겼고, 부모도 인척도 없으며, 세상을 따라 아무 도움도 호의도 없습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의 이익을 찾지 않고 섬긴다는 것을 밝히려 한다면 우리 인정을 시험해야 할 곳이 거기입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웃에게 한 모욕보다 나그네에게 한

모욕을 더 엄격하게 정죄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론 모두 정죄받아 마땅하고 아무것도 벌받지 않고 남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사람들 편에서 지켜지지 않는 자들을 당신의 보호와 지키심 안에 받으신다는 것을 새깁시다. 그리고 실제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분이 당신의 보호 아래 두신 자들에게 어떤 잘못이나 폭력을 할 때 그것이 죽을 사람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위엄을 범하는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이교도들조차 우리를 부끄럽게 한다는 것을 볼 때 그것이 우리 마음에 그만큼 더 잘 새겨져야 합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 비루하고 완전히 악한 본성을 지녔다고 밝히려 할 때 "가라, 너는 나그네들에게 마음이 나쁘다" 하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음란한 자, 도둑, 술주정뱅이, 거짓 맹세하는 자, 살인자라고 부르는 것보다 더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가라, 너는 나그네들의 원수다" 하고 말할 때 그것은 "너는 짐승보다 나쁘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교도들은 그렇게 말했고 그것을 아주 흔한 속담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우리가 그렇게 와서 정면으로 자연의 질서와 싸운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비웃고, 그분께 대들어 그분의 위엄을 우리를 거슬러 노엽게 하려 한다는 표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기서 욥이 하는 이 단언을 새깁시다. 곧 그가 자기에게 보상할 힘이 있다고 아는 자들에게 너그러웠을 뿐 아니라, 자기에게 되갚을 수 없는 자들에게도 힘썼다는 것입니다. 말하건대 욥과 함께, 하나님께서 온 인류 사이에 공통되고 일반적인 끈을 두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닮은 자들에게 우리 사랑을 쏟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 저마다 자기 능력에 따라 그들을 도와야 한다는 것을 생각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모든 사람에게 참된 형제 됨을 행하려 애씁시다. 그러나 특히 우리와 더 가깝게, 믿음의 끈으로 이어진 자들에게는 무엇보다 선을 행하도록 살핍시다 (갈 6:10 참조).

이제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엎드립시다.

제117편

욥기 31장 설교 7

CO 34:700–712

AI로 옮긴 초벌 번역입니다. 신학 감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CO 권: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 내가 사람들이 다 하듯 내 죄를 감추고 내 죄악을 내 은밀한 곳에 두었다면, 내가 큰 무리를 부술 만하였으나 집안들의 업신여김이 나를 두렵게 하였으니 나는 잠잠하였고 내 문밖으로 나가지 않았네. (욥 31:33–34)

CO 700 여기서 우리는 새겨 둘 만한 단언을 가집니다. 욥이 자기 본보기로 우리에게 보여 주는 것은, 우리가 잘못했다면 거의 어디서나 그렇듯 우리 허물을 감추는 것이 처방이 아니라, 스스로 원해서 빛을 고백하고 우리가 저지른 죄를 고백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지워지게 하는 것이 처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덕은 아주 드뭅니다. 그러나 그만큼 더 우리는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 주는 것을 지켜야 합니다. 욥은 자기만을 위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쓸모 있을 가르침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는 자기가 자기 죄를 감추지 않았고 그것을 자기 은밀한 곳에 두지 않았다고 밝힙니다. 곧 그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변명하려 애쓰지 않았고, 오히려 유죄를 인정하고 자기 범죄를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CO 701 한 가지입니다. 그 사이에 그는 사람들이 이 위선의 악에 물들어 있고, 부인하거나 핑계를 써서 자기 허물을 발밑에 깔아 두는 것이 그들의 방식이라는 것을 보여 줍니다. 여기에는 “사람“을 뜻하고 때로 “저마다“로 쓰이는 “아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욥은 자기 허물을 인정할 만큼 잘 찔린 사람을 거의 찾지 못할 것이고, 오히려 그들이

그것을 감추려고 헛된 얼버무림을 찾으리라는 뜻으로 말합니다. 그러니 이 악이 세상에서 다스린다 해도 욥은 자기가 거기서 깨끗하다고 단언합니다. 물론 아담이 이 직업을 시작했고 그것을 자기 혈통에서 나온 모든 자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우리가 보듯 그는 유죄가 드러났을 때에도 여전히 잎사귀로 자기를 덮으려 애쓰기 때문입니다(창 3:7–12 참조). 그리고 그다음에 그가 하나님 앞에 소환됩니까? 그가 나서야 합니까? 그래도 그는 여전히 경박한 핑계를 찾고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아담이 자기 후손들에게 위선이 무엇인지 보여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과목을 자기만 배운 것이 아니라 모두가 거기에 휩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두셋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본성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가 그렇게 우리 허물을 덮게 할 때 많은 것을 얻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그것을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악을 감추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했다고 여기고, 그 위에서 잠들어도 된다는 허락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리고 저마다 자기 안에서 그것을 경험합니다. 묻건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고 그분께 용서를 구하도록 부추겨진다면, 동시에 우리 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거기서 언짢아하고 처방으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마귀는 우리를 눈멀게 하거나, 우리 눈앞에 가리개를 두거나, 일들을 꾸며서 우리가 악을 있는 그대로 알지 못하게 합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니 그만큼 더 우리는 우리 죄악을 말하자면 우리 품속에 두지 않는 이 과목, 곧 그것을 감추지 말고 드러내는 과목을 공부해야 합니다. 물론 사람이 자기 죄를 알았을 때 가인과 유다에게 일어났듯이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범죄가 드러나고 우리가 모든 위선을 버리기 전까지는 우리는 회개에 이를 수 없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없으며, 요컨대 그것에서 건짐을 받거나 무죄 선고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밖에 자기 죄를 알고 속으로 그것을 부

끄러워하는 사람은 사람들에 관해서도 더는 숨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듯 우리는 늘 우리를 의롭다 하려고 입에 거짓을 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거기 없을 것입니다. 회개는 바른 겸손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CO 702 잘못했다는 것을 확신하고 뒷걸음치지 않고 스스로 자기 허물을 인정하는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도 자기 범죄를 정죄하고 자기가 거기서 언짢아한다는 것을 보여 줄 준비가 되어 있으리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욥의 때에 있던 것이 더 커져서 위선보다 흔한 것이 없게 되지 않았는지 살펴봅시다. 물론 우리는 이 구절에서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자기를 꾸미고 덮개를 찾는 것이 새로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봅니다. 그것은 언제나 있었고 (우리가 이미 말했듯이) 아담에게서 시작되어 오늘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세상에서 그런 뻔뻔함을 보아서, 그때는 지금 보이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구에게 그의 죄를 일깨우려 하자마자, 일이 완전히 알려져 있는데도 부인하려는 놋쇠 이마가 보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 악이 알려져 있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사람들이 그것을 말하기를 원하지 않고, 자기 대담함으로 모든 사람의 입을 막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많은 사람이 그렇게 뻔뻔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다툼과 위협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니 욥의 때에 사람들이 자기 허물을 감추었다면 오늘은 그것이 훨씬 더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이 구절에서 보듯) 그것은 충분하고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지는 변론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굳어지고 고집을 부려 아무도 이성에 이르지 않고, 죄인들을 회개로 끌어내려 애쓸 때 그들이 고집 센 말처럼 발길질한다 해도 말입니다. 그러니 그렇다 해도 욥의 본보기가 우리에게 가르침으로 내놓인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보통의 흐름을 따라서도 "물론 저마다 그렇게 한다, 관습이 그렇다" 하고 말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압시다. 그렇습니까? 그러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반대로 끌어당기십니다. 사람들이 자기

를 의롭다 하려 합니까?[77] 하나님께서는 우리 저마다 자기를 정죄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이 자기 허물이 알려지지 않도록 그것을 감춥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그렇습니다, 온전한 겸손으로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거기에 이르러야 하고, "나는 그것이 어디서나 이루어지고 저마다 그렇게 하는 것을 본다" 하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욥의 때에도 그렇게 했지만 성령께 정죄받았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비슷한 것, 곧 아무도 자기 허물을 고백하지 않는 것을 볼 때에도, 신자들은 여기서 자기에게 보여 주는 것에 자기를 맞추기를 배워야 합니다. 곧 하나님 앞에서 탄식할 뿐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자기가 부끄러움을 당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자기의 재판관이 되어 하늘의 재판관께 돌아갈 때 그분께 자비를 얻을 수 있도록 자기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요컨대 우리는 이 구절에서 위선이 CO 703 정죄되는 것을 봅니다. 죄를 짓는 것을 삼가고 거기서 자기를 지키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많이 넘어지지 않고는 이 세상에서 살 수 없으니, 처방은 이것입니다. 곧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는 것, 그 밖에 필요할 때마다 유죄를 인정하지 않을 만큼 사람들 앞에서 우리 영예를 덮으려 애쓰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잘못했을 때 거리에서 "나는 이런 허물을 저질렀다" 하고 외치라고 명하지 않으십니다(그것은 오히려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지켜야 합니다. 곧 먼저 우리가 많은 악에 물들어 있다는 것을 잘 알아서 우리 이웃에게 겸손한 것입니다. 사람이 다른 모든 사람을 업신여기고 아무것도 견디지 못하며 누가 잘못하면 벼락을 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말하건대 그 까닭이 이 위선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연약함을 안다면 분명 그것이 우리를 고삐에 매인 듯 붙잡아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하지 않고 우리에게서 시작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77. 원문에는 "me"(나를)로 되어 있으나 문맥상 "se"(자기를)의 OCR 오류로 보고 옮겼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첫째 것이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령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 참아 줄 만큼 인정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 죄를 고백하는 한 가지 방식입니다. 둘째가 있습니다. 곧 우리가 누구를 노엽게 했을 때 이성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달리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다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보여 주시듯(마 5:23–24), 우리가 우리 이웃을 노엽게 했을 때 그들과 화해하지 않으면 우리 제사는 결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죄를 안다면 그들에게 탄식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우리가 어떤 걸림돌을 일으켰을 때, 와서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우리 자신을 낮추고, 악이 뒷받침되지 않도록, 우리가 가시채를 뒷발질하지 않도록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사람들에 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세 가지 고백이 이것입니다. 그 사이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는 우리의 이 올곧음에서 나오고 비롯된다는 것을 새깁시다. 우리가 노엽게 했다는 것으로 속으로 부끄러움을 당하기 전까지는 결코 사람들 앞에서 바르고 순수한 고백을 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한다 해도 거기에는 꾸밈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자들은 분명 사람들 앞에서도 더는 자기를 의롭다 하려 하지 않는 이 절제를 가질 것입니다. 누가 "오, 나로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안다" 하고 말하면서, 그 사이에 사람들에 관해서는 너무 고집을 부려서 CO 704 그에게서 아무 이성도 진실도 끌어낼 수 없다면 그것은 조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마귀가 자기를 홀렸고 자기가 자기 허물을 감추며 할 수 있는 한 그것을 자기 품에 모아 둔다는 것을 잘 보여 줍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죄를 느끼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그분의 의를 거스른 것을 부끄러워하는 데 이르렀을 때,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그런 순수한 고백을 하지 못하게 막는 교만이 더는 없으리라는 것을 잘 새깁시다.

그 밖에 여기서 욥이 자기 죄를 자기 은밀한 곳에 두지 않았다고 하는 말도 새겨야 합니다. 그것은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속일 수 없지만 자기 자신을 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그들은 자기 허물을 더는 생각하지 않을 때 많은 것을 얻었다고 여깁니다. 사람이 자기를 잊을 수 있고, 자기 허물을 등 뒤로 던져 버리고 생각하지 않은 채 발밑에 깔아 둘 수 있다면, 오, 그는 더는 우울하지 않고 더는 괴로워하지 않으며, 요컨대 그는 거기서 자기 악에 취해 있고 코가 막힌 사람처럼 아무 냄새도 맡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재판관 노릇을 하기를 그치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이 그분 앞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얼마 동안 못 본 체하신다 해도 모든 것이 셈에 올라야 합니다. 사람들은 늘 숨어 있기를, 곧 자기 허물을 바라보지 않기를 원할 것이고, 그것이 결코 알려지지도 않으리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죄는 늘 남아 있고, 그것이 사람들에 관해서는 묻혀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앞으로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욥은 여기서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죄를 덮을 때 자기를 속일 뿐이라는 것을 보여 줍니다. 그것이 빛 가운데로 끌려 나올 때까지, 어찌 되든 그것은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서 건지시도록 우리 허물을 드러내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을 살핍시다. 우리가 그것을, 그렇습니다, 기꺼운 뜻으로 그분 앞에 가져가고 거기 있는 악을 정죄한다면, 오, 분명 우리가 그분께 구할 때 그분은 그 모든 것을 없애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정죄받지 않도록 악이 있는 곳에서 그것을 정죄합시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우리 마음을 꽉 닫아 두고 그 안에 우리 허물을 간직하려 애쓰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싸우셔야 할 것이고, 우리는 구름을 흩으시고 우리가 우리 추함을 덮으려 했던 잎사귀를 벗기시는 것이 그분의 일이라는 것을 느낄 것이며, 싫든 좋든 우리가 그것을 느끼고 그것이 사람들과 천사들에게 알려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기 죄를 자기 은밀한 곳에 둔다고 말할 때 이 구절에서 우리가 간직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요컨대 그것은 고름을 덮으려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과 같습니다. 고름이 CO 705 몸속에 감추어져 있는데 그것을 짜내려 하지는 않고, 그것이 알려지지 않도록 덮어 버릴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덮고 짜내지 않을 때 감염은 갑절이 되고, 그와 함께 염증이 점점 더 커집니다. 그것이 드러난다면 더 나을 것입니다. 그러면 짜내질 어떤 출구가 있을 텐데, 악을 그렇게 속에 붙잡아 두니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허물을 감추려 할 때도 그렇게 됩니다. 보십시오, 이미 나쁜 고름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억지로 붙잡아 두려 합니다. 그것이 그렇게 붙잡혀 있을 때 일종의 압력이 있어서 악이 점점 더 자라고 불붙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가 말한 것 말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비참을 고백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아, 그분이 우리에게 알맞다고 아시는 대로 그것을 고치시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재판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재판관으로 세우시는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정죄하시는 대신 우리를 무죄로 하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얼버무린다면 우리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우리를 거스르는 더 큰 원수 갚음을 부를 뿐입니다. 그래서 더는 우리가 늘 하던 대로 우리 허물을 우리 숨은 곳에 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숨은 곳을 말하는 것은, 사람들이 본성상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작은 방법과 잔재주를 많이 찾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얼마 동안은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아무리 구석으로 물러나도 하나님께서는 어디서나 우리를 보십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선지자 이사야 28장 15절과 29장 15절에서 말하듯) 악인들은 자기를 위해 굴을 파고, 하나님의 심판을 더는 생각하지 않을 때, 오, 자기가 좋은 피할 곳을 가졌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것이 더는 아무 쓸모가 없으면 반대쪽으로 와서 이리저리 뛰어다닙니다. 그리고 어떤 새 구멍이나 틈을 찾으면, 보기에 안심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숨을 수 없으면 자고새나 어린아이들처럼, 눈만 가리면 충분하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서 우리 숨은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성상 위선에 빠져 있고 늘 하나님을 속이려고 작은 잔재주를 찾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이듯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일 뿐입니다. 그것은 우리 죄악 속에서 우리를 기르는 것일 뿐이고, 그 사이에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마귀가 우리를 차지하여 우리가 우리 병을 고치고 좋은 처방을 주실 수 있는 분, 최고의 의사이신 분께 달려갈 수 없다는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CO 706 그 밖에 욥은 자기 허물을 인정했다고 단언한 뒤에, 자기가 큰 무리를 부술 만했지만 가장 업신여김을 받는 자들을 두려워했고 자기 집에서 나가지 않았다고 덧붙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기 전에 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새깁시다. 그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늘의 천사처럼 살았던 욥이고, 온 세상에서 그와 같은 사람을 좀처럼 찾지 못할 만큼의 온전함을 지켰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기 허물을 감추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가장 의롭고 가장 완전한 자들을 욥과 견주면 그들이 그 안에 있던 그 거룩함과 올곧음에 조금도 가까이 가지 못한다는 것을 찾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 경외와 그런 삶의 온전함을 가진 사람이 자기를 죄인으로 알았고 자기 영예를 지키려 하지 않았으며 잘못했을 때 유죄를 인정했다면, 그런 거룩함에서 아직 아주 멀리 있는 자들이 모든 일에서 어디서나 자기 허물을 고백하려 하지 않을 때, 사람들이 그들로 자기 죄를 고백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수 없을 때, 그것은 오늘 얼마나 추한 일이겠습니까? 묻건대 오늘 세상이 눈먼 것 이상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욥은 자기가 눈먼 자들의 눈 같았고, 다리 저는 자들의 다리, 고아들의 아버지, 과부들의 보호자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다음에 그는 자기가 불쌍한 나그네들의 공동 여관 주인이었고, 추운 자들을 자기 어린양의 털로 입혔으며, 자기 빵을 혼자 먹지 않았고, 아무에게도 잘못이나 폭력을 하지 않았으며, 재판에서 신용이 있고 뒷받침을 받았지만 결코 아무도 그를

하소연하지 않았고 그가 그런 빌미를 주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 모든 것을 밝힌 뒤에 그는 자기가 자기 허물을 감추려 하지 않았다고 덧붙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욥이 벗어나 있던 많은 악에 물들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의롭게 보이기를 원할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 눈을 뽑아 버려서 우리가 더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사도 바울이 말하듯(엡 4:19) 모든 악의 극한이요 절정인 모든 감각을 잃어버렸다고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우리를 무죄라 하려 할 만큼 어리석고 오만할 때마다 욥과 우리를 견주기를 배우고, 우리가 욥 같은 완전함에 이르기까지 아직 멀었다는 것을 알아봅시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고 우리 자신을 온전히 정죄하는 것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분 앞에서 우리를 정죄한 뒤에 사람들 앞에서도 그런 절제를 가지기를 배웁시다. 곧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 이웃을 걸려 넘어지게 했다면 그 악을 바로잡고, 누구에게 모욕을 했다면 그와 CO 707 화해하려 애쓰는 것입니다. 요컨대 우리는 우리 죄 속에서 잉태되었으니(시 51:5 참조) 모든 일에서 어디서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런데 욥은 자기가 큰 백성을 부수고 짓밟을 수 있었지만 가장 업신여김을 받는 사람들을 두려워했다고 말하며 자기 절제를 이어 갑니다. 이 구절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다르게 받아들여집니다. 욥이 여기서 쓰는 말이 때로 "두려워하다"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부수다" 또는 "깨뜨리다"로 옮긴 첫째 동사입니다. 그러니 그것은 "두려워하다"를 뜻하고, "짓밟다, 부수다, 깨뜨리다"를 뜻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마치 욥이 자기가 큰 무리를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곧 악을 본 곳에서 그것을 꾸짖지 않을 만큼 결코 겁에 질리지 않았다고 밝히는 것처럼 풀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을 때 분명 그분이 노여움을 당하시는 것을 맞서지 않고 견디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대리인처럼 세우시는 영예를 베푸시니, 적어도 우리는 악이 우리를 언짢게 한다고 선언하고 할 수 있는 한 그것을 막으려 애써야 하며, 사도 바울이 보여 주는 이 과목(엡 5:11), 곧 어둠의 열매에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꾸짖으라는 것을 실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이 이 구절을 마치 욥이 자기가 악에 동의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기가 있던 어디서나 거기 맞서고 그것을 막았다고, 그리고 미움을 사고 온 세상의 미움을 받을 수 있었다 해도 악이 있는 곳에서 늘 그것을 정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단언하는 것처럼 풀이합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은 좋고 유익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우리가 그런 굳셈 속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봅니다. 우리가 악을 막으려 하면 온 세상, 곧 대부분의 사람을 원수로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할 수 있는 만큼 모든 사람과 화평을 구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롬 12:18 참조). 그러나 우리가 우리 의무를 다했을 때에도 우리가 죄를 꾸짖으려 하면 거의 온 세상의 분노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보듯 저마다 자기를 달래려 하고, 바로잡음은 특히 오늘 너무 혹독하고 쓰라려서 아무도 그것을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하니 우리는 그런 굳센 덕으로 결심해서, 세상이 우리를 거슬러 일어나고 우리를 짓누르려 애쓰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해도 그 때문에 굽히지 않고 악을 정죄하는 데 꾸준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 가르침은 좋고 유익합니다. 그러나 본문의 흐름을 살펴보면 자연스러운 뜻이 내가 짚은 것이라는 것을 찾을 것입니다. 욥이 여기서 쓰는 첫째 말은 "~때" 또는 "만일" 또는 "왜냐하면" 또는 "~라 해도"를 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욥이 자기가 큰 CO 708 무리를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려는 단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말 다음에 오는 그 동사가 (내가 말했듯이) "두려워하다"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첫째 말의 더 흔한 뜻은 내가 말한 것, 곧 "왜냐하면" 또는 "~라 해도"이고, 그다음에 동사는 더 흔히 "깨뜨리다"를 뜻합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욥이 뜻한 것은 이것입니다. 곧 그가 큰 백성을 깨뜨리고 부술 수 있었다 해도, 다시 말해 권세와 신용과 권위를 가졌다 해도, 그가 모든 사람의 입을 막으려고 주인 노릇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가장 업신여김을 받는 자들, 내쳐진 것 같은 자들, 공공의 경멸과 치욕이던 자들을 두려워할 만큼 거기까지 자기를 낮추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앞의 말을 증명하려는 것입니다. 욥이 가장 업신여김을 받는 자들을 두려워하는 이 절제를 가졌을 때, 그것은 그가 자기 허물을 감추려 하지 않았다는 확실한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자기 재물이나 다른 어떤 은혜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너무 권위를 얻어서, 저마다 그를 두려워하고 사람들이 그를 떠받들며 입을 다문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가 세상의 모든 허물을 저질러도 사람들은 몰래 투덜대는 것 말고는 감히 그것을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보라, 아무개가 자기를 잘못 다스린다" 하고 말할 자유를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그것을 소문낸다면 그렇게 높이 오른 자가 와서 "뭐라고? 여기서 나를 말하는가?" 하며 자기 영예를 되찾으려고 놀라운 일을 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것이 세상에서 흔하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미 욥의 때에 신용 있던 자들이 자기를 지키고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든 자기를 말하지 못하게 막으려고 자기 재물과 영예를 남용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군주나 어떤 궁정 사람이나 세력을 떨치는 사람이나 재판의 권위에 있는 사람을 비난하면 그것은 용서받지 못할 범죄가 될 것입니다. 오, 그런 사람들의 영예가 다치면 곧 큰 소동을 일으켜야 하고, 그들 안에 흠잡을 것이 많고 심지어 어린아이들도 그들을 재판할 수 있을 만해도 거기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보십시오, 욥은 말합니다. "나는 백성들을 부술 수 있었다." 곧 "나는 내 원수들을 길들일 뿐 아니라 그들을 부수고 깨뜨릴 방법을 가졌다. 온 세상이 나를 거슬러 일어났다 해도 나는 그것을 해낼 만한 신용과 권세를 가졌다."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떻습니까? 그는

자기가 어린양처럼 온유했고, 사람들이 자기 허물을 꾸짖는 것을 견뎠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어떤 건달, 어떤 거지라 해도 나는 그를 두려워했고, 그가 나를 말할 때 부끄러워했으며, 내 죄를 알았다. 나는 사람들이 큰 군대를 모으고 높은 사람들이 와서 나를 부끄럽게 하기를 CO 709 기다리지 않았고, 온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들의 말을 들었다.”

이제 우리는 이 구절의 자연스러운 뜻이 무엇인지 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가르침에서 유익을 얻을 줄 아는 것입니다. 먼저 다른 사람들보다 어떤 높은 자리를 가진 자들은 그것이 자기 더러움을 덮는 겉옷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기를 두드러진 자리에 높이셔서 자기 안에 악이 있다면 그것이 더 눈에 띄게 하셨다는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웃보다 영예로운 자리에 있는 은혜를 베푸신 자들이 그렇게 높아졌으니 좋은 본을 보이려 애쓰는 것이 아주 마땅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반대로 한다면 그들의 범죄는 그만큼 더 무겁고, 하나님께서는 정당한 까닭으로 그들을 꾸짖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나는 너를 높였고, 네가 온 세상을 비추는 타오르는 등불처럼 되도록 네게 손을 내밀었다. 그런데 네가 세상을 걸려 넘어지게 했을 때 네 치욕은 그만큼 더 커야 한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영예로운 자리에 두신 자들은 그것이 악을 행할 더 큰 방종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통 백성의 입을 막을 수 있다 해도 그런 방패를 써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자기 추함을 덮고 허물을 묻으려 애썼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시며 그들 위에 더 큰 원수 갚음을 펼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작은 자들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욥이 여기서 자기 인격에 돌리는 그런 권위에 가까운 사람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백성들을 깨뜨리거나 우리를 거슬러 일어날 수 있는 큰 무리를 부술 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달팽이 한 마리와 싸우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 해도 그 방법으로 우리를 겸손 속에 붙잡아 두십니다. 그러하니 우리가 정당하게 우리를 험담할 수 있는 자들의 입을 막으려고 주제넘게 군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보다 못한데, 그 사이에 여전히 명성을 누리기를 원하고, 우리 영예가 지켜지고 아무도 그것을 건드리지 않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그것을 말하면 그 치욕을 없애려고 하늘과 땅이 뒤집혀야 할 것처럼 여길 것입니다. 묻건대 그것은 정면으로 본성과 싸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셨고 우리가 우리 영예를 지킬 방법을 가졌다 해도, 여기서 하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가장 업신여김을 받는 자들을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고삐를 풀어 주지 않으시고 우리를 꽉 붙잡으셔서 우리가 우리 허물이 알려지는 것을 견뎌야 할 때, 우리가 대든다면 무슨 핑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보십시오, 작은 자들은 CO 710 욥의 인격에서 큰 백성들을 깨뜨릴 수 있었던 사람이 가장 업신여김을 받는 자들, 다른 사람들 가운데 거지로 여겨진 자들에게 꾸짖음을 받는 것을 견딜 만큼 낮아진 그런 거울을 볼 때 이렇게 갑절로 자기를 낮추어야 합니다. 그러니 크고 작은 사람 모두에게 정죄받는 것을 견디는 이 절제를 가집시다. 먼저 우리가 새겨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 "업신여김"이라는 말도 따져 보아야 합니다. 보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교만하게 해서 우리가 바로잡을 수 없게 되는 까닭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바라봅니다. "저 사람은 누구인가? 적어도 그는 나와 같은 자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동등함이 있으면 그가 더는 우리보다 나은 것이 없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나를 꾸짖으려 하는가? 그가 나보다 나은가?" 그 밖에 다른 사람들이 훨씬 더 나은데도 우리와 같다고 여기는 것으로 아직 충분하지 않고, 우리는 그들을 깎아내립니다. 우리는 남의 악을 잘 짚어 낼 줄 알고 심지어 그것을 부풀릴 줄 알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누구인가? 그에게 흠잡을 것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는가?"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 허물은 누그러지고 우리 안에서는 모든 것이 빛나며, 우리는 거기서 악을 덕으로 만들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그런 교만 속에 잠들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잡고 우리가 얼마나 죄가 있는지 보여 줄 사람들을 보내실 때 우리가 멍에와 바로잡음을 받을 수 없게 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니 그만큼 더 우리는 욥이 여기서 하는 말을 잘 새겨야 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가장 업신여김을 받는 자들, 세상의 쓰레기와 오물 같은 자들, 아무 품위도 아무것도 없는 가장 비천한 자들까지 두려워했다." 그런데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예롭고 큰 신용을 가진 사람들에게 경고받는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하는 일깨움을 업신여겨도 된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려면, 보십시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누가 우리를 꾸짖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사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우리에게 말하고 우리 양심이 그것이 진실이라고 우리를 꾸짖는다면, 우리가 고집을 부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맞서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는 "저 사람은 누구인가? 그의 말을 들을 만한가?" 하고 내세우지 말고, 그가 가져오는 소식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멍에를 받으려고 고개를 숙입시다. 이것이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둘째로, 우리가 그렇게 업신여기는 자들이 자주 우리보다 훨씬 낫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우리 악을 마땅히 따지지 않으면서 그 사이에 우리 이웃에게 너무 날카로우니 우리 위선이 우리를 눈멀게 할 뿐이라는 것을 새깁시다. 보십시오, 그것이 CO 711 우리로 그 말을 듣고 받아들일 만한 자들을 그렇게 거부하게 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니 이 교만을 벗고 우리 비참을 느끼기를 배웁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럴 만하듯 쓰러질 만큼 그것을 느낍시다.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 이웃의 악을 너무 바라보아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 두신 덕을 바라보고 그것을 공경하지 못하게 되지 맙시다. 그러니

보십시오, 그것이 우리로 바로잡음을 잠잠히 받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또 다른 고려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 값어치나 존중이 없는 사람들에게 경고받는다면 이렇게 알아봅시다. "보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만큼 더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나는 그분이 사람들을 따라 내가 귀히 여겨야 할 사람을 보내 주실 만한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그분은 내게 어떤 선지자를 일으키실 수 있었고, 슬기롭고 덕으로 영예로운 사람을 보내실 수 있었지만, 내가 모든 사람에게 업신여김을 받고 내쳐진 사람에게 꺾이기를 원하신다. 왜 그런가? 내 악을 더 잘 느끼게 하시려는 것이다. 내가 나보다 어떤 권위를 가진 사람에게 경고받는다면 나는 '그래, 이 사람에게 대드는 것은 네게 부끄러운 일일 것이다' 하고 생각할 것이고, 그것이 내가 속으로 늘 어떤 오만을 기르는 까닭이 될 것이다. 그러나 보라,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와서 내 뺨을 치신다. 그분은 내게 와서 조언해 주는 좋은 친구, 내 영예를 꾀하며 와서 나를 일깨우는 사람을 가지도록 허락하지 않으시고, 내쳐진 사람을 보내신다. 그러니 내게 그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까닭 없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모든 방식으로 가장 작고 업신여김을 받는 자들을 두려워하는 이 이성으로 이끌릴 것입니다.

그 밖에 욥이 자기가 나가지 않았다고 말할 때, 그것은 그가 핑계를 썼다는 뜻이 아니라 스스로 원해서 자기를 억제했고, 대꾸 없이 정죄받는 것을 견뎠으며, 유죄가 드러난 사람처럼 숨었다는 뜻입니다. 요컨대 우리가 새겨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때로 숨으면서도 재갈을 물어뜯고 자기를 헐뜯은 자들에게 원수 갚기를 쫓기를 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욥이 자기 문밖으로 나가지 않았다고 할 때 그것은 자기 치욕을 듣지 않으면서 그 사이에 자기 원수들과 자기를 고발한 자들에게 원수 갚기를 꾀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자기 집 안에 머물며 자기 허물을 꾸짖으려 했을 자들에게 자리를 내준 것과 같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CO712 마음껏 하도록 내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와서 맞서지 않을 것이고, 내 다툼을 지키려고 사람들을 보내지 않을 것이며, 평온할 것이다. 사람들이 온 세상 앞에서 나를 정죄하게 하라. 나는 감옥에 갇힌 것처럼 거기 있을 것이다.” 우리는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 사람들이 자유롭게 그의 소송을 진행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 욥은 자기가 정죄받는 것을 견디려고 스스로 원해서 자기를 죄수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새겨 둘 만합니다. 우리는 오늘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죄가 많은데 사람들이 자기를 말한다는 것을 알고 무슨 소문을 들으면, 그것을 고치려고 무엇을 하는지 보기 때문입니다. 그는 와서 한길에서 어깨를 펴고 멧돼지처럼 거품을 물며, 악을 지키려고 자리를 차지하고, 자기 패거리를 거느리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어찌 되든 나는 이길 것이다.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험담해도 나는 그것을 험담하는 모든 자의 입을 막아 낼 것이다.” 그런 본보기가 지금처럼 드러나 있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눈을 뜨면, 하나님과 세상에 대들고 자기 타락을 어디서나 퍼뜨리는 자들이 뻔뻔하고 자기가 마귀에 들렸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 오늘 일상 이상의 악이라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들은 와서 거기서 창녀의 이마를 보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자기 주둥이를 닦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할 것입니다. 무엇이 있든, 공기가 썩을 만큼 추한 걸림돌이 있어도 사람들은 감히 한마디도 하지 못할 것이고, 이 상놈들에게 자리를 내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악이 어디서나 다스리는 것을 보니, 그만큼 더 우리는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 주는 이 과목을 새겨야 합니다. 곧 우리가 노엽게 했을 때 스스로 원하는 죄수가 되어, 하나님 앞에서 무죄 선고를 받도록 우리를 억제하고 정죄받는 것을 견디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잠잠히 있으면서 우리 죄를 모른 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평온하게 있어서, 와서 우리 악 속에서 변명하려고 대담하게 굴지 맙시다. 오히려 하나님께

대들지 않기를 배우고, 우리가 그분의 위엄 앞에서 모든 일에서 어디서나 죄가 있다는 것을 살핍시다. 그리고 그러하니 그분께 돌아오는 모든 불쌍한 죄인에게 그분이 쓰시는 그분의 은혜와 무한한 자비로 달려가는 것 말고는 다른 처방이 없다는 것을 압시다.

이제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엎드립시다.

제118편

욥기 31장 설교 8

CO 34:713–724

AI로 옮긴 초벌 번역입니다. 신학 감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CO 권: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 내 말을 들어 줄 이가 있으면 좋겠네. 내 바람은 전능자께서 내게 대답하시는 것이네. 내 상대가 고소장을 쓰게 하게. 내가 그것을 내 어깨에 메지 않겠는가? 나는 그것을 면류관처럼 머리에 매겠네. 나는 내 걸음을 낱낱이 세어 드리고, 군주처럼 그분께 나아가겠네. 내 땅이 나를 거슬러 부르짖고 그 이랑들이 함께 울었다면, 내가 값을 치르지 않고 그 소산을 먹었거나 그 땅을 가진 자들을 괴로움으로 짓눌렀다면, 밀 대신 엉겅퀴가 나고 보리 대신 가라지가 나기를 바라네. (욥 31:35–40) 욥의 말이 끝나니라.

CO 713 우리는 앞에서 욥이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하나님께서 자기 말을 들어 주시지 않는다고 탄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하면서 그의 의도는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잔인하고 불의하셨다는 것처럼 신성 모독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기가 왜 그렇게 괴로움을 당하는지 모르겠다는 것, 그리고 그 까닭이 알려지지 않았다 해도 하나님과 다투는 것이 자기에게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했습니다. 그것에 이어서 이제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대답하시는 것이 자기의 모든 기쁨이 되리라고 덧붙입니다. 거기서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셔서 자기가 왜 그렇게 괴로움을 당하는지 알도록 밝혀 주신다면 그런 지식으로 자기에게 충분하리라는 것, 그러나 자기 삶이 흠잡을 데 없었고 거룩하게 걸으려 애썼으니 자기가 왜 그렇게 혹독하게 다루어지는지 드러난 까닭이 없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물론 이 “대답하다“라는 말은 두 가지로 풀 수

있을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상대편으로 나오셔서 당신의 이유와 조항을 풀어 놓으시는 것이거나, 아니면 그분이 대답하셔서 당신이 욥의 편이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앞에서 하나님께서 당신 심판의 까닭을 밝히시는 데까지 낮아지려 하신다면 자기에게 충분하리라고 자주 말했으니, 우리는 이 구절을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받아들일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왜 나를 괴롭히시는지 그 까닭을 밝혀 주시기만을 바란다. 보통의 관점에 관해서는 나는 온 세상에 맞서고 도전한다. 강한 상대가 나를 거슬러 고소장을 쓰게 하고, 심지어 그것으로 두꺼운 책을 만들게 하라. 나는 그것을 내 어깨에 메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을 것이고, 그것은 내게 무거운 짐이 아닐 것이다. 오히려 그것은 나를 꾸미는 면류관이요 장식이 될 것이다." 그러니 이제 요컨대 우리는 욥이 말하려 한 것을 봅니다. 곧 그는 사람들이 그를 여기고 판단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듯 그의 친구들은 CO 714 그가 그렇게 큰 고통을 견디니 그를 버림받은 사람으로 정죄했고, 그들 보기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당신의 원수 갚음을 펼치려 하셔서 욥이 하나님께서 완전히 삼키시는 악인들의 거울이 되게 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욥은 자기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단언하고, 그 사이에 심리를 받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구앞에서입니까? 사람들 앞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대답하시는 것, 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가 알려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자기가 자기 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곧 그것이 잘 살펴지고, 하나님께서 높고 감추어진 당신의 권능을 쓰셔서 사람들이 그분이 왜 그렇게 일하시는지 모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통의 소송을 진행하신 분으로서 판결을 내리실 때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에서 욥이 그런 바람을 가진 데 까닭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로 당신의 율법에서 하신 위협에 따라 우리를 징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흔한 것입니다. 곧 우리가 고난받는다면

그것은 우리 죄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악이 벌받지 않고 남도록 허락하지 않으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바르게 사는 규칙을 주신 뒤에 위협을 덧붙이십니다. "너희가 내 계명을 어기면 내가 너희를 전쟁과 역병과 기근으로, 너희 저마다를 병과 가난으로, 이것과 저것으로 벌하리라"(레 26:14–26 참조).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매를 맞았을 때 우리는 우리 삶을 그분의 율법에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느낀다면, 보십시오, 우리 소송은 이미 다 갖추어졌고 판결은 이미 내려졌으며 집행되는 것만 남았습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징계하실 때 쓰시는 보통의 방식이 이것입니다.

그러나 욥에게는 다른 사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의 죄 때문에 벌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럴 만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하나님의 바로잡음에서 면제될 수 있을 만큼 의로운 피조물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이미 밝혔듯이) 하나님께서는 욥의 범죄를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가 어겼기 때문에 그만한 분량으로 그를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 종의 믿음과 인내를 시험하려 하셨고, 그가 온 세상에 본보기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사이에 욥은 입이 막혀서 무엇이라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니 우리 편에서도 그가 왜 그렇게 혹독하게 다루어졌는지 달리 캐물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비밀입니다. 그러니 욥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대답하시기를 구하는 데에는 까닭이 없지 않습니다. CO 715 곧 그분이 소송에 들어오셔서 자기가 자기 온전함을 주장하도록 허락하시고 자기가 왜 그렇게 견디는지 알게 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상대편으로 부르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을 새깁시다. 그분이 당신의 선하신 뜻에 따라 우리를 다루시고, 그분 심판의 까닭이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는다 해도 우리가 고개를 숙이는 것이 아주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우리를 찾아오기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그분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보지 못할 때에도, 우리는 그분께 불평하지 않도록 입을 다물되, 그분의 심판이 깊은 구렁이라 해도 의롭고 공평하기를 그치지 않는다고 고백하며 그분을 영화롭게 하도록 입을 열어야 합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우리가 새겨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송을 벌이려 하실 때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상대편으로 나서신다면, 아,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가서 그분을 돋우고 그분과 소송하기를 구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큰 부끄러움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가르침은 잘 새겨 둘 만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사람들이 불평에 들어가고 대드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돋우고 그분을 거슬러 소송을 걸려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이기겠습니까? 물론 괴로움을 당할 때 그렇게 소란을 피우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거스르시기를 원한다고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그들의 목표는 거기로 향합니다. 사람이 자기 고난 속에서 인내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자기를 맞추어 그분 손에서 바로잡음을 받도록 평온하게 있지 않는다면, 묻건대 그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노여움을 당하셔서 당신의 권리를 주장하시도록 높아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매로 우리를 치실 때 그분과 다툼을 벌이고 그분을 죽을 원수로 모시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오히려 그 까닭이 얼마 동안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다 해도 그분의 손에 우리를 복종시키고 그분이 하시는 것을 좋다고 여기기를 배웁시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괴롭히시는지 우리에게 보여 주시기를 바라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분의 매가 우리에게 유익하고, 우리가 그 까닭을 알 때 그분이 보내시는 징계를 우리 가르침에 적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니 저마다 자기 죄를 느끼며 하나님을 노엽게 한 것을 언짢아

하고 자기 추함을 부끄러워하며 자기를 낮추고, 그다음에 악에서 돌아설 처방을 찾을 때, 말하건대 우리가 모든 방식으로 하나님의 매를 우리 쓰임에 적용하고 그것을 그런 훈련으로 바꾸어서 우리가 바로잡을 수 없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려 애쓸 때,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괴롭히시는지 우리에게 느끼게 해 주시기를 바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CO 716 그분의 바로잡음이 헛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당신의 권능을 쓰시려 하시고 우리를 거기서 멍한 것처럼 붙잡아 두셔서 우리가 그분이 왜 그렇게 큰 엄격함을 우리에게 쓰시는지 모른다 해도, 그런 극한에서도 우리는 고개를 숙여야 하고, 우리가 이미 밝힌 것, 곧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서 어디서나 의로우시다는 것으로 피해야 합니다. 그러하니 그분이 왜 우리를 괴롭히시는지 그 까닭이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해도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를 그치지 맙시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간직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욥이 하는 말로 옵시다. "내 바람은 전능자께서 내게 대답하시는 것이다. 내 상대가 책을 쓴다 해도, 내가 그것을 메야 한다면 나는 그것을 내놓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유죄가 드러나 짐을 진 죄인 같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그 책이 내 온전함을 지켜 줄 것이다. 나는 그것으로 면류관처럼 나를 꾸밀 수 있을 것이다." 그가 말합니다. 욥이 그렇게 말할 때, 요컨대 그는 자기를 거슬러 세워진 모든 고발이 거짓이었고, 자기가 삶에서 죄가 없었으니 사람들이 부당하게 자기를 비방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서 그는 자기가 완전히 깨끗했고 자기 인격에 흠잡을 것이 없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제 보았듯이) 그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했고, 심지어 사람들의 관습처럼, 그리고 우리가 보듯 저마다 헛되고 경박한 핑계로 자기를 덮으려 할 만큼 위선이 그러하듯이 자기 허물을 감추지 않았다고 단언했기 때문입니다. 욥은 자기가 그쪽으로 향하지 않았고, 잘못했을 때 거리낌 없이 자기를 정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는 권위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꾸짖기를 기다리지 않았고, 가장 업신여김을 받는 자들이 자기를 부끄럽게 했으며, 자기를 바라볼 자격도 없는 자들에게서 바로잡음을 받을 만큼 거기까지 자기를 낮추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욥은 이 구절에서 자기가 완전히 죄 없고 흠 없었다는 뜻이 아닙니다(그러면 그의 말에 모순이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우리가 본 대로 자기 소송을 풀어 갑니다. 곧 그가 버림받은 사람 같지 않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혹독하게 다루신다 해서 그것이 어떤 엄청난 범죄 때문이라는 뜻이 아니라 다른 감추어진 까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컨대 우리는 욥이 자기가 저지른 허물을 느끼지도 않으면서 자기가 의롭다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이 하듯 그런 오만으로 하나님을 거슬러 높아지려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가 천사처럼 걸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그를 벌할 까닭을 충분히 찾으셨으리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그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들의 줄에서 물러나려고 자기 온전함을 주장합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좋은 소송을 주장할 방법이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우리는 가장 죄 많은 자들이 사람들이 그들을 꾸짖을 때 대개 자기를 의롭다 하는 데 가장 CO 717 대담하리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들의 정죄가 충분히 알려져 있고 저마다 그들이 아무 값어치도 없다는 것을 보는데도, 그들은 자기에게 흠잡을 것이 없고 사람들이 자기를 꾸짖으며 큰 잘못을 한다고 주장하는 데 가장 뻔뻔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르게 걸으려 애썼다 해도 무엇보다 먼저 유죄를 인정하고, 자기가 불쌍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러니 그 위에서 우리는 사람이 아무 예외 없이 자기를 의롭다 하려 한다면 하나님과 전쟁을 벌이는 것이라는 것을 봅니다. 사도 요한이 그의 서신(요일 1:10)에서 말하듯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 위에 일반 판결을 선언하셨고, 경험도 우리 모두가 그분의

자비로 피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그러니 아무 예외 없이 자기를 의롭다 하려는 사람은 드러내 놓고 하나님과 전쟁을 하며 그분께 부딪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결국 무엇을 얻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우리 허물을 안 뒤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사람들이 이것이나 저것으로 우리를 꾸짖고 우리가 죄가 있다고 느낀다면, 그렇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이(가장 업신여김을 받는 자들까지도)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 재판관이 되는 이 치욕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알아봅시다. 사람들이 우리를 고발하는 그 일에서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다고 느낀다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낮추려 하시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래도 우리는 바로잡음을 받도록 평온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밖에 사람들이 우리를 꾸짖고 사람들이 자기 무모함으로 우리가 악하다고 하려 하는데 우리가 그 반대를 안다면, 그런 비방이 참되다고 동의하는 것은 우리에게 위선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도둑질이나 음행이나 살인으로 고발되었는데 그가 그것에서 깨끗하고 하나님과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다고 단언할 수 있다면, 그가 나머지와 함께 자기를 정죄한다면 그는 잘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욥의 방식대로 우리 온전함을 잘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영예만을 생각해서가 아닙니다. 마치 어떤 것으로도 건드려지기를 원하지 않는 그 허영심 많은 자들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너무 연약해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 이름을 더럽혔는데도 사람들이 자기 영예를 건드리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기 추함이 덮이기를 원하면서 그 사이에 스스로 그것을 드러내서 저마다 그것을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저마다 자기 자리에서 자기 이웃에게 해야 하듯 자기에 대해 판단해야 하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악을 정죄하고 선을 인정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좋은 다툼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CO 718 그래서 욥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대답하신다면, 땅의 모든

사람이 나를 거슬러 일어나고 내 상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져온다 해도, 나는 그것을 내놓기를 부끄러워하기는커녕 그것을 나를 꾸미는 면류관처럼 여길 것이다. 그것은 내게 장식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가 우리 무죄함을 주장하려 할 때 사람들 앞에서 우리 치욕을 감추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증인처럼 되시고 우리를 위해 대답하시는 것이라는 것도 새깁시다. 물론 욥이 말하는 이 대답은 우리가 밝힌 대로 이해됩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를 거슬러 보통의 소송처럼 들어오셔서 당신이 왜 그를 괴롭히시는지 그 까닭을 밝히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자기 소송을 주장할 수 있는 이 자유를 주신다면 모든 것이 자기에게 유리하게 끝날 것이고, 자기가 견디는 극한의 고난 때문에 자기를 거부하는 자들이 거짓말쟁이로 드러나리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가 이미 짚은 것을 봅니다. 곧 사람들 앞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아서 우리 좋은 소송을 그분 앞에 가져가고, (내가 말했듯이) 그분이 우리 보증인이 되시며 그분에 관해서 우리가 무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마음에 잘 새겨지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세상 앞에서 무죄 선고를 받을 수만 있으면 다 매한가지인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것만을 찾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업신여김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분 앞에서 언젠가 셈을 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를 물어뜯을 수 없기만을, 그리고 누가 우리를 공격하러 오면 그를 물리칠 거리를 가지기만을 바라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 앞에서 벗어났을 때 모든 것을 얻었다고 여기고, 그 사이에 그것이 우리를 더 대담하게 해서 하나님을 거슬러 그만큼 더 높아지게 합니다. 그러니 이 가르침을 생각합시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지 않는다면 세상이 우리에게 박수를 보낸 것은 초라한 삯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무엇보다 먼저 저마다 자기가 어떤지 살펴야 하고, 그것을 자기

상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자격 있는 재판관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율법과 거기 담긴 말씀에서 판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눈앞에 둘 때 하나님의 자리가 세워지게 하고, 우리가 그분이 명하시는 대로 걸었는지, 그분의 말씀에서 기울지 않았는지 잘 살핍시다. 그리고 허물이 있다면 우리 자신을 정죄하기를 배웁시다. 그 밖에 그분이 우리에게 당신께 순종하는 은혜를 베푸셨을 때, 우리 안에 많은 악이 있다 해도 우리가 이 가장 중요한 목표를 가졌다면, 세상이 우리를 정죄할 때 그분께 인정받는 이 만족을 가집시다. CO 719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받아 주시며 우리 삶이 당신께 기쁘다고 선언하시기만 하면, 세상이 우리에게 비방을 쏴우는 것이 우리를 아프게 하지 않게 합시다. 그것이 그렇게 될 때, 그렇습니다, 개들이 물 수 없다면 우리를 향해 짖게 하고, 우리 원수들이 말하는 것을 들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악한 자들인 것처럼 보이게 하라. 그 모든 것을 참고 견딥시다. 그러니 이 구절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새겨야 할 두 가지 점이 있다는 것을 봅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난 채 사람들 앞에서 우리 영광을 찾을 만큼 야망과 헛됨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느끼고, 그분 앞에서 죄가 있지 않도록 우리 양심을 잘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질 때, 곧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전함 속에 걸은 은혜를 베푸셨고 그분이 우리를 인정하신다고 확신할 때, 세상의 비방과 거짓 고발을 참고 견디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 온전함을 선언하시고 그것을 새벽빛처럼 빛나게 하실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시 37:6 참조). 그리고 그것이 둘째 점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욥이 자기를 거슬러 쓰인 책, 곧 그가 그렇게 범죄로 고발되었을 때의 소송 기록을 면류관처럼 메겠다고 말하는 것에 관해서는, 그것은 우리가 좋은 소송을 가졌다 해서 늘 사람들 앞에서 영예를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도 바울이 자기 직무에서 하나님을 충실히 섬긴 것에 관해서는 그보다 더 좋은 소송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그는 짐을 지고 거짓으로 고발당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는 무엇을 합니까? 그는 사람들이 눈멀고 무지하며 그를 부당하게 판단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날에 호소합니다(고전 4:4–5). 그는 말합니다. "나는 주의 날에 호소한다."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런 처방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자주 우리가 깎아내림을 당하고 세상이 우리를 악한 자로 여기며 우리가 치욕을 당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악인들이 너무 뻔뻔해서 함부로 험담하는 것이 그들에게 다 매한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에 그래도 우리는 고개를 들고 다니기를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보듯 선지자들이 하듯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보증인으로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주여, 내가 미혹하는 자라면 주께서 나를 미혹하셨습니다"(렘 20:7) 하고 말할 때, 그것은 사람들이 그가 백성을 속이기만 한다고 꾸짖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렇다면 나를 속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가 그렇게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 안에 어떤 속임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에게 씌운 모든 비방을 담대하게 물리치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말하라. 그분이 내 다툼을 지켜 주실 것을 나는 안다." CO 720 그리고 이사야는 자기가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더할 나위 없는 치욕과 업신여김 속에 있었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주께서 나를 위해 대답하실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사 50:7–9 참조). 그러니 우리가 짓밟히고 짓눌리며 온 세상에게 비난받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증언을 가질 때 우리는 영광의 면류관을 가지기를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자기를 거슬러 일어날 모든 비방을 뒤엎겠다고 말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아니다, 아니다, 나는 조사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이미 속으로 정죄받은 죄인처럼 오지 않을 것이다(그는 이미 자기가 저지른 악행으로 양심에서 유죄를 확신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나는 군주처럼 올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람들에게 부당하게 짓눌릴 때 그들은 자기 재판관들의 재판관입니다.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께 자기를 맡기고 그분 안에서 쉬면서, 악의와 폭력과 폭정으로 그들을 정죄하는 자들보다 더 담대하게 나선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진리의 원수들이 신자들을 화형에 처하라고 정죄하며 그렇게 하려고 휘장 친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순교자가 거기서 고문을 당하는 교수대나, 기둥을 세우고 거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불태워지는 것이 더 영예롭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왕좌를 넘어섭니다. 왕들과 군주들은 그들의 모든 재판관과 함께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자리를 자기 불의로 더럽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거기 앉아 있으니 모든 것이 더러움과 감염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자기를 거기 두신 분의 의도를 따르지 않으니, 그 자리가 그 자체로는 영예롭다 해도 그들은 그것을 치욕스럽고 가증스럽게 만듭니다. 반대로 기둥이나 교수대가 세상을 따라서는 가증스러운 것이라 해도, 오, 순교자요 하나님의 자녀가 거기에 선한 양심을 가져오고 또 그가 좋은 다툼을 위해 고난받는다면, 분명 그는 저주받은 것 같던 그 자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그러니 욥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대답하시는 은혜를 베푸신다면, 곧 자기가 자기 무죄함을 주장하고 자기 삶을 밝히도록 심리를 받는다면, 죄인처럼이 아니라 군주처럼 고개를 들고 올 것이고, 사람들이 자기를 거슬러 쓸 수 있는 모든 책을 담대하게 받아 그것을 장식이요 면류관으로 여기겠다고 말하는 데에는 까닭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곧음 속에 걷고 그분을 섬기고 공경하려 애썼을 때 우리를 위로해야 할 것도 이것입니다. 그때 세상에 배은망덕이 있고 사람들이 우리를 모욕하고 깎아내린다 해도, 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소송이 좋다고 단언할 수 있고, 우리가 CO 721 사람들 앞에서 물러났을 때에도 그 근거를 보여 줄 수 있기만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다 매한가지이게 합시다. 나머지가 그것에

맞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시다” 하고 말하는 것은 뻔뻔함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함부로 하나님을 부르지만 그 사이에 정반대가 알려지듯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한다면, 우리가 심리를 받고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 밝히고 우리에게 씌운 비방을 물리치려고 입을 열 때 세상도 우리 온전함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 밖에 우리가 그것을 가질 때,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고 그것을 실제로도 보여 줄 수 있다는 좋은 증언을 가질 때, 사람들이 우리를 거슬러 책을 쓴다 해도, 곧 그것들이 큰 산처럼 보일 만큼 많은 비난과 비방으로 깎아내림을 당한다 해도, 그것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리고 우리의 모든 기댐이 그분 안에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면류관으로 삼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방에서 우리에게 아첨하고 그것이 우리를 변명해 주는 것보다,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게 비난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는 것이 훨씬 낫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듯 세상이 자기를 인정하면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길 허락을 자기에게 주는 사람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방자해지고 온갖 악에 고삐를 풀어 주는 까닭이, 사람들이 그들을 아꼈고 그들의 모든 죄악을 못 본 체하려고 눈을 감았기 때문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보십시오, 그것이 그들 멸망의 까닭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증인이 되시고 그 사이에 온 세상이 우리를 거스르는 것이, 칭찬받고 존중받으면서 그 사이에 하늘이 우리를 거슬러 원수 갚음을 부르짖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우리는 오늘 교황이 자기 거룩함으로 얼마나 존중받는지 봅니다. 그가 괴물이요 살 입은 마귀인데도 모든 사람이 그 아래 굽히고 그에게 하나님께보다 더 큰 칭호를 돌립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그것이 그의 멸망을 점점 더 키우는 까닭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자기 모든 죄 속에서 아첨받으려고 세상을 의롭다 하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이미 말했듯이) 늘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배웁시다. 그리고 그 사이

에 그분이 우리가 사람들에게 거짓으로 정죄받도록 허락하신다면 그것을 참고 견디며, 늘 고개를 들고 다니기를 그치지 맙시다. 그 밖에 우리 모든 걸음을 센다는 말에 이어서, 우리가 어떤 범죄로 고발될 때 셈을 해 드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어떤 악을 감추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를 위해 우리가 대답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봅시다. CO 722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를 의롭다 한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감출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렇게 말한 뒤에 결론 내리려고 자기 마지막 단언을 덧붙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 땅이 나를 거슬러 부르짖었고, 내가 값을 치르지 않고 그 소산을 먹어서 그 이랑들이 울었으며, 그것을 경작한 자들이 나를 하소연하고 내가 그들을 짓눌렀다면, 내가 보리 대신 엉겅퀴를, 밀 대신 가라지를 먹기를 바란다." 그것으로 욥은 우리가 앞에서 본 것을 결론 짓습니다. 곧 그가 하나님의 손에 무겁게 괴로움을 당했다 해도,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다른 사람들보다 그가 더 엄청난 자인 것처럼 그를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말했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들을 괴롭게 하실 때 같은 분량을 지키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로 그분은 그들을 그들의 죄 때문에 벌하실 것이지만, 다른 때에는 당신의 백성을 극한의 엄격함으로 찾아오려 하실 때 고난에 대한 앎을 당신께 남겨 두십니다. 그들이 그분을 섬겼고 그분의 의에 온전히 자기를 맞추려 애썼다 해도, 그 때문에 그분이 그들에게 아주 큰 고난을 보내기를 그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지금 감추어진 것을 마지막 날에 드러내실 때까지 무엇이라 해야 할지 모를 것입니다. 그러니 욥은 사람들이 그의 삶을 그가 있는 형편에 따라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그가 겉보기에 사람들 가운데 가장 비참하다 해도 그는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려 했다고 단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는 그것을 무엇으로 보여 줍니까? 우리는 앞에서 많은 단언을 보았습니다.

보십시오, 마지막 단언이 이것입니다. 곧 그의 땅이 그를 거슬러 부르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땅에는 부르짖거나 하소연할 입도 혀도 없고, 우리에게서 어떤 모욕을 겪을 만큼 감각이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땅에 잘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땅이 말할 줄 안다 해도, 그것이 우리를 거슬러 부르짖거나 울거나 어떤 다툼을 벌일 까닭이 있다고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욥은 어떻게 자기 땅이 하소연하지 않았고 그 이랑들이 울지 않았다는 뜻으로 말합니까? 땅이 그 자체로 탄식할 까닭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이 그런 말을 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면 피조물들이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거슬러 증언하리라는 것을 우리가 더 잘, 더 격렬하게 느끼게 하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먹이려고 땅을 경작하는 불쌍한 농부들을 짓누르고, 그들에게 강탈을 쓰며, 그들의 재산을 빼앗았다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거슬러 증인이 될 뿐 아니라 그들이 경작한 땅도 와서 증언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거기에 자기 땀을 쏟았고, 그것이 그들의 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CO 723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큰 잔인함입니다. “자, 보라, 땅은 자기 편에서 자기 내장을 열었다. 하나님께서 땅이 경작되면 그 열매를 내도록 이 질서를 세우셨듯이 말이다. 그러니 땅은 자기 의무를 다했고, 마치 서로 합의가 있는 것처럼 자기 농부에게 동의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보라, 땅의 소산을 먹어치우는 구렁들이 있고, 그들은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은 뒤에 그들에게 천 가지 강탈을 한다. 농부가 하소연할 때, 자기 편에서 괴로움을 당한 것 같은 땅도 대답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성경이 그런 문체를 씁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굳음을 봅니다. 사람들이 우리 죄를 일깨우면 우리는 어떤 작은 빠져나갈 구멍을 가지면 건짐을 받은 것처럼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유죄가 드러나도 그것을 언짢아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두려운지 느낄 만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귀처럼이 아니라 완전히 굳어진

사람들처럼 찔려야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가 모루인 것처럼 돌을 치듯 세게 치실 때에도, 그분은 힘으로가 아니면 우리를 부드럽게 하거나 길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새겨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이 땅이 부르짖고 그 이랑들이 원수 갚음을 구한다고 그런 식으로 말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고집을 꾸짖으시고, 우리가 우리 죄 속에서 너무 눈멀어서 그분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우리를 이끄시지 않으면 그것을 알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신다는 것을 압시다. 이것이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깨우시려고 우리를 거슬러 그런 격렬함을 쓰시는 것을 볼 때 굳어진 채 남지 말고, 적어도 그때 우리 허물을 알고 그분 앞에서 쓰러집시다. 우리가 새겨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또 땅에서 CO 724 사람들에게로 와야 합니다. 의인은 자기 말과 소와 나귀를 돌볼 것이지만(잠 12:10), 악인들은 아무 공평 없이 자기 형제와 이웃의 생명의 재산을 먹어 치우며 그들을 괴롭힐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땅과 짐승들을 말할 때, 그것은 우리가 우리 살이요 피이며 우리와 같은 본성을 지닌 우리 이웃에게 그만큼 더 공평하게 하려는 것임을 알아봅시다. 우리가 폭정과 잔인함을 쓰려 한다면 성경에서 하는 말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곧 우리 유익을 위해 일한 자들의 삯이 우리에게 붙잡혀 있으면 하늘까지 부르짖을 것이고(약 5:4 참조), 모든 피조물이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한 잘못과 강탈을 증언할 수밖에 없으리라는 것입니다. 선지자 하박국(2:11)이 말하듯 속임수와 약탈로 지은 집의 벽들이 높고 분명하게 부르짖을 것이고, 흔히 말하듯 선창자와 화답자 노릇을 하며 양쪽에서 서로 대답할 것입니다. 하나는 "보라, 피다" 하고, 다른 하나는 "보라, 살인이다", 또 하나는 "보라, 속임수다", 또 하나는 "보라, 잔인함이다", 또 하나는 "보라, 약탈이다, 보라, 탐욕이다, 보라, 거짓 맹세다, 보라, 도둑질이다, 보라, 악의다" 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을 남용한 만큼 마지막 날에 그것들이 우리를 거슬러 원수

갚음을 구할 수밖에 없으리라는 것을 잘 새깁시다. 그러하니 그것으로 우리가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있도록 그런 양심 속에 걸으라는 경고를 받읍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과 원수 갚음을 견딜 만큼 그분 앞에서 완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이 당신의 무한한 선하심으로 우리를 받아 주시고 당신의 성령으로 우리를 이끄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셨을 은혜를 따라 우리가 선한 양심으로 그분을 섬기는 데 힘을 기울이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엎드립시다.